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txt

제목: [지평선] 젊음은 축복일까  
날짜: 201612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30050717002  
본문: 오십 줄에 접어들면 통상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다. 젊건 늙건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한 살 더 먹는 것에 막연한 슬픔이나 두려움이 느껴져 안타깝다. 해가 저물 때마다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는 우탁의 시조 ‘탄로가(嘆老歌)’가 가슴에 닿는다. 백발을 염색하고, 빠지는 머리를 가발로 감춰도 젊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조선 중기 시인 이달은 ‘대화탄로(對花歎老)’라는 시를 지었다. 꽃 가지를 흰머리에 꽂아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서글픈 내용이다.▦ ‘늙지 않는 것은 축복일까, 저주일까.’ 2015년에 개봉된 영화 ‘아델라인’은 이 주제에 근접하는 답을 준다. 자동차 사고로 숨이 멈췄다가 다시 살아난 아델라인은 100여년 동안 29세로 살아온 늙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영원한 젊음은 축복보다 재앙에 가까웠다. 사람을 피해 신분을 바꾸고 이곳 저곳 도망을 다닌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먼저 죽고, 늙어가는 딸을 지켜보는 운명으로 살아간다. 요즘 뜨는 드라마 ‘도깨비’도 936년을 살아온 불멸의 존재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끝없이 지켜봐야 하는 고통에 관한 내용이다.▦ 노화와 죽음은 자연현상이지만, 의학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늘고 있다. 네안데르탈인의 기대수명은 20세였고, 고대 로마인은 27세였다. 20세기 초 미국인도 48세였고, 최근에서야 인간의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섰다. 하지만 구글이 세운 바이오 기업 칼리코가 노화연구에 집중 투자해 인간 수명을 500세까지 연장시키는 프로젝트를 밝힌 바 있다. 암에 걸리지도 않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벌거숭이두더지쥐와 발효세균인 효모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황당한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생명 연장을 향한 목표는 창대해 보인다.▦ 동물 중에서는 대양복합조개가 450년의 장수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 세계에는 불로초(不老草)가 희망이다. 하지만 무병장수가 최선일 것이다. 문제는 나이와 행동거지가 걸맞지 않을 때다. 명기 황진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서경덕의 시조가 교훈적이다. “마음아 너는 어이 매양에 젊었는다. 내 늙을 적이면 넌들 아니 늙을소냐. 아마도 너 좇아 다니다가 남 우일까 하노라.”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황진이를 향하니 행여 실수라도 하는 날엔 우세스럽게 될까 걱정한 듯하다. 남녀 모두 신경 써야 할 것이다.조재우 논설위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txt

제목: 동아에스티, 6400억 규모 신약기술 수출  
날짜: 2016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28050659002  
본문: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 동아에스티가 미국에 5억2,500만달러(약 6,400억원) 규모의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동아에스티는 28일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을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제약기업 애브비의 자회사인 애브비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계약금 4,000만달러(약 480억원)와 개발 단계별 기술료 4억8,500만달러(5,900억원)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계약금은 올해 안에 들어올 예정이고, 기술료는 향후 개발 단계에 따라 차례로 받게 된다</span>”고 설명했다.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제품을 출시할 경우엔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로열티도 추가로 받게 된다. 국내 독점 판매권은 동아에스티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판매권은 애브비 테크놀로지가 갖기로 했다. 이번에 수출한 것은 면역항암제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다양한 후보물질들이다. 양사는 이들 중 실제 약으로 개발될 수 있는 물질을 추려내는 탐색 작업부터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실험보다도 앞선 개발 초기 단계에서 수출 계약이 이뤄진 건 제약업계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암세포 또는 암을 일으키는 생체 물질을 직접 공격하는 기존 화학항암제나 표적항암제와 달리 면역항암제는 체내 면역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몸이 스스로 암을 이겨내도록 돕는다. 기존 치료법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txt

제목: “대장암 환자, 끝까지 치료 한다”  
날짜: 2016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27050756001  
본문: [나는 외과의사다] (4) 엄준원 고대안산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대장암 말기환자 치료 위해 분투…환자안전ㆍ만족 위해 원칙에 ‘충실’대장암은 참 무서운 암이다. 발병 초기뿐만 아니라 말기에도 자각 증상이 없을 수 있다. 증상이 있다 해도 복부 불편감, 빈혈, 복통, 체중감소, 전신 쇠약감 등 일반적인 증상만 호소한다. 그래서 변비나 설사로 병원을 찾았다가 대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많다. 그야말로 사람 잡는 암이다.고대안산병원에서 대장암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엄준원(52) 대장항문외과 교수의 첫 인상은 날카로웠다. 깡마른 체구에 눈빛이 강렬했기 때문이다. “<span class='quot0'>겨울비가 내리니 기분 좀 그렇죠?</span>” 엄 교수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역시 사람은 인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엄 교수는 자존심이 강한 의사다. 수술이 잘 되지 않으면 한 달 내내 무엇이 문제였는지 고민한다. 의사 능력이 부족하면 환자 안전과 치료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너스레를 떨지 않는다. 향후 진료 스케줄을 정확히 전달한다. 수술 전에 한 말과 수술 후 한 말이 다르면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기 때문이다. 벌써 10년 전 얘기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다발성 장 천공으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병원에 실려 왔다. 수술해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은 아주 희박했다. 두 번의 수술 끝에 환자는 되살아났다.다음날 외래진료실에서 엄 교수는 다소 황당한 일을 당했다. 환자 누나가 외래진료실로 찾아와 엄 교수에게 넙죽 큰 절을 올렸기 때문이다. “환자 보호자에게 큰 절을 받을 줄 몰랐죠. 얼마나 기쁘면 저에게 큰 절을 했겠어요. 환자 보호자가 돌아간 후 외과의사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을 내 손으로 살렸으니까요. 그럴 때 보람을 느끼죠.”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해 수술하면 98%정도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장암은 증상이 명확하지 않아 3~4기에 대장암 진단을 받는 환자가 적지 않다. 엄 교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수술할 수 있으면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엄 교수는 “<span class='quot1'>대장암 말기 환자라도 의사와 환자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진단ㆍ수술ㆍ항암ㆍ호스피스까지 ‘원스톱 치료’ 엄 교수의 환자사랑은 각별하다. 그는 “<span class='quot1'>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온 환자는 어느 정도 심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우리 병원에서 처음 암 판정을 받은 환자는 정말 멘붕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1'>환자가 암에 걸린 것을 인지할 수 있게 시간을 끌면서 검사결과를 설명한다</span>”고 말했다. 환자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엄 교수의 외래 진료시간은 길기로 유명하다. 엄 교수는 “<span class='quot1'>외래 진료할 때 환자가 무엇이 불편하고 힘든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고대안산병원의 대장암치료는 환자맞춤치료를 표방하고 있다. 다학제 진료는 기본이다. 고대안산병원은 협진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환자를 진단한 후 신체검사와 영상검사(CT, MRI, PET CT)를 통해 치료법을 결정한다. 병기에 따라 점막하암의 내시경적 절제술, 최소침습수술, 항암화학요법, 항암화학방사선치료, 방사선 단독치료 등 환자맞춤치료가 이뤄진다. 엄 교수는 “<span class='quot1'>대장암 진단, 수술, 항암, 호스피스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치료를 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엄 교수가 이른바 ‘칼잡이’가 된 이유가 뭘까. 엄 교수는 “<span class='quot1'>어렸을 적 유난히 배가 아파 고생을 많이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나처럼 배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뤘다</span>”고 말했다. 엄 교수는 “<span class='quot1'>기왕이면 위장, 소장보다 대장을 맡는 것이 좋지 않나</span>”라면서 “<span class='quot1'>고대안암병원에서 대장암을 치료하는 대장(大將)으로 일하고 싶다</span>”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수술방에서 수술하는 것을 업(業)으로 삼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1'>수술을 통해 암세포를 정복하는 과정에 보람을 느낀다</span>”며 “<span class='quot1'>암세포를 정복하는 것도 좋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있어 행복하다</span>”고 말했다. 엄 교수는 외래진료, 수술로 이어지는 일상. 하지만 그는 환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늘 고민하고 있다. 엄 교수는 “<span class='quot1'>외과의사는 늘 선택해야 하는 사람</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매 순간 환자를 살리는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정말 살아있는 ‘외과의사’다.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txt

제목: [헬스 프리즘] 위ㆍ장은 스트레스의 리트머스  
날짜: 20161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26050731002  
본문: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연말연시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지만 온 나라가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허탈감과 박탈감으로 여기 저기 아프다는 사람도 많다. 스트레스의 의학적 정의는 평형상태의 위협이나 불협화음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생리적이고 행동적인 반응을 통해 원래 평형상태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위나 소장, 대장의 감염, 점막염증, 출혈 등 내부 스트레스가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는 소화액 분비나 운동 및 혈관 내 혈액 분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기능성 위장장애를 일으킨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목가슴 부분이 뭉쳐 소화가 안되거나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설사하기도 한다.그럼 이런 외부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중추신경계나 위장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은 분리돼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모든 것을 프로그램하고 우리 감정과 행동을 조절한다고 생각했던 뇌와 별도로 식도부터 위, 소장, 대장으로 이어지는 소화기는 또 하나의 작은 뇌를 형성해 수많은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자율 조절하며 필요하면 뇌와 대화한다.1980년대 새로 만들어진 ‘뇌-장관축(brain-gut axis)’이란 단어는 중추신경계 내 감정ㆍ인지를 담당하는 부위와 위장관 내 감각, 운동 등 실제 기능을 나타내는 부위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시각, 후각 등 외부 자극이나 감정, 사고 등과 같은 중추신경계에서 생기는 변화들은 위장관의 감각, 운동, 염증, 분비 등과 같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장관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자극들도 중추신경계의 통증 인지,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실제 예로 쥐의 대장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수축 운동이 뇌교의 청반 부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확인됐다. 각성이나 불안감 증가는 장 운동에 필수적인 소장의 이동성 위장관복합운동 빈도 감소와 관련이 있다. 즉 뇌-장관축은 긴밀한 상호관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본래 존재하던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생리적 자각 증상으로 우리에게 SOS를 보내는 것이다. 내가 스트레스로 인지하기 전부터 내 몸의 위와 대장이 먼저 스트레스의 리트머스처럼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밖에서 조언이나 처방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은 우리 내면과 신체와 정신 작용을 통찰하는 것이라 생각된다.몸에 해로운 담배나 술에 의존하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과 만나기보다 우리 몸을 면밀히 관찰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히 들여다 보는 것이다. 관찰을 통해 내 행동을 정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로 보인다. 즉 휴식과 적절한 운동, 조화로운 식사를 하고 금주, 금연을 생활화하는 것이다.2016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암 예방 10대 원칙’처럼 ‘하루 한 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까지는 지키기 어렵다 해도 어수선한 세밑에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이 평안한지 리트머스 역할을 하는 위와 대장을 위해서도 매우 이로운 태도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txt

제목: 박제근ㆍ임대식 한국과학상, 문건우 한국공학상  
날짜: 20161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26050656001  
본문: 박제근(51)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와 임대식(51)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가 올해의 한국과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공학상 수상자는 문건우(50)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에게 돌아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26일 이러한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과학상과 공학상은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세계 정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낸 과학자에게 주는 상으로 각각 1987년, 94년부터 시행돼왔다. 박 교수는 차세대 전자소재로 주목받는 비스무스철산화물 등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해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고, 임 교수는 성체줄기세포를 조절하는 단백질이 암 발생을 억제하는 원리를 알아냈다. 문 교수는 디스플레이와 전기자동차용 전력장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보이는 회로기술을 개발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올해 ‘젊은 과학자상’은 오성진(27) 고등과학원 수학난제연구센터 연구교수와 이성재(36)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 박문정(39) 포스텍 화학과 교수, 고재원(38)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 등 4명에게 돌아갔다. 여성과학기술자상엔 김정선(48)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최진희(47)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이향숙(53) 이화여대 수리물리과학부 교수 등 3명이 뽑혔다. 시상식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txt

제목: "부모 항암치료에도 잘 자라준 딸, 고마울 뿐이죠"  
날짜: 2016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22050829003  
본문: 남편 대장암 치료 마치자마자아내 곧바로 림프종 4기 진단지난 9월 10일 경기 안양시에 사는 이관희(37)씨는 딸 소연이 돌잔치 행사장 앞에 축의금함 대신 기부함을 설치했다. 이씨와 아내 오은주(33)씨가 각각 대장암 4기, 림프종 4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건강하고 밝게 자라준 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돌잔치에 참석한 140여명의 정성은 기부함을 가득 채웠고 이씨 부부는 이 중 365만원을 국제구호개발 비영리기구(NGO) 굿네이버스에 기부했다. 이씨는 22일 “<span class='quot0'>엄마 아빠가 모두 암과 싸우는 동안에도 소연이는 1년이라는 시간을 사랑스럽게 자라줬다</span>”며 “<span class='quot0'>내 곳간만 채우지 않고 받은 사랑을 주위에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게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에게 기부하기로 했다</span>”고 말했다.소연이는 이씨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이다. 모녀가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해 10월, 이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극심한 복통으로 찾은 병원에서 대장암 4기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젖먹이 딸을 제대로 보살필 겨를도 없이 항암치료를 시작해야 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이씨는 6개월 지난 올해 4월 ‘완전관해(암세포가 5% 미만인 상태)’ 판정을 받았다.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남편이 회복되자 이번에는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오씨에게 림프종 4기 판정이 내려졌다. 운명을 탓할 법도 했지만 부부는 딸을 오씨 어머니에게 맡기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다. 엄마 아빠가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엄마ㆍ아빠 없이 1년 지내줘 감사받은 은혜 주위에 돌려주자 결심사랑 베푸는 부모로 기억되고파”부부는 투병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큰 깨달음을 얻었다. 씩씩하게 자라는 소연이를 보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변을 살피고 사랑을 베푸는 부모로 기억되자고 다짐했다. 굿네이버스에 기부를 결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씨는 “<span class='quot0'>2014년부터 삶을 꾸리는데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소액 후원을 해왔는데 아프고 나서 관점이 싹 바뀌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내가 가진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는 신념을 갖고 딸의 첫 생일을 맞은 기쁨을 주위에 나누기로 했다</span>”고 말했다. 돌잔치 참석자들은 처음에 기부함에 축의금을 넣기를 꺼렸다고 한다. 돌 축의금도 일종의 경ㆍ조사 부조(扶助) 개념인 한국사회에서 돈을 모두 기부하면 부부가 쓸 돈이 없을까 봐 걱정이 앞서서다. 이씨는 “<span class='quot0'>외국과 달리 한국에선 특별한 날에 기부금을 모으는 일이 생소해 기부함에 돈을 넣지 않고 따로 챙겨주려는 분들이 많아 당황하기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축의금 기부가 돌잔치 취지라고 거듭 양해를 구하자 다들 흔쾌히 동의했다</span>”고 말했다. 기부금 365만원에는 딸이 살아온 365일 매일이 소중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가족을 아껴 주는 많은 이들의 기운을 받아서일까. 오씨도 최근 림프종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후유증을 다스리고 있다. 회복 경과도 좋은 편이다. 이씨는 “<span class='quot0'>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면 좋았겠지만 지인들이 딸에게 전하는 사랑 하나하나를 담아 감히 돈으로 형언할 수 없다</span>”며 밝게 웃었다. 굿네이버스는 기부금을 이씨 부부가 사는 안양지역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글ㆍ사진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txt

제목: “32년 흡연으로 구강암에 걸렸죠” 증언형 금연광고 14년 만에 방송  
날짜: 2016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22050712002  
본문: “혀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32년 흡연으로 구강암에 걸렸어요. 담배가 생각날 땐 기억하세요.”증언 형식의 금연 광고가 14년 만에 다시 전파를 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흡연으로 구강암에 걸린 임현용(55ㆍ가명)씨가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는 금연 광고를 시작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002년 고 이주일씨가 등장하는 증언 형식의 금연 광고 이후 처음</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과거와 달리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흡연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흡연 폐해를 피부로 느끼도록 기획했다</span>”고 설명했다. 임씨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span class='quot1'>어른이 됐다고 우쭐해져 멋있어 보이려 담배를 피웠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흡연을 절대 하지 않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음은 암에 걸려 혀의 일부를 잘라낸 탓에 어눌했다. 임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현실은 끔찍했다. 임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하루 한 갑 반씩 32년 간 흡연 한 후 3년 전인 52세에 담배를 끊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목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구강암 확정 판정을 받았다. “입 안에 구내염이 생겨 음식 먹기가 불편했지만 체중 유지를 위해 먹어야 한다고 해 울면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암으로 고통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흡연의 폐해로 고통 받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임씨가 출연하는 40초짜리 광고는 그의 사연을 담담하게 풀어낸 뒤 “<span class='quot1'>사람들은 금연 광고가 무섭다고 하지만 현실은 더 무섭다</span>”는 메시지를 던지며 금연할 것을 권한다. 경고그림이 붙은 담배도 23일부터 시중에 나온다. 광화문, 여의도, 고속터미널 등 서울 지역 편의점 6곳에서 우선 판매되며,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유통될 전망이다. 23일 이전에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들은 한 달 뒤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고그림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갑 면적의 30% 이상 크기로 경고문구와 함께 들어간다. 경고그림은 뇌졸중, 성기능장애, 심장질환, 폐암, 피부노화 등 흡연의 폐해를 드러내는 10가지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txt

제목: 암 발병 불안감…아스콘 공장 옆 경찰서 임시 이전  
날짜: 2016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21050713002  
본문: 경기 의왕경찰서가 23일 옛 고촌동주민센터로 임시 이전한다. 의왕경찰서는 청사 50m 인근에 아스콘 공장이 있어 악취가 심한 데다, 경찰관들이 잇따라 암 진단을 받아 불안이 가중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왕서에서는 개청 이후 7년간 경찰관 3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2명이 암을 앓고 있다.최근에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1명이 추가로 암 진단을 받았다.하지만 한국환경공단 등 공기질 역학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검출돼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경찰서가 아니라 주로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의왕서 측은 “<span class='quot0'>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수 인원만 남기고 임시 이전했다가 내년 6월 완공되는 신청사에 입주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txt

제목: 챗봇, 간단한 질문에 엉뚱한 답변… 아직은 어수룩한 인공지능  
날짜: 2016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21050748003  
본문: 농협ㆍ라이나ㆍ동부ㆍ8퍼센트 운영세제혜택 등 상품 설명은 합격점구체적 질문엔 “해당정보 없음”“더 발전시킬 과제 많아” 평가“암보험 가입하고 싶어요.”(소비자) “일반적인 보험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챗봇)“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인가요.”(소비자) “다자녀 우대금리는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챗봇)금융권에도 인공지능(AI) 바람이 거세지면서 요즘 금융사들이 일명 ‘챗봇’ 서비스를 다투어 출시하고 있다. 챗봇은 쉽게 말해 ‘고객과 채팅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로봇’의 줄임말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고객이 질문을 던지면 직원 대신 금융사가 만든 AI가 응답을 해주는 서비스 방식이다. 저마다 “혁명적인 신 기술”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20일 직접 체험해 본 챗봇들은 신기하고 기발하단 인상보단 아직은 어딘가 어수룩하다는 느낌이 강했다. 금융권에서도 “더 발전시킬 과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서비스 중인 금융권 챗봇은 NH농협은행의 ‘금융봇’, 라이나생명의 ‘챗봇’, 동부화재 ‘프로미 챗봇’, P2P업체 8퍼센트의 ‘에이다’ 등이다. 먼저 간단한 상품설명을 듣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카카오톡 기반의 농협은행 금융봇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입력하자 ‘문의하신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변들’이라며 관련 질문 5개가 채팅창에 떴다. 그 중 ‘세금우대(비과세 포함) 또는 세제지원 상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를 고르자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비과세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예탁금 등 관련 상품의 가입대상, 저축한도, 세율 등이 자세히 설명됐다. 다만 즉석 상품 가입은 불가능했다. 8퍼센트의 에이다(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묻자 P2P업체의 투자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줬다. ‘돈을 빌려주세요’란 다소 막무가내식 질문에도 에이다는 ‘대출은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직장인도, 프리랜서도 KCB(코리아크레딧뷰로) 7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개인별 한도, 금리 등은 심사 전 말씀 드리기 어렵다’는 교과서적 답변으로 응수했다.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묻자 ‘8퍼센트의 전체 수익률은 9.71%’라는 답을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질문에도 챗봇들은 동문서답이 적지 않았다. 차라리 인터넷 검색이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라이나생명 챗봇에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묻자 암보험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인 보험가입 절차들이 제시됐다. 농협은행 금융봇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알고 싶다’고 묻자 엉뚱하게도 국민주택기금대출의 다자녀가정 우대 금리를 받는 방법 등이 소개됐다.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나, 지급여력(RBC) 비율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챗봇들은 ‘해당 정보가 없다’거나 관계없는 질문으로 연결시키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나마 좋은 답변을 들으려면 아직은 소비자가 질문을 잘 해야 한다. 가령 에이다에 ‘원금손실 가능성’이라고만 입력하니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나요’라고 문장형으로 묻자 ‘P2P채권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정확한 답변을 했다. 현재까진 챗봇 서비스 별로 답변 능력의 차이도 큰 편이다. 각사에 확인한 결과, 사용자의 질문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은 에이다가 유일했고 나머지는 아직 채팅창으로 ‘자주하는 질문(FAQ)’을 검색하는 듯한 느낌이 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간단한 상품 소개나 가입ㆍ해지 방법을 알고 싶은데, 느려터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은 피하고 싶다면 한번쯤 활용해 볼만한 단계</span>”라고 촌평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0.txt

제목: 암환자 위내시경 3000원  
날짜: 2016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20050736002  
본문: 내년부터 치료 목적 또는 4대 중증질환자의 진단 목적으로 수면내시경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고 10만원대인 대장내시경 비용이 4,000원대까지 낮아지는 등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한방 병ㆍ의원에서 요통, 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행하는 추나요법(수기 교정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이 있는 환자가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수면내시경을 받으면 기존 내시경 비용뿐 아니라 마취제나 진정제를 맞고 깨어날 때까지 관리 받는 비용에도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대장내시경은 평균 6만1,000~10만3,000원이던 비용이 4,300~4,700원으로 줄고 위내시경 비용은 3,000원 정도로 내려간다. 치료용 수면내시경 시술은 모든 질환에 있어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현행 20만~30만원 수준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을 내년에 받는다면 4대 중증질환자는 6,300원, 일반 환자는 7만8,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추나요법은 내년 1월부터 60여개 한방 병ㆍ의원에서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보험 적용의 효과 및 타당성을 평가한 뒤 내후년 하반기 전면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다량의 유전자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검사에도 내년 3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장기이식 적합성 검사료, 뇌사판정비, 장기적출 수술비, 장기 이송비 등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했던 관리비용도 현행 비용(장기당 400만원 수준)의 5~10%로 낮아진다.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1.txt

제목: 40세男, 실손보험 기본형 갈아타면 月보험료 5120원 싸진다  
날짜: 2016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20050732001  
본문: 기본형ㆍ특약 분리해 의료쇼핑 차단 도수치료ㆍ주사제ㆍMRI는 특약 가입해야특약 모두 붙여도 보험료 6.8% 저렴보험금 2년 미청구땐 보험료 1년간 10%↓내년 4월 지금보다 보험료가 25% 가량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대신 도수치료나 주사제 치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치료를 보장받으려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별도의 특약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가 보험금에 기댄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쇼핑과 이를 부추기는 진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구조를 지금의 포괄적 방식에서 ‘기본형+특약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살펴봤다.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한 이유는 뭔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민영보험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 국민의 65%인 3,296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런데 지금은 보장 영역이 너무 방대하다. 도수치료, 마늘주사 등까지 모두 보장한다. 마음만 먹으면 값이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진료기관도 이를 부추긴다. 이렇다 보니 지금은 보험금 수령자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60%를 독식하고 있다. -기본형+특약 구조로 바뀐다는데. 이런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 3가지로 구분한다. 과잉진료가 심각한 도수치료는 특약1, ‘마늘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주사제 치료는 특약2, 그리고 비급여 MRI 검사는 특약3으로 나눴다. 기본형은 특약 항목을 뺀 나머지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특약 보장을 뺀 만큼 보험료도 기존 상품보다 평균 25% 싸다. 내년 4월부터는 신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특약을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가 오르나. 그렇지 않다. 40세 남자 기준으로 지금은 1만9,429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내년 4월 나오는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만4,309원으로 26% 가량 싸진다. 여기에 특약 3개를 다 가입해도 총 보험료는 1만8,102원으로 기존보다 6.8% 싸다. 정부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여러 통제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특약에 한해 자기부담비율을 기존 10~20%에서 30%로 올렸다. 매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횟수 한도도 정해진다. 도수치료를 예로 들면 이전엔 연간 180회(회당 최대 3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상품은 이를 50회로 제한하고 보장한도 역시 연간 350만원(주사제 치료는 250만원)으로 줄였다.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할인 혜택도 있다던데. 가입자간 형평을 위한 것이다. 2년간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으면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깎아준다. -다른 보험과 패키지 가입을 못한다는데. 2018년 4월부터 암보험 등에 실손보험을 특약 형태로 끼워 팔지 못하도록 했다. 비싼 암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을 해지하면 실손보험도 자동 해지돼 소비자로선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는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가.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도수치료 등 특약 이용률이 상당히 높거나 비급여 보장률이 100%인 2013년 이전 상품에 가입해 있다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보험료 측면을 고려할 때 갈아타는 게 낫다. 신상품 기본형은 특약 항목이 빠져 보험료 상승률이 낮게 설계되는 반면 기존 상품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여서 보험사들이 보험 갱신 때마다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추세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2.txt

제목: 암 생존율 70% 돌파… 82세까지 살면 암 걸릴 확률 36%  
날짜: 2016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20050627001  
본문: 갑상선암 뺀 생존율도 첫 60%대전립선암·유방암은 90% 넘어인구 10만명 당 289명 신규 발병갑상선·위·대장·폐·유방 順 많아남성 폐암, 대장암 제치고 2위로국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처음 70%를 넘어섰다. 암 발생률은 3년째 하락하며 인구 10만명당 신규 환자 수가 3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위암 대장암 줄고 폐암 췌장암 늘어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14년 암등록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새로 암에 걸린 환자는 21만7,057명으로 전년(22만7,188명) 대비 4.5%(1만131명)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신규 환자 수로 산출하는 암 발생률은 289.1명으로, 2012년(323.3명)과 2013년(314.1명)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하며 5년 만에 다시 300명 이하를 기록했다. 성별 암 발생률은 남성 312.4명, 여성 282.9명이었다. 암 종류별로는 갑상선암(14.2%) 위암(13.8%) 대장암(12.2%) 폐암(11.1%) 유방암(8.5%)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갑상선암 발생자가 전년보다 큰 폭(28.1%)으로 줄어든 게 암 발생률 하락의 주요인이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진행이 느리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기 진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가 검진비를 지원하는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도 유방암을 제외하고 발생률이 감소했다. 반면 폐암 췌장암 담낭암 등 생존율이 낮은 암들의 발생률은 증가했다. 특히 폐암은 남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순위에서 대장암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암 5년 생존율 10년 새 16%포인트 증가2014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10~2014년)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은 70.3%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처음 70%를 돌파했다. 5년 상대생존율은 암환자 예후를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로, 성별 및 연령이 같은 일반인 대비 암환자의 5년 뒤 생존 비율을 뜻한다. 암 생존율이 50%를 넘어선 2001~2005년(53.9%) 이후 10년 만에 70%를 넘어선 것이다. 성별 5년 생존율은 여성(78.2%)이 남성(62.2%)보다 높았는데, 이는 여성 암 환자 중 갑상선암 유방암 등 생존율이 높은 암에 걸린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생존율이 월등히 높은 갑상선암(100.2%)을 제외한 5년 상대생존율 역시 2013년(58.7%)보다 4.4%포인트 오른 63.1%로, 처음 60%를 넘어섰다. 전립선암(93.3%) 유방암(92.0%) 등은 90% 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2.8%) 폐암(25.1%) 췌장암(10.1%)은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았다. 국내 암 생존율은 미국 등 의료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위암(74.4%) 대장암(76.3%) 자궁경부암(79.7%)의 경우 미국의 31.3%, 66.2%, 68.8%에 비해 생존율이 최소 10%포인트 이상 높았다.82세까지 살면 암 걸릴 확률 36%전국 단위 암발생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99년부터 2014년까지 암 유병자(치료 중 또는 완치 후 생존자)는 146만4,93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인구에 대비하면 국민 35명당 1명이 암 유병자라는 뜻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명당 1명(9.6%)이 암 유병자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8명당 1명(12.9%), 여성은 14명당 1명(7.2%)이 암 유병자로 집계됐다. 암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상 생존한 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44.9%인 65만8,155명이다.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로 나타났다. 남성(기대수명 79세)은 5명 중 2명(38.7%), 여성(85세)은 3명 중 1명(33.1%)이 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3.txt

제목: [강남세브란스와 함께 하는 건강Tip] (20) 폐암, 조기 발견이 최선  
날짜: 20161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19170502001  
본문: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암이고, 사망률도 가장 높은 암이다. 재발률도 높아 조기진단과 치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Q. 폐암사망률이 왜 높은가?“완치가 가능한 조기 폐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 기침，객혈，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폐암은 초기에 수술하면 완치율이 75%를 넘는다. 최근까지 환자의 20~25% 정도만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건강 검진 증가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보편화로 수술만으로 완치되는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Q. 담배가 정말 폐암 원인인가?“담배는 디젤차 배기가스, 석면, 라돈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폐암 유발 1급 발암물질로, 타르 등 20여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보다 13배 정도 높다. 하루 2갑씩 20년간 담배를 피우면 암에 걸릴 확률이 60~70배나 높아진다. 간접 흡연도 폐암의 주 원인이다. 유전자에 다양한 변이를 일으켜 표적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폐암을 일으킨다.”Q. 폐암 진단법은? “ 검진 시 흉부 CT 촬영을 권한다. 흉부 X선 검사는 결핵이나 흉막질환를 발견하기 쉽지만 폐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폐는 대부분 공기가 차 있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도 부적절하다. 40세를 넘겼다면 남녀 모두, 특히 흡연자나 폐암 가족력이 있다면 건강검진을 할 때 흉부 CT 촬영을 권한다.” Q. 어떻게 치료하나?“폐암은 크게 비소(非小)세포폐암과 소(小)세포폐암으로 나뉜다. 비소세포폐암은 1기~3기 초에는 병소(病巢)를 포함한 폐와 림프절을 같이 제거한다. 수술 후 병기에 따라 보조 항암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수술 전 항암과 방사선 동시 요법으로 병변 크기를 줄이고 수술하기도 한다. 수술할 수 없는 3기에도 완치 목적의 항암ㆍ방사선 동시 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4기는 유전자 검사로 표적 변이가 발견된 환자에게는 표적 치료제를 쓴다. 표적 치료 대상이 아니라면 항암화학요법과 면역 검문소 억제제를 쓴다. 면역 검문소 억제제는 치료 반응률이 높고 부작용이 적지만, 가격이 비싼 게 흠이다. 폐암의 15~20%를 차지하는 소세포폐암은 암세포 증식이 빠르고 발견했을 때 여러 곳에 전이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술보다 항암ㆍ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게 효과적이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4.txt

제목: [뒤끝뉴스] 부산영화제가 '판도라' 만들었다?  
날짜: 2016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16050646002  
본문: 겨울 극장가 영화 ‘판도라’의 흥행이 눈에 띕니다. 지난 7일 개봉해 15일까지 212만7,356명(영화진흥위원회 집계)을 모았습니다. 개봉 뒤 9일 연속 일일 흥행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흥행세를 유지하고 있어 다음주 또 다른 겨울 화제작 ‘마스터’가 개봉(21일)하기까지는 흥행 가도에 큰 걸림돌이 없을 듯합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국가적 재난을 소재로 한국사회의 고질을 되짚고 인간애의 가치를 새삼 부각시킨 점이 흥행몰이의 요인으로 꼽힙니다.100억원대의 제작비가 투입되고 김남길 김영애 문정희 등이 출연한 상업영화 ‘판도라’의 제작사는 CAC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영화인들에게도 좀 낯선 이름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설립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았고, 한국영화 제작은 ‘판도라’가 처음이니까요.CAC엔터테인먼트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산영화제가 2013년 2억원을 출자하며 회사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부산영화제에 소개하려 하거나 소개된 영화들의 한국 개봉을 돕는 게 주요 설립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부산영화제에 초청된 영화 중 상당수는 빼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흥행 가능성이 낮아 국내 개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개봉 통로가 확보되면 해외 수작들이 부산영화제를 더 찾게 될 테니 영화제 입장에선 꼭 필요한 회사입니다. 좋은 영화가 흥행까지 된다면 부산영화제 살림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했습니다. 영화사도 기업이다 보니 돈 되는 사업을 찾았고 자연스레 영화 제작까지 겸하게 됐습니다. 부산영화제가 CAC엔터테인먼트의 지분 37%를 보유하고 있으니 부산영화제가 ‘판도라’ 제작에 관여돼 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CAC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칸국제영화제 최우수여자배우상(베레니스 베조)을 수상한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를 비롯해 ‘그랜드 센트럴’, ‘커밍 홈’을 수입했습니다. 세 편 모두 부산영화제에서 상영된 작품들입니다. 세 영화 중 ‘그랜드 센트럴’을 주목할 만합니다. 프랑스의 젊은 스타 레아 세이두가 출연하는 이 영화는 원자력발전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일을 하다가 방사능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고통,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에 불안해 하는 인물들의 정신적 방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전의 위험성을 깨닫게 됩니다. 방사능에 잠시 노출된 여성 노동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삭발을 하고 시간이 흐른 뒤 암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장면 등으로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우연하게도 ‘그랜드 센트럴’이 품고 있는 소재와 메시지는 ‘판도라’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영화는 여러모로 유사하나 ‘그랜드 센트럴’의 영향으로 ‘판도라’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판도라’의 박정우 감독은 2012년부터 영화를 준비해 왔고, ‘그랜드 센트럴’은 2013년 만들어졌습니다.부산영화제는 CAC엔터테인먼트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 벨’의 상영 여부를 두고 시작된 이른바 ‘부산영화제 사태’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국고 지원과 기업 후원이 줄어드는 등 안팎의 여러 변수 때문에 부산영화제 입장에선 여러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영화제가 씨를 뿌린 격이라 할 수 있는 ‘판도라’의 흥행을 보면서 뒷맛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5.txt

제목: “임상시험 기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 현장서 왜 안 지켜지나 점검할 때”  
날짜: 2016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16050841001  
본문: “임상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최선의 치료로 사망률이 30%라고 할 때, 새로운 치료로 이를 20%로 낮출 수 있으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기까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희생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15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권순억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 소장(신경과 교수)을 만났다. 임상연구보호센터는 임상연구 윤리성 확보, 대상자 권익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곳.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시험에 참여했는지, 임상시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의 중요성은 한미약품 폐암치료제 올리타정 부작용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2011년 503건, 2012년 670건, 지난해 675건 등 증가 추세여서 임상시험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권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 안전에 관한 모니터링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참여자들도 생기는 것이고 결국 좋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선(善)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권 소장은 한미약품 사태 후속조치들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예컨대 사망 등 중대 이상반응이 있을 때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것을 의무화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말기 암 환자인 상태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이들은 시한부인 경우가 많아서 임상시험과 관련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발의된 법은 항암제 임상시험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요. 물론 사망과 약물과의 관련성이 밝혀졌을 땐 다른 이야기지만요.”그는 법을 만드는 일보다 규정대로 잘 지켜지는지 관리 감독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span class='quot1'>임상시험과 관련된 법은 이미 선진국 수준</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보고 누락 등 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를 따져야 할 때</span>”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임상시험 비용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절반도 안됩니다.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회피하면 선진화할 수 없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병원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대상자 보호 기능을 병행하고 있지만, 아산병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임상연구보호센터를 따로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 2013년과 올해 임상연구 분야 인증평가의 세계적 권위기관인 미국임상연구피험자보호인증협회(AAHRPP)로부터 전면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5월 병원으로서는 처음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기관에 지정되기도 했다. 권 소장은 “<span class='quot1'>정부 정책이나 법안이 만들어질 때 제약사 의견만 반영되면 환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span>”라며 “<span class='quot1'>같은 분야의 전문가 모임을 꾸려 정부 정책이나 법안 마련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싶다</span>”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6.txt

제목: 핑크리본, 희망가게 지원 ‘아름다운 변화’ 이끌어  
날짜: 2016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16050831002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1945년 창립 이래, 인류 공헌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화장품 및 녹차 산업을 이끌어 왔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다.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MAKEUP YOUR LIFE’라는 슬로건 하에 나눔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화장품업계 1위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앞장서 온 ㈜아모레퍼시픽의 노력을 보여 준다 할 수 있다.㈜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활동은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후원하는 부문과 직접 참여하는 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2008년부터 시작된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변화와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환우들이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2015년까지 총 10,029명 여성 암환우 및 3,336명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함으로써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캠페인은 서울 및 전국 주요 지역 35개 병원, 1,500여 명 환우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며, 500여 명의 아모레 카운셀러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하여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하고, 유방건강 의식향상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유방건강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기 몸에 대한 관심과 건강을 돌보는 습관 형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2001년부터 지난 15년간 약 52만 명이 핑크리본캠페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여성 건강을 위한 대표적인 캠페인으로 자리잡고 있다.㈜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희망가게’는 저소득 한 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도와 자활과 자립을 통한 빈곤탈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 사업이다. 음식점, 미장원, 개인택시, 매점, 세차장, 천연비누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창업을 지원해 모자가정이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힘쓰는 희망가게는 2004년 1호점 개설 이래 100호점(2011년), 200호점(2013년)을 거쳐 2016년 10월 말 기준 총 291개 매장이 개설되었다. 희망가게를 통해 자립에 성공한 가족 구성원은 770명(자녀 포함)에 이른다.아모레퍼시픽 ‘GREENCYCLE(그린사이클)’ 캠페인은 환경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공병수거 캠페인 등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 왔던 아모레퍼시픽의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화장품 공병을 통한 다양한 업사이클링(upcycling)과 리사이클링(recycling) 활동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2009년 이후 누적 공병 수거량은 총 1,179톤이며, 이를 통해 저감한 이산화탄소량은 1,511톤으로, 어린 소나무 13,603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7.txt

제목: “간이식, 생명 살리는 숭고한 작업”  
날짜: 2016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12050729002  
본문: 이식 불가능한 간이식 성공… 분할ㆍ소아 간이식도 ‘고대구로병원은 최근 뇌종양으로 사망한 김모씨에게서 장기를 기증받아 최상용 일반외과 교수의 집도로 급성 간염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발표했다.’ 1994년 4월 한 경제지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김동식(46) 고대안암병원 간담췌외과 교수는 당시 고려대 의대를 다니고 있었다. 김 교수는 당시 이 기사를 보고 사람을 살리는 외과를 택하고 싶었다. 김 교수의 의료인생은 이렇게 시작됐다. 뇌사자 간을 기증받아 간암 등 간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간이식 수술은 그야말로 고난도 수술이다. 간암 환자 대부분은 일반인보다 응고 기능이 떨어져 수술이 힘들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정상인의 응고 기능 수치가 100이라면 간암 환자는 20에 불과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예후를 보장할 수 없다</span>”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술하는 데에만 8시간이 걸리는 고단한 간이식 수술을 매년 250~300건 시행하고 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가 건강해져 사회에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분할 간이식 등 고난도 수술 성공 뇌사자 간이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간기능자는 간이식 대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김 교수는 기증받은 뇌사자의 간을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2011년 다른 병원에서 이식이 불가능하다며 버려질 뻔한 뇌사자 간을 이식하는데 성공한 사례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혈액형이 다른 환자의 혈액부적합 간이식도 성공했다. 여기에 한 뇌사자 간을 수혜자에게 나눠 이식하는 분할 간이식과 소아 간이식도 시행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국내 간이식 대기자는 6,000여 명이나 되지만 올해 간이식 건수는 460건에 불과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더 많은 환자에게 간이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한번 하기도 힘든 펠로우 과정을 한국과 미국에서 두 번이나 거쳤다. 김 교수는 간이식 분야 세계적 명의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 석좌교수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06년 미국 신시네티대 의대 이식센터에서 펠로우 생활을 한 번 더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미국 의사보다 수술을 잘할 자신이 있어 미국행을 택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센터에서 이식뿐만 아니라 췌장, 신장이식, 복강경 수술 등 다양한 분야를 익힌 것이 도움이 됐다</span>”고 말했다. 그가 분할 간이식 등 다양한 간이식에 도전해 성공을 거둔 이유가 있었다. 김 교수는 미국이식외과의사협회(ASTS) 정회원이다. ASTS 정회원은 미국에서 정식으로 이식외과 교육과정을 마친 외과의사만 될 수 있다. 국내 외과의사 중 ASTS 정회원은 극소수다. 간이식에 대해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췄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시네티대 의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교수가 됐지만 모교의 부름에 한국행을 선택할 만큼 김 교수의 모교사랑은 깊다. 간이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고대안암병원에 자리를 잡은 것도 병원발전을 위해서였다. 김 교수는 간이식 전문팀을 구축해 안암병원을 국내를 대표하는 간이식 전문병원으로 성장시켰다. 최근 고대의료원 산하 안암ㆍ구로ㆍ안산병원 간이식 환자를 통합 관리하는 ‘간이식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간이식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치료수준을 높일 것</span>”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간 수술 후 발생하는 간 기능 부전을 예방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span class='quot0'>시대 변해도 환자, 외과의사 손길 필요</span>” 김 교수는 환자들에게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의사이지만 후학들에게는 무서운 교수로 소문나 있다. 김 교수도 “<span class='quot0'>전공의들을 많이 혼내는 것은 사실</span>”이라고 시인했다. 스스로 ‘덕장’을 포기한 이유는 뭘까.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인기 없는 외과를 지원했다면 그래도 소신 있는 이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들을 유능한 외과의사로 양성하는 것이 제 임무</span>”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외과의사들은 병원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현장에 서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이 과정을 즐겨야 진정한 외과의사가 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후배들이 환자들에게 위로 받고 힘을 얻는 외과의사가 되길 바란다</span>”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로 암을 치료하는 시대가 됐지만 외과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span class='quot1'>인공지능 컴퓨터가 뛰어나도 컴퓨터를 조정하는 것은 사람이고, 시대가 변해도 환자는 의사 손길이 필요할 것</span>”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1주일에 이틀은 외래 진료하고, 사흘은 꼬박 수술실에서 보내야 하는 김 교수. 그는 “<span class='quot1'>아내가 내 안부를 급여통장으로 확인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아내가 결혼한 게 아니라 하숙을 치고 있다고 말할 때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외과의사가 된 것을 만족한다</span>”고 말했다. 천상 외과의사다.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8.txt

제목: [헬스 파일]  
날짜: 2016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12050728001  
본문: 서울대병원, 척추혈관질환 강좌서울대병원은 20일 오후 5시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척추혈관질환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강좌에서는 ▦척추혈관질환의 자연 경과 및 증상, 신경학적 검사(신경과 김성민 교수) ▦척추혈관질환의 영상의학적 진단(영상의학과 유노을 교수) ▦척추혈관질환의 수술적 치료(신경외과 정천기 교수) 등이 강의된다. (02)2072-0077이대목동병원, 조산예방치료센터 열어이대목동병원은 조산을 예방하고 전문 치료하기 위한 조산예방치료센터(김영주 산부인과 교수)를 열었다. 조산은 임신 37주 이전 출산하는 것으로, 전체 임신의 10% 정도 차지한다. 센터는 임신부의 임신 주수, 태아 수와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 개인별 상황에 맞게 자궁경부 봉축술이나 프로게스테론 요법, 기대 요법 등을 선택해 집중 치료한다.김안과병원, 쌍꺼풀수술 강좌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은 15일 오후 3시30분 명곡홀(망막병원 7층)에서 '쌍꺼풀수술'을 주제로 ‘해피 eye 눈 건강 강좌’를 연다. 강좌는 성형안과센터 이정혜 교수가 쌍꺼풀수술 개념과 다양한 방법을 강의한다. 종근당, 생약변비약 ‘생유’ 내놔종근당이 생약성분 변비약 ‘생유’를 출시했다. 생유는 대황, 감초의 이중작용으로 변비에 효과가 뛰어나다. 생유는 타원형의 정제로 복용 시 목 넘김이 부드럽고 1일 1정 용법으로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생유는 복통과 설사 등 부작용을 개선했다</span>”고 했다.아주대병원, 제4세대 수술용 로봇 도입아주대병원이 제4세대 수술용 로봇 ‘다빈치 Xi’ 모델을 도입,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4세대 Xi 시스템은 기존 모델보다 기능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기존 시스템에서 기술적 한계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림프절제술이 필요한 고난이 암수술뿐만 아니라 복잡한 최소침습 수술에?적용 가능하다. 다빈치 Xi는 4개의 로봇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기존 149도에서 177도로 커져 로봇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도 더 넓은 부위를 수술할 수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9.txt

제목: [애니팩트] 간접흡연은 사람보다 반려동물에게 더 해롭다  
날짜: 2016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12050551001  
본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간접 흡연이 당신의 반려동물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관련 내용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 정리한 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연구결과들은 반려동물이 인간보다 간접흡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반려동물은 사람이 피운 담배 연기를 마시는 2차 흡연뿐 아니라 마루나 가구, 반려인의 옷과 반려동물의 털 등에 남은 잔류물질을 통한 3차 흡연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입을 통해 수시로 털과 가죽을 손질하는 습관 때문에 구강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고, 후각이 발달한 개의 경우는 담배를 통해 코(鼻)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개, 고양이뿐 아니라 새와 금붕어, 햄스터 등 흡연자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도 간접흡연에 취약하다고 하네요. ▶동그람이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애니팩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0.txt

제목: [사람&사람] 복무 급여 몽땅 털어 소아암 재단에 기부한 이현구 수경  
날짜: 2016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08050848003  
본문: “<span class='quot0'>전역을 한 뒤 건강해진 시훈(가명ㆍ6)이를 꼭 다시 보고 싶어요</span>” 정부대전청사경비대에서 복무 중인 이현구(23) 수경은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복학할 때 등록금으로 쓰려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던 급여 350만원을 (사)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암세포가 눈으로 번져 고통 받고 있는 시훈이의 수술비에 보태 달라고 했다. 시훈이는 암세포가 눈을 덮쳐 이미 한 쪽 눈을 실명한 상태. 나머지 한 쪽 눈이라도 살리기 위해 수술을 앞두고 있다. 이 수경은 얼마 전 소아암재단에서 기부금을 내는 날 시훈이와 그 가족을 만났다. 막상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갈수록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팠다. 이 수경은 인터넷으로 봉사활동을 할 만 걸 찾다가 우연히 시훈이의 사연을 접한 뒤 사실 며칠 동안 고민했다. 제대를 두 달 여 남겨 놓은 그에게 복학할 때 등록금으로 쓰려던 돈을 탈탈 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결국 그 동안 모은 급여와 입대 전 갖고 있던 돈까지 몽땅 모아 시훈이를 돕기로 했다. 그는 “내년 2월 20일 전역을 앞두고 부모님의 학비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했는데 시훈이가 계속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지금 (기부)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평소에도 봉사와 기부를 꾸준히 해 왔다. 입대 후 매달 급여의 10% 정도를 초록우산재단에 기부해 오고 있다. 정기 외출 때마다 초록우산재단이 주최하는 여러 봉사활동도 했다. 대학(연세대)을 다닐 때는 공부 노하우를 전하는 멘토링 활동도 했다. 복학하면 당연히 다시 할 생각이다. 그는 “솔직히 나 좋으려고 하는 거다. 가끔 자존감이 낮아져 남몰래 힘들었는데 봉사와 기부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 베풀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자존감도 회복됐다”고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전역한 뒤 곧바로 복학을 해야 해 바쁘겠지만 수술을 잘 받아 환하게 웃는 시훈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청사경비대 2소대에 소속된 이 수경은 늘 솔선수범하는 등 복무생활도 모범적이라고 부대원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10월에는 제71주년 경찰의 날에 대전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청사경비대 신원준 2소대장(경위)은 “<span class='quot1'>이 수경은 평소 자기관리와 개발에 노력하고, 선임 및 후임들과도 아주 잘 어울리며 부대 분위기를 밝히는 모범적인 의경</span>”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1.txt

제목: ‘비만의 역설’ 마른 사람이 사망 위험 높아  
날짜: 2016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08050705002  
본문: 마른 사람(저체중)이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사람보다 사망위험이 높아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통 저체중에 해당하는 마른 사람은 정상체중을 넘어선 과체중, 비만인 뚱뚱한 사람보다 건강하다고 여겨지지만, 반대의 연구결과. ‘비만의 역설’이다.성기철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교수팀은 2002~2013년 건강검진을 받은 16만2,194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순환기내과’(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 최근호에 발표됐다.성 교수팀은 대상자를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구분하고 전체 사망률과 암 사망률,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평균 4.9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저체중은 비만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BMI가 18.5㎏/㎡ 미만일 때다. BMI는 몸무게(㎏)를 키(ｍ)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정상체중(18.5~22.9㎏/㎡), 과체중(23~24.9㎏/㎡), 비만(25㎏/㎡ 이상)으로 구분된다.이 과정에서 BMI 외에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基底)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고 성별, 나이, 흡연상태, 교육수준 등 변수가 반영되지 않도록 보정하는 작업을 거쳤다.그 결과 정상체중에 비해 저체중인 사람의 사망률은 늘고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의 사망률은 줄어들었다.저체중인 사람의 전체 사망률은 정상체중인 사람보다 53% 늘었고,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의 사망률은 정상체중보다 23%가량 줄었다.이런 결과는 암, 심혈관질환과 같은 질병에 의한 사망률에서도 마찬가지였다.저체중인 사람은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정상체중보다 34%, 암 사망률은 21% 늘었지만,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사람은 정상체중일 때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성 교수는 “최근 비만하면 건강을 해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체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등한시한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마른 사람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으로 뚱뚱한 사람보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2.txt

제목: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감독 “강간 논란은 오해”  
날짜: 2016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06141433001  
본문: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가 최근 불거진 ‘협의 없는 강간 장면’ 논란이 터무니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베루톨루치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span class='quot0'>전세계적으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어져서, 오해를 직접 해명하고자 나서게 됐다</span>”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0'>몇 년 전 (프랑스 파리)시네마테크 프랑세즈의 누군가가 내게 그 유명한 ‘버터 장면’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나와 말론 브란도가 마리아에게 버터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아마도 분명하지는 않았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베르톨루치 감독은 논란이 된 ‘버터 장면’에 대해 당시 마리아 슈나이더에게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우리는 그런 부적절한 (버터의)사용에 대해 마리아가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했는데 여기서 오해가 비롯됐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리고 제가 많은 시간이 흐르고 알게 된 것처럼, 바로 그것이 마리아를 괴롭혔다</span>”고 덧붙였다.하지만 베르톨루치 감독은 대본에 없던 새로운 사실은 오직 버터를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뿐이었다고 항변했다. 여주인공 슈나이더 역시 대본을 미리 받아보았기 때문에 강간 장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span class='quot0'>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강간 장면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마리아도 해당 장면이 묘사되어있던 대본을 미리 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span>”고 말했다. 앞서 베르톨루치 감독은 2013년 한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뒤늦게 회자되며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48세였던 말론 브란도가 19세였던 슈나이더와 함께 한 영화 속 성애장면이 실제 강간이었다는 논란이 널리 퍼지며 거센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베르톨루치 감독은 “<span class='quot1'>영화 속 성폭행 장면을 슈나이더에게 미리 밝히지 않고 브란도와 합의하여 촬영했다</span>”며 “<span class='quot1'>배우가 아닌 소녀로서 강간의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영화에 담기 위한 의도였다</span>”고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1'>유감이지만 이 장면을 찍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1'>슈나이더는 평생 나를 증오했다</span>”고 덧붙였다.지난 2011년 암으로 별세한 슈나이더는 이 장면으로 인한 고통과 분노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7년 영국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모욕감을 느꼈고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말론과 베르톨루치 두 사람에 의해 성폭행 당한 느낌이 조금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 장면을 찍은 뒤에 말론은 나를 위로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span>”고 밝혔다.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할리우드 배우들을 중심으로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베르톨루치 감독과 브란도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일부는 아카데미영화상 작품상(‘마지막 황제’) 등 베르톨루치의 이전 수상 들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배우 제시카 채스테인은 해당 장면이 19살의 어린 여성을 향한 계획된 성적 공격이었다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자신의 계정에 “토할 것 같다”는 반응을 남겼다. 배우 제나 피셔는 “<span class='quot2'>모든 영화 필름을 수거해 폐기처분해야 마땅하다</span>”고 밝히기도 했다.최유경 인턴기자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3)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3.txt

제목: "의료가방 가진 외부인사, 청와대 관저 출입 사례 있다"  
날짜: 20161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06050826003  
본문: ‘의료가방’을 든 외부 인사가 청와대 제2부속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관저로 출입한 사례가 있다고 청와대 경호처가 처음으로 시인했다.청와대 경호처는 5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대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span class='quot0'>VIP(대통령)가 원해 부속실을 거쳐 관저에 들어간 사람인 ‘보안손님’의 경우, 경호처의 검문검색을 거친 뒤 일시와 지참물을 적는 장부가 존재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의료가방’이라고 기재된 관저 출입기록을 직접 확인했다</span>”고 말했다.경호처가 이날 공개한 ‘의료가방’으로 기재된 관저 출입기록의 일시는 세월호 참사 당일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출입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는 7일로 예정된 청문회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혀 최씨 없는 청문회가 불가피해졌다. 국회에 따르면 최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언니 순득(64)씨, 그의 딸 장시호(37ㆍ구속)씨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원오(64)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도 암 투병 중이라며 불출석을 통보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한 그 일가가 청문회 출석을 안 하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고발돼 최고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최씨가 실형을 감수하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로 청문회에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파악에 어려워져, 청문회가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4.txt

제목: “과체중 환자, 저체중보다 위암 수술 후 오래 산다”  
날짜: 2016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05050820001  
본문: 몸무게가 적을수록 위암 수술 후 사망할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체중인 사람이 저체중인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비만의 역설’을 증명한 또 하나의 연구사례다.김범진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이 같은 내용의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위암수술 후 예후를 비교한 연구논문을 내놨다. 이번 연구논문은 세계적 저널인 ‘영양과 암(Nutrition And Cancer)’ 최신호에 실렸다.김 교수는 2005년 1월~2010년 12월 중앙대병원에서 진행성 위암 2ㆍ3기로 수술 받은 환자 211명을 BMI에 따라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구분했다. 이어 고BMI군(BMI≥23㎏/㎡) 111명과 저BMI군(BMI<23㎏/㎡) 100명으로 다시 분류한 뒤 두 환자군 생존율과 암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저체중군이 정상ㆍ과체중ㆍ비만군보다 5년 생존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암사망률은 저BMI군이 27%, 고BMI군이 12.7%로 저체중일수록 위암 수술 후 사망위험이 높았다.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환자의 BMI가 진행성 위암 수술 후 장기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수술 후에는 후유증과 항암치료 등으로 심각한 영양장애가 발생하므로 수술 전 적절한 BMI를 유지해야 수술 후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이 같은 결과는 과체중인 사람이 저체중인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비만의 역설’ 이론을 증명한 예라고 할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5.txt

제목: “유방암ㆍ성형 수술 동시에… 환자들 심리적 안정 되찾아”  
날짜: 2016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05050818001  
본문: 유방즉시재건술 10여년 前 도입환자에 치료 과정 세세히 설명수술 적정성 평가서 2년째 1등급“좋은 병원만 찾다 수개월 대기수술 후 관리 위해서라도자신에 맞는 의료기관 선택해야”유방즉시재건술로 유방암 치료의 전기를 마련한 손길수 고대안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 고대의료원 제공 매년 전공의 모집에 외과는 미달사태를 빚기 일쑤다. 하지만 의료 최전선에 서 있는 외과의사는 여전히 최고의 의사로 꼽힌다. 한국일보는 고려대의료원과 공동으로 오늘도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외과의사를 소개하는 ‘나는 외과의사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손길수(55) 고대안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대기시간이 길기로 유명하다. 손 교수가 오랫동안 환자와 상담하기 때문이다. 환자 만족도는 높지만 손 교수와 일하는 직원들 입이 삐죽 나올 수밖에 없다. 제때 퇴근도 하지 못해서다.“솔직히 우리 병원이 서울의 대형병원처럼 환자가 많지 않아 시간을 들여 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상대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손 교수가 대기시간이 길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유방암은 참 고약한 암이다.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병하기에 수술법도 복잡하다. 그래서 손 교수는 환자상태는 물론 수술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치료과정을 환자에게 빠짐없이 설명한다. 환자에게 딱 맞는 ‘맞춤수술’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환자만족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고대안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유방암수술 적정성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암ㆍ성형 동시 수술하는 유방즉시재건술 도입손 교수는 유방암수술과 동시에 유방을 재건하는 ‘유방즉시재건술’을 10여 년 전인 2000년대 초반에 도입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과거에는 유방암환자의 70~80%는 가슴을 도려냈다. 가슴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근육과 임파선까지 제거했다. 유방암수술 후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방즉시재건술로 여성에게 민감할 수 있는 유방 부위를 수술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 성형해 미용효과는 물론 심리적 안정까지 꾀할 수 있게 했다. 유방즉시재건술은 유방내분비외과와 성형외과 협진이 생명이다. 유방암수술과 유방재건성형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유방암수술 후 유방보형물 삽입수술을 할 수 있지만 손 교수는 유방즉시재건술이 가능하다면 이 수술을 권한다.손 교수는 “<span class='quot0'>보형물 삽입수술이 유방즉시재건술보다 쉽지만 유방암수술을 한 후 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하고, 일반 가슴성형과 달리 암수술 후 보형물을 넣으면 미관상 좋지 않아 수술 후 여성 삶의 질이 떨어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유방암ㆍ성형수술을 동시에 진행해 수술시간을 3시간 정도 단축했다</span>”고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우리 병원에서 유방즉시재건술이 활성화된 것은 고난도 수술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덕분</span>”이라고 공을 돌렸다.수술 후 관리 가능한 병원 선택해야 손 교수는 유방암환자의 경우 병원 규모, 유명세보다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아내가 유방암에 걸리면 남편 등 가족들이 미안한 마음에 최고 병원을 찾지만 6개월 이상 대기하다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국내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들은 표준화된 치료를 하기에 교통, 경제 상황, 수술 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손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은 수술이 기본 치료이지만 수술 후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내분비(항호르몬)요법, 표적치료 등 보조치료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 후 관리를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맞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span>”고 거듭 강조했다. 초경이 빨라지고,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출산을 꺼리는 등 여성 삶이 변화되면서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 인구 10만 명 당 유방암 진료인원은 207명이었지만 2015년 280명으로 늘었다. 손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에서는 40~60대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 이들은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연간 180건 이상 유방암수술을 책임지고 있는 손 교수는 인기 없는 외과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span class='quot0'>인기 없는 과이지만 그때는 돈 생각을 하지 않고 환자 살리는 일을 하면 보람 있을 것 같아 선택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후배들에게는 자신 있게 권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span>”이라고 말했다. 세상에 환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치료는 없지만 손 교수는 자신을 찾아온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다. 외래진료나 수술을 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느냐는 물음에 “외래보고, 수술하고, 회진 돌고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내 하루의 전부”라며 “시간을 최대한 쪼개 진료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나가면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우문현답이다.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손길수 교수는? -고대안산병원 외과 과장 겸 유방내분비외과 분과장-고대안산병원 암센터장-한국유방암학회 상임이사-미국 펜실베니아대병원 외과 교수 역임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6.txt

제목: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감독 성애장면 실제 성폭행 고백  
날짜: 2016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05050722002  
본문: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영화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가 연출하고 말론 브란도가 주연한 1972년 작품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가 개봉 40여년이 지나 배우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48세였던 브란도가 19세 신인 마리아 슈나이더와 함께한 영화 속 유명한 성애장면이 슈나이더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상 성폭행이란 베르톨루치 감독의 2013년 인터뷰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널리 공개되면서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르톨루치는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슈나이더에게 미리 밝히지 않고 브란도와 함께 촬영 당일 아침 떠오른 아이디어에 따라 버터스틱을 사용한 성추행 장면을 찍기로 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배우가 아닌 소녀로서 강간의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필름에 담기 위한 의도였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유감이지만 배우가 동의하지 않은 이 장면을 촬영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슈나이더는 평생 동안 나를 증오했다</span>”고 덧붙였다. 슈나이더는 이 영화로 스타의 반열에 올랐지만 이후 약물에 의존하며 수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나락으로 떨어졌다. 201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슈나이더는 2007년 영국 데일리 메일과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이 영화 촬영 당시 상대역과 감독에게 강간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span>”고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1'>대본에 없던 내용을 촬영 직전에 강요당해 너무 화가 났다</span>”라며 “<span class='quot1'>매니저나 변호사를 현장에 불렀어야 했는데 그런 걸 너무 어려 알 수가 없었다</span>”고 회상했다.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회자되자 할리우드 배우들을 중심으로 영화와 베르톨루치 감독, 그리고 브란도(2004년 별세)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출연한 배우 제시카 차스테인은 트위터에 “<span class='quot2'>감독은 슈나이더에 대한 성적인 공격을 계획한 것과 다름없다</span>”고 밝혔으며, 배우 제나 피셔는 “<span class='quot2'>이 영화의 필름을 모두 수거해 즉시 폐기처분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7.txt

제목: ‘영생의 비밀’ 찾는 실리콘밸리  
날짜: 2016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05050715003  
본문: 트럼프 당선 베팅했던 피터 틸 유전공학에 수천만 달러 투지 수명 연장ㆍ불멸 기술 연구 앞장 “인간 생명 500세까지 연장 가능” DNA재조합ㆍ나노로봇ㆍ줄기세포에 뇌 기억 컴퓨터 이식 방법도 고려“사회 역동성 해쳐 인류에 재앙”“최대 수명 115세” 연구 결과도 실현 가능성에 다양한 반론 봇물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민주당의 철옹성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미국 첨단기술력의 상징인 실리콘밸리 사람들도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에 섰다. 그러나 지난 달 8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페이 팔’의 공동창업자로 페이스북 이사인 피터 틸은 미소를 지었다. 실리콘밸리 거부 중에 유일하게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는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찬조연설을 했고 후원금 125만 달러도 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pan class='quot0'>트럼프의 예상을 뒤집는 승리는 틸의 베팅 능력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됐다</span>”고 평가했다. 22억달러(2조5,000억원)의 자산가인 틸은 이전에도 에어비앤비, 스포티파이 등의 초기 투자에 관여해 엄청난 이익을 거뒀다.이런 투자의 귀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또 다른 분야가 있다. 바로 ‘영생(永生) 기술’이다. 그가 이끄는 벤처투자회사 ‘파운더스 펀드’는 단기적으로는 수명 연장, 장기적으로 불멸을 추구하는 SENS 등 유전공학 회사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영생불멸의 욕망은 이전부터 있었다.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997년 한 TV프로그램에 출연, “150살까지 살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 진시황은 불로장생(不老長生)의 영약을 얻기 위해 서시(徐市) 일행을 한라산까지 보냈고, 서양에서도 15세기 교황 이노센트 8세는 어린 소년 3명의 피를 마셨다. 이들 모두 고인이 됐기 때문에 영생은 거부(巨富)나 권력자의 허황된 욕망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인류가 이룩한 기술혁신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서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 영생에 도전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기술(IT) 혁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쥔 실리콘밸리의 40, 50대 기업가들이다. 이들은 IT기술만 접목하면 현재 의료기술 수준으로도 평균 수명 100세 이상이 가능하고 믿는다. 또 뇌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나노기술에 그들이 쌓은 부를 투입해 영생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다. 소프트웨어 거물 래리 엘리슨은 “<span class='quot1'>죽음을 ‘피할 수 없는’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span>”고 말한다. 빌 마리스 전 구글벤처스 최고경영자(CEO)도 “<span class='quot2'>인간 수명을 500세까지 늘릴 수 있으며, 영생을 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span>”는 입장이다. 영국의 수명연장 전문가 오브리 드 그레이는 “<span class='quot2'>이미 1,000년 수명을 누리게 될 아이가 지구상에 태어났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골동품 자동차처럼 적절하게 관리하면 영원히 우리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span>”고 주장하고 있다. IT거부들의 자금이 쏟아지는 대표적 분야는 ‘유전자(DNA) 재조합’이다. 구글이 ‘수명연장 연구’를 위해 만든 ‘캘리포니아 생명회사’는 신시아 케넌 박사를 영입했다. 그는 유전자 조합으로 기존 개체보다 수명이 10배 늘어난 회충을 만들어 낸 인물이다. ‘DAF-2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해 회충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케넌 박사는 “<span class='quot3'>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에게서 ‘DAF-2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관찰된다</span>”고 말했다. 분자 생물학이 가까운 장래에 ‘젊음의 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털 없는 ‘몰(Mall) 쥐’의 유전암호를 풀어내는 것에도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보기엔 흉측한 이 생명체는 암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쥐보다 10배나 오래 산다. 평균 수명이 30년이다. 땅속에서 서식, 산소 호흡량이 훨씬 적은 게 장수의 비밀로 추정되고 있다. 나노(10억분의1 미터) 수준의 소형 로봇 수 백만대를 인체에 넣어 치료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구글의 공학부문 책임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span class='quot4'>2030년대쯤에는 나노로봇을 통해 인체의 면역수준을 분자수준에서 강화, 질병을 치료하는 일이 가능하다</span>”고 주장한다. 커즈와일에 따르면 나노 로봇의 크기는 혈액세포 정도인데 알약 형태로 섭취할 수 있다. 혈액을 타고 인체를 돌며 약물과 호르몬을 정확하게 필요한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항암치료는 독한 약물이 정상세포에도 흘러 들어 부작용이 컸지만 나노 로봇이라면 그런 위험은 없다. 10여년전 이 아이디어가 처음 제기됐을 때는 의학계 전반에서 비웃었지만, 당뇨병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효과가 입증되면서 비난 수위가 크게 낮아진 상태다. 줄기세포 연구에는 캐나다 억만장자 피터 나이가드의 후원이 두드러진다. 자신의 이름을 딴 여성의류 브랜드 ‘나이가드’로 갑부가 된 그는 어떤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자신의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 매년 네 차례 몸에 주입하고 있다. ‘3차원 프린터’기술로 인체 장기세포와 물, 영양물질을 혼합해 인조 장기를 만들어 내는 실험도 진행되고 있다. 고장 난 부품을 고쳐 차를 고치듯이, 장기 손상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저체온ㆍ가사상태로 만든 뒤 문제의 장기를 교체하는 방식이 곧 상용화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정신을 기계에 이식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우리 뇌에 담긴 기억과 의식 등을 컴퓨터에 이식하는 게 최종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억만 장자 드미트리 이츠코프가 대표적이다. 두뇌 속의 의식을 멀리 떨어진 ‘아바타’에게 전송하는 길을 찾아내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4'>이 방법이 성공하면 내가 좋아하는 수많은 취미를 1만년 이상 즐기게 될 것</span>”이라고 말한다. 구글의 커즈와일도 이에 동조한다. 2045년쯤이면 컴퓨터가 지능면에서 인간을 능가하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가 융합되면 불멸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매일 우리 몸 세포의 대사를 관장하는 ‘큐-10’이라는 코엔자임 등 150개 물질을 섭취하는데, 97세가 되는 2045년까지 생존하기 위해서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런 주장들이 허황되지 않으며, 향후 의료분야에서의 혁명적 진전은 외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예컨대 ‘빅 데이터’ 기술로 수 천만, 수 억명 인간의 임상자료를 통합시키고, 이를 IBM의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으로 분석한다면 환자별 맞춤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2001년 30억달러를 투입해 겨우 분석했던 인간 게놈지도가 이제는 1,000달러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실리콘밸리 갑부들이 주도하는 ‘불멸의 기술’연구에 다양한 반론과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다. 일단 실현 가능성부터 도전 받는다. 미국 뉴욕주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AECM) 연구진은 최근 한계수명에 대한 연구 결과,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수명은 115세라고 발표했다.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인류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span class='quot5'>수명의 대폭 연장은 인류 전체에게 재앙이 될 것</span>”이라고 예상한다. 당장 사회의 역동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독재국가에선 권력자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독재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이론적으로 ‘고조-증조-조부-부모-자녀-손자’등 최소 6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가족에 대한 기존 관념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8.txt

제목: 2015년생 여자 85세, 남자 79세까지 산다  
날짜: 2016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202085324002  
본문: 지난해 출생한 남자아이는 평균 79세까지, 여자아이는 85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다. 남성들의 건강관리가 늘어나면서 남녀간 기대수명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기대여명은 점점 증가하는 모습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수명은 82.1년으로 전년보다 0.3년 증가했다. 남자는 79.0년, 여자는 85.2년으로 1년 사이 각각 0.4년, 0.1년 늘었다. 지난 1970년 생명표와 비교하면 남자가 20.2년, 여자는 19.4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생한 남아의 56.5%, 여아의 77.7%는 향후 80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또한 1970년생과 비교해 무려 44.9%포인트, 4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생명표는 현재와 같은 사망 수준이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연령대의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 자료는 인구추계, 보험료율 산정, 보건ㆍ의료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남녀간 기대수명 차이는 6.2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감소했다. 남녀간 격차는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1985년 음주 등으로 인한 간질환 사망이 남자가 여자보다 4~5배 높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후 남자의 간질환 및 교통사고 사망률이 낮아진데다 건강관리가 늘어나면서 기대수명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작년 출생아가 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은 남아 27.3%, 여아 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남아 9.7%, 여아 12.6%로 그 뒤를 이었다. 뇌혈관질환은 남아 8.6%, 여아 10.0%로 3위였다. 만약 암이 사망원인에서 사라진다면 지난해 태어난 남자 아이는 기대수명보다 5.1년, 여자 아이는 2.9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살 날을 나타내는 ‘기대여명’도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작년 40세였던 남자는 평균적으로 40.1년, 여자는 46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지난해 18.2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9년)을 처음 넘어섰다. 작년 65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22.4년으로 2008년 처음 OECD 평균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70년만 해도 우리나라 65세 기대여명은 OECD 평균에 비해 남자 2.5년, 여자는 0.7년 더 낮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그간 한국인 기대수명이 계속 높아진 이유는 대부분 유소년 사망률 감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러나 최근 의료 및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기대여명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span>”고 말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82.1년)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전체 12위를 기록했다. 남자의 기대수명(79.0년)은 OECD평균(77.9년)보다 1.1년 높았고, 전체 회원국 중 18위를 차지했다. OECD 국가 중 남자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81.3년)이었다. 여자의 기대수명(85.2년)은 OECD 평균(83.3년)보다 1.9년 높았고, 회원국 중 순위는 7위였다. 여자 기대수명은 일본(86.8년)이 가장 높았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OECD 평균에 도달한 시점은 남자 2007년, 여자 2003년이다.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9.txt

제목: 여수시 돌산갓김치 제조특허 민간 이전  
날짜: 2016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30050825002  
본문: 기능성 3종 기술 무상 전수판로 개척 ㆍ 김치산업 활성화 새 음식제조 기술 이전 확대전남 여수시가 지역 특산품인 돌산갓김치의 특허 제조기술을 민간에 이전했다. 시는 김치제조업체인 (주)삼채이야기와 기능성 돌산갓김치 제조기술 특허 3건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민간에 이전한 특허기술은 나노칼슘 콜로이드 농축액, 갓과 브로콜리, 갓과 두릅을 이용한 갓김치 제조방법 등으로 여수시가 2011년 개발해 지적재산권을 획득했다.기능성 칼슘 돌산갓김치는 순도 높은 수용성 나노칼슘액을 돌산갓김치에 첨가해 신선도와 갓김치 고유의 맛이 살아 있다. 특히 부풀림 현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제조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수출용으로 적합하다.또 설포라판 성분이 함유된 브로콜리와 사포닌, 베타카로틴, 비타민A ㆍ C, 아연, 엽산, 칼륨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두릅을 이용한 돌산갓김치는 암, 당뇨병, 신장병 예방효과가 뛰어나다.삼채이야기 나유선 대표는 “<span class='quot0'>전통 제조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국내 돌산갓김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기능성 갓김치 개발에 최선을 다해 일본 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겠다</span>”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역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업체에 특허기술 3건을 5년간 무상으로 이전하게됐다</span>”며 “<span class='quot0'>갓우거지국, 갓만두, 갓말이밥과 같은 새로운 음식제조 기술도 개발해 지역 업체에 이전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0.txt

제목: 체온 1도 낮아지면…면역력 30%↓ 대사량 12%↓  
날짜: 2016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29050943001  
본문: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다. 요즘 같은 영하의 날씨에는 정상 체온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몸의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나 떨어지기 때문이다. 체온이 36도 아래로 내려가면 당뇨병이나 골다공증, 암,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 등과 같은 질환에 걸리기 쉽다. 우리 몸에는 하루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지만 면역력에 문제 없다면 암세포가 종양으로 성장하는 일은 없다. 실제로 일본 종양내과 전문의 사이토 마사시는 자신의 책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에서 “<span class='quot0'>정상 체온보다 낮은 사람은 세균이나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이를 물리치는 발열작용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 병에 걸리기 쉽다</span>”고 했다. 체온을 1도만 올려도 스트레스에 강해지고 병들지 않는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체온 떨어지면 암세포 증식”정상 체온은 36~37.5도다. 오범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36.5도가 몸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 면역체계 작동 등이 가장 활발한 온도</span>”라고 했다.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대사라고 하며, 대사 과정에 필요한 것이 효소다. 효소는 체온이 36~37.5도일 때 그 반응이 가장 활발하다. 정상 체온으로 알려진 36.5도는 몸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 면역체계 작동 등 생명유지 활동에 관여하는 효소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온도다.물론 모든 사람의 체온이 정확히 36.5도라야 정상은 아니다. 체온은 나이, 성별, 활동량, 스트레스 강동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보통 고령인은 건강한 성인보다 체온이 0.5도 정도 낮다. 활동량이 적은 밤에는 체온이 낮보다 0.5도 정도 낮다. 그러나 질병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36~37.5도를 유지한다.체온이 1도 정도 낮아지면 몸의 대사작용은 12%정도 줄어든다. 이용제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체내 대사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하지 못하면 세포나 조직의 기능이 나빠져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span>”고 했다. 또한 최근 미국 예일대 엘린 팍스먼 박사 등은 지난해 1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추위로 온도가 낮아질수록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선천성 면역반응이 약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체온이 이 같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 몸은 곧바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생체작용을 한다. 피부에 있는 온도 수용체에서 뇌 시상하부에 체온조절을 위한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시상하부는 갑상선, 교감신경, 대뇌피질, 근육에 신호를 보내 체온을 올리게 만든다. 교감신경은 체온이 정상범위보다 낮으면 땀샘을 닫고 혈관을 좁혀 열 방출을 막는다.하지만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등의 이유로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이 때는 겨드랑이나 구강체온은 저체온 시 정확한 중심체온을 반영할 수 없기에 직장체온으로 잰다)이 생긴다. 저체온증이 되면 가장 먼저 몸이 떨리는 오한이 생긴다. 이후 낮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된다. 이로 인해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착란 증세까지 나타난다. 체온이 33도로 내려가면 근육이 딱딱해지고, 30~31도가 되면 의식이 없어지고, 29도가 되면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고, 28도 이하로 떨어지면 반사기능이 없어지고, 호흡부전, 부종, 폐출혈, 저혈압, 혼미, 심실세동 등이 되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체온이 떨어지면 암 발생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35도가 암세포가 증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조승연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순환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3'>암세포는 고열에서는 성장하지 못하지만 정상 체온보다 1.5도 낮은 35도는 암세포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span>”이라며 “<span class='quot3'>몸의 면역체계는 36.5도 이상에서 정상적</span>”이라고 했다. 실제로 열성질환이나 고열을 앓았던 암환자는 암이 완치되거나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span class='quot4'>부추ㆍ생강ㆍ쑥ㆍ계피ㆍ소간, 체온 상승에 도움</span>” 정상 체온보다 체온이 밑도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이 운동량이 부족해서다. 근육은 몸 안에서 열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관이다. 근육이 많을수록 체온이 높게 유지된다. 추위를 잘 타지 않는 사람은 지방이 많아서가 아니라 근육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숙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이 달아오른다고 표현하는데 속은 냉해지게 돼 체온은 오히려 저하된다. 이밖에 과식도 체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과식하면 몸 속 피가 위로 40%가량 몰려 몸 속 곳곳에 퍼져야 하는 혈액이 장시간 소화기관에 묶여서 체온저하가 생긴다.체온을 올리려면 꾸준한 운동이 도움이 된다. 운동으로는 땀이 약간 날 정도 운동(조깅, 에어로빅 등)을 자주 하도록 노력하고, 햇볕을 많이 쬐고, 수시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쌓아두지 않도록 자기 나름의 해소법을 찾아야 한다. 박경선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3'>차다고 무조건 옷을 껴입고 땀내는 방법은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옷은 가볍고 공기를 많이 함유해 땀을 잘 흡수하는 면직물이 좋다</span>”고 했다. 몸매 보정을 위한 속옷이나 꽉 쥐는 스키니진, 레깅스는 순환을 방해하고 신진대사를 저해하므로 체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일부 음식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5'>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체온을 높이는 음식으로 부추, 생강, 쑥, 계피, 소의 간, 콩, 우유, 찹쌀 등을 들 수 있다</span>”고 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5'>반대로 우리 몸을 차게 만들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음식으로 돼지고기, 참외, 녹두, 밀가루, 오리고기 등</span>”이라고 했다.권대익 의학전문기자-근력운동이나 걷기를 하지 않는다.-찬 성질의 음식을 많이 먹는다.-소금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한다.-해열제, 진통제, 항암제 등을 자주 먹는다.-노출이 심한 옷을 즐겨 입는다.-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가볍게 샤워할 뿐 입욕하지 않는다.-냉방기기 사용시간이 매우 길다.오한→ 혈관 수축→ 가벼운 착란→제대로 서지 못함→맥박과 호흡이 느려짐→심장 정지→사망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1.txt

제목: [2016 하반기 우수특허대상] 에빅스젠 보도자료  
날짜: 2016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29050940001  
본문: 에빅스젠(대표 유지창, www.avixgen.com)은 생명공학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에이즈와 같은 난치성 바이러스 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에빅스젠은 기존 혈관신생억제제의 저항성, 2차적 혈관신생 유발, 고혈압, 출혈, 위장 천공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생혈관 억제 효과가 큰 신약후보물질(AVI-PEP)을 개발했다. 에빅스젠 연구팀이 개발한 혈관신생억제제 신약후보물질은 VEGFR-2만을 표적으로 해 VEGFR-2와 VEGF간의 결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VEGFR-1과는 비특이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로써 기존의 혈관신생억제제가 나타내는 고혈압 혹은 출혈을 동반한 부작용들은 최소화하면서도 효능은 기존 치료제보다 월등히 높다. 생체 조건에서 VEGF에 의한 혈관신생 차단을 통해 암 및 안구질환 조직으로의 비정상적 혈관 신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이러한 신규 혈관신생억제제는 혈관 신생이 비정상적으로 조절돼 야기되는 암 질환뿐 아니라 안구 망막변성질환과 비만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로도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그 적용 범위는 매우 넓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2.txt

제목: 진폐환자 진료로 ‘감사의 인물’ 선정된 김정미 태백병원장  
날짜: 2016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29050922002  
본문: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박용일 고문과 “<span class='quot0'>탄광 근로환자들과 고통 나누기</span>”-X-레이에 뜬 미세 음영 추적해 광부의 폐암치료 길 열어[석탄도시 태백을 산소도시로 바꾸려는 사람들!] 강원도 태백시 태백병원이 ‘전국 최대의 진폐환자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도 총 484개 병상 중에 315명의 진폐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진폐재해·재가 환자들로부터 ‘2016년 올해의 감사 인물’로 선정된 김정미 병원장을 만났다.자리를 함께 한 사람들은 김 병원장을 추천한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의 박용일 교육고문과 태백병원 진폐환자회 회장 최정중 씨(75. 태백시). 또한 인근 문민정형외과 병원에서 팔꿈치 척골신경병증으로 산재치료를 받고 있는 탄광근로자 정광식 씨(61. 태백시)도 ‘하트 세리머니’로 축하했다.김정미 병원장은 “<span class='quot1'>진폐 환자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태백병원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span>”는 소감을 밝혔다.또한 “<span class='quot1'>병마에 덜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언제이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의료인의 사명을 다하겠다</span>”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현재 진폐로 인해 가장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 광산근로자들은 기관지염과 폐렴환자라고 한다. 주로 항생제 및 기관지 확장증제, 진해 거담제 위주로 처방 치료하고 있다.하지만 환자 증상에 대한 꾸준한 관찰이 필수. 이때 폐암 발견시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권하면서 관련 치료시설을 갖춘 인근 원주기독교병원이나 강릉아산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진폐 인정을 전혀 못 받았던 어느 환자의 암을 발견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기적인 X-레이 검진상 과거의 사진과 비슷했으나 1mm미만의 작은 음영이 눈에 띄었던 것.이럴 때 다시 찍어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애매해서 다시 X-레이 촬영을 했으나 그 미세한 음영은 그대로 있었다. 다시 CT촬영을 했고 결과는 폐암이었다. 환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초기부터 폐암치료에 들어갈 수 있어 김 병원장을 ‘생명의 은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진폐환자 회장 최정중 씨도 환자들과 격의없이 어울리는 김 병원장을 고맙다고 추켜세웠다. 김 병원장 역시 최정중 씨가 진폐회원(환자)들과 병원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주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사했다.“과거에는 회장님이 병원을 고발까지 하실 만큼 강경파셨어요. 회원들을 위해 법적 처리문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정이었지요. 지금은 병원과의 유대관계가 다시 돈독해 지셨답니다.”최정중 씨는 폐렴을 진폐합병증으로 인정받게 힘써달라고 김 병원장과 박용일 고문에게 신신당부했다. 박 고문 역시 진폐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한 사람은 합병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가 꼭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환자 정광식 씨 역시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사전에 환자들의 치료기간을 정해 놓고 자문의사협의회를 통해 치료종결 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시정해 달라”는 부탁을 전해 왔다.이를 담당하는 보상부의 김천규 부장도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소속 환자 들로부터 이번에 ‘올해의 감사인물’로 선정된 사람.정광식 씨는 경사 37도의 암석승(갱도간의 연결통로) 모노레일을 철거하다 어깨와 팔꿈치에 큰 부상을 입고 수술 후 두 달째 입원중이다.부상환자들까지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는 박용일 고문의 주선으로 현재는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언제 치료종결을 선언할지 염려가 크다.“팔꿈치 통증으로 밤이 되면 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치료기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완치 후 사회복귀 할 수 있을 텐데, 태백에서는 자문의사회 심사가 야박해 멀리 울산이나 창원으로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하지만 김천규 보상부장의 말은 “공단에서는 충분히 산재환자들의 후유증까지 감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의 자문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12명. 지역의사들로는 구성에 한계가 있어 영월과 동해지역 의사들까지 합류한 상태다.태백 산재환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은 치료기간. 중증 환자들의 개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관련서류 검토 만으로 어깨수술 후 9개월, 팔꿈치 수술 후 8개월, 손목수술 후 6개월 식의 치료 최대기간을 설정, 그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치료종결을 선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그에 대해 김천규 보상부장은 “동일한 부상의 일반 환자들의 경우 2주 입원 후 고작 1~2개월 치료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치료종결 기간이 결코 짧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다.그는 이어 “환자들이 산재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증상 관리제도를 통해 계속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잔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금(평균임금×장해등급별 지급일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협회 박용일 고문은 “자문의사회가 근로복지공단 산하여서 환자들이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산재환자들의 치료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유승철 뷰티한국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3.txt

제목: [첨단 의료를 달린다] “전문 교육 통해 생활에서 스스로 암 극복하도록”  
날짜: 20161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28050849002  
본문: 국제성모병원 암치유교육센터, 국내 유일 암 전문 교육기관으로 선도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통계’에서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로 33년 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암 치료는 발전을 거듭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다. 국내 5년 암 생존율은 69.4%(국립암센터 통계)로 미국(66.5%), 일본(58.6%)보다 치료성적도 좋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현재 많은 암 생존자가 병원에서 암 치료가 끝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부터 뭘 먹고,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병원에서 제대로 답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병원 암 치료는 암을 치료하고 경과 관찰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환자가 스스로 답을 찾고 있다.그 동안 암 생존자가 치료 후 생활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월 암 생존자의 암 치료 후 건강관리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2016~202년)을 발표했다. 앞으로 통합지지센터 설립을 통해, 암 생존자에게 맞춤형 식단, 운동,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이보다 한 발 앞선 지난해부터 암 생존자와 환자, 보호자를 위한 ‘암치유교육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국내 유일의 암 전문 교육기관국제성모병원 암치유교육센터는 ‘국내 유일의 암 전문 교육기관’을 모토로 지난해 문을 열었다. 암치유교육센터는 생활 속에서 암을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 암 생존자가 일상에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암 치료와 예방의 핵심인 식(食), 신(身), 심(心)을 각 분야 전문가가 교육ㆍ훈련한다.이 곳에서는 식이요법(이종두 암치유교육센터장), 면역(김혜정 가정의학과 교수), 암환자의 한방적 치료와 명상(선우윤영 한방내과 교수)을 교육하는 전문의를 비롯해 임상영양사, 운동처방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환자 지지팀이 암 환자와 가족에게 암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을 교육한다.이종두 암치유교육센터장은 “<span class='quot0'>지금까지 진단과 치료에만 집중해 온 국내 암 치료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혀 환자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암에 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우리 센터의 목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암 환자의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암 치료</span>”라고 했다.암을 이기는 먹거리, 운동, 마음수련암치유교육센터의 환자 지지팀은 9박11일 동안 암을 이기고 다스리는 먹거리와 운동 그리고 마음 수련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암치유교육센터 식이요법의 핵심은 ‘저탄수화물과 천연물질의 병용 섭취’다. 이는 최근 이종두 교수가 연구한 식이 요법의 암 예방 효과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기초로 환자에게 적용된다. 근본 원리는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는 정상 세포보다 훨씬 많은 탄수화물, 즉 포도당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사와 칼로리 억제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식물 유래 천연 생리활성물질 섭취가 암세포 증식을 막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임상영양사는 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탄수화물 섭취량은 줄이고, 면역세포 활성화를 돕기 위한 단백질 공급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영양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항암 식단을 알려주고 제공한다.또한 일상생활에서 실시할 수 있는 맞춤 운동법도 교육한다. 암 생존자나 환자에게 운동은 자가면역 증진에 도움이 된다. 운동처방사는 암 종류, 병기(病期), 치료단계, 합병증 등 환자 개인 상태와 체력을 고려해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한다. 특히 교육 후에도 운동법을 환자에게 숙지시키고 피드백 프로그램을 통해 퇴소하더라도 스스로 집에서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이 밖에 암 환자는 암을 진단 받고 불안감, 우울감 등을 경험하며 일반인보다 우울증 위험이 4배정도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암치유교육센터에서는 한방내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나서 다도, 명상, 미술치료, 스트레스 관리 등 환자에 맞는 심리 치료를 진행한다.이러한 모든 교육은 1:1 맞춤 교육으로 진행하며, 교육 훈련의 충분한 숙지를 위해 한 프로그램에 교육생이 최대 6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육생들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퇴소한 뒤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3개월 간 담당 강사진이 환자의 일상 관리를 유선으로 독려하고, 피드백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집에서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사람을 향하는 전인치료, 통합의학암치유교육센터의 기본은 사람이 중심 되는 ‘전인치료’다. 이는 국제성모병원 암 치료 시스템의 근간이다. 현대의학에서는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치료를 중단한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몸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국제성모병원에서는 의학, 전통의학, 대체의학 장점을 통합해 다학제적으로 암환자를 돌보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우면 인생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호스피스 병동도 운영하고 있다. 이 암치유교육센터장은 “<span class='quot1'>암 치유는 단순히 암을 없애고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암 진단부터 마무리까지 일련의 과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암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이상적인 암 치유와 관리법을 전하는 것이 목표</span>”라고 했다.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4.txt

제목: 말기 폐암 장기 생존자 95%, “암과 싸우며 공존”  
날짜: 20161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28050846002  
본문: 국내 말기 폐암 장기 생존자 가운데 95%가 여전히 암과 ‘싸우며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폐암학회(이사장 조문준 충남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인하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0개 대학병원에서 5년 이상 생존 중인 말기 폐암 환자 41명(평균 생존 기간 7년5개월)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내 말기 폐암 장기 생존자 조사는 처음이다.폐암은 암 사망률 1위(국가암등록 통계)다. 연간 2만3,000명이 폐암에 걸리지만 전체 5년 생존율은 23.5%에 그친다. 특히 말기(4기) 폐암 진단을 받으면 5년 생존율이 1% 내외다. 말기 폐암 장기 생존자에게 병 진행상태를 설문한 결과, ‘폐암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는 5%에 불과했다. 장기 생존자의 61%는 ‘폐암이 있어 치료하고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34%는 ‘치료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조사됐다. 류정선 학회 홍보위원장(인하대병원 폐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0'>말기 폐암이라도 폐암과 공존한다는 희망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결과</span>”라고 했다. 말기 폐암 장기 생존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7년5개월이었고, 평균 연령은 58세였다. 폐암 진단을 받는 평균 나이가 70세인 점을 고려하면 젊은 말기 폐암 환자의 생존이 많았다. 말기 폐암 장기 생존자 10명 중 6.6명은 흡연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 중 30%가 비흡연자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흡연자가 폐암으로 진단 받은 뒤 금연하는 비율은 50~75%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말기 폐암 장기 생존자들은 92%가 진단 후 금연했다. 금연이 폐암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김승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상대적으로 젊은 연령, 비흡연자라는 말기 폐암 장기 생존자 특성은 표적치료제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폐암의 임상특성과 일치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말기 폐암 진단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면 장기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데 표적치료제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span>”라고 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특정 음식이 폐암 생존 기간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는 말기 폐암장기 생존자의 51%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18%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류 홍보위원장은 “<span class='quot2'>말기 폐암 장기 생존자는 폐암에 좋다는 특정 식품에 현혹되지 않고 여러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경향이 있다</span>”고 했다.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5.txt

제목: “실손보험, 과잉진료 우려 비급여 항목 특약 분리”  
날짜: 20161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28050833001  
본문: “<span class='quot0'>1년간 병원 안 가면 보험료 환급</span>”당국, 내달 개선안 발표 예정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소비자들은 비급여(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 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 부담이 덜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손보험금 청구실적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할인 받고, 청구한 적이 없으면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도 마련된다.28일 보험연구원은 금융당국 후원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당국은 이날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입자 수 3,2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은 그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에 대해 연간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면서 인기를 끌었지만 한편으론 과잉진료 유발로 보험료가 지속 상승하는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다. 개선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앞으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상품에서 과잉진료 우려가 컸던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해 기본형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특약형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커진다. 특약형은 대표적인 과잉치료로 꼽히는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체외충격파 등 3가지로 나눠진다. 특약형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span class='quot1'>해당 항목들은 단순 피로회복이나 미용목적 등 치료와 맞지 않는 진료를 유발, 보험료를 상승시켜 다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어왔다</span>”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청구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할증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재도 나이, 성별, 직업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3만원 안팎으로 상품구조가 비슷하다. 때문에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험금 청구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무청구자는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사가 암이나 상해, 종신보험 등에 실손의료보험을 붙여서 판매하는 ‘끼워팔기’ 행태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1년에 한번 내도록 하는(연납) 방안과 실손의료보험만 단독 판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span class='quot2'>의학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생기면 또 다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자기부담금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여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반대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질환자의 보험료를 높이면 오히려 보험혜택이 절실한 가입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3'>병원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 할인을 해주거나 무청구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주려면 별도의 재원마련이 선행돼야 한다</span>”고 보험료 차등화에 난색을 표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6.txt

제목: [삶과 문화] 아, 잠 좀 잡시다  
날짜: 20161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28050728002  
본문: 지난 6개월 간 낯선 여행지를 떠돌며 8인실 도미토리를 전전한 결과 한 가지를 깨달았다. 세상에나, 서양 여행자들은 밥 먹을 때를 빼면 맨날 잠만 잔다는 팬더처럼 참 많이 잔다! 오후 3시에나 일어나 밤새 클럽을 들락날락하는 ‘파티 애니멀’은 물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와 아침부터 일하는 여행자들까지 하나같이 하루 8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잔다. 쟤들이 여행을 왔나, 자러 왔나, 모를 만큼 많이 자고 많이 쉰다. 한식을 챙겨준다는 말에 홀려 며칠 머물던 한인민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다. 나는 새벽부터 관광에 나선 한국인들이 빠져나간 방에서 덩그러니 홀로 깼는데, 사실 다른 곳에서는 제일 일찍 일어나 설치는 사람이었다. 그제서야 스페인의 한 한식당 사장님 말씀이 이해됐다. 로컬 식당은 물론 자라(Zara), 에이치앤엠(H&M) 같은 다국적 매장도 매주 일요일마다 문을 닫는 그곳에서 “도대체 스페인 사람들은 쇼핑도 안 하고 휴일에 뭐하나요?”라고 물었었다. 스페인에 산 지 10년쯤 됐다는 그는 “자요, 자. 집에서 푹 쉬어요”라고 했는데, 그때는 싱거운 농담이라고만 여겼다.남들 자는 이야기를 늘어지게 쓴 까닭은 우리가 너무 적게 자고 너무 짧게 쉬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그럼에도 통계청의 수면시간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이렇게 오래 자는 복 터진 인간은 주변에 한 명도 없다는 분노의 반응이 쏟아졌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은 한국인의 실제 수면시간이 6시간 53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적절한 수면시간은 8.2시간인데 주간 노동자는 약 1.3시간 잠이 부족해 만성적이고 일상적인 수면부족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러게나, 우리는 사당오락의 무시무시한 협박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살아남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163시간으로 멕시코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또한 온라인 여행업체 ‘익스피디아’는 전세계 주요 국가 28개국 중 대한민국 직장인 휴가 사용일수가 6년 연속 전세계 꼴찌라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 시민들은 연평균 20일의 휴가를 쓰는 반면 한국인은 그 절반도 안 되는 8일을 휴가로 보낸다. 내가 이 글을 쓰는 호주의 공립도서관은 평일에는 오후 8시, 주말에는 5시에 문을 닫는데, 한국이라면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뭔 짓이냐고 했을 거다. 몇 년 전 24시간 영업하는 대형마트의 운영시간을 제한하자는 캠페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었다. “<span class='quot0'>일 끝나면 밤 10시인데 언제 장을 보나요?</span>” 당시 우리의 슬로건은 서글프게도 “밤에는 자자”였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남’이 가사노동을 나누지 않는 한 우리는 충분히 잘 수 없다. 밤에 잘 자야 각종 체내 분비선과 기관의 활동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면역력이 강화되고 암과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말이다.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지만 바쁜 한국인들이 근 한 달여 주말을 반납하고 촛불집회까지 나가는 것이 장하고 짠해서, 복기한다. 온라인에는 주말에 애도 봐야 하고 난장판인 집도 치워야 하고 밀린 일도 있고 심지어 김장용 배추마저 쌓여있는데, 집회에 갔다 왔다는 고백이 넘친다. 촛불이야 금방 꺼지고 말 거라는 막돼먹은 소리에 맞서 사람들은 잠 잘 시간, 생존을 위한 휴식의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시간들을 쪼개고 쪼개 거리에 나선다. 배우 유아인이나 가수 양희은을 보거나 백만명이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주말에는 좀 쉬고 좀 자고 싶었을 테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다. 김장철이 끝나기 전에 하야를 하시라. 안 그럼 비아그라라도 챙겨먹고서 집회에 나가고 말 테니.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7.txt

제목: 20~50대 상해 사망시 평균 보험금 1억 정도  
날짜: 20161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27050512002  
본문: 정액 보험계약에 가입한 20~50대 가입자는 상해사망 시 평균 1억원 초반대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령대별ㆍ성별 평균 보험 보장금액 분석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국내 보험가입자의 보장 현황을 보면 40대 남성의 상해사망 평균 보장금액은 1억1,700만원, 여성은 1억1,100만원이었다. 30대 남성은 1억2,100만원, 여성은 1억700만원을 각각 보장 받고, 20대 남성의 보장액은 1억1,900만원, 여성은 1억2,200만원이었다. 50대는 평균 상해사망 보장 금액이 남성(9,900만원)보다 여성(1억100만원)이 더 많았고, 60대 이상은 남녀 모두 6,300만원 수준이었다. 암 진단 보장금액은 20~40대에서 3,300만~3,600만원 수준이었고, 50대는 2,700만~3,000만원, 60대 이상은 2,000만원 이하였다.이런 내용은 28일부터 개설되는 신용정보원의 ‘내보험다보여’ 홈페이지(www.credit4u.or.kr)에 접속해 보험가입자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이런 통계와 더불어 자신의 계약현황과 보장내역, 보험료, 납입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8.txt

제목: [지평선] 1%를 위한 의료  
날짜: 2016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22051105002  
본문: 서울 청담동에 있는 차병원그룹 계열 차움의원은 5개 층 2만㎡ 넓이의 세계 최대 진료센터다. 초호화 건강검진 센터와 각종 노화방지시술 클리닉, 스파ㆍ피트니스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VIP 회원권이 1억7,000만원, 연회비가 45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 배우 피터 폰다, 미식축구 선수 테릴 오웬스, 메이저 리거 추신수, 골퍼 박인비 등이 다녀갔다고 홍보해 순식간에 1,000여명의 회원을 끌어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짜 치료를 해 준 것도 부유층을 끌어 모으기 위한 전략일지 모른다.▦ 차움의 검진 프로그램은 ‘특별’하다. 하루 검진 인원은 30명. 안락한 독립 공간에 누워 있으면 의료진과 기계가 찾아와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의료진 외에는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도록 동선을 짰다. 방사선 노출량을 최소화한 안심검진과 미래의 질병을 알 수 있는 유전체 검진도 제공한다. 비용은 수백만~수천만 원. 여기에 노화방지시술을 곁들이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회춘 주사’로 소문난 줄기세포 치료만 회당 500만~1,000만원이다.▦ 최근 몇 년 새 강남에는 차움을 모방한 초고가 검진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섰다. 비급여 항목이라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고가 의료장비를 활용한 검진과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0만~2,000만원을 받는데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예약이 가능할 정도로 호황이다. 반면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위한 응급시설과 전문인력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span class='quot0'>응급환자는 돈이 되지 않고 골치만 아프니, 환자 가족들이 칼 들고 찾아오지 않을 정도로만 응급실을 유지한다</span>”는 게 의사들 얘기다.▦ 건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가난할수록 병에 잘 걸리고 빨리 죽는다. 암 사망률도 빈곤층이 상류층보다 2배나 높다. 정기 검진을 못 받아서다. 정부는 차움의원의 숙원사업이던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했고 192억원의 예산까지 지원했다. 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와 노인, 빈곤층에게 쓰여야 할 돈이다. 1%를 위한 호화 검진센터가 늘어나는 사이, 응급센터와 같이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 분야는 외면받고 있다. 65세라곤 믿기 어려운 박 대통령의 매끈하고 탱탱한 피부. 하지만 인간의 본성인 기쁨과 슬픔조차 담아내지 못하는 그 얼굴에서, 건강불평등을 키우는 의료민영화의 섬뜩한 미래를 본다.고재학 논설위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9.txt

제목: 서초ㆍ강남, 유방암 발병률 전국 1위  
날짜: 2016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22051028001  
본문: 2009~2013년 시군구별 통계 빠른 초경연령 등 영향으로 10만명당 65명 안팎 발병 전국 평균치 49명의 1.3배 간암, 전남ㆍ경남 남부지역서 많아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유방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은 경남과 전남에서, 담도암은 낙동강 인근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처음 발표한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09~2013년 기준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인구 10만명당 발생(발생률)이 65.1명이었다. 서울 강남구(64.4명), 경기 용인시 수지구(63명)와 성남시 분당구(62.2명), 부산 강서구(6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이 49.5명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다. 특히 서울 강남ㆍ서초구, 성남시 분당구는 15년 간 지속적으로 유방암 발생률 상위권을 기록했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해당 지역 여성은 초경 연령이 빠르고, 출산율이 낮으며, 출산연령이 늦어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설명했다. 유방암은 초경 시기가 빠를수록, 첫 출산이 늦을수록, 출산 횟수가 적을수록, 모유 수유비율이 낮을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 박흥규 길병원 여성암센터장도 “<span class='quot1'>이들 지역이 잘 사는 동네다 보니 서구식 식습관이 일찍부터 자리 잡아 초경을 조기에 경험한 여성들이 많았을 수 있고, 노화 방지 등을 위한 호르몬보충요법을 접할 기회도 많아 유방암 발생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암 검진비율이 높은 것도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검진 받는 비율이 높다 보니 암 환자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견해 해당 지역에 암 환자가 많게 보인다는 설명이다.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유방암 검진비율은 성남시 분당구(3위), 서울 강남구(10위), 서울 서초구(28위) 등으로 높았다. 간암은 전남과 경남 남부지역을 따라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간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B형간염, C형간염, 음주 등이 꼽히는데, 이들 지역의 높은 간암 발생률은 B형ㆍC형간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전국 29개 병원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조사에 따르면, 경남과 전남은 각 4.5%와 5.6%로 평균(4.25%)보다도 높았다. C형간염 역시 부산 경남 전남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동강 인근 지역은 담낭 및 기타담도암 발생률이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습관이 있는 지역이고, 간흡충증(간흡충이 쓸개즙이 내려오는 담관에 기생하면서 생기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것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는 총 24개 종류의 암을 조사했다. 안정적인 통계 산출을 위해 1999년부터 5년 단위로 묶어 분석했다.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3'>시군구별 최초 암 발생 통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높은 암 발생률과 지역 연관성은 계속해서 밝혀 나가야 할 과제</span>”라고 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0.txt

제목: 3년간 지급 실손보험금 13조원…허리디스크 가장 많아  
날짜: 2016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22050828002  
본문: 등통증, 어깨병변 순…상위 10대 질병이 25%3,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지난 3년간 13조원에 가까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보험개발원이 2013∼2015년 3년간 장기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전체의 실손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593개 질병에 대해 12조9,85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 코드별로 구분해보면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허리디스크(기타 추간판장애)로, 3년간 9,43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전체의 7.3%를 차지했다.허리디스크의 뒤를 이어 등통증(4,359억원·3.3%), 어깨병변(3,340억원·2.6%), 요추·골반 탈구와 염좌·긴장 등 척추 외상(3,194억원·2.4%), 목디스크(3,157억원·2.4%) 등이 보험금 지급이 많은 질병으로 꼽혔다.분석 결과 전체 지급보험금의 25.7%인 3조3,419억원이 상위 10대 질병에서 발생할 정도로 보험금 지급이 일부 항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이를 다시 A-Z코드의 25개 질병군별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근골격계 질환(M코드)에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3조5,532억원으로 가장 많은 27.4%를 차지했다.외상(S코드)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이 1조8,360억원(14.1%) 두 번째로 많았고, 악성 암(C코드)이 전체의 8.6%인 1조1,162억원을 기록했다.문제는 이렇게 실손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질병군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항목의 비율도 높다는 점이다.보험개발원이 한 보험사의 2013∼2014년 2년간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중 비급여 청구정보가 입력된 자료의 비급여 기록 71만9,248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의 전체 청구금액 중 비급여 항목의 비율이 86.9%에 이르렀다.손상, 외상 질병군(W코드·S코드)에서는 비급여 항목의 비율이 83.6%였고, 악성 암 중에서는 청구된 보험금의 70.2%가 비급여였다.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이 청구된 건에 대해 진료비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처리 기준도 의료기관별로 달라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도수치료를 똑같이 시행하더라도 이를 통증도수, 감압도수 등 다른 코드를 사용해 청구하다 보니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보험개발원은 “<span class='quot0'>의료기관은 복지부가 고시한 표준화된 비급여 명칭이나 코드를 사용할 의무가 없고, 비용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만을 부여받는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기관별로 청구 서식이 다르고 명칭도 표준화돼 있지 않고, 청구된 비용도 달라 보험사가 비급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span>”이라고 설명했다.이어 “<span class='quot0'>매년 급등하는 실손보험료를 안정화하려면 늘어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와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상황</span>”이라고 덧붙였다.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1.txt

제목: [헬스 프리즘] 암 경험한 폐경 여성, 골다공증 조심을  
날짜: 2016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21050837002  
본문: 이유미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박모(53)씨는 5년 전 48살 때 위암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수술 2년 뒤 폐경이 왔다. 몸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암 수술 후유증에 폐경이 겹쳐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척추 뼈가 내려앉았다. 척추 압박골절이었다. 심한 골다공증 환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척추 압박골절이 왜 그에게 나타났을까?골다공증은 폐경 이후 여성에게 흔히 발생한다. 50대 이후 여성 10명 중 3~4명이 골다공증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폐경 여성들이 걱정하는 질병 1위가 골다공증, 2위가 암이다. 폐경으로 인해 여성호르몬 수치가 뚝 떨어지면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그런데 폐경을 지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박씨 뼈가 왜 80대처럼 됐을까? 위암 때문이다. 위암 치료를 위해 위 절제수술을 받은 뒤에는 칼슘 흡수율이 뚝 떨어진다. 음식을 잘 챙겨 먹어도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으니 뼈가 급속도로 약해진다. 이 상태에서 폐경으로 인해 여성호르몬 수치까지 줄면, 골다공증이 훨씬 더 심해진다. 50대 뼈가 불과 3년 만에 80대 뼈가 된 이유다. 박씨는 다행히 약물치료로 호전됐지만, 비슷한 환자를 종종 본다.여성에게 흔한 갑상선암과 유방암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다. 갑상선암 수술 뒤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하는데, 수술 뒤 몇 년 동안 재발을 막기 위해 갑상선호르몬을 약간 높은 용량으로 투약한다. 이처럼 갑상선호르몬 수치가 높은데다 여성호르몬 부족하면 골소실이 빨라진다.유방암 수술 뒤, 항여성호르몬 치료를 받기도 한다. 유방암 재발을 막기 위해 여성호르몬 수치를 거의 ‘0’ 수준으로 낮게 유지한다.여성호르몬은 뼈 속에 칼슘이 잘 보존되도록 해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유방암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조금 남아 있는 여성호르몬마저도 ‘0’으로 낮추면 골다공증 위험이 급속도로 높아진다.그나마 폐경 이전에는 여성호르몬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골다공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암 치료로 인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 여성이 폐경까지 되면 골다공증 위험은 현저히 높아진다. 이를 모르고 방치했다가 골절 등에 시달리는 여성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암 경험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80~90세까지 살 수 있다. 하지만 암은 치료했으나, 심한 골다공증에 걸리면 삶의 질은 뚝 떨어진다. 암 경험자는 정기 검진과 함께 금연, 금주와 적절한 영양 섭취 등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골다공증 위험이 유난히 높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한국인은 칼슘과 비타민D 섭취가 부족한데 암 환자는 더 부족하다. 비타민D가 풍부한 음식(연어, 달걀노른자, 치즈, 정어리, 표고버섯 등)과 칼슘 섭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많이 부족한 사람은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칼슘이나 비타민D 보조제 사용도 권고한다. 운동도 필수다. 햇볕을 적절히 받으면서 하루 15분쯤 걷고, 규칙적인 근력운동을 시행하면 도움이 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2.txt

제목: 암투병 40대 가장 장애아들 살해 후 스스로 목숨 끊어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20050458001  
본문: 암 수술을 받은 40대 가장이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이 아파트에 사는 김모(4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김씨가 투신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가 목이 졸린 채 숨져 있는 정신지체 장애 1급인 아들(17)을 발견했다.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아들은 목이 졸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사건 발생 당시 김씨의 아내는 나머지 두 자녀를 데리고 외출 중이었다.김씨 아내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span class='quot0'>남편이 몸이 불편한 자신과 수발을 해야 하는 아들 때문에 힘들어했고 1주일 전에 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우울증이 심했다</span>”고 진술했다.경찰은 김씨가 신병을 비관해 아들을 살해하고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3.txt

제목: 울산 정치권, ‘원전안전 강화’ 한 목소리  
날짜: 2016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16051034001  
본문: 울산 도심에 인접한 고리ㆍ신고리 원전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은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span class='quot0'>원전 반경 30㎞ 이내 주민에게는 요오드 알약을 한 알씩 지급해 갑상선 암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요오드 알약 배급처와 복용방법을 거의 모르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span class='quot0'>고리원전 주변 학교 5곳 모두 요오드 알약을 구비하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나 보건소에서 알약을 관리할 게 아니라 방사선 누출 사고 때 학생들이 즉시 약을 복용할 수 있게 학교 측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span>”고 제안했다원전 사고 때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에 방사선 보호장구를 갖추고 대피 훈련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은 “<span class='quot1'>원전사고로 방사선이 누출됐을 때를 대비해 방호복, 방독면과 방진 마스크를 갖춘 학교가 없는 만큼 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방사선 보호장구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이 부의장은 “<span class='quot1'>울산의 모든 학교가 원전 및 석유화학공단 반경 30㎞ 내에 있으며 일부는 원전에서 2㎞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1'>보호장구를 구비하면 석유화학공단의 대형 가스누출 사고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핵발전소 건설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pan class='quot2'>경주 지진 발생 이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허가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2'>핵발전소를 건립하기 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의사를 묻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여론수렴과정을 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span>”며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와 건설허가 신청 전 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해야 하고, 주민투표 시행 구역은 원전 경계로부터 반경 30㎞ 이내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4.txt

제목: 한국인의 희망 건강 수명은 80.5세… 실제보다 7세 높아  
날짜: 2016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16050914001  
본문: 한국인은 실제 건강수명보다 7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생활용품 기업 뉴스킨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파마넥스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수명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바라는 건강 수명은 평균 80.5세였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분석한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3.2세(2014년 기준)였다. 실제 자신의 건강수명보다 7.3년이나 더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셈이다. WHO는 사람의 수명을 건강수명과 질병수명의 두 가지로 나눈다. 건강수명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질병수명은 질환 등으로 병치레를 하며 보내는 기간을 일컫는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의 희망 질병수명은 2.2년으로 드러났다. 이는 WHO가 발표한 한국인의 질병수명 9.1년보다 6.9년이나 짧은 것이다. 나이 들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기대가 크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운동과 금연, 건강한 식습관 유지 등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점수로 환산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이 매긴 점수도 평균 61.2점에 불과했다. 질병수명과 관련, 가장 두려운 병은 치매를 비롯한 뇌혈관질환이 28.8%로, 암(21.9%)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건강수명을 1년 연장할 수 있다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평균 2,492만원을 쓰겠다고 답했다. 황지연 파마넥스 마케팅팀장은 “<span class='quot0'>건강수명을 지키기 위해선 평소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span>”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5.txt

제목: [강남세브란스와 함께하는 건강 Tip] 전립선암, 식습관 관리와 조기 발견이 중요  
날짜: 2016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14051124001  
본문: 전립선암은 다섯 번째로 많은 남성암이 될 정도로 크게 늘었다. 고령과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 원인이라고 한다.Q. 전립선암이 늘어난 원인은?“전립선암은 과거 서구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 서구화된 식생활 등으로 전립선암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혈액을 이용한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 보급 등으로 전립선암 진단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Q. 전립선암 치료법은?“암이 전립선 안에 국한돼 있으면 수술로 암을 제거한다. 최근 복강경 수술, 특히 로봇을 이용한 수술법이 개발돼 회복시간이 짧고, 부작용도 적어 주목 받고 있다. 약간의 전이가 생겼다면 호르몬치료나 방사선요법을 수술과 병행하기도 한다. 여러 이유로 수술이 어렵거나, 전립선 밖으로 침범됐다면 체외에서 고에너지를 암 발생한 전립선에 쬐는 방사선, 양성자 치료 등이 개발돼 치료 폭을 넓어졌다. 병기가 초기라면 환자의 기대여명에 따라 전립선암 진행여부를 관찰하다가 꼭 치료해야 하는 시점에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를 하는 능동적 감시를 하기도 한다. 치료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평생 능동적 감시만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다.” Q. 전립선암을 예방하려면?“미국암학회와 아시아태평양전립선학회 권고안이 있다. ①과도한 지방, 육류, 유제품, 칼슘(1,500㎎/일 이상), 비타민A 섭취 및 흡연은 전립선암 위험도를 늘릴 수 있다. ②운동을 통한 체중조절과 콩, 생선, 채소를 많이 포함한 식습관, 특히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라이코펜 함유식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토마토로, 익히거나 가공하면 체내흡수율이 높아진다. ③비타민 E와 셀레늄은 자연식품에 함유된 상태에서는 이득이 있을 수 있으나 약물 보충요법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④전립선비대증 약물인 5알파환원효소억제제는 전립선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발기부전, 사정장애, 성욕감소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부작용을 감수하며 쓰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을 지나치게 따르면 영양 불균형 및 다른 질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영양소가 균형 잡힌 전통적인 한식 위주 식단을 따르면서 골고루 섭취할 것을 권한다.”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6.txt

제목: “‘다가(多價) 新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 효과”  
날짜: 2016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14051123001  
본문: 아베 아베종양내과 원장, 국제 학회에서 잇따라 발표아베 히로유키 박사(일본 도쿄 아베종양내과 원장)는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4회 국제수지상세포학회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2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자신이 개발한 ‘다가(多價) 신(新)수지상세포 암백신(ABE Vax) 치료’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아베 박사는 이들 학회에서 “<span class='quot0'>표준치료로 효과 없는 유방암과 난소암 환자에게 ABE Vax 치료와 활성NK 면역세포치료를 각 5회(1사이클)씩 치료한 결과, 종양이 소실되고 생존기간도 늘어났다</span>”고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0'>유방암 환자 26명 가운데 11명(42.3%)에서 치료 효과와 1,000일 이상 생존 중이고, 치료효과가 부족한 15명도 800일 이상 생존했다</span>”고 했다.그는 또한 “<span class='quot0'>표준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난소암 환자 12명도 모두 1,000일 이상 생존하고 있으며 표준치료를 할 수 없는 진행성 폐암 환자 22명 가운데 15명(68.2%), 대장암 환자 32명 중 19명(59.4%), 췌장암 환자 42명 중 18명(42.9%)도 치료효과를 나타냈다</span>”고 덧붙였다.사람은 몸 속에서 암세포가 생기면 이를 공격해 없애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혈액 속에 있는 ‘면역세포 사령관’인 수지상세포가 부족하면 암을 제대로 공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몸 속 혈액을 채취해 혈액 속 수지상세포를 분리한 뒤 증식ㆍ배양해 림프절에 다시 피하 주사하면 면역시스템이 다시 가동해 암세포를 공격하게 된다. 현재 암 치료의 표준 치료법인 수술과 항암제, 방사선 치료는 부작용이 많고 암세포를 없애도 평소와 다름없이 다시 생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역력도 떨어진다. 이로 인해 다른 병에 걸리거나 암이 재발ㆍ전이돼도 암과 싸울 기력마저 없어지기 마련이다.하지만 아베 박사가 개발한 ABE Vax 치료는 부작용도 적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ABE Vax 치료는 2주에 한 번씩 6회를 기본으로 한다. 입원할 필요도 없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게다가 25㎖ 정도 혈액만 뽑아 치료할 수 있어 환자 부담을 크게 줄였다. 장시간 성분 채혈 과정이 필요한 기존 수지상세포 치료를 크게 개선한 것이다.ABE Vax 치료는 또한 암세포 식별 능력을 높여 기존 수지상세포 백신 치료와 차별화했다. ABE Vax 치료에 쓰이는 암 항원은 10종 이상(NEW WT1, MUC1, CEA, CEA-4, HSP, MAGE-A3, NY-ES01, GV1001 등)으로, 기존 수지상세포 백신 치료에서 암항원을 1~2종류 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개선된 것이다.ABE Vax 치료는 환자별로 조직적 합성검사와 암 유전자와 항원 검사를 한 뒤 수지상세포 백신 치료에 최신 암항원을 4~6종 추가해 치료한다. 항암지속기간을 평균 6개월간 지속하도록 치료율도 높였다. ABE Vax 치료는 6개월간 항암작용이 지속되기에 1사이클 치료가 끝나고 3개월 지난 뒤에 영상과 종양표지자 검사 등으로 효과를 판단한다. 암이 병기가 많이 진행됐거나 전이ㆍ재발됐다면 수지상세포 암백신과 고활성 NK면역세포 치료를 같이 치료한다.한편 아베종양내과가 개발한 ABE Vax 치료와 연구에 국내 바이오회사인 ㈜선진바이오텍이 참여하고 있다. 아베 박사가 개발한 수지상세포 제조법과 수지상세포 백신치료제 제조법은 일본과 미국 특허를 받았으며 국제특허도 출원 중이다.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7.txt

제목: [헬스 프리즘] 생활습관 개선, 돌연사 예방의 첩경  
날짜: 2016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14051122001  
본문: 김병옥 상계백병원 심장내과 교수몇 년 전 심장이 멎어 모 대기업 회장이 응급실에 실려가 응급치료로 심장 기능은 회복됐지만 뇌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일과 가을 산행에서 대학병원 유명 심장내과 교수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일이 기억나는 계절이다.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은 환절기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흡연 등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갖고 있으면서 평소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이 무리한 산행 등을 하면 돌연사할 위험이 높다. 중장년층 남자에서 돌연사가 빈번한 이유도 이런 위험 요인이 다른 연령군이나 여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심혈관질환은 특성상 예방과 관리가 발병 시 처치보다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심장 돌연사는 사전 증상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장이 멎었을 때 병원에서 치료해도 생존 가능성이 10%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따르면 한국인 기대수명은 81.1년(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1년)을 넘어섰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심장질환 사망률은 꾸준히 늘어 사망률 2위에 올랐다. 뇌혈관질환은 사망률 3위로 전체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사망률 1위인 암질환을 추월할 태세다.이처럼 국내 심장혈관질환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난 40여 년간 계속 줄고 있는 구미 선진국과 상반된 양상이다. 이는 수술ㆍ시술 등 응급치료보다 이들 질환의 원인인 동맥경화증 임상위험인자를 적절히 예방ㆍ관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흡연 비율은 OECD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되고,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 비율도 줄고(국민건강영양조사), 20~79세 당뇨병 유병률은 7.7%로 OECD 평균(6.9%)보다 높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과 치료하지 않는 비율이 각 30% 이상이다. 즉,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3분의 1 가량이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허혈성 심장질환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 유병률이 높았던 미국에서 최근 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과 입원율이 줄고 있다. 이는 식생활(영양)과 운동 같은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약제투여로 치료율을 높이고 흡연을 줄이는 등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효과 때문으로 밝혀졌다.지난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도 마련했다.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인적 노력도 필수다. 40대 이후 중ㆍ장년층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혈압, 심전도, 혈액,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혈압ㆍ이상지질혈증ㆍ당뇨병 등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 건강상태를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흡연, 비만, 운동부족이라면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심장병과 돌연사를 막을 수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8.txt

제목: 들국화 원년 기타리스트 조덕환 별세  
날짜: 20161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14050932002  
본문: 밴드 들국화의 원년 멤버인 기타리스트 조덕환이 별세했다. 향년 63세. 14일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조덕환은 이날 오전 4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십이지장암으로 투병하다 숨을 거뒀다. 조덕환은 석 달 전에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조덕환은 1985년 들국화의 1집 ‘행진’에서 ‘세계로 가는 기차’,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축복합니다’ 등의 명곡을 만들었다. 1집을 낸 뒤 팀을 탈퇴한 그는 1987년 미국으로 떠났고 2009년에 귀국해 2011년 솔로 앨범 ‘롱 웨이 홈’을 내며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C9엔터테인먼트는 “<span class='quot0'>조덕환이 솔로 2집 준비를 하는 등 음악적 열정을 불태우셨는데 안타깝다</span>”고 말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6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9.txt

제목: 유지태 "다양한 중저예산 영화 많아져야"  
날짜: 20161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11050656001  
본문: 깔끔하고 멋들어진 수트는 배우 유지태(40)의 트레이드 마크다. 그 어떤 역경에 부딪혀도 반듯한 차림새는 무너지지 않았다. 부정부패와 불륜 등으로 치욕적이었던 검사 이태준(tvN ‘굿 와이프’),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다 목소리를 잃은 세계적인 테너 배재철(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거대 언론사 사주의 동생으로 야망이 앞섰던 앵커 김문호(KBS ‘힐러’)에서 보듯 유지태는 고매한 자태를 이어갔다. 10일 개봉한 영화 ‘스플릿’에선 무언가 달라졌다. 근사한 수트 차림은 사라지고 늘어진 티셔츠와 주머니가 양 옆에 달린 일명 ‘건빵바지’로 단벌신사가 됐다.역할도 확 바뀌었다. 볼링 국가대표 선수로 승승장구 했다가 교통사고로 한 쪽 다리를 저는 철종 역이다. 사고로 임신한 아내까지 잃고 허송세월을 보내다 도박 볼링으로 전전하는 생활도 한다. 그간 유지태가 보여주던 고고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다. 삶에 의욕이 없어 보이는 헝클어진 머리와 거친 입담은 그간 유지태를 떠올린 관객이라면 어리둥절할 지도 모르겠다.최근 한국일보와 만난 유지태도 이러한 변신을 인정했다. 그는 “수트만 입다가 생각보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철종에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았다”고 했다. 잘하는 연기를 하고 싶은 게 배우들이고, 또 영화사나 제작사 측에서도 영화의 흥행 여부를 생각해 180도 달라지는 배우의 도전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하지만 유지태는 “이번 영화는 꼭 해야 했다”고 말한다. 한국영화계에 꼭 필요한 영화이기 때문이란다. “‘스플릿’은 순예산은 30억원, 총예산은 50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중?저예산 영화라고 볼 수 있지요. 요즘 상업영화들처럼 중?저예산 영화도 자금의 회수 목적이 강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업영화보다는 소재의 자유로움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의 결을 더 담을 수 있고요. 이러한 영화들이 많아져야 한국 영화계가 저변이 더 넓어지고 희망적이기 않을까 싶어요.”배우이기에 앞서 감독으로도 몇 편의 영화를 연출한 유지태로서 할 말이 많아 보였다. 배우보다 감독으로 느꼈을 영화계의 현실이 더 뼈 아파서일 것이다. 저예산 장편영화 ‘마이 라띠마’(2012)를 비롯해 단편영화 ‘자전거 소년’(2003) ‘장님은 무슨 꿈을 꿀까요’(2005) 등을 연출하며 꾸준히 감독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마이 라띠마’는 스크린 30여개만 확보한 채 관객이 1만명도 들지 않은 채 초라하게 영화관을 내려와야 했다. “스크린 독과점의 피해작”이라는 말도 들었다. 그러니 유지태는 영화 한 편이 제작돼 개봉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고된 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군다나 몇 편의 단편 영화를 연출하다 첫 장편으로 ‘스플릿’의 메가폰을 잡은 최국희 감독의 심정을 어찌 모를 수 있을까. 유지태는 “감독이 얼마나 외로운 지를 (‘스플릿’을 찍으며)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최 감독이 각본, 연출을 모두 했는데 쉬운 게 아니다. 정말 외로운 싸움”이라고 했다.특히 그는 단편 영화 외에 장편에서 인정 받지 못했던 최 감독이 “30억, 50억을 받는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큰 재능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래서 그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려고 했고, 감독과 배우 간에 소통이 필요할 때는 중간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술자리가 특히 그랬다. 소주 1병 정도의 주량이지만 최 감독과 스태프들 간의 “앙상블을 만드는 데” 뒤풀이도 주도해야 했다고. 그래도 “다행히 최 감독이 권위를 세우지 않고 배우나 스태프 등과 소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더라”고 은근히 최 감독에 대한 신뢰도 내비쳤다.연기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포지션을 유지해야 했다. 정상의 자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아내까지 잃고, 한 쪽 다리를 절며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모자라 동료의 배신을 알고 정신적인 고통에 휩싸이는, 복합적인 내면을 풀어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볼링에 있어서도 전문가로 보일 정도로 완벽한 폼과 구질을 보여야 했다.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야”한다는 일념으로 볼링에 4~5개월을 투자했다. 볼링 자세부터 하나하나 고쳐갔다. 공을 들고, 레인을 걷고, 공을 굴린 후 돌아서는 자세까지 꼼꼼히 배워갔다.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볼링 평균점수가 180점까지 됐다. “프로볼러에 도전하고 싶었”다고. 그러나 영화 촬영 등 여러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만뒀단다. 그만큼 볼링과 한 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일 터.지적장애와 자폐를 안고 있는 볼링천재 영훈(이다윗)과 한 팀을 이뤄 도박 볼링을 하는 장면은 영화의 클라이맥스다. 볼링 핀이 전부 쓰러지며 스트라이크를 기록할 때마다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주다가도 두 사람이 지닌 상처를 보고 있자면 짠한 연민이 밀려온다. 볼링 연습을 꾸준히 해온 유지태와 이다윗의 ‘케미’가 한껏 돋보인 대목이다. “이번 영화는 40회차 안으로 촬영했어요. 장편 영화의 반 정도 수준이지요. 그러다 보니 리얼리티를 끌어내서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연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최 감독이 컷 사인을 늦게 하는 성격이라 어느 정도까지 쓰일지 몰라 애드리브도 많이 했죠. 혼났죠 뭐. 하하”말은 그렇게 해도 감독 스타일을 존중하는 건 당연하단다. “‘올드보이’(2003)를 때 박찬욱 감독은 연기다운 연기를 원했고,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2004)때 홍상수 감독은 극의 리얼리티를 따르게 하지만 자신을 모방하길 바라는, 일기 속 주인공이 되어주길 바랐죠. 감독들이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배우들이 프로답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건 언제나 힘든 것 같아요.”충무로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배우에게나 기댈 수 있는 요구사항 아닐까. 1998년 영화 ‘바이 준’ 이후 ‘주유소 습격사건’ ‘동감’ ‘가위’ ‘봄날은 간다’ ‘올드보이’ ‘심야의 FM’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꾸준히 영화계를 지켜온 그이기에 가능할 것이다. “쑥스럽지만 성실한 배우라는 소문이 있어서인지 이런 (어려운)역할의 시나리오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자주 들어오기도 하고요(웃음). 하지만 저도 흠이 많고 ‘허당기’가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 KBS2 ‘해피선데이-1박2일’에 출연해 허당기 많은 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죠. 길거리를 가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1박2일’ 효과가 대단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0.txt

제목: 관련성 없는 병력 안 알렸다고… 보험 계약 해지 못한다  
날짜: 20161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11050846567  
본문: A씨는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치료를 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보험가입 전에 반대편 오른쪽 어깨를 다쳐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같은 어깨가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br/>금감원은 10일 이런 식으로 보험사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합당하지 않게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ㆍ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 가입 전에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병력이나 직업 등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다. <br/>금감원은 A씨처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단, 의학적으로 과거 병력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br/>또 가벼운 질병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암 같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보험가입 시 인수기준에 따라 일부 보장이 제외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건 허용했다. <br/>금감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보험 가입 시 스스로 가벼운 질병이라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밝혀 향후 보험금 지급 등의 갈등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br/>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1.txt

제목: [지평선] 간장게장  
날짜: 2016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10051250465  
본문: 예전에 충청도 내륙의 고향에선 게장이라면 대개 참게장을 말했다. 알은 바다에 낳지만 민물에서 서식하는 참게는 바닷게에 비해 껍질도 연하고 크기도 작다. 그걸 달인 집 간장에 담가 푹 삭히면 정작 게살이나 내장은 거의 녹아 국물이 되다시피 한 짜디짠 게장이 됐다. 그래도 속 가장자리에 노란 알이나 내장이 좀 붙어 있는 게 껍질 하나를 차지해 기름진 흰 쌀밥 한 숟가락 넣어 비벼먹던 감칠맛은 잊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게장이라고 하면 감칠맛이 응축된 아주 짠 게장을 원형처럼 여긴다.<br/>▦ 요즘은 참게장보단 꽃게장이 흔하다. 바닷게인 꽃게는 참게에 비해 몸집부터 네댓 배는 족히 크다. 산란기인 6~7월의 알이 꽉 찬 암꽃게를 최고의 식재료로 친다. 물 좋은 꽃게는 쪄서도 먹고 탕으로도 요리하며, 게장을 담그기도 한다. 6ㆍ25 전쟁 이후에 꽃게를 토막 내어 고춧가루 양념에 버무려 삭히지 않고 바로 먹는 양념게장이 등장했다고 하나, 게장의 본령은 역시 간장게장이다. 다만 요즘 간장게장은 과거에 비해 살은 많되, 간은 훨씬 심심해진 게 특징이다.<br/>▦ 간장게장을 ‘게젓’이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젓갈음식이란 얘기다. 소금젓갈이든 간장젓갈이든 젓갈은 짜게 담가야 잡내 제거와 발효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근년 들어 저염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간장게장에도 다양한 저염숙성(발효) 기술이 접목됐다. 간장에 한약재를 함께 써서 간을 낮추면서도 꽃게 비린내를 잡는 방법이 나왔다. 그런가 하면 메주나 일본의 낫토 등 콩을 발효시킬 때 작용하는 지푸라기의 고초균을 활용하는 간장게장 특허도 등장했다.<br/>▦ 간장게장이 글로벌 미식 요리로 인정 받았다. 최근 발표된 ‘미슐랭 가이드 2017 서울 편’에서 종로의 한식당 ‘큰기와집’이 당당히 별 한 개를 얻었다. 김치를 비롯한 아시아의 발효음식에 대한 국제적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청주 한씨 집안의 300년 된 씨간장을 이용해 간장게장을 담그는데 특유의 깊은 감칠맛으로 유명하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큰기와집 역시 짜지 않게 게장을 담그기 위해 1차로 꽃게를 우린 간장에 갖은 약재를 넣고 달이는 방법을 쓴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심심한 간장게장이 대세라고 해도, 예전 입맛엔 게장이든 간고등어든 짭조름해야 제 맛이다.<br/>장인철 논설위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2.txt

제목: 부산ㆍKTㆍ카자흐, 의료시스템 공동개발  
날짜: 2016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10051208436  
본문: 부산시는 10일 오후 4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카자흐스탄 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방사선 치료 시스템의 구성 및 이행, 과학과 기술, 산업혁신 활동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br/>한국, 카자흐스탄의 기업, 공공기관 등 주요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부산시 관련 양해각서를 비롯해 총 7건의 협약이 체결된다.<br/>이번 양해각서는 자국 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카자흐스탄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으며, ▦디지털 헬스케어(원격 진료) 시스템 구축 ▦방사선 암치료시스템 공동 개발 ▦악토베주의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 산업 혁신 활동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br/>앞서 지난 8월에는 사업 참여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대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KT와 카자흐스탄 7개 기관간 디지털 헬스케어 및 방사선 암치료시스템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바 있다. <br/>부산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카자흐스탄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 의료관련 산업의 수출 및 해외의료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향후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CIS국가 지역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3.txt

제목: [삶과 문화] 내 집에서 나이들기(Ageing in place)  
날짜: 2016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10051023932  
본문: 엊그제 103세로 세상을 뜬 친구 시모님 장례에 다녀왔다. 103세가 되도록 당신이 수십 년간 사셨던 그 터, 그 집에서 지내시다가 숯불 사위듯이 가셨다. 물론 2층에서 아들 내외가 살면서 보살펴 드리고는 있었다. 마지막도 아드님과 며느님 앞에서 문자 그대로 숨을 멈추셨다. 참으로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나쁜 죽음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여기저기 줄을 꽂고, 괴로운 나날을 정신 놓고 보내다가 의료기에서 번득번득 비추는 불빛과 삐뻐 거리는 의료기 소리 속에서 숨을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br/>어찌 죽음뿐이랴. 노후의 삶도 더더욱 익숙하고 정든 내가 살던 내 집에서 보내는 것이 좋다. 늙은 나무를 옮겨다 심으면, 새 땅에 뿌리내리기가 버거워 나무는 시름시름 하기 일쑤고, 까닥하다가는 고사하기 쉬운 이치와 맞닿아 있다.<br/>그런데 근년에는 노인들이 무슨무슨 시니어타운이니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유행처럼 돼 버렸다. 양극화는 노인 세계에서도 예외 없이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누구는 돈이 많아서 고급시설로 치장된 양로원으로, 누구는 돈이 적어서 싸구려 시설의 양로원으로 들어간다. 호화롭게 치장한 시니어 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극소수의 노인들은 모두 행복할까. 다른 한 편에서는 자기들 살기도 버거워 마치 안 쓰는 물건 버리듯 노부모를 시설에 내 맞기는 족속들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년 자신들이 홀로 사는 게 버겁고, 일상이 귀찮아서 기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덜컥 시설에 들어가 놓고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걸 알았을 때, 말도 못한 채, 실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이 왜 아니 없겠나. 이런저런 사연으로 노인들이 시설로 몰려가는 게 지난 몇십년 추세다. <br/>이처럼 우리는 지난 몇십 년간 시설 서비스를 받아 보았다. 그 결과 거리거리 요양병원 간판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고, 이런저런 양로시설 광고지를 종종 받아 보는 지경이 되었다. 나라에서 노인에게 주는 보조금을 노려서 마치 노인이 인간이기보다 사업 미끼로 여기는 노인 상대 사회사업자도 볼 수가 있다.<br/>나이가 들고 병이 있다고 덮어놓고 시설에 들어가고, 수용되고, 단체생활을 하면서 길고도 길어진 노후생활을 획일적으로 보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유행 따르듯 시설에 입소해서 사는 삶은 사양하고 싶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노년이 사는 집은 아닌 게 아니라, 노인이 살아가기에는 위험천만한 곳이기는 하다. 노인에게는 암이니 하는 병보다 더 위험하고 절박한 것이 낙상, 즉 넘어져 다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네 사는 집은 곳곳이 노년들이 장애물 경주를 하듯 피하고 넘어야 할 장애투성이다.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집안 일부 개조해 주는 것이 선결과제다. 이를테면, 낙상을 피하기 위하여 욕실이나 바닥을 미끄럼방지용 깔개로 덮고, 모든 문턱을 없애고, 다니는 벽면마다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거기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을 때는, IT 강국답게 노인에게 부착된 손목밴드나 펜던트를 통해 즉각 가족과 응급시설에 연락이 가도록 하는 개인응급응답시스템(PERS)을 설치할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설치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도 배워 올 필요가 있다. <br/>놀랍게도 서울시가 세계 복지기구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단다. 이런 명성에 걸맞게 노인 서비스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오던 시설서비스중심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환해 노인들이 개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볼 때가 왔다.<br/>획일적이고 몰개성적인 시설입소보다는 사생활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내 집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br/>고광애 노년전문 저술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4.txt

제목: “췌장암, 이젠 겁먹고 포기하는 병 아니다”  
날짜: 20161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8051332393  
본문: 절제 가능한 췌장암은 45%까지 생존<br/> “일단 걸리면 죽는다”, “수술해도 얼마 못 살아” …. 췌장암 환자가 주위사람에게서 주로 듣는 말이다. 췌장암이 치료가 어려운 불치병인 것은 사실이다. 체중 감소, 소화불량, 황달, 허리통증 등만 있지 이렇다 할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다 몸 속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려워 75% 이상이 수술 불가능한 3, 4기에서 진단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망률이 높고 예후가 나쁘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5,000명 정도가 걸려 비록 암 발생 순위는 9위이지만 5년 생존율이 9.4%로 최하위다(국가암정보센터). 20년 전이나 현재나 변함없이 생존율이 암 가운데 꼴찌다.<br/>그래서 췌장암에 걸리면 상심해 대부분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췌장암은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 되고 있다. 이동기 강남세브란스병원 췌담도내과 교수도 “<span class='quot0'>췌장암에 걸렸다고 겁을 먹고 포기할 병은 아니다</span>”라고 강조했다.<br/>17일은 제3회 ‘세계 췌장암의 날’이자 제2회 ‘한국 췌장암의 날’이기도 하다. 김선회 한국췌장암네트워크 대표(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대한췌담도학회, 한국췌장외과연구회, 한국췌장암네트워크, 대한암학회 등 4개 단체는 17일 췌장암 인지도 제고와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췌장암의 날 퍼플 리본(purple ribbon) 캠페인’을 펼친다</span>”고 했다.<br/><br/>췌장암에 걸리면 사망한다?<br/> 흔히 주위의 가까운 분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하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슬퍼한다. 하지만 이는 췌장암 전체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황진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후가 나쁜 췌장암은 췌장에 걸리는 종양 중 악성 선암</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절제가 가능한 1, 2기 췌장암은 중간 생존기간이 전보다 많이 향상됐으며, 5년 생존율도 항암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10~15%에 지나지 않지만 항암치료를 하면 25~45%에 이를 정도로 좋아진다</span>”고 했다. <br/> 전이되지 않았지만 수술 불가능한 3기 췌장암 환자도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25~35% 정도의 환자는 절제할 수 있기에 수술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황 교수는 “<span class='quot2'>4기 췌장암도 2011년 이후 여러 새로운 치료법이 나온 이후 평균 생존기간이 11개월 이상 향상됐고, 이후로도 더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 췌장암을 ‘불치병’이라기보다 ‘난치병’으로 여기고 극복 가능한 암 가운데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윤동섭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췌장암은 크기가 2㎝ 미만이고 암세포가 혈관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았다면 수술을 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요즘 의학시술이 발전하면서 70세 이상 고령인도 수술이 가능해졌다</span>”고 했다.<br/><br/>당뇨병 환자, 췌장암에 잘 걸린다?<br/>췌장암의 가장 중요한 징후로 당뇨병을 꼽는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처럼 당뇨병과 췌장암 관련 논쟁이 의학계에서 4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결론은 이렇다. ‘당뇨병 환자에서도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2배 가량), 반대로 췌장암에 걸린 환자에서도 새로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4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조절이 잘 되던 당뇨병 환자가 갑자기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한다.’<br/> 그러나 당뇨병 유병률에 비해 췌장암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렸다고 해서 췌장암에 걸린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황 교수는 “<span class='quot2'>성인이 돼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조절이 잘 되던 당뇨병 환자가 갑자기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span>”고 했다. 따라서 과도한 염려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췌장암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 보다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평소 건강관리에 힘쓰는 것이 좋다.<br/><br/>췌장암 환자에게 단백질은 독?<br/> 암 환자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 영양분을 암세포가 먹으니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아주 잘못된 얘기다. 황 교수는 “<span class='quot2'>4기 췌장암을 포함해 대부분의 암 환자는 잘 먹고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span>”이라고 했다. <br/>최근 여러 연구에서 암 수술 전후, 혹은 항암치료기간 중 몸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암 환자라고 모두 포기하고 먹는 것을 줄이고, 활동도 삼가는 것보다는 몸이 허락하는 한 잘 먹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생존기간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br/> 또한, 일부 암 환자는 적절한 치료법을 외면하고 민간요법에 의지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다. 황 교수는 “<span class='quot2'>췌장암은 분명 난치병이지만 최근 면역치료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치료제, 표적항암제, 새로운 항암제 등이 연구ㆍ개발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췌장암은 극복될 것</span>”이라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와 최근 도입된 몇몇 치료를 제외하고 췌장암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은 없다</span>”고 잘라 말했다.<br/>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br/><br/><br/>-체중이 갑자기 줄고 황달이 나타난다.<br/>-위ㆍ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복통이 계속된다.<br/>-통증으로 똑바로 눕기가 힘들다.<br/>-복부ㆍ허리ㆍ등 부위 통증이 심하다.<br/>-식사 후 복부 통증으로 괴롭다.<br/>-식욕이 없고 식사량이 줄었다.<br/>-60세 이후에 당뇨병이 생겼다.<br/><br/><br/>-금연, 특히 췌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필수<br/>-절주, 고 알코올 함량 독자가 더 위험<br/>-비만예방, 평소 표준체중 유지에 노력<br/>-운동, 적절한 운동은 모든 암예방 도움<br/>-과다한 육류ㆍ고지방식ㆍ가공식품 줄이기<br/>-현미ㆍ잡곡, 신선채소, 다양한 과일 섭취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5.txt

제목: [헬스 파일]  
날짜: 20161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8051300349  
본문: 분당서울대, 감마나이프 2000례 달성<br/>분당서울대병원이 최근 감마나이프 수술 2,000례를 달성했다. 한정호 센터장은 “<span class='quot0'>감마나이프 수술은 머리를 여는 다른 수술보다 안전하게 뇌병변을 치료할 수 있고 오차도 적다</span>”고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11일 오후 3시 병원 대강당에서 ‘청신경초종의 치료와 청력 보존’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br/>‘피칸 파이’ 무료 증정 이벤트<br/>미국피칸협회는 11일까지 미국 피칸으로 만들어진 디저트 ‘피칸 파이’를 무료로 주는 SNS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미국피칸협회 페이스북(www.facebook.com/uspecan.korea)과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uspecan.korea)에서 참여할 수 있다. ‘좋아요’를 클릭하고 피칸에 대한 댓글을 남기면 20명을 추첨해 피칸파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br/><br/>서울아산병원, 불면증 강좌<br/>서울아산병원은 17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불면증과 수면모호흡증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정유삼(이비인후과)ㆍ정석훈(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나서 강의한다. (02)3010-3051<br/><br/>국제성모병원, 암예방 프로그램<br/>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암환자 및 보호자, 일반인 대상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암 예방과 치유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암치유교육센터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료진 및 암치유교육센터 소속 운동처방사 임상심리사 임상영양사가 담당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암 예방과 치유에 도움 되는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와 암 관계 ▦우리 집 밥상에 옮겨 놓은 항암식단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암 예방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br/><br/>이대목동병원, 녹내장 강좌<br/>이대목동병원 안과는 '눈의 날'을 맞아 11일 오후 1시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녹내장 조기발견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소리없는 실명 원인 녹내장,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를 주제로 한 한경은 안과 교수가 강의한다. (02)2650-5154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6.txt

제목: [헬스프리즘] 유방암 치료 뒤 5년 지났다고 방심 안돼  
날짜: 20161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8051256816  
본문: 조영업 연세암병원 유방외과 교수<br/>2003년 김모(당시 45세) 씨는 오른쪽 유방에 작은 멍울이 잡힌다며 병원에 찾아왔다. 검사 결과 유방암 1기였다. 부분절제술로 암을 제거한 뒤 호르몬 치료를 했다. 그 뒤 정기적으로 초음파검사를 받았다. 2010년까지는 꾸준히 병원에 왔다. 하지만 이사한다는 말을 남기곤 병원에 오지 않았다. 다른 병원에라도 잘 다닐 것이라 생각했다. 2014년 김씨는 이번에는 왼쪽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며 찾아왔다. 검사 결과 2기 유방암이었다. 그나마 부분절제술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후로는 정기 검진을 빼먹지 않고 있다. 김씨는 운이 아주 나쁜 사례는 아니다.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방심하다가 재발해 사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이다.<br/>국내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1.2%(유방암백서)로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다. 4기(34%), 3기(75.8%)는 그리 높진 않지만, 2기(91.8%) 1기(96.6%), 0기(98.3%)는 5년 생존율이 무척 높다. 조기 발견이 많아졌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 발전과 표적치료제를 비롯한 새로운 항암제 도입으로 5년 생존율보다 10년 생존율을 완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br/>그렇다면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왜 암이 재발할까? 완치(完治)라는 말을 오해한 측면이 강하다. 많은 사람이 의학은 ‘yes'와 ’no‘의 구별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의학은 통계 학문이어서 0%나 100%는 없다. 최첨단 장비라도 암을 100% 찾아내지는 못한다. 암 완치판정도 마찬가지다. 5년 간 생존한 암 환자를 분석해보니 통계적으로 완치와 비슷하다는 것일 뿐, 암에 걸리지 않은 상태와 100% 같다는 뜻은 아니다.<br/>완치를 완전한 치료(complete recovery)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암 치료는 이보다 관해(寬解ㆍremission)에 가깝다. 이는 완전한 병 회복이 아니지만 가정ㆍ사회생활로 복귀해 정상생활을 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필자는 유방암 치료 뒤 5년이 돼도 가급적 ‘완치’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br/>유방암 위험인자는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임신ㆍ출산ㆍ수유 경험이 없는 것 ▦음주 흡연 ▦호르몬 대체 요법 ▦유방암 가족력 등이 꼽힌다. 이보다 더 큰 위험인자가 유방암 경험이다. 외국 연구에 따르면 한쪽 유방에 암이 생겨 치료한 사람이 유방암에 다시 걸릴 위험이 매년 0.5~1%씩 늘며 평생 16%의 발병 가능성이 있다. 진료실에서 보면 암 치료 뒤 5년이 지나면 환자의 긴장감이 확실히 떨어진다. 유방암 강좌를 비롯해 암환우회 출석도 뜸해지고, 금주 금연 운동 검진 등 관리도 느슨해진다. 암 세포가 좋아하는 조건이 딱 만들어지는 것이다.<br/>암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 걱정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완치 판정이 예전 삶으로 돌아가라는 보증서는 결코 아니다. 유방암 경험자를 만날 때마다 “술만이라도 절대 마시지 말라”고 강조한다. 알코올은 체내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으로 방향족화시켜 에스트로겐의 양이 증가돼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재발도 늘리기 때문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7.txt

제목: [헬스 프리즘] 경제 부담 1위 간암, 조기 발견이 해법  
날짜: 20161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8051154648  
본문: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br/>연말이면 잦은 음주로 40~50대 직장인은 간을 많이 걱정한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릴 정도로 병이 진행돼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치료가 힘들기 때문이다.<br/>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이 중 간암은 암 발생률 4위이지만, 사망률은 폐암에 이어 2위일 정도로 치료가 어렵다. 간암은 조기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지만, 간암 환자의 60% 이상이 완치가 어려운 3기 이후에 발견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위암, 대장암 등 다른 암의 완치율이 80% 이상이어도 간암 사망률은 여전히 높다.<br/>특히 폐암이 70~80대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간암은 경제활동을 하는 40~60대에 가장 많다. 이런 이유로 간암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경제부담은 모든 암 중 항상 1위다. 따라서 개인ㆍ가족 불행을 예방하고 사회경제 손실을 줄이려면 간암 사망률을 낮춰야 한다.<br/>건강한 사람의 경우 간암 위험이 연간 0.1% 미만이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간암 대부분은 간경화 환자에게서 생긴다. 간경화 원인인 BㆍC형 간염에 대한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먹는 약 도입과 건강보험 급여정책 덕분에 간경화 예방과 악화 방지는 어렵지 않다. 또한 간경화 합병증인 정맥류 출혈, 복수 및 복막염, 신부전의 예방과 치료법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간경화증 환자의 사망 위험은 최근 15년 새 65%나 줄었고 간암 환자의 기대 수명은 8년이나 늘어났다. 하지만 간경화 환자의 간암 발생위험은 줄지 않아 개인당 2~10% 정도로 여전히 높다.<br/>현재까지 간암 감시 검사법은 개인별로 간암 발생 가능성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초음파 검사만 실시돼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ㆍ영상의학과 공동연구팀은 간암 발생위험이 연간 5% 이상인 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간세포 특이 조영증강제를 사용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했을 때, 간암 조기 발견 확률이 86%로 기존 초음파 검사(27.9%)보다 3배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br/>MRI 검사가 초음파보다 영상의 질이 훨씬 우수하고, 간세포 특이 조영증강제를 사용하면 MRI 검사의 진단 정확도를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MRI 검사는 방사선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반복 검사해도 인체에 무해하다. 특히 이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환자의 97.7%가 조기 간암으로, 74.4%는 극조기(0기) 간암으로 진단돼 대부분 완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비교적 비싸지만 간암 발견 확률이 훨씬 높은 MRI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료비가 오히려 적게 든다.<br/>간암은 극조기에만 발견되면 완치할 수 있고 5년 생존율을 70%까지 올릴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간암 질병 부담과 경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간암을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이 절실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밀 의료에 기반한 개인형 맞춤 감시검사 전략을 도입해 조기 발견율과 완치율을 높이려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8.txt

제목: 기술 개발 보상금 100억 잭팟 터트린 연구원  
날짜: 20161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8051043684  
본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자해 설립된 연구소기업에서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대박’ 과학자가 2명이나 나왔다. <br/>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의 주식 매각 수익금 330억원 중 절반을 연구원들에게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배분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콜마BNH 연구원 17명은 165억원을 나눠 갖게 됐다. 이 배분 금액은 콜마BNH 지분 25%를 1차로 매각한 데 따른 순수익금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나머지 75%의 지분도 내년 초까지 순차 매각할 예정이어서 연구원들의 보상금은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br/>미래부에 따르면 1,2차 배분을 합해 보상금 액수가 100억원이 넘는 연구원은 2명이다. 기술 개발 기여도가 가장 높은 변명우(왼쪽 사진)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장의 1차 보상금은 41억원이다. 조성기(오른쪽) 첨단방사선연구소 책임연구원도 30억원(1차)을 받는다. 그러나 변 소장은 안타깝게도 지난달 암으로 숨져 보상금은 유족에게 상속된다. 1차 주식 매각 수익금의 나머지 절반은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된다.<br/>콜마BNH는 방사선으로 불순물을 없애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한국콜마홀딩스와 함께 설립한 국내 1호 연구소기업으로, 이 기술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2월 코스닥에 상장돼 이미 시가총액 1조원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9.txt

제목: [이원의 시 한 송이]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날짜: 2016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7050712857  
본문: 프랑시스 잠 <br/><br/><br/>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br/>나무병에 <br/>우유를 담는 일,<br/>꼿꼿하고 살갗을 찌르는 <br/>밀 이삭들을 따는 일,<br/>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br/>떠나지 않게 하는 일,<br/>숲의 자작나무들을<br/>베는 일,<br/>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br/>버들가지를 꼬는 일,<br/>어두운 벽난로와, 옴 오른<br/>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br/>즐겁게 노는 어린 아이들 옆에서<br/>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br/>한밤중 귀뚜라미들이 날카롭게<br/>울 때 처지는 소리를 내며<br/>베틀을 짜는 일,<br/>빵을 만들고 <br/>포도주를 만드는 일,<br/>정원에 양배추와 마늘의 <br/>씨앗을 뿌리는 일,<br/>그리고 따뜻한 <br/>달걀들을 거두어들이는 일.<br/><br/><br/><br/>잠이 덜 깬 아침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서로에게 건네는 일. 도로에 흰색 점선을 다시 선명하게 긋는 이들을 만나는 일. 수신호를 따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들이 섞여 들어가는 일. 비상등 신호를 켜 뒤차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일. <br/>일상이 유지된다는 것. 낡은 구두를 수선하며 남루한 심정이 되지 않는 것. 내일의 햇빛을 떠올리며 잠들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곳이 품고 길러낸다는 것들에 의심이 들지 않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은 신선하고 신성한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 국민의 일상이 유지되게 하는 것.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 <br/>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이 소소한 일상이 지켜질 때 인간의 일들은 위대한 것이니. 이보다 더 엉망진창이 되지 않기 위해 엉망진창을 달걀로 쥐어보는 일. 세게도 가볍게도 아닌, 달걀이 될 때까지. <br/>엉망진창은 다른 계산을 하고 싶은 자들이 다른 계산을 펼치기에도 적합한 시간.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우리의 존엄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 엉망진창을 달걀로 만들어 하나씩 들고. 달걀에서 달걀이 나올 때까지. 고도의 집중. <br/>이원 시인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0.txt

제목: 나치 버금가는 흑인 생체실험, 美 대통령 공식 사과 이끌어내  
날짜: 20161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5050853226  
본문: [가만한 당신] 벤저민 페이턴<br/><br/>40년 지속된 매독 실험<br/>美정부, 감염자 등 흑인 600명<br/>치료 않고 실험… 상당수 숨져<br/>언론의 폭로에도 국가는 침묵<br/><br/><br/>미국 앨라배마 주 터스커기(Tuskegee)는 주민 9,500명 남짓의 작고 가난한 마을이다. 2015년 6월 ‘월스트리트 24/7’은 앨라배마 주 평균 중간소득이 4만3,253달러(전국 평균은 5만3,046달러)로 미국 하위 5위이며, 그 안에서도 가장 가난한 마을이 터스커기(2만6,848달러)라 보도했다.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2010)에 따르면 터스커기가 속한 마콩(Macon) 카운티 주민(2만 1,000여 명)의 약 83%가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포함)이다. 고만고만한 마을들이 즐비한 형편일 테니 ‘가장 가난하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어쨌건 터스커기는 18세기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내몰고 흑인 노예들로 목화 플랜테이션 농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오래 차별 속에 방치돼 있던 남부 블랙벨트의 악명 높은 마을 중 한 곳이다. <br/>하지만 월스트리트가 굳이 저 마을을 언급한 데는 다른 뜻이 있었을지 모른다. 인류 의료윤리 역사상 최악의 국가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흑인 매독 생체실험이 만 40년 동안이나 자행된 곳이 그 곳이기 때문이다. 모진 차별 속에 미국 최초의 흑인 전투비행편대가 탄생해 2차 대전 유럽 전선에서 보란 듯이 무용을 떨친 이들이 또 그 곳 출신이었다. 보도의 숨은 뜻이 뭐든, 저 이름에서 부채감이나 아린 죄의식을 느꼈을 미국인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br/>그리고 그 마을에 1882년 오두막 교사(校舍)로 문을 연 전통 흑인학교(HBCUㆍHistorically Black College and University, 이하 흑인학교), 터스커기 대학이 있다. 벤저민 페이턴(Benjamin F. payton)은 개교 100주년이던 1982년, ‘Institute(학원)’란 명칭을 달고 있던 그 무명 대학 5대 총장에 취임해 웬만한 일반 대학과도 경쟁할 만한 오늘의 종합대학으로 키워낸 교육자이자 인권 운동가다. 가난한 사립대 총장이었던 그는, 한 푼 예산과 개인의 출세를 위해 권력에 빌붙어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기도 하는 이들과 달리, 미국 대통령까지 머리 숙이게 만들며 저 도드라진 업적을 이뤘다. 그는 연방 정부와 미국의 민주주의가 터스커기에 진 빚을 갚으라고 당당히 요구했고, 그럼으로써 소수자 교육의 당위와 가난한 그의 마을, 그리고 남부 흑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함께 지키고자 했다. 벤저민 페이턴이 9월 28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br/><br/>1932년 미국 보건부 산하 공공보건국(PHS)은 터스커기에서 매독 현장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매독은 80년대 AIDS 만큼이나 심각한 질병이었고 뾰족한 치료법도 없었다. PHS가 내건 연구 목적은 치료ㆍ예방이었지만, 실제 의도는 매독균 감염 메커니즘과 인체 영향을 관찰하는 거였다. 그 시절에도 터스커기는 그들이 보기에 가장 만만하고 뒤탈 없을 곳이었다. PHS 성병분과 책임자 존 헬러(John Heller)가 실험을 총괄했고, 존 커틀러(John Cutler)가 현장을 지휘했다.<br/>PHS는 실험 집단을 모집하며, 일상적인 부상과 질병도 무료로 진료해주고 내원 당일 교통편과 식사 제공도 약속했다. 사망 시 부검을 허락하면 얼마간의 사례와 장례비를 지원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PHS는 서로 하겠다고 손을 든 이들 가운데 나이 등 조건이 맞는 399명의 매독 감염자와 201명의 통제군 등 600명의 실험집단을 선발했다. 모두 남성이었고, 당연히 흑인이었다. <br/> <br/>이름 없던 흑인학교 총장<br/>노예학교 후신 터스커기大 부임<br/>아이비 학맥ㆍ혁신 정책 바탕<br/>일반 대학 못잖게 업그레이드<br/><br/>실험은 1972년까지 만 40년간 지속됐다. PHS가 환자에게 준 약은 치료와 무관한 영양제 같은 거였다. 1947년 페니실린의 매독 치료 효능이 입증됐지만 그들은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PHS는 피실험자가 다른 진료기관을 일절 이용하지 못하게 통제했고, 2차대전 징집 신체ㆍ건강검진에서도 배제시켰다. 병이 나으리라 기대했을 적지 않은 이들이 그 과정에 숨져갔고, 또 많은 가족들이 매독균에 감염됐다. <br/>진상이 폭로된 건 1972년 7월 25일이었다. PHS 직원이던 젊은 전염병학자 피터 벅스턴(Peter Buxtun, 1937~)은 수 차례 문제 제기가 묵살되자 ‘워싱턴 스타’ 기자 친구에게 저 사실을 제보했다. 세계가 경악했다. 보건 의료 법률 종교 등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연방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그들은 그 해 10월 “<span class='quot0'>(터스커기 실험은) 윤리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span>”는 요지의 조사보고서를 냈다. 실험이 공식 중단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이듬해 여름 피실험 주민과 희행자 가족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 900만 달러의 보상금과 생존자 및 가족들의 무료 진료 조건에 합의했다. <br/><br/> 터스커기 매독 실험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이들 중 감옥에 가거나 자격을 박탈당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예 기소된 이조차 없었다. 미국 정부도, PHS도, 누구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기 부담스럽기도 했겠지만, 가난한 마을의 흑인 성병 환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사안(워터게이트)으로 미국이 요동치던 때였다. 실험 책임자들은 오히려 ‘대의’로 당당했다. 피츠버그대 교수를 지낸 커틀러는 1993년 노바(Nova)의 다큐멘터리 인터뷰에 출연, 그들에게 페니실린을 투여하면 연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span class='quot1'>피실험자는 치료받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span>”고 말했다. 그가 40년대 과테말라 교도소 재소자 매독 연구땐 고의로 감염시키기도 한 사실이 그의 사후인 2008년 밝혀지기도 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소장을 지낸 헬러 역시 “당시 의사들과 민간 봉사자들은 각자 맡은 일을 했을 뿐이다. 그들은 과학의 영광을 위해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br/> 물론 터스커기 매독 실험은 나치와 일제 생체실험 이래 최대 의학 연구 스캔들로 깊은 상흔을 남겼다. 미국 정부가 소수자 의료복지에 보다 기민해진 계기가 됐고, 실험 내용 고지 및 동의 의무화 등 임상실험의 윤리적 규제도 강화됐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는, 보상과 대책과 숭고한 대의 속에 묻혀갔다.<br/><br/> 그 어두운 과거를 다시 들춘 게 1996년 ‘터스커기 매독연구 유산위원회’였다. 위원회는 40년 실험의 국가 책임을 따져 물으며 미국 정부를 대표해 대통령의 공개ㆍ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듬해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TV 카메라 앞에 나서서 실험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 터스커기 대학과 아프리칸아메리칸 공동체에 용서를 빌었고, 터스커기대 국립 의료윤리 연구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그 위원회를 이끈 게 벤저민 페이턴 총장이었다. 그는 “사람들은 그 ‘끔찍한 일(monstrous thing)’을 ‘터스커기 실험’이라고 부르곤 한다. 하지만 실험 주체는 터스커기가 아니라 미국 공공보건국이다.(…) 국가의 사과는 너무 오래 지체돼 왔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미국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의료윤리센터로 99년 5월 출범했다.(encyclopedia.com)<br/><br/><br/> 페이턴은 1932년 12월 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오렌지버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Leroy Ralph Payton)는 침례교 목사이자 농부 겸 교사였다. 그는 흑인이 범죄에 빠지지 않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교육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진 이였고, 9남매를 모두 대학에 보냈다. 벤저민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사회학과(55년)를 나와 하버드에서 다시 종교철학을 전공했고, 콜럼비아대에서 철학 석사를, 예일대에서 윤리학 박사 학위(63년)를 받았다. 그가 학비 비싼 아이비리그 대학서 저 많은 학위를 받은 것은, 물론 빼어난 학생이기도 했지만, 소수자 교육ㆍ취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덕도 컸을 것이다. 그는 콜럼비아대 재학 시절인 58년 사회사업학 석사과정에 있던 동갑 여성 셀마 페이턴(Thelma Payton, 1932~2013)을 만나 이듬해 결혼, 54년간 부부로 지내며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를 도왔다. 셀마가 앨라배마와 코네티컷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욕 등지를 다니며 가족과 여성 청소년 복지를 위해 일하는 동안, 벤저민은 워싱턴D.C의 하워드대 조교수(63~65), 뉴욕시 종교ㆍ인종 위원회 디렉터(65~66), 미국 교회협의회(NCC) 사회정의국 종교ㆍ인종위원회 사무총장(66~67) 등을 거치며 교육 및 흑인 인권 운동가로 살았다. 35세이던 67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흑인학교인 베네딕트대 역대 최연소 총장에 뽑혀 72년까지 재직했고, 이후 10년간은 뉴욕 포드재단 고등 교육ㆍ연구 분과 책임자(program officer)로 일했다.(legacy.com) 뉴욕타임스는 그가 63년 워싱턴 시민권행진 조직 사업에 관여하는 등 사이사이 다양한 흑인 인권 운동에도 발벗고 나섰다고 소개했다.(NYT, 2016.10.11)<br/><br/>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했다. 감세와 정부지출 감축을 골자로 한 그의 경제정책(레이거노믹스)은 흑인학교에 치명타였다. 흑인학교란 미국 남북전쟁 이후 종교단체나 개인이 노예나 노예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한 학교들의 통칭이다. 1965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정규 학교로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대다수가 교육의 질이나 입학생 수준, 교직원 처우 등 면에서 대체로 열등한 학교로 통한다. 미국 흑인대학은 현재 총 107개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남부 19개 주 흑인 마을에 분포해 있다. 국고 보조금 의존율이 높은 만큼 연방 교육예산 감축은 학교 존립이 걸린 문제였다. 터스커기대가 5대 총장 모집 공고를 낸 게 1981년이었다. <br/><br/>뉴욕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던 페이턴에게 총장 지원서를 내보라고 권한 건 흑인 침례교 목사겸 인권운동가로 흑인대학 모어하우스대 총장을 지낸 벤저민 메이스(Benjamin Mays, 18944~1984)였다.(montgomeryadvertiser.com, 16.9.30) 그가 권한 건 영예가 아니라 봉사와 헌신의 기회였다. 페이턴은 2010년 6월 은퇴할 때까지 만 28년간 학교를 지켰다. <br/><br/> 페이턴이 터스커기대를 HBCU 대학 순위 5위권으로 격상시키며 일반 대학과 경쟁할 수 있게 한 과정을 세세히 알기는 힘들다. 대학측 자료에 따르면 그는 취임 직후인 85년 학교 위상 제고를 위해 동창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스티튜트’를 ‘유니버시티’로 변경했다. 흑인대학으로선 선도적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했고, 비즈니스ㆍ정보과학대학과 보건교육센터, 켈로그 컨퍼런스센터 등을 유치했다. 캠퍼스 정비, 건물 신축, 교육프로그램 개설…. 모두 돈이 드는 일이었고 그의 학맥과 포드재단 인맥이 기금 모금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항공우주연구센터 건립도 그의 업적 중 하나였다. <br/><br/>어두운 과거를 밝혀내다<br/>실험 종료 24년 만인 1996년<br/>유산위원장 맡아 책임 묻고<br/>클린턴 대통령 결단 이끌어<br/><br/><br/>루스벨트 대통령의 ‘흑인우대’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게 소수인종 고용 확대정책이었다. 루스벨트는 1939년 터스커기 대학부지 내 ‘모턴 필드(Moton Field)’에 미 육군항공대 훈련기지를 창설, 흑인 파일럿을 양성토록 했다. 군대 내 인종 차별로 흑인이 전투기를 모는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다. 41년 모턴 필드 출신 흑인 조종사 13명으로 구성된 최초의 흑인비행전단(제99 전투비행단)이 꾸려졌지만 백인 지휘관들은 그들에게 지상 보조업무만 맡겼다. 흑인 전단이 유럽 전선에 투입된 건 44년 6월, 직접 의회에 청원까지 하고 나서부터였다. ‘제332 비행전대’내 ‘터스커기 비행대’로 재편된 그들은 꼬리를 붉게 칠한 P-51 머스탱을 몰고 그 해 10월 대 독일전에서 전대 최초의 에이스를 배출하는 등 신들린 듯 전공을 세우며 미 공군 교범에도 수록된 ‘레드 테일 에인절스(Red Tail Angels)’의 전설을 낳았다. 페이턴은 ‘모턴 필드’의 역사지구 지정을 끊임없이 요구, 98년 의회 승인과 함께 항공우주센터 설립 예산을 따냈다. <br/> <br/><br/>레이거노믹스 초기인 81년 12월 뉴욕타임스는 ‘흑인대학,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긴 분석기사를 실었다. 60년대 이후 인종분리 관행이 약화하면서 흑인들의 일반대학 입학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70년 흑인 학생의 흑인대학 진학 비율(2/3)이 80년 무렵 1/5로 줄었다는 이야기, 일부 백인과 흑인여성 대학 진학이 늘긴 했지만 자립 기반은 오히려 약화했고,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경우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였다. 그 무렵 대학 신입생 가계 평균 소득은 백인 2만1,500달러, 흑인은 9,700달러였다. 그 차이는 등록금의 차이이자 대학 재정의 차이였다. 지금도 틈만 나면 제기되는 흑인학교 지원의 역차별 논란, 흑인대학이 오히려 인종주의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그 시절에도 없지 않았다. 하워드대 출신 흑인 인권운동가 케네스 클라크(Kenneth B. Clark) 같은 이도 “흑인 학생들이 흑인 대학을 편하게 여기는 것은 노예들이 노예제에 자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흑인 교육가들은 상당수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흑인대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거야 말로 인종주의적 발언이다. 만일 그렇다면 대학이 아니라 흑인 초등ㆍ중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r/>페이턴 등 흑인대학 옹호론자들은 클라크 등의 주장에 대해 역사와 현실을 도외시한 원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거꾸로, 흑인대학이 열등한 것은 만성적 예산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열등한 처우에서 비롯된 우수 교원 수급 문제 등의 결과라고, 일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페이턴은 흑인대학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펼쳐 보임으로써 나머지 대학들이 예산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근사한 근거 하나를 선사했다. 루이지애나 세비어 대학 총장이던 노먼 프랜시스의 말- “<span class='quot2'>모든 꽃이 봄의 첫날 한꺼번에 피지는 않는다</span>”-이 아마도 그런 의미였을 것이다. 다만 ‘월스트리트 24/7’이 전한 대학마을 터스커기의 여전한 가난은, 아무리 혼자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있음을 더불어 일깨우는 계기였을 것이다. <br/>최윤필기자 proos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1.txt

제목: 임신부 외래진료비 평균 20만원 낮춘다  
날짜: 20161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5050705046  
본문: 출산 장려 조치… 내년부터 적용<br/><br/>임신한 여성의 외래 진료비가 내년부터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쌍둥이를 임신 및 출산했을 땐 지원액이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로, 조산아의 외래 진료비도 대폭 줄어든다.<br/>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임신부의 산부인과 외래 본인부담률은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20%포인트 인하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 의원은 30%에서 10%로 내려가는 식이다. 이에 따라 임신 기간 중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다. <br/>난임 시술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쌍둥이 임산부에 대해선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현행 70만원에서 내년 90만원으로 늘려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조산아(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2.5㎏ 이하 출생)는 3세까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 입원 진료에 한해 6세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던 것에서 보장을 확대한 것이다. <br/>내시경 검사비는 내년 5,000~8,000원가 량 오른다. 병원 내 감염병 예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내시경 세척ㆍ소독료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면서 본인부담금이 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예측 목적으로 시행되는 유전자검사 120종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br/>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2.txt

제목: 5년간 약물 임상시험 55명 사망…식약처, 부작용 연관성 함구 논란  
날짜: 20161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4051138974  
본문: 최근 5년 간 임상시험 도중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부가 약물과의 연관성 등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br/>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1~2015년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총 55명이다. ‘사망과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로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r/>하지만 담당부처인 식약처는 사망자가 암과 같은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는지,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했는지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임상시험 관련 자료가 방대해 분석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자료가 축적되다 보면 연관성 여부가 바뀌기도 해 변할 수도 있는 통계를 내보낼 수 없다</span>”고 해명했다. <br/>그러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식약처는 한미약품 올무티닙(제품명 올리타정) 부작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더 많은 사망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에는 1명을 제외한 사망자는 해당 약물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지었다. 백용욱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span class='quot1'>결국 국민 알 권리보다 제약기업의 임상시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span>”라며 “<span class='quot1'>임상시험이 신약 개발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위험을 알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span>”이라고 지적했다. <br/>부작용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올리타정의 해외 부작용 사례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10건이 더 있었다. 이중 한 건은 사망 사례(말레이시아 남성)로, 폐암으로 사망하긴 했지만 약 때문에 체액량 과부하라는 이상약물반응이 나타났고, 식약처는 올리타정 시판 허가를 내주기 두 달 전인 올 3월 약물과 부작용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도 받았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국장은 “<span class='quot2'>국내 사례만 가지고도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건</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임상 3상까지 보지도 않고 신속 허가를 내준 건 문제가 있다</span>”고 비판했다. <br/>이에 임상시험 부작용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2011년 503건, 2012년 670건, 지난해 675건 등 증가추세란 점도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span class='quot3'>국내 개발 신약이라는 이유로 부작용 검증에 있어 특혜를 주는 것은 조건부 신속 허가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span>”라며 “<span class='quot3'>임상시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3.txt

제목: 국민 걱정 질환은 암ㆍ관절염ㆍ고혈압ㆍ치매  
날짜: 2016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2050952483  
본문: 우리 국민이 자신이 걸릴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은 암, 관절염, 고혈압, 치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걱정 질환’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4, 5월 두 달 동안 심평원 홈페이지 방문자 중 자발적 참여자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응답자 중 남성은 125명, 여성은 281명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137명), 40대(112명), 20대(88명), 50대(58명), 60대(11명) 순이었다.<br/>응답자의 71.4%는 현재 건강하다고 답하면서도 ‘미래에 심각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8.1%가 그렇다고 답했다. 발병을 가장 걱정하는 질환(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으로는 암(13.6%)이 가장 많았고 관절염(10.2%) 고혈압(10.0%) 치매(9.9%) 치과질환(9.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질병의 유발 원인(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으로는 스트레스(44.3%) 불규칙한 생활습관(34.7%) 가족력(34.7%) 식습관(30.3%) 음주(11.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br/>질병에 걸릴까 봐 걱정하는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36.7%) 생활 불편(25.6%) 삶의 질 저하(21.7%) 등이 많이 꼽혔다. 질병 치료에 대비해 건강보험 외에 민간보험이나 개인저축에 가입했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81.3%에 달했다. 응답자의 68.2%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br/>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4.txt

제목: 고혈압ㆍ당뇨환자 특화보험 아시나요  
날짜: 2016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2050826932  
본문: 두 질병 제외한 병력 심사<br/><br/>고혈압이 있는 김모(46)씨는 최근 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무심사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고혈압 진단으로 번번이 보험가입이 안됐는데 병력 심사를 하지 않고 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해서다. 그런데 얼마 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고혈압 특화 보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했던 보험을 해약했다. 특화 보험은 고혈압을 제외한 다른 병력을 심사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김씨가 가입한 무심사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80%나 저렴했다.<br/>금융감독원은 1일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을 소개하고, 가입 시 종류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에는 질병이 있으면 대부분 보험가입이 거절됐지만 최근에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입원ㆍ수술 기록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br/>유병자보험은 보장내용과 대상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최근 2년간(암은 5년간) 입원이나 수술 경력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시 6개 항목(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만 심사하는 간편심사보험이 있다. 질병 발생 시 입원비와 수술비, 진단비 등을 보장해주지만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2배 가량 높다.<br/>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특화 보험도 있다. 이 두 항목만 심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병력 심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증 질병도 보장해주고 보험료는 일반보험보다 10% 정도 높아 비교적 부담이 적다. <br/>아예 병력심사를 하지 않는 무심사보험도 있다. 가입 시 질병이나 치료내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5배 가량 비싸다. 보장하는 사망보험금도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br/>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5.txt

제목: 채식주의자의 날  
날짜: 2016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1051230774  
본문: [기억할 오늘] 11.1 <br/><br/>11월 1일은 ‘월드 비건 데이(World Vegan Day)’다. 육류를 먹지 말자는 ‘Meat Free Day’와 ‘World Vegetarian Day’ ‘World Farm Animal Day’ 등 유사한 날들이 연중 열흘 남짓 된다. 오늘은 1944년 영국 런던에서 출범한 세계 최초 채식주의자 모임인 ‘비건 소사이어티 Vegan Society’가 제정한 채식인의 날 중 하나다. 채식주의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정보를 나누고, 채식주의자로서 덜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하자는 취지의 날이다. 각자가 채식 레시피로 요리한 음식을 공개된 장소에 가져와 자랑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비 채식인에게 시식을 권하기도 한다. 비건 공개행사는 그래서 꽤 인기가 높다.<br/>채식주의자들이 널리 알려온 채식의 가치 혹은 동기는 대략 네 가지쯤 된다. 채식주의의 기원은 종교적인 배경 위에 있다. 기독교 금식문화와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사상도 있다. 하지만 현대 채식주의자들이 앞세우는 가치는 보다 적극적이다. <br/>먼저 윤리적 가치. 그들은 동물 사육과 도살 과정의 비윤리성에 주목한다. 환경적인 이유도 있다. 사육 과정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배설물 메탄 가스 등이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고, 수질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현대 사회의 여러 질병들, 대사증후군 같은 각종 성인병과 일부 암, 알러지, 피부염 등이 육식 문화와 관련이 있고, 특히 부적절한 사료와 항생제 등 약물이 가축을 통해 인체 내에 축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체로 옳지만,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니라는 윤리적ㆍ과학적 반론도 있다. <br/>채식주의자는 실천 범위에 따라 대개 여섯 등급으로 나뉜다. 플렉시테리언(채식 위주지만 육식도 하는 이들)- 폴로ㆍ세미 베지테리언(닭과 생선, 유제품과 달걀은 먹는 이들)- 페스코 베지테리언(유제품과 달걀, 생선은 먹지만 닭을 포함 육류는 안 먹는 이들)-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유제품과 달걀까지만 먹는 이들)- 락토 베지테리언(유제품만 먹는 이들)- 비건(모든 동물성 식품을 안 먹는 이들). 폴로와 페스코 베지테리언을 구분 없이 페스코로 분류하기도 한다. <br/><br/>윤리적 우월감에 도취해 타인의 삶(자녀 포함)에 개입하려는 이들도 물론 있다. 최윤필기자 proos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6.txt

제목: 정치에 휘둘린 과학… 수천억대 가속기가 천덕꾸러기로  
날짜: 2016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1051220531  
본문: 원자력硏 양성자가속기<br/>3100억 투자… 물질 변환 용도<br/>이용자수 방사광가속기 ⅛수준<br/><br/>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br/>분담금 내지 못해 가속기는 없이<br/>965억원 들여 건물만 ‘덜렁’<br/><br/><br/>이미 4,000여억원이 투입된 대형 연구시설인 양성자가속기와 중입자가속기가 기대만큼 이용되지 않아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 학계의 공감대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건설이 결정된 탓에 예산만 허비했다는 게 과학자들 지적이다. <br/>31일 과학계에 따르면 3,100억원을 들여 경주 건천읍에 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양성자가속기를 지난해 이용한 연구자는 581명에 그쳤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 학술지(SCIㆍ과학기술인용색인)에 관련 논문이 실린 것도 30여편에 그쳤다. 이는 1995년 건설된 포항 방사광가속기(3세대)의 지난해 이용자가 4,640명, SCI 논문이 451편인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양성자가속기가 방사광가속기보다 활용 분야가 다소 좁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용이 너무 적다는 평가다. 조용섭 원자력연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장은 “<span class='quot0'>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돼 최종 규모(에너지 세기)가 미국, 일본의 10분의 1로 줄어 연구 범위도 그만큼 축소됐다</span>”고 밝혔다. <br/>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가속시켜 나오는 빛으로 물질 내부를 관찰하고, 양성자가속기는 가속한 양성자(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로 물질을 변화시킨다. 양성자가속기가 설치되면 단백질 분석 등 생명과학 분야에서 두 설비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다. 방사광가속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무거운 원소를 분석하는데 유리하고, 양성자가속기는 가벼운 원소 분석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주 양성자가속기는 에너지가 약해 단백질 분석이 어렵다. <br/>부산 기장군의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에는 아예 가속기가 없다. 2010년부터 중앙정부와 부산시, 기장군이 투입한 965억원으로 건물만 지어 놓았다. 의학원이 내야 할 분담금 750억원이 확보되지 못해서다. 중입자가속기는 탄소 입자를 가속시켜 나온 에너지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설비다. 외국에 없는 새 기종(사이클로트론)의 중입자가속기를 개발하겠다던 의학원은 2014년 개발을 중단하고 중국 일본 독일 등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기종(싱크로트론)을 만들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신재 의학원 기획행정팀장은 “<span class='quot1'>신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업을 변경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지역 병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분담금 마련을 추진 중</span>”이라고 말했다.<br/>양성자가속기와 중입자가속기는 지자체가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경주시는 양성자가속기로 수백명의 고용 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기장군은 중입자가속기 일대를 동북아 암 진료 특구로 육성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에는 현재 40여명이 근무 중이고, 중입자가속기는 들어설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해졌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지역에 정치적 ‘보상’ 성격으로 건설해준 뒤 이후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br/>대전 유성구에 짓고 있는(공정률 29.85%) 중이온가속기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린다. 1조4,298억원이 들어갈 이 가속기마저 중입자나 양성자 가속기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중이온가속기는 무거운 금속 입자(이온)를 가속시켜 희귀한 원소를 만들어내는 설비다. 한 물리학자는 “<span class='quot2'>중이온가속기를 사용할 국내 연구자는 학생 포함 200명도 안될 것</span>”이라고 한탄했다. 한 화학자는 “<span class='quot3'>학계와의 논의 없이 정치권과 연결된 일부 과학자들 목소리만 극대화한 결과가 바로 가속기</span>”라고 꼬집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7.txt

제목: ‘졸리 효과’… 유방암 유전자 검사ㆍ예방 수술 늘었다  
날짜: 2016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1051147877  
본문: 안젤리나 졸리 효과로 국내 여성의 유방암 유전자 검사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br/>한국유방암학회는 안젤리나 졸리의 예방적 수술이 알려진 2013년을 기점으로, 2012년과 2015년 사이 BRCA 검사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br/>또한 예방적 수술 인식도 높아져 BRCA 돌연변이 보인자가 예방적 수술로 반대편 유방절제술을 받은 건수는 5배, 양측난소절제술을 받은 건수도 4.7배 증가했다.<br/>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연간 BRCA1 검사 건수를 분석한 결과, BRCA1 검사 건수는 2012년 946건에서 2015년 2,837건으로 안젤리나 졸리가 예방적 수술을 받은 2013년 이후 3배 가량 늘어났다. BRCA2 검사 건수도 비슷하게 증가했다.<br/>유방암과 난소암 가족력을 가진 안젤리나 졸리는 BRCA 유전자 검사로 BRCA1 유전자에 변이를 확인하고 2013년 예방적 절제술을 받아 유전성 유방암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br/>유전성 유방암이란 특정 변이 유전자로 인해 가족 내 세대를 거듭해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체 유방암의 5~10%나 된다. 원인이 되는 대표 유전자는 BRCA1, BRCA2이다. BRCA1, BRCA2 유전자 변이가 있는 여성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국내 보고에 따르면 BRCA1 변이 여성의 경우 70세까지 유방암 위험률은 72.1%, 난소암 위험률은 24.6%였으며, BRCA2 변이의 경우는 각각 66.3%와 11.1%였다.<br/>2013년부터 국내 예방적 수술도 늘었다. 전국 28개 대형병원에서 한쪽 유방암이 있는 BRCA 변이 보인자 717명을 조사한 결과, 예방적 수술로 반대편 유방절제술을 받은 건수는 2012년에 비해 2015년에 5배, 양측난소절제술을 받은 건수는 4.7배 증가했다.<br/>예방적 수술 목적은 유방암과 난소암 발생 위험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수술 종류는 예방적 유방절제술(예방적 양측, 예방적 반대측 유방절제술), 예방적 양측난소절제술이 있다. 유방절제술의 경우 여성성 상징인 유방 절제에 대한 상실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반대편 유방절제까지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안젤리나 졸리의 예방적 시술로 인해 유방암 환자의 인식이 제고됐다.<br/>예방적 양측난소절제술은 변이 유전자와 보인자의 유방암 발생과 난소암 발생 위험을 낮추며, 사망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 <br/>BRCA 검사는 2005년 보험이 적용됐으며 2012년 5월 보험 대상 확대, 그 해 12월 예방적 난소절제술 보험도 적용됐다. <br/>한세환 학회 이사장(아주대병원 유방암센터장)은 "BRCA1, BRCA2 유전자 변이는 유방암과 난소암뿐만 아니라 남성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담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8.txt

제목: [헬스 파일]  
날짜: 2016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1051143545  
본문: 서울성모병원, 암 바로 알기 행사<br/>서울성모병원 암병원은 7~9일 사흘간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암 환우와 보호자, 등을 위한 ‘2016 암 바로 알기’ 행사를 연다. 올해로 다섯 번째로 열리는 이 행사는 암병원을 구성하고 있는 12개 협진센터 진료의 특수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명의 강좌에서는 대장암(이인규 교수) 유방암(유태경 교수) 부인암(기은영 교수) 강의(7일)를 시작으로 폐암(박재길 교수) 간암(유영경 교수) 비뇨기암(박용현 교수) 강의(8일), 위암(박조현 교수) 갑상선암(김상연 교수) 백혈병(이석 교수) 강연(9일)이 잇따라 진행된다. (02)2258-2782<br/>대한폐경학회, 폐경 건강강좌 <br/>대한폐경학회는 11월 한 달 간 ‘제3회 쿨디바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7개 병원에서 건강강좌를 연다. 2일 오후 2시 강동경희대병원 별관 지하1층 대강당을 시작으로 강원대병원(10일 오후 2시), 상계백병원(14일 오후 2시), 부천성모병원(16일 오후 2시), 부산대병원(17일 오후 3시), 대구의료원(17일 오후 2시), 순천향대 부천병원(24일 오후 1시) 순으로 진행된다. (02)2022-8255<br/><br/>고대안암병원, 인공심장박동기의 날 강좌<br/>고려대 안암병원은 4일 오후 2시 고려대 의대 신의학관 2층 유광사홀에서?‘인공심장박동기의 날’?건강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에서 '심장박동기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필요한가?' 노승영 교수),?'심장 제세동기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필요한가?'(이광노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김영훈 부정맥센터장과 심장박동기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br/><br/>강동경희대병원, 체지방 감소 임상<br/>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는 우뭇가사리 추출물에 의한 체지방 감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체질량 지수가 25~30㎏/㎡이면서, 약물치료를 최근 석 달 이내 받은 적이 없거나, 당뇨병이 없는 20세 이상 성인이다. 참여자는 월 1회, 총 3회간 혈액 검사, 신체 검사, 체지방 검사를 받게 된다. (02)440-7055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9.txt

제목: 집단 암 발병 마을에... 또 고압 송전선로?  
날짜: 2016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1051132422  
본문: 1996년 이후 주민 670명 중 29명<br/>위암 등 걸리고 사망자 20명 넘어<br/>“<span class='quot0'>인체 유해성 상존… 막대한 피해</span>”<br/>“<span class='quot0'>수도권 북부 발전설비 추가 필요</span>”<br/>한전, 무산됐던 설명회 강행 방침<br/><br/><br/>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마을은 수년 전 암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고압선 영향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지역이다. 지금도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고압선과 흉물처럼 들어선 철탑을 마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br/>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집단 암 발병 원인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이 마을을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와 철탑을 건설하기로 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br/>30일 양주시에 따르면 한전은 2019년 4월 준공예정으로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에서 양주변전소까지 37㎞에 전력을 송전하는 ‘345㎸(킬로볼트)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신설을 추진중이다. <br/>주민들은 선로 신설로 고압철탑 62기가 은현, 백석, 장흥 등 양주전역의 산림축을 관통해 전자파 유해성과 환경훼손, 날림번지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br/><br/><br/>특히 양주변전소(전력의 전압을 변환해 가정에 보내는 시설)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1992년 삼하리 약 8만9,100㎡에 들어선 양주변전소는 경기서북부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전국적으로 드물게 의정부~양주, 양주~은평 등 345㎸급 3개, 154㎸급 5개 등 8개의 고압송전선로가 어지럽게 연결돼있다. 양주 송전선로까지 신설되면 무려 9개 송전라인이 삼하리에 집중되는 것이다. <br/>주민들은 사방으로 뻗은 수많은 고압 송전선과 수십개의 고압철탑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인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br/>실제 장재훈 전 양주시의원의 200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장흥면 삼하리 120여 가구 670명 주민 중에 29명이 위암, 피부암, 폐암 등 각종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했다. 현재 사망자는 20명을 훌쩍 넘었다. 2013년 기준 인구 1만명당 28.5명꼴인 국내 암발생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br/>삼하리에 사는 장 전 의원은 “<span class='quot1'>변전소 인근, 원주민 위주로 암 발병이 높았으나, 한전이 공기업이다 보니 원인규명 조사가 안됐다</span>”며 “<span class='quot1'>주민들이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냐</span>”고 개탄했다.<br/>한전의 계획에 주민들은 대책위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지만,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br/>박효배 주민대책위 총무는 “<span class='quot2'>철탑 아래엔 풀도 자라지 않는 등 인체 유해성이 상존하고, 지가도 최대 70%까지 떨어지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span>”며 “<span class='quot2'>주민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span>”고 한전을 비판했다. <br/>이에 대해 한전 측은 “<span class='quot3'>수도권 북부의 발전설비 증가로 전력수송능력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span>”며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설명회를 이번 주 강행할 방침을 확인했다.<br/> <br/><br/>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0.txt

제목: '바니걸스' 언니 고정숙씨 별세  
날짜: 2016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101051122104  
본문: 1970~80년대 활동했던 쌍둥이 여성듀오 바니걸스의 언니 고정숙씨가 31일 별세했다. 향년 62세. <br/>가요계에 따르면 고씨는 올해 초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 오다 31일 새벽 숨을 거뒀다. <br/>고정숙ㆍ고재숙 쌍둥이 자매로 구성된 바니걸스는 국악예술고 재학 중이던 1971년 ‘하필이면 그 사람’으로 데뷔해 가요, 번안가요,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발표했다. 뛰어난 가창력과 발랄한 안무, 화려한 패션 등으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군사정권의 외래어 추방조치로 바니걸스에서 토끼소녀로 그룹명을 바꿔 활동하기도 했다. 대표곡으로는 ‘검은 장미’, ‘옛날 이야기’, ‘그냥 갈 수 없잖아’, ‘애수의 소야곡’ 등이 있다.<br/>고씨의 빈소는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이다.<br/>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1.txt

제목: “왕따, 통과의례 아니다” 엄마의 외침에 공동체가 답했다  
날짜: 2016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29184636238  
본문: 2011년 3월 10일 ‘워킹 맘’ 서디너 워커(Sirdeaner Lynn Walker)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다. 그날 백악관 이스트홀에서는 청소년 집단 따돌림(Bullying)의 현황과 대책을 두고 전문가와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풀 타임 회의를 가졌고, 워커는 집단 따돌림으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 중 한 명으로 초청된 거였다. 오바마가 워커를 따로 만난 것은 그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미국 사회에 알리며 연방과 주 정부의 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 온 이였기 때문이었다. <br/><br/>워커는 오바마에게 2년 전 잃은 11살 아들 칼(Carl Joseph Walker-Hoover)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선거 날 밤 나는 아들에게 어떻게 미국이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했어요. 칼이 잘 시간이 지났지만 그 날은 봐줬고, 당신의 당선이 확정되는 걸 보며 칼은 무척 행복해 했어요.” 그는 새 대통령도 편모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그를 롤모델로 삼으라고, “칼, 너도 원하는 게 뭐든 다 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 미국 대통령인들 할 말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오바마가 한 말 가운데 알려진 건 “아이가 참 잘 생겼네요”가 다였다. 사실 그 날의 컨퍼런스 자체가 대통령의 대답이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해 자신도 어릴 적 전학을 다니면서 큰 귀와 이상한 이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곤 했다고 말했다. 워커는 “<span class='quot0'>대통령의 그 말이 무척 뭉클했다.(…) 집단 따돌림의 경험이 있다는 건 따돌림 당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대통령이 안다는 거였다</span>”고 말했다.(masslive.com, 2011.3.12)<br/><br/><br/>2009년 4월 6일 저녁, 매사추세츠 주 스프링필드의 뉴 리더십 차터스쿨(NLCS) 6학년(중1)이던 11살 칼은 노스햄프턴 집 이층 난간에 전기 줄로 목을 매 자살했다. 퇴근한 엄마 워커에게 칼은 그날 학교에서 책가방이 교실 TV 모니터를 건드려 넘어지는 바람에 한 급우가 다쳤는데 그가 자기를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다고, 5일 정학까지 맞게 됐다며 낙담했다고 한다. 칼은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제 방에 올라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썼다. 그는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며 가족 모두를 사랑한다고, 자신의 포켓몬 카드를 남동생에게 전해달라고 적었다.(essence.com, 2009) <br/>칼이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 건 2008년 9월 인근 초등학교에서 NLCS로 갓 진학한 직후였다. “게이 같다”는 게 따돌림의 이유였다. 워커는 즉각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span class='quot1'>거의 매주 한 차례씩 전화를 걸었어요.</span>” 그는 일하는 엄마였지만 사친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교장을 만나고 생활지도교사를 만났다. 하지만 워커가 보기에 달라지는 건 없었고, 그건 칼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아니 전보다 더 심한 보복성 괴롭힘에 시달렸을지 모른다. <br/>\*\*<br/><br/>서디너 워커는 스프링필드 토박이로 1965인 4월 23일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인종 차별이 심하던 딥사우스 출신이었고, 둘 모두 차별과 가난 때문에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 부모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워커를 길렀다고 한다. “<span class='quot1'>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내 부모님이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들뿐 아니라 만나는 모두에게 공부를 하라고 적극 권유하곤 했다.</span>”(masslive.com, 09.4.8) 워커는 보스턴 칼리지를 거쳐 서포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br/><br/>대학 졸업 후 그는 미 국방부가 부상 제대 병사나 전사자 가족 등의 주택마련 지원사업으로 벌인 ‘주택 지원프로그램(HAP)’에서 일했다. 5남매를 낳은 워커는 막내딸을 임신했던 2004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직장을 그만뒀다. 다행히 병이 나아 다시 시작한 일이 매사추세츠 주 직장인재교육협회(Career Development Institute)의 노숙자 지원프로그램이었다. 노숙자 개개인을 상대하며 각자 집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선하고, 자립 기반이 마련되면 직업학교든 고교나 대학이든 각자 수준과 상황에 맞는 학교 진학을 돕는 일이었다. “<span class='quot1'>교육을 받는 것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삶을 향상하는 가장 좋은 길이죠.(…) 또 그것이 그들뿐 아니라 자녀들을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span>” 워커는 노숙자들에게 결코 타인이 그들의 존재와 삶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그는 지역 언론과의 ‘여성의 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장엔 저마다 장벽을 마주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때로는 어떤 낙인이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다 양보하더라도, 누구나 자기의 자녀들은 자기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가 집단 따돌림을 겪는 어린 칼에게 했던 말이기도 했을 것이다. <br/><br/>아들을 잃은 그는, 일에 쏟던 저 순박한 열정으로, 칼과 자신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워커가 맨 먼저 한 일은 칼의 심장 판막과 안구 기증이었다. 2009년 ‘Essence.com’인터뷰에서 그는 “지난 해 7월 야외 파티를 하던 날 칼이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다쳤어요. 왜 헬멧을 안 썼냐고 혼을 냈더니 제 친척이 ‘칼이 자기 헬멧을 사촌 동생에게 씌워주더라’고 하더군요. 칼은 그런 아이였어요. 장기 기증은 그리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했다.(masslive, 위 기사)<br/><br/>그는 지역 학부모들과 연대해 스프링필드의 공립학교들이 집단 따돌림 근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고, 시와 매사추세츠 주 정부와 의회, 미 연방정부와 상하원 의원들을 찾아 다니며 자신의 사연과 학교 폭력의 실태를 전했다. 물론 그 전에도 후에도 학교폭력은 있었고, 희생자도 있었다. 워커가 만난 이들 중에는 피해자 부모도 가해자 부모도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따돌림을 가벼운 통과의례쯤으로 여기는 태도, 고쳐지지 않을 문제라는 식의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2009년 7월 안전한 학교법(Safe School Act)을 심의하던 연방 의회 청소년교육 관련 소위원회에 출석, 증언하기도 했다. <br/> 미국 언론들도 그 무렵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집중 보도했다. 2009년 미국 청소년 폭력예방센터(NYVPC)는 청소년 3명 중 1명이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거나 가해자, 혹은 둘 다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6~10학년생 약 13%가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이 있고, 11%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위축되고, 자존감 하락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맞설 능력을 상실하며, 극도의 고립감과 소외감 끝에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이야기. 그 영향은 청소년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성년기로도 이어져 우울증 등을 야기하며, 6~9학년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자의 약 60%가 24살 무렵 최소 한 건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계도 있다. 집단 따돌림에는 당연히, 육체적 가해 외에도 외면 배척 모욕 욕설과 문자나 이메일 SNS의 사이버 집단 따돌림도 포함된다. 워커는 오프라 윈프리 인터뷰 등을 통해 저런 통계와 학교 현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바 등을 전국적으로 알렸다. “처음부터 괴롭히는 아이(bully)로 태어나는 이는 없습니다. 그건 학습된 행위입니다.”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집단 따돌림 방지법(Anti Bullying Law)을 제정한 건 이듬해인 2010년이었다. <br/>앞서 2009년 연방 의회는 1965년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span class='quot2'>인종과 피부색, 종교, 국적, 장애, 성과 성지향, 젠더 아이덴티티에 근거한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는 학교 및 지역 활동에 연방 예산을 지원</span>”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안전한 학교법’을 제정했다. 주 별로는 조지아주가 1999년 관련법을 최초로 입법화했고, 2015년 몬태나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주가 관련 법을 제정했다.<br/><br/>\*\*<br/>2009년은 오바마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해였다. 그의 교육정책은 여러모로 시련을 겪었다. 취임 직후 그는 ‘한국 공교육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교육정책의 모토로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을 내세웠다. 모든 공립 학교가 언어, 수리 영역 평가시험을 치러 점수에 따라 교사를 평가하고 급료에 차등을 주는 정책이었다. 그의 정책은, 적어도 전통적 민주당 지지기반이던 미국 전교조(NEA)와 교사연합(AFT)이 보기에는 부시 정부의 ‘어떤 아이도 낙오시키지 않는다(No Child Left Behind)’는 교육 이념보다 퇴행한 거였다. 교육분야에 관한 한 그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잃었다. 오바마와 그의 친구인 아니 던컨 (Arne Duncan) 교육부장관 체제의 미국 공교육이 학교 폭력과 칼의 비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일 테지만,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진보 교육단체 등의 끈질긴 사퇴 요구 끝에 던컨이 물러난 것은 2015년 10월이었다. <br/> <br/><br/>워커의 결혼생활은, 칼의 아버지(Benjamin Carl Hoover Jr)가 매릴랜드에 산다고만 보도됐을 뿐 거의 알려진 게 없다. 둘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었던 듯하다. 워커는 다섯 남매를 혼자 키웠고, 가족은 가난했다. 워커가 강연 등을 위해 미국 각지를 떠돌며 집단 따돌림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동안 그의 이웃들이 그를 도왔다. 2009년 “Be A Buddy Not a Bully”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단 ‘칼 워커 후버 재단’이 설립된 것도 스프링필드 주민들의 후원 덕이었다. 재단은 매년 대학 진학 예정자 가운데 학교 폭력 예방ㆍ근절을 위해 힘쓴 이들을 선발, 1인당 1,000~1,500달러씩 약 7만3,000여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해왔다.(raycom-news network) <br/><br/>미국 방송 ABC는 신청자의 집을 무료로 개ㆍ보수해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Extreme Makeover- Home Edition’에 워커 일가의 집을 선정, 스프링필드 시와 주민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보태 2011년 새 집을 지어주기도 했다. 다른 가난한 이들을 제쳐두고 워커의 집을 선정한 것은 프로그램 공정성에 흠을 남기는 일이었지만, 노숙자들의 집 마련을 도우면서 정작 자신은 어린 아이들과 다 낡은 집에 사는 워커의 공적 헌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애써온 그의 노고를 보답하려는 그 선택에 불만을 제기한 이는 없었다. 새 집을 얻어 기뻐하는 워커 일가의 사연은 2011년 11월 방영됐다. 집이 지어지는 동안 워커 가족은 역시 방송사의 배려로 캘리포니아 헐리우드로 휴가를 떠났고, 그 이야기도 ‘Ellen DeGeneres Show’로 방영됐다. 매사추세츠대는 워커의 자녀들에게 4년 학비와 기숙사비 등 일체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유선방송사 컴캐스트는 1년간 케이블방송과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br/>워커는 성지향 이슈와 관련된 교육 단체 ‘GLSEN(Gay Lesbian Straight Education Network)의 이사회 맴버이기도 했다. 그는 국제 성소수자 청소년 교육 지원 단체인 ‘안전한 학교 연대(Safe Schools Coalition)’와 함께 활동했다. 2009년 인터뷰에서 워커는 칼이 성지향 때문에 고민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기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겨우 11살이었어요. 사춘기도, 변성기도 겪지 않았어요. 집단 따돌림은 게이 이슈보다 훨씬 근본적인 겁니다. 칼의 친구 중 한 명은 뚱보라고 따돌림을 당했죠. 그 아이들은 어떤 이유로든 괴롭힙니다.”(essence, 위 기사)<br/><br/>2011년 4월 허핑턴포스터 기고문에서 워커는 “집단 따돌림은 동성애자 이슈도 이성애자 이슈도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safety) 이슈이며 인간에 대한 존중(respect)의 이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그들이 누구든, 다 잘 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에 관련된 이슈입니다”라고 썼다.<br/><br/>\*\*<br/><br/>이란 출신의 백악관 공공부문 수석보좌관 발레리 제릿(Valerie Jarrett)은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의 목적은 백악관이 앞장섬으로써 집단 따돌림 이슈를 가볍게 여기거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고, 문제를 풀어나갈 전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학생 등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이제 해법을 찾을 때입니다.”(WP, 11.3.10)<br/>그것이 국가가 있어야 할 이유 중 하나다.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경찰력으로 진압부터 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해법을 찾는 일. 그것이 통치와 함께 정치가 필요한 이유다. 국가나 사회의 책임으로 억울한 희생을 겪은 유족을 불순분자로 몰아 내치는 게 아니라 우선 그 사연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는, 공적인 문제를 앞장서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이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아니라 가능한 한 그들을 돕고 응원하려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공동체의 일원이란 말은 그래서 인간과 동의어다. 워커의 삶이, 그의 이웃들과 미국의 정치가 그 사실을 확인하게 했다. <br/>워커는 재발한 암과 투병하다 10월 4일 별세했다. 향년 51세. <br/>최윤필기자 proos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2.txt

제목: 암으로 쓰러진 노견에게 일어난 기적  
날짜: 2016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29184441408  
본문: 8년 전 미국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조이 맥스웰 씨와 그의 아내는 유기견을 살처분 하는 보호소에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골든 리트리버 종 ‘매버릭’을 입양했습니다.<br/>동물전문매체 도도와 매버릭 페이스북 등에 따르면 매버릭은 버려진 숲 속에서 혼자 무려 3개월을 버티다 발견되었는데요,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지만 강인한 정신력으로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br/>매버릭은 아픈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잃지 않았고, 자신을 입양해 준 맥스웰씨 부부를 몹시 따랐습니다.<br/>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매버릭. 하지만?2년 전,?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림프종 진단을 받은 겁니다. <br/>어떻게든 매버릭을 살리고 싶었던 주인은 화학요법을 선택했고, 다행히 치료효과가 있어 암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2개월 전,?매버릭의 암이 재발했고, 가족들은 매버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br/>그리고 불행은 돌연 찾아왔습니다. 1주일 전 아침,?매버릭이 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매버릭은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겨우 들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할 수도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그저 떨고만 있는 매버릭. 주인은 빈혈과 미열이 있는 매버릭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몇 일간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br/>매버릭의 컨디션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강한 정신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br/>비록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지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매버릭에게 힘을 내게 했습니다.<br/><br/>맥스웰 씨는 매버릭의 남은 인생을 그저 침대에 누운 채 우울하게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산책을 좋아하는 매버릭을 밖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br/>자신의 발로는 걸을 수 없는 반려견을 위해 맥스웰 씨는 커다란 왜건을 구입했고, 매버릭은 무사히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건 위에 침대와 담요를 깐 후, 산책을 시작하자 매버릭은 머리를 들고 혀를 내밀며,?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맥스웰 씨는 그때,?이번이 매버릭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산책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br/>하지만 그 예감은 빗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산책을 나가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이 일과가 되자 마을 사람들도 매버릭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매버릭에게 인사를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매버릭도 산책과 사람들의 손길을 매우 즐거워했고, 그때부터 건강상태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br/>맥스웰씨는 매버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버릭이 일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버릭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인의 헌신 덕분에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은 확실했습니다.<br/>다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자, 화학요법을 시작해도 될 만큼 충분히 건강해졌다는 진단이었습니다.<br/>매버릭은 아직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건강을 회복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br/>하지만 매일 산책을 한 덕분에 여기까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br/>반려견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지만, 덕분에 맥스웰 씨와 매버릭은 마을에서 유명인사가 되었고, 매버릭이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br/>“<span class='quot0'>매버릭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고, 모든 사람들이 매버릭을 사랑했습니다.</span>”<br/>한희숙 번역가 pullkkot@naver.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3.txt

제목: 70대 진료비 13년간 7배… 고령화의 그늘  
날짜: 2016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28051247739  
본문: 전체 진료비 중 비중 11%→28%<br/><br/><br/>7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의료기관 진료비가 최근 13년 동안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같은 기간 국민 전체 진료비에서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5배 가까이 늘어나 30%에 육박했다.<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7일 공개한 2002~2015년 진료비 심사 통계에 따르면 2002년 2조1,544억원이었던 70세 이상 진료비 규모는 지난해 16조2,326억원으로 7.5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2.8배(40만9,000원→114만9,000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심평원이 집계한 진료비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비용(보험급여+본인부담금)이어서, 건보 혜택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과는 별개 계정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까지 합하면 노인 의료비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br/>전체 진료비에서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11.30%에서 지난해 27.98%로 급증했다. 지난해 이 연령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8.9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2002년엔 60대(16.93%) 50대(15.30%) 40대(15.3%) 30대(12.65%) 9세 이하(14.15%)에 못 미쳤던 수치가 13년 만에 모든 연령대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반면 저출산 여파로 9세 이하 진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14.15%에서 6.77%로 크게 줄어 대조를 이룬다.<br/>노인 법정 연령인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21조3,61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8%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가입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12.3%)의 3배에 달한다. 임현정 심평원 의료정보관리부 차장은 “<span class='quot0'>노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종 직전 환자나 치매 환자는 입원ㆍ치료 과정에서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만성질환 관리비용, 암ㆍ치과 부문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도 노인 진료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이유</span>”라고 설명했다. 향후 고령화 심화로 건보 급여 지출 부담이 가중될 것을 감안한다면 건보 재정 안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br/>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4.txt

제목: 警 인지능력 없는 노인 10년간 무노동 시킨 갑질자 입건  
날짜: 2016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28050903924  
본문: 군수후보에다가 전직 도의원 출신<br/>암투병에 환자에 축사관리, 농사일 등 맡기고 <br/>기초연금까지 가로채<br/><br/><br/>한때 모 유력 정당 전남 곡성군수 후보까지 지내고 전직 전남도의원에다가 축협조합장까지 지낸 지역사회지도층이 자신의 축사와 농장에서 지적장애인으로 의심되는 60대 노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10년간 임금도 주지 않다가 경찰에 입건됐다.<br/> 더욱이 이 노인은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암투병 중에서도 비를 맞으며 농장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br/>전남 장성경찰서는 27일 인지능력이 부족한 A(67)씨에게 10년간 축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부가 지급한 기초연금까지 가로챈 B(67)씨에게 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br/>경찰에 따르면 지역 유명인사였던 B씨는 2006년 전북 순창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데려온 A씨에게 지난 5월까지 곡성과 장성 등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축사와 농장물재배 등의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r/>특히 B씨는 피해자가 지난해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자 A씨 통장을 관리하며 연금 210여만원을 가로채고, 암 치료비 명목으로 A씨 명의의 논 판매대금 3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br/>경찰 조사결과 B씨는 A씨에게 10년간 1억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벽지에 곰팡이가 가득한 농장 내 낡은 숙소에서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를 두고 라면 등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br/>지난 5월 지역을 순찰하는 경찰이 홀로 비를 맞으며 밭일을 하던 A씨를 발견하고 악행적인 갑질논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A씨는 당시 식도암과 폐렴으로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지니고 있었고 몸도 많이 마른 상태였다.<br/>경찰에서 장애 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이름 석자를 겨우 쓰고 숫자 계산 등을 전혀 할 줄 몰랐던 A씨는“돈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준대서 오씨가 적금을 들어주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B씨는 조사에서“명절에 50만원도 주고 식사도 제때 주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br/>한편 현재 A씨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전북 순창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27년 전 이혼으로 헤어진 아들 2명을 찾아줬다.<br/>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5.txt

제목: 병 달고 사는 한국인… 30%가 만성질환  
날짜: 2016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26051255540  
본문: 고혈압 등 11개 질환자 1439만명<br/>진료비도 8% 늘어 첫 20조 돌파 <br/>지출비중 암 이어 정신질환이 2위<br/>우울증ㆍ치매 늘며 가파른 증가세<br/><br/><br/>국민 10명 중 3명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사용한 진료비는 21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br/>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5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439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8.5%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고혈압이 570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계질환(274만1,000명) 정신 및 행동장애(262만8,000명) 당뇨병(252만1,000명) 간의 질환(149만3,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br/>이들의 진료비는 총 21조2,994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2%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8%(1조5,738억) 증가한 것으로, 20조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악성신생물(암)이 4조9,362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됐고, 정신 및 행동장애(3조839억원) 고혈압(2조8,499억원) 대뇌혈관질환(2조4,033억원) 당뇨병(1조8,159억원) 등의 순이었다. <br/>지출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도 11.7%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신경계질환(12.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김병수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과도한 업무, 치열한 경쟁, 경제적 압박 등 외부환경에 의한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우울증 환자 등이 늘어난데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개선되면서 치료율이 높아진 측면도 있을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br/>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도 지난해 총 22조2,361억원으로 사상 첫 20조원 돌파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1.4%(2조2,674억원) 증가한 것으로, 7년 전인 2008년(10조7,371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1조3,15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무릎관절증(7,664억7,900만원) 2형당뇨병(6,834억8,300만원) 기타척추병증(4,012억8,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전체 연령(113만원) 대비 3배 수준인 362만원이었다. . <br/>지난해 1인당 평균 병원 방문일수는 외래 방문 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4일 줄어든 19.3일(입원 2.6일, 외래 16.7일)로 나타났다. 외래방문일수는 2008년 15.1일에서 계속 증가해 2014년 17.1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전환, 16.7일을 기록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의료 이용량이 계속 늘고 있지만, 증가율은 두 자리 수에서 한 자리 수로 둔화했다</span>”며 “<span class='quot2'>경제상황이 어려워 병원을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span>” 고 분석했다. <br/>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510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8만876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각각 3.6%와 2.9% 늘어난 수치다. 내는 보험료대비 받는 혜택은 조금 더 많았다. 지난해 건보 적용 대상자 1명이 낸 연간 보험료는 86만4,428원, 같은 기간 진료비로 나간 연간 보험 급여비는 89만2,320원으로, 낸 보험료보다 받은 혜택이 1.03배 더 컸다. <br/>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6.txt

제목: 막 붙이고, 막 바르면 안 되는 마약패치ㆍ크림  
날짜: 2016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25051548843  
본문: # 2년 전부터 목디스크를 앓고 있는 K(43)씨는 최근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여전했다. K씨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담당의사는 ‘마약패치’사용을 권했다. “마약패치요? 패치에 어떻게 마약이 들어있나요?” 마약이란 소리에 겁에 질린 K씨는 이 처방을 거부했다.<br/><br/> 마약진통제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잘못 사용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마약진통제가 오ㆍ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마약패치’로 불리고 있는 펜타닐 성분의 마약진통제가 대표적이다. 암환자, 만성통증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할 약이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이는 물론 진통제를 복용을 해도 무방한 목ㆍ척추디스크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br/>정지영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약제팀 약사는 “<span class='quot0'>암환자와 함께 비스테로이드항염제를 최대로 사용해도 통증조절이 되지 않는 골관절염, 하부요통, 만성췌장염 환자에게 처방된다</span>”며 “<span class='quot0'>펜타닐 성분의 패치는 다른 마약진통제처럼 의존성을 키울 수 있어 함부로 처방하면 안 된다</span>”고 말했다. 이지현 약사(동국대 약대 외래교수)는 “<span class='quot1'>마약패치는 마약진통제를 복용한 적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는 약</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이 약은 기존에 복용하던 마약진통제 양을 계산해 그에 맞는 용량을 처방해야 할 만큼 투약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경증환자에게도 처방돼 문제가 심각하다</span>”고 말했다. <br/>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은 마약패치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홍성진 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마약패치를 잘못 사용하면 심할 경우 호흡정지가 일어나 사망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패치의 경우 용량조절이 쉽지 않고 피부로 침투된 약을 제거할 수 없어 질환 초기에 패치를 처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이 약사는 “<span class='quot1'>최근 아무 통증 없이 발목이 부어 입원한 환자에게 마약패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을 만큼 마약패치 오ㆍ남용 문제는 심각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처방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소홀하다 보니 약물 오ㆍ남용으로 인한 범죄와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span>”고 주장했다.<br/> 시중에서 마약크림으로 알려진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크림’ 문제도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오ㆍ남용은 물론 불법유통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리도카인 크림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취제로 사용되며, 비뇨기과에서는 조루증 환자에게 처방된다.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이 약이 문신 전문업소, 피부미용실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익명의 피부과 개원의는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시술 전 문신을 할 부위에 약을 발랐다는 이들이 많았다”며 “문신시술 시 마취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도카인 크림을 발랐을 텐데 정품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br/>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3'>과거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불법 성기능 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된 사례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마취성분이 정상 제품보다 2~4배 가량 많은 불법제품이 유통됐다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span class='quot2'>리도카인 크림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작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하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성분을 알 수 없는 불법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면 큰 일</span>”이라고 말했다.<br/> 여성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4'>최근 회음부에 문신하는 여성이 많은데 이 부위는 흡수력이 뛰어나 호흡곤란, 쇼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span>”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태영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5'>문신시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행위로 신체에 흡수되는 리도카인 농도가 상승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5'>재료가 오염됐다면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신 교수는 “<span class='quot6'>마취크림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심각한 부종, 발진, 가려움증 등에 노출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6'>특히 심장질환 환자는 사용을 삼가야 한다</span>”고 말했다.<br/> 마약패치, 마약크림뿐 아니라 다른 전문의약품도 치료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 약사는 “<span class='quot1'>강남, 이태원 등에서 천식치료제를 성적흥분을 일으킬 목적으로 처방 받아 남용하는 등 오ㆍ남용 문제가 심각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마약진통제 오ㆍ남용과 불법유통을 근절시켜야 한다</span>”고 촉구했다. 홍 교수는 “<span class='quot2'>마약냉면, 마약커피, 마약김밥 등이 인기를 끌면서 ‘마약’이란 단어가 대중에게 친근한 단어가 됐다</span>”며 “<span class='quot2'>하지만 이들 음식은 많이 먹으면 속이 아픈 정도로 끝이 나지만 마약진통제는 사람을 죽이는 흉물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span>”고 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7.txt

제목: [헬스 프리즘] 암보다 더 두려운 치매  
날짜: 2016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25051526353  
본문: 이재홍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br/>70대 남성과 그 아들이 진료실을 찾았다. 최근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TV 리모컨을 서투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병원으로 모셔왔다. 검사해보니,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병)로 진단됐다. 가족에게 검사 결과를 알리자 부둥켜안고 눈물을 감추질 못했다. <br/>요즘 고령인들이 암보다 무서워하는 병이 치매라고 한다. 기억력 감퇴는 고령인 대부분이 느끼는 문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 중 80~90%가 호소한다고 한다. 흔히 기억력 장애는 치매의 시초 증상으로 인식돼 치매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br/>하지만 기억력 장애가 생겼다고 모두 치매가 되지 않는다.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의해 생기는 뇌손상 결과로, 기억력과 공간지각력, 계산능력, 판단능력 등이 점차 떨어져 일상생활에까지 문제가 나타나므로 기억력만 떨어지는 ‘단순 노인성 건망증’과 구분해야 한다.<br/>지난 주말 가족모임 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단순 건망증이고, 가족모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치매의 기억력장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노인성 치매는 다른 인지 기능이 정상적이면서 기억력만 떨어지는 경우가 흔해 단순 노인성 건망증과 구별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br/>치매 대부분은 알츠하이머병인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이 걸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다. 65세 이상 고령인의 5~10%가 이 병을 앓는다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자가 65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20년 후에는 130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br/>문제는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최근 알츠하이머병 경과를 늦추거나 증상 개선을 시키는 약물이 많이 나와 제대로 치료 받는다면 환자와 가족에게 예전만큼 고통을 주지 않는다. 특히 최근 알츠하이머병 원인물질로 알려진 뇌 속 아밀로이드 존재를 감지해 조기 진단할 수 있는 PET 검사법도 나왔다. 진단되면 치료와 뇌건강 관리를 통해 병 진행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검사비가 비싸 치매 발병에 관심이 많은 고령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뇌 속 아밀로이드를 혈액검사로 아는 방법을 찾는 등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 <br/>약물치료 외에 치매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인지훈련, 일상생활 동작수행 등 치매재활치료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특히 게임 등을 통해 인지기능을 자극하고 기억력, 집중력, 언어기능, 실행기능 등을 높이는 훈련과 적절한 재활을 병행해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호전시키기 위한 인지치료가 각광받고 있다. <br/>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 활발한 사회활동, 적극적인 두뇌활동, 금연, 절주, 건강한 식사 등이 치매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기억력과 학습능력 감퇴를 풍자해 ‘디지털 치매’라 하듯이 불편을 감수하고 직접 머리를 쓰고 손을 쓰는 일,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치매 예방의 기본이다. 외적 아름다움을 위해 치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작은 습관을 바꿔 뇌건강 관리를 잘해 ‘뇌(腦)미인’이 되는 것이 치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8.txt

제목: 11억 과징금 부른 한방-양방 의료기기 다툼  
날짜: 2016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24051011048  
본문: 의협-의사총연합-의원협회 등 3곳<br/>GE 등에 “한방에 팔면 불매운동”<br/>공정위에 적발 “진료 선택권 차단”<br/>정부는 눈치보기... 환자만 뒷전에<br/><br/><br/>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진료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한의사들과 이를 막으려는 양의사들의 다툼이 공정거래위원회 거액 과징금 처분으로까지 이어졌다. 의료진이 정작 환자 건강권보다는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한ㆍ양방의 적정한 의료기기 사용 기준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r/>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행위 금지’를 위반한 3개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br/>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2009~2012년 GE헬스케어를 상대로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팔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 거래하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사실상 협박 공문까지 보냈다. 더 큰 시장을 무시할 수 없었던 GE헬스케어는 이에 굴복해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GE헬스케어는 의협에 사과까지 하면서, 거래중단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기도 했다. <br/>세계시장 1위 기업의 이 같은 결정은 다른 사업자인 삼성메디슨에도 영향을 미쳐, 삼성메디슨은 2011년부터 한의사에게 초음파 기기를 단 한 대도 팔지 않았다.<br/>또 의협은 2011년 국내 점유율 1~5위의 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들이 요청한 혈액검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하거나 예후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한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도 2012년과 2014년 각각 진단검사 기관들에 한의사와의 거래 거절을 요구했다. <br/>공정위는 “<span class='quot0'>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한의원을 이용하려는 환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 행위</span>”라고 지적했다. <br/>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공정위가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공정 경쟁을 통해 보다 좋은 진료를 제공하는 관계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결과</span>”라고 밝혔다. 반면 의협 관계자는 “<span class='quot2'>한의사가 수십 차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검사하고도 암을 발견하지 못해 산부인과로 보내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무면허자가 기기를 이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span>”고 반발했다. <br/>한ㆍ양방 사이의 갈등과 견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올 초에는 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의사의 골밀도측정기 사용 금지에 항의하는 뜻으로 공개적으로 측정 시연을 벌이자, 의사단체가 이를 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한의대 교육과정의 변화로 과거 양방의 영역이었던 진단기기들을 활용하는 한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은 아직 사회변화에 발맞추지 못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관련 단체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지난해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려 했으나 중단됐다</span>”며 “<span class='quot3'>논의를 재개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span>”고만 말했다. <br/>이런 상황에서 정작 환자들의 건강권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는 흑백논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span class='quot4'>의사들이 교육을 받아서 기기를 쓸 수 있다는 주장은 반대로 한의사 등도 교육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뜻</span>”이라며 “<span class='quot4'>환자 진단을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환자 편의 등을 고려해 허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span class='quot5'>현대 의료기기는 환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5'>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에서 사용하는 게 안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span>”라고 말했다. <br/>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br/>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9.txt

제목: 7년간 개구리 유전자 들여다본 이 남자  
날짜: 201610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20051245171  
본문: “개구리 유전자 알아서 어디다 쓰냐고요. 암이나 선천성 기형 같은 난치병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죠.”<br/>2009년부터 개구리 유전자를 연구해온 권태준(41)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부 교수는 개구리가 쥐나 원숭이 같은 기존 실험동물로 한계에 부딪힌 난치병 연구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가 7년 동안 동고동락해온 개구리는 이름도 생소한 ‘아프리카발톱개구리’. 그가 미국, 일본 과학자들과 함께 이 개구리의 유전체(유전자 전체)를 처음으로 해독한 연구논문이 영국 국제학술지 ‘네이처’ 20일자에 발표됐다. 권 교수는 “<span class='quot0'>유전자를 모두 밝혀냈으니 질병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span>”는 다짐을 밝혔다. <br/>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이름 그대로 아프리카에 주로 살고, 다른 개구리와 달리 발톱이 있다. 이 독특한 생물에 권 교수가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미국 유학 중이던 2009년 관련 연구 내용이 실린 뉴욕타임스를 통해서다. 지름 1㎜의 비교적 큰 알을 한번에 수백개 이상 사시사철 낳기 때문에 장기 발생처럼 일반적인 실험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생체 기능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유전자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선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개구리의 유전체는 구성이 워낙 독특한 탓에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다.<br/>사람을 비롯한 동물들은 부모에게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기 때문에 세포 내에 같은 유전자가 2쌍 존재한다(2배체). 그런데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부모에게 2개씩 물려받아 4쌍이 있다(4배체). 잡종교배를 하는 식물에서는 4배체가 종종 발생하지만, 동물에는 극히 드물다. 그만큼 유전자 수도 많고 복잡하다. 사람 유전자가 2만여개인데, 이 개구리는 4만여개다. 2000년대 후반은 마침 첨단 유전자 분석 기술이 속속 등장하던 때였다. 권 교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여러 과학자와 함께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유전체 분석에 도전하기로 했고, 7년 연구 끝에 드디어 결실을 보았다. <br/>그 과정에서 권 교수는 이 개구리가 흥미롭게도 진화에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생물이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려면 새로운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멀쩡한 유전자의 기능을 확 바꿔버릴 순 없는 노릇. 가장 쉬운 방법은 유전자들을 복제한 다음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쓸모 있는 것만 골라 원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이 방식은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유전자들을 복제하다가 2배체 체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포가 정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암이나 선천성 기형에서 다(多)배체 세포가 흔히 발견되는 이유가 이와 관련이 있다. <br/>그런데 희한하게도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4배체 상태에서 정상 생리 기능을 유지한다. 권 교수는 유전자를 복제하고 다른 기능을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른 동물과 달리 이 개구리의 몸속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한다. 어떤 유전자는 버리고 어떤 유전자는 살려둘지를 개구리 몸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얘기다. 유전체 해독 결과 실제로 “많으면 서로 충돌하는 면역체계 유전자는 하나만 살아남아 있고, 많을수록 유리한 체내 신호전달 유전자는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권 교수는 설명했다. <br/>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이런 특성을 활용해 권 교수는 동물의 진화 과정, 암이나 선천성 기형의 발생 기전, 유전자 돌연변이 발생 원리 등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만큼 이 개구리들과 동고동락할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인 남자 손바닥만 할 정도로 크고 힘도 센 녀석이지만 온도에만큼은 아주 민감하다. 18~20도를 유지해주지 않으면 금세 죽기 때문에 100마리가 항온사육실에서 애지중지 자라고 있다. 습성도 여느 개구리와 다르다. 뭍으로 안 나오고 물에서만 살며, 점프는 못 하고 헤엄만 친다. 권 교수는 “<span class='quot0'>아프리카발톱개구리로 연구하는 과학자가 전국에 약 10명</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머잖아 이 개구리가 인류의 질병 극복에 기여할 것</span>”이라고 내다봤다.<br/>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0.txt

제목: 마주 선 듯, 등 돌린 듯…어디서 봐도 역시 마이산  
날짜: 2016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20051057541  
본문: 진안 가는 이유는 딱 하나, 마이산이다. 무진장(무주?진안?장수의 머리글자를 따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험한 산골이지만 장수익산고속도로 개통 이후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다. 장수에서 진안으로 들어서면 고속도로 정면으로 ‘말의 귀(馬耳)’를 닮은 두 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낸다.<br/><br/>상대적으로 뾰족한 봉우리가 수마이산, 조금 둥그스름한 봉우리가 암마이산이다. 생김새 때문에 수마이산(679.9m)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암마이산(686m)이 조금 더 높다. 진안 고원에서 이 정도는 높다고 할 수도 없는데 유난히 도드라지는 건 역시 독특한 생김새 때문이다. 암수 두 봉우리는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좌우를 바꾸기도 하고, 포개지기도 하지만 어디서 보더라도 신비스러운 기운은 그대로다. <br/>진안IC를 빠져 나와 왼편으로 방향을 잡았다. 내비게이션에 마이산을 치면 ‘마이산 남부’와 ‘마이산 북부’로 구분되어 나온다. 100여 개의 돌탑이 골짜기를 메운 탑사는 남부에 있다.<br/>입구에 들어서면 익숙한 돌탑보다 듬성듬성 움푹 파인 마이산 절벽에 먼저 눈길이 간다. 멀리서는 거대한 바위덩어리로 보이지만 마이산은 크고 작은 자갈에 모래와 진흙이 단단히 뭉쳐진 역암(礫巖)으로 형성된 지형이다. 주변 땅은 약 1억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는 호수였다. 그 후 수 차례 지각변동을 거쳐 우뚝 솟은 모습이 지금의 마이산이다. <br/>풍화작용으로 자갈이 떨어져 나간 곳을 보면 흡사 흙으로 쌓았다 허물어진 토성처럼 보인다. 자칫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닌가 불안해 보일 정도다. 지질학자들은 역암이 수직에 가깝게 거대한 산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도 마이산이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는 건 돌과 돌 사이 열에 약한 부분이 녹아서 시멘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지금까지 낙석으로 인한 인명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br/>암수 두 봉우리 옆은 조금 규모가 작은 나도산이다. 마이산만 산이 아니라는 항의성 이름이다. 마이산을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부각시킨 돌탑은 바로 마이산 두 봉우리와 나도산 사이 아담한 골짜기에 모여 있다.<br/>안내판에는 ‘1885년에 입산하여 솔잎 등으로 생식하며 수도한 이갑룡 처사가 30여 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처사의 공을 인정하면서도, 몇몇 탑은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한다. 탑의 규모나 사용한 돌의 무게를 감안하면 혼자서 쌓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 탑의 축조 과정도 마이산처럼 신비에 싸인 셈이다. <br/>탑은 얼핏 쌓기 편한 자리를 골라 세운 것 같지만, 음양오행설에 맞춰 자리를 잡았다는 게 박광식 전북문화해설사의 설명이다. 꼭대기의 2개의 천지탑(주탑)을 비롯해 원추형 탑이 5개이고 나머지는 외줄 탑이다. 아랫부분 돌무더기가 서로 연결된 주탑을 5개의 외줄 탑이 호위하는 구조로 배치돼 있다.<br/>임금의 용상 뒤 병풍을 장식하는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의 모티브도 마이산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한다. 마이산과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인연 때문이다. 고려 말 이성계가 신인(神人)에게서 금으로 만든 자(금척, 金尺)를 하사 받는 꿈을 꾸었는데, 남원 운봉과 완산(지금의 전주)에서 적을 무찌르고 개선하던 길에 들른 이곳 산세가 꿈에서 본 모습과 흡사해 속금산(束金山)이라 이름 붙였다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수마이산 아래 자리한 은수사 태극전에는 일월오봉도와 함께 금척하사도를 걸어 놓았다. 주민들은 요즘도 마이산을 속금산으로 부른다.<br/>박광식 해설사가 마이산 여행객들에게 꼭 추천하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다. 마이산 남부 주차장에서 차로 약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자그마한 정자, 수선루(睡仙樓)다. 마이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역암 바위틈에 절묘하게 걸터앉았다. 마루와 작은 방 한 칸이 전부지만 내려다 보이는 섬진강 경치만은 넉넉하다. 누대에 오르면 더없이 아늑하고 포근해 글을 읽거나 낮잠 한 숨 즐기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br/>안내판에는 조선 숙종12년(1686) 연안 송씨 4형제가 조상의 덕을 기리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세웠다고 적고 있다. 수선루 가는 길모퉁이에는 쌍벽루라는 정자도 있는데, 연안 송씨와 라이벌 관계였던 천안 전씨 가문에서 다분히 수선루를 의식해 지은 누각이다. 두 가문의 자존심 경쟁의 유산이 남아있는 강정마을도 느긋하게 둘러보기 좋은 곳이다. <br/><br/>▦미슐랭 별점3개…진안군 추천 마이산 촬영 포인트<br/><br/><br/><br/>마이산은 사실 멀리서 볼 때 더 신비로운 산이다. 그래서 촬영 포인트마다 사진 좀 찍는다는 ‘작가님’들이 전국에서 몰려 든다. 진안을 거치는 여행객들이 가장 가까이서 마이산을 접하는 곳은 장수익산고속도로 익산방면의 ‘진안마이산휴게소’다. 휴게소 왼편에 전망대를 따로 설치해 놓아 코앞에서 마이산의 두 봉우리를 감상할 수 있다. <br/>진안군이 추천하는 대표적인 출사 포인트는 3곳이다. 첫 번째로 꼽는 곳은 일몰이 아름다운 반월저수지다. 진안IC에서 빠져 나와 연속해서 2차례 좌회전하면 반월마을이다. 느티나무 숲이 제법 운치 있는 마을을 통과하면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저수지는 센터 앞 농지가 끝나는 부분에 있다. 전망 데크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수마이산에 암마이산이 살짝 가려져 겹쳐 보이는 게 아쉽지만, 제방이 수평선 역할을 해 봉우리가 한층 오뚝하고 잔잔한 수면에 비친 모습도 또렷하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저수지까지 물들일 때 가장 아름답다.<br/>두 번째 포인트는 마이산 북부의 사양저수지(혹은 사양제). 이곳에선 마이산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두 봉우리가 좌우로 선명하게 갈라져 보인다. 호수에 비쳐 상하 대칭을 이룬 모습은 나비의 날개짓을 연상시킨다. 굳이 호수 중앙을 가로질러 산책용 데크를 설치했는데, 수면에 반영된 모습을 찍기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각도가 좁아진 만큼 광각렌즈가 필수다. 이곳에선 이른 새벽 물안개가 걷힐 무렵이 가장 좋다. <br/><br/>마지막은 부귀산 전망대. 진안읍 북측 부귀산(806m)의 7부 능선쯤이어서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진안읍 운산리 외후사마을에서 임도를 한참 거슬러 오르면(약 3.4km) 두남치 고개마루다. 전망대는 이곳에서 또 300m 가량 가파른 등산로를 걸어야 나온다. 이곳 역시 안개가 짙은 가을과 겨울 새벽이 사진 찍기에 가장 알맞다. 높은 만큼 경치는 시원하고 구름인 듯 안개 사이로 우뚝 선 마이산 봉우리는 더욱 신비스럽다. 운해를 항해하는 돛단배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의 귀라고 이름 붙인 연유도 한결 뚜렷해진다. <br/><br/>진안=최흥수기자 choisso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1.txt

제목: 비뇨기과는 어떤 질병을 보는 과입니까?  
날짜: 2016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20051047656  
본문: [한국스포츠경제 채준]<br/> <br/> <br/>질문 = 비뇨기과는 어떤 질병을 보는 과입니까?<br/> <br/>답변 =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께서 "비뇨기과에서 이런 질병도 봐요?"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걸 심심치 않게 경험 합니다. 실제 음경 성형만 전문으로 하는 남성의원이나, 요로결석을 전문으로 표방하는 곳이 많아서 비뇨기과의 진료 영역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진료과의 분류는 신경외과, 정형외과처럼 다루는 장기를 기준으로 나뉘어 있기도 하고, 마취 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처럼 의사가 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직접 환자를 마주하는 과의 경우 전자의 예처럼 다루는 장기에 따라 분류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뇨기과도 그런 과 중 하나입니다.<br/> <br/>비뇨기과 라는 말의 의미는 소변을 만들어 배설하는 기관을 다루는 과라는 의미 입니다. 신장·요관·방광·요도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진료 합니다. 여기에 남성에 있어서는 생식기관인 고환, 부고환과 음경 질환을 다루고, 부속 성선인 전립선과 정낭의 질환을 다룹니다. 실제 이런 장기들의 위치한 곳이 복막의 뒤편에 있어, 상기 장기뿐만 아니라 부신과 같은 후복막 장기를 포함하여, 복막 뒤 공간에 생기는 이상을 모두 진료합니다. 사람의 몸에 생기는 병을 크게 나누면 염증, 기능 부전, 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장기에 이 세 가지 이상을 조합하면 비뇨기과에서 다루는 질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신우신염은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과 방광에 생기는 기능 이상이며, 음경암은 말 그대로 음경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요로 결석도 결석으로 인해 요관에 발생하는 기능 이상에 해당 됩니다.<br/> <br/>이렇게 생각 해 보면 비뇨기과가 다루는 질병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인식 되는 것 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비뇨기과를 찾아 봐도 마땅히 진료 할 곳을 찾기가 어려워 큰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이런 비뇨기의 질환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원이 생겨나는 추세이니, 편리하게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드리자면, 소변을 만들고 배설하는 장기는 남녀에게 똑같이 존재하는 장기이니 비뇨기과는 남자만 가는 과라는 생각은 고치는게 마땅합니다.<br/> <br/>이영훈 원장은 일산연세비뇨기과에서 근무하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2.txt

제목: 입안으로 갑상선암 로봇수술 세계 3번째 성공  
날짜: 2016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19050730343  
본문: 계명대 동산병원 조지형교수팀<br/>기존 수술 대비 흉터ㆍ통증 적고 빠른 회복 장점<br/><br/><br/><br/><br/>계명대 동산병원 유방갑상센터 조지형 교수가 입안으로 로봇팔을 넣어 갑상선(腺ㆍ샘)암을 수술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2번째, 세계 3번째이다.<br/>동산병원에 따르면 최근 3명의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입 안쪽을 절개, 그곳으로 로봇팔을 삽입해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했다. 일반적으로 내시경이나 로봇으로 갑상선암을 수술할 때는 양쪽 유륜과 겨드랑이 부위를 절개해 수술도구를 넣어 했지만 입안 절개법은 외관상 상처가 전혀 보이지 않고 통증이 적으며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도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br/>조 교수는 “<span class='quot0'>기존 수술법에 비해 합병증이 거의 없고 수술 당일 바로 물을 마실 수 있고, 다음날엔 식사도 가능하며 3박4일만 입원하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여성에게 많은 갑상선암 특성상 흉터를 최소화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술법</span>”이라고 말했다.<br/>조 교수는 2008년 지역 최초로 내시경갑상선절제술에 성공한 뒤 최근까지 170여 건의 내시경갑상선절제술을 시행했다. 2011년 동산병원에 로봇수술장비가 도입되면서 갑상선암 180건 등 로봇갑상선 절제술 200여 건도 시행했다.<br/>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3.txt

제목: 간암 주범은 술? NO. 70%는 B형 간염이 원인  
날짜: 2016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18051325263  
본문: 간(肝)하면 술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대한간학회가 2013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5%가 간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술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간암 발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만성 B형 간염이다. 간암 원인의 70% 이상이 B형 간염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5~6%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다. <br/>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40세 이상 B형이나 C형 간염 보균자를 간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매년 간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를 국가 암검진을 제공하고 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린다. 악명높은 별명은 붙은 이유는 간암 환자의 상당수가 초반에 특별한 증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의 날(10월 20일)을 앞두고 간암을 알아본다.<br/><br/>간암, ‘40~50대의 저승사자’<br/> 우리나라 간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2.8명(통계청)이다. 암 가운데 폐암(34.4명)에 이어 2위다. 하지만 왕성한 활동 연령대인 40~50대에 간암 사망률은 압도적 1위다. 서경석 대한간암학회 회장(서울대병원 간담췌외과 교수)은 “<span class='quot0'>간암 환자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간암 증상이 거의 없고, 특히 대다수 환자가 간경화(간경변증)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span>”이라고 했다.<br/>대한간암학회에 따르면 간암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부담이 3조7,000억원이다. 여기에 간경화 등 간질환으로 인한 손상비용까지 합하면 연간 7조원이 넘는다. 임영석 대한간암학회 간암등록사업위원장(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1'>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30년 동안 줄고 있지만, 간암 사망률만은 계속 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특히 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0%대에 불과하고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40~50대에서 많아 사회적 손실이 크다</span>”고 했다.<br/> 간암은 2003년부터 국가 암검진 사업 대상에 포함돼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을 대상으로 1년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간암 조기 검진 수검률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br/> 간암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간경화다. 정상 간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섬유조직이 들어차 간이 재생 불가능하게 돼버린 상태다. 간경화는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과도한 음주,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이 주 원인이다.<br/>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정기적으로 간염 활성도를 검사해 필요하면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항바이러스제로 적절히 치료받으면 간경화로 악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B형 간염은 환자 혈액, 체액, 분비물로 전염된다. 몸이 쇠약해지고, 피로감, 무력증, 식욕부진, 두통, 소화불량 등이 나타난다.<br/>만성 C형 간염 환자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35%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도한 음주를 자제할 필요도 있다. 정상인은 1회 음주량으로 소주 반 병 이내가 바람직하고, 여성은 그 절반 이하가 적당하다. 한 번 음주한 뒤 2~3일간 술을 삼가야 한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2'>40세 이상 만성 BㆍC형 간염 간염 보유자, 간경변증이 있으면 원인질환 치료와 함께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검사 등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span>”고 했다.<br/>B형이나 C형 간염뿐만 아니라 비알코올성지방간 등도 간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김휘영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3'>비알코올지방간질환이 대사증후군과 심혈관질환이 위험을 높이면서 지방간염, 간경변증을 거쳐 간암을 일으킬 수 있다</span>”고 했다.<br/>“<span class='quot4'>B형 간염 관리로 간암 예방을</span>”<br/> 간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거의 없다. 황달이 생기거나, 오른쪽 배나 등에 통증이 나타나는 등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이 생기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예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 대한간암학회가 2003~2005년 간암 원인을 분석한 결과, 72%가 B형 간염에서 비롯됐다. 11%는 C형 간염, 10%는 알코올(과도한 음주) 등이 원인이었다.<br/> B형 간염은 1983년 예방백신이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B형 간염 유병률은 8%정도로 선진국(4%)보다 높다. 영ㆍ유아 시절 예방백신 국가예방접종 혜택을 받지 못한 40~50대는 몸 안에 항체가 생기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다. B형 간염검사를 받아보고 항체가 없다면 예방백신을 맞으면 된다. C형 간염은 아직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치료가 가능하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에 노출됐다고 해서 무조건 간암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주기적인 검사와 적절한 항바이러스 치료로 간경변증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지방간 예방을 위해서 유산소운동과 적절한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3'>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타기 등이 권장된다</span>”며 “<span class='quot3'>최대 심박수의 50~70%를 쓰는 중등도 강도를 하루 30~60분씩 주 2회 이상 실시하면 좋다</span>”고 했다. 장 교수는 또한 “<span class='quot5'>저(低)탄수화물 및 단 음식을 줄이는 저과당 식이를 통해 체중조절에도 신경 써야 한다</span>”고 덧붙였다.<br/> 간암을 조기 진단해도 치료할 수 있다. 간암을 조기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70%에 달하지만, 전이됐다면 5년 생존율은 2.8%로 급격히 떨어진다. 간암은 국가 암검진사업대상이어서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을 대상으로 1년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간암 조기 검진 수검률은 33.6%(2013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위암(73.6%), 대장암(55.6%)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다. 또한 성인 대부분은 간염 등 간검사를 하지 않아, 스스로 간암 고위험군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2'>간암은 4개월 만에 종양이 2배나 커지는 등 전파속도가 빠르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br/><br/><br/>-평소 손 자주 씻기<br/>-물 끓여 먹기ㆍ음식물 익혀 먹기<br/>-수저ㆍ식기 소독하기<br/>-과일ㆍ채소 깨끗이 씻기<br/>-주사기, 침, 문신, 면도기, 칫솔, 손톱깎기 등 조심<br/>-과로, 음주, 약물 오ㆍ남용 금지<br/>-충분한 수면과 영양ㆍ운동<br/>-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br/><br/><br/>(단위: 인구 10만 명 당)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4.txt

제목: [헬스 프리즘] 전립선암 ‘순한 암’이라고 해도… 수술ㆍ치료 정도 따라야  
날짜: 201610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18051218076  
본문: 변석수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교수<br/>전립선은 고환, 정낭과 함께 정액 일부를 만드는 남성생식기관이다. 나이 들면 전립선이 비대해지거나 암이 생길 수 있다. 전립선암은 고령화와 식생활 서구화로 늘어나는 대표적인 남성암이다. 남성암 중 5위이지만 생존하고 있는 환자 수(유병률)로는 벌써 남성암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암이다. 진행이 느려 갑상선암과 함께 순한 암이고, 전립선특이항원검사라는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암이 진단되면 병기, 나이, 몸 상태를 고려해 치료법을 정하며, 다른 암과 달리 진행이 느려 10년 이상 살 수 있다고 기대될 때 완치를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를 고려한다.<br/>아주 초기 전립선암은 치료하지 않고 두고 보거나, 주기적 검사로 병 진행을 모니터링하면서 경과에 따라 치료하는 ‘적극적 관찰법’을 쓴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고, 다른 장기로 퍼진 전이암은 다양한 약물 치료를 해도 완치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다행히 최근 좋은 신약이 나오면서 환자 생존율을 늘리고 있다(안타깝게도 값비싼 약이 일부 환자에게만 보험 적용되고 있다).<br/>최근 필자 손을 떠나 세상을 떠난 환자가 문득 생각난다. 이 전립선암 환자에게 완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를 적극 권했다. 하지만 이 환자는 민간요법 등 자가치료를 강하게 원해 6개월이나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립선암이 진행할 때 증가하는 전립선특이항원 수치가 계속 늘어, 다시 한 번 완치 기회가 있는 수술을 권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진행을 늦추는 약물치료인 호르몬치료(남성호르몬 차단요법)만 했다. 환자는 10년 가까이 호르몬치료로 버텼지만, 치료 내성으로 결국 암이 척추뼈로 전이됐다.<br/>오랫동안 호르몬치료를 하면서 별 증상을 느끼지 못했던 환자는 척추에 암이 전이됐다는 얘기에 많이 당황해 했다. 의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경과였지만, 오랫동안 호르몬치료로 본인 병이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여긴 듯했다. 그럼에도 항암치료를 거부했고, 척추의 암덩어리가 신경을 눌러 하반신 마비가 돼 응급수술까지 받게 됐다. 이후 항암치료를 받는 등 적극 치료에 나섰지만 1년6개월 뒤 결국 사망했다. 80세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다.<br/>이런 결말을 알았더라면 환자가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를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 암이 진단 시 많은 환자가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정말 ‘10년만’ 살고 싶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9988123’(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이틀 앓고 사흘째 고통 없이 영면하는 것)이라는 말이 회자되는데, 불로장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현대인에게 이것이 인간 본성을 반영한 말이 아닐까.<br/>‘순한 암’이라는 전립선암이 치료할 필요 없는 병으로 잘못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단 당시에 치료하지 않는 환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절반은 결국 치료 받게 된다. 전립선암은 병 상태에 따라 적극 치료를 해야 한다. 안타까운 일은 과학적 증거가 없는 민간요법에 매달리다가 완치할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이다. ‘유병장수(有病長壽)’시대라지만 적절한 치료를 병행했을 때만 가능하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5.txt

제목: [강남세브란스와 함께 하는 건강Tip] 췌장ㆍ담도암, 희망을 버리지 마라  
날짜: 201610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18051214040  
본문: 췌장과 담도에 생기는 암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다. 미리 겁먹고 치료를 쉽게 포기하는 이도 많지만 조기 진단하면 치료가 가능하다.<br/><br/>Q. 췌장·담도암은 치료법 없나?<br/>“의학 발전에도 불구하고 췌장암과 담도암은 5년 생존율이 각 5%, 25%정도에 그치는 골치 아픈 암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공포감을 갖는다. 그러나 대처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 바로 조기 발견과 치료다. 췌장암은 당뇨병과 관련이 많다. 만성 당뇨병 환자가 췌장암 발생 빈도가 높다. 잘 조절되던 혈당이 갑자기 조절되지 않으면 한 번쯤 췌장암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체중감소도 유의해야 한다. 이유 없이 갑자기 몸무게가 5∼10%정도 줄면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다. 이밖에 만성 췌장염 환자도 췌장암을 주의해야 한다.”<br/><br/>Q. 췌장ㆍ담도암 유발 요인은?<br/>“장기 흡연, 서구화된 식생활, 고령 등이 췌장암 유발 요인으로 추정된다. 특히 췌담도암의 환경 요인 중 흡연이 가장 손꼽힌다. 췌담도암 환자의 20∼30%가 흡연자이고, 비흡연자보다 발병 위험도가 2배가량 높다. 비만한 사람도 정상인보다 1.2~3배정도 췌담도암 발병 위험이 높다.”<br/><br/>Q. 수술 후 예후는 어떤가?<br/>“췌장ㆍ담도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지만 빨리 발견하면 수술할 수 있다. 췌장ㆍ담도암 수술의 합병증은 보통 30-40%정도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데이터를 보면 췌장ㆍ담도 수술 후 합병증은 20.9%이며, 2011년 이후는 13.7%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70세 이상 고령환자에게 수술한 뒤 평균생존기간도 40개월 이상, 치료 후 5년 생존률도 30% 이상이었다.”<br/><br/>Q. 스텐트시술도 있다던데?<br/>“수술이 어려운 악성 담도폐쇄증 환자에게 '항암제 방출 담도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다. 담도암으로 담관이 막혔다면 담즙이 배출되지 않아 황달이나 간 손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좁아진 부분에 항암제를 도포한 스텐트 그물망을 넣어 좁아진 부위를 넓혀준다. 이때 스텐트에서 항암제가 계속 방출돼 항암치료효과도 거둘 수 있다.”<br/><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6.txt

제목: AI가 판결하는 법정은 더 공정할까  
날짜: 201610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18051154587  
본문: ‘사법의 미래’ 국제법률 심포지엄<br/>인공지능 세계적 석학 방한<br/>“<span class='quot0'>재산분쟁 사건에 먼저 등장 예상</span>”<br/><br/> 장기적 예측은 견해 엇갈려<br/>“<span class='quot0'>투명한 처리로 법조 비리 극복</span>”<br/>“<span class='quot0'>입력된 데이터 속 편견 따를 것</span>”<br/><br/><br/><br/><br/>“<span class='quot0'>증인은 물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 얼굴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거짓말 탐지기가 작동하면 인공지능(AI) 판사가 그걸 판결에 참고 자료로 삼을 겁니다.</span>”(오렌 에치오니 미국 앨런인공지능연구소장)<br/>“<span class='quot0'>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준이 되면 법정 자체가 사라지고 재판은 가상현실로 진행되겠죠.</span>”(로만 얌폴스키 미국 루이빌대 교수 겸 사이버보안연구소장) <br/>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16 국제법률 심포지엄’을 앞두고 인터뷰에 응한 두 석학은 AI가 바꿔놓을 미래의 법정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br/>에치오니 소장과 얌폴스키 교수는 특히 부동산 등 재산분쟁 관련 사건에 AI 판사의 적용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해 AI를 재판에 도입할 경우 방대한 분량의 기존 판례를 단시간에 검토ㆍ분석해 판결에 드는 소요 시간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br/>AI에 대한 대표적인 낙관론자인 에치오니 소장과 비관론자 진영의 대표주자인 얌폴스키 교수는 AI 판사의 단기적 효용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이었다. 하지만 AI가 고도로 발달한 상황에 대해서는 ‘법조계 비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긍정적 견해와, ‘AI 판사 역시 편견에 함몰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로 갈렸다. 에치오니 소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조인들의 지연ㆍ학연ㆍ혈연 등 주관적 관계에 따른 부적절한 판단과 비리에 대해 “<span class='quot1'>AI 도입으로 사건 처리과정이 투명해지고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얌폴스키 교수는 “<span class='quot2'>인종ㆍ성ㆍ사회 이슈에 따라 입력되는 데이터 자체에 편견이 내재돼 있을 경우 AI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특정 기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AI 프로그램이 특정 판결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다</span>”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채팅 로봇이나 IBM사의 AI가 자체 학습 기능을 통해 욕설과 성차별적 발언을 한 사례가 있었던 것에 비춰볼 때 유념할 만한 지적이다. <br/>낙관론자 “컴퓨터는 연필과 같아<br/>날카로워도 부작용엔 한계 있어<br/>AI 견제 기능 함께 발전할 것” <br/><br/>AI와 관련해 늘 화두로 떠오르는 이슈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 넘은 ‘초(super) AI’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느냐는 점인데, 두 전문가는 역시 의견이 엇갈렸다. 에치오니 소장은 “컴퓨터는 연필과 같다. 아무리 날카로워도 (부작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차량에 AI가 탑재되면 이를 견제하는 AI가 도로에 탑재될 것이고 모니터링하는 AI도 생긴다. 견제 기능도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AI의 통제 가능성을 신뢰했다. “<span class='quot0'>문제는 우리가 기계에게 권한을 넘길 것이냐 피할 것이냐</span>”라며 “<span class='quot0'>테슬라 차량 자율주행 중에 인명사고가 발생했지만 연구가 중단되지 않는 것은 미국에서만 연간 4만 명이 교통사고를 당해 희생당하는 만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득이 더 크기 ��문</span>”이라고 덧붙였다. <br/><br/>비관론자 “AI개발 중단은 이해 얽혀 불가능<br/>업계 자율에 맡겨선 안돼<br/>포괄적 규제 시스템 마련해야” <br/><br/>반면 얌폴스키 교수는 “<span class='quot2'>담배가 암을 유발한다고 해도 생산을 멈추지 않고, 기후변화 문제가 생겨도 석유회사가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 관계가 얽힌 자율주행차 업체의 AI 개발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본다</span>”며 “<span class='quot2'>AI 개발과 관련해 업계 자율이 아닌 포괄적 규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span>”고 지적했다. 얌폴스키 교수는 “<span class='quot2'>(인간 두뇌 기능의 일부만 맡는) 약한 AI는 사고가 나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초AI 수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상상 이상의 위험이 발생할 것</span>”이라고 경고했다. <br/>대법원 행정처는 18일 오전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두 전문가가 펼쳐보일 미래를 경청한다. <br/>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7.txt

제목: [삶과 문화] 죽음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날짜: 201610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18051003787  
본문: 왕가리 마타이가 죽었던 날, 언니가 죽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왕가리 마타이는 아프리카에 4,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나이로비의 우후루 공원을 지켜냈다. 환경 운동을 하는 나였지만 대한민국 인구수만큼의 나무를 희생해서라도 우주에 단 한 명뿐이었던 내 자매를 살리고 싶었다. <br/>언니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며 가볍게 검사를 받으러 갔다 하루아침에 암 진단을 받았다. 그날 루시드 폴의 노래를 떠올렸던가. ‘사람들은 즐겁다, 나를 둘러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즐겁다.’ 언니를 비롯해 우리 가족 모두 하릴없이 꺼져가는 생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돌봐야 할지 몰랐다. 그저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그리고 신께 빌었다. 가끔 새벽에 깨면 눈물을 흘린다. 죽음에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처음 접하는 죽음의 현실을 몰랐고 그랬기에 그 잔인한 과정에 지쳐갔다고. <br/>아툴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읽은 것은 한참 후였다. 외과 의사인 그는 환자들과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나쁜’ 죽음에 이르는 의료시스템을 비판하며 한 연구를 인용한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가 그 정보를 요구할 때조차도 정확한 예후를 밝히기를 꺼리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믿는 치료법을 제공했다고 인정한 경우가 40%에 이른다. 많은 경우 환자에게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디까지 치료받을 의지가 있는가는 고사하고, 수술 후 예상되는 결과와 가능성, 당장 결정하거나 나중에 생각해도 될 일, 구체적인 치료과정, 항암 치료의 영향마저도 진실하게 말해지지 않는다. 극도의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환자와 가족은 병원의 수순에 삶을 맡기고 치료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탄다. 병원의 조립라인에 몸을 누이는 순간 모든 것은 빠르게 자동으로 돌아간다. 의료지식이 있거나 평소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온 극소수만이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자유의지로 치료를 선택한다.<br/>물론 많은 이들이 눈부신 의료기술과 의료 관계자의 헌신으로 생명을 구한다. 그러나 운이 좋지 않은 많은 이들은 바로 그 때문에 자아와 일상을 송두리째 잃은 채 환자의 정체성만으로 생을 마감한다. 육체의 구멍마다 튜브 줄을 꽂고서 ‘사랑해’라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아니 죽는다는 것조차 알 수 없이 죽는다. 언니는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자기 힘으로 먹고 돌아다닐 수 있는 마지막 힘을 잃었다. 그 상태가 되면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 남겨진 사람들과의 관계, 인생 정리는 고사하고, 육체의 광폭한 휘둘림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밖에 없다. 남은 것은 커튼 한 장으로 가려진 의료용 침대와 텔레비전과 환자복, 그리고 고통스럽고 끝이 없는 연명 치료뿐이다. 언니는 치료를 거부하며 집에 가자고 했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원할 때 일어나고 자고, 자기 옷을 입고, 가족들이 보호자용 의자가 아니라 온돌방에서 자기를 바랐다. 때로는 이렇게 단순한 것이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준다. 그러나 호스피스 서비스가 미천했기에 방문 간호사 고용과 위기 상황 대처, 환자 이송까지 모든 책임을 가족이 져야 했다.<br/>고 백남기 농부의 주치의께서 “가족들이 체외투석치료 등에 반대해 최선의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병원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언니는 스스로 연명 치료를 거부했고 집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것은 죽은 자가 건네는 최선의 위로였다. 그러나 여전히 연명 치료만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나를 절망케 한다. 생명 연장 기술은 미치도록 발전하는데 내가 나인 채로 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복지 시스템은 멀기만 하다. 젊은이들을 지켜줄 울타리가 되어주자며 그날 서울의 거리에 섰던 정직한 농부의 삶을 연명 치료 운운하며 모욕하지 마시길. 죽음에도 예의가 필요하다.<br/>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8.txt

제목: 아동 학대ㆍ동성애… 뉴스가 외면한 불편한 진실, 드라마로 그려 내다  
날짜: 201610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15051326817  
본문: ▦작가가 되겠다던 ‘미친 딸’ <br/>“타고 난 이야기꾼” 가족 환경<br/>연기ㆍ극작 배우며 작가 꿈 키워<br/>어너 필립스 만나며 현실로<br/><br/>▦‘소프 오페라’에 사회성 담아<br/>상식 벗어난 드라마 극본<br/>스폰서 만류에도 불구하고<br/>자궁암 환자 TV에 등장시켜<br/><br/>▦“누구나의 삶이 곧 드라마다”<br/>연방대법 낙태 판결 기다린 듯<br/>美 최초로 관련 드라마 방영<br/>레즈비언 키스까지 표현해 내<br/><br/><br/>지난 7월 뉴스위크는 세상의 편견 때문에 겹으로 고통 겪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기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병을 대장암이라고 속인 한 여성 항문암 환자의 사연으로 시작된다. 딸은 “(어머니가) 항문암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건 고사하고 아예 그 단어조차 못 꺼내게 했다. 대장암이 훨씬 정상적인(normal) 질병으로 보였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항문암이 애널섹스와 관련된 질병이라 여길까 봐서였다. 2010년 암 진단을 받고 2년 뒤 별세한 그 환자의 나이는 불과 53세였다. ‘HPV and Anal Cancer Foundation’에 따르면, ‘HPV(Human Papillomavirusㆍ인유두종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외에도 항문암 등 여러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 그 기사는 HPV 예방과 치료의 근황을 소개하며 무엇보다 먼저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br/>유방 자궁 난소 고환 등 질병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옅어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 얼마 안됐다. 위 기사에 따르면, 1974년 미국 퍼스트 레이디 베티 포드(Betty Ford, 1918~2011)가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한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대장암과 고환암 환자들의 사회적 수치심을 덜어준 일등 공신은 저명한 앵커 케이티 커릭(Katie Couric, 1957~)과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 7년 연속 우승자 랜스 암스트롱(Lance Armstrong, 1971~)이었다. 커릭은 아침방송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암스트롱은 2012년 도핑테스트에 걸려 선수로서 오명을 쓰긴 했지만, 고환암 투병 사실을 밝히며 치료 등을 위한 재단 활동에 공을 들였다.<br/><br/>60년대 미국 인기 TV드라마 ‘Guiding Light’의 수석 작가 아그네스 닉슨(Agnes Nixon)이 극본에 자궁경부세포진검사(Pap Smear)로 자궁암 진단을 받는 환자를 등장시키려 하자 드라마 스폰서였던 P&G(Procter & Gamble)사가 극구 말린 건 당시로선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궁암 진단 이야기를 아침 드라마에 내보내는 게 ‘상식’ 밖 일이었다. 닉슨은 P&G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cancer 암’나 ‘uterus 자궁’’hysterectomy 자궁절제술’ 등 직접적인 단어는 일절 안 쓰는 조건, 다시 말해 ‘비정상적인 세포(irregular cell)’같은 표현으로 극본을 썼다. 64년 그 에피소드가 방영되자 많은 여성들이 감사 편지를 썼다.(latimes, 2016.9.28) 대부분 세포진검사라는 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던 이들이었다. 42세의 닉슨은 그 무렵 자궁암으로 한 친구를 잃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의학 지식을 드라마의 주 시청자인 주부들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nyy, 9.28) <br/>닉슨은 ‘소프 오페라(Soap Opera)’라 불리는 아침 드라마 작가로 60여 년을 일하면서 아동 학대, 주부 알코올ㆍ마약 중독, 동성애, 낙태, 인종차별, 전쟁 등 뜨거운 사회적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다뤘고, 특히 동성애와 낙태 등은 근엄한 시사ㆍ뉴스 프로그램보다 먼저 드라마를 통해 이슈화했다. 그럼으로써 ‘소프 오페라’란 말에 스민 경멸적인 뉘앙스, 즉 ‘생각 없는(brainless) 주부 시청자들의 오락용’이라는 편견에도 맞섰다. “<span class='quot0'>소프 오페라를 재발명한 작가(reinvented Soap)</span>”라 불렸던 아그네스 닉슨이 9월 28일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br/><br/><br/>닉슨은 1922년 12월 10일,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생후 2개월 만에 부모가 이혼, 그는 외조모가 살던 테네시 주 내슈빌로 이사했다. 엄마(Agnes Eckhardt)는 일을 해야 했고, 그는 외조모와 이모들의 보살핌을 받았다. 아일랜드계 이모들은 타고난 이야기꾼들이었다고 한다. 어린 닉슨은 그 이야기들로 드라마를 만들어 종이 인형을 가지고 놀곤 했다고, ‘Creating Television’이란 책에 수록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인디애나 주 세인트메리칼리지와 노스웨스턴대에서 연기와 극작을 공부했고, 연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span class='quot0'>찰턴 헤스턴, 파트리샤 닐 같은 쟁쟁한 급우들에게 기 죽어</span>” 일찌감치 극작가로 선회했다. 그의 학비는 “사업가로는 성공했지만 역겨운 사람(very sick man)”이던 아버지(Harry Eckhardt)가 댔다. 학비가 없어 의대 진학을 포기한 아버지는 시카고 남부에서 수의(壽衣)사업을 벌여 성공했고, 대학 졸업반이던 닉슨에게 자기 회사로 들어오라고 강권했다. 그가 딸에게 당시 ‘소프 오페라의 지존’으로 꼽히던 배우 겸 작가 어너 필립스(Irna Phillips, 1901~1973)를 만나보게 한 것은 닉슨의 꿈을 접게 하기 위해서였다. “<span class='quot0'>미친 딸이 작가가 되겠다니 어쩜 좋겠냐</span>”며 정신과 의사 친구에게 상의했더니 친구가 “<span class='quot0'>내 환자 중에 어너 필립스가 있는데…</span>”라고 해서 벌인 일. 닉슨은 그 면접이 생의 갈림길이었다고, 필립스와 그의 비서가 자신의 습작 원고를 소리 내어 읽는 동안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나랑 일해볼래?”라던 필립스의 말은 닉슨에겐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였다. 1940년대 초 그의 미국이 그러했다.<br/>그는 필립스의 보조작가(대사 담당)가 됐고, 51년 자동차 딜러 로버트 닉슨(Robert Nixon)과 결혼해 5년 사이 아이 넷을 낳아 키우면서 58년 필립스의 수석 작가가 됐다. 62년부터는 ‘The Guiding Light’의 스토리라인을 썼고, 자궁암 에피소드로 파란을 일으킨 건 2년 뒤였다. 조기 종영을 저울질하던 NBC의 ‘Another World’라는 드라마를 맡아 히트시킨 것도 그 해였다. 자신감을 얻은 닉슨은 68년 독립, 남편과 함께 자기 회사를 설립했다. 로버트는 네 아이를 키우던 신혼 때부터 닉슨을 도우며 해로했고, 1996년 별세했다. <br/><br/>ABC가 그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드라마를 의뢰한 게 독립의 계기였다. 그의 첫 드라마 ‘One Life to Live’는 68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만 43년 동안 방영됐다. 10대 청소년의 성과 성병 이야기, 유대인과 이민자들의 이야기, 흑인 이야기…. 시청자들은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의 시시콜콜한 가정사와 연애 불륜 이혼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간 쉬쉬하던 사회적 금기와 편견을 그의 드라마를 통해 대면하곤 했다.<br/><br/>극중 인물 카를라 그레이(Carla Gray)는 방영 초기 약 6개월간 백인(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행세했다. 병원에서 만난 백인 남성 의사와 연애 끝에 결혼까지 생각하던 그레이는 어느날 흑인 수련의와 사랑에 빠진다.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의 키스신이 방영되자 항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그레이 역시 아프리칸-아메리칸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br/><br/>인종차별에 대한 반발로 “Black is Beautiful”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문화운동이 그 무렵 한창이었고, 그 여파로 피부색이 충분히 검지 않으면 이중의 차별을 받던 때였다. 닉슨은 백인처럼 보이는 흑인 신인배우를 찾기 위해 수도 없이 오디션을 봐야 했고, 스태프들은 그냥 백인을 뽑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거의 포기할 무렵 엘렌 홀리(Ellen Holly)라는 무명 배우가 뉴욕타임스에 독자투고를 한다. 밝은 피부를 가진 흑인으로선 연기 기회가 없다는 사연. 닉슨은 홀리에게 그레이 역을 맡겼다. 당시 시애틀의 한 독자는 “백인 여성과 흑인이 키스하는 장면을 어떻게…”라며 항의했다가 진상이 밝혀진 뒤 “그녀가 백인 의사와 키스한 사실을 두고 다시 항의 편지를 썼고, 텍사스의 한 방송국은 카를라 그레이 에피소드를 아예 방영하지 않기도 했다”고, 닉슨은 97년 10월 ‘emmytvlegends’ 인터뷰에서 말했다. 닉슨이 그에게 ‘그레이’라는 이름을 준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레이가 선택한 흑인 수련의는 전통적 의사 가문의 유력 집안이었다. 그레이는 흑인 아이덴티티를 감추고 백인 행세를 했다는 이유로 남자 집안으로부터 배척 당하는 또 한 번의 반전이 드라마에 있었다. 닉슨은 내슈빌의 인종차별을 보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br/><br/>그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 그러했다. LA타임스는 청소년 성병 에피소드가 방영된 직후 약 5만 건의 찬사와 항의의 편지가 쇄도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span class='quot1'>닉슨은 미국의 10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드라마를 통해) 알려주었다</span>”고 공식 논평했다고 전했다.<br/> <br/><br/> 닉슨이 가장 사랑한 드라마는 70년 방영을 시작한 ‘All My Children’이었다. 위 인터뷰에서 그는 “나는 종교적 광신자는 아니지만 스스로 매우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휴머니티를 믿으며, 그게 내 신앙이다.(…) 신은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는 모두 형제다.(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어서 무솔리니나 히틀러를 사랑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목도 ‘All My Children’인 그의 드라마는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악당 같은 아버지(극중 애덤 챈들러)와 ‘유기 콤플렉스(Abandonment Complexㆍ버려짐의 피해의식)’를 지닌 영악한 딸 에리카 케인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닉슨 자신도 병적인 유기 콤플렉스를 앓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다. 베트남 전쟁과 낙태, AIDS, 아동학대, 마약 중독, 동성애…. 1973년 미국 드라마로는 최초로 낙태 에피소드를 마치 연방대법원 판결(Roe V.S Wade, 1973 낙태 허용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이 내보낸 것도, 2000년 레즈비언 키스 장면을 처음 방영한 것도 그의 저 드라마였다. 닉슨이 케인의 딸 비앙카를 레즈비언으로 설정한 것은 근 20년 전이었다. NPR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는 비앙카가 사랑 받는 캐릭터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엄마인 에리카보다 먼저 시청자들이 비앙카의 성지향을 알게 했고, 모두가 에리카의 반응에 집중하기를 바랐다. (나의 뜻대로) 비앙카는 아침드라마의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캐릭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트랜스젠더 에피소드를 선보였다. ‘All My Children’은 2012년 1월까지 만 41년간 방영됐다. <br/> <br/>그는 5번 에미상(Daytime Drama)을 탔고, 5번 미국방송작가조합상을 탔다. 2010년 TV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그해 에미상 평생 공로상을 받았다. 여성 최초로 미국방송아카데미 최고 영예라는 ‘Trustees Award’를 받은 건 1981년이었다. 닉슨의 열렬한 팬이자 친구인 위렌 버핏은 1992년과 2008년‘All My Children’에 자청해서 출연했다. 전성기-대부분 전성기였지만- 의 그는 연 평균 10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 <br/>대작 드라마들이 대개 그렇듯 그의 드라마를 전적으로 그의 작품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에게는 걸출한 보조작가들과 스토리 작가들이 있었다. 또 그(의 드라마)의 인기가 사회적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덕만은 아닐 것이다. 그의 작품들도 ‘소프 오페라’라는 말에 담긴 긍정적ㆍ부정적 특징들을 대체로 공유했을 것이다. 시청자들은 각자 누리는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 가치를 드라마를 통해 확인하며 만족하고, 또 극중에서 그것들이 파괴되는 걸 보며 대리만족 하거나 성을 내기도 했을 것이다. 극중 인물인 에리카 케인은,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6명의 남자와 7차례 결혼했고 혼인 무효로 판결된 4번의 결혼을 더 한 캐릭터다. <br/> <br/>닉슨은 자신에게 자유를 안겨준 글을 통해 세상에 자유를 선사하고자 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사람들의 인식을 내가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내가 느끼는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과 불의를 보여주고자 했다</span>”고, “<span class='quot1'>엔터테인먼트와 공익(public service)은 다르다는 말을 나는 어리석게 여긴다</span>”고 말했다. <br/><br/>그는 소프 오페라가 갓 탄생하던 무렵 태어나 성장기에 데뷔했고, 동시대인들과 함께 소프 오페라와 더불어 울고 웃었다. 여성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80년대 후반 이후 아침 드라마 시청률은 급락했고, 그의 롱런 드라마들도 2012년 모두 종영됐다. 2008년 7월 ‘One Life to Live’ 40주년 기념 에피소드에서 그는 40년 동안 출연한 생존 배우들을 회상 등의 형식을 빌어 모두 출연시킴으로써, 이른 고별을 스스로 준비했다. 그는 “모든 이의 삶이 곧 드라마”라고, “<span class='quot1'>늘 절정도 바닥도 아닌, 순간순간을 살 뿐</span>”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의 드라마가 종영되자 시청자 항의가 적지 않았다. ‘Prospect Park’라는 온라인 방송사가 두 프로그램을 속방하려다 ABC와의 분쟁으로 무산됐고, 2013년 아이튠스 등으로 방송이 재개됐지만 몇 개월 못 가 11월 끝을 맺었다. <br/>병석의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런 마무리도 드라마로선 나쁘지 않다 여겼을 것이다. 최윤필기자 proos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9.txt

제목: 서로 넘나드는 소설과 영화 ‘예술家 이란성 쌍둥이’  
날짜: 201610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15050857479  
본문: 소설 속 영화, 영화 속 소설 <br/>이대현 지음<br/>다ㅎㆍㄹ미디어 발행ㆍ260쪽ㆍ1만5,000원<br/>당신이 소설책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세 문장을 만났다. 다음 중 가장 고급한 문장은? ①원장 선생님은 자동차를 타고 갔다 ②원장 선생님은 소형차를 타고 갔다 ③원장 선생님은 티볼리를 타고 갔다. 정답은 당연히 ③번 ‘티볼리를 타고 갔다’. 원장의 취향과 계급, 경제력과 사회상은 자동차보다 소형차에서, 그보다는 티볼리에서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시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현대소설에서 ‘좋은 문장’은 이렇게 아포리즘이나 미문이 많은 문장이 아니라 단어의 수준이 좋은 문장이다.<br/>물론 명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발표 당시보다 21세기 더 많이 읽히는 허먼 멜빌의 단편 ‘필경사 바틀비’는 20세기 미국 자본주의 사회를 뉴욕 월가의 월급쟁이 바틀비의 삶으로 드러낸다. 고용주 변호사의 명령에 바틀비가 겨우 내뱉는 한 마디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I prefer not to~).” 끊임없이 운동해야만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바틀비의 적극적 수동성이 이 한 마디에 압축돼있다(의지를 나타내는 ‘I will~’, ‘I will not~’ 이 결코 아니다).<br/>소설 속 화자, 말하는 이는 단어의 범위를 정한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 가능한 ‘탕탕탕’ 울리는 총소리는 1인칭의 세계로 넘어오며 존재할 수 없는 단어가 된다. 올해는 수상에 실패했지만 매년 노벨문학상 단골 후보로 꼽히는 살만 루슈디의 대표작 ‘한밤의 아이들’, 필립 로스의 ‘네메시스’ 등에서, 남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전하는 ‘3인칭적 1인칭’까지 등장한다.<br/>영화에서 저 티볼리는 원장과 교사의 대화로, 원장이 손에 쥔 자동차 열쇠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풀 샷(full shot)으로 묘사될 터다. 그 방식은 카메라 워크, 즉 렌즈의 위치와 렌즈가 담아낸 장면과 장면의 틈(shot by shot)으로 드러난다. 영화평론가가 제작 기술 방식, 화면 비율에 목을 메는 이유다.<br/>물론 이 두 예술은 ‘이야기’를 ‘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많은 소설이 영화로, 어떤 영화는 소설로 재탄생하는 이유다. 이대현 국민대 겸임교수가 쓴 ‘소설 속 영화, 영화 속 소설’은 ‘허삼관(매혈기)’ ‘케빈에 대하여’ ‘화차’ 등 같은 줄기에서 뻗어나온 소설과 영화 24쌍을 비교해 소개한다.<br/>틈틈이 자기 자신의 생활도 녹여낸다. 예컨대 김훈의 소설이자 이를 영화로 풀어낸 임권택의 ‘화장’을 다루며 필자 자신이 기자시절 김훈에게 “3년 가까이” 문학을 읽는 법과 기사 쓰는 법을 배웠노라 소개한다. 필자가 김훈의 소설에서 멜빌의 ‘I prefer not to~’에 버금가는 표현으로 꼽는 말은 ‘알 수 없다’이다. ‘화장’의 주인공처럼 중년인 필자 자신의 아내도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과 아내가 결코 나눌 수 없는 고통을 서로 겪고 있다는 고백도 덧붙인다. 살아갈 자(남편)과 죽어가는 자(아내)의 고통의 간극이 이 ‘알 수 없다’는 한 마디에 담겨 있다. 소설이 잔인할 만큼 날카롭고 솔직하게 인간의 고통과 소통 불가능에 대해 말한다면 영화는 남편의 불안, 고통, 공포, 절망, 고민, 포기, 슬픔을 과장하지 않고 일상처럼 드러낸다.<br/>책은 소설과 영화의 장르적 차이보다 공통점 찾기에 비중을 더 할애해 작품 줄거리 소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해당 작품을 보지 않은 독자에게는 친절한 가이드가 된다. 언어 예술과 이미지 예술, 두 장르의 간극을 소개한 책은 다시 묻는다. 이 모든 장르를 보고 전하는 리뷰와 비평은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원작의 진가를 메기면서 스스로 완결된 작품성을 지닐 수 있는가.<br/>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0.txt

제목: [아침을 열며]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정책  
날짜: 201610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15050831156  
본문: 무심코 명의들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암 환자를 치료하는 한 훌륭한 의사와 여러 환자의 일상과 치료장면들이 소개됐다. 그 중에 인상적인 출연자가 있었다. 평생 골방에서 시계수리를 해 오다 60대 후반 자신의 내장기관이 암세포에 대거 침윤 당했음을 발견한 노인이었다. <br/>명의의 도움으로 장기들을 대거 절제하는 수술을 한 후 구사일생으로 생을 이어가게 된 그는 이후 식이요법과 운동을 동반한 힘겨운 노력 끝에 재활에 성공했다. 이제 안심해도 좋겠다는 판정을 받은 후 그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있었다. 바로 자신의 한 두평 남짓 되는 좁은 작업실이었다. 그는 웃으며 고백을 했다. “<span class='quot0'>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나는 일하는 게 노는 거보다 재미있다.</span>” <br/>일, 즉 노동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다. 성경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하지 않았나.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한다. 인간이 동물과 달라진 건, 일, 그중에서도 특히 도구를 사용한 노동을 수행했기 때문이라는 철학적 견해도 있다. 그만큼 일은 인간의 실존을 이루는 본질적 활동이다. <br/>그런데 만일 누군가 어느 직장에서 25년 일한 나에게 느닷없이 어느 날 “넌 더 이상 성과가 안 나니까 이제 이 일을 그만두어라”고 명한다면 어떨까. 그건 어쩌면 ‘넌 이제 너이기를 이제 포기하라’는, 일종의 정체성에 대한 폭력이 아닐까. <br/>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정규직 일자리가 금쪽같이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인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인지 잘 모르겠다. 누가 어떤 문제 위주로 답을 찾을지에 따라 답은 달라질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든 답을 찾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일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다. <br/>일이란 분명 경제적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에게 그것만이 일의 의미 전부는 아니다. 일의 또 다른 본질은 그것이 일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보람에 있다. 일하는 사람은 다른 인간과 세상을 빛나고 윤기 나고 편리하며 아름답게 하는 데에 기여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이 만들어 내는 그러한 가치들로부터 보람을 찾는다. 바로 노동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br/>일, 대가, 보람을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써서 다시 논하자면, 그것들은 각각 노동, 교환가치, 사용가치라고 칭할 수 있다. 교환가치는 노동을 통해서 받는 물질적인 보상, 대가를 말하고, 사용가치는 노동의 결과물이 지니는 사회적 효용성을 말한다. 일의 목적이 대가에만 있지 않다는 말을 바꿔 하면, 노동의 가치는 교환가치로만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일하는 사람의 보람은 교환가치만이 아니라, 그의 노동의 결과가 만들어 내는 사용가치와 그것의 실현에 있다. <br/>일하는 사람은 그의 노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생산물의 사용가치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실현될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낀다. 교환가치나 칭송과 같은 보상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활동의 부산물이다. 그러한 희열은 그의 노동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높을 때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일에 몰입하는 이들은 사회통합에도 순기능적이다. 인간은 거대한 현대사회의 분업구조 내에서 하나의 기능인으로 그 사회에서 정체성을 획득하고 통합되어 들어가기 때문이다. <br/>성과연봉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시끄럽다. 행여 정책의 도입으로 제어하려는 문제가 일과 노동이 개인과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된다. 일하는 이들의 행복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최고의 기반이다. 행복의 절정은 일을 통한 만족과 존엄을 경험함에서 찾아진다.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한 정책이 만들어 내는 불행한 조직과 사회는 결국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마이너스로 귀결될 것이다.<br/>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1.txt

제목: 삼성의 반성문…“조직문화 몽땅 다 바꾸자”  
날짜: 201610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14051531656  
본문: 갤노트7 사태 이후 자성 목소리<br/>과도한 내부 경쟁으로 힘 허비<br/>계열사 간 힘겨루기 양상까지<br/>수직적 군대 문화도 시대 안맞아<br/>쌍방향 소통으로 창의성 도출해야<br/>“기술 안되는데 두께만 줄여”<br/>사내 게시판에 역량 부족 지적도<br/>“<span class='quot0'>매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맞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이 들고 나가 소개해왔던 제품 중 기능 검증이 끝난 제품은 거의 없었다.</span>” <br/>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한 직원은 13일 갤럭시노트7 사태와 관련, “<span class='quot1'>제대로 익지도 않은 감을 따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해 내 놓으니 사고가 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span>”며 이렇게 말했다. 삼성전자는 매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에서 갤럭시S 시리즈, 9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를 전후해 갤럭시노트 시리즈 신제품을 출시해 왔다. 그러나 일정에 쫓기다 보니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개한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직원은 “<span class='quot2'>제품이 먼저지 시기가 먼저냐</span>”며 “<span class='quot2'>막무가내식 지시와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갤럭시노트7 사태는 언제든 재연될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br/>또 다른 삼성전자 직원도 이날 “<span class='quot3'>이번 단종 사태는 애플 아이폰보다 무조건 먼저 내놓으려고 제대로 문제 해결도 안 된 제품으로 무리하게 전량 회수ㆍ교체(리콜)하다 사달이 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솔직히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span>”라고 토로했다.<br/>갤럭시노트7 단종 결정 이후 삼성전자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은 소통 부족과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다. 시대에 맞지 않는 ‘상하간ㆍ부서간 소통의 단절’이 삼성의 암이 되고 있는 조직 문화를 몽땅 다 바꿔야 한다는 게 반성론의 골자다. 물론 과거 선두 기업을 모방하면서 성장할 때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직적인 문화가 경쟁력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삼성에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는 쌍방향 소통과 자율성이 중시되는 유연한 조직 문화가 더 중요하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이번 갤럭시노트7 사태는 밑에서 ‘노(No)’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span>”이라고 꼬집었다. <br/>부서간 소통 단절도 심각한 상태다. 이날 삼성 내부게시판에는 “개발, 마케팅, 기획, 검증, 디자인 등이 뿔뿔이 흩어져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br/>소모적이면서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는 문화도 비판 받고 있다. 애플과의 경쟁에서 나타난 조급증과는 별개로 과도한 내부 경쟁이 구성원의 힘과 조직의 역량을 허비하게 한다는 불만이 적잖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한 직원은 “<span class='quot1'>한 팀에서 새 기능을 개발하면 다른 팀에서 무조건 더 좋은 기능을 내놔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한 번도 쓰지 않는 기능도 태반인데 이런 보여주기식 기능을 개발하려고 과열 경쟁을 쓸데 없이 한 셈</span>”이라고 말했다. <br/><br/><br/>9월 2일 전량 회수ㆍ교체(리콜)을 결정하는 과정에선 계열사간 힘겨루기 양상도 드러났다. 한 교수는 “<span class='quot5'>삼성전자 정보기술ㆍ모바일(IM)사업부가 기득권을 잡은 상태에서 1차 사고 시 삼성SDI 배터리로 원인을 너무 쉽게 결론 낸 것은 파워게임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5'>노키아가 2008년 애플의 운영 체제에 대항할만한 ‘마에보’나 ‘미고’를 갖고 있었는데도 내부 힘 겨루기에서 밀려 ‘심비안’을 고집하다 결국 몰락한 점을 상기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br/>사고의 원인을 아직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기술의 삼성’에겐 아픈 대목이다. 8월19일 갤럭시노트7 출시 직후부터 발화 사고가 속출하면서 삼성은 수백명의 직원에게 문제점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누구도 발화 사고를 재연하지 못한 상태다. 사내 게시판에는 ‘전자 소재에 대한 이해도와 관리 역량 부족이라는 약점이 드러났다’‘기술은 준비가 안 됐는데 두께만 줄이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최고가 아닌 분야에 대해선 자만심을 버리자’ 등의 반성이 이어졌다. 이창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span class='quot6'>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불량 원인을 밝히는 게 좀 더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6'>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엇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악화시켰는지 역추적하는 것과 같은데, 경로가 매우 다양하다</span>”고 말했다. 홍채인식, 방수방진, S펜 강화 등 첨단 기능을 갖추면서도 얇고 가볍게 만든 갤럭시노트7에는 사고를 유발한 매우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데도 삼성이 원인을 배터리 문제로 몰고 간 것은 성급했다는 게 삼성 안팎의 비판이다. <br/>전문가들은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리더십을 강화하는 게 변화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묵 교수는 “<span class='quot7'>경영진이 제품의 사양과 성능을 정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은 혁신 선두 기업 삼성에 걸맞지 않는다</span>”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더십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8'>삼성이 도약하려면 의사 결정자가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8'>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등기이사가 되는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직접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밝혀야 할 것</span>”이라고 제안했다. 하부 조직이나 실무진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 때 의사 소통이 원활해져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br/>이 밖에 “삼성이 비대해지고 공룡화ㆍ관료화하면서 혁신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계열사들을 분할해서 조직을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이기주의 형식주의 권위주의 등 고질적 병폐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br/><br/>삼성 사내 게시판엔 그러나 새로운 각오와 응원 글이 훨씬 더 많았다. “<span class='quot0'>단기적 손실과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자</span>”“<span class='quot0'>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법인 만큼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해선 안 된다</span>”“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span class='quot0'>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삼성이 왜 초일류 기업인지 다시 보여주자</span>”등 서로 격려하는 댓글도 눈길을 끌었다. 삼성 관계자는 “<span class='quot9'>자성의 계기가 돼야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힘 내서 다시 잘해보자’는 분위기</span>”라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2.txt

제목: 전립선비대증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날짜: 201610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13050820181  
본문: [한국스포츠경제 채준]<br/> <br/> <br/>질문 = 전립선비대증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br/> <br/>답변 = 보통 수술이라고 하면 피부를 메스로 절개하고,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찾아서 수술하고 봉합을 하는 과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립선 수술 중 암에 걸려 수술을 하는 경우라면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 해야 하므로 보통 생각하는 수술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그런 과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지게 되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이 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어 생기는 병 입니다. 수술은 좁아진 소변 길을 넓히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br/> <br/>수술은 요도를 통해 들어가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시행합니다. 그래서 전립선비대증 수술은 '경요도전립선절제술'로 불립니다. 요도 안쪽 깊속한 곳에서 전립선의 조직을 잘라내어 몸 밖으로 꺼내게 되므로 수술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게 됩니다.<br/> <br/>수술은 약물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줌발이 너무 약하거나, 배뇨 후 잔뇨량이 많은 경우, 또는 소변을 전혀 못 보는 환자에게 시행합니다. 수술은 전립선의 크기가 클수록 제거해야 할 전립선 조직이 많아 지기 때문에, 전립선의 크기에 따른 시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보통은 1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길어지면 2시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같은 전립선 크기라도 술자의 성향이나 실력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조직의 양과 출혈 양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br/> <br/>전립선의 절제 방법은 기존에는 전기를 이용한 루프를 이용하던 전통적 방식에 더해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많이 소개 되고 있고,전립선 조직을 태워서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하지만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도 각각의 방법에 장단점이 있고, 기존의 방법보다 효과적이지 못해 사라지는 수술방법들도 허다합니다. 보통은 간단하다고 알려진 수술일수록 제거 할 수 있는 전립선의 양이 적은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br/> <br/>전립선비대증 수술은 수술자의 경험이 수술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수술이므로,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수술 방법을 결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본인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당부 드립니다.<br/> <br/>이영훈 원장은 일산연세비뇨기과에서 근무하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3.txt

제목: 독감주사 맞는 계절… 폐렴 예방접종 같이 하면 효과적  
날짜: 201610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11051618709  
본문: 동시 접종 시 사망률ㆍ입원률 줄어들어<br/><br/><br/><br/>독감 예방접종 계절이다. 전국 병ㆍ의원과 보건소 1만7,000여 곳에서 일제히 고령인과 영ㆍ유아(6~12개월)를 대상으로 독감 무료접종이 시작됐다. 만 75세 이상과 영ㆍ유아는 지난 4일부터, 65~74세는 지난 10일부터 연말까지 무료 접종할 수 있다.<br/>무료 접종 대상자뿐 아니라 만성질환자, 55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하 어린이, 면역저하 우려자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 자체가 독감을 막아내고 증상을 줄이는 평생 건강의 안전띠다. 올해는 예방효과가 더욱 높아진 세포배양 백신, 4가 백신 등 새로 나와 선택폭도 넓어졌다. <br/>전문가들은 또한 “<span class='quot0'>독감 예방접종 시 폐렴 등 다른 예방접종도 동시에 하면 효과적</span>”이라고 강조했다. 독감과 폐렴은 전파경로가 유사하고, 호흡기 감염증 등과 같은 장기에서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고, 예방접종 시기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br/>독감 백신 70~90% 예방 효과<br/>독감 백신은 이에 포함된 균주와 유행하는 바이러스 항원이 일치하면 건강한 성인에서 70~90%의 예방효과를 나타낸다. 고령인의 예방효과는 30~40%이지만 입원 예방 50~60%, 사망 예방 80% 정도 효과를 보인다. 접종 후 2주 정도 지나면 방어항체가 생기고 평균 6개월(3~12개월) 면역효과가 지속된다.<br/>독감 바이러스는 A, B, C 세 가지 형이 있다. A형 2종(H1N1, H3N2)과 B형 2종(야마가타, 빅토리아)이 사람에게 주로 유행한다. 독감 백신은 A형 2종과 B형 1종 항원 등 3개를 막는 3가 백신이 국내에서 접종됐다.<br/>그러나 3가 독감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B형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B형 ‘미스매치’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면서 예방효과를 넓히기 위해 4가 독감 백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가 독감백신은 기존 3가에 B형 바이러스주 1종을 더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2013~2014년부터 4가 독감 백신 접종이 폭넓게 예방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4가 독감 백신을 노년층, 임신부, 영ㆍ유아 등 고위험군에게 정부가 무료로 접종하는 국가예방접종에 첫 도입했고, 올해엔 4가 독감 백신만 접종하고 있다.<br/>최근 국내에서 4가에 세포배양 생산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독감 백신(스카이셀플루4가)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달걀을 사용해 백신을 생산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무균 배양기를 통해 생산하는 세포배양기술을 도입해 항생제나 보존제를 쓰지 않는다. 3세만 넘으면 누구나 접종할 수 있다.<br/>질병관리본부는 “<span class='quot1'>독감 유행이 12월이나 1월 이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10월 초 접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span>”고 했다. 독감 무료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nip.cd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br/>폐렴ㆍ대상포진 백신도 함께 맞으면 좋아<br/>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서 같이 맞으면 좋은 백신도 있다. 바로 폐렴과 대상포진 백신이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독감과 폐렴 백신을 동시 접종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br/>한국인 사망 원인 가운데 뚜렷이 늘고 있는 것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발생하는 폐 염증이다. 지난해 폐렴 사망자는 1만4,718명으로 2011년보다 71%가량 늘었다(통계청). 암이나 다른 질환의 경우 폐렴 같은 2차 질환 위험성이 더 커지므로 폐렴구균(폐렴사슬알균)백신 접종을 통해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br/>국내에서 맞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단백접합백신(10가, 13가)과 다당질백신(23가) 두 가지(3개 제품)가 있다. 영ㆍ유아와 소아(생후 2~59개월)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백신은 단백접합백신이다. 65세 이상은 다당질백신에 한해 무료 접종할 수 있다. 단백접합백신은 모든 연령대로 적응증이 늘어났다. 13가 백신은 성인의 경우 아직까지 개인이 비용을 내고 일반 병ㆍ의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맞아야 한다. 65세 이후 1회 접종만 하면 된다. 당뇨병과 만성콩팥질환, 심혈관질환, 간질환 등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나 면역억제제를 먹는 성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접종해야 한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기관지천식 같은 만성폐질환이 있다면 꼭 맞아야 한다.<br/>또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요즘에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 대상포진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어릴 적 수두를 일으킨 뒤 몸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순간 발병한다. 신체 한쪽 부위 피부에 심한 통증과 물집을 만든다. 주로 배나 가슴 부위에 생기고 얼굴, 목에도 나타난다. 특히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진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한다. 요즘에는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젊은 환자도 늘고 있다.<br/> 대상포진의 무서움은 통증과 합병증이다. 고령일수록 심해진다.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은 흔히 산통(産痛)에 비유되곤 한다. 의학적 통증 척도(SF-MPQ)에 따르면 대상포진은 통증 22점으로 수술 후 통증(15점), 산통(18점)보다 심하다. 환자들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살이 타는 듯한 통증’ ‘숨이 턱턱 막히는 통증’이라고 말한다. 대상포진 환자의 96%가 이런 급성 통증을 경험한다.<br/>다행히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에서 평생 1회 접종하면 된다. 1회 접종하면 51~70% 예방효과를 나타내고, 병에 걸려도 합병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br/> <br/>암 앓으면 면역력 떨어져…예방접종해야<br/> 한국인은 평균수명까지 살면 남성의 38%, 여성의 35%가 암에 걸린다. 이혜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암을 앓고 있거나 완치된 경우라도 면역력이 저하돼 감염병에 취약해지므로 암 경험자는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span>”고 했다.<br/>전에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일부 백신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 추가 접종해야 한다. 또 새로 개발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외 여행 등 특수상황에 맞게 예방접종을 추가해야 한다.<br/>암 경험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접종하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암 경험자에게 추천되는 예방접종은 독감을 포함해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ㆍ디프테리아ㆍ백일해 등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2'>암 경험자는 독감 예방접종 때도 ‘불활성화 백신’을 맞는 게 좋고, 가족은 생백신을 맞더라도 문제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가능한 한 불활성화 백신을 맞는 것을 더 추천한다</span>”고 했다. 생백신을 맞은 가족 구성원은 안전을 위해 2~6주 면역력이 떨어진 암 경험자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4.txt

제목: [첨단 의료를 달린다] 서울성모병원 최소침습 및 로봇수술센터  
날짜: 201610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11051540756  
본문: “<span class='quot0'>로봇수술로 자궁근종 환자의 임신 78.6% 성공시켜</span>”<br/>서울성모병원 최소침습 및 로봇수술센터는 지난 4월 성능이 향상된 제4세대 Xi 다빈치 로봇수술기기를 도입했다. 송교영 위장관외과 교수가 이를 이용한 첫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성모병원 제공<br/><br/>미세 수술의 첨단은 ‘다빈치 로봇 수술’이다. 복강경 수술이 채워주지 못하는 미세함을 진일보 발전시켰다. 다빈치 로봇수술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외부의 로봇 조종석에 앉아 540도로 자유롭게 돌아가는 4개의 로봇팔을 이용해 수술하는 첨단 수술이다. 손동작보다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어 인간 손의 한계를 뛰어 넘는다.<br/>의사가 로봇을 조종하는 데 쓰는 작동 콘솔과 로봇 카트 등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로봇카트는 높이 2m, 무게 540㎏에 이를 만큼 큰 덩치를 가지고 있다. 본체에는 4개의 팔이 달려 있는데 중앙에는 환자 몸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카메라가 붙어 있고, 나머지 팔에는 수술용 기구가 달려 있다.<br/>이 수술은 복강경과 달리 3차원의 높은 해상도를 기반으로 환부를 10~15배 정도 확대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수술용 카메라가 있어 수술 시야를 잘 확보할 수 있다. 의사 손의 움직임이 디지털화돼 있어 집도의의 미세한 손떨림도 막을 수 있다.<br/>현재 로봇수술은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선암 방광암 콩팥절제술 신우형성술이 이뤄지고 있다. 외과에서는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비장절제술 담낭절제술이, 산부인과에서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근종 난소종양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흉부외과에서는 폐암수술 심장판막재건술 심장중격결손 관상동맥우회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지난 8월 다빈치 로봇수술 2,000례를 달성해 로봇수술의 선두권에 선 서울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최소침습및로봇수술센터를 알아본다.<br/>/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지난 8월 다빈치 로봇수술 2,000례를 달성한 뒤 승기배 병원장을 비롯해 송현 진료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br/>서울성모병원 제공<br/><br/>제4세대 다빈치 로봇수술기 도입해 양질 수술<br/>서울성모병원은 2009년 3월 25일 제2세대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이용, 비뇨기과 전립선암 수술을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 국내 최단기간인 7개월 만에 100례를 기록했으며 2013년 12월 1,000례를 달성한 데 이어 지난 8월 11일 김미란 산부인과 교수(최소침습 및 로봇수술센터장)가 자궁근종수술을 시행해 병원 다빈치 로봇수술 총 2,000례를 달성했다.<br/>로봇수술은 산부인과 자궁근종 557건(27.9%), 비뇨기과 전립선암 513건(25.7%), 외과 갑상선암 145건(7.3%), 이비인후과 두경부암 110건(5.5%) 등 임상과별로 고난도 수술에 다빈치 로봇수술기를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br/>특히 자궁근종분야는 현재 570건의 로봇수술을 달성해 국내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김미란 교수는 428건 이상의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시행, 단일 수술자로 국내 최다 수술건수를 달성했다.<br/>최근 로봇수술을 원하는 환자가 꾸준히 늘면서 최소침습및로봇수술센터는 지난 3월 최신 사양의 제4세대 Xi 다빈치 로봇수술기기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센터는 기존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림프절제술이 필요한 고난이도 암수술은 물론 비뇨기과,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의 다양하고 복잡한 최소침습수술에 확대 시행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4세대 로봇수술기 도입에 발 맞춰 센터 각 임상과 의료진은 지난 3월 한국의사 최초로 일본 도쿄의 다빈치 로봇 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애니멀 랩 등 다양한 트레이닝을 마쳤다.<br/>김미란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다빈치 로봇수술은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게 자궁보존과 임신 성공 등 이점이 매우 많다</span>”고 했다. 실제로 김 교수에게 수술 받은 자궁근종 환자의 임신 성공률도 78.6% 정도로 높다. 그가 ‘자궁근종 로봇수술 명의’로 꼽히는 이유다.<br/>이지열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로봇수술은 전립선 주변에 배뇨와 성기능 관련 신경이 많아 10배 확대된 시야 확보와 정밀함을 보장해 줘 전립선암 수술에 매우 적합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 더 많은 환자에게 적용될 것</span>”이라고 했다.<br/>위암 수술 전문인 송교영 위장관외과 교수는 로봇수술 시행 초기 복강경수술과 로봇수술을 비교한 뒤, 로봇수술의 합병증 발생빈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로봇수술 장점을 밝힌 의사 중 한 명이다. 세계 각국 의사에게 위암 로봇수술을 가르치고 정기적인 학술교류는 물론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br/>김민식 이비인후과 교수는 2009년부터 두경부암과 갑상선질환에 로봇수술을 적용해 환자의 빠른 회복과 함께 종양학적으로 안전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2'>로봇수술이 흉터가 눈에 띄지 않아 수술 후 미용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다</span>”고 했다.<br/>Xi?로봇수술기로 넓은 영역 수술을 할 수 있어 대장항문외과 질환에서 로봇수술이 점점 늘고 있다. 김준기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로봇수술은 직장암 질환에 대해 기능적인 보존을 하는데 효과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향상된 제4세대?Xi?다빈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병소(病巢)가 깊거나 골반이 좁고 암이 진행되는 등 고난이도 술기(術技)가 요구되는 직장암 수술에 적용하면 기존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보다 우세할 것</span>”으로 내다봤다.<br/>김미란 센터장은 “<span class='quot3'>센터는 환자에게 최상의 수술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의가 모인 만큼 끊임없는 연구활동과 수술 술기 향상을 도모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3'>로봇수술을 통해 환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한 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고 성적으로 환자에게 희망이 되겠다</span>”고 했다.<br/><br/>의료선진국 의사도 와서 배우는 로봇수술 <br/>“<span class='quot0'>한국 의사들은 출혈이 거의 없고 정교하게 암을 제거해 놀라울 뿐이다.</span>” 의료 선진국 일본에서 한국의 앞선 로봇수술을 배우기 위해 서울성모병원 최소침습 및 로봇수술센터 송교영 위장관외과 교수에게 연수를 받고 있는 카즈키 씨의 소감이다.<br/>서울성모병원 최소침습 및 로봇수술센터 라인업은 국내 최고를 자랑한다. 뛰어난 수술 능력 덕에 이 팀에는 늘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br/>위암 로봇수술의 권위자 송교영 교수는 로봇수술 시행 초창기 복강경 수술과 각 40례의 수술 후 임상적인 인자를 측정했다. 그 결과 수술 후 췌장염 발생빈도가 복강경 수술군에서 22.5%인 반면, 로봇수술 군에서는 10%로 로봇 수술 군이 낮은 결과를 얻었다. 뛰어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일본 의사 13명이 서울성모병원 위암 술기를 배우고 정기적인 학술 교류를 하고 있다. <br/>뿐만 아니라 최소침습 및 로봇수술센터는 그동안 미국 중국 요르단 도미니카공화국 모로코 카자흐스탄 영국 등 각국 외과의사와 의대학생을 유치했다. 2014년부터 로봇수술의 우수한 수술 결과와 숙련된 수술 술기를 경험하고자, 15명이 총 기간 2년 예정으로 연수 중이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5.txt

제목: [헬스 프리즘] 전이된 4기 대장암, 완치를 꿈꾼다  
날짜: 201610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11051429631  
본문: 백승혁 강남세브란스병원 대장암센터 외과 교수<br/>대장암은 지난 5월 발표된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남성 2위, 여성 3위의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더라도 184개국 가운데 한국인의 대장암 발생률이 10만 명 당 45명(2012년 기준)으로 세계 1위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대장암에 취약한 한국인의 유전적 특징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br/>다행히 최근 조기 검진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건강검진 등을 통해 대장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전이된 상태로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줄고 있다.<br/>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대장암도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와 생존율이 현저히 높아진다. 대장암은 1기와 2기의 일부까지는 수술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 2기 일부와 3기부터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같이하면 효과적이고,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일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br/>이렇듯 1~3기 대장암은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의학이 발전하며 복강경 및 로봇을 이용한 최소침습 수술, 항암신약, 고성능 방사선치료기 등이 등장하며 치료예후나 환자의 삶의 질 또한 매우 향상됐다.<br/>그러나 대장암의 재발률은 20~50%정도로 높고, 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전이(암종증)를 동반한 4기 대장암 환자는 치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암세포가 대장의 외벽을 뚫고 복막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매우 나쁘다.<br/> 그래서 많은 의료기관은 정도 단계에서는 수술을 미루고 항암 치료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술로 암을 제거하지 않는 한 대장암의 완치는 어렵다. 완치 가능성이 없는 완화 목적의 항암치료만 시행하는 경우라면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을 것이다.<br/>이런 4기 암환자에게 완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 바로 하이펙(HIPECㆍ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이다. 하이펙은 수술로 모든 암 부위를 제거한 후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수술실에서 곧바로 42도로 가열한 항암제를 약 90분간 복강 내에 주입해 시행하는 온열항암치료법이다. 온열 자체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고 항암제의 치료 농도를 30배까지 올린 상태에서 암세포 표면에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다. 하이펙 치료를 하면 항암치료 만했을 때보다 생존율이 3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다. <br/>다만 하이펙 치료는 처음 발생한 부위의 암세포와 전이된 암세포를 제거해야 하기에 수술이 매우 복잡하고 보통 10시간 이상 걸린다. 수술이 장시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이후 뜨거운 온열 항암 치료가 병행되므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하이펙 치료는 고도로 특화되고 숙련된 의사와 치료팀의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내야 할 환자와 보호자의 굳은 의지와 믿음이 필요하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6.txt

제목: 대경대 경산시민 위한 교육기부 축제 연다  
날짜: 201610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11051100255  
본문: 대경대가 경산 시민을 위한 대규모 교육기부 축제를 선보인다. <br/>대경대는 14일 오후 1∼10시 경산시청 뒤편 남천 둔치에서 40여 학과가 참여하는 직업 문화체험과 공연, 다문화가족 후원을 위한 기부,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기부 축제를 펼친다고 10일 밝혔다.<br/>이날 행사에서 이 대학 동물조련이벤트과는 동물전시 체험관을 선보이고, 드론과는 드론 전시 및 다양한 드론 체험의 세계로 인도한다. 또 자동차딜러과는 수입차 전시회 및 레이싱 모델 사진촬영 행사, 스포츠건강과학과는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 마사지숍 운영, 보건계열 학과들은 건강증진 캠페인 및 암 조직 전시 및 기초검사, 시력검사, 무료 언어치료 검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br/>또 유아교육과는 풍선아트 및 페이스페인팅, 세계호텔제과제빵과는 빵과자 시식행사, 연극영화과는 연극의상 포토존 운영, 뷰티디자인학부는 네일 핸드 마사지, 향수만들기, 와인바리스타과는 더치커피 판매 및 막걸리 무료시음 행사, 실용음악과는 거리공연, 푸드아트스쿨은 건강식단 짜기와 음식 체험부스를 운영한다.<br/>이번 축제에서는 다문화가족 후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1만원을 모금하는 ‘만원의 행복’과 연예인 및 야구선수의 기증품 판매행사가 열린다.<br/>경산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에서 모델과는 ‘화양연화’를 주제로 8개의 테마 작품전, 동물조련이벤트과는 40여 종의 동물이 총출연하는 공연, 메이크업과는 바디페인팅 등을 선보인다.<br/>또 마지막 무대는 박남정, 노라조, 슈퍼비 면도,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인 탤런트 유동근씨가 함께 한다.<br/>이채영 대경대 총장은 “<span class='quot0'>문화 예술 특성화대학인 대경대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교육기부 행사를 마련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소비가 아니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7.txt

제목: 중증질환 건보 적용 늘어도… 전체 보장률 아직 63%  
날짜: 2016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06051033916  
본문: 4대 중증질환 기존 비급여 진료 <br/>483항목 적용 대상에 편입 성과<br/>부분 틀니ㆍ임플란트까지 확대 등<br/>고령자 의료부담 완화 노력에도<br/>전체 의료비 보장률은 개선 과제<br/><br/><br/>주부 강모(40)씨의 시어머니는 지난해 3월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강씨 부부는 당장 서울 대형병원의 유명 전문의 특진을 예약했지만, 넉넉지 않은 살림에 암 수술 및 입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더구나 의사는 수술 후 고가의 표적항암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놨다. <br/>고민은 막상 어머니를 입원시키자 풀리기 시작했다. 1회 20만원이 넘는 초음파검사 비용으로 5,000원만 청구 받고 나서 강씨는 암 진료비는 환자가 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술 후 6인실이 꽉 차 부득이 4인실에 환자를 모셨을 때도 건강보험 보장 덕에 하루 2만원만 냈다. 퇴원 때 1,000만원 이상을 각오했던 병원비는 300만원 정도로 마무리됐다. <br/>무사히 수술을 마친 시어머니의 항암 치료도 순조롭다. 1회 치료에 500만원을 호가했던 표적항암제들이 최근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 추가돼 환자 부담금이 10만~2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강씨는 “<span class='quot0'>시어머니가 조금 더 일찍 편찮으셔서 이러한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더라면 그 비싼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싶다</span>”고 말했다. <br/>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올해 집권 4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필수의료 보장 강화, 고액 비급여 진료 해소,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를 목표로 ‘중기(2014~2018) 보장성 강화 계획’을 제시한 정부는 그 핵심 사업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보장 강화 정책을 올해 마무리하는 한편, 난임 가정 출산지원 강화, 치매 및 척추ㆍ관절질환 급여 확대 등으로 보장 영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씨 사례에서 보듯 중증질환 보장, 의료 비급여 영역 축소 등을 통해 의료비 절감 체감도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건강보험 보장비율이 전체 의료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점(2014년 63.2%)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br/>현 정부 출범 첫해 시작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는 지난 8월까지 약제, 검사, 치료법 등 기존 비급여 진료 483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편입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도 연말까지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 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환자가 모든 비용을 내야 했던 비급여 진료가 본인부담금 5~10%의 건강보험 보장 대상이 되면서 환자 부담 경감액은 7,0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br/>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경력 10년 이상 전문의가 수술·진료를 할 때 환자에게 건강보험 수가의 20~100%를 추가 부과했던 선택진료에 대해 정부는 부과비율을 최고 50%로 낮추고, 제도 시행 전 80%였던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33%까지 낮췄다. 또 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확대하고,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병실료에 하루 1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확대는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br/>고령자 의료부담 완화도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주요 목표다. 정부는 완전 틀니에만 지급되던 건강보험 급여를 부분 틀니(2013년 7월), 임플란트(2014년 7월)로 점차 확대하고, 급여 적용 대상도 70세에서 65세로 낮췄다. 막대한 의료비 발생에 따른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역시 주로 고령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 본인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냈다가 돌려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61%가 65세 이상이었다.<br/>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8.txt

제목: 메트라이프생명, 미리받는 변액종신보험 출시  
날짜: 201610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06050833255  
본문: 메트라이프생명은 5일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무배당 미리받는 변액종신보험 공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6대 질병, 4대 수술, 화상 및 중증 치매, 일상생활 장해 상태 진단 확정 시 가입금액의 최대 80%를 선지급해 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신보험이다. 특히 한국인의 3대 사망원인인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에 대해 중대한 상태가 아니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br/>메트라이프생명은 이 상품을 소득보장형으로 가입하면 55, 60, 65세 중 설정한 은퇴 나이 이전에 질병 발생 시 선지급금 외에 추가로 매달 가입금액의 1%를 60회 확정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입금액의 최대 160%까지 질병, 사망, 생활비를 동시에 보장 받을 수 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업계에서 유일하게 선지급금 외에 추가로 60개월간 월급여금을 지급한다</span>”고 밝혔다.<br/>납입 방법도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스텝형 방법을 도입했다. 이 방법은 납입기간의 중간시점까지 기본형 대비 낮은 보험료를 내고 이후 잔여 납입기간에 기본형 대비 높은 보험료를 내는 방법이다. 납입기간이 20년일 경우 가입 후 10년까지 기본형보다 약 20% 정도 낮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향후 소득상승이 예상되는 가입자의 경우 가입초기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덜 수 있다.<br/>또 보험료 인상 걱정이 없는 비갱신형 무해지환급형 특약을 통해 최대 38%까지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무해지환급형 특약은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어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 기간 완료 이후 4년이 경과하면 일반 특약과 동일한 수준의 환급금이 발생한다.<br/>이와 함께 메트라이트생명은 높은 수준의 전문 의료 서비스인 ‘헬스케어 블루서비스’를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중대 질환 발생 후 1 대 1 전담 간호사를 배정해 24시간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 이밖에 유전자 검사, 면역세포 보관서비스, 간병도우미 안내, 대형병원 진료 예약 및 명의 안내, 응급 환자 이송 서비스도 제공된다. 데미언 그린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상품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의 폭을 넓힌 점이 특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도 보장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9.txt

제목: 암보다 더 치명적인 심부전, 4가지 적을 피하라  
날짜: 201610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04051229011  
본문: 심장 기능 상실로 혈액 공급 이상<br/>30~40%가 진단 후 1년 내 사망<br/>비만ㆍ당뇨ㆍ흡연ㆍ혈압 철저한 관리를<br/>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심혈관 질환이 크게 늘어난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 혈압은 13㎜Hg 정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혈압 상승은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대동맥박리, 심부전 등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커지면 심장과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4%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환절기에 늘고 있는 심혈관 질환 가운데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고 불리는 심부전(心不全)에 대해 알아본다. 마침 지난 29일은 세계심장협회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심장의 날’이었다. 대한심장학회(이사장 오병희)도 지난 9월 마지막 주(24~30일)를 ‘심장질환 인식 제고와 예방관리 활동을 위한 주간’으로 지정했다.<br/><br/>‘심장질환의 종착역’ 심부전<br/>몸이 붓는 부종, 가쁜 호흡, 피로감, 불규칙한 심장박동, 가슴의 뻐근함 등등. 심장의 펌프 기능에 문제가 있고, 펌프 기능 문제를 유발하는 심장질환이 있을 때 흔히 겪는 증상이다. 한두 번 생기는데 그치지 않고 점점 증상이 심해진다. 심부전의 전형적인 증상이다.<br/>심부전은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온 몸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다. 고혈압ㆍ당뇨병 등 심장에 영향을 주는 질환에 걸리면 마지막 단계에 필연적으로 걸린다. 그래서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br/>무엇보다 심부전은 사망률과 재입원률이 매우 높다. 조사에 따르면 심부전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18.8%가 90일 이내, 37.4%가 1년 이내 심장문제로 재입원했다.<br/>심부전 환자의 30~40%는 심부전 진단 후 1년 내 사망하고, 60~70%는 5년 내 심부전 악화나 급성 발작으로 사망한다. 이는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행 암과 심근경색보다 높은 수치다.<br/>게다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서 심부전 발병률이 높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주요 입원과 사망 원인이다.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1.5%로 75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40년에는 환자가 2배 늘어나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석 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장(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에서도 80%세 이상에서 10% 이상 늘어나고 있다</span>”고 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사망률이 높던 심근경색이나 심근병증 등의 치료가 가능해지고, 이런 질환을 앓은 환자가 심부전을 앓게 되면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br/>심부전의 대표적 증상은 호흡곤란이다. 처음에는 운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 나타나지만 질병이 악화되면 밤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 깨기도 한다.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숨이 가빠진다. 또 심장이 신체기관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명(쌕쌕거리는 호흡), 부종, 심한 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br/><br/> “<span class='quot1'>평소 계단 이용하고 하루 20분 이상 걸어라</span>”<br/>심부전을 예방하려면 비만과 당뇨병, 흡연, 혈압을 조절해야 한다.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평소 계단을 이용하고 하루 20~30분 걷기 등 꾸준한 운동과 함께 당분이나 나트륨(소금), 포화지방 섭취를 줄여야 한다. <br/>강시혁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심장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 환자는 독감이나 폐렴에 걸리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폐렴과 독감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진단에는 병력과 신체소견, 흉부 X선ㆍ심전도ㆍ심장부하검사 등을 병용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최근에는 컴퓨터단층촬영(CT)과 심장초음파검사가 활용되고 있다.<br/>하지만 아직 심부전 환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논의가 미비한 실정이다. 정욱진 심부전연구회 총무이사(길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심부전은 완치의 개념이 없고 일부 암보다 생존율이 낮은데다 반복적인 입원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많아 전 세계적인 공중 보건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정 이사는 “반복되는 입원과 응급실행 등 심부전 환자는 질환에 따른 고통뿐만 아니라 2차적 고통도 크다”고 했다. 심부전 환자의 평균 재원일은 8일인데 이에 따른 입원비는 770만원이나 된다. 특히 이 중 본인부담금은 260만원이다.<br/>최진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심부전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인공심장이나 좌심실 보조장치는 기계 값만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우리 병원에서 지금까지 7건밖에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br/><br/><br/>(대한심장학회)<br/>① 금연하라= 하루 반 갑 흡연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을 3배 늘린다. 간접흡연도 2배 높인다. <br/>② 적절한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라= 복부비만은 내장지방 축적으로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이상을 가져온다.<br/>③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운동은 혈압과 체중을 정상으로 복원시키며, ‘좋은’ 고밀도 지단백(HDL)콜레스테롤을 늘리고, ‘나쁜’ 저밀도 지단백(L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인다.<br/>④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어라= 채소와 과일, 도정하지 않은 곡물(현미, 잡곡 등)와 콩류에는 복합 탄수화물, 섬유질, 칼륨, 비타민, 항산화제 등이 들어 있어 혈압을 낮추고 탄수화물과 지질대사를 호전시킨다.<br/>⑤ 염분, 단순 당, 붉은 고기, 트랜스지방을 주의하라= 짜게 먹는 식습관은 고혈압, 동맥경화증을 촉진한다.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마른 안주에도 염분이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br/>⑥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먹어라=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EPAㆍDHA가 들어 있어 1주일에 2회(230g) 이상 섭취하라. 호두, 아몬드, 땅콩 등 견과류에도 불포화 지방산, 섬유소, 비타민E 등이 많아 LDL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이다.<br/>⑦ 과음을 피하고 음주는 하루 2잔 이내로 하라= 지나친 음주는 심근 기능을 떨어뜨려 심부전을 유발하고, 관동맥 경련에 의한 협심증, 부정맥 및 급사도 일으킬 수 있다.<br/>⑧ 충분히 자고, 가족ㆍ친구와 다정하게 지내라= 수면은 심혈관 건강과 정신 건강,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준다. 하루 7시간 숙면하라. 지나친 일과 과중한 업무도 심혈관질환의 적이다.<br/>⑨ 자연과 가깝게 지내고 공해를 피하라= 미세먼지와 오존 등 각종 공해도 심혈관질환의 원인이다. <br/>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라= 건강한 심혈관을 유지하려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으로 위험요인을 조기 검진하면 좋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00.txt

제목: ‘지방의 역설’, 과연 맞나?  
날짜: 201610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04051046865  
본문: “<span class='quot0'>저탄수화물ㆍ고지방 다이어트, 단기적으로만 효과</span>”<br/> ‘지방은 몸에 해롭다’는 상식을 뒤집고 ‘저탄수화물ㆍ고지방(Low Carbohydrate High Fat)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이 오히려 도움 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br/> 발단은 최근 국내 번역 출간된 니나 타이숄스의 ‘지방의 역설’(시대의창 발행)이다. 그는 9년여에 걸친 끈질긴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할수록 건강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1950년대 이후 지방 특히 포화지방이 심장질환이나 비만, 암을 유발하는 ‘못된 음식’이라는 정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br/> 타이숄스는 “육류나 달걀, 치즈, 우유를 배척할 필요가 없고, 이제부터 그 맛있는 음식을 죄책감없이 다시 식탁에 올려야 할 때”라며 “지금보다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책 번역자인 양준상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1'>6년 전부터 매일 하루 한끼는 삼겹살을 먹고, 대신 밥은 하루 반 공기(50g)만 섭취해 체중을 13㎏(현재 5㎏) 감량했고, 10년 전부터 앓던 지방간ㆍ이상지질혈증ㆍ부정맥에서 벗어났다</span>”고 주장했다.<br/>과연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까? 대다수 비만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2'>저탄수화물ㆍ고지방 식사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득보다 폐해가 많다</span>”고 했다. 유순집 대한비만학회 이사장(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3'>저탄수화물ㆍ고지방 등 특정 영양성분만 집중적으로 먹는 다이어트는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방법</span>”이라고 했다.<br/>“<span class='quot0'>저탄수화물ㆍ고지방 식사로 체중감량</span>”<br/> ‘저탄수화물ㆍ고지방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고 주장의 논리는 이렇다.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지방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쓰게 돼 체지방이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우리 몸이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다.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체내 에너지원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다.<br/>체내 에너지가 부족해진 몸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지방이 쓴다. 지방은 탄수화물이 소화된 포도당과 달리 해당과정을 뛰어 넘고 산화를 위해 미토콘드리아에 직접 들어가 ‘케톤’ 이라는 대사물질로 바뀌게 된다. 케톤은 뇌와 골격근, 심장 등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체지방도 분해한다. 그 결과 체지방이 빠진다는 것이다. <br/>저탄수화물ㆍ고지방 다이어트는 또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분해한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몸은 지방을 소비하지 않아 비만과 지방간, 당뇨병으로 이어진다.<br/>이처럼 지방을 많이 먹는 ‘케톤 다이어트’는 1920년 어린이 간질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경련을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 이 케톤 다이어트가 체중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순환기내과 의사인 로버트 앳킨스 박사에 의해 밝혀졌고, 저탄수화물ㆍ고지방 다이어트(앳킨스 다이어트)로 발전했다.<br/>이 같은 저탄수화물ㆍ고지방 다이어트는 포만감을 더 잘 느끼게 해주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체중 감소에 더 유익하다는 것이다. <br/>이 다이어트 옹호자들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이를 입증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툴레인 의대 리디아 바자노 교수팀이 성인 150명을 1년 간 고지방ㆍ저탄수화물군(지방 40% 이상)과 저지방ㆍ고탄수화물군(지방 30% 미만)으로 나눠 식사하게 한 결과, 고지방ㆍ저탄수화물 그룹이 평균 5.3㎏ 줄인 반면 저지방ㆍ고탄수화물군은 1.8㎏ 감량했다는 연구결과(2014년 9월 ‘미국내과학회보’)를 내세우고 있다.<br/><br/>“<span class='quot0'>특정 영양성분보다 균형된 식사가 중요</span>”<br/>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다이어트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이 이미 판명됐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br/>동재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저탄수화물ㆍ고지방 다이어트는 미국에서 시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미국 사람들조차 6개월 이상 지속하는 성공률이 50%대로 낮았다</span>”며 “<span class='quot4'>이 다이어트 후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요요현상이 올 수 있고, 이를 반복하면 전보다 건강이나 비만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span>”고 했다.<br/>이글라라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다양한 연구결과를 볼 때 저탄수화물ㆍ고지방 다이어트가 항상 체중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4'>비만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탄수화물ㆍ고지방 다이어트처럼 한가지 방법으로 해결되기 어렵다</span>”고 했다.<br/>이승남 강남베스트클리닉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span class='quot5'>고기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이른바 ‘황제 다이어트’(앳킨스 다이어트)는 부작용이 많고 요요현상이 많다고 판명됐다</span>”며 “<span class='quot5'>매일 돼지고기 삼겹살만 먹고 살을 빼면 당연히 영양불균형에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져 결국 수명을 단축할 수 밖에 없다</span>”고 했다. 이 원장은 “<span class='quot6'>자신이 있다면 저탄수화물ㆍ고지방 다이어트를 평생 실천하길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6'>나도 비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이지만 이 다이어트는 절대 따라 하고 싶지 않다</span>”고 덧붙였다.<br/>따라서 균형된 식사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수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7'>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탄수화물(당질ㆍ55%), 단백질(15~20%), 지방(20~25%) 등 3대 영양소를 알맞게 분배해 균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span>”고 했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8'>탄수화물 등 특정 음식을 제한하거나, 지방 등 일정 영양성분만 계속 먹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span>”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8'>기름진 음식 섭취는 혈중 지질농도를 늘려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이어진다</span>”고 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8'>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면 소아ㆍ청소년의 경우 두뇌 발달에 지장이 생기고, 청장년층에게는 뇌기능 저하, 일의 능률 저하를 가져오고, 노인의 경우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span>”고 했다.<br/>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는 “<span class='quot7'>저탄수화물ㆍ고지방 다이어트를 마치 지방과 탄수화물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지나친 왜곡</span>”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9'>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저탄수화물ㆍ고지방 다이어트가 쉽지 않은데다 고지방식을 한다고 삼겹살 등을 잔뜩 먹어 총 칼로리를 늘리면 오히려 비만해질 수 있다</span>”고 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9'>우리나라 사람은 섭취 영양소 중 탄수화물 비율을 60~70%에서 50%로 줄이고 지방을 더 먹는 균형된 식사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9'>특히 탄수화물을 먹을 때도 가공하지 않은 현미나 통곡밀 등을 먹는 것이 좋다</span>”고 덧붙였다.<br/><br/>“<span class='quot0'>섭취 전체 칼로리 줄여야 비만 예방</span>”<br/>비만 예방을 위해 섭취 전체 칼로리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많이 먹는 대신 운동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콜라와 감자튀김이 들어 있는 햄버거 세트를 먹는다면 700~800㎉에 해당하는데, 이를 운동으로 소모하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달리기를 한 시간 이상해야 소비된다. 이만큼 체중조절에 있어 음식량 조절이 중요하다.<br/> 비만 유형별로 각기 다른 다이어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제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0'>비만 유형에 따라 그 원인이 다를 수 있어 개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0'>살을 빼기 위해 무작정 고지방ㆍ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span>”고 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0'>고지방ㆍ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장지방형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0'>젊은 여성 같은 체외 지방형은 호르몬 등 다른 영향도 고려해야 하고, 근육 감소형 비만이나 노인형 비만은 단백질 보충과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01.txt

제목: 노벨의학상에 일본 오스미 요시노리  
날짜: 2016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04051058903  
본문: “<span class='quot0'>과학은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젊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span>”<br/>오스미 요시노리(大隅良典ㆍ71)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는 3일 금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직후 NHK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기초 과학분야에서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했다.<br/>후쿠오카 현 출신인 오스미 명예교수는 도쿄대 기초과학과를 졸업하고 석ㆍ박사 학위까지 받은 뒤 미국 록펠러대로 유학, 1972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미국 신경생리학자 제럴드 모리스 교수의 연구실에서 면역계를 연구했다. 그는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도쿄대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총합연구대학원대학 명예교수, 기초생물학연구소 명예교수, 도쿄공업대 프론티어기구 특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2013년 톰슨로이터상을 비롯해 일본식물학회학술상, 아사히상 등을 받았다. <br/>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연구분야는 ‘오토파지(autophagy)’라고 불리는 자가포식. 세포가 영양소 결핍에 반응해, 세포 내 불필요한 단백질 또는 손상된 세포 내 소기관을 분해하거나 세포 재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함으로써 세포를 생존시키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일종의 ‘세포 내 청소부’ 역할을 하는 셈. 자가포식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기면 암이나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병), 당뇨병 등 대사질환, 신경질환, 노화 등이 생길 수 있다. <br/>오스미 명예교수는 1980년대 현미경으로 세포 내에서 이 같은 자가포식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효모균을 이용해 자가포식에 필수적인 유전자를 밝혀내는 등 자가포식의 메커니즘을 규명해 올해 7월 국제학술지 ‘디벨롭멘털 셀(Developmental Cell)’에 발표했다. 이 연구가 발전된다면 치매나 대사질환을 치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 측의 설명이다.<br/>국제 학술계는 이번 수상을 통해 과학분야에서 발휘되고 있는 일본의 저력을 또 한번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오무라 사토시(大村智) 일본 기타사토대 특별영예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 대상자로 선정된 터라, 이 분야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기록했다. 전체 노벨상으론 3년 연속인데, 일본은 2000~2002년에도 3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갖고 있다. <br/>일본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는 ▦물리학상 11명 ▦화학상 7명 ▦생리의학상 4명 ▦문학상 2명 ▦평화상 1명 등 총 25명(미국 국적자 2명 포함)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에는 화학상 유력후보에 마에다 히로시(前田浩) 소조대 특임교수와 마쓰무라 야스히로 (松村保廣) 국립암연구센터 신약개발부문장이 올라 있어 같은 해 복수분야 수상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노벨상에 강한 이유에 대해 “<span class='quot1'>1980년대부터 국가적으로 연구개발의 원천이 되는 과학기술 진흥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데다 거품경제 시대 실적 좋던 기업들이 기초연구에 힘을 쏟은 결과</span>”라고 분석했다. <br/>이날 노벨상 수상소식에 일본 열도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NHK방송은 오스미 교수의 수상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그의 요코하마 연구실을 직접 중계했다. 일본의 민영방송들은 도쿄 시내 신바시, 시부야 등 인파가 밀집한 지역을 연결해 “너무나 자랑스럽다” “<span class='quot2'>일본 과학의 힘을 세계에 또다시 자랑하게 돼 기쁘다</span>”는 거리 시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야후재팬에는 이날 저녁 ‘노벨상’이란 키워드 검색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br/>아베 신조 총리는 오스미 교수에게 축하전화를 걸어 “일본인으로서 긍지를 느낀다”며 “<span class='quot3'>선생(오스미 교수)의 연구 성과는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빛을 줬다</span>”고 축하를 전했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br/>도쿄=박석원특파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02.txt

제목: 호스피스 병동 대신 미국 여행 택한 할머니 끝내 숨져  
날짜: 2016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04050805994  
본문: 항암 치료를 받는 대신 평생소원이던 미국 여행을 택해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던 91세의 노마 바우어슈미트 할머니가 투병 중인 암이 악화하면서 1일(현지시간) 여행 도중 별세했다. <br/>노마 할머니의 유족은 이날 1년여간의 여정을 기록해온 페이스북 ‘드라이빙 미스 노마(Driving Miss Norma)’ 페이지에 “인생은 붙잡고 있기와 놓아주기 사이의 균형 잡기이다”라는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루미의 시구를 인용하며 “오늘 우리는 (노마를) 놓는다”라고 사망 소식을 전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르면 노마 할머니는 지난해 8월 암 선고를 받은 후 아들 부부, 애완견 링고와 함께 레저용차량(RV)을 타고 미국 미시간주 북동부 프레스크아일 자택을 떠난 지 만 13개월 만에 워싱턴주 북서해안 산후안 제도를 여행하는 도중 숨졌다. 지난 8월 24일 작은 파티로 여행 1주년을 기념하기도 했던 그는 9월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산후안 호스피스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9월 말 “굿바이라고 말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다는 건 큰 행운이다”라는 영국 작가 앨런 밀른의 ‘곰돌이 푸’의 명대사가 그의 페이스북에 게재되면서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br/>2015년 8월 남편이 별세한 후 이틀 만에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은 노마 할머니는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외와 평생의 소원이던 미국 전국 여행길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병실에서 치료를 받느라 여생을 낭비하기 싫다고 다짐한 그는 이후 미국 30여개 주 80여개 도시를 여행하며 일약 세계 네티즌의 스타로 떠올랐다. 90세를 넘긴 할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열기구를 타고, 굴을 맛보고, 물개와 입을 맞추는 등 소박한 소원을 이루는 장면이 연일 그의 페이스북에 올라오면서 전 세계 네티즌 수십만 명이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유명해진 노마 할머니는 이후 미 국립공원관리청의 초청을 받아 그랜드캐니언, 옐로스톤 등 20여개 명소들을 방문하는 등 잇단 ‘러브콜’로 행복한 여행을 이어갔다. <br/>할머니는 “90년 평생을 살면서 단 한번도 갖지 못한 귀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써 수많은 젊은이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br/>여행 1주년 파티에서 케이크를 자르며 “생이 끝날 때까지 여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웃어 보였던 노마 할머니는 그러나 지난달부터 호흡조절장치를 착용한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네티즌의 우려를 샀다. 결국 노마 할머니가 여행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영면하자 그의 페이스북을 구독했던 44만여 명의 네티즌은 애도의 글로 아쉬움을 달랬다. 호스피스 간호사인 매트 워터스는 “<span class='quot0'>시한부 삶을 맞이한 환자들과 치료보다 인간의 존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는 사회를 기대한다</span>”고 밝히는 등 2일까지 3만5,000여개에 달하는 댓글이 노마 할머니 페이스북에 올라왔다. <br/>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03.txt

제목: 식약처 ‘올무티닙 사망 사고’ 알고도 판매허가 내줬다  
날짜: 201610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03050838066  
본문: 한미약품 보고 다음달 ‘신속 승인’<br/>식약처 “투약 부작용인지 명확치 않았다”<br/>거래소, 주식 내부자 거래 가능성 조사<br/><br/>보건당국이 한미약품의 폐암 표적항암제인 올무티닙의 임상시험 도중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고(본보 1일자 8면)를 미리 알고도 판매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허가 이후 2건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를 추가로 보고 받고도 뒤늦게 사용제한 조치에 나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br/>한미약품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span class='quot0'>올무티닙(제품명 올리타정) 임상시험에 참여한 국내 암환자 3명에게서 독성표피괴사용해(TEN)와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이 부작용으로 나타났고 이를 올해 4, 6, 9월에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했다</span>”고 밝혔다. TEN 발병에 따른 사망, TEN 발병 후 회복, SJS 발병(폐렴으로 사망) 때마다 규정에 맞춰 신속 보고했다는 것이다. 식약처 지침에는 임상시험기관은 이상반응 발생 시 7일 또는 15일 내 알려야 한다. TEN과 SJS는 주로 약물로 인해 피부 및 점막 괴사가 일어나는 질병이다.<br/>문제는 식약처가 4월 사망자 발생 보고를 받고도 그 다음달 올무티닙 시판 허가를 내줬다는 점이다. 그것도 임상 최종단계인 3상 시험을 추후 시행하는 조건으로, 임상 2상 시험 결과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신속 심사제를 통해서였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제를 오히려 검증 절차를 줄여가며 서둘러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br/>이에 대해 식약처는 “<span class='quot1'>사망자가 발생한 임상시험은 직접적인 허가 심사 대상이 아니었고 사망 보고 당시엔 투약에 따른 부작용인지 명확하지도 않았다</span>”고 해명했다. 한미약품이 시판 허가를 받으려 시행한 임상시험은 2012년부터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 임상 2상 시험으로 이 땐 사망 사고가 없었다. 사망자가 나온 것은 한미약품이 지난해부터 다국적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 미국 유럽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임상시험인데, 사망자가 말기암 환자이고 투약 약물도 여러 종류이다 보니 사망 원인을 곧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br/>하지만 한국 임상 2상 시험 결과에서도 대상자의 76%가 발진, 가려움증 등 피부 이상 반응을 보였다. 조병철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2'>약물에 의한 중증 이상반응은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초기 임상결과만 갖고 섣불리 안전성을 판단하면 위험하다</span>”고 말했다.<br/>식약처는 올무티닙의 신규환자 처방을 제한한 데 이어,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 취소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시판 허용 이후 유사 피부질환 보고가 잇따랐음에도 식약처는 9월 초순 세 번째 보고를 접하고서야 약물 부작용을 의심하고, 현지 조사 및 상세자료 제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늑장 대응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br/>한편 이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공매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악재성 정보를 입수하고도 공시를 하루 늦춰 지난달 30일 공매도가 10만4,327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불렀다. <br/>한미약품은 “<span class='quot0'>적법한 공시 절차를 따르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을 뿐 의도성은 없었다</span>”고 해명했다.<br/><br/>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br/>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04.txt

제목: "건강 되찾아 퇴원"한 지수  
날짜: 201610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03050810382  
본문: 지난달 급성골수염 발병 소식으로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신예 배우 지수가 퇴원 소식을 알려 대중의 귀와 눈을 잡았다. 막 화려한 시기를 맞으려 했던 젊은 배우가 병마에 발목 잡힌 뒤 얼마 되지 않아 환한 모습을 전해 온라인에 훈기를 더한 하루였다.<br/>지수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자신 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리고 건강을 되찾은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 그는 “오랜만이에요! 그간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드렸네요”라고 인사를 한 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오늘 드디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span class='quot0'>환절기인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span>”한다며 “<span class='quot0'>더욱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span>”다는 인사말도 잊지 않았다. 사진 속 지수는 병색이 완전히 지워진 얼굴로 환히 웃으며 반려견을 안고 있다. 지수는 곧 JTBC 금토드라마 ‘판타스틱’에 합류할 예정이다.<br/>지수는 지난달 ‘판타스틱’ 출연 중에 다리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급성골수염 판정을 받았다. 지수의 소속사 프레인 TPC의 여준영 대표는 “<span class='quot1'>몇 주 전부터 지수가 다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다니며 치료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어쩌면 암일지도 모른다는 소견을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1'>불행 중 다행으로 암이 아니라 급성 골수염으로 확진했다</span>”고 인스타그램에 소식을 전해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휠체어 앉아 있는 지수의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올려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수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주치의 조언 하에 촬영하면서 치료를 계속 병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지수는 사전제작 드라마인 SBS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에 고려 왕자로 출연해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br/>팬들은 SNS와 기사 댓글란에 안도와 기대 섞인 글들을 게재하며 지수의 퇴원을 축하했다. 지수의 인스타그램 계정 글에는 5,000여개의 댓글이 주렁주렁 달렸다. “‘판타스틱’ 지수 나올 때가 제일 재미있음. 컨디션 좋아지면 분량 많이 줬으면 좋겠다”(ange\*\*\*\*), “앞으로도 계속 건강관리 잘해주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sown\*\*\*\*) 등의 글이 지수의 건강한 활동을 바랐다.<br/>라제기 기자 wenders@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05.txt

제목: [우리말 톺아보기] 숫게? 수케? 수게!  
날짜: 201610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03050540456  
본문: 봄에는 암게의 살이 차고 가을에는 수게의 살이 차서 봄은 암게가 제철이고 가을은 수게가 제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 수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수게’를 적을 때 ‘숫게’ 혹은 ‘수케’ 라고 적거나, 발음할 때에도 [수께] 혹은 [수케]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다. <br/>그렇다면 ‘수게’의 정확한 표기와 발음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게’의 정확한 표기는 ‘수게’이고 발음 역시 표기대로 [수게]로 발음해야 한다. <br/>‘수게’를 ‘수케’ 혹은 ‘숫게’로 잘못 적는 이유는 개의 수컷을 ‘수캐’로 적고 염소의 수컷을 ‘숫염소’라고 적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에서 ㅎ이 덧붙는 ‘ㅎ 곡용어’의 잔재로 ‘살’에 ‘ㅎ’이 덧붙어 ‘살코기’가 된 것처럼 ‘수(암)’ 역시 ‘ㅎ’이 덧붙어 ‘수(암)캐’가 되었다. 이처럼 접두사 ‘수(암)’에 ‘ㅎ’이 덧붙는 표기가 허용된 단어는 ‘수(암)캉아지’ ‘수(암)캐’ ‘수(암)컷’ ‘수(암)키와’ ‘수(암)탉’ ‘수(암)탕나귀’ ‘수(암)톨쩌귀’ ‘수(암)퇘지’ ‘수(암)평아리’ 등 18개 단어다. 나머지는 모두 ‘수(암)게’ ‘수(암)개미’ ‘수(암)거미’처럼 ‘ㅎ’이 첨가되지 않은 형태로 써야 한다. <br/>또한 염소의 수컷을 ‘수염소’가 아닌 ‘숫염소’로 적는 이유는 언중들이 이를 [순념소]로 발음해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숫’을 접두사로 사용하는 단어는 ‘숫양’ ‘숫염소’ ‘숫쥐’ 등 3개 단어뿐이다. 나머지는 접두사 ‘수’를 써서 ‘수소’ ‘수게’ ‘수놈’ ‘수나비’처럼 적어야 하고 발음도 표기대로 발음해야 한다. <br/>유지철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06.txt

제목: 질병유발 단백질 실험실서 만든다  
날짜: 2016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1001050959439  
본문: KAIST 교수팀 기술 첫 개발<br/>암ㆍ치매 등 신약개발에 유용<br/><br/><br/>암이나 알츠하이머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변형 단백질’을 인공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다.<br/>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박희성ㆍ이희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교수팀이 질병을 유발하는 다양한 단백질을 실험실에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환자에게서 뽑아내야 하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하면 이 같은 과정 없이도 신약 후보 물질의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r/>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는 유전자의 설계대로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이 단백질은 ‘인산’이나 ‘당’ 등 다양한 물질이 붙어 변형된다. 이때 제대로 변형된 단백질만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잘못 변형된 단백질은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br/>2011년 단백질에 인산을 붙이는 방법을 개발한 바 있는 연구진은 이번에는 단백질에 인산이 붙은 아미노산과 필요한 화학물질을 섞어주는 방법을 썼다. <br/>연구진이 만든 변형 단백질은 특히 신약을 개발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약은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단백질의 기능을 막는 물질을 찾는 식으로 만든다. 지금까지는 원하는 단백질을 얻기 어려워 신약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당장 상용화가 가능할 만큼 합성 효율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2,3년 안에 제약사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29일 자에 실렸다.<br/>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07.txt

제목: 한미약품 또 1조원대 수출 계약  
날짜: 201609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30051211868  
본문: 한미약품이 또 다시 1조원대 수출 계약을 맺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총 8조원에 가까운 수출 성과를 올렸다. <br/>한미약품은 29일 자체 개발한 새 표적항암제 ‘HM95573’의 개발과 상업화를 위해 다국적제약기업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과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9억1,000만달러(약 1조원)다. <br/>한미약품은 제넨텍으로부터 계약금 8,000만달러(879억원)를 받고 향후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로 8억3,000만달러(9,120억원)를 차례로 받게 된다. 상용화 이후엔 판매에 따른 두 자리수 로열티도 받을 예정이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항암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제넨텍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span>”며 “<span class='quot0'>HM95573이 암으로 고통 받는 전 세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HM95573은 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항암 신약으로, 현재 임상시험 1상이 진행 중이다. 1상 이전 전임상단계에선 보건복지부로부터 6억원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br/>이번 계약으로 제넨텍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HM95573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제넨텍은 항암제 리툭산과 허셉틴 등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앞세워 연 매출 173억달러(약 20조원)를 기록하고 있는 유명 생명공학 기업이다. <br/>한미약품은 2005년 이후 매출액의 8~2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신약 개발에 매진해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자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했던 게 잇따른 수출 성과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span>”고 밝혔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08.txt

제목: 인천형 공공보육시설 2020년까지 300곳 늘린다  
날짜: 201609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30051043190  
본문: 인천시가 영아반 보육교사 1인당 원아 숫자를 줄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천형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을 2020년까지 300여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출산 가정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미역 등이 담긴 출산 축하 바구니를 준다.<br/>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형 복지정책을 공개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밝혔다.<br/>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인천형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을 올해 316곳에서 2020년 635곳까지 늘려 공보육 분담률을 38.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인천의 공보육 분담률은 전국 평균(30.1%)에 크게 못 미치는 23.2%에 불과하다. 또 출산 가정에 출산 축하 바구니를 제공하고 임신에서 출산까지 건강관리도 지원한다.<br/>질병, 사고 등으로 위기를 겪는 가정에 대한 긴급생계비, 의료비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약 123만원)에서 85% 이하(약 140만원)로 완화된다. 일반 재산 기준도 1억3,500만원 이하에서 1억7,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br/>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척추질환, 인공관절, 백내장 등에 대한 진료, 수술을 지원한다. 암환자의 경우 검사비, 치료비 호스피스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br/>취ㆍ창업에 성공한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에게는 150만원의 성과급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해 2018년까지 경력 단절 여성 4만명의 경제활동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br/>지속적인 북한의 도발로 불안,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는 연평도, 백령도 주민들을 위해 정신 전문인력을 배치해 정신질환자를 관리한다. 백령도에선 고혈압, 당뇨합병증 예방사업도 시범적으로 벌인다.<br/>유 시장은 “<span class='quot0'>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폭넓은 긴급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br/>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09.txt

제목: 정우성 "한도경에게서 40대 중년남자의 피로감 느껴"  
날짜: 201609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30050928893  
본문: 악덕시장 뒤치다꺼리 하는 형사<br/>‘비트’ 주인공 민 떠올리게 해<br/>“영화 속 세계가 지독하고 처절<br/>액션연기 힘들다는 생각 못해”<br/><br/>배우 정우성(43)이 독해졌다. 그의 잘생긴 얼굴이 악에 받쳐 이글거린다. 연민과 정의는 영화 ‘아수라’ 의 세계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그곳은 “악이 난무하는” 폭력의 도시다. ‘아수라’가 개봉한 28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우성은 “<span class='quot0'>영화가 그려낸 세계 자체가 지독하고 처절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액션연기로 표현하는 일이 힘들다는 생각조차 못했다</span>”고 말했다.<br/>정우성이 연기한 한도경은 말기 암 환자인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악덕시장 박성배(황정민)의 온갖 부정한 일을 뒤치다꺼리하며 돈을 받는 비리 형사다. 한도경의 약점을 포착한 다혈질 검사 김차인(곽도원)이 박성배의 살인교사 증거를 가져오라며 한도경을 압박해오고, 한도경은 후배 형사 문선모(주지훈)을 박성배의 수하로 들여보낸다.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며 만들어진 악의 생태계 안에서 생존의 수단은 오직 폭력뿐이다. 정우성은 “<span class='quot0'>영화는 현실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극대화해 묘사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주변환경에 의해 악행을 저지르는 한도경의 얼굴에 삶에 찌든 40대 중년 남자의 피로감을 담아내려 했다</span>”고 말했다. <br/>비현실적인 세계로 들어온 정우성의 비현실적인 존재감이 도리어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건 어떤 ‘연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정우성과 함께 한 시대를 보낸 관객들은 ‘아수라’의 한도경을 보며 영화 ‘비트’(1997)의 주인공 민을 떠올린다. 희망 없는 젊음에 좌절했던 민이 40대가 됐다면 한도경 같은 모습이었을 거라는 얘기가 들려온다. “관객들이 영화 밖에서까지 정우성이란 사람의 세월을 목격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비트’를 염두에 두고 연기하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 민을 품고 있기는 하죠. 저는 아직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웃음). 잘 나이 들게 하고 싶어요.”<br/>정우성은 ‘비트’로 영원불멸한 청춘의 아이콘이 됐다. “<span class='quot1'>‘비트’가 배우 인생을 비틀어놨다</span>”고 ‘아재개그’를 던진 그는 “<span class='quot1'>다음 터닝포인트는 ‘아수라’가 될 것</span>”이라고 자신했다. ‘비트’로 그의 삶을 바꾼 김성수 감독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다. ‘태양은 없다’(1999)와 ‘무사’(2001)까지 더해 네 번째 의기투합이다. “감독님과의 작업은 늘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그랬기에 한 시대의 시그니처가 만들어진 것이겠죠. 감독님을 통해 배우가 아닌 영화인의 시각으로 영화를 대하는 법을 배웠어요. 선배로서 존중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겁니다.”<br/>신뢰로 뭉친 ‘아수라’ 팀은 끈끈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지난해 촬영으로 부산에 머물던 중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함께 나타나 화제를 모았다. 정우성과 황정민, 곽도원, 주지훈, 정만식은 매니저도 없이 스태프의 승합차를 직접 몰고 찾아왔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정말 컸어요. 아주 뜨거웠죠. 경쟁심은 없었지만 캐릭터적으로 건전한 경쟁이 됐습니다.”<br/>정만식은 정우성과의 액션 장면을 떠올리며 “<span class='quot2'>고려청자 대하듯이 소중하게 다뤘다</span>”고 말한 적이 있다. 정우성은 여전히 동세대에게 동경의 대상이자 ‘연예인의 연예인’이다. 하지만 그는 명성보다 명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변 시선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요. 배우로서의 자세와 가치관을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외모가 연기 변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나다움’을 찾아서 일상적 감성과 연결고리를 찾는 게 맞는 거라 봐요.”<br/>‘사고방식까지 잘생겼다’는 생각이 스치던 즈음 정우성이 진지해진 분위기를 깨뜨리며 장난스럽게 한 마디 던졌다. “제가 잘 생긴 거, 저도 알아요. 나쁜 점이요? 하나도 없어요(웃음).”<br/><br/>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10.txt

제목: 30대 위암, 4050 간암 사망률 최고  
날짜: 201609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8050937746  
본문: 60대 이상에선 폐암이 가장 높아<br/>자살률 감소세 불구 OECD 1위<br/><br/><br/>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이 가장 높은 암은 30대에서는 위암, 40ㆍ50대는 간암,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폐암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폐암 대장암 췌장암 사망률은 증가했고, 위암 사망률은 감소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br/>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사람은 27만5,895명으로 2014년에 비해 8,203명(3.1%) 늘었다. 사망원인 별로는 암(인구 10만명 당 150.8명)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고, 심장질환(55.6명) 뇌혈관질환(48.0명) 폐렴(28.9명) 자살(26.5명) 등이 뒤를 이었다. <br/>암 중에서는 폐암(34.1명) 간암(22.2명) 위암(16.7명) 대장암(16.4명) 췌장암(10.7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2005년과 비교해 보면, 10년만에 대장암(12.4명→16.4명) 췌장암(6.9명→10.7명) 전립선암(1.8명→3.3명) 사망률이 증가한 반면, 위암(22.5명→16.7명) 자궁암(2.8명→2.7명) 사망률은 감소했다.<br/>연령별 암 사망률을 보면 20대는 백혈병(0.9명), 30대에서는 위암(2.7명)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40대와 50대에서는 간암이 각각 9.4명과 31.0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60대 이상에서는 폐암(60대 79.8명, 70대 222.0명, 80대 이상 335.7명)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br/>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26.5명으로, 2011년 3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은 사망률로, 2위 일본(18.7명)과는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다. 거의 전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줄었지만, 유독 70대와 80대 이상 고령층 자살률은 2014년에 비해 높아졌다. 자살은 10~39세의 사망 원인 중 각종 질병이나 사고보다 앞선 1위였고, 40ㆍ50대에서는 암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br/>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11.txt

제목: [헬스 프리즘] 궤양성 대장염이라면 5년 마다 내시경 검사해야  
날짜: 2016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7051217629  
본문: 문수영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소화기내과 과장<br/>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점막이나 점막 아래에 국한된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발병하는데 병원을 찾기 전 수 개월 동안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혈변과 설사, 점액변, 대변절박증, 하복부 통증과 불쾌감이 동반된다. 빈혈, 체중감소, 만성 피로감 등이 올 수 있다. 한 달 이상 혈변, 설사, 복통이 있다면 궤양성 대장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br/>궤양성 대장염은 초기에는 장염과 증상이 비슷해 방치하기 쉽다. 유전,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 주로 나타났지만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 발병률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부터 궤양성 대장염 증례가 보고 되기 시작한 이후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30명 정도로 추정된다. 20~40대가 많이 걸리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3년 3만1,000여 환자가 궤양성 대장염으로 치료를 받았다.<br/>궤양성 대장염은 아직 특별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서구화된 식습관, 스트레스, 음주 등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진단은 병력과 임상 증상, 대장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바탕으로 하기에 전문가 진료가 필수다. <br/>질병 초기에는 감염성 대장염과 구분이 어려워 간격을 두고 대장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병행 시행한다. 치료법은 항염증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면역억제제, 항생제 등 약물치료가 있다. 궤양으로 인한 대장 천공과 출혈이 심하면 대장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br/>궤양성 대장염은 치료해도 재발률이 높고 질병이 악화되는 게 문제다. 약물치료 후 혈변과 설사가 일시적으로 호전되면 환자가 임의로 많이 약을 끊는다. 그러면 재발 가능성이 높고 약을 끊으면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 중 0.5%정도에서 대장암으로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단 후 8~10년 후 대장암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가 주의해야 한다. 대장암은 다른 암처럼 초기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힘들다.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을 앓았다면 5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br/>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음주나 과식, 야식은 금물이며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도 건강한 장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와 상담하고, 호전돼도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궤양성 대장염은 재발률이 높고 질병 경과가 다양하다.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식생활 습관개선 등 적극적인 대장 관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충분조건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12.txt

제목: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비뇨기암 치료, 로봇수술이 이끈다  
날짜: 2016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7051215610  
본문: /그림 4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종양센터팀이 콩팥암 환자에게 로봇을 이용한 콩팥암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제공<br/><br/>50대 직장인 A씨는 몇 달 전부터 소변을 잘 참지 못하고, 소변본 후에도 잔뇨감이 들었다.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노화 증상의 하나겠거니 하며 넘어가려 했다. 하지만, 최근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 병원을 찾았다. 검사결과,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변석수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교수(로봇수술센터장)는 “<span class='quot0'>비뇨기 질환은 암 증상이 나타난 후 치료하면 완치하기 어려운데 최근 로봇수술로 국내 의료진들의 술기가 발전해 수술적 치료를 통한 완치 기회도 많아졌다</span>”고 했다. 변 교수에게 국내 로봇수술에 대해 들어보았다. 변 교수는 로봇 콩팥 부분절제술 수술건수가 세계 10위 안에 들고 아시아 최초로 콩팥암 부분절제술을 하는 전체 영상이 다빈치 커뮤니티에 소개될 정도로 로봇수술의 달인이다.<br/><br/>Q 로봇수술이 크게 늘고 있는데…<br/>“2005년 다빈치 로봇이 국내 처음 도입된 이래 60대(2016년 9월 기준)가 쓰이고 있다. 다빈치 로봇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국내 의료진은 다양한 수술 술기(術技)를 개발ㆍ적용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국내 의료진이 개발한 각종 암 등의 로봇수술법이 국제 표준으로 정립돼 다빈치 수술로봇 제조사인 인튜이티브서지컬의 교육용 영상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수술법이 많이 개발됐고, 의료진이 해외 학회에 많이 초청돼 다른 나라 의료진에게 수술법을 지도하고 있다. 지난 2일 독일 베를린 ‘IFA(국제가전박람회)2016’에서는 TV나 세탁기, 냉장고 등이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스마트홈 제어용 로봇이 눈길을 끌었다. 실제 사람의 생활패턴과 행태를 분석해 편의를 주는 생활로봇처럼 의료에서도 이 같은 수술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안에서 원격 집도하는 수준을 넘어 먼 거리 환자도 원격 수술하는 로봇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br/><br/>Q 로봇수술 장점은.<br/>“로봇수술이라고 로봇이 알아서 모두 해주지는 않는다. 로봇 유닛의 팔이 수술기구를 잡고, 의사는 로봇을 조작해 로봇 팔을 움직이는 방식이다. 수술 의사는 입체화면과 확대 영상을 제공받아 훨씬 잘 보이는 상태에서 수술한다. 로봇수술에 쓰이는 카메라시스템은 10~12배 확대된 3차원 화면을 통해 신체 내 해부학 구조를 잘 보여준다. 특히 가장 많이 시행하는 로봇수술은 전립선암 수술이다. 전립선은 골반 안에 매우 좁고 깊은 곳에 있고, 특히 한국인은 골반이 서양인보다 좁아 전립선 적출술이 어렵다. 로봇수술은 이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가느다란 로봇팔이 전립선에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 게다가 로봇팔은 떨림 현상이 없어 정교한 수술에 많은 도움이 된다.”<br/><br/>Q 로봇 콩팥암 부분절제술로 생존율을 높인다는데.<br/>“암 병변을 포함한 콩팥 일부만 없애는 수술이 콩팥 부분절제술이다. 이 수술은 출혈을 줄이기 위해 콩팥으로 가는 동맥을 막고 종양을 잘라낸 뒤 신속히 봉합해 남은 콩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로봇을 통해 정상조직과 종양을 정확히 구분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수술해 손상ㆍ재출혈 같은 합병증을 줄이고 남은 콩팥의 기능을 최대화한다. 연구결과, 65세 미만 환자에게 콩팥암 부분절제술을 시행하면 5년 전체 생존율이 99.7%이지만 종양ㆍ콩팥을 완전히 잘라내는 콩팥암 근치적절제술 환자는 96.3%다. 부분절제술 생존율이 더 높다는 뜻이다. 로봇으로 환부 절개를 줄이고 종양만 정확히 잘라내는 보존술 효과가 입증됐고 환자 삶의 질과 생존율도 높였다. 다만 술기가 어려워 일부 의사만 집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콩팥을 모두 떼내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안타깝다.”<br/><br/>Q 로봇수술비가 만만치 않은데.<br/> “로봇수술은 수술장비와 수술기법 발전으로 정교한 수술이 이뤄져 개복수술보다 흉터와 출혈이 적고 회복도 빠르다. 하지만 건강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기존 수술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게 단점이다. 따라서 두 수술을 비교해 효과와 안전성이 뛰어난 수술법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로봇수술 경험과 실력이 쌓인 의료진인지 고려해야 한다. 미국ㆍ일본 등에서는 로봇수술 안전ㆍ유효성, 환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돼 전립선암ㆍ콩팥암 수술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도 환자 편의와 사회경제비용을 고려해 보험급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br/><br/>Q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나.<br/> “2007년 10월 국립대병원 중 처음으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가장 빠른 7개월 만에 100례를 달성했다. 국내 첫 로봇수술로 고난이도인 대동맥수술을 성공하며 로봇수술 적용범위를 넓혔다. 현재 일반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로봇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전립선암ㆍ콩팥암 등 비뇨기암에서는 로봇수술이 보편화되도록 다양한 수술기법을 개발ㆍ보급하고 있다. 2014년 9월, 세계 최초로 로봇수술로 전립선암과 콩팥암을 동시 제거했다. 2011년에는 작은 콩팥 종양에 대한 로봇 콩팥 부분절제술과 개복수술을 비교한 결과, 로봇 콩팥 부분절제술 효용성을 입증했다. 콩팥암 부분절제술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해 비뇨기과 단독 로봇수술 3,000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술결과도 좋아 다빈치 로봇제작사와 해외 비뇨기과 의사들의 수술참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최근 콩팥 겉 표면으로 돌출이 전혀 없이 안쪽에만 종양이 생긴 내장형 콩팥 종양을 3D 모델로 제작해 로봇수술에 적용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으로 콩팥과 내장형 종양을 구현한 3D 모형도 만들었다. 이는 수술 전 내장형 종양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부분절제술로 콩팥을 살리는 수술에 성공해 지난 6월 내비뇨기과학회에서 비뇨기과 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13.txt

제목: “번데기에 빠진” 미국 재즈 보컬 ‘큰 별’  
날짜: 2016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7051127768  
본문: 키 190cm가 넘는 청년은 장래가 촉망되는 미식축구 선수였다. 미식축구 명문인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에 운동 선수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정도였다. 공격수인 쿼터백을 맡았던 그는 훈련 도중 오른쪽 어깨 부상을 크게 당했다. 1년 이나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미식축구공을 잡을 수는 없었다. 꿈이 꺾이자 우울증이 찾아왔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암 투병 중인 어머니는 “네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노래를 불러라”고 조언했다. 2004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사내는 2014년 미국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재즈보컬 앨범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서른 아홉의 늦은 나이에 재즈 가수로 데뷔해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쓴 그레고리 포터(45)가 들려준 얘기다. <br/>지난 23일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포터를 만났다. 그는 이달 한국에서 특별히 3곡이 더 실린 ‘테이크 미 투 더 앨리’의 디럭스 앨범을 내고, 첫 단독 공연을 열게 돼 22일 입국했다. 2015년 서울 재즈 페스티벌 무대 오른 뒤 두 번째 방한이다. 두 번 밖에 서울에 오지 않았지만, 미국 재즈 가수의 입맛은 이미 ‘한국 사람’이 다 된 듯 했다. “고소하고 담백하던데요?” 포터는 번데기 맛에 푹 빠져 있었다. “<span class='quot0'>가족들에게 전화를 해 맛을 자랑</span>”하기도 했단다. 입국한 날 ‘치맥’(치킨과 맥주)도 즐겼다는 그는 “흥분이 될 정도로 놀랄 맛”이었다며 ‘치킨 무’ 예찬론도 펼쳤다. 섬세하고 우아한 이미지가 강한 재즈를 부르는 가수는 소박했고, 웃음이 많았다. <br/>음악도 그의 푸근함을 닮았다. 포터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지만, 따뜻하다. 그의 새 앨범 수록 곡의 주제는 이웃과 가족이다. 올해 세 살 된 아들을 둔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 목표를 잃지 마라’(‘Don’t lose your stream’)며 내리사랑이 듬뿍 담긴 노래도 만들었다. 편안한 목소리에 친근한 노랫말이 담겨 재즈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그가 만든 음악의 장점이다. 포터는 ‘테이크 미 투 더 앨리’에서 “내 정원에서 쉬라”고 치유의 노래를 부르는 데, “<span class='quot1'>유럽 난민 문제를 떠올리며 썼다</span>”고 했다. 중세 수도사가 부를 법한 가스펠 성향이 짙은 노래도 많지만, 역경을 딛고 일어 선 만큼 그의 시선은 진보적이다. 포터는 2010년 낸 데뷔 앨범 ‘워터’에 1968년 일어난 미국 시민권 요구 운동을 다룬 ‘1960 왓?’(1960 What?’)이란 곡을 실었다. 그는 “<span class='quot1'>미국 사회를 바라볼 때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본다</span>”며 곡을 쓰게 된 계기를 들려줬다. <br/>“인종 갈등 문제는 여전하죠.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위를 지지해요. 부당한 일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게 바로 애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br/>포터는 ‘재즈 명가’인 레이블 블루노트에서 가수 생활을 시작했다. 음악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그이기에 25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린 공연엔 관객 1,200여 명이 몰렸다. 포터는 공연에서 “<span class='quot1'>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은 살아남는다</span>”며 신곡 ‘노 러브 다잉’등 15곡을 불러 따뜻함을 전한 뒤 26일 출국했다. “한국 관객은 정말 열정적”이라는 포터는 공연마다 얼굴에 쓰고 나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빵모자’에 대한 얘기도 떠나기 전 웃으며 들려줬다. <br/>“요리 할 때부터 쓴 겁니다. 이젠 하도 오래 써 여름에 덥지도 않고, 정말 편안해요. 그냥 제 스타일 중 하나로 봐 주세요, 하하하.”<br/><br/>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14.txt

제목: [이원의 시 한 송이] 침묵지대  
날짜: 2016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6050826663  
본문: 조용미 <br/><br/><br/>카르투지오 수도원 입구에 있는 표지판<br/>- 침묵지대(Zone de Silence)<br/>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봉쇄수도원<br/><br/>여행객들은 왜 침묵을 엿보려 하는가<br/>수도사들의 침묵과 고독을 엿보려 하는가<br/>카르투지온들의 하얀 언어를 훔치고 싶어 하는가<br/><br/>침묵을 위대하다고 말하면 수다가 되어 버린다<br/>침묵을 고요하다 말해 버리면<br/>즉시 언어의 이중구조 안에 갇혀 버린다<br/><br/>침묵지대는 툰드라지대처럼 추운가<br/>낮게 가라앉은 빛들이 들끓는가<br/>침묵은 규정될 수 있는가<br/><br/>침묵 예찬, 침묵의 소리, 위대한 침묵, 침묵의 세계<br/>모두 다 침묵에 대해 말하고 있다<br/>침묵에 그렇게 많은 말들이 필요한가<br/><br/>침묵은 들을 수 있는가 침묵은<br/>느낄 수 있는가 침묵이, 침묵을……괴롭히지 말자<br/>침묵을 그냥 침묵이게 놔두자<br/><br/>침묵지대라는 표지판을 걸어 두면 침묵이<br/>샘물처럼 생겨나게 될까 침묵이 오래 머무를 수 있을까<br/>침묵 아닌 것들을 막아 낼 수 있을까<br/><br/>침묵이 숙연해질까<br/>수다스러운 침묵이 꽝꽝 고요해질까<br/>하여간 침묵지대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br/><br/><br/><br/>침묵지대. 침묵 보호지구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꼭 듭니다. 봉쇄 수도원. 수도사. 침묵지대와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고독. 하얀 언어. 보태도 침묵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침묵은 단단하지도 물렁하지도 않습니다. 침묵은 침묵으로 존재합니다. 고여 있으며 흐릅니다. <br/>고요가 공간에 관계한다면 침묵은 입에 관계합니다. 말 없음이 아니라 삼킨 말입니다. 입은 무엇일까요. 이런 자문 뒤에, 삼킨 말은 어디에 위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삼킨 말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지대. 삼킨 말들이 존재하는 곳. 참구나 묵상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br/>삼키는 말이, 침묵지대가 더 필요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 삼킨 말이 위치하는 곳을 가만히 살피는 일. 투명에 가까워질 때까지, 낮게 가라앉은 빛들이 들끓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일. <br/>침묵지대라는 표지판을 걸어두면 침묵이 샘물처럼 생겨납니다.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마련해두는 것이 샘물입니다. 침묵 아닌 것들을 침묵이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삼킨 말을 샘물이 될 때까지 담고 기억하는 것에서 오는 힘입니다.<br/>이원 시인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15.txt

제목: 환절기, 동물들 건강을 사수하라!  
날짜: 201609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4050856267  
본문: 환절기, 동물들의 건강을 사수하라!<br/>TV동물농장 (SBS 오전 9.30)<br/>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 갑자기 떨어진 기온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동물원은 비상이다. 환절기가 되면 동물들의 입맛이 뚝 떨어지면서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동물원 동물들은 건조한 가을을 맞아 대대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 극심한 치통으로 식음을 전폐하는 사자, 식사를 거부하는 개미핥기, 길게 자란 손톱 때문에 나무를 타지 못하는 나무늘보, 영양제 섞인 밥을 거부하는 코끼리까지 갖가지 고충들로 건강을 위협받는 동물들이 검사 받는 진풍경이 방송된다. <br/><br/><br/>100세 시어머니와 81세 며느리의 여행<br/>다큐공감 (KBS1 밤 8.05)<br/>2016년 여름, 생애 첫 고부여행에 나서는 용감한 시골 할머니들이 있다. 100세 시어머니 이기순 할머니와 81세 며느리 이종섭 할머니가 그 주인공이다. 목적지는 바다 건너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제주도. 인생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시어머니는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하고, ‘껌딱지’를 자청한 팔순의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암을 3번이나 이겨낸 81세 며느리와 생애 첫 제주여행에 도전하는 100세 시어머니. 한 지붕 아래 60년을 함께 살아온 고부의 사랑을 통해 백세 인간 시대 ‘행복’과 ‘효’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본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16.txt

제목: 지금 이곳에선/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날짜: 201609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3051437309  
본문: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br/>29일부터 33일간 장흥 우드랜드 일원에서<br/>서양ㆍ전통ㆍ대체 의학 총망라 한자리에 <br/>해외 46개 등 국내외 300여개 기관 참여 <br/>입장권 판매도 47만매 넘어 <br/><br/><br/>전남 장흥군 안양면 일대에서 열리는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막이 1주일 앞둔 21일 오전. 막바지 손님맞이에 바쁘면서 통합의학박람회 행사장 주변인 비동~주교마을(1.3㎞) 구간 도로변에 코스모스와 메밀꽃 길은 단정하게 조성됐고, 장흥군민회관 대회의실과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도 직무(현장)교육을 받은 522명의 자원봉사자들로 들썩였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지난 6월 21일 발대식에 이어 그 동안 3차례 친절과 이미지, 현장 교육을 거쳤고, 오는 26일 최종리허설을 마친 후 개막준비상황을 총괄 점검할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부족, 스트레스, 과음 등에 노출되며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은 장흥박람회에 꼭 와볼 것을 추천한다</span>”고 말했다. <br/>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통합의학,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란 주제로 29일부터 30월31일까지 33일간 펼쳐진다. 박람회는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 46개 국가의 의료진과 전문가, 국내외 300여개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이 참가해 통합의학적 진료와 치료, 체험 등을 선보인다. <br/>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장흥군과 박람회 조직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 기업, 의료기관 등 700개 단체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박람회 입장권 사전판매량도 47만매에 달했다. 지난 6년 동안 해마다 40여만명이 다녀간 박람회는 올 첫 국제행사로 준비되면서 당초 외국인 5만명과 내국인 85만명, 총 90만명을 목표했지만 이보다 많은 100만명 유치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br/>여기에다 장흥군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져올 생산 유발효과 2,500억원, 부가가치 1,000억원, 고용 유발효과 3,900명 등의 지역경제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r/>통합의학은 현대의학적 치료를 주류로 실행하면서 전통의학과 명상, 요가, 마사지, 음악치료 등 보완의학을 통합한 의학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현대의학에 한방 및 보완대체요법을 통합적으로 접목하여 환자에게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포괄적 의료로 정의하고 있다. <br/>최근 암 등 난치성 질환과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예방적 건강관리가 중요해졌고, ‘환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포괄적 의료서비스인 통합의학이 급부상하고 있다. 약물이나 수술 등 증상의 치료보다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br/>통합의학은 이러한 현대의학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서양의학, 전통의학, 그리고 검증된 대체의학을 모두 동원해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미 유럽과 북미 등 세계 각국에서는 통합의학을 제도권 의료체계에 포함시키고 이와 관련한 연구와 진료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br/>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방문하면 통합의학의 새로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다. 진료를 통해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 수 있는 일석이조를 얻어간다.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의학적 진료를 통해, 실제 질병의 유무와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까지 판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br/>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은 ▦주제존 ▦체험존 ▦교류존 ▦건강존 등 4개존과 10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br/>힐링영상을 연출한 주제영상관과 전시관으로 구성된 주제존은 통합의학의 핵심 철학과 발전 현황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특히 주제전시관은 통합의학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통합의학의 현주소와 사람, 미래, 지혜, 건강 등 4가지 통합의학의 가치에 대해 소개한다.<br/>체험존은 스트레스통증관, 뷰티미용관, 만성성인병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되는 10대 질환의 발생원인과 치료법을 소개하고 서양의학, 한의학, 보완대체의학(CAM) 의료진이 참여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진료체험을 제공한다. 또 비만, 탈모, 아토피, 알레르기 등의 발생원인과 치료법을 중점으로 다루며 우울증, 중독, 갱년기, 관절통, 요통, 디스크 등 각종 스트레스 통증관련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법 등을 소개한다.<br/>통합의학 국제관, 산업관으로 구성된 교류존은 해외 병·의원, 전통의학 관련 기관단체와 건강 식품관련기업 등의 사례 전시 및 홍보, 교류 공간활용과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br/>건강존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자연 치유와 휴식, 문화 공간으로 건강증진관, 건강음식관이 운영된다. <br/><br/><br/>박람회 기간 동안 통합의학 관련 다양한 국제학술행사도 개최된다. 박람회장 주제관 켄벤션 홀에서는 28일부터 30일까지 2016장흥국제통합의학학술대회가‘통합의학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열린다. 영국 미국 독일 등 13개국 33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각국의 통합의학 현황 및 미래전략, 임상실험 결과, 교육·정책 등에 논의한다.<br/>또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는‘제2회 아시아 태평양 오스테오파시 의학 및 도수 치료 국제 컨퍼런스’가 주제관에서 개최된다. ‘만성질환에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오스테오파시 의학적 접근 및 통합의학적 모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해외 각국의 저명한 의사 및 교수들이 강연에 나서 근거 중심의 오스테오파시 의학의 소개 및 도수 치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br/>특히 2일에는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뉴질랜드, 호주, 일본, UAE, 바레인 등 6개국의 오스테오파시 단체장들이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제1차 아시아-태평양 오스테오파시연합 회의’도 열린다.<br/><br/><br/>김성 장흥군수는“<span class='quot1'>이제는 공급자 편의에 치우친 기계적인 의료서비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이것이 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이며 현대의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이다</span>”고 말했다. <br/>장흥=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17.txt

제목: 저커버그 “아이들만은 질병 없는 세상에서” 3조원대 기부  
날짜: 2016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3051107714  
본문: “현대 의약품이 등장한 지 한 세기 만에 우리는 놀랄 만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과학자들을 돕는다면 21세기가 끝날 때쯤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br/>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캠퍼스에 등장해 희망찬 표정으로 이와 같은 포부를 밝혔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색 티셔츠 차림으로 나선 저커버그는 이 자리에서 의학 연구 지원을 위해 30억달러(약 3조3,100억원)에 달하는 ‘통 큰 기부’를 약속했다. 아내 프리실라 챈과 무대에 선 저커버그는 2100년까지 지구상 모든 질병을 정복하는 초석을 이루겠다는 명확한 목표도 함께 내놨다. <br/>저커버그는 이날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재단을 통한 향후 10년간의 구체적인 의학 연구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심장질환, 암, 전염병 등 주요 질병의 종식을 위한 프로젝트는 부부가 지난해 12월 딸 맥스의 탄생을 계기로 자선 목적의 재단을 설립한 후 시행하는 사실상 첫 대규모 사업이다. 당시 저커버그 부부는 총 450억달러(약 50조5,000억원)에 이르는 페이스북 지분 99%를 생전에 재단을 통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br/>이날 저커버그의 아내 챈은 특히 소아과 의사로서 겪은 임상의 경험을 연설로 생생히 전달해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챈은 “백혈병 진단을 내리는 일부터 아이들을 소생시킬 수 없다는 통보를 하는 일까지 여러 가족의 가장 힘겨운 순간들을 함께했다”라며 “지금 과학에 투자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질병 없는 미래를 선물할 수 있다”고 기부 계획을 밝혔다. <br/>저커버그 부부의 야심 찬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대학 샌프란시스코캠퍼스에 설립되는 6억달러(약 6,630억원) 규모의 독립 연구소 ‘바이오허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바이오허브에는 스탠퍼드, 버클리대학교 등의 저명한 과학자 및 기술자들이 모여 질병 퇴치를 위한 실험과 백신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저커버그는 이와 같은 계획을 밝히며 “<span class='quot0'>지난 2년간 노벨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쳤다</span>”고 덧붙였다.<br/>실제 페이스북뿐 아니라 유수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의료 연구에 거액을 투자하며 ‘질병 없는 세상’을 약속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는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와 협력해 컴퓨터가 질병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AI를 활용, 10년 내로 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저커버그 부부를 향해 “매우 대단한 계획”이라며 “<span class='quot1'>우리에겐 과학이 절실히 필요하다</span>”고 지지 의사를 표했다.<br/>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18.txt

제목: [영상] “눈 보게 해주겠다” 시한부 반려견과의 약속을 지킨 주인  
날짜: 2016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3051028971  
본문: 눈이 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시한부 반려견을 위해 인공 눈보라 기계를 설치해 눈을 뿌려준 주인이 있다. <br/><br/>동물전문매체 도도에 따르면 애슐리 닐스는 열두 살이 된 반려견 스펑키가 여느 때와 다르게 사료를 먹지 않는 것이 이상해 동물 병원을 찾았으나 예기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진단 결과 악성 암인 혈관 육종에 걸린 것이다. 수의사는 스펑키의 안락사를 권했고, 닐스는 안락사 전 눈 속에서 뛰어 노는 것을 유독 좋아했던 스펑키를 위해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했다.<br/><br/>닐스는 8년 전 위스콘신에서 텍사스로 이사를 하면서 스펑키에게 “<span class='quot0'>이 눈을 꼭 다시 보게 해주겠다</span>”고 약속했다. 한여름의 텍사스에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처럼 보였지만, 닐스는 스펑키가 죽기 전 그 약속을 지켰다.<br/><br/>정유경 인턴기자(서강대 프랑스문화4)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19.txt

제목: 132분 '폭력 릴레이' 속 빛나는 황정민의 호연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2050903225  
본문: 정우성과 황정민이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다. 주지훈이 거들고 곽도원이 합류했다. 여기에 ‘비트’(1997)와 ‘태양은 없다’(1999)로 1990년대 후반 충무로의 준봉으로 솟았던 김성수 감독이 메가폰을 들었다. 스크린에 떠오르는 이름들만으로도 묵직하고도 묵직한데 제목까지 강렬하다. 인간계와 축생계 사이에 있는, 모두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지옥 아수라도에서 따왔다. 말보다 주먹이 빠르고 주먹보다 칼을 더 선호할 듯한 수컷들의 아비규환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가을 극장가를 장식할 기대작으로 꼽혀 온 영화 ‘아수라’가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 멀티플렉스에서 열린 언론시사회를 통해 실체를 첫 공개했다.<br/>‘아수라’는 네 인물을 주요 축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인구 40만명 가량의 중소도시 안남시의 시장인 박성배(황정민)는 두 얼굴의 인물이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외치면서 자신의 야욕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박성배의 하수인이자 매제인 형사 한도경(정우성)은 본업보다 박성배 뒤치다꺼리에 바쁘다. 성배의 이복동생인 자신의 아내가 불치병에 시달리니 병원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뒷골목을 전전한다. <br/>살인교사로 기소된 성배는 도경이 증인을 협박한 덕에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다혈질에 교활하기까지 한 검사 김차인(곽도원)은 도경을 압박해 증거를 확보하려 한다. 도경이 실수로 동료 형사를 죽이게 되고, 도경의 단짝인 후배 형사 문선모(주지훈)가 성배의 수행팀장이 되면서 인물들은 폭력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28일 개봉, 청소년관람불가.<br/><br/>★다섯 개 만점 기준, ☆는 반 개.<br/><br/><br/><br/><br/>차고 넘치는 폭력의 향연<br/>무지막지한 폭력 장면이 바통을 주고 받으며 132분 동안 이어진다. 마치 세상엔 인정도 동정도 연민도 피도 눈물도 사랑도 없다는 것을 방증하려는 듯 서로를 속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스크린을 채우며 ‘비명도시’를 완성한다. 시속 100㎞를 달리다가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세게 밟으며 기어이 시속 200㎞에 도달하려는 스포츠카에 동승한 기분이다. 지옥도가 숨쉴 틈 없이 펼쳐지면서 피비린내 섞인 냉기에 몸이 차가워진다. <br/>관객의 예상을 뒤집으며 직진을 거듭하는 이야기 전개도 인상적이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폭력은 그저 잔인함 이상의 정서를 전하지 못한다. 인물들의 비정이 빚어내는 회한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회비판적 요소를 지녔는데 공명이 크지 않다. 빼어난 세공술로 빚어낸 차량 추격 장면 등 눈동자가 커질 만한 영상미는 박수 받을 만하다.<br/>황정민의 명연이 가장 큰 동력이다. 자신을 기소한 부장검사에게 “니들 시대가 어느 땐데 힘 자랑이야”하고 이죽거리며 윽박지를 때, 자신에게 조언하는 도경에게 “니가 그런 판단하고 그러지마.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잖아”라며 달래듯 협박할 때, 검찰 조사를 조심하라는 도경에게 “나 겁 많어, 겁주지 말란 말이야”라며 너스레 아닌 너스레를 떨 때 관객은 악랄하면서도 교활하고 이기적이면서도 야심에 찬 악마적 인물 성배와 마주하게 된다. <br/><br/>라제기 기자 wenders@hankookilbo.com<br/><br/>황정민의 호연만 돋보인다<br/>지옥 같은 세상이다. 밑도 끝도 없는 폭력이 난무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의 목숨이 사라진다. 개발되지 않은 후미진 회색 도시는 악인들이 판을 치는 소굴로 묘사된다. 그 안에는 법도 도덕도 가치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권력과 절대 악만이 남아 있다. <br/>영화 ‘아수라’는 권력이 만들어낸 먹이사슬에 갇힌 도경을 통해 타락한 인간 세상의 민낯을 드러내는 데 여념이 없다. 말기 암 환자인 아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성배의 충견 노릇을 하는 도경의 일상은 고달프기만 하다. 그럴수록 도경은 더 독해지고 악다구니만 해댄다. 영화는 부동산 개발 비리, 살인교사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악의 축’ 성배를 중심으로, 그를 잡으려는 검사 차인을 등장시켜 도경을 흔든다. <br/>충견에서 점점 형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듯한 도경의 알 수 없는 속내는 정우성의 연기만큼이나 어정쩡하고 밋밋하다. 영화 ‘비트’로 10대의 반항과 ‘태양은 없다’로 20대의 야망을 그리며 한국사회 남자들의 비애를 드러냈던 김성수 감독과 정우성의 조합은 ‘아수라’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다. 악행만 있고 메시지는 찾을 수 없는 줄거리에 관객을 밀어 넣고 자극적인 폭력에 노출시킨다. 칼이나 도끼, 톱, 총 등 온갖 무기들이 육체를 찢고 갈길 뿐이다. ‘국제시장’의 아버지와 ‘베테랑’의 형사를 깨끗이 지운 황정민의 호연만 눈길을 잡는다. <br/><br/>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br/><br/>‘연기 열전’ 보는 재미는 상당<br/>관객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허락하지 않는 영화다. 아귀다툼의 이유가 탐욕이든 신념이든 생존이든 그 의도와 목적이 악하다. 자비와 용서, 긍휼은 ‘아수라’의 세계엔 존재하지 않는다. 악과 악이 얽히고 부딪히는 이야기가 꽤 신선하다. <br/>폭력 묘사에도 자비는 없다. 총탄의 궤적은 선혈로 그려지고, 칼부림은 어김없이 처절한 상흔을 남긴다. 카메라는 시종일관 건조하고도 냉정한 시선으로 폭력의 세계를 들여다 본다. 움찔움찔 놀라게 되는 장면이 많다. 저절로 온몸에 힘이 들어간다. 잔혹한 장면에 불편함을 느낄 관객도 많을 듯싶다.<br/>내러티브는 약하다. 악덕 시장의 해결사 노릇을 하다 검찰의 정보원 노릇까지 하게 된 비리 형사 도경의 딜레마를 영화는 면밀히 살피지 못한다. 심리 묘사의 빈 공간은 액션에서 충당하지만 힘이 달린다. 돋보이는 건 주인공부터 단역까지 모조리 악인인데도 캐릭터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쓰임새 없이 배경으로 존재하는 인물도 없다. 캐릭터들의 탄탄한 짜임새는 배우들의 빛나는 연기 덕분이다. 연기 열전을 보는 재미가 상당하다. 자해 소동까지 벌일 정도로 악랄한 성배를 연기한 황정민과 소시민적인 악인이 된 정우성의 호흡이 특히 좋다.<br/>벗어나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악의 굴레가 부조리한 세상의 한 단면 같다. 한번 올라타면 스스로의 힘으론 내려올 수 없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은유하는 것 같기도 하다. <br/>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20.txt

제목: 5ㆍ18 산 증인 조비오 신부 선종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2050853709  
본문: 5ㆍ18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 섰으며, 평생을 민주화ㆍ통일 운동에 헌신한 조비오(본명 조철현) 신부가 21일 오전 3시 20분 지병으로 선종했다. 향년 78세. <br/>고인은 최근 암 말기 판정을 받고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추석 연휴를 앞두고 퇴원해 광주로 돌아왔다. 1938년 4월 1일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그는 69년 12월 16일 사제 서품을 받았다. 이후 광주살레시오여고 지도신부(1971년), 레지오 마리애 광주 세나뚜스 지도신부(1977년) 등을 역임했다. <br/>그는 80년 5ㆍ18 당시 신군부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막기 위해 시민수습대책위원 16명과 함께 이른바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가 내란음모 핵심 동조자로 몰려 4개월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는 출소 이후에도 신군부로부터 상경 제지를 받는 등 감시와 억압을 받았지만 5ㆍ18정신의 전국화에 앞장서며 민주화운동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고인은 89년 열린 5ㆍ18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서 “신부인 나조차도 손에 총이 있으면 쏘고 싶었다”며 신군부의 잔학한 학살행위를 생생하게 증언하기도 했다. <br/> 2006년 8월 31일 38년간의 사목 생활을 마감한 그는 사회복지법인 소화자매원 이사장, 5ㆍ18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광주ㆍ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등을 맡으며 줄곧 통일과 민족화합, 사회복지운동에 주력했다. 2008년 1월 16일에는 국내에서 28번째로 고위 성직자 품위이자 교황의 명예 사제인 ‘몬시뇰’에 임명됐다. 특히 그는 은퇴 후 교구청에서 제공하는 사제관을 거부하고 소화자매원 인근 66㎡(20평)짜리 아파트에서 홀로 살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기도 했다. <br/>그가 실천한 나눔의 정신은 엄격하리만치 철저했다. 그는 퇴임 후 교구청에서 매달 지원하는 생활비마저도 가난한 사람들과 소화자매원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다. 매달 그의 통장 잔고는 ‘0원’이었고, 그가 남긴 유품도 평소 애독하던 책과 옷 몇 가지가 전부였다. 이처럼 평생 베풂의 삶을 이어가면서도 그는 자신의 일신에 대해선 우둔하리만큼 무관심했다. 가족과 주위에서 암 발병 사실을 알고 병원 치료를 권유할 때도 “병원은 무슨 병원이냐”며 거절했다. 그는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장의위원회가 평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조화 대신 쌀을 받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것이다. <br/>고인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span class='quot0'>마지막까지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항상 비우셨고 나누셨던 사제께서 조용히 떠나시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고인의 사회정의와 나눔의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남아 사제들도 신자들도, 시민들도 고인이 실천한 섬김의 삶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 <br/>빈소는 광주 임동성당 지하강당에 마련됐다. 장례 미사는 23일 오전 10시 빈소가 차려진 임동성당에서 치러진다. 장지는 전남 담양군 천주교공원묘원. (062)380-2811<br/><br/>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21.txt

제목: 성기능 회복도 복지, 정우식 암환자 성재활센터장 인터뷰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2050841017  
본문: [한국스포츠경제 채준]<br/> <br/>암으로 인해 성기능을 잃은 환자들 중 상당 수는 성기능 회복으로 삶읠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정우식 이대목동병원 암환자 성재활센터장은 성기능을 잃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br/> <br/> <br/>-어떤 암이 진료 대상인가.<br/> <br/>"비뇨기과관련 전립선암 고환암 방광암 등과 직장암이 주 대상이다. 많지는 않지만 신경계통 골반쪽에 생기는 암들도 있다.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고 수술적인 치료를 받고 1년 정도 지나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들 중 성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 사항이다. 수술을 할 때는 암을 제거해 생명을 지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암 들의 경우 성기능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의 목표는 암 걸리기 이전 삶의 기쁨을 암 완치 후에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br/> <br/>-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뤄지나.<br/> <br/>"수술 받고 나서 신경이 다치는 경우는 회복될 수도 있다. 1년 기다리는 동안 먹는 약물 치료를 하고 신통치 않을 경우 주사를 추가해 성기능 회복을 돕는다. 일부는 회복 될 수 있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 발기가 안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여성은 성교통이 어려움이다. 남성의 경우 일반적 발기부전 환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은 암 수술을하고 나면 음경이 위축이 온다. 전립선암의 경우 전립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짧아질 수 밖에 없고 수술 후유증으로 유착이 올 수 있다. 유착된 경우에는 최대한 회복시키려고 노력한다."<br/> <br/>-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다면.<br/> <br/>"방광암의 범위가 넓어서 신경과 혈관을 다 자른 경우가 있다. 수술전 왕성한 성생활을 했던 분인데 수술을 받고 나서 기능을 잃고 상실감이 컸다. 1년간 재활 프로그램을 했는데 회복이 안되 수술을 했다. 지금은 성생활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한 달에 3~4회 정도 성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대상 환자들이 50대~ 70대까지 수술을 한다. 수술을 받으면 실제 사정을 할 수는 없지만 피부신경이 살아있어 사정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br/> <br/>-아쉬운 점이 있다면<br/> <br/>"경제적인 문제다. 아직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보통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건강보험 공단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한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능을 상실 했다면 암환자 치료와 연동시켜 보험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 성재활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22.txt

제목: 골반암 환자도 성기능 회복 가능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2050839922  
본문: [한국스포츠경제 채준]<br/> <br/>최근 의학계의 트렌드는 '삶의 질'이다. 환자들이 최신 의학을 통해 질병을 이겨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수술 전부터 환자의 남은 삶이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암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암세포가 퍼진 부위를 광범위하게 걷어내야 하는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 삶의 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런 환자들 중 성기능을 찾길 원하는 환자들을 위해 '암환자 성재활 센터'를 올해 개소했다. 이대목동 병원의 암환자 성재활 센터는 암 수술 후 성기능 재활에 실패한 암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첫번째 센터다.<br/> <br/>정우식(58) 이대목동병원 암환자 성재활센터장은 "최근 조기 진단과 의술의 발달로 여러 암에서 환자의 생존률이 향상됨에 따라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암환자 성재활센터는 이대목동병원 암환자는 물론 타 병원에서 성기능 재활에 실패한 암환자의 성기능 재활을 돕기 위해 탄생했다"고 말했다.<br/> <br/> <br/>▲방광암 전립선암, 성기능 장애<br/> <br/>암환자들 중 골반에 암세포가 생기는 경우 성기능 장애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성기능 상실은 골반 내 근치적 수술 후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 중 하나다. 전립선암·방광암·직장암 등에서는 수술 후 신경 손상에 의한 성기능 장애가 8~82%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발표 된 2012년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대장암, 전립선암, 방광암은 각각 남성 암 발생률 2위, 5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립선암은 서구에서 가장 많은 남성암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직장암·방광암의 경우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이대목동병원의 암환자 성재활센터는 주로 남성환자들이 내원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br/> <br/>▲약물치료 실패환자가 대상<br/> <br/>성재활센터를 찾는 남성환자들이 여성환자 보다 많은 것은 성행위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도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암 수술 후 남성의 성기능 장애는 대부분 신경손상에 의하여 발생하며, 치료는 PDE-5 inhibitor (PDE-5i)라는 약물을 통한 음경재활에 의존하고 있다. 임상연구에 따르면 PDE-5i를 수술 후 주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음경으로 가는 혈류상태가 좋아지고 음경의 평활근의 위축이 줄어든다는 보고들이 있다. 하지만 수술 1~2년이 지나도 약물을 계속 복용해야 하거나,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 이들은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인 성생활에 있어 심각한 장애를 느끼게 된다. 이들은 음경주사제나 진공물리기구 등을 선택할 수 있으나 효과는 매우 미비하다. 이러한 환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수술적인 방법인데 암환자 성재활센터 개소는 이 부분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br/> <br/>▲세조각 보형물 삽입<br/> <br/>수술적인 방법은 세조각 팽창형 (3-piece implant) 음경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조각 팽창형 음경보형물 삽입은 현재 가장 자연발기와 유사하며, 기계적 신뢰도나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수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보형물들이 모두 몸 속에 위치하고 있어 알리지 않을 경우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수술후 대중목욕탕 사우나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형물은 세 부위로 나눠 지는데 성기의 해면체 대신 삽입되는 실린더와 펌프·물탱크로 구성돼 있다. 일반적으로 실린더는 성기에 펌프는 고환 사이에 위치시키고 물탱크는 골반 안에 자리 잡는다. 그러나 방광암 수술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물탱크가 골반으로 들어갈 경우 이미 자리잡은 인공방광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복벽 밑에 공간을 만들어 넣고 있다.<br/> <br/>정우식 암환자 성재활 센터장은 "암이 걸리기 전 왕성한 성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 큰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 환자들이 암 수술로 기능을 잃었다면 병을 고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암 걸리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23.txt

제목: 주인에게 작별인사 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찾아온 개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2050831011  
본문: 주인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던 걸까. 지난 7일 동물전문매체 도도는 실종됐다가 주인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반려견의 사연을 소개했다. <br/><br/>멕시코 몬테모렐로스 외곽 농장에 사는 도나 로사르바 퀴로즈는 반려견 바이론과 단둘이 살았다. 퀴로즈는 암 투병 중이었는데 지난 몇 달 간은 바이론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 건강이 나빠져 친척 집에서 돌봄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br/><br/>퀴로즈는 대신 자주 집으로 찾아가 바이론을 돌봤다. 그런데 그의 상태가 더 이상 집을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고, 그는 친척들에게 집에 가서 바이론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br/><br/>부탁을 받은 친척들이 바이론을 보기 위해 집으로 갔지만, 바이론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아무도 바이론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퀴로즈는 바이론을 보지 못하고 그로부터 2주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br/><br/>놀랍게도 퀴로즈의 장례식 날 사라졌던 바이론이 나타났다. 장례식장은 집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br/><br/><br/>장례식에 함께한 바이론은 퀴로즈의 관 옆에 엎드려 있다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관 안에 누워 있는 그를 빤히 쳐다보기도 했다. 퀴로즈의 가족들은 “바이론이 마치 이제 다신 그녀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br/><br/><br/>장례식장 직원은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동물은 장례식장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문을 긁고 밖에서 울부짖는 개를 보고 장례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span>” 며 “<span class='quot0'>이제껏 주인에게 작별인사를 고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온 개는 보지 못했다</span>”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br/><br/><br/>한송아 동그람이 에디터 badook2@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24.txt

제목: “50대 넘는 남성은 전립선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관심을”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2050638163  
본문: 대한비뇨기과학회, ‘전립선암 바로 알기 주간’ 선포<br/>대한비뇨기과학회(회장 주명수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교수)와 대한비뇨기종양학회(회장 조진선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기과 교수)가 국내 전립선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전립선암 바로 알기 주간’을 선포했다.<br/>학회는 전립선암 고위험군과 가족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전립선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예방ㆍ관리법을 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전립선암 바로 알기 무료 강연, ▦전립선암 주간 선포식 순서로 열린 이 행사에서 블루리본 배지를 단 학회 임원진이 직접 시민들에게 블루리본 배지, ‘전립선암 바로 알기’ 안내 책자와 함께 전립선암 최신 정보를 나누었다. 블루리본은 ‘전립선암 극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전립선암 인식 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블루리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br/>홍성후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홍보이사(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전립선암은 내년부터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급증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50대 이상 남성, 가족력이 있는 40대 이상 남성 등 전립선암 고위험군은 전립선암 예방 관리와 조기 발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span>”고 했다.<br/>실제로 전립선암은 최근 갑상선암 다음으로 가장 빨리 늘고 있는 남성암으로 2013년 한 해에만 9,515명의 남성이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다. 2000년 1,304명에서 13년 사이 7배 이상 늘어났다. 50세부터 발병이 급격히 늘어 특히 60대 발생률이 높다.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전립선암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br/>전립선암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남성암 1위를 차지한 지 오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대표적인 남성암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9월을 ‘전립선의 달’로, 9월 셋째 주는 ’전립선암 인식 주간’으로 지정해 전립선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br/>국내에서는 대한비뇨기종양학회가 매년 9월 ‘블루리본 캠페인’을 시행하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전립선암 바로 알기 주간’을 선포했다. 전립선암에 대해 올바로 아는 것과 더불어, 발생사실을 초기에 바로 알 수 있도록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관심을 기울이자는 중의적인 의미다.<br/>조진선 대한비뇨기종양학회 회장은 “<span class='quot1'>전립선암은 매년 1회 간단한 검사를 통해 조기검진이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암이 전립선 내 국한된 초기 전립선암이라면 생존율이 100%</span>”라며 “<span class='quot1'>반면, 전립선을 넘어간 진행암인 경우 5년 생존율이 38.6%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span>”고 했다.<br/>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전립선암 바로알기 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span class='quot2'>50대 이상 남성, 매년 한 번 전립선암 검사하세요!</span>”라는 슬로건과 함께 찾아가는 건강강좌 등 전립선암 바로 알리기에 힘쓸 예정이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br/>블루리본 캠페인 전립선암 바로 알기 무료강연 일정(문의 02-318-2262)<br/><br/>[참고] <br/>1. 일주일에 5회 이상 신선한 과일ㆍ채소 섭취<br/>2. 일주일 중 5일은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br/>3.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적정체중을 유지<br/>4. 50세 이상 남성은 연 1회 전립선암 조기 검진<br/>5. 가족력있다면 40대부터 연 1회 전립선암 조기 검진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25.txt

제목: 암 투병 이용마 MBC 해직 기자 "방송 정상화 됐으면"  
날짜: 201609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1051111779  
본문: “저는 괜찮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침착했다. 2012년 MBC 파업 사태로 4년 6개월째 해직 상태인 이용마 MBC 기자가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김종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의 칼럼을 통해 20일 세상에 알려진 직후였다. 조심스럽게 근황 얘기를 꺼내자 이 기자는 거듭 “걱정 마시라”고 했다. 단단한 목소리에서 병색은 느껴지지 않았다. <br/>이 기자는 최근 복막암 진단을 받았다. 내달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는다. 복막암은 자각증상이 없어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기자의 지인들은 그의 병세가 가볍지 않다고 전한다.<br/>이 기자는 “<span class='quot0'>개인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 염려된다</span>”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병마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기만 한 것일까. 이 기자와 MBC 입사 동기인 한 카메라감독은 “<span class='quot1'>총파업과 해직 사태를 겪으며 그간 얼마나 속앓이를 했길래 그런 병에 걸렸나 싶어 많이 속상하다</span>”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일간지 기자도 “<span class='quot2'>쌍용차 해고 사태 이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잇달아 병에 걸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냐</span>”며 “<span class='quot2'>이 기자의 발병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span>”고 말했다. <br/>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이름과 숫자가 적힌 리스트가 있다. 해고된 기자와 PD들의 이름이다. ‘이용마 홍보국장 1661일째’. 이 기자는 2012년 MBC본부가 공정방송 회복과 김재철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간 총파업을 벌이던 당시 노조 홍보국장을 지냈다. 그는 총파업으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전 사무처장, 박성호 전 기자회장 등과 함께 해고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MBC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MBC의 상고로 이 소송은 1년 5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br/>취재현장을 떠난 지 벌써 5년. 하지만 그는 뼛속까지 기자다. 여전히 현업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있다. 한때 신뢰받는 언론으로 첫 손에 꼽히던 MBC 보도가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할 땐 특히 날카로웠다. “파업 사태 이후 행정직이든 제작부서든 신입을 한번도 뽑지 않았다. 기자직의 경우 성향이 검증된 경력직만 채용하고 있다. 내부에 비정상적인 인력이 너무나 많다. 기존 인력들은 각지의 비제작 부서로 보내버렸다. MBC 경영진이 멋대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선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청와대가 경영진을 압박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을 내보내려 하지 않나. 결국 MBC 정상화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한다.” 병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담대하던 이 기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어두워졌다. <br/>그의 페이스북은 쾌유를 비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로 가득하다. “흔들리지 않고 늘 당당하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번에도 당당히 맞서 쾌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원합니다” “부디 치료 잘 받아서 언론이 바로서는 모습 보셔야죠. 기도하겠습니다” “MBC가 국민의 품에 안기는 날 그 자리에 반드시 이 박사님이 있어야 합니다” 등의 메시지 한 켠에는 공정방송에 대한 염원도 담겼다.<br/>해직 이후 이 기자는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대안언론인 팟캐스트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근엔 대학에서 정치학을 강의했다. 이 기자는 “<span class='quot0'>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강단에서 내려왔다</span>”고 했다. 통화를 끝낼 때 “괜찮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시 단단해진 목소리가 건너왔다. 쾌유를 빌며 힘껏 응원하고 싶어졌다.<br/>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26.txt

제목: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 행동 변화에 귀 기울이세요  
날짜: 2016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0051113400  
본문: 고령화 사회서 치매 환자 급증<br/>환자 65만명… 12분에 1명씩 발생<br/><br/>조기 치료로 증세ㆍ속도 완화 가능<br/>초기엔 건망증과 구분 어려워<br/>자주 찾는 의사와 상의해야<br/><br/>치매에 걸리면 기억이 지워진다. 마치 지우개로 지운 듯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고 나중엔 성격도 변한다. 그래서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다. 실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암보다 무서운 것이 치매’라며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 1위에 꼽히기도 했다.<br/>매년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다. 김기웅 중앙치매센터 센터장(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span class='quot0'>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병</span>”이라고 했다. 본인이 치매가 아니어도 가족이 치매에 걸릴 수 있고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br/><br/>치매 환자 4년 새 2배 가까이 늘어<br/>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12분마다 1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65만 명이 치매를 앓는 것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662만4,000명(전체 인구의 13.1%)일 정도로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매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1년 29만 명에서 2015년 46만 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가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br/>치매는 성별 구분 없이 발병하나 여성 유병률이 유독 높다. 치매로 진료 중인 환자 중 여성 환자는 무려 72%를 차지한다(심평원). 남성 환자와 2.5배다. 윤지영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치매 여성이 많은 이유는 남성(79세)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6.5년 더 길어 고령 인구가 많고, 과거 남성보다 학력과 사회활동 정도가 낮아 대뇌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노화로 인한 신경세포 기능 저하의 보상이 덜 이뤄지기 때문</span>”이라고 했다. 또한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분비 저하로 인해 에스트로겐의 신경계 손상에 대한 보호 작용이 중단되는 점도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br/>평소와 다른 행동하면 치매 의심을<br/>치매는 크게 4가지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여 생기는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 뇌졸중 후 생기는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등이다. 50대 이상은 알츠하이머병이 72.2%로 월등히 많지만, 50세 미만은 알츠하이머병이 39.9%, 혈관성 치매가 26.9%로 양분된다(심평원 2015년). <br/>초로기 치매(65세 이하에게 나타나는 치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1년 6만3,000여명에서 2015년 8만400여명으로 26%가량 늘었다(심평원). 대한치매학회도 치매 환자의 20%가 초로기 치매 환자로 보고 있다. <br/>대사질환, 만성 간질환 등에 의한 치매는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매는 한 번 발병해 진행되면 본래 상태로 회복이 쉽지 않다. 때문에 평소 치매 예방에 힘쓰고, 가족의 행동변화에도 귀 기울여 조기 발견이 바람직하다. 치매 증상은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능력, 수행력, 집중력 등 인지기능 장애, 이상행동과 불안, 초조, 우울 등 심리 증상, 일상생활 능력 손상이다.<br/>대표적으로 ▦최근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건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할 때 ▦평소와 달리 표현이 불분명하고 단어를 잘 생각하지 못할 때 ▦길 잃고 방향을 헤맬 때 ▦전보다 일 추진과 수행 능력이 떨어질 때 ▦성격이 변해 남과 어울리지 않고 집에만 있거나 반대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거나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치매를 의심해야 한다. 이밖에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br/>치매 증상과 원인이 매우 다양해 환자상태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양하다. 또한, 초기 치매와 건망증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아 주변에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치매인지 걱정되면 평소 자주 진료를 보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평소 자주 진료 보는 의사는 해당 환자의 병력을 잘 알고 있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br/>치매를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불치병’으로 간주하고 치료를 포기하고 삶을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치료로 증세를 완화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지원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치매 조기 검진과 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2년 정도 늦추면 40년 후 치매 발병률을 80% 수준을 낮출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65세 이상은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집중적인 추적 관리가 필수적</span>”이라고 했다.<br/>치매 예방에 음식물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병훈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치매 예방하는 음식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생선기름의 EPA, DHA, 비타민EㆍCㆍB12, 마늘과 양파 등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고 했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br/><br/>1.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br/>2.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떨어졌습니까?<br/>3. 기억력이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보다 나쁘다고 생각합니까?<br/>4.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십니까?<br/>5. 최근 일어난 일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br/>6.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br/>7.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br/>8. 친한 사람의 읾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br/>9.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br/>10. 전보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br/>11.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br/>12. 가게에서 사려고 하는 두세 가지 물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br/>13. 가스불이나 전깃불을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br/>14.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자신 혹은 자녀의 집)를 기억하기 어렵습니까?<br/>\*6개 이상 항목에 해당된다면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br/><br/><br/>음주 2.6배<br/>뇌 손상 2.1배<br/>운동 부족 1.8배<br/>우울증 1.7배<br/>흡연ㆍ고혈압ㆍ당뇨병ㆍ비만 1.6배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27.txt

제목: [첨단의료를 달린다] 분당서울대병원 암재활클리닉  
날짜: 2016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0051111568  
본문: “<span class='quot0'>암 재활 통해 치료 후 삶의 질 높여야</span>”<br/><br/><br/>50대 후반 여성 A씨가 분당서울대병원 암재활클리닉을 찾았다. 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뒤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걷는 것은 물론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였던 A씨는 이 클리닉에서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체력을 높이는 운동과 근력운동 등을 시행한 뒤 혼자 서서 걷는 등 일상생활을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 무엇보다 좋아진 체력 덕분에 남은 항암치료도 견뎌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br/> 양은주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암 생존율이 점점 더 향상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암 치료 이후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span>”고 했다. 양 교수는 “<span class='quot1'>암환자는 재활치료를 통해 암 치료과정 중에 생기는 불편한 문제와 치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최대한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덧붙였다. 양 교수에게 암재활치료에 대해 물었다.<br/><br/>-암 재활이라는 말이 생소한데…<br/> “암 생존자는 현재 암을 치료 중인 환자와 암 치료 후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 그리고 치료가 끝난 뒤 안정기에 접어든 생존자 등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암 재활은 시기별 기능 회복을 통해 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암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포괄적이고 기능적이며 다학제적 팀 접근법을 시행하는 재활의학과적 치료의 분야다. 암 환자 재활치료는 암 진행에 따라 예측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암 치료, 즉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임 치료 후 영구장애가 돼도 환자의 기능적 상태를 최대한 향상하도록 도와준다.”<br/><br/>-암재활클리닉의 치료 프로그램은.<br/> “암재활클리닉은 암 자체로 인한 요인(골격계 전이, 중추 및 말초 신경계 침범 등)과 수술, 항암, 방사선요법 등 암 치료와 관련된 요인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기능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암 생존자가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통해 삶이 질을 높이게 한다. 클리닉에는 림프절 제거술, 항암,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림프부종의 관리와 치료를 돕는 림프부종클리닉, 만성 통증을 관리하는 통증클리닉, 위약 및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유산소운동(에어로빅)과 근력강화운동, 교육을 통한 근위축 예방ㆍ치료를 돕는 운동클리닉 등이 있다. 각 클리닉은 암종별 기능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br/><br/>-암 종류별로 재활법도 다를 것 같은데.<br/> “암재활클리닉에서는 암 환자의 피로완화와 활력증진을 위해 신체 기능평가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량을 정하고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적으로 환자 개개인의 최대 근력을 측정해 적당한 운동강도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평소에도 안전하게 근력운동을 하도록 적절한 운동처방과 암 종류별로 필요한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유방암은 암 진단부터 치료 후까지 다각적인 재활의학적 접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유방암 환자는 수술법에 따라 림프절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림프부종 예방관리 교육부터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한 한 조기에 림프부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점진적 근력강화운동을 통해 수술한 팔을 평소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한다.”<br/><br/>-암 재활치료는 어떤 때 받아야 하나.<br/> “암 치료 후 기능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특히 필요하다. 예컨대 유방암의 경우 림프부종, 관절구축, 회전근개손상 등 팔 기능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직장암이나 전립선암, 부인암의 경우 일부에서 골반기전기능장애로 인해 요실금, 변실금 등의 기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기능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암 생존자 가운데 40%정도가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암 재활치료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br/><br/>-암 환자가 치료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것은.<br/> “암 환자는 수술 후 시간이 지나도 생활하는 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투병과정에서 손상된 신체기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지만, 일상활동이나 사회참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암 치료 후 환자는 지속적인 피로와 체력 약화로 직업과 사회 복귀가 어렵다. 특히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해 안타깝다. 예컨대 암환자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암합병증으로 인한 봉와직염, 보행장애 등은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해야 한다. 때문에 환자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재활ㆍ치료 프로그램이 없어 근거가 부족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br/><br/>-암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br/> “암 재활의 목적은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다. 따라서 암종별로 전문 재활치료가 활성화되고 진료과별 협진을 통해 체계적인 치료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 서비스가 절실하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암 발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합병증 치료 등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는 환자가 많다. 이를 보완해주는 제도가 마련돼 암 환자가 소외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br/><br/>-해외에서의 암 환자 재활치료는 어떤가.<br/> “일본 영국 호주 등 해외 여러 곳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암 진단 후 수술 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는 동안 기능을 최대화하는 목표로 사전재활(prehabilitation)을 시행해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성적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수술 후 빨리 회복되도록 하는 프로그램(ERAS)도 운용하고 있다. 국내에도 빨리 이런 암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br/><br/>-분당서울대병원 암환자 재활서비스의 장점은.<br/>“무엇보다 환자 치료를 위해 관련된 여러 과가 협력해 진행하는 협진문화가 잘 정착돼 있다. 특히 외래놔 입원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조기에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하며 의뢰하는 암전문의와 협업체계가 갖춰져 환자 회복과 치료효과가 좋다. 덧붙여 암재활클리닉은 다양한 세부 클리닉과 프로그램이 마련돼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28.txt

제목: [태블릿+] 암 치료 구원투수 면역항암제 ‘옵디보’  
날짜: 2016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0051108068  
본문: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이 가운데 폐암은 암 사망률 1위다. 폐암은 조기발견이 어려워 진단 시 이미 3~4기인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br/>폐암은 암세포 크기ㆍ형태에 따라 소(小)세포폐암과 비소(非小)세포폐암으로 나뉜다. 특히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85%나 된다. 4기 비소세포폐암의 5년 생존율은 1%에 불과할 정도로 말기에서 치료가 어렵고, 전이된 말기 폐암에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도 제한적이다.<br/>폐암 3기 판정을 받은 김모(71)씨도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2014년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 판정을 받고 화학 항암치료를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그 해 면역항암제 ‘옵디보’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9㎝였던 종양이 치료 6주 만에 절반이 줄었고, 지금은 1㎝로 90%가 급감했다. 김씨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매주 8㎞씩 걷기 운동을 하는 등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br/>그에게 ‘인생의 구원투수’인 옵디보는 지난 4월 국내 첫 폐암 치료에 허가 받은 면역항암제다. 1차 항암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치료 후에도 병이 진행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2주에 한 번씩 옵디보를 투여할 수 있다. 이처럼 면역항암제는 올해 폐암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환자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새로운 메커니즘의 면역항암제는 체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내 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 몸 스스로 암을 없앨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기존 항암제에서 나타났던 독성이 거의 없어 부작용 발생 빈도가 낮아 치료 받는 동안 환자 삶의 질이 좋아진다.<br/>옵디보는 비소세포폐암 종류와 특정 환자군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게 강점이다. 옵디보는 조직형에 따라 나뉘는 편평,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였다. 특히 기존 치료 옵션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제(도세탁셀)보다 사망위험률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율을 2배 가까이 개선했다.<br/>옵디보로 치료하는 동안 암 진행이 없는 무진행 생존율은 21%로, 도세탁셀(6.4%)보다 3배 이상 우월한 결과였다.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의 임상시험에서는 옵디보의 전체 생존율이 51%나 됐다.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을 살펴본 반응지속기간 중간값은 옵디보가 17.2개월로, 도세탁셀(5.6개월)보다 뛰어났다. 반응지속률도 52%로 도세탁셀(14%)보다 좋았다.<br/>옵디보는 PD-L1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생존율 개선 효과를 입증하며 폭넓은 폐암 환자군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암세포에는 PD-L1이라는 단백질이 나타나는데, 환자마다 발현되는 정도가 다르다. 옵디보는 환자의 PD-L1 발현 정도에 구애 받지 않고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폭넓은 치료 혜택을 준다.<br/>옵디보는 2015년 3월 흑색종 치료제로 허가된 면역항암제로,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미국에서는 호지킨 림프종 치료제로도 쓰인다. 현재 위암, 간세포암, 두경부암, 콩팥암 등 다양한 암 종에서 옵디보의 치료 유효성을 입증하는 글로벌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 옵디보는 비소세포폐암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암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치료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29.txt

제목: 최성수, 암환자들 위한 콘서트 개최  
날짜: 2016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0050759880  
본문: 가수 최성수가 암 환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한다. 내달 1일 오후 5시 인천 옹진군 덕적도 밧지름 해수욕장에서 동행이란 주제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바리톤 우주호가 출연해 최성수와 함께 이탈리아 칸초네 ‘오 솔레 미오’와 ‘동행’ 등을 부른다. 특히 토이토이 클래식 앙상블이 연주로 참여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인다. 또 김의신 전 MD앤더슨 종신교수와 서울대 이왕제 교수도 출연해 암과 관련한 토크를 진행, 자리를 빛낼 전망이다. <br/>최성수는 “<span class='quot0'>힘든 투병생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내 꼭 회복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섬 콘서트를 준비하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행사를 통하여 암 환우와 가족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시간 되길 바란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30.txt

제목: UNIST, 빛으로 암 조직 파괴하는 물질 개발  
날짜: 2016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20050730273  
본문: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빛으로 암 조직을 파괴하는 광역동 치료(Photodynamic therapy)에 효과적인 물질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br/>광역동 치료는 빛을 받으면 암세포를 잡는 활성산소를 만들어 내는 ‘광감각제’를 이용한 치료법으로 광감각제가 얼마나 민감하게 빛에 반응하는지가 관건이다.<br/>기존 광감각제로는 화학물질인 ‘포토프린(Photofrin)’이 주로 쓰였지만, 산소 민감도가 좋지 않아 산소 농도가 줄어들면 활성산소 생성 농도 역시 급격히 줄어드는 한계가 있었다.<br/>이에 따라 권태혁ㆍ임미희ㆍ이현우 자연과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은 산소를 활성산소로 잘 만드는 물질인 ‘이리듐(iridium)’을 이용해 새로운 광감각제를 개발했다.<br/>연구팀은 파장이 긴 파란색이나 녹색보다 파장이 긴 빨간색 빛을 내도록 고안된 이리듐 복합체가 훨씬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 내는 것을 확인했다.<br/>이번 연구는 미국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JACS) 9월호에 실렸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31.txt

제목: 보장성 보험료 또 들썩… 내달부터 5~10%↑  
날짜: 2016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19050547419  
본문: 삼성ㆍ한화ㆍ흥국생명 등 예정이율 인하 추진<br/><br/><br/><br/>10월부터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암 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를 5~10%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br/>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ㆍ한화ㆍ흥국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내달부터 현재 평균 2.75% 수준인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정도 내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대형 생보사가 예정이율 인하에 나서면 나머지 생보사들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br/>예정이율은 생보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보험금 지급 시점까지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로,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는 통상 5~10% 정도 오른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저금리 영향으로 자산운용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 예정이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주요 생보사들은 4월에도 예정이율을 평균 3%대에서 현행 2.75%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br/>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32.txt

제목: 추석명절에 말다툼 모녀 음독 사망  
날짜: 2016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19050543167  
본문: 70대 노모 집수리ㆍ생활비로 언쟁<br/><br/>가족들이 모인 추석명절에 암 투병 중인 70대 노모와 40대 딸이 집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독극물을 마시고 모두 숨졌다. <br/>18일 전남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2분쯤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A(74ㆍ여)씨와 딸 B(49)씨가 농약 성분의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모녀는 다른 가족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r/>경찰 조사 결과 추석 연휴를 맞아 A씨 집에 모인 자녀와 친척들은 이날 술을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이 자리에서 A와 B씨 모녀는 집수리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언쟁을 벌였다. <br/>A씨는 홀로 살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고 맏딸인 B씨는 외국에 거주하며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br/>경찰은 “<span class='quot0'>대화 도중 어머니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작은방에 들어가 독극물을 마셨고 B씨도 병을 빼앗아 같이 마셨다</span>”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br/><br/>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33.txt

제목: '감귤 공화국', 새콤달콤 탐스러운 제주가 익어간다  
날짜: 201609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18050342004  
본문: 여름엔 하귤ㆍ풋귤 가을부턴 황금향<br/>한라봉은 연말부터 제일 늦은 건 천혜향<br/><br/>요즈음 블루베리나 애플망고와 같은 아열대 과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서귀포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열대 과일은 감귤이다. 서귀포시 신효동 월라봉 기슭에 자리잡은 감귤박물관에는 감귤의 유래와 역사, 문화 등이 체험 마당과 함께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는데 재래 감귤은 삼한 시대부터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맛의 방주 프로젝트’라 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음식과 식재료, 종자 등을 보존하는 세계적인 사업에 제주도에서는 재래 감귤인 ‘산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만큼 제주 감귤도 많은 변화를 겪은 것 같다.<br/>감귤은 제주시에서도 재배는 이루어지나 기후 여건 상 서귀포 감귤을 더 알아주며 위미, 효돈, 중문 지역은 당도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제주도에서 흔히 심는 감귤은 온주귤인데 1911년 프랑스인 에밀 다께 신부에 의해 서귀포에 전래됐다고 하며 이중섭 거리 아래에 위치한 서귀포 성당에는 다께 신부의 자취가 아직 남아 있고 얼마 전에는 그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문화 행사가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기도 했다.<br/>한 여름 가장 먼저 수확하는 감귤은 하귤과 풋귤이다. 하귤은 수입 과일인 ‘자몽’만한 크기로 서귀포 시내 가로수로도 심어져 있는데 관광객들이 탐스러워 보이는 과육을 참지 못하고 따먹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워낙 신맛이 강해 날 걸로는 섭취가 어려우며 설탕에 절여 하귤청을 만들거나 잼으로 만들어야 먹을 수 있다. 서귀포 여행 시 가로수로 보이는 나무에 달린 대형 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 풋귤도 재래 감귤 품종인데 덜 익어 초록색을 띤 감귤을 청귤이라고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올해부터는 소비자 혼란 등을 우려해 ‘청귤’ 명칭을 ‘풋귤’로 변경했으며, 매년 8월31일까지만 출하토록 했다. 풋귤은 덜 익은 감귤과 달리 과육이 오렌지 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절제된 상큼함을 지닌 독특한 맛을 내어 청량감을 준다. 감귤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나 매력적인 맛을 지닌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br/>조생종 감귤로는 ‘보졸레 누보 와인’처럼 황금향이 가장 먼저 출하 된다. 이미 지난 8월 말부터 푸른 빛이 도는 황금향을 시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일찍 시장에 나와서 인지 숙성된 깊은 맛보다는 가볍고 상큼한 맛을 낸다.<br/>급조생 노지 감귤은 추석 전 후부터 출하를 시작하는데 수확과 유통의 편의를 위해서 대략 80% 정도 익었을 때 열매를 따게 된다. 이 정도 감귤을 막 따서 먹으면 신맛이 강하고 단맛이 부족하게 되는데 며칠 동안 상온에 두었다가 먹으면 한결 낫다. 시중에 유통되는 감귤은 왁스 코팅 작업을 하여 껍질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데 윤기가 많은 것은 진피처럼 껍질을 말려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실 껍질에 검은 점이 조금만 있어도 하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왁스까지 바르며 상품성을 높이려 노력을 하지만 외관이 좋다고 해서 맛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파치를 더 선호하는 토박이들도 많다. <br/>연말부터는 한라산을 닮은 한라봉이 출하되기 시작한다. 1990년 정도에 도입된 이 감귤은 베타카로틴보다 5~6배 이상 발암 물질을 억제하는 베타크립토잔틴이 함유되어 암 발생을 억지하며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육이 무거워 농가에서는 낙과를 막기 위해 줄로 묶는 수고를 감수해야 하나 일반 감귤에 비해 세배 정도 비싸게 팔 수 있어 마다하지 않는 것 같다.<br/>감귤 중 가장 늦게 출하되는 품종은 천혜향이다. 한라봉 이후 개발된 최신 품종으로 과즙이 풍부하고 육즙이 부드러워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 있으며 한라봉이나 황금향에 비해 껍질을 벗기기 쉬워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알카리 식품으로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 칼슘 흡수에 좋다고 한다.<br/>미국의 한 연구소는 매일 한 컵의 감귤 주스를 마시는 사람의 경우 25%까지 심장 발작을 낮출 수 있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신선한 감귤은 구입 후 바로 껍질을 벗겨 섭취하는 것이 좋다. 껍질을 벗긴 채 보관하면 비타민의 손실이 크다고 한다. <br/>서귀포의 감귤 간식으로는 과즐이 가장 서민적인 먹거리이다. 밀가루에 감귤과즙, 물, 분유, 소금 등으로 반죽하여 밀대로 얇게 민 뒤 기름에 튀겨 시럽을 발라 쌀 튀밥을 뭍인 음식이다. 집에서 만들어 먹기에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제품을 사서 선물용으로도 사용하는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성산포 할머니나 신효의 과즐이 담백한 맛이 좋다. <br/>서귀포에 이사오면서 감귤을 사먹은 사례는 사실 없다. 감귤을 돈 주고 사먹는 것은 서귀포 시민의 도리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감귤 인심이 후하기 때문이다. 파치의 경우 수확 철이 되면 웬만한 식당에선 입구 앞에 감귤을 놓아 누구나 집어 갈 수 있게 비치해 두기도 한다. 회사 사무실에도 직원들이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감귤을 바구니에 놓아 간식으로 맛 볼 수 있게 해 둔다. 한 번은 이웃집에서 감귤을 먹을 만큼 따가라며 농장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아내와 함께 한 시간 넘게 감귤을 가위로 땄는데도 나무 한 그루의 반 정도도 못 딸 만큼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고 놀란 경험이 있다. 물론 가위질이 서툰 영향도 있지만 그 날 이후로는 감귤을 다 따서 상자에 넣었으니 차로 실어가라고 연락을 주신다. <br/>큰 회사나 공장 시설이 많지 않은 서귀포는 감귤 농사나 어업이 중요한 생계 수단이다. 연초부터 초봄까지 공천포의 어느 감귤 주스 회사의 정문에는 감귤을 팔려고 길게 줄 서 있는 농장 트럭을 출근길에 매일 보곤 한다. 오랜 애환이 서린 서귀포의 감귤이지만 여름 날씨가 아열대로 변하게 되면 이런 광경도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아쉽기도 하다. 서귀포 감귤도 지키고 농가에 새로운 소득 작물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약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제주도 농업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 본다.<br/>이재천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총주방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34.txt

제목: “고농도 항암 방사선 치료하면 횟수 80% 줄여도 효과 같아”  
날짜: 2016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13051222946  
본문: 직장암 수술을 받기 전 시행하는 항암 방사선 치료 시 고농도로 하면 횟수를 80% 줄여도 기존 치료법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항암 방사선 치료기간을 줄이고, 빨리 수술도 받을 수 있게 됐다.<br/>강동경희대병원 대장암 다학제 팀(외과 이석환ㆍ방사선종양학과 정미주ㆍ정원규 교수)은 현재 진행성 직장암 수술을 받기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5회 시행한 환자와 28회 시행한 환자 등 72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등한 효과를 확인했다. 이 연구결과는 종양학 분야 국제학술지 ‘온코타깃(Oncotarget)’에 실렸다.<br/>현재 진행성 직장암(2∼3기) 환자에게는 방사선 치료를 28회 시행한 뒤 수술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법이다. 이는 환자 진단 시 병기를 낮춰 수술한 뒤 암 재발률을 낮추고, 가능한 한 항문괄약근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br/>강동경희대병원 연구팀은 기존 28회 방사선 치료를 5회 치료로 5분의 1정도 줄였다. 고농도로 5회 치료군은 28회 치료군과 병기 감소율, 항문괄약근 보존율, 주변 부위 재발률 또는 원격 전이율, 환자의 전체 생존율, 무병 생존율 등 모든 임상 항목에서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방사선 5회 치료 시에도 장기간 치료법보다 고농도 항암요법 치료를 하면서 치료효과를 극대화했다</span>”고 했다. 연구팀은 방사선 치료를 적게 받도록 하기 위해 한 번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늘렸다. 반면 방사선 부위를 작게 나눠 종양에 많은 양을 쬐는 반면, 종양 주변 정상조직에 도달하는 방사선량은 최대한 줄였다.<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부작용과 치료효과는 비슷하면서도 전체 치료기간을 5주 이상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같은 치료효과를 보이면서도 치료비를 절감하고 일상생활에도 빨리 복귀할 수 있게 됐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35.txt

제목: [첨단 의료를 달린다]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날짜: 2016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13051220977  
본문: ‘스스로 건강을 디자인하라’<br/><br/>눈부신 의학 발전으로 최근 100여 년간 평균 수명이 4배 이상 늘어났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80세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도 남성 78.5세, 여성 85.1세(2013년 기준)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바람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일생 동안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즉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해 치료할지 여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의 도움말로 ‘스스로 디자인하는 건강’에 대해 알아본다. <br/><br/>건강검진자 중 1.4%가 암 환자<br/>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만 명 이상의 암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암은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29%로 1위다. 암 치료비는 환자 1인당 평균 3,000만원에 달해 경제 부담도 상당하다. 그러나 조기 검진을 통해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80% 이상인데다 치료 기간도 짧아져 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br/>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1.4% 정도가 암 진단을 받았다. 암 진단은 갑상선암(24.2%), 폐암(14.1%), 전립선암(12.1%), 위암(10.7%), 대장암(10.1%), 유방암(6%) 순이었다. 특히 이들 암 가운데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br/> 조기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면 완치율은 높다. 하지만 증상이 이미 나타난 뒤에 발견하면 완치율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황진혁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장(소화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0'>따라서 40대 이후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황 센터장은 또한 “<span class='quot0'>본인과 맞는 검진 항목과 주기는 첫 검진 이후에 의사와 상담을 통해 건강 위험 요인과 가족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덧붙였다. <br/>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암과 함께 전체 사망 원인의 47.7%를 차지해 3대 사망 원인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 질환은 이러한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주 원인이지만 자각 증상이 없어 늦게 발견되기 일쑤다. 만성 질환은 서서히 진행하게 된다.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 질환의 전(前)단계일 때 미리 인지하고 철저한 식이ㆍ운동 조절을 시작하면 약물 치료 시작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 나아가 심장 질환과 뇌혈과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br/>“스스로 건강을 디자인하라”<br/>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의 유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안도형’이다.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세 안도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을 끊어 버리는 사람이다. 둘째 유형은 ‘위임형’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의사가 건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br/> 두 유형에 모두 나타나는 문제점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인식이 없다는 점이다. 만성질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시대로 바뀌는 상황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건강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건강증진법이다.<br/> 건강검진은 건강증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지 동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인자를 파악한 뒤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평생건강관리클리닉처럼 곧바로 이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하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흡연, 과음, 비만, 식이, 신체활동 등 여러 요소의 관리가 적절히 병행되면 약물 치료까지 하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황 센터장은 “<span class='quot0'>건강검진을 받을 때 질병을 찾으러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내 건강을 디자인하겠다’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span>”고 했다.<br/><br/>“<span class='quot1'>최적의 진단과 연계 서비스 제공</span>”<br/> 분당서울대병원은 암 조기 진단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통해 선진 노하우와 차별성으로 건강검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최고의 검진센터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br/>우선 분당서울대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이 직접 검사와 시술을 담당한다. 최첨단 검사장비를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서울대병원의 브랜드에 걸맞은 해당 진료과의 권위 있는 교수진의 외래 진료로 빠르게 연결하는 체계적인 협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br/> 황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우리 병원은 가족력, 과거력 및 생활습관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설계해 연령별, 성별에 따라 고객들에게 최상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pan>”고 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건강검진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1회성 건강검진에 그치지 않게끔 현재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br/>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얻어진 모든 검사 결과와 의사 소견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통합 의료 정보망에 안전하게 저장돼 있고 해당 진료과에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br/> 황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이런 선진 노하우와 차별성으로 분당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스마트 검진 시스템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건강증진센터로 인정받고 있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36.txt

제목: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 대학병원 맞나  
날짜: 2016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13051107745  
본문: 코앞에서 사고 나도 후송 외면<br/>암 전문병원… 중증외상환자 처치 인력ㆍ장비 부족 탓<br/><br/><br/><br/>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이 119구조대와 응급환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병원 코앞에서 사고가 나도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기 일쑤여서 이름만 ‘대학’병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br/>지난 9일 낮 대구 북구 국우동 국우터널 앞. 대회를 앞두고 훈련중인 선수단을 1톤 트럭이 덮쳐 트럭 운전사와 선수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부상자들의 정도에 따라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과 남구 대명동 대구가톨릭대병원, 북구 읍내동 대구가톨릭대칠곡가톨릭병원 등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코앞에 있는 칠곡경북대병원은 외면했다.<br/>119 구조대가 환자를 후송한 칠곡가톨릭병원은 칠곡경북대병원과 같은 칠곡지역에 있지만, 사고현장에서 훨씬 멀다. 게다가 병상 수 158개로 칠곡경북대병원 600병상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br/>이 같은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교육훈련 중 수류탄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을 때에도 구조대는 부대 바로 앞 ‘대학’병원을 놔두고 30여분 거리의 삼덕동 경북대병원까지 내달렸다.<br/>119관계자는 “<span class='quot0'>유사시 환자의 경중과 증상, 병원 수용능력, 이동거리와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응급처치 후 증상에 맞게 치료할 수 있는 진료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후송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칠곡경북대병원은 암전문병원이다 보니 중증외상환자 치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실 병상 수가 24개나 되지만 막상 응급환자는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br/>대구 북구 칠곡지역 주민들은 칠곡경북대병원을 무늬만 대학병원이라며 하루빨리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은 전국 1곳인 중앙응급의료기관, 16곳이 지정된 권역별응급의료센터(경북대병원 등)와 지역응급의료센터(영남대ㆍ동산ㆍ대구가톨릭대ㆍ파티마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칠곡경북대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br/>이에 따라 칠곡경북대병원도 응급실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기능 강화에 나섰지만 2018년쯤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 임상실습병동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응급실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br/>칠곡경북대병원은 이달 말까지 대구시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의사가 2명뿐이던 응급실에 올 들어 소아전문의 1명, 응급의학 전문의 2명 등 전문의 3명과 전공의 1명 등 4명으로 늘렸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계 응급환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혈관조영촬영장치도 30여억 원을 들여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도입할 계획이다.<br/>칠곡경북대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암전문병원으로 출발, 병원 규모에 비해 진료과가 제한적이어서 응급환자 처치에 한계가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고 혈관조영촬영장치가 도입되면 칠곡지역은 물론 인근 경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다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하지만 700병상 규모의 임상실습병동이 문을 열기까지는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은 무늬만 대학병원 응급실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br/>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37.txt

제목: 하루 한 갑 ‘30년 골초’ 폐암 무료검진  
날짜: 2016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13051028137  
본문: 사망률 가장 높아 조기 발견 목적<br/>내년부터 시범사업 8000명 혜택 <br/>통합지지센터 권역별로 설치해<br/>137만 암 생존자 사회복귀 지원도<br/><br/>우리나라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 검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료로 이뤄진다. 암 생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도 설립된다. <br/>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은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암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br/>이번 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폐암이 국가암검진(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암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신규로 포함된다. 현재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지난 30년 간 하루 한 갑씩, 또는 15년 간 매일 두 갑씩 담배를 핀 55세 이상 74세 이하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한다. 정부는 금연클리닉 이용자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대상자를 추릴 계획이다. <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사망률이 가장 높고, 5년 생존율이 두 번째로 낮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내년에 폐암검진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span>”이라고 설명했다. <br/>이에 대해 류정선 인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성인 남성 흡연비율이 40%가 넘는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폐암을 국가암검진 항목에 추가해 보다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 긍정적</span>”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열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span class='quot2'>암 환자를 찾기 위해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검사 받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폐암 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 <br/>137만명에 달하는 암 생존자(암 진단 받은 후 5년 이상 생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지센터도 권역별로 설치된다. 암 생존자들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데다 학업ㆍ직장 생활이 중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이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센터는 맞춤형 식단, 재활 프로그램, 진로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br/>이밖에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의사 간호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병동이 없는 병원의 일반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팀이 방문해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는 자문형 등이다. 소아 암 환자 대상 호스피스 체계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85.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0.3명)보다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대책들을 통해 2020년까지 암 발생률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br/>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38.txt

제목: 건강기능식품 말기암 완치제로 둔갑시킨 일당  
날짜: 201609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10050540309  
본문: 서울 성동경찰서는 누에고치로 만든 일반 가공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가공식품 판매업체 대표 윤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br/>경찰에 따르면 윤씨 일당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 사무실에서 노인과 중증 환자들을 상대로 누에고치 추출물로 제조한 가공식품을 “암과 불치병을 완치시킨 약”이라고 속이는 등 허위ㆍ과장 광고를 해왔다. 이들은 제품당 15만원에 불과한 누에고치 추출물을 7배나 비싼 99만원짜리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킨 뒤 3,032박스를 팔아 30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br/>조사 결과 일부 피해 노인들은 허위 광고에 속아 오히려 지병이 악화했으며 병원 약을 끊고 가짜 만병통치약만 먹다가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에 걸린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판단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상대로 과장을 일삼은 건강식품 제조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span>”이라고 말했다. <br/>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39.txt

제목: [강남세브란스와 함께 하는 건강 Tip] “종일 TV만 보다간 죽을 수 있다?”  
날짜: 201609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06050914798  
본문: 더위가 지나고 환절기가 되면서 혈관건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폐색전이나 뇌경색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을 알아본다.<br/>Q TV 시청만해도 사망할 수 있다는데.<br/>“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인한 폐색전증을 말한다. 최근 일본 오사카대는 40~79세 남녀 6,024명을 대상으로 18.4년 동안 추적 조사해 TV를 하루 5시간 이상 시청한 사람은 2.5시간 미만 시청한 사람보다 심부정맥혈전증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2배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특히 60세 미만에서는 TV를 하루 5시간 이상 보는 사람이 2.5시간 이하 보는 사람보다 폐색전증 위험이 무려 6배, 2.5~4.9시간 보는 사람은 3배 높았다고 한다.”<br/><br/>Q 심부정맥혈전증이 왜 위험한가.<br/>“‘이코노미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심부정맥혈전증은 다리 쪽의 정맥에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막아 생기는 질환이다. 주로 다리에 부종과 통증을 유발한다. 문제는 여기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혈관을 타고 올라와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을 일으킨다는 것이다.”<br/><br/>Q 어떤 사람이 잘 생기나.<br/>“주로 고령인이나 척추수술 등으로 움직이기 힘든 사람, 각종 암 수술과 항암치료 중인 이가 고위험군이다. 젊은이도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앉은 자세로 게임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 경우, 장시간 항공여행하는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다. 임신부나 여성 호르몬이나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에게도 생길 수 있다.” <br/><br/>Q 치료법은.<br/>“가벼운 심부정맥혈전증은 혈전용해제로 혈전을 녹이면 된다. 그러나 폐색전을 일으키는 등 심각하게 혈관을 막으면 혈전용해제와 함께 카테터를 넣어 혈전을 직접 없앤다.”<br/><br/>Q 어떻게 예방하나.<br/>“위험인자인 비만, 고혈압, 당뇨병을 철저히 관리한다. 장기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움직이거나 스트레칭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장기간 중환자실 등에 누워 있어 생길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은 항응고제를 예방적으로 쓰기도 한다.”<br/><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40.txt

제목: 사람 잡는 고농도 니코틴 원액 불법 수입해 팔아도 감독 없었다  
날짜: 201609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06050854817  
본문: 공업용으로 30~90% 원액 수입<br/>8~42%로 희석 시중에 판매 <br/>“<span class='quot0'>치명적 수준… 일반제품은 6%대</span>” <br/>수입 전 허가ㆍ단속 등 규제 없어 <br/>살인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br/><br/><br/>허용치의 20배가 넘는 ‘고농도 니코틴’ 액상을 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유통한 니코틴액은 성인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독성이 강했지만 농도 및 품질에 대한 수입허가 규제가 없어 범죄 악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br/>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미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수입해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불법 제조ㆍ유통ㆍ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로 전자담배 유통업체 대표 김모(54)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br/>김씨 일당은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수요가 폭증할 조짐을 보이자 2014년 7월부터 2년 간 농도가 각각 30~90%인 값싼 니코틴 274ℓ를 중국 등에서 수입했다. 이후 니코틴 용액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을 섞어 8~42%로 농도를 낮춘 뒤 병(1~2㎖)에 담아 개당 1,500~5,000원을 받는 등 총 3억8,625만원어치를 시중 전자담배 판매점에 팔아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필렌글리콜은 담배를 피울 때 연기 효과를 나게 하고 글리세린은 연기의 양을 많게 하는 물질로 전자담배 제조 시 니코틴과 섞어 쓴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피의자들은 전자담배 이용자 중 고농도 니코틴을 찾는 소비자를 노려 ‘맞춤형 상품’을 제조했다</span>”며 “<span class='quot1'>농도가 세질수록 마진율도 높아져 불법을 감수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문제는 김씨 등이 판매한 니코틴 농도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신경전달물질인 니코틴이 몸 속으로 들어오면 신경을 자극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호흡과 심장박동에 영향을 준다. 익명을 요구한 전자담배 유통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전자담배용 니코틴 농도가 6%, 즉 1㎖ 용기에 60㎎만 들어 있어도 치사량으로 판단한다</span>”며 “<span class='quot2'>피의자들이 유통한 니코틴액은 농도가 훨씬 높아 희석하지 않고 흡입할 경우 호흡이 정지할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대다수 의학 전문가들도 사망 여부를 가르는 니코틴 유입량 기준을 35∼65㎎(60㎏ 성인남성 기준)으로 보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들이 유통한 니코틴액에는 톨루엔 아세트할데히드 크렌실 등 중추신경장애와 암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br/>그러나 김씨 일당이 니코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농도 2%를 넘는 니코틴액을 판매하려면 환경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고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의자들처럼 니코틴을 수입단가가 낮은 살충제 등 ‘공업용’으로 들여온 뒤 전자담배 원료로 둔갑시켜도 규제할 방법 역시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br/>경찰은 독성이 강한 니코틴 원액이 강력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무색ㆍ무취한 니코틴액은 물과 구별되지 않아 고농도 원액은 충분히 범죄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4월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40대 여성이 50대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을 탄 음료를 몰래 먹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상희 호서대 바이오응용독성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고농도 니코틴 원액은 극소량이라도 죽음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이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41.txt

제목: 삼성의 품질 완벽주의  
날짜: 2016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903051055919  
본문: 삼성이 이미 판매된 갤럭시노트7 전 제품을 새로 교환해주기로 결정하며 삼성의 품질 완벽주의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품질에 대해선 추호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게 재계 해석이다. <br/>이 회장은 삼성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개선 문제 등을 고민하던 지난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임원 200여명을 소집, “불량은 곧 암이다. 삼성은 양(量) 위주의 의식·체질·제도·관행에서 벗어나 질(質) 위주로 철저히 변해야 한다”며 ‘신경영’을 선포했다. 처음엔 일부 임원과 사장들이 “<span class='quot0'>아직까지 양을 포기할 수는 없다</span>”며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뜻은 확고했다. 이 회장은 “<span class='quot1'>100만개 중에 1개의 불량이 나면 불량률이 낮다고 할 지 모르지만, 그 하나를 선택한 소비자는 100% 삼성 제품이 불량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span>”며 완벽한 품질 관리를 요구했다. 이 때부터 품질 완벽주의는 삼성이 가장 중시하는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br/>삼성의 품질 완벽주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바로 95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의 ‘불량 제품 화형식’이다. 삼성전자 무선전화기 사업부는 94년 휴대폰 애니콜 출시를 서두르다 불량률이 11.8%까지 치솟았다. 이 회장은 이듬해 1월 불량품을 무조건 새 제품으로 바꿔줄 것을 지시했다. 수거된 불량 휴대전화 15만대(약 500억원)는 같은 해 3월 경북 구미사업장 운동장에서 직원들이 해머로 산산조각 낸 후 모두 불태워졌다. 이 장면을 임직원 2,000여명이 지켜봤다.<br/>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집에서 사용하던 지펠 냉장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2009년 10월에도 국내에서 판매된 양문형 냉장고 21만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냉장고 21만대 리콜은 당시 국내 백색 가전업계 사상 처음이자 최대 규모였다. 삼성전자는 당시 “<span class='quot2'>문제발생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리콜 조치를 취하게 됐다</span>”고 밝혔다.<br/>이런 과정을 거쳐 삼성은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했고, 반도체 D램, 평판 TV, 스마트폰 등의 제품이 속속 세계 1위에 오르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42.txt

제목: 암환자 세균감염 예방주사 부담 84만원→4만원  
날짜: 201608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31051000379  
본문: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균 감염 위험을 줄여주는 주사제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br/>보건복지부는 암 환자의 호중구(백혈구)감소증 예방 및 치료 약제로 쓰이는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CSF)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호중구는 백혈구를 구성하는 면역세포로,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받을 경우 몸에 침범한 세균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호중구가 급감해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흔히 발생한다. <br/>이번 조치로 G-CSF 주사제 중 호중구감소증 예방용으로 투여되는 4개 제재는 건보가 적용되는 암 종류가 5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나 방광암, 골암, 중추신경계암 등이 새로 편입된다. 건보 적용 항암요법의 종류도 11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나 호중구감소증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요법들도 일부 포함된다. <br/>이에 따라 G-CSF 주사제(1주기 분 기준)의 환자본인부담금은 기존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소한다. 치료용일 때만 건보 적용을 받던 G-CSF 주사제 2종 역시 보험 적용 범위가 소아 암환자의 예방적 투여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조치로 암환자 4,700명 가량이 치료비 절감 혜택을 볼 것</span>”이라고 내다봤다. <br/>한편 복지부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에 대한 건보 적용 연령 상한을 기존 18세에서 65세로 확대, 성인 환자로 수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성인 환자 1인당 60만7,200원 수준이던 약값(5개월 투약 분)은 18만2,16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성인 ADHD 환자는 아동기에 진단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br/>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43.txt

제목: “우리가 마지막”이란 각오로 치료  
날짜: 2016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30051118112  
본문: 정형ㆍ성형외과 등 진료과 협진 구축해 치료효과 극대<br/>치료ㆍ입원기간 단축해 빠른 재활 유도…“환자 삶의 질 향상”<br/><br/>하굣길에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입은 K(9)양. 골절은 물론 심하게 피부까지 벗겨져 신속한 치료가 필요했다. K양처럼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서 치료하면서 피부를 봉합한다. 봉합된 피부는 염증으로 인해 괴사 가능성이 높다. 피부가 괴사되면 이 피부를 제거하고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피부를 이식하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수술횟수를 줄여 K양처럼 어린 환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원기간을 단축해 재활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0'>관절치료의 성패는 신속한 수술에 달려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치료가 2~3주 늦어지면 재활치료를 해도 예후가 좋지 않다</span>”고 했다.<br/>응급수술부터 재활까지… 국내 최초 전문센터 운영<br/> 골반 이하 하지중증외상을 신속히 치료하는 병원이 바로 이대목동병원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올 2월 국내 최초로 하지중증외상센터를 열었다. 각종 암ㆍ심혈관ㆍ뇌 질환 등에 집중하고 있는 3차 의료기관에서 하지중증외상치료 전문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br/> 이대목동병원이 하지중증외상센터를 육성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 1일 문을 연 권역응급센터가 있기 때문이다.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센터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권역응급센터에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를 분류해 하지중증외상을 입은 환자는 곧바로 하지중중외상센터 전문의에게 연결된다. <br/> 이대목동병원 하지중증외상센터의 강점은 다학제 진료에 있다. K양처럼 골절과 함께 피부조직이 손상된 개방성 골절 환자는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함께 치료해야 된다. 피부는 외부에서 침투하는 세균과 이물질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데 외상으로 피부가 찢어지면 골절된 부위에 세균이 침투해 치료를 해도 뼈가 잘 붙지 않고 감염 위험성도 높아진다. 이승열 하지중증외상센터장은 “<span class='quot1'>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 중에는 피부가 아예 떨어져나간 이들도 많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이런 환자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관련 진료과와 협진을 통해 치료한다</span>”고 말했다. <br/>하지중증외상, 신속한 초기치료 중요 <br/> 외상을 당한 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외상충격으로 혈관이 막혀 외상부위가 썩는 ‘외상성 혈행장애’는 정형외과, 혈관내과, 영상의학과 등이 협진을 통해 치료한다. 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외상성 혈행장애는 처음에는 증상이 없지만 혈관이 막혀 외상부위가 차가워지고, 색깔이 변하는 것이 특징</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혈관내과, 영상의학과 진료를 통해 막힌 혈관을 찾아 치료를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외상으로 인한 하지 절단, 교통ㆍ추락사고 등으로 하지 여러 부위가 골절된 다발성 골절은 각 부위별로 세부 전문의가 진료한다</span>”고 덧붙였다.<br/> 하지중증외상센터가 이처럼 다학제 진료에 집중하는 것은 하지중증외상은 초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0'>하지에 발생하는 중증 외상은 복합골절, 개방성골절과 함께 피부, 근육 등 연부조직 손상이 동반되고, 여기에 혈관, 신경 손상도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치료가 관건</span>”이라고 했다. 초기 치료가 늦어지면 감염, 연부조직 결손 등 합병증,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 외상이 발생한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중증외상 치료의‘골든 타임’이 바로 초기 치료인 셈이다.<br/> 이에 이대목동병원 하지중증외상센터에서는 ▦수술횟수 최소화 ▦진료기간 단축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목표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지금도 하지중증외상 환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첫 방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현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초기 치료부터 다학제 진료를 통해 수술횟수를 최소화시켜 환자안전은 물론 진료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재활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하지중증외상센터에서는 치료는 물론 환자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우리 센터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이들이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센터에서는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여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에 신경을 쓰고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1'>외상을 당해 3차 의료기관까지 온 환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환자</span>”라면서 “<span class='quot1'>우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아직도 중증외상의 경우 머리나 복부 손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하지외상의 중요성이나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태</span>”라면서 “<span class='quot1'>하지만 보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하지중증 외상은 치료결과에 따라 환자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화된 치료시스템을 구축해 치료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1'>국내 최초로 하지중증외상센터를 개소한 만큼 환자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span>”이라고 포부를 밝혔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44.txt

제목: [헬스 프리즘] 간암 수술 사망률 세계 최저…그 비결은?  
날짜: 2016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30051117237  
본문: 김기훈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br/>50대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진료실을 찾았다. 최근 건강검진 초음파검사에서 간암을 발견해서다. 정밀검사 결과 간 오른쪽 부분(우엽)에 4㎝ 가량 암 덩어리가 있었다. 다행히 암이 한 덩어리였고 전이되지 않아 수술하게 됐다. 특히, 암 위치나 복압을 올리는데 문제 없어 최소침습수술인 복강경 간우엽 절제술이 가능했다. 배를 30㎝ 이상 가르는 개복 수술 대신 복부에 5㎜ 정도의 작은 절개 창을 내고 5개의 수술기구를 넣어 간을 잘랐다. 복강경 간우엽 절제술을 통해 흉터와 통증은 줄었고, 어떤 합병증 없이 1주일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br/>근치적 간암 치료법인 간 절제술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수술로 꼽힌다. 출혈 가능성 때문이다. 3,000억 개 이상의 간세포로 구성된 간은 1.2~1.5㎏에 달하며 인체 내 혈액의 3분의 1정도가 저장돼 있다. 수많은 혈관이 지나가 출혈되면 스펀지처럼 배어 나오게 되고 출혈 부위도 찾기 힘들다. 또 간은 아무리 잘 잘라도 남아 있는 간이 용량이 적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 사망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br/>우리나라는 고난도 간 절제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최근 간암수술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아주 낮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도 나왔다. 2014년 7월~2015년 6월 간암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5,371명을 분석한 결과,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8개국 간암수술환자 100명 당 평균 사망률은 2.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00명당 0.9명에 불과했다.<br/>의료 선진국을 모두 제친 한국의 성과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풍부한 임상경험과 선도적인 치료기술이 비결로 생각한다. 특히 말기 간질환 치료법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생체 간이식 수술은 간암수술 발전의 밑바탕이다. 건강한 사람의 간 일부를 간질환 환자에게 떼어주는 생체 간이식 수술은 간암 절제술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간 하나를 둘로 나눠 기증자와 환자를 모두 살려야 하는 만큼 최고의 기술을 요한다. 서울아산병원에서만 세계 최다인 4,300여 건의 생체 간이식 수술이 시행됐고, 97%라는 세계 최고 생존율을 기록했다.<br/>간을 떼주는 기증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도 없다. 이러한 세계 최고의 축적된 실력과 경험이 간암수술의 세계 최저 사망률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간암 환자 모두 우리나라의 뛰어난 간암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불행히도 현재 간암 환자의 40% 정도만 수술이 가능하다. 발견됐을 때 이미 수술하기 힘들 정도로 암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릴 만큼 웬만해서는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br/>우리나라는 B형 간염과 잦은 음주 등으로 말기 간질환 유병률이 계속 늘고 있다. 대부분 BㆍC형 간염 환자가 간암으로 악화된 만큼 주기적으로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받는 것이 필수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45.txt

제목: [강남세브란스와 함께 하는 건강 Tip] 술 마시며 피우는 담배, 두경부암 천적  
날짜: 2016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30051115414  
본문: Q. 두경부암이란.<br/>“두경부암이란 말 그대로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이다. 구강암(입술암, 잇몸암, 혀암), 구인두암(연구개암, 설근부암, 편도암), 하인두암(식도입구암), 후두암, 침샘암 뿐만이 아니라 갑상선암까지 뇌와 눈을 제외한 머리와 목 부분에 발생하는 모든 암을 말한다.”<br/><br/>Q. 흡연때문에 많이 발병한다는데.<br/>“두경부암은 국내에서 6~7번째로 흔한 암이다. 흡연은 두경부에 있는 입, 코, 인후 등 여러 곳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큰 위험인자로 꼽힌다. 특히 술을 마시면서 흡연하면 암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이밖에 유전 요인과 구강위생 불량, 미세먼지, 공해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연구 결과, 바이러스 감염이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가 편도암 등 구인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HPV 연관 구인두암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30~50세)에서 나타난다.”<br/><br/>Q. 수술이 어려운 이유는.<br/>“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머리ㆍ목 부위이다 보니 수술 자체가 어렵고, 암수술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절제해야 하기에 수술 후 호흡, 목소리, 음식물 섭취나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얼굴과 목은 인체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부위여서 미용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과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수술이다.”<br/><br/>Q. 수술 후유증을 줄일 수 없나.<br/>“후유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새로운 수술법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개발된 경구강로봇수술은 환자 입으로 수술용 로봇 팔이 들어가 목 안 깊숙이 위치한 종양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때문에 외부에 흔적이 남지 않고 수술로 인한 절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귓바퀴 뒤를 자르고 로봇팔로 수술하는 로봇경부종양 절제술로 얼굴이나 목에 흉터가 남게 되던 기존 수술방식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br/><br/>Q. 방사선치료로도 가능하다던데.<br/>“과거 방사선 치료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나, 전이성 말기암 환자에게나 행하는 치료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 조직에만 원하는 방사선량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맞춤형 방사선 치료가 개발됐다. 특히 일부 두경부암의 경우 토모테라피와 같은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만으로도 수술과 비슷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br/><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46.txt

제목: [헬스 파일]  
날짜: 2016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30051114648  
본문: 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 4가’ 내놔<br/>SK케미칼은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4가’를 내놨다. 이 백신은 만 3세 이상부터 접종할 수 있는 세계 최초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이다. 한 번 접종으로 4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 예방할 수 있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스카이셀플루 4가는 국내 성인 1,503명, 어린이 454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만 3세 이상 전 연령대에서 면역원성을 입증했다</span>”고 했다.<br/><br/>강동경희대, 고위험군ㆍ신생아클리닉<br/>강동경희대병원은 고위험군 신생아ㆍ소아성장발달클리닉을 열었다. 이 클리닉은 미숙아, 저체중출산아, 조산아 및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치료한다. 이 클리닉은 신생아과, 소아신경과, 재활의학과 진료를 같은 시간대에 원타임으로 이어서 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02)440-7173<br/>연세의료원, 칭다오세브란스 기공<br/>연세의료원이 중국 칭다오 라오산구 국제생태건강도시구역에 1,000병상 규모의 칭다오세브란스병원 기공식을 가졌다. 병원은 연세의료원과 중국 산둥성 신화진그룹이 합자형태로 건립하는 병원이다. 병원은 칭다오시가 친환경 신(新)도시구역으로 조성한 347만㎡(105만여평) 국제생태건강구역 내 15만5,370여㎡(4만7,000여평)로 건립된다.<br/><br/>이대목동, 암환자 성재활센터 열어<br/>이대목동병원은 수술 뒤 성기능 재활에 실패한 암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암환자 성재활센터’를 개소했다. 성재활센터는 전립선암, 방광암, 직장암 등에서 수술 후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를 초기부터 적극 관리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술 후 성기능 장애 환자가 약물 치료로 성기능 재활에 실패하면 적극적인 수술 치료로 암환자의 성기능 회복을 돕는다.<br/><br/>고대안암, 전극도자절제술 3000례<br/>고대안암병원 부정맥센터가 최근 국내 최초로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3,000례를 달성했다. 이 병원 부정맥센터는 1998년 전극도자절제술 국내 최초 도입 및 2004년 국내 최초 부정맥센터 설립 이후 지금까지 최초, 최다의 수식어를 놓치지 않고 있다. 특히 시술건수뿐만 아니라 완치율이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br/>유디치과, 소원섭 개인전 개최<br/>유디치과 강남뱅뱅점(대표원장 박진형)은 서울 서초동 유디갤러리에서 다음달 22일까지 미술작가 소원섭의 개인전을?연다. 박진형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1'>소원섭 작가의 작품이 도심 속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긍정의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유디갤러리는?환자의 대기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환영 받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47.txt

제목: [태블릿+]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롱퀵스 프리필드주’ , 주기당 1회만 투여해도 효과  
날짜: 2016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30051114097  
본문: 호중구는 백혈구를 구성하는 면역세포다.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침입하면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몸 속 호중구 수치가 줄어드는 호중구감소증은 항암치료를 하면 생기는 가장 흔한 합병증이다. 열까지 나면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이라고 한다.<br/>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은 그 자체로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항암치료 스케줄과 용량에 영향을 준다. 일부 암 환자에서는 항암치료가 중단돼 종양 치료 자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br/>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암환자에게 생긴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을 치료하려면 백혈구 조혈 촉진인자(G-CSF) 투약을 고려할 수 있다. 1세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는 항암화학요법 치료 1주기당 4~6회 주사했다.<br/>그러나 2세대 치료제가 나와 1주기당 1회 투여로 약효가 지속돼 투여 주기를 크게 늘렸다. 2세대 약물 중 하나인 ‘롱퀵스 프리필드주’(성분명 리페그필그라스팀)는 암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발생과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발현기간을 줄이는 지속형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다.<br/>항암치료 과정에서 호중구감소증은 암 환자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심각한 증상이다. 따라서 투여 편의성뿐만 아니라 투여 후 호중구 수치의 빠른 회복과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발현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br/>롱퀵스는 독자적인 글리코페길레이션(GlycoPEGylation) 기술을 적용, 분자구조학적 개선을 통해 기존 2세대 치료제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다. 유방암 환자 1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연구에서 절대호중구수치(ANC) 최저치로부터 회복까지 시간이 기존 페그필그라스팀 제제보다 1.5일 더 빨랐다.<br/>롱퀵스는 2013년 8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신약으로 최초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는 지난 6월 출시돼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결과도 내놨다. 최근 G-CSF주사제 예방적 투여에 대한 급여기준이 개정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암종이 확대됐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48.txt

제목: 전국 쌍둥이 다 모여라  
날짜: 2016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29050841130  
본문: 충북 단양군은 다음 달 3, 4일 이틀 동안 남한강변 단양 생태체육공원에서 ‘제1회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br/>쌍둥이를 주제로 한 축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br/> 축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국의 쌍둥이를 초청해 장기자랑, 운동회,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한다.<br/> 첫 날에는 쌍둥이 듀엣 가요제와 장기자랑, 버블쇼 마술 공연이 열리고 둘째 날에는 쌍둥이 가족 운동회가 펼쳐진다.<br/> 인기 쌍둥이 연예인들이 축제장을 찾는다. <br/>쌍둥이 개그맨 이상호ㆍ상민 형제가 개그쇼를 선보이고 쌍둥이 트롯 가수 ‘윙크’가 인기 개그우먼 안소미와 암께 쌍둥이 가요제와 장기자랑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br/> 축제 기간 단양 특산물인 아로니아, 오미자를 활용한 풀장 체험, 얼음 공예, 별 관측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다. <br/> 행사 기간에 다누리아쿠아리움, 온달관광지, 고수동굴 등 주요 관광지는 입장료를 25% 할인하고 단양관광호텔 등 일부 숙박시설은 숙박료 할인 이벤트를 한다.<br/> 류한우 단양군수는 “<span class='quot0'>쌍둥이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통해 저출산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이번 축제를 기획했다</span>”고 말했다.<br/>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49.txt

제목: 태광그룹 차명 상속재산 소송전... 이호진 전 회장 승소  
날짜: 2016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26051405012  
본문: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차명 상속재산을 나눠달라며 누나와 조카, 이복형 등에게서 줄소송을 당한 셋째 아들 이호진(54) 전 회장이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br/>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정운)는 25일 이 전 회장의 조카 원준(38)씨 등 4명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원고 자격 미달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소송 내용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 전 회장의 이복형인 이유진(56)씨가 같은 취지로 낸 별도 소송 역시 각하됐다. 이원준씨 등 4명은 각자 몫으로 태광산업 보통주 각 1,027주와 태한화섬 보통주 각 298주, 4,000만원씩을, 이유진씨는 두 회사 주식 총 603주를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br/>재판부는 “<span class='quot0'>이 전 회장이 1999년부터 차명주식을 배타적으로 점유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 소송은 10년이 지나 제기됐다</span>”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상속회복을 청구할 권리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걸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br/>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 김영학)도 이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재훈(60)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재훈씨는 태광산업 주식 1만7,153주와 대한화섬 주식 4,882주, 78억6,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2012년 말 이유진씨에 이어 두 번째로 소송을 냈었다. 재훈씨는 “<span class='quot1'>이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2011년 1월 피해액 변제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빌린 돈이 77억6,000만원에 이른다</span>”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br/>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이듬해 6월 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br/><br/>손현성 기자 hshs@hank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50.txt

제목: 91세 노마 할머니의 ‘버킷리스트’ 여행  
날짜: 2016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26051350079  
본문: 암 선고에 길에서의 여생 택해<br/>1년간 미국 32개주 2만여㎞ 여행<br/>물개와 입맞추기, 첫 승마…<br/>할머니의 도전에 네티즌 열광<br/>“<span class='quot0'>내 여행이 사람들에 영감을 주길</span>”<br/><br/><br/>첫 열기구 여행, 첫 승마, 첫 페디큐어 받기. 한 미국 여성의 최근 1년은 평생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하다. 미 대륙 횡단 여행을 하고 있는 그는 시간 변경선을 아홉 차례 이상 넘나들며 새 친구들을 사귀고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해가고 있다. 패기 넘치는 젊음으로 배낭여행을 다니는 청년을 상상하기 쉽지만, 1년의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은 백발의 91세 할머니, 그것도 자궁암과 싸우고 있는 암 환자다. 병원에 머무르는 대신 길 위에서의 여생을 택한 노마 바우어슈미트(91ㆍ이하 노마) 할머니의 여행이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br/><br/>노마 할머니와 함께 여행 중인 아들 팀 부부는 2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페이지 ‘드라이빙 미스 노마’(Driving Miss Norma)를 통해 여행 1주년을 알렸다. 세 가족은 반려견 링고와 함께 지난해 8월 레저용 차량에 몸을 싣고 미국 미시간주 프레스크아일을 출발해 북미대륙 일주 여행을 시작했다. 노마 할머니가 자궁암 진단을 받은 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항암 치료 대신 무기한 여행을 결심한 할머니는 어느 때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미국 32개주 75개 도시를 돌며 약 2만1,000㎞에 달하는 거리를 누볐다. <br/>할머니의 여정이 페이스북을 통해 전해 지자 수십만명의 독자들이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현재 드라이빙 미스 노마 페이지에 올라 오는 할머니의 여행 소식을 받아 보는 페이스북 사용자는 42만3,700여명에 달한다. 이 네티즌들은 키 152㎝, 체중 45㎏의 아담한 체구인 할머니가 굴 맛보기, 물개와 입 맞추기 등 끊임없이 크고 작은 시도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고 “<span class='quot1'>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갈 용기와 위로를 얻는다</span>”고 열광했다. 일약 유명 인사가 된 할머니는 미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초청으로 그랜드캐니언, 옐로스톤을 비롯한 20여개 국립공원 행사에 참석하는 등 미국 각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br/>노마 할머니와 가족이 여행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은 ‘매 순간의 소중함’이다. 노마 할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여행 중 어디가 가장 좋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바로 이곳”이라고 답한다. 아들 내외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행”이라며 “(여행을 통해) 삶과 사랑, 그리고 현재의 순간들을 온 힘 다해 껴안는 법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br/>노마 할머니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행을 계속할 계획이다. 암 진단 후 한번도 의사를 다시 찾은 적이 없는 그는 인위적인 생명 연장 역시 원치 않는다고 이미 아들 내외에게 밝혔다. 할머니는 “병실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는 대신 길로 나서기를 잘했다 생각한다”며 “내 여행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영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작은 소망을 내비쳤다.<br/><br/>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51.txt

제목: 내 몸이 보내는 신호! 통증편  
날짜: 2016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26051140744  
본문: 콕콕 쑤시거나 지끈지끈 거리는 통증! 자꾸만 허리가 쿡쿡 쑤시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면 그 통증을 의심해 보자. '참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에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간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 통증에 대해 알아보자.<br/><br/>1. 아침 두통<br/><br/><br/>아침부터 지끈지끈 두통에 시달린다면 가볍게 넘어가지 말자. 두통이 아침에 가장 심하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아침 두통은 구토를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기침이나 운동을 하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초기 뇌종양 증상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아침 두통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의사를 찾아 진단을 받아보자<br/><br/><br/>2. 심한 복통<br/><br/><br/>가끔 배꼽부터 가슴뼈까지 따끔따끔 찌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만약 공복에 통증이 가장 심하고 식사 후 나아지는 느낌이 있거나 흑변을 볼 경우 위궤양을 포함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br/><br/>3. 다리 통증<br/><br/><br/>단순히 다리 부종이 아니라 부종과 함께 통증이 느껴진다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쪽 다리 중 특히 종아리 부분이 많이 붓는다면 다리에 응혈이 생겼다는 증상일 수 있다. 응혈은 비행기나 자동차에 오랫동안 타거나 침대에 오랜 시간 누워 있을 경우 종종 발생하는데 책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현대인들이나 수험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다.<br/><br/>4. 허리 통증<br/><br/><br/>만약 허리를 많이 썼을 때 느껴지는 통증이 아니라 밤에 잠 못 들 정도로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의사를 찾아야 한다. 통증과 함께 열이 나거나 살이 빠진다면 심각할 경우 암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br/><br/>5. 발이 저리는 느낌<br/><br/><br/>발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하나다. 하지만 평소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발 저림 현상은 지금 몸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라 할 수 있다. 발이 저리는 느낌이 들 경우 당뇨병 발병의 전조를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br/><br/><br/>쉐어하우스 제공 (필자: 정은미) ▶ 원문보기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52.txt

제목: 이대목동병원, 암환자 성재활센터 개소  
날짜: 2016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24051108051  
본문: [한국스포츠경제 채준]<br/> <br/>이대목동병원이 암 수술 후 성기능 재활에 실패한 암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암환자 성재활센터'를 열었다.<br/><br/> 이대목동병원은 23일 암환자 성재활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정식 진료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승철 이화의료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등 경영진과 정우식 암환자 성재활센터장, 이동현 방광암/인공방광센터장, 윤현석 비뇨기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br/><br/> 암환자의 성기능 장애는 골반 내 근치적 수술 후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다. 전립선암, 방광암, 직장암 등에서 수술 후 신경 손상에 의한 성기능 장애가 8~82%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r/><br/> 이암환자 성재활센터는 전립선암, 방광암, 직장암 등에서 수술 후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를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술 후 성기능 장애 환자가 약물 치료로 성기능 재활에 실패한 경우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통해 암환자의 성기능 재활을 추구한다. 실제로 약물 치료로 성기능 재활에 실패한 환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는 보형물 삽입(Penile Prosthesis Implantation, PPI)이며, 그 중 '세조각 팽창형 (3-Piece Implant) 음경 보형물 삽입'이 가장 뛰어난 수술로 알려지고 있다.<br/><br/> 정우식 이대목동병원 암환자 성재활센터장은 "최근 조기 진단과 의술의 발달로 여러 암에서 환자의 생존률이 향상됨에 따라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암환자 성재활센터는 이대목동병원 암환자는 물론 타 병원에서 성기능 재활에 실패한 암환자의 성기능 재활을 담당하는 '4차 진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53.txt

제목: 뇌졸중, 폭염 후 환절기에 더 위험하다  
날짜: 2016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23051712802  
본문: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무더위 후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는 뇌졸중 위험성이 더 커진다. 폭염으로 인해 인체 내에 수분이 줄어들면서 혈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인체 내 수분량이 줄어들면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있던 혈전은 더욱 커지고, 새로운 혈전도 생성되기도 한다.<br/> 게다가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면 일교차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관에 영향을 미친다. 혈관이 더욱 수축되고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뇌졸중 위험성을 높인다. 한 연구결과, 기온이 1도 오르면, 사망률은 16% 증가하고, 뇌졸중 사망자는 2.3%에서 5.4%로 높아졌다. 일교차가 심해질수록 뇌졸중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철환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기온이 떨어지는 환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span>”고 했다.<br/><br/>일교차 심해지면 뇌졸중 위험<br/> 뇌혈관이 막혀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거나(뇌경색), 혈관 파열로 출혈이 생기면(뇌출혈) 갑자기 여러 가지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뇌졸중이다. 하나의 병명이라기보다 증후군을 뜻한다.<br/>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가운데 암 다음으로 많다. 이 가운데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큰 사망원인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가운데 50.3명(통계청, 2013년 사망원인 통계)이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사망하지 않더라도 치료기간이 길고 필연적으로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생긴다. <br/> 우리나라에서 뇌졸중 원인은 지금까지 주로 60대 이상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성 뇌졸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복잡하고 힘든 경쟁사회 분위기 때문에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40, 50대에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br/> 뇌졸중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요인으로는 흔히 고혈압을 꼽는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뇌출혈과 뇌경색증 모두 일으키기 쉽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뇌졸중 발병 위험이 2배 이상이며, 심장질환 환자도 뇌졸중 위험이 높다. 이와 함께 흡연과 잦은 음주, 콜레스테롤, 비만, 과체중 등도 뇌졸중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이다.<br/>계절적으로 뇌졸중은 기온이 갑자기 변하는 환절기(초봄, 초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김용배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무더위 뒤 환절기가 되면 뇌혈관의 혈관 수축폭도 커지면서 혈관 내막에 혈전이 달라붙어 막히거나, 약해진 혈관이 파열되기 때문</span>”이라고 했다.<br/><br/>“<span class='quot1'>전조 증상 잘 살피면 막을 수 있어</span>”<br/>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도 본인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증상이 조금씩 악화하기 때문이다. <br/> 하지만 뇌졸중 발병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10~20% 뇌졸중이 발병하기 전에 혈전이 일시적으로 뇌혈관을 막아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며,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갑자기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심한 두통이 생기고, ▦어지러우면서, 한쪽이나 양쪽으로 자꾸 넘어지는 등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br/> 많은 환자가 짧게 나타나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뇌졸중으로 악화되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다. 또한 쉽게 구할 수 있는 혈액순환제제로 대체해 증상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질환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흘려버려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 된다.<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2'>뇌졸중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이른 시간 내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방향을 잡아 간다면 병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막을 수 있다</span>”고 했다. 뇌졸중 치료의 골든 타임은 발병 3시간 이내다. 따라서 3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br/>이영배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뇌혈관을 3차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혈관조영기로 복잡한 뇌혈관을 정확히 볼 수 있으며 뇌혈관 뒷부분에 발생한 질환까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 뇌졸중 예방이 더욱 쉬워졌다</span>”고 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3'>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고혈압 등 원인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노력이 최선의 예방책</span>”이라고 강조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54.txt

제목: 꼭 봐야 할 아침뉴스7 (8월 23일)  
날짜: 2016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23051703932  
본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된 경북 성주군이 제3후보지를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함에 따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유력 제3후보지 인근인 김천시의 반발이 커지면서 또 다른 지역 갈등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난제에 대해 집중 분석했습니다. <br/>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5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정부 보유지분 30%를 여러 투자자들에게 쪼개 판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외에 리우 올림픽이 평창에 주는 메시지, 우병우·이석수 검찰 수사 상황, 출산율 떨어지자 젊은 여성을 노리는 산부인과 등 꼭 봐야 할 한국일보의 아침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br/><br/>1. 성주군, 사드 제3후보지 검토 요청<br/><br/>-또 커지는 사드 폭발음… 지역 갈등고조<br/><br/>-사드 새 부지 물색하지만… ‘비용·시간·설득·협의’4중 난제<br/><br/>-“사드는 성주에, 전자파는 김천이 뒤집어쓰라고?”<br/><br/>2. 우리은행 민영화 5번째 도전<br/><br/>-우리은행 지분 4~8%씩 쪼개 판다<br/><br/>-우리은행 민영화 ‘4전5기’성공할까<br/><br/>3. 리우가 평창에 주는 메시지<br/><br/>-적은 비용, 큰 감동… “평창, 창의적 리우 개·폐막식 거울로”<br/><br/>-‘할 수 있다’의 울림·金보다 진한 올림픽 정신… 짙은 여운<br/>[윤태석 기자의 리우 결산기] ‘Rio Bye’<br/><br/>4. 우병우·이석수 검찰 수사<br/><br/>-靑 심중 살피랴, 여론 추이 보랴… 檢, 수사 배당부터 ‘장고 모드’<br/><br/>-이석수 “의혹만으로는 사퇴 않는 게 정부 방침 아닌가”<br/><br/>-서울청장 “조사 받고 자료내… 李, 감찰 방해 의혹 발언 유감”<br/><br/><br/>5. 산모 줄자… 젊은 여성들 노리는 산부인과<br/>-경영난 직면하자 과잉진료 만연… ‘불안마케팅’에 환자들 울상<br/>-10ㆍ20대 여성 초진인 경우 많아, 암 위험성 거론하며 검사 강권<br/>-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 남용 “<span class='quot0'>산부인과 검사 돈벌이로만 보여</span>”<br/><br/>6. 2017 도전하는 리더들 시대정신을 말하다<br/>- 원희룡 제주지사<br/><br/>-“진영 대결의 끓는 솥에서 장작을 빼야… 특히 대통령 독식이 문제”<br/><br/>-“언젠가는 대권 도전”<br/><br/><br/>7. 죽어서 캐딜락 타기보다… 인간답게 죽어야<br/>-사망자 10명 7명 의료기관서‘생’마감<br/>-핵가족화ㆍ개인주의… 집보다 병원 선호<br/><br/><br/>‘꼭 봐야 할 아침뉴스7’에 소개된 기사는 한국일보닷컴(www.hankookilbo.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br/>디지털뉴스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55.txt

제목: [헬스 파일]  
날짜: 2016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23051654280  
본문: 체지방ㆍ뱃살 빼는 ‘나르시네’ 출시<br/>모리가나㈜는 식생활을 자유롭게 하면서 체지방과 뱃살을 동시에 빼주는 건강기능식품 ‘나르시네’를 내놨다. 나르시네는 새싹땅콩의 항산화물질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 파인애플 추출물(브로멜라인), 키위 추출물(액티니아닌), 알로에, 천년초, 마카, 함초, 다시마, 차전자피, 밀호분증혼합분말, 우엉, 마테, 청국장 분말, 모리효소 등 쾌변과 숙변 제거에 도움을 주는 각종 천연성분을 배합ㆍ가공했다. <br/>김창현 모리가나엠에스 대표는 “<span class='quot0'>제품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은 우리 몸 속에서 생체운동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효소인 AMPK를 활성화해 지방합성을 억제해 지방축적을 막아주고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span>”고 했다. 나르시네는 식전 1일 2회, 1회 1포씩 물과 함께 먹으면 된다. 나르시네는 조기원 대표가 18년 연구 끝에 개발했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남아공 베트남 등에 수출 문의 및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 (02)566-5792<br/><br/>경기도의사회, 프락셀 부작용 사진전<br/>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2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리는 제13차 학술대회에서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 부작용 사례를 전시하는 사진전을 연다. 사진전에서는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 위험성과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알린다. 허훈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부회장은 “<span class='quot1'>비의료인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국민 건강권을 크게 훼손할 것</span>”이라고 했다.<br/><br/>이대목동병원, 임플란트클리닉 열어<br/>이대목동병원 치과는 골다공증 치료약 관련 턱뼈괴사를 예방하기 위해 골다공증 약 복용 환자를 위한 임플란트클리닉을 열었다. 이 클리닉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위험도 평가와 성장인자를 이용한 신 의료기술 치료법으로 합병증 없는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다.<br/>아스트라, 브릴린타 60㎎ 허가받아<br/>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항(抗)혈전제 브릴린타(성분명 티카그렐러) 60㎎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브릴린타 60㎎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혈전성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심근경색을 앓은 적이 있는 환자는 심근경색 발병 후 1년 간 90㎎ 1일 2회로, 1년이 지난 뒤에는 60㎎ 1일 2회로 먹으면 된다.<br/>고대안암, 정밀의학연구센터 열어<br/>고대안암병원이 정밀의학공동연구센터를 열었다. 병원은 이번 센터 개소로 암, 심혈관, 뇌질환, 선천성 질환에서 유전체 기반 정밀의학 검사 패널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이기형 고대안암병원 원장은 “<span class='quot2'>센터 개소를 통해 환자 개인의 유전체와 진료정보를 결합한 최적의 치료와 예측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span>”고 했다.<br/><br/>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유방암 임상<br/>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유방암 적응증 추가를 위한 국내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MSD가 신청한 ‘MK-3457’에 대한 국내 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번 임상은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국소 재발성 수술불가 또는 전이성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 ‘펨브롤리주맙+화학요법’을 ‘위약+화학요법’과 비교 평가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56.txt

제목: 죽어 캐딜락 타느니, 인간답게 죽어야  
날짜: 2016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23051648353  
본문: 핵가족화ㆍ개인주의… 집보다 병원 선호<br/><br/>“<span class='quot0'>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집에 돌아가고 싶다.</span>” 최근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서 말기 암 치료를 받은 K(83)씨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삶을 마감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 출신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꺼려한다. 양나미 제주대병원 홍보팀장은 “<span class='quot1'>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70대 이상 고령인은 의료기관에서 임종하면 객사(客死)한 것으로 여긴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제주도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죽어야 저승에서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span>”고 전했다.<br/> K씨처럼 임종을 목전에 둔 환자들은 삶과 추억이 남아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삶을 마감하려 한다. 인지상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8월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원하는 임종장소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2%는 가정에서 임종하길 원했다. 호스피스기관은 19.5%, 병원은 16.3% 순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삶을 정리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집에서 죽을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br/><br/>핵가족화… “환자 모시기 힘들어 병원 선택” <br/> 가정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임종하는 이들이 증가한 것은 핵가족화 영향이 크다.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이현숙 수녀는 “<span class='quot2'>과거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임종을 맡는 것이 당연했지만 핵가족화 되면서 유대감과 친밀감이 사라져 장기간 집에서 병든 부모를 모시는 것 자체가 힘들다</span>”고 말했다. <br/>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만난 A(45)씨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면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버지를 집에서 모시고 싶어도 맞벌이 부부라서 어렵고, 큰 아이가 수험생이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는 “<span class='quot3'>사실상 치료가 무의미한 것을 알면서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연명치료를 요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span>”고 말했다.<br/>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 26만8,088명 중 의료기관에서 숨진 사람은 19만1,682명(71.5%)에 달했다. 암환자의 의료기관 사망률은 더 높다. 암으로 사망한 7만5,849명 중 6만7,581명(89.1%)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했다. <br/> 핵가족화와 함께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임종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의료인들은 “<span class='quot4'>과거에는 부모가 사망하면 충격으로 괴로워하거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망자에 대한 애틋함이 덜 한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이 수녀는 “<span class='quot2'>과거에는 평소 재산문제 등으로 가족끼리 갈등을 빚어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했지만 최근에는 환자가 죽기 전까지 가정불화에 시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span>”고 말했다. <br/>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숨지면 의료진이 사망진단을 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되지만 집에서 환자가 숨질 경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져야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정 사망을 꺼릴 수밖에 없다.<br/><br/>급속한 고령화… 비암성 말기환자 ‘완화의료’ 필요 <br/>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이들의 최후는 비참하다. 최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임종을 맞는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말기 환자들은 진통제ㆍ영양제 등을 공급하는 줄을 달고 차가운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없이 생을 마감한다.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질’이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윤종률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5'>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는 물론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정신ㆍ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5'>죽기 직전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각종 약물을 투여 받다 의미 없이 죽을 것인지, 편안히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고심할 때가 왔다</span>”고 말했다. 의학적 고문이라 할 수 있는 연명치료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br/> 전문의들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비(非)암성 말기환자의 임종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비암성 말기질환은 말기 암환자보다 임종예측이 어렵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 치료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간경화 ▦치매 ▦신부전증 ▦심혈관질환 ▦다발성경화증 ▦파킨슨병 ▦류마티스관절염 ▦약제내성 결핵 등을 비암성 말기질환으로 분류해 이들 환자의 죽음의 질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암성 말기환자들은 연명치료보다 완화의료가 바람직하다. 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로 통증이나 신체ㆍ심리사회ㆍ영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 평가와 치료를 통해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시킨다. 송정윤 강동경희대병원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6'>죽어서 캐딜락을 탈 것이 아니라 말기 환자들이 인간적 존엄을 지키며 평화롭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span>”고 꼬집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br/><br/>[사망환자수ㆍ사망장소]<br/>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57.txt

제목: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글로벌 초일류 병원’ 만들겠다”  
날짜: 2016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23051645356  
본문: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 인터뷰<br/><br/> “<span class='quot0'>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건강하고 만드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span>”<br/>지난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실에서 만난 전상훈(57) 병원장은 자리에서 “<span class='quot1'>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span>”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br/>전 병원장은 지난 6월 1일 제9대 분당서울대병원장에 취임, 100여년 서울대병원 역사상 첫 비(非)서울대 출신(경북대 의대) 서울대 산하 병원장이 됐다. 13년 전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은 현재 1,328병상 규모로, 하루 6,000명의 외래 환자에, 하루 수술 건수도 170건에 달해 서울 밖에서 가장 큰 병원이다. 교수들이 발표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도 1,000편을 넘어설 정도다.<br/>전 병원장은 “<span class='quot2'>막중한 자리를 맡아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span>”면서도 분당서울대병원을 ‘글로벌 초일류 병원’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감추지 않았다. “<span class='quot0'>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방 중심 헬스케어 시스템의 기초를 다지고, 첨단 융ㆍ복합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첨단 임상시험, 중계연구와 국책과제 등을 적극 유치해 우리 병원을 세계적인 브랜드파워로 키워나가겠습니다.</span>”<br/>전 병원장은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원한 ‘헬스케어혁신파크’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다. 헬스케어혁신파크는 대규모 임상시설과 전임상실험실, 동물실험실 등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갖췄다. <br/>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입주 기업들은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매칭시스템을 통해 수요자인 의사ㆍ환자와 곧바로 연결한다. 파크 내 집적화된 기업들 간의 협력을 통해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는 2013년 당시 추진위원장인 전 병원장이 5년 간 공을 들여 온 역작이기도 하다.<br/>“헬스케어혁신파크는 스타트업을 비롯해 전문 기업과 대규모 임상시험 시설을 갖춘 병원이 지리적으로 연계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펀딩과 특허, 개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재생의학과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 정보통신기술(ICT), 유전체, 나노의학 등 특화된 한국형 의료바이오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br/>전 병원장은 “<span class='quot2'>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8,000조 원으로 반도체와 휴대폰 시장의 2배, 자동차산업의 4배에 달한다</span>”며 “<span class='quot2'>헬스케어혁신파크를 통해 미래 의료를 선도하면서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span>”고 했다. ‘ICBM’으로 불리는 헬스케어 ICT의 발전은 인공지능과 함께 머지않은 장래에 현재의 의료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게 전 병원장의 생각이다.<br/> 전 병원장은 이어 진료 부문에서도 국민 신뢰를 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우리를 믿고 귀한 생명을 맡긴 환자들의 간절한 믿음에 최상의 치료결과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만성 질환 및 경증 질환을 넘어 암, 심장 및 뇌신경계 질환, 장기이식, 선천적 유전성 질환 등 중증희귀질환과 고위험 질환을 관리하는 진료모델을 제시하려 합니다.” <br/>또한 분당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전 병원장은 “<span class='quot2'>이미 국내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찾아오고 있는데, 이러한 환자를 위한 다학제 진료팀이나 원스톱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최상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span>”고 했다. <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2'>권역응급의료센터, 감염병 관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등 공공적 기능을 위한 최적의 진료 인프라도 만들겠다</span>”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병원장은 “<span class='quot3'>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조직문화가 없다면 글로벌 초인류병원의 꿈은 멀어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3'>병원 내 소통강화에 힘을 쏟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 전 병원장은 흉강경을 활용한 폐암, 식도암의 권위자다. 병원장이라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흉부외과 의사로 수술칼을 놓지 않고 있다. 전 병원장은 1984년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뒤 흉부외과를 전공했고, 폐암ㆍ식도암 수술의 권위자이며 흉강경 수술의 개척자다. 현재 대한흉부종양외과학 회장과 아시아 흉강경수술교육단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세계폐암학회, 심폐이식학회 등 국내외 주요 학회 정회원이다. 이밖에 일본 국립암센터, 미국 하버드대 의대 메사추세츠병원,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 등에서 연수를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쌓았고, 일본 도쿄대 의대와 중국 베이징 뉴저니 암병원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58.txt

제목: 산모 줄자… 산부인과, 젊은 여성들 지갑 겨냥  
날짜: 2016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23051610431  
본문: 10ㆍ20대 여성 초진인 경우 많아<br/>암 위험성 거론하며 검사 강권<br/>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 남용<br/>“<span class='quot0'>산부인과 검사 돈벌이로만 보여</span>”<br/>여성 67% 진료에 두려움 느껴<br/><br/>미혼 여성 이모(26)씨는 최근 잦은 생리 불순으로 서울의 한 동네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의사는 이씨에게 자세한 증상을 묻지도 않고 무작정 진료 의자에 누우라고 한 뒤 사전 동의도 없이 자궁 염증을 살펴보는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다. 진료비만 10만원에 달했지만 이씨는 “<span class='quot1'>상태를 보니 꼭 필요한 검사</span>”라는 의사의 강권에 제대로 항의도 하지 못했다. 이씨는 22일 “<span class='quot1'>비용 문제를 떠나 최소한 검사가 왜 필요한지 설명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span>”며 “<span class='quot1'>산부인과가 여성질환에 민감한 여성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장사 속만 채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span>”고 말했다.<br/>출산율 하락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산부인과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급여 항목)에 몰두해 환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정보가 부족하고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주된 돈벌이 대상으로 삼아 ‘불안 마케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br/>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검사는 대표적인 과잉진료 유형이다. 초음파가 워낙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다 보니 환자가 건강상태에 불안을 느낄 경우 남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임신 테스트를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한 최모(27)씨는 다짜고짜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는 의사의 제안에 적잖이 당황했다. 최씨는 “<span class='quot2'>정확한 자궁 상태를 알아보려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 검사를 받았지만 지금도 어떤 부분을 체크하려 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span>”고 말했다.<br/> 10, 20대 여성들은 병원의 이런 상술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대부분 초진인 경우가 많아 심리적 장벽이 높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산모보다 정보가 부족해서다. 직장인 민모(28)씨는 “<span class='quot3'>얼마 전 생리 불순으로 처음 산부인과에 갔다가 의사가 다낭성난소증후군과 자궁경부암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전문 검사를 강권했으나 미심쩍어 받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3'>다른 병원에 갔더니 단순한 환경 변화 탓이라며 약만 처방해 줬고 깨끗이 나았다</span>”고 말했다. <br/>이처럼 과잉진료가 만연한 탓에 산부인과 전반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진료 차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세균검사 항목이 버젓이 청구된 영수증을 받았다는 박모(24)씨는 “<span class='quot4'>이제는 산부인과에서 권하는 모든 검사가 돈벌이로 보여 정작 필요한 진료까지 거르게 될까 적정</span>”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여성민우회가 2012년 여성 1,0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중 61.5%는 ‘산부인과 진료가 망설여진다’고 답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span class='quot5'>환자가 진료 적합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의사가 부가적인 검사 행위를 권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span>”라고 지적했다. <br/>그러나 출산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을 벌충하려면 산부인과들도 다른 수익 창구에 기댈 수밖에 없어 과잉진료 관행은 쉽게 근절되기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2014년 폐업한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는 464곳으로 한 해 평균 100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6'>부당청구 금지 및 비급여 항목 가격 고시 등을 꾸준히 계도하고 있으나 개업의들의 경영과 진료까지 개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span>”이라고 털어놨다. <br/>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7'>산부인과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의사의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자권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span>”며“<span class='quot7'>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업계 구조상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만큼 환자 스스로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진료를 받아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59.txt

제목: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봉사단 결성도 전에 예산부터 편성  
날짜: 2016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23051558539  
본문: 인천시교육청이 결성되지도 않은 봉사단체의 해외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간부, 직원들로 구성된 이 봉사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기금을 전용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본보 21일자 10면)<br/>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5월 19일 정기회를 열어 2015년도 복지기금 사업계획을 심의, ‘교직원 해외봉사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통과시켰다. 이 돈은 같은 해 10월 4~9일 교직원 봉사단체인 인천행복나눔봉사단이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진행한 봉사활동 운영비와 여비로 쓰였다. 당시 봉사단원은 이 교육감과 수행비서 2명, 홍보 영상ㆍ사진 촬영 담당자 등 7명이었다.<br/>문제는 봉사단이 결성되기도 전에 해외봉사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이다. 봉사단은 지난해 3월부터 단원을 모집했으나 조직이 구성된 것은 석달 뒤인 지난해 6월이었다. 희귀ㆍ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등에 써야 할 복지기금이 발대식도 안 한 봉사단체의 해외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 따로 떼어져 관리됐던 셈이다.<br/>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당시 복지기금 운영위원장은 이 교육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시교육청 간부 박모(59)씨였다.<br/>해외봉사 지원사업비가 편성된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기금 운영위 측에선 “(인천행복나눔봉사단 결성을 추진한) 교육혁신과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을 심의했다”고 하는 반면 봉사단 측에선 “해외봉사 관련 기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r/>복지기금 전용 논란과 관련한 시교육청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복지기금은 ‘희귀ㆍ난치병 학생 치료와 암 투병 교직원 돕기에 써야만 하는 기금’으로 그 목적이 규정돼 있지 않다. 복지기금 운영위 결정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3~2015년 3년치 복지기금 사업현황을 보면 해외봉사 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희귀ㆍ난치병 학생과 3대 소아암 투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암 투병 교직원 치료비 지원, 교직원 문화탐방연수기회 제공 등 학생ㆍ교직원 복지기금이었다.<br/>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span class='quot0'>이 교육감은 해외봉사활동 지원사업비를 왜 일반 교육예산이 아닌 조성 취지와 용도가 전혀 다른 복지기금으로 썼는지,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60.txt

제목: ‘맛있는 다이어트’를 위한 9가지 특급 식품  
날짜: 201608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23051127851  
본문: 행복했던 여름 바캉스가 끝나고 현실로 복귀한 당신. 일상뿐만 아니라 열심히 운동해서 빼놓은 몸무게마저 현실 복귀? 마시고 먹고 즐긴 만큼 늘어난 체중이 걱정이라면 이번 글을 주목하자. 맛없는 다이어트가 아닌 맛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식품을 소개한다.<br/><br/><br/>올망졸망 산딸기<br/><br/>산딸기는 비타민 C, K 등 필수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하다.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고 소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 산딸기 한 컵이면 일일 섬유질 권장량을 25% 이상 충족 시킬 수 있고 64 칼로리에 불과하다.<br/><br/><br/>일석이조 녹차<br/><br/>녹차는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동시에 지방 분해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녹차에 포함된 항산화제는 몸의 면역력을 높여 주고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br/>아삭한 배<br/><br/>배는 천연 완화제로 불릴 만큼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도와준다. 성인 주먹만한 배 하나는 100칼로리에 풍부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다. 배는 완화제 효능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한다.<br/><br/><br/>단백질 보충원 달걀<br/><br/>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달걀은 대표적인 단백질 보충원 중 하나이다. 달걀은 원기 회복과 근육 발달에 좋은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섭취하자.<br/><br/><br/>노화 방지 블랙베리<br/><br/>블랙베리는 지방 연소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카테킨 같은 노화방지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또한, 비만을 예방해주는 폴리페놀 성분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블랙베리 한 컵에는 일일 섭취 권장량의 1/4 이상의 비타민 C와 K가 함유되어 있다.<br/><br/><br/>초록빛깔의 힘, 아보카도<br/><br/>아보카도는 손상된 근육을 재생시켜주는 불포화지방을 생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아보카도는 남성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남성의 전립선암 예방과 운동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이다.<br/><br/><br/>상큼한 오렌지<br/><br/>오렌지 하나에는 비타민 C 일일 섭취 권장량의 80% 이상을 충족시켜준다. 뼈와 피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콜라겐 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87%의 수분량을 보유하고 있는 오렌지는 수분 공급 역할까지 해주는 과일!<br/><br/>겉과 속이 다른 패션프루츠<br/><br/>패션프루츠는 익숙하지 않은 과일 중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과일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건 금물! 겉모습 속에 숨겨진 노란 속살을 한 입맛 보는 순간 달콤함과 새콤한 맛을 잊지 못할 것이다. 패션프루츠 1/4컵에는 시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패션프루츠 자체를 먹기가 어렵다면 요구르트를 뿌려 먹어보자. 천연의 풍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br/><br/><br/>착한 과일 아사이베리<br/><br/>몇 년 전부터 불어온 아사이베리 열풍. 유명 셀럽들의 몸매 유지 비결로 아사이베리 섭취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열풍은 계속되고 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고 암 예방 효과까지 아사이베리는 다양한 열대 과일과 함께 먹는 아사이볼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br/><br/><br/>쉐어하우스 제공 (필자: 정은미 ) ▶ 원문보기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61.txt

제목: [우리 출판사 첫 책]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2002)  
날짜: 201608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20051228265  
본문: “대충 살아가지 말라”<br/>스승의 따끔한 한마디<br/><br/>2002년 겨울, 인사동 허름한 술집에서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을 만났다. 책을 펴내고도 만날 기회가 없었던 선생님을 어찌어찌 연락해서 만난 자리였다.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쓴 책이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판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첫마디 인사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과 온화한 눈길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br/>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은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해 너무 미안하다고,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 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을 자주 찾게 되고 당신의 책이 그전까지 한국에서 계약 없이 무단으로 출간되어 팔리고 있었지만, 한국의 독자들이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고 했다. 선생님이 얼마나 한국 친구를 그리워했는지, 당신의 책을 펴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다.<br/>막걸리를 마시며 적당하게 취기가 올랐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조 사장님은 어떻게 이 책을 양철북 출판사의 첫 책으로 펴낼 마음을 먹었어요?”“선생님, 저는 80년대에 대학에 들어와서 ‘전환 시대의 논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배워온 것이 절반의 교육이었다는 각성과 분노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먹고 사는 문제로 밀려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출판사를 시작하면서 책을 찾다가 선생님의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더러 ‘그렇게 살지 말라고’‘세상에 밀리고 밀려서 대충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을 건네 왔습니다. 저는 출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절반의 교육에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펴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말씀 드린 이 두 권이 제 인생을 구제해 준 책이었습니다.”<br/>2004년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연회가 있던 날, 450석 규모의 강연장은 복도까지 꽉 찼다. 일본 언론의 인터뷰는 전혀 응하지 않던 선생님은 ‘한국의 친구를 위해서’라며 한국 언론의 모든 인터뷰를 허락했다. 그 해 가을, 선생님은 식도암 4기 진단을 받았다. 몸에 암 덩이를 지닌 줄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선생님을 혹사시켰다.<br/>암 수술 뒤에 일본 아타미에 있는 선생님 댁을 찾아갔다. 온몸이 야위어 뼈만 남은 선생님이 나를 먼저 알아보고 웃으며 껴안았다. 그날 저녁, 선생님은 한국에서 친구가 왔으니,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자며 음식점으로 나를 안내했다. 선생님은 백혈구 수치가 매우 좋아졌다며, 맥주를 한 잔 드셨다. 내가 당신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할까 봐 마신 것임을 어찌 모르겠는가. 나는 좋아하는 술을 입에도 대지 못했다, 혹시라도 선생님이 마시고 싶어할까 봐.<br/>2006년 한국의 독자들과 일본으로 문학기행을 갔을 때, 선생님은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달려와서 우리와 함께 자고 이튿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이 선생님의 마지막 외출이 되었다. 선생님은 삶을 마치기 전에 의식이 돌아오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br/>“아,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 조 상(さん)네 지리산 마을이 참 따뜻했어.”<br/>조재은 양철북 대표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62.txt

제목: AI 기술로 CT 방사선 노출 줄여  
날짜: 2016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19051739552  
본문: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영상을 촬영할 때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을 4분의 1로 크게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br/>예종철(사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석좌교수 연구진은 18일 인공지능 ‘딥러닝’(기계학습) 기술을 활용, 방사선량이 적은(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고화질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의학물리학자협회(AAPM) 주최로 열린 ‘국제 저선량 CT 영상 획득 그랜드 챌린지’에 출전한 연구진은 이 기술로 전 세계 103개 참가팀 가운데 2위에 올랐다. <br/>CT는 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수지만 반복해 찍으면 환자가 다량의 방사선에 피폭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방사선량을 줄이면 해상도가 떨어진다. 연구진은 여러 환자의 일반 선량 및 저선량 CT 영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이들을 비교ㆍ분석해 저선량 CT에서 쓸모 없는 신호를 제거해 화질을 높이는 과정을 컴퓨터에게 학습시켰다. 그 결과 일반 CT보다 방사선량을 4분의 1로 줄여 찍은 영상으로도 암의 전이 부위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을 만큼 고화질 영상 복원이 가능해졌다. 예 교수는 “<span class='quot0'>임상 의사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상용화가 곧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63.txt

제목: [카드뉴스] 조문객 위로하는 장례식장 개 이야기  
날짜: 2016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17051037659  
본문: 양로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병원 등을 찾아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료견이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참전군인, 암환자나 사고를 당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치료견을 만지면서 위로를 얻고 마음을 연다고 합니다. <br/>국내에는 아직 치료견이 생소하지만 치료견을 통한 동물매개치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br/>미국 뉴욕 주에는 치료견 중에서도 특별한 치료견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골든 리트리버와 스탠다드 푸들의 혼종견인 골든두들종‘룰루’인데요. 귀여운 외모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룰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br/>기획·글=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안유경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4)<br/>디자인= 백종호 디자이너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64.txt

제목: 분당차병원, 콩팥암 임신부도 암 치료 성공  
날짜: 2016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17051023646  
본문: 임신부가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를 받기 위해 태아를 포기하는 것이 맞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례가 나왔다.<br/>박동수(비뇨기과)ㆍ장지현(산부인과) 분당차병원 교수팀이 임신 17주에 콩팥암 진단을 받은 김모(28)씨에게 콩팥 부분절제수술로 산모와 태아를 모두 살리는데 성공했다. 향후 수술 후유증, 태아 건강 등의 이유로 암 치료 시기를 늦추는 임신부에게 효과적인 암 치료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가 임신부라는 점을 감안해 콩팥 혈류를 차단한 상태에서 얼음으로 콩팥 온도를 낮춘 후, 콩팥을 잘라내는 저온 콩팥 부분절제 수술을 시행했다</span>”고 밝혔다. 수술 시 겪을 수 있는 출혈과 소변이 콩팥 밖으로 새는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였다.<br/>콩팥 부분절제술이란 콩팥 내 종양을 중심으로 콩팥의 정상 부위 일부를 포함한 부분을 절제한 뒤, 남아있는 콩팥을 재건하는 수술법이다. 콩팥 기능저하와 임신 중독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콩팥암 진단을 받았으나 향후 수술 후유증, 태아 건강 손상 우려 등 이유로 치료시기를 늦추는 임신부에게 도움이 된다.<br/>저온하 콩팥 부분절제술은 박 교수가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치료법으로, 콩팥 부분절제술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출혈과 소변이 콩팥 밖으로 새는 합병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임신 중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를 출산 후로 미루면 임신부는 물론 태아에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임신부와 태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65.txt

제목: 암 사망률 1위 폐암, 희망의 빛이 보인다  
날짜: 2016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16052132711  
본문: # 김모(49)씨는 2013년 폐암 4기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이미 수술은 늦은 터라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진행했지만 구토 등 부작용과 약 내성으로 상태는 더 악화됐다. 절망하고 있을 때 새로운 면역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면역항암제 투여 3회 만에 종양이 50% 줄었다. 23사이클(3주에 1회 투여)이 진행된 지금 종양의 90%까지 감소했다. 기존 치료와 달리 부작용과 내성이 나타나지 않아 식사와 산책 등 일상생활도 가능해졌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골프도 할 예정이며, 아들과 맛있는 외식 자리도 약속했다.<br/><br/>30분마다 1명 사망하는 폐암<br/>‘폐암=죽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다. 30분에 1명이 폐암으로 사망할 정도다. 폐암 사망자는 1만7,440명(2014년)이나 된다. 폐암 발생률(2013년)은 10.3%로 갑상선암(18.9%), 위암(13.4%), 대장암(12.3%)에 이어 4위이지만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2.8%(2014년)나 됐다(국가암정보센터). 전체 암 평균 5년 생존율(61.0%)에 크게 못 미쳤다.<br/>조병철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폐암은 다른 부위로 전이가 쉽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 3~4기까지 진행된 후에야 대부분 발견돼 수술 등 손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span>”이라고 했다. 박근칠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이나 간암처럼 예방백신도 없고 위암, 대장암처럼 내시경으로 정기 검진할 수도 없기 때문</span>”이라고 했다.<br/>폐암의 83%를 차지하는 비(非)소세포폐암(편평상피세포암, 선암)의 46.6%, 소세포폐암의 69.7%가 4기에 발견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기에 발견되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 폐암의 5년 생존율은 23.5%로, 10대 암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9위였다.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인 갑상선암의 1/4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br/><br/>새 메커니즘의 혁신 면역항암제 등장<br/>1세대 항암제인 화학항암제는 정상세포보다 분화속도가 빠른 암세포의 특성을 이용한 치료제다. 이 때문에 분화속도가 빠른 정상세포까지 구분하지 않고 공격하다 보니 탈모, 구토, 합병증 등 부작용 심했다. <br/> 1997년에 나온 2세대 항암제인 표적항암제는 특정 유전자 변이에 의한 종양세포만 표적해 작용한다. 때문에 화학항암제에서 나타나는 탈모,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작고 치료제 반응률은 높았다. 다만 암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 변이에 작용해 적응증이 있는 환자에게만 쓸 수 있었고 치료제 내성의 한계도 있었다.<br/> 그런데 최근 키트루다(MSD), 옵디보(BMS) 등 새로운 메커니즘의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가 등장해 폐암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지난 연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면역항암제로 뇌까지 전이된 암을 치료했다는 소식도 한몫했다.<br/>면역항암제는 종양에 맞서는 면역반응 강도를 높이도록 개발된 것이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T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죽인다. 하지만 암세포는 영리한 까닭에 T면역세포에서 나오는 PD-1수용체를 자신에 내놓는 PD-L1단백질과 결합한다. 때문에 T면역세포는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된다.<br/>면역항암제는 면역항암제 항체가 PD-L1단백질 결합을 막아 T면역세포가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든다. 이 항암제는 인체 면역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기존 항암제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내성이 없다. 따라서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br/>기존 치료제보다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항암제보다 생존기간을 50% 정도 개선했으며, 약물 유해반응 발생률도 절반 가량 줄였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1'>면역항암제를 투여한 환자의 경우 종양비율점수(TPS) 수치가 50 이상인 경우 10명 중 6명에게 효과가 있는데 이는 치료가 불가능한 폐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span>”이라고 했다.<br/>면역항암제 치료는 아직 초기 단계라 기존 화학항암제나 표적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과 병용요법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단독요법으로 30여 암에 대한 임상연구도 진행 중이다.<br/>폐암 면역항암제로는 옵디보(한국오노약품공업ㆍ한국BMS제약)와 키트루다(MSD) 두 가지 약물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각각 2014~2015년 흑색종, 비소세포폐암(편평+비편평) 치료 허가 받았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4월 옵디보와 키트루다가 수술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1차 치료제와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허가했다.<br/><br/>약값 비싸…단계적 급여적용 필요<br/>문제는 치료 접근성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값이 3주에 600만원 정도 들어 선뜻 치료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 30분에 1명씩 폐암 환자가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공공보험 체계에서 모든 폐암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할 경우 보험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학계와 보건당국은 비용효과를 고려해 PD-L1 발현율 등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기준을 활용한 급여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br/>안명주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영국의 경우 건강보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지연된 항암제라도, 말기 암 환자들이 신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11년부터 항암제 기금(Cancer Drug Fund)이 시행돼 약값을 지원해주고 있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br/>폐암 증상은?<br/>-평소와 다른 잦은 기침<br/>-피 섞은 가래가 나오거나 피를 토함<br/>-숨쉬기 어렵고 답답해<br/>-가슴통증이 생기거나 이유없는 두통<br/>-쉰 목소리가 계속됨<br/><br/>암 유형별 5년 생존율 현황(단위: %)<br/>전체 암 평균 61.6<br/>갑상선암 100.2<br/>유방암 91.5<br/>대장암 75.6<br/>위암 73.1<br/>간암 31.4<br/>폐암 23.5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66.txt

제목: [강남세브란스와 함께하는 건강 팁] 두렵기만 한 뇌종양  
날짜: 2016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16052125414  
본문: 우리 몸을 관장하는 뇌에 생긴 종양은 치료도 어렵고 후유증도 다양해 가장 두려운 암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뇌종양센터 홍창기 신경외과 교수의 도움말로 ‘뇌종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br/>Q. 뇌종양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생기나.<br/>“뇌종양은 뇌를 구성하고 있는 정상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된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가장 흔한 뇌교종은 국내에서 매년 600명 이상에게 발병한다.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덜 발병하지만 40세 이후 잘 생긴다. 유전적 요인 외에도 솔벤트나 농약, 고무, 염화비닐 등에 노출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잘 발병한다.”<br/><br/>Q. 휴대폰을 많이 쓰면 생긴다는데.<br/>“<span class='quot0'>최근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뇌종양 발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여럿이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는 정립되지 않았다.</span>”<br/><br/>Q. 주요 증상은.<br/>“다음과 같은 두통이 생기면 꼭 병원을 찾기를 권한다. 잦은 두통, 아침에 심했다가 오후에 통증 감소, 밤에 잠에서 깨어날 정도의 통증, 자세를 바꾸거나 기침, 운동 시 심해지는 경우, 평소 두통과 다른 양상, 구역 및 구토를 동반할 경우. 시력저하 시야장애 청력저하 귀울림 언어장애 운동장애 보행장애 집중력장애 기억력장애 감각이상 등도 해당한다. 이밖에 유즙이 분비되거나, 무월경 성기능저하 성격변화 사고ㆍ학습능력저하 간질이나 자꾸 졸리는 것도 증상이다.”<br/><br/>Q. 뇌종양도 등급이 있나.<br/>“뇌종양도 등급을 나눈다. 종양 악성도에 따른 세계보건기구(WHO) 분류체계에 따르면 저등급과 고등급 뇌종양으로 나뉜다. 저등급인 뇌종양 (WHO I 또는 II 등급)은 주로 양성이며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다. 고등급 뇌종양(WHO III 또는 IV 등급)은 대개 악성이며 예후가 안 좋다.”<br/><br/>Q. 수술은 부분마취만 한다는데.<br/>“가능하면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뇌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해 수술이 쉽지 않다. 특히 뇌의 운동이나 언어 등을 담당하는 중요 기능 부위를 수술할 때는 필요에 따라 부분마취만으로 소위 ‘각성수술(awake surgery)’을 한다. 즉, 수술 중에 뇌 부위에 따라 환자의 운동이나 언어 등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기능손상을 최소화해 종양을 제거한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67.txt

제목: “유방암 환자, 다른 쪽 유방까지 절제 불필요”  
날짜: 2016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16051931914  
본문: 유방암은 여성 10만 명 당 40명 가량 걸릴 정도로 자주 발병하고, 환자 수도 늘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평균 5년 생존율이 82%에 이를 정도로 치료가 잘 된다는 게 일종의 위안이다. 하지만 유방암에 걸리면 한쪽 유방을 잘라낸 뒤 예방 차원에서 다른 쪽 유방까지 절제를 많이 한다.<br/> 그런데 최근 미국유방외과학회는 최근 유방암으로 한쪽 유방을 절제한 뒤 예방 차원에서 다른 쪽 유방까지 절제하는 것은 특정 환자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br/>학회는 성명서에서 “특정 변이유전자를 지니고 있거나 유방암 가족력이 매우 강한 환자 등 소수의 특정 환자를 제외하면 평균적 위험을 지닌 환자가 다른 쪽 유방에 암이 발생할 확률은 0.1~0.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는 나머지 유방을 절제하는 것으로 유방암을 예방하는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br/>다만 유방암 위험을 크게 높이는 변이유전자(BRCA1 또는 BRCA2)를 보유하거나 평생 유방암 위험이 25% 이상인 환자나 유방암 가족력이 상당한 환자는 예방절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학회는 지적했다. 이밖에 예방절제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30세 이전에 목, 가슴, 겨드랑이에 방사선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 ▦밀도가 높은 치밀유방인 환자, ▦유방암에 대한 불안이 극심한 환자 등이다.<br/>성명서를 작성한 줄리 마겐테일러 워싱턴대 의대 박사는 “<span class='quot0'>외과 의사는 의학적 견지에서 환자에게 예방절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명확히 권고해야 하지만 결정과정에는 환자의 판단과 선택도 중요하다</span>”고 했다.<br/>고승상 제일병원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우리나라 한국유방암학회 권고안에도 유방암 환자에게 멀쩡한 유방을 예방적 절제술을 권하고 있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1'>다만 유방암이 생기면 다른 쪽 유방에도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 검진이나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정밀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68.txt

제목: 난치암 환자가 된 의사, 병원에 ‘친절’을 처방하다  
날짜: 201608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13051426322  
본문: 여행 중 암 진단받은 英 전공의<br/>바쁜 일정 속 남편과 美 여행<br/>통증에 리조트 대신 병원으로<br/>수술도 불가능한 희귀암 통보<br/><br/>무심한 의료진 태도에 거듭 절망<br/>준공무원 신분 NHS 병원 의사<br/>입원 환자에 ‘○번 베드’ 호칭<br/>정서적 배려커녕 기계식 대응만<br/><br/>‘안녕 내 이름은…’ 캠페인 창안<br/>“자기소개부터 서로에 신뢰를”<br/>유럽ㆍ북미로 확산되며 신드롬<br/>인간적 고결함 중요성 일깨워32세 난치 암 환자 케이트 그레인저(Kate Granger)는 2013년 어느 날 병원에서 아주 살맛 나는 경험을 한다. 이동침대를 밀어주러 온 직원이 “<span class='quot0'>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라이언입니다</span>”라고 먼저 인사를 건넨 거였다. 그 인사 한 마디에 그는 한결 기분이 좋아졌다. 항암치료를 받아온 지난 2년 동안, 어쩌면 의대를 나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생각 못한 작은 기적이었다.(theglobeandmail.com, 2016.6.26) <br/>그 경험이 그를 달라지게 했다. 암 확진 진단을 듣던 2011년의 기억도 떠올랐다. 불쑥 병실에 들어선 의사는 아무런 정서적 배려 없이,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곁에 누가 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도 없이, MRI 판독 결과를 알려주었다. 암세포가 여러 곳으로 전이됐다는 말. 신장 스텐트(stent)를 교체 시술을 위해 입원한 병동에서 그는 ‘7번 베드’로 불렸다.<br/><br/>‘7번 베드’의 그는 2013년 8월 21일 자신의 트위터(@GrangerKate)에 이런 글을 올렸다. “<span class='quot1'>제가 ‘Hello, My name is…’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hellomynameis</span>” 의사와 간호사, 접수처 직원과 포터가 환자에게 자기 소개를 해달라는 거였다. “그건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저는 믿어요. 자기 소개는, 상처 받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과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인간적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의료적 관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br/>그의 캠페인은 큰 호응을 얻으며 10억 개가 넘는 해시태그 트윗을 이끌어냈고, 영국을 넘어 유럽과 북미의 병원들로 확산됐다. 지친 환자와 의사에게 인간적 존엄의 가치를 일깨우고 타성에 젖은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HS)에 생기를 돌게 한, 환자이자 의사 케이트 그레인저가 7월 23일 별세했다. 향년 34세. <br/><br/><br/>그레인저는 1981년 10월 31일 잉글랜드 웨스트요크셔주 허더즈필드에서 태어났다. 8살 무렵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그는 2005년 에든버러대에서 약리학과 의학사 학위를 받고 곧장 국가의료기관인 미드요크셔병원(Pindersfields)에서 인턴-수련의 과정을 시작했다. 졸업반이던 2004년 크리스와 결혼한 뒤로도 내내 바빴으니 2011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샌터크루즈로 떠난 여행은 부부에겐 아주 특별한 이벤트였다. 주말을 위해 예약해둔 몬터레이 해변 리조트까지 컨버터블을 빌려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때였다고 한다. 몇 주째 거슬리던 그레인저의 등 통증이 견디기 힘들만큼 심해졌고, 둘은 리조트가 아니라 샌터크루즈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혈액검사, 초음파, CT…. 병원에선 하복부 종양이 커져 요관을 누르면서 신부전으로 이어진 상태로 난소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조직검사와 수술을 위해 스탠퍼드 의대로 옮기라고 제안했다. 그는 뇨관(尿管)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응급시술만 받고 영국으로 돌아왔다.(yorkshirepost.co.uk, 2012.6.14) 영국의 NHS는 미국과 달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료서비스로, 당연히 진료비가 무료다. 그리고 자신이 NHS의 노인병 전공의(레지던트)였다. <br/><br/>2주간 긴 검사를 받은 결과 그의 병은 복막조직결합성소원형세포종양(DSRCT)이라는, 아주 사납고 희귀한 암이었다. 암세포는 이미 림프절과 간, 뼈로 전이돼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대형 소매용품 체인 ‘아스다 Asda’의 매니저인 남편은 직장에 있었고, 그는 저 진단을 처음 보는 의사에게서 혼자 들어야 했다. 그날 그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한없이 울었다고, 그런 뒤에 자기가 직접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의사가 적절히 설명하리라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sarcomahelp.org, ‘Kate’s Story) <br/>병원 측은 그에게 3주 단위로 모두 8차례의 화학치료 처방을 내렸다. 항암 주사를 맞은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아무 것도 먹고 마실 수조차 없을 만큼 심한 구토와 오한, 무기력증을 견뎌야 했다. 혈소판 파괴로 인한 하혈, 호중성백혈구 감소, 치렁치렁 매달린 약병과 튜브들…. 한 사이클이 끝나는 3주 동안 퇴원해 집에 머무는 건 고작 사나흘에 불과했다. 그는 그렇게 5번을 받고 그 해 말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심했고, 남편도 동의했다. 헛된 기대로 병실에 갇혀 항암치료로 고생하다가 귀한 시간 다 잃어버리는 사례를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고, 뭐든 스스로 파악해서 자기 통제하에 두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control freak) 사람이 아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br/><br/><br/>화학치료를 중단한 지 3주 째인 이듬해1월, 그는 병원에 복귀해 전과 똑같이 전공의 과정을 이어갔다. 그 해 9월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span class='quot1'>죽어가는 젊고 가련한 의사가 아니라, 진단 전과 똑같이 환자를 보살피는 유능하고 성실한 레지던트로 여겨지기를 원한다</span>”고 썼다. 하지만 마음까지 전과 똑같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 달 뒤의 생일이 생애 마지막 생일일지 모르고, 곧 태어날 조카 얼굴조차 못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는 2개월 앞만 보고 살자는 게 삶의 전략이라고 썼다.<br/><br/>일기를 써보라는 주치의의 제안을 받고 블로그를 시작한 게 그 무렵부터였다. “작은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암 환자가 된 뒤로 깨닫기 시작했다. 환자에게 말할 때 손을 잡아주는 일, 내려다보지 않고 나란히 앉는 일, 공감의 화법, 보호자를 대하는 방법….” 의사가 되려던 유년의 꿈, 의사로서 겪은 일, 환자가 된 뒤 느낀 일 등을 적은 그의 블로그 글은 ‘The other Side’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됐다. 항암 치료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과 화학치료 중단, 다시 의사로 복귀하기까지의 심경 등 암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글들은 ‘The Bright Side’라는 책이 됐다. 그렇게 그는 작가가 됐고, 신문과 잡지에 활발히 글을 썼고, 라디오와 TV쇼에 초대되기도 했다. 그는 유명해졌다. <br/><br/>‘컨트롤 프리크’답게, 일찌감치 자신의 장례식 음악과 음식, 드레스코드까지 짜둔 그였다. 혼자 또 남편과 함께 경험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지워가는 것만으로도, 환자가 되기 전보다 훨씬 바빠졌다. 결혼 서약 새로 쓰기, 런던 사보이호텔에서 에프터눈 티 마시기, 파리와 뉴욕과 바르셀로나 여행하기, 스카이다이빙 해보기, 문신 하기…. 그 중에는 먼 미래의 일이라 혼자만 알던 것도 있었을 것이다. 크리스는 그레인저가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지냈다고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말했다. “다음 주말 저녁의 근사한 식사 같은 게 단기 목표라면, 생일 파티 같은 건 중기 목표이고, 미국 여행은 장기 목표죠. 하지만 장기 목표는 임박해지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헛된 기대를 품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죠.”(telegraph.co.uk, 16.5.21) <br/>그레인저는 죽음과 죽어가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건 스스로에 대한 바람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트위터도 시작했다. 2013년 3월 23일 그는 말기암 환자의 일상을 들려줄 테니 적절한 해시태그를 추천해달라고, 무조건 재미있는 거여야 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그는 “유머가 마음을 열어주고 용기를 북돋워준다고 생각한다. 나는 표정에 늘 미소를 띠고 있고, 죽을 때도 멋진 유머와 함께 죽고 싶다.(…) 유머의 전염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게 다가오는 거대한 삶의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팔로워들은 ‘#deathbedlive(죽음의 침상 생중계)’ ‘#finalcountdown(마지막 카운트다운)’ ‘onedieseveryminute(매순간 죽어가는 자)’ 같은 것들을 추천했다고 한다. 그는 ‘#deathbedlive’를 선택했다.<br/>5번의 항암치료는 그에게 큰 도움이 됐다. 상태가 진정됐고, 통증도 견딜 만해졌다. 이후 더 활달해진 그의 일상에, 기대를 품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의사인 그는 ‘1%의 기적’같은 통계 너머의 희망을 경계했다. 요컨대 그의 블랙유머는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가장 덜 고통스러운 방법이었다. <br/><br/>난치(불치) 암 치료에는 크게 완화(palliative)치료와 치유(curative)치료가 있다. 화학요법이 발전해 둘의 경계가 모호해지긴 했지만 그는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화학요법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부작용 외에도 심장과 신장 기능 장애 같은 치명적 위험도 수반한다는 사실도 알렸다. “나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 남은 날의 양을 늘리는 대신 살아있을 날의 질을 추구해야 할 순간이 있다고 믿는다. 그 순간을 내가 알 수 있기를 나는 희망한다.”(guardian, 14.4.14) 2014년 그의 상태가 악화했고 그는 다시 입원해 4차례 화학치료를 받았다. 이듬해 2월과 9월에도 각 2차례를 더 받았다. <br/>그는 그렇게, 남은 시간의 양과 질을 저울질하며 멋진 추억을 만들고,‘죽음의 병상’에서 지내는 삶의 의미와 방법을 이야기하고, 전공의를 끝내고 진짜 의사(컨설턴트,전문의)가 되는 꿈을 이루어 갔다. <br/> <br/><br/>그의 ‘헬로 마이 네임 이즈…’ 캠페인은 그가 일하던 병원(Mid-Yorkshire Hospital) 의사와 간호사들을 시작으로 동참하는 병원들이 늘어갔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NHS 위원회에 캠페인 예산으로 4만 파운드를 지원하기도 했다. 틈만 보이면 국가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려고 벼르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와 제러미 헌트 등 보수당 정치인들도 캠페인에 동조했고, 프랑스 독일 이태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의 병원들도 대열에 동참했다. 그레인저는 여러 곳을 돌며 강연했고, NHS 관계자들을 만났고, 버킹엄 궁에 가서 찰스 왕세자에게서 훈장(MBE)도 받았고, 다우닝가의 초대도 받았고, 스코틀랜드 의회 연단에도 섰다. 2014년 2월 NHS는 ‘케이트 그레인즈 공감 치료상’을 제정했고, 그 해 7월 왕립의사협회는 아직 전공의였던 그를 회원으로 선출했다. 그가 컨설턴트가 된 건 올 초였고, 지난 5월에는 영국 의료계 최고의 영예라는 BMJ어워드 특별공로상을 탔다. <br/><br/>“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문구로 유명한 윌리엄 베버리지(1879~1963)의 ‘베버리지 보고서(원명은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가 나온 건 1942년이었고, 국민의 건강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48년 국가의료서비스가 시행됐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보건서비스를 받는 사회보험(NHI)과 달리, 영국과 북유럽 등의 NHS는 세금, 즉 정부 예산으로 보건 의료비용을 감당한다. 그래서 NHS 병원 의사는, 한국의 보건의처럼 준공무원 같은 신분이다. 영리 동인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진료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은 영국 뿐 아니라 국가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 북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 보완책으로 영국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일이 민영화와 민간 영리병원과의 결합 진료였다. 빠듯한 예산을 민간 영리병원과 나누다 보니 의료진 숫자는 더 줄어들고 처우도 나빠지는 악순환. 영국 NHS 병원 의사의 불친절과 무심함은 그런 사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거였다. <br/><br/>그레인저의 캠페인은 그러니까, 저 오랜 결핍의 타성에 젖어 있던 NHS를 각성시키고, NHS 의료진들이 잊고 있던 의사로서의 자존감을 일깨우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NHS와 그 종사자들이 선 자리의 의미와 역할을 환기시켰다. 그의 의사로서가 아니라 환자로서 진짜 의사가 되는 길을 열었다. 영국 환자자선연대 ‘National Voices’의 제러미 테일러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2'>그레인저는 단순한 캠페인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했다</span>”고 말했다.<br/><br/>그는 쇠잔해져 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고, 살이 빠질수록 미소도 도드라져갔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사진 찍어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그 무렵 그는 공포와의 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았다. 5월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는 절망과 포기의 유혹을 이야기했다. 함께 투병하다 먼저 간 이들을 언급하며 그는 “<span class='quot2'>마지막까지 버티는 건 참 힘든 일</span>”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는 자신이 해낸 일들을 자랑스러워하며 “<span class='quot2'>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불행하지 않다</span>”고 말했지만, 그것과 두려움은 별개였다. 그렇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죽음을 회피하지 않는 일, 그것이 그가 마지막까지 혼자 해낸 가장 중요한 캠페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금 목표액 25만 파운드를 채워 요크셔 암센터에 전한 뒤 리즈의 한 호스피스 병실에서 23일 별세했다. <br/>26일 그의 트위터 계정에는, 누군가가 대신 썼을 이런 글이 올라왔다. “내 삶의 일부였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부디 내 놀라운 남편(@PointonChris)을 잘 보살펴주세요. 추신- 그가 레인지로버에 돈을 몽땅 써버리게 해선 안 돼요.” 그는 미소로 기억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br/><br/>숨지기 나흘 전 그는 간절히 기다리던 신임 수상의 ‘헬로 마이 네임 이즈’ 캠페인 동참 편지를 받았다. “안녕 케이트. 내 이름은 테레사이고, 지난 주 데이비드 캐머런으로부터 수상 자리를 넘겨 받았어요.(…)” 그 편지에 그레인저가 바라던 내용, NHS를 민간자본에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br/>최윤필기자 proos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69.txt

제목: 잇몸염증 만병원인 될 수 있어  
날짜: 201608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11051154251  
본문: [한국스포츠경제 채준]<br/> <br/>최근 입속 세균과 암 연관성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어 잇몸 건강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br/> <br/>잇몸병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감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다. 그런데 다수의 연구에서 진지발리스균이 식도암, 류머티즘관절염, 심근경색 등 전신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고 있다.<br/> <br/>애리손 클라인 존스홉킨스대학교수는 연구에서 잇몸병의 심각성을 밝혀냈다. 연구에서는 351명의 췌장암 환자의 타액에서 DNA를 추출하고, 비슷한 조건(나이, 성, 사회적 지위 등)의 사람 371명(대조군)과 비교 실험한 결과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인 진지발리스(P. gingivalis)가 있으면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59%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다른 치주질환 세균인 '아그레가티박테르 악티노미세템코미탄스'(A.actinomycetemcomitans)역시 췌장암에 걸릴 위험을 최소 50%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r/> <br/>연구에서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원인으로 '염증반응'을 뽑고 있다. 염증반응이란 상처가 난 곳이 붉게 되고 부어오르며 통증을 느끼게되는 반응을 뜻한다. 잇몸 염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피가 자주 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손상된 부위에 침착된 세균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면 미생물에 의해 몸의 방어 작용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염증 반응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췌장에도 병인성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br/> <br/>김혜성 사과나무치과병원 대표원장은 "치주세균인 진지발리스에 대한 혈중 항체가 높으면 췌장암위험이 2배가 높아지고, 치주질환을 앓아본 사람은 췌장암위험이 64% 더 올라간다고 밝혀진 바 있다. 이번 연구도 구강 내 박테리아와 암과 연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다"며 "치주질환은단순한 구강 문제만이 아니라 인체 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많은 사람들이 잇몸병을 간과하고 있지만 치주 질환이 다양한 전신질환에 관여하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br/> <br/>예방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잇몸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후나 취침 전 양치질을 통해 구강 내에서 치태와 치석의 형태로 존재하는 세균을 없애는 것이다. 치주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구강 내 세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균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세균보다 상대적 우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입안은 따뜻하고 습해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치태)까지 더해진다면 입속 세균은 폭발적인 증가를 일으킬 수 있어 평소양치질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칫솔질은 하루 두 번 이상 실시하며,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인접면을 깨끗이 한다. 치과에서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잇몸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br/> <br/>김원장은 "칫솔질을 할 때 피가 난다면 그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더욱 신경 써서 닦아야 한다. 표면만 문지르는 칫솔질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잇몸 속 세균주머니인 치주포켓은 미생물 대표적인 서식지인 만큼 스케일링을 포함해 잇몸 질환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은 필수다"고 조언했다. <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70.txt

제목: 美 부부, 63년 해로 후... 20분 차 세상 떠  
날짜: 201608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10051410817  
본문: 60년을 넘게 해로하다 같은 날 20분 차를 두고 나란히 세상을 떠난 80대 미국인 부부의 이야기가 심금을 울리고 있다.<br/>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은 사우스다코타주 요양원에서 함께 여생을 보내던 헨리 드랭(86)과 저넷 드랭(87) 부부가 지난달 31일 20분 차이로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1953년 부부의 연을 맺은 이들은 63년을 함께 지내며 5명의 자식을 키웠다.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이던 아내 저넷이 오후 5시 10분쯤 눈을 감은 지 20분 만에 같은 방에 있던 남편 헨리도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br/>부부의 아들 리는 부모님 모두 평화롭게 임종을 맞이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저넷이 먼저 위독한 상태가 되자 가족들은 성경 시편 103편을 읽으며 저넷의 곁을 지켰다. 103편 암송을 채 마치기 전 저넷은 미동 없이 눈을 감았고, 다른 아들 케이스가 전립선암으로 투병하던 헨리에게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말을 전하자 그도 곧 삶의 끈을 놓았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헨리는 지난 6월 요양원 입실 전까지 퇴역군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같이 아내를 위해 요양원을 찾았다고 미국 주간 피플이 전했다.<br/>아들 리는 부모가 함께 세상을 뜬 것에 대해 “신의 사랑과 자비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행동”이라며 “이런 죽음을 미리 바란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마지막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드랭 부부의 가족은 8일 사우스다코다주 플랫에서 합동 장례식을 열어 부부의 마지막 동행이 행복하기를 기도했다.<br/>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71.txt

제목: [단독] 밀려난 장남 “회장님 치매” 사내메일 뿌려  
날짜: 201608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09051837576  
본문: 창업 가신그룹과 경영권 다툼<br/>성년후견 청구까지.. 벌금형 받아<br/><br/>부친이 40여년간 일군 기업을 차지하려다 쫓겨난 아들이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측근들이 이를 감추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신세가 됐다.<br/>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최윤정 판사는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H(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br/> 수(水)처리 전문 중견기업 A 주식회사의 창립자이자 오너의 장남인 H씨는 2013년 9월 A사 사장에 취임했다가 이듬해 7월 해임됐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일군 가신(家臣)그룹과 경영권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 자신의 배임 등 비위 의혹이 아버지에게 보고돼 쫓겨났다. 해임되기 한 달 전 H씨가 형제 3명과 함께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대신해 회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한 것도 ‘미운털’이 박히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br/>경영에서 밀려난 H씨는 2014년 9월 ‘(아버지 측근인) H감사와 K이사는 저를 포함한 전임 임원들의 비위혐의에 관한 추측과 소문을 부풀려 만들었다’,‘회장님이 치매약을 복용하고 암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가족 등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함구토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직원 180명에게 전송했다. 아버지 측근들이 A사의 가업승계를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가족이 아버지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설경호원까지 고용했다는 내용도 더했다. 나흘 뒤 그는 ‘회장님께서 당신의 주민번호 뒷자리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아버지의 정신이상 증세를 강조하는 이메일을 추가로 돌렸다.<br/>또 H씨는 그 해 10월 성년후견 사건에서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아버지의 측근 임원에게 항의하러 회사를 찾아가 “이 얼간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임원 회의를 10여분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아버지가 경영판단능력을 잃었다며 H씨가 낸 성년후견 청구를 기각했다. <br/>최 판사는 “<span class='quot0'>H 씨가 피해자 측을 비방할 목적에서 허위사실을 게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버지가 명료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음에도 정신건강 상 문제를 부각했는데, 주된 동기는 경영권 분쟁에서 피해자 측에 타격을 입히는 데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라 볼 수 없다</span>”고 판단했다. <br/><br/>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72.txt

제목: 조기 유방암 빛에 가린 전이성 유방암의 그늘  
날짜: 2016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09051840682  
본문: # A(36)씨는 최근 집과 자동차를 모두 팔기로 했다. 전이성 유방암(말기 유방암)에 걸린 아내(31)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다. 처음엔 아내의 유방암을 별 일 아니라고 치부했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본 유방암 생존자들은 ‘유방암은 극복할 수 있는 암’이라고 희망을 얘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에게 허락된 최선의 치료는 극복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 할 기간 연장뿐이었다. A씨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지만 기존 유방암 약보다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를 택했다. 첫 진료 시 800만원, 3주 간격 400만원.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만큼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A씨는 포기하지 않는다. 경제적 이유로 6살 난 딸과 아내와 함께 꾸려온 가족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시판에는 유방암 신약의 보험급여를 요청하는 전이선 유방암 환자 가족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150건이 넘었고, 급여화 요구 서명에도 1,000명 넘게 동참했다. 기존 치료제보다 우수한 생존기간 연장효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신약에 보험급여를 해달라는 것이다.<br/>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은 “<span class='quot0'>1ㆍ2기 유방암은 치료법이 많고 예후가 좋아 로또나 다름없다고 환자들을 위로하지만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은 보험급여가 안 돼 비싼 치료제를 쓰기 어려운 상황</span>”이라고 했다.<br/><br/>소외된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br/>유방암은 암 가운데 진행이 느려 ‘착한 암’으로 불린다. 하지만 다른 암과 달리 완치 기준으로 여기는 5년이 지나도 재발이 잦다. 다행히 한국유방암학회 주도로 지난 2005년 핑크리본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유방암의 조기 검진과 환자권익보호 인식이 좋아졌다.<br/> 우리나라는 유방촬영기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5배 이상(2014년 기준) 보유하게 됐다. 2014년에는 정부의 유방 건강검진 대상자의 66%가 검진에 참가했다. 2015년 4월 정부가 유방재건술 비용 절반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줬다.<br/>하지만 전이성 유방암은 철저히 소외됐다. 전이성 유방암은 암세포가 뼈ㆍ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돼 완치가 어려운 ‘4기 유방암’이다. 전이선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22%로 조기 유방암(1기: 100%, 2기: 93%)보다 크게 떨어진다(미국암학회 2014년).<br/>국내 유방암 환자 가운데 전이성 유방암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여성은 5% 미만에 불과하다. 하지만 초기 진단해 치료 받은 여성의 40%가 전이성 유방암으로 악화했다. 조기 치료하더라도, 5년이나 10년, 15년 뒤 전이성 유방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br/>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유방암 사망률이 연 2%씩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2.5%씩 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비교적 이른 나이인 평균 48세에 발병해 오랫동안 치료하면서 합병증까지 생겨 치료비가 늘고, 자녀 양육 등을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이 맡게 된다.<br/><br/>“<span class='quot1'>보험급여 전이성 유방암약 4개뿐</span>”<br/>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항암화학요법이 널리 쓰인다. 하지만 이 요법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는 등 부작용과 독성 문제가 왔다. 대표적 부작용은 구토, 전신쇠약, 탈모 등이다. 항암제 투여로 인해 무월경과 폐경이 되고, 골수기능이 억제돼 적혈구, 백혈구 수도 줄어든다.<br/> 다행히 최근 종양의 무(無)진행 생존기간을 늘리고 부작용을 줄인 표적치료제 신약이 나왔다. HER2(인간상피증식인자수용체)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트라스트주맙), 퍼제타(퍼투주맙)가 출시됐으며,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팔보시클립도 연내 국내 허가될 전망이다. 팔보시클립은 기존 호르몬억제제(레트로졸)과 병용 시 무진행 생존기간을 레트로졸 단독 요법 10.2개월을 2배 가량(20.2개월) 늘려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획기적 치료제로 지정돼 신속 승인을 받았다. 허셉틴, 퍼제타는 국제 유방암 진료 가이드라인(NCCN, ASCO)에서 도세탁셀과 함께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1차 치료제로 권고됐다.<br/>특히 퍼제타와 허셉틴, 도세탁셀 3가지 약을 병용요법하면 기존 허셉틴, 도세탁셀의 2가지 약의 병용요법보다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을 6.1개월 늘려 18.5개월의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또한 최종 전체 생존기간도 퍼제타, 허셉틴, 도세탁셀 병용요법 시 56.5개월로, 허셉틴, 도세탁셀 병용요법(40.8개월)보다 15.7개월 늘렸다.<br/>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다.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의 경우 2007~2015년에 모두 9개가 승인 받았지만 보험급여는 4개만 됐다. 신약 허가 후 보험에 등재되는 데에도 평균 20개월이나 걸린다. 일본(70일), 미국(180일), 프랑스(280일) 등에 비해 크게 뒤쳐진다.<br/> 한세환 한국유방암학회 회장은 “<span class='quot2'>새로운 혁신 치료제와 진단 검사방식 채택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span>”며 “<span class='quot2'>결과적으로 많은 유방암 환자가 경제 문제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span>”고 했다. 이경은 이대여성암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3'>유방암에 쓸 수 있는 약이 많다고 하지만 조기 유방암에만 해당해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73.txt

제목: [헬스 프리즘] 고등어구이와 자궁경부암 백신  
날짜: 2016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09051827704  
본문: 이재관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br/><br/>지난 5월 환경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고등어를 구우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의 30배로 늘어난다며 고등어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했다. 환경부는 반발이 거세지자 메시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하루 만에 발표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미 업계는 치명타를 입어 고등어 판매는 급락했고 관련 음식점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br/>이 사태를 보며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본의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이슈가 떠올랐다. 일본에서는 2013년 단체 접종한 10대 여학생 몇몇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기립성빈맥증후군(POTS)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도됐다. 이 여파로 우리나라 접종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br/>세계보건기구(WHO)는 자궁경부암 백신 권고안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해 우수한 프로파일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의약청(EMA)도 CRPS, POTS 유병률 모두 일반적인 수준과 다르지 않다고 발표했다. 자궁경부암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br/>자궁경부암으로 지난 5년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2015년) 매년 5만 명 이상 진료를 받았으며, 30세 미만은 2,000명이 넘었다. 따라서 전체 암 진료인원 중 자궁경부암 비중은 7.0%(2015년 기준)로 낮아지는 추세다.<br/>하지만, 20~30대에서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전체 암 진료인원 중 자궁경부암 비중이 10%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20~30대 젊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병률 증가는 낮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률과 무관하지 않다.<br/>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20일 2003~2004년생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 접종 후 정상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등 이상 반응사례가 퍼져 혼란과 불안을 유발했다.<br/>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으로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때면 암이 진행된 경우가 많고, 많이 진행되면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 20~30대에 자궁을 잃으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다. 따라서 국가예방접종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도입해 10대 여자 어린이에게 무료 접종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괴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br/>자궁경부암 백신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 노출되기 전, 어릴수록 예방효과가 높아 무료 접종 대상이라면 예방접종이 더 권장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중년 여성접종까지 권고하고 있다. 고등어 구이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오인해 고등어를 외면했던 것처럼 우리 딸아이가 자궁경부암이라는 치명적인 여성암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궁경부암 백신을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정부와 학계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74.txt

제목: 임신부 초음파검사 10월부터 7회에 최대 44만원 싸진다  
날짜: 2016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06051019442  
본문: 10월부터 임신부들이 받는 초음파검사 비용이 최대 44만원(7회 기준) 가량 줄어든다. <br/>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신부가 산전 진찰 목적으로 받는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회 기준 비용부담이 약 24만원(병ㆍ의원)에서 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41만~85만원을 내고 있다.<br/>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검진은 7차례로 제한된다. 임신 진단과 쌍둥이 확인 등을 위해 임신 10주 이하 기간에 실시하는 검사(2회), 11~13주 때 다운증후군 진단을 위한 검사(1회), 20주 때 구조적 기형을 확인하는 검사(1회) 등이다. 다만 임신중독증 등 임신부 건강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r/>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받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는 현재 약 18만~25만원을 내야 하지만, 건보가 적용되면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 환자도 지금까지는 질병 여부 진단 목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 시 받는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보가 적용된다. 예컨대 신장암 환자가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때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 20만~40만원에서 1만2,000원 가량으로 부담을 덜게 된다. <br/>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초음파 급여 확대에 연간 3,000억원 가량의 재정이 들 것으로 보이며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75.txt

제목: 문턱 낮춰 인기 폭발… 간편심사보험의 꼼수  
날짜: 2016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04051252517  
본문: 병력 들춰 보장금액 축소하고<br/>건강한 사람 비싼 상품 가입 유도<br/><br/><br/><br/>과거 질병을 앓았던 ‘유병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인기를 끌고 있는 간편심사보험에서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오래 전 병력까지 끄집어 내 보장수준을 축소하거나 건강한 사람까지 일부러 이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3일 이런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나섰다. <br/>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28개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간편심사보험은 지병이나 병력이 있는 사람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심사 항목을 대폭 줄인 상품. ▦최근 3개월 내 입원ㆍ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 ▦2년 내 입원이나 수술 ▦5년 이내에 암 진단 등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된다. 가입 문턱을 낮춘 대신 보험료는 보장 수준이 비슷한 일반심사보험보다 1.1~2배 비싸지만 2013년 63만여명에서 올해 6월말 202만여명으로 가입자가 급증할 만큼 인기다. <br/>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과거 병력을 들춰내 보장금액을 줄이는 ‘꼼수’를 부렸다. 가령 암, 심근경색, 뇌출혈 등에 2,000만원씩을 보장한다는 상품 설명서와는 달리, 6년 전 급성 심근경색 입원 경력을 근거로 실제 가입 후 보장한도는 심근경색, 뇌출혈에 각 100만원, 암은 1,000만원으로 줄이는 식이다. 또 가입자가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임에도 일반심사상품이 아닌 보험료가 비싼 간편보험상품에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span class='quot0'>20개 보험사가 46개 상품에서 이런 행태를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편법 판매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도했다</span>”고 밝혔다. <br/>한편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103개 치매보험상품 중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이 5개(4.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체 치매환자 중 경증치매환자가 84.2%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거의 없고 보험료만 내고 있다는 얘기다. <br/>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76.txt

제목: ‘중국판 황우석 사태’ 논란… 국제학술지, 검증조사 나서기로  
날짜: 2016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04051134807  
본문: 지난 5월 새로운 유전자 공학기술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 학자가 진위 논란 끝에 결국 국제학술지의 검증조사를 받게 됐다. ‘중국판 황우석 사태’에 중국 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br/>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봉황망 등에 따르면 영국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는 한춘위(韓春雨) 중국 허베이(河北)과학기술대 연구팀이 지난 5월호에 발표한 유전공학 기술 관련 논문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검증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대변인은 “<span class='quot0'>일부 학자들이 논문에서 제시된 기술을 재생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해왔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한 교수 팀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게재 논문에서 유전자 편집에 사용되는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기술보다 더 효과적인 NgAgo－gDNA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퍼는 DNA의 특정 부분을 인지해 잘라내고, 그 틈에 원하는 유전자를 넣거나 바꿀 수 있는 유전공학 기술이다. 세계 유전공학계는 유력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지난해에 최고의 과학기술 성과로 인정한 크리스퍼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br/>NgAgo 기술은 초정밀도로 DNA를 직접 편집할 수 있는 특수 박테리아로 ‘인간 디자인’은 물론 암 치료와 노화방지까지 적용 가능한 ‘생물공학계의 혁명’으로 불렸다. 논문 발표 이후 한 교수팀이 제시한 방법대로 실험을 수행해 성공한 사례가 나왔고, 일각에선 한 교수팀을 노벨상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다. <br/>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학자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됐다. 호주국립대 게이탄 부르지오 박사는 “<span class='quot1'>심층 조사 결과 한 교수팀의 기술이 포유동물의 유전자를 전혀 바꿀 수 없음을 확인했다</span>”고 주장했고,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생물공학센터의 루이스 몬톨리우 교수도 “<span class='quot1'>모든 학자들이 쓸데없는 낭비를 피할 것을 권한다</span>”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span class='quot2'>이미 수 차례 반복실험한 결과에 대한 외부 의견에 일일이 답변하느라 힘을 쓰고 싶지 않다</span>”면서 “<span class='quot2'>동료 학자들간의 상호심사가 가능한 공식 논문 발간을 위해 그간 제시한 기술을 가다듬을 것</span>”이라고 반발했다. <br/>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77.txt

제목: 격정의 세월을 보낸 루마니아 마지막 왕비 앤, 별세  
날짜: 201608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03051302634  
본문: 루마니아 왕가의 마지막 왕비로 격정의 세월을 보냈던 앤 드 부르봉파르므 왕비가 1일(현지시간)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2세. <br/>앤 왕비의 일생은 16세기 영국 종교개혁의 발단이 됐던 앤 불린에 비견될 정도로 파란만장했다. 헨리8세와 앤 불린의 결혼을 교황이 반대했던 것처럼 앤 왕비와 루마니아 마지막 왕 미하이(94) 국왕의 사랑도 교황이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br/>앤과 미하이의 영화 같은 이야기는 1947년 11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당시 공주)의 결혼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르봉-파르마 공작 가문의 공주였던 앤(당시 23세)은 이 결혼식에서 영국 왕실의 친척인 미하이 루마니아 국왕을 만나 사랑을 싹 틔웠다. 하지만 당시 교황(피우스 12세)은 프랑스ㆍ덴마크계로 가톨릭 가문인 앤과 정교회에 속한 루마니아 왕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앤은 루마니아 왕정이 폐지된 뒤 스위스로 망명한 미하이 국왕과 1948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정교회식 결혼을 했고,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1966년 모로코에서 가톨릭식 결혼을 하며 정식 혼인 승인을 받았다. <br/>앤과 미하이의 결혼 생활도 순탄치는 않았다. 1947년 12월 공산정권에 의해 강제 폐위된 미하이 국왕과 함께 일정한 거처 없이 스위스와 이탈리아, 영국을 오가야 했다. 루마니아 공산정권은 1948년 국왕 부부의 시민권까지 박탈했다. 미하이 국왕 부부의 시민권은 30년이 지난 97년 회복됐지만 왕위를 되찾을 수는 없었다. <br/>앤 왕비의 장례식은 13일 루마니아 중부 도시 쿠르테아 데 아르제슈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장례식에는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마가렛, 엘레나 등 5명의 공주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암 투병 중인 미하이 국왕은 앤 왕비의 병상을 마지막까지 지키며 임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br/><br/>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신재현 인턴기자(이화여대 경제학과 3)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78.txt

제목: [헬스 프리즘] 평생 치료하는 만성 B형 간염, 동반질환에 관심 둬야  
날짜: 2016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802051201024  
본문: 배시현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br/>얼마 전 50대 남성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료실을 찾았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판정을 받아 앞으로 먹어야 할 약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만성 B형 간염과 당뇨병 모두 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관리하는 질환이기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br/>이 환자처럼 다른 만성 질환을 동반한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많아졌다. 한 조사결과, 50대 이상의 국내 만성 B형 간염 환자 2명 중 1명은 고혈압, 당뇨병 같은 동반질환을 앓고 있었다. 국내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70% 정도가 40대 이상 중ㆍ장년층인 점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장기간 동반질환을 관리하면서 다른 장기 기능이 악화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br/>환자 대부분이 만성 B형 간염과 동반질환을 별개로 여기지만, 동반질환 유무, 복용 약제, 다른 장기 기능에 따라 만성 B형 간염 치료 시 고려할 문제가 많아진다. 최근 30년 동안 신장 기능이 정상 수준의 15% 미만으로 떨어진 말기 신부전 환자 수가 30배 늘었다(대한내과학회). 대부분의 약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되는데, 만성 질환 증가로 약을 장기간 먹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말기 신부전이 되면 투석ㆍ신장이식 등이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말기 신부전의 주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br/>실제로 말기 신부전의 48%는 당뇨병, 21.2%는 고혈압이 원인이었다(대한신장학회). 특히 고혈압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쓰이는 이뇨제는 신장 장애를 일으키는 독립 위험인자라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아시아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등 동반질환을 앓으면 콩팥 기능이 더 자주 손상된다.<br/>이처럼 만성 B형 간염 치료에 동반질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어 당뇨병, 고혈압 같은 동반질환을 앓는다면 만성 B형 간염 치료약 선택기준도 바꿔야 한다. 전에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와 낮은 내성 발현율이 약제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반질환을 앓는 환자, 이뇨제를 먹는 환자 등에게 치료효과가 좋으면서 다른 장기 손상을 최소화해 장기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제 사용이 중요하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콩팥 독성 위험이 낮은 약제를 고려해야 한다.<br/>국내 사망률 2위 암인 간암은 원인의 70%가 만성 B형 간염이다. 따라서 만성 B형 간염 환자라면 정기 검사로 바이러스 증식 상태를 확인하고, 꾸준히 치료해 간경변증이나 간암 여부를 살펴야 한다. 올해부터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은 간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간초음파검사 및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1년에 2번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만큼 이제는 더 장기적 관점으로 콩팥 기능은 유지하면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간질환을 관리해야 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79.txt

제목: [감동경영]아모레퍼시픽, 여성 암 환자에 메이크업 노하우 전수  
날짜: 2016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29051338603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br/>아모레퍼시픽은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2007년 11월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에 가입해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에 관한 UNGC의 10대 원칙을 기업 활동 전 부분에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br/>2008년부터 시작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이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으로 외모 변화를 겪은 여성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과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의 노하우를 전해주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암 투병 중 겪을 수 있는 심리적 고통과 우울증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336명의 아모레퍼시픽 자원봉사자들과 1만29명의 여성 암 환자가 참여하는 등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br/>아모레퍼시픽은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의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 유방 건강의 의식 향상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뿐 아니라 동반자인 남성과 가족 모두에게 여성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으로,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유방암 무료 예방 검진, 저소득층 유방암 수술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52만명에 달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80.txt

제목: 고려대 세종캠퍼스, 국내 대학 첫 가속기 연구개발시대 열었다  
날짜: 2016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29051215335  
본문: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일본도쿄공대로부터 첨단연구설비인 중이온가속기를 기증 받아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개발 시대를 열게 됐다.<br/> 고려대는 28일 오후 세종캠퍼스에서 고려대 및 일본도쿄공대 관계자, 국내 가속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이온가속기 기증식’을 가졌다.<br/> 기증받은 가속기는 도쿄공대가 2011년 개발한 가로ㆍ세로 10m 규모(50억원 상당)의 소형 연구설비다. 도쿄공대는 지진으로 전력이 모자라 가속기 실험을 중단한 뒤 창고에 보관 중이던 설비를 가속기 연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고려대에 기증하게 됐다.<br/>고려대는 2014년부터 세계 최초로 과학기술대학원에 가속기학과를 신설했다. 앞서 2013년에는 기초과학연구원(IBS)과 MOU를 체결해 주요 가속기 및 실험 연구시설을 확보하는 등 가속기과학연구 인프라를 구축했다. 미국과 일본 등 기초과학 선진국에 크게 뒤진 가속기과학기술 분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다.<br/> 고려대는 기증받은 가속기를 연말 완공 예정인 중이온가속기 실험동에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가속기 구축 연구에 활용하면서 관련 기술 확보 및 연구인력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다양한 저에너지 이온빔을 활용해 재료와 물성, 생명, 반도체 등 연구도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그 동안 추진한 KU-Magic프로젝트와 연계해 암치료용 가속기 개발을 통한 의료기술 사업 성과도 높이겠다는 의지다.<br/> 고려대는 기증받은 가속기를 과학벨트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기초 실험 등에 활용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br/> 선정규 세종부총장은 “<span class='quot0'>고려대는 그 동안 국내에 절대 부족한 가속기 전문가 육성에 힘써 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가속기 확보를 통해 실제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81.txt

제목: 고혈압ㆍ당뇨ㆍ5대암 확진검사 2018년부터 무료  
날짜: 2016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29051209703  
본문: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5대 암 질환 의심자는 확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검진 서비스 대상은 확대된다. <br/>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16~2020년)을 의결해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의심된다고 판정을 받으면 동네의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을 때 내야 했던 4,480원(2016년 기준)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암은 위암 대장암에만 적용되던 게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까지 확대돼 5대 암 모두 원하는 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으면 1만6,935원, 유방암은 6만1,060원, 간암은 9만6,107원 가량을 내야 한다. <br/>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금은 질환 의심자로 판정 받아도 검진기관을 다시 방문하거나 원하는 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확진 검사를 받는 구조라 확진 검사 비율이 38%에 그치고 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무료로 확진 검사와 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span>”고 설명했다. 연간 142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br/>특정 연령대에 제공되는 검진과 의료서비스도 확대된다. 현행 40세와 66세에 제공되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서비스는 40세 이후 10년마다 제공되고, B형간염 검사는 기존 40세에서 30세로 당겨진다. 골다공증 검사 대상은 66세 여성에서 54ㆍ66세 여성으로, 우울증 검사는 40ㆍ66세에서 40ㆍ50ㆍ60세로, 노인신체기능 검사는 66세에서 60ㆍ70ㆍ80세로 확대된다. 검진 결과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br/>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82.txt

제목: ‘방콕’ 휴가, 스테이케이션 100배 즐기기  
날짜: 201607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27051137872  
본문: “상상력은 실제 경험이라는 천박한 현실보다 훨씬 나은 대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조리스-카를 위스망스의 소설 ‘거꾸로’에 나오는 말이다. 소설의 주인공 데제생트 공작은 평생 해외여행 한번 하지 않았지만, 평생을 여행객처럼 산 인물. 그는 “여행의 가장 훌륭한 측면”이 “여행에 대한 기대”라는 사실을 이미 간파했다. 굳이 떠나봤자 실망과 환멸뿐인 여행 대신 여행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불러일으키는 물건들로 주변을 꾸며놓고, 평생을 여행처럼 살아간다.<br/>이곳이 아니면 어디라도 행복할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 여행가방을 싼다. 그러나 기대로 떠났던 여행에서 실망으로 돌아온 일은 얼마나 잦았던가. 집에서 보내는 휴가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이 새로운 트렌드이자 갈망으로 떠오른 것은 돈과 시간, 기력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쉴 수 없는 마음으로 몸만 떠난 여행, 타성에 젖은 이국 취미, 쫓기듯 둘러보는 관광명소와 유명 맛집 대신 느리고 게으르게 마치 그곳에 사는 것처럼 여행하고 싶은 욕망이 마침내 발아했다. 트렌드모니터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름휴가에 여행을 떠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로 절반을 넘었다.<br/>스테이케이션을 100배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모았다.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휴가가 아닌 것은 아니다. 어영부영 시간을 다 흘려 보내지 않도록 오히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거실에 텐트 치고 여행서 독파하기부터 홈 스파에 홈 필름 페스티벌까지, 가성비 최고의 휴가법을 소개한다.<br/>책으로 대신하는 여행 ‘독서형’<br/>“잠자기 직전 여행서를 읽으면 그 여행지 꿈을 꿀 확률이 높더라고요. 어느 날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 소리’를 읽다 잠들었는데, 내내 이탈리아를 헤매고 다니는 꿈을 꾼 거예요. 비싼 돈 들여 힘들게 찾아간 여행지에서 직장상사가 나오는 악몽을 꾸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겠구나 싶어 자기 전에는 주로 여행서를 읽어요.”<br/>40대 직장여성 A씨는 여행서 마니아다. 콩나물 시루 같은 출근길의 지하철 1호선이 파리 여행기를 읽고 있으면 이내 파리의 지하철로, 뉴욕의 여행기를 읽고 있으면 뉴욕 지하철로 순식간에 뒤바뀐다. 바로 그 장소를 환기시키는 음악까지 곁들여지면, 단지 상상력만으로 시공간을 훌쩍 이동할 수 있는 마법이 펼쳐지는 것. 올해 A씨는 휴가를 떠나는 대신 집에서 여행기나 실컷 읽으며 지낼 계획이다. 여행의 BGM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도 미리 마련해뒀다. 거실에 텐트 치고 분위기까지 그럴듯하게 잡으면 금상첨화일 터.<br/>여행이라는 것에도 역치가 존재해 일정 빈도가 넘으면 감흥도 급격히 감소하게 마련이다. 아무리 직접 체험이 중하다지만, 5박6일로 훑고 와선 알아채기 힘든 느낌과 생각들이 작가들의 긴 여행과 사진 속에는 오롯이 담겨있다. 가성비로 따지면 여행보다 여행서가 나을 수도 있다. 여행의 암과 명을 절창의 문장으로 읊어낸 후지와라 신야의 책들과 시크하고 경쾌한 하루키나 알랭 드 보통의 여행 에세이는 대조적이면서 보완적인 대표적 히트작들이다.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이나 로르카의 ‘인상과 풍경’ 같은 책으로 고전의 향취를 더하고, 한국 문인들이 세계 각지의 도시를 테마로 쓴 난다의 ‘걸어본다’ 시리즈로 동시대의 감각을 보완하면 책으로 떠나는 5박6일 일정의 스테이케이션을 계획할 수 있다.<br/>음식으로 세계일주 ‘먹방형’<br/>스테이케이션에서는 외식과 요리의 비중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하루 세 끼 알뜰히 다 해먹겠다고 덤벼들었다간 치우고 돌아서면 들이닥치는 다음 끼니로 인해 분노의 화염에 휩싸일 수도 있다. 특히 전업주부라면 ‘주방 감옥’에서 해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침은 간단히 사다 놓은 빵 등으로 호텔 조식처럼 먹고, 점심은 배달음식이나 외식, 저녁은 그날의 테마 요리를 정해 직접 해먹는 식으로 운영하면 좋다.<br/>구할 수 있는 식재료와 접할 수 있는 레시피가 전 지구적 차원으로 반경을 넓힌 시대, 음식은 여행의 추억이나 여흥을 북돋우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보고 싶은 여행지의 음식을 테마로 스테이케이션 기간 중 먹을 음식들로 식단표를 짠다. 그때 그곳에서 먹었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만들기 위해 레시피를 베껴 쓰고,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액티비티다. 런던에서 먹었던 제이미 올리버 레스토랑의 치킨 스테이크는 올리버가 직접 공개한 레시피대로 적당히 흉내내 만들 수도 있고, 삿포로 라멘골목에서 먹었던 쇼유라멘이나 푸켓 해변의 수키도 프리미엄 푸드마켓을 뒤지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의 흥겨움을 재현하는 데는 해물이 잔뜩 들어간 스페인식 볶음밥 파에야, 마늘과 새우를 올리브유에 튀기듯 볶아내는 감바스 알 아히요, 와인에 오렌지, 레몬 등 과일을 넣어 만든 칵테일 상그리아가 제격이다.<br/>여수를 달래는 데 술처럼 좋은 음식도 없다. 산지별로 골라먹는 각국의 와인이나 맥주가 식상하다면, 프랑스의 칼바도스, 스페인의 셰리, 그리스의 우조 같은 이국적 주류로 기분을 내보면 좋다.<br/>가슴 울렁이는 음식여행이 꼭 해외일 필요는 없다. 통영 바닷가의 추억은 간단히 말아 오징어무침과 함께 먹는 충무김밥으로 한껏 되살아나고, 한라봉에 탄산수만 부으면 되는 한라봉에이드로 제주 여행을 환기할 수도 있다. 속초의 닭강정, 새우강정, 대게고로케, 춘천 닭갈비, 부산 유부전골 같은 지역 별미쯤은 먹어야 제대로 된 스테이케이션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잡한 요리법은 잠시 잊고 택배회사에 접속해 보자. 제주에서 방금 잡은 싱싱한 갈치와 문어가 산지 직송으로 바로 배송된다.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별미여행’ 서비스의 앱을 다운로드하면 가창 옛날 찐빵손만두, 강원도 밀원 안흥찐빵, 경주제과 경주빵, 제주 오메기떡, 천안 광덕산 호두과자를 동시에 주문할 수도 있다.<br/>오로지 재충전에 집중 ‘홈스파형’<br/>일상에서 나를 억누르는 진상, 밉상, 화상들의 기억으로 몸과 마음이 잔뜩 성난 상태라면 홈스파형 휴가가 제격이다. 목욕은 제대로만 한다면 체지방 연소에, 혈액순환 개선,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니 힘들이지 않고 심신에서 피로를 덜어낼 몇 안 되는 방법이다.<br/>최근 시장에는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는 플랜Z 시대의 소비자를 겨냥한 보디스크럽, 거품입욕제, 브러시, 향초, 로션, 트리트먼트 등 다양한 홈스파 제품이 즐비하다. 이 모든 장비가 비싸고 번잡스럽다면 취향에 맞는 아로마오일 한 두 가지로 향기요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br/>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에 따르면 식물의 열매, 씨앗, 잎, 꽃,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휘발성 정유, 즉 에센셜 오일은 호흡, 폐, 피부 등을 통해 흡수되며 감정에 즉각적 영향을 준다. 프랑스어로 ‘라바레(Lavareㆍ씻다)’를 어원으로 하는 라벤더는 대표적 릴랙스 향이다. 일상의 각종 번뇌가 높여놓은 혈압을 낮추거나, 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준다. 지친 심신에 활력을 주는 페퍼민트도 급성 편두통을 완화하는 향이다. 또 다른 대표적 진정향은 캐모마일. 주변 식물이 병에 걸리지 않아 ‘식물의 의사’라는 애칭을 가진 캐모마일은 심신의 밸런스를 조절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향이다.<br/>아로마 오일류는 전용 디퓨저나 아로마 가습기를 활용하거나 컵에 뜨거운 물을 5분의 4 정도 넣고 오일을 1, 2방울 떨어뜨려 은은한 향기를 느끼거나, 목욕 물에 희석하면 된다. 민감성 피부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사용 전 희석오일(2%)을 목뒤나 팔 안쪽에 살짝 떨궈 시간이 지난 후 붉어지거나 가렵지 않은지 확인 후 사용하면 된다.<br/>스파의 최고 미덕인 마사지는 가족이나 친구끼리 번갈아 해줘도 좋고, 홈트레이닝 기구인 폼롤러(foam roller)나 빈 맥주병 등을 활용해 뭉친 부위를 지속적으로 풀어주면 셀프로도 가능하다. 폼롤러나 수건으로 감싼 빈 병 등을 등, 종아리 아래쪽, 허벅지 측면 등에 넣고 굴리면 된다.<br/>온갖 몰입의 기쁨 ‘정주행형’<br/>미친 듯이 쏟아지는 업무 지시, 메시지, 결재 서류 등에 휩쓸려 일상에선 당최 불가능했던 한가로운 취미생활을 고속도로 달리듯 ‘정주행’해 보는 것도 스테이케이션만의 특권이다. 드라마나 만화책 모아 보기, 컬러링북이나 퍼즐 독파하기, 각종 추억의 놀이감에 빠져보기 등 평소라면 도저히 한가롭고, 쓸모 없고, 엄두가 나지 않았던 일들에 단 며칠만이라도 죄책감 없이 몰입해 보는 거다. ‘뭘 해볼까’ 상상력을 총동원하는 일만으로 이미 가슴이 뛴다.<br/>정주행의 고전은 역시 드라마 다시보기. 노희경, 김은숙, 박지은, 김은희 등 ‘믿고 보는 작가들’의 대표작은 물론, 온오프라인에서 조금만 품을 들이면 ‘정주행 하기 좋은 드라마 추천’ 리스트가 쏟아진다. 명작드라마를 섭렵하며 2박3일간 누군가의 인생과 철학 속을 여행하는 일의 매력을 안다면, 누가 이 여행을 하잘것없다 비난할 수 있을까.<br/>드라마고 뭐고 머리와 마음 쓰는 모든 일에 지쳐버렸다면 오감을 되살릴 심심풀이, 단순노동 취미들에 눈을 돌리는 방법도 있다. 쓸모 없는 짓의 행복이 얼마나 거대할 수 있는지 우리시대는 비로소 체감하는 중. 서점가에는 이런 취향을 저격한 신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난다. 2014년 ‘비밀의 정원’을 시작으로 불어 닥친 컬러링북 열풍 덕에 최근까지 출시된 컬러링북은 1,000여권에 육박하니, 취향에 맞는 책을 고르려다 즐거운 비명을 지를 지경이다. 꽃과 식물만 봐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보태니컬 홀릭’들을 위해 꽃, 열매, 식물 등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채색하는 법을 안내하는 각종 ‘보태니컬 아트 가이드북’도 최근 2, 3년 새 20권 넘게 출간됐다. 올 봄 출간돼 ‘덕후’들의 그때 그 시절을 소환한 ‘추억의 종이인형 오리지널’은 안티 스트레스북에 추억여행을 더했다. 1970~90년대 꾸준히 문방구에 등장해 인기를 끌었던 종이인형 도안들을 그대로 재현해 수록했다.<br/>이런 각종 안티 스트레스북에 “완전히 꽂혀있지만 바빠서 그간 구경 밖에 못했다”는 회사원 B(32)씨는 돌아오는 휴가 기간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모아 색칠하고, 그리고, 오리며 수다 파티를 즐길 생각이다.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은데 밖에서 진땀 흘리는 것보단, 올해 만이라도 친구나 가족들과 단순한 힐링을 하면서 못다한 얘기들 풀어놓는 게 머릿속을 비우는 데는 제격일 것 같아요. 여기에 간단한 간식에 맥주를 갖춘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br/>‘여기가 깐느여?’ 홈 필름 페스티벌<br/>1년이면 두세 편씩 1,000만 관객 흥행작이 나오는 영화 전성시대지만, 일하느라 애 키우느라 극장 구경 해본 지 오래인 사람들도 많다.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또는 봐도 봐도 좋은 영화를 실컷 보고 싶은 영화 마니아라면 더더욱 귀가 솔깃할 스테이케이션 아이디어가 ‘홈 필름 페스티벌’. 내가 원하는 영화들로만 프로그램을 짜 내가 원하는 관람객들과만 함께 보는 나만의 자유로운 전용극장이다. 영화제처럼 특정 주제를 정해 상영작 리스트를 만들고, 빔 프로젝터나 대형 TV화면을 통해 내리 관람하는 거다. ‘모든 도피자에게 바칩니다’라는 자막으로 시작하는 1990년대 영화 ‘지중해’를 보며 눈이 시리도록 푸른 지중해로 ‘안구정화’를 하거나 배낭여행 열풍을 불러일으킨 ‘비포 선 라이즈’를 다시 보며 추억되새김을 하는 식이다. 여자친구들끼리 모여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보며 이탈리아와 발리와 인도를 두 시간 만에 여행하는 것도 알차다. 연령대가 다양하거나 관심작이 엇갈린다면, 더 정교한 논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치밀하게 짜야 분란이 안 생긴다.<br/>가용 예산 범위에서 영화제의 인프라 구축에 적절히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모든 것을 집에서 해결하려는 ‘홈 트렌드’의 강력한 자장 아래 홈시어터 구축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스크린 대신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방 벽이나 천장에 쏘아 올려 영화관 대형 스크린처럼 감상하는 빔 프로젝터도 있는데, 최근 온라인쇼핑몰 11번가에서만 전년 대비 판매율이 94%나 증가, 홈무비족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br/>홈 영화제의 또 다른 매력은 팝콘과 콜라, 전기구이 오징어 외에 내가 원하는 음식이면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쩝쩝거리며 먹어도 좋다는 것. 심지어 놓친 장면 돌려보기도 가능하다. 영사기사를 돌아보며 애절한 눈짓과 손짓을 보낼 필요 없이 ‘시네마 파라디소’를 집안에 펼쳐놓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영화제는 찾기 어렵다.<br/>박선영 기자 aurevoir@hankookilbo.com<br/>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br/><br/>성공적 스테이케이션을 위한 5대 수칙<br/>1. 휴가를 함께 보내는 구성원들끼리 스테이케이션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미리 갖는다. 스테이케이션이 휴가라는 분명한 인식 공유가 없으면 한 사람만 스테이케이션 중이고 다른 사람은 가사노동에 시달리다 끝날 수도 있다. 빨래는 스테이케이션 마지막 날 함께하고, 요리와 설거지는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지 등 미리 역할 분담에 합의한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을 과감히 시댁이나 처가 등으로 보내고 혼자만의 스테이케이션을 짧게라도 보내는 게 현명하다.<br/>2. 휴대폰은 방해 금지 또는 에어플레인 모드로 해놓는다. 급작스런 상사의 호출이나 친지 방문 등의 습격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스테이케이션 중이라는 사실은 가급적 아무도 모르는 것이 좋다.<br/>3. 집에서 빈둥거릴 때보다 빨리 흐르는 시간은 없다. 그래서 스테이케이션은 여행보다 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5박 6일 여행 일정 짜듯 꼼꼼하게 하루하루의 스케줄을 짠다. 빈둥빈둥 쉬는 것도 중요한 일정이므로 가장 잘 빈둥거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스테이케이션이라면 사전 회의를 소집해 프로그램을 논의하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은 종이를 단지 안에 넣고 전날 하나씩 제비뽑기 하며 내일의 프로그램을 정하는 것도 재미있다.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분위기가 한껏 살아나면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br/>4. 스테이케이션의 핵심은 집이 아니라 휴가다. 여행지의 분위기가 나도록 집안의 풍경을 살짝 바꿔주면 휴가의 흥취를 한껏 돋울 수 있다. 거실에 텐트를 쳐 캠핑 분위기를 내거나 여행가방을 꺼내 각자 짐을 담아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br/>5. 가용 예산을 미리 정하고, 외식과 외부 액티비티에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한다. 가보지 못했던 근처 맛집이나 공연, 전시 등으로 바깥바람을 쐬는 것도 필요하다. 가사노동에 함몰되지 않도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83.txt

제목: [태블릿+] 뇌졸중 예방 효과와 출혈 안전성 잡은 다크호스 항응고제 ‘엘리퀴스’  
날짜: 2016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26051118465  
본문: 뇌졸중은 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다. 의사소통장애, 보행장애 등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질환이기도 하다. 뇌졸중 발생과 사망률을 늘리는 원인의 하나가 심방세동이다. 심방세동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심장 부정맥(불규칙한 심장박동) 질환으로, 심방세동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5배나 높다.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은 30일 연관 사망률 24%, 1년 내 사망 가능성 50%로 다른 뇌졸중보다 더 중증일 수 있다.<br/>심방세동 환자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 사용이 권장된다. 기존에 주로 쓰이던 항응고제인 와파린은 정기 혈액검사를 통해 혈액응고 수치를 모니터링해야 하거나 특정 음식과 상호작용 등 치료의 어려움이 있었다.<br/>그러나 이런 한계를 효과적으로 해소한 먹는 항응고제가 와파린 이후60년 만에 나왔다. 심방세동 환자의 항응고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 중에서도 한국BMS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의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ㆍ사진)는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와 안전성이 좋다. 그러면서도 기존 치료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항응고제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br/>엘리퀴스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1차 효능 지표인 뇌졸중과 전신 색전증 위험 감소에서 와파린보다 상대 위험 감소율 21%로 우월성을 입증했다. 와파린보다 치명적ㆍ장애성 뇌졸중 위험도 29% 줄였다.<br/>또한, 엘리퀴스는 와파린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스피린과 대조한 연구를 진행, 뇌졸중과 전신 색전증 위험 감소에 있어 좋은 효과를 입증했다. 이 연구는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 중 유일하게 진행된 연구로 엘리퀴스 제품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br/>안전성 확보도 엘리퀴스의 차별화된 강점이다. 엘리퀴스는 와파린보다 주요 출혈 발생률을 31%, 사망률은11% 줄였다. 이런 안전성은 최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여러 데이터를 통해 실제 임상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와파린과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로 치료를 시작한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엘리퀴스가 다른 항응고제보다 치료 지속성이 높고 출혈 안전성은 낮았다.<br/>신규 경구용 항응고제 중 유일하게 와파린 대비 위장관 출혈 위험을 낮춘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미국신경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지만 위장관 출혈 위험이 높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엘리퀴스를 우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심방세동 환자는 상대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 많은데, 엘리퀴스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콩팥 배설이 27%로 비교적 낮아 고령인과 콩팥장애 환자에서도 용량을 조절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투여할 수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84.txt

제목: ‘마지막 강의’의 랜디 포시  
날짜: 2016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25051023667  
본문: [기억할 오늘] 7월 25일<br/><br/>미국 펜실베이니아 카네기멜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랜디 포시(Randolph “Randy” Pausch, 1960~2008)는 2006년 9월 췌장암에 걸렸다. 절제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8월 암은 재발했고, 의사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3~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07년 9월 18일 카네기멜론대 대형 강의실에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마지막 강의’를 펼쳤다. 강의 제목은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는 방법 Really Achieving Your Childhood Dreams’이었다. <br/> 유년의 꿈 목록- 무중력 체험하기, NFL무대에 서기, 월드백과사전 한 항목 집필하기, 스타트랙 커크 선장 만나기 등등-과 색 바랜 사진들을 슬라이드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강의를 시작한 그는 그 꿈들을 위해 노력하고 좌절하고 성취해온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을 이야기했다. “<span class='quot0'>자유란 잃을 것이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span>” “<span class='quot0'>진정한 경험은 당신이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얻어집니다.</span>” “<span class='quot0'>장벽은 어린 시절의 꿈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span>” 등등.<br/>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시종 그의 표정에서 떠나지 않던 편안하고 익살맞은 미소와 유쾌한 농담이었다. 길든 짧든 삶을 진지하게 살아낸 뒤 죽음을 마주할 때 지닐 것 같은 기품과 여유가 그 미소와 농담을 통해, 마지막 강의로 완성되는 듯했다. 그의 전공은 컴퓨터 가상현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월트 디즈니사의 오락과 각급 학교의 오락학습(Edutainment) 등에 접목시키며 업적을 이루었다. 강의에서 그는 자신의 성취를 도운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며, 타인의 꿈을 돕는 일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일이라고도 했다. <br/>그는 강의 이후 췌장암 연구 기금 확충 캠페인 등에 가담하며 활발히 활동했고, 한국계 NFL 선수 하인스 워드의 초대로 이루지 못한 꿈 가운데 하나였던 NLF 무대에도 섰다. 그의 마지막 강의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와의 공저로 책으로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됐고, 한국어를 비롯 46개 언어로 번역 출간됐다. 2008년 7월 25일, 48세의 그가 별세했다. 최윤필기자 proos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85.txt

제목: [복면기자단] ‘애증의 버거’ 쉐이크쉑… “20분쯤 줄 설 수 있어”  
날짜: 2016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25051022873  
본문: 미국 뉴욕의 프리미엄 수제버거 쉐이크쉑(Shake Shack)이 마침내 한반도에 상륙한 22일. 30도가 넘는 폭염 아래 몇 시간씩 줄을 서지 아니하면 구경조차 할 수 없던 그 애증의 버거를 복면기자단이 맛봤다. 두 시간 반 동안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닦으며, 휘청거리는 다리와 현기증 이는 이마를 짚으며 입장한 매장 안. 대표 메뉴인 쉑버거와 바닐라쉐이크, 프라이를 주문할 때, 잠시 헛기침이 나왔던 건 분노해서일까, 감격해서일까. 맛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프랜차이즈 수제버거와 비교, 시식했다. 대조군으로 일본의 모스버거, 미국 서부의 자니로켓 버거가 채택됐다. 시식 토론에는 복면기자단의 ‘아연한 맨’, ‘행복하슈렉’, ‘낮술 마신 밤의 여왕’이 참여했다.<br/><br/>낮술 마신 밤의 여왕(이하 여왕): 수제버거를 먹는 이유인 패티부터 얘기해보자. 일단 두께로 보면 쉑버거가 압도적이다. <br/>아연한맨(이하 맨): 맛과 양 모두에서 ‘육식주의자를 위한 버거'다. 셋 중 최고다. 고기 먹을 때 밥, 쌈장, 상추 같이 먹는 거 싫어하는 나 같은 육식근본주의자의 욕구를 잘 만족시켜준다. 특히 싫어하는 게 마늘, 양파, 고추 같은 오신채와의 조화인데, 순전한 고기 맛만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매우 적합하다.<br/>여왕: 솔직히 모스버거를 빼곤 차이를 모르겠다. 고슬고슬 낱알로 떨어지는 다진 고기가 수제버거의 매력인데, 모스는 여백 없이 꽉 찬 조직감이 수제버거 같지가 않고, 냉동 떡갈비 같다. 자니로켓과 쉐이크쉑은 비슷하지 않나?<br/>행복하슈렉(이하 슈렉): 난 채소와의 조화가 뛰어난 자니로켓이 가장 맛있다. 쉑버거는 비주얼상 양상추와 토마토가 주는 산뜻함이 미각적으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br/>여왕: 쉑버거는 ‘나는 지금 고기를 먹고 있소이다’라는 충일감을 너무 강요하는 것 같다.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에 그만 탐닉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육즙은 자니로켓도 떨어진다.<br/>슈렉: 자니로켓은 소스와 양파맛이 고기와 잘 어우러져서 고기만 먹고 있다는 죄책감이 줄어드는 느낌이다. <br/>맨: 극도의 영업비밀이라고 내세우는 쉑소스가 다른 데서는 못 먹어본 색다른 맛이다. <br/>여왕: 버거마다 다 고유의 특제소스가 있긴 하다. 모스버거도 특제 미트소스를 내세우고, 자니로켓도 직접 개발한 소스를 강조한다. <br/>맨: 모스버거는 차라리 소스를 개발하지 않는 게 나았다.<br/>여왕: 미국 음식비평 사이트 ‘시리어스 잇츠(Serious Eats)’에 보니 페이크 쉑소스 만드는 법이 있다. 매장 캐셔가 “마요네즈를 베이스로 신맛, 단맛, 매운맛을 가미했다”고 알려준 말을 듣고 별도로 파는 쉑소스를 사다가 재현한 레시피가 공개돼 있다.<br/>맨: 느끼한 가운데 산미가 느껴졌는데, 그게 사우어 소스였나 보다. <br/>여왕: 자니로켓 소스가 바디감 있고 묵직하다면, 쉑소스는 약간 가볍고 경쾌한 맛이다. 그런데 왜 버거를 셰이크랑 먹는지 이해불가다. 버거가 6,900원인데, 셰이크가 5,900원이다. 끼워팔기 느낌이다.<br/>슈렉: 짠맛의 프라이까지 요즘 트렌드인 단짠(달고 짜고의 반복)과 잘 맞을 수 있겠다. 하지만 난 콜라로 입가심하고 싶다.<br/>여왕: 이렇게까지 줄을 서서 먹을 만한 맛인가? 사실 난 세상의 어떤 음식도 줄 서서 먹는 데 반대다.<br/>슈렉: 20분 정도는 줄 설 수 있을 맛이다. 대체불가 정도의 맛은 아니라고 본다. <br/>맨: 누군가와 함께라면 15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거 같다. 혼자면 5분도 안 설 것 같지만.<br/>여왕: 이렇게까지 줄 서는 행위를 한심하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난 그냥 작은 축제 같은 거라고 본다. 평양냉면 집 앞에 길게 늘어선 노인분들과 아이폰 매장 앞의 얼리 어댑터와 뭐가 다른가. 한국만 이런 것도 아니다. 작년에 H&M과 발망의 컬래버레이션 때도 전 세계가 소동을 벌였고, 크라상과 도넛을 결합한 ‘크로넛’이 뉴욕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아예 암판매상까지 나올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서 뉴욕타임스에 몇 번이나 대서특필 됐다.<br/>맨: 줄 서야 먹는 식당이라는 게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랑 비슷하게 뭔가 피학적인 쾌감이 있다. 같이 흉볼 사람이 없으면 흥이 안 난다. <br/>슈렉: 그게 뭐든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걸 비난할 이유는 없다. 그게 무엇이냐에 대한 가치평가는 주관적인 거니까. 신제품이란 게, 특히 남들이 찬탄하는 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가 확인해보겠다’ 이런 검증욕구 아니면 압박이 좀 있다. 허니버터칩 대란 비슷한 거 아닐까.<br/>맨: 맞다. 쉐이크쉑도 미국 3대 버거(인앤아웃, 파이브가이즈)니 뭐니 해서 검증 욕구를 마구 자극했다. 인앤아웃이 들어와도 똑같은 풍경이 연출될 것 같다. <br/>슈렉: 초반에 안 먹어본 사람 소외감 느끼게 하는 마케팅 전략 같다. 열기에 열기가 더해지고 나면 홍보팀은 거들뿐. 욕을 먹든 찬탄을 받든 일단 도마 위에 올라야 흥행하는 거다.<br/>여왕: 쉐이크쉑은 파인캐주얼을 앞세운다. 스테이크 대신 먹어도 흡족한 버거라는 뜻일 텐데, 버거+프라이+쉐이크 가격이 1만6,700원이다.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버거만 놓고 보면 6,900원으로 국산 수제버거인 크라제 마티즈 9,600원보다 훨씬 싸다. 냉동 다짐육으로 만드는 ‘패스트푸드 버거의 정점’ 버거킹 와퍼(5,400원)보다는 비싸지만 수제니까. 대신 쉐이크 5,900원, 콜라 2,700원 등 음료가 비싸다. 버거킹 콜라가 1,700원인데, 같은 콜라라고 같은 가격을 받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전략에 휘말린 느낌은 든다.<br/>맨: 쉐이크쉑도 들어올 때 ‘한국패치’ 붙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한국 요식업계의 상술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컸다. 패치가 게임수정 버전을 뜻하는데, 오죽하면 한국에만 들어오면 질이 떨어지는 식으로 내용이 수정된다는 의미로 인터넷 은어까지 생긴 거다.<br/>여왕: 미국에서 먹는 맛과 사이즈 그대로 한국에 들여왔다고 한다. “<span class='quot0'>한국 고객이 원하는 건 미국 쉑버거의 맛이지 한국화된 맛이 아니다</span>”라는 게 본사의 판단이자 전략이라고. 우리 사회의 사대주의를 너무 잘 아는 것 같다.<br/>맨: 꼭 사대주의라기보단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한국 패치 붙어서 퀄리티가 올라간 게 없다. <br/>여왕: 자니로켓과 쉑버거 모두 미국 버거인데 크기 차이가 너무 난다. 동부는 소식가이고, 서부는 대식가인 걸까. 수제버거라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층고를 자랑해야 한다는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사이즈다.<br/>맨: 그게 K-버거의 전형이다! <br/>여왕: 열어보면 양상추 한 가득인? 질소포장 과자도 아니고.<br/>맨: 자를 때 다 무너져서 얼마나 짜증나는데. 한때 팥빙수도 산처럼 쌓아 올리는 거 유행하다가 다 사라졌다. 너무 질질 흘리니까 사람들이 짜증내서.<br/>슈렉: 역시 한 입에 들고 먹을 수 있으면서 패티가 알찬 게 최고 아닐까. 처음엔 칼로 썰어먹어야 하는 수제버거가 좋은 줄 알았으나 이제는 별로다. <br/>여왕: 크기는 작지만 패티 두께는 쉑버거가 제일 두껍다. 무항생제·무호르몬제 앵거스 비프 100%라니 아이들 먹이기에도 좋을 것 같긴 하다. 음식평가의 기준이 양보다 질로 옮겨가야겠지만, 양이 적다고 꼭 질을 추구한 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 쉑버거가 어떤 평가를 얻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br/>박선영 기자 aurevoir@hankookilbo.com<br/>황수현 기자 sooh@hankookilbo.com<br/>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86.txt

제목: 행복은 먼저 웃는 것이다  
날짜: 201607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25050852009  
본문: 여행의 시작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백인 인구가 흑인 인구보다 많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시작됐다. 수백 년 동안 네덜란드와 영국의 지배를 받아 아프리카라기 보단 유럽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남아공은 백인들의 흑인 인종차별로 아픔이 컸던 나라이기도 하다.?1991년에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흑인들은 과거 인종차별의 영향으로 문맹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br/>아프리카 자연의 다양성은 곧 문화의 다양성으로 이어진다. 아프리카 문화 중 음악, 무용은 우수한 수준의 예술로 평가 받는다. 음악과 무용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데 길거리에서도 기쁘면 이들은 춤을 춘다. 이들은 희로애락을 노래와 춤으로 달래고 있다.<br/>카페나 상점 숙소 등 안에서는 좋은 글귀들을 걸어놓거나 재미있는 문구를 적어놓는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항상 생활 속에 유머가 살아있다.<br/>덤불 속에 산다고 해서 부시맨(Bushman)으로 알려진 산(San)족. 관광객들을 위한 퍼포먼스가 있는 날이다. 그들의 공연을 보다 금새 시무룩해져선 텐트로 돌아가는 나를 보며 가이드와 드라이버가 묻는다.<br/>“해피니스, 행복해 보이지 않아. 무슨 일이야?”<br/>“부시맨 공연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래, 혹시 국가가 부시맨족의 인구 등을 관리해? 그리고 혹시 문명생활을 원하면 선택할 수 있어?”<br/>“그렇진 않아. 독립 이후에 정부에서 이동하지 말라고 해서 정착했지만 인구를 관리하지는 않아. 그들의 믿음에 의지해 생활하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지.” <br/>문득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에게 글을 가르치려는 메릴 스트립에게 로버트 레드포드가 한 말이 떠올랐다. “<span class='quot0'>흑인들에게 글이 없는 게 아니라 쓰지 않을 뿐이라는...</span>”<br/>내가 믿는 것과 그들이 믿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인도에서 배웠는데도 또 다시 각성하게 되다니. 그들이 아직 원시시대에 머문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들의 기준일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속도와 경쟁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문명의 비극을 보고 그들은 뭐라 할지 내심 궁금해진다.<br/><br/>짐바브웨에서 태어나 지금은 남아공에 산다는 로렌(Laurineㆍ32ㆍ여행사 매니저, 전직 요리사) 항상 웃으며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녀에게 행복에 대해 물었다.<br/>김�j : 로렌 너는 행복해?<br/>로렌 : 나는 진짜 행복하지.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해. 내가 아는 것들 즉 자연과다른 문화 등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즐거워.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들이 행복한 미소 짓는 것을 보면 행복감을 넘어 정말 짜릿한 기분마저 들지.<br/>김�j :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br/>로렌 : 행복은 안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거지. 행복은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이야. 그리고 그 감정이 긍정적이면 주변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거고.<br/>김�j :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br/>로렌 :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스트레스를 받지마. 그 일을 그냥 사랑해야 해. 나에게는 이 일이 보람 있고 재미가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행복한 거지.<br/><br/>배움 8<br/>행복은 내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br/><br/>숙박업에 종사하는 페로(Peloㆍ25)는 사람들과 대화 전 항상 웃고 시작한다.<br/>김�j : 페로 너는 행복해?<br/>페로 : 나는 진짜 행복하지.<br/>김�j : 네게 있어 행복의 비결은 뭐야?<br/>페로 : 먼저 웃는 거야. 아시아 사람들 보면 시무룩한 표정이 많은데 왜 그래?. 우리들은 감정 표현이 확실해.<br/>김�j : 아시아 사람들은 유교, 불교 등 감정을 너무 드러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거든.<br/>페로 : 글쎄... 자유로운 감정표현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야. 이를 드러내지 않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어제 네가 보여준 영상 있지? 우리들은 손님들 환영하는 의미로 춤과 노래를 해. 우리 가족들은 모두 숙박업에 종사하는데 어제 환영인사로 한 춤과 노래가 너희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 항상 웃으며 즐겁게 재미있게 생활하는 게 행복이 아닐까.<br/>?<br/>배움 9<br/>행복은 먼저 웃는 것이다<br/><br/>퇴직 후 부부가 함께 세계 여행 중인 암브라(62)에게 청년들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br/>암브라 :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야 해요. 이탈리아도 예전과 달리 요즘 청년들은 힘들어요.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각자가 진 상황 등에 얽매여 있기 보다 그런 제약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는 의지가 필요해요. 인생은 짧으니 더 표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즐기고 인생을 개척하세요.<br/><br/>배움 10<br/>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것이다<br/><br/>행복여행가 김�j씨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87.txt

제목: 여름에 먹으면 더 좋은 슈퍼푸드 10가지  
날짜: 201607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23051144010  
본문: 무더운 날씨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지치고 힘든 여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먹으면 힘이 나는 음식을 섭취해야겠죠. 수박부터 콜리플라워까지, 특히 여름철에 몸에 좋은 슈퍼푸드 10가지를 알아봅시다.<br/><br/>1. 수박<br/><br/><br/>여름철을 대표하는 과일인 수박은 리코펜이라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수박은 수분이 많아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br/><br/><br/>2. 블루베리<br/><br/><br/>블루베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C,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복부 지방을 태우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기억력 향상에도 좋다고 하네요.<br/><br/><br/>3. 토마토<br/><br/><br/>천연 피부 보호제 역할을 하는 토마토는 여름철 따가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수박처럼 토마토에도 리코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br/><br/><br/>4. 라즈베리<br/><br/><br/>라즈베리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항암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라즈베리 한 컵에는 일일 권장량의 30%가 넘는 섬유질이 포함돼 있습니다. <br/><br/><br/>5. 시금치<br/><br/><br/>뽀빠이가 즐겨 먹는 시금치에는 항산화물, 항염증제, 비타민, 노화방지 성분이 가득해 시력을 향상해주고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시금치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에 시금치를 넣어 먹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br/><br/>6. 키위<br/><br/><br/>키위는 섬유질과 칼륨, 비타민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 및 뇌기능에도 좋다고 합니다.<br/><br/>7. 마늘<br/><br/><br/>마늘은 많이 알려진 것처럼 피로회복이나 스태미나 향상에 도움을 주고, 살균이나 항균 작용도 뛰어납니다. 따라서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2쪽 이상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br/><br/>8. 아스파라거스<br/><br/>아스파라거스는 비타민A, 칼륨, 식이섬유 등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암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비타민K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비타민K를 함유하고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br/><br/>9. 레몬<br/><br/><br/>레몬 한 개를 갈아 만든 주스는 열량이 12cal에 불과합니다. 비타민C를 다량 함유한 대표적인 과일이며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br/><br/>10. 콜리플라워<br/><br/>꽃양배추로 불리는 콜리플라워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양배추나 배추보다 식이섬유 함유량이 많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와 항암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 위와 폐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며, 유방암이나 자궁암 등 호르몬에 따른 암을 예방해줍니다.<br/><br/><br/>쉐어하우스 제공 (필자 : 박진우) ▶ 원문보기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88.txt

제목: [2030 세상보기] 낙관 않는 희망, 절망 않는 행동  
날짜: 2016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21050936941  
본문: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물이 절반쯤 담긴 유리잔이 있다고 치자. 그 옆에는 마찬가지로 오래된 쪽지가 놓여 있다. ‘잔에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서술하시오.’<br/>영국 문학비평가 테리 이글턴은 쓴다. “<span class='quot0'>저 유리잔은 이미 절반이나 비워졌을뿐더러 저것에 담긴 액체도 꽤 맛없고 어쩌면 치명적일 독물이 거의 확실하다.</span>” 내가 선생이라면 만점을 주고 싶은 답안이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비관주의자가 아니다. 곧이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span class='quot0'>그런데 나는 이런 나의 비관적인 성정을 무릅쓰고라도 희망에 관한 글을 쓰기로 작심했다.</span>”<br/>분명 희망이라는 단어는 낙관주의자들의 전유물처럼 보인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이 노력하기만 한다면 삶은 더 나아질 거라고. 희망을 잃지만 않는다면 인생은 언제나 살만할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희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span class='quot0'>다복한 미래를 믿는 그들의 신념은 현재의 본질적 건전성을 믿는 그들의 신념에서 연원하기 때문이다.</span>” 그들에게 현재는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좀처럼 낙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다.<br/>미국의 사회운동가 바버라 에런라이크에 따르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긍정 이데올로기다. 유방암 판정을 받고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유방암 환자들의 커뮤니티를 찾은 그녀는 예상과는 달리 쾌활하고 낙관적이기까지 한 그곳의 분위기에 깜짝 놀란다. “<span class='quot0'>긍정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유방암 환자들의 문화에서 지상명령과도 같이 군림하고 있어 불행하다고 느낄 경우엔 죄의식이 들 정도다.</span>”<br/>그것은 일종의 강요된 긍정이다. 긍정적인 생각이 암을 낫게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 노력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부정적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문제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즐거운 척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환자들은 분노와 공포라는 당연한 감정을 억압하고, 그런 자신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며 죽어간다.<br/>그것은 환자가 아닌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 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태도다. 따지고 보면 회사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긍정적인 자세로 낮은 봉급에도 만족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야근을 불사하는 직원은 종종 건강을 잃고, 가정을 챙기지 못하며, 언젠가는 (자의나 타의로) 회사를 떠날 것이다. 이러한 낙관주의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글턴은 말한다. “<span class='quot0'>실제로 낙관주의는 지배계급 이념들의 전형적 구성요소다.</span>”<br/>따라서 이글턴은 희망을 낙관주의의 손아귀에서 구해내고자 한다. 희망을 희망이 필요한 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책 ‘낙관하지 않는 희망’을 통해 이글턴이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온통 비관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희망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 권의 책을 몇 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이글턴은 이렇게 주장한다. “암담한 미래전망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태도일 수 있다. 오직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상황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br/>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산다. 그렇기에 우리 시대의 야만에 늘 낙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살아가야 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때 이글턴이 책머리에 인용하는 허버트 맥케이브의 말과 같은 태도를 지니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2016년의 한국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br/>“우리는 낙관주의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만인의 사랑을 받으리라고 기대되는 사랑스러운 세계전망’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에 있더라도 오직 정의를 편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수행해야 할 소소하고 국지적인 과업 몇 가지를 떠맡을 따름이다.”<br/>금정연 서평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89.txt

제목: UNIST, 단백질 나노입자 ‘인캡슐린’ 개발  
날짜: 2016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21050930826  
본문: 최근 암 치료에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맞춤형 면역세포를 만들어 암을 예방ㆍ치료하려는 항암백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쓰일 ‘백신 배달부’를 UNIST(총장 정무영) 연구진이 개발했다. <br/>강세병 UNIST 생명과학부 교수팀은 항원(병원체)을 면역세포로 전달하는 단백질 나노입자, ‘인캡슐린(Encapsulin)’을 개발했다. 인캡슐린이 항원을 면역세포의 일종인 수지상세포로 전달하면, 이 항원만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 원하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맞춤형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br/>수지상세포는 면역계에서 교관 역할을 한다. 특정 항원을 잡아먹고 표시해 ‘미분화된 T세포’에게 공격대상을 알려준다. 그러면 T세포가 특정 항원만 기억해 공격하는 ‘맞춤형 T세포’로 성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수지상세포로 특정 암 항원을 잘 전달해야 하는데, 이때 인캡슐린을 쓰면 효과가 높아진다. <br/>기존 백신들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성 질환 같은 감염병 예방에 주로 사용됐다.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유사체나 죽은 세균체들이 직접 써서 몸에 항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일부 바이러스의 유전체나 세균체들이 체내에 남아 다양한 부작용이 생겼다. 또한 이들은 감염성 질환의 예방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돼 암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을 위한 백신 개발이 오랫동안 요구됐다.<br/>강 교수팀은 이런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단백질 나노입자인 인캡슐린을 개발했다. 호열균인 서모토가 마리티나(Thermotoga maritina)에서 생성된 이 단백질 나노입자는 바이러스와 모양과 크기가 유사하다. 그 내부에 유전체와 같은 다른 물질이 없고, 면역반응을 이끌어 낼 최적의 크기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br/>이번 연구에 제1저자로 참여한 최봉서 UNIST 생명과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수지상세포는 인캡슐린에 붙여 전달한 항원을 잘 잡아먹고, 미성숙 T세포에 전달하는 과정이 관찰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통해 원하는 항원에만 반응하는 맞춤형 T세포를 만들어내는 것도 확인돼 백신으로서 가능성이 증명됐다</span>”고 설명했다.<br/>연구진은 흑색종양 생쥐를 이용해 맞춤형 T세포가 실제로 암세포를 공격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인캡슐린을 이용한 백신이 흑색종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두 가지 면에서 모두 효과를 나타냈다. 인캡슐린으로 항원을 전달해 맞춤형 T세포를 만들어낸 경우가 항원만 전달한 경우보다 효과적으로 암 생장을 억제한 것이다.<br/>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문효진 UNIST 생명과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인캡슐린은 박테리아를 통해 쉽게 생산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경제적이고 강력한 항암백신으로 가능성이 크다</span>”고 말했다. <br/>강세병 교수는 “<span class='quot1'>새로 개발된 항원 전달 백신은 감염성 질환에 집중돼 있던 백신 개발의 한계를 넘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암뿐 아니라 류머티즘, 파킨슨 병 같은 비감염성 난치질환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한편 이번 연구는 순천향대 의생명연구원(SIMS)의 류성호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고 도윤경 UNIST 생명과학부 교수도 연구 설계에 참여했다. 연구 지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사업과 해양수산부의 다부처 유전체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 성과는 ‘ACS Nano’ 최신호에 게재됐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90.txt

제목: “고단하게 살았지만… 생애 끝자락 아름다운 기부”  
날짜: 201607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20051538216  
본문: 고단한 삶을 살아온 평범한 노인들이 생의 끝자락에서 ‘아름다운 기부’ 실행했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각박한 세상살이에 찌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이 선행의 주인공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평생 모은 쌈짓돈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해 기부문화에 인색한 우리 사회에 경종도 울리고 있다.<br/>한밭대는 최근 암 투병 중인 한 할머니(70)로부터 “<span class='quot0'>지금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260만원)을 기부하겠다</span>”는 연락을 받았다. 이 할머니는 알고 보니 8년 전 이름도, 성씨도 알리길 꺼리며 한밭대에 1억원을 기부했던 인물이었다. 당시 기부금은 할머니가 넉넉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전 재산이었다. 할머니는 이도 부족했는지 마지막으로 남은 아파트 보증금마저 내놓으며 “유능한 지역 인재 양성에 써 달라”고 한 것이다. 할머니는 1억원을 기부한 지 5년 만인 2013년 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힘겨운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br/>한밭대 측은 “<span class='quot1'>할머니는 남김없이 모두 주고 싶다면서 유언상속 기부를 약속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서 기부한 1억원과 합해 유언에 따라 소중하게 사용하겠다</span>”고 밝혔다.<br/>지난 4월에는 일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던 고(故) 강천일 씨가 용산구청에 자신의 전 재산 3,600만원을 기부한 뒤 5일 만에 눈을 감았다. 기부금은 강 할아버지가 빌딩 환경미화원과 가락시장 짐꾼 등으로 일하며 평생 억척같이 모은 것이다. 그는 용산구 후암동 쪽방에서 지내던 중 지난 1월 말기 암 판정을 받아 투병하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br/>강 할아버지는 기부 당시 “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다. 평생 힘들게 산 만큼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 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돈을 내어준 뒤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났다. 용산구는 강 할아버지가 기부한 소중한 돈을 설립 준비 중인 용산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활용키로 했다.<br/>올 1월 세상을 떠난 전용권(71)씨는 이종사촌 형인 김덕수(78)씨를 통해 사후 4개월 만인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일원1동 주민센터에 1,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돈은 1급 정신장애인으로 방에서만 살아온 전 씨가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다. 김 씨는 평생 사회 도움으로 살아온 것을 고마워한 전 씨가 3,800만원이 든 통장을 남겼다며, 주민센터에 기부하고 남은 돈도 좋은 곳에 쓰이도록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br/>이렇게 기부를 결심했을 경우 지정기탁제를 통하면 기부처는 물론 기부금품의 용도까지 정해 기부할 수 있다. 한밭대와 용산구청에 기부된 돈은 모두 지정기탁금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법정모금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정기탁 또는 비지정기탁 성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한다. <br/>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희정 사무처장은 “<span class='quot2'>노인 분들의 아름다운 기부는 누구나 우리 사회에 기부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기부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 못하는 것이지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무엇이든 나눌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91.txt

제목: [단독] “암도 고쳐요” 태반 불법유통한 약재상들  
날짜: 201607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19051307222  
본문: “<span class='quot0'>암도 낫게 할 수 있는 좋은 약재가 하나 있긴 한데….</span>”<br/>서울 은평구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이모(62ㆍ여)씨는 손님들이 효과 좋은 건강식품을 찾을 때마다 슬쩍 ‘자하거(紫河車)’라는 이름을 들려줬다. 자하거는 사람의 태반을 말려 만든 약재로 폐와 간을 강화하고 임신부의 산후조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손님이 솔깃한 반응을 보여도 함부로 약재를 보여주지 않았다. 확실히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만 건강원 지하창고 깊숙이 숨겨둔 자하거를 꺼내왔다. “구하기 힘든 약재”라는 말도 꼭 덧붙였다. <br/>이씨가 자하거를 팔면서 극도로 조심했던 이유는 당국의 허가 없이 사람 태반을 약재로 만들어 파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인간 태반은 유통ㆍ보관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되거나 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있어 2005년부터 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태반이 피부미용과 산후조리 등에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암암리에 유통돼 왔다. 가격도 폭등했다. 2000년대 초 개당 5,000원에 불과했던 환 형태의 자하거는 판매금지 조치 이후 값이 껑충 뛰어 8만~1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환 제조에 들어가는 태반 원가는 1,000원 이하로 알려져 이씨는 최대 100배의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셈이다. <br/>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런 식으로 자하거를 불법 유통한 약재상 6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과 대구에서 약재상을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인태반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r/>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span class='quot1'>장사가 안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손님이 찾으면 팔 수밖에 없었다</span>”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2005년 유통 금지 전 만들어진 인태반 재고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온 태반을 입수해 직접 약재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유통 경로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세균오염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에서 압수한 태반 14개의 성분 분석을 맡겼다</span>”며 “<span class='quot2'>피의자들이 주변 약재상들에게 인태반을 빌려준 정황도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92.txt

제목: [2016 대한민국 베스트신상품]│목비  
날짜: 201607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19051236224  
본문: 목비는 수소를 고농도로 압축해 만든 수소음료인 ‘한모금 수소수’를 선보이고 있다.<br/>‘세포 주치의’라는 슬로건을 갖고 탄생한 한모금 수소수는 전남 곡성의 천연 암반수를 사용해 인체의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프리미엄 음료이다. 세포 노화방지, 산화억제 등 높은 환원력을 갖고 있으며 비타민C보다 176배 높은 항산화력을 지닌다.<br/>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소수는 전기 분해 방식과 수소발생 미네랄 스틱 제품이 주류를 이루는데 생성수소의 불안정과 낮은 수소농도, 짧은 보존능력 등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br/>한모금 수소수는 세계 최초로 특허 기술을 보유한 일본 블루 머큐리사의 제조공법을 사용해 수소를 고농도로 압축해 충진 최고의 용존율을 갖는다. 또한 4중 알루미늄 스파우트 파우치 보존 용기를 사용해 1.6~0.6ppm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용존 수소량을 확보했다.<br/>최근 수소수는 체내 유해 활성산소가 암, 당뇨, 뇌경색, 동맥경화, 아토피 등 면역질환 및 노화현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식품 의약품안전처가 수소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해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93.txt

제목: 두경부암도 성병? “자궁경부암 유발하는 HPV도 발병 원인”  
날짜: 201607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19051231484  
본문: 자궁경부암 유발 원인으로 잘 알려진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가 두경부암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만 12세 여자 어린이에게만 실시하는 무료 예방접종을 남자 어린이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br/>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는 국제암연구기구의 메타분석 결과, 두경부암 종류인 구인두암의 35.6%에서 HPV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87%가 16형 HPV였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 구인두암에서 HPV가 검출된 빈도가 북미 47%, 아시아 46%, 유럽 28% 등이었다.<br/> 또 최근 미국에서 시행한 다 기관 연구에서는 구인두암의 65~70%에서 HPV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다.<br/> 고윤우 학회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두경부암에 HPV가 발견되는 추세에 대한 연구가 아시아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구인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HPV 검사를 하면 바이러스가 검출된다</span>”고 했다.<br/> 미국 하버드대 퍼니스 교수도 HPV 6형이 두경부암 원인이라고 ‘종양학 연보’에 발표했다. HPV 6형은 자궁경부암 주 원인인 HPV 16, 18형에 비해 저위험군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아왔다. 이번 연구로 흡연과 음주와 상관없이 HPV 6형이 인두암이 주 원인으로 지목돼 그 위험성이 새롭게 부각됐다.<br/>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티나 달리아니 교수팀도 ‘국제 암 저널’에 편도선암 원인으로 HPV를 지목하며 98명의 편도선암 환자 가운데 85%가 HPV에 감염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br/>티마 교수는 “1970년대 이후 흡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편도선암 환자 중 HPV에 감염되지 않은 환자의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HPV 감염으로 인한 편도선암 환자는 4배 이상 늘어났다"고 했다.<br/>이강대 학회 회장(고신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 “만 12세 여자 어린이에게만 HPV 무료 예방접종할 것이 아니라 남자 어린이에게도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br/>HPV는 현재 190여 종이 있으며 이 가운데 HPV 16형(54%)과 HPV 18형(13%)이 자궁경부암 등을 일으킨다. 우리나라 여성의 HPV 감염률은 34%이며, 이 가운데 18~29세가 49.9%로 높다. 젊은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가운데 자궁경부암은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br/>남성의 HPV 감염은 성관계를 통해 이뤄진다. 성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의 절반 정도에서 일생에 한 번 이상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고 감염돼도 90% 정도는 1~2년 이내 자연 소멸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염되는 여성은 정상 여성보다 자궁경부암 전 단계인 자궁경부이형증에 걸릴 확률이 100배 이상 늘어난다. 감염 후 암으로 악화하기까지 10~20년이 걸린다.<br/>HPV는 자궁경부암 뿐만 아니라 질암(40%), 외음부암(60~90%), 항문암(90%), 음경암(45%), 생식기 사마귀(콘딜로마ㆍ90%) 등의 생식기 질환을 일으킨다.<br/>머리 주변 암을 통칭하는 두경부암은 흡연과 음주가 주 원인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 HPV가 두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경부는 후두와 구강, 구인두, 비강, 부비동, 비인두, 하인두, 타액선, 갑상선 등 눈을 제외한 머리와 어깨, 목 주변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통칭한다. 두경부암에는 구강암과 갑상선암, 후두암 등이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94.txt

제목: [사설] 옥시ㆍ폭스바겐 사태로 필요성 커진 징벌적 손해배상  
날짜: 201607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19051059592  
본문: 다국적 기업 옥시는 ‘살인 가습기 살균제’를 한국에서만 팔았다. 4월 말 현재 피해자가 1,528명에 달하고 이 중 239명이 숨졌다. 처음부터 제품의 위험성을 알았으나 제대로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유해성이 드러난 뒤에도 피해보상은커녕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검찰 수사로 불리한 증거를 없앤 정황까지 드러나자 마지못해 사과와 함께 포괄적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민법의 실손배상 원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쥐꼬리 배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br/>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은 한국 12만5,000대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1,100만대의 배출가스 조작차량을 팔았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차량 소유자 47만명과 환경보호청 등에 약 1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의 중고차 시세로 되팔거나 공짜로 리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배상은커녕 리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br/>영미법계 국가는 악의적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행하고 있다. 미 법무부 통계를 보면, 전체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이 10%를 넘는다. 배상액도 천문학적이다. 미국 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 암에 걸린 피해자에게 약 630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맥도널드 매장에서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은 할머니에겐 7억3,000만원의 배상이 인정됐다. 한국은 대륙법계 원칙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및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한다. 법원에 가도 화해나 패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간신히 손해를 입증해도 통상손해배상과 소액의 위자료 등 미미한 액수에 그친다.<br/>여야가 모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입을 모았다. 본보가 어제 국회 법사위ㆍ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 의견(73.2%)이 반대(4.9%)를 압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순자산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에 일부 도입된 징벌적 배상액 한도(피해약의 3배)를 크게 뛰어넘는다. 소송 만능주의와 정상적 기업활동 침해 우려도 제기되지만, 지금처럼 악의적이고 반사회적 불법을 저지른 기업이 버젓이 보호받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것을 전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95.txt

제목: 말썽 많은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 현장  
날짜: 201607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16052731086  
본문: “성기 명칭을 일찍 배우면 성경험을 일찍 하게 된다. 성적 방종을 앞당기는 성교육은 우려된다.”(김지연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교육국장) “공기처럼 존재하는 가부장적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의 성교육이 필요하다.”(이명화 한국성문화센터협의회 대표) <br/>15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대강당은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뜨거웠다. 지난해 교육부가 마련한 성교육 표준안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자 지난 3월 여성정책연구원에 표준안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줬고 이날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성적 방종을 앞당기는 개방적 성교육을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공격했고, 여성계는 ‘만연한 성차별 분위기가 성폭력 사건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br/>보수 측은 성교육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학부모 대표 자격으로 토론에 참석한 김지연 국장은 “<span class='quot0'>불필요한 성교육이 청소년의 성관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span>”고 전했다. 이어 각종 자료들을 동원해 “남성 간의 항문성교가 에이즈나 암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20대 총선에서 ‘동성애 반대’를 내세운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인물이다.<br/>산부인과 전문의 박세나씨(서울성모병원 촉탁의)도 “남녀가 욕탕에 함께 들어와 목욕하는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다. 부모가 침대 안에서 벗은 몸으로 누워 있는 그림 등 성교ㆍ성행위를 시사하는 장면을 일찍 보여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며 “애무, 정사장면 같은 언어가 초등학생한테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br/>여성운동 진영은 성을 금기시하는 태도가 성차별을 공고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명화 대표는 “<span class='quot1'>최근 카카오톡 성희롱이나 강남역 여성 혐오 살해 등 성폭력 사건들은 성차별적 사회 분위기가 낳은 비극</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성차별을 강화하는 음란물이나 자연스러운 성을 터부화하는 관행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성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는 왜 밝고 경쾌하게 할 수 없냐”며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 성교육 표준안에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철학이 없다”고 밝혔다. <br/>토론에 앞서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 성교육 표준안 교육 자료 내용 중 일부가 성 고정관념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성친구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표준안 내용에 대해서는 “<span class='quot1'>폭력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떤 이유에서도 가해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야지 피해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피해자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span>”고 꼬집었다. <br/>교육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수렴하고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연내에 새로운 성교육 표준안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br/>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96.txt

제목: 의료급여 수급자, 내년부터 동네 의원서 간단한 수술 가능  
날짜: 2016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15051530268  
본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으로 선정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아 수술을 받고 입원할 수 있게 된다. <br/>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리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 확대 방안을 심의하고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수급자의 1차 의료기관(의원급) 입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 고시는 입원에 따른 급여 혜택(진료비의 90%) 요건을 긴급수술 및 분만, 맹장수술 등 일부 수술을 받았을 때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간단한 수술이라도 2차 의료기관(병원급)을 찾아야 했던 수급자들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br/>암ㆍ화상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수급자는 연간 365일로 정해진 급여일수(외래ㆍ입원ㆍ투약일수 합산)을 초과하더라도 급여 연장 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예컨대 1월에 6개월치 약을 탄 중증 질환자가 그해 7월 1년치 약을 타면 연간 급여일수를 초과한 걸로 간주돼 시ㆍ군ㆍ구청에 병원 확인서를 제출하고 급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속적인 의료 이용이 필요한 질환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조치</span>”라고 설명했다.<br/>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97.txt

제목: ‘서민들의 돌돔’ 벤자리를 아시나요  
날짜: 2016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15051227103  
본문: 제주 여름 횟감 단연 최고는 돌돔<br/>토박이들 “다금바리 보다 한 수 위”<br/>벤자리 저렴하고 맛있어 어부들에 인기<br/>“<span class='quot0'>한치가 인절미면 오징어는 개떡</span>”<br/>부드러운 한치 물회ㆍ회국수 별미<br/>여름 제주도 여행의 마무리로 초저녁 노을 진 바다가 내려 보이는 횟집에 들러 싱싱한 회 한 접시에 시원한 바다 바람을 쐬는 여유를 필수 코스로 계획하는 관광객들이 많다. 학회나 업무 출장 등으로 제주에 내려오신 분들에게 제공하는 호텔의 연회 메뉴에 회가 코스에서 빠지게 되면 적지 않은 고객들이 주변 횟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기 때문에 웬만한 한정식 메뉴에는 ‘제주 바다 제철 회’가 빠지지 않고 포함된다. 게다가 요즈음에는 서구적인 식 문화와 생활 습관의 변화로 각종 성인병과 암 발병 확률이 높아져 자연스레 육류보다는 단백질이나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알려진 신선한 해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모든 생선들이 일년 내내 잡히지만 서귀포의 생선과 해산물의 맛은 계절마다 차이가 있다. 제철 생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한 층 더 그 맛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br/>여름 생선 중 단연 최고의 횟감으로 꼽히는 생선은 돌돔이다. 서귀포에서 회를 조금 먹어봤다는 토박이들 중에는 다금바리 보다 한 수 위라고 평하는 이가 많다. 얼룩말처럼 옆구리에 선명한 검정색 가로띠를 일곱 줄 띠고 있어 줄돔이라고도 불리는데 수컷의 경우 자라면서 줄무늬가 사라져 전체적인 몸 색깔은 은회색으로 변하고 주둥이 부분만 검정색을 유지하게 된다. 단, 유사 어종으로 대각선으로 줄이 그어진 ‘아홉동가리’라고 불리는 생선인 논쟁이가 있다. 가격이 저렴한 논쟁이는 맛이 돌돔에 비해 많이 떨어지니 잘 구별해야 한다. <br/>돌돔은 돌밭, 즉 바다의 해초가 무성한 암초 지대에 산다고 해서 이름을 얻었는데 5~8월 경이 산란기로 알을 낳기 위해 영양분을 많이 체내에 축적하게 되어 여름에 맛이 좋다. 전형적인 온대성 어류로서 연안 수온이 20도 이상 상승하는 6~7월부터 장마철 전후에 바람이 불고 비나 안개가 많이 낄 때 많이 잡힌다고 한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인기 어종중의 하나인 벵에돔도 많이 잡힌다. 이때의 벵에돔은 겨울에 잡히는 긴꼬리 벵에돔보다는 맛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이 많다. 돌돔은 또한 벵에돔에 비해 시력이 좋고 경계심이 강해 낚시하기 까다로운 어종으로 분류되며 그래서인지 매우 고가에 거래된다. <br/>오일장 등 재래 시장에서 판매되는 죽은 돌돔도 웬만한 활어보다도 가격이 비싸다. 다금바리, 강당돔 등과 함께 횟집에서 가장 비싼 횟감으로 팔리며 숙성을 시킨 선어보다 싱싱한 활어를 선호하는 고객이 많아 오드득 오드득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 돌돔회가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 같다. 횟집에서 손바닥 크기의 조그만 돌돔을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하는데 양식장에서 잘 자라지 않고 먹이만 축내는 놈을 출하시킨 경우로 매우 질기고 맛도 떨어진다. 아쉽지만 횟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돌돔은 양식이며 씨알이 큰 놈은 국산보다 일본산이 주를 이룬다. 살이 단단하고 독특한 향이 있어 매운탕이나 소금 구이로 조리하기도 하지만 역시 돌돔은 회로 나올 때가 서귀포의 대표적인 여름 진미인 것 같다.<br/>서귀포의 어부들 사이에서 여름 최고의 횟감으로 벤자리를 꼽는 이들이 많다. 어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는 찰지고 담백한 맛도 그렇지만 성질이 급해 활어로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양식이 되지 않고 수족관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횟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취급을 꺼린다. 시장에 들렸다가 수족관에 벤자리가 보이면 마치 횡재를 한 것처럼 포장해서 사가게 되는 이유다. 다른 횟감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 편으로 보르도 지방의 린쉬 바쥬 와인이 ‘가난한 자의 무통 로쉴드 와인’으로 불렸던 것처럼 서귀포의 벤자리도 ‘서민들의 돌돔’으로 불려도 될 것 같다. <br/>난류성 물고기로 해조가 많은 암초 지대에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벤자리는 30cm 미만은 ‘아롱이’라고 하며 40cm가 넘는 월척은 ‘돗벤자리’라고 불린다. 얕은 연안에서는 잘 잡히지 않는 외양성 어종의 특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길쭉한 타원형 모양인데 작은 놈은 황갈색 세로 줄무늬가 있지만 성어가 되면 무늬가 없어지게 된다. 육식성 물고기로 대부분 30cm 전후로 여름 내내 선어로 시장에서 판매되는데 관광객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식당의 메뉴로는 극히 드물고 일반적으로 토박이들은 가정에서는 구이나 조림으로 즐겨 먹게 된다.<br/>서민적인 횟감으로 꾸준한 인기가 있는 생선은 쥐치라고 불리는 객주리이다. 사실 서귀포에서는 저렴한 생선으로 예전에는 어부들이 그냥 버렸던 생선인데 어포용으로 많이 가공하다 보니 개체수가 줄어 이제는 돔이나 광어보다도 비싼 생선이 되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주둥이에 뾰족한 이빨을 지닌 모습이 쥐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겉 모양이 독가시치와 비슷하게 생겨 혼돈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객주리는 몸이 긴 타원형이고 옆으로 납작한 모양인데 제주도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은 말쥐치이며 일반적으로 양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객주리의 살에는 타우린의 함량이 많고 DHA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 등 심장 순환계 질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객주리는 어포로 많이 가공되지만 껍질이 얇아 요리하기 편하고 어린 것은 뼈가 연하고 부드러워 뼈째회(세꼬시)로 먹으면 맛이 일품이다. 일반적으로는 살의 탄력이 좋아 얇게 회를 떠서 먹는다. 특히 객주리의 간은 크고 맛이 좋아 즐겨 먹는 부위지만 선도가 금방 떨어져 보관하지 말고 바로 먹는 것이 좋다. 서귀포에서는 메주콩과 함께 넣고 조리한 ‘객주리 콩조림’도 별미인데 메주콩이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돌우럭 콩조림’과 함께 추천하고 싶은 별미 조림 메뉴이다.<br/>제주도 속담에 ‘한치가 쌀밥이면 오징어는 보리밥이고, 한치가 인절미라면 오징어는 개떡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치는 오징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한 수 위의 대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오징어에 비해 식감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돌아 곱절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한치 요리는 ‘한치 물회’인데 비타민 E와 타우린이 풍부한 한치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갖은 야채를 된장과 초장을 섞은 국물에 버무리면 모든 영양소를 한번에 섭취할 수 있어 좋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성산포나 우도에서는 미나리와 야채를 초고추장에 버무려 국수에 비벼 먹는 ‘한치 회 국수’도 인기가 많고 생으로 얼려 두어도 맛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연중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br/>그 밖에 보목의 부드러운 자리돔이나 초보 낚시꾼도 쉽게 낚을 수 있는 어랭이가 토박이들에게는 훨씬 인기가 높다. 낚시로 바로 잡어 올린 각재기도 여름 횟감으로 독특한 맛이 있다.<br/>개인적으로는 제철 잡어회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름은 생소하지만 서귀포에서만 맛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횟감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여 만족이 배가 되는 것 같아 좋다.<br/>이재천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총주방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98.txt

제목: 클림트 만난 후 커피 한잔…밥장과 떠나는 비엔나 여행  
날짜: 2016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14051315627  
본문: 앞 챙이 살짝 말려 올라간 페도라 모자, 발등을 두 줄로 감싼 걷기 편한 슬리퍼, 그리고 장바구니 하나 메고 빈 여행에 나섰다. 자칭 ‘낭창낭창 그림 그리는 아저씨’, 일러스트레이터 밥장(Bob Chang, 본명 장석원)의 장바구니엔 카메라대신 펜과 노트가 들어있었다. 여느 노트와 달리, 종이에 쓰면 휴대전화 앱과 연동이 되는 최신 페이퍼 태블릿이다. 밥장이 그린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Wien, 사실 한국인에겐 비엔나가 더 친숙하다)은 어떤 모습일까?<br/><br/><br/>▦역사적인 호텔에 묵다<br/><br/>“<span class='quot0'>영화에서 나올법한 호텔에 나흘이나 묵으려 하니 후덜덜 하네요.</span>” 빈 공항에 도착해 바로 여장을 푼 곳은 시내 중심부 국립오페라극장 옆 자허(Sacher)호텔. 여행 좀 다녀 봤다는 밥장도 어지간히 감탄했나 보다. 방문을 열자마자 침실, 초콜릿과 과일로 장식된 식탁, 넓은 욕조와 욕실을 한 바퀴 훑은 휴대전화 동영상을 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br/>1876년 문을 연 자허호텔은 149개의 방을 갖춘 5성급 호텔. 대형 호텔체인에 비하면 외관은 화려하지 않지만 빈 최초의 전기 샹들리에가 비추는 로비부터 역사만큼 아늑하고 고풍스럽다. 스위트룸에는 틸다 스윈튼, 니콜라스 케이지, 윌 스미스, 브루스 윌리스 등 세계적인 배우들이 묵었다. 존 레논과 오노 요코가 1969년 ‘평화를 위한 침대 시위’ 기자회견을 한 곳도 바로 이 호텔이다. 그러나 가장 자랑으로 내세우는 건 호텔보다 역사가 오래됐다는 초콜릿케이크 ‘자허토르테’다. 살구 잼으로 상큼하고 단맛을 가미한 케이크는 1~2주일 보관할 수 있어 투숙객들도 많이 사간다. 호텔예약사이트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이 하룻밤 50만원 수준이니 사실 특별한 여행이 아니면 부담스런 가격이다. <br/><br/>▦클림트를 만나다<br/><br/>빈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오스트리아 황실의 여름 별장이었던 쇤브룬 궁전. 프란츠 요셉 황제의 영접실과 황비의 사적 공간 등 내부를 관람하려면 입장권이 필요하지만, 축구장 21개 크기의 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무료다. 언덕 꼭대기 전망대에 오르면 궁전 뒤로 야트막하게 빈 시내가 펼쳐진다. <br/>그러나 밥장이 빈에서 가장 기대한 것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손을 잘 그려야 그림이 산다. 손은 표정이다.”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를 대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자세다. “<span class='quot0'>여자는 긴장한 듯 살짝 움츠리고…특히 남자의 목을 감는 여자의 손은 압권</span>”이라고 했다. 클림트의 또 다른 대표작 ‘주디스’와 함께 벨베데레 궁전 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br/>클림트의 작품은 다른 유명 화가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빈의 여러 미술관에 분산돼 있다. 관람객 입장에선 치사한 처사지만 입장료 수입을 감안하면 영리한 전략이다. 벨베데레 미술관은 ‘중세에서 현대까지’라는 부제를 붙여서 여러 작가들과 함께 클림트를 전시하고, 레오폴트 미술관은 ‘세계 최대 에곤 실레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그와 친분이 있었던 작가를 한데 모아 놓은 식이다. 물론 클림트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벽면에 장식된 클림트의 작품은 예술사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br/>레오폴트 미술관과 현대미술관, 어린이박물관 등이 몰려있는 무제움콰르티어(MQ) 광장에는 빈의 상징물 엔지스(Enzis) 의자가 설치돼 있다. 각자 편하게 앉고 누워 쉬는 시민들이 빈의 여유를 한껏 뽐낸다. <br/><br/>▦슈퍼센스에 들르다<br/><br/>프라터 거리의 ‘슈퍼센스(supersense)는 의외의 장소. 아날로그 감성 물씬 풍기는, 카페를 겸한 조그만 가게지만 이름처럼 센스가 넘친다. 예를 들면 세계최대 즉석 카메라로 직접 사진을 찍어 판매하거나, 오래된 주크박스에 0.5유로 동전을 넣고 음악을 감상하는 식이다. 작은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어 수제 레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 자신만의 디자인과 글귀로 엽서와 포스터를 찍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7080추억을 판매하는 아이디어 가게다. <br/>프라터 거리는 19세기 유대인 중류층들이 많이 살던 곳이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작곡한 집이 인근이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엘리아스 카네티, 극작가 아르투어 슈니츨러, 영화 ‘카사블랑카’의 음악 감독 막스 슈타이너도 이 거리에서 살았다. <br/>빈 시민(Wiener)의 문화적 자부심은 도시 전체에 넘쳐난다. 한국인 가이드 신교춘씨는 1988년 빈 생활을 시작할 당시 할아버지 손을 잡은 아이가 입석에서 4시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음악회를 관람하는 모습에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시에서는 저소득층과 실업자도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게 문화카드를 지원한다. 청소부지만 오페라에 정통하고, 자연과학자지만 영화배우수업을 하는 사람들도 흔하다. 국립오페라극장에는 3~4유로짜리 입석도 많아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도 부담 없이 공연을 접할 수 있다. 보통 1년 정기권을 구입한 빈 시민들이 객석의 80% 이상을 채우기 때문에 관광객 몫은 실제 많지 않다. 그럼에도 도심 곳곳에서 모차르트 복장으로 표를 파는 호객꾼을 흔히 만날 수 있다. 서울의 ‘삐끼’들이 유흥주점으로 손님을 끄는 반면, 빈의 ‘삐끼’들은 음악회와 공연장으로 관광객을 모은다. <br/><br/>▦비엔나를 맛보다<br/>빈에서 커피를 빼놓을 수 없다. 밥장도 ‘비엔나 커피’로 유명한 ‘카페 센트랄’에 들렀다. 모카커피에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아인슈패너보다 더 인상적인 건 사실 웨이터. 한 두 번 오면 아는 체도 않지만 3번째 방문하면 이미 취향을 파악하고 있을 정도란다. 이곳뿐만 아니라 이름난 카페의 웨이터는 중년 남성이 대세인 듯하다. “<span class='quot0'>서비스와 웨이터가 제대로 된 직업인 나라다.</span>”<br/>빈은 와인으로도 유명하다. 북부 외곽의 마이어 암 파플라츠(Mayer am Pfarrplatz) 와이너리를 찾았다. 베토벤이 머물면서 3번 교향곡 ‘영웅’을 작곡한 곳이어서 건물에는 ‘베토벤하우스’도 함께 표기돼 있다. 빈 와인의 특징은 여러 품종의 포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 안전을 위해 한 밭에 3~4종의 포도를 재배하기 때문이다. 야외식당을 겸한 와이너리에서는 화이트와인과 레드와인 각 2종을 시음한다. 한국인 일행은 대체로 탄산이 살짝 섞인 경쾌한 화이트와인을 선호했다. <br/><br/>인구 180만의 대도시답지 않게 빈은 와이너리의 오후 햇살처럼 여유로움이 넘친다. 풍부한 숲과 공원, 언제든 편히 쉴 수 있는 길거리 벤치와 카페도 음악과 미술, 건축과 문학을 망라한 수많은 예술가들을 빈으로 끌어 들인 요인이었을 법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관람차도 타고, 올드 도나우 강변에서 맥주도 마시고, 짬을 내 오페라도 감상하고, 훈데르트바서가 설계한 건축물도 찾아가는 등 밥장의 알찬 빈 여행 이야기는 그의 블로그 ‘밥장의 에피파니’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공연과 전시, 주요관광지와 쇼핑 등 빈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빈 관광청 홈페이지(www.vienna.info)에서 얻을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1개 국어로 서비스하는데 한국어는 빠져있어 아쉽다. <br/>빈=최흥수기자 choisso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199.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고통 없앤 새 폐암검사기법 도입  
날짜: 2016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14051118071  
본문: ‘전자기유도 내비게이션’ 검사법…정확도 높이고 고통 줄여<br/>분당서울대병원이 환자의 고통은 크게 줄이고 암 진단의 정확성은 획기적으로 높인 전자기유도 방식의 내비게이션 기관지경술(ENBㆍElectromagnetic Navigation Bronchoscopy)을 국내 최초로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br/>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폐 조직검사는 간단히 가래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져 실제로는 주사기를 이용해 의심 부위에서 조직을 뽑아내거나 아예 절개를 통해 해당 부위의 조직을 확보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br/>그러나 주사기를 활용하는 ‘경피적 세침흡인검사’와 ‘절개술’은 모두 환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데다 폐 조직이 크게 손상되거나 기흉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다.<br/>하지만 지난달 흉부외과 전상훈 원장팀이 성공적으로 시행한 ENB 검사는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최신 의학기술로, 폐 내부로 직접 접근해 정확한 위치에서 조직을 추출할 수 있으면서 안전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환자의 고통은 획기적으로 줄여 폐암 진단의 새로운 희망으로 각광받고 있다.<br/>ENB 검사는 CT를 통해 확보한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폐를 3차원 지도로 구성하고, 암 세포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위에 카테터가 최적ㆍ최단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br/>국내 첫 ENB 검사를 시행한 호흡기내과 윤호일 교수는 “<span class='quot0'>폐암 검사에서부터 큰 고통을 겪고 나서 정작 암의 치료에 소극적이 되거나, 심지어 치료를 포기하려는 환자까지 있는 것을 보고 새 검사법을 도입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연구 결과에 따르면 ENB 검사는 2cm 이상 크기의 암에서 100%, 2cm 이하에서도 87%의 진단율을 보였고, 기흉 등 부작용도 세침검사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span>”고 말했다.<br/>한편 ENB 검사법은 향후 기관지경으로 암세포가 있는 곳에 염색 마커를 삽입해 암 치료 시 종양이 있는 정확한 위치에 방사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하거나, 절제 부위를 명확히 할 때 등 수술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br/>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00.txt

제목: [사실은…] ‘늑대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는 사실일까  
날짜: 201607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13053758863  
본문: ‘늑대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글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널리 공유되고 있다. 눈 덮인 산을 한 줄로 서서 걸어가는 한 늑대 무리를 찍은 사진을 놓고 늑대의 위치에 따라 다른 역할을 설명한 뒤, 인간도 조직을 운영할 때 이를 배워야 한다는 취지로 쓴 글이다.<br/>글에 따르면 늑대 무리를 맨 앞에서 이끌고 있는 세 마리(노란색 원 안)의 늑대는 늙거나 병든 늑대라고 한다. 그들이 전체 무리가 이동하는 페이스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낙오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바로 뒤의 다섯 마리(붉은색 네모 안)는 가장 강한 늑대들이고 맨 마지막에 홀로 가는 늑대(파란 화살표)가 우두머리로서 전체 무리를 지휘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효율적이면서도 약자를 낙오시키지 않는 늑대 무리로부터 경쟁에 낙오한 자에게는 가차 없는 인간들이 배워야 한다는 취지의 감동적인 글이다.<br/><br/>사실 이 글은 지난해부터 해외 페이스북에서 널리 확산된 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애초에 이탈리아어로 작성된 글이 영어로 번역됐고(바로가기), 역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널리 공유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br/>하지만 이 글은 사진을 멋대로 해석한 거짓말로 해외에선 이미 밝혀졌다.<br/><br/>인터넷 루머의 진위를 확인해 올리는 스노프닷컴(snopes.com)에 따르면 사실 이 사진은 2011년 ‘얼어붙은 지구’라는 BBC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장면이다. (원문기사 보기)<br/>이 다큐멘터리에 들어간 원래 설명에 따르면 무리의 맨 앞에서 이끄는 것은 늙은 늑대들이 아니라 ‘알파 암늑대’(alpha female)다.<br/>“25마리의 늑대 무리가 캐나다 북부 극지대에서 아메리카들소를 사냥한다. 우드 버팔로 국립공원의 겨울 기온은 영하 40℃까지 떨어진다. 알파 암늑대가 이끄는 늑대 무리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쌓인 눈 속을 한 줄로 여행한다. 늑대 무리의 규모는 먹잇감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겨울에는 눈이 깊게 쌓여 아메리카들소의 먹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의 늑대 무리는 크기가 자신의 10배나 되는 아메리카들소 무리를 사냥하는 데 특출 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늑대들이다. 그들은 지구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센 늑대들로 자라났다.”<br/>이 글에는 ‘알파 암늑대’가 맨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돼 있을 뿐이다. 설마 알파 암늑대가 ‘가장 늙고 병든 늑대’라고 해석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스노프닷컴은 “우드 버팔로 국립공원의 늑대 무리 사진은 진짜이지만 늙은 늑대들이 앞에 있다거나 강한 늑대는 그 다음이고 맨 마지막이 리더라는 페이스북 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가장 강한 동물이 그룹을 이끌며 눈 속에서 다른 늑대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페이스북 글은 한마디로 ‘소설’인 셈이다.<br/>디지털뉴스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01.txt

제목: 제주 인구 2040년부터 줄어든다  
날짜: 201607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13053737820  
본문: 호남통계청 사회지표 조사결과<br/>2039년 68만명 정점 감소세 전환<br/>20년 후 1인 가구 전체 32% 차지 <br/>2040년 도민 3명 중 1명은 노인<br/><br/><br/><br/>이주 열풍으로 급증하고 있는 제주지역 인구가 2039년 68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홀로 가구’와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전망도 제기됐다.<br/>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5 사회지표로 본 제주지역의 변화상’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59만명이었던 제주 인구는 2020년 61만5,000명, 2030년 65만4,000명, 2039년 6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전국 인구가 2030년(5,216만명)을 정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주 인구는 타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br/>제주의 인구증가율은 작년 1.06%에서 2020년 0.82%, 2030년 0.46%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다 2040년부터는 0.03%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br/>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지난해 말 제주지역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40만8,000명(전체 인구 중 69.5%)에서 2040년에는 36만명(53.9%)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말 8만명(14.2%)에서 2040년 23만명(33.9%)으로 크게 증가해 도민 3명 중 1명은 노인인구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br/>‘나홀로 가구’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는 지난해 5만4,000가구(전체 가구 중 27.1%)에서 2035년에는 7만3,000가구(32.5%)로 증가하고, 반대로 ‘부부+자녀가구’는 지난해 6만2,000가구(30.7%)에서 2035년에는 4만가구(17.7%)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br/>또 지난해 도민의 주요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로, 이로 인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4.2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심장질환 43.4명, 뇌혈관질환 42.3명, 고의적자해(자살) 27.2명, 당뇨병 13.8명 등 순이다. <br/>2015년 19세 이상 도민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은 각각 21.2%, 18.8%로 전년보다 각각 3.5%p, 2.1%p 감소했다. 고위험 음주율은 연간 음주자 중 1회 평균 음주량 7잔(여자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음주한 비율을 말한다. <br/>도내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20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0%p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64.2%로 0.9%p 늘었다.<br/><br/>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oc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02.txt

제목: 건보 확대로…양ㆍ한방 협진 성공할까  
날짜: 201607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13053345247  
본문: 같은 날 받은 협진 모두 건보 적용<br/>협진 모형ㆍ수가 표준안 마련 목표<br/>한의사협 “경쟁 통해 의료 발전”<br/>의협 “중복진료로 건보재정 악화”<br/><br/>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A씨는 빠른 회복을 위해 병원에서 권하는 양ㆍ한방 통합치료를 받았다. 회복실에서 항생제, 진통제 등을 맞고 걷기 연습을 하는 한편 매일 한방 치료실을 찾아 한의사로부터 침 치료도 받았다. 침이 수술 부작용인 장 마비, 배뇨 장애, 구역질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었다. A씨는 “침 덕분인지 방귀, 배변 회복도 순조로웠고 예정일에 퇴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br/>A씨와 같은 양ㆍ한방 협진 대상 환자는 이달부터 지정병원에서 의과 및 한의과 진료 모두에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둘 중 먼저 받은 진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보험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다. 올해로 도입 6년째를 맞은 양ㆍ한방 협진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 정책 추진 과정에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br/>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의·한 협진 활성화 1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ㆍ공립 병원 8곳과 경희대병원, 원광대 산본병원 등 민간 병원 5곳이 대상이다. 내년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 병원에서 양·한방 협진을 받는 환자는 1일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은 각각의 진료가 보험 적용 대상이라도 협진 절차에 따라 두 진료를 한 날에 받으면 두 번째 진료 비용은 모두 본인이 내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양ㆍ한방 진료를 모두 받고 싶어도 지출 부담 때문에 병원 찾는 날을 달리하거나 서로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던 환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급여 진료는 보험 적용이 안되고 양약과 한약을 함께 처방 받은 경우 기존대로 한 쪽에만 급여가 주어진다.<br/>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협진 대상 질환 선정, 절차 마련 등을 병원 자율에 맡기되 협진 진행 상황 및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표준화된 협진 모형 및 협진 수가를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될 2차 시범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협진이 어떤 질환에 대해 많이 이뤄지고 유용한지를 파악해 급여 혜택을 우선적으로 확장할 방침</span>”이라고 말했다. 2012년 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협진 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 의사들은 협진이 필요한 질환으로 암, 뇌혈관질환, 아토피 피부염, 비만, 척추관협착증, 두통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협진 수가는 병원의 협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 진료 수가의 합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br/>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정부는 2010년 의료법 시행규칙을 고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을 허용했지만 참여 병원은 전체의 4.6%인 327곳에 그치고 있다. <br/>특히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와 한의사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span class='quot1'>정부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밝힌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양ㆍ한방이 경쟁을 통해 발전하면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span>”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span class='quot2'>의사와 한의사로 나뉘어 진단, 의료기기 사용 등을 달리하고 있는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효율적인 협진이 가능할지 의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2'>한의사들이 요구하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의 빌미가 되거나 불필요한 중복 진료를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span>”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진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회, 의사회와 한의사회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br/>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03.txt

제목: [태블릿+] 중증 파킨슨병의 새로운 옵션 ‘듀오도파’  
날짜: 201607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12051411662  
본문: 미국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사망으로 파킨슨병이 세간의 관심이 됐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만드는 뇌 신경세포가 손실돼 온 몸의 근육 기능이 떨어지는 병이다. 손 발 턱 혀 등 근육 떨림이 대표적 증상이다. 동작이 느려지거나 얼굴 표정이 굳어지기도 한다. 기억장애 피로 통증 침흘림 요실금 등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착란 등 정서적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도 많다.<br/>증상 완화를 위해 도파민 성분의 레보도파(도파민 전구체)와 카르비도파(위장관이나 말초조직에서 레보도파 대사를 억제하는 도파민 탈탄산효소 억제제)를 병용하는 약물치료를 한다.<br/>병이 악화돼 신경세포가 점점 손실되면 도파민 저장이 어려워져 약물만으로는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다. 온 몸 운동 기능이 이상해지거나 없어짐에 따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다. 음식물을 삼키거나 숨쉬기도 힘들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 연구에 따르면 말기 파킨슨병 환자의 10년 생존율이 말기 암 환자의 10년 생존율보다 떨어진다.<br/>기존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으면 뇌 특정 부위에 전기자극을 전달하는 뇌심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된다. 수술도 어렵다면 애브비가 허가를 받은 ‘듀오도파’라는 새로운 치료 기법을 쓸 수 있다. 온 몸에 운동 이상이 나타나면서 레보도파에 반응하는 환자에게 쓸 수 있다.<br/>듀오도파는 겔 상태의 레보도파와 카르비도파가 넣어진 휴대용 펌프를 튜브를 통해 소장과 연결해 인체에 직접 주입하는 장치다. 아침에 일어나 착용했다가 잠들 때 빼면 된다. 듀오도파를 통해 혈액 속 도파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 ‘근육 경직시간’(Off time)을 하루 4시간 이상 줄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열린 제9회 일본이상운동질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이 연구는 일본과 대만, 한국의 31명 중증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범석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약물 효과가 없고 뇌심부 자극술을 할 수 없는 아시아의 중증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오프 타임을 줄여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옵션이 될 것</span>”이라고 했다.<br/>경구용 치료제와 달리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돼 환자 삶의 질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듀오도파는 모든 먹는 치료제의 단독 및 병용 투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중증 파킨슨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04.txt

제목: 폐암 말기 위안부 할머니 돕는 시골 한의사  
날짜: 201607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08051419632  
본문: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 치료 자청<br/>일주일 두차례 방문진료로 건강 회복세<br/><br/> 일제 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갔다 60년 만에 귀국했으나 폐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곽예남(92) 할머니가 한 시골 의사의 도움으로 기력을 되찾아 화제다.<br/> 화제의 주인공은 전남 담양의 명문요양병원 김동석(46)원장. 김 원장은 몸과 마음에 온갖 상처를 입고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곽 할머니의 소식을 듣자 마자 한걸음에 달려가 극진한 치료와 함께 말동무까지 해주고 있다.<br/> 김원장은“<span class='quot0'>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곽 할머니가 저의 고향인 담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동안 암환자를 치료한 경험과 지식을 총 동원해 평생 동안 한을 품고 사신 할머니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br/> 할머니는 1944년‘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해방 이후에도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 중국 안휘성 숙주에서 생활하다 지난 2004년 고향인 담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지식들이 없어 이종조카인 이관로(59)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왔다.<br/> 귀국 후부터 병원을 드나들던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br/> 담양군을 통해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김 원장은 즉시 할머니를 찾아가 병 치료를 약속했다. 실제 할머니는 치매와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 낯선 사람이 오면 피하고 큰소리를 내기도 한다. 허리는 완전히 굽은데다 치아도 없어 식사하는데 힘들다. 근래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욕창이 생겨 가려움을 호소하는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br/> 이후 김 원장이 매주 두 차례 할머니를 찾아가 면역치료를 비롯해 비타민 주사를 놔주고 아들처럼 말동무도 해주면서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br/> 할머니의 조카 이씨는 “<span class='quot1'>김 원장 등 의료진의 극진한 치료와 간호 덕분에 욕창이 사라지는 등 이모님의 건강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일주일에 두 번씩 산골 집까지 찾아와 진료한 것도 모자라 반찬까지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span>”고 고마움을 전했다.<br/>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할머니의 마지막 여생이 젊은 시절 느끼지 못했던 고국의 따뜻한 품에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램 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건강을 보살피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span>”고 말했다.<br/>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05.txt

제목: [지평선] 분노범죄  
날짜: 2016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06052407279  
본문: “<span class='quot0'>층간소음에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span>” 최근 경기 하남에서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위층에 사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진술이다. “주부가 천천히 운전하는 차가 앞에 있으면 답답해 미치겠어요. 당장 뛰어내려 문을 부수고 욕을 퍼부어주고 싶어요.” 평소 순하고 착하다는 평을 듣는 30대 회사원 박모씨는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로 변한다. 이런 보복운전으로 매년 40여 명이 숨진다.<br/>▦ 분노는 인류 진화의 유산이다. 원시시대에는 파괴적 에너지인 분노가 적과 맹수에게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존수단이었다. 현대사회에는 이런 치명적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층간소음에 따른 살인, 홧김에 저지른 방화, 묻지마 폭력 등 분노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치열한 경쟁과 성공에 대한 강박,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울화통을 터지게 한다. 미국의 분노전문가 매튜 맥케이는 “<span class='quot1'>‘나는 억울한 피해자야!’ 바로 그것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span>”이라고 말한다.<br/>▦ 지나친 분노는 정신건강을 해치고 면역체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다. 만성적 분노는 암세포를 죽이는 혈액 속 NK세포의 기능을 억제해 암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혈액 속 염증성 세포를 늘려 각종 감염성 질환과 심장병을 유발한다. 분노의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면 분노가 가라앉을까? 분노를 표출할수록 분노는 더욱 더 커진다. 반복적으로 분노를 느끼면 뇌신경이 활성화해 작은 자극에도 화를 내는 ‘욱하고 지랄하는 성격’이 된다. 인간관계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다. ‘화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분노를 드러낸 당사자에겐 더 많은 피해를 끼친다.’(톨스토이)<br/>▦ 한국 성인의 절반이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고, 이 중 10%는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다(대한정신건강학회). 한국의 성인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조사대상 143개국 중 118위다.(갤럽) 성인의 36%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며 우울 불안 분노 같은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만연한 부패와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었다. 소외와 좌절이 타인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다. 사회ㆍ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 경쟁의 룰을 갖춰야 분노범죄가 줄어든다.<br/>고재학 논설위원 goindol@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06.txt

제목: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거장 키아로스타미 감독 별세  
날짜: 2016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06051837317  
본문: 영화 ‘체리향기’로 1997년 칸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란 영화의 거장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이 별세했다. 향년 76세.<br/>A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은 이란 반관영 이스나(ISNA) 통신을 인용해 “<span class='quot0'>암 치료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던 키아로스타미 감독이 세상을 떠났다</span>”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지난 3월 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 왔다. 지난주 파리에서 받은 수술을 포함해 몇 차례 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1940년 이란 테헤란에서 태어난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테헤란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그래픽 디자이너와 광고 감독으로 일하다 1969년 어린이ㆍ청소년 지능 개발 연구소의 영화 파트에 합류하면서 영화 감독의 길에 들어섰다. 2년 뒤 첫 번째 단편영화 ‘빵과 골목길’을 발표했고, 1973년 첫 번째 장편영화 ‘여행객’을 연출했다.<br/>1979년 이란 혁명 후에도 고국에 남아 영화 작업을 계속해 온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40여 년간 다큐멘터리와 단편ㆍ옴니버스 포함 40여 편의 영화를 제작해 이란 영화를 세계에 알려왔다. 장 뤽 고다르 감독은 “영화는 D.W. 그리피스 감독에게서 시작돼 키아로스타미 감독에게서 끝난다”며 고인의 영화 세계를 높이 평가했다. <br/>키아로스타미 감독에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안긴 ‘체리향기’(1997)는 자신이 자살한 후에 시신을 묻어줄 사람을 찾아 다니는 어느 이란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훗날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 자신의 연출작 중 완성된 뒤에 한번도 보지 않은 유일한 영화로 꼽으면서 그 이유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로 자신을 되돌려놓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체리향기’는 자살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이란 내 상영이 금지되기도 했는데,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span class='quot1'>사실은 삶의 의지에 대해 말하는 영화</span>”라고 회고하기도 했다.<br/><br/><br/>국내에 가장 친숙한 작품은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1989)다. 한 소년이 학교에서 실수로 가져온 친구의 공책을 돌려주기 위해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이 영화는 1989년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청동표범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는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1991), ‘올리브 나무 사이로’(1994)와 함께 ‘이란 북부 3부작’ 또는 ‘지그재그 3부작’으로 불리고 있다.<br/>1999년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는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사는 최고령 할머니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장례를 취재하러 온 한 기자가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br/>그 밖에도 ‘텐’(2002), 옴니버스 영화 ‘티켓’(2005)과 ‘그들 각자의 영화관’(2007), 줄리엣 비노쉬가 출연한 ‘사랑을 카피하다’(2010) 등이 유작으로 남았다. 가장 최근작은 일본에서 촬영한 ‘사랑에 빠진 것처럼’(2012)이다.<br/>키아로스타미 감독을 만나러 파리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이란의 유명 감독 아쉬가르 파라디(‘씨민과 나데르의 별거’)는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슬프고 충격적이다. 그는 단순한 영화감독이 아니었다. 영화와 개인적인 삶에서 모두 현대적 신비주의자 (modern mystics)였다”고 말했다. 파라디 감독은 “<span class='quot2'>그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길을 닦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span>”며 “<span class='quot2'>세계 영화계가 위대한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진실로 위대한 인물을 잃었다</span>”고 평가했다. <br/>이란 국민들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과 함께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들고 있는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유족으로는 멀티미디어 분야와 다큐멘터리 영화에 종사하는 두 아들이 있다.<br/><br/>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07.txt

제목: [애니북스토리] 늙은 개, 고양이와 산다는 것  
날짜: 201607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06051831805  
본문: 누구나 늙으면 평생 안 하던 행동을 한다. 그게 동물이건 사람이건. 얼마 전 아빠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뭔가를 집어넣고 계셨다. 이발하고 오시면서 산 아이스크림을 넣는 중이라는데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이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냉동실이 꽉 차서 그런 거란다. 나름 이유가 있으니 치매는 아니겠지, 80대 중반의 노인이 암 투병을 하고 있으니 저 정도 인지 능력이면 별 문제 아니겠지 생각했다. 그렇게 믿고 싶다. 나이 들어가는 이와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 ‘생전 처음 하는 행동이지만 별일 아니겠지.’<br/><br/>‘마지막 여행을 떠난 고양이’의 작가이자 고양이 노튼과 사는 피터 게더스도 그랬다. 노튼이 나이 들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던 어느 날, 노튼 물그릇의 물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걸 보고서도 집에 난방을 많이 해서 물이 증발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노튼이 하루에 물그릇을 두 번이나 비우고, 개처럼 변기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도 이상하다고만 느끼면서 며칠을 보낸다. 이 무슨 멍청한 행동인가 싶지만 이해할 수 있다. 노화의 증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br/><br/>얼마 전 개의 문제 행동에 관한 TV 프로그램의 작가가 문제 행동이 있는 노견 사례를 찾고 있는데 어렵다고 연락을 해왔다. 노견과 사는 분들은 오로지 건강만이 관심사라서 그럴 거라고 알려줬다. 실제로 노견과 사는 분들은 가끔 물리거나 대소변을 못 가려도 그러려니 한다. 내가 ‘나이 들었다고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 개는 늙어서도 교육이 되는 훌륭한 종이다’라고 잔소리를 해도 안 통한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기죽으면 안 된다고 오히려 나에게 뭐라 한다.<br/><br/><br/>늙은 개, 고양이와 산다는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터 게더스도 평생 해오던 여행을 포기한 채 노튼 곁을 지키고, 주사가 무서워 병원도 멀리하던 사람이 신장질환이 있는 노튼에게 피하 주사를 직접 놓는 프로 간병인이 된다. 내가 아는 지인은 체중이 50㎏도 안 되는 여성인데 각종 노환으로 걷기 힘든 30㎏의 리트리버를 번쩍번쩍 들어서 옮긴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느냐는 우문에 “엄마니까!”라고 답한다.<br/><br/>이런 물리적인 변화 이외에도 순리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아끼고, 헌신하고, 타인이 주는 사랑과 희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며 인생이 변해간다. 이건 사랑했던 존재를 늙고 귀찮고, 버겁다는 이유로 포기한 자는 알 수 없는 영역의 가치이다.<br/><br/>나는 19세 노견과 이별했고, 지금은 15세 노묘와 산다. 떠난 노견은 평생 독립적인 아이였는데 늙으면서 자꾸 내게 의지해야 하니 불편하고 어색해 했다. 그럴 때면 그 동안 네가 내게 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불편해 하지 말라고 말했다. 내가 아프거나 우울할 때 24시간 내 곁에서 위안을 주었던 네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기쁘다고도 했다.<br/><br/>물론 나이든 반려동물과 사는 일에 대한 시선이 곱지는 않다. 늙었어도 평생 매일 하던 산책을 계속 하게 해주고 싶어서 데리고 나가면 “질기게 오래 사네” “네 부모한테나 그렇게 해라” 하며 혀를 끌끌 차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끝까지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 욕먹을 일은 아니지 않나.<br/><br/><br/>늙은 개, 고양이와 사는 일은 선택의 연속이다. 수술을 할까 좀 더 지켜볼까, 병원을 옮겨볼까,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인데 치료를 포기할까 등. 그럴 때면 원칙이 필요하다. 나는 무작정 오래 살기보다는 삶의 질을 선택하고, 동물이 아니라 내가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그래서 이별할 때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br/><br/>나이 든 아이들과 살다 보면 자신의 추한 민낯과 마주치기도 한다. 치매 증상인지 새벽에 깨서 두세 시간씩 베란다를 빙빙 도는 개에게 나는 이제 그만 좀 하고 자자고 짜증을 내기도 했다. 늙고 말 못하는 동물 앞에서 드러내는 한심한 모습이라니. 그렇게 아이들은 늙어서까지 우리의 맨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고, 우리들은 아이들을 만난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된다.<br/><br/>피터 게더스는 노튼의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신장 이식을 비롯해서 많은 치료 방법이 있다고 설명해주는 의사에게 떨면서 말한다.<br/>“<span class='quot0'>당연히 제 신장을 노튼에게 주겠습니다.</span>”<br/><br/>의사는 고양이 사이의 신장 이식을 말한 것이며, 사람 신장은 고양이에게 커서 어렵다고 알려준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웃어넘길 에피소드지만 피터 게더스가 한 말이 진심임을 늙은 개, 고양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다.<br/>김보경 책공장 더불어 대표<br/><br/>참고한 책: 마지막 여행을 떠난 고양이, 피터 게더스, media2.0<br/><br/><br/>▶ 동그람이 페이스북 바로가기<br/><br/>▶ 동그람이 카카오채널 바로가기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08.txt

제목: 암환자 가족 위로 ‘777 희망 나눔 콘서트’  
날짜: 2016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05051427193  
본문: 한국생명회복운동본부와 재능나눔 1004 클럽이 공동 주관하는 전국 암환자와 가족 위로 ‘777 희망 나눔 콘서트’가 7일 오후 7시부터 강원 속초시 조양감리교회에서 열린다.<br/>최필립씨가 총감독을 맡은 이날 공연은 김현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오보에 연주자 정주아, 플루트 김익경, 오카리나 김욱, 팬플루트 성대현씨가 연주하고, 테너 허양씨와 최승원씨가 ‘뱃노래’ ‘You raise me up’ 등을, 소프라노 이종미씨가 ‘강 건너 봄이 오듯’을, 바리톤 곽상훈씨가 ‘투우사의 노래’ 등을 부른다. 합창과 시낭송의 시간도 마련됐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09.txt

제목: 한국 불교 세계에 알린 ‘벽안의 불모’ 잠들다  
날짜: 201607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05051410086  
본문: 불교미술 거장인 만봉 스님의 제자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려 온 브라이언 배리(Brian Barry) 법사가 3일 암으로 별세했다. 72세. 탱화장(幀畵匠ㆍ부처 등을 그리는 장인)으로 한국 불교미술의 가치를 소개하고, 한국 불교서를 번역해 온 그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호 외국인 포교사였다.<br/>미국 코네티컷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던 배리 법사는 23세였던 1967년 평화봉사단으로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를 찾았다. 당시 2년 계획으로 활동한 봉사단원들은 변변한 화장실 하나 없던 환경에 경악했지만 그는 “바다 냄새, 꽹과리 소리를 잊지 못하겠다”며 대학 졸업 후 돌아와 아예 한국에 터를 잡았다. 스스로를 ‘부안 부씨’라고 칭한 건 이때부터였다. 지인들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그를 ‘부형’이라고 불렀다.<br/>한국으로 돌아오는 발길을 재촉한 건 처음부터 불교의 영향이 컸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는 봉사단 시절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들은 불교철학에 매료됐다. 1979~98년 대우그룹에 근무하며 틈틈이 대원정사 불교대학에서 불경을 공부했다. 1986년 한 미국 건축가의 통역을 위해 간 서울 봉원사에서 조화로운 단청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 문득 전율을 느꼈고, 그 길로 봉원사 만봉 스님에게 청해 탱화를 배우기 시작했다.<br/>만봉 스님 문하에서 밑그림만 수천 장을 그리던 그는 2년 만에 정식 제자가 됐고, 1985년 제1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입선, 90년 같은 대회 특선 등에 올라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태국 왕실사원의 부탁으로 탱화를 그려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다. 명실공히 불모(佛母ㆍ불화ㆍ불상을 만드는 사람)가 된 그는 온종일 방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수행으로 삼았고, 2006년 만봉 스님이 입적하자 유족들이 가족회의를 통해 “완성을 부형에게 맡기자”고 할 정도로 그의 실력과 열정은 유명했다.<br/>1987년 대한불교 조계종 최초로 외국인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자신의 웹페이지 등을 통해 세계에 한국 불교의 가르침을 소개해왔다. 직접 그린 달마도, 관세음보살도, 탱화의 이미지는 물론, 불화를 공부하는 자세와 불화의 종교적 예술적 의의 등을 상세히 다룬 글을 올려 이목을 끌었다. 성철 스님, 법정 스님 등의 저서 등 불교 서적들도 번역해 영미권에 내놓았다. 이런 공로로 200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받았고 조계종은 처음 ‘명예 국제포교사’라는 직위를 만들어 그에게 선사했다.<br/>2001년부터 폐암, 신장암을 앓아온 고인은 5년간 4번의 수술을 거치며 투병하는 중에도 붓을 놓지 않았다. 몸이 아플수록 수행하는 마음으로 부처를 그리겠다는 의지였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span class='quot0'>70년대부터 고인과 알고 지냈는데, 한국 불교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최근까지도 전시회 등 왕성한 활동을 해온 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 분의 수행자다운 삶이 우리 종교인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span>”며 애석해했다.<br/>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5일 오전 11시, 다비장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이다.<br/>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10.txt

제목: “희망의 마술 쇼가 떴다” 소아암 환자에 웃음꽃 선사  
날짜: 201607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04050926935  
본문: 임직원 자발적 천사펀드 운영<br/>결식아동ㆍ소아암 환자 등 지원<br/>38개 봉사단체 사계절 구슬땀<br/>의류 재활용 제3세계 기부도<br/><br/>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 어린이병원 강당. 병실서만 머물던 소아암 입원어린이 환자와 가족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떠들썩한 ‘마술쇼’가 시작됐다. 장기간 입원에 지쳐있던 소아암 환자 어린이들은 마술사의 손짓 하나하나에 환호성을 질렀고, 보호자 등 가족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마술쇼에 이어 샌드아트(모래를 뿌리거나 지우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모습을 영상화하는 예술)와 풍선마술쇼가 펼쳐졌다.<br/>이날 행사는 NH투자증권이 소아암과 맞서 싸우는 어린이들의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 마련했다. 병실에서 장기간 밖으로 나올 일 없는 아이들이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된 이벤트다. NH투자증권의 임직원들은 현장에서 자리를 안내하고 어린이들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등 행사 진행 자원봉사에 나섰다. 매년 5,000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소아암 환자 10여명의 치료비를 지원해 왔는데, 이날은 마술쇼의 도우미로 직접 나선 것이다. 자원봉사에 나선 한 직원은 “<span class='quot0'>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건넨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직접 알 수 있는 기회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오히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span>”고 말했다.<br/>이처럼 NH투자증권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의 특징은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에 전체 직원의 적극적 봉사 참여가 동반된다는 점이다. 우선 회사와 별도로 직원들이 사회공헌 관련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뛴다.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은 2005년부터 각종 봉사단체와 연계해 사회공헌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천사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천사펀드는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후원금으로 기부해 적립하는 기금인데, 주로 ▦결식아동 지원사업 ▦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 ▦농촌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 지원 등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업에 쓰인다. 임직원들은 이와 별도로 자신이 소속된 사업부별 봉사단체가 조성하는 ‘사회봉사단 기부금’에도 십시일반 정성을 보태고 있다. <br/>재원 조성 외에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은 직접 몸으로 뛰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NH투자증권은 2011년 12월부터 회사 내 모든 직원이 봉사단체에 참여하며, 전사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3,000여명의 임직원이 38개 사내 봉사단체에 가입되어 있다. 지난해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은 1,150회의 봉사활동을 통해 연 3만 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 임직원 1인당 평균 10시간이 넘는 봉사시간이다. 여름과 겨울이 힘든 쪽방촌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쪽방촌 겨울ㆍ여름나기’ 행사를 진행하거나, 계절에 맞춰 연탄나눔이나 김장나눔 봉사를 하는 식이다. 매년 추석을 맞아 직원들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전국의 결식아동들에게 배달을 해 주거나, 봄꽃 축제 현장에서 미아방지 팔찌를 달아주는 봉사활동도 있다.<br/><br/><br/>회사 측에서도 직원들의 사회공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매년 우수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가까운 지점이나 부서별로 봉사 그룹을 이뤄 활동하는 것이 사내 봉사단체 활성화의 비결</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이런 과정을 통해 자칫 회사가 강요하는 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봉사활동을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 임직원 개개인이 모두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전통을 쌓으며, 사회공헌이 기업의 문화로 정착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회사 측은 평가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12~2014 회계연도에 65억5,500만원을 사회공헌에 지출해 국내 증권사 중 가장 사회공헌에 적극적 활동을 하는 회사로 나타났다.<br/>농협에 기반을 둔 금융회사답게 농촌 및 농민과 교감하는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경북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마을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소용마을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임직원들이 농번기에 소중한 일손을 제공한다. <br/>기존에 추진하던 사회공헌 활동 외에, 새로운 방식의 봉사활동을 발굴하는 데에도 열심이다. 2012년부터는 비영리단체와 연계해 임직원들이 기부한 재활용 의류를 통해 제3세계 어린이들 지원하고 있다. 매년 4,000여벌의 의류가 기부되는데, 바자회 등을 통해 이 의류를 판매하고 여기서 거둔 수익을 저개발국가 어린이들의 미술용품 구입에 쓰는 식이다. 2014년부터는 아프리카 신생국가인 남수단 주민들에게 직접 의류를 전달하기도 했다.<br/>지난해부터는 장애인복지관에 ‘옥상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임직원봉사단이 직접 나서 서울남부장애인복지관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고, 실제 여기서 기른 배추 무 갓 등으로 김치나 깍두기를 담가 소외계층 등에게 제공하는 활동이다. 복지관의 장애인들이 텃밭 가꾸기를 경험하며 식물 생장을 직접 접할 수 있어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br/><br/>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11.txt

제목: 모기향 연기에 취해 UFO 떨어지다  
날짜: 2016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02051456291  
본문: 모기향<br/>다시마 세이조 글, 그림ㆍ고향옥 옮김<br/>한림출판사 발행ㆍ32쪽ㆍ9,500원 <br/>‘모기만하다’고 할 때는 더없이 하찮다는 뜻이지만, 무더운 여름날 모기의 존재감은 결코 하찮지 않다. 앵앵거리는 소리만으로도 대단히 점잖은 사람조차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이 작은 흡혈귀가 남긴 흔적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심히 긁어대었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도 만든다. 그나마 의지했던 모기향이니 모기약이 인체에 대단히 해롭다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듯 쓰라리다. 실제로 코일형 모기향 하나를 피웠을 때 담배 스무 개비 정도의 발암성 물질과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환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모기 아닌 사람 잡는 일이 된다.<br/>다시마 세이조의 그림책 ‘모기향’은 돌돌 말린 초록색 모기향이 뿌연 연기를 내고 있는 표지의 그림에서 시작된다. 아이가 그린 듯이 에너지 넘치는 삐뚤삐뚤한 선과 강렬한 채색은 이 작가 고유의 화법이거니와, 그래서 자연을 그려온 여느 그림책에 비해 이 작품은 무척 전위적으로 다가온다.<br/>표지의 그림 모기향에서 시작된 연기는 ‘연기가 포올 폴/ 모기가 툭’의 텍스트와 함께 떨어지는 모기 한 마리를 보여주는 첫 장면과 ‘연기가 포올 폴/ 모기가 툭 툭’의 텍스트와 함께 떨어지는 모기 두 마리를 보여주는 둘째 장면과 수많은 모기가 툭 툭 툭 툭 떨어지는 세 번째 장면에 이어, 비슷한 구성과 연출로 모기향 연기-인간 우위와 편의주의에 의해 자연 생물을 죽이는 근시안적 문명-가 말살하는 세상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 킥킥, 웃음이 터지는 형국으로.<br/>한낱 모기향 연기에 의해 스러지고 죽는 것이 모기라면 당연하지만, 화병에 꽂혀 있던 빨간 꽃이라면 그럴 법도 하지만, 옷걸이에 걸려있던 모자가 떨어진다! 안경 쓴 할아버지가 보고 있던 신문의 글자, 할아버지의 안경, 할아버지 잠옷의 무늬가 떨어진다! 모기향 연기는 심지어 괘종시계의 바늘과 숫자를 떨어뜨리고 마당으로 나와 빨래대의 빨래, 나무에서 사과를 따려던 어린 원숭이도 떨어뜨린다! 도시 한복판의 동상이며 간판을 떨어뜨린다! 도깨비가 들어있는 소나기 구름과 UFO를 떨어뜨린다! 귀신, 마녀를 떨어뜨린다! 높이높이 폴 폴 폴 날아가 달님까지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br/>1940년생인 작가는 온몸으로 세상의 속물성과 싸워온 예술가이자 환경운동가이다. 자신의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절판시키기도 하고, 폐기물처리장 확대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가 현장의 비산에 의해 암에 걸리기도 한 그의 삶은 마치 웃음이 나오면서도 등이 서늘해지는 이 그림책 같다. ‘모기향’의 마지막 장면은 오묘한 해피 엔딩이다. 달님이 떨어뜨린 눈물이 치익, 모기향을 꺼트린다.<br/>이상희 시인ㆍ그림책 작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12.txt

제목: [아침을 열며] 여성의 건강권, 뭣이 중헌디  
날짜: 201606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701050939771  
본문: 지난달 20일부터 정부는 매년 초등학교 6학년 여성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도록 하는 정책을 개시하였다. 올해는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47만명이 접종대상이라고 한다. 그 후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8,500명이 접종을 받으면서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은 잦아들지 않고 있고, 국가백신사업으로 지정되게 된 배경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br/>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입장은 매우 양극단으로 나타난다. 의료계의 입장은 사소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암을 예방해준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으므로 백신의 효과를 누리기에 가장 적절한 연령을 놓치지 말고 얼른 접종을 받으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과 함께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추구 행위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의료계와 국가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신과 불안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은 접종이 시작된 이후 SNS상에 유포된 백신 관련 괴담이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된다.<br/>이러한 논란에 마주하여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의 건강권은 백신에 대한 찬반의 문제라는 협소한 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자궁경부암백신은 미국에서 개발되던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여성 건강에 대한 페미니즘의 언어를 차용해 왔고, 반대하는 쪽도 여성의 입장에서 몸에 대해 이루어지는 국가적·의료적 개입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쪽 모두가 여성의 몸과 건강의 권리를 내세우는 상황이기에, 겉으로 드러난 수사학적 표현을 넘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br/>우선 양측이 접종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주목해 보자. 무엇보다 정부나 의료계가 만 12세 여성성별을 가진 개인들에 대해 성적인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눈길을 끈다. 언뜻 보면 최근 들어 성 경험 개시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항체의 효과적 형성을 위해 성 경험 이전에 접종을 하려면 만 12세 정도가 적당하다는 주장은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이제까지 10대 중후반에 대해서조차 현실적으로 이들이 성을 경험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니 정부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백신 사업을 앞두고서 갑자기 청소년 성에 대해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의혹이 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 특히 여성청소년의 성 경험을 인정하는 것은 이들이 소비자로서 가치가 있을 때만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br/>그에 비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제기하고 국가접종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만 12세 연령대를 여아, 즉 아동으로 호명하면서 접종대상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나 정부가 여성청소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이들은 동시에 백신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결국 여성의 자기 결정능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br/>최근 정부가 피임약 재분류 안을 발표하면서 여성의 건강권보다는 의약계의 이해관계를 앞세웠듯이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이 소비자나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성적 주체로서나 시민적 주체로서 존중 받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게 현실이다. 백신을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집중된 논의는 과연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방해한다. 성, 피임, 출산, 임신중절 등 생식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여성들이 연령이나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주체로서 존중받을 때만이, 그리고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 없이 의료에 접근할 수 있을 때만이 여성들의 건강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br/>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 교수ㆍ문화인류학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13.txt

제목: 안동병원 신세원 방사선종양학과장 국제인명사전 2곳 등재  
날짜: 2016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29051715847  
본문: 안동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세원(61) 박사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 2016년판과 영국 국제인명센터(IBC) 2016년 후반기 발행 인명사전에 등재됐다.<br/>안동병원에 따르면 신 박사는 각종 암의 치료에 필수적인 방사선치료 효과의 극대화와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영상유도 정밀방사선치료를 이용, 30년 이상 각종 암 환자를 치료했고 다양한 연구실적과 학술 활동 등을 인정받았다.<br/>신 박사는 안동병원 암센터장, 영남대학교 방사선종양학과장을 역임하고 영남대 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계명대 의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br/>신 박사는 “전립선 암의 정밀방사선 치료와 방사선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과 후유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립선을 절제한 후 재발했거나 불완전 절제에 따른 재발 위험성이 높을 경우 세기변조방사선치료법이 기존의 방사선치료법보다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br/>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14.txt

제목: [아모레퍼시픽] 여성 암환자들에 화장 비법 전수  
날짜: 2016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29051633209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1945년 창립 이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힘을 쏟아 왔다. <br/>이 가운데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이 캠페인을 통해 암 치료 과정에서 탈모 등 갑작스런 외모 변화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 암환우들에게 얼굴 화장법과 피부관리, 헤어 스타일 가꾸기를 포함한 화장 비법들을 전수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에도 서울 및 전국 주요 지역 35개 병원 1,500여명의 환우들을 대상으로 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br/>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0년부터 설립기금 전액 출자와 함께 국내에선 처음으로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 유방건강 의식 향상에 필요한 ‘핑크리본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핑크리본캠페인에선 2001년부터 매년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을 열고 유방건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270만5,000여명이 참가한 이 마라톤에선 총 29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했다.<br/> 아모레퍼시픽은 이 밖에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운영 중인 ‘희망가게’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장에게 최대 4,000만원의 창업 자금(상환금리 연 1%)도 지원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15.txt

제목: 후쿠시마 사고 당시 5세 어린이, 갑상선암 의심  
날짜: 201606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29051446898  
본문: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당시 5세였던 어린이 1명이 갑상선 암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다고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원전사고 당시 5세 이하 어린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br/>원전사고 당시 만18세 이하였거나 원전사고 후 1년 이내에 태어난 후쿠시마 지역 아동을 상대로 한 갑상선암 검사에서 당시 5세였던 남자아이 1명이 ‘갑상선암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이달 6일 열린 후쿠시마 현민(縣民)건강조사검토위원회에서 공개됐다. 이 어린이는 검사 당시 9세였다. <br/>그간의 검사에서 확진된 갑상선암 환자는 131명, 의심자는 41명이다. 현민건강 조사검토위원회는 그동안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어린이에 대해 ‘방사선의 영향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주민 피폭량이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비해 적고, 지역별 갑상선암 발견율에 큰 차이가 없으며 5세 이하 가운데 갑상선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해왔다.<br/>그러나 5세 이하 어린이가 갑상선암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옴에 따라 현민건강조사검토위원회 견해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체르노빌 사고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는 사고 발생 4년이 지난 후부터 5세 미만 아동의 갑상선암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바 있다. <br/>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16.txt

제목: 뜨거운 국물 ‘벌컥벌컥’…식도암 키워  
날짜: 2016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28051418182  
본문: 식도에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면 염증 생겨 식도암 유발 <br/><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는 최근 ‘뜨거운 음식’을 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발암인자(Group 2A)로 분류했다. 센터는 암 예방을 위해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나 음식을 삼가라고 권고했다. <br/>“시원하다.” 끼니마다 뜨거운 국과 찌개를 즐겨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까. 뜨거운 음식을 즐기면 식도 점막이 손상돼 식도암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혜경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특히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마실 때 온도가 높고, 양이 많을수록 식도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span>”고 말했다. 식도에 열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식도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겨 식도암에 노출될 수 있다.<br/> 국내에서 식도암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한 질환이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식도암으로 사망한 남성 환자 수는 1,407명에 달했다. 정성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여성보다 남성이 술과 담배를 즐기는 인구가 많기 때문</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술과 담배를 함께 하면 알코올과 니코틴 등 독성 물질이 체내에서 복합작용을 일으켜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span>”고 말했다. <br/> 국내 식도암 환자의 90~95%는 식도 상피세포암이다. 정혜경 교수는 “<span class='quot1'>사회ㆍ경제적 수준이 낮고, 지속적으로 음주와 흡연에 노출된 이들이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span>”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드물지만 식도선암의 경우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암에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정성원 교수는 “<span class='quot2'>겉으로 봐서는 비만이 아니라도 내장비만이라면 식도선암에 걸릴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식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음료나 음식은 충분히 식혀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뜨거운 국물이나 차를 급하게 마시는 것도 삼가야 한다. 식도암 위험인자인 붉은 고기류 섭취도 줄여야 한다. 구강상태가 좋지 않아도 식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평소 구강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17.txt

제목: [심장리듬을 살리자] (중) 폐경되면 여성 심장 건강 ‘빨간 불’  
날짜: 2016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28051412191  
본문: 사람 심장은 분 당 60∼100회 뛴다. 부정맥(arrhythmia)은 심장리듬이 깨져 생기는 병이다. 심장박동이 너무 빠르거나(빈맥), 늦거나(서맥), 불규칙해진다(심방세동). 돌연사(90%)와 뇌졸중(20~30%)을 일으킨다. 빈맥은 가슴이 막 뛰다가 괜찮아지거나, 앞이 깜깜해지면서 식은 땀이 나거나, 숨 쉬기 힘든 증상이 반복된다. 서맥은 노화로 인해 주로 생기는데, 어지럽고 힘이 없어 빈혈로 착각하기도 한다. 심장리듬이 고르지 않으면 부정맥이 생긴다. 인구의 2% 정도(100만 명)에서 발병하지만 치료는 20% 정도밖에 하지 않는 부정맥에 대해 알아본다. <br/><br/> 50대 후반 여성이 삼성서울병원 여성심장클리닉을 찾았다. 온 몸이 피로하고, 기운이 없고, 가슴 한복판이 소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고, 때로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을 올려 놓은 것 같은 불편함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동네 병원에서는 폐경기, 갱년기 증상이니깐 푹 쉬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클리닉을 찾게 된 것이다. 이 여성은 심장혈관 조영술 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발견돼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됐다. 여성 심장 질환 전문의인 박성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에게 폐경기 여성 심장 건강에 대해 들어보았다.<br/><br/>Q. 폐경 후 여성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는데…<br/>“보통 심혈관 질환은 중년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여성들도 폐경기가 되면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2014년 우리나라 성별 사망 원인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심장질환이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중년 여성에서 심혈관 질환이 많아지는 것은 폐경이라는 큰 사건 때문이다. <br/>인간에게는 3개의 성(性)이 있다. 남성, 폐경 전 여성, 폐경 후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은 폐경 이후 여성의 신체와 정신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특히 심장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심장 건강에 나쁘게 바뀐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는다. 하지만 ‘혈관 건강의 방패막이’인 에스트로겐이 폐경 이후 급격히 줄어든다. 이로 인해 폐경 후 여성의 심장 질환이 급증하게 된다.<br/>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가 여성이 폐경 전에는 남성보다 적지만, 폐경된 뒤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은 폐경 전 10.7%에서 폐경 후 30.6%로, 당뇨병 유병률은 폐경 전 4.4%에서 폐경 후 22.1%로,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폐경 전 8%에서 폐경 후 26.8%로 급증한다. 이는 혈관보호효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조절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폐경 후 급격히 줄어들면서 심장과 혈관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10~20% 정도 증가하고, 심장과 혈관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10% 정도 줄어들기 때문이다.”<br/><br/>Q. 폐경 이후 나잇살도 심혈관 발병을 일으키나.<br/>“여성 호르몬은 비만과 인체 내 지방의 분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 호르몬은 폐경이 되면 크게 줄어든다. 여성호르몬 에스트라다이올의 경우 폐경 전 40~400pg/㎖에서 폐경 후 10~20pg/㎖ 감소한다. 이처럼 여성 호르몬이 폐경으로 인해 줄어들면 비만과 체내 지방의 분포가 엉덩이, 배, 허벅지 등에 많이 축적하게 된다. 그 결과 여성형 비만,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이 생기고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br/><br/>Q. 여성 심혈관 질환이 갱년기 증상과 다른 점은.<br/>“갱년기 증상, 폐경기 증후군의 증상과 심혈관 질환 증상을 구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그만큼 비슷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가슴이 벌렁거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어서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검사해보니 심장혈관에 심각한 병이 있는 경우도 있다. <br/>국내에서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으로 치료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여성 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 사망률도 여성이 더 높았다. 남성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등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지만 여성은 피로, 메스꺼움, 숨참, 우울, 불안감 등 심장과 관련 없는 증상이 많다. 때문에 초기에는 심장질환이라고 의심하지 않아서 여성은 심장근육이 많이 손상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여성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br/><br/>Q. 갱년기와 심혈관 질환 증상이 비슷한데.<br/>“갱년기와 심혈관 질환 증상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중년 여성의 경우 가슴 아픔, 답답함 등의 증상이 생겨 불편하면 전문의 진료를 받기를 권한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 평가를 통해 위험도를 알아내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br/>Q. 중년 여성이 심혈관 질환을 막으려면.<br/>“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은 중년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루 30분 이상 매일 운동하고, 이상적인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엄마로서, 주부로서 자식 건강과 남편 건강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 관리는 매우 소홀하다. 남편과 가족들은 아내, 엄마는 무쇠인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집안에서 부인이, 엄마가 불편함을 호소할 때 ‘쉬면 괜찮아’, ‘엄마들은 다 그런 거야’하면서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증상 자체를 무시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br/><br/>Q. ‘여성 심장 클리닉’이 아직 낯선데.<br/>“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여성 심장 건강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메이요 클리닉과 클리브랜드 클리닉 등에서 여성 심장 클리닉을 열어 여성 심장 건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치료하고 있다. 여성 심장 질환은 원인과 진단, 치료 측면에서 남성과 다르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도 이런 환자를 위해 2010년 여성 심장 클리닉을 개설했다. 가슴이 방망이질한다, 숨이 안 쉬어진다,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다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폐경기 여성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다. 또한 임산부 심장클리닉도 같이 운영해 심장질환이 있는 임신부, 임신 중 고혈압 등에 대해 산부인과와 협진해 진료하고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18.txt

제목: 천년의 신비 간직한 1000개의 섬, 느림과 기다림의 미학으로  
날짜: 2016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24052604992  
본문: 천연보호구역인 홍도<br/>튤립섬이라 불리는 임자도…<br/>신안, 천혜의 아름다움 간직<br/>파도소리와 노을, 그리고 해무<br/>일상에 지친 현대인들 위무<br/>계절마다 제철 먹거리도 풍부<br/> <br/> 서해에 점점이 떠 있는 섬들. 해무에 휩싸인 아침에 보면 신선이 머무는 곳처럼 보이다가 황금빛 노을에 반사되는 석양엔 보석처럼 빛난다. 섬과 섬 사이를 오가는 작은 배들이 석양노을 속을 지나는 모습을 보노라면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온다. 수천 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신안의 섬들은 자연이 주는 바람소리와 파도소리, 붉은 노을과 신비한 해무 등으로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힐링의 최적지로 꼽힌다. <br/> 섬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비바람이 만들어 놓은 천연 분재로 가득한 무인도와 밀려오는 파도가 조각한 기암괴석, 금방이라도 도깨비가 나올듯한 전설바위, 시큼한 갯내음 등 섬은 오감여행의 최고봉이다.<br/> 파란 물결이 넘실대는 바다에 다양한 모습으로 피어난‘바다의 꽃’섬에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휴양과 힐링의 섬, 섬들의 고향으로 신안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br/><br/>▦한반도의 막내섬… 가거도ㆍ홍도ㆍ흑산도<br/><br/> 중국의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가거도는 우리나라 최서남단의 섬이다. 매년 태풍이 불 때마다 온 국민이 숨죽이며 바라보는 막내 섬이다. 하지만 산세가 높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형성돼 웅장하다. 길다란 산줄기를 이룬 독실산 정상은 잦은 해무가 머물러 구름에 휩싸인 신비감을 간직하고 있다. ‘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섬’, ‘가도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섬’등으로 잘 알려진 가거도는 독실산의 굵은 산맥과 각진 절벽으로 남성미가 넘치는 매력적인 섬이다.<br/>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홍도는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섬 관광지다. 연간 1,000만명 이상이 찾는 명소로 누구나 한번쯤 가고 싶은 섬이자 가볼 만한 섬이다. 홍도는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 전설을 간직할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홍도의 관문으로 이곳을 지나면 만선이 된다는 남문바위를 비롯해 석화굴, 만물상, 탐섬, 슬픈여, 부부탑 등 홍도 10경을 보노라면 어느새 신선이 된다.<br/>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고 80여분 달려 도착한 흑산도. 멀리 산 정상에서 들려오는 애절한 노래가 가슴을 아련하게 한다. 뱀처럼 구불구불한 해안일주도로를 따라가면 흑산도아가씨 노래비가 서 있는 상라봉 전망대에 이른다. 이 곳에 서면 흑산도 전경과 함께 예리항 앞바다가 한 눈에 들어온다. 서해의 절경에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는 곳이다.<br/><br/>▦예술ㆍ시금치의 섬= 비금도ㆍ도초도ㆍ우이도<br/> 비금도와 도초도는 형제의 섬이다. 현재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있지만 과거엔 연락선을 타고 건너야만 했다. 육지 나들이가 힘들던 옛적엔 두 섬을 오가며 혼사가 많이 이뤄져 일가친척이 많았다고 한다. <br/>목포에서 흑산도와 홍도를 가는 쾌속선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도초도다. 다도해상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생태관광지다. 산과 섬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기 그지 없다. 도초도 동생 격인 우이도의 사구는 환상적인 모래산으로 유명하다.<br/> 특히 비금도는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의 고향이자 전국적으로 유명한 섬초(시금치)의 주산지다. 하트모양의 하누넘해수욕장과 명사십리해변 등에서 보는 저녁노을이 일품이다.<br/><br/>▦짱둥어ㆍ튤립의 섬… 증도ㆍ임자도<br/> 아시아 최초로 느린섬으로 지정된 증도는 서남해안 대표적인 휴양지다. 드넓은 우전해수욕장과 짱뚱어의 뛰노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짱둥어다리가 명소다. 짱뚱어다리를 걷다 보면 태평염전이 눈에 들어온다. 전통방식 그대로 소금을 생산하는 이 곳에서는 햇볕 아래 반짝이는 신비로운 소금결정체를 볼 수 있다. 소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소금박물관도 있다.<br/> 임자도는 튤립섬으로 유명하다. 한 때 전장포 새우젓으로 유명했던 임자도는 몇 년 전 대광해수욕장 주변에 대규모 튤립단지를 조성해 네델란드 섬을 불리기도 한다. 해마다 임자튤립축제가 열리고 대광해변에는 승마체험장이 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추억을 주는 섬이다. 섬 전체가 모래언덕이 형성돼‘모래 세말은 먹어야 시집간다’말이 전해 올 정도로 모래바람이 심한 곳이다.<br/><br/>▦치유와 예술의 섬…자은도ㆍ암태도ㆍ 안좌도 ㆍ팔금도<br/>자은ㆍ암태ㆍ안좌ㆍ팔금도는 일찍이 연도교가 건설돼 네 개의 섬이 하나처럼 연결됐다. 자은도는 치유의 섬으로 푸른 숲, 쪽빛바다. 청정한 하늘 등 자연의 선물을 고스란히 간직한 섬이다. 9개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있고 백사장을 걸으며 보는 풍경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 <br/>안좌도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나무다리가 있다. 두리~박지도 간 547m, 박지~반월도 간 915m로‘소망의 다리’라 불린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양화가인 김환기 화백의 생가를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됐고, 온 동네가 그림이 있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돼 예술의 섬으로 손색이 없다.<br/>암태도는‘소작인 항쟁기념탑’이 있을 정도로 농민들의 혼이 살아있는 섬이다. 일제 강점기 강제수탈에 못이긴 농민들이 바위처럼 뭉쳐 쟁의를 일으켰던 의로운 땅이다. 우리나라 소작쟁의의 효시였다. 팔금도는 8마리 새의 형상을 한 섬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br/><br/>▦사시사철 먹거리 가득한 신안.<br/><br/>1,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은 천혜의 경관과 계절마다 제철 먹거리가 풍부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동중국해에서 겨울과 봄에 걸쳐 서식하다 5, 6월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산란을 위해 이동하는 병어는 이달의 별미다. 매년 6월 지도읍 젓갈타운 일대에서 병어축제가 열린다. <br/>튜립의 섬 임자도의 별미는 민어다. 예로부터 백성(民)들이 즐겨 먹는 생선이라 해서 민어로 불리고 있다. 여름철 원기회복에 좋은 최고의 보양식이다. 매년 8월 임자도에서 민어축제가 열린다. <br/> 올해는 봄부터 이상기온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쁜 일상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거든 신안의 보석 같은 섬을 찾아보는 것을 권한다. 포말로 부서지는 파도소리,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내는 몽돌의 합창을 듣노라면 어느새 자연인이 된다. 느림의 미학이 있어 치유와 추억이 향기가 짙은 곳이 섬이다.<br/>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19.txt

제목: 여고생들, 소아암어린이 위해 긴 머리 ‘싹뚝’  
날짜: 201606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24052216559  
본문: 천안 월봉고 학생 4명 머리카락 기부 <br/>가발 제작 암 투병 탈모 환자에 전달<br/> “<span class='quot0'>기부 위해 다시 기르고 있어요</span>”<br/><br/><br/>“내 얼굴은 짧은 머리가 더 잘 어울려요. 여름에는 훨씬 시원하고 등교 시간에 관리도 편해 지각 걱정 없어서 좋아요”<br/>외모에 민감한 여고생들이 애지중지하던 머리카락을 잘라 백혈병과 소아암 항암치료 중 탈모가 진행된 어린이들을 위한 가발을 만드는 데 쓰라고 기부했다. 충남 천안 월봉고교 3학년 박나현(18), 2학년 김나연(17), 위지현(17), 최영민(17) 양 등 4명이 주인공으로 최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br/>모두 한 학교에 다니는 친구지만 누가 먼저 기부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선행이 더욱 빛났다. 특히 가발 제조에 사용되는 머리카락은 적어도 2년 이상 염색이나 파마 등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부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없다.<br/>김 양은 중3인 201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기부다. 김 양은 “<span class='quot1'>원래 곱슬머리라 매직 파마로 머리카락을 펴고 싶었는데 암 투병 아이들을 생각하며 꾹 참았다</span>”며 웃었다. <br/>박 양은 “<span class='quot2'>아이들이 머리카락이 없어 놀림거리가 된다는 뉴스를 보고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 기부를 결심한 후 허리까지 기른 뒤 잘랐다</span>”며 “<span class='quot2'>건강한 머리카락을 만들려고 한겨울에도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지 않았다</span>”고 말했다.<br/>위 양은 “<span class='quot3'>중학교 때 모발기부를 처음 알게 된 후 두발제한이 없는 고교에 진학하면 꼭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3'>머리를 기르는 동안 관리의 불편함보다 머리 숱이 적고 얇은 편이라 거절당할까 걱정을 많이 했다</span>”고 털어놓았다.<br/>최 양은 “<span class='quot4'>머리카락 기부를 통해 오히려 내가 더 얻은 것이 많아 머리를 기르는 동안의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span>”라며 “<span class='quot4'>기부나 봉사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다가가기 쉽다는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span>”고 어른스럽게 말했다.<br/>사실 이들은 모발 기부 사실을 함구했다. 하지만 치렁치렁하던 머리카락이 갑자기 짧아진 이유가 궁금했던 한 교사의 추궁(?) 때문에 알려졌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작은 정성이 불씨가 되어 더 많은 기부행렬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들의 선행에 동참하기 위해 다른 학생 10여 명도 머리를 기르고 있다. 이정숙(51) 교사는 “<span class='quot5'>예쁘게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여학생이 머리카락을 기부하기 위해 1년이 넘게 길렀다는 사실이 놀랍다</span>”라며 “<span class='quot5'>어른보다 깊은 마음에 감동했다</span>”고 말했다.<br/>이들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홈페이지(http://www.soaam.or.kr/donation/hair.php)를 통하면 기부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홍보대사 역할도 자임했다.<br/>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20.txt

제목: 전자파 많이 쐬면 딸 낳는다? "사실무근”  
날짜: 2016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23051350649  
본문: ‘전자파가 많은 환경에서 지내면 딸을 낳을 확률이 더 커질까?’‘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까?’<br/>전자파와 관련된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이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다. 22일 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전자파를 많이 쐬면 정자 수가 줄어들거나 유전자가 변형돼 딸을 낳는다’는 속설은 사실과 다르다. 전자파가 태아의 성별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전파연구원의 설명이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전자파가 남성 정자의 수나 운동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는 일부 있지만 생활 습관과 음식, 음주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한 환경에서 나온 결과</span>”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br/>전파연구소는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거나 요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발암 물질이 생긴다는 소문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자레인지 작동 시 60헤르츠(㎐)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만큼 기기에서 30㎝ 이상 거리를 두는 편이 좋다고 권고했다. 전자파 방지 제품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숯, 선인장, 차폐 필터 등은 전파연구원 실험에서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전파연구원은 휴대폰이나 기지국의 전자파 위험도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기지국 전자파는 방사선처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파장이 아닌데다, 기기국 전자파 강도도 유해하지 않다고 보는 기준치의 10%에도 안 되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면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고 상관 관계 역시 약하다. 실제로 휴대폰 전자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 등급표에 등재돼 있긴 하지만 등급은 ‘2등급B’로 커피나 김치 등과 같은 수준이다. <br/><br/>전파연구원은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6년 제1차 전자파 안전포럼’을 열고 전자파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해 설명한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21.txt

제목: 명문요양병원‘K-헬스케어’개척 나서  
날짜: 201606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23051204172  
본문: 통합의학 접목해‘해독힐링캠프’운영<br/>입소문 나서 첫 한ㆍ중의료관광 물꼬 터<br/><br/> 시골의 자그마한 요양병원이 중국인 성인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독힐링캠프를 열어 한ㆍ중의료관광 물꼬를 터 화제다.<br/> 전남 담양의 명문요양병원은 지난 16일부터 3박4일 간 담양힐링센터에서 중국 북경과 항주, 연변에서 온 고혈압ㆍ당뇨ㆍ암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해독힐링캠프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br/> 중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캠프는 통합의학 분야에서는 처음 시도한‘K-헬스케어’콘텐츠로 한ㆍ중의료관광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br/> 이번 캠프에 참가한 환자들은 담양힐링센터에서 자연의 맑은 공기와 면역식단을 통한 면역증진, 수소수스파와 명상, 편백나무숲 산책을 통한 마음의 힐링을 체험했다.<br/> K-헬스케어 콘테츠 개발로 의료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명문요양병원 김동석(46ㆍ한의학박사) 원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면역력 높이기와 해독 방식 등으로 암환자 치료에 전념해 온 통합의학 전문가다.<br/>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100세 시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에 힐링센터를 건립해 해독캠프를 마련했다</span>”며“<span class='quot0'>통합의학 분야에서 K-헬스케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K-POP 등과 함께 의료한류의 세계화에 기여했으면 한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br/> 편백나무숲 속에 자리잡은 담양힐링센터가 제시한 해독방법은 3가지다. ▦생활환경과 습관변화를 통한 생활 속의 해독 ▦의학적 도움을 통한 몸의 해독 ▦정신수양을 통한 마음의 해독이다. 힐링캠프 참가자들은 100% 황토로 지은 버섯모양의 황토집 12개 동에서 생활하며 체내 노폐물 배출과 독소제거, 중금속 배출 등의 해독작용을 체험한다. 또 수소수 힐링스파에서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질환과 통증완화, 피부개선과 피로회복 등을 체험 한 뒤 편백숲을 산책하며 마음을 해독한다. 자연면역식단을 통해 면역력을 증진하는 등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br/> 10여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해 온 띠엔짱(55)씨는“편백숲이 인상적이고 면역식단은 압권이었으며 체험기간 당뇨수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체험담을 말했다. 2년 째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꿔엔화(47ㆍ여)씨는 “편백숲을 걷고 명상과 웃음치료, 수소수 스파를 체험하고 나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좋아했다.<br/> 앞서 명문요양병원은 지난해 중국 저장성 항조우시에 있는 동덕의원과 통합의학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은 후 중국인 중의원 2명을 채용하는 등 양국 간 의료진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br/>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모든 질병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치유와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단을 제공한다면 단순 쇼핑관광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한ㆍ중의료관광으로 이어질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22.txt

제목: 새로운 의료관광, 유커들이 촌을 찾는 이유  
날짜: 2016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22051114115  
본문: [한국스포츠경제 채준]<br/> <br/> ▲ 웰빙 식단을 즐기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 <br/>의학계에 새로운 한류바람이 불면서 유커(중국관광객)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br/> <br/>기존의 의학계 한류가 성형·스킨케어 등 미용 관련이었다면 최근 개척된 의학 한류는 체질 개선·성인병 예방·식생활 개선 등 일명 '웰빙한류'로 특화 되고 있다.<br/> <br/>최근 유커들이 국내 병·의원을 찾는 웰빙 의료관광의 방식은 힐링캠프 등의 패키지가 주류다. 유커들은 믿을 수 있는 한국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배우고 체질을 개선해 웰빙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한다. 이들의 특징은 서울, 부산 등 번잡한 도시를 찾는 게 아니라 한적한 시골에서 심신의 평안함과 한가로움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주로 암 등 난치성 질병 치료와 예방을 원하는 중국인 성인병 환자들이 대상이다. 전남에 위치한 A요양병원 힐링센터에서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간 중국 북경과 항주·연변에서 한국을 찾은 고혈압·당뇨·암환자 15명을 대상으로 해독 힐링캠프가 진행됐다.<br/> <br/>▲청정한 환경, 믿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 장점<br/> <br/>중국인들이 국내에 신개념 의료 관광 상품을 찾는 이유는 때묻지 않은 좋은 환경과 높은 수준이 의료 시스템이 가장 큰 이유다. A요양병원 힐링센터의 경우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편백나무 숲 속에 자리 위치한다. 또 요양원에 입소하면 100% 황토로 지어진 황토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창문을 열면 넓은 잔디밭을 비롯해 대나무 등으로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한의사인 김동석(46) 명문요양병원 원장은 "황토집은 체내 노폐물 배출, 독소제거, 염증제거, 중금속 배출, 전자파 차단 등의 해독 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병원들의 경우 대부분 완벽한 케어 시스템과 믿을 만한 의료진, 최적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 유커들의 만족도가 높다. 캠프에 참가한 꿔옌화(47·여)씨는 "편백 숲 길을 걷고 명상과 웃음치료 등을 체험하고 나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중국으로)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캠프에 대해 자랑해야겠다"며 환하게 웃었다.<br/> <br/> ▲ A요양병원의 황토집 <br/>▲특화된 웰빙프로그램 효과 만점<br/> <br/>A요양병원의 웰빙 프로그램의 핵심은 3가지다. 생활 속의 해독·몸의 해독·마음의 해독이다. '생활속의 해독'은 생활 환경과 습관의 변화를 통한 해독이고, 웰빙 식단인 다양한 면역식단을 제공하며 편백나무 숲 황토집을 통한 해독을 추구한다. '몸의 해독'은 의학적 도움을 통한 해독으로 '활성산소'를 해결하는 방법이 핵심이다. 활성산소는 인체 내에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다량으로 발생하며, 각종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다. 명문요양 병원에서는 수소수 힐링스파를 통해 활성산소등을 해결한다. A요양병원의 B원장은 "'수소수 힐링스파'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질환·비만극복·피로회복·통증완화 등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건강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고 밝혔다. '마음의 해독'은 정신 수양을 통한 해독을 아름 다운 환경을 통한 해독으로 볼 수 있다. 당뇨·고혈압 환자인 때엔짱(55·남)씨는 "한국 시골의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편백 숲이 인상적이다. 특히 캠프에서 제공하는 면역식단이 좋았다. 이번 체험기간 동안 당뇨수치도 많이 떨어졌다"고 밝혔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23.txt

제목: 평화운동가 베르타 폰 주트너  
날짜: 2016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21051731467  
본문: [기억할 오늘] 6월 21일<br/><br/>베르타 폰 주트너(1843~1914)는 오스트리아 작가 겸 반전ㆍ평화운동가로 190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최초의 반전소설인 1889년 발표작 ‘무기를 내려놓으라!’(정지인 옮김, 뿌리와이파리)가 그의 작품이다. <br/>베르타는 1843년 6월 9일 합스부르크 제국의 속국이던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다. 보헤미아 백작 집안이던 부계 친척들은 상대적으로 지체 낮은 그의 모계를 못마땅해했고, 유복자로 태어난 그는 혈통 덕을 거의 받지 못했다. 어머니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자 29세의 그는 친척들에게 의지하는 대신 스스로 일을 하기로 결심, 오스트리아 빈의 주트너 남작 집안에 가정교사로 취직한다. 그는 자신보다 7살 어린 그 집안의 막내 아들 아르투어 군다카르와 연인이 된다. <br/>베르타가 알프레드 노벨의 비서가 된 건, 아들과의 연애를 훼방 놓기 위해 남작 부인이 소개해 등을 떠민 결과였다. 42세 독신이던 노벨은 32세 베르타의 교양에 매혹됐지만, 베르타는 아르투어가 보낸 구애 전보를 받고 곧장 빈으로 돌아가 그와 비밀 결혼식을 올린다. 그는 독립적이고 파격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었다. <br/>당시 유럽은 호전적 민족주의에 들려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던 때였다. 가족을 등진 채 저널리스트 겸 작가로 활동하던 베르타는 열렬한 반전주의자가 돼갔고, 평생 친구처럼 지낸 노벨과 서신을 교환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하곤 했다. 노벨이 평화상을 제정한 것도 베르타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 알려져 있다. <br/>‘무기를 내려놓으라’는 한 군인의 딸이 군국주의 시대를 살며 전쟁의 물리적ㆍ정신적 참상을 겪는 내용이다. 주제는 소설 끄트머리에서 한 인물(주인공의 아들)이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다. “지금의 삼국동맹이 그렇듯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하나의 평화동맹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섯 나라는 그렇게 못할까요?(…)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영리한 것처럼 굴면서 야만을 비웃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역시 수많은 일들에서 아직 다섯까지도 못 세는 수준입니다.” 톨스토이는 1891년 베르타에게 쓴 편지에서 “스토의 유명한 작품이 노예제 폐지를 선도했듯이, 당신의 작품이 전쟁 폐지를 선도하길 기원한다”고 썼다. <br/>그는 여성에게 참정권도 없던 당시 유럽에서 여러 평화운동단체를 설립해 주도적인 활동을 펼쳤고, 1차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14년 6월 21일 암으로 별세했다. 최윤필기자 proose@hankool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24.txt

제목: 청매실 독성 논란, 진실은?  
날짜: 201606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21051729956  
본문: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span class='quot0'>청매실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 익은 황매실을 매실청으로 담그는 것이 좋다</span>”고 말해 ‘매실 독’ 논란이 일었다. <br/>매실 씨에 함유된 ‘레트릴’이라고도 불리는 아미그달린(amygdalin)은 분해과정에서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특유한 냄새를 지닌 시안화수소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br/>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1'>설익은 매실(풋매실) 씨앗에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이 들어 있지만 씨앗을 빼면 아무 문제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부득이 씨앗을 넣어 매실청을 담가도 1년 정도 발효하면 독이 사라진다</span>”고 했다.<br/> 임경숙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매실에 든 독인 아미그달린은 매실이 익지 않았을 때 더 많고, 과육보다 씨앗에 더 많이 함유돼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덜 여문 풋매실을 수확하면 씨앗이 쉽게 깨져 문제될 수 있다</span>”고 했다. 그러나 그는 “<span class='quot2'>6월 6일 망종(?種) 이후에는 매실이 잘 여물어 이 때 수확한 매실은 문제가 없다</span>”고 덧붙였다. <br/>박성권 세종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시안화수소가 독성 물질이며 장기간 복용하면 중추신경 마비,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3'>매실을 1년 정도 매실청, 매실발효액 등으로 숙성과 발효과정을 거치면 독성은 사라진다</span>”고 했다.<br/>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4'>매실주를 담글 때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4'>알코올 농도가 낮을수록 아미그달린 독소가 적게 나오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5'>매실주를 담근 지 1년이 지나면 아미그달린 독소가 모두 분해되기 때문에 안전하다</span>”고 덧붙였다.<br/>매실은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등 유기산들이 풍부해 신체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 준다. 소화와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구연산의 경우 피로물질인 젖산을 배출하는 능력이 포도당보다 10배나 높다. <br/>또한 매실은 여름 식중독 예방에 특효다. 매실의 신맛과 단맛을 내는 성분인 구연산이 몸과 음식 속 살균작용을 톡톡히 해내기 때문이다. 암 예방물질의 대표격인 폴리페놀도 가득하다. 폴리페놀은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와 싸우는 항산화물질이다. 항균ㆍ소독작용이 뛰어난 카테킨도 풍부하다. <br/>이밖에 매실에는 다른 과일보다 칼륨 함량이 월등히 많다. 칼륨은 고혈압의 주범인 나트륨을 배출해 피를 맑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남은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는 “하루 한 번 식사 30분 전에 매실청을 물에 타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소화개선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25.txt

제목: [헬스 프리즘] 이른둥이 퇴원 이후 2년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줄여야  
날짜: 201606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21051657538  
본문: 최명재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신생아학회 대외협력 위원장)<br/>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1.24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이면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로 15년째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은 38.2%로 전망된다.<br/>이런 가운데 우리 미숙아 출산율은 지난 20여 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2014년)에 따르면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5.7%, 37주 미만 출생아 발생률은 6.7%였다. 출생체중 1,500g 미만 극소 저체중 출생아는 93년에 929명이었던 데 비해 2012년 3,037명으로 무려 227%가 증가했다.<br/>재태기간 37주 미만, 몸무게 2.5㎏ 이하 미숙아, 저체중아를 우리말로 ‘이른둥이’라고 한다. 임신기간 40주를 채우지 못한 이른둥이는 만삭아와 출발선이 다르다. 면역력이 약하고 신체 장기 발달이 미숙한 채 태어나, 출생 직후부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퇴원 후에도 안과 감염내과 재활의학과 등 지속적인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호흡곤란증후군 기관지폐이형성증 뇌실내출혈 괴사성장염 미숙아망막증 등 각종 질환에도 취약하다. <br/>최근 이른둥이 가정의 어려움이 알려지면서 NICU 입원 시 치료비는 전면 급여화됐다. 하지만 아직도 퇴원 후 지원은 전무하다. 그러나 퇴원 후에도 2~3년간 재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는 까닭에 이른둥이 부모의 시간과 경제 부담은 상당하다.<br/>대한신생아학회가 이른둥이 부모를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이른둥이 지원이 부족하다는 답은 84%나 됐다. 또한 이른둥이 10가정 중 6가정이 의료비 마련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지원 요청을 하거나 적금 해지, 대출 등을 했거나 고려했다고 답했다. 암이나 희귀 난치 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부담률이 5~10%까지 낮아질 수 있다. 반면 이른둥이는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질환의 비중이 제한돼 있고 관련 정보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산정특례 제도로 이른둥이 가정에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br/>심각한 의료비 부담으로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둥이 가정에 현재 42%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10%정도 경감해주면 아이 재입원과 각종 재활치료에 도움될 것이다. 만성 질환과 달리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연약하게 태어난 이른둥이도 생후 2~3년간 집중적으로 잘 돌봐주면 여느 아이들 못지않게 얼마든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특히 이른둥이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에서 올해부터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이 안건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br/>피카소, 괴테, 윈스턴 처칠도 재태기간 40주를 채우지 못한 이른둥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건강하게 자라 위인이 됐다. 저출산ㆍ고령사회를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 때, 이른둥이 생존율을 높이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정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다. 비록 작게 태어났지만 이른둥이는 결코 작지 않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26.txt

제목: [태블릿+]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백신 ‘서바릭스’  
날짜: 201606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21051627531  
본문: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에게 유방암에 이어 두 번째로 흔히 발병하는 암이다. 여성 사망 원인 3위나 된다. 다행히 자궁경부암은 예방 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암이다. 이달부터 자궁경부암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돼 12~13세 여아는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은 매년 5만4,000명 정도 진단 받는데 30세 미만 환자가 2,000명이 넘을 정도로 젊은 환자가 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2015년 자료). <br/>국가예방접종에 선정된 2개의 백신 중 하나인 GSK의 ‘서바릭스’(사진)는 암 원인의 70%를 차지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6, 18형에 대해 높은 예방효과와 면역원성의 장기간 지속성을 입증 받은 백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서바릭스는 15~25세 여성에게 3회 접종 시 HPV 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암 전암 단계에 대해 100% 예방효과를 나타냈다. HPV 유형에 관계없이 자궁경부암 전암 단계에서 93.2%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br/>또한 서바릭스는 HPV 16, 18형에 대한 면역원성이 5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최소 24년까지 면역원성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br/>서바릭스는 무료 접종 대상인 12~13세를 포함한 9~14세는 2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접종 일정에 유동성이 있어 학업으로 바쁜 여학생에게 접종 편의성을 갖췄다. <br/>보통 1차 접종 후 6개월 뒤 2차 접종이 권장되지만, 1차 접종 후 5~7개월에 2차 접종할 수 있다. 여름방학에 1차 접종하고, 겨울방학에 접종을 마쳐도 일정에 무리가 없다. <br/>특히 서바릭스를 성경험이 없는 14세 이하가 접종하면 15~25세보다 면역반응이 2배 이상 높다. 따라서 청소년기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서바릭스는 9~25세 접종을 허가 받았으며, 15~25세 여성은 3회(0, 1, 6개월) 접종으로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1~2.5개월 사이, 3차 접종을 1차 접종 후 5~12개월 사이에 접종 받을 수 있다.<br/> WHO를 비롯해 세계산부인과학회(FIGO), 미국질병관리본부(CDC) 등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유익하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약청(EMA)는 HPV 백신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EMA는 특히 자궁경부암 백신과 일부 이상반응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27.txt

제목: 성균관大 삼성창원병원, 새 본관 오픈  
날짜: 2016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17051307238  
본문: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원장 홍성화)이 16일 새 본관을 개원했다.<br/>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옛 본관 시설을 대폭 개선해 신축한 새 본관은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연면적 8만9,652㎡)로 시설부문에 1,835억원, 의료장비 등에 876억원 등 총 2,711억원이 투입됐다.<br/>삼성창원병원은 새 본관을 개원했지만 외형을 확대하지 않고 현재 744병상을 유지하면서 전체 공간을 넓고 쾌적하게 구성하는 등 내실을 기했으며, 지난 35년간 사용해 온 현재 본관은 철거한 뒤 고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 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br/>새 본관은 환자 중심적 설계에 초점을 맞춰 외래환자들이 내과, 외과, 검사실을 비롯한 다양한 진료과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기존 병원들의 진료체계를 탈피하고 센터형 외래를 선보였다.<br/>센터형 외래에서는 소화기, 심장혈관, 뇌신경, 유방센터 등 질환별 의료진들이 협동진료체계를 바탕으로 검사와 시술이 동일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진다.<br/>삼성창원병원은 새 본관 개원으로 ‘동남권역 선도병원’이라는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2000년부터 운영해 온 경남권역응급의료센터 확장 시설공사에 들어가 규모 및 인력, 장비 등을 대폭 보강, 응급치료체계의 혁신적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br/>또 지역 최초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을 통해 암 치료 인프라를 모두 갖추는 한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에서 1등급으로 선정된 위, 대장, 유방, 폐암 치료분야를 더욱 강화해 더 이상 원정진료를 떠나지 않고도 수도권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28.txt

제목: “면역치료가 암 치료의 한 분야로 자리잡아”  
날짜: 2016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17051252577  
본문: 아베 박사, 26일 도쿄 임상면역백신 포럼서 발표<br/><br/>“<span class='quot0'>수지상세포 암백신과 면역항암제를 병행하는 치료가 암 치료의 한 분야로 자리잡았습니다.</span>” <br/>일본 도쿄에서 26일 제2회 임상면역백신 포럼이 열린다. 임상면역백신 포럼은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는 면역학에 대한 연구와 임상응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치료와 지식 등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9월 처음 발족됐으며, 임상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다.<br/>이날 포럼에서는 일본의 전이ㆍ재발암 치료병원인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사진) 박사가 ‘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ABeVax) 치료와 면역항암제 PD-1의 사용법’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베종양내과는 수지상세포 암백신에 관한 의료기술로 일본특허권에 이어 올해 4월 미국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한 바 있다. <br/>아베 박사는 “<span class='quot1'>암치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 일본에서는 면역항암제 PD-1(니볼루맙)과 CTLA-4(야보이)가 후생성으로부터 치료약으로 승인 받는 등 면역치료가 암치료 분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실제 암치료 초기 단계부터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치료 등 표준치료와 함께 수지상세포 암백신과 면역항암제를 병행해 치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span>”고 했다.<br/>이 병원의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는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에 개인별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 후 개인에게 알맞은 최신 암항원을 평균 5종류씩 추가 사용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면역세포만을 배양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br/>암항원은 다양한 암세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New WT1, Her2, Survivin, PSA, CEA, NY-EOS1, GV1001, MAGE-A3, EBV BMLF1 등 14종류가 있으며, 현재 미국과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 생산 중이다.<br/>여기에 암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HSP(HEAT SHOK PROTEIN)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단백질로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손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br/>다양한 암항원 가운데 GV1001은 지난 2014년9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혈청 이오탁신농도(81.02pg/ml) 이상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게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투여하도록 신약으로 허가를 했다.<br/>한편, 제2회 임상면역백신 포럼은 아베종양내과와 공동으로 암백신을 연구 중인 한국기업 (주)선진바이오텍(대표 양동근)을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29.txt

제목: 제주 인심은 성게국에서 난다  
날짜: 2016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17050832038  
본문: ‘바다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강장식품<br/>성게미역국 등 만들기 어렵지 않아<br/>육수만 잘 끓이면 응용메뉴 여러 가지<br/>제주도에서 성게는 1년 내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데 5월 중순부터 7월 사이를 제외하면 냉동 성게라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생 성게가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껍질을 깐 성게는 색이 노랗고 진한 게 좋으며 알이 풀어지지 않고 단단하며 윤기가 있는 것을 골라야 한다. 산지에서 생 성게를 구매한 경우라면 바닷물에 보관해야 성게 알의 형태가 오래 유지되며 일반적으로 2~3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씨알이 좋은 성게 알은 길게 열흘까지도 회로 먹을 수 있으나 가급적 바로 섭취해야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다.<br/>‘바다의 호르몬’이라고 불릴 만큼 강장 식품인 성게는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이 등이 많이 함유되어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고 한다. 특히, 비타민 A가 많아 야맹증 예방과 시력 향상은 물론 피부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한, 사포닌 성분이 들어 있어 결핵이나 가래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으며 미역과 함께 국을 끓이면 산모 산후 회복 및 알코올 해독에도 도움을 준다.<br/>제주도에서는 성게 알을 넣고 미역과 함께 끓인 국을 별미로 여겨 손님에게 대접하는데, “제주도 인심은 성게국에서 난다”라는 속담도 전해지고 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맛이 달고, 날로 먹거나 국을 끓여 먹는다”고 전하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인기 있는 먹을 거리였음을 알 수 있다.<br/>제주도 성게 음식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음식은 구살국이라고도 불리는 성게 미역국과 성게 국수이다. 두 음식 모두 성게 육수를 기본으로 미역을 넣었는지 아니면, 국수를 말았는지의 차이지 거의 같은 음식이다. 제주도에서 성게 미역국을 처음 접해본 지인들이 그 맛에 반하여 매우 만들기 어려운 음식일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하다. 육수만 잘 끓이면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성게 음식이 여러 가지가 더 있다. <br/>우선 육수는 2~3인분 기준으로 물 1리터에 성게 알 100그램을 넣고 한소끔 끓인 뒤 성게를 건져내면 된다. 일반적으로 식당에서는 조개 분말을 약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 맛의 깊이는 바지락이나 모시 조개를 10~15알 정도 넣고 함께 끓여내는 것이 시원한 맛을 더해 준다. 하지만 감칠맛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은 조개 분말을 넣은 육수를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한다. 육수에는 냉동 성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동을 한 뒤 냄비에 넣게 되는데 해동하는 도중에 성게 알이 녹아 버려서 끓이고 나면 모양은 흐트러지지만 육수에는 향이 많이 배게 되고 해동을 하지 않고 끓이면 성게의 형태는 유지가 되지만 맛이나 향은 아무래도 부족하다. <br/>육수가 완성되면 건져낸 성게 알에 가시가 남아 있는지 손가락으로 세심하게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 물에 불린 미역을 참기름에 살짝 볶은 뒤 육수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성게 미역국이 되고 국수를 삶아 당근, 실파, 김 가루, 삶은 성게 알을 고명으로 올려 육수에 말아 먹으면 성게 국수가 된다. 일부 식당에서는 육수에 홍합이나 다른 해산물을 넣어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다른 해산물과 섞이면 성게 고유의 향을 잃게 되어 피하는 것이 좋다.<br/><br/>초 여름에는 성게 비빔밥과 성게 솥밥도 별미다. 맛깔스러운 해초에 당근, 양상추, 오이를 채로 썰어 신선한 성게 알을 넣은 뒤 부추나 달래를 넣은 간장 양념장에 김 가루와 따뜻한 밥을 쓱싹쓱싹 비벼 먹으면 입안에는 고소한 바다 향기가 가득하게 되며, 솥밥이 뜸이 들기 시작할 때 성게 알을 넣어 밥을 지으면 구수한 성게 솥밥이 된다. 솥밥 역시 봄에는 달래 양념장에 비벼 먹고 달래가 없는 계절에는 부추로 양념장을 만들어 비벼먹으면 부드럽고 개운한 성게의 진미를 느낄 수 있게 된다.<br/><br/>우도 성게를 고집하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제주의 명물인 해물 뚝배기 위에 신선한 성게 알을 듬뿍 넣어 섞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단연 인기 메뉴로 찾는 손님들이 많다. 한식이 아니라도 오래 전부터 생크림에 성게 알을 넣어 크림 소스를 만든 뒤 스파게티 면을 섞어 끓여 만든 우니 크림 파스타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요즈음에는 로제 파스타에 신선한 성게를 올려 짜장면처럼 비벼먹는 파스타도 새롭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br/>제주도 음식은 요리법이 간단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양념을 한꺼번에 섞어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양념이 귀하기도 했지만 바다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해산물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재료 자체의 풍미로 인해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만 볼 수 있는 소중한 식재료를 얻기 위해 수 십 번을 바닷물 속으로 들여가야 하고 손에 찔려가며 성게 알을 발려내야 하는 고통도 감수해야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거센 바닷속에서 밥상에 오른 성게 음식을 통해 제주도의 생활상과 문화를 다시 되새기게 된다.<br/>이재천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총주방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30.txt

제목: “공유 개념, 기존 기업에 적용 가능… 자본주의와 공생 모색해야”  
날짜: 2016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16051700207  
본문: 공유경제 연구ㆍ컨설팅하는 사회적 기업 ‘셰어엔엘’<br/>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공유도시 선언은 사회적 기업 셰어엔엘(ShareNL)이 2014년 제시한 ‘공유도시 비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학에서 지속 가능성 개발 연구를 하던 피터 반 드 글린드(28)와 혁신 컨설턴트였던 하먼 반 스프랭(42)이 의기투합해 2013년 만든 셰어엔엘은 공유경제 확산을 목표로 관련 연구와 컨설팅을 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암스테르담이 다양한 공유경제 실험이 일어나는 놀이터 또는 실험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업과 대학, 정책 입안자 등 공유경제 이해 관계자들을 연결해 주는 일도 하고 있다.<br/>10일 암스테르담 현지에서 만난 이들은 “큰 기업을 매개로 하지 않는 개인 간 직거래가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는 현상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br/>글린드는 “에어비앤비와 우버 등 숙박과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기존 산업군을 중심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성격이 개인 간 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를 ‘모바일 자본주의’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호스트(주택 대여자)와 게스트(투숙객)에게 모두 만족감을 주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이야기다. <br/>스프랭도 “공유경제는 에어비앤비와 우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현상”이라고 말을 보탰다. 그는 “전문가 집단에서 협력경제(Collaborative Economy)로도 불리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특정 서비스나 제품의 소유주와 수요자를 매칭해 주는 형태만 띤다면 새로운 창업기업뿐 아니라 기존 기업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br/>따라서 이들은 공유경제에 많은 기회와 도전이 공존한다고 믿는다. 암스테르담이 공유도시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이 확실하다. “<span class='quot0'>공유경제는 암스테르담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고 시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한편 지금보다 더 많은 혁신 창업기업의 등장을 이끌 것</span>”이라는 게 스프랭의 설명이다. 그는 “<span class='quot0'>기본적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 우리에게 중요한 조사 연구를 의뢰하는 등 공유경제에 열려 있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은 이미 헬스케어, 차량 공유, 식음료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창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br/>결국 공유경제를 둘러싼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를 막연히 금지하기보다 공정한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스프랭은 “온라인 음악과 영화 시장의 성장에서 보듯 대중은 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편의 서비스에 금세 익숙해진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공유경제를 무조건 금지해 불법적인 개인 간 거래를 부추기기보다 자본주의와 공유경제가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br/><br/>암스테르담(네덜란드)=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31.txt

제목: “공룡은 우주 암흑 물질 때문에 멸종됐다”  
날짜: 2016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16051201311  
본문: “이론물리학자의 역할은 우리가 무엇을 찾아볼 지 알려주는 겁니다. 공룡의 멸종에 암흑물질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그래서 우리 우주의 ‘놀라운 내적 연결성(Astonishing Interconnectedness)’을 상상해보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br/>공룡 멸종에 대해 새로운 가설을 주장해 주목 받는 리사 랜들(54)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14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포스코LG경영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랜들 교수는 이론물리학과 우주론의 최전선에 있는 학자로 노벨물리학상에 가장 근접한 이라고 평가 받는다. 학회 참석 차 한국을 찾은 김에 대중강연회를 열었다.<br/>6,600만년 전. 지구의 지배자 공룡은 일거에 사라졌다. 공룡만 없어진 게 아니다. 생물종의 75%가 멸종했다. 왜 그랬을까. 지질학자들은 공룡 발굴 과정에서 이 시기 지층에서 비정상적으로 풍부한 이리듐을 발견했다. 외계의 강력한 충격 같은 것을 암시하는 자료라 받아들였다. 공룡 멸종의 틈을 비집고 번성한 포유류보다 더 크게 번성한 건 거대 운석 충돌설 같은 갖가지 추론들이었다. 랜들 교수는 여기에 하나의 가설을 더했다. ‘암흑물질로 인한 혜성충돌설’이다. ‘암흑물질과 공룡’(사이언스북스)을 통해서다.<br/>암흑물질과 공룡을 잇는 키워드는 ‘내적 연결성’이다. 우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주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건 없다. 우주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연구하는 영역은 원자로 구성된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암흑물질(26%)과 암흑에너지(69%)가 차지하고 있어서다. ‘암흑’이란 이름 자체가 모르겠다는 뜻이다. 랜들 교수는 “<span class='quot0'>진화론의 교훈이 우리가 이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는 깨달음이라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가르쳐 주는 건 우리가 사는 보통물질의 세계 또한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span>”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모르는 암흑물질이 모종의 작용을 하지 않느냐는 게 랜들의 아이디어다.<br/>구체적으로 주기가 200년 이상 넘어가는 장주기 혜성의 존재를 들었다. 태양계의 외곽 중에서도 가장 먼 외곽에 존재하기에 조그만 충격에도 저 멀리 날아가거나, 태양계 안으로 훅 빨려 들어오는 소행성들이 있다.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 혜성이다. 우리 은하계도 공전을 하는데, 이 출렁이듯 움직이는 공전 궤도상에서 태양계가 암흑물질의 비중이 높은 곳을 통과하는 순간 중력 변화가 발생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장주기 혜성이 지구에 낙하, 충돌한다는 가설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3,000만~3,500만년 정도의 주기였고, 5억5,000만년에 이르는 지구 생물의 역사에서 존재했던 5번의 대멸종 시기와 묘하게도 겹쳤다.<br/>랜들 교수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암흑물질간 존재하는 ‘암흑전자기력’의 존재를 가정한다. 일반인들에게 ‘공룡’이라는 어필한다면 이론가들에겐 중력 밖에 가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진 암흑물질에게서, 그들끼리만 작용하는 암흑전자기력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느냐가 관심을 끈다. 사실 이 주장은 검증이 어렵다. 암흑물질은 중력만 있을 뿐 측정, 관찰이 어렵다. 해서 미세한 중력의 움직임을 측정해 간접적으로 관측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br/>랜들 교수는 “<span class='quot0'>예전과 달리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실험과 입증에 당연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확증되지 않은 이론이긴 하지만 내가 탐색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 알아보기 위한 시도이자,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고민 끝에 써낸 책</span>”이라고 말했다. 책의 백미도 이 추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물리학, 천문학, 지질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해나가는 긴 탐색 과정이다. 랜들 교수는 “<span class='quot0'>물리학이 쉽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어려운 만큼 재미와 성취감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축구에 관심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축구 얘기를 원하듯 과학계에 관심 많은 이들에게 과학계의 최근 동향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픈 뜻도 컸다</span>”고 덧붙였다.<br/>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32.txt

제목: “암, 당뇨에 특효”… 일반음료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 등친 ‘떴다방’  
날짜: 201606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16050928619  
본문: 한약재가 섞인 일반 음료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어치를 팔아 치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br/>서울 금천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혼합 음료를 ‘암, 당뇨, 혈압 등에 좋다’며 허위ㆍ과장광고해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br/>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올해 4~5월 서울 가산동의 한 아파트 지하상가에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을 설치하고 한약재가 섞인 ‘용삼천하’를 8,300여만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한 상자에 30만원을 주고 산 제품을 노인 72명에게 상자 당 73만원을 받고 팔아 이익을 챙겼다. <br/>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라면, 화장지 등 미끼 상품을 나눠주면서 노인들을 끌어 모아 해당 음료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만병통치약이라고 홍보하는 제품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span>”고 주의를 당부했다.<br/>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br/><br/>/그림 1이씨 일당이 차린 홍보관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있는 노인들.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33.txt

제목: BMI 수치가 뭐길래…애먼 사람을 뚱보로 만든다  
날짜: 201606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14051126805  
본문: 165cmㆍ65kg 男도 ‘비만’…과체중ㆍ비만 기준 현실괴리<br/> <br/># “비만이라고?” 1년 전 88㎏였던 몸무게를 65㎏으로 줄인 직장인 K(45)씨는 최근 비만 여부를 판정하는 체질량지수(BMIㆍBody Mass Index)’를 계산하다 화들짝 놀랐다. 체중을 23㎏이나 감량했지만 BMI로는 비만이었기 때문이다. BMI는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도를 재는 지수다. 165㎝인 K씨의 BMI는 25로 비만에 해당한다. 이에 K씨는 최종 체중감량 목표를 60㎏로 재설정했다. “BMI가 뭐라고. 이러다 사람 잡겠네. 과체중이라고 살을 더 뺀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내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K씨는 지금도 다이어트 중이다. <br/> 비만 기준의 영원한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로 여겨진 BMI가 흔들리고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우리 국민 체형이 급속히 서구화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해 뚱뚱하지 않은 과체중ㆍ비만자를 양산하고 있다.<br/>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육군 간부 BMI조사다. 계명ㆍ대구대 간호대학 연구팀이 육군 간부 1,026명의 BMI를 분석한 결과, 34.9%가 비만, 25.9%가 과체중이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0'>군인들의 비만 여부를 BMI 잣대만 가지고 판정 내린 것 자체가 무리</span>”라고 지적한다. BMI는 비만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의 하나일 뿐 절대적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0'>현재 BMI 23부터 과체중으로 돼 있는데 현실적 적당하지 않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세계 비만기준으로 조사했으면 결과가 달리 나타났을 것</span>”이라고 했다. 유순집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대한비만학회 이사장)는 “<span class='quot1'>BMI만으로 비만 여부를 가리려는 사회풍토가 문제</span>”라면서 “<span class='quot1'>BMI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비만 관련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박수경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BMI가 높으면 당뇨병, 고혈압 등 대사질환과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 지표이기 때문에 맹신해서는 곤란하다</span>”고 했다. 조정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BMI는 체지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체지방의 체내분포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span>”고 말했다.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비만여부를 판정하는 ‘겉보기 비만지수’이라는 것이다.<br/><br/>비만기준, 체형변화 따라가지 못해<br/> 전문의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비만기준보다 엄격한 국내 비만지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비만기준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만기준을 채택했는데 이에 따르면 BMI 25부터 비만이다. 세계 비만기준으로는 BMI 30이 비만이다. 과체중 기준도 야박하다. 과체중은 세계 비만기준으로는 BMI 25~29.9이지만 우리는 BMI 23~24.9다.<br/>[세계보건기구 BMI 기준]<br/><br/>[아시아태평양지역 BMI 기준]<br/><br/>우리가 아ㆍ태 비만기준을 채택한 것은 동ㆍ서양의 체형 차이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서양인과 달리 동양인은 체중이 급증하면 당뇨병 등 대사질환과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비만지수를 엄격히 적용한 아ㆍ태 비만지수를 따랐다. 여기에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육류 섭취가 적어 고기를 더 많이 먹게 되면 과잉지방에 취약해 비만기준을 BMI 25로 정했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1998년 당시 국내에서 BMI 25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 아ㆍ태 비만기준을 채택한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4'>하지만 우리도 미국처럼 BMI 25 인구가 정체되고, BMI 30 이상 비만인구가 급증해 비만지수를 개선할 다각적 연구가 필요하다</span>”고 했다.<br/> BMI에 의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판정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여성은 다이어트를, 남성은 운동에 매달린다. 복부지방 내장지방 콜레스테롤 등 비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등한시하고 살 빼는 데만 온 힘을 기울인다. ‘BMI 패러독스’인 셈이다. 박 교수는 “이마저 잘못된 상식”이라면서 “<span class='quot5'>피하지방이 많은 여성이 운동해야 하고, 내장지방이 많은 남성은 식단을 조절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BMI 조정하면 비만치료 비용 절감 <br/>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BMI는 비만기준이 아닌 그저 살 빼는 기준으로 변질됐다. BMI를 상향 조정하면 지방흡입술 등 비만 치료시장이 침체될 수 있어 BMI 조정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3'>BMI를 국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사망률과 발병 위험도 낮은 BMI 25~27 그룹이 불필요하게 갖는 체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3'>대중이 몸무게에 대한 집착과 비만치료비도 줄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3'>관상동맥질환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경우 BMI 25~27은 사망률이 낮고, 오히려 저체중군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3'>2014년 일본검진학회에서 남성은 27.7, 여성은 26.1 이상을 비만으로 제시한 것처럼 비만지수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span>”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5'>BMI 30 이상 고도비만도 뿐만 아니라 18.5 미만인 저체중도 문제</span>”라면서 “<span class='quot5'>마르면 건강하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span>”고 했다.<br/> 비만의 병리 메커니즘이 달라져 비만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 교수는 “<span class='quot4'>10~30대는 40대 이상과 달리 어려서부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 지방세포를 저장하고 늘리는 능력이 좋아 현 비만기준으로 과체중, 비만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span>”이라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4'>비만기준을 바꾸는 데는 공감하지만 사망률 등 통계적 접근만으로 이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4'>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접근이 필요하다</span>”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span class='quot6'>BMI 24라 해도 근육보다 지방이 많으면 건강에 문제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6'>무조건 살 빼려 하지 말고 영양 근육 허리둘레 중성지방 등 비만과 관련된 요인을 점검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34.txt

제목: [헬스 프리즘]고도비만수술, 어떻게 볼 것인가?  
날짜: 2016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14051122718  
본문: 박도중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br/>마른 몸매를 갖고 싶어하는 게 현대인의 열망이다. 현재 기준으로 마르고 멋진 몸매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식이요법, 운동요법부터 시작해 각종 살 빼는 약과 한방요법, 다이어트 식품을 찾기도 하고 지방흡입수술을 하기도 한다.<br/>필자 생각으로는 고도비만수술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즉,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고도비만수술은 마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최후에 선택하는 값비싼 미용수술 정도인 것이다. 대단히 잘못된 오해이자 편견이다.<br/>고도비만수술은 말 그대로 고도비만환자에게 시행하는 수술이다. 고도비만수술은 인체 외면에 가하는 지방흡입 같은 수술이 아니라, 위나 장을 이용해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거나 영양소 흡수를 줄이는 수술이다.<br/>대표적인 고도비만수술로는 위밴드술,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이 있다. 아시아인의 고도비만수술 기준은 체질량지수(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5㎏/m2 이상이거나, 체질량지수 30㎏/m2 이상이면서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다. 물론 체질량지수 하나만으로 환자 건강상태를 판단하여 수술기준을 정한다는 것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br/>근육량이 굉장히 많은 보디빌더의 경우 체중과 체질량지수만으로는 고도비만환자로 분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질량지수는 비만정도를 잘 반영하고 측정이 쉬워 비만과 고도비만수술 기준으로 널리 쓰인다.<br/>쉽게 말해 고도비만수술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거나 시달리고 있는 고도비만환자를 ‘치료’하는 수술이다. 좀더 마르고, 예뻐지기 위한 ‘미용’ 수술이 결코 아니다. ‘체중을 줄이려고 위절제수술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위암환자가 위를 잘라내는 것에 반문하지는 않는다. 위암은 위를 잘라내지 않으면 몇 개월, 몇 년 안에 암이 온 몸으로 퍼져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암처럼 과격하고 급진적이지 않지만 고도비만은 서서히 우리 몸을 침식해 각종 질환을 일으키고 사망률을 높인다. <br/>고도비만수술은 체중감소와 동반질환 개선에 효과적이다. 더구나 이런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물론 고도비만이라도 생활습관 개선, 운동, 약물요법과 같은 비수술 요법으로도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효과가 없고 체중이 더 늘거나 당뇨병과 같은 동반질환이 더 악화되면 고도비만수술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br/>최근 한 유명가수의 죽음으로 고도비만수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고도비만수술이 대부분 복강경수술로 시행되고 합병증도 낮아 제대로 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수술하면 건강과 삶의 질이 좋아지는 긍정적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br/>고도비만수술은 2018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다. 그 때까지 고도비만과 수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교육과 홍보가 시급하다. 고도비만환자가 당연히 자신의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게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35.txt

제목: [건강 소식]  
날짜: 2016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14051120769  
본문: 복지용구 전문 사이트 개설<br/>집에서 쓰는 복지용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복지용구 전문 사이트가 개설됐다. 한겨레실버서비스(대표 안영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인 (A+)한겨레실버 복지용구센터의 웹사이트(http://hanisilver.co.kr)를 열었다. 17종별로 전동침대 7개 품목, 수동휠체어 16개 품목, 목욕의자 11개 품목, 성인용보행기 21개 품목, 지팡이 19개 품목 등 모두 215개 품목의 제품특성을 설명해 놓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요양 시 이용할 수 있게 허용된 복지용구는 전동침대 등 대여품목 8종, 목욕의자 등 구입품목 9종 등 모두 17종이 있다.<br/><br/>강남세브란스병원, 폐암 강좌<br/>강남세브란스병원은 16일 오후 2시 병원 3층 대강당에서 폐암 건강강좌를 연다. 폐암 치료의 현재와 미래, 폐암 검진, 수술ㆍ수술 후 관리,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대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02)2019-2470, 2350<br/>한독테바,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br/>한독테바는 지속형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롱퀵스 프리필드주’(성분명 리페그필그라스팀ㆍ사진)를 내놨다. 호중구는 세균이나 박테리아 침입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다. 롱퀵스는 세포 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발생과 중증 호중구감소증 발현기간을 줄이는 치료제다.<br/>자생바이오, 어린이홍삼 출시<br/>자생한방병원 관계사 자생바이오는 국산 6년근 홍삼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자생비책 어린이홍삼’(사진)을 출시했다. 강원인삼농협에서 생산하는 6년근 홍삼과 영지농축액, 가시오가피농축액 등 17가지 전통원료추출물을 혼합한 제품이다. 또한 대표 홍삼 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Rb1, Rg3의 합)’의 제품 함량은 3㎎(1포 기준, 20㎖)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분 함량을 충족했다. <br/><br/>아주대병원, 잇몸병 건강강좌<br/>아주대병원은 29일 오후 3시 본관 지하1층 아주홀에서 ‘당신의 잇몸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성인 10명 중 7명이 앓고 있는 잇몸병과 바른 칫솔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잇몸병과 관련한 궁금증을 지숙 치과병원 치주과 교수의 설명으로 풀 수 있다.<br/>폐암학회, 파란풍선 마라톤걷기대회<br/>대한폐암학회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폐암환자와 가족과 함께 ‘폐암 환우와 함께하는 파란풍선 마라톤걷기대회’를 연다. 행사 이름 속 파란색은 환우에게 푸른 희망을, 풍선은 맑은 공기 가득한 건강한 폐를 상징하는 의미로 파란풍선이란 말을 선정했다. <br/><br/>‘트리플UP!UP!UP!’ 캠페인 전개<br/>세노비스가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 ‘트리플?UP! UP! UP!’ 캠페인을 편다. 이번 캠페인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11가지 비타민과 6가지 미네랄, 오메가-3(EPA/DHA)까지 필수 영양소를 한 캡슐에 제대로 담은 ‘트리플러스’를 통해 현대인의 비타민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36.txt

제목: [헬스 프리즘] 술ㆍ담배는 구강암의 적(敵)  
날짜: 2016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14051119613  
본문: 진세식 유디강남치과의원 대표원장<br/>남성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이를 해소하려고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간암 위암 폐암 등을 유발하는 흡연과 음주는 구강에도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br/>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구강암 환자의 성별 비율이 남성이 1만2,470명, 여성 5,590명으로 남성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치과 전문의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해 혀 입술 입천장 턱뼈 등 입 안 곳곳에 세균 번식으로 인한 구강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br/>구강암은 흡연, 음주, 바이러스, 잘못된 식습관, 영양결핍 등으로 인해 혀, 입술, 잇몸, 입천장, 턱뼈 등에 악성 종양이 생긴 것이다. 구강암은 잇몸과 편도선에 생기는 편평상피암이 가장 흔하다. 구강 점막의 작은 침샘에서 생기는 타액선암, 턱뼈나 암면부 근육에 발생하는 육종, 입천장, 볼점막에 검은 반점을 형성하는 악성흑색종이 있다.<br/>구강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평상피암은 초기 암이라면 증상이 없다. 하지만 암이 악화되면 쑤시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 단순한 치통으로 여기기 쉽다. 또한 입안이 헌 상태가 3주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혀나 입안에 혹이 만져진다면 단순 치통이 아닐 수 있다.<br/>구강암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입 안을 마취해 면봉 같은 브러시로 의심 부위를 조직을 채취한 뒤 검사하면 된다. 초기 암은 수술이 일반적이다. 암이 진행됐다면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구강암 크기에 따라 혀를 절제하는 수술이 있다. <br/>입천장에 구강암이 생겼다면 아래턱뼈, 위턱뼈와 주변 잇몸조직을 함께 잘라내는 하악골 절제술과 상악골 절제술을 시행한다. 절제 범위가 커 얼굴 변형이 심하다면 이식 수술을 함께 하는 재건술을 진행해야 한다.<br/>구강암을 예방하려면 구강위생을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구강암 유발의 주 원인이어서 되도록 삼가야 한다. 맵거나 짠 음식도 절제해야 한다. 궤양이 생기고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치과병원을 찾아 검진하는 게 좋다. <br/>구강암은 40세 이상에서 잘 발생하고, 발병 후 5년 내 사망률이 44%나 된다. 하지만 간단한 검진 만으로 통증 없이 간편히 구강암 검진을 받을 수 있기에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암세포로 악화하기 전 단계의 이상 세포도 조기 진단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적으로 치아가 고르지 못하면 조기 검진이 권장된다.<br/>입 안이 자주 헐거나 흡연과 음주를 잦으면 구강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구강암은 초기 발견이 가능하므로 입 안이 헐거나 통증이 있다면 근처 병원을 방문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37.txt

제목: 건강한 젊은이도 근육량 적으면 관상동맥질환↑…최대 2.3배  
날짜: 2016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14051120344  
본문: 건강한 젊은이도 근육량이 적으면 관상동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고병준, 장유수, 유승호 강북삼성병원 코호트연구소 교수팀은 암, 심장질환, 당뇨병이 없는 성인 남녀 3만1,000명(평균 41.3세)을 대상으로 근육량을 몸무게로 나눈 상대적 근육 양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관상동맥석회화 수치를 비교했다.<br/>그 결과,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가장 적은 군은 가장 많은 군보다 관상동맥 석회 수치가 2.27배 높았다. 근육량이 적을수록 조기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증가한 셈이다.<br/>관상동맥 석회 수치는 혈관에 칼슘이 쌓여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컴퓨터단층촬영(CT)을 이용해 수치화한 것이다. 향후 관상동맥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br/>근육량이 적으면 인슐린이 많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난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당뇨병과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br/>반대로 신체활동이 늘면서 근육량이 증가하면 장기와 조직을 비롯해 근육에도 포도당이 전달되면서 인슐린 기능이 향상되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낮추게 된다.<br/>연구팀은 인슐린 저항성과 신체활동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관상동맥 석회화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br/>따라서 인슐린 저항성과 신체활동이 아닌 제3의 원인이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근육에서 생성되는 사이토카인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br/>근육량이 적으면 각종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낙상, 골절, 사망률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 체력에 맞는 근력운동에 대해 의사와 상의 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br/>고 교수는 “<span class='quot0'>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되지만 20대는 공부와 취업준비로 30~40대는 장시간 근무로 운동 등 좋은 생활습관을 실천할 시간이 부족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젊을 때는 운동한 만큼 근육량이 늘어나므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여러 질병을 가장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기</span>”라고 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심장협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동맥경화, 혈전증과 혈관생물학'(Arteriosclerosis, Thrombosis, and Vascular Biology) 최근호에 실렸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38.txt

제목: “B형과 AB형 혈액형은 위암 덜 걸린다”  
날짜: 201606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14051117956  
본문: B형과 AB형 혈액형인 사람은 다른 혈액형인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군 제균을 해도 위암 발생률이 가장 낮았다.<br/>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2006년 2월~2014년 5월 소화기센터에서 비분문부(non-cardia)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 997명과 대조군 1,147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비분문부 위암은 식도와 위가 접한 주머니 모양(분문)을 제외한 위의 나머지 부분에 생긴 암이다.<br/>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헬리코박터'(Helicobacter) 최근호에 실렸다.<br/>연구팀은 위암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 헬리코박터 제균력, ABO혈액형, 성별, 나이, 위암 가족력, 식생활 등 14가지 요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 ABO식 혈액형 중 B형 유전자가 들어 있는 B형과 AB형 환자군은 다른 혈액형 환자보다 위암에 걸리는 확률이 낮다는 점을 발견했다. <br/>ABO식 혈액형은 두 가지 유전자 조합으로 분류되는데 B형 유전자가 2개인 B형(BB)은 다른 혈액형보다 46%, B형 유전자가 1개인 B형(BO)형과 AB(AB)형은 27% 위암 발생 위험이 낮았다.<br/>특히 B형(BB)에서는 암세포가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군데군데 퍼지면서 생기는 '미만형 위암'의 발생률이 다른 혈액형보다 61%까지 줄었다.<br/>또 위암 발생률은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감염됐다고 알려진 헬리코박터균 유무에서도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환자 중 균을 없애는 제균 치료를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65%가량 위암 발생 확률이 낮았다.<br/>특히 발견과 치료가 까다로운 미만형 위암 환자군에서 위암 발생률이 80%나 줄어드는 등 효과가 뛰어났다.<br/>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를 권하고 있다.<br/>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혈액형과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여부에 따른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 차이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위암 발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39.txt

제목: 유해성 논란‘트리클로산’, 치약ㆍ가글액에 사용 금지  
날짜: 201606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10052542473  
본문: 구강용품에 들어가는 성분의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트리클로산 성분은 치약이나 가글액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트리클로산이 들어간 기존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화장품 등 다른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시중에 나와있는 제품 중 트리클로산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0.3%(100g당 0.3g)인데 위해성은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외국에서도 치약의 경우 0.3%(100g당 0.3g), 가글액의 경우 0.2%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만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구강용품에서는 아예 배제시키기로 했다</span>”고 설명했다. 현재 판매 중인 치약 가운데 트리클로산이 들어간 제품은 4개, 가글액은 1개다. <br/> 항균제인 트리클로산은 치주 질환 예방, 입 냄새 제거를 위한 구강용품과 여드름 치료제 등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트리클로산 사용 제한을 공표하고 미국에서도 해당 성분이 간 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유해성 논란이 일었다. <br/> 이 밖에도 개정안은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또 다른 물질인 파라벤 함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가글액과 구강청결용 물 휴지에 메틸, 프로필 파라벤, 에틸, 부틸 등 네 종류의 파라벤 성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치약과 마찬가지로 메틸과 프로필 파라벤 두 종류만 사용이 가능해진다. <br/>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40.txt

제목: 담담하게 때론 적나라하게 癌을 찍다  
날짜: 201606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09051944162  
본문: 한국인이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사망 전 암에 걸릴 확률은 37%다. 세 명 중 한 명은 죽기 전 암에 걸린다는 얘기다. 게다가 연간 암 발병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노상익(53)의 사진은 이런 비극적인 지표 위에서 탄생했다.<br/>일우스페이스는 지난해 제6회 일우사진상 ‘올해의 주목할 작가’ 출판 부문에 선정된 노상익 작가의 수상을 기념해 그 동안 선보인 작업을 총망라하는 ‘암의 연대기’ 전시를 열고 있다. 사진작가이기 전에 외과의사인 그는 2008년부터 암을 주제로 한 시리즈를 발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br/>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 수없이 많은 암을 접했기에 작가는 오히려 연민이나 동정 혹은 공포 같은 감정을 배제한 시선으로 암을 담았다. 암을 매개로 만난 환자들을 극도의 슬픔에 빠지거나 처절하게 고통 받는 모습으로 그리기보다 그들의 일상과 치료 과정 중에 촬영한 엑스레이 필름, 병명과 증상 그리고 치료 과정이 빼곡히 적힌 차트 등으로 표현했다. 의학용어로 가득한 노트부터 중환자실의 간호 일지, 주사 바늘과 약 봉투 등 암 환자들에게 익숙할 일상용품들부터 수술실 내부의 모습과 수술 장면 등 그가 외과의사가 아니었다면 접근하지 못했을 풍경까지 충실히 기록했다.<br/>서혜임 큐레이터는 “<span class='quot0'>(노상익 작가는)환자들에게 일회용 카메라를 주고 다음 진료 때까지 일상을 기록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하고 환자들과 소통한 것들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한다</span>”며 병원 내부 구성원인 그가 사진으로, 글로 얼마나 치열하게 암을 기록해왔는지 설명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프랑소와 에벨 볼로냐 사진비엔날레 디렉터도 작품에 대해 “<span class='quot1'>매우 독창적이며 의미 있는 사진을 텍스트와 섞어 새로운 사진 작품을 만들어냈다</span>”고 평했다.<br/>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암을 담아내 오히려 공포감을 주는 그의 작품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암 극복이라는 희망을 지향한다. 말기 암 환자들의 표적 치료를 위해 단백질과 RNA에 대한 실험을 반복하지만 작가는 아직 단 한 번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는 실패한 실험 결과에서 성공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실패한 부분은 원하는 대로 조작해 만든 작품 ‘실패했을 때 대처법’을 전시 말미에 배치했다. “<span class='quot2'>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보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관람객이 받아들이는 것 간의 온도 차가 있을 것</span>”이라는 큐레이터는 “<span class='quot2'>그렇지만 ‘암은 언젠가 극복될 것’이라는 작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span>”고 덧붙였다. 수술 장면 등이 불편할 수 있어 13세부터 관람 가능하며 7월 6일까지 열린다.<br/>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41.txt

제목: 납 범벅 우레탄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  
날짜: 201606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07051506006  
본문: ?<br/>학교 우레탄 트랙 절반은 납 함량 기준치 초과할 듯<br/>인조잔디 이어 학교 운동장 유해성 우려 현실로 <br/>안전 관리기준 도외시 사업 밀어부친 정부에 비난<br/>“<span class='quot0'>위험 학교 거쳐간 학생들 건강 추적조사해야</span>”<br/><br/><br/>?“아이들이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고 교실에 들어오면 옷에 잔디 파일(잎) 부스러기와 (충전재로 쓰이는) 고무알갱이에서 나온 까만 가루가 잔뜩 묻어있다.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집중 검출되는 부분이 파일과 충전재라는데 아이들 건강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저학년 아이들은 잔디 바닥에 앉거나 뒹굴면서 고무알갱이를 만지는 일이 잦다. 그 손으로 간식을 먹으면 고무가루가 어디로 가겠나. 심지어 고무알갱이를 입에 넣는 아이들도 있다.”(서울 A초교 교사)<br/>“한달 전쯤 학교에서 교내 방송으로 우레탄 트랙 검사 결과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으니 트랙과 신체 접촉을 피하라고 했고 ‘트랙을 걷지 말라’는 안내판도 설치했다. 하지만 차단선을 치거나 깔개를 덮어놓은 것은 아니라서 평소와 달라진 건 특별히 없다. 물론 찜찜한 마음에 트랙 바깥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아무렇지 않게 우레탄을 밟는다.”(서울 B중 학생)<br/>학교 운동장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인조잔디에 이어 우레탄 트랙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속속 검출되고 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은 납을 비롯한 중금속,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 두뇌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에 노출된다. 정부가 생활체육시설 확대 목표를 앞세워 10년 이상 적절한 안전기준 없이 학교 운동장 개조에 매달리다 빚은 결과다. <br/><br/>유해 우레탄 트랙 1,400개교에 이를 듯<br/>각 시ㆍ도 교육청이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초ㆍ중ㆍ고교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 중간 결과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학교 우레탄 트랙의 30% 정도가 깔린 수도권 학교 중 200여개교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90㎎/㎏)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서울에서 조사를 마친 143개교 중 51개교(35.7%), 경기 236개교 중 148개교(62.7%), 인천 42개교 중 29개교(69.0%)가 이에 해당한다. 강원은 40개 조사 학교 중 26개교(65.0%), 광주는 44개교 중 40개교(90.9%)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대전과 세종에서도 납 초과 검출 학교가 각각 15개교, 2개교가 나왔다. 교육부는 17개 시ㆍ도 전체 우레탄 트랙(2,811개)의 절반인 1,400개가량이 납 기준치 초과로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납이 검출된 C초등학교 학부모는 “아들에게 우레탄 트랙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매일 아침 신신당부를 하지만 한참 뛰어 놀 나이에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 속이 상하다”고 불만을 표했다.<br/>이번 전수조사는 3월 발표된 환경부의 학교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실태 조사(2015년 5~12월) 결과 수도권 초등학교 25곳 중 13곳의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우레탄 트랙은 전국 학교 네 곳 중 한 곳 꼴(24.1%)로, 인조잔디(16.0%)보다 더 많이 설치돼 있다. <br/><br/>인조잔디 이어 학생 건강 불안 증폭<br/>앞서 2014년 전국 1,037개교 인조잔디 운동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해성 검사에선 174개교(16.8%)에서 납, 카드뮴, 크롬, PAHs 중 하나 이상이 초과 검출돼 충격을 줬다. 이마저도 KS 기준이 제정된 2010년 11월 이전 조성분만 조사한 것으로, 인조잔디 전체(1,870곳)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다. 정부는 이후 조성된 인조잔디는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2013년 표본조사에서 납과 PAHs가 초과 검출됐다. 우레탄 트랙의 경우 환경부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13곳 가운데 5곳이 KS 기준이 제정된 2011년 4월 이후 조성된 것이다. <br/>KS 기준마저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경기 D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재작년 인조잔디 검사에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고 발암물질인 크롬도 기준치에 가깝게 나왔는데 학교에서 이를 알리지 않아 한참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기준치 이하라도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내내 몸에 축적되는 만큼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당장 걷어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수민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은 “<span class='quot1'>교육부가 고시한 인조잔디 내구연한 7년이 이미 지났거나 올해 도래하는 학교가 677곳에 이를 정도로 학생들이 위험 물질에 오래 노출돼온 상황이라 추적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 이상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안전은 뒷전, 전시행정 매달린 정부<br/>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진 데엔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2006~2010년ㆍ443개교 목표),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추진계획(2009~2012년ㆍ1,000개교)을 추진하면서도 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유해성 논란을 외면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유해성 검사에 착수한 것은 2013년으로, 대대적인 운동장 조성 사업이 일단락된 이후였다.<br/>학교 운동장 공사에 유해 자재가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품질 기준은 늑장 제정됐다. 정부는 2007년 학교 인조잔디 충전재(고무분말) 검사에서 납ㆍPAHs 기준치 초과 문제를 다수 발견하고도 3년이 지난 2010년 11월에야 학교 인조잔디에 대한 품질 기준(KS M 3888-1)을 제정했다. 유해물질이 집중 함유된 잔디 파일 규제 사항이 이 기준에 포함된 것은 그로부터 또 3년 뒤였다. 학교 우레탄 트랙의 품질 기준(KS F 3888-2)은 인조잔디보다 늦은 2011년 4월 만들어졌다.<br/>품질 기준의 허점은 여전하다. 시공 전 업체가 제출하는 주(主)자재에 대해서만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우레탄 트랙을 빨리 굳히는 경화제, 인조잔디 파일의 초록색을 선명하게 하는 안료 등 유해성 위험이 높은 부수적 자재는 통제하기 어렵다. 완공 후 유해성 관리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인조잔디 충전재 보충 과정에서 시공 때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고무알갱이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span class='quot2'>학교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도 감리 대상에 포함시켜 시공 과정에서 안전한 자재가 사용되는지 감독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br/>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42.txt

제목: 납 축적된 학생에 ADHDㆍ운동능력 저하 나타나  
날짜: 201606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07051504773  
본문: 우레탄 트랙에 독성 물질 함유<br/>분진 형태로 날리며 체내 유입<br/>“<span class='quot0'>장시간 노출 땐 뇌기능 떨어져</span>”<br/><br/><br/>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함유된 납 성분은 호흡기나 입을 통해 체내로 유입돼 신경계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다. 우레탄 트랙을 시공할 때 빨리 굳히거나 색을 입히는 과정에서 납이 포함된 경화제와 도료 등이 사용되는데 시간이 지나 트랙 일부가 파손되거나 마모되면 납 성분이 분진 형태로 날린다. 이를 흡입하는 것이 납이 체내로 들어오는 주요한 경로다. 또 트랙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입 주위를 만질 경우 구강을 통해 납을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호흡기나 위장으로 들어간 납 성분은 혈관으로 침투해 신경계통과 내장 기관에 영향을 준다. <br/>납이 축적된 학생들에게는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와 학습능력 감퇴, 운동능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박재범 아주대 산업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납 성분은 신경계 쪽에 손상을 주는 대표적인 신경 독성 물질</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청소년 시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인지기능, 문제해결 능력과 기억력, 지능 등 뇌기능의 발달이 심각하게 저하돼 학습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span>”고 우려했다.<br/>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혈중 납 농도는 아주 소량만으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span>”며 “<span class='quot2'>초중고 12년간 지속적으로 우레탄 트랙에 노출된다면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기간</span>”이라고 지적했다. <br/>인조잔디에 다량 포함된 것으로 조사된 카드뮴과 크롬도 학생들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유해 물질이다. 카드뮴은 뼈가 물러져 조금만 움직여도 관절이 부러지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2'>크롬 역시 단기적으로는 비염과 접촉성 피부염을, 장기적으로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이 같은 물질에 노출되는 학교는 중금속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span>”고 지적했다. <br/>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43.txt

제목: 악성 뇌종양 표적 유전자 발굴  
날짜: 201606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07051444693  
본문: 남도현 삼성서울병원 교수팀<br/>“재발환자 맞춤치료법에 희망”<br/><br/> 국내 연구진이 악성 뇌종양의 예후와 관련된 새로운 표적 유전자를 발굴, 재발 환자에 대한 맞춤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 <br/>보건복지부는 6일 남도현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 교수팀이 라울 라바단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팀과 함께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재발시 발현되는 유전자 LTBP4를 발견, 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에 연구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br/>교모세포종은 다른 암보다 방사선ㆍ항암제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치료가 어렵고, 치료 후에도 대부분 재발해 사망에 이른다. 진단 후 기대 생존기간이 1년에 불과할 정도다. 연구팀은 114명의 국내외 환자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환자의 63%에서 암 재발 후 종양의 유전형이 변화했고, 11%에서 추가로 LTBP4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해 나쁜 예후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즉 암이 재발할 때 LTBP4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찾아낸 것이어서 이 유전자의 발현을 막는 치료법 개발을 통해 교모세포종을 치료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 남도현 교수는 “<span class='quot0'>뇌종양 재발 환자의 맞춤치료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44.txt

제목: ‘암 예방수칙’ 아는데 실천 안 하는 이유  
날짜: 201606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07051437581  
본문: “설마 내가 암?”… 암 진단 받기까지 ‘무관심’<br/>술ㆍ담배 권하는 문화서 개인 ‘암 예방’ 불가능 <br/><br/> 흡연가들은 말한다. 스트레스 해소에 담배만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흡연가들도 지금처럼 담배를 계속 피우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9.3%(2015년 기준)이다. 10명 중 4명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br/> 암 예방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예방수칙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암을 막기 위한 예방수칙은 실천하지 않고 있다. 대한소화기암학회가 지난해 강동경희대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건양대병원 조선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6개 대학병원과 일반인(187명), 소화기암 환자ㆍ보호자(236명), 의료인(222명) 등 645명을 대상으로 ‘소화기암 국민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소 암 예방을 위해 ‘국민 암 예방수칙’을 실천하고 있는 이는 소수에 불과했다. <br/> 응답자의 15%는 여전히 담배를 피고 있고, 17%는 하루 두 잔 이상 술을 마시고 있다. 암 예방수칙에서는 하루 두 잔 이상 술을 삼가라고 권고하고 있다. 암 예방수칙 대로 짜고 탄 음식을 먹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는 이는 20%에 불과했다. 국가조기암검진을 받은 이들도 43%에 불과했다. 주광로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국민 암 예방수칙 10개 중 8개 항목은 소화기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제는 암 예방과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치료 이상으로 강조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암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이가 적은 이유는 뭘까.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1'>암은 감기처럼 즉각적으로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암세포가 몸 속에서 자라고 있어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span>”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이성적으로는 몸에 좋지 않으니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를 만나면 술집으로 향하는 것이 현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사람들은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암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 조현 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한번 습관화 된 생활습관은 개선되기 어렵다</span>”면서 “<span class='quot3'>어려서부터 식습관, 체중조절, 금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암 예방수칙을 실천하려면 개인뿐 아니라 사회ㆍ문화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 조정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술과 담배를 마구 권하는 우리사회에서 암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4'>건강을 우선시 하는 사회ㆍ문화 시스템이 구축돼야 개인들이 암 예방수칙을 지킬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3'>경제ㆍ사회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건강보다 순간을 즐기는 이가 많아진 것도 문제</span>”라면서 “<span class='quot3'>최근 불고 있는 단맛 열풍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에 무지하고 무관심한지 알 수 있다</span>”고 꼬집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br/><br/>[암 예방수칙 10계명]<br/>-담배를 피우지 말고, 간접 흡연도 피하기.<br/>-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균형 잡힌 식사하기.<br/>-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br/>-술은 하루 두 잔 이하로 마시기.<br/>-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br/>-자신의 체격에 맞는 체중 유지하기.<br/>-B형 간염 예방접종하기.<br/>-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br/>-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수칙 지키기.<br/>-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빠짐없이 검진하기.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45.txt

제목: [메아리] 자살, 이제 말해야 한다  
날짜: 201606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04052043635  
본문: 10년 간 15만 명 스스로 목숨 끊어<br/>공동체 해체 등 사회불안정기 급증<br/>수백만 건 자살보험금 불씨 우려돼<br/><br/>견습기자 시절인 1989년 가을 어느 날 오후. 서울 신정경찰서(현 양천경찰서) 형사계 한쪽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따르르릉~.” 검은색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젊은 여자가 죽었다는 신고였다. 선배에게 보고했다. 무조건 현장에 따라가란다. 출동하는 형사기동대 차량에 같이 올라탔다. 신월동 한 다가구주택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고생이 목을 매 숨져 있었다. 정황상 자살 가능성이 높았다. 한데 유서가 없고 동기도 불분명했다. 검사 지휘에 따라 부검이 이뤄졌다. 타살 근거는 없었다. 당시엔 자살이 드물어 주목했으나 시쳇말로 얘기가 안됐다. 그리고 잊었다. 자살은 나와 무관한 딴 세상 일이었다.<br/>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 세상을 등졌다. 아빠는 12년 전 빚만 남긴 채 암으로 숨졌다. 병을 앓는 큰 딸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둘째 딸은 알바를 전전했다.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 엄마는 팔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됐다.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다. 살아갈 희망이 안 보였다. 집 주인에게 전 재산 70만원과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세 모녀는 자살을 우리의 문제로 각인시켰다.<br/>한국은 IMF를 거치며 자살자가 늘기 시작했다. 1990년 인구 10만명당 7.6명이던 자살자는 IMF 직후인 2001년 14.4명을 거쳐 2011년에는 31.7명으로 4배 이상 치솟았다. OECD 회원국 중 11년째 자살률 1위다. 노인 빈민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청소년ㆍ청년 자살도 급증세다. OECD 회원국들은 지난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15.6% 감소한 반면 한국은 47%나 늘었다. 입시ㆍ취업 경쟁에 내몰린 젊은이들이 안간힘을 쓰다 절망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승자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경쟁지상주의의 비극이다.<br/>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켕은 “결국 모든 자살은 타살”이라고 했다. 그는 자살을 개인적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사회적 현상으로 봤다. 사회적 유대감ㆍ결속력의 약화, 경제위기 등 사회적 불안정과 급격한 구조 변화가 자살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국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분석이다. 허술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IMF에 따른 대량 해직이 가족 등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개인을 절망으로 내몰아 자살이 급증했으니 말이다.<br/>자살을 야기하는 사회통합의 약화는 더욱 가속화할 분위기다. 인력 구조조정과 경쟁구조의 심화,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지속되는 탓이다. 최근 불거진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더욱 걱정스럽다. 국내 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10년 동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의 보험상품을 280만 건이나 팔았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소송에서 패해 당장 지급해야 할 보험금만 약 3,000건에 2,500억원이다. <br/>오늘도 40명 넘게 목숨을 끊을 것이다. 연간 1만5,000명. 1명이 자살로 숨지면 자살 시도자는 20~40명에 달한다. 매년 30만~60만명이 자살을 시도하는 셈이다. 실제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만 연간 4만명이다. 자살 유가족은 일반인보다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6배나 높다. 1명이 자살을 시도하면 불안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주변 사람이 최소 6명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연간 180만~360만명이 자살 피해자인 셈이다. 280만 건의 자살보험 가입이 예사롭지 않게 여겨지는 까닭이다.<br/>자살은 일상이 됐다. 그래서인지 다들 무덤덤하다. 금기시하고 쉬쉬한다. 솔직히 죽은 자들을 언급하는 일은 몹시 불편하다. 그래도 이제 자살을 말해야 한다. 자살은 사회적 질병이다. 복지정책과 심리상담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OECD 회원국들은 최근 20년간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률을 평균 20%, 핀란드는 50%나 줄였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자살자 수는 약 15만명. 9년간 이어진 이라크전쟁 사망자 수(3만9,000명)의 4배다. 그들은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이웃이고 가족이다. 더 이상 자살을 외면해선 안 된다.<br/><br/>고재학 논설위원 goindol@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46.txt

제목: 한명회로 유명한 배우 정진 별세  
날짜: 2016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03051326811  
본문: 1980년대 큰 인기를 모았던 MBC 대하 사극 ‘조선왕조500년 설중매’에서 한명회를 연기한 배우 정진(본명 정수황)씨가 암 투병을 하다 2일 별세했다. 향년 75세.<br/>연극배우 출신인 정씨는 1979년 TBC 공채 탤런트에 뽑힌 뒤 ‘제1공화국’ ‘임진왜란’ 등 주로 시대극에 출연하며 개성 강한 연기를 선보였다. 특히 ‘조선왕조500년 설중매’에서 조선 왕조 초기 막후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명회 역을 맡아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br/>1985년 제21회 백상예술대상 인기상과 1988년 한국연극배우협회 우정상을 수상했다. 빈소는 현대 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은 4일.<br/>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47.txt

제목: [애니팩트] 암컷 판다의 임신가능 기간은 1년에 3일 정도다  
날짜: 2016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03050745642  
본문: 멸종 위기종인 자이어트 판다는 전 세계에 2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으며 임신과 출산 역시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br/>암컷 판다의 임신가능기간이 1년에 1∼3일밖에 안돼서 세계에서 태어나는 판다는 매년 평균 30마리 정도라고 해요.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48.txt

제목: [기고] Korea-Aid와 보건의료 협력으로 아프리카 빗장을 열다  
날짜: 2016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03050742248  
본문: 아프리카가 세계 미래성장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막대한 부존자원, 저임금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고속성장을 지속 중이다. 일부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아프리카를 교역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다. 그간 아프리카를 원조의 대상, 선택의 대상으로만 접근한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br/>교역규모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나 중국의 아프리카 교역규모는 100억달러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교역규모는 약 2,200억 달러로 20배 이상 늘어난 데 비해 우리는 여전히 200억달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br/>케냐 나이로비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동포간담회에서 일본과 중국이 국익을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아프리카로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빨리 안 오느냐는 안타까움을 표하는 교민도 계셨다.<br/>박근혜 정부는 아프리카를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간의 인식을 전환하였다. 201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아프리카 싱크탱크인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하였고,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우간다를 방문하였다. 특히, 공급자적 관점에서 벗어난 이번 방문을 통해 젊은 대륙 아프리카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 핵심 성과라고 할 수 있다.<br/>먼저,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라는 새로운 통합적 개발협력 모델을 선보였다. 코리아 에이드는 앰뷸런스, 한식 푸드트럭, K-팝 문화영상트럭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아프리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개발협력과 문화협력의 융합)이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인력도 참여(한국과 아프리카 간 연합)함으로써 아프리카 문제를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br/>다음으로, 54개의 다양한 특성과 복잡성을 지닌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첫 순방 국가인 에티오피아에서 심장 수술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한국의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현지에서 활동 가능한 전문 의료진 양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향후 한국의 선진의료기술에 기반을 두어 에티오피아 심장 수술 환자의 한국 유치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br/>두 번째 방문 국가인 우간다는 200병상 및 X-레이, 초음파 등의 영상설비를 갖춘 동아프리카 종양학 거점인 국립암센터와 아프리카 국가 중 두 번째로 WHO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제결핵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우간다의 국립암센터 간 양해각서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우간다 국제결핵연구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주변국의 암 및 결핵 진단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관련 인력양성, 한국의 국가 암 관리체계 전수, 결핵 진단기기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국에 대한 집중 지원이 주변국으로 확산되어, 한국의 선진보건의료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의 효과가 증폭될 것으로 기대한다. <br/>마지막 방문국인 케냐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과 모바일 보급률을 보여 선진 IT 기술과 보건의료의 접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케냐 의약품 공급청간의 케냐 의약품 분배·공급체계 개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 관리에 도입된 첨단 IT 기술 소개와 함께 현지 기술전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br/>이번 박근혜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기회의 땅 아프리카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문호를 조금씩 열고 있다. 그리고 기회로 가는 열쇠는 국내 선진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 인력, 기술에 달려있다고 본다. 아프리카가 우리의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있다.<br/>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49.txt

제목: 감전 아찔, 치료는 자비로... 목숨 담보잡힌 제2의 김군들  
날짜: 2016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601052943721  
본문: 지난달 28일 지하철역 승강장 고장 난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수리하다 숨진 김모(19)군은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외주업체 은성PSD 직원이었다. 김군은 이 업체에서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다 가방에 컵라면 하나 남긴 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하청 만능주의로 인한 안전참사가 끊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담보로 작업현장에 나서는 ‘제2의 김군’들이 곳곳에 있다. 효율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까지 외주화하는 경향이 일반화하면서 위험을 떠안은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다.<br/>김군 사고를 바라보는 이성준(21ㆍ가명)씨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업무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이씨도 김군처럼 스무 살도 채 안 된 나이에 서울메트로의 다른 외주업체 P사에 입사해 전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어서다. 김군 추모 공간이 꾸려졌단 소식에 지난달 30일 구의역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이씨는 “<span class='quot0'>어린 나이에 위험한 현장에 투입돼 마음 졸이며 일했을 김군을 떠올리니 남일 같지가 않아 가슴이 미어진다</span>”며 고개를 숙였다.<br/>이씨가 다니는 P사는 2011년 서울메트로가 직원들을 퇴사시켜 만든 승강기안전문 관련 외주업체 은성PSD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P사 역시 서울메트로가 2008년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설 유지ㆍ정비 등 안전 관련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전동차의 경정비 업무를 위탁 받았다. 서울메트로 측은 당시 은퇴를 앞둔 직원들에게 정년과 복지를 보장하면서 40여명을 이 회사로 전적시켰다. 이후 부족한 인력은 업체에서 자체 채용해왔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고교를 갓 졸업한 10, 20대의 어린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일반화했다.<br/>이씨도 2013년 서울의 한 공고 3학년 2학기 재학 중 P사에 입사했다. 그는 김군이 생전 겪었을 고된 일상과 위험이 머리 속에 그려진다고 했다. “1,5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동차 아래서 온종일을 보내면 생명을 위협 받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요. 지난 2월에는 감전 사고로 자칫 큰 부상을 입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평소대로 전동차 브레이크를 점검하던 중 잠시 끊어놨던 전류가 별안간 흐르기 시작했는데, 다시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주변 동료들이 이씨에게 “빨리 전동차에서 나오라”며 소리치지 않았다면 생명까지 위험했을지 모른다. 이씨는 “<span class='quot0'>보통 전류를 가동하기 전 방송이 나오고 전동차 위 아래에 달린 불빛이 켜지는데 그 날은 신호가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귀마개를 끼고 작업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span>”고 토로했다. <br/>여름이면 불안감은 배로 커진다.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방진복이 금세 땀에 젖어 몸을 재빨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전동차 밑에 들러붙은 먼지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날이면 눈 앞이 온통 검은색 먼지로 뒤덮여 20m 앞에 있는 비상등도 안 보이기 십상이다. <br/>열악한 조건투성이지만 그가 스스로 안전을 챙길 여력은 거의 없다. 전동차 당 점검ㆍ정비 목록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직원 10여명이 달라 붙어도 시간은 늘 빠듯하다. 게다가 서울메트로 소속 정규직 직원들이 정비에 나서기 전까지 무조건 작업을 마쳐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씨는 “<span class='quot0'>같은 공정에서도 부품을 닦고 오일을 바르는 것 같은 잡일은 우리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 몫이고, 정규직은 부품 교환을 담당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정규직에 피해를 안 주려면 눈치껏 일을 끝내놔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br/>이씨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서울메트로 측이 강사 등을 초빙해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만 어디까지나 정규직에 한해서다. 외주업체 직원들의 경우 출ㆍ퇴근부 곁에 놓인 화재, 소방 등 관련 문서를 읽는 게 사실상 안전교육의 전부다. 교육 요구는 꿈도 못 꾼다. 은성 PSD처럼 P사도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선정돼 예산 여유가 있을 리가 없다. P사는 서울메트로가 2015년 7월부터 1년간 75억원에 입찰한 전동차 경정비 위탁용역비를 63억원에 따냈다. 수주가가 낮아질수록 직원 복지에 쓸 여력도 그만큼 사라지는 셈이다. <br/>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하루 8시간씩 갖은 위험과 싸우며 이씨가 받는 급여는 월 150만원 안팎이다. 그는 이 돈으로 몇 해 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사회복무요원인 형(22)을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아버지가 투병 생활할 때 진 빚을 갚고 월세 60만원을 겨우 충당하는 정도다. 요즘엔 교통비마저 아끼려 집에서 4㎞ 떨어진 근무지까지 자전거로 출근하고 있다. 이씨는 “<span class='quot0'>건실한 공기업과 협업하는 회사에 취직했다며 기뻐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쉽게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지금 상황에선 저축은 꿈도 못 꾸는데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span>”며 쓴웃음을 지었다. <br/>P사 소속으로 4년째 일하고 있는 윤준수(26ㆍ가명)씨도 이씨와 사정은 비슷하다. 윤씨는 서울의 한 공고를 졸업한 후 군대에 다녀와 곧장 입사했다.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모님과 서울 월셋방에서 함께 사는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서다. 누구보다 일에 열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오는 회의감은 어쩔 도리가 없다. 윤씨는 “<span class='quot1'>동료들이 전동차 위에서 일 하다가 틈새로 발이 빠지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목격하면 가슴이 먹먹하다</span>”며 “<span class='quot1'>부상을 입어도 자비로 치료해야 해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span>”고 했다. <br/>퇴사를 생각하다가도 매번 머뭇거리게 되는 건 ‘혹시 정규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다. 서울지하철노조 비정규지부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본부장과 서울메트로 사장은 지난해 4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될 경우 외주정비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회사를 설립해 정비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윤씨와 동료들은 좌절하고 있다. <br/>“나이 어렸던 김군도 다쳤을 때 아픈 내색 한 번 못했을 거예요. 늘 ‘소리 없는 아우성’만 칠 뿐이죠. 생명을 저당 잡히고 일하는 외주업체 노동자들에게 한 번쯤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 드립니다.” 이씨의 간절한 목소리가 구의역 추모공간을 울렸다. <br/>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50.txt

제목: [건강 소식]  
날짜: 201605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31053015911  
본문: ‘알기 쉬운 뇌성마비’ 출간<br/>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뇌성마비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책 ‘알기 쉬운 뇌성마비’(군자출판사 발행ㆍ사진)를 펴냈다. 질환은 물론 관리, 수술, 기타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까지 뇌성마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뤘다. 뇌성마비 권위자이자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정진엽 교수를 비롯해 박문석ㆍ황정민ㆍ김기정 교수 등이 참여했다.<br/>한국애브비, 청년 친화 강소기업 <br/>한국애브비(대표 유홍기ㆍ사진)가 고용노동부의 '2016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매년 청년과 함께 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인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뽑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8개 기관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중 임금체불이 없고 고용유지율 및 기업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br/>편강한의원, 구전녹용 개발ㆍ판매<br/>편강한의원과 편강한방연구소가 공동으로 구전녹용(사진)을 개발ㆍ판매한다. 녹용 홍삼 삽주 복령 감초 숙지황 작약 천궁 당귀 황귀 등 9가지 재료가 함유됐다. 진한 녹용 맛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생강 대추 아카시아꿀을 첨가했다. 재료는 최근 출하된 작물을 이용해 원재료 성분을 유지토록 했다. 편강한방연구소는 “<span class='quot0'>성장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섭취 가능하다</span>”고 했다.<br/>SK케미칼, 혈우병치료제 FDA 시판 허가<br/>SK케미칼은 혈우병 치료제 ‘NBP601’(제품명 앱스틸라ㆍ사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최종 시판 허가를 받았다. NBP601은 SK케미칼이 2009년 호주 CSL 사에 기술 수출한 바이오 신약 물질로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 신약이 FDA 시판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과 호주에서도 허가 당국에 의한 최종 시판 승인 단계에 있다. 박만훈 사장은 “<span class='quot1'>R&D에 대한 오랜 투자가 결실로 맺어졌다</span>”며 “<span class='quot1'>뛰어난 효능과 환자 편의성이 성공적인 글로벌 상업화의 원동력이 될 것</span>”이라고 했다.<br/><br/>이화여대의료원, 명품대상 수상<br/>이화여자대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이 ‘2016년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화여대의료원은 지난 25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개최된 ‘제18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이대여성암병원이 암센터 부문,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가 특성화센터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br/><br/>국립중앙의료원, 힐링룸 신설<br/>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가 말기 암 환자 및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힐링룸’을 신설했다. 힐링룸에는 영화나 음악 감상을 하고 조명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리모델링된 프로그램실을 활용해 소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51.txt

제목: [태블릿+]매년 88만 명 처방되는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날짜: 201605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31053009739  
본문: 간암은 국내 사망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무서운 암이다. 간암 환자의 72%는 B형 간염으로 발병한다. B형 간염 관리가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셈이다. <br/>6개월 이상 간 염증이 낫지 않고 계속되는 만성 B형 간염을 방치하면 간 조직이 점점 딱딱해지는 간섬유화가 누적되면서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악화한다. 이를 막으려면 장기간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바이러스 증식과 간세포 염증을 지속적으로 억제해줘야 한다.<br/>B형 간염 치료의 근간이 되는 경구 항바이러스제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억제 효과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복용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70%는 40대 이상의 중ㆍ장년층으로, 당뇨병ㆍ고혈압 등 다양한 만성질환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한 조사결과,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절반 이상이 간경변증,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동반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br/>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질환을 겪는 아시아 환자에게는 콩팥 기능 손상이 더 자주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고혈압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는 이뇨제가 B형 간염 환자의 콩팥 장애를 일으키는 독립 위험인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동반질환에 관계 없이, 콩팥 기능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장기간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B형 간염 치료제를 먹어야 한다.<br/>2007년 국내 출시된 한국BMS제약의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ㆍ사진)는 B형 간염 바이러스(HBV)의 복제를 저해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세포감염 능력을 떨어뜨리는 먹는 항바이러스제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매년 88만 명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됐다.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을 통해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와 낮은 내성 발현율을 보이는 안전한 항바이러스제로 만성 B형 간염 초기 치료에 참고해야 할 약물로 권고돼 왔다.<br/>특히 장기간 만성 B형 간염 치료에 있어 간경변증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동반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높은 효과를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 유지를 위한 콩팥 기능에서도 안전성을 나타냈다.<br/>36개월간 바라크루드 치료 후 만성 B형 간염 DNA 수치를 낮추는 바이러스 반응률 및 간 수치(ALT)를 정상화하는 생화학적 반응률은 각각 96%, 86%로 높게 나타났다. 기저 동반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보였다. 또한 동반질환이 없는 환자,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상승하는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를 관찰한 결과, 바라크루드 치료 기간 중 유의한 수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br/><br/>최근 약값이 30% 낮아져 경제적 부담도 줄었다. 지난해 10월 바라크루드 특허가 만료되면서 1차로 약값이 인하됐고, 9월부터는 특허만료 전 약값의 53.55% 수준으로 또 한번 낮아질 예정이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52.txt

제목: “인후암 수술받는 고통에 비하면 금연은 쉽습니다”  
날짜: 201605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31052847725  
본문: 미국서 증언형 금연광고 출연한 숀 라이트씨… ‘금연의 날’ 맞아 방한<br/>“<span class='quot0'>담배 오래 피우면 병 걸릴 건 뻔해</span>”<br/><br/><br/><br/>“담배를 끊는 건 어려운 일이죠. 제 경우 수술 후에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거울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한국 흡연자분들도 저를 교훈 삼아 금연하시길 바랍니다.”<br/>30일 오전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미국인 숀 데이비드 라이트(55)씨는 세미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라이트씨는 2012년 미국에서 방송됐던 증언형 금연광고(암 등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흡연자가 직접 광고에 출연하는 광고)인 ‘과거 흡연자로부터의 조언(Tips from former Smokers)’에 출연했다. <br/>그는 “<span class='quot0'>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면 병에 걸리는 건 시간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0'>내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담배를 끊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14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 매일 한 갑 반 이상씩 30년 간 담배를 피웠다는 그는 40대 중반에 인후암 판정을 받고 후두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받는 고통에 비하면 담배 끊는 게 더 쉽습니다. 인후암 판정 6개월 전에라도 담배를 끊었으면 후두를 제거하지 않았을 텐데, 시간을 되돌리고 싶네요.”<br/>장기간 흡연으로 겪는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공 후두를 삽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목에서는 여전히 이물감이 느껴지고, 90일 마다 인공후두를 교체해야 한다. 여가로 즐겼던 아마추어 밴드 활동은 수술 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할 수 없게 됐다. 목에 삽입한 음성 보철물을 눌러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기계가 내는 쉰 소리는 거칠다. <br/>숨기고픈 이야기를 대중 앞에 공개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증언형 광고를 통해 많은 이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기 소원했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담배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고 당당해지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실제 그가 광고에 출연하자 직장 동료 4명은 담배를 끊었다. <br/>국내에도 이르면 12월 라이트씨가 출연한 광고처럼 암 환자 등이 등장하는 증언형 금연광고가 도입될 전망이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span class='quot1'>과거 폐암에 걸린 코미디언 이주일씨가 나와 금연을 당부하는 광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증언형 금연광고를 선보일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증언형 금연광고로 금연시도율이 12% 증가했으며, 1만7,000여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br/>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53.txt

제목: [의약동정] 이화의료원,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수상 등  
날짜: 201605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31051341682  
본문: 이화의료원,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수상<br/> <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2016년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br/> <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5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개최된 '제18회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이대여성암병원이 암센터 부문,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가 특성화센터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br/> <br/>1999년 시작된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은 여성신문사가 기업 및 기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상으로 기업 및 기관의 브랜드 평가로 제품의 품질 우수성,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온라인 조사와 자문위원단 및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br/> <br/>이대여성암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여성암 전문의 보유 ▲여성암 환자를 위한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시설 운영 ▲여성암 환자만을 위한 차별화된 여성친화적 진료 서비스 ▲환자 안전, 서비스 질 향상 위한 지속적 혁신으로 JCI 재인증 획득 ▲여성암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첨단 장비의 지속적 도입 등을 높게 평가 받아 암센터 부문 대상을 8년 연속 수상했다.<br/> <br/>.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는 환자 중심의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세심한 진료 서비스로 고객의 사랑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도 여성 질환 치료 분야 국내 대표 병원으로서 여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여성 친화 진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장기이식 등 중증질환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br/> <br/>황호식 교수, 미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최우수 논문상<br/> <br/>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안과 황호식 교수가 5월 8일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열린 미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ASCRS)에서 최우수 논문상(Best Paper of Session)을 수상했다. 황호식 교수는 안구건조증에 대한 구연 세션에서 '사람 눈물샘의 생체 광간섭 단층촬영 이미징(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maging of Human Lacrimal Glands: In Vivo Study)'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전체 16개 논문 중 최우수 논문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안과에서 흔히 사용되는 광간섭 단층촬영 장비를 통해 세계최초로 사람 눈물샘의 단층촬영에 성공했다는 결과를 다룬 것이다. 눈물샘은 안구표면에 눈물을 분비하는 기관으로, 안구건조증의 병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눈물샘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었다. 황호식 교수는 "이 연구를 계기로 눈물샘의 단층을 촬영하여 안구건조증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환자별 맞춤형 각막이식 시행은 물론, 눈물샘 단층촬영을 통해 안구건조증의 진단 및 치료를 더욱 전문화 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호식 교수는 2005년 이후 강원도 최초로 각막이식을 시행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안과의사다. 2015년에는 강원도 최초로 내피층 각막이식 수술인 디멕(DEMK)에도 성공했으며, 같은 해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미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ASCRS)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사람 눈물샘의 생체 광간섭 단층촬영 이미징'연구는 안과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안과학(Ophthalmology)' 2015년 11월호에 게재됐으며,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자지원사업과 2015년도 한림대학교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br/> <br/>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 백신심포지엄 개최<br/> <br/>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는 오는 6월 10일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이화백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Ewha Vaccine Center; Expanding the Horizon of Vaccine Evaluation and Study'를 주제로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에서 진행해 온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백신 관련 최신 지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백신의 효능 평가를 넘어서 백신 개발과 관련된 면역도 연구, 백신 대상 병원체의 확대, 백신에 포함된 접합 단백의 역할 등 이전에 비해 좀 더 확대된 영역에 대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폐구균 백신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미국 버밍햄 알라바마 주립대학의 Moon H. Nahm 교수가 방한해 'Opsonophagocytosis: The Best Defense against Pneumococci'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54.txt

제목: 암 환자가 직접 증언하는 금연광고 이르면 12월 시작  
날짜: 2016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30050715724  
본문: 흡연폐해 부각정책 더욱 강화<br/><br/><br/>암 환자 등 흡연 피해자가 출연해 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증언형 금연광고가 이르면 12월 도입될 전망이다.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과 함께 흡연의 폐해를 부각시켜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br/>보건복지부는 30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서울 충무로 건강증진개발원에서 특별세미나를 열고 증언형 금연광고 도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한국형 증언형 금연광고를 연내 도입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광고 참여자 모집 등을 거쳐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시기인 12월쯤 광고를 선보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증언형 금연광고처럼 암, 뇌졸중 환자 등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광고에 출연시켜 보다 강력한 금연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뜻이다. <br/>미국은 2012년부터 ‘과거 흡연자로부터의 조언(Tips from former Smokers)’이라는 제목의 증언형 금연광고를 하고 있다. 장기간 흡연으로 인후암에 걸린 환자가 직접 출연해 인공 후두로 사는 삶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같은 증언형 금연광고로 금연시도율이 12% 증가했으며, 1만7,000여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br/>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말 ‘흡연=질병’이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TV광고를 선보인 바 있다. 상점에 들어서는 고객들이 점원에게 “담배 하나 주세요”라는 멘트 대신 “후두암 1㎎주세요’ 등을 말하는 내용이다. <br/>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금연홍보 관계자 2명과 증언형 금연광고에 직접 참여한 숀 라이트(55)씨가 참석해 미국의 증언형 금연광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br/>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55.txt

제목: 2030세대 여성 암 환자 10% 이상이 자궁경부암  
날짜: 201605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30050707136  
본문: 20~30대 여성 암 환자 10명 중 1명이 자궁경부암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대 자궁경부암 환자는 지난해 2,194명으로, 20대 여성 암 환자 전체(1만8,513명)의 11.9%를 차지했다. 30대의 경우 1만1,253명으로 14.9%나 됐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그 비중이 10%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2030세대가 자궁경부암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br/>자궁경부암만 놓고 보면 지난해 환자는 5만4,603명으로, 40대가 1만5,67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50대(1만4,141명) 30대(1만1,253명) 60대(8,188명) 70대 이상(5,141명) 순이다. <br/>전문가들은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은 만큼, 정기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궁경부암이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포함돼 20대부터 2년 주기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김종욱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은 예방ㆍ완치가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위험요인으로 알려진 흡연도 중단하는 게 좋다</span>”고 말했다.<br/>자궁경부암은 자궁 입구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 출혈, 분비물 증가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병이 진행되면 주위 장기로 번져 허리 또는 다리 통증을 느낄 수 있다. <br/>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56.txt

제목: 베트남전 징병서류 불태운 형제 신부  
날짜: 2016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28051339660  
본문: 이달 초 뉴욕타임스는 베트남전 그린베레 출신의 한 이름 없는 반전ㆍ인권운동가(Donald Duncan)의 부고를 숨진 지 7년이나 지난 뒤에 썼고, 부고 담당데스크는 그 기사가 늦은 사연을 설명하는 장문의 글을 다시 보름 여 뒤에 올렸다. 오늘의 미국이 지향하는, 혹은 모든 미국 시민과 세계인이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에 대한 언론의 경의-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지만-가 그렇게 집요하다.<br/><br/>이번 주 ‘가만한 당신’의 주인공은 반전 보습운동(일명 쟁기날운동ㆍ Ploughshares Movement)을 최초로 시작한 미국의 형제 신부 대니얼과 필립 베리건이다. 60,70년대의 반전운동가들을 언급할 때면, 위 기사가 그랬듯, 존 바에스(가수)나 제인 폰다(배우) 노먼 메일러(작가) 같은 유명인들의 이름을 이끄는 게 그들, ‘못 말리는’ 형제다. <br/><br/>북베트남 인민군과 남베트남 인민해방전선(베트콩)의 68년 1월 30일 ‘구정 대공세(Tet Offensive)’는 전쟁과 반전운동 모두의 분수령이었다. 미군 피해도 피해지만, 폭격과 살육으로 이어진 무차별 보복 양상은 미국의 정의를 의심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br/>보스턴대 역사학자 하워드 진(Howard Zinn, 1922~2010)과 예수회 소속 코넬대 신학자 대니얼 베리건(Daniel J. Berrigan)이 베트남을 방문, 인민군에 억류된 전투기 조종사 3명의 석방 협상을 벌인 게 그 무렵이었다. 2월 초 그들은 포로 3명과 함께 무사히 귀국했다. 가족과 함께 구정을 맞으라는 인민군의 인도주의적 조치, 라기보다는 반전 심리전의 회심의 한 수였을 것이다. 당연히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물론 미국 정부에겐 이적행위로 보였을 것이다. <br/><br/>대니얼보다 더 유명했던 건 두 살 터울의 동생 필립(Philip)이었다. 요셉파 신부인 그는 67년 10월 활동가 세 명과 함께 볼티모어 세관 내 징병사무소에 들어가 징병 서류에 피를 섞은 붉은 물감을 쏟아 부어 미국 신부로는 최초로 ‘반정부 활동’ 혐의로 기소됐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 당한 지 한 달여 뒤인 68년 5월, 재판을 받고 있던 필립이 형 대니얼의 코넬대 연구실로 찾아왔다. 볼티모어에서 한 것과 같은 일을 다시 벌일 참이니 형도 동참하라는 거였다. 2006년 ‘Demcracy Now!’ 인터뷰에서 대니얼은 “<span class='quot0'>동생의 그 용기, 아니 ‘무대뽀(effrontery)’에 어안이 벙벙했다</span>”고 말했다. “침을 꿀꺽 삼킨 뒤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해야 할 이유와 안 해야 할 이유를 혼자 찬찬히 적어봤죠. 그 초대에 응해야 할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더군요. 그래서 했죠.”<br/> 훗날 ‘카튼스빌 9’이라 불린 그들 형제 신부와 활동가 7명은 68년 5월 17일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외곽 카튼스빌(Catonsvlle) 징병사무소에 들어가 징병관 눈 앞에서 징병 서류를 몽땅(387건) 들고 나와 주차장에서 불 태운 뒤 이런 선언문을 낭독했다. “우리는 국가의 범죄행위를 마주하고도 침묵과 비겁함으로 일관하는 미국의 가톨릭 교회와 여타 기독교 기관들과 유대교회를 눈 앞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관료적 종교기구들이 인종차별적이며, 이 전쟁의 공범이며, 가난한 자들에 냉담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행동하는 양심’ 박현주 지음, 검둥소)<br/><br/>미리 귀띔 받은 기자들은 사제복 차림의 형제- 왜소하고 금욕적 용모의 대니얼과 큰 덩치에 우락부락한 얼굴의 필립- 사진과 함께 그 소식을 미국 전역에 전했다. 두 사건은 행진과 거리 시위에 머물던 반전운동을 영장 소각 등 직접 행동ㆍ시민불복종 운동으로 확산시킨 분수령이었다.(The Nation, 2008.5.20)<br/><br/>형제는 공공기물 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지만, “불의의 판결에 순응할 수 없어” 형 집행 직전 잠적, FBI의 추적을 받아가며 활동을 지속했다. 수배 중 대니얼은 코넬대 학내 문화행사에 참여했다가 프로그램에 있던 ‘최후의 만찬’연극 배우로 분장해 문 앞을 지키고 섰던 FBI 체포조를 따돌리기도 했다. 그 무렵 필립은 가톨릭 인권운동 단체에서 만난 수녀 엘리자베스 맥알리스터(Elizabeth McAlister)와 연애 중이었는데, 먼저 체포된 그가 연인과 주고받던 편지에 형의 소재를 적는 바람에 대니얼도 체포됐다. 2년 뒤인 72년 가석방된 대니얼은 재판 과정을 희곡 ‘The Trial of the Catonsville Nine’으로 썼다. “선한 벗들에게 사죄하련다. 아이들을 대신해 종이조각을 태운 죄, 그래서 납골당 행렬의 질서를 흩뜨린 죄.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신이여 저희를 도우소서”(WP, 2016.4.30) <br/><br/>형제는 미네소타 주 버지니아 시의 한 독일 이민자 가정의 6남매 중 넷째와 막내로 1921년 5월 9일, 23년 10월 5일 태어났다. 철도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되면서 가족은 시라큐스로 이주했다. 뉴욕타임스는 대니얼의 자서전 ‘To Dwell in Peace’(89)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그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병약했고, 특히 발목이 약해 4살 때까지 잘 걷지도 못했다는 이야기, 자연스레 엄마와 보낸 시간이 길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하는 폭력을 자주 목격했다는 이야기. 아버지는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집안에서 풀곤 했고, 아버지의 그런 죄를 사해주는 교회가 못마땅했다는 이야기. 그는 신학교(뉴욕 하이드파크 예수회 신학교와 볼티모어 우드스탁 칼리지)에 진학, 52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br/><br/>동생 필립은 고교 졸업 후 세미프로 야구팀 선수로 뛸 만큼 활동적이었다. 43년 입대 후 극심한 흑인 차별과 유럽 전선의 참상을 겪고는 그 분노와 죄의식으로 신학교(매사추세츠 우스터 홀리크로스 칼리지, 뉴올리언스 로욜라대와 세비어대)에 진학, 55년 사제가 됐다. 전쟁 기간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국가주의자들의 선전에 담긴 위선을 냉소하게 됐다고 한다. 그들의 선은 ‘유러피언 백인’의 선일 뿐이었다.(NYT, 2002.12.8)<br/><br/> 50년대의 대니얼은 신학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문학, 특히 시를 썼다. 미국시인아카데미(AAP)의 ‘제임스 로린상(James Laughlin Award)’을 받은 58년의 첫 시집 ‘무한한 시간 Time Without Number’을 비롯, 그는 평생 50여 권의 책(시집 15권)을 썼다. 훗날 그는 좌파 사회운동가이자 가톨릭 평화주의자로 ‘가톨릭노동자운동(CWM)’을 조직한 도로시 데이(Dorothy Day, 1897~1980)에게서 비참과 가난, 전쟁의 방정식을 바라보는 신학자의 관점을 배웠고,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작가 토머스 머튼(1915~1968)에게서 문학과 좌파신학자로서의 헌신과 용기를 배웠다고 말했다.(‘The Nation’위 기사) 그는 코넬대 안식년이던 63년 프랑스 파리 르무안(LeMoyne) 칼리지에서 현지 신부들로부터 인도차이나의 현실을 알게 됐고, 돌아오자마자 동생과 함께 ‘가톨릭 평화형제회(CPF)’를 조직, 반전운동을 시작했다.(AP, 2016.5.1) 67년 10월 펜타곤 앞 시위로 2주간 워싱턴D.C 감옥에 갇혔던 게 그의 첫 전과였다. <br/><br/>60,70년대 미국 사회는 흑인 등 소수자 인권과 베트남전쟁에 대한 입장으로 크게 양분돼 있었다. 형제를 세상 모르고 이적행위나 일삼는 철 없는 영웅주의자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교회로서도 그들은 눈엣가시였다. 가톨릭주교단은 65년 말 가톨릭노동자운동 소속 청년 로저 라포르테(Roger LaPorte, 1943~1965)가 베트남전에 반대하며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분신한 직ㆍ간접적 책임을 물어 대니얼을 남미로 사실상 추방했다. 현지 교회 사정을 살펴 보고하라는 게 임무였지만, 대니얼에게는 남미의 정치ㆍ사회 현실과 미국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계기, 전의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는 부자들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가톨릭교회의 현실, 극우 군사정권에 무기를 대는 미국 군사정책의 실상을 보았다.(WP) 그의 추방에 항의하는 자유주의 가톨릭 진영과 시민들의 압력에 굴복해 주교단이 그를 뉴욕으로 다시 불러 들인 건 약 5개월 뒤였다. 펜타곤 시위와 카튼스빌 사건 등은 그 직후의 일이었다. 훗날 대니얼은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두고 “<span class='quot0'>가톨릭교회에 소비에트식 통치 기법- 밀고와 추방, 사찰과 내사 등-을 도입한 인물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의 유산을 극복하려면 최소 한 세대는 지나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2008년 인터뷰) <br/><br/>필립은 72년 12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맥알리스트와 결혼, 볼티모어에 정착해 저 유명한 ‘요나하우스 jonah house’를 건설했다. 비폭력 저항의 공동체인 요나하우스는 96년 성 피터 공동묘지 내로 터전을 옮겨 농장을 일구며 반전 인권운동의 근거지가 됐다.<br/>80년 9월 8일, 펜실베니아 킹오브프러시아의 제너럴일렉트릭 군수공장에 들어가 핵미사일 ‘마크 12A’의 탄두 부품 노즈콘을 망치로 부수는, 최초의 ‘반핵 러다이트’(보습운동)를 이끈 것도 신부 대니얼과 전 신부 필립이었다.<br/>2006년 인터뷰에서 대니얼은 “무기에 대한 최초의 타격이었어요.(…) 현지에 도착한 우리는 부품이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지도 몰랐는데, 교대조가 드나드는 공장으로 무작정 들어갔더니 그게 있더군요. (…부품을 부순 뒤) 준비해 간 돼지 피를 뿌리고 빙 둘러서서 기도를 했죠.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이사야 2장 4절, 성서공회 개정개역판) <br/>재판에서 판사가 ‘이후로는 그런 행위를 삼가겠냐’고 묻자 대니얼은 타당한 질문은 그게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보기에 재판장님께서는 부시 대통령에게 미사일 만드는 걸 중단할 것인지 먼저 질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3~10년 형을 선고 받았지만, 10년간 이어진 상소와 항고 끝에 재판 기간을 수형 기간으로 인정받아(time-served) 실형을 살지는 않았다. 그 피고들 중에 훗날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 출연한 배우 겸 평화운동가 마틴 신(Martin Sheenㆍ 1940~, ‘플래툰’의 주연 찰리 신의 아버지)도 있었다. 에밀 드 안토니오(Emile de Antonio,1919~1989) 감독의 82년 영화 ‘In the King of Prussia’은 그들이 직접 연기한 그들의 이야기였다. 대니얼은 “마틴 신은 재판장 역이었는데, 필립과 나는 그에게 연기가 별로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충분히 사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br/>필립은 이후로도 활동을 지속하며 11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2002년 12월 6일 향년 79세로 별세했다. 독립영화 감독 린 삭스(Lynne Sachs)가 카튼스빌 사건을 소재로 2001년 다큐멘터리 ‘Investigation of a Flame’(2001)을 제작해 그 해 5월 메릴랜드 필름페스티벌에서 시사회를 열던 무렵 77세의 필립은 다른 시위 건으로 감옥에 있었다. 아내 맥알리스터는 “필립은 한결 같은 신앙인이었고, 변함없이 굳건했다. 그는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2년 12월 6일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br/> 대니얼은 뉴욕 시라큐스의 르모인칼리지와 뉴올리언스 로욜라대, UC버클리와 시카고 드폴대 등서도 교편을 잡았다. 동생과 함께 AIDS환자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했고, 2012년 맨해튼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에도 동참했다. 카튼스빌 사건 40주년이던 2008년 ‘The Nation’ 인터뷰에서 그는 “요즘이 내 생애 최악의 시기”라고 “지금처럼 미래가 안 보이던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해 전 보스턴칼리지가 이라크 침공의 매파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한 일, 대테러 전쟁의 선봉 마이클 무카시 검찰총장의 로스쿨 강연 등을 꼬집어 비난했다. “그들의 남루한 삶(shabby lives)이 모범이 되고 영예로운 일이 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삶의 원칙은 돈과 직장생활의 매트릭스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영적 기반 없는 사회운동, 특히 감정에 치우쳐 금세 폭발하고 꺼져버리는(short fuse) 좌파 운동의 짧은 주기를 못마땅해했다. <br/>하지만 그는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잃었을 뿐, 모든 걸 잃지는 않았다”고, “40주년을 기념하는 까닭도 지금 우리가 여기,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은, 뭔가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선이기에 좇을 가치가 있다.(…) 성경이 선의 결실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바 선을 능력껏, 조심스럽게, 비폭력적으로 실천하는 것에만 마음을 썼고,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다.”<br/><br/>그는 심혈관 질환으로 4월 30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Democracy Now!’는 부고 기사에서 조지타운대 신학대학장 체스터 질리스(Chester Gillis)의 말을 인용했다. “20세기의 가톨릭 선지자를 찾고자 한다면, 도로시 데이나 토머스 머튼과 함께 있을 베리건 신부를 찾으면 된다.” 최윤필기자 proos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57.txt

제목: [일문일답] 돌아온 원종현 "최고 151㎞... 체력만 버텨주면"  
날짜: 201605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26051646161  
본문: ▲ 원종현. /사진=NC <br/>NC 원종현(29)이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br/> <br/>24일부터 1군 훈련에 합류한 원종현은 25일 마산 SK전에 앞서 환한 얼굴로 1루 더그아웃에 앉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몸이 좋아졌다"며 "공 스피드도 생각보다 잘 나왔다. 지난주에 시속 151㎞를 찍었다. 145㎞는 평균 속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원종현의 상징 숫자인 155㎞를 다시 볼 수 있느냐는 말에 "그건 아직 모르겠다"고 웃었다.<br/> <br/>원종현은 이번 주말 함평에서 열리는 KIA와 퓨처스리그에서 이틀 연투를 하고 이상이 없다면 31일쯤 1군에 이름을 올린다. 대장암을 극복하고 1군에서 다시 던질 날을 꿈꿨던 순간이 다가오자 설레는 기분도 숨기지 못했다. 그는 "항상 마음은 1군에서 많이 던지고 싶었다"며 "올해 2군 대만 캠프 첫 경기에서 첫 타자를 상대할 때 가장 떨렸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종현과 일문일답.<br/> <br/>-지난해 플레이오프 시구 당시보다 얼굴이나 몸이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br/> <br/>"몸이 좋아졌다. 공 스피드도 생각보다 잘 나왔다. 지난주에 시속 151㎞를 찍었다. 145㎞는 평균 속도라고 보면 된다. 속도보다 공에 힘이 더 붙어야 한다."<br/> <br/>-오랜 만에 1군 합류라서 기분도 남다를 텐데.<br/> <br/>"합류해서 훈련을 재미있게 하고 있다. 2014년에 있을 때보다 여유가 더 생겼고, 지금 설레는 마음이다."<br/> <br/>-1군 합류 시기가 생각보다 빠르다.<br/> <br/>"감독님이 시간을 줘서 천천히 하자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상태가 빨리 좋아져 만족스럽다. 급하게 했다면 다칠 수도 있었는데 감독님이나 코칭스태프에서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줘 도움이 됐다."<br/> <br/>-밖에서 본 NC 불펜은 어땠나.<br/> <br/>"굉장히 잘하고 있어 '급하게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제는 어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생긴다."<br/> <br/>-지난해 시구 때 살이 많이 빠져 유니폼이 커 보였는데 지금은 잘 맞는지.<br/> <br/>"사이즈를 다시 재 잘 맞는다. 체중은 작년과 크게 변화가 없지만 근육량을 늘렸다. 한창 몸이 좋을 때에 비해서는 5~6㎏ 정도 덜 나간다. 현재 몸무게는 83~84㎏, 원래 몸무게는 88~89㎏까지 나갔다."<br/> <br/>-마지막 테스트로 2군에서 연투만 남았다.<br/> <br/>"이번 주말 함평에서 열리는 2군 경기에 연투를 하고 1군에 합류한다. 2군 첫 등판 때 일주일에 1경기, 그 다음주는 2경기, 지난주에는 3경기에 나갔다. 한 경기 투구 수도 35개까지 던졌다."<br/> <br/>-그토록 꿈꿨던 1군 마운드 등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느낌은 어떤지.<br/> <br/>"항상 마음은 1군에서 많이 던지고 싶었다. 가장 떨릴 때는 올해 2군 대만 캠프 첫 경기에서 첫 타자를 상대할 때였다."<br/> <br/>-1년 간의 힘든 재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br/> <br/>"다시 야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암 진단을 받았지만 그래도 야구를 다시 할 수는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구단과 부모님이 많은 도움을 줬다."<br/> <br/>-식단 관리도 신경을 쓸 것 같은데.<br/> <br/>"구운 음식이나 튀김, 기름진 음식을 못 먹는다. 맛있는 음식이지만 어차피 운동하는데 있어 좋은 음식은 아니다. 원래 많이 먹는 스타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 먹는다. 대신 간식을 중간중간 챙겨 먹으려고 한다."<br/> <br/>-힘들게 돌아온 만큼 앞으로가 더욱 중요할 텐데.<br/> <br/>"제일 중요한 건 체력 같다. 여름을 버텨내야 하는데 잘 먹고 관리를 해야겠다. 체력만 잘 버텨준다면 될 것 같다."<br/><br/><br/>창원=김지섭 기자 onio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58.txt

제목: 콤비어스 부부의 자살여행  
날짜: 201605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25051833343  
본문: [기억할 오늘] 5월 25일<br/>캐나다 벤쿠버의 엘리자베스(베티)와 조지 콤비어스(Coumbias) 부부는 2007년 동반 자살을 결심했다. 심장병을 얻어 17년째 일을 못하고 툭하면 응급실 신세를 져온 남편 조지의 상태가 악화했다. 부부로 48년을 함께 산 35년생 동갑내기인 그들에겐 한날 한시에 죽자는 신혼의 약속이 목숨만큼 중요했다고 한다. 부부는 스위스 디그니타스로 ‘자살 여행’을 떠났다. <br/>문제는 베티였다. 죽고자 하는 의지와 결심은 확고했지만, 그는 디그니타스의 조력자살 서비스 대상자가 되기엔 더없이 건강했다. 법적ㆍ윤리적 문제로 상시적인 비난과 법적 분쟁에 시달려온 디그니타스로서는 운신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불가 결정을 내렸고, 부부는 캐나다로 되돌아가야 했다. <br/>존 자리츠키(John Zaritsky)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 과정을 촬영, 그 해 말 ‘자살 여행자들(the suicide tourists)’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력자살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됐고, 조력자살 찬성론자 진영 안에서도 찬ㆍ반 격론이 일었다. 다큐멘터리에서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 <br/> “세상 사람 누구도 상관할 바 없는, 내 육신이고 내 결정이다. 아내도 동의했고, 가족도 동의했다.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고, 함께 행복하게 죽기를 늘 원해왔다.”(조지 콤비어스)<br/>“결혼한 그날부터 조지는 내 삶의 전부였다. 나는 두 딸을 사랑하지만, 그를 더 사랑한다. 그가 없는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없다.(…) 디그니타스에 대한 자료를 읽고 우리는 동반 자살보다 더 나은 길, 서로의 품에서 함께 죽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됐다.”(베티 콤비어스)<br/>그 해 말 NPR 인터뷰에서 자리츠키 감독은 “죽을 권리의 한계를 극단까지 밀어붙여 보고 싶었다.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에게도 그 권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사회에 던져보기 위해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br/>2년 뒤인 2009년 5월 25일 베티가 먼저 암으로 별세했다. 그들의 얄궂은 운명, 어긋나버린 신혼의 약속은 또 숱한 논란과 화제를 낳았다. 조지는 여전히 심장병을 지닌 채 살아 있다.<br/>최윤필기자 proos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59.txt

제목: 이종석, 한국임상암학회 제11대 회장  
날짜: 201605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25051636700  
본문: 이종석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최근 열린 한국임상암학회 제14차 정기심포지엄 및 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한국임상암학회가 24일 밝혔다. 이 회장은 암환자의 맞춤 치료를 위한 다학제 치료 시스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임기는 1년.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60.txt

제목: [헬스 프리즘] 다시 뛰는 심장으로  
날짜: 2016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24052146105  
본문: 김재중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장(심장내과 교수)<br/>얼마 전 진료실에서 심부전으로 투병하다 심장이식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환자 몇 명이 설악산을 시작으로 백두대간 종주에 나섰다. 이들은 환우회 모임이나 병원에서 심장이식 대기자나 심장이식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환우들을 위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도움을 주는 분들이다.<br/>백두대간 종주를 통해 산을 오를 때 머리까지 울리는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심장을 기증해주고 떠난 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싶다고 했다. 또한 본인들의 도전이 장기 기증 문화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일 년에 몇 번씩 진료실에서 만나 상담과 약 처방을 해주던 환자들이지만, 그날만큼은 내가 환자가 되어 그들에게 ‘도전과 희망’이란 처방전을 받는 기분이었다. <br/>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의 질환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4년 사망원인 중 심장질환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2.4명이었다. 2013년과 대비해 증가율은 4.4%로 암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10년 전에는 사망순위 3위였지만 이제는 뇌혈관 질환을 제치고 2위로 높아졌다. <br/>사망률이 늘었다고 하지만 최근 20년간 심장학계에서는 수술이나 치료 방법의 개발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수술이 어려운 판막질환 환자들에게 가슴을 열지 않고도 인공판막으로 교체할 수 있는 스텐트 치료를 시작했고, 심장혈관에 넣는 스텐트는 최근 몸 속에서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형태까지 진화했다.<br/>인공심장이 개발돼 뇌사자로부터 심장을 기증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으며 3차원 검사기기를 이용한 부정맥의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로봇수술 등 다양한 수술법도 개발되었다. <br/>심장과 폐 기능이 모두 망가져 생사를 넘나들던 중증 환자들이 이제는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 소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에크모 치료로 10명 중 7명 이상이 생존할 수 있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이다. 또한 초응급 상황인 대동맥 질환 환자를 위해 의료진간의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어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br/>이러한 의료진의 노력이 사망률 감소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운동습관과 올바른 식이관리, 금연 등 심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심장질환이 생기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문가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br/>최근에는 각종 단체나 언론에서 심장질환의 골든타임, 심폐소생술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어 이제는 심정지 시 흉부압박 정도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익숙한 응급처치법이 되었다. 나아가 직장인, 학부모, 고령층에서도 각종 사이트나 동영상,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들을 통해 숙지해야 할 것이다.<br/>심부전으로 숨이 차서 몇 걸음조차 걷기 어려웠던 환자들이 ‘다시 뛰는 심장으로’ 백두대간 종주를 꿈꿀 수 있는 것처럼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은 결코 과욕이 아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61.txt

제목: [태블릿+] ‘키트루다’, 이젠 폐암 정복 나선다  
날짜: 2016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24052142429  
본문: 폐암은 국내 사망률 1위로 악명이 높다. 연간 2만 3,000명의 환자가 새로 폐암으로 진단 받는다. 폐암 사망자가 전체 암 사망자의 25% 정도나 차지한다. 30분에 1명꼴로 폐암으로 숨을 거둔다. <br/>세포독성 항암제, 표적치료제 등의 약물 치료 옵션이 있었지만, 기존 치료제들은 구토, 탈모 등의 부작용이나 내성 발현 같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 치료제 부작용과 내성이 생기거나, 치료 후에도 완화가 어려우면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옵션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br/>그런데 최근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ㆍ사진)가 최근 국내에서 비소(非小)세포폐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폐암의 80%정도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옵션을 줄 것으로 보인다. 키트루다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용한 새로운 메커니즘의 항암제로, 최근 뇌 전이 흑색종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투여 후 회복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br/>인체 내 면역세포(T-cell)는 본래 암세포 같은 이상물질이 나타나면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암세포는 PD-L1과 같은 특정물질을 발현해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한다. 암세포에서 나오는 PD-L1이라는 단백질이 면역세포의 PD-1이라는 수용체와 결합하면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인지하지 못해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抗)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암 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할 수 없도록 PD-1과 PD-L1의 결합을 막는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하고 공격하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암 세포 자체를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의 전신 부작용이나 내성 문제가 적다고 알려져 있다. 폐암에서도 카터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br/>그러나 면역항암제 효과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면역항암제는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효과가 높고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적합한 환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선별 기준 중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PD-L1의 발현율(암세포에서 PD-L1이 있는 정도)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PD-L1 발현율이 양성인(50% 이상)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경우 항PD-1 면역항암제 투여 시 객관적 반응율(일정 기간 동안 종양 감소비율)이 45.2%로, PD-L1 발현율이 크게 낮은 환자군(1% 이하)보다 4배 이상 효과가 우수했다. PD-L1 발현율이 높을수록 면역항암제 치료효과도 좋을 것으로 예측된다. 폐암 환자에서 PD-L1 발현 여부는 효과적인 면역항암치료에서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br/> 조병철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면역항암제를 활용한 새로운 암 치료 패러다임은 이제 시작단계</span>”라며 “<span class='quot0'>향후 여러 암종에서 기본 항암치료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span>”고 말했다. 조 교수는 “면역항암제 효과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환자 안전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항암치료 전문의와 상담 후 처방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62.txt

제목: 부산 의ㆍ과학산단, 기업유치 본격화  
날짜: 2016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24052053162  
본문: 부산시와 기장군은 24일 오후 5시 센텀사이언스파크 23층 스카이홀에서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제약바이오기업 5개사와 지역 4개 대학병원, 부산시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인 BISTEP과 ‘의ㆍ과학산단 투자 및 지역 의료산업 발전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합동 MOU’를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br/>이번에 유치한 5개사 중 3개사(듀켐바이오, 삼영유니텍, 새한산업)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암, 치매 등을 진단하는 방사성의약품제조 기업으로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강소기업들이다.<br/>또한 ‘호진산업기연’은 비파괴검사용(산업용) 밀봉방사선원 국내 수요량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해외 수출시장을 꾸준히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안과 수술용기구 제조업체인 ‘티아이’는 고탄성 와이어로프와 고주파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기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 생산중인 업체다.<br/>뿐만 아니라 이번 MOU체결에는 지역 4개 대학병원과 BISTEP이 함께 참여, 의·과학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과 이미 구축중인 방사선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 사업화를 지원,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한편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br/>한편 이번 제약바이오기업 5개사 동시 유치 성과를 거둔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사무관 시절 이후 30년간 경제분야에서만 일해온 ‘경제통’으로 2007년 과학기술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동부산권에 방사선 의과학산단 및 국립부산과학관, 서부산권에 연구개발특구를 최초 입안한 장본인이다. 또 2010년 7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을 시작으로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유치 및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 추진 등 의과학산단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br/>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ㆍ과학산단 내 주요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연관기업 유치 집적화로 이 일대를 의료바이오, 제약, IT, 자동차 등 방사선융합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 방사선의과학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63.txt

제목: “암세포만 정밀타격” 암치료 새 시대 연다  
날짜: 201605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24051810477  
본문: 국내 주요병원들이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양성자 치료와 중입자 치료에 뛰어들면서 암 환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br/>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이달부터 양성자 치료를 시작했고 세브란스병원도 최근 2020년까지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사선 치료의 일종인 양성자·중입자 치료는 각각 수소와 탄소의 입자를 가속화해 암을 정밀타격하는 방식으로 원리는 동일하다.<br/> 삼성서울병원에 앞서 국립암센터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양성자 치료는 수소 원자핵의 소립자인 양성자를 빛의 60%에 달하는 속도로 가속화해 암 조직을 파괴한다.<br/>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중입자 치료기는 탄소 등 무거운 원소의 중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올린 뒤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방법이다.<br/> 두 치료 모두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고 암세포만을 파괴하는 브래그 피크(Bragg Peak)라는 입자방사선의 특징을 이용한다. 브래그 피크는 몸속 정상조직은 투과하고 암 조직에 도달하는 순간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급격히 사라지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암 치료법은 환자 몸 전체에 전방위적인 공격을 퍼붓던 기존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현격히 줄인다는 장점을 내세운다.<br/> 특히 양성자 치료는 이런 정밀타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양성자 빔 조준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기술 등이 마련된 상태다. 예를 들어 이번에 가동된 삼성서울병원의 양성자 치료기는 양성자 빔을 종양 부위에 선을 쌓듯이 쏘는 라인스캐닝 방식을 택해 점을 찍는 스팟스캐닝보다 누락이나 중첩부위 없이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br/> 반면 중입자 치료는 암 파괴력이 양성자보다 3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입자 치료 기반이 되는 탄소는 양성자 치료에 이용되는 수소보다 무거워서 암을 타격할 때 분출하는 에너지양도 그만큼 커지는 원리다.<br/>게다가 두 치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고가의 치료비 부담(본인부담)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희망적이라는 게 의료계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두경부암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양성자 치료 건강보험을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 등에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00만~2,000만원에 이르는 양성자 치료비는 500만~600만원 선으로 줄어들었고 중입자 치료 역시 국내에 도입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br/>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64.txt

제목: “언제 어디서나 목숨 걱정해야”…여성들 섬뜩한 일상  
날짜: 201605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21052257187  
본문: 살인ㆍ성폭행ㆍ강도ㆍ방화 등<br/>여성 대상 강력범죄 폭발적 증가<br/>여자들만 살면 범죄 노출 걱정<br/>화장실 이용 때는 옆 칸 확인…<br/>일상 속 체감 공포는 훨씬 더해<br/>“<span class='quot0'>일부 남성의 왜곡된 젠더의식 등 바로잡아야</span>”<br/>“<span class='quot0'>화장실에 들어갔다 운이 좋으면 그냥 나오지만 운이 나쁘면 몰래카메라에 찍히고 더 운이 나쁘면 죽는 게 대한민국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죠.</span>”<br/>직장인 김모(27ㆍ여)씨는 밤 10시가 넘어 거리를 걸을 때면 손가락 사이에 열쇠를 끼우고 혹시 모를 누군가의 공격에 대비한다. 그는 중학생 때 집 대문 바로 앞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입을 막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던 끔찍한 경험이 있다. 고교 시절에는 침 맞으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할 뻔하기도 했다. 두 번의 위험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긴 했지만 성인이 된 지금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범죄의 공포는 전혀 줄지 않았다. 김씨는 20일 “<span class='quot1'>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살인 사건을 보면서 특히 여성은 언제 어디에서나 목숨을 걱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좌절했고, 더 불안해졌다</span>”고 말했다.<br/>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던 남성이 강남역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들어오길 기다렸다 저지른 살인 사건 이후 강력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여서 사회의 근본적 인식 전환,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br/>화장실 살인사건 전에도 여성혐오 등을 이유로 한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2014년 3월 서울 서초구에선 공익근무요원이었던 20대 남성이 길 가던 20대 여성을 벽돌 등으로 무참히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특히 그는 “여성은 암적인 존재다” 같은 살인 행동수칙을 마련해 충격을 줬다. 같은 해 7월 울산에서도 2년 전 군에서 제대하고 백수로 지내던 20대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홧김에 일면식도 없던 여대생을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br/>경찰청 범죄 통계를 봐도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에서 여성 피해 비중은 최근 2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995년 9,762명의 전체 피해자 가운데 67.5%(6,587명)를 차지했던 여성 비율은 2005년 71.9%, 2010년 80.9%에 이어 2014년에는 86.0%까지 치솟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한국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보다 신체적 조건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을 남성 범죄자들이 집중적으로 노린 결과</span>”라고 분석했다. <br/>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살해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52.5%)는 일본ㆍ홍콩(52.9%) 등과 함께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br/>일상에서 여성들이 체감하는 범죄 공포는 통계 수치 그 이상이다. 서울의 한 복도식 오피스텔에서 여동생과 자취를 하는 직장인 윤모(25ㆍ여)씨는 “<span class='quot3'>여자들만 사는 집이라는 걸 알고 해코지할까 봐 복도에 사람이 있으면 한참을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간다</span>”며 “<span class='quot3'>공공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양 옆 칸이 비었는지 모두 확인할 정도로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span>”고 털어놨다.<br/>이런 여성들의 두려움과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일부 남성들의 비뚤어진 젠더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모든 여성들이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단순히 성별에 따른 혐오의 차원을 떠나 한국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이 범죄의 뿌리가 됐다</span>”고 진단했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장은 “<span class='quot5'>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여성을 비하하고, 상품화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의식부터 바꿔나가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보다 근본적으로는 오랫동안 뿌리내린 여성차별ㆍ혐오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는 “<span class='quot6'>가부장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겼던 남성성이 무너지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남성들이 이를 손쉽게 해소하기 위해 된장녀, 김치녀 등 짓밟혀도 되는 여성들이 있다는 여성혐오 문화를 사회적 진리화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6'>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사회의 남성과 여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br/>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65.txt

제목: 진도 꽃게는 ‘금(金)게’  
날짜: 201605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20052002751  
본문: 어획량 지난해 절반… 가격은 급등 <br/>금어기는 다가오는데 어민들 울상 <br/><br/><br/>“<span class='quot0'>꽃게가 제철인데 구경 조차 못해 걱정이 크네요</span>”<br/>전남 진도지역의 봄 꽃게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br/>특히 진도꽃게는 알이 통통하고 오르고 살이 단단해 전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어민들의 시름은 더 하다.<br/>19일 진도군수협에 따르면 봄 꽃게잡이가 시작된 지난 3월말부터 이달 12일 현재까지 서망항 위판량은 모두 140톤으로 지난해 283톤, 2014년 225톤에 비해 50% 감소했다.<br/>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꽃게 값은 급등해 암 꽃게의 경우 ㎏당 지난해 2만7,000원하던 것이 올해에는 4만원까지 올랐다. 한때 가격이 높을 경우 6만~7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br/>진도 어민들은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조업기간을 4~6월, 9~11월로 한정하고 있어 소득에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br/>진도 앞바다는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한 갯바위 모래층이 잘 발달돼 우리나라 꽃게 어획량의 25%가 생산되고 있으며 오는 6월20일까지 조업이 가능하다.<br/>진도군 통발협회 김영서 회장은“<span class='quot1'>올 3월부터 계속된 이상 기온과 꽃게 개체수 부족 등으로 진도해역의 어획량이 평소의 절반도 안되고 있다</span>”며“<span class='quot1'>꽃게자원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과도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소형개체의 어획금지 등 자원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어업관리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한편 진도군은 수협중앙회, 진도군수협, 통발협회 등과 함께 1억원 상당의 꽃게 치어 방류 사업을 오는 6월말부터 조도면 내·외병도 일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br/>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66.txt

제목: 보정속옷이 심장병 예방? …노인 울린 사기단  
날짜: 201605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18053116195  
본문: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노인들에게 보정속옷 등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정모(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br/>정씨 등은 지난 1~3월 성남 수정구 일대 상가건물을 단기 임대해 속칭 ‘떴다방’을 차린 뒤 노인들에게 가공식품, 보정속옷 등을 암, 고혈압, 당뇨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팔아 7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br/>이들은 경품과 공연 등으로 노인 300여 명을 현혹해 28만 원짜리 보정속옷을 “심장병에 좋다”며 49만8,000원에 판매하는 등 2,3배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장소를 옮기고 노인들을 회원 관리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br/>경찰은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br/><br/>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67.txt

제목: 혈뇨 생기면 절반 가량이 암?  
날짜: 2016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17052140114  
본문: 혈뇨 환자 가운데 절반 정도에서 암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br/>강석호 고대 안암병원 비뇨기과 교수팀은 최근 5년간 병원을 찾은 22∼90세 혈뇨환자 367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176명(48%)이 암 환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혈뇨환자에서 나타난 암은 방광암이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관암(7.6%), 전립선암ㆍ콩팥암(각 3.5%) 등의 순이이었다.<br/>방광 및 요관 등 소변이 지나가는 요로계에 암이 생기면, 정상 상황에서는 출혈이 생기지 않는 일상 자극에도 쉽게 피가 나오며 혈뇨가 나타난다. 하지만 혈뇨 증상이 심하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콩팥암이나 전립선암도 암이 진행돼 요관이나 요도를 침범하는 3기 이상이 되면 출혈이 생겨 혈뇨가 발생한다.<br/>강 교수는 "혈뇨는 비뇨기계 암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며 "이번 조사에서 혈뇨환자의 80%가 눈으로 혈뇨가 확인 가능한 육안적 혈뇨환자인 만큼, 혈뇨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br/>그는 "특히 암으로 인한 혈뇨의 경우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염증이나 결석과 달리 대게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무시하면 병을 키우기 쉽다"고 덧붙였다.<br/>혈뇨란 소변에 비정상적인 적혈구가 함께 배출되는 것이다. 눈으로 색깔 변화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혈뇨인 육안적 혈뇨와,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현미경적 혈뇨로 나뉜다.<br/>보통 소변을 현미경적 고배율(100배 시야)로 검사했을 때 적혈구가 5개 이상이면 혈뇨라고 한다. 혈뇨가 발생하면 더욱 자세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소변검사 이외에 방광내시경,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같은 영상검사, 조직 검사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68.txt

제목: 생리통이려니 했는데…자궁내막증  
날짜: 2016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17052138974  
본문: 초경 빨라지고, 결혼ㆍ출산 늦어져…환경호르몬도 원인<br/><br/> “너무나 고통스럽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리통인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니다. 생리를 할 때마다 고통이 증가됐다. 하는 수 없이 병원을 찾았다. 자궁내막증이라고 한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br/> 지난달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은 직장여성 김모(29)씨 사례다. 최근 20~30대 여성들이 자궁내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궁내막에 있는 조직이 자궁내막이 아닌 다른 곳에 붙어 자궁 안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가 자궁 밖에서 발생해 주변조직을 해치고 출혈을 유발하는 질환이 자궁내막증이다. 어느 장기에 유착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생긴다. 방광과 직장에 달라붙으면 통증과 함께 배변통이 발생한다. 요도에 달라붙으면 성교통이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코 점막에 유착되면 생리 때마다 코피가 난다.<br/> 원래 자궁내막증은 40대 이상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012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57.8%가 40~50대이다. 20대는 11.8%, 30대는 28.8%정도다. 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0'>최근 20~30대 자궁내막증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span>”고 했다. <br/>자궁내막증이 가임기 젊은 여성에게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아직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자궁내막증은 생리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젊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추정된다. 여기에 초경 연령이 낮아졌고,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결혼과 출산이 늦춰진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자궁내막증은 임신과 출산을 하면 급격히 줄어든다. 환경호르몬 증가도 문제다. 박성호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환경호르몬이 자궁내막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주웅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등도 위험인자</span>”라고 말했다.<br/> 자궁내막증은 ‘보이지 않는 암’으로 불린다. 질환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월경통, 월경 전 통증, 성교통, 만성골반통증, 배란통과 함께 허리통증, 만성피로 증상이 생긴다. 증상이 악화되면 말기 암처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로 악화하는 것이다. 주 교수는 “<span class='quot2'>젊었을 때 생긴 자궁내막증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 난소암 일종인 투명세포암을 유발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불임을 유발할 수도 있다. 수정이 이뤄지는 나팔관 쪽에 자궁내막조직이 유착되면 나팔관의 운동력이 떨어져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경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난임 여성의 20~30%에서 자궁내막증이 발견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불임 여성은 자궁내막증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3'>평소 생리통이 없던 여성이 생리통을 앓거나 심해졌다면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자궁내막증은 발견도 어렵지만 진단 후 병변을 수술로 제거해도 만성질환처럼 재발률이 높아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 주 교수는 “<span class='quot2'>자궁내막증은 수술 후 2년간 재발률이 약 20%, 5년간 재발률은 40~50%에 이른다</span>”며 “<span class='quot2'>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자궁내막증은 예방수단이 없어 치유하기 어려울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69.txt

제목: 부천시, 버스 불법 암행단속… 적발 기사들 불이익 우려도  
날짜: 201605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17051958686  
본문: 경기 부천시 공무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직접 타 정류장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등을 직접 단속한다.<br/>부천시는 다음달 3일까지 버스 암행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천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인터넷과 전화로 교통 불편 민원이 집중 제기된 일부 노선이 대상이다. 부천에선 58개 노선에 시내버스 6개 업체 868대, 마을버스 5개 업체 68대 등 모두 936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다.<br/>암행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은 하루에 버스 3, 4대씩을 갈아타며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신호 위반, 법정 부착물 여부 등을 확인해 과태료 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또 불친절 행위, 차고지 배차시간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해 업체 통보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br/>시는 다음달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뒤에도 주 1, 2차례 교통 단속원을 통해 암행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버스업체를 방문해 교통안전, 친절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br/>지난해 접수된 부천 시내버스 교통 불편 사항들을 살펴보면 무정차 민원이 38.3%로 가장 많았고 운전사 불친절(14.3%,) 난폭운전(13.0%), 배차 간격 미준수(10.8%) 등이 뒤를 이었다.<br/>시가 암행 형태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단속에서 적발된 버스기사들이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상황과 공무원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비노출’ 단속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br/>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무정차 통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단속에서 적발된 버스기사가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신호 위반, 난폭운전 등은 시민 안전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단속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암행 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에 버스기사들이 스스로 주의하는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span>”고 말했다.<br/>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70.txt

제목: 서수남의 '브라보 마이 황혼 라이프'  
날짜: 2016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14052044281  
본문: 일흔넷 서수남의 “브라보 황혼 라이프”<br/>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MBC 오전 9.00)<br/>통기타와 함께한 서수남의 노래인생도 어느덧 52년이다. 그는 지금도 매일 일정을 소화하며 전성기 못지않게 바쁜 나날을 보내는 현역 가수다. 그런 서수남의 취미는 사진이다. 소소한 일상인 식사부터 스케줄까지, 모든 일과를 카메라에 담는다. 그가 찍은 사진은 12년 전부터 운영해온 블로그 ‘서수남의 마이 라이프’에 오르고 있다. 블로그를 다녀간 누적 방문객 수만 550만 명이고 하루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블로그를 찾는다.<br/><br/><br/>인공지능은 인류를 어떻게 바꿀까<br/>특집 다큐멘터리(SBS 밤 11.10)<br/>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현실까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발전한 첨단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 가상현실 속에 진짜 못지 않은 친구와 애인이 등장했으며 심지어 일본에는 로봇이 선생님을 대신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이미 인공지능 기술이 암 진단 등에 폭넓게 활용되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새로 정의한다.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인가, 또는 오히려 인간을 고립시키는 위협이 될 것인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71.txt

제목: 김석철 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별세  
날짜: 2016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13051500180  
본문: ‘예술의전당’ 설계자로 널리 알려진 김석철 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12일 오전 8시 별세했다. 향년 73세.<br/>1943년생인 고인은 경기고, 서울대 건축과를 거쳐 한국 현대건축의 두 거장이라 불리는 김중업(1922~1988), 김수근(1931~1986)에게 건축을 배웠다. 어릴 적부터 천재로 불렸고 대학 때 이미 학교 수업이 따분하다 했던 고인은 26세 때 지금의 여의도와 한강의 형태를 잡은 ‘한강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었고 종묘~남산 일대 재개발 계획을 짜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건축 연구소를 만들고 건축잡지를 창간하는 등 우리 건축계를 주도해나갔다. <br/>예술의전당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대 캠퍼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등을 지었고,제주영화박물관, 한샘시화공장 등으로 각종 건축상을 휩쓸기도 했다. 쿠웨이트의 자흐라 신도시, 중국 베이징 경제특구,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신도시 등 도시 규모의 기획, 설계 작업까지 진행했다. 건축과 도시설계에 인문학적 정신을 접목하려 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의 작품을 두고 논란도 있다. 가령 예술의전당의 경우 한국적 미를 살렸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술이나 시민을 품기엔 부족한 공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시 건축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br/>59세가 되던 해에 암이 발병하고 심장 질환까지 앓게 되면서 몇차례 수술을 거치며 투병생활을 해왔다. 그 와중에도 2013년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맡아 남북이 공동투자하고 중국까지 끌어들이는 ‘압록강 통일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도시설계를 통해 통일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교류와 평화에 기여하자는 아이디어다. 베네치아건축도시대, 뉴욕의 컬럼비아건축대학원, 중국 칭화대, 명지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동생이다. 유족으로는 영재(아키반건축도시연구원 실장)ㆍ국희ㆍ혜원ㆍ영나씨 등 1남 3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은 15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도 안성 원곡면 산하리. 02-2072-2091<br/><br/>황수현기자 sooh@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72.txt

제목: 故장진영 아버지 “전 재산 기부 사실 아냐”  
날짜: 201605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13051431069  
본문: 배우 故 장진영(1972~2009)의 아버지 장길남(81) 계암장학회 이사장이 전 재산 기부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br/>장 이사장은 12일 “<span class='quot0'>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재산 기부는 가족회의까지 거쳐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0'>그렇지만 사회 공익적 활동과 장학 사업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다</span>”고 말했다. <br/>장 이사장은 2009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딸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10년 3월 사재 11억여원으로 계암장학회를 설립했다. 이후 수년째 소외된 환경에 있는 인재들을 후원하고 있다. <br/>2012년 전북대에 1억원을 쾌척했고 지난해에도 5,000만원을 기부했다. 매년 수십 명의 전북지역 중·고교생도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br/>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장진영씨는 1992년 미스코리아 충남 진으로 뽑힌 후 연예계에 데뷔했고 영화 ‘반칙왕’과 ‘오버 더 레인보우’, ‘국화꽃 향기’, ‘싱글즈’, ‘청연’ 등에 출연해 톱스타로 활동하던 중 2009년 9월 1일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br/><br/>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73.txt

제목: 우리시대 명장들이 재현한 황룡사 9층 목탑, 진천 보탑사 통일대탑  
날짜: 201605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12051152572  
본문: “<span class='quot0'>나에게 전통건축가로서의 긍지를 갖게 한 작품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보탑사라고 이야기할 것이다.</span>” 1974년부터 수많은 한옥을 지어온 문화재보수기술자 김영일(74)씨가 ‘한옥, 사람이 살고 세월이 머무는 곳’(청아출판사, 2014)에서 자신 있게 밝힌 대목이다. <br/><br/><br/><br/>충북 진천으로 발길을 잡은 단 하나의 이유도 바로 보탑사다. ‘우리시대의 문화재’라는 지인의 추천에 호기심도 일었다. 1991년 공사를 시작해 3층 목탑을 짓는데 5년이 걸렸고 2014년에야 부속건물 공사까지 마쳤으니 완공까지 꼬박 23년이 걸렸다. 내력으로만 보면 천년 고찰이 수두룩한 한국불교건축사에 명함도 못 내밀 신생 사찰이지만 보탑사에는 신영훈 초대 한옥문화원원장, 단청명인 고 한석성, 도편수 고 조희환을 비롯해 도공, 와공, 석공, 야철장, 조각장 등 문화재급 한옥전문가들의 집념과 기술력이 응축돼 있다. <br/>진천읍에서 백곡면으로 넘어가는 313번 지방도를 따라가다 고개마루 조금 못 미쳐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자그만 연곡저수지가 나온다. 파르스름한 물빛이 규모에 비해 제법 깊어 보인다. 만뢰산(혹은 보련산, 612m) 자락에서 흘러내린 계곡은 위압적이지 않고 아늑함이 느껴진다. 올망졸망한 산자락에 둘러싸인 지세가 꼭 한 겹 두 겹 피어나는 연꽃 잎을 닮았다. 저수지를 지나 약 1km 정도 좁은 도로를 오르면 길이 끝나고, 이 산골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웅장한 건물을 만난다. 대부분 산사는 숲과 나무에 가려져서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42.73m, 아파트 14층 높이의 보탑사 3층 목조건물은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공식명칭은 ‘보련산 보탑사 통일대탑’,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이 삼국통일을 기원하듯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은 이름이다. 김영일씨의 주장에 따르면 탑이 세워진 곳은 연꽃의 한 가운데 꽃술에 해당하는 지점이다.<br/><br/>보탑사 이전까지 국내에는 보은 법주사 팔상전(국보 제55호)과 화순 쌍봉사 대웅전(보물 제163호) 등 2개의 목탑만 전해왔다. 외관은 각각 5층과 3층이지만 실제 1층만 들어갈 수 있고 위로는 올라갈 수 없다. 보탑사 통일대탑이 이 두 목탑과 가장 다른 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1층 대웅전에서 2층 법보전, 3층 미륵전이 내부 계단으로 연결돼 있다. 일반적인 사찰에서 최소 3개 전각이 필요한 것을 하나의 목탑에 전부 넣은 셈이다.<br/>김영일씨는 “<span class='quot1'>최대한 옛 백제 장인 아비지가 만들었던 황룡사 목탑의 양식을 현대에 복원한다는 기분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며 공사를 했다</span>”고 회고한다. 아파트 27층에 해당하는 80m 높이의 황룡사 9층 목탑을 재현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 목탑도 거의 둘러봤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영감을 준 것은 경주 남산 탑골의 바위에 새겨진 목탑 조각이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br/>보탑사 통일대탑은 겉모습만 특이한 게 아니라 내부구조도 다른 사찰과 많이 다르다. 보통 대웅전은 정면에 하나의 불상을 모시지만, 통일대탑 1층엔 찰주(擦柱, 불탑의 중심기둥)를 중심으로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아미타여래불, 약사여래불 등 사방에 부처를 모셨다. 찰주는 999개의 석탑으로 장식해 통일대탑까지 1,000개의 탑이 완성되도록 했다. <br/>겉보기는 3층이지만 각 층 사이에 2개의 숨겨진 층(암층)이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한옥에서 천장과 지붕 사이 공간에 다락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1~2층 사이 공간은 불상의 머리 위라는 점을 감안해 개방하지 않고 있지만, 2~3층 사이 암층은 전시실과 강연장으로 유용하게 사용한다. 겉에서 보이지 않아 암층이라 하지만 일반 가정집보다는 천장이 높아 전혀 불편함이 없다. 또 2층 법보전과 3층 미륵전의 문을 열면 주위로 마루 난간을 설치해 탑돌이하듯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평시에는 문을 닫아 놓은 점이 아쉽다. <br/>통일대탑 뿐만 아니라 부속건물과 공간배치도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로 가득하다. 매년 초파일을 전후해 약사여래불 앞에는 신도들이 수박을 많이 올리는데, 동짓날 팥죽을 나눌 때 이 수박도 함께 나눠 먹는단다. 불전에 놔둔 수박이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상하지 않고 젤리처럼 말캉말캉한 상태를 유지한다니 믿기지 않는 얘기다. <br/>사실관계는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바람·비·햇빛 등 여러 자연요소를 고려해 가람을 배치했다는 설명을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보탑사 앞에는 수령 350년 된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김영일씨는 “<span class='quot1'>거기서 올라오는 바람이 바람개비처럼 부속건물의 지붕을 타고 북쪽으로 빠져나가도록</span>”해서 통일대탑 지붕에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했다고 적었다. 물론 ‘썩지 않는 수박’ 얘기는 없다. <br/>이곳을 전통 건축 전시장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그의 의도를 알고 보면 건물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다. 언뜻 봐서 쉽게 알 수 없지만 보탑사 부속건물의 지붕은 다양한 각을 적용하고 있다. 약수터의 지붕(수각)은 원형이고, 영산전은 8각, 범종각은 7각, 법고각은 9각 지붕이다. 산신각은 한국 전통 귀틀집으로 지었고, 원장스님의 처소인 삼소실 지붕엔 너와를 얹었다.<br/><br/><br/><br/>영산전의 500나한은 신도들이 기증한 것으로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데, 방향도 맞추지 않아 그야말로 야단법석이다. 부처의 열반상을 모신 적조전 앞에는 대형 불족석(佛足石)이 눈길을 잡는다. 요즘으로 말하면 스타의 풋프린팅(foot printing)인데, 발자국 안에 물이 고이고 빗방울이 떨어질 때면 안에 새겨 놓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듯한 착시를 일으킨다. 다양한 모습 속에 질서와 조화, 위트까지 담으려는 건축가의 의도가 곳곳에 배어있다.<br/>통일대탑의 위용에도 불구하고 보탑사는 근엄함과는 거리가 있다. 부속건물 주위는 웬만한 정원 못지않게 꽃과 나무로 어우러져 있고, 그것도 모자라 갖가지 야생화를 모은 대형 화분으로 통일대탑 주변을 장식했다.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단청이 바닥에 떨어진 듯, 절간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봄날 꿈길처럼 아련하다. <br/>통일대탑에는 현재로선 확인 불가능한 비밀도 숨어있다. 3층 미륵전 위 불탑의 꼭대기 부분에 능엄경·법화경 등 불교 경전과 사적기(寺跡記)를 보관한 타임캡슐을 넣었는데, 불기 3000년인 서기 2456년에 공개할 예정이다. “<span class='quot0'>그때 저는 나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span>”함영미 진천군 해설사처럼 440년 후 보탑사가 어떤 모습일지,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자못 궁금하다. <br/><br/>진천=최흥수기자 choissoo@hankookilbo.com<br/><br/>[여행수첩]<br/>●진천에는 김유신과 관련한 유적이 2곳 있다. 보탑사 가는 길 약 4km 아래에는 김유신 탄생지가 있다. 삼국유사에 김유신 출생지를 만노군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의 진천군이다. 탄생지 인근에 당시 우물로 사용했다는 연보정과 태실의 흔적이 남아 있다. ●진천읍 벽암리에는 김유신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인 길상사(吉祥祠)가 자리잡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사찰과 한글 이름이 같아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보탑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은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 생태연못과 밀원식물원 수목원 등으로 꾸며 가족끼리 자리 깔고 도시락 식사를 하기에도 적당하다. ●보탑사 아래 연곡저수지 인근의 ‘산모롱이’식당(043-535-8059)은 연잎밥과 곤드레밥을 잘하는 식당인데, 주 메뉴 못지않게 주인장이 산과 들에서 채취한 10여가지 제철 나물 반찬이 푸짐하다. ●초평면 초평저수지 인근 송애집(043-532-6228)은 붕어찜을 잘 하기로 소문나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74.txt

제목: 모바일 게임 기업 상장의 명과 암  
날짜: 201605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11052054578  
본문: 넷마블게임즈, 썸에이지 등 모바일 게임 기업들이 상장 준비에 나섰다. 2013년 선데이토즈가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상장 러시가 올해도 이어지는 모습이다.<br/> 최근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모바일 게임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코스닥 문을 두드린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br/>■ 모바일 기업들의 코스닥 입성 러시<br/>올해는 업계에서 내노라하는 게임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br/>넷마블 게임즈는 자체 행사 '2nd NTP'를 통해 상장 계획을 밝힌 후 대표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상장을 준비중이다. 이어 넷마블엔투, 넷마블넥서스, 넷마블몬스터 등 개발 자회사까지 순차적인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br/>/▲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2nd NTP에서 기업 상장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넷마블게임즈 제공<br/> <br/>넷마블의 경우 개발과 퍼블리싱을 기록하고 있고 매 분기마다 2,000억에서 3,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만 1조729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넥슨과 함께 '매출 1조원 클럽'에 가입했고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3,262억원의 매출과 59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다.<br/> 해외 매출 비중도 분기 사상 최대치인 48%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마블 퓨처 파이트'와 '모두의마블'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던 넷마블은 '스톤에이지' '디즈니 매지컬다이스'를 통해 해외 매출을 50%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br/>/▲ 넷마블 제공<br/> <br/>현재 증권업계에서 예상하는 넷마블의 기업가치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이는 약 7조원대의 넥슨과 약 5조원대의 엔씨소프트보다 높은 평가치로 향후 성장 속도를 감안한 수치라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br/> 썸에이지는 13일부터 코스닥 거래를 시작한다. 최근 '로스트킹덤'으로 매출 순위 10위권에 안착한 네시삼십삼분(4:33)의 개발 자회사다.<br/>/▲ 네시삼십삼분 제공<br/> <br/>지난 3월 썸에이지는 KB제6호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을 통해 단계적인 상장 절차를 추진해 왔다.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영웅'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존재감을 알린 썸에이지는 현재 공상과학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프로젝트 아크'와 DC코믹스의 히어로 슈퍼맨, 배트맨 등을 기반으로 한 액션 RPG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br/>▲ 썸에이지의 개발작 및 예정 타이틀. 썸에이지 홈페이지 캡쳐<br/> <br/>이 밖에 넵튠, 이엔피게임즈, 더원게임즈 등의 게임 기업들도 각각 대표 주관사 선정을 비롯한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 고전 면치 못하는 상장 선배 기업들<br/>그렇다면 이들보다 앞서 코스닥에 상장한 게임사들의 현재는 어떨까.<br/>모바일 게임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약 11.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시장 성숙도가 깊어진데다 경쟁 기업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양적 성장 추세만 두드러지는 상황이다.<br/>코스닥 상장은 매력적인 대안책으로 부상했다.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에 재투자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br/>그러나 증권업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탄탄한 재무구조와 다양한 성장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br/>애니팡을 통해 국민 게임 이미지를 각인시켰던 선데이토즈는 2013년 10월 하나그린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후 같은 해 11월 코스닥에 주식을 상장했다.<br/>/▲ 선데이토즈 제공<br/> <br/>상장 당시 약 4,000원대에 거래되던 주식은 2014년 9월부터 2만원선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애니팡 이후 뚜렷한 흥행작의 부재와 차기작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서 선데이토즈 주가는 10일 종가는 1만1,850원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br/> 데브시스터즈는 카카오 플랫폼을 타고 비상한 '쿠키런'의 성공을 통해 2014년 코스닥에 입성했다. 그러나 차기작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신작을 내놓지 못하고 상장 당시 평가했던 기업가치와 비교해 시가총액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br/>/▲ 데브시스터즈 홈페이지 캡쳐<br/> <br/>'아이러브커피'의 흥행 이후 2014년 11월 상장한 파티게임즈는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지난해 소셜카지노 전문 게임업체 다다소프트를 자회사로 인수하는 등 한때 4만원이 넘는 주가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아이러브 시리즈 이후에는 이렇다할 흥행작을 내놓지 못하며 10일 종가는 1만2,700원을 기록했다.<br/>그나마 다행인 것은 터닝포인트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최근 신작 라인업을 속속 발표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소폭 오름세로 돌아선 데다 다양한 콘텐츠 발굴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나섰기 때문이다.<br/>데브시스터즈는 연내 '쿠키런2'를, 파티게임즈는 소셜카지노 게임 '카지노스타'와 '아이러브커피2'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IP를 활용한 캐릭터 사업은 물론 연내 애니팡2의 북미·유럽 버전 '퓨리 팝'과 차기작 '애니팡포커' '애니팡3'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각오다.<br/>/▲ 파티게임즈 제공<br/> <br/>증권업계는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 게임사들의 경우 탄탄한 재무구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는 성장 동력 발굴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코스닥 문턱이 낮아지면서 중국 게임업체들도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글로벌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수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br/> 한 증권업계 연구원은 "게임 시장이 과포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이라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라며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보해 기업의 기초 체력을 정비하지 못하면 코스닥에 상장하더라도 주가 급락 및 기업 이미지 추락을 면하기 어렵다. 장기적인 안목과 검토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br/>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75.txt

제목: “외과 의사의 미래는 밝습니다”  
날짜: 2016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10051527144  
본문: 노성훈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인터뷰, “<span class='quot0'>말기 위암이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span>”<br/> 대한외과학회는 지난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춘계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AI)과 로봇수술 등 새로운 의료 기술 발달 속에 외과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대한외과학회는 국내 158개 학회 가운데 학술활동이 가장 우수한 학회에게 주는 대한의학회의 ‘2016년 의학학회 대상 우수상’을 받았다.<br/>노성훈(62ㆍ연세암병원장) 학회 이사장을 학술대회장에서 만났다. 노 이사장은 한 해 600여 회의 위암 수술을 집도하는 ‘세계적인 위암 수술 권위자’다. <br/>노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외과는 환자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로 의료의 중요한 축인데도 수술 원가 보전이 안 되는 보험수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전공의 지원율이 지난 10년간 6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어렵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외과 의사의 미래는 유망하다</span>”고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등을 통한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진단기술이 좋아질수록 수술 술기(術技)ㆍ수술 여부 등 의과의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br/>벌써 올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 정원 195명 가운데 179명(91.7%)이 지원해 지난해 지원율(58.9%)보다 32.8%p나 늘어났다. 정부의 외과 수가 30% 인상과 전공의의 주 80시간 근무제 도입, 호스피탈리스트(hospitalistㆍ입원 환자만 전문적으로 돌보는 의사) 도입 움직임 등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른 것이다. <br/> 노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외과 전문의가 진료 현장 수요에 맞게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고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현재 4년인 외과 전문의 과정을 1년을 줄여 3년으로 만드는데 노력할 것</span>”이라고 다짐했다. “<span class='quot1'>외과전공의 수련과정을 바꾸려는 것은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분과 전문의’가 고도화된 술기를 필요한 위암ㆍ유방암ㆍ대장암 등 수술을 담당하고, 일반 병실 진료는 3년 과정만 마친 일반 전문의가 맡도록 해 의료현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span>”<br/>노 이사장은 이어 말기(4기) 위암 환자에서 위를 잘라내는 위절제술 유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위암은 갑상선암을 제외한 중대 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새로 발생한 암 환자 22만5,343명 가운데 위암 환자는 3만184명으로 13.4%를 차지한다. <br/>“말기 암이라도 수술이 가능한 환자가 40~60%나 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암이 퍼진 부위가 적은 말기 암이라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받으면 삶의 질도 높이고 생명도 2~3년 정도를 연장할 수 있어 생을 정리하는 데 도움될 수 있거든요. 물론 암이 완전히 퍼져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말기 암이라면 생존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문제이지만요.”<br/> 노 이사장은 “<span class='quot0'>간이나 복막에만 국소 전이된 4기 위암 환자에게 위암 병변과 함께 전이 병변을 완전히 잘라낸 뒤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특히 최근 4기 암으로 진단되면 수술 전에 항암치료나 항암과 방사선 동반 치료를 먼저 해서 전이 병변을 치료하거나 병변을 줄인 뒤 위암과 전이암을 수술을 통해 잘라내는 ‘전환 수술(Conversion Surgery)’이 각광을 받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br/> 앞서 대한위암학회는 최근 4기 위암 환자에게 위를 잘라내는 위절제술이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위암학회는 “국내 15개, 일본 33개 의료기관의 외과ㆍ종양내과ㆍ예방의학 전문의 등이 공동 참여한 다기관 연구결과, 전이된 4기 위암의 경우 위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한 집단이 항암치료만을 시행한 집단보다 생존율이 오히려 낮아 위절제술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br/>글ㆍ사진=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76.txt

제목: “위암 수술 합병증, 복강경이 개복보다 35% 낮아”  
날짜: 2016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10051523672  
본문: 위암을 치료할 때 복강경 수술이 개복수술과 비교할 때 합병증이 35%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복수술은 배를 가른 뒤 하는 수술이고, 복강경 수술은 절개 없이 환자 복부에 0.5~1.5㎝의 작은 구멍을 3~5개 뚫어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고 의료진이 모니터를 보며 수술하는 방식으로 1991년부터 시행됐다. <br/>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암은 림프절로 암이 퍼지기 때문에 위를 포함한 림프절까지 광범위하게 도려내야 하므로 개복 수술이 유리했다. 하지만 조기 위암 발견이 늘고 복강경 술기(術技)와 수술기구 등이 발전하면서 현재 전체 위암의 70%가 복강경 수술로 이뤄지고 있다.<br/> 이혁준 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대한위암학회 학술간사)는 최근 열린 ‘2016년 한국국제위암학술대회(KINGCA)’에서 서울대병원 등 14개 병원에서 1기 위암 환자 1,416명을 대상으로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무작위로 배정한 뒤 합병증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br/>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복강경 수술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은 13%로 개복 수술 20%보다 낮았다</span>”며 “<span class='quot0'>합병증은 특히 수술 상처 감염에서 차이가 났다</span>”고 했다. 이 교수는 “수술 후 사망률은 복강경 0.6%, 개복 0.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5년 생존율도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br/>무작위로 분류한 두 집단 환자군에 각각 개복수술과 복강경수술을 시행한 뒤 합병증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초기 위암의 경우 수술 부위 창상 감염률과 전체 합병증 발생률 모두 복강경수술이 낮게 나타났다. 창상 감염이란 피부를 절개하거나 봉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통증ㆍ열감 등의 염증 증상이다. 개복수술은 창상 감염률이 6%, 합병증 발생률이 20%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복강경수술은 창상 감염률은 3%, 합병증 발생률은 14%에 그쳤다.<br/>양한광 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대한위암학회 이사장)는 "복강경 수술은 배에 작은 구멍 3~5개만 뚫기 때문에 환자의 출혈·통증·흉터를 최소화 해 합병증 발생률이 낮은 것"이라며 "앞으로는 위암 수술의 90%가 복강경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77.txt

제목: [의약동정] 이대목동병원, 파킨슨센터 개소 등  
날짜: 2016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10051317269  
본문: ▲이대목동병원, 파킨슨센터 개소<br/> <br/> <br/>이대목동병원은 3일 파킨슨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파킨슨병 환자 치료에 적극 나선다. 센터장에는 최경규 신경과 교수가 임명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및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박은애 기획조정실장, 이동현 진료부원장 등 경영진과 최경규 파킨슨센터장, 이향운, 윤지영 신경과 교수, 한수정 재활의학과 교수, 구혜수 병리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br/> <br/>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을 주로 손을 떠는 병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손떨림은 증상의 일부에 속한다. 파킨슨씨병(Parkinson's disease)으로도 알려져 있는 파킨슨병은 주로 떨림, 근육의 강직, 몸동작이 느려지는 서동증 등의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증상이 진행되면 걷거나 움직이기 어렵고 혼자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으면 오랜 기간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br/> <br/>다만 파킨슨병으로 오인되기 쉬운 다양한 이상운동질환이나 파킨슨병과 유사한 다른 병들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적절한 치료가 시작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br/> <br/>또한 파킨슨병은 운동 증상 외에도 우울증, 기억력 장애, 수면 장애, 자율신경계 장애, 통증 등 다양한 비운동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이같은 비운동 장애는 경우에 따라 운동장애보다도 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전문적이고 다학제적인 진료가 필요하다.<br/> <br/>특히 이대목동병원 파킨슨센터는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장애와 보호자를 감안해 환자의 동선과 이동시간을 최대한 배려해 진료 당일에 다학제적 협진 진료를 제공하여 본격적인 통합 진료를 진행한다.<br/> <br/>▲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개소식<br/> <br/> <br/>삼성서울병원이 3일 양성자치료센터의 개소식을 열고, 양성자 치료기의 본격적인 가동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시범가동을 마친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는 국립암센터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양성자 치료를 선보인다.<br/> <br/>양성자치료는 수소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를 높은에너지로 빛의 60% 수준까지 가속시켜 암조직을 파괴하는 최신 치료법이다. 기존 방사선치료와 달리 양성자가 몸속을 통과할 때 정상조직에는거의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효과는 더욱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간암및췌담도암, 수술이불가능한폐암, 두경부및안종양, 뇌종양및뇌기저부종양, 척추및척수종양, 소아암,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부위 재발 종양 등이적용대상이다.<br/> <br/>한편, 양성자 치료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모의 치료를 거쳐 치료설계 후 본격적 양성자 치료는 평균 20회 가량 진행된다. 한 번 치료를 받을 때 마다 평균 30-60분 정도 소요되며, 치료대상은 각 암종별다학제 진료에서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3410-3001으로문의하면 된다.<br/> <br/>▲이대목동병원 모자센터,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 개최<br/> <br/>이대목동병원 모자센터가 오는 6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10회에 걸쳐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을 개최한다.<br/> <br/>이번 찾아가는 출산준비교실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강서구 마곡지구에 새 병원 및 의과대학 개원을 앞두고 대학병원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br/> <br/>출산준비교실에는 박미혜 센터장을 비롯해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 조수진 소아청소년과 교수, 권명선 산부인과 전문 간호사와 영양사, 모유 수유 전문가가 참여해 10회에 걸쳐 임신과 출산 관련 전문 의학 지식과 유용한 팁, 출산 후 아기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br/> <br/>출산을 앞두거나 준비 중인 사람은 모두 수강이 가능하고 25일부터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홈페이지(https://culture.lotteshopping.com/index.do)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문화센터(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공항역)를 직접 방문해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2만원이며 강의실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br/> <br/>한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이번 찾아가는 출산교실을 시작으로 지역 백화점 문화센터와 보건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강좌와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78.txt

제목: “면역항암제, 간ㆍ뇌하수체 등에 염증 가능성”  
날짜: 201605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09051836687  
본문: 지난달 옵디보 등 항암제 2종 폐암 치료제로 허가 받아<br/>환자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와 싸울 수 있게 도와<br/>“<span class='quot0'>생명 연장 효과 10명 중 2명… 초기여서 부작용 사례 적은 것</span>”<br/>“지나친 기대는 금물” 지적<br/>3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면역 항암제’가 최근 국내에서도 폐암 치료용 등으로 잇따라 허가 받으면서 암 환자들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가 제한적이어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면역 항암제만 믿고 기존 치료마저 미루는 것은 어리석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br/>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면역 항암제 2종이 지난달 폐암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면역 항암제는 이전까진 모두 국내에 환자가 많지 않은 흑색종(피부암의 일종) 치료용으로만 출시됐다. 그러나 사망률이 높고 치료가 어려운 폐암에도 쓸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 약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며 국내 면역 항암제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이번에 폐암 치료용으로 허가 받은 면역항암제는 한국BMS제약과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 한국MSD의 ‘키트루다’다. 이들 약은 환자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침입자로 인식해 공격하도록 하는 원리가 적용됐다. 1세대 화학 항암제나 2세대 표적 항암제처럼 약 성분이 암세포나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단백질 등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환자 몸의 면역체계가 스스로 암과 싸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치료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합병증이 생기는 등 기존 항암제가 가졌던 부작용도 거의 없다. <br/>암 전문의들은 그러나 “<span class='quot1'>작용 원리가 획기적인 건 분명하지만 기대가 일부 과장되고 있다</span>”고 선을 그었다. 부작용이 없고 내성도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지면서 일부 폐암 환자들은 기존 치료 일정까지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역항암제 역시 내성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워낙 초기여서 보고된 사례가 많지 않을 뿐이다.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2'>면역항암제의 영향으로 과도하게 활발해진 면역세포들이 정상 장기를 공격하면 갑상선염, 간염, 부신 기능저하, 뇌하수체 염증 등이 생길 수 있다</span>”며 “신중하게 써야 하는 약”이라고 강조했다. <br/>전문의들은 면역항암제의 효과가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2'>면역항암제는 폐암을 완치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몇 개월 연장하는 약</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생명연장 효과가 나타나는 비율도 현재로선 10명 중 2명 안팎에 그친다</span>”고 설명했다. 환자의 흡연 정도나 관련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 등에 따라 효과도 천차만별이다. <br/>면역항암제 제조사들은 폐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며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허 교수는 “<span class='quot3'>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된 상황에서 새로운 약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이 기존 항암제의 10~100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지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폐암 면역항암제는 한달 약값이 1,000만원대에 달한다. <br/>면역항암제 허가를 계기로 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면서 환자들의 치료 기회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4'>보건당국이 정한 약값을 모든 환자에게 일률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4'>초기 약값은 제약사가 부담하다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경우 보험 적용을 시작하는 식으로 보험과 제약사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span>”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79.txt

제목: 환경과학원, 김포 거물대리 중금속 오염 확인  
날짜: 201605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05051511594  
본문: 분석 기관 따라 결과 제각각<br/>김포시, 3곳에 재검사 맡기기로<br/><br/>주민들이 수년째 공장 난립에 따른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일대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선 토양 오염도 조사에선 분석기관별로 판이한 결과가 나와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었다.<br/> 4일 환경정의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일대 토양 샘플 15개 중 13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샘플에서 구리, 비소, 납, 아연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br/>앞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 샘플들을 교차 분석했다. 당시 연구소에선 15개 샘플 모두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내놨으나 시험원 분석에선 15개 중 12개에서 중금속이 나오지 않았다.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자 환경정의는 2월 환경과학원에 재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공개된 것이다. 2013~2014년 첫번째 역학조사에선 거물대리 등 일대 주민 사망률과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각각 1.9배, 2.9배 높게 나타났다.<br/>환경정의 측은 “<span class='quot0'>시험원 분석이 잘못됐거나 분석 샘플이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김포시는 의혹을 해소하고 주민들 피해 구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br/>김포시는 토양 오염도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국토환경연구소 등 3곳에 오염도 재검사를 맡기기로 했다. 이 기관들은 샘플 채취부터 분석까지 맡게 된다. 시 측은 3일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피해 검증위원회 등을 상대로 재검사 착수보고회도 연 상태다.<br/>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분석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재검사를 하려는 것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위와 3곳의 검사기관을 참여시켰다</span>”며 “6월 중 결과가 나오면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80.txt

제목: 통역 전문가 길 접고 23년째 부모 봉양... "자식된 도리일 뿐"  
날짜: 201605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05051412882  
본문: 요즘 세상에 병든 부모를 간호하느라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희생하는 딸이 있을까. 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김숙현(59)씨는 환갑이 다 된 나이지만 여전히 미혼이다. 김씨는 외국 유학으로 다진 출중한 영어실력을 갖췄음에도, 23년 동안 시간제 일자리를 갖기 위해 생산직종 등을 전전해 왔다.<br/>서울 상명여고와 영국 크로이던 대학(Croydon college) 언어학과를 수료한 김씨는 젊은 시절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외국을 오가며 통역 일을 하는 당찬 커리어 우먼이었다. 외국 출장을 가는 국내 기업가들과 동행하며 통역과 비서 일을 맡았으며,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배낭 여행을 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일자리를 구해 몇 개월간 살기도 했던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2남 1녀 중 위로 오빠를 둔 장녀였던 그는 오빠가 미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서른 살쯤부터 부모님을 모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38살이 되던 1994년, 신부전증을 앓던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자 김씨는 자신이 누리던 화려한 삶을 미련 없이 포기했다.<br/>그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치료를 위해 공기가 좋은 경기 안성시로 거주지를 옮긴 후 시간제 통역일 등을 하며 부모님을 봉양했다. 이후 충북 진천군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에 입사해 생산직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다 7년 전 미국에 살던 오빠가 사망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끊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증사고까지 발생해 갑자기 생계조차 힘들어지게 됐다. 결국 2013년 조카가 사는 울산으로 이사해 조카의 도움을 받아 월세방을 얻은 후 부모 봉양에 더욱 힘을 쏟았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4월에는 폐결핵과 전립선암으로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쓰러져 울산대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치료비 월 600여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야로 모텔에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영어가 유창해 처우가 비교적 괜찮은 기업에 취업할 기회도 있었지만, 몸이 편찮은 부모 곁을 비울 수가 없었다. <br/>그런 노력에도 결국 아버지는 지난 2월 92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김씨는 “<span class='quot0'>아버지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으신 것이 나에겐 가장 큰 위로지만 올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span>”며 눈시울을 붉혔다. <br/>김씨는 91세에 홀로되신 어머니 봉양에 최선을 다했지만 얼마 전 어머니가 외출했다 낙상을 당해 시름이 커졌다. 병원에서 어머니 낙상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그는 “어머니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아프지 않은 것이 유일한 소원”이라며 웃었다.<br/>김씨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평소 이웃 어르신들도 정성껏 대하며, 효행을 실천해온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6일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그는 “<span class='quot0'>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자식 된 도리이고 저보다 힘든 자식들도 많을 텐데 상을 받게 돼 너무 부끄럽다</span>”며 겸손해했다. <br/>울산=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81.txt

제목: 가짜 ‘필터주사기’ 환자 주머니 턴다  
날짜: 2016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03052130492  
본문: 될 때까지 해주는 ‘필터성능시험’ 문제<br/>필터주사기 선택, 추가비용 지불한 환자만 ‘봉’<br/><br/>주사제 용기인 유리앰플을 자를 때 나온 작은 유리조각 등 이물질이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필터주사기’가운데 일부 제품이 필터 기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대학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필터주사기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있다.<br/>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의료기관에서 현재 사용 중인 주사제 보관용기인 유리앰플은 구조적으로 유리파편 발생을 막지 못한다</span>”고 했다. 유리앰플은 위쪽 목 부분이 잘록한 유리관으로, 주사하기 전 목 부분을 잘라 내용물을 주사기로 빼내 사용하는데 목 부분을 자를 때 미세한 유리파편이 주사액에 섞여 들어가 인체 안으로 흡수된다. 유리앰플은 고온 밀봉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개봉 시 감압 상태의 공기가 급팽창하는 과정에서 유리파편이 주사액 속으로 혼입된다.<br/> 정맥을 통해 인체 내로 들어온 앰플의 유리파편들은 녹지도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 인체 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혈전을 만들고, 패혈증을 유발하는 등 환자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인체에 흡수된 유리파편은 가장 먼저 폐에 이르고 이어 간, 비장을 거쳐 마지막에는 콩팥에 간다. 유리파편이 폐 비장 콩팥 골수 뇌 등에 축적되면 내피세포를 손상해 혈전이나 육아종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유리파편이 혈관 내 유입되면 미세혈관을 막아 신생아괴사성장염은 물론 유리파편에 박테리아 오염이 일어나면서 패혈증도 일으킬 수 있다.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1'>유리앰플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는 중환자실, 신생아치료실 등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유리파편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span>”고 했다. 정기적으로 정맥투여를 하는 어린이나 항암제를 쓰고 있는 환자군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0년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신생아 집중치료처지실 환자, 소아 및 성인 중환자실 환자, 암환자 등 중증 질환자 및 중증 수술환자는 우선적으로 필터주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필터주사기 일부 제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br/>필터기능 없는 이름만 ‘필터주사기’ 유통<br/>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필터주사기는 일체형과 분리형이 있다. 일체형은 한 개의 주사바늘로 주사기로 주사제를 빼내 그대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다. 주사기에 필터가 부착돼 주사제 채취부터 환자 투여까지 한꺼번에 이뤄진다.<br/>이와 달리 분리형 주사기는 주사기에 필터를 장착해 주사제를 채취한 후 필터를 제거한 후 환자에게 약물을 넣는다. 이론적으로는 필터를 제거하지 않고 주사제 용기에서 약물을 채취해 환자에게 바로 투여하는 일체형 주사기가 사용이 편리하다. 하지만 일부 일체형 필터주사기 제품은 유리파편 등 주사제를 채취할 때 남아 있는 이물질을 걸러내지 못했다. 기자가 일반주사기, 일체형과 분리형 필터주사기를 구입해 직접 물에 모래가루를 넣어 흡입한 결과, 일반주사기와 일체형 필터주사기는 모래가루가 삽입돼 뿌옇게 흐려졌다.<br/> 일부 일체형 필터주사기 제품은 제 기능을 상실한 데는 허술한 제품제조 허가가 한몫 했다. 본지 확인 결과, 필터주사기 제조의 핵심기술인 필터성능시험은 업체가 만든 주사기 샘플로 이뤄졌다.<br/> 필터성능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업체에서 보내온 샘플 주사기 3개로 필터성능시험이 이뤄진다</span>”고 말했다. 샘플 불량으로 필터성능시험에 탈락할 걱정도 없다. 연구원에 추가비용만 지불하면 성능시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샘플에 문제가 생기면 연구원에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샘플을 가져오라고 연락이 온다</span>”고 전했다. 실제 확인결과, 필터성능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수도권의 한 연구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3'>필터성능시험 성적서 교부 전 제품 이상으로 합격처리가 되지 않으면 업체에 연락해 다른 샘플을 가져오라고 알려준다</span>”면서 “<span class='quot3'>5만원 정도 추가비용만 물면 재시험이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필터성능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br/> ‘눈 가리고 아웅’식 필터성능시험은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샘플만 잘 만들어 시험에 통과한 후 일반주사기와 다를 바 없는 필터주사기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필터주사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샘플만 잘 만들어 시험에 통과하면 불량품을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3'>시험성적표만 제출하면 병원에 필터주사기를 납품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3'>필터주사기 성능 문제를 제기한 병원은 아직까지 없다</span>”고 말했다. <br/>병원 믿고 필터주사기 선택한 환자만 ‘봉’<br/> 의료기관들도 가짜 필터주사기 문제와 관련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필터주사기는 대학병원은 물론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국가에서 제품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 없다는 것이 의료기관들의 한결 같은 반응이다. <br/>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3'>국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 시험에서 합격한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3'>자체 테스트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span>”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식약처가 인증한 제품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span>”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학병원에 필터주사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일부 대학병원에서는 필터주사기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3'>병원 첫 납품 시 문제가 없는 제품을 납품하면 병원 자체 테스트도 문제 없이 통과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환자 안전보다는 간호사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해 필터를 제거해야 하는 분리형 대신 일체형 필터주사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br/> 가짜 필터주사기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환자들은 유리파편 등 이물질을 제거해준다는 병원 측 설명을 그대로 믿고, 추가비용까지 물면서 필터주사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터주사기를 선택하면 환자가 병원에 줘야 할 비용은 1,000~1,400원 정도다. 필터주사기 납품 가격은 개당 700~800원 수준으로 사용 비용은 환자를 치료할 때 발생하는 재료비 항목으로 정산된다. 이름만 필터주사기일 뿐 일반주사기인 가짜 필터주사기 비용을 환자들이 물고 있는 셈이다.<br/> 서울 한 대학병원 외래에서 만난 주부(40)는 “혹시 내가 맞은 주사에 유리파편 같은 이물질이 있을까 두려워 필터주사기를 맞았는데 주사기가 불량품이라면 정말 황당하다”면서 “병원만 믿었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82.txt

제목: 위암 말기 수술 효과 놓고 의료계 논란  
날짜: 2016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03052127457  
본문: 말기 위암 환자의 위를 잘라내는 것이 좋은가? <br/> 이전에는 말기 위암 환자의 위장을 잘라내는 위절제술을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의료기술 발달로 4기(말기) 위암에서도 위절제술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는 게 수술을 시행하는 임상 의사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말기 암 환자라도 포기하지 말고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삶의 질도 높이고 생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br/>그런데 대한위암학회는 최근 4기 위암 환자에게 위절제술은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다. 학회는 “일본과 5년 동안 공동 연구한 결과, 말기 위암 환자의 경우 위절제술이 단순 항암 치료보다 치료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혀 논란의 불을 지폈다. 위암은 갑상선암을 제외한 중대 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새로 발생한 암 환자 22만5,343명 가운데 위암 환자는 3만184명으로 13.4%를 차지한다.<br/>위암학회, “항암 치료보다 효과 떨어져”<br/> 대한위암학회는 최근 위암 가운데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진 4기의 경우 위절제술을 해도 생존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위암 환자 가운데 원격 전이된 4기 환자는 11~12%, 5년 생존율은 5~6%로 알려져 있다.<br/> 양한광 대한위암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은 “<span class='quot0'>국내 15개, 일본 33개 의료기관의 외과 종양내과 예방의학 전문의 등이 공동 참여한 다기관 연구 결과, 전이된 4기 위암의 경우 위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한 집단이 항암치료만을 시행한 집단보다 생존율이 오히려 낮았다</span>”고 밝혔다. 양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연구에 따라 전이가 있는 4기 위암의 치료에서 위절제술은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span>”고 했다.<br/>이번 연구는 항암군 86명, 위절제술 후 항암군 89명을 대상으로 했다. 항암군의 2년 생존율은 31.7%, 위절제술 후 항암군의 생존율은 25.1%로 차이를 보였다. 항암군의 생존기간은 16.6개월, 위절제술 후 항암군의 생존기간은 14.3개월로 큰 차이는 없었다.<br/>양 이사장은 “<span class='quot0'>4기 암환자의 수술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는 위절제술이 항암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적 의미를 밝히는 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br/>또한, 복강경을 이용한 위암 수술이 배를 여는 개복수술보다 수술 후 합병증을 적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가 국내 13개 의료기관에서 1416명의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복강경수술을 받은 환자군은 수술 중 출혈이 적고 입원기간도 짧았다. 수술 후 합병증도 복강경수술군은 13%, 개복수술군은 19.9%로 차이를 보였다. 연구회 박영규 회장(화순전남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은 “<span class='quot1'>조기 위암에서 복강경수술의 유용성이 확인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진행성 위암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span>”고 했다.<br/>면역항암제의 말기 위암치료 국내 연구와 관련, 라선영 대한위암학회 홍보이사(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2'>효과가 좋은 사람은 아주 좋다</span>”며 “<span class='quot2'>사전에 효과가 있는 환자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했다.<br/><br/>“<span class='quot3'>말기 위암 환자에게 위절제술 도움돼</span>”<br/> 이 같은 대한위암학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상 의사들은 4기(말기) 위암 환자 가운데 일부 환자들은 위절제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생존기간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의료기기 발달로 훨씬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br/> 노성훈 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연세암병원장)는 “<span class='quot4'>국소 진행된 병변으로 인해 4기로 진단된 경우나 간이나 복막에 국소적으로 전이된 위암 환자에게 위암 병변과 함께 전이 병변을 완전히 잘라낸 뒤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span>”고 했다. 노 교수는 “<span class='quot5'>특히 최근에는 4기 암으로 진단되면 수술 전에 항암치료나 항암과 방사선 동반 치료를 먼저 해서 전이 병변을 치료하거나 병변을 줄인 뒤 위암과 전이암을 수술을 통해 잘라내는 ‘전환 수술(Conversion Surgery)’이 각광을 받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 조만간 전환 수술의 효용성을 알아 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하는 임상시험이 예정돼 있다.<br/> 대한위암학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는 4기 위암 환자에서 전이암 병변은 제거하지 않고 위암 병변과 제한적 림프절 절제술(D1)을 시행한 뒤 항암 치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다. 노 교수는 따라서?“<span class='quot5'>4기 위암 환자라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수술과 항암요법,?방사선 치료,?표적치료 등을 환자의 특성에 맞게 조합해 치료함으로써 생존기간과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했다.<br/> 김용일 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도 “<span class='quot4'>말기 암 환자가 전문 치료를 받으면 장기 생존 가능성도 있고 장기 생존을 하지 못해도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남은 생의 기간에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br/><br/>-음식을 너무 짜게 먹지 않는다.<br/>-질산염이 많이 든 햄 등 가공식품 섭취를 줄인다.<br/>-불에 탄 고기를 먹지 않는다.<br/>-위암 억제 효과가 있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이 많이 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br/>-가족 중 위암 환자가 있다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br/>-위암 위험을 높이는 흡연은 되도록 삼간다.<br/>-만 40세 이상은 1~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사를 한다.<br/><br/>(단위: %)<br/>갑상선 100<br/>전립선 92.5<br/>유방 91.5<br/>대장 75.6<br/>위 73.1<br/>간 31.4<br/>폐 23.5<br/>췌장 9.4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83.txt

제목: ‘영민한 도둑’ 암세포 잡는 면역항암제  
날짜: 2016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03052126848  
본문: 전체 암환자 적용 안 돼‥ 적합환자 선별 등 치료기준 필요<br/> 환자 스스로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든 ‘면역항암제’ 치료가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말 피부암 흑색종이 뇌로 전이된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면역항암제를 투여한 뒤 완치된 것이 결정적이었다.<br/> 면역항암제는 ‘제3세대’항암제이다. 제1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화학항암제는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탈모, 구토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화학항암제 부작용을 보완한 항암제가 제2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표적항암제다.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항암제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환자만 사용할 수 있고 내성이 생겨 약효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br/> 전문의들은 암세포를 ‘영민한 도둑’이라고 말한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잡는 면역세포가 경찰역할을 하는데 암세포가 우회로를 만들거나 독성을 차단해 면역세포의 검거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br/> 암세포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위장전술도 사용한다. 암세포를 잡기 위해 면역세포는 암을 인지하고 공격하는 T면역세포를 내보내는데 암세포는 PD-L1 단백질을 분비해 T면역세포의 선봉장인 PD-1 수용체와 결합,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할 수 없게 만든다. <br/> 면역항암제는 암세포가 면역세포와 결합하는 것을 차단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환자 스스로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br/> 국내 의료계도 면역항암제 사용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폐암 위암 두경부암 난소암 대장암 등 12개 암, 24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br/> 하지만 ‘꿈의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항암제도 모든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가 분비한 PD-L1를 식별할 수 있는 발현율이 높은 환자에게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호영 한림대 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면역항암제는 인체의 면역시스템을 활용해 암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뿐 아니라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 복귀까지 가능케 한 획기적인 항암제</span>”라면서 “<span class='quot0'>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환자를 선별하는 등 치료기준 확립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84.txt

제목: 1주일에 콜라 5잔 이상, 심장 건강을 위협  
날짜: 2016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03052125373  
본문: 설탕과 액상과당이 많이 함유된 탄산음료는 비만 위험을 높이고 체중 증가와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탄산음료만 마셔도 관상동맥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br/>유승호(직업환경의학과), 장유수(가정의학과) 강북삼성병원 코호트연구소 교수팀은 암, 심장질환, 당뇨병이 없는 무증상 성인남녀 2만2,000여명(평균 나이 40세)을 대상으로 평소 탄산음료 섭취 수준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관상동맥 석회화와 조기 관상동맥질환 여부를 비교했다.<br/>1주일에 탄산음료를 5잔 이상(약 200㎖/1잔) 마시는 군은 전혀 마시지 않는 군과 비교해 조기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27% 높았고,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비는 70% 높았다.<br/>이는 심장질환발생을 늘린다고 알려진 흡연, 음주, 식사습관과 운동습관,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심장질환 가족력을 고려해도 관찰된다. 탄산음료 섭취 자체가 조기 관상동맥질환 발생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br/>관상동맥석회 수치는 조기 관상동맥질환을 확인하는 지표로 CT로 측정한다. 조직학적으로 동맥경화반 총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향후 관상동맥질환 발생을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다.<br/>동맥경화반은 동맥혈관 안쪽에 지방이나 혈액 물질이 쌓인 덩어리다. 이곳에 염증세포가 침투해 염증이 생기면 심장병을 일으키는 고위험 동맥경화반이 된다.<br/>유 교수는 “<span class='quot0'>탄산음료는 심혈관 질환 주요 위험인자인 비만과 당뇨병 발병을 높이고, 복부비만과 혈중 지질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방간처럼 지방이 없어야 할 장기에 생기는 이소성지방을 늘리고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동맥경화와 심혈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pan>”고 했다. <br/>이번 연구는 미국 심장저널(American Heart Journal) 온라인판에 실렸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85.txt

제목: 유근영, 국군수도병원장에  
날짜: 2016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03052001968  
본문: 유근영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2일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수도병원장에 취임했다. 유 병원장은 국립암센터 원장, 대한예방의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현재 아시아태평양 암 예방기구(APOCP) 회장을 맡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86.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씨티은행, 최대 1.6%금리 입출금식 통장 출시 外  
날짜: 2016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03051956526  
본문: 씨티은행, 최대 1.6%금리 입출금식 통장 출시 <br/>한국씨티은행은 최대 연 1.6% 금리를 제공하는 ‘씨티 자산관리 통장’을 출시했다. 씨티 자산관리통장은 예금, 펀드 등 씨티은행 이용 실적이 많을수록 최저 0.1%부터 최고 1.6%까지 금리 혜택이 늘어나는 입출금식 통장으로 씨티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다. 가입자 중 자산규모 5,000만원 이상 고객들은 씨티 프라이어리티 등급 대상에 해당돼 금융전문가의 자산관리 서비스,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br/><br/>현대해상, 암 예방 지원 보험 출시<br/>현대해상은 암 예방, 치료를 지원하는 ‘암에 강한 암보험-암스트롱 암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모든 가입자에게 전문의료진 건강상담과 병원 진료예약 대행, 전담 간호사 방문,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암치료관리 특약에 가입하면 암 진단시 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심리치료, 면역기능 감소에 대비한 자가면역세포보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료가 진행되면 개인별 맞춤형 운동ㆍ영양 관리 프로그램과 면역력ㆍ세포건강도ㆍPET-CT검사를 진행한다.<br/><br/>기업은행 “명함 찍어 보내면 당일대출”<br/>IBK기업은행은 영업점 방문이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명함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 ‘i-ONE 직장인명함대출’을 출시했다. 기업은행 모바일 앱인 ‘헬로 i-ONE’에서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명함을 촬영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개인신용등급(CB) 7등급 이상의 고객이면 이용 가능하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87.txt

제목: 아주대 박상규 교수팀, 유방암 세포 조절 단백질 발견  
날짜: 2016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03051929461  
본문: 국내 연구진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 등을 조절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했다. 유방암 치료와 의약품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br/>아주대학교는 약학대학 박상규(사진) 교수팀이 암 단백질인 ‘ZNF224’를 발굴, 유방암 세포와의 관련성을 규명했다고 2일 밝혔다. <br/>이번 결과는 암 분야 저명 학술지인 ‘온코타깃(Oncotarget)’ 4월호에 게재됐다.<br/>박 교수팀은 연구에서 유방암 세포에서 p53과 p21의 발현을 조절하는 새로운 전사인자 ‘ZNF224’을 발굴했다. p53과 p21은 세포 주기 및 사멸을 조절하는 단백질로 암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박 교수팀은 ZNF224가 마이크로RNA의 한 종류인 miR-663a의 발현을 증가시켜 p53과 p21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ZNF224이 과 발현된 유방암 세포주가 항암제의 일종인 CPT에 저항성을 보이는 것도 검증했다. ZNF224를 분자적 수준에서 분석해 유방암 세포 증식과의 연관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ZNF224와 miR-663a를 유방암 진단용 바이오마커 및 암 치료용 타깃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ZNF224나 ZNF224 타깃 유전자를 억제, 유방암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br/><br/>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88.txt

제목: "나를 위해선 안 나던 눈물...세월호 희생자 가족 생각하면..."  
날짜: 201605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502051546832  
본문: 곡진한 기도는 한 편의 시가 됐다. 순명하겠다는 애끓는 고백이 읽는 이들의 폐부를 달궜다. 이해인(71) 수녀가 첫 시집 ‘민들레의 영토’(가톨릭출판사)를 내놓은 지 올해로 40돌을 맞았다. 예비 수녀시절, ‘이렇게 계속 써도 되겠나’ 싶어 보낸 시 10편을 본 홍윤숙 시인이 부산으로 달려가 출간을 권했다. 몇 부만 찍어 수녀원에서 돌려나 보자던 책은 가히 폭발적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br/>“<span class='quot0'>기도는 나의 음악/ 가슴 한 복판에 꽂아놓은/ 사랑은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태초부터 나의 영토는 좁은 길이었다 해도/ 고독의 진주를 캐며/ 내가 꽃으로 피어나야 할 땅</span>”(‘민들레의 영토’)<br/>그 동안 문단이 시샘할 만큼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유명세를 치르느라 때로 힘든 적도 있었다. 박완서, 최인호 작가 등 각별했던 마음의 벗들을 여럿 떠나 보냈고 스스로도 크게 앓았다. 대장암 투병 중 난데없는 위독설, 사망설도 여러 번 겪었다.<br/>초창기엔 “제발 시집 좀 안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그를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올리베띠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은혜의 뜰에서 만났다. 평소 부산에 자리한 수녀회 본원에 머무르지만 다음날 예정된 강연 때문에 상경한 참이었다.<br/>-어느새 40주년이네요.<br/>“첫 책을 다시 보니 첫사랑 같으면서도 낯설고, 구절구절이 눈물 겹고 새롭더라고요. 시인 뿐 아니라 수도자로서 한 길을 걸어온 시간에 대한 감회도 새로워요. 쓸 때 막연하게 썼던 게 구체화돼서 말이 살아오고 의미가 새롭게 살아온달까요. 내가 시에 있는 세월을 살아내려고 노력했구나 싶어서. 이런 감회가 40년의 세월이 주는 선물 같아요. 수도원 자체가 민들레 영토가 됐다는 상징성이 각별해요.”<br/>-특히 새로운 구절이 있습니까.<br/>“오늘은 어제 보다 죽음이 한 치 더 가까워도, 평화로이 별을 보며 웃어 주는 마음 (‘별을 보면’ 중). 스물 한 살에 쓴 시인데 지금 암환자로서 돌아보면 ‘내가 수도자로 이렇게 살고 있나’ 돌아보게 돼요. 어떤 환자 분이 매일 읽는다고, 기도가 된다 하더라고요.”<br/>-죽음을 묵상하긴 이른 나이였는데요.<br/>“그러게, 무슨 마음으로 이런 걸 썼을까. 스물 한 살 예비수녀가 아플 때도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한 번쯤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묵상은 계속 했어요. 명상을 자주해서 사색의 깊이는 있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썼지(웃음).”<br/>-신앙의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요.<br/>“경건주의랄까. 필요 이상으로 심각하고 그럴 때였어요. 초창기에 순결심, 초발심이 막 올라올 때라. 또 6ㆍ25가 일어난 게 여섯 살 땐데 ‘인생, 죽음, 이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줄곧 생각할 수 밖에 없었어요. 다른 놀이가 없어 책을 많이 보기도 했고. 포격을 피해 방공호에 숨고, 트럭에 실려 부산으로 피난 가던 기억을 지금도 꿈에서 만나요. 그런 게 수도생활을 택한 동기이기도 하죠.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무엇에 걸 것인가.”<br/>-첫 책 반응이 폭발적이었죠.<br/>“제발 시집 좀 안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믿거나 말거나(웃음). 수도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 수도공동체도 감당이 안되니 미안하고. 옛 수도자들이 책을 왜 익명으로 냈는지 절감했죠. 저도 모르는 제 출판물이 나오기도 하고.”<br/>-왜 그리 반응이 컸을까요.<br/>“투쟁하고, 끌려가고, 여러모로 살벌했던 80년대였는데 마음을 위로할 뭔가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것은 아닌데 고향 누나가 쓴 것 같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한 독자가 편지에 ‘(시가)한 집에 오순도순 살던 언니가 기숙사에 가서 내게 써서 보내 준 편지 같다고’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한 수감자는 ‘당장 샤워실에 가서 비누로 내 몸을, 내 때를 박박 닦고 싶다’고도 했고.”<br/>-편지를 다 기억하시나요.<br/>“87년부터 수녀원에서 오는 편지들에 답하는 편지사목을 했어요. 다만 한 줄이라도 써서 답해요. 그걸 통해 받는 분이 위안 받고 파급효과가 크다는 걸 느끼니까. 모은 편지가 지금 창고에 몇 십만 통 돼요. 중 2였던 원년독자가 지금은 아들을 군대도 보냈는데, 그 한 분이 보낸 것만 한 상자예요. 언젠가 한꺼번에 돌려주려고요. ‘당신의 성장과정입니다’하고요.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신 한 독자 편지는 순서대로 정리해 남편께 드렸어요.”<br/>-시가 맺은 인연이네요.<br/>“40년 간 이 시들이 우정을 나누는 민들레 꽃씨 역할을 했네요. 저는 마더 데레사처럼 현장에서 가난한 이들의 몸을 닦진 못했지만, 그래도 시가 날아다니면서 위로와 희망의 씨를 전했다고 생각하면 힘들었던 부분들도 작은 위로가 되곤 해요. 감사한 일이죠.”<br/>-‘작은’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시죠.<br/>“수도회에서 늘 겸손을 가르치니까요. 성녀 소화 데레사 자서전을 보면 ‘사랑의 작은 길’이라는 말이 항상 나와요. ‘나는 작은 아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분께 간다’ 하는. 그런 영향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쓰는데, 별로 작아지지도 않더라고요. 겸손은 그만큼 어려운 거죠.”<br/>-늘 의연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br/>“이를 테면 암에 걸린 것을 안 걸린 것으로 할 순 없으니까 ‘여기서 선을, 유익함을 이끌어내려면 뭘 해야 할까’ 생각하며 견뎌요. 시를 쓰거나 명상, 산보도 하고 클래식 음악도 듣고. 시에 등장하는 꽃, 나무, 바다, 산이 와서 나의 하소연을 들어준 거죠. 인간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에게서 받은 뿌리깊은 신앙심이 어떤 시련이 와도 믿는 구석이기도 해요. 그간에 다른 시련들도 산을 넘듯이 넘어왔으니.”<br/>-건강은 어떠세요.<br/>“통증 클리닉에 다니고 있어요. 나만 아픈 것은 아니니까 내 아픔을 객관화 시키면서 약 먹을 때도 예식을 하는 것처럼, 병원 갈 때도 소풍 가듯이 해요.”<br/>-명랑투병이란 말도 만드셨는데.<br/>“좋은 환자 되기 십계명이란 글도 썼어요. 내 아픔을 무기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 고통을 통해 다른 분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모든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긴다고 할까, 한편으론 선물 같아요. 기도를 건성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게 되고요. 거짓말처럼 투병하면서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어 스스로도 신기해요. 다른 분들이 ‘아무래도 체면 때문인 것 같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성당에서 실컷 울라’고 해서 가봤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수녀님들이 보기와 달리 담대하고 여장부 같다고 하더라고요(웃음).”<br/>-최근까지도 마찬가지인가요.<br/>“나를 위해서는 눈물이 안 나요. 세월호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운 것 빼고는.”<br/>-왜 타인을 위해서만 눈물이 날까요.<br/>“신적 존재에 대한 수직적인 믿음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요. 이걸 간과하고 위쪽으로만 잘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죠. 평범한 일상 안에서 비범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참 신앙인이에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이웃과는 불목해선 안되죠. 특히 약자들을 내 친지처럼 여겼으면 좋겠어요.”<br/>-어떻게 살아야 할까요.<br/>“남과의 비교에서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오늘은 어제보다 죽음이 한 치 가까워도 평화로이 별을 보며 웃어 주는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여행도 좋지만 떠나기 전에 독서여행, 사색여행, 기도여행 등 내면의 여행을 부지런히 하고 나서 그 보상으로 여행, 순례를 가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현대인은 골방의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파스칼의 말을 자주 떠올려요. 늘 안으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고요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죠.”<br/>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89.txt

제목: 옥스퍼드大 출신 마약상 “마리화나 합법화하면 세상은 오히려 안전해져”  
날짜: 2016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30051532654  
본문: “가장 교양 있는 마약 거물”<br/>과학철학 석사 학위까지 취득<br/>60년대 재학 중 온갖 약 경험<br/>히피문화 명분 마리화나 거래<br/><br/>영화 같은 인생<br/>혼자 일하며 강력 범죄와 거리<br/>캐나다로 한 번에 30톤 밀수도<br/>한때 英ㆍ美 정보기관과 협력<br/><br/>마리화나 합법화 운동<br/>출옥 후 베스트셀러 작가 변신<br/>신문칼럼ㆍ방송 통해 주장 전파<br/>英 하원선거 출마 공약 삼기도<br/><br/><br/>하워드 막스(Howard Marks)는 1970~80년대 거물급 국제 마약업자였다. 그는 조직 없이 혼자 일했고, 헤로인이나 아편 같은 ‘하드 드럭(hard drug)’에는 눈 돌리지 않고 오직 마리화나만 거래했다. 마피아 삼합회 등 범죄조직은 물론이고 대서양 양편의 국가정보기관들과도 얽혀 활동했지만 폭력ㆍ살인에 연루된 적 없었고, 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살자고 동업자를 판 적도 없었다. 그가 특별해 보인 건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는 옥스퍼드대 출신으로 “<span class='quot0'>롤링 스톤(아마도 믹 재거)의 외모와 리처드 버튼의 목소리</span>”를 지녔고, 또 탁월한 이야기꾼이었다. 다윈과 리처드 파인만, 칼 세이건을 대화에 섞을 수 있는 교양과 세련된 매너, 막대한 부와 후한 인심, 거기다 ‘일’에 대한 구김살 없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그에겐 있었다. 한 번에 많게는 수십 톤씩 마리화나를 거래하면서도 그는 자신을 범죄자라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법의 늦됨과 옹졸함을 나무랐다. 그의 께름칙한 이력에 적잖은 이들이 관대했던 이유들이었다. <br/>80년대 말 미국서 실형을 산 그는 작가로 변신해 자서전과 스릴러 소설을 썼고, 신문칼럼과 방송, 인기 음악인들과의 공연 등을 통해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에 몰두했다. 말년의 그는 직장암과 투병하며, 넉넉하지 않은 인세와 옛 명성(지인들의 호의)에 기대 살았다. 그것도 대중의, 언론의, 군침 도는 이야깃거리였다. 종부성사를 권하듯 기자들은 그에게 ‘후회 없느냐’고 물었고, 그는 끝내 행복했노라고 유쾌하게 맞섰다. ‘미스터 나이스(Mr. Nice)’ ‘나르코 폴로(Narco Polo)’ ‘역사상 가장 교양 있는 마약 거물’등으로 불렸던 그가 4월 10일 별세했다. 향년 70세. <br/><br/><br/><br/>하워드 막스는 대전 직후인 1945년 8월 13일 영국 사우스웨일즈 브리지엔드 시 인근 켄피그 힐(Kenfig Hill)이라는 작은 탄광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형제 중 유일하게 광부가 아닌 상선 선원이었고, 어머니는 교사였다. 16살 여름방학 때 지방의회에서 사환으로 일하며 주당 7파운드를 번 게 그가 합법적으로 돈을 번 첫 경험이었다.(텔레그래프, 2016.4.11) 64년 그는 마을 학교(Garw grammer school) 출신으론 처음으로 명문 옥스퍼드대 발리올(Balliol) 칼리지(물리학 전공)에 입학했다. 그 무렵 대학가에는 이미 다양한 마약들이 퍼져 있었고 보수적인 옥스퍼드대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는 1학년 때 이미 온갖 종류의 약을 경험했던 듯하다. 2학년이던 65년 기숙사 친구 조슈아 맥밀런(전 총리 해럴드 맥밀런의 아들)이 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숨지는 걸 본 뒤 그는 하드 드럭을 끊었다. 67년 졸업 후 런던대와 발리올칼리지, 서섹스대로 적을 옮겨가며 과학철학으로 70년 석사 학위를 받았고, 대학원 진학 전 교직과정을 이수하던 무렵 라트비아 출신 옥스퍼드 세인트앤느칼리지 졸업생 일저 커데지스(Ilze Kadegis)와 결혼해 딸 하나를 두었다. 둘이 금세 이혼한 건 막스가 마약 거래에 손은 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br/><br/>그는 2013년 ‘Fame & Fortune’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돈이 (마약상이 된) 유일한 동기는 아니었지만, 주요 동기였던 건 맞다</span>”고, “<span class='quot0'>널리 선호되는 믿음은 아닐 테지만, 나는 돈이 행복을 키워준다고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 다른 동기이자 명분은 물론 그 시절 청년 히피문화와 그의 이상주의였다. 2013년 가디언 인터뷰에서 그는 “<span class='quot0'>(마리화나 거래를)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다</span>”고 말했다. 그는 마리화나가 금세 합법화될 것이라 여겼고, 그 전에 그걸로 돈이나 잔뜩 벌어두자고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br/><br/>1996년 그의 자서전 ‘미스터 나이스’의 내용은 위키피디아에 요약돼 있다. 막스는 처음부터 소매상이 아니라 무역상이었다. 필리핀 홍콩 등 아시아와 남미, 중동 등 산지와 유럽과 북미 소비시장을 잇는 국제 네트워크의 작은 고리로 시작해 두 대륙 최대 공급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드라마는 그 자체로 극적이다. 시장 안팎에서, 시시때때로 겪었을 거칠고 위험한 상황들을 총도 주먹도 조직도 없이 혼자 헤쳐 나온 데는 그의 학력과 동창 인맥, 유연한 화법과 매너 등이 유기적으로 기여했을 테지만, 거꾸로 시장의 주역들과 다르다는 점은 신뢰를 쌓는 데 불리하기도 했을 것이다. 막스는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하는 데서 오는 ‘문화적 스릴’을 즐겼고, 폭력이 아니라 신사적으로 “<span class='quot1'>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악수를 나눌 수 있는</span>” 거래를 사랑했다고 말했다.(가디언, 2013.5.27)<br/>음악 페스티벌 시즌에 맞춰 공연팀을 가장해 국경을 넘나들기도 했고, 정보기관 동문 네트워크를 방패로 활용하기도 했다. 영국 외교부 비밀정보부(MI6)와 미국 중앙정보부(CIA) 등은 막스의 마리화나 커넥션을 IRA(아일랜드공화국군)나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정보활동에 실제로 이용했다. <br/>전성기의 그는 한 해 평균 수백만 파운드씩 벌어들였다고 했다. “태국에서 캐나다로 한 번에 30톤을 보낸 적도 있었다. 약 6,000만~7,000만 파운드어치였다. 하지만 모든 거래는 복잡한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내 몫이 딱 얼마라고 정하는 건 어렵다. 그 거래로 내가 번 건 약 70만 파운드였다.” 그가 살아남은 가장 주요한 비결은 어쩌면, 돈에 목숨 걸만큼 악착스럽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른다. <br/>어디다 쓸지 모를 만큼 많은 현금을 종이박스에 담아두고 지내면서 투자 명목으로 손 벌리는 이들에게 나눠도 주고, 노숙자단체나 마약재활시설에 기부도 했다고 한다. 돈세탁도 어렵지 않아 가방에 현금 100만 달러를 지니고 홍콩 공항에 입국한 적도 있었다지만, 그는 노후를 위해 스위스은행 같은 곳을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건 내일도 오늘 같으리라 여겨서가 아니라 내일이 무의미하다고 여긴 까닭이었던 듯하다. “6년 반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도 마리화나 거래를 중단한 적은 없었다. 그게 내 운명, 내 카르마라 여겼다. KO를 당해 링에 드러누울 때까지 싸워야 하는 프로복서 같았다.”(가디언, 2016.4.11) 3년 전 5월 인터뷰에서는 “그래도 법 때문에 불안해서 잠 못 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도 했다. 당시 그는 43개의 위장 신분증과 기억도 못할 89개 전화번호, 세계 각지의 25개 유령회사를 혼자 운영했다. ‘나이스’는 그가 썼던 여권 이름 가운데 하나였다. <br/><br/>1973년 네덜란드 세관당국에 체포된 막스는 MI6 요원이던 대학 동창 해밀턴 맥밀런(Hamilton McMillan)이란 이의 이름을 방패 삼았다. IRA 마약 소탕작전에 투입된 위장요원으로 해명해 본국으로 송환된 그는 보석금 2만 파운드를 내고 풀려났다. 어쨌건 맥밀런을 도운 건 사실이었고, 재판까지 몰고 가기엔 MI6가 잃을 게 많았다. 1980년 다시 체포됐을 땐 런던 중앙형사재판소(Old Bailey)에 서야 했지만 그는 다시 MI6 카드를 내밀었고, 멕시코 반테러 작전 등에 협력했다는 정황과 증언으로 또 풀려났다. 가디언은 그의 부고에서, 재판 중 한 배심원이 그의 매력에 사로잡힌 게 명백해 보였다고 썼다. <br/>그 해 주디 레인(Judy Lane)과 재혼한 그는 재판 후 손을 털고 스페인 마요르카로 이주했다. 하지만 영화배우 리스 이판(Rhys Ifans)이 그를 연기한 2010년 영화 ‘Mr Nice’에 묘사된 것처럼, 막스는 “<span class='quot2'>영원할 것 같은 햇살과 기분 좋은 바람, 좋은 와인과 나른한 분위기</span>”를 견디지 못했다.<br/>1988년 그는 아내 레인과 함께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체포됐다. 필리핀에 거점을 둔 한 동업자가 그를 팔아 양형거래를 했고, 증언과 녹음파일 등 증거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플로리다로 강제 송환된 그에게도 양형거래를 제안했지만 그는 거부했고, 25년형을 선고 받은 뒤 미국의 6대 중죄인형무소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다는 인디애나 주 테러호트(Terre Haute)에 수감됐다. 그의 ‘의리’는 감옥에서, 한때 동업자였거나 동업자의 부하들에 의해 보상 받았다. 옥중에서 그는 마피아와 코르시카 출신의 프렌치 커넥션 멤버들을 모아놓고 자잘한 법률 교육서부터 영어 교육, 철학강좌 등을 운영했다고 한다.<br/><br/>‘나르코 폴로’는, 은어사전 ‘urban dictionary’에 따르면 마약 단속활동을 통칭하는 말이다. 멕시코 마약 대부 에드가 발데스 빌라리얼이 2011년 체포 당시 입었던 폴로 티셔츠(빅 포니) 로고에서 파생돼 마약상 일반을 뜻하는 은어라는 설(nbc news)도 있다. 하지만 유럽의 언론들은 막스가 원조라고, 박식한 마리화나 신사 막스를 간수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썼다. 그는 7년 뒤인 95년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br/><br/><br/>그가 출옥한 90년대 중반은 합성마약 ‘엑스터시’의 시대였다. 엑스터시에 대해 그는 “<span class='quot2'>거기 뭐가 들었는지 알게 뭐냐(…) 그건 오염된 마약</span>”이라며 못마땅해했다. 빈털터리가 된 막스는 96년 자서전 를 출간했다. 7개 국어로 번역 출간된 그의 책은 논픽션 베스트셀러로 약 100만 부가 팔렸다. 와 자서전 후편인 을 잇달아냈고, 범죄 소설 과 여형사가 주인공이라는 를 썼다. 그는 버나드 로즈 감독에게 영화 ‘Mr. Nice’(2010)를 판권 인세 없이 찍게 했다. 인기 뮤직 밴드 ‘Alabama3’와 ‘Super Furry Animals’ 등은 그의 헌정음반을 내거나 공연 게스트로 그를 초대하곤 했다. <br/>막스 자신도 강연과 칼럼, 방송, 원맨쇼 공연 등을 활발히 벌였다. 화려한 재담과 함께 그가 줄기차게 제기한 메시지는 마리화나 합법화였다. 97년 하원선거에도 출마해 1%를 득표했는데, 당시의 공약도 딱 하나 ‘마리화나 합법화’였다.<br/><br/><br/>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막스의 이력에는 그가 자서전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광을 “마리화나 불법화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이해했다고 적혀 있다. “나는 여전히 낙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그 수많은 히피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헛소리를 지껄인 게 아님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 2015년 BBC 인터뷰에서 그는 “마약을 범죄사회에 맡겨두는 대신 합법화해서 통제한다면 우리 사회는 오히려 더 안전해질 거다. 그건 정부의 선택인데, 지금처럼 내버려두는 건 정부가 이 상황을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만일 어떤 마약이 당신에게 살인이나 강간 충동을 일으킨다면 그건 명백히 불법화해야 한다. 나는 세상 모든 마약은 아니어도 아주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 무엇으로도 그런 충동을 겪은 적이 없다. 단 하나 예외라면 알코올이 있는데, 그건 또 유일한 합법 약물이다.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물론 그가 딱딱한 얘기만 한 건 아니었다. Fame & Fortune 인터뷰에서 ‘범죄가 수지맞는 장사더냐’는 질문에 그는 “물론이다. 하지만 내 전철을 밟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벽돌을 한 장 들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집어 던진 뒤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br/><br/>그는 2006년 이혼한 뒤 리즈(Leeds)로 이사했다. 그 무렵 주 수입원은 6개월마다 입금되는 인세가 거의 전부였다. 2013년 인터뷰에서 막스는 “<span class='quot1'>아주 실망스러운 액수지만, 내 목숨이 이제 인세에 달려 있다</span>”고 말했다. <br/>말년의 그는 침실 하나짜리 플랫에 혼자 살며, 지인이 운영하는 바에 자신의 사진과 기념품 등을 전시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술과 음식을 무제한 제공받았다. 지난 해 가을 암 진단을 받은 그는 잇달아 찾아온 기자들에게 “<span class='quot1'>늘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span>”고, “<span class='quot1'>다만 전처와 딸들에게 슬픔을 안긴 건 미안하다</span>”고 말했다. <br/><br/>수많은 이들이 막스의 죽음을 애도했다. 배우 키스 앨런처럼 “<span class='quot3'>그는 대영제국훈장과 기사 작위를 받아야 했다</span>”고 말한 이들도 있었고, “<span class='quot3'>그의 말년은 평가 받을 만하지만 마약시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범죄들을 감안해 지나친 미화는 경계해야 한다</span>”고 지적한 이도 있었다. <br/><br/>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영국의 여론은 여전히 엇갈리지만, 변화의 추세는 그의 편인 듯하다. 공개적으로 합법화를 지지한 정치인도 적지 않고, ‘스팅’ 같은 예술인들도 그를 편들었다. 지난해 영국 자유당 당권 경선에 출마했던 전 보건부장관 노먼 램(Norman Lamb)은 “<span class='quot4'>마리화나를 합법화해 올바르게 관리감독 한다면 범죄집단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나 보건 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span>”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막스가 20년 전부터 말과 글로, 아니 생애를 바쳐 몸으로 역설한 바였다. 그가 행복했다면, 끝내 낙관했기 때문일 것이다. <br/>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90.txt

제목: “가습기 살균제 800만명 사용… 정부 판정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  
날짜: 2016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30051529477  
본문: 증상 수년 뒤 나타날 수도 있어<br/>피해자 160만명 넘을 가능성<br/>정부, 폐 섬유화만 인과관계 인정<br/>폐렴, 천식 등 다른 증상은 제외<br/>“피해 범위 속단할 수 없어”<br/><br/><br/>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정부 발표처럼 95명이 맞는 것일까.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조사가 이미 실시됐지만 피해자 신고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과학적으로 채 해명 안 된 여러 증상들의 인과관계, 독성물질 등에 대한 규명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밝혀야 한다. <br/><br/>잠재적 피해자 수 200만명?<br/>정부는 2013~2015년 1ㆍ2차에 걸쳐 530명(사망자 143명)의 접수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 중 221명(사망자 95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1단계)하거나 가능성이 높다(2단계)고 인정했다. 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4일까지 접수한 피해자는 1,528명(사망자 239명)으로 정부 조사 대상보다 훨씬 많다. 물론 정부 조사도 3차(752명 접수)가 진행 중이고 4차도 실시될 예정이라 피해자로 판정될 이들이 더 늘겠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2001년부터 시판된 것을 감안하면 원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은 이들이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수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br/>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해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2.0%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사용자 5명 중 1명은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 피해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를 토대로 센터는 1,087만명이 살균제를 사용해 이중 227만명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민관합동 폐손상조사위원회는 살균제 사용자 수를 약 800만명으로 추산했는데, 그렇다면 피해자 규모는 160만명 수준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span class='quot0'>증상이 수년 뒤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자신이 피해자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규모를 기껏해야 수천명 수준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br/><br/>3,4단계 피해자들도 후유증 심각<br/>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없음)로 판정해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이들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폐 섬유화가 확인된 경우만 1, 2단계로 인정했고, 폐 손상이 있더라도 지병이 있었거나 폐 손상 외 다른 질환이 나타난 경우는 3, 4단계로 판정했다. <br/>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폐해를 폐 섬유화가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00년부터 5년 가까이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조모(58)씨는 “<span class='quot1'>가습기 살균제로 아프기 전까지는 감기가 뭔지도 몰랐다</span>”고 했다. 그는 살균제 사용 1년 만에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았고 2012년 갑상선암 수술을 했다. 지금도 각종 피부 질환에도 시달린다. 1차 조사에 접수했으나 4단계 판정을 받았다. 납득할 수 없어 재심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조씨는 “<span class='quot2'>달랑 2장짜리 판정 문서에는 건강했던 내가 어떻게 폐질환을 얻었고, 그게 왜 살균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인지 설명이 전혀 없었다</span>”고 말했다. 조씨처럼 3, 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1, 2차 조사 대상 530명 중 절반이 넘는 303명이다.<br/>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8일 3, 4단계 피해자들도 5명 중 1명 꼴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피해자 34명이 폐렴과 비염, 천식, 편도염 등에 시달린다는 의료기록 분석 결과다. 심 의원은 “<span class='quot3'>폐 섬유화만 인정하고 나머지 질환들을 제외하는 행태는 피해자들 고통을 왜곡하는 처사</span>”라며 “<span class='quot3'>다른 질환까지 확대 재조사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2012년 폐손상조사위 위원장을 맡았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span class='quot4'>동물 실험에서 살균제 성분이 심장이나 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견도 있는 만큼 피해 범위를 속단할 수 없다</span>”고 말했다.<br/><br/><br/><br/>다른 제품들은 과연 안전한가<br/>피해를 유발한 유독물질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뿐이냐는 의문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 결과를 토대로 PHMG와 PGH가 포함된 제품 6종에 대해서만 강제수거 명령을 내렸다. 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은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아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 다른 제품들은 검찰 수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br/>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 2차 조사 대상 중 CMIT와 MIT 성분 제품을 사용한 167명 가운데 사망자가 37명에 달한다며 유해성을 의심하고 있다. 2009년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이모(40)씨는 1년 뒤부터 최근까지 천식 탓에 숨을 쉬는 일이 버겁다. 하지만 정부 조사에서 4단계 판정을 받았다. 그는 “<span class='quot4'>왜 하필 살균제를 사용한 시점에 천식이 생긴 건지 정부가 밝혀주길 바랐지만 공무원들은 ‘전문가들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span class='quot5'>피해자들이 사용한 제품은 총 14종인데 동물실험을 한 것은 3종뿐</span>”이라며 “<span class='quot5'>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특별법 제정으로 전면 조사해야<br/>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전면 재조사하고,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공동 발의를 제안했고 여야 모두 이에 호응하고 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span class='quot6'>민ㆍ형사상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가 많은데 특별법을 만들면 시효가 지나더라도 가해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석면 피해자들이 요양생활수당을 받는 것처럼 장기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br/>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91.txt

제목: 구글 피차이 “알파고 승리는 변곡점…승자는 결국 인류”  
날짜: 2016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30051356974  
본문: 인도계 미국인인 선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구글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지난달 바둑 대결을 언급하면서 “<span class='quot0'>알파고의 승리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다</span>”라며 “<span class='quot0'>AI와의 경쟁에서 결국 승자는 인류가 될 것이다</span>”고 밝혔다. 피차이는 28일(현지시간)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연례 CEO 서한에서 구글의 지난해 성과를 언급한 후 AI의 잠재력에 대해 설명했다. <br/>피차이는 서한에서 “<span class='quot1'>알파고는 지난달 바둑 최고 고수를 이긴 최초의 프로그램이 됐다</span>”라며 “<span class='quot1'>앞으로 AI가 일상적인 업무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암 등 중증질환 치료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span>”고 말했다. 미 CNBC는 피차이의 발언이 AI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고 지적했다. <br/>알파고의 승리를 전후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립자, 스티븐 호킹, 일런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은 AI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공개적인 AI지지’를 피해왔다. 자칫 AI의 급성장이 인류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span class='quot2'>AI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span>”고 밝힌 바 있다. 피차이의 이번 발언은 AI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결국 인류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br/>피차이는 더불어 “<span class='quot1'>지금까지 구글은 컴퓨터 휴대폰 손목시계 자동차 가상현실(VR) 등 여러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span>”라며 “<span class='quot1'>앞으로 이들 기기는 모두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span>”고 내다봤다. 그는 “<span class='quot1'>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 자체가 일상을 돕는 똑똑한 보조원이 될 것이며 기계라는 개념은 점차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span>”라며 “<span class='quot1'>세계는 모바일 퍼스트가 아닌 AI 퍼스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span>”고 밝혔다.<br/>피차이는 CEO로서 먼 미래에 대한 전망뿐 아니라 구글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보다 많은 콘텐츠를 보다 다양한 장소에 담겠다’는 전략적 지향점을 내세우면서 “<span class='quot1'>구글플레이와 유튜브 등 동영상 채널에 더욱 많은 콘텐츠를 담아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모바일 공간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이다</span>”고 말했다. 피차이는 서한 말미에서 “<span class='quot1'>기술발전은 우리가 생산하는 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1'>기술을 통해 정보를 모두 공평하게 나눠 갖는 궁극적인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span>”고 밝혔다. <br/>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92.txt

제목: 11세 소년이 65세의 몸…“편집하며 많이 울어”  
날짜: 201604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29051505434  
본문: 홍원기 군(11)의 시간은 남들 보다 약 6배 빠르게 흐른다. 홍 군은 소아조로증(Progeria)환자다. 다 자라기도 전에 늙어 소년의 나이에 죽음을 맞아야 하는 병을 앓고 있다. 길어야 17세까지 살 수 있는 병이라고 한다. 소년의 노화는 이미 시작됐다. 키 104cm에 체중이 14㎏ 밖에 안 나가는 홍 군의 피부는 노인의 살갗처럼 얇고 주름졌다. 부러질 듯 얇은 팔과 다리에 걷는 모습도 구부정하다. 머리카락은 나지 않아 밖에 나갈 때는 주로 모자를 쓴다. 열한 살 소년의 생체 나이는 약 65세다. 홍 군이 앓고 있는 소아조로증은 400만~800만분의 1의 확률로 발병하는 희귀 병이다. 그는 국내에서 소아조로증으로 확인된 유일한 환자다. <br/>내달 23일 MBC ‘휴먼다큐 사랑’에서 소개될 ‘시간을 도둑 맞은’ 홍 군의 삶(‘시간을 달리는 소년 원기’)이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소년과 그 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휴먼다큐 사랑’ 간담회에서 일부 공개된 촬영분을 보니 홍 군과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시간을 달리는 소년 원기’를 제작한 조성현 PD는 “<span class='quot0'>처음엔 그 가족의 웃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황당했다</span>”고 말했다.<br/>“집에 갔는데 아이 엄마랑 아빠가 원기랑 같이 막춤도 추고 놀더라고요. 아빠는 원기가 짝사랑하는 아이 코스프레(흉내)도 하고요. 처음엔 ‘아이한테 무슨 짓인가’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아이가 언제 우리 곁을 떠난다 해도 웃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족들이 힘든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인 거죠. 나중에 그 웃음의 의미를 알고 더 슬펐어요. 편집하면서도 많이 울었고요”(조 PD).<br/><br/><br/>홍 군과 그의 가족의 모습과 더불어 제작진이 보여줄 ‘사랑’ 얘기는 총 5편이다. 5월 매주마다 한 편 씩 전파를 탄다. 별거 40년 째인 배우 엄앵란과 신성일의 얘기(‘엄앵란과 신성일’·5월2일)로 시작해 치매(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아내를 간호하는 60대의 노부부 얘기(‘러브 미 텐더’·5월9일)로 이어진다. 그간 프로그램이 죽음을 앞둔 일반인의 삶에 집중했던 것을 고려하면 ‘엄앵란 신성일’ 편은 다소 튄다. 신성일의 불륜으로 두 사람이 별거 중이란 얘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 새롭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두고 ‘휴먼다큐 사랑’ 제작을 총괄한 김진만 PD는 “<span class='quot1'>치매로 고통 받는 노부부 얘기 보다 엄앵란 신성일 부부의 얘기가 더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br/>“엄앵란 신성일 부부의 진정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엄앵란 선생님께서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변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았고요. 시간을 통해서 되찾는 가족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기획의도와 잘 맞았죠. 정말 두 분은 극과 극의 성격을 지닌 분이셨죠. 신성일 선생님이 처음으로 엄앵란 선생님께 ‘미안하다’는 말도 하셨고요. 집을 나가 경북에서 혼자 지내시는 신성일 선생님이 엄앵란 선생님 투병을 계기로 어떻게든 집에 들어오려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보통 부부의 삶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죠”(김 PD).<br/><br/>제작진이 가장 오래 준비한 기획은 탈북자 모녀 얘기(‘내 딸 미향이’·5월16일)다. 제작진은 이 모녀의 모습을 무려 3년에 걸쳐 카메라에 담았다. 역대 ‘휴면 다큐사랑’ 가운데 가장 긴 제작 기간이다. 탈북해 중국에서 숨어살 다 라오스와 태국 등을 거쳐 한국에 온 여정을 비롯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딸 미향이의 스위스 입양과 현지 생활 등을 모두 담아서다. 친 엄마에 “왜 날 입양 보냈어”라고 묻는 미향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이 스크린을 통해 나오자, 간담회 현장에서는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터졌다. <br/>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각각 미국과 프랑스로 입양된 뒤 25년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적적으로 만난 두 자매의 한국 엄마 찾기 여정(‘사랑하는 엄마에게’·5월30일)도 전파를 탄다. 영화 ‘게이샤의 추억’ 등에 출연해 미국에서 할리우드 배우로 성장한 사만다 푸터먼과 프랑스에서 패션디자이너로 성공한 아니이스 보르디에 자매 얘기다. 두 사람의 기적적인 만남을 책 ‘어나더 미’와 다큐멘터리 등에 담아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들이다. ‘사랑하는 엄마에게’를 연출한 이모현 PD는 “<span class='quot2'>애초 2014년에 두 자매를 섭외하려 했는데, 마침 두 자매가 직접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다고 해서 뒤늦게 섭외를 한 케이스</span>”라며 “<span class='quot2'>기존 다큐멘터리에 없는 두 모녀의 서울에서의 친모 찾기가 이번 편의 포인트</span>”라고 말했다. <br/><br/>‘휴먼다큐 사랑’은 지난 2006년 ‘뻐꾸기 가족’편을 시작으로 고통의 순간에서 가족을 바라보며 삶의 행복을 채워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왔다. 올해로 11주년을 이어오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평균 시청률 10%대를 오가며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다. 김 PD는 “<span class='quot1'>지난해 10주년을 끝내고 ‘휴먼다큐 사랑’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치가 있는 지를 고민 많이 했고, 어렵게 시작해 ‘무한도전’처럼 11주년을 맞이 하게 됐다</span>”고 프로그램의 새 출발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요즘 다들 너무 살기 힘들어 해 마음껏 울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비극을 통해서가 아니라 희망의 눈물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여 줘 희망을 주고 싶었다”는 기획의도도 들려줬다. <br/>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93.txt

제목: "한센병 환자의 친구로 살았을 뿐... 내가 한 일은 없어"  
날짜: 201604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27051850206  
본문: 소록도의 큰 소나무에는 다 사연이 있다. 한 번쯤은 누군가 목을 맸을 정도로 자살기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소록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가슴 속 응어리가 사무친 농담이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는 조선총독부가 1916년 자혜의원(국립소록도병원 전신)을 설립하며 한센병 환자들이 정착해, 1933년에는 섬 전체가 나요양소가 됐다. 환자들은 중일전쟁(1937년) 전후로 시작된 강제노역, 감금, 강제 정관수술, 낙태 등을 겪었고 해방 후에도 몸이 허물어지는 육신의 고통, 세속의 편견과 배척,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이의 존재적 회의를 견뎌야 했다.<br/>환자들 스스로 ‘저주 받은 땅’을 부르짖던 섬에 인권 개념을 뿌리내린 것은 1962년 나타난 마리안느 스퇴거(82ㆍ당시 28세) 수녀와 마가렛 피사렉(81ㆍ당시 27세) 수녀였다. 의학적 무지로 한국인 의사조차 접촉을 기피하고 꼬챙이로 환부를 툭툭 치던 시절, 간호대학을 졸업한 두 앳된 수녀는 맨손으로 진료하고 환자들과 살을 맞대며 함께 밥을 지어먹었다. 43년간 헌신하던 두 수녀가 “<span class='quot0'>나이 들어 부담을 주기 싫다</span>”며 2005년 돌연 고향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일은 지난 10여 년 간 한국 천주교회에서 어느 성인의 역사 못지 않게 절절히 회고됐다.<br/>홀연히 떠난 소록도를 11년만에 다시 찾아온 마리안느 수녀는 26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span class='quot1'>치료 받은 환자들이 상태가 좋아져 집으로 돌아갈 때 가족들이 배웅을 나오며 반기고 안아주는 모습을 보는 일이 가장 행복했다</span>”고 말했다. 또 “손 수술, 발 수술을 다 하고 병도 완전히 나았지만 기다리는 가족이 없어 돌아가지 못할 때 제일 마음이 아팠다”고 회고했다.<br/>“<span class='quot2'>제가 한 보잘것없는 일로 칭찬받고 싶지 않다</span>”며 망설이는 그의 한국행을 설득한 건 3년 전 소록도성당에 부임한 김연준(47) 주임신부다. 11년 전 보좌신부로 소록도에서 마리안느와 함께 일했던 그는 재차 소록도행을 자청했고, 지난해 직접 오스트리아로 가 두 수녀를 만났다. 인터뷰를 피해 온 마리안느 수녀는 김 신부가 “<span class='quot1'>근래 한국사회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회의가 심하다</span>”며 “<span class='quot1'>희망을 주시고 제2의 마리안느가 나올 수 있게 재고해달라</span>”고 호소하자 마음을 바꿨다. 13일 입국한 그는 약 1달간 머무르며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석한다. 마가렛 수녀는 경증치매 등을 앓고 있어 함께 오지 못했다. <br/>“그저 예수님 복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싶었고, 제가 하는 일 중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줬고 우리는 (환자들과)지금까지 친구로, 제일 좋은 친구로 살았어요. 1962년에 여기 왔을 때는 우리나라도 가난했고, 간호원이 부족했어요. 그저 부름에 따라 온 일은 알릴 필요가 없었는데….”<br/>이들은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빈곤계층이 받는 최저수준의 국가연금으로 민가와 양로원에서 생활한다. 한국에선 수녀란 호칭으로 알려졌지만, 청빈 순명 정결을 서약하되 수녀원 밖에 머무르는 ‘재속회’ 소속이라 돌아갈 노후를 맡길 수녀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광주대교구와 소록도성당 측이 제안한 한국에서의 노후 보장과 금전 지원을 극구 사양했다.<br/>오스트리아 그리스도 왕 시녀회 소속의 두 수녀가 처음 한국을 왔을 때는 5년 정도 머물 계획이었다. 마리안느 수녀는 “<span class='quot1'>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목격하곤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데 생을 바쳐야겠다</span>”고 생각했다.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의 후원으로 소록도에 의약품을 보급하고, 주택을 개량했다. 영아원, 결핵 병동, 정신과 병동, 목욕탕 건물을 지었다. 완치 후 섬 밖으로 자립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생활비까지 쥐어줬다. 국립소록도병원에서 33년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서판임(57)씨는 “<span class='quot3'>최후의 보루인 소록도에서 손 마디 마디가 끊겨나가는 신경통 등을 앓는 환자 곁을 늘 지키던 두 분의 모습은 그 존재 자체가 큰 안심이자 롤 모델이었다</span>”고 말했다.<br/>두 수녀는 습한 환경 때문에 숱하게 지네에 물리면서도 한 번도 집 수리에 돈을 쓰지 않았다. 43년 생활을 정리한 짐은 낡은 여행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한 완치환자는 “가족조차 부끄러워하는 내 등을 어루만졌던 <span class='quot4'>수녀님</span>이 보여 준 것은 사랑 그 자체”라며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부담을 줄 까봐 딱 편지 한 장을, 그것도 멀리 광주에 가서야 부치고 가셨다”고 눈시울을 붉혔다.<br/>두 수녀는 2005년 당시 남긴 편지에 이렇게 썼다. “이제 저희의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제대로 일할 수 없고, 있는 곳에 부담을 줄 때는 본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그 말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저희 부족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항상 기도 안에서 만납시다.”<br/>마리안느 수녀는 “<span class='quot1'>여기서 죽어야지 생각했는데 2003년 대장암에 걸리고 세 번 수술을 받으니까 여기서 더 일은 못하니 조용히 가야겠다고 생각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진짜로 떠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웠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span>”고 말했다.<br/>마리안느 수녀가 다리를 놓아 연을 맺은 이공순(74) 전봉업(70)씨 부부는 두 수녀가 떠난 뒤 3달 넘게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엄마 잃은 고통’에 아파했다. 10대부터 한센병을 앓았고 합병증으로 40대에 완전히 실명한 전씨는 “<span class='quot4'>아파서 진료 받아보고는 암이 아니라는 말에 실망할 정도로 죽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자신도 디스크 등으로 고생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마리안느 <span class='quot4'>수녀님</span>의 모습에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span>”고 했다. 그는 미사 때 반주자가 없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곤 실명 후 처음으로 음악을 배웠고 모든 성가를 외워 20년째 봉사하고 있다. 이씨는 “앞서 사별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기도대로 병 없이 자란 게 너무 감사해 평생 갚으며 살고 싶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전씨에게 내 눈을 주고 싶다”는 편지를 마리안느 수녀에게 썼고, 이 일을 계기로 전씨와 연을 맺어 30년 넘게 남편의 손과 발과 눈이 돼 주고 있다.<br/>소록도 생활이 행복했냐는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마리안느 수녀는 “네 행복했어요. 이따 만큼. 하늘만큼요” 하며 양 손을 벌려 보였다. “예수님도 많은 고통을 받은 분이잖아요. 그 고통을 알게 되는 사람은 그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 받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세요.”<br/>“<span class='quot4'>수녀님</span>”대신 “할매”로 불리길 바랐던 이 벽안의 ‘할매 천사’들이 베푼 사랑은 이 밖에도 크고 작은 기적을 낳았다. 영아원에서 자란 소위 미감아(未感兒ㆍ한센병 환자의 자녀를 ‘아직 감염되지 않은 아이’로 부르는 차별적 표현) 중 사제가 네 사람이 나왔다. 생일이면 직접 구운 빵을 선물하며 “탄생은 저주가 아니다”라고 다독이던 두 수녀의 생일축하 전통은 김 신부에 의해 지금껏 이어진다.<br/>병원간호사로 7년 넘게 일하던 최연정씨는 “두 <span class='quot4'>수녀님</span>처럼 살겠다”며 지난해 볼리비아로 떠나 빈민 구호에 헌신하고 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기술학교를 세우겠다는 최씨의 계획에 한센인 신자가 선뜻 500만원을 내놓았고 이어 한 달 만에 1,000만원이 모였다. 성당 측은 매월 300만원씩을 볼리비아에 보낸다.<br/>김 신부도 두 수녀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 직접 법인을 설립해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하고 있다. 그는 생의 위기에 봉착할 때 마다 “신부님, 예수님은 제자들 발 씻겨 주셨어요. 그거면 돼요” 하던 마리안느 수녀의 말을 되새긴다. 두 수녀의 흔적이 남은 치유의 길, 결핵 병동 등을 알리는 일도 준비 중이다. 치유의 길은 일제시대 강제노역에 지쳐 섬을 탈출하려던 환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당시 일본인 병원장이 한 겨울에 전체 환자 6,000명을 동원해 20일 만에 곡괭이로 4㎞ 넘게 닦아낸 길이다. 그 한 켠에 두 수녀가 직접 세웠던 과거 결핵 병동 건물이 있다.<br/>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을 계기로 폐쇄된 차별의 상징인 환자 전용 부두 제비선창, 두 수녀가 헌신한 국립소록도병원 M치료실, 환자들이 직접 모래를 채취해 정성으로 지은 2번지 성당 등 소록도는 곳곳이 깊이 패인 상처요 역사다. 숱한 한센인의 피, 땀, 눈물이 스민 성당에서 김 신부는 눈을 빛냈다.<br/>“소록도는 대한민국의 진주입니다. 살을 찢는 고통과 그걸 이겨낸 사람들의 눈물이 빛나는 땅이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가장 꼬이고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록도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온갖 고통, 자행된 악행, 이를 이겨내는 정신, 이를 보듬은 <span class='quot4'>수녀님</span>들의 존엄성 등을 보고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소록도가 우리를 이기심에서 탈출시키는 출발점이 돼야죠. 이제 우리 모두가 아픈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마리안느 <span class='quot4'>수녀님</span>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br/>고흥=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br/>▲한센병이란 <br/>한센균에 의한 감염증이다. 개인 면역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한 사람은 균이 들어와도 발병하지 않는다. 지금은 대부분 생후 4주 전에 예방주사인 BCG주사를 접종한다. 현재 한센인은 과거 발병한 한센은 다 나았지만 후유증으로 지체불구 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원하는 경우 여타 지역 대신 소록도에 거주하며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록도에는 한센인 700명 정도가 완치 상태로 후유증 등을 치료 받으며 거주한다. 일반인이 제한구역이나마 소록도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은 1994년부터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94.txt

제목: 커피로 독소 배출하는 ‘커피 관장’, 디톡스 효과는 “글쎄”  
날짜: 2016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26051727964  
본문: 디톡스 애호가와 암 환자들 사이에서 커피로 독소를 배출한다는 '커피 관장'을 직접 집에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br/>'커피 관장'은 말 그대로 커피를 항문으로 넣어 대장을 청소하는 관장 요법이다. 이를 시행하는 사람들은 카페인이 직장 점막을 통해 흡수되면 곧바로 간으로 들어가 담즙의 배출을 도우면서 간에 있는 독소를 뽑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br/>하지만 커피 관장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환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커피 관장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거나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다"며 "특히 대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인위적인 관장으로 인해 자체적인 배변능력이 떨어지거나 관장을 하는 과정에서 대장염, 대장 천공, 세균 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br/>최근 한 연구에서 커피관장 보다 커피를 입으로 마시는 경우 체내 카페인 농도가 더 높게 측정됐다. 따라서 커피의 효과는 관장을 통해 주입하는 것보다 입으로 섭취하는 게 더 클 수 있다.<br/>최 교수는 "관장은 주로 변을 내보내거나 입으로 약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나 대장에 생긴 국소적인 염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잦은 커피 관장은 이온 불균형, 감염, 출혈 등과 같은 합병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br/>실제 너무 뜨거운 커피를 빨리 주입해 대장에 화상이 생기거나 천공(구멍)이 생기는 합병증이 보고된 바 있으며, 커피 관장 뒤 세균 감염으로 혈액까지 세균이 퍼져 목숨을 위협하는 패혈증이 나타난 사례도 있다.<br/>심지어 이온 불균형, 탈수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국은 커피 관장의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br/>그는 "대장 벽은 미끄러운 점막으로 덮여 있고 반복적인 연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숙변'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람에 따라 대장 운동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변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단지 대변이 대장을 빠져 나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라고 덧붙였다.<br/>따라서 최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며 "커피는 기호식품으로 일일 1~2잔 적당하게 마시되, 절대 관장이나 치료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95.txt

제목: 고도비만 환자, 위밴드 대신 위주름 성형술 받는다  
날짜: 2016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26051725052  
본문: 최근 고도비만을 줄이는 위밴드 수술이 줄어드는 대신 위주름성형술(위성형술)이 늘어나고 있다.<br/>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KSMBS)는 최근 3년 동안 국내 위성형술 시행 고도 비만자는 3배 가량이 늘어났다고 최근 밝혔다. 위주름성형술을 시행해온 일부 병원의 누적 합계는 2013년 50여건에서 현재 150여건으로 증가했다.<br/>새로운 식이제한수술법인 위성형술은 위장을 봉합하는 복강경수술이다. 위밴드 같이 실리콘 이물삽입이나 위장의 부분절제과정 없이 봉합만으로 위를 줄여 식이제한 효과를 나타내는 최신 고도비만술식이다.<br/>원리는 위의 바깥 표면을 안으로 말아 주름을 잡고 겉에서 봉합해 위 면적을 줄이는 것이다. 즉, 위 단면을 'W' 모양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위용적을 줄이는 방법이다.<br/>봉합은 위의 부분절제과정이나 실리콘(위밴드) 이물삽입과정과는 다르다. 따라서 봉합 후에도 위장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위성형술 1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하고, 원할 경우 봉합사를 제거해 위장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br/>또 수술 후 위밴드관리(필링) 등의 잦은 병원방문이 필요 없고, 위밴드 고유의 음식막힘증 없이 일반식 섭취가 가능하다. 이로서 체내 기초대사량은 보존되어 좀 더 생리적인 형태의 감량이 이뤄진다.<br/>효과는 우수하다. 위성형술은 중등도부터 고도비만까지의 환자에 대해 초과체중감소율은 평균적으로 약 70~80%로서, 감량면에서 위밴드수술보다 우수하다. 중등도부터 고도비만까지의 환자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유형의 비만이다.<br/>또 고가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기존 고도비만수술보다 시술비용이 싸다.<br/>위밴드 같은 실리콘 이물삽입이나 위장의 부분절제과정이 없어 다른 수술보다 수술 시간도 짧다. 복강경을 활용한 시술 시간은 2시간, 입원은 이틀간 하며 수술 직후부터 며칠간 일시적인 부종기를 지나고 나면 안정적인 식이제한이 이뤄진다. 보통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기간에 최저체중을 달성하게 된다.<br/>김성민 가천대 길병원 외과 교수는 "진료 초기에는 교과서에 없는 실험적인 술식이라든지 감량효과가 없는 고도비만수술이라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지만, 지난 5년 간 꾸준히 술기가 발전되고 우수한 감량효과가 입증돼 최근 국제학회에서도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br/>고도비만 환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같은 성인병은 물론 심뇌혈관 질환, 암 등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도비만 환자에게 비만은 그야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다. 이들에게 식이, 운동, 약물 요법은 효과가 크지 않다. <br/>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은 삶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기도 한다. 실제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비만환자에겐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치료와 같은 비수술치료보다 비만수술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br/>현재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은 위밴드술이다. 수술시간이 짧고 시술이 간단하며 당일퇴원이 가능하다. 풍선이 내장된 실리콘 밴드로 위 상단 부분을 묶어서 음식의 통로직경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다만, 불충분한 식이교육, 환자 순응도 및 부적절한 사후관리로 인한 유해반응으로 감량이 이뤄지지 않거나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다.<br/>위소매절제술은 안전한 수술방법 중 하나다. 위를 바나나 모양으로 재단하고 절제해 위모양을 유지하면서 위용적을 줄이는 수술법이다. 수술 후 누출이나 일시적인 기능성 협착 등의 가능성이 있다. 오랫동안의 적은 식사량에도 공복감이 덜하고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감량에 많은 도움이 된다.<br/>다만, 장기적으로 위용적이 최대 1/3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충분한 감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의한 체중증가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br/>위우회술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위의 상당부분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즉 기능적으로 위를 조금만 남겨놓고, 이를 소장과 직접 연결시키는 수술이다. 역류증이나 구토 등이 없어서 건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다. 비만을 동반한 2형 당뇨병에도 효과적이다. 흡수억제기능이 있어 칼슘, 철분, 종합비타민제의 지속적인 섭취가 필요하다.<br/>김 교수는 "이들 수술 대부분은 드물지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위 용적이 줄어 과식 후 음식물이 역류하거나, 우회술의 경우 내탈장, 소장궤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다만, 고도비만 환자의 사망위험도가 5년간 89%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96.txt

제목: [의약 동정] 삼성서울병원,소아 크론병 환자 건강강좌 진행 등  
날짜: 2016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26051502677  
본문: 삼성서울병원,소아 크론병 환자 건강강좌 진행<br/> <br/>삼성서울병원은 30일 오후 2시부터 암병원 지하2층 중강의장에서'소아 크론병' 공개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크론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염증성장질환으로서, 입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기 전 기관에 거쳐 염증의 악화와 재발이 반복되는 질환이다.<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14년 크론병 환자는 총 17,284명으로서 이 중 19세 미만 환자 수 증가율은 5년 사이 46%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소아 크론병의 치료 및 영양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성장발달 및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강좌가 마련됐다. 1부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최연호 교수가 '소아 크론병 환자 건강관리'를 주제로 ▲소아 크론병 치료 및 관리 ▲소아 크론병 영양관리와 성장 ▲특수영양식 정부지원사업을 강의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홍슬희 임상영양사가 '소아 크론병 환자 영양관리'를 주제로 ▲소아 크론병 환아 식단 ▲특수영양식 종류 및 섭취법에 대해 소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환자뿐 아니라 질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크론병 환자를 위한 특수영양식 제품 샘플을 증정할 예정이다(문의 02-3410-3043).<br/> <br/>한림대학교의료원, 하버드의대 만조로스 교수 초청강연<br/> <br/>한림대학교의료원은 25일 오후 4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본관 4층 한마음홀에서 미국 하버드의대의 크리스토스 만조로스(Christos S. Mantzoros) 교수 초청강연을 연다. 만조로스 교수는 비만, 당뇨, 대사질환 분야의 대가로 600여 편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과 보스턴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직을 맡고 있으며, 세계 125명의 임상과학자와 5명의 교수를 제자로 두고 있다. '비만과 암-아디포넥틴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이번 강연에서 만조로스 교수는 ▲암의 발생 및 진행과정에서의 아디포넥틴의 역할 ▲아디포넥틴과 암의 연관성에 관한 병태생리학적 기전 등을 소개한다.<br/> <br/>아디포넥틴은 주로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로 인슐린감수성 증가, 항염증, 항동맥경화, 세포자멸사 유도 및 증식억제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비만과 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만조로스 교수는 "아디포넥틴 그 자체, 혹은 아디포넥틴 수치를 증가시키거나 아디포넥틴 신호전달을 촉진시키는 약물이 유용한 항암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초청강연은 비만, 대사질환 및 관련 종양연구에 관심있는 임상강사, 전공의, 교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문의 02-2629-1273).<br/> <br/>중앙대병원 송정수 교수, 통풍연구회 신임 회장 선출<br/> <br/>중앙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송정수 교수가 대한류마티스학회 산하 통풍연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송정수 교수는 지난 4월 16일 제9회 통풍연구회 학술대회 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오는 5월부터 향후 2년간 국내 통풍의 기초 및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11년, 국내의 통풍전문가들이 통풍에 대한 연구와 치료지침 개발을 목표로 설립한 학술단체인 통풍연구회는 그 동안 대한류마티스학회지를 통해 한국인 맞춤형 통풍치료 지침을 발표했고, 아시아통풍전문가회의(EAGER)를 개최하는 등 통풍 연구와 치료 분야에 있어 괄목할만한 학술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임 송정수 회장은 "통풍연구회에서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성 콩팥병과 대사증후군을 동반하는 질환인 통풍을 정복하기 위하여 다기관 임상연구와 학술발표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통풍 치료제 개발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해외의 관련학회와 통풍전문가들과도 꾸준히 협력해 최신의 연구와 치료지침을 공유하여 통풍의 조기진단 및 우리 실정에 맞는 치료법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br/> <br/>동화약품 천식치료제 후보물질,<br/> <br/>동화약품이 지난 20일 천연물 천식치료제 'DW2008'이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단장 주상언)의 과제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DW2008'은 다중 작용기전의 경구용 천식 치료제 후보물질로, 동물실험에서 항 알레르기성 염증 효과와 기도확장 효과를 동시에 나타냈으며 기존 경구용 천식 치료제들에 비해 효과가 우수함을 입증한 약물이다. 동화약품은 이번 협약으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서 연구비를 일부 지원받아 'DW2008'의 비임상 독성 연구 및 최적의 임상 환자군 선정을 위한 연구들을 진행할 계획이다.<br/> <br/>한편, 국내 천식치료제 시장은 2015년 약 2,000억원 정도이며, 세계 시장은 2013년 약 19조원(160억 달러)을 형성하고 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97.txt

제목: 황사의 계절 폐 건강 지키는 좋은 습관  
날짜: 201604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26051502084  
본문: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꾸준히 발표되면서 호흡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br/> <br/>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어린이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 신체 기능이 온전히 발달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 노출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최근 중국의 경우 호흡기 관련 암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처럼 황사가 몰려오는 계절 자녀들의 폐 건강은 부모들의 대응에 달려있다.<br/> <br/>폐 건강 지키는 습관 ①마스크<br/> <br/>자녀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다. 황사 및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올바른 황사마스크를 구비해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유해물질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마스크 선택 시에는 '식약처 허가', 'KF80', 'KF94', '의약외품' 등의 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 <br/>마스크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 구입 시 패키지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더불어 현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황사마스크의 경우 식약처에서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구분하지 않아 어린이용 황사마스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린이는 얼굴 크기에 맞는 소형 제품을 착용하면 된다.<br/> <br/>내과 전문의 윤승재 원장은 "황사·미세먼지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요즘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는 필수 품목으로 지참해야 한다"며 "요즘 먼지는 황토 먼지가 아니라 중금속 먼지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미세먼지 등급이 '매우 나쁨' 수준인 미세먼지 농도 162㎍/㎥일 때 성인 남성이 야외에서 1시간 정도 활동했다면 흡입한 미세먼지의 양은 58㎍이다. 2000㏄ 디젤 승용차의 엔진을 켜놓은 차고(60㎥)에서 3시간 40분 동안 머무르며 들이마시는 매연과 같은 수치다."고 밝혔다.<br/> <br/>페 건강지키는 습관 ②예보 확인<br/> <br/>미세먼지 위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예보등급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 기준과 건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일일 평균치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좋음'부터 '매우 나쁨' 등의 5단계로 발표하는데,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약간 나쁨' 단계부터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이다. 또 55% 이상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과 코, 얼굴 씻어야 한다.<br/> <br/>전문가들은 매우 나쁨일 때는 외부에서 스포츠 활동을 전면 금할 것을 주문한다. 일부에서는 법으로 재한을 하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98.txt

제목: 수족관에 갇힌 동물들의 절규  
날짜: 201604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24150333769  
본문: “너무 불쌍하다.”<br/>지난 12일 경기 한화아쿠아플라넷 일산 수족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전면이 투명한 유리로 된 재규어 사육장 앞을 지나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불쌍하다”는 말을 쏟아냈다. 재규어 암,수 두 마리는 관람객들로부터 잠깐 시선을 끌기 위해 360도 전 방향이 유리로 둘러 싸여 완전히 노출된 사육장에서 24시간 살고 있다.<br/>재규어들은 잠시도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곳 조차 없는 공간에서 불안한 듯 계속 서성였다. 동물들이 뚜렷한 목적없이 일정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난다. 심지어 한쪽 유리에 머리를 부딪힌 흔적들도 보였다.<br/>몇 분 동안 서성이던 재규어 한 마리는 결국 가쁜 호흡을 내쉬며 털썩 주저 앉았다. 카메라를 들이대도 촬영에 익숙한 듯 대수롭지 않게 쳐다 봤다. 이형주 동물보호활동가는 “<span class='quot0'>재규어들이 2014년 말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 정도로 불안해 보이지는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결국 쉴 곳도 없는 곳에 가둬놓는 게 문제</span>”라고 말했다.<br/><br/>국내에는 대기업과 외국자본들이 운영하는 아쿠아리움이 8곳 이상이다. 이들은 수족관에 재규어를 가둬서 전시하거나 각종 동물 쇼를 내세워 관람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문제는 호객 행위에 동원된 동물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다. 과연 아쿠아리움들은 이들의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돌아 봤다.<br/>한화아쿠아플라넷은 땅과 바다, 하늘의 모든 생물을 모아 놓은 신개념 아쿠아리움을 표방하며 재규어를 수족관에 전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규어 외에 원숭이 등 포유류와 앵무새까지 있다. 옥상에는 먹이를 줄 수 있는 양과 닭, 말 등을 모아 놓은 체험미니동물원을 갖췄다.<br/>한화 측은 이 곳의 대표적인 동물인 재규어 전시 시설에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사육 공간을 국내 재규어 두 마리 사육 기준인 18.9㎥의 약 5배 규모인 95.2㎥를 마련했고 자연채광을 제공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사육시설 내 3면이 막혀 관람객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이 있고 3개 내사를 별도 관리해 필요시 언제든 입사할 수 있다</span>”고 밝혔다. 또 한화는 놀이공과 로프 등 장난감을 비롯해 살아있는 물고기, 돼지등뼈 등을 제공해 재규어들이 야생 감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씨는 “<span class='quot2'>야생에서 85㎞를 이동하며 물 속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재규어에게 이 곳은 사방이 꽉 막힌 인큐베이터</span>”라고 꼬집었다. <br/>아쿠아플라넷의 바다코끼리 전시장도 위가 뚫려 있는 유리로 둘러 싸여 있다. 생태설명회 시작 전부터 단체관람 온 유치원생들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 유리를 두드리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렸다. 관람시 주의사항을 적은 영어나 중국어 안내판도 보이지 않았다. ‘바다코끼리가 장난기가 많아 물을 튀기니 주의하라’는 한글 안내판만 붙어 있다. 안내판을 본 이 씨는 “<span class='quot2'>관람객과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방증</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유리 위쪽이 뚫려 있는데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 관람객과 바다코끼리 모두 위험할 수 있다</span>”고 주장했다.<br/>정작 행사도 생태설명회라는 이름과 거리가 멀었다. 바다코끼리는 서커스처럼 먹이를 받아 먹으며 박수를 유도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지느러미 키스를 수십번 날리며 애교를 부렸다. 한화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바다코끼리 전시관의 육상부 면적과 수표 면적은 미국 농무성이 발표한 기준의 약 2.5배</span>”라며 “<span class='quot1'>수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점을 고려해 육상부의 2배 크기로 수중부를 조성했다</span>”고 설명했다. <br/><br/>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지난 2일 흰고래인 벨루가 한 마리가 폐사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 곳 수조에는 벨루가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막내인 다섯 살짜리 수컷 벨로가 패혈증으로 폐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벨로가 패혈증에 걸린 원인을 인공사육시설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 보호단체 활동가는 “<span class='quot3'>벨루가는 야생에서 3년에 한번 번식하기 때문에 암컷을 포획하는 것만으로도 야생에서 벨루가 수를 감소시킨다</span>”며 “<span class='quot3'>이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가 포획한 벨루가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 이에 롯데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와 앞으로 더 이상 고래류를 들여오지 않고 번식 연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br/>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내세우는 특징 중 하나는 직접 바다 생물들을 만져볼 수 있다는 점이다. 2,000원을 내면 잉어에게 젖병으로 먹이를 줄 수 있다. 두툽상어와 불가사리를 만질 수 있는 수조는 아이들에게 인기 코너다. 가이드는 살살 만지라고 설명하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물들을 만지기에 바빴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4'>동물보호법에 식용을 제외한 다른 어류에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어서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다.<br/>그만큼 동물보호단체들은 체험 코너에 전시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span class='quot5'>체험 생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교체 전시를 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는 체험관에서 두툽상어를 빼고 불가사리 멍게 조개류만 전시할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이와 함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도 바다사자를 이용해 생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와 마찬가지로 바다사자 틴(4세·수컷)이 사육사의 손짓에 꼬리를 위로 올리고 컹컹 짓으며 먹이를 받아 먹거나 물 속에서 점프를 하며 관객들의 박수를 유도하는 재주를 부렸다. 사육사는 틴의 얼굴, 냄새, 몸무게를 점검하는 과정도 보여줬다. 동물보호활동가인 이형주씨는 “동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은 많이 발전한 것”이라며 “하지만 동물들이 박수를 치는 등 재주를 부리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롯데 측은 이 같은 동물보호단체들의 우려를 감안해 생태설명회 명칭과 내용을 동물 복지를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br/>글·사진=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br/>안유경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4)<br/><br/>▶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 재규어의 정형행동 영상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299.txt

제목: 7월부터 암 백혈병 등 8개 장애 국민연금 혜택 강화  
날짜: 201604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24150218994  
본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심사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br/><br/><br/>국민연금 가입 중 암이 재발하거나 팔ㆍ다리 절단 등의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 혜택이 늘어난다. <br/>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연금의 장애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 결정 시점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개정안은 국민연금 13개 장애유형 중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암 등 8개 장애 유형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등을 일부 개선했다.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최고 등급이 장애 2급으로(현재 3급) 상향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해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경우는 3급(현재 4급)으로 올라간다.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면 2급(현재 3급)으로 인정되고,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항암치료 등 치료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3급을 받게 된다. <br/>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장애 결정시점도 앞당겨진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장애가 발생하면 모든 장애가 인정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각 장애별로 결정시점을 각각 판단한다. 또 팔ㆍ다리 절단의 경우 절단일 당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이 지금보다 1개월 당겨진다. 장애연금 요건 완화로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새로 장애연금을 받거나 연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br/>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00.txt

제목: 비만의 사회학 “허리가 가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  
날짜: 201604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22051920846  
본문: 변화하는 다이어트의 개념 “비만관리와 다이어트는 미용이 아닌 질병 치료”<br/><br/>◇ 한국인의 ‘국민고민’ 비만과 다이어트 : 배부른 자여 세금을 더 내라?<br/><br/>“<span class='quot0'>뚱뚱한 것도 서러운데 ‘뚱뚱세’라니...</span>”<br/><br/>어쩌면 비만자에게 ‘배부른 높이’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 설탕세(Sugar tax)와 같이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가 고지방 식품에 비만세를 매기는 논리와 비슷하다.<br/><br/>비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전문 학술단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만수술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화의 필요성, 타당성, 경제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br/><br/>비만이 각종 암과 성인병, 즉 당뇨병, 고혈압, 고지질증, 허혈성 심장질환, 천식, 수면무호흡증, 위식도 역류 질환, 지방간, 담석증, 관절염, 불임, 우울증, 혈관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br/><br/>글로벌 정보분석 기업 ‘닐슨’이 지난해 1월 조사한 ‘건강과 웰빙에 관한 글로벌 소비자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60%가 스스로 ‘과체중’이라고 여기고 있다. 조사대상 60개국 중 최고 수치. 북미 지역이 59%로 그 다음이었고, 남미 54%, 유럽 52%, 중동·아프리카 50%, 아시아태평양 지역 43%의 순이었다. <br/><br/>한국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다이어트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운동’이 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식단관리’ 57%, ‘다이어트관련 보조제나 셰이크 섭취’ 11%, ‘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이 7%였다. 전세계 평균은 75%가 ‘식단관리’, 72%가 ‘운동’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br/><br/>◇ 다이어트의 종류와 방법 : “살아! 살아! 지방살아! 내 곁을 떠나거라”<br/><br/>그러나 스스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밥통’을 줄이기 위해 칼을 대는 수술요법이 제안되고 있다. <br/><br/>세계적으로 효율성과 안전성이 입증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양대 수술법은 ‘복강경 위소매절제술’과 ‘복강경 루엔와이 위우회술’. 위를 80%까지 잘라 내거나 음식물의 순환통로를 축소시킴으로써 덜 먹게 하고, 먹은 음식의 영양분이 조금만 흡수되도록 유도하는 강압 방식이다.<br/><br/>하지만 비만수술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사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믿고’ 어떤 다이어트를 선택할까? 하지만 다이어트 선택도 스트레스를 준다. <br/><br/>용하다는 ‘식이요법’만 해도 수백 가지이기 때문. 이를테면 덴마크다이어트, 황제다이어트, 원푸드다이어트, 저인슐린다이어트, 직장인다이어트... 등 등. 밥과 국, 김치만 먹는다는 ‘밥국김치다이어트’라는 것도 생겼다.<br/><br/>“<span class='quot0'>연예인 아무개는 OOO다이어트로 하루에 1kg씩 뺐대.</span>”<br/><br/>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흔히 듣는 솔깃한 얘기. 그래서 선택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짬짜면’과 같은 섞음 논리로 최근에는 ‘주간순환다이어트’도 등장했다.<br/><br/>마음에 드는 다이어트 종류를 쭈욱 적어놓고 1주일에 하나씩 섭렵해가는 방식이다. 5월 1주는 밥국김치다이어트, 2주는 덴마크다이어트, 3주는 식초다이어트 하는 식이다.<br/><br/>하지만 다이어트는 ‘강제성’이 있어야 그나마 성공할 수 있다. 위를 잘라내는 수술이 가장 유효한 비만 치료방법이라고 할 만큼 스스로의 의지로 살을 뺀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지적.<br/><br/>◇ 벨라컨투어의 초음파&저주파 바디 컨투어링<br/><br/>최근 “단기간 내에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고객수요에 부응해 속효성 방식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br/><br/>위 수술을 겁내는 사람들에게 ▷이산화탄소 주입방식인 카복시테라피 ▷저장성 지방용해 주사방식인 HPL ▷콩에서 추출한 포스파티딜콜린 성분 주사방식인 PPC와 같은 지방분해 주사방식 등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태.<br/><br/>하지만 약물주사 방식에 대한 인체반응의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벨라컨투어(Bella Contour)’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초음파&저주파 바디 컨투어링(Body Contouring) 방식.<br/><br/>구글링에서는 비수술 비주사 방식의 셀룰라이트(Cellulite)제거 의료기기로 소개되어 다양한 비포&애프터(before & after) 비만치료 사례들이 올라와 있다. 국내에서는 병원시술만 허용되는 의료기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일정자격의 미용실에서도 시술할 수 있어 그 만큼 ‘다이어트 체험사례’가 풍부하기 때문.<br/><br/>셀룰라이트(Cellulite)란 잉여 지방질이 인체를 떠도는 수분, 노폐물 등과 섞여 신체 각 부위에 뭉쳐있거나 퍼져있는 피하 지방덩어리를 말한다.<br/><br/>따라서 ‘바디 컨투어링’은 초음파와 저주파를 이용해 지방질만을 분리해 낸 후, 분리된 지방질을 인체 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체부위를 주름 없이 축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원리다. 통증이나 부작용, 요요현상도 거의 없다는 것.<br/><br/>이 방식 중 대표적인 제품의 하나가 바로 ‘벨라컨투어’. 이스라엘의 리얼에스테틱(Real Aesthetics)社가 셀룰라이트 제거 의료기기로 개발, 풍부한 임상사례를 통해 2008년 미국 FDA인증과 유럽 CE메디컬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세계적인 비만치료특허 히트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br/><br/>이 의료기기와 시술방식이 한국에 소개된 것은 지난해 9월 (주)벨라컨투어코리아(공동대표 권기호, 신은화)가 식약처로부터 벨라컨투어의 ‘통증완화’ 적합인증을 받은 후부터.<br/><br/>1회 시술에 4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초음파 전기장과 주파수의 파장강도가 만들어내는 지방세포의 공진이 활발한 비만자일 경우 ‘바디 컨투어링’ 1회 시술만으로도 허리 사이즈가 2~3cm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보고서. <br/><br/>미국 비만환자 703명에게 시술한 결과 10회 정도의 시술횟수로 평균 4cm의 허리 감소를 보였다. 체중감소 성공 확률은 92%. <br/><br/>중동 최대 의료기관인 하다샤(Hadassah) 메디컬센터가 분석한 결과는 보다 구체적이다. ‘바디 컨투어링’ 시술 횟수가 늘어날수록 허리사이즈가 더 줄어드는데 ▷5~7회 4.41cm ▷8~10회 5.24cm ▷11~14회 6.00cm ▷15회 이상이 8.46cm가 평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 식이요법 다이어트 DX5 프로그램 : “다이어트도 든든히 먹어야 가능하다?”<br/><br/>가장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식은 아무래도 식이요법. 전문가들은 식단조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조언한다. 과식 폭식 야식은 물론 무작정 단식도 꼭 피해야할 요소다. 영양의 균형감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br/><br/>시중에는 식이요법 식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다. 최근 미생물방식 친환경 음식물처리기로 유명한 (주)미랜바이오도 ‘식단조절식 다이어트’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br/><br/>성인의 60%가 스스로 과체중이라고 말하는 비만관리의 황금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 ‘다이어트 식이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던 다이어트프로그램 식품개발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시작한지 6개월 만이다.<br/><br/>출시제품은 디엑스파이브(DX5). 금년 2월초 회원용으로 발매한 1차 생산제품 3천 세트가 두 달 만에 '완판'됨으로써 제품개발시의 우려를 씻어내고 회사 활력증진의 일등공신으로 올라섰다는 평이다.<br/><br/>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해 다섯 가지의 요소를 결합시켰다. ▷제1요소는 ‘지방관리’로 비만의 원인인 탄수화물과 지방 관리를 돕는 디엑스팻버닝(DXfatburning) ▷제2요소는 ‘혈액관리’로 혈액 속 노폐물 처리와 신체내 지방분해 효소의 자극을 돕는 디엑스 그린비에스(DXgreenBS)다.<br/><br/>또한 ▷제3요소는 ‘장관리’로 배변활동 강화에 의한 장내 환경의 개선과 혈중 콜레스트롤 수치의 개선을 돕는 디엑스화이버(DXfiber) ▷제4요소는 ‘영양공급’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영양관리 및 요요방지와 신체 에너지밸런스를 돕는 디엑스밸런스(DXbalance) ▷제5요소는 ‘수분관리’로 항산화작용을 위한 체내 수분균형 유지, 이뇨작용, 피로회복을 돕는 디엑스티(DXtea).<br/><br/>제품의 섭취는 하루 세끼를 모두 디엑스파이브로 섭취하는 초순 10일, 하루 두 끼를 디엑스파이브로 섭취하는 중순 10일에 이어 하순 10일은 하루 한 끼만을 디엑스파이브로 섭취하는 기간으로 설정한 1개월 프로그램 완성형이다.<br/><br/>하지만 10일간의 ‘하루 세끼 디엑스파이브’ 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회원들의 설명. 이를 입증해보기 위해 회사측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580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체중 변화를 조사한 결과 남성은 평균 5.9kg, 여성은 평균 4.2kg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체지방 변화 역시 열흘간의 식이요법으로 남성은 평균 3.9kg, 여성은 평균 3.5kg이 감소했다.<br/><br/>◇ 영양불균형 다이어트의 부작용 : “급격한 다이어트는 모근약화로 탈모를 부른다”<br/><br/>다이어트에 왕도가 있다면 그것은 적절한 운동. 비만관리 업계 종사자들 역시 “<span class='quot1'>운동만큼 좋은 만병통치약은 없다</span>”고 입을 모은다.<br/><br/>(주)벨라컨투어코리아 신은화 대표는 “<span class='quot2'>비만관리를 위해 전문의와의 상담이 우선돼야 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 활동적인 생활습관의 병행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요요현상이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는 최선의 다이어트 방법일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주)미랜바이오 운영지원팀 조광현 이사 역시 “<span class='quot3'>다이어트 업체 상당수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의 효과를 내세워 제품판매에만 열중인 상태</span>”라고 지적하고, “<span class='quot3'>투철한 정신력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비만관리 시술방식이나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없을 것</span>”이라고 평가했다.<br/><br/>무리한 다이어트는 의외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웅선클리닉 홍성재 원장은 “<span class='quot4'>적절한 영양관리가 수반되지 않는 10kg 이상의 급격한 다이어트를 할 경우 인체에 대한 부담으로 오히려 탈모를 불러올 수 있다</span>”고 경고했다.<br/><br/>홍 원장은 “급격한 체중감소 때 다량의 탈모 사례가 자주 있다. 이유는 영양 불균형 때문”이라며,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근에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모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br/><br/>그에 따르면 탈모를 일으키는 두피질환으로는 비강성탈모증, 두부백선, 사성독발, 모낭염, 압박성 탈모증, 견인성 탈모증 등이 있다. 하지만 두피질환으로 생기는 탈모는 많지 않으며 두피질환을 해결하면 탈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br/><br/>홍 원장은 “탈모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철분 결핍과 갑상선 질환이다. 철분은 모낭세포를 분열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여 모발 성장에 필요한 성분으로, 만약 부족하게 되면 탈모가 발생한다. 철분 결핍은 휴지기 탈모를 가진 여성의 72%에서 나타난다”고 밝힘으로써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br/><br/>유승철 뷰티한국 기자 cow242@beautyhankook.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01.txt

제목: 세포 등 인체 자원, 상업적 활용 규제 풀리나  
날짜: 2016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22051713002  
본문: 제 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br/>유전자, 혈액 등 인체 물질 용도<br/>현행법에선 연구용으로 제한<br/>바이오, 의료 등 신산업 길 막혀<br/>박대통령 “대책 마련을” 지시<br/><br/>“큰 병원에 갈 필요 없이 동네 의원에서도 어떤 병이든 쉽게 검사하고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진단기기를 보급하는 게 꿈이다. 기술은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에 쓸 샘플이 부족해 허가 신청이 늦어지고 있어 애가 탄다.”<br/>지난해부터 샘플을 기다리고 있다는 한 생명공학기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그가 말하는 샘플은 혈액이나 가래, 유전자, 세포 등 사람 몸에서 채취한 물질(인체자원)을 말한다. 인체자원 활용이 연구용으로 제한(본보 3월 29일자 3면 ‘규제개혁 없이 미래 없다’ 참조)돼 있는 우리나라에선 바이오ㆍ의료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이 쉽지 않다. <br/>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모인 전문가들은 인체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준근 크리액티브헬스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난치병 진단이나 치료 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인체자원 활용이 어려워 연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인체자원 활용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span>”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span class='quot1'>시급한 분야 중심으로 민관이 협업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달라</span>”고 당부했다. <br/>현재 인체자원은 의료법이나 생명윤리법, 관계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의 활용이 제한돼 기업이 직접 제공받을 길이 없다. 제품 개발을 위해 인체자원이 필요한 기업은 일일이 병원이나 연구기관에 요청한 뒤 윤리위원회 승인과 임상시험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난치병이나 희귀병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인체자원이 희소, 여러 병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난치병으로 꼽히는 다제내성(여러 가지 약이 듣지 않는) 결핵 진단기술을 개발하는 생명공학기업의 임원은 “<span class='quot2'>국내에서 결핵 샘플을 임상시험에 필요한 만큼 모으려면 2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할 수 없이 해외로 나가기로 했다</span>”고 말했다. <br/>업계에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인체자원을 모아두는 병원별 은행이나 국가기관에서 좀더 편리하게 인체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면 바이오 신산업 창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 국립보건원은 자체 보유한 인체자원 현황을 외국에도 알리면서 여러 제약사와 제품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다. 생명공학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3'>독일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임상검사센터에서 인체자원을 신청한 기업에게 직접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작성된 임상보고서는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다</span>”며 “<span class='quot3'>우리도 장기적으로 이런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span>”고 제안했다.<br/>이날 회의에선 암과 유전병 등 특정 질환에만 한정돼 있는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진단이나 치료 같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의료기기는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건의됐다. 이번 바이오 규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을 거쳐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02.txt

제목: 고수익 미끼 1300억 챙긴 다단계업체 적발  
날짜: 2016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22051648744  
본문: 전북경찰청 6명 구속 32명 불구속<br/>허위광고로 회원 모집…피해자 7800명<br/>경찰 수사 방해하기 위해 집회 열기도<br/><br/>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다단계업체를 설립해 1,100억원 상당의 산양삼 제품을 판매하고 비상장주식 200억원어치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체대표 김모(40)씨 등 임원 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국에 설치된 지역사업소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업소장 이모(51)씨 등 3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br/>김씨 등은 지난 2014년 경기도 일산에 다단계회사를 설립한 뒤 1개당 8만원에 들여온 산양삼 상품을 투자자 7,800여명에게 121만원에 구입하도록 해 최근까지 1,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회원 3,000여명에게 회사 비상장 주식 320여만주, 200억원어치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br/>이들은 전국에 28개 지역본부를 두고 노인과 주부를 다단계 사업에 끌어들였고 장뇌삼 제품을 암과 고혈압에 효능이 있는 산삼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br/>이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코스닥 상장 회사를 인수하고 새로 가입한 회원들의 투자금을 기존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으나 일부 투자자들은 업체에서 약속한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br/> 경찰은 지난해 관련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하자 이들은 신문에 경찰을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전북경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br/><br/>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03.txt

제목: 장애 어린이 재활 돕는 병원학교 설립 진통  
날짜: 2016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21051637621  
본문: “<span class='quot0'>단기 입원, 취지에 안 맞아</span>”<br/> 서울시교육청 인가 보류<br/><br/><br/>장애 아동을 위한 국내 최초 어린이 재활병원이 병원 내 교육 시설 설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br/>20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따르면 장애아동 교육을 위해 ‘병원 학교’를 만들려던 계획이 서울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못해 보류된 상태다. 이달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문을 여는 이 병원은 장애아동의 치료와 재활뿐 아니라 교육, 직업재활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장애아동 전문병원이다.<br/>병원 학교는 백혈병ㆍ암ㆍ만성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내 학급이다. 아픈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출석을 인정해 줘 질병으로 인한 유급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인가를 하고 운영예산 등을 지원한다. <br/>지적 장애, 발달 장애, 자폐아 등이 주로 이용하게 될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91개의 병상을 갖출 예정으로, 병원학교 2개 학급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지난해 시교육청에 병원 학교 설치를 문의했으나, 시교육청은 “<span class='quot1'>이 병원의 장애 아동 입원 기간은 짧게는 2,3일, 길어도 1주일 정도인 단기입원이어서 병원학교 운영 취지에 맞지 않아 인가가 어렵다</span>”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 측은 국내 유일 어린이 재활병원인 만큼 지방에서 서울로 와 재활치료를 하며 입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조기 치료가 필요한 아동 등은 3~6개월 정도 집중 입원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병원 학교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br/>병원학교는 전국 33개 병원에 설치돼 있으나 대부분 비장애 아동들을 위한 곳으로, 장애 아동을 위한 병원 학교는 대전에만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2014년 처음으로 건양대병원과 대전보람병원에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병원 학교 설치를 인가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대전 지역의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비영리법인 ‘토닥토닥’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석 대표는 “<span class='quot2'>장애 아동은 조기교육이 중요해 만 3세 이상이면 의무교육 대상자지만 실제로는 교육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2'>특수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해야 하는 아동은 장애 아동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와 교육을 함께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시교육청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지난해 면담 때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의 입원 아동 정보나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병원학교 설치 인가를 검토해 보겠다</span>”고 말했다. <br/><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04.txt

제목: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도 공무상 재해 인정  
날짜: 201604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20051432399  
본문: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br/><br/>공무원이 업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공적인 상해(공상)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암과 정신질병 등으로 확대된다. 또 치료비 등 공무상요양비도 먼저 당사자가 부담한 뒤 환급 받던 절차를 바꿔 우선 지급된다.<br/>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br/>개정령안에 따르면 암과 정신질병, 자해행위가 공무상 재해로 새롭게 인정, 이들 질병의 재해 인정 기준이 신설됐다. 또 과로에 따른 우울증, 불안ㆍ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도 공상으로 인정된다. 이들 질병은 산업재해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포함됐으나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던 것들이다.<br/>개정령안은 뇌혈관ㆍ심장질환 등 공무상 과로 기준도 구체화해 발병 단계별 심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특히 암과 백혈병, 정신질환 등 특수질병은 신청인의 입증책임 완화와 함께 심사 전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해 자문을 받는 전문조사제를 도입해 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br/>혁신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나 유족들이 재해보상제도를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공상 신청을 피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 전달체계도 개선한다.<br/>현재 공상을 입은 먼저 자신이 치료비 등 공무상요양비를 부담하고 약 6개월 뒤에 환급을 받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 4일 민원인이 뿌린 황산에 중증화상을 입은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관은 일주일 만에 요양비를 지급받았다.<br/>혁신처는 또 대형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장기입원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장의 사고조사 경위서로 일부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공상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재해보상제도 교육이나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br/>혁신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도 바꿔 혼선을 줄인다</span>”고 밝혔다.<br/>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05.txt

제목: [이정모 칼럼]만국의 탈모인이여, 모든 소수자와 연대를!  
날짜: 201604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20051359248  
본문: 잠자리에 들기 싫은 애를 재울 때마다 어릴 때 할머니에게 들은 얘기를 해주곤 했다. 그렇다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호랑이 얘기를 해줬다는 게 아니다. 할머니는 나를 재울 때 “키는 잠잘 때만 크는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키 크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지 나는 가능하면 늦게 잤고 그래서인지 실제로 키가 작다. 나는 내 딸에게 여기에 덧붙여 “너도 키가 크고 싶으면 잠을 자야 해, 아빠가 키가 작은 이유는 어릴 때 잠을 자지 않아서야”라며 반협박을 했다. 알고 보니 이게 터무니없는 협박이 아니었다. 실제로 성장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 따라서 성장기의 아이들은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br/>키는 어느 정도 자라면 멈추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줄기차게 자라는 게 있다. 손톱과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이다. 손톱은 하루에 0.1㎜ 정도 자라고 발톱의 성장 속도는 손톱보다 3배 더디다. 손톱이 완전히 새로 바뀌는 데는 4개월 정도 걸리고 발톱이 모두 자라는 데는 1년이 걸리는 셈이다. 손톱과 발톱을 모두 합치면 1년에 거의 50㎝가 자란다. 어차피 깎아버릴 건데 이렇게 마구 자라는 게 좀 아깝기는 하다. <br/>머리카락은 손톱보다 세 배쯤 빨리 자란다. 머리카락은 정말 생장 능력이 대단한 녀석이다. 모구에 있는 케라티노사이트에서 머리털이 하루에 0.3~0.5㎜씩 자란다. 케라티노사이트가 우리 머리에 10만 개쯤 있으니까, 1년에 자란 머리카락을 모두 이으면 16㎞나 된다. 세포 분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이다. <br/>항암치료를 하면 머리가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항암치료란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방식인데, 암세포만 선택해서 증식을 막을 수는 없다. 다른 세포의 증식도 막는다. 평상시에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만큼 머리카락이 새로 나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항암치료로 이게 안 되니까 머리가 먼저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br/>천문학자인 내 친구 이명현 박사는 아가씨처럼 머리를 길게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다닌다. 이제 나이도 있고 예전처럼 날씬하지도 않아서 긴 머리가 별로 섹시해 보이지 않으니 좀 자르라고 핀잔을 해도 꿋꿋하게 기른다. 알고 보니 소아 암환자들에게 선물할 가발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기르는 것이라고 한다. 착한 마음씨가 갸륵하다. <br/>세상 도처에 착한 사람들이 많다. 작년 5월의 일이다. 미국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선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머리를 빡빡 밀었다. 3루수 마이크 아빌레스가 갑자기 부진해졌다. 네 살배기 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팀은 아빌레스에게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휴가를 주었고, 아빌레스는 딸을 위해 삭발을 했다.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빠진 딸이 자신의 민머리에 낯설어했기 때문이다. 아빌레스가 팀으로 복귀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모든 팀원과 구단 직원들이 머리를 빡빡 밀었기 때문이다. 동료의 아픔에 연대를 표시한 것이다. 아름다운 이야기다.<br/>머리를 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년 전 세월호에 탔던 아이들의 부모들이 작년에 단체로 삭발한 적이 있다. 부모도 울고 깎는 사람도 울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울어야 했다. 머리가 없으면 눈에 띈다. 주목을 받아야 하는 불편한 일이다. 그것을 감수하고 머리를 깎았으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꼬인 것을 풀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상식이고 정부의 일이다.<br/>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시위성 호소를 위한 것도 아닌데 머리가 빠져서 괴로운 사람들도 있다.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심한 대머리였다. 결혼 사진에서 이미 훤칠한 이마를 과시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20대에 탈모가 시작된 것 같다. 그래도 30세에 결혼을 하셨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내가 태어나지 못할 뻔했다. 아버지의 피를 열정적으로 물려받은 내 동생도 꽤 대머리다. 이런저런 치료제를 발라봤고 급기야 중국에 가서 머리 이식 수술까지 받고 왔다. 말은 안 하지만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꽤 컸을 것이다. <br/>우리는 머리카락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머리카락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인 두뇌를 감싸고 다양한 충격에서 두뇌를 보호한다고 한다. 머리카락이 뇌 보호에 별로 주요하지 않은 것은 최고의 천재 가운데 스티브 잡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스티브 발머처럼 대머리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아 쉽게 짐작할 수 있다.<br/>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모인들은 이런저런 차별을 많이 받는다. 오죽하면 탈모 치료를 받은 사람만 20만명이 넘고 잠재 인구까지 하면 1,000만이 될 거라는 추산이 나오겠는가. 탈모 환자가 많아지고 취업준비생들까지 두피에 신경 쓰다 보니 탈모시장은 최근 5년간 10배 넘게 성장해서 그 규모가 1조4,000억원에 이른다.<br/>최근에는 탈모 환자들에게 머리 문신이 인기다. 두피 문신은 의료용 특수잉크로 두피에 미세하게 점점이 문신을 하여 머리카락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 정수리에 머리가 조금 빠진 사람에게는 마치 흑채를 뿌린 효과가 있다. 서양에서는 탈모인들이 아예 머리를 빡빡 밀고서 머리카락이 없는 곳에만 머리 문신을 한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인다. 여성들은 원래부터 머리가 없는 대머리 남성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을 갖지만 머리를 일부러 밀어서 삭발한 남성에게는 성적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br/>대머리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사회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이유가 없다. 왼손잡이,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혼혈인들도 마찬가지다. 탈모인들이 당당히 살 수 있는 사회란 여타의 다른 소수자들도 당당히 살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와 인정이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만국의 탈모인들이여, 모든 소수자들과 연대하라!<br/>서울시립과학관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06.txt

제목: ‘칼로 쑤시는 통증’ 대상포진 앓으면 뇌졸중 위험 1.9배↑  
날짜: 201604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19052036360  
본문: ‘칼로 쑤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대상포진(帶狀疱疹)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기 쉽다. 전 인구의 20% 이상에서 발생할 정도로 아주 흔하게 나타나며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다. 2~10세 어린이에게 수두를 일으키는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이 바이러스가 몸 속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을 재개한다.<br/> 그런데 대상포진을 앓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1.9배 높다는 재미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성한(감염내과)ㆍ권순억(신경과) 서울아산병원 교수팀은 2003년 당시 건강했던 일반인 76만6,179명을 1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대상포진과 뇌졸중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유럽 임상미생물감염병협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임상 미생물학과 감염(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3월호에 실렸다.<br/><br/>환자의 45%, 매일 통증으로 고통받아<br/>대상포진 증상은 ‘대상(帶狀)’이라는 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몸의 한쪽에 붉은 물집이 옹기종기 군집을 이뤄 띠 모양으로 생긴다.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수포나 발진이 옆구리 등 가슴 등에 생겼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대상포진 환자의 35% 정도는 치료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쓴다. 발병 후 72시간 내 투여해야 통증 강도와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통증이 심하다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거나 신경을 잘라내는 신경차단술을 시행한다.<br/>대상포진은 신경절에 있는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한다. 발병 부위에 따라 합병증이 다양하다. 대상포진 환자 중 10~25%가 겪는 안면 대상포진의 경우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뇌졸중 위험이 4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간염 심근염 관절염 등 다양한 합병증이 생긴다.<br/> 증상은 신경절을 타고 진행하므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대상포진 환자 96%가 급성 통증을 겪고, 이들 환자 중 45%는 매일 통증을 느낀다. 통증 정도도 심각해 대상포진의 급성 통증은 출산통보다 심하다. 만성 통증에 해당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만성 암 환자의 통증보다 심각하다.<br/>냉방기 켜는 여름에 주로 발병<br/> 대상포진은 여름에 발병이 잦다. 더위에는 냉방기를 가동해 실내ㆍ외 온도 차가 커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 증상이 발열 근육통 등 감기와 비슷하다 보니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 감기나 단순 피부병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걸리기 쉽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피부 병변이 치료된 이후 1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다. 60세 이상 환자 10명 중 많게는 7명이 경험한다. 옷깃만 스쳐도 아픈 만성 통증은 옷을 입거나 외출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수면 방해나 우울증 등 2차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br/> 따라서 면역력을 떨어지지 않게 생활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벼운 운동과 영양가 있는 식단, 규칙적인 수면으로 신체리듬을 유지하는 한편, 음주 흡연 과로 등을 삼간다. 박경찬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높으므로 평소 건강 관리를 더욱 잘해야 한다</span>”고 했다.<br/><br/>50대 이상 환자, 39만 명 달해<br/>대상포진은 인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많이 걸린다. 당뇨병을 앓은 만성 질환자와 폐경기 여성, 수술 경험이 있는 환자, 50대 이상 연령층이 이에 속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년)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39만 명으로 전체 환자의 60%를 차지했다.<br/> 김성한 교수팀의 논문에 따르면 11년의 추적 관찰 기간에 매년 대상포진으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는 인구 1,000명 당 9.4명꼴이었다. 또한 가벼운 뇌졸중(일과성 허혈 발작)을 포함한 전체 뇌졸중 환자는 매년 인구 1,000명 당 9.8명꼴로 발생했다.<br/> 특히 이번 연구 결과, 대상포진을 앓은 30세 이하 젊은 층에서도 뇌졸중 위험이 두드러졌다. 대상포진 후 뇌졸중이 생길 위험을 연령별로는 18~30세 2.04배, 30~40세 1.7배, 40~50세 1.43배, 50~60세 1.23배, 60~70세 1.24배 등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추세다.<br/> 또 대상포진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뇌졸중 위험도도 달라졌다. 얼굴에 생긴 대상포진은 몸과 다리에 생기는 경우보다 뇌졸중 위험이 더 높았다. 대상포진이 생긴 뒤 몇 년이 지나도 이 같은 위험이 지속됐다.<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이전에 대만과 영국의 연구에서 대상포진이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장기간에 걸쳐 역학조사(코호트)를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장기 코호트 연구로 두 질환의 연관관계를 더 명확히 밝히고, 질환 부담을 알 수 있는 상대 위험도를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br/><br/><br/>-충분한 휴식 및 수면을 취한다.<br/>-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한다.<br/>-규칙적인 운동을 한다.<br/>-잡곡ㆍ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다.<br/>-필요 시 비타민 제제를 복용한다.<br/>-인체저항력을 해치는 과음을 삼간다.<br/>-힘든 여행이나 과로를 피한다.<br/>-50세 이상은 백신 접종을 고려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07.txt

제목: 남자에게도 갱년기가 오나요?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18051305616  
본문: 질문=남자에게도 갱년기가 오나요?<br/> <br/>답변=갱년기라고 하면 중년 여성을 떠올리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 하신다면 옛날 사람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곧 올 터이니, 생각을 바꾸시길 권유 드립니다.<br/> <br/>여성에게는 폐경이라는 뚜렷한 변화가 몸에 나타나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호르몬 분비로 인한 몸의 변화가 현격하므로 갱년기라는 것을 확실이 알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이렇게 여성처럼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게 되는데, 70대가 되면 30대 때의 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남성호르몬에 대한 몸의 반응도 점차 떨어지게 되므로, 젊은 시절 가지고 있던 남성성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 의한 증상을 느끼는 것을 남성 갱년기라 칭하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10가지 질문 중 ①번과 ⑦번 증상이 있거나, 3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남성갱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br/> <br/>①나는 성적 흥미가 감소했다. ②나는 기력이 몹시 떨어졌다. ③나는 근력이나 지구력이 떨어졌다. ④나는 키가 줄었다. ⑤나는 삶에 대한 즐거움을 잃었다. ⑥나는 슬프거나 불만감이 있다. ⑦나는 발기의 강도가 떨어졌다. ⑧나는 최근 운동할 때 민첩성이 떨어졌다. ⑨나는 저녁식사 후 바로 졸다. ⑩나는 최근 일의 능률이 떨어졌다.<br/> <br/> 남성갱년기 증상이 있다면 호르몬보충요법을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남성호르몬 수치를 측정하여 떨어져 있으면 보충을 합니다. 보충제는 몸에 바르는 외용제·패치·내복약·주사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각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을 선택하게 됩니다.<br/> <br/>항간에는 항노화 치료 또는 젊어지는 약물 등등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호르몬을 보충하는 요법이므로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보충요법시에는 밖으로부터 투여 된 호르몬이 고환의 기능을 대체 하게 되어, 고환의 위축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적혈구 양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사를 동반 해야하며, 전립선 암이 있는 경우 암을 악화시키므로, 치료 전에 전립선 암이 없다는 것을 꼭 검사로 확인 하고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br/> <br/>이영훈 원장은 일산연세비뇨기과에서 근무하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br/><br/>한국스포츠경제 master@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08.txt

제목: 보신탕 될뻔한 강아지 입양한 美 가족 이야기  
날짜: 2016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16051720681  
본문: “<span class='quot0'>부끄러움을 타지만 똑똑하고 애교가 많다.</span>” “<span class='quot0'>힘들 때 좋아하는 장난감을 물어다 주며 기대올 정도로 다정하다.</span>”<br/>한국 식용개 농장에서 구조한 개들을 입양한 미국인 가족들은 자식 자랑이라도 하듯 개에 대한 사랑을 감추지 못했다.<br/>우리나라는 유독 뜬장(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바닥에서 띄워 설치한 철창) 속에서 식용으로 키워진 개들과 가정에서 함께 사는 이른바‘반려견’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다. <br/>하지만 식용으로 키워진 개도 훌륭한 반려견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한국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들을 입양한 미국인 가족들이다. <br/>이 단체는 농장을 산 다음 개는 미국으로 입양시키고 농장주는 전업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4개의 개농장 폐업을 이끌어냈다. 미국으로 보낸 도사견은 220마리에 달한다.<br/>국내에서도 도사견과 덩치를 키우기 위해 만든 혼혈견인 도사누렁이들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지만 70㎏까지 크는 개들을 입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인 가족들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이 개들에게 새 생명을 찾아주었다. 미국으로 간 개들은 어떻게 지낼까, 입양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입양 이유는 뭘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HSI가 지난해 경기 고양과 충남 홍성, 서산 농장에서 구조한 개를 입양한 미국인 네 가족을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br/><br/>“흥미로움의 결정체”도사견 제우스<br/>도사견 제우스(수컷·약 10개월)를 입양한 파라와 조쉬 가족은 제우스를 “흥미로움의 결정체”라고 했다. 제우스는 지난 해 9월 충남 서산에서 구조된 도사견. 당시 제우스는 3,4개월에 불과한 강아지였지만 이제 크기로만 봐선 강아지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폭풍 성장했다. 파라 가족은 “온라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돼 관심을 갖게 됐다. 장거리 여행이나 구조 과정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까 걱정했지만 문제되지 않았다”고 했다.<br/>미국은 크기에 관계없이 다양한 개를 키우지만 제우스의 독특한 외모는 파라 가족이 사는 북캘리포니아지역에서도 화제가 된다고 한다. 제우스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 파라 가족은“제우스는 매우 크지만 지금까지 키워본 개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 사랑스럽고 활동적이고, 훈련도 잘 받는다”며 자랑을 멈추지 않았다.<br/>제우스는 이제 파라 가족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소파에서 누워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며 특히 최근엔 소리를 내는 무지개색 에벌레 모양의 장난감에 푹 빠졌다. <br/>“제우스는 항상 꼬리를 흔듭니다. 목욕하는 것도 간지럽힘을 당하는 것도 좋아하죠. 우리는 제우스를 사랑합니다.”<br/><br/><br/>“<span class='quot0'>책 읽어주는 걸 좋아하는 다정한 거견(巨犬) </span>”도사견 클라라벨<br/>동물보호단체인 SPCA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는 리사는 한국 개고기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차 한국 충남 홍성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들이 도착한 것을 알게 됐다. 이미 2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처음부터 또 다른 반려견을 입양할 생각은 없었다. 처음 본 클라라벨(암컷·약 2세)은 두려움이 많았고, 너무나 소극적인 개였다. 때문에 클라라벨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지, 다른 개들과의 관계는 어떨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고 리사가 2주간 임시보호를 하기로 했다. 2주째가 되자 클라라벨은 리사의 그림자가 된 듯 그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다. <br/>“부끄럼쟁이이긴 했지만 내가 하는 일과 내 두 마리가 노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호가 끝나기 전날 클라라벨은 하루 종일 내 옆을 떠나지 않았죠. 그때 입양을 결심하게 됐습니다.”<br/>클라라벨 역시 독특한 외모로 산책을 나가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는 게 리사의 설명. 이웃 주민들은 클라라벨에게 ‘젠틀 자이언트(다정한 큰 개)’라고 별명을 붙여줬다고 한다.<br/>클라라벨은 이제 수줍음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리사가 책을 읽어줄 때다. 리사는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로 책 읽어주는 걸 즐긴다. 책을 크게 읽으면 꼬리를 흔든다”고 했다.<br/>이제 클라라벨은 리사를 위로할 줄도 안다. 그는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클라라벨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물어오며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댄다. 1시간이 지나도 자신을 쓰다듬도록 옆에 머문다”며 “클라라벨은 공감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내가 해준 것 10배 이상을 돌려받는 느낌이다”고 말했다.<br/><br/><br/>“<span class='quot0'>바싹 달라붙는 걸 좋아하는 껌딱지</span>”도사견 코라 <br/><br/>“소파에 앉을 때 항상 내게 머리를 기대거나 발을 얹어놓아요. 앉아, 누워, 흔들어 명령까지도 다 잘하는 똑똑한 개입니다.”<br/>코라(약 2세·암컷)는 지난 해 9월 충남 서산 농장에서 구조되어 미국으로 이송됐다. 진 가족은 페이스북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코라를 발견했고, 만나자마자 가족으로 맞아야겠다고 결심했다.<br/>하지만 이미 5년전 구조해 키워온 반려견 와일리와 잘 지낼지 걱정이 됐다. 와일리는 식탐이 강하고, 다른 개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 와일리와 코라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둘을 처음 만나게 했는데 결과는 성공이었다. 처음에는 서로 무시했지만 나중에는 잘 어울리게 됐다.<br/>진은 “코라가 새로 경험하는 것이다 보니 아무래도 장난감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도 말리면 또 금방 화해한다”고 했다.<br/>코라는 산책 첫날부터 산책을 즐겨온 개 마냥 새로운 지역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험하는 걸 즐긴다고 했다. 진은 “큰 개 2마리와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재밌어 한다”며 “코라는 수줍음은 많지만 똑똑하고 충성심이 있다. 정말 훌륭한 가정견이다”고 말했다.<br/><br/><br/>“내 삶을 바꿔 놓은 개” 혼종견 루나<br/><br/>“<span class='quot0'>루나가 한국에서 식용으로 생을 마감했다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는 없었을 겁니다.</span>”<br/>데이비드는 지난 해 12월 암에 걸린 반려견을 떠나 보냈다.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건 바로 루나(1세·암컷)다.<br/>루나는 지난 해 1월 경기 고양 개농장에서 구조된 혼종견. 데이비드는 열네 살 때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 당시 시장에 식용으로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개들을 보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개들이 왜 케이지에 갇혀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식용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미안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루나를 보고 돕고 싶다는 생각에 입양을 결심하게 됐다.<br/>처음 본 루나는 케이지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고, 손도 대지 못하게 했다. 간식도 받아 먹지 않았다. 하지만 루나와 이미 키우던 반려견과 함께 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산책하는 법, 주인 신뢰하기, 다른 개와 노는 법 등을 가르쳤다. 데이비드는 “루나를 입양한지 1년이 됐다. 아직 루나는 배워야 할게 많지만 여전히 우리는 함께다”며 “우리는 서로 돌보고 의지하는 연대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br/>사실 개를 학대하고 무시하는 것은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때문에 개농장에서 데려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라기 보다 학대를 받았거나 사랑 받지 못한 개들의 경우 각각 개의 특성에 맞게 각각의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br/>“루나는 혼종견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소재가 됩니다. 아름다운 눈과 예쁜 털을 가진 개라는 결론에 도달하곤 하지요.”<br/>루나는 이제 줄을 매지 않고 산책이나 하이킹을 나갈 정도로 훈련이 됐다. 철창을 물어 뜯어 생긴 치아 마모를 제외하곤 신체도 건강하다. <br/>데이비드는 “우리는 항상 개를 위해 뭔가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들은 우리를 위해 항상 무언가를 해준다”며 “루나가 내게 준 우정은 내가 돌봐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br/>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09.txt

제목: 4.14 휴먼게놈프로젝트  
날짜: 2016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14052052621  
본문: 인간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돼 있고, 세포들의 핵에는 염색체가 있고, 그 안에는 네 종류 염기로 구성된 DNA 사슬이 이중나선구조로 얽혀있다. 생명 진화의 주체라는 유전자는 그 DNA 사슬의 특정 부분에 위치해 세포 분열을 통해 후세대에 전달된다. DNA의 염기 서열을 규명하는 일은 유전의 비밀, 생명 진화의 새로운 비밀을 여는 첫 관문이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의 발의로 1990년 10월 첫 국제학술회의가 열렸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6개국 과학자들의 공동연구가 시작됐다. 거기 이스라엘과 러시아 등 12개국과 미국 생명공학회사 셀레라 지노믹스 등이 가세했다. 생명공학 사상 최대의 프로젝트였던 휴먼게놈프로젝트가 완성된 건 2003년 4월 14일. 인간의 몸 DNA 사슬의 32억 쌍 염기 서열이 99.99% 규명됐다. 게놈은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nomosome)를 합성한 말(지놈ㆍ유전체라고도 한다)이다. <br/> 완성된 유전자 지도는 프로젝트의 성과, 즉 답인 동시에 방대한 문제지이기도 했다. 비유하자면 복잡한 회로 기판을 간신히 열었을 뿐, 2만여 개의 개별 유전자가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배열 자체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밝혀내는 게 새로운 과제였다. 기초공사를 끝낸 현대 생명공학은 이후 본격적인 건축, 즉 ‘포스트 게놈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인류는 유전자의 비밀을 채 10%도 밝혀내지 못했다. 유전 정보가 없어 ‘정크DNA’라고도 불리는 인트론(전체 유전자의 약 95%)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거의 밝혀진 게 없다. <br/> 물론 그것만으로도 획기적인 성과였다. 유전자의 기능과 변이-질병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일은 해당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구원의 희망이다. 암 당뇨병 등 난치ㆍ불치의 유전 질환들이 그 덕에 조기 진단과 새로운 치료의 시험대 위에 놓일 수 있었다. 휴먼게놈 프로젝트의 원래 목적이 유전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br/> 인공지능(AI)과 마찬가지로, 게놈프로젝트 역시 윤리적 숙제를 떠안고 있다. 이른바 유전자 차별이다. 취업과 결혼 출산 등 상상하기 힘든 영역에서 생물학적 차원ㆍ과학적 차원의 차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10.txt

제목: 구급차를 택시처럼.. 나이롱 응급환자 어쩌나  
날짜: 2016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12051741909  
본문: 외래진료 가며 호출 “도와달라”<br/>경찰은 취객 떠넘기기도<br/><br/>이송거부권, 민원 부담돼 못 써<br/>제도 악용하는 잠재응급환자 급증<br/><br/><br/><br/><br/>경기지역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A(24)씨는 지난달 출동 장소에서 30㎞ 떨어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다녀오느라 3시간이나 관내를 비웠다. “<span class='quot0'>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사설구급차가 비싸서 그러니 한 번만 태워달라</span>”는 50대 암환자 B씨의 요청 때문이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만성질환자라 이송을 거부해도 됐다. 하지만 ‘119 구급 의뢰를 거부당했다’는 민원 등 행여 뒤탈이 생길까 두려워 B씨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11일 “외래진료를 보러 가는데도 막무가내로 구급차를 이용하겠다고 떼를 쓰는 민원인이 많다”며 “대부분 요청에 응하나 그 때마다 관내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까 맘을 졸여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br/>생명이 위급하거나 즉시 치료를 요하는 응급환자를 위해 마련된 119 구급차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벼운 질환도 구급차에 의존하는 ‘무늬만 응급환자’ 때문에 일선 소방서가 구조ㆍ구급 작업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br/>응급의료법 상 구급차는 응급환자나 이에 준하는 증상을 보이는 준응급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응급실 진료가 필요할 때에도 잠재응급환자로 분류해 동승이 허용된다. B씨는 모든 조건에 미달한 비응급환자였지만 구급대원들은 어쩔 수 없이 구급일지에 잠재응급환자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 <br/>구급대원들에게도 이송을 거부할 권리는 있다. 2011년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치통ㆍ감기 환자나 취객, 검진ㆍ입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성질환자는 구급차 이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송 거부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울 한 소방서의 지휘팀장 C씨는 “<span class='quot1'>119 구급차는 어떤 악조건에서도 ‘시민의 발’이 돼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이송 거부권은 사실상 말뿐인 제도</span>”라며 “<span class='quot1'>환자를 옮겼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 비응급 민원인도 잠재응급환자로 둔갑시키고 있다</span>”고 털어놨다. <br/>실제 무늬만 응급환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119 구급활동으로 이송한 응급환자는 2013년 55만3,416건에서 2015년 53만6,554건으로 감소한 반면, 잠재응급환자 이송은 같은 기간 48만3,078건에서 62만6,272건으로 급증했다. 한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잠재응급환자 중 편의에 의해 구급차를 이용한 단순 민원인도 상당수</span>”라고 설명했다. <br/><br/>한정된 구급 자원이 오ㆍ남용 되다 보니 돌발 사건이 터졌을 때 정작 구급차가 없어 시간을 지체하는 어이없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구급대원 D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먹고 싸우다 다친 취객들을 밤새 병원으로 옮기느라 비슷한 시간 관내에서 발생한 자해 사건에 제대로 출동하지 못했다. D씨는 “다행히 인근 지역 소방서에서 구급차를 지원해 자해 당사자를 무사히 이송했지만 엉뚱한 취객 뒤치다꺼리로 밤을 새우는 날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br/>가뜩이나 구급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119 구급차가 효율적인 응급수단으로 자리잡으려면 시민의식 개선은 물론 구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엽래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시민들부터 ‘119는 공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3'>심야시간대 원거리 응급 이송이 빈번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들도 원활한 공조 체계를 만들어 구급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해야 할 것</span>”이라고 조언했다. <br/>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11.txt

제목: 제철 과일ㆍ채소가 보약…하지만 채소 잘못 먹으면 암 유발?  
날짜: 2016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12051730003  
본문: 일교차가 심하다. 아침저녁과 한낮의 기온 차가 5~10도 안팎에 이르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곧 황사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력이 떨어지고 나른해진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듬뿍 챙겨 먹는 게 원기를 회복하고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다.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춘곤증,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하는 이로운 음식을 알아보자.<br/>또 주의할 게 있다. 몸에 마냥 좋기만 할 것 같은 채소에도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질소 화학비료에 포함된 강력한 질산염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발암물질을 제거할 방법은 없을까?<br/><br/>춘곤증 예방 위해 아침 꼭 챙겨 먹어야<br/> 춘곤증은 겨울 동안 추운 날씨에 적응했던 신체가 따뜻한 봄 날씨에 다시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신체 기능 부조화 현상이다. 봄이 되면 일상 신체활동과 업무량이 늘어나 에너지와 각종 영양소의 요구량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 무렵 신선한 봄나물을 많이 찾는 것도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br/> 춘곤증을 극복하려면 특히 비타민 B1과 C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비타민 B1이 많이 함유한 음식은 보리, 콩, 견과류, 간, 육류, 우유, 달걀 등이다. 또 비타민 C는 냉이, 달래, 돌나물, 미나리, 씀바귀, 유채 등의 봄나물과 키위, 딸기, 감귤류, 브로콜리, 토마토, 감자 등에 많다.<br/> 강희철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을 거르게 되면 피로가 더 쉽기 느껴질 수 있고, 점심이나 저녁 때 과식으로 이어져 식곤증까지 겹치기 쉬우므로 춘곤증을 겪기 쉬운 봄철에는 가능한 한 아침 식사를 꼭 먹는 게 좋다</span>”고 했다.<br/><br/>호흡기 질환 예방에 섬유질ㆍ비타민 C 섭취<br/>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제철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봄이 되면 운동량이 많아지므로 몸 보신을 해야 한다고 육류 위주로 음식을 먹기 쉽다. 하지만 봄철 호흡기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면역력 강화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비타민 C와 섬유질,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br/>김주영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충분한 영양을 고려하면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고령인 일지라도 하루 세 끼 식사를 잘하고 채소와 과일 섭취에 신경을 쓸 경우 굳이 영양보충을 위해 영양제를 따로 사서 먹을 필요가 없다</span>”고 했다.<br/>만약 일교차가 크고 고르지 못한 날씨로 감기에 걸려 열날 때는 일단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감기에 걸리면 콧물, 가래, 발열 등으로 수분 손실이 많을뿐더러 이로 인해 목 안까지 건조해지면 일반 감기 증상도 더 심해지기 일쑤기 때문이다.<br/>다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되 커피는 삼가야 한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커피는 알려진 대로 이뇨 효과가 있어 커피를 물 대용으로 마시면 수분 공급 효과를 볼 수 없다</span>”고 했다.<br/>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것은 해마다 봄이면 한반도를 뒤덮는 황사 피해를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 황사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는 미세 먼지 흡입 및 접촉에 의한 호흡기질환과 알레르기질환 때문이다.<br/>코나 입, 기관지 등에 쌓인 황사 먼지를 씻어 내는 데 물만한 것이 없다. 물을 하루 8잔 이상(1~1.5 리터) 마시면 호흡기 계통의 정상적인 방어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봄철 피부건조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br/>유기농 아니면 데쳐 먹는 게 좋아<br/>채소는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든다. 특히 녹색 채소에 포함된 엽록소에는 체내 중금속과 화학물질 등을 해독하고 간을 보호한다. 염혜선 분당서울대병원 영양실장은 “<span class='quot2'>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등이 풍부해, 노화 주범으로 지목되는 활성산소의 활동을 막는 대표적인 회춘식품</span>”이라고 했다. 다만 이런 영양소는 열에 쉽게 파괴되므로 채소는 익혀 먹는 것보다 날로 먹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퇴비만으로 재배한 유기농 채소일 때 얘기다.<br/>화학비료를 잔뜩 사용한 요즘 채소는 그냥 먹기엔 좀 위험하다. 강력한 질산염으로 만들어진 질소 화학비료는 토양 내 생물을 죽이고 수질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몸에 들어와서는 암을 일으킨다. 질산염이 몸에 들어와 헬리코박터균을 만나면 아질산염으로 변한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2급 아민과 결합해 강력한 발암 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을 생성한다.<br/>따라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가 아니면 살짝 데쳐 조리하는 게 좋다. 채소를 데치는 실험을 한 결과, 1분도 안 돼 질산염의 절반이 사라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생 채소를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지만, 1분 정도로 짧게 데치면 열에 약한 비타민 C도 20%가량만 파괴된다는 것이다.<br/>농촌진흥청에서도 이런 '살짝 데치기'가 농약을 제거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상추, 배추 등 잎사귀 형태의 엽채소를 가열하면 잔류 농약 성분이 줄거나 제거된다는 내용이었다. 실험 결과, 채소를 데치면 농약이 65% 이상 제거됐다. 데치는 시간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물에 넣어 데치거나 조리용기 뚜껑을 열고 가열하면 효과가 더 좋았다. 특히 김치로 담그면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아주 높았다. 얼갈이 배추와 열무로 실험한 결과, 김치를 담그기 위해 절이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잔류 농약이 55% 이상 줄고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70~91%까지 줄었다.<br/>반면, 흐르는 물에 씻는 방법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 2~3회 씻는 게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2배나 높고 세척시간도 준다. 씻는 물에 소금을 추가하면 제거 효과가 더 높다.<br/><br/>채소마다 찰떡궁합 조리법 있어<br/>채소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리법이 따로 있다. 마늘 같은 유황화합물은 가열하는 것보다 날로 먹어야 좋다. 하지만 날로 먹으면 자칫 위에 부담 줄 수 있으므로 끓여 먹는 게 낫다. 게다가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이라는 항암 성분은 마늘에 힘이나 열을 가할 때 생기는 일종의 방어물질이다. 따라서 마늘을 다지거나 저며서 잠시 놔뒀다가 가열해 먹으면 알리신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어른의 경우, 생마늘은 하루 1쪽, 익힌 마늘은 2~3쪽이 적당하고, 어린이나 고혈압 환자는 그 절반 가량이 적당하다.<br/>하지만 파와 양파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C나 셀레늄은 열에 약하므로 가능한 한 날로 먹는 게 좋다. 날로 먹기 부담스러우면 얇게 저며 물에 잠깐 담갔다 먹으면 매운 맛을 줄일 수 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 베타카로틴의 소화 흡수율을 높이려면 기름에 조리해야 한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은 날로 먹을 때(8%)나 삶아 먹을 때(20~30%)보다 기름에 볶아 먹을 때(60~70%) 훨씬 더 높다.<br/>고구마도 가열해 먹어도 괜찮다. 고구마에 포함된 비타민 C는 가열해도 좀처럼 파괴되지 않는다. 비타민 잔존율이 군고구마는 70%, 찐 고구마는 60%로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 다만 고구마는 껍질째 먹는 게 좋다. 껍질에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 속쓰림과 가스 발생을 예방한다.<br/>양배추는 날로 먹는 게 가열해 먹는 것보다 낫다. 특히 질긴 심(芯) 부분은 영양가가 가장 많으므로 먹기 힘들더라도 버리지 말고 먹어야 한다. 케일도 날로 먹어야 한다. 다만 콩팥병이나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는 칼륨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투여하는 뇌졸중 환자도 비타민 K가 풍부한 케일을 되도록 먹지 말아야 한다.<br/>시금치는 살짝 데치거나 기름에 볶아 먹어야 한다.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모두 소실되므로 살짝 데쳐야 한다. 또한 시금치는 질산염 함유량이 높으므로 질산염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햄이나 베이컨과 함께 요리하지 않도록 한다.<br/>요즘 제철을 맞은 봄나물은 날로 먹어야 영양 손실이 적다. 날로 먹는 게 부담스러운 나물은 식초를 넣어 초무침을 하거나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데칠 때에는 최대한 시간을 짧게 하고 곧바로 찬물에 담가야 맛과 향을 살릴 수 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12.txt

제목: ‘심장질환의 종착역’ 심부전 환자, 80세 넘기면 10% 이상 늘어  
날짜: 2016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12051728761  
본문: 심부전(心不全)은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고혈압, 당뇨병 등 심장에 영향을 주는 질환에 걸리면 마지막 단계에 필연적으로 걸린다. 그래서 ‘심장질환의 종착역’으로 불린다. 하지만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br/>무엇보다 심부전은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무척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심부전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18.8%가 90일 이내, 37.4%가 1년 이내 심장문제로 재입원했다.<br/>심부전 환자의 30~40%는 심부전 진단 후 1년 내 사망하고 60~70%는 5년 내 심부전 악화나 급성 발작으로 죽는다. 이는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행 암과 심근경색보다 높은 수치다.<br/>게다가 65세 이상 노령인구에서 심부전 발병률이 높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주요 입원 및 사망 원인이다.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1.5%로, 75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br/>전은석 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 회장(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심부전은 세계적인 고령화와 함께 전 세계적인 공중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질환</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우리나라에서도 80세 이상에서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span>”고 했다.<br/>심부전 예방을 위해서는 비만과 당뇨병, 흡연, 혈압을 조절해야 한다. 치료를 통해 사망률과 재입원율 등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질환에 대해 잘 알고 관리해야 한다.<br/>평소 계단을 이용하거나 하루 20분 이상 걷기 등 꾸준한 운동과 함께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심장질환 발병 위험을 높여 심부전의 주 원인이 되는 비만과 당뇨병, 흡연, 혈압을 꾸준히 조절해야 한다.<br/>정욱진 심부전연구회 총무이사(가천의대 길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심부전은 완치의 개념이 없고 일부 암보다 생존율이 낮은데다 반복적인 입원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막중해 전 세계적인 공중 보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span>”고 했다.<br/> 정 이사는 “<span class='quot1'>반복되는 입원과 응급실행 등 심부전 환자는 질환에 따른 고통뿐 아니라 2차적 고통도 크다</span>”고 했다. 심부전 환자의 평균 재원일은 8일인데 이에 따른 입원비는 77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본인부담금은 260만원이다.<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국내 심부전 환자가 21% 늘었고, 진료비도 54%나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심부전 환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논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13.txt

제목: 척추 과잉치료 부추기는 ‘실손보험 역기능’ 손봐야  
날짜: 2016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12051722881  
본문: 허리 디스크 등 척추 환자에게 값싼 주사요법 등 놔둔 채 고가의 비급여 시술 남발<br/>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모럴 해저드에 한몫… 가이드라인 등 대책 마련 시급 여론<br/><br/>국내 척추 전문의들 사이에서 일부 척추병원들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pan class='quot0'>한 시골 할아버지가 고주파열치료와 풍선척추성형술 등 비급여 시술들을 받느라 2,000만 원을 썼다더라</span>” 등 치료 사례에서부터 “<span class='quot0'>척추병원들 대부분이 사실상 실손보험으로 먹고 산다</span>” 등 자기고백까지 각종 얘기가 파다하다.<br/>척추 비수술 요법은 고주파열치료술, 풍선카테터신경성형술, 신경성형술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시술은 카테터(가느다란 관)나 풍선, 내시경 등 특수 기구를 사용하는 비급여 신기술들로 치료비가 200만~300만 원 선으로 비싸다는 게 공통점이다. 후관절주사, 경막외주사, 근육주사 등 전통적인 주사 요법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치료비가 10만~20만 원 선이다.<br/>국내 척추병원들 중 적지않은 수는 그동안 허리 디스크 등 척추 증상에 대해 주사 요법 등 기존의 값싸면서도 검증된 치료법은 놔둔 채 고가의 비급여 시술을 마구잡이로 권유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겨왔다.<br/>일부 병원들은 특히 환자가 실손보험 가입자일 경우 치료비를 부풀릴 목적으로 불필요한 시술을 슬쩍 끼워넣기도 했다. 예컨대 신경성형술을 하면서 “이것 하나만으론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풍선성형술이나 고주파열치료를 함께 받기는 권하는 식이다. 또 수술을 가급적 꺼리는 환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치료 효과가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가의 비급여 시술을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br/>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의 상당수도 치료비의 대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셈법에 따라 고가의 치료를 받는 데 동조하면서 병원의 과잉치료를 사실상 부추겨왔다.<br/>이런 비급여 시술의 남발에 따른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근거에 기반하는 의학(근거중심의학ㆍevidence based medicine)의 중심 원칙을 깨는 부도덕이자 환자들의 크고 작은 후유증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br/>복수의 대학병원 척추 전문의는 각종 척추 증상에 대한 치료 원칙에 대해 “<span class='quot1'>기존의 주사치료 등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순서</span>”라면서 “<span class='quot1'>비급여 시술들은 이런 저런 치료를 다 했는데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받아 볼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이들 교수는 풍선척추성형술에 대해서는 “<span class='quot2'>임상 효과가 검증도 안 된 것</span>”이라고 잘라 말했다. 풍선척추성형술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힘으로써 유착을 풀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이다.<br/>비급여 시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개원가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다. 장상범 분당척병원 원장은 “<span class='quot3'>디스크는 위양성(僞陽性)이 잦아 정상인들도 척추를 MRI(자기공명영상촬영)로 촬영하면 디스크가 까맣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증상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3'>만일 멀쩡한 디스크를 고주파 열로 지질 경우 디스크가 손상 받을 우려가 있다</span>”고 했다. 장 원장은 이어 “<span class='quot4'>그런 시술을 하는 의사들도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절대 안 할 것</span>”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장 원장은 풍선척추성형술에 대해서는 “<span class='quot4'>스테로이드 약물 효과 때문에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데, 사람들이 이를 시술의 효과라고 착각한다</span>”고 했다. 위양성이란 실제론 양성이 아닌데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br/>실손보험은 애초 건강보험이 재정의 한계로 모든 질환을 커버하지 못함에 따라 보완책으로 도입됐다. 환자들이 선용한다면 아주 유용한 제도라는 얘기다. 예컨대 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40%라 하더라도 치료비가 수천 만원에 이르러 부담이 엄청난데, 실손보험은 이런 경우 환자를 절망에서 꺼내주는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문제는 치료비 부담이 가볍다는 이유로 값비싼 비급여 시술을 마구 받고 있다는 점이다.<br/>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치료에 따른 부담은 과잉치료를 안 하는 나머지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br/>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년 109.9%이던 실손보험 손해율(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수입 보험료의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 124.2%로 올랐다. 손해율이 124.2%라는 것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100원 내고 보험금으로 124.2원 가져간다는 뜻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이처럼 높아지자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신규 계약 및 갱신 시 최대 30% 가까이 인상키로 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200만 명으로, 가입자 중 병원 치료비를 돌려 받는 비율은 25% 선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나머지 75%는 치료비를 돌려 받은 적이 없음에도 보험료 인상의 ‘유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br/><br/>급기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br/>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척추 전문의들도 과잉치료 행태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과 일부 비급여 시술의 가이드라인 도입을 모럴 해저드를 막을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척추병원의 한 전문의는 “<span class='quot5'>지금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율이 외래 40%, 입원 20%씩인데, 만일 실비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율이 20~30% 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입자들도 값비싼 치료를 받을 때에는 한번쯤 고민하게 될 것</span>”이라고 했다.<br/>비급여 시술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한 대학병원 척추 전문의는 “<span class='quot1'>예전 같으면 허리가 아프더라도 돈 때문에 주사만 맞고 넘어가거나 꾹 참는 이들도 적지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실비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아플 때 치료비 부담 없이 MRI 촬영 등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span>”고 했다. 장 원장은 “우리 병원에 온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거의 모두 MRI 찍고 10만 원짜리 주사 맞는데 (증상이)대부분 해결된다. 내가 보기에 그 정도가 적정치료다”라고 했다. 장 원장은 “<span class='quot4'>실손보험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까지는 좋지만 만일 병원에서 너무 과한 치료를 권한다 싶으면 노(NO) 할 수 있어야 한다</span>”고 했다.<br/>송강섭 의학전문기자 erics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14.txt

제목: [사설] 건강보험 흑자 재원 의료 보장성 확대에 써야  
날짜: 2016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12051719242  
본문: 건강보험 적립금을 적극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을 포함한 7대 사회보험의 여유자산을 적극 운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4년 연속 흑자를 내면서 누적 적립금이 17조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7대 사회보험 중 가장 낮은 2.2%에 불과해 자산운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br/>기재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도 적자로 갈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보험 자산운용 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6대 사회보험은 모두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하거나 민간에 맡기고 있어 사실상 건강보험 적립금을 타깃으로 한 셈이다. 건보 적립금을 주식ㆍ부동산 등에 적극 투자해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다.<br/>하지만 건강보험은 수익을 창출해 자산규모를 키워야 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과는 성격이 판이한 사회보험이다. 더욱이 건보 적립금의 전용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 적립금을 ‘보험급여 비용이 부족할 경우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은 건보 재정의 20%를 정부가 지원토록 했지만 최근 9년 간 정부 지원율은 16%에 그쳤다.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줄이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br/>건보 흑자에 대해 정부는 5대 암 무료검진사업 등이 효과를 내면서 입원비 및 암 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건보 정책이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건보의 흑자 지속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건보 재정의 수입 증가율은 7.4%인 반면, 지출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건보 보장률(총 진료비 중 건보 부담 비율)은 2009년 65%에서 2011년 63%, 2013년 62%로 매년 뒷걸음치고 있다. OECD 평균은 75%다.<br/>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1년 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36.8%나 된다고 보고했다. 입원비 증가율이 떨어진 것도 본인 부담이 큰 입원을 기피한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도 가계 지출 중 보건의료비 비중은 늘고 있다. 의료 보장성이 낮은 데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늘어난 탓이다. 남아도는 건보 적립금을 의료서비스 강화나 보험료 인하에 써야 할 이유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15.txt

제목: /36.5/ 아무도 죽지 않는 내일이 온다면  
날짜: 2016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12051719640  
본문: 포르투갈 출신 소설가 주제 사라마구의 2005년 작품 ‘죽음의 중지’는 첫 장면부터 충격적인 문장들로 시선을 붙든다.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 (중략) 스물네 시간이나 되는 하루가 다 가도록 아파서 죽거나, 높은 데서 떨어져 죽거나, 자살에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시작되는 소설에서 작가는 갑자기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 군상의 난감한 일상을 생선살 발라내듯 꼼꼼히 그려낸다. 이른바 ‘죽음의 파업’이 실현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게 된 미래의 도시는 그러나 천국은커녕 지옥에 가깝다. 소설의 중간쯤 등장하는 한 노인 가족이 아직 죽을 수 있는 이웃 국가로 밀입국하는 장면은 죽음의 순기능마저 떠올리게 한다. “이제는 정말 죽고 싶다”며 죽음이 예전처럼 작동하는 나라를 찾아 떠나는 노인은 길이 끊긴 숲을 헤매다 마침내 국경을 넘어 기쁘게 숨이 끊어진다.<br/>생체의 소멸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거짓말 같은 미래. 최근 과학계는 실제 이렇듯 죽음이 멈춘, 다시 말해 영생하는 시대를 향한 의미 있는 업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암을 비롯한 각종 중증질환의 궁극적 정복이 요원한 지금, 이 무슨 성급한 추정이냐고 따질 수 있겠지만 인간의 DNA구조가 낱낱이 드러난 지 20년이 훌쩍 지났고 수명을 조절하는 염색체 말단 ‘텔로미어(Telomere)’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인류는 서서히 죽음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br/>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하는 괴변으로 들릴 수 있지만 1818년 여류 작가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첫 불꽃이 당겨진 현대의 재생의학과 로봇기술은 망가진 신체부위와 장기를 이미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 면역반응의 장벽이 사라지고 이종간 장기이식이 보편화 된다면 일단 ‘육체’의 평균 100년 이상 지속은 이론상 불가능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시사 주간 타임에는 2015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14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내용의 커버스토리가 실려 화제가 됐다. 노화억제 기능의 신약이 보편화되어 불로장생의 현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br/>노화를 정복하고 궁극적으로 죽지 않는 몸을 만들려는 각종 프로젝트가 억만장자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은 성장 호르몬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면서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120살 생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도 미 제약사와 손을 잡고 인간이 죽음을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헬스케어 기업 ‘칼리코’를 설립했다. 돈의 흐름에 밝은 이들이 베팅하는 만큼 현실화의 가능성은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방증이 된다. <br/>죽음을 제어하는 이러한 시도들에 이어 심지어 죽음을 극복하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마저 시작됐다. 원한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공상 속 사회가 갑자기 닥칠 경우, 두드러질 의문에 대한 논의도 해외 곳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 광저우 의대 연구진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인간 배아 유전자를 교정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계는 갑론을박으로 뜨겁다. 죽음을 회피하는 ‘맞춤형 아기’ 생산을 가능케 하는 이러한 연구를 장려할지, 금지할지 가이드라인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br/>죽음을 연기하는 기술 발전에 대한 논란 뒤에는 어쩌면 극단적 고령사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 장수라는 이름의 개인 행복이 반드시 건강한 사회 지속이라는 공동체 목표를 지향할 수 없다는 무시 못 할 수준의 우려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어서다.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구성원의 긴 수명을 보장하는 미래가 혹시나 죽음을 찾아 국경을 넘는 소설 속 노인을 현실로 끄집어낼 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노인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 감옥으로 찾아 들어 가는 이웃 일본의 고령사회 ‘막장 드라마’를 보자니 아무도 죽지 않을 내일이 온전히 장밋빛은 아닌 듯하다.<br/><br/>양홍주 국제부 차장대우ㆍyangh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16.txt

제목: [뒤끝뉴스] 장동민 둘러싼 남녀 성별 싸움  
날짜: 2016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12051618550  
본문: 개그맨 ‘장동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br/>한부모가정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동민(37)은 tvN 개그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코빅) 무대에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논란을 부른 코너 ‘충청도의 힘’은 단 한 차례 방송 만에 폐지됐고, 지난 10일 장동민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려 깊지 못했다”는 사과문을 올리면서 일명 ‘장동민 사태’가 일단닥되는 듯했습니다.<br/>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br/>장동민의 ‘코빅’ 하차 소식이 알려지자 11일 온라인에서 남녀 사이에 때아닌 ‘댓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메갈’(여성 혐오에 반대하는 사이트 ‘메갈리아’의 줄임말) 여시(여성) 다 몰려오는 것 봐라’(ab\*\*\*\*\*\*), ‘여자들이 나서 개그맨 한 명 매장 중. 극혐’(se\*\*\*\*\*\*) 등 여성을 비하하는 댓글이 쏟아졌고, 이에 ‘장동민 닮은 남성분들 (하차 반대 댓글에) 허겁지겁 공감누르기 바쁘네’(zz\*\*\*\*\*\*), ‘장동민 두둔하는 한남충(한국 남성 비하 용어) 클래스 역시’(rr\*\*\*\*\*\*\*) 등 댓글이 맞섰습니다. 양측 모두 살벌하고 정도를 넘어선 표현으로 날 선 대립을 이어가는 중입니다.<br/>모욕적인 표현이 넘쳐나는 이 성별 싸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장동민과 유세윤, 유상무가 과거 자신들이 진행하던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란 팟캐스트 방송에서 “<span class='quot0'>여자들은 멍청해서 머리가 남자한테 안 된다</span>” “<span class='quot0'>참을 수 없는 건 처녀가 아닌 여자</span>” “X 같은 년” 등 여성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때에도 비슷한 남녀대결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br/>당시에도 ‘한남충 옹달샘을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댓글에 ‘꼴페미(꼴통 페미니스트)들이 유난을 떤다’ 등 정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여성 혐오(여혐) VS 남성 혐오’(남혐) 대결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br/><br/><br/>이번에는 유상무가 갈등의 불꽃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입니다. <br/>10일 늦은 밤 유상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자신의 계정에 “<span class='quot1'>한부모 가정인 나와 (유)세유니(세윤이) 힘들 때 돌봐주고 늘 함께 해주고 사랑해준 건 그런 단체가 아닌 그 사람이었습니다</span>”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 아이들과 여행 가서 재미있게 놀고 (중략) 스케줄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다며 펜션비를 내준 게 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개그 한다더니” 등 장동민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잇달아 올렸습니다. 특히 장동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회원 수 8만 명 이상의 한부모가정 권익단체 ‘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차가연)을 ‘그런 단체’로 언급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 이혼하시고 30년 만에 처음 알았다. 우리 어머니 암 걸리시고 6평짜리 판잣집에 살 때 좀 나타나 주시지”라며 이 단체를 비꼬는 듯 말해 논란을 되레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br/>여성 혐오 발언으로 유상무 역시 지난해 장동민, 유세윤과 함께 사과 기자회견까지 하며 고개를 숙였던 터라 장동민에 대한 성급한 옹호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여시(여성) 사이트들 중심으로 옹달샘 죽이려는 악플이 넘치는데 다 막아야 한다’ 며 유상무를 지지하는 발언도 만만치 않습니다. <br/>한편 차가연 측은 장동민 고소 이후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이병철 대표는 “<span class='quot2'>장동민의 일부 팬들로부터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전화를 수 차례 받았다</span>”고 토로했습니다.<br/>이러한 불필요한 성별 대결과 특정 단체에 대한 비난으로는 이번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개그 소재로 악용하는 방송인과 시청률을 위해 이를 용인하는 방송국의 윤리관을 바로 잡는 과제가 시급한 때 서로를 혐오하는 극단적인 대립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br/>‘코빅’ 하차 후 장동민의 추후 행보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그가 불과 1년 사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몇 차례 물의를 일으켰던 만큼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br/>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17.txt

제목: 한화생명, 대형 생보사 최초 간편심사보험 출시  
날짜: 2016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12051603296  
본문: 한화생명이 대형 생명보험사 최초로 간편심사보험을 출시했다.<br/> <br/>11일 출시된 한화생명의 '한화생명 간편가입 건강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고혈압·당뇨 환자는 물론, 70세까지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br/> <br/>'한화생명 간편가입 건강보험'은 청약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기존 10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경증 질환을 갖고 있거나, 오래된 과거병력을 갖고 있더라도 고지항목 3가지 외에는 가입시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br/> <br/>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최근 2년 내 입원·수술 이력, 최근 5년 내 암으로 진단·입원·수술 받은 이력이다.<br/> <br/>또 고혈압, 당뇨 환자도 상기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br/> <br/>또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어 가입하지 못했거나 고령인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10년 단위 갱신형으로 최고 100세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장수시대에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br/> <br/>'한화생명 간편가입 건강보험'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1~3위인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3대 질병을 집중 보장한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일반암 진단시 2,000만원을 지급하며, 유방암·직장암·결장암·전립선암 진단시에는 400만원을, 소액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기타피부암) 및 경계성종양 진단 시에는 200만원이 보장된다.<br/> <br/>또 특약으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보장도 가능하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각각 2,000만원 진단자금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고객들의 니즈가 높은 입원보장특약, 수술보장특약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암 진단시(유방암, 직·결장암, 전립선암 제외)에는 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특정암보험료 납입면제특약'으로, 해당 갱신기간까지 특약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지속된다.<br/> <br/>한화생명 간편가입 건강보험의 최저 가입보험료는 월 1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40세~70세다. 40세, 전기납(10년 단위 갱신형·최대 100세) 기준으로 주계약 및 암추가보장·뇌출혈·급성심근경색·수술·입원 특약 1,000만원 및 보험료납입면제 특약 가입시 월 보험료는 남성 25,637원, 여성 23,336원이다.<br/> <br/>한화생명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한화생명 간편가입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성인이 가장 걱정하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3가지 질환에 중점을 두고 만든 상품이다. 어떤 질병이나 재해에도 보장받을 수 있고 입원보장까지 선택할 수 있어 노후생활의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18.txt

제목: [인터뷰] 아웃사이더 "진짜 강해질 이유 생겼다"  
날짜: 2016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12051514064  
본문: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바꾸는 존재가 한번쯤 나타나기 마련이다. 래퍼 아웃사이더에겐 지난달 세상에 태어난 2세가 그렇다. 결혼 4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이다.<br/> <br/>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웃사이더는 2012년 군 복무 중 올린 결혼식부터 숭고한 사연을 품고 있었다. 그 무렵 아내가 암이라는 병마와 싸워야 했다. 수술, 방사선 치료 등으로 2세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렇게 찾아온 천사 같은 딸이라서 태명부터 신이 내려준 선물, '신선이'이었다.<br/> <br/>정규 4집 리패키지 앨범 '비컴 스트롱거 (Become Stronger)'로 돌아온 아웃사이더는 삶, 음악에 대한 자세가 180도 바뀌었다. 갈등, 투쟁적인 태도를 버렸다. 아버지로서, 래퍼로서, 시대를 살아가는 한 남자로서 할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br/> <br/> <br/>-방송 활동은 3년 만이다. 뭐하고 지냈나.<br/><br/> "토크 콘서트 150회, 책도 냈고, 음반도 냈는데 방송 활동을 쉬다 보니 주변에서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결혼 생활도 컸다(웃음). 어느 순간 나에 대한 설명이 모두 과거형이더라. 나는 움직이고 있는데 멈춰있나 싶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즐기자는 마음이다."<br/> <br/>-왜 3년이나 쉬었나.<br/><br/> "중요한 시기의 3년이었다.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고, 회사 독립, 전 소속사와 소송도 했다. 크고 작은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숨고 싶었다. 밖으로 보이는 게 싫었다."<br/> <br/>-어떻게 보면 고갈된 에너지를 채운 시간이었겠다.<br/><br/> "음악과 조금 멀어진 상태로 살다 보니 가장 평범한 삶이었다. 남들과 다른 것만 추구했는데 오히려 동질감으로 더 많은 공감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br/> <br/>-그 사이 귀한 딸을 얻었다.<br/><br/> "태명이 '신선이'다. 신이 내려준 선물이란 뜻이다. 군 복무 중 아내가 암 수술,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아서 아이는 못 가질 줄 알았다. 마땅한 표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br/> <br/>-아이가 생기면 삶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지는데.<br/><br/> "그 동안 나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지금은 아니다. 부모님 생각, 주변에 소중한 사람 등 아기 하나로 인해 주변을 다 돌아보게 됐다. 소원해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연락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먼저 왜?'라고 했겠지. 그 정도로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자는 강박관념, 투쟁적인 삶만 살았다."<br/> <br/>-MC스나이퍼와 갈등도 풀었나.<br/><br/> "법적 합의는 봤지만 함께 나눈 시간이 길고 깊어서 쉽게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음악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다. 에너지를 얻고 많이 배워서 지금은 사이가 틀어졌지만 또 많이 닮았다. 애증의 관계인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겠다."<br/> <br/> <br/>-다시 아기 얘기로 돌아가자. 이름 짓기도 여간 쉬운 게 아닌데.<br/><br/> "음악관을 담아 '이로운'으로 지었다. 디스 문화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다. 정말 많이 받았지만 맞디스를 해본 적이 없다. 혹자는 다 인정하냐는 식이지만 음악으로 배설하고 싶지 않다. 넋두리 같은 배설은 한 번하면 계속 반복 된다. 음악으로는 좋은 영향을 전해주고 싶다."<br/> <br/>-발간한 책은 어떤 내용인가.<br/><br/> "산문집이다. '서울은 외롭다'는 타이틀인데 내 음악의 정체성이 외로움인데 산문으로 풀었다. 꿈이 언론인 혹은 작가였다. 서른 살이 되면 책을 내고 싶었는데 소설을 준비하다가 산문집으로 먼저 시작했다."<br/> <br/>-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는데 외롭다니.<br/><br/> "형태가 바뀌었다. '외톨이' 때는 극도의 고독감이었다면 아이가 생겼을 때는 또 다른 외로움이 있었다. 산모와 아이가 건강해야 된다는 불안감, 소중한 행복만큼 잃어 버릴 때 외로움, 누구와 공유할 수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br/> <br/>-아기의 탄생 외에도 자극을 받았던 부분이 있다면.<br/><br/> "골수팬이 장문의 편지로 내게 말했다. '외톨이'를 수백 번 부르던 나인데 너 한물 간 것 같다고. 신선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대로 가다간 끝이라고. 충격 받았고 가슴을 찔렀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될까 인정하기 싫었던 부분이다. 그런데 오만했고 부족했고 '쇼미더머니'에서도 떨어져서 창피했는데 강한 척했다. 이제는 진짜 강해지자는 생각이다.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다."<br/> <br/>-그래서 앨범 안에 땀이 상당히 묻어있다.<br/><br/> "3년 간 호흡을 고른 시간들을 꼭꼭 눌러 담았다. 리패키지 앨범이지만 새로 믹싱하며 최대한 나를 표현했다. 앨범 재킷 역시 내 삶의 굴곡을 최대한 표현했다. 수많은 불균형들, 외톨이 지휘자, 스나이퍼 사운드, 음악적인 태도, 새로운 내 가족인 아기 등 자세히 보면 다 나타냈다."<br/> <br/>-새 둥지에서 새 출발하는 감회도 남다르겠다.<br/><br/> "음악에 대한 제작 총괄을 맡았다. 경영을 해봐서 아티스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음악에만 충실하면서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 3년 쉬면서 하나하나 소중함을 느꼈다. 정말 신인의 자세로 최대한 많은 활동으로 보답하겠다."<br/> <br/>사진=임민환 기자<br/>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19.txt

제목: 김한수 교수, "두경부 외과 수술은 섬세한 작업, 세밀한 협업이 필수"  
날짜: 2016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12051459890  
본문: "명의요? 환자들이 찾는 의사가 명의 아닌가요? 우리병원은 우스개 소리로 두경부 관련 4차 병원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4차 병원은 없죠 3차 병원이 끝 입니다. 두경부 관련 해서는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br/> <br/>김한수(45) 이대목동병원 두경부센터장의 자신감 찬 생각이다. 김한수 교수는 두경부암과 갑상선 분야에서 이미 최소절개수술법 등으로 출혈을 최소화 하면서 수술 잘하기로 정평 난 젊고 실력 있는 의사다.<br/> <br/>또 갑상선 수술 시 무결찰 무배액관 수술이라는 수술법을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 수술시 출혈이 많아 배액관을 삽입하여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 김교수는 초음파 소작기를 이용하여 무결찰 수술및 무배액관 수술을 시도하여 입원 기간을 단축시켰다. 새로운 수술 방법도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을 떼어내는 방법은 목쪽에서 직접하는 것이 가장 표준적이고 쉽다. 하지만 동양 사람들의 경우 서양 사람들에 비해 켈로이드(피부조직이 이상 증식하여 융기하는 현상)가 많이 생겨 흉터가 진하게 나타난다. 이전까지 내시경을 겨드랑이·젖꼭지 등으로 진입시키는 수술 방법이 있었으나 김교수는 귀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을 새롭게 개척했다.<br/> <br/>▲좋은 의사가 되는 게 꿈<br/> <br/> <br/>김교수는 이비인후과 의사다. 의사는 어릴 때부터 김교수의 꿈이었다. 12세, 초등학교 시절 세브란스 병원을 들른 후부터 김교수의 꿈이었다. 그는 항상 "세브란스에서 외과 의사를 하겠다"고 자신의 꿈을 말했었다. 그리고 그는 연세대 의대에 입학하면서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김 교수는 꿈을 이룬 후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좋은 의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가 꾸준히 공부하는 의사로 여전히 남아 있는 이유다. 그의 머릿속에는 좋은 의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질환을 치료할 때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그는 친절히 잘 설명하는 것이야 말로 환자들과 믿음을 쌓아 갈 수 있다고 믿는다.<br/> <br/>최근 들어서 그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의약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갑상선암 수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증상이 없다면 검사도 필요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김교수는 "정부의 권고안을 보면 갑상선암은 잘 죽지 않으니 서두를 필요도 없고 증상이 없다면 검사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이것은 비 전문가들의 무지가 만들어낸 코미디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어떤 의사도 사망률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삶의 질이 중요한 것이다. 시기를 놓치면 생명에 지장이 없더라도 후두가 망가지고 목소리가 변하게 하는 게 갑상선 암이다. 정책을 세운 분들에게 당신 가족이 환자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면 다들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br/> <br/>▲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br/> <br/>이비인후과 관련 수술 중 제일 안타까운 것은 후두와 관계된 수술을 할 때다.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목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환자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그때 김교수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셔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어렵게 한다.<br/> <br/>김교수에게는 큰 깨달음을 얻게 해 준 환자가 있다. 10년 전에 만났던 농아 환자였다. 농아 환자는 처음 "목이 아프다. 며칠 전에 생선을 먹었는데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했다. 개인병원에 들렸더니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해서 김교수를 찾아왔다.<br/> <br/>검진결과 농아환자는 혀뿌리가 다 암이었고 암세포가 후두까지 침범했다. 혀를 다 절제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어차피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 같은 어려움은 없겠거니 하고 김교수는 생각했다. 김교수는 후두와 혀 전체를 잘라냈고 빈 공간은 배에 있는 조직을 이용해 채워 넣었다. 수술은 완벽했다. 예후도 좋았고 환자는 설암에서 해방됐다.<br/> <br/>그런데 이후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오는 이 환자는 항상 '배가 고프다'고 호소했다. 김교수는 "그때 아차 했다.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생명을 이어가지 못했겠지만 혀가 없으니 맛을 못 느끼는 것이다. 맛을 느끼지 못하니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느낌인 것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환자의 먹는 즐거움을 빼앗은 것이다 라는 반성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br/> <br/>▲두경부 암은 섬세한 작업과 협업이 생명<br/> <br/>두경부 암은 갑상선 암을 빼고도 전체 암 발병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양한 발병 원인이 있고 치료방법도 다양하다. 환자가 목이 쉬어 온 경우·혀에 이물질이 생긴 경우·코피가 나오는 경우·뇌에 생긴 암이 아래쪽 기관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두경부 암이다. 쇄골 위쪽에 있는 장기중 눈과 뇌를 빼면 다 두경부 외과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작은 부위에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 망을 뚫고 들어가 질병의 핵심 종양을 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br/> <br/>두경부의 경우 통합진료는 기본이다. 방사선과·성형외과·임상병리는 항상 함께 회의해야 한다.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재건 방법도 필요하다. 대부분 암환자 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수술부터 치료·재활까지 어떻게 할 지 협의가 돼 이어야 한다.<br/> <br/>김교수는 "어떤 수술의 경우 두경부 외과 의사와 내과의사·이비인후과의사·치과의사·성형외과의사·임상병리의사까지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목과 턱·입근처까지 암덩이가 존재한다면 외과적인 수술로 암을 제거 한 후에도 얼굴 근육·목소리·치아와 외적인 얼굴(미용)에 올 수 있는 이상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꼭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br/> <br/>두경부암은 큰 병원에 있는 의사와 트레이닝 된 스텝, 최신 장비가 있어야 도전 가능한 분야다. <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20.txt

제목: 김한수 교수가 추천하는 두경부 암 최대한 피하는 방법  
날짜: 2016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12051458933  
본문: 두경부 암 피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술을 마시지 말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구강 성교를 하지 않으면 된다.<br/> <br/>하지만 이미 성인들의 경우 술과 담배·구강성교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그래서 김교수가 추천하는 차선책은 이상하면 병원을 찾으라는 것이다.<br/> <br/>두경부 암 중 가장 많은 것 후두암으로 목소리 변화가 오면 먼저 동네 이비인후과를 꼭 찾을 것을 추천한다. 후두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레이저 수술로 하루 만에 해결 가능하다. 설암의 경우 심해지면 입에서 생선 썩는 냄세가 진동을 한다.<br/> <br/>귀에 물이 차는 것도 두경부 암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코 뒤쪽에 암이 있으면 귀에 물이 차는 경우가 많다. 이때도 이비인후과를 찾아 내시경을 하면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br/> <br/>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는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바이러스는 성교를 통해 퍼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br/> <br/>김한수 교수는 "후두암 초기에는 비용도 10만원대면 된다. 만약 병원 가길 꺼려서 키우면 후두를 모두 드러내고 목소리도 잃고 비용도 크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급격히 추락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21.txt

제목: ‘챌린저’ 참사 30년, 그들이 남긴 것들  
날짜: 201604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09051610273  
본문: [가만한 당신] 로저 보졸리와 로버트 이블링<br/> <br/>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 참사 30주년이다. 언론이 사고 당일(1월 28일, 1986년)을 전후해 거의 매년 저 일을 고통스럽게 환기해온 까닭은, 우주 탐사 역사상 최악의 저 참사가 인재(人災)였음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사고는 추진체 부품 결함, 엄밀히 말하면 결합부 고무 패킹(O-Ring)의 저온 손상 때문에 빚어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그릇된 의사결정구조와 추진체 제작업체 모턴 사이어콜(Morton Thiokol)사의 안일한 판단이 원인이었다. 그들은 기술진의 사전 경고와 발사 연기 주장을 묵살했다. <br/><br/>대통령직속사고조사위원회(일명 로저 위원회)의 첫 조사보고서가 나온 건 그 해 6월이었지만, NASA의 우주왕복선 프로젝트는 사고 후 근 3년간 전면 중단됐다. 사이어콜은 존폐 위기에, 직원들은 실직 위기에 몰렸다. 유타 주 브리검 시 사이어콜 공장 주변은 “살인자들(Morton Thiokol Murderers)”이라는 낙서로 뒤덮여 있었다. 사고에 연루된 이들, 그릇된 결정의 책임을 져야 했던 이들은 대부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br/>그들 중 로저 보졸리(Roger Boisjoly, 1938~2012)와 로버트 이블링(Robert Ebeling, 1926~2016)이 있었다. 둘은 사이어콜의 챌린저 ‘고체(연료)로켓추진체(SRB)’ 제작 프로젝트 담당 기술자였다. 그들은 가장 먼저 참사를 예견했고 발사를 막으려 했지만 결정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당일, 우주선 폭발 장면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무사하리라 믿었던 이들과 달리, 그들은 뻔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더 큰 죄책감과 분노에 함께 통곡했다고 한다. <br/>참사 후 그들은 기술자적 양심과 (자신들과 동료들의) 직장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또 살인자가 아니라는 자기존재증명 욕구의 틈바구니에서 고통 받았다. 자신들이 면책 받는 길은 직장과 최대 고객인 NASA를 배신하는 거였고, 무엇보다 동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였다. 직장 동료를 포함해 브리검 시 주민 대다수는 몰몬교도였고, 주말에도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이들이었다. 참사 3주 뒤 npr이 특종 보도한 참사 속보(“사전 경고가 있었다”)에는 그들(둘 외에 부서 책임자 앨런 맥도널드와 동료 기술자 에이널드 톰슨, 브라이언 러셀)의 증언이 익명으로 실려 있었다.(npr, 2006.1.28) 직장에 계속 남은 이들과 달리 둘은 심리적 중압감으로 장기 병가를 냈다. 그건 사실상 자의반 타의반의 퇴사였다. 당시 보졸리는 48세, 이블링은 60세였다. <br/>하지만 이후 둘의 행로는 대조적이었다. 실명으로 진실을 처음 공개하고 로저위원회에서 증언한 보졸리는 동료들과 지역 여론의 뭇매에 분노하며 한동안 스스로(와 가족)를 괴롭혔다. 88년 마음을 추스른 그는 이후 숨을 거둘 때까지 300여 차례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 강연으로 ‘기술자의 윤리와 책임’을 전도했다. <br/>내내 자신을 감추며 살았던 이블링은 분노를 내면화해 자책으로 스스로를 고문했고, 89년 무렵부터 지역 철새 보호 등 환경활동가로 여생을 보냈다. 그가 자신을 드러내며 그간 겪은 갈등과 죄의식을 토로하고 NASA와 사이어콜의 사과를 요구한 건 숨지기 직전인 지난 1월이었다. <br/><br/><br/>보졸리는 1938년 4월 25일 매사추세츠 로웰에서 태어났다. 매사추세츠대학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뒤 선택한 첫 직장은 록웰사 항공기 설계팀이었다. 74년 터키 국적DC-10 여객기 추락 참사(346명 사망)의 트라우마가 그에겐 있었다.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동체 도어 디자인결함이었고, 담당 부서의 일원이었던 그는 그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풀어놓지 못했다. 80년 1월, 캘리포니아 남부의 집과 연봉 절반을 포기하고 사이어콜사로 이직한 것은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며 가족과 조용히 살고 싶어서였다고 87년 인터뷰에서 말했다.(LA타임스, 1987.1.28) 그는 챌린저 SRB의 설계ㆍ제작팀 수석(Chief)엔지니어로 배치됐다. <br/> 이블링은 1962년 사이어콜에 합류했다. 1926년 9월 4일 시카고에서 자동차 정비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캘리포니아 폴리테크 주립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NASA 머큐리계획의 우주선 ‘아틀라스’를 제작한 샌디에이고 항공우주회사 ‘컨베어(Convair)’에서 일을 시작했다. 사이어콜 사가 NASA 우주왕복선 SRB 프로젝트를 맡은 건 74년이었고, 그는 챌린저 SRB의 점화 및 최종조립 담당 매니저였다.<br/>우주선에 이륙 추진력을 공급하는 SRB는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로 다단계로 제작돼 연소한 탱크들을 순차적으로 분리하며 상승한다. 고체연료는 점화열로 기화해 연소하는데, 기화한 연료가 결합부에서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내열 합성 고무 패킹이 ‘오링(O-Ring)’이다. 사이이콜 기술진은 85년 1월 24일 회수된 SRB 오링이 손상된 사실을 발견, 섭씨 11.7도 이하에서는 탄성을 잃고 경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챌린저 SRB 제작 일정을 진행하는 한편, 오링 소재 교체와 설계 변경 등 별도의 개선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경영진과 NASA에 건의했다. <br/>하지만 ‘선샤인벨트’ 플로리다의 1월 평균 기온이 16~23도다. 오링 개선 프로젝트에는 적잖은 예산과 시간, 또 NASA와의 까다로운 협의와 서류작업이 필요했다. “<span class='quot0'>샌디에이고 창고에서 하룻밤이면 실어올 수 있는 2,500달러 짜리 발전기 한 대를 구하느라 (NASA와) 협의하는 데 4주가 걸렸</span>”던 적도 있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사이어콜 경영진으로서는 계약 기일 안에 계약된 그대로 SRB를 납품하는 일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기술진의 요구는 번번히 묵살됐다. 보졸리는 85년 6월, 데이터에 근거한 우려와 건의를 개인적으로 문서화해 회사와 NASA에 전달했고, 사본을 따로 보관했다. <br/>챌린저 발사 당일 플로리다의 예보 기온은 평년보다 16도 이상 낮은 영하 1.1도였다. 사이어콜 기술진은 플로리다 케네디 발사기지에 파견된 부서장 앨런에게 (이블링이) 전화를 걸어 발사 연기를 요구했고, 하루 전인 25일 밤 NASA 책임자들과 긴급 전화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이는 보졸리와 톰슨이었다. 보졸리는 85년의 파손된 오링 사진을 사이어콜 부회장단 테이블에 집어던지다시피 하며 항변했고, ‘유순한’ 톰슨조차 경영진 사이에 껴들어 실험 데이터가 적힌 노트 패드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고 한다. “끔찍하다”(NASA SRB 감독관 조지 하디) “세상에, 그럼 언제 발사하란 말이냐? 4월에?”(NASA 프로그램 매니저 로렌스 멀로이)(npr, 2012.2.6)<br/><br/>발사 강행 결정은 그들이 퇴장한 뒤 NASA와 사이어콜 경영진에 의해 이뤄졌다. 이미 두 차례 발사가 연기된 터였고, 디데이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의회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발표일이었다. 레이건은 연설에서 챌린저 발사 성공을 언급한 뒤 NASA를 격려 방문할 예정이었다. 물론 소련을 비롯한 전 세계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챌린저는 이륙 73초 만에 폭발했고, 승무원 7명 전원이 숨졌다. <br/> <br/>NASA 사고조사에 참가한 앨런과 보졸리는 모든 정황과 진실을 밝혔지만, 자체보고서에는 조립 하자 가능성 등이 장황하게 언급됐고, 오링 문제점은 몇 단락 삽입되는 데 그쳤다. 보졸리는 노골적인 원인 은폐 시도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85년 문서를 여러 부 복사해 숙소와 승용차, 브리검의 집 등에 분산해서 간직했다. 그의 진실이 로저위원회 일원이던 공군 소장 도널드 쿠티나(Donarl Kutyna)에 알려졌고, 대놓고 NASA를 공격할 수 없었던 쿠티나가 조사에 가담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1918~1988)에게 귀띔해 원인을 자체적으로 밝히게 했다는 건 훗날 알려진 일이었다. <br/>그들은 ‘내부고발자’로 몰려 NASA와 경영진, 직장 동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주요 보직에서 배제됐고, 정보로부터 차단당했고, 당연히 승진 명단에서 누락됐다. 보졸리는 특히 더했다. 그의 아내 로버타(Roberta)는 npr 인터뷰에서 “회사가 잘못되면 내 아이를 당신 집 앞에 데려다 놓겠다고 말한 직장 동료도 있었다”고 전했다. 사이어콜은 의회의 경고를 받은 뒤에야 앨런을 비롯 관련자 인사 불이익을 시정했지만, 보졸리는 예외였다. <br/>다들 정신적 외상 장애에 시달렸지만, 보졸리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사고 후 폭식으로 몇 달 새 몸무게가 18kg이나 늘었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회사가 제공하는 스트레스장애 치료조차 거부했다. 아무에게나, 심지어 가족에게도 사소한 일로 분노를 터뜨리곤 했다고, “내가 알던 남편 같지 않았다”고 로버타는 87년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가 병원을 찾은 건 스트레스로 왼손 마비, 복시(複視)가 시작된 뒤였다. <br/>그는, 적어도 겉으로는, 자책하지 않았다. 88년 그는 로저위원회 증언 직전 샐리 라이드가 자기를 포옹하며 격려해준 게 큰 힘이 됐다고 “<span class='quot1'>(내 편은)그녀 단 한 사람 뿐이었다</span>”고 말했다.(NYT, 2012.2.3) 샐리 라이드(Sally Ride, 1951~2012)는 NASA의 노골적인 여성차별에 맞서며 1983년 챌린저의 두 번째 비행에 승선한 미국인 첫 여성 우주비행사로, 쿠치나에게 오링 결함 가능성을 맨 먼저 전한 이였다. <br/>보졸리는 1988년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과학 자유와 책임상(Prize for Scientific Freedom and Responsibility)’을 탔고, 그 이후 대학과 시민단체 등에 초청돼 기업 윤리와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연했다.(NYT, NPT 2012년 2월 부고) 그는 결장과 신장, 간에 암이 퍼졌다는 진단을 받은 지 2주 뒤인 2012년 1월 6일 별세(향년 73세)했다. 뉴욕타임스와 NPR등이 그의 작고 사실을 안 건 약 한 달이 지난 뒤였다. 로버타는 보졸리가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행복해했다고 npr 인터뷰에서 전했다.<br/><br/>정년이 임박했던 이블링도 86년 직장을 떠났다. “<span class='quot0'>그들(회사)은 나를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대했</span>”고, “<span class='quot0'>나도 누군가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책임도 지고 싶지 않았다</span>”고 그는 말했다.(LA타임스, 위 기사) 자책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는 89년 이후 숨을 거둘 때까지 유타주 철새보호 시민단체 ‘베어 리버 철새들의 피난처(Bear River Migratory Bird Refuge)’의 자원봉사자로 살았다. 80년대 중반 솔트레이크 범람으로 무너진 제방을 복구하고 수로와 데크와 탐조루트를 다시 손보고 수초를 가꾼 건 전적으로 그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기부와 모금과 노동 덕이었다고 단체는 밝혔다. 공학 기술자 이블링은 특히 관개시설ㆍ수로 보강 등 기술적인 분야를 진두 지휘했고, 90년 ‘테오도르 루즈벨트 환경보존상’과 2012년 국립야생보존위원회(NWRA)의 ‘올해의 자원봉사자상’을 탔다.(fws.gov, 2016.3.24) <br/><br/>이블링이 세상에 나선 건 지난 1월이었다. 30년 전 익명으로 npr과 인터뷰했던 그는 다시 npr 기자를 브리검 집에서 만나 “이제 진실을 알릴 때”라며 “<span class='quot0'>당시 NASA의 발사 결심은 확고했다</span>”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난 세월 혼자 감당해야 했던 자책과 죄의식을 울먹이며 토로했다. “나는 좀 더 노력할 수 있었고, 좀 더 노력했어야 했다.” “신은 그 일을 내게 맡기지 않았어야 했다. 나중에 신을 만나면 따져 물을 거다. ‘왜 나였냐?’고, ‘당신은 패배자(loser)를 선택했다’고.”<br/><br/>그의 인터뷰가 1월 28일 미국 전역에 방영되자 시민들의 격려 편지가 쇄도했다. 전 보스 앨런 맥도널드도 그에게 전화해서, “<span class='quot2'>알면서 아무 것도 안 하거나 어찌되든 신경도 안 쓰는 게 루저</span>”라고, “당신은 위너(Winner)”라고 말했다. “<span class='quot0'>만일 당신이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멈추려는 시도조차 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span>” 하지만 그는 마음을 풀지 못했다. 그들은 사이어콜이 아니고 NASA가 아니라는 거였다. 사이어콜 부회장이던 로버트 룬트(Robert Lund)와 NASA의 조지 하디가 편지를 쓴 건 그 직후였다. 하디는 “<span class='quot3'>당신과 동료들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span>” NASA도 언론담당관 스테파니 쉬어홀츠 명의의 성명에서 “<span class='quot3'>우주비행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발언해준 이블링 같은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span>”고 밝혔다.(npr, 2016.2.25) <br/> 그제야 이블링은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모든 건 끝을 맺어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고 npr은 전했다. 말한 적 없지만, 그에게는 보졸리에 대한 부채감도 있었을지 모른다. 모두를 대신해 그 빚을 다 갚고, 그는 3월 21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22.txt

제목: 대한암협회 창립50주년 행사  
날짜: 201604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09051542517  
본문: 노동영(오른쪽에서 네번째) 대한암협회 신임 회장이 8일 협회 창립 50주년 행사가 열린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구범환(오른쪽에서 다섯번째) 전임 회장 등 참석자들과 암 예방과 극복을 소망하는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br/>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23.txt

제목: 유도미사일까지 거래되는 페이스북, 불법 무기 암시장  
날짜: 2016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08051304749  
본문: “미군에서 공급한 대전차용 신형 토우 미사일 팝니다. 메신저로 연락주세요.”<br/>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테러리스트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암시장으로 변질돼 비상이 걸렸다. 페이스북은 계정을 열기가 손쉽고 금융결제 시스템까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무기 암거래 시장으로 테러리스트들이 악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지적이다. <br/>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컨설턴트 회사인 무기연구서비스(ARES)의 보고서를 인용해 페이스북이 리비아와 시리아, 이라크 등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라인 상 최대규모의 무기 암거래 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국가들은 이슬람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거점이어서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된 무기들이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br/>ARES에 따르면 리비아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무기 거래 관련 게시물들만 매일 250~300건에 달한다. 2014년 9월 이후 리비아에서 페이스북을 활용한 무기 거래 시도도 97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비아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IS가 활개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리비아 군에서 통제를 상실한 무기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은밀히 팔리고 있는 것이다. ARES의 책임연구원인 젠젠 존스는 “<span class='quot0'>무기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로 IS 조직원이나 군벌세력에 팔려나간다</span>”며 “<span class='quot0'>2,200달러부터 7,000달러 정도 선에서 무기가 거래된다</span>”고 설명했다. <br/>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는 미군이 공급한 무기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적진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 페이스북에 판매용으로 올라온 무기 대부분은 미군이 과거 이라크 정부군에 제공한 것들로 확인됐다. 시리아에서도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고 있는 반군에 지원한 무기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IS에 팔린 정황들이 포착됐다. <br/>ARES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래되는 무기들은 소형화기부터 중화기까지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수류탄과 권총은 물론 기관총, 대전차 유도미사일, 휴대용 열추적 대공미사일(맨패드) 등까지 거래되고 있다. 맨패드의 경우 IS가 시리아에서 작전 중인 미군의 헬리콥터를 격추하기 위해 가장 애용하는 무기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리비아와 터키 등에서 유럽 행을 위해 그리스로 넘어가려는 난민들에게 불법 이민선을 제공하겠다는 게시물까지 올라오고 있다. <br/>페이스북은 자사 서비스가 무기 암시장으로 변질되자 집중적인 감시에 나섰다. 페이스북은 올 1월부터 무기나 화기의 사적 거래를 금하도록 서비스 규정을 강화했고, 최근에는 무기 거래와 관련된 계정 6개를 차단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매일 올라오는 게시물의 숫자가 워낙 방대해서 전체를 감시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콘텐츠 심의를 담당하는 모니카 비커트는 “<span class='quot1'>규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항을 이용자들이 신고하는 것은 페이스북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span>”고 말했다. <br/><br/>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24.txt

제목: [까톡 2030]“강한 의지로 이겨내자”는 금물, 건강관리 2030부터 해야  
날짜: 201604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07051652525  
본문: 직장인 A(35)씨는 직장 생활 2년 차였던 10년 전 몸이 피곤한데도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기만 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가슴이 답답했다. 매일 자정까지 반복되는 야근과, 상사들의 인격모독적인 질책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잠들기 전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됐다. 이런 상태가 한 달 정도 지속되자 A씨는 회사 근처 신경정신과를 찾았다. 의사에게 눈물을 쏟으며 속 얘기를 털어놓은 A씨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일주일간 약을 복용하자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다. A씨는 “병원에 가기 전에는 꺼려졌지만 막상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 만큼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다”며 “힘들 때면 또 병원을 가서 상담 받고 약을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A씨는 그 후 우울증을 겪지 않았고, 요가와 수영 등으로 몸의 건강도 챙기고 있다.<br/>몸이나 마음에 건강 적신호가 왔는데도 “강한 의지로 이겨 내겠다” 혹은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금물이다. 전문가들은 젊은 나이어도 특정 증상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서 제 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r/> 최근 젊은 층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우울증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이병욱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대부분 사람들이 ‘기운이 없다’고만 생각하고 참다가 증상이 악화된 후에야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불면증, 식욕저하, 무기력증 등이 2주 이상 계속되면 병원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일부의 편견처럼 우울증 약은 독하지 않으며, 내성이 없는데다 3분의 2이상이 완치될 만큼 치료율도 높다. 대인관계나 성격 등에서 비롯된 우울증은 상담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br/> 목ㆍ허리 디스크 등 척추질환도 젊은 층에 급속도로 퍼지는 질환 중 하나다. 정국진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목, 어깨, 팔 통증과 저림 증상이 6~8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1'>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통증이 돼 치료와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span>”고 말했다. 평소 자세도 중요하다. 의자 등받이에 등 전체를 붙여 앉은 후 의자를 책상에 바짝 가져가고 턱은 몸 쪽으로 당겨야 한다. 특히 목을 모니터 방향으로 빼지 말지 않도록 주의하고, 컴퓨터 모니터는 자신의 시선보다 15도 정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45~50분 정도 앉아 있었다면 10분 정도는 서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다.<br/> 평소 음주 흡연을 피하고 짜고 단 음식, 탄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span class='quot2'>40대부터 앓기 시작하는 암과 만성질환 등은 20ㆍ30대 때의 식습관 및 음주 흡연 여부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20대 때부터 금연, 절주, 올바른 식습관 등 건강 수칙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25.txt

제목: 호암상 김명식 영국 임페리얼대 교수 등  
날짜: 201604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06051602849  
본문: 호암재단이 ‘제26회 호암상’ 수상자를 5일 발표했다.<br/> 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과학상 김명식(54)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 ▦공학상 오준호(62) KAIST 교수 ▦의학상 래리 곽(57) 미국 시티 오브 호프 병원 교수 ▦예술상 황동규(78) 시인 ▦사회봉사상 김현수(61) 조순실(59) 들꽃청소년세상 공동대표 등 6명이다.<br/> 김 교수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일하기 위한 기초 마련에 기여했고, 오 교수는 한국 최초의 두 다리 보행 인간형 로봇 ‘휴보’를 만든 공로를 인정 받았다. 곽 교수는 암 성장 억제기술과 같은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을 선도했다. 황 시인은 60년 가까이 시의 형태적 혁신을 통해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했다. 부부인 김현수 조순실 공동대표는 가출 청소년을 22년간 보살피며 청소년 복지의 새 모형을 제시했다.<br/><br/> 이들은 학자와 전문가 38명이 위원을 맡은 심사위원회의 업적 검토, 해외 석학 3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6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수상자들은 상장과 메달(순금 50돈), 상금 3억원을 받는다. 호암상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0년 제정했다. 호암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호다. 허정헌기자 xscop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26.txt

제목: 글로벌 플랫폼 전쟁 중, 한국 기업은 헛심만  
날짜: 201604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05051511478  
본문: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싸고<br/>소모적 논쟁으로 날 새는 양상<br/><br/>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미래 플랫폼 선점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좁은 국내 시장에만 집착하고 있어 자칫 10년 후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br/>새로운 플랫폼 위에 빅데이터와 AI를 연결하는 사업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은 구글이다. 구글은 이미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통해 AI 기술력을 과시했다. 알파고는 구글이 지난 2001년부터 AI에 33조원을 투자한 결과물 중 하나다. 구글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머신러닝) AI를 폭넓게 적용, 로봇 자동차도 선보일 계획이다. <br/>최근 AI 대화 프로그램 ‘테이’를 내놓은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앞으로의 사업 전략을 AI에 집중하고 있다. MS는 아예 소프트웨어(앱)의 시대가 가고 AI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다. <br/>‘AI 원조’로 불리는 IBM의 ‘왓슨’은 이미 의료 빅데이터 분석에 접목돼 초기 암 진단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도 올해 초 공업정보화부 주도 아래 5G 연구 개발 관련 대규모 조직을 출범시켰다. <br/>글로벌 ICT 업체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실어 나를 미래 플랫폼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강력한 AI를 탑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AI 전쟁을 시작한 상태다. <br/>그러나 국내 ICT업체들은 이처럼 미래 시장을 준비하기 보다 성장성을 잃은 국내 시장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이미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6,000만명에 육박, 한계에 봉착했다. 이동통신3사 연 매출은 지난해 사상 첫 동반 하락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이동통신업체들의 가장 큰 이슈는 미래 먹거리가 아닌 인수합병 논쟁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싼 SK텔레콤과 반대진영(KTㆍLG유플러스)의 갈등은 법정까지 이어지며 장기화할 조짐이다. 세계적인 흐름과는 상반된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기존 시장만 바라보며 소모적 논쟁만 반복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결국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되고 말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땅따먹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 시장을 위한 경쟁을 벌일 때</span>”라고 지적했다. <br/>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27.txt

제목: [재미있는 비뇨기 이야기] 커피와 섹스  
날짜: 2016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05051456374  
본문: 심봉석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br/>여성감독 스테이시 패슨의 ‘커피 한잔이 섹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요상한 제목의 영화가 있다. 욕망을 억압당한 한 여성이 섹스를 통해 교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비밀 비즈니스를 한다는 스토리다. 제목만 보면 커피와 섹스가 어우러지는 묘한 장면이 상상되고 커피가 마치 흥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섹스에 대한 커피의 효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br/>커피에는 카페인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세포 산화 억제, 노화 예방, 기억력 증진, 위암ㆍ직장암ㆍ간암ㆍ전립선암 억제 등 효과가 있다. 카페인은 대뇌피질에 작용해 사고력을 높이고 의식을 맑게 해 지각 능력을 높인다. 혈압을 떨어뜨리며, 대사를 항진시키고, 위액의 분비를 증가시켜 소화기능을 돕는다. 반면 중추신경을 자극해 숙면을 해쳐 피로를 가중시키고,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불안감이 유발된다.<br/>커피의 유래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한 양치기가 커피 열매를 처음 발견했고, 이후 아랍으로 전래되어 음료로 개발되었다. 14세기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커피콩을 불에 구워 가루로 만들어 걸러 마시기 시작했다. 중세유럽에서는 성적 자극제로 알려졌었는데, 독일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커피와 성욕을 소재로, 커피를 예찬하는 커피 칸타타(BWV 211)를 작곡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커피가 성기능에 효과가 있을까?<br/>여러 연구에서 커피가 생화학적 및 행동학적으로 섹스와 연관이 있다는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루 한 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중년여성에서는 성생활의 빈도가 증가했고, 중년남성에서는 남성호르몬의 양이 증가하고 발기력이 좋아졌다고 한다. 또 커피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성욕을 증가시키고 성행위의 동기를 유발할뿐더러 남성의 음경혈관을 확장시켜 발기력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커피가 성에 미치는 기전은, 성적 욕망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를 자극하여 성욕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성욕 증진 효과는 평소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에겐 효과가 별로 없고, 마시지 않던 사람들에게 잘 나타난다.<br/>안타깝게도 커피가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도 많다. 커피가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성적 흥분을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상승시켜 성기능을 위축시킨다. 카페인은 남성의 음경해면체에서 발기에 관여하는 아데노신의 활동을 억제하므로, 커피를 마신 후에는 발기 강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또 과도하게 커피를 마시면 정자의 숫자가 감소하고 운동력이 떨어져서 난임이나 불임이 초래된다. 하지만 적당한 양의 커피를 마실 경우, 정자의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br/>요로에 미치는 영향은, 카페인이 방광과 요도를 자극하고 배뇨증상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 하루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여성에서 요실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커피를 마시면 빈뇨 등 소변보는 불편함이 악화될 수 있다. 과민성방광, 요실금, 전립선비대증 등 배뇨장애를 가진 남성이나 여성들이 커피를 마시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성욕에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배뇨증상 악화로 인해 흥미가 반감되거나 도중에 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br/>커피 한 잔에는 100~15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는데, 하루에 400mg 정도의 카페인 섭취는 큰 문제가 없으므로 커피는 하루 2~3잔이 적당하다. 영화 ‘커피 한잔이 섹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커피는 여자들의 욕망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표현되었다. 또 역사적으로 커피는 최음제나 흥분제로도 여겨져 왔으나 아직까지 논란이 많고,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28.txt

제목: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설계한 자하 하디드 별세  
날짜: 2016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02051343781  
본문: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설계자이자, 중동 출신 여성으로서 최초로 프리츠커건축상을 수상한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별세했다. 자하 하디드 건축사무소는 “하디드가 3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숨졌다”고 발표했다. 향년 65세. <br/>1950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태어난 하디드는 영국 건축협회 건축학교와 렘 콜하스의 메트로폴리탄 건축사무소(OMA)를 거쳐 79년 런던에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설립했다. 고인은 특히 곡선을 적극 활용하는 자유분방한 건축 언어를 구사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창기 작업 대부분은 구상 단계에 그쳐야 했다. 93년에야 독일 바일 암 라인의 비트라 소방서로 비로소 그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현실화됐다.<br/>2000년대 들어 건축기술 발전으로 하디드의 프로젝트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탈리아 로마 국립21세기미술관(2009) 중국 광저우 오페라하우스(2010) 런던올림픽 아쿠아틱스 센터(2011) 아제르바이잔의 헤이다르 알리예프 문화센터(2013) 등을 설계했다. 그러나 최근 그가 설계한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이 과다 건설비를 이유로 백지화되고, 카타르 월드컵 알 와크라 경기장의 건설 과정에서 카타르의 노동자 수천명이 사망하면서 언론이 그의 도덕적 책임을 묻는 불운도 겪었다. <br/>하디드는 백인 남성 중심의 건축계에서 중동 여성으로서 최초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건축가다. 피터 팔럼보 프리츠커건축상 심사위원장은 “<span class='quot0'>세계는 건축계의 지도자를 잃었다</span>”며 “<span class='quot0'>하디드는 건축가로서의 천재성을 발휘했을 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건축계의 오랜 편견과 싸웠기에 그의 업적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span>”이라고 고인을 기렸다.<br/>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br/><br/>▲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주요 건축물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29.txt

제목: [주말의 시] 이이체 ‘트럼펫의 슬픈 발라드’  
날짜: 2016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02051324770  
본문: 허공은 늘 다친다<br/>생명의 습관은 자꾸 죽는다는 것이다 <br/>그 우연이 해몽의 부피를 어림잡을 수 있는, <br/>욕설의 유일한 종류가 된다 <br/><br/>인간은 모르는 인간을 낳는다<br/>모든 물질이 스스로 실성하는 순리 <br/><br/>너는 이 세계에 내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다 <br/>몸의 바깥을 배회할수록 인간은 농익는다 <br/><br/>암석<br/>땅 위엔 푸른 피 <br/><br/>땅 위엔 푸른 피 <br/><br/>-이이체 ‘트럼펫의 슬픈 발라드’ 전문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30.txt

제목: ‘폐암 수술 장면, 후두암 환자 모습’…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최초 공개  
날짜: 201603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401051832710  
본문: 올해 말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부착될 흡연 경고그림 시안이 최초로 공개됐다. <br/> 경고그림위원회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될 경고그림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해 31일 발표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현재 전세계 80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0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왔다.<br/>시안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 부위를 담은 5종과 간접흡연, 조기 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등을 주제로 한 5종 등 총 10종이다. <br/>경고그림위원회 활동은 이날을 끝으로 공식 종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확정한 경고그림 시안 중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6월 23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br/><br/>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br/><br/><br/>☞ ‘담뱃갑이 무시무시해진다’ 카드뉴스 보기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31.txt

제목: 대구 민뷰티샵 이민주 원장 - 나의 어머니  
날짜: 2016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31051154660  
본문: ‘엄마와 함께 그려가는 내 인생’<br/><br/>‘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망한 케이스였다’ <br/>고2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중하위권 성적이었다. 미대를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었다. 고2 1학기가 다 끝날 무렵 미술 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이렇게 조언했다.<br/>“미대도 좋은 델 가려면 성적도 중요해.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래.”<br/>미대를 가려고 마음 먹었으면서도 입시 요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내 잘못이었다. 그날부터 공부에 매진했다. 처음으로 코피가 날 때까지 공부했다. 그러자 꿈쩍도 않을 것 같은 성적이 들썩대기 시작했다. - 그것도 고3 때에! 팔공산 갓바위를 한손으로 들어 올리는 기분이었다. 급기야 모의고사 성적이 140점 이상 수직상승했다. <br/>“너 족집게 과외 받냐?” <br/>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었다.<br/><br/><br/># ‘미대? 턱도 없는 소리하지 마라’<br/>“<span class='quot0'>엄마, 이번 모의고사 성적표야.</span>”<br/>어머니에게 성적표를 당당하게 내밀었다.<br/>“<span class='quot0'>엄마, 이 정도면 경북대학교 미대는 충분하대.</span>” <br/>그 순간, 성적표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던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br/>“야가 무슨 소리 하노! 미대는 무슨 얼어 죽을 미대고!” <br/>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반응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br/>“미대는 절대 안 된다. 미대 갈 거 같으면 아예 학교 가지 마라! 그림은 네 아빠로 충분하다. 미대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우리집은 미술 때문에 망했다!” <br/>사실 엄마가 미대 진학을 반대하는 이유는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세 자매를 남기고 일찍 돌아가셨다. 당시만 해도 남자 없는 집에서 딸 셋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외할머니는 시장 좌판부터 안 해 본 것이 없을 정도였다. 나중에는 포목 장사를 해서 어머니와 이모들을 먹여 살렸다. 다행히 장사가 잘 돼 어머니는 고등학교까지 마쳤다. 좀 사는 집 딸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당시로써는 귀하게 자랐다.<br/><br/><br/>하지만 22살에 아버지와 결혼 후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되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화백이셨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그림에 빠졌다. 엄마가 생계를 책임지다시피 했다. 남편만으로도 미술에 신물이 난 어머니였다. 딸이 또 붓을 잡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br/>나는 고집을 피웠다. 엄마는 등록금을 못 준다는 엄포부터 ‘부모·자식의 인연을 끊자’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미대 입학을 준비를 했다.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 계획도 세웠다.<br/><br/># 나도 모르게 합격한 간호대 <br/>혼자 미대입시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렀다. <br/>“민주야, 너 간호대 특차로 합격했다. 엄마가 오셔서 직접 원서를 내셨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br/>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당시는 특차에 합격하면 다른 곳은 원서도 못 냈다. 미대에 입학하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치도록 공부했는데, 결론은 생각지도 않은 간호대였다.<br/>“엄마 이종사촌 딸이 간호사인데 전문직이고 오래 하면 월급도 많다더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br/>엄마의 말에 나는 소리를 지르듯 말했다.<br/>“왜 내 인생을 엄마 마음대로 하는데! 왜 엄마 마음대로 하느냐고!” <br/>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태어나서 그만큼 울어본 적이 없었다. <br/><br/><br/># 이 길은 내 길이 아닌데....<br/>간호대 입학식 때도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다. 집에서는 잠만 잤다. 간호대 과정은 마치 수용소 생활을 하는 것 같았다. 버스에서 내리면 강의실까지 30분은 족히 걸렸다. 4년간 학교에 다니며 거의 매일 ‘내 길이 아닌 곳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간호대 특성상 학습량이 많은 것은 물론, 규율도 엄격했다. 점점 학교에 흥미를 잃었다. 수업을 빼먹는 날도 많았다.<br/>축제기간에 시내에 갔다가 메이크업을 하는 이들을 봤다. 당시에는 메이크업이 생소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br/>며칠 후 무엇인가 홀린 듯 메이크업학원에 등록을 했다. 학원비는 내가 벌었다. <br/>수업을 마치면 바로 메이크업학원에 갔다. 몸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집에는 항상 자정이 다 되어 들어갔다. 엄마는 내가 학업에 열중하는 줄 알았을 것이다. 생활이 바빠진 만큼 엄마와의 대화는 물론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다. 부지런히 외도(?)를 한 덕에 졸업앨범을 찍을 때 친구들이 나에게 메이컵을 받겠다고 줄을 섰다.<br/>졸업 후 엄마의 뜻을 따라 대형병원에 취업했다. 그때도 여전히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엄마는 퇴근 시간이면 항상 나를 태워서 집으로 왔다. 30분 정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대화가 거의 없었다. <br/><br/><br/>나의 첫 근무처는 중환자실이었다. 근무를 할수록 ‘내 길이 아니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중년의 재력가가 암 선고를 받고 입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부모의 반대로 음악을 포기하고 살아온 것이 한이 된다</span>”면서 병실에 악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그를 보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기 싫다’는 생각에 한동안 손을 놓았던 메이크업학원에 찾아가 등록했다. <br/>학원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저축은 고사하고 한 달 월급을 메이크업과 학원비로 다 쏟아부었다. 항상 피곤한 얼굴에 점점 살이 빠졌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정말 편했다. 내친 김에 친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br/>나를 찾는 손님이 점점 늘었을 무렵 병원에 사표를 냈다. 물론 집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맞추었다. 한번은 엄마가 병원 앞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허겁지겁 병원으로 들어나 퇴근하는 것처럼 연출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 가지 못했다.<br/>“너 정신 나갔나! 당장 집에 들어온나, 퍼뜩!” <br/>결국 들켰다. 병원에 전화를 했다가 내가 퇴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나는 겁이 나 집에 못들어가고 샵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한 달 가량 시간이 지나자 다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다소 누그러져 있었다. <br/>“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br/>차마 미용실 아르바이트 때문에 병원을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너무 지쳐서 쉬고 싶었다’고 말했다. 엄마는 핼쑥해진 내 얼굴을 보고 더 이상 야단을 치지 않았다. <br/><br/><br/>#부모님 몰래 뷰티샵 개원<br/>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부모님은 계속 취직을 하라고 종용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내 발앞에 선풍기가 떨어졌다. 날개가 산산이 조각났다. 아버지가 폭발한 것이었다. 그 즈음 부모님의 눈에 비치는 나는 할 일없이 놀고 먹으면서 취미생활(메이크업)을 하는 딸이였다. 엄마는 회초리를 들었다. <br/>“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뭐하는 짓이고. 멀쩡한 직장은 왜 그만두고 이러고 있나?” <br/>아프다는 생각보다 엄마의 그런 모습에 오기가 생겨 피하지 않고 맞기만 했다. 한참을 맞다 보니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서러웠다.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br/>“엄마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망했잖아. 나 미대 간다고 했을 때 보냈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잖아. 내 인생 책임져!” <br/>갑작스러운 반항에 부모님은 멍한 눈길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br/>다음 날, 나는 부모님 몰래 뷰티샵 할 곳을 물색했다. 쥐꼬리 만한 퇴직금을 가지고 대구 수성시장 골목 끝에 있는 7평짜리 가게를 구했다. 주인은 보증금 200에 20만 원을 내라고 했지만, 그 돈도 없었다. 한참을 설득한 끝에 월세 25만 원에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합의를 봤다. 하지만 오픈하는데 2,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시작과 동시에 빚이 생겼다. <br/>점심값도 없어서 인근에 사는 친언니가 도시락을 싸왔다. 전기세가 아까워 마지막 손님이 남았을 때는 간판 불을 껐다. 집으로 갈 택시비를 아끼려고 한 겨울에 매장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잔적도 많았다. <br/>반년이 지나자 손님이 점점 늘었다. 언니도 합류했다. 그무렵 엄마는 언니를 통해 내가 샵을 차린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전혀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나 또한 자존심 때문에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br/>손님은 많았으나 초기에는 돈이 안 돌아 애를 먹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초기에는 시설투자비와 재료비 등 지출할 것이 너무 많았다. 재료상에 결제도 미루는 것이 관례였지만 나는 매달 현금으로 결제를 꼬박꼬박 해주다 보니 현금이 없었다.<br/>당장 100만 원도 없어 빌리려고 했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라 빌릴 수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언니를 통해 엄마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다. 엄마의 대답은 NO였다.<br/>‘그럼 그렇지.’ <br/>나도 자존심 때문에 더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br/><br/>열심히 한 덕에 손님은 점점 늘었다. ‘솜씨 있는 간호사 출신의 원장이 꼼꼼하게 잘 하는 샵’이라는 소문이 났다. 일 년이 되어갈 무렵 언니와 나는 더 이상 재료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만큼 매출이 늘었다. 가게를 확장하자 언니는 엄마를 모셔와서 눈썹 문신을 해드리라고 했지만 나는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br/>어느 날 숙모가 눈썹 문신을 하러 왔다. 베드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네가 하도 잘한다고 해서 왔다’고 했다.<br/>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났다. 숙모가 간 뒤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말했다. <br/>“가게는 잘 되나?” <br/>더는 말이 없었지만, 그 한마디에 묵은 감정이 사그라졌다. 다음날 엄마가 가게로 왔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봉투를 건넸다. <br/>“그때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네가 오면 주려고 했던 돈이다. 어차피 네 돈이니 가져라.” <br/>봉투 안에는 일 년치가 넘는 월세가 들어있었다. 엄마가 돌아간 뒤 울었다. <br/>며칠 후 가계 셔터를 내리는데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시간은 잠깐이었지만 여전히 차 안에는 적막감이 흘렀다. 하지만 예전의 냉랭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서로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진 후였다. 그날 이후 엄마와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전처럼 가까워졌다. 엄마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고 내가 힘들까봐 보약을 지어줬다. 엄마가 샵 원장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다.<br/><br/># 갑자기 내려진 암 선고<br/>“어머니 어디 아프신 거 아냐? 살이 갑자기 너무 빠졌어.” <br/>단골손님 하나가 어느 날 나에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엄마가 몇 달 새 눈에 띄게 살이 빠졌다. 병원에 다녀온 엄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br/>“<span class='quot0'>민주야 큰 병원 가보라 하네.</span>” <br/>경북대학교 병원에서 ‘간암 말기’라는 상상치도 못한 선고가 내려졌다.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말에 수술날짜를 잡았다. 그러나 수술 바로 전 상태가 너무 않 좋아 수술실에서 다시 나와야만 했다.<br/>병실로 돌아온 엄마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누워있는 엄마를 보자 10여 년간 엄마를 원망했던 내가 너무 미웠다. 10여 년 만에 엄마의 손을 잡아봤다. 이제야 자리를 잡아 엄마와 잘 지내려고 했는데 모든 상황이 원망스러웠다. 태어나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했다.<br/>‘엄마 수술 만 잘 된다면 다시 간호대학 입학이라도 할게요.’ <br/>정신이 든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br/>‘괜찮다. 안 된다 카는 걸 우짜겠노. 그래도 우리 민주 이렇게 성공한 거 봤잖아.’ <br/>하루하루 약해져 가는 엄마를 보던 중 희소식이 들렸다. 임상 약으로 치료해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효과는 검증되었지만, 부작용이 없다는 장담을 할 수도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 식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입원 중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좀 아프고 지친다’는 말을 했다.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참 낯설게 느껴졌다.<br/>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임상약을 먹은 후 엄마는 놀랍게도 완치 판정을 받았다. 여러 명이 함께 복용했는데 엄마에게는 약이 잘 맞았다.<br/>“다행히 약이 잘 맞았네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퇴원해도 좋습니다.” <br/>담당의사의 말에 우리 가족은 얼싸안고 울었다. 퇴원하는 날 엄마 대신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느낄 수 있었다.<br/>건강을 회복한 엄마는 가끔 이야기한다. <br/>“병원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후회한 게 네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안 준 거였다. 난 네가 찾아와 주길 바랬는데····. 네 고집도 참 대단하다. 아무튼 피는 못 속이는 모양이다. 아빠가 못한 걸 네가 이뤘으니 말이다.”<br/>엄마가 퇴원하자 신기하게도 뷰티샵에 손님이 급격히 늘었다. 퇴원 후 한동안 엄마가 샵 일을 도와주었다. 손님이 많아지자 수성구 가게는 언니에게 넘기고 나는 동성로에 새로 자리를 잡았다. 개원을 기다렸다는 듯 손님이 물밀 듯 밀려왔다. 나는 재료상 업계에서 재료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소문났다. 요즘에도 가끔 엄마랑 같이 퇴근을 한다. <br/>어느 날, 차 안에서 엄마가 말했다.<br/>“고3 때 니가 미술 한다고 고집 피웠을 때 너까지 그림 때문에 망하는 줄 알았다.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미대를 보낼 걸 그랬네, 호호호!”<br/>나는 웃으며 맞받아친다. <br/>“<span class='quot0'>그럼 지금이라도 미대 다시 갈 테니 등록금 보태줄래?</span>”\*<br/><br/>정리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32.txt

제목: 팔방미인 '초콜릿', 다섯가지 효능  
날짜: 2016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31051144366  
본문: 성인병 예방, 다이어트 효과, 기억력 상승, 고혈압 개선, 심장질환 예방.<br/> <br/>위에 열거된 놀라운 효능들을 다 가진 주인공은 다름아닌 초콜릿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인 간식거리인 초콜릿의 효능은 각종 연구를 통해 익히 알려졌다. 어떤 식품이든 과다복용은 몸에 해롭지만 초콜릿이 지닌 성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br/> <br/> ▲ (사진=롯데제과) <br/>■ 팔방미인 '초콜릿'<br/> <br/>초콜릿이 고혈압, 심장질환 등 성인병 예방과 함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는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초콜릿은 등산, 운동, 레저시 영양보충과 혈당이 떨어졌을 때 구급식품으로 쓰여왔다.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는 "초콜릿을 먹는 사람의 기억력과 추상적 사고능력이 더 좋다"는 연구논문을 미국의 메인대 영양생리학과 메릴 엘리아스 교수팀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식품영양 저널 애피타이트에 실린 이 논문에서 엘리아스 교수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초콜릿이 인지영역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초콜릿에 함유된 플라바놀 성분은 뇌 기능을 좋게 하고 흐려지는 기억력 감퇴현상을 막아준다고 알려져있다.<br/> <br/>초콜릿은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도 줄여준다. 호주 모나쉬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큰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다크초콜릿 100g을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0년 후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br/> <br/>고혈압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독일 쾰른 대학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에게 18주 동안 매일 다크초콜릿을 한 조각씩 먹도록 했더니 혈압이 20% 가까이 떨어졌다. 초콜릿에 체내 산화질소량을 증가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해 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발표했다. 쾰른 대학 도버트 박사는 "작은 초콜릿 한 조각이 혈압을 낮출 수 있는데, 이는 다크초콜릿에는 체내 산화질소량을 증가시켜 혈관을 깨끗하게 해 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페놀 성분은 다크초콜릿에 더 많이 들어 있는데, 코코아 함량이 60-70% 이상인 쓴맛의 다크초콜릿을 건강식과 함께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br/> <br/>초콜릿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4월호 타임지는 '초콜릿을 먹는 사람이 더 날씬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여성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의 초콜릿 소비량을 공개한 약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하였더니, 일주일에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초콜릿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체질량지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1포인트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초콜릿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초콜릿을 덜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체질량지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br/> <br/>■ 카카오, '제4의 비타민'<br/> <br/>초콜릿의 성분인 카카오 폴리페놀은 제4의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효능이 다양하다.<br/> <br/>이 성분은 치아에 플라그 형성을 막고 위점막 손상을 억제해 준다. 롯데중앙연구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카카오 폴리페놀은 분자량이 큰 프로시아니딘(procyanidin)이 주성분으로 치아표면의 플라그(plaque)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녹차 폴리페놀에 비해 매우 높아 훌륭한 충치 예방소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br/> <br/>또 롯데중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명희 교수팀, 농업생명과학대학 이형주 교수팀은 공동연구를 통해 카카오 폴리페놀이 헬리코박터 피롤리(Helicobacter pylori)균이 일으키는 위점막 손상을 억제하여 위염 예방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암 억제 효과도 있다는 사실도 입증한 바 있다.<br/> <br/>한편 초콜릿이 갖고 있는 좋은 성분들이 인체에 유익하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초콜릿 소비량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매년 소비량이 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09년 1인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을 살펴보면, 독일이 11.3kg으로 가장 높고 영국, 스위스 등이 10kg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등이 6kg 이상 섭취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이 2.1kg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1.2kg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br/>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33.txt

제목: 전북대ㆍ원광대병원ㆍ안전성평가연구소  
날짜: 2016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31051032036  
본문: 호흡기질환 특화 유효성평가센터로 선정<br/>국제적 수준의 평가로 신약개발 경쟁력 확보 <br/> <br/><br/>보건복지부는 30일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 기반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호흡기질환 특화 유효성평가센터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T2B 기반 구축사업은 임상시험에 앞서 신약후보물질의 효능 및 작용원리 등을 동물실험을 통해 검증하여 제약기업 등에 제공하고 세계적 수준의 유효성평가 서비스에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는 업무를 말한다. 유효성평가센터에는 연간 약 15억원씩 5년간 지원된다.<br/>복지부는 현재 서울아산병원(암질환), 가천대길병원(대사성질환), 연세의료원(심혈관질환), 서울성모병원(관절·면역질환), 부산백병원(안과질환), 인하대병원(소화기질환) 6곳의 유효성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br/>지금까지 이들 유효성평가센터는 질환동물모델 개발 등 593건의 유효성평가 기술과 방법을 확립하였고 441건의 유효성평가 서비스(수주액 312억원)를 제약기업 등에 제공했다.<br/>특히 센터가 제공한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통해 신약 기술이전 12건, 진단키트 등 제품 출시 16건, 임상시험 등 후속 연구 진입 28건의 성과가 올렸다.<br/>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은 암 분야 첨단 의료기술인‘항체-약물 결합체’의 해외 기술이전 등 암치료기술 개발을 선도하면서 항암체의 실용화를 이끌고 있다.<br/>가천대길병원은 세계 최초로 동물에서 지속형 인슐린의 유효성평가 기술을 개발했고, 연세의료원은 4건을 제품화해 5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를 거뒀다.<br/>전북대병원은 지난 1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처음 시행한 폐렴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앞서 실시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모두 1등급을 획득해 호흡기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최고 평가를 받아왔다.<br/>이 같은 성과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호흡기질환 치료와 연구 거점인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3년 10월 개소한 호흡기전문질환센터는 진료실과 폐기능검사실, 기관지내시경실, CT실, 호흡재활치료실 등의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진료부터 검사 입원까지 센터 내에서 모든 치료가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r/>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span class='quot0'>국내 신약 유효성평가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다국적 기업의 평가물량을 적극 수주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복지부가 추진 중인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용화와 제품화 성과를 더욱 가속화 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최수학기자 shchoi@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34.txt

제목: 중원대 이화용 교수팀, 암줄기세포 증식ㆍ억제 비밀 밝혀  
날짜: 201603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30051220059  
본문: 중원대학교 이화용(사진ㆍ교양학부)교수팀이 암줄기세포의 증식ㆍ억제 방법을 찾아냈다. 표적항암제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br/> 중원대는 이 교수팀이 가천대 홍인선 교수팀, 광주과학기술원 남정석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간암줄기세포와 대장암줄기세포를 증식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 두 개의 국제 학술지에 동시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br/> 간암줄기세포와 관련된 논문은 암분야 국제학술지 ‘온코타겟(Oncotarget)’3월호에 ‘윈트 신호 억제 물질중 하나인 CWP232228이라는 신물질 처치를 통한 간암줄기세포 증식 억제’란 제목으로 실렸다.<br/> 대장암줄기세포와 관련해서는 네이처지 자매지인 ‘사이언티픽리포트’3월호에 ‘저산소 상태가 윈트 신호 전달 기전을 활성화시켜 대장암줄기세포의 증식 및 줄기세포성 증가 효과’란 표제로 게재됐다.<br/> 암줄기세포는 항암제 및 방사선에 저항성을 지녀 암의 전이나 재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가 향후 암줄기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항암제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35.txt

제목: “암 앓고 나면 면역력 떨어져… 예방 접종하세요”  
날짜: 201603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30051130807  
본문: 한국인은 평균수명까지 살 때 남성의 38%, 여성의 35%가 암에 걸리게 된다. 때문에 암을 극복한 뒤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지 중요하다. 특히 평생 건강의 안전벨트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br/>이혜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을 앓고 있거나 완치된 경우라도 면역력이 저하돼 감염병에 취약해지므로 암 경험자는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span>”고 했다.<br/>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일부 백신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 추가 접종해야 한다. 또 새로 개발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외 여행 등 특수상황에 맞게 예방접종을 추가해야 한다.<br/>암 경험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접종하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암 경험자에게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예방접종은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ㆍ디프테리아ㆍ백일해 등이다.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거의 필수적이다. <br/>폐렴구균은 상대방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옮거나 본인의 균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 폐렴을 가장 흔하게 일으키며 뇌수막염, 균혈증 등 중증질환도 유발한다. 13가 백신(프리베나) 1회, 23가 백신(프로디악스, 뉴모23) 모두 접종 가능하다. 23가 백신의 경우 65세 이전에 접종하고 5년이 넘으면 1회 다시 접종해야 한다.<br/>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활성화해 발병한다. 작은 발진 및 수포가 신경분포를 따라 생기며 아주 아프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후유증도 심각하다. 60세 이상에게 예방접종이 권장되며 50세부터도 접종 가능하다. 그러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생백신이므로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중이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치료 2주 전부터 치료 3개월 후까지 암환자와 가족 모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종하려면 향후 치료계획 등에 대해 먼저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br/>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는 한 번 예방접종으로 동시에 막을 수 있다. 파상풍은 상처를 통해 감염되며 발병 시 근육 경직 등의 증상과 통증이 생기고 사망률이 높다. <br/>비인두염 및 후두기관지염을 유발하는 디프테리아는 나이 들거나 질병을 앓은 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주의해야 한다. 백일해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주로 보이는데, 최근 성인에서 감염이 늘어나는 추세다.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가족 감염도 흔하며, 어린이의 사망 위험성이 높다.<br/>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경험자는 독감 예방접종 때도 ‘불활성화 백신’을 맞는 것이 좋고, 가족의 경우 생백신을 맞더라도 문제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가능한 한 불활성화 백신을 맞는 것을 더 추천한다</span>”고 했다. 생백신을 맞은 가족 구성원은 안전을 위해 2~6주 면역이 저하된 암 경험자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36.txt

제목: [카드뉴스] 대학교에도 ‘우열반’이 있다고요?  
날짜: 201603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30051126172  
본문: 대부분의 대학이 행정, 사법고시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시반’을 운영합니다.<br/>서울 소재 4년제 대학 30곳 중 26곳이 고시반을 운영하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말이 많습니다. 소수의 특정 시험 준비생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요. 대학판 ‘우열반’논란을 부르는 고시반 제도의 명과 암을 짚어 봤습니다.<br/><br/>기획·글= 위은지 인턴기자 <br/>디자인= 신동준 기자 <br/><br/><br/><br/>카드뉴스 더 보기☞ 대학가 전설, 풍문으로 들었소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37.txt

제목: [헬스내시경] 침묵은 금이 아니다  
날짜: 2016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9051717159  
본문: “<span class='quot0'>교수님, 지카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span>”(의학기자)<br/>“글쎄요…….”(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br/>국내 지카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지난 22일 메르스 학습효과의 위력은 셌다. 국내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상당수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묻는 의학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별로 할 말이 없다”며 입을 꽉 닫았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와 180도 달라진 태도였다. 메르스 발생 초기 국내 감염내과 전문의 등은 “<span class='quot1'>지역사회 전파 확률은 거의 없다</span>” “치사율 10% 미만 일 것” “<span class='quot1'>발생된 환자만 잘 치료하면 장기화되지 않을 것</span>” 등 성급한 예측을 쏟아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br/>지난해 메르스도 그랬지만 이번 지카바이러스도 우리에겐 실체가 모호한 낯선 감염병이다. 감염내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그동안 단 한 번도 실제 접하거나 환자를 치료해 본 적이 없는 병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나 진단을 내놓기는 어렵다. 학회와 의사들의 신중한 태도는 일견 자연스럽다.<br/>종합편성채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의사들이 각종 의료 관련 프로그램에 앞다퉈 나와 건강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사실 이런 건강정보는 암,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포털사이트 검색 만으로도 대번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적지않다. 감염병이 뭔가. 메르스,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은 일단 유행 하면 수백, 수천 명의 불특정 다수가 감염되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 해당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발빠른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다.<br/>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내과 등 전문의들 사이에는 ‘잘못 말하면 패가망신,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다. 섣부른 예측이 전염병에서 얼마나 피해를 키울 수 있는지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다.<br/>하지만 섣부른 예측과 의학적인 설명은 엄연히 다르다. 더구나 메르스 사태 이후 국민들은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에 목말라 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낙타유나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는 황당한 예방수칙을 제시한 보건당국에 대한 믿음도 엷어졌기에 대중은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의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 자부하는 의사들이 “아는 것이 없다”면서 정보 제공을 주저하는 태도에 대해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br/>선배를 챙겨야 하는 의료계의 관행도 정보부족을 부채질하는 한 원인이다. 관련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언론 등에 인터뷰나 정보를 제공하면 ‘눈치 없는 후배’ ‘선배를 무시하는 의사’ 등으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다. 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span class='quot1'>선배 의사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데 괜히 나섰다가 혼만 난다</span>”면서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 전염병 앞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38.txt

제목: ‘봄의 습격자’ 심혈관 질환  
날짜: 2016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9051716556  
본문: 일교차 탓 혈관 쉽게 수축<br/>심금경색 등 겨울보다 빈발<br/><br/>외부 활동 늘며 심장에 무리<br/>황사ㆍ미세먼지 증가도 원인<br/><br/>외출 땐 겉옷ㆍ마스크 챙기고<br/>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br/><br/>일교차가 심한 봄철에는 심장 건강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생기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겨울철(12~2월)보다 봄철(3~5월)에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월별 심혈관 질환 환자 수 자료를 계절별로 분류한 결과, 겨울철(12~2월, 82만9,089명)보다 봄철(3~5월, 83만4,687명)에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더 많이 찾았다. <br/>이종영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봄에 겨울보다 심장 질환이 늘어난 것은 심한 일교차 때문</span>”이라고 했다. 기온 변화가 심하면 자율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혈관이 쉽게 수축돼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긴다. 겨우내 활동량이 줄었다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해 심장에 무리가 되는 것도 원인이다. 이밖에 봄철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것도 심혈관 질환 발병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br/>심한 일교차, 심장 건강에 독<br/> 협심증은 관상동맥 안쪽 지름이 50% 이상 좁아지며 심장 근육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심장근육에 허혈이 생겨 발병한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혈관이 완전히 막혀 심장근육이 멈추는 위험한 질환이다. 협심증, 심근경색처럼 심장에 피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심장질환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한다.<br/>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은 기온이 떨어지는 초겨울이나 겨울에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에 환자가 더 많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최동훈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는 심장과 혈관기능을 조절하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져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기 쉽다</span>”며 “<span class='quot0'>이것이 반복되면 심혈관이 좁아진 부위에 혈전이 달라붙어 혈액 흐름을 막아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span>”고 했다.<br/> 봄에 날씨가 풀리면 갑자기 옷차림이 가벼워져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도 지나치게 수축될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비만 등 심혈관질환 위험인자가 있거나 고령인 사람은 장시간 외출할 경우 번거롭더라도 가벼운 외투나 모자, 장갑 등을 준비해 체온 저하에 대비해야 한다. 운동할 때도 땀이 약간 날 정도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한다.<br/> 게다가 봄철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면 기침, 가래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병한다. 이 때 호흡기와 연관된 기관은 심혈관이다. 호흡이 잘 되지 않으면 심장과 혈관은 부담을 받아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게다가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혈관으로 침투하면 혈액 속에서 염증이 생긴다.<br/> 이종영 교수는 “<span class='quot1'>혈관으로 흡수되면 혈관이 미세먼지로 인해 염증반응이 생긴다</span>”며 “<span class='quot1'>염증이 생기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도 잘 생겨 심장이나 혈관이 부담을 많이 받게 된다</span>”고 했다.<br/>특히 미세먼지로 혈전이 생겨 뇌혈관에 쌓이면 뇌졸중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24시간 머물면 급성 뇌졸중 위험도가 30% 이상 높아진다. 심혈관 질환자가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하는 이유다.<br/> 심혈관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은 심한 가슴 통증, 가슴 두근거림, 피부 변색, 피로감, 호흡곤란, 졸도, 부종 등이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위험군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br/><br/>70대 이후엔 여성이 더 많이 발병<br/>심혈관 질환은 흔히 흡연과 육류를 즐기는 남성 질환으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여성은 유방암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015년)에 따르면 2014년 심혈관 질환자 중 남성은 95만2,000명으로 여성(42만1,000명)보다 월등히 많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70대를 기점으로 여성 환자(14만9,000명)가 남성 환자(13만6,000명)를 넘어섰다.<br/>심혈관 질환은 사망률이 높은 게 문제다.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중 1위가 암, 2위가 심장 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이었다(통계청, 2015년). 여성도 암을 제외하면 심장 질환이 사망 원인 1위였다. 특히 심장 질환은 10년 전보다 사망 원인 순위가 3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br/>중년 여성에게 심혈관 질환이 위협적인 이유는 폐경에 따른 여성호르몬 분비 저하가 크게 작용한다.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의 균형을 맞춰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박진주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폐경으로 인해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혈압이 올라가고 핏속에 지방이 쌓이는 등 혈관 건강이 나빠진다</span>”고 했다. 심장 근육세포가 노화되고 탄력을 잃는 것도 중년 이후 여성의 심혈관 질환을 늘릴 수 있다.<br/> 편욱범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2'>여성은 남성보다 심혈관 질환이 평균 10년 정도 늦게 생기고, 동반질환도 많아 진단 시기를 놓치고 증상이 심각해진 뒤에야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남성보다 예후가 나쁘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39.txt

제목: [건강 소식] 강남세브란스병원, 간암 건강강좌 外  
날짜: 2016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9051714794  
본문: 강남세브란스병원, 간암 건강강좌<br/>강남세브란스병원 간암센터는 31일 오후 2시 병원 3층 대강당에서 간암 건강강좌를 연다. 간암의 수술 및 비수술적 치료, 고정밀 방사선 치료, 간암 환자의 영양 관리 등 다양한 치료법과 식사 관리, 간암 극복 사례에 대해 강연한다. (02)2019-1225)<br/><br/>분당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열어<br/>분당차병원은 1시간 이내 모든 응급치료가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대형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 장비 인력을 보강했다. 응급의학 전문의 24시간 상주 및 365일 24시간 응급수술 시스템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성인ㆍ소아응급실, 응급중환자실, 응급병동을 분리 운영한다.<br/>베링거 COPD 치료제 보험급여 인정<br/>베링거인겔하임의 COPD 치료제 바헬바레스피맷(사진)이 4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중증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 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br/>로슈진단, H&E 검사 염색 장비 발매<br/>한국로슈진단은 조직병리 H&E 검사 염색 장비인 HE600(사진)을 발매했다. H&E염색은 헤마톡실린으로 핵을 염색하고 에오진으로 세포질을 염색하는 2중 염색법이다. H&E 검사는 염색된 조직 형태와 세포 모양, 크기 등을 확인해 환자를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병리 검사로 암 진단의 80%를 차지한다.<br/>환인제약, 뇌기능 개선제 출시<br/>환인제약은 뇌기능개선제인 알포세틴정(성분명 콜린알포세레이트ㆍ사진)을 출시했다. 전문의약품인 알포세틴정은 1일 2~3회 먹는 약으로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을 완화한다. 1정 당 513원.<br/>동국제약, 집먼지진드기 퇴치제 출시 <br/>동국제약은 집먼지진드기에 의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을 위한 ‘디펜스벅스 진드기팡’을 출시했다. 디펜스벅스 진드기팡은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신나밀아세테이트’가 주성분이라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의약외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40.txt

제목: ‘아파도 OK’ 간편심사 유병자보험, 보장 내용은 천차만별  
날짜: 2016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9051700981  
본문: 고령화로 만성질환 늘며 상품 봇물<br/>모든 질병의 수술ㆍ입원까지 보장<br/>가입 연령 40세로 낮춘 상품도<br/><br/>일반 보험보다 비싼 보험료엔 유의<br/><br/>50대 부부 A씨와 B씨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줄줄이 퇴짜 맞았다. 남편은 알코올성 간 질환을 앓고 있고 직업 상 크고 작은 사고가 잦았다. 부인도 고지혈증이 있고 혈압 약을 복용 중이다 보니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다. 그러다 얼마 전 한 보험사의 유병자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부부는 월 17만원 상당의 다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지만 “만족한다”고 말했다. <br/><br/>‘3ㆍ2ㆍ5’ 심사 통과하면 가입<br/>보험사들이 ‘아픈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상식을 깬 유병자보험을 내놓고 있다. 건강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보험 시장은 포화 상태인 반면, 노인 인구 급증으로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늘면서 이들이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환자 수(2014년 기준 약 1,183만명)으로 전체 인구(약 5,133만명)의 23%나 된다. 금융당국도 유병자보험 상품을 활성화해 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관련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br/>지난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 쏟아진 유병자보험은 모두 복잡한 계약 심사 과정을 간소화한 ‘간편심사’ 보험이다. 일명 ‘3ㆍ2ㆍ5’의 간단한 심사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고객은 ▦3개월 이내 입원ㆍ수술ㆍ추가검사(재검사)의 필요 소견을 받았는지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했는지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br/>보험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도 대폭 완화했다. 일반보험의 경우 알릴 항목이 18개에 달했지만 유병자보험은 3ㆍ2ㆍ5의 3가지 항목 외에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만 추가로 알리면 된다. 특히 통원이나 투약에 대한 고지 의무가 면제돼 약을 복용 중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도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br/><br/>상품별 보장 내용 살피고, 비싼 보험료는 주의해야<br/>과거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심사 보험처럼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 있었지만 보장 범위가 사망ㆍ암 진단 등으로 제한돼 한계가 컸다. 하지만 최근 나온 간편심사 형태의 유병자보험은 모든 질병에 대한 수술과 입원까지 보장한다. <br/>다만 상품마다 암, 뇌출혈 등 중대 질병에 대한 진단금 지급 여부, 가입 가능 연령 등이 상이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br/>삼성화재의 ‘간편하게 건강하게’는 질병ㆍ상해사망 시 최고 3,000만원,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수술비(상해, 암), 입원일당(상해, 질병, 암)도 선택 가능하다. 50~75세면 가입할 수 있고 10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질병 수술비는 암만 보장하니 주의해야 한다. KB손해보험의 ‘신간편가입 건강보험’은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 3대 질병의 진단비에 더해 수술비, 입원일당도 보장된다. <br/>흥국화재의 ‘행복든든 간편가입 보장보험’은 가입 연령을 40세까지 대폭 낮췄다. 상해사망 시 보장금(최고 5,000만원)도 업계 최고 수준이다. 단, 진단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한화손해보험의 ‘참 편한 건강보험’은 상해ㆍ질병으로 입원 시 일반적으로 4일째부터 보장하는 타사와 달리 입원 첫날부터 입원일당을 지급하고, 암 수술비 보장 수준(400만원)이 높은 것이 강점이다. <br/>이들 유병자보험은 가입 대상이 주로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자동차 사고 시 법률 비용 담보를 마련해 놓은 경우도 많다. 필요하다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전화 상담이나 3차 병원 진료 예약을 대행해주는 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 본인과 배우자 사망 시 장례지원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br/>다만 간편심사로 가입하는 유병자보험은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반심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유병자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병자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일반보험 보험료와 유병자보험 보험료를 비교해 제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의 경우 60세 남성, 100세 만기, 10년 갱신형, 10년 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보장 내용의 일반심사 보험료가 3만원이라면 간편심사는 이보다 2만원 더 많은 5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원희정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팀장은 “<span class='quot0'>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2배 가량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은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span>”고 말했다. <br/>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41.txt

제목: 개방형 혁신 R&D 전략으로 안질환ㆍ인공항체 분야 노크  
날짜: 201603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8051229118  
본문: 편집자주: 지난해 한미약품이 이뤄낸 8조원 규모의 신약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기술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토종 제약사 3곳이 지난해 처음으로 동시 연 매출 1조원을 넘기면서 우리 제약업계는 ‘만년 영세 산업’이라는 불명예도 털어냈다. 올해를 성장 원년으로 삼은 우리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미래 청사진을 그려본다. <br/><br/>한미약품 <br/>조용히 키워온 신약 개발 기술력을 지난해 유감없이 보여준 한미약품은 올해 연구개발(R&D) 보폭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지난 10여년 간 뚝심으로 고집해온 ‘한국형 R&D’에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결합, 당뇨병과 비만, 항암, 자가면역 분야뿐 아니라 안 질환과 인공항체 치료 부문에서도 독창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br/>지금까지 사노피와 릴리, 얀센, 베링거인겔하임 등 유명 다국적제약기업에 한미약품이 수출한 신약 기술은 모두 자체 R&D 성과물이었다. 지난 15년간 생물의약품(생체에서 유래한 물질로 만든 의약품)과 표적항암제(특정 물질에 대해 작용하는 암 치료약) 등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9,000억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집중한 결과가 빛을 본 것이다. <br/>이제 한미약품은 외부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외부의 유망한 물질을 도입, 함께 개발해나가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R&D 전략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약품은 오랜 기간의 R&D 경험을 통해 신약 개발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를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세창 한미약품 부사장은 “<span class='quot0'>학계와 연구기관, 벤처기업, 글로벌 제약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은 R&D 효율을 높여 신약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합리적인 방법</span>”이라고 설명했다. <br/>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한미약품은 최근 미국 안질환 분야 벤처기업 알레그로에 2,000만달러(약 216억원)를 투자하고 알레그로가 개발 중인 망막질환 신약 ‘루미네이트’의 한국과 중국 시장 개발ㆍ판매권을 획득했다. 루미네이트는 안구 안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br/>이어 한미약품은 국내 생명공학 벤처기업 레퓨젠과도 협약을 맺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양사가 개발하는 기술은 인공항체 ‘리피바디’이다. 세균을 비롯 외부 물질이 체내에 침입했을 때 면역작용을 하는 항체는 생물의약품의 주요 원료인데, 구조 변경이나 생산 공정 등이 까다로워 제품화에 어려움이 많다. 리피바디는 일부 동물에서 발견된 단백질이 항체가 아닌데도 면역작용을 한다는 점에 착안, 이를 항체의약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한미약품은 리피바디 기반 기술이 확립되는 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br/>권 부사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R&D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약기업과 생명공학 벤처기업 간 합종연횡이 잇따를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한미약품의 오픈 이노베이션 행보가 국내 시장에 건강한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span>”고 밝혔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42.txt

제목: 골목 울리는 재봉틀 소리… 창신동 전체가 봉제박물관  
날짜: 2016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7051017009  
본문: 인왕산과 마주보며 서울 강북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산이 낙산이다. 높이가 125m에 불과하고 나무와 숲이 적어 산의 위용은 떨어지지만, 한국전쟁과 도시화 이후 많은 사람이 터를 잡고 살아온 친근한 동네다. 그 중 흥인지문 옆 창신동은 서울성곽 바깥의 첫 마을이다. 흔히 ‘봉제의 메카’로 부르는 바로 그 곳. 그러나 그런 표현만으로는 창신동을 다 담아낼 수 없다. 서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과 분위기가 창신동에 있기 때문이다.<br/><br/>●재봉틀 소리와 오토바이 소리<br/>지하철 동대문역 1~3번 출구로 나와 작은 길로 들어서면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듯한 착각에 빠진다. 허름한 옛집, 오래된 가게, 옛날식 간판, 엉킨 전깃줄. 멋 부리기 경쟁이라도 하듯 치장에 열을 내는 신생 아파트 촌과 달리 낡기는 했어도 포근하고 정이 가는 동네다.<br/>1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걸어 도착한 전태일 재단에는 창신동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며 1970년 11월 13일 인근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을 불태웠다. 하루 열 다섯 시간 일하던 어린 소녀들을 떠올리며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쳤다. 재단이 있는 건물 2층에는 전태일 사진과 관련 자료들이 있다. 전태일이 웹툰 ‘미생’의 장그래와 어깨동무를 한 조형물도 눈에 띈다. 분신한 지 46년이 된 전태일이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듯 하다.<br/><br/>재단과 가까운 골목에는 봉제박물관이 세워진다. 2017년 완공 예정인 3층 규모의 아담한 공간이다. 바로 앞 길 바닥에는 봉제거리박물관이라는 표지판이 있다. 봉제박물관도 박물관이지만 바로 이 거리 자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는 뜻이다. 표지판이 있는 골목에는 봉제 용어를 설명하고 봉제 공장의 24시간을 알려주는 안내판들이 있다.<br/>자료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창신동에는 봉제 공장 수천 개가 있다. 봉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다. 이런 수치가 아니더라도 이 동네에서는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 소리와, 원단 및 완제품을 나르는 “부릉 부릉” 오토바이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린다. 재봉틀 소리로 시작해 오토바이 소리로 하루가 끝난다. 공장이라야 가정집, 가게, 지하실 등에 재봉틀 몇 대 들인 가내수공업 형태의 사업장이다. 재봉틀 소리가 없다면 집인지 상점인지 공장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br/>창신동이 봉제 마을이 된 것은 1970년대다. 평화시장 등 동대문 상가의 임대료가 오르자 상가에 함께 있던 공장들이 가까운 창신동으로 옮겨온 것이다. 창신동 봉제 기술자들은 솜씨가 뛰어나고 손도 빨라 주문이 들어오면 사흘 안에, 심지어 세 시간 만에도 옷을 만든다. 동대문 패션이 이들의 손을 거쳐 탄생한 것이다.<br/><br/><br/>●채석장 절개지 위의 아슬아슬한 주택<br/>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좁은 골목을 따라가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풍경이 나타난다. 채석장으로 쓰던 바위 절개지와 그 위의 주택들이다. 창신동 낙산 줄기는 암석의 품질이 좋아 일제시대부터 채석장으로 사용됐었다. 암석의 품질은 전북 익산 황등산이 최고고, 낙산과 포천의 화강암이 그 다음이라고 한다. 일제 때 경성부가 직영 채석장으로 사용한 이곳에서는 다이너마이트 발파와, 돌덩이 재단작업이 쉬지 않고 이뤄졌다. 옛 서울역, 한국은행 본점, 옛 서울시청, 조선총독부 건물이 창신동 화강암으로 지어졌다. 채석장은 1960년대 후반까지 사용됐다. 한국전쟁 이후 서울로 밀려온 사람들이 폐쇄된 채석장 자리에 눌러앉아 지금과 같은 서민 주거지를 만들었다. 깎아지른 낭떠러지와 그 위의 아슬아슬한 주택을 절벽 마을이라 부르기도 한다. 떼어낸 돌덩이를 규격에 맞춰 자르던 절벽 아래에도 마을이 있다. 큰 바위 사이의 좁은 공간에 들어섰기 때문인지 좁고 좌우비례가 맞지 않는 집들도 있다.<br/><br/><br/><br/><br/>채석장을 폐쇄한 지도 어느덧 50년이다. 돌을 깨다가 방치했으니 절개지가 예뻐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절개지를 어찌할지를 놓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중이다. 그 중 하나가 암벽등반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도심과 가깝고 암질이 좋으니 검토해볼 만한 것 같다. 인물을 조각하자는 의견도 있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에이브러햄 링컨 등 대통령 4명의 얼굴을 크게 새긴 미국 러시모어산처럼 이곳 암석에 대형 인물 조각을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누구 얼굴을 조각해야 할까. 아이디어는 좋으나 자칫 분란이 날 수 있을 것 같다.<br/><br/>●박수근, 백남준 그리고 김광석<br/>지금의 창신동은 다가구주택이 빽빽한 서민 주거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는 저택과 별장이 많았다. 고리대금업으로 큰 돈을 번 임종상, 한일은행 설립자 조병택, 한국 최초의 재벌 백낙승 등이 도심과 가깝고 경치 좋은 창신동에 큰 집을 두었다. 철종 부마 박영효는 이웃 숭인동에 3,000평 저택이 있었다.<br/>백낙승의 3남2녀 중 막내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1932~2006)은 창신동 3,000평 집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은 99간 한옥이었는데 지금은 다가구주택들로 쪼개져있고 한옥은 딱 한 채가 있다. 음식점으로 쓰던 이 개량 한옥은 7월에 백남준 기념관으로 다시 문을 연다.<br/><br/>화가 박수근(1914~1965)이 살았던 집은 큰 길 건너 완구ㆍ문구 상가가 많은 번잡한 곳에 있다. 안내 표지판이 없어 혼자서는 찾기가 어렵다. 강원 양구 출신인 박수근이 한국전쟁 때 서울로 내려와 미군 초상화를 그리며 모은 돈으로 장만한 개량 한옥이다. 그는 1963년 전농동 양옥으로 이사할 때까지 10년 이상 이곳에서 살면서 ‘빨래터’ ‘시장의 사람들’ 같은 작품을 그렸다. 당시의 단란했던 한 때를 장녀 인숙씨는 이렇게 표현했었다. “<span class='quot0'>저녁이면 아버지가 집 마루에 앉아 하모니카로 ‘뻐꾸기 왈츠’를 불면 어머니가 노래하고 우리는 손뼉 치던, 행복한 기억이 있다.</span>”<br/>이들보다 늦게 대구에서 태어난 가수 김광석(1964~1996)도 창신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창신시장과 안양암의 중간에 있는 집에서 결혼 전까지 살았다. 얼마 전에는 그 집이 매각됐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 이 집도 주소만 갖고는 찾기가 어렵다.<br/>가수 배호(1942~1971)도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고 춘천 출신의 작가 김유정(1908~1937) 또한 창신동에서 셋방살이를 했다.<br/><br/><br/><br/>●당고갯길 너머 소박한 사찰 안양암<br/><br/>안양암은 마을 한 가운데 있는 작고 소박한 사찰이다. 1889년에 창건됐으니 역사가 짧다. 조선 후기 전각과 불화, 불상이 보존돼 있어 사찰 전체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돼있다. 한 때 김광석의 추모 제사도 이곳에서 지냈다. 안양암은 왼쪽으로 거대한 암반이 이어져있다. 작은 주택과 골목 때문에 사라진 창신동의 본 모습이 이렇게 큰 바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br/><br/><br/>●창신동 화두는 재생<br/>창신동은 2007년 이웃 숭인동과 함께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 뉴타운에 대한 맹목적 환상이 지배하던 때였다. 그러나 뉴타운의 맹점이 드러나 2013년 해제됐고 이듬해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런 만큼 지금 창신동의 화두는 재생이다. 새 것을 짓겠다며 있는 것을 없애기보다 낡은 것을 고쳐 다시 쓰자는 것이다. 그 뜻에 맞춰 마을 정체성 찾기와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 도서관, 전시관, 방송국, 문화예술공간이 태어났고 사회적 기업도 생겼다. 창신동 골목을 걷다 보면 그런 공간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온다.<br/><br/>[따뜻한 봄날, 서울 거리를 걷는 건 어떤가요?]<br/>☞강북을 걷다 전체보기<br/><br/>-‘영도교 건너 영영 이별’ 단종 부부의 슬픈 전설만… (7) 동대문 밖 숭인동<br/><br/>-피곤한 영혼까지 보듬는 순교의 성지 (6) 서소문 밖 중림동<br/><br/>-‘서민 한옥’ 골목엔 김유정 첫사랑도 새록새록 (5) '제3의 한옥마을' 익선동<br/><br/>-항일부터 민주화까지… 민족의 아픔을 따라 걷다 (4) 서대문독립공원<br/><br/>-'꽈배기 1번지' 너머엔 박완서 명작의 공간이… (3) 영천시장과 교남동<br/><br/>-찬거리 팔던 재래시장이 '2030 아지트'로 (2) 금천교시장<br/><br/>-부암동에서 만난 안평대군·현진건 그리고 윤웅렬 (1)부암동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43.txt

제목: 혈우병과 싸우며… “나도 다른 이들 돕는 기회 얻고 싶었다”  
날짜: 2016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6051559628  
본문: 신생아 100명 중 1~3명은 선천성 기형 또는 유전성 질환을 안고 태어난다. 유전성 질환은 말 그대로 유전, 또는 유전자 일부 인자의 돌연변이로 발병한다. 그 병들은 1953년 제임스 왓슨 등이 DNA 분자구조를 밝히기 전까지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이란 애매한 이름으로 불렸고, 더 오래 전에는 저주의 다른 표현인 ‘천형(天刑)’이라 불리기도 했다. 인류가 유전성 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밝혀 공략의 가능성을 찾아 나선 것도 사실상 1960년대 이후부터였다. <br/>혈우병(Hemophilia)은 대표적 유전병 가운데 하나다. X염색체 혈액응고인자 가운데 일부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출혈시 피가 잘 멎지 않는 질병.(X염색체 질환이라 여성 환자는 드물다. 여성(XX)은 한쪽 X에 문제가 있어도 다른 쪽으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혈우병 환자는 보인자인 어머니와 환자 아버지 사이에서 25%의 확률로, 환자 부모 사이에서 50% 확률로 태어나며, 사산될 경우도 많다.) 정상인의 경우 피가 나면 혈관이 수축돼 출혈량이 줄고 혈액 속 혈소판이 상처의 구멍을 메운다. 그 사이 체내에서는 혈액단백질 등이 응고괴(clot)라는 물질을 형성해 그물처럼 상처 부위를 막아 혈소판의 기능을 돕는다. 혈액응고인자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저 기능이 약해진다. 외상도 위험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출혈, 예컨대 경미한 뇌출혈이나 장출혈도 혈우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이다. 환자는 혈액에서 추출한 응고인자 농축제제나 유전자재조합제제(단일클론항체)를 주기적으로 정맥에 주사해 불시 출혈에 대비하거나 증상을 완화해야 한다.<br/> <br/>미국 스탠퍼드 의대 종양학자 홀브룩 코흐트(Holbrook Kohrt)가 앓던 병이 혈우병이었다. 그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 시에서 1977년 12월 14일 태어났다. 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이 많았고, 할례(포경수술) 후 출혈이 멎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경우는 가족력 없이 발병한 돌연변이성(전체 환자의 20~30%)이었고, 소아과의사 아버지와 간호사 어머니조차 처음엔 혈우병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던 사이, 심한 멍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누군가의 신고로 아동보호국(CPS)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진단 결과 코흐트는 8번 응고인자 결핍, 즉 ‘A형 혈우병’이었다.(환자의 약 60~70%가 A형이다.)<br/><br/>가족력 없이 발병한 혈우병<br/>온몸에 멍들고 할례 후 지혈 안 돼<br/>병원 전전하며 원인 찾아내<br/>의료인 부모 덕에 정상생활 가능<br/><br/><br/>훗날 그는 이런저런 자리에서, 산 날들을 ‘행운 덕’이라고 말하곤 했다. 행운이라면 좋은 부모를 만난 게 첫 번째 행운이었을 것이다. 충격이 컸을 부모가 맨 먼저 한 일은 그의 침대와 방 바닥ㆍ벽을 푹신한 패드로 감싸는 거였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헬맷 등 안전 장구를 쓰게 했다. 병을 가급적 의식하지 않고 최대한 평범하게,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활동할 수 있게 하자는 배려였다. 의료인 부모였으니 그들은 영국혈우재단이 발간한 ‘혈우병과 더불어 살기 Living with Hemophilia’의 어린이 지침을 읽었을 것이다. 지침 10개 항목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친구와 놀”고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정상 수명을 기대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br/><br/>물론 코흐트는 무조건 이틀에 한 번씩 혈액제재 정맥주사를 맞아야 했고, 병원 응급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어야 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직접 주사를 놓는 장면을 본 담임 교사가 졸도를 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편견이었다. 수혈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믿던 ‘여호와의 증인’신자 이웃들의 폭력이 특히 심했다고 했다. 2014년 샌프란시스코 매거진에 쓴 글에서 그는 “3살 때부터 8살 때까지 그들(여호와의 증인 신자 이웃)은 실제로 내 가족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썼다. 대문 앞에 서있다가 문을 열고 나서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고, 버스 같은 데서 조롱을 하기도 했다. 그는 “생존에 필요한 처방을 받는 사람을 향한, 그토록 지독한 편견과 비이성적이고도 집요한 적의를 그 뒤로 경험한 적이 없다”고 썼다.<br/><br/><br/>80년대 중ㆍ후반 에이즈 재앙<br/>당시엔 혈액제제가 유일한 대안<br/>HIV 감염위험에 그대로 노출돼<br/>혈우병 캠프 200명 중 2명만 생존<br/><br/>학교에 입학한 8살 때부터, 부모는 그를 혈우아동 여름캠프에 보냈다. 전문가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안전한 시설에서 같은 처지 아이들끼리 어울려 지내는 프로그램. 툭하면 붓는 무릎 관절, 멍 투성이 팔다리들을 서로 내보이며 키득거리기도 하고 지긋지긋한 정맥 주사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그들은 학교 친구들과는 또 다른 우정을 쌓았을 것이다. 그 무렵 80년대 중ㆍ후반은 AIDS의 기세가 등등하던 때였다. 당시 혈우병 환자에겐 혈액제제 외에는 대안이 없었고, 불특정 다수의 혈액에서 추출한 응고인자 농축액들은 HIV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였다. 그는 첫 캠프 때 약 200명이었던 참가자가 해가 바뀔 때마다 줄어갔다고 했다. “<span class='quot0'>이듬해 만나면 우리는 누가 안 왔는지, 그는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서로 묻곤 했고, 점점 그 질문은 누가 죽었는지로 바뀌어갔다.</span>” 그들 다수는 혈우병 때문이 아니라 AIDS로 숨졌고, 10대 중반 캠프가 문을 닫을 무렵까지 살아남은 이는 그를 포함해 단 두 명뿐이었다.(NYT, 2013.12.23)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흐트와 같은 생존자를 대상으로 HIV 내성인자 보유 여부를 검사, 그 중 일부가 실제로 돌연변이를 통해 HIV 면역에 기여하는 케모카인(Chemokines) 단백질과 수용체를 보유한 것으로 훗날 밝혀냈다. 코흐트는 그런 변이 없이 감염되지 않은, 기적 같은 행운의 주인공이었다. 13살 때 감염 혈액제제 때문에 C형 간염에 걸려 약 2개월간 입원하기도 했는데, 그 때는 ‘완전항체반응(full antibody response)’즉 몸 면역시스템이 스스로 병을 치유해내는 또 한번의 마법 같은 일을 경험하기도 했다. 혈액제제가 안전해지고,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새로운 치료제, 즉 비감염 혈액의 특정 단백질을 햄스터의 난소 등에 주입해 혈액응고인자를 생산 추출해 만드는 농축제제가 나온 것은 90년대 이후였다. 코흐트는 ‘행운’이라고 했지만, 그건 사무치게 원망스러웠을 자신의 몸을, 그래도 믿고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을 것이다. <br/> <br/><br/><br/>코흐트는 2013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유년 시절 대면하는 죽음은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는 죽음은 아니다. 어찌어찌 살아지겠지(life goes on), 하고 여기게 된다”고 말했다. 성년이 된 뒤 다른 자리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 고도의 공포를 동반한 채 산다는 걸 의미한다. 그 공포를 안고 반복된 일상을 다만 버틸 것인가, 어떤 희망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흐트는 펜실베이니아 뮬런버그(Muhlenberg) 칼리지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뒤 2000년 스탠퍼드 의대에 진학해 석ㆍ박사 과정을 이수해 조교수가 됐고, 2012년부터 대학 부설 ‘레비(Levy) 연구소’에서 면역 종양학 연구에 몰두했다. <br/>레비 연구소의 로널드 레비(Ronald Levy, 1941~)는 로슈 사의 블록버스터 표적항암제 ‘맙테라’의 주성분인 단일클론항체 ‘리툭시맙(Rituximabㆍ리툭산)’의 개발자로 유명하다. 단일클론항체란 표적 항원에만 부착돼 항암 화학치료 시 건강한 세포에 독성을 줄여주는 특이 항체로, 리툭시맙은 “악성 B세포에 발현된 CD20 항원을 표적으로 하여 체내 면역체계가 표지된 B세포를 공격하게”(서울대 암정보교육센터)하는 기능을 한다. CD20 항원은 줄기세포에는 없기 때문에 화학치료 부작용을 줄여주고, 치료 후 건강한 B세포가 재생되는 데 도움을 준다. 리툭시맙은 비호지킨성 림프종과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주로 쓰인다. <br/>의사 겸 종양학자가 된 동기를 그는, 샌프란시스코 매거진에 이렇게 썼다. “힘든 시기마다 곁에 의사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나를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준 이들도 의사였다.(…) 나도 다른 이들의 삶에 그런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었다.” 그는 “C형 간염 극복 경험 등을 통해 암도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이 쏠렸다”고 말했다. <br/><br/><br/>스탠퍼드 의대서 종양학 연구<br/>C형간염 극복 경험 토대로<br/>면역체계 활성화 방법 연구<br/>유방ㆍ난소암 독자치료법 개발<br/><br/><br/>그의 주 연구분야도 ‘항체공학(antibody engineering)’을 통한 면역시스템 개선이었다. 그는 2013년 8월 스탠퍼드 의대 ‘항체공학 및 치료’ 팟캐스트에 출연 “리툭시맙 이래로 트라스투즈맙(유방암 표적치료제), 세툭시맙(직장결장암ㆍ두경부암 표적치료제) 등 다양한 단일클론항체들이 개발됐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기대했던 ‘특효약(magic bullet)’이 되진 못했다”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의과학자들이 안간힘 다하는 분야의 하나로 항체공학을 소개했다. 국내 여러 항체공학연구소 등에 따르면 항체 공학은 치료용 항체 반복 투여 부작용 제어, 면역 항체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쥐 단일클론항체의 인간화 항체(humanized antibody) 전환, 치료 효능을 높이기 위한 이중특이항체(bispecific antibodyㆍ일종의 면역항암 병용요법) 실험, 항체-약물 결합체(ADCㆍantibody-drug conjugate) 등을 연구ㆍ개발하는 분야다. <br/>코흐트는 자궁경부암과 난소암 수술 환자에게 미량의 암특이단백질(cancer-specific protein)을 백신처럼 투입, 잔존 암세포를 공격하고 고형종양의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법을 독자적으로 개발, 쥐 실험치료에 성공한 뒤 임상실험을 진행해왔다.(Stanford.edu, 2016.3.1) 쿠바 의료진의 요청으로 현지에서 유방ㆍ난소암 백신 1차 임상실험을 진행해 성공했고, 그 실험은 현재 호주와 유럽, 스탠퍼드대에서 진행되고 있다.<br/><br/>앞서 그가 스탠퍼드 의대의 ‘Advanced Residency Training(ART)’을 이수한 까닭도 연구와 임상치료를 병행하기 위해서였다. ART는 미국서 의대(의전원)을 졸업하면 받는 MD(Medical Doctor) 외에 의과학 연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PhD를 결합한 교육프로그램.(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MD만 보유한 의사가 많아 ‘MD=의사’라는 의미로 주로 통한다.) 그는 2009년 스탠퍼드 의대 매거진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임상에서는 판단과 결정을 신속히 해야 하고 결과의 옳고 그름도 금방 드러나지만, 실험실에서는 그 과정에 예사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예사로 걸린다.(…) 두 가지 상반된 일을 함께 잘 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지만(…) 나로선 환자에게서 얻는 (즉각적인) 만족 없이는 (길고 지루한) 일련의 실험들을 잘 해내지 못할 것 같더라</span>”고 말했다. “효과적인 치료법을 가지지 못한 채 암 환자를 대하는 건 참 힘든 일이다. 그럴 때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실험실로 돌아가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환자들의 심정을 잘 알았을 것이다. “미래가 불확실한 만큼 내 모든 걸 과학과 환자들에게 쏟아야 한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다. 만일 당신이 어려서부터 심각한 질병을 앓아왔다면, 아마 당신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그는 “그건 인간관계에서는 썩 좋은 일이 아니어서 나는 결혼을 두 번 했다”고 덧붙였다.(NYT,2013.12.23)<br/><br/>그는 2월 22일 바하마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뇌출혈을 일으켜 마이애미의 잭슨 메모리얼 병원으로 후송됐고, 이틀 뒤인 24일 별세했다. 향년 38세. <br/>근년 들어 그의 육체는 응고인자제제를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인체 면역체계가 농축제제를 항원으로 인식해 공격에 나선 거였다. 항체 반응은 대개 초기에 발현하지만, 그의 경우처럼 드물게 늦게 나타나기도 한다. 스탠퍼드 의대 종양학과장 조지 슬레지 주니어(George Sledge Jr)는 “<span class='quot2'>그는 재능과 헌신, 끈기 면에서 예외적으로 탁월한 동료로 존경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2'>수많은 선배 연구자들도 그를 통해 많이 배웠다며 슬픔을 전해 왔다</span>”고 전했다. 가장 가까운 스승이었을 레비는 “<span class='quot3'>항암 면역요법 분야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발견을 해냈고, 환자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임상 실험을 디자인해 추진해왔다</span>”고 말했다.( med.stanford.edu, 2016.3.1) <br/><br/>ㅡㅡㅡㅡ<br/><br/>한국혈우재단이 지난해 5월 발간한 ‘2014혈우병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혈우병 등록환자는 2014년 말 기준 2,255명(여성 141명)이다. 한국의 경우 남자 신생아 5,000명 당 1명 꼴로 혈우병을 안고 태어나지만, 등록 환자가 적은 까닭은 등록을 않거나 병 진단 전에 숨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65세 이상 환자는 60명이다. <br/><br/>세계혈우연맹(WFH)이 정한 ‘세계 혈우인의 날’이던 지난 해 4월 17일 혈우병환자단체(코헴회) 전 사무국장 김태일씨는 한국의 혈우병 환자들이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들을 즉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본보에 기고했다. 1991년 당시 보건사회부는 국내 혈우병환자 등록ㆍ관리 업무를 1990년 설립된 한국혈우재단(혈우병 치료제 생산업체인 녹십자 지원금으로 설립ㆍ운영)에 위탁했고, 이후 재단 판단에 따라 해외의 신약들이 재단 부설병원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잦다는 거였다. 그는 “<span class='quot3'>아무리 진보된 치료법이 개발되더라도 특정한 힘에 의해, 기득권에 의해 높고 높은 장벽에 막혀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희귀 질환자들이 더 고통 받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지 가늠하기 어렵다</span>”고 썼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44.txt

제목: [삶과 문화] 결국은, 사람이다  
날짜: 2016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6051448634  
본문: 며칠 전 친구 하나가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왔다.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았는데 천만 다행으로 초기래. 잘 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는데 너무너무 죄송하다. 앞으로 어찌해야 할 지 두려움이 앞선다.”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 검진결과를 말하는 의사의 사무적 말투가 서운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물론 몇 기냐에 따라 경중이 나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비슷한 말을 전하는 입장에서 무덤덤해 질 수 있겠지만 일반인에게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가 상당한데 조금은 따뜻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도 한 때 내 기대보다 친절하지 않은 의료진을 보고 서운해 한 적이 있었다. 그들의 태도가 나를 치료해주는 정성과 동급일 것이라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성을 되찾게 된 것은 하우스 메이트 ‘나오미’의 일과를 보고 나서였다. <br/>시크하고 까칠한 성격의 나오미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였는데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8시간 단위로 오전, 오후, 밤 하루 3교대 근무를 한다. 그런데 어디 환자들이 3교대로 시간 맞춰 아픈가. 차트와 주사를 들고 온 병동을 뛰어 다니다 보면 하루 종일 앉은 기억 없이 퇴근할 때도 있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방전된 체력을 잠으로 충전했다.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되면 다시 출근시간이었고, 일과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늘 같았다. 아니 영화에선 간호사들이 잘생긴 의사 선생님이랑 눈도 맞고 탕비실에서 비밀이야기도 나누고 잘만 그러던데. 옆에서 보니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현실은 드라마와는 너무나 달랐고, 이런 환경과 스케줄에서는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은 도무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는 별거 없다고 말하면서도 부지런히 병원에 간다. 쉬는 시간이 좀 생기면 자식이 자주 와보지 않는 821호 할머니에 손도 잡아 드려야 하고, 아픈 주사를 맞고서도 울지 않는 유아병동 찬일이에게 격려의 박수도 쳐줘야 한다. 그리고 얼굴도 한번 쓰다듬어 줄 것이다. 어제는 어린이 환자를 위해 폭신한 인형도 몇 개 사왔다. “사람이 제일이죠.” 알고 보니 그녀는 갑상샘 암을 겪은 환자이기도 했다. 본인의 경험상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제일이다 싶었나 보다.<br/>샌프란시스코에 ‘라구나 혼다’라는 병원이 있다. 이곳은 17세기 아픈 이들을 대가 없이 돌보던 ‘파리 시립 병원’의 후손 격인데 빈민구호소이다. 이곳으로 노숙자, 극빈자 등 사회소외계층, 알코올중독자, 치매 뇌졸중 노인 등 까다로운 환자들이 몰려든다. 노후한 시설과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라곤 엑스레이뿐이지만 놀랍게도 이곳 환자들은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이곳에서 쓰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시간’과‘사람’이다. 하루 종일 환자들 곁을 지키는 간호사, 그리고 환자를 오랜 시간 면밀히 관찰하고 얘기를 나누는 의사가 있다.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의 확률은 높아지고, 오진을 비롯해 불필요한 약물과 시술, 임상검사는 대폭 줄어든다. 여기에서 절약된 시간과 비용은 다시 환자를 위한 양질의 환경에 투자됨으로써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의학과 의료제도의 문제에서 가장 중심에 둬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인간 중심적인 환경과 정신을 지켜내려는 의료진들의 분투는 책 ‘신의 호텔(빅토리아스위트. 2014, 와이즈베리)’에 생생하게 기록되어있다.<br/>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그리고 가끔은 사람의 온기가 통증을 완화시켜줄 때도 있다. 온기는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것은 다시 돌고 돌아 사람에게로 들어간다. 아무리 기계가 인간의 영역을 넘보고 진화한다 하더라도 만져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아, 아프지 마라 (김정환, 2016.행성B잎새) 혹여 라도 아프면, 사람에게 가자.<br/>남정미 웃기는 서평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45.txt

제목: “꽃보다 아름다운 손편지는 아픔을 치유하는 명약”  
날짜: 201603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5051738255  
본문: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에는 감성이나 영혼을 찾기 어렵지만 손으로 쓴 편지에는 정성과 진실한 마음이 담깁니다. 따뜻한 진심이 전달되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br/>4년째 손편지 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근호(59) 손편지운동본부 대표가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24일 서울 숭인동의 주로 50~70대 만학도들의 배움터인 진형중고등학교에서 만난 그는 올해 처음 지정된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 주 금요일)을 맞아 국군 장병들에게 위문편지를 쓰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 평균 연령이 60대인데 이들이 부모 또는 조부모의 마음으로 쓴 편지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희생당한 장병들을 추모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정됐다.<br/>평생교육시설학교인 진형중고교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1,200여명 전교생이 서해 최북단 해병대 6여단 장병에게 편지를 쓰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 대표가 학교를 찾은 이날 오전에는 중학교 1학년 1반 40여명의 만학도 학생들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 둘째 아들을 군에 보낸 박연화(53)씨는 “<span class='quot0'>아들에게 쓰는 것처럼 사랑을 담아 편지를 썼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손으로 직접 쓰니 진솔하게 마음이 담기는 것 같다</span>”며 눈시울을 붉혔다.<br/>이근호 대표가 손편지의 힘을 느끼게 된 건 5년 전 12년간 일궈온 사업을 가족에게 맡기고 1년간 강원도에서 칩거하면서부터다. “<span class='quot1'>54세가 지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span>”이 동기가 됐다. 암에 걸린 지인과 손편지를 주고받다 상대는 물론 자신도 치유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 이후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진심이 담긴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었다. <br/>이 대표에게 손편지는 마음을 따뜻하게 지펴주는 ‘영혼의 연탄’이다. “현대사회는 속도와 경쟁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느린 속도로 살아야 주변 환경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배려와 용서, 나눔의 문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더디고 느리지만 손으로 쓰는 편지가 시대의 감성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운동을 실천하게 됐습니다.”<br/>이 대표는 치유와 소통이 필요한 현장에 손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때는 경기 양평군 양서초등학교와 강원 철원군 철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감사의 편지를 국립의료원과 동탄성심병원의 의료진에게 보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 당한 군인들에게도 초등학생들이 쓴 위로의 편지를 전달했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영호남 어린이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운동을 시작했고,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가정이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br/>이 대표는 손편지가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 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단원고와 분향소, 집회 현장에서 노란 색종이를 나눠주며 편지를 쓰게 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하늘이 아들을 잃는 고통을 준 것 같다</span>”고 말했다. 전국을 다니며 하는 손편지 쓰기 운동의 모든 비용은 이 대표가 부담한다.<br/>5월에는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손편지 쓰기 행사를 열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우체통을 전시하는 손편지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추진 중이다.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뭐가 대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의 준비한 대답은 단호하다. “손수 편지를 쓰는 사람의 모습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편지를 쓸 때만큼은 순수한 감정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손편지는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명약입니다.”<br/>고경석기자 kav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46.txt

제목: 정액에 피가 나옵니다. 어떤 이상일까요?  
날짜: 2016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4051456173  
본문: 질문 = 정액에 피가 나옵니다. 어떤 이상일까요?<br/> <br/>답변 =정액에 피가 나왔다면 적잖이 놀랄만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큰 이상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액에 피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의 정액을 만들고 정액이 지나가는 길이 되는 전립선의 문제입니다. 전립선에 피가 나올 정도의 이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질환은 염증이나 전립선 암 또는 전립선 결석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전립선 염증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전립선은 방광과 요도를 있는 위치에 있어 세균과 맞닿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염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일이 흔합니다.<br/> <br/>컨디션이 안 좋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염증이 심해져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출혈입니다. 때로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정액에만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항생제 치료로 염증을 제거하면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br/> <br/>전립선암은 그 확률은 적지만 가능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40대 이전이라면 전립선암을 걱정 할 필요는 없고, 그 이상의 나이라면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피검사로 진행하는 아주 간단한 검사입니다. PSA가 정상이라면, 암 걱정은 내려 놓으셔도 될 듯 합니다. 전립선 결석은 사실 증상이 없다면 질병이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전립선 결석은 주위에서 종종 경험하는 요로결석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정액은 소변에 비해 훨씬 점성이 높아서 결석이 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전립선초음파를 하다 보면 상당수의 환자에서 전립선 결석이 발견 되는데, 이런 소견을 특별한 이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결석이 혈정액증을 유발하는 일이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해결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에 손상을 주지 않고 결석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정관으로 아주 가는 내시경을 넣어 돌을 제거 한 후 혈정액증이 해결 된 사례가 있지만, 전신마취가 필요한데다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술입니다.<br/> <br/>혈정액증 환자들은 상당한 공포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 자체로 기분이 나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큰 이상이 없으니 일단 큰 걱정은 접으시고, 비뇨기과 의사와 느긋하게 상의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br/> <br/>이영훈 원장은 일산연세비뇨기과에서 근무하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br/><br/>한국스포츠경제 master@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47.txt

제목: ‘세계 1위 불명예’ 대장암, 과식이 가장 큰 적  
날짜: 2016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2051509182  
본문: ‘과식하지 말라’ ‘현미ㆍ잡곡밥과 통밀 빵을 먹어라‘ ‘과일을 매일 적당히 먹어라’….<br/>제9회 암예방의 날(21일)을 맞아 대한암예방학회가 ‘한국인 대장암 예방수칙’을 처음 제정했다. 대장암은 갑상선암, 위암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흔한 암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184개 나라 가운데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10만 명 당 45명(2012년 기준)으로 세계 1위다. <br/>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1999~2012년 암 발생 통계에서 대장암은 해마다 5.2%씩 증가했다. 김나영 대한암예방학회 회장(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최근 선진국들은 철저한 예방으로 대장암 발병이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식생활의 급격한 서구화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span>”고 했다. <br/>따라서 증상이 없어도 45~80세 나이라면 1~2년에 한 번씩 대장암 검진을 받을 것을 권했다. 윤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최근 젊은 연령에서 대장암이 많이 생기는 것을 감안해 50세에서 45세로 낮췄고, 반대로 80세 이상에서는 검진에 따른 합병증 등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 제외했다</span>”고 했다.<br/><br/>“<span class='quot2'>적색육ㆍ가공육 주 2회 먹으면 대장암 18% 높여</span>”<br/> 대한암예방학회가 첫손에 꼽은 대장암 위험 요소는 ‘과식’이다.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과식을 자제하고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암연구협회도 최근 비만과 복부 비만이 술과 붉은 고기 섭취 못지 않게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했다.<br/> 팀 키 옥스퍼드대 교수와 캐슬린 브래드버리 박사는 국립암연구소(NCRI) 학술회의에서 40~69세 남녀 50만 명을 조사한 결과, 적색육이나 가공육을 1주일에 2번 먹는 사람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 가능성이 1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가공육을 1주일에 4번 먹는 사람은 같은 기간 1번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42%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br/>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붉은 고기와 햄 등 육가공 식품은 적당량만 섭취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생선과 두부로 보충하라</span>”고 했다. 칼슘은 대장암 발병률을 22%까지 낮추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br/><br/>“<span class='quot2'>빵보다 떡을 자주 먹으면 대장암 억제</span>”<br/>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흰 빵보다는 통밀 빵을 먹는 게 좋다. 그런데 떡을 자주 먹는 사람은 빵을 자주 먹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을 낮춘다는 재미있는 연구결과도 있다. 박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대장암 진단을 받은 20세 이상 150명 등 266명을 조사한 결과, 빵을 자주 섭취하는 그룹은 적게 섭취하는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2.26배 높아졌다. 반면 떡을 자주 섭취하는 그룹은 적게 섭취하는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이 0.35배 낮았다. 빵을 즐겨 먹으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반대로 떡을 즐겨 먹으면 그 위험이 낮아진다는 얘기다.<br/>채소와 버섯ㆍ해조류도 자주 섭취해 섬유소와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해야 한다. 과일은 매일 적당량 먹되 주스나 말린 과일보다 생 과일이 암 예방에 도움 된다.<br/>니시노 호요쿠 일본 교토대 의대 생화학교실 교수가 펴낸 ‘암 억제 식품사전’(전나무숲 발행)에 따르면 호박 당근 시금치 신선초 고구마 아스파라거스 파슬리 가지 샐러리 등이 암 억제 식품으로 꼽혔다. 당근과 호박에는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등 천연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암 억제 작용을 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시금치에도 카로티노이드와 루테인 성분이 많아 암을 막는다. 미나리과 신선초에 들어 있는 칼콘과 트리테르페노이드 물질이 항암작용을 한다. 고구마에 들어 있는 강글리오시드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 구범환 대한암협회 회장은 “<span class='quot3'>평소 동물성 고지방 식품보다 암 억제 효과가 있는 천연 채소류, 생선, 해조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span>”고 했다. <br/>대장암 예방에 도움되는 다른 영양소로는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가 있다. 김윤재 가천의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을 22%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pan>”고 했다.<br/>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강성범 분당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몸에 나쁘다고 해서 탄수화물(쌀밥, 밀가루)과 지방, 단백질(고기)를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span>”고 했다.<br/><br/>“<span class='quot2'>규칙적인 운동과 금연ㆍ절주도 필요</span>”<br/> 신체활동을 늘리고 금연하고 음주량을 줄이면 대장암 예방에 좋다. 남성의 경우 활발히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발생률이 20%까지 낮아진다. 운동으로는 빠르게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운동도 대장의 기능을 돕는다. 오상철 고려대 구로병원 대장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1'>운동이 배변을 이롭게 해 대변에 포함된 발암물질과 접촉 시간을 줄여주고 비만 예방에도 기여한다</span>”고 했다. 폭음하는 사람도 음주하지 않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1.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br/><br/><br/>①과식하지 말라.<br/>②백미 대신 현미나 잡곡밥, 흰 빵 대신 통밀 빵이 좋다. <br/>③채소, 해조류, 버섯 등을 자주 먹는다.<br/>④과일을 매일 적정량 먹는다.<br/>⑤소고기, 돼지고기, 육가공식품(햄, 베이컨, 소시지 등)은 적당량만 섭취한다.<br/>⑥고기를 구울 때 숯불로 굽는 것을 피하고, 고기가 타지 않도록 한다. <br/>⑦견과류는 매일 조금씩 먹는다.<br/>⑧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 성분을 충분히 섭취한다.<br/>⑨몸을 많이 움직여라.<br/>⑩음주를 줄여라.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48.txt

제목: 왜 고려대 구로 암병원에선 다학제 진료가 잘 될까  
날짜: 2016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2051508500  
본문: 고려대 구로병원은 2014년 4월 암병원을 문 열었다. 이 병원이 암병원을 개원하면서 내건 중심 가치는 ‘환자 중심’. 병상수와 환자수 확대를 통한 병원 덩치 키우기 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 제공에 매달리겠다는 뜻이었다. 이런 의지는 일일 항암치료실 운영으로 대표되는 원스톱 진료와 진료과의 벽을 허문 다학제진료 활성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로 암병원 다학제진료는 상명하달식 지시가 아닌, 밑에서부터 뜻이 모아지면서 시작됐다. 전공 분야가 각기 다른 전문의들이 환자를 치료의 중심에 놓기 위해 과 이기주의를 스스로 내려놨다는 점에서 이채롭다.<br/><br/># 50대 초반 대장암 환자 김미나(가명ㆍ여) 씨는 암세포가 간에 대거 전이돼 담당의로부터 “치료 불가”를 통보 받았다. 김씨는 얼마 뒤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 암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선 김씨에 대해 다학제진료를 했다.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공이 각기 다른 전문의 7~8명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댔다. 다학제 회의 결과는 ‘항암치료로 암 크기를 줄인 뒤 수술로 제거하자’는 것. 간 전이 상태가 심해 수술이 쉽진 않지만, 젊은 나이를 고려할 때 암의 완전한 제거를 노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간 전문의는 간의 재생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수술을 두 차례 나눠 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김씨는 석달 동안의 항암치료 뒤 대장암과 간에 전이된 암세포를 차례로 제거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아 희망을 건져올리게 됐다.<br/><br/>최근 다학제진료가 암환자 치료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암과 사투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환자 생명을 구하거나 말기암 환자의 생존율을 끌어 올리는 등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다학제진료는 전공이 각기 다른 전문의들이 환자 개개인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협진 시스템. 대장암 전이 환자 김씨를 사지에서 건져 올린 것도 다학제진료의 힘이었다. 김씨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민병욱 고려대 구로 암병원 대장암센터장. 민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다학제진료가 없던 예전 같으면 ‘치료해봐야 소용 없을 것’이라는 예단에 종양내과에서 외과 쪽으로 환자의뢰조차 안 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치료법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 보면 해법이 보이는 경우가 적지않다</span>”고 했다.<br/>고려대 구로 암병원은 다학제진료에 가장 적극적인 곳으로 평가 받는다. 암종별 진료팀 이름에 ‘다학제팀’이라고 못 박고 있을 정도다. 유방암 폐암 대장암 두경부암 췌담도암 등 암종별로 매주 1~2회 열리는 다학제진료 회의에는 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관련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가 한 자리에 모인다. 김씨처럼 대장암의 간 전 또는 폐 전이가 있는 경우 항암치료의 횟수와 수술 시기, 수술 방법 등이 집중적인 논의 대상이다.<br/>진료 과를 앞세우는 의국(醫局) 중심의 전통이 뿌리깊은 국내 의료 시스템에서 다학제진료는 말처럼 쉽지않다. 고려대 구로 암병원을 이끌고 있는 민병욱 대장암센터장(대장항문외과)은 “<span class='quot1'>다학제진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과 이기주의 내려놓기와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span>”고 했다. 팀워크도 관건이다. 민 센터장은 “대장암센터의 경우 점심시간인 낮 12~오후 2시에 다학제진료를 보는데 점심 안 먹고 다들 참석한다. 영상검사 결과까지 다 확인하고 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br/>비뇨기센터 박홍석 교수는 다학제진료의 이점에 대해 “<span class='quot2'>전립선암은 진행이 느린 초기암부터 진행이 빠른 전이암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span>”며 “<span class='quot2'>이에 따라 환자 나이, 기저질환 여부 등을 고려해 적극적 추적관찰,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세기조절 방사선치료(IMRT), 항남성호르몬 및 항암 치료까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줄 수 있다</span>”고 했다.<br/>복강경과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최소침습 치료와 표적치료제 활용은 환자맞춤 치료 구현에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 수술 시 가급적 절개 범위를 최소화 하고 약제도 환자의 유전적 특질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사용하므로 치료율을 높이고 부작용 발생은 최소화 할 수 있다.<br/>로봇 수술에 대해 민 센터장은 “예전 개복수술 시 솔직히 잘 안 뵈는 곳은 감에 의존했다. 직장암 환자의 경우 항문을 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로봇 이용으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문 보존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br/>함암치료에서는 암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치료제가 속속 추가됨에 따라 맞춤치료가 점점 세분화 하고 있다. 민 센터장은 “유방암에서 허투(her2)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허셉틴이라는 표적치료제가 잘 듣는다. 이런 임상시험 결과가 대장암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대장암에서도 her2 유전자 검사를 시작했다”고 예를 들었다. <br/>환자 중심 진료와 맞춤치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박 교수는 비뇨기계 암에 대해 “<span class='quot2'>?국소진행성 전립선암 및 전이성암에 대해 기존의 항남성호르몬치료,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독시탁셀(doxitaxel) 항암치료 등에서 어떤 순서와 조합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span>”이라고 했다. 민 센터장은 “<span class='quot1'>대장암의 5% 정도는 유전성으로 환자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도 아주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종양유전자역학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예방에 힘쓰겠다</span>”고 했다.<br/>송강섭 의학전문기자 erics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49.txt

제목: [사설] 관대한 음주문화 되돌아보게 한 암 예방 수칙  
날짜: 2016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2051502806  
본문: 보건당국이 ‘암 예방의 날’(21일)을 맞아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을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하루 한 잔의 가벼운 음주도 피해라는 것이다. 10년 전 제정된 암 예방 수칙은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를 명시, 소량의 음주는 허용했다. 보건 당국은 암 예방 수칙을 개정한 데 대해 “하루 한 잔의 알코올 섭취만으로도 특정 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r/>최근 해외 학계 보고에 따르면 술을 하루 한 잔만 마셔도 식도암 발생 위험은 30%, 구강인두암 17%, 간암 8%, 대장암 7%, 유방암은 5% 각각 높아진다. 소주 한 잔(50㏄)의 알코올 양은 12g 정도인데, 하루에 알코올 50g을 마시면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4배, 유방암은 5배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소주 한 잔이 채 안 되는 하루 5~10g만 마셔도 유방암 발생 위험을 15%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r/>한국사회는 유독 술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회식에 빠짐 없이 참석해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을 사회성이 뛰어난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다. 술이 인간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고 적당히 마시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의 영향이 크다. 물론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술을 ‘적당히’ 마시기가 결코 쉽지 않다. 알코올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 성인의 12.7%가 알코올중독 위험군에 속한다. 지나친 음주는 살인 성폭행 등 강력사건과 교통사고, 청소년 탈선, 가정폭력, 자살 등의 원인이 된다.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연간 10조원을 웃돈다.<br/>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은 2014년 암 예방 권고사항 중 ‘남자 2잔, 여자 1잔’으로 소량의 음주를 허용하던 것을 ‘암 예방을 위해 음주하지 말 것’으로 고친 바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도 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한국인은 알코올 분해효소가 적거나 없는 사람이 많아 술을 마시면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그만큼 암과 간경변, 뇌 손상,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br/>우리 음주문화는 이미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이제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음주 규제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담배처럼 술 광고의 경고문고를 강화하고 주류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만하다. 술에 관대한 사회풍토부터 바꿔야 한다. 미래세대에 술의 해악을 가르치고 절주(節酒) 캠페인이라도 벌이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50.txt

제목: 어르신들 이른 봄 조심해야 할 두가지, 심쿵·연골  
날짜: 2016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2051419293  
본문: 완연한 봄이다. 자연에는 생동감이 넘친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br/> 심혈관과 관절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계절이기 때문이다. 몸 속 혈관의 길이는 약 10만km나 된다. 지구의 두 바퀴 반을 돌만큼의 긴 길이다. 건강관리에 있어 혈관 건강을 빼놓을 수 없다. 또 산행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어르신들의 관절에 대한 보호는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br/>●심쿵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br/>▲ 이대목동병원제공 <br/><br/>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포함하여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이는 고혈압을 비롯해 필요 이상의 많은 지방성분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해 혈관 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고지혈증과 죽상동맥경화증·협심증·심근경색증·부정맥·심장 마비 등을 총칭한다.<br/>흔히 심혈관 질환은 흡연과 육류를 즐기는 남성들의 질환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주된 사망원인은 심장병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고시한 자료(2015)에 따르면 2014년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전체 환자는 남성이 95만2,000명으로 42만1,000명인 여성 환자보다 월등히 많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를 기점으로 여성 환자(14만9,000명)가 남성 환자(13만6,000명)를 앞지른다.<br/> 문제는 이러한 심혈관 질환은 사망률 또한 높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4년 기준 한국인의 10대 사망원인 중 1위가 암(악성 신생물)이고 2위가 심장 질환이다. 특히 심장 질환은 10년 전에 비해 사망 원인 순위가 3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br/> 중년 여성에게 심혈관 질환이 위협적인 이유는 폐경에 따른 여성호르몬의 분비 저하가 크게 작용한다. 폐경으로 인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좋은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또 심장의 근육세포가 노화되며 탄력을 잃게 되는 것도 중년 이후 여성들의 심혈관 질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 찬바람 부는 겨울뿐 아니라 요즘과 같은 봄철 또한 큰 일교차로 인해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병 환자 발생이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는 것이 좋다.<br/> 편욱범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장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심혈관 질환이 평균 10년 정도 늦게 발병하고, 동반질환도 많아 진단 시기를 놓치고 증상이 심각해진 뒤에야 질환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 발생 시 예후가 남성에 비해 나쁘다"며 "일교차가 심한 봄철에는 갑작스러운 심혈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하는데 평소 혈관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적정체중 유지, 꾸준한 운동, 채소와 생선 중심의 저염식 등 생활수칙을 유지하며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 조언했다.<br/> <br/>●심혈관 질환 예방 위한 4가지 생활 수칙<br/>◇음식은 싱겁게, 생선·채소 충분히 섭취=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11.2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5g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여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일주일에 생선을 2회 이상 섭취하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채소류 및 해조류 등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br/>◇적정 체중·허리둘레 유지=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키에 맞는 적정체중을 유지하고(체질량지수 기준 25㎏/㎡ 미만) 여성의 경우 허리둘레를 85cm미만, 남성은 90cm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br/>◇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4일 이상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운동하는 것으로 혈압과 혈당을 낮출 수 있다. 시간을 나누어 수회에 걸쳐 총 30분 이상 운동을 해도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하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br/>◇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심장건강을 해치는 고혈압, 당뇨병 발생이 증가하는 4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가족력 등 다른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경우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br/><br/>●무릎 건강 지키는 등산 필요 <br/>/ ▲ 웰튼병원제공 <br/><br/>등산은 10년 연속 한국인 최고의 레저스포츠(갤럽조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무릎 건강을 지키는 등산이 필요하다. 등산은 체력과 심신을 단련하는데 좋은 운동이지만 무리할 경우 각종 사고로 이어지거나 신체에 부상을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무릎부상이 많은데, '반월상연골판 손상'이 대표적이다.<br/>반월상연골판은 무릎관절의 안쪽과 바깥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무릎의 중간 뼈 사이에 있는 물렁한 조직으로 관절의 연골을 보호하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산행 후 무릎관절이 자주 붓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쪼그려 앉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나 시큰거림이 심해지며, 다리를 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월상연골판 손상을 의심해볼 수 있다. 또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뚜둑'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반월상연골판 손상이 심할 경우 뼈와 뼈가 맞닿는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관절에 전해져 통증은 물론 조기 퇴행성관절염을 유발하기 쉽다.<br/>반월상연골판의 치료는 연골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손상 부위가 작고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경우라면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방법을 통해 충분히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봐야 한다.<br/>반월상연골판은 재생능력이 없고, 한번 손상되면 완전한 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스트레칭은 필수다. 또 스트레칭은 관절은 꺾고 비트는 동작보다는 유연성과 가동성을 올려줄 수 있는 동작들을 산행 전·후로 약 10분 이상 시행해주는 것이 좋다. 또 하산 시 무릎보호대나 등산스틱을 사용하면 체중의 5~7배까지 전해지는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켜줄 수 있어 연골판 손상 및 부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r/>손경모 웰튼병원 스포츠관절센터 소장은 "반월상연골판은 충격에 약하고, 자연 재생되지 않으므로 운동 후 무릎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2주 이상 휴식을 취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활동하기 좋은 봄 날씨에 무리하게 무릎을 사용하게 되면 더욱 연골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운동을 하고, 평소 관절염 증세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운동종류 및 강도 등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51.txt

제목: [의약계 동정] 이화의료원 교원신규 영입 등  
날짜: 2016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2051333713  
본문: ▲이화의료원, 임상·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전임 교원 신규 영입<br/> <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2018년 새병원 완공을 앞두고 임상·기초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4명의 전임 교원을 신규 영입했다.<br/> <br/>이번 신규 인사 발령을 통해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김광현(비뇨기과)·정혜선(진단검사의학과)·윤혜전(핵의학과)·김정아(의학교육학교실) 교수를 전임 교원으로 임명했다. 김광현 비뇨기과 교수는 로봇수술 및 복강경 등 최소침습적 수술 전문가로 전립선암, 신장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혜선 첨단 기술을 이용해 정확한 검사를 통한 질병의 선별 및 조기 발견, 진단 등에 노력하고 있다. 윤혜전 핵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핵의학을 이끌 차세대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br/> <br/>김승철 이화의료원장은 "새 병원의 성공적 개원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수 인재 육성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수 의료진 육성 및 외부 영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병원 개원에 앞서 임상과 연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 <br/>▲이대목동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3년 연속 1등급<br/> <br/>이대목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방암 적정성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br/> <br/>심평원은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18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유방암으로 수술받은 만 18세 이상 여성 환자의 진료분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진행, 전문인력 구성 여부, 진료 과정 부문, 진료 결과 기록 등 모두 18개 항목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종합병원 평균 점수는 96.21점, 전체 병원 평균 점수는 96.58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은 전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며 유방암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br/> <br/>한편, 이대목동병원은 심평원에서 발표한 폐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 암 수술과 치료 뿐만 아니라 급성기 뇌졸중, 혈액투석, 폐렴 등 모든 항목에서 1등급을 받았다.<br/> <br/>▲삼성신생아 심포지엄 2016 개최<br/> <br/>삼성서울병원 모아집중치료센터가 26일 '초미숙아 치료의 Hot Topics'라는 주제로 제 10회 삼성 신생아심포지움을 개최한다.<br/> <br/>이번 행사에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HareshKirpalani 교수, 캐나다 토론토 대학 Shoo K. lee 교수 그리고 홍콩 차이니즈 대학의 Pak C. Ng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의 특별 강연 등이 마련되어 초미숙아 치료 및 간호에 대한 최신 지견을 습득할 수 있다.<br/> <br/>이번 심포지움에서는'초미숙아의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 '초미숙아 치료의 최근 진전', '초미숙아 치료의 질 향상' 그리고 '초미숙아 간호의 질향상'을 주제로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과 대외 연사들의 연구발표 및 활발한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br/> <br/>행사는 26일 오전 8시부터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진행되며, 사전 등록은 3월 21일까지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samsunghospital.com) 병원안내 -학술행사 메뉴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br/> <br/>▲경희대병원 혈관클리닉 확대 개소, 혈관질환 新치료 앞장서 <br/> <br/>경희대학교병원 혈관클리닉이 최근 확대 개소하면서 국내 혈관질환 치료에 앞장선다. 본관 1층 외과 내에 위치한 혈관클리닉은 대동맥류, 하지동맥질환, 당뇨발(창상, 궤양), 심부정맥혈전증, 하지정맥류, 혈액투석관 수술 및 관리 등 말초혈관 질환을 종합적으로 진단·치료한다. 클리닉은 임상경험이 풍부한 국내 최정상의 혈관외과 의료진과 내분비내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다학제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여러 진료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혈류검사, 혈관초음파, 혈관촬영을 진행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수술 및 중재적 시술을 원스톱으로 시행한다. 전담 코디네이터를 통한 세심한 관리, 낮병동을 이용한 당일 검사 및 치료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br/> <br/>혈관클리닉을 이끌고 있는 안형준(혈관외과) 교수는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말초혈관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학제 관리 시스템으로 적극적인 관리, 치료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이번 클리닉 확대 개소를 통해 혈관질환의 새로운 진단?치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br/> <br/>▲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응급의료기관 전국 10위<br/> <br/>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5년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상위 8%에 해당하는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br/> <br/>이번 평가에서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구조, 과정, 공공영역에서 총점 86.92점을 획득해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중 10위를 차지했다.<br/> <br/>보건복지부는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법정기준과 구조, 과정, 공공영역의 기능부분으로 나눠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br/> <br/>왕순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이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화성시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br/><br/>한국스포츠경제 master@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52.txt

제목: [카드뉴스] '빈자의 어머니' 테레사 수녀의 사랑법  
날짜: 2016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20050729896  
본문: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테레사 수녀가 오는 9월 성인(聖人)의 반열에 오릅니다. 가톨릭에선 두 개 이상의 기적을 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성인으로 추대하는데, 테레사 수녀는 암환자와 뇌종양 환자를 치료한 생전 업적이 인정됐습니다. <br/><br/>테레사 수녀는 1910년 알바니아에서 태어나 인도 콜카타의 수도원에서 평생 가난한 이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또한 가난과 신앙을 깊이 고뇌한 사상가이자 명문가였죠. 나눔의 행복에 무뎌진 야만의 시대, 테레사 수녀가 남긴 사랑의 말을 되새겨 봤습니다. <br/><br/><br/>\* 이 콘텐츠는 한국일보 ‘나만 몰랐나?!' 코너 기사 '가난과 신앙을 고뇌한 사상가, 명문도 많이 남긴 테레라 수녀'(☞ 기사보기 )를 보완ㆍ재가공한 결과입니다.<br/><br/>기획ㆍ글 =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br/>그래픽=한규민 디자이너 szeehgm@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53.txt

제목: 경북대병원, 유방암 적정성평가 전국 상급종합병원 유일 1등급 탈락  
날짜: 2016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19051905595  
본문: 경북대병원이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평가대상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1등급에 들어가지 못했다.<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18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점수 산출 기준에 든 104개 기관의 79.8%인 83개 병의원이 1등급을 받았다. 대구ㆍ경북 지역 의료기관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인 영남대병원과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종합병원급인 대구파티마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이 1등급을 받았다. 이들 5개 병원은 유방암은 물론 폐암과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br/>하지만 경북대병원 본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등급으로 1등급에 들지 못했다. 2등급 이하 병원에는 중소병원이나 개인 병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br/>이처럼 경북대병원 본원이 2등급으로 밀린 것은 칠곡경북대병원이 암 전문병원으로 출발하면서 암수술 대상과 건수가 칠곡경북대병원으로 집중되면서 벌어진 ‘사태’로 분석된다. 병원 측에 따르면 본원에서는 일부 암은 아예 보지 않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집도의 수가 적어 평가에 필요한 건수에서 낮거나 0점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br/>경북대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유방암적정성 평가도 본원의 유방암 수술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진료건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전문인력 충원 및 재배치 등을 통해 내년에는 1등급을 회복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3년 연속 1등급을 받은 계명대 동산병원은 여성환자를 위한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다학제 진료로 치료효과를 극대화하는 등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 대구가톨릭대병원도 3년 연속 1등급, 영남대병원은 종합점수 99.49점으로 평균(96.56점)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수로 1등급에 들었다.<br/>심평원은 3년 전부터 주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방암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치료를 받았는지, 유방암 가족력 확인 여부, 암 관련 정보 기록 여부, 수술 후 적기 보조요법 시행 여부,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여부, 방사선치료 시행여부와 시작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4년 1년간 유방암 1~3기에서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br/>우리나라에선 연간 1만7,000명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며, 40대가 35.2%로 가장 많고 50대(31.1%), 60대(13.5%), 30대(10.6%) 순으로 많이 발병하고 있다.<br/>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54.txt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 5년간 1조5000억 반사이익  
날짜: 2016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18051503171  
본문: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br/>MRI 등 건보 적용돼 환급금 줄어<br/>“<span class='quot0'>이익 누린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span>”<br/><br/>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공개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개선 등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2013~2017년 1조5,244억의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추산됐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1조27억원, 선택진료 축소ㆍ폐지로 4,080억원, 상급병실료 개선에서 1,137억원 등이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던 액수(2조2,226억원)보다 적은 예상치이지만 해당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필요한 예산(11조2,590억원)의 13.5%에 달한다. 신현웅 보사연 연구기획조정실장은 “<span class='quot1'>성ㆍ연령별 특성과 실제 보험금 청구율을 반영한 정확한 수치</span>”라고 설명했다. <br/>이 밖에도 정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 가입자는 같은 기간 7,383억원,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8조9,963억원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br/>이 보고서에서는 공적 재원이 투입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사가 이익을 누리게 됨에 따라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컨대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 보험사가 32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해왔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6만4,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보고서는 “민간보험사는 반사이익을 가입자가 건강검진 추가 검진 비용으로 투입해준다면 질병 예방 차원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r/>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span class='quot2'>반사이익만큼 민간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하면 되는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비급여 항목 증가로 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span>”고 말했다. 보험료 환수로 인한 보험사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김상호 보사연 원장은 “<span class='quot3'>비급여 항목이 늘어나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것은 초기 설계를 잘못했거나 업계가 과당경쟁을 했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손해를 메운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span>”고 덧붙였다.<br/>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55.txt

제목: 암 막는 유전자 발견… 암 치료 기대  
날짜: 2016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17051542012  
본문: 암을 막을 수 있는 유전자가 발견돼 이를 활용할 경우 각종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UNIST(울산과기원, 총장 정무영)는 생명과학부 고명곤 교수가 주도한 국제 공동연구진이 TET 단백질이 없거나 부족하면 강력한 악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백질을 만드는 TET 유전자의 기능이 암을 치료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br/>고 교수는 “<span class='quot0'>거의 모든 암에서 TET 단백질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TET 유전자가 다른 암에서도 암 억제 유전자로 작용할 것을 시사한다</span>”고 설명했다. <br/>고 교수팀은 TET 단백질과 암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생쥐로 실험했다. 생쥐의 조혈모세포에서 높게 발현되는 TET 단백질 두 종류를 동시에 없앤 뒤 관찰한 것이다. TET2와 TET3 단백질이 모두 사라진 생쥐는 1주일 이내에 조직학적ㆍ세포학적으로 암의 징후가 관찰됐다. 또 이들 생쥐는 모두 4~5주 안에 악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br/>고 교수는 “<span class='quot0'>실험에서 나타난 혈액암은 기존에 알려진 다른 암 억제 유전자가 없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강력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TET 단백질과 암의 인과관계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span>”라고 설명했다. <br/>TET 유전자가 사라진 조혈모세포는 림프구성 계열이나 적혈구 계열로 분화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 TET 단백질이 면역세포의 분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다. 또 TET 유전자가 결손되면 손상된 DNA가 제대로 교정되지 않았다. 세포 분화 과정 이 현상이 축적되면 게놈이 불안정해진다. <br/>고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DNA 손상이 쌓이면 세포의 암화를 촉진한다는 단서를 제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DNA를 구성하는 염기의 화학적 변형과 게놈 안정성, 세포의 암화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했다</span>”고 밝혔다. <br/>그는 이어 “<span class='quot0'>TET 단백질의 발현 수준이나 활성을 유전자 단위에서 조절하는 방법으로 악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후성유전학적 방법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span>”고 평가했다. <br/>한편 이번 연구의 교신저자는 UNIST의 고명곤 교수와 미국 UC샌디에이고의 안자나 라오 교수, 독일 암연구센터의 루카스 차베즈 교수다. 또 제1저자는 IBS 유전체항상성연구단(단장 명경재) 안정은 박사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56.txt

제목: [삶과 문화]노인전문의 양성이 시급하다  
날짜: 2016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17051405365  
본문: 알파고가 인간을, 그것도 네 번이나 이겼다고 세상이 떠들썩하다. “<span class='quot0'>산업혁명에 비견될만한 인류역사의 거대한 전환기</span>”라거나,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단다. 이런 판국에 부모가 장수하면서 자식들의 효심을 고갈시켰다느니, 그래서 역으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역효도’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 도무지 덧없어 보인다. <br/>우리의 이세돌 9단을 네 번이나 격파한 인공지능이 더 업그레이드돼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면, 100세가 돼도 두려울 게 없으리라. 지금도 일부 장기를 인공으로 교체하는 판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되면 우리 몸 어느 한 구석이 절단 난들 뭐가 대수일까. 까짓 거 갈아 끼우면 될 텐데. 한편으론 ‘지금도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서 야단이라는데, 인공지능과 과학의 발달이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 일자리 구하기는 어려워지고 수명만 길어진다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br/>우리는 인류 최초로 100세, 그 너머를 살 예비 100세인들이다. 하지만 사회체계는 아직도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도 전방위적이고 문명사적 변환을 꾀할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든다.<br/>노년문제를 천착하다 보니, 자연스레 노년 건강에도 어느 정도 상식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때 의사들이 돌팔이인 나만큼도 노인의 병리나 생리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br/>미국의 저명한 외과의사인 아툴 가완디 예일대 교수도 나와 비슷한 생각으로 글을 쓴 적이 있다. 85세 된 여자 노인이 지속되는 허리 통증 때문에 노인병 전문의를 찾아 진찰하는 모습을 관찰한 글이다. “<span class='quot0'>몇 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span>”고 환자가 말했지만, 암의 전이 여부 등을 알아 보기 위해 우리나라 병원이라면 당연히 찍었을 CT나 엑스레이 등을 전혀 찍지를 않았다. 단지 환자의 발을 4시간여 꼼꼼히 진찰하고 4주 후 다시 내원하라는 약속을 잡았다. 85세 노인에게는 혹시 있을지 모를 암의 전이보다는 발이 온전치 못해서 넘어져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는 것이 보다 큰 위험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65세 이상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한, 암 검진이 불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다.<br/>요즘 속속 들어서는 노인요양병원의 형편을 보면, 이제 노인의료 제도의 패러다임을 시급히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 진다. 노인병원의 의사들은 대부분 종합병원을 정년 퇴직한 노년 의사들이다. 대학병원이며 종합병원들의 유명한 전문의들도 65~70세에 정년 퇴직을 하면, 위험한 개인병원 개원보다 요양병원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안과 의사도 외과의사도 노인요양원 내지 요양병원 행이다.<br/>미국에서 노인전문의를 지망하는 젊은 의학도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란다. 우리나라 형편은 더 심각하다. 여기서 한가지 방도를 제안하고 싶다. 요즘 의사들도 취업난이란다. 노인 의료복지로 천문학적인 돈을 흘려 보내는 게 우리네 형편이다. 이런 때, 국가가 보장하는 노인병 전문 의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눈앞에 닥친 고령시대를 대비하는 게 어떨까. 은퇴 후에도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걸 알면, 노인전문의 지망이 늘어날 거로 생각한다. 물론 성형외과 의사들처럼 당장 큰 돈은 못 벌겠지만, 늦도록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 주면 유능한 노인 전문의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년들은 제대로 된 의료처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의료 보험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이득이 있다. 이럭저럭 살아 갈 수 있는 노인을 젊은이들 기준으로 수술을 받게 하고 나서 하루 아침에 자리에 눕게 만드는 걸 무수히 봐 왔기에 하는 말이다.<br/>아틀 가완디는“<span class='quot1'>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심신의 능력이 쇠약해져 가는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면, 종종 너무 깊이 개입해서 손보고 고치고 제어하는 욕구를 참아야 한다</span>” 말한다.<br/>고광애 노년전문 저술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57.txt

제목: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초음파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날짜: 2016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17051342179  
본문: 질문 =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초음파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br/> <br/>답변 =요즘 전립선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초음파검사를 받고 병원을 찾는 환자를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br/> <br/>전립선초음파검사는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주로 소변 보기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에 있어 전립선비대증의 진단이나,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암이 의심되는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br/> <br/>초음파검사라고 해서 복부를 통해 장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는데, 보통 전립선초음파라고 하면 항문을 통해 초음파 탐침봉을 진입시켜서 하는 경직장초음파를 말합니다.<br/> <br/>복부를 통해 초음파로 전립선을 검사할 수는 있지만,전립선이 골반의 가장 깊은 곳이 있어 형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전립선의 크기 측정 또한 부정확합니다.이런 이유로 전립선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이 가장 가까운 위치인 항문의 바로 위쪽인 직장을 통해 관찰하게 됩니다.항문을 통해 보는 검사라고 하니 아프고 불쾌할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분 좋은 검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견디시고, 검사 시간도 대부분 아주 짧게 진행 됩니다.<br/> <br/>하지만, 사전 안내 없이 전혀 불편함 없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검사를 신청하셨다가 낭패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br/> <br/>40세 미만인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는 한 전립선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그리 유용하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는 전립선의 특이한 형태에 의해 불편이 생기는 것 같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밝혀지는 정보의 쓰임새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40세 미만의 환자에게는 전립선비대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지지 않고, 전립선암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br/> <br/>반면 나이가 40세 이상인 분이시라면 검진으로 전립선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 할 만 합니다. 40대의 30% 이상이 전립선비대증으로 분류 될 만큼,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전립선이 커지는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시작 되기 때문입니다. 전립선비대증은 그 자체로 오줌발을 약하게 해서 불편함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당장 증상이 없더라고 점차 방광의 힘을 많이 쓰게 하여, 방광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이 정상보다 큰 경우에는 현재 배뇨 기능의 이상을 체크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배뇨 기능의 저하를 막기 위해 비뇨기과 방문을 권유 드립니다.<br/> <br/>이영훈 원장은 일산연세비뇨기과에서 근무하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br/><br/>한국스포츠경제 master@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58.txt

제목: '일왕은 백제 후손' 밝힌 고대사 거두 우에다 교수 별세  
날짜: 2016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15051544537  
본문: 일본 고대사 연구의 태두로 일본 왕조가 백제의 후손임을 밝힌 우에다 마사아키(上田正昭) 교토(京都)대 명예교수가 13일 교토(京都)의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8세.<br/>우에다 교수는 한국과 중국 및 동아시아 관계를 중시하는 시각으로 일본 고대사를 연구했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지난 2001년 자신은 백제의 후손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고인의 연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일왕은 2001년 12월 “나 자신으로서는 간무(桓武) 천황(50대 일왕ㆍ737~806년)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續日本紀)’에 기록돼 있어 한국과 인연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br/>고인은 1960년대부터 백제와 일본 왕실의 혈연관계를 규명하면서 일본 우익들로부터 협박성 편지 등을 받아왔다. 그는 태평양전쟁 중 학도병으로 동원돼 도쿄의 조선소에서 공습으로 친구를 잃은 뒤 일본 역사의 뿌리를 연구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천황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을 계기로 고대사 연구에 입문, ‘일본고대국가론구(論究)’ ‘일본신화’ ‘고대 전승사(傳承史)의 연구’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특히 고대 조선사 연구에서도 굵직한 이정표를 남겨 2009년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엔 자신의 한일 고대사 연구활동을 회고한 ‘고대 일본 그리고 조선문화’를 펴냈다. <br/>고인은 생전에 일본의 개국신화가 단군신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대해 써온 ‘귀화인’이라는 용어가 ‘일본 중심적’이라고 지적하며, ‘도래(渡來)인’이란 용어로 바꿔 정착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조선학교를 지지하는 모임’의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또 강단 안팎에서 “전쟁이야말로 최대의 인권 침해”라고 역설하며, 재일조선인차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해왔다.<br/>1927년 효고(兵庫)현 출신으로, 1950년 교토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뒤 교토대 조교수와 교수를 거쳤다. 1991년부터 오사카여자대(현 오사카부립대) 학장(한국의 총장 개념) 등을 지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근래 암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에다는 지난 12일에도 외부행사에 참여했지만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돼 13일 오전 숨을 거뒀다고 NHK가 전했다. <br/>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59.txt

제목: [기획] 알파고로 본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날짜: 2016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15051447344  
본문: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과의 세기의 대결에서 3승을 거둔 가운데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자율주행·금융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는 모습이다.<br/> <br/> <br/>▲ 네오펙트, KEB하나은행, 기아자동차 제공. 이석인 기자<br/> <br/>■ 자율주행차, 글로벌 인공지능 대전되나<br/> <br/>인공지능 산업의 초석이 된 분야는 자율주행이다. 구글도 관심을 보이며 꾸준히 개발중인 자율주행차는 어느새 인공지능의 진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산업으로 떠올랐다.<br/> <br/>실제로 컨설팅사인 롤랜드버거는 2030년 자율주행차 시장이 최대 600억달러(한화 기준 약 6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br/><br/>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핸들, 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도로 상황을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br/> <br/>관련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HDA)을 비롯해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 등 다양한 시스템들을 구현해야 한다. 특히 지역별로 도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돼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br/> <br/>앞서 테슬라 모터스와 구글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 들었고 포드, 제너럴 모터스(GM)도 시장 진입에 나섰다. 특히 구글은 2010년 일본산 차량에 카메라, GPS 등 다양한 센서를 탑재해 자율주행차 초기 버전을 제작했다. 보완을 거듭한 끝에 2014년 시제품을 공개했으나 시범 가동 당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알파고의 수준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이다.<br/> <br/>독일의 BMW도 전기차 i3에 자동주차 기술을 탑재하며 관련 분야 진출에 나선 모습이다. 4개의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 주변 환경을 탐지하고 장애물과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눈길을 끌었다. 벤츠도 자율주행 자동차 'F105'를 소개했으며 스웨덴의 볼보는 도로에 자석을 설치해 차량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br/> <br/>중국의 최대 검색엔진 기업 바이두도 2014년 5월 로봇공확과 머신러닝(기계학습)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한 앤드루 응 스탠포드대 교수를 수석과학자로 영입하는 등 관련 분야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에 뛰어 들면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을 예고하고 나섰다.<br/> <br/> <br/>▲ 자율주행 중인 쏘울 EV 자율주행차. 기아자동차 제공<br/> <br/>최근 기아자동차도 'CES 2016' 행사에서 첨단 자율주행차를 대거 선보이며 2020년 관련 기술을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혀 자율주행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 <br/>■ 암 진단에 AI 활용…의료기술 연구 박차<br/> <br/>최근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활용도에 주목하고 있다.<br/> <br/>데미스 하사비스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도 "기계 학습은 앞으로 의료진이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틀이 될 것"이라며 "알파고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을 만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br/> <br/>현재 국내 의료진은 현재 암 등 주요 질병을 진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br/> <br/>서울아산병원은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컴퓨터가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 기반의 분석 및 진단 시스템을 개발한 스타트업 업체 뷰노(Vuno)와 제휴를 맺고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다. 뷰노는 영상 자료를 분석해 폐암 등 환자의 질병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AI '뷰노-메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뷰노-메드는 환자들의 의료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폐 질환 감염 여부를 빠르게 판단한다고 알려졌다.<br/> <br/>삼성서울병원도 '루닛'과 협력을 맺고 유방암 조기 진단에 대한 연구를 추진중이다. 루닛은 카이스트(KAIST) 출신의 공학도들이 창업한 벤처기업으로 딥러닝 기반 의료영상 판독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br/> <br/> <br/>▲ 네오펙트가 개발한 인공지능 재활치료기기 라파엘 스마트 글로브. 네오펙트 제공<br/> <br/>네오펙트는 재활의료기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환자 스스로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뇌졸중으로 팔 다리가 마비된 환자가 센서가 부착된 장갑을 끼고 가상현실 게임을 통해 재활훈련을 하는 '라파엘 스마트 글로브'를 개발해 가정용 재활의료기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br/> <br/>의료업계 관계자는 "하사비스 딥마인드 CEO가 예견한 것처럼 의료 분야는 현재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분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기술의 진화로 곧 인공지능만으로도 정밀한 진단을 내리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br/> <br/>■ 고수익·편의 제공, 금융계 부는 인공지능 바람<br/> <br/>금융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영역은 현재까지 투자와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br/> <br/>KEB하나은행은 지난 3일 자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Cyber PB'(사이버 피비)를 오픈하며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에 나섰다. 사이버 피비는 고객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목적을 분석한다. 이후 1:1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br/> <br/> <br/>▲ KEB하나은행이 선보인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사이버 피비. KEB하나은행 제공<br/> <br/>KB국민은행과 쿼터백투자자문이 선보인 로보어드바이저 자문형 신탁상품 '쿼터백 R-1'은 대표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로봇을 뜻하는 '로보(Robo)'와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다. 쿼터백 R-1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6개 자산군과 77개 지역, 920조 개 이상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투자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다.<br/> <br/>쿼터백 R-1은 일반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출시 2개월 만에 약 2%의 수익률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 계산하면 연이율이 12%대에 이르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br/> <br/>카드업계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객 편의 제공 서비스에 나섰다.<br/> <br/>카드 승인 데이터를 자체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고객의 카드 이용을 실시간으로 추적한 후 적합한 혜택을 제공하는 '스마트 오퍼링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고객이 휴게소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여행 중이라고 판단하고 주유 할인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br/> <br/>신한카드도 자사의 빅데이터 기반의 상품설계 시스템 '코드9(Code9)'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3040 남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편의점, 이동통신비 할인을 제공하는 'B.Big 카드'가 대표적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올 초 '빅데이터 트렌드 연구소'를 출범해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컨설팅을 추진하는 중이다.<br/> <br/>삼성카드의 경우 자사의 '스마트 알고리즘'을 활용한 카드 회원의 소비 패턴 변화를 314개 변수로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성향을 도출해 7가지 숫자카드를 만들었다. 특히 '삼성카드5 V2'는 국내외 활용이 동시에 보장돼 호응을 얻고 있다.<br/> <br/>금융계 관계자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러닝머신 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금융 상품들이 연이어 개발되고 있다"며 "소비 패턴에 따른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고, 고수익에 최적화된 투자 제시로 업계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br/><br/><br/>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60.txt

제목: 한일고대사 연구에 족적 남긴 日역사학계 거목 우에다 별세  
날짜: 2016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14051625067  
본문: "전쟁은 최대 인권침해" 주장…재일조선인 차별에도 목소리<br/><br/><br/>일본 고대사 연구의 1인자로 꼽혀온 우에다 마사아키(上田正昭) 교토(京都)대 명예교수가 13일 교토부(京都府)의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향년 88세. <br/> 고인은 태평양전쟁 중 학도병으로 동원돼 도쿄의 조선소에서 공습으로 친구를 잃은 뒤 '천황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을 계기로 고대사 연구에 입문, '일본고대국가론구(論究)', '일본신화', '고대 전승사(傳承史)의 연구'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br/> 특히 한국,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시각으로 일본 고대사를 분석했으며, 고대 조선사 연구 등에서도 굵직한 이정표를 남겼다. 그 공로로 2009년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br/> 고인은 생전 일본의 개국신화가 한국 단군신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대해 써온 '귀화인'이라는 용어가 '일본 중심적'이라고 지적하고, '도래(渡來)인'이라는 용어로 바꿔 정착시키기도 했다. <br/> 강단 안팎에서 "전쟁이야말로 최대의 인권 침해"라고 역설하고, 재일조선인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해왔다.<br/> 1950년 교토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뒤 교토대 조교수와 교수를 거쳐 1991년부터 오사카여자대(현 오사카부립대) 학장(한국의 총장 개념) 등을 지냈다. 근래 암 치료를 받아왔다고 교도는 전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61.txt

제목: 화장실 3개월여 가둔 채 온갖 학대… 거짓 문자 등 은폐 시도 들통  
날짜: 2016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14051605970  
본문: “대소변 못 가린다” 심한 매질하고<br/>영하 날씨에 찬물ㆍ락스 끼얹기도<br/>사망 열흘 뒤 평택 야산에 암매장<br/><br/>경찰, 계모에 살인죄 적용<br/>학대 인지한 친부 살인방조죄 검토<br/><br/>경기 평택에서 실종됐던 신원영(7)군은 계모의 모진 학대와 폭행으로 숨져 암매장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고, 친부에 대해선 살인방조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br/>이 사건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서는 원영이의 친부 신모(38)와 계모 김모(38ㆍ여)씨로부터 암매장 사실을 자백 받아 12일 오전 7시30분쯤 평택시 청북면 야산에서 원영이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영이는 친할아버지의 묘지에서 5m가량 떨어진 땅속 50㎝ 깊이에 운동복을 입은 채 묻혀 있었으며 백골화가 반쯤 진행된 상태였다. 인근에선 범행에 쓰인 삽 두 자루도 나왔다.<br/>조사결과 원영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일 오전 9시30분쯤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3개월여 간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갇혀 생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모가 벌인 짓이었다. <br/>계모는 화장실에서 원영이를 폭행하고 하루 한끼만 먹이는 등 학대했다. 원영이는 “캄캄하고 무섭다”며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발버둥쳤지만, 계모는 청소용 솔 등으로 매질을 하고 가뒀다. 올 1월28일에는 락스를 부었고 지난달 1일 오후 1시30분쯤엔 알몸에 찬물을 끼얹어 그대로 방치했다. 당시 평택 일대 최저기온은 영하 10도나 됐다. 친부는 이런 상황을 모두 알았지만 계모를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죽어가는 원영이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벌벌 떠는 아이 옆에서 멀쩡히 용변도 봤다. “<span class='quot0'>계모와 관계가 틀어지고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웠다</span>”는 게 그의 진술이다. <br/>친부 신씨는 그리고선 계모와 함께 원영이 시신을 이불에 싸 베란다에 두다 열흘 뒤인 지난달 12일 밤 10여km 떨어진 야산에 구덩이를 파 묻고 경찰 수사에 대비했다. 원영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원영이 잘 있지?”라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은폐를 시도했다. 원영이의 입학을 준비하듯 책가방과 신발주머니 등도 구입해 놨다. 차량 블랙박스에 꾸며낸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고 회사에 “아이를 찾는다”며 휴가를 내기도 했다. 미리 짜고 원영이가 살아있었다는 정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br/>수사 초기 이들의 허위 진술에 말려 혼선을 빚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계모의‘살인 몇 년 형’키워드 검색내용 등 증거를 들이밀어 자백을 이끌어 냈다. 암매장 이틀 뒤인 밸런타인데이 때 현장을 다시 찾은 이들이 인근 슈퍼에서 초콜릿 등을 산 내역을 확인, 원영이의 동행 여부를 물었더니 둘의 진술이 엇갈린 게 결정적이었다.<br/><br/>경찰은 또래 아이들 하위 10% 수준의 키(112.5cm)와 저체중(15.3kg)이었던 원영이의 사인이 “<span class='quot1'>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저 체온</span>”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계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구속영장만료 시한인 1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br/>친부에 대해서는 살인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2'>계모가 자신의 행위로 원영이가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됐다 본다</span>”며 “<span class='quot2'>친부도 오랜 기간 이어진 계모의 학대를 알고 있었던 만큼 살인 방조죄 적용을 검토 중</span>”이라고 말했다.<br/>한편 이날 평택시립추모공원에서 원영이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유해는 납골당에 안치됐다.<br/><br/>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62.txt

제목: “농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뭐하러 계산하나 물 부으며 살면 되지”  
날짜: 2016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12051314682  
본문: 찬 바람이 애쓰지만 성큼 다가온 봄<br/>부지런한 어르신들 감자 다 심었는데<br/>마을보다 느린 나, 게으름 인정할 뿐<br/>작년에 쌀ㆍ콩ㆍ감자 등 심어 팔았지만<br/>농사 잘 지어 남는 장사 한 것도 아냐<br/>알바 일자리가 가계부 부족 메워 줘<br/>올해 수익 계산해 봤자 속만 상해<br/>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세상<br/>계획은 무슨, 마음 편하게 살면 되지<br/>前 한국일보 기자 camaragaga@naver.com<br/> 어쩌다 보니 봄이다. 꽃이 샘을 부리든, 꽃에 샘을 놓든 그까짓 거 봄이다. 찬 바람이 애써보지만 산수유는 여지 없이 터졌고, 이제 매화도 그리 힘겨워 보이지 않는다. 부지런한 어르신들은 며칠 전 약속한 듯 동시에 밭을 갈더니 벌써 감자를 다 심었단다. 한 두 번 더 있을 추위에 “아이고 감자 싹 올라오는디 다 꼬실라져 뿔겄<span class='quot0'>네</span>” 하시겠지만 “꼬실라져두 날 놈은 다 나” 하는 다른 분의 말씀에 “그건 그려” 하고 넘어가실 터이다. <br/>물통을 빌리러 오봉댁 어머니께 들렀다가 감자 안부를 물었더니 “우린 안즉 밭두 안 갈았어요” 하셨다. 혹시나 하고 여쭤봤는데 대답으로 안심을 시켜주신다. 마을에서 조금은 늦게 심으시는 편이고 우리 집은 그 보다 한참 더 늦는다. 뭐든 그렇다. 하루 일과도 2시간 시차는 나고, 일년 통틀어도 보름씩은 밀린다. 뿌리고 심는 것도 그렇고 캐고 터는 것도 그렇다. 왜 그럴까. <br/>어느 신경생물학자라는 사람이 그랬다. “<span class='quot0'>늘 기분 좋고 행복한 사람은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밤낮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span>” 내가 그런 부류인가 했지만 생각해보니 아니다. 나는 별로 행복해 하지 않으면서 끈질기지도 않고, 밤낮 걱정하고 고민하면서도 문제 해결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남들보다 비교적 뛰어나다 싶은 것은 먹는 능력뿐이다. 결론은 그냥 게으르고 느려터진 습관의 덩어리라고 할 수 밖에 없겠다. 조금 아까 ‘뭐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부터 게으름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요 개선할 생각도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난치병이다.<br/><br/>어르신들이 뭔가에 대해 “늦어도 그때 꺼정은 해야 써” 하시면, 앞 뒤 다 자르고 ‘그때’만 귀에 쏙 들어온다. 그리고는 ‘그때’를 적기로 판단한다. 그렇게 엊그제 장을 담갔다. “<span class='quot0'>장 담글라믄 음력 정월은 넘기지 말아야 허는디</span>” 하시는 말씀은 들었다. 그래서 잡은 날이 정월 스무 아흐렛날이다. 데드라인을 이틀 앞두고 고추장과 간장을 담갔다. 그것도 간전댁할머니의 도움이 아니면 어려웠을 일이다. 다른 분들은 설 전에 다 마친 일을 미루고 미루다가 겨우 해 놓고도 반성할 줄 모른다. 아내는 “손 없는 날이<span class='quot0'>네</span>” 하며 좋아했다. 할머니도 우리에게 전염되신 걸까. “<span class='quot0'>뱀두 없고 용두 없응게 좋은 날이여</span>” 하셨다. 숫자 큰 달력에 보면 12간지 동물이 날짜마다 표시돼 있는데 그 중에 용이나 뱀이 있는 날은 장 담그기에 안 좋은 날이라고 하셨다. 어쩌다 잡은 날이 그랬던 거고 만약에 안 좋은 날에 걸렸어도 뭔 이유라도 끌어다가 잘 된 일로 만들었을 게 뻔하다.<br/><br/>어쨌든 마치고 나니 뿌듯했다. 고추랑 숯 띄우고 조릿대 끼워 메주를 누르는 할머니의 손은 매번 아름답다. 항아리 모양도 둥그런 내 몸을 닮은 것 같아 예쁘다. 물 부어 100일만 지나면 된장, 간장이 된다고 생각하니 봉이 김선달 마냥 쉽게 사는 기분이다. 메주를 만들기까지의 징그러운 과정은 이미 다 까먹었다. ‘물 좋다는 샘에 가서 150리터를 길어다 부었는데 간장이 그만큼이고 그걸 다 팔면 경운기 한 대 값도 가능하다. 흐흐’ 생각만 해도 좋다. 헌데 그냥 모자란 생각일 뿐이고, 그러니 흐뭇한 거다. 콩 농사 짓느라 들어간 땀이랑 돈, 메주 쑤다가 생긴 병이랑 약값은 아직 한 푼도 수중에 되돌아 온 것이 없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 어쩌면 밑 빠진 독인 줄도 모르고 물만 들입다 부은 짓일 수도 있다.<br/>가계부를 열어봤다. 재작년 처음으로 20만원 흑자의 쾌거를 올렸고, 작년에도 그만큼은 남겼다. 그렇다고 올해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다. 농사를 잘 지어서 남는 장사를 한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다행히도 부족을 메워준 거다. 아내는 평소 “작목 수를 확 줄이면 좋겠어. 유헌씨 몸이 감당을 못해요”를 입에 달고 산다. 농사라고 이제 쥐뿔만큼 알면서 실제로 안 하는 거 없다. 작년에도 쌀, 콩, 마늘, 양파, 생강, 울금, 감자, 고구마, 들깨, 무, 배추, 밤, 매실, 단감, 대봉이랑 살았다. 개복숭아, 돌배, 꾸지뽕, 호두나무도 관리했고, 감잎차, 우엉차, 뽕잎차도 만들었다. 간장이랑 된장 고추장도 팔았다. 누가 들으면 돈 좀 번 줄 알겠다. 가계부 끝자락에 농사 수입 총액을 보니 2,000만원이 조금 안 된다. 적지 않은 수입이다. 허나 사실은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다. 종자, 기계, 포장재, 택배비 다 빼고 계산하면 나만 슬퍼질까 봐 농자재 구입을 가계 소비로 넣는다. 그러고는 매출을 마치 수익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산다. 그게 마음이 편하다.<br/>아무래도 소품종 다량 생산은 위험하다. 시장가격 변동이나 풍수재해에도 취약하고, 병이 오면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가뜩이나 약효도 확실하지 않은 걸 만들어 뿌리면서 내 자식들만 튼튼하게 자라길 바라는 건 누가 봐도 욕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감자를 두 박스나 주문했다. 20kg짜리다. 반 박스 아니면 많아야 한 박스 심었는데 금년엔 조금 늘려보기로 했다. 작년에 반응이 좋았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욕심이 올라온 것이다. 얼마를 받을 지, 다 팔릴 지 알 수 없다. 이것 저것 따져봐야 기운만 빠진다.<br/>어제 전화 한 통에 맥이 풀렸다. 무슨 정부 기관을 대행해서 알아 보는 중이라고 고구마에 대해 물었다. “친환경으로 하시는 거 맞죠?” “<span class='quot0'>네</span>” “수익성 조사 중이에요. 몇 평이나 지으셨죠?” 마침 쉬고 있었고 농사일지도 근처에 있어서 모처럼 정부 일 좀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착실하게 대답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시작으로 모종값부터 택배비까지 자세하게 질문했다. 상대편 여자는 처음에는 아나운서처럼 말하다가 점점 사투리로 변했다. 다 대답하고 나니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그라믄 한 30만원 수익 보신거<span class='quot0'>네</span>요” 약간 허탈한 마음에 “그렇게 되나요?” 되물으니 짠하다는 투로 인사를 했다. “애쓰셨구마요.” 내 귀엔 ‘애만 쓰셨<span class='quot0'>네</span>요’로 들렸다. <br/>계획하고 계산한다고 뭐가 나아질까 싶었다. 그렇게 안 하고도 살아 왔고, 그러고도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말이다. 예상해 봤자 모르겠고, 뒤돌아 계산해 봤자 속만 상한 걸 뭐할라고 하나 싶었다. 그래도 안 할 수는 없다 싶었다. 더 불안했다. 다이어리를 펴고 대강 끄적여 봤다. 올해 심을 작목과 수량, 작년 시세를 기준으로 한 매출을 예상해보고 큰 돈 들어갈 곳과 생활비를 빼 보니 남지는 않겠지만 그럭저럭 살겠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힘들 듯 하다. 아내가 “돈이 되는 농사 없을까?” 했던 말에 고로쇠를 생각한 적도 있었다. 수액이 소주랑 똑 같은 가격으로 팔리는 걸 생각하니 역시 물 장사가 제일 낫다 싶었다. 그러다가 30도 넘는 오르막에 길도 없는 곳으로 물동이 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포기했다. 세상에 쉬운 건 없었다.<br/>잡생각 없애는 데는 일하는 게 최고다. 이장 친구한테 빌린 전동가위를 들고 농장 꼭대기부터 가지치기를 시작했다. 토종 매실이라고 얻어다 심었는데 억센 가시가 자동차 타이어도 빵꾸 낼 정도다. 조심한다고 했지만 결국 엄지 손가락에서 피를 봤다. 살짝 찔린 줄 알았는데 목장갑에 빨간 점이 점점 커졌다. 피가 난다고 더 아파지는 것도 아닌데 화가 치민다. ‘이걸 확’ 하는데 “행님 확 베 부러요!”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D동생이 기척도 없이 다가와 놀래 켰다. 동생을 향해서 ‘이걸 확’ 하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전화기를 내려보더니 혼자 떠든다. “흐미, 이세돌이 져 부렀<span class='quot0'>네</span>요. 알파고 이누무 자슥이 보통 놈이 아닌 갑<span class='quot0'>네</span>요.” <br/>알파고. 이름부터 맘에 안 들었다. ‘바둑’을 검색해 보면 영어사전에 ‘baduk’도 분명히 있는데 굳이 일본어 ‘고(碁)’를 영어로 써서 이름을 지은 거 아닌가. 그래 놓고는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음식 이름이나 고유명사 빼고 우리 말이 영어로 된 거라고는 화병(火病.hwabyung)이나 재벌(chabol) 같이 안 좋은 것 밖에 없는 건가. <br/>‘인간과 기계’의 대결이 있기 전부터 보통 기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지고 나니까 ‘애초에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느니, ‘구글은 바둑인들에게 사과하라’느니 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기계가 감히 인간을 이겼다는 것에 흥분한 모양새다. 나야 뭐 컴퓨터랑 고스톱을 쳐도 한 번을 못 이기는 판에, 컴퓨터(CPU) 2,000대가 국제적으로 작동한다는 놈이랑 게임 해서 진 게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는다. 바둑이라는 게임이야 어차피 사람끼리 즐기자고 하는 것이니 말이다. 단지 사람이 앉아서, 그것도 바둑 유단자라는 사람이 앉아서 기계가 시키는 대로 대신 돌을 놓아주고 있는 모양이 맘에 걸린다. 인간이 기계의 수족을 담당한 셈인데. 그래 놓고는 기계가 이겼다고 ‘달 착륙’이란다. 나는 좀 무섭다.<br/>“동생, 이건 인공지능이고 뭐고가 아니라 신이 내려온 거 같아. 저런 식으로 하면 뭘 못하겠나. 걔<span class='quot0'>네</span>가 게임만 하겠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면 사람만 못하겠나 아니면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라면 못하겠나. 문제는 그런 기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몰라.” 동생은 싸 들고 온 호박전과 막걸리 한 병을 꺼내며 답했다. “행님, 겁나요? 머가 겁나요. 인간이 빨리 디져야 지구가 건강해져요 행님. 봐요. 요즘 인간덜 하는 짓이 암 덩어리랑 똑같잖애요. 이렇게 막걸리나 묵고 하믄서 착하게 살다 가믄 되는 거제. 이거 잡사 봐요. 호박전 겁나 맛있응게”<br/>동생 말이 맞<span class='quot0'>네</span>.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쩌고 하는 뜬구름 같은 얘기보다 뱀 찾고 용 찾으며 살라<span class='quot0'>네</span>. 밑 빠진 줄 모르고 물 부어도 그냥 살면 되지. 계산은 해서 뭐하고 계획은 세워 뭐하겠나. 맘 편하게 전이나 부쳐 먹다 가면 되지. 그려. 그러세~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63.txt

제목: [인사]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김한근 外  
날짜: 2016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11051212292  
본문: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김한근 <br/>◆외교부 ▦조정기획관 이헌 ▦인사기획관 조구래 ▦동북아시아국장 정병원 [국장] ▦북미 여승배 ▦중남미 임기모 ▦국제법률 박철주 ▦문화외교 최영삼 ▦재외동포영사 김완중 ▦기후변화환경외교 이형종 ▦평화외교기획단장 김용현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이명렬 ▦기획부장 유혜란 [심의관] ▦동북아시아국 배종인 ▦북미국 김준구 ▦중남미국 허태완 ▦국제법률국 유기준 <br/>◆산업통상자원부 ▦홍보지원팀장 김창희 [과장] ▦수출입 이민우 ▦산업인력 박영삼 ▦입지총괄 신용민 ▦중동아프리카통상 최진혁 <br/>◆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이사] ▦기획관리본부장 이정기 [1급 본부장] ▦경영관리 남윤환 ▦자원기반 김상길 ▦자원개발 이무영 ▦운영사업 신기흠 <br/>◆건국대 ▦대학교육혁신원장 강황선 ▦창업지원단장 이철규 [센터장] ▦상허교양대학 기초교육 정의준 ▦상허교약대학 연구평가 김용운 ▦대학교육혁신원 부원장ㆍ교육성과관리 유병민 ▦산학협력단 실험동물연구 서한극 ▦IPP(기업장기현장실습) 강민형<br/>◆MBC ▦관계회사국장 성보영 ▦논설위원실장 김상운 ◇감사국 ▦국장 김풍철 ▦부국장 류시준 ▦감사1부장 최기현 ▦감사2부장 김판영 ◇경영인프라국 ▦부국장ㆍ총무부장 이재명 ◇매체전략국 ▦미래방송연구소장 정성후 ◇심의국 ▦국장 김지은 ▦TV심의부장 이효동 ◇드라마1국 ▦국장 박성수 ▦부국장 이주환 ▦드라마1부장 김도훈 ▦드라마2부장 김승모 ▦드라마3부장 신현창 ◇드라마2국 ▦국장 이창섭 ▦드라마기획제작1부장 김상호 ▦드라마기획제작2부장 박성은 ▦드라마해외제작부장 박홍균 ◇제작기술국 ▦부국장 양광춘 ▦종합편집부장 김현섭 ◇영상미술국 ▦국장 정찬래 ▦부국장 홍종완 ▦영상2부장 길창우 ▦미술부장 박용국 ◇광고국 ▦광고영업부장 김영진 ◇자산개발국 ▦테마투어사업부장 최윤희 ◇경인지사 ▦지사장ㆍ문화사업제작센터장 김석창 ▦고양의정부총국장(부장) 이종태<br/>◆가천대 길병원 [부원장] ▦진료1 최혜영 ▦진료2ㆍ외상센터장 이정남 ▦대외ㆍ국제의료센터장ㆍ척추센터장ㆍ신경외과장 김우경 [실장] ▦기획조정ㆍ공공의료사업지원단장 임정수 ▦의료정보ㆍ이비인후과장 김동영 ▦의료질관리 김홍순 ▦홍보 오진규 [부장] ▦진료기획ㆍ전산정보본부장 조용균 ▦진료1ㆍ마취통증의학과장 이경천 ▦진료2ㆍ재활의학과장 이주강 ▦교육수련ㆍ신장내과장 정우경 ▦연구지원ㆍ내과 이상표 [단장] ▦연구기획 최철수 ▦산학협력지원 김선태 [센터장] ▦VIP건강증진 권광안 ▦암 신동복 ▦심혈관 안태훈 ▦임상시험센터장 박연호 ▦응급ㆍ진료협력센터 소장ㆍ응급의학과장 양혁준 ▦소화기 김연수 ▦치매예방 연병길 ▦피험자보호 이주강 ▦장기이식센터장 이현희 ▦유헬스케어센터장ㆍ소화기내과장 박동균 ▦바이오뱅크센터장 하승연 [부센터장] ▦VIP건강증진센터 최수정 [소장] ▦여성암센터 박흥규 ▦임상의학연구 정성환 [과장] ▦소아청소년 류일 ▦심장내과 강웅철 ▦내분비대사내과 박이병 ▦혈액종양내과 조은경 ▦감염내과 문송미 ▦류마티스내과 백한주 ▦가정의학 서희선 ▦정신건강의학 조성진 ▦신경 박현미 ▦피부 이종록 ▦외과 박연호 ▦외상외과 현성열 ▦흉부외과 박철현 ▦정형외과 전득수 ▦성형외과 김양우 ▦비뇨기과 김계환 ▦산부인과 이광범 ▦안과 백혜정 ▦치과 문철현 ▦진단검사의학과 박필환 ▦병리과 조현이 ▦방사선종양학과 이규찬 ▦영상의학과 김정호 ▦핵의학과 김석균 <br/>◆LG그룹 ▶LG전자 ▦연구위원 강동우 김기문 박종욱 박태환 송재욱 양정휴 엄동기 우승균 이성규 임선경 최송 최인환 하재훈 홍성룡 홍언표 ▦전문위원 배권일 이건식 이중학 ▶LG디스플레이 ▦연구위원 고태운 김관수 김성기 김철세 유장진 유준석 장경근 ▦전문위원 김동선 문교호 임경남 진경종 ▶LG이노텍 ▦연구위원 배석 홍정하 ▦전문위원 유영빈 ▶LG실트론 ▦연구위원 조용준 ▶LG화학 ▦연구위원 구자훈 김건수 박민수 성주환 신정규 신준호 양두경 이광주 이동훈 정병준 ▦전문위원 허양현 ▶LG하우시스 ▦연구위원 이종훈 ▶LG생활건강 ▦연구위원 송영숙 안재현 진무현 ▶LG생명과학 ▦연구위원 박희동 ▦전문위원 이구 <br/>◆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총지배인 진승재 <br/>◆청주대 ▦교육혁신본부장 최미나 ▦교양교육본부장 한대균 ▦미래전략부장 류기문 ▦기업창업보육센터장 차형우<br/>◆KNN ▦대표이사 사장 문혁주(연임) [본부장] ▦상무 경영사업 이성림 ▦이사 방송 조승완 ▦이사 경남 김병근 ▦이사 서울 최용부 ▦이사대우 서부경남 김석호 <br/>◆울산MBC ◇보도국 ▦뉴스취재부장 이상욱 ▦뉴스취재부 선임기자 한창완 ◇경영기술국 ▦디지털기술부장 노경섭 ▦디지털기술부 UHD추진담당 김기홍 ▦UMX 파견 마동철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64.txt

제목: 놀라움 보여준 인공지능…인류에 축복일까 악몽일까  
날짜: 201603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10052231178  
본문: hongik@hankookilbo.com<br/>과학계에서는 이번 대국에서 나타난 인공지능의 무한한 능력이 인류의 생산방식, 시장구조, 생활양식 등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br/>알파고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인공지능과 달리 ‘딥러닝’ 기술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추론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해 이세돌 9단을 꺾었다. <br/>알파고의 승리는 인간처럼 학습한다는 ‘딥러닝’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진다. 신뢰를 확보한 딥러닝은 앞으로 산업계 전반에서 응용될 것으로 보인다.<br/>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CEO는 “<span class='quot0'>우리는 인공지능을 게임 이상에 활용하고 싶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능을 분석하고 인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궁극적으로 범용 학습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span>”라고 강조했다. <br/>인공지능 분야에서 구글과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IBM 역시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을 앞세워 암 치료와 사물인터넷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br/>현재 딥러닝은 빅데이터 분석, 얼굴 인식, 이미지 분류. 공장 자동화 로봇, 무인자동차, 개인비서 등에서 응용되고 있으나 곧 기후예측 등으로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br/>미래창조과학부는 가장 먼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로 주식거래 등 금융 서비스, 공장 자동화, 건강 관리, 의료 진단 번역, 기사 작성 등을 꼽았다. 인공지능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10년 뒤 2,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br/>반면 인공지능의 혁신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계 때문에 대량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이날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이제 사람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것 아니냐. 엄청난 숫자의 백수가 양산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왔다.<br/>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 등으로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br/>다만 과학계는 인간이 가진 지능 전반에서 기계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주요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등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추형석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span class='quot1'>향후 인공지능 활용의 파급효과가 엄청나겠지만 전 분야를 아우르면서 해결책을 내놓는 만물박사와 같은 인공지능이 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인간이 힘들어했던 감정노동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에 넘겨주고, 인간은 좀 더 창의적이거나 자발적 동기를 갖고 하는 일에 초점 맞출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65.txt

제목: “말기(4기) 위암, 위절제술 생존율 높이지 않아”  
날짜: 201603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09051429495  
본문: 위암 가운데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진 4기(말기)의 경우 위절제술을 해도 생존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위암 환자 가운데 원격 전이된 4기 환자는 11~12%, 5년 생존율은 5~6%로 알려져 있다.<br/>대한위암학회는 국내 15개, 일본 33개 의료기관의 외과 종양내과 예방의학 전문의 등이 공동 참여한 다기관 연구 결과, 전이된 4기 위암의 경우 위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한 집단이 항암치료만을 시행한 집단보다 생존율이 오히려 낮았다고 최근 밝혔다. <br/>양한광 대한위암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외과 교수)은 “<span class='quot0'>이번 연구에 따라 전이가 있는 4기 위암의 치료에서 위절제술은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span>”고 했다.<br/>이번 연구는 항암군 86명, 위절제술 후 항암군 89명을 대상으로 했다. 항암군의 2년 생존율은 31.7%, 위절제술 후 항암군의 생존율은 25.1%로 차이를 보였다. 항암군의 생존기간은 16.6개월, 위절제술 후 항암군의 생존기간은 14.3개월로 큰 차이는 없었다.<br/>양 이사장은 “<span class='quot0'>4기 암환자의 수술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는 위절제술이 항암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적 의미를 밝히는 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것</span>”이라고 했다.<br/>복강경을 이용한 위암 수술이 배를 여는 개복수술보다 수술 후 합병증을 적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가 국내 13개 의료기관에서 1,416명의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복강경수술을 받은 환자군은 수술 중 출혈이 적고 입원기간도 짧았다. 수술 후 합병증도 복강경수술군은 13%, 개복수술군은 19.9%로 차이를 보였다. <br/>박영규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 회장(화순전남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은 “<span class='quot1'>조기 위암에서 복강경수술의 유용성이 확인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진행성 위암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span>”고 했다.<br/>이번 연구 내용은 2014년 미국종양외과학회, 2015년 미국 임상암학회 발표에 이어 지난달 25일 암 전문 국제 학술지(Lancet Oncology)에 게재됐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66.txt

제목: “공중보건 위기 상황서 불통과 비밀주의는 화 키워”  
날짜: 2016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08052034188  
본문: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 5개년 마스터플랜 따라 중장기로 지속 추진해야 효과<br/>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호시탐탐 위협하는 위험인자에 바이러스나 세균, 암세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화학물질 기후변화 대기오염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전자파 방사능 인공조명….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선사하는 주변 환경과 문명의 이기(利器)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등 돌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 툭하면 터져나오면 불산 등 화학물질 누출 사고, 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을 떠올린다면 말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다름아닌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현실과 마주하지 않았던가. 공포의 지카바이러스가 시시각각 포위망을 좁혀오고 테러의 가능성까지 말하는 지금, 우리는 예기치 못한 재앙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걸까. 최재욱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장을 만났다.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는 총 121개에 이르는 고려대 부설 연구기관 가운데 돋보이는 연구 실적으로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br/><br/>- 환경의학이란 뭔가.<br/>“말 그대로 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건강 장애를 다룬다. 더 크게는 환경과 산업 발전, 지구환경과 인간, 환경과 건강 장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도 연구대상이다.”<br/>- 지난해 메르스로 홍역을 치렀다.<br/>“사태 당시 숱한 실패가 중첩됐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가 위험 소통에 실패한 것이 큰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불렀다. 우리나라는 비밀주의라 (위기)대응이 항상 늦을 수밖에 없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바이러스 사태 때 감염자의 강제격리 여부가 논란이 되자 바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는 문제점에 대해 쉬쉬하다 결국 드러나면 할 수 없이 뒷북 수습에 나서다 화를 키운다.”<br/>- 연구소 내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있던데.<br/>“공중보건 위험사태 때 사태를 관리하는 사람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면 안 된다. 미디어와 자연과학을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당시 하도 답답해서 정부에 위기관리 전담부서 만들라고 여러 번 말했다. 우리 연구소가 사태 전후 ‘건강정보 매체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를 했더니 사태 발생 뒤 보건복지부의 신뢰도 수치가 곤두박칠치더라.” <br/>- 작년 메르스에 이어 지카바이러스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감염병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br/>“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자격으로 전문가 단체들 의견 수렴해 국가감염병 예방ㆍ관리 5개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 감염병 대응은 10년 뒤까지 내다보면서 중장기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 재원 마련도 필요하고, 의보체계도 바꿔야 하고, 국민의 진료 관행도 달라져야 한다. 땜질식 처방을 하다가는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나올 것이다." <br/>- 요즘 불산 등 화학물질 누출에 지하철 고장 등 안전사고도 잦다.<br/>“우리는 1980년대 산업구조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산업 설비 수명은 최대로 잡아야 30년이다. 산업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br/>- 규제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건가.<br/>“지금 우리는 투입 방식 규제다. 투입 방식 규제(input regulation)란 시설 기준, 인력 기준 등을 ‘투입’ 할 경우 성과가 잘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규정이 있더라도 안 지키면 말짱 그만이라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가 국내에 해양안전 시스템이 없어서 발생한 게 아니다. 산업 고도화를 이룬 영국과 미국은 규제의 틀을 1980년대 이전에 민간 자율 방식으로 바꾸고 성과평가제를 도입했다. 민간 기업 등에 자율권을 주되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일벌백계하자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인ㆍ허가권 내려놓아야 규제의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br/>-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는 감염병 이외에도 많다.<br/>“인공조명도 핫이슈다. 빛 공해가 수면장애 이외에 암 발생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울시내 야간 인공조명 조도가 얼마나 되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었다. 과도한 조명 발견 시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도 구축 중이다.”<br/>- 예방의학의 도구로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br/>“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이 의료에도 도입되는 건 당연하다. 다만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화가 필요하다.”<br/>- 원격의료 여부를 놓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던데.<br/>“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 아니다. 의사들이 원격의료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치료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처방권을 달라는 거다. 또 원격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진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는거다. 원격의료에 따른 빅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을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다.”<br/>송강섭기자 erics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67.txt

제목: [건강 소식] 서울아산병원 암환자 수면장애클리닉 운영 등  
날짜: 2016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08052031224  
본문: 서울아산병원, 암환자 수면장애클리닉 운영<br/>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암 치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면증, 주간졸림증 등 각종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암 환자 수면장애 클리닉’(사진)을 운영한다. 클리닉 진료 시간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이다.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힘든 암 치료 과정 중 겪게 되는 수면장애는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span>”고 했다.<br/><br/>HIV복합제 ‘프레즈코빅스’ 보험 적용<br/>한국얀센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복합제 ‘프레즈코빅스’가 이달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프레즈코빅스는 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PI) 계열인 한국얀센의 HIV 치료제 ‘다루나비어’ 800㎎과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약동학 강화제(CYP3A4 효소 억제제) ‘코비시스타트’ 150㎎의 복합제다. <br/>한미약품, ‘한미탐스캡슐 0.4㎎’ 발매<br/>한미약품이 3상 임상을 통해 전립선비대증 1차 치료제로 인정받은 ‘한미탐스캡슐 0.4㎎(탐스로신 0.4㎎ㆍ사진)을 내놨다. 이 제품을 발매하면서 자사가 보유한 탐스로신 성분의 제품 브랜드를 '한미탐스'로 통일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받은 45세 이상 남성에게 탐스로신 0.4㎎을 투여한 결과, 탐스로신 0.2㎎보다 IPSS(국제 전립선증상 점수)가 71% 더 감소했다.<br/>동아에스티, 당뇨병 약 슈가논 출시<br/>동아에스티는 국내 26번째 신약으로 허가 받은 자체개발신약인 당뇨병치료제 ‘슈가논 정(사진)’을 발매했다. 이 약은 에보글립틴 5㎎을 주 성분으로 하는 DPP-4 저해 메커니즘의 먹는 혈당강하제다. 식사 및 운동요법 또는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br/>명문제약, 3세대 항생제 ‘타레린’ 내놔<br/>명문제약이 유럽 수입품목인 3세대 퀴놀론계 항생제 ‘타레린주500㎎(레보플록사신수화물ㆍ사진)’을 발매한다. 레보플록사신은 내성화된 그람양성균, 그람음성균, 비정형균까지 광범위한 항균작용을 나타내는 3세대 퀴놀론계 항생제로, 기존 오플록사신의 부작용은 줄이고 항균력은 극대화한 제품이다. 오플록사신 대비 2배 이상 강력한 항균작용을 나타내 저용량 투여가 가능하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68.txt

제목: “치아 빠진 남성, 폐쇄성폐질환 위험 4배”  
날짜: 2016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08052031750  
본문: 자연 치아가 빠진 남성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같은 폐쇄성폐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COPD는 폐 기능이 50% 이상 떨어져야 자각 증상이 나타나고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으면 생존율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암보다 무서운 병이다.<br/>윤형규ㆍ김세원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팀이 2012년 국민건강영양평가 자료를 이용해 폐 기능 검사를 받은 40세 이상 3,089명(남성 1,291명, 여성 1,798명)의 참여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br/>윤 교수팀은 폐 기능 검사결과에 따라 정상, 제한성, 폐쇄성 폐질환 그룹으로 구분하고 총 잔존 자연 치아의 개수는 세 번째 대구치(사랑니)를 제외한 28개로 정의했다. 연구결과, 잔존 자연 치아가 20개 이하인 남성은 자연 치아가 모두 있는 그룹에 비해 폐쇄성폐질환이 있을 위험이 4.18배 높았고 10개 이하면 4.7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성은 총 잔존 자연 치아 개수와 폐쇄성폐질환의 유의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br/>대표적인 폐쇄성폐질환인 COPD는 기관지가 좁아지고 숨차며, 가래, 호흡 곤란, 만성 기침 등이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이다. 입술과 손끝이 검은색으로 바뀌는 청색증이 나타난다. 심하면 한 걸음만 옮겨도 숨차고, 15㎝ 앞 촛불도 끄기 힘들 정도로 숨쉬기가 어렵고, 더 심해지면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우리나라 40세 이상의 유병률은 13.5%이며 65세 이상은 31.5%(질병관리본부ㆍ2013년 통계)이다.<br/>세계보건기구(WHO)의 전 세계 사망원인 3위, 한국인 사망원인의 6위다. 80~90%가 흡연이 원인이며, 손상된 폐 기능은 다시 회복되지 않기에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br/>윤 교수는 “<span class='quot0'>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구강 내 병원균이 아래 기도를 통해 쉽게 호흡기로 침투될 수 있고 치주질환과 관계된 침 속 효소들이 호흡기 환경을 바꿔 병원균이 쉽게 침투하기도 하며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켜 기도 점막의 병원균 방어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span>”고 했다.<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잔존 자연 치아의 개수가 COPD를 포함한 폐쇄성폐질환 진료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이번 연구는 ‘COPD 국제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OPD)’ 최신 호에 실렸다.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69.txt

제목: 소아암환자 후원, 멋지지 말입니다  
날짜: 2016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08052012451  
본문: 여심을 자극하는 대사로 안방극장을 사로잡더니 훈훈한 선행으로 대중의 마음을 완전히 훔쳤다.<br/> KBS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 중인 배우 송중기(31)가 지난 5년 동안 남몰래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치료비 후원을 지속해 왔다는 따뜻한 소식이 7일 뒤늦게 전해지면서 온라인이 뜨겁게 반응했다.<br/>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공식블로그는 지난 2일 ‘착한 연예인 송중기의 알려지지 않은 선행’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송중기가 2011년 이후 10명 이상의 소아암 어린이들을 비공개 후원을 해 왔다고 밝혔다. 2011년 이 재단이 주최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노랑 리본(Reborn)+’행사에 송중기가 참석한 인연이 기부의 시작이었다.<br/>블로그에 따르면 송중기는 군 복무 중에도 개인 돈으로 수 천 만원을 후원했고 당시에도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기를 원해 모두 비공개로 처리됐다.<br/>송중기는 이 밖에도 과거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 내레이션 출연료 전액을 기부했고 군복무 중에 발생한 네팔 지진 피해 어린이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담아 1억원을 유니세프에 쾌척하기도 했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로썸 엔터테인먼트는 블로그의 글이 사실이라면서도 “본인이 조용히 돕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했다.<br/>그의 선행 소식에 네티즌들도 “잘생긴 얼굴에 탁월한 연기력도 모자라 인품까지. 역시 송배우”(ca\*\*\*\*), “기부라는 게 돈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송중기씨 마음까지 부자네요”(ee\*\*\*), “유시진(‘태양의 후예’ 속 송중기의 배역) 중대장님 정말 멋지지 말입니다”(ree\*\*\*\*) 등의 글을 올리며 얼굴처럼 훈훈한 송중기의 마음씨를 응원했다. <br/>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70.txt

제목: 콩팥 중요성 증가, 만성콩팥 질환 똑바로 알기  
날짜: 2016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08051913870  
본문: 최근 콩팥 건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br/>하지만 콩팥 질환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9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만성콩팥병 진료인원은 2009년 9만596명에서 2013년 15만850명으로 연평균 1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연평균 14.5%, 여성은 연평균 12.3%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노년층의 증가 비율이 높아 60세 이상은 연평균 8.3%, 70대에서는 13.5%, 80세 이상은 17.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 한국스포츠경제 DB <br/><br/>문제는 당뇨병, 고혈압 등의 동반질환을 보유한 고령층들의 환자 비율이 높다 보니, 이들 환자들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br/>치료가 잘 되지 않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투석을 받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남자 65.3%, 여자 68.0%이며, 특히 당뇨병과 같은 합병증이 있는 경우 5년 생존율은 56.9%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과 같은 국내 주요 암질환의 5년 생존율과 비교 시 더 낮은 실정이다.<br/>콩팥은 300g정도 무게의 작은 장기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은 1분에 약 1리터에 달한다.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라고 불리는 콩팥의 필터에서 분당 120ml정도로 걸러지는데, 이 양을 '사구체여과율'이라고 하며 콩팥 기능의 척도가 된다.<br/>우리 몸이 정상적인 생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콩팥의 조절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뿐 아니라 인체의 기관 중 몸의 산도와 수분 삼투압,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해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혈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br/>콩팥의 손상으로 콩팥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을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CKD)'이라고 하는데 단백뇨 혹은 혈뇨 등의 콩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GFR)이 60 ml/min/1.73㎡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br/>만성 콩팥병의 3대 주요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은 전체 발병 원인의 50%에 해당할 만큼 만성콩팥병의 주요 원인이다. 대한신장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일반인보다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을 확률은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최근 식습관이 바뀌어 칼로리 섭취가 많아지고 비만 및 과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이 증가, 이로 인한 콩팥병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으로 인한 콩팥병은 당뇨병 유병 기간이 늘어날수록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하는 말기 신부전증으로의 진행이 빠르며 동반된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다.<br/>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류동열 교수는 "만성콩팥병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질병의 특성상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환자가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평소 관심을 갖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단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br/><br/>◇이대목동병원, 만성콩팥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br/>▲ 식이요법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X)<br/> 식이요법만으로는 만성콩팥병을 극복할 수 없다. 전문의와의 상의를 통해 원인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콩팥에 해가 되는 것을 피하며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치료해야 한다.<br/>▲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X)<br/>너무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것은 잘못이다. 과일과 채소는 본인의 상태에 알맞은 양을 섭취해야 한다. 만성콩팥병 환자의 식이요법은 콩팥병 단계와 자신의 현재 신체 상태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처방된다.<br/>▲잡곡밥이 흰쌀밥보다 좋다(X)<br/>흔히 잡곡밥은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어 건강식으로 불리지만 만성콩팥병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잡곡밥에는 인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인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면 가려움증과 관절통이 나타나고 심하면 뼈가 쉽게 부러지기도 한다.<br/>▲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X)<br/>무조건 많이 섭취해서는 안된다.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저나트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분은 갈증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만 섭취하면 된다. 갈증은 짜게 먹은 경우 느끼게 되며, 과도한 염분 섭취는 고혈압과 부종을 일으켜 콩팥 질환 악화의 주범이 된다. 콩팥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식습관은 저염 식이의 생활화이다.<br/>▲ 만성콩팥병으로 복용하는 약은 건강보조식품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X)<br/>건강보조식품 중에 콩팥 기능 보호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직 없다. 오히려 콩팥 기능에 손상을 주거나 체내 축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약만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일부 항생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진통제), 방사선 검사를 위한 조영제 등은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다.<br/>만성콩팥병 환자라면 약을 복용하거나 검사를 받아도 되는지 반드시 되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71.txt

제목: 콩팥 중요성 증가, 만성콩팥 질환 똑바로 알기  
날짜: 2016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08051846714  
본문: 최근 콩팥 건강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br/> <br/>하지만 콩팥 질환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9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만성콩팥병 진료인원은 2009년 9만596명에서 2013년 15만850명으로 연평균 1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연평균 14.5%, 여성은 연평균 12.3%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노년층의 증가 비율이 높아 60세 이상은 연평균 8.3%, 70대에서는 13.5%, 80세 이상은 17.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 <br/> ▲ 한국스포츠경제 DB <br/>문제는 당뇨병, 고혈압 등의 동반질환을 보유한 고령층들의 환자 비율이 높다 보니, 이들 환자들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br/> <br/>치료가 잘 되지 않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투석을 받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남자 65.3%, 여자 68.0%이며, 특히 당뇨병과 같은 합병증이 있는 경우 5년 생존율은 56.9%로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과 같은 국내 주요 암질환의 5년 생존율과 비교 시 더 낮은 실정이다.<br/> <br/>콩팥은 300g정도 무게의 작은 장기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은 1분에 약 1리터에 달한다.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라고 불리는 콩팥의 필터에서 분당 120ml정도로 걸러지는데, 이 양을 '사구체여과율'이라고 하며 콩팥 기능의 척도가 된다.<br/> <br/>우리 몸이 정상적인 생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콩팥의 조절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뿐 아니라 인체의 기관 중 몸의 산도와 수분 삼투압,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해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혈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br/> <br/>콩팥의 손상으로 콩팥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을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CKD)'이라고 하는데 단백뇨 혹은 혈뇨 등의 콩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과율(GFR)이 60 ml/min/1.73㎡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가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br/> <br/> <br/>만성 콩팥병의 3대 주요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은 전체 발병 원인의 50%에 해당할 만큼 만성콩팥병의 주요 원인이다. 대한신장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일반인보다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을 확률은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 <br/>최근 식습관이 바뀌어 칼로리 섭취가 많아지고 비만 및 과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당뇨병이 증가, 이로 인한 콩팥병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으로 인한 콩팥병은 당뇨병 유병 기간이 늘어날수록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하는 말기 신부전증으로의 진행이 빠르며 동반된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다.<br/> <br/>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류동열 교수는 "만성콩팥병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질병의 특성상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환자가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평소 관심을 갖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단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br/> <br/>이대목동병원, 만성콩팥병에 대한 잘못된 상식<br/> <br/>▲식이요법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X)<br/> <br/>식이요법만으로는 만성콩팥병을 극복할 수 없다. 전문의와의 상의를 통해 원인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콩팥에 해가 되는 것을 피하며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치료해야 한다.<br/> <br/>▲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X)<br/> <br/>너무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것은 잘못이다. 과일과 채소는 본인의 상태에 알맞은 양을 섭취해야 한다. 만성콩팥병 환자의 식이요법은 콩팥병 단계와 자신의 현재 신체 상태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처방된다.<br/> <br/>▲잡곡밥이 흰쌀밥보다 좋다(X)<br/> <br/>흔히 잡곡밥은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어 건강식으로 불리지만 만성콩팥병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잡곡밥에는 인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인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면 가려움증과 관절통이 나타나고 심하면 뼈가 쉽게 부러지기도 한다.<br/> <br/>▲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X)<br/> <br/>무조건 많이 섭취해서는 안된다.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저나트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분은 갈증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만 섭취하면 된다. 갈증은 짜게 먹은 경우 느끼게 되며, 과도한 염분 섭취는 고혈압과 부종을 일으켜 콩팥 질환 악화의 주범이 된다. 콩팥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식습관은 저염 식이의 생활화이다.<br/> <br/>▲ 만성콩팥병으로 복용하는 약은 건강보조식품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X)<br/> <br/>건강보조식품 중에 콩팥 기능 보호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직 없다. 오히려 콩팥 기능에 손상을 주거나 체내 축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약만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일부 항생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진통제), 방사선 검사를 위한 조영제 등은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다.<br/> <br/>만성콩팥병 환자라면 약을 복용하거나 검사를 받아도 되는지 반드시 되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72.txt

제목: 오염된 땅, 절망은 뱃속에서부터 잉태됐다  
날짜: 2016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07051728624  
본문: “아직 아이한테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꺼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지금 사는 것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br/>열두 살 이리나 시텐코바양의 어머니는 딸의 눈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100㎞ 남짓 떨어진 벨라루스의 부다 코샬레바. 여기서 만난 시텐코바양은 구순구개열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또 쉽게 피곤해지고, 매달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정도로 잔병치레가 잦아 한 해 늦게 학교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는 “친가와 외가 모두 체질이 건강한 편이다. 다만 애 아빠가 체르노빌 사고로 심하게 오염된 이곳, 부다 코샬레바 출신”이라고 했다. <br/>이 지역 비영리단체 ‘체르노빌의 아이들’에 따르면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전에는 구순구개열 장애아동이 지역 내 한 명도 없었다. 구순구개열은 서양보다 동양에서 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그러나 부다 코샬레바에서는 사고 뒤부터 발견되기 시작해, 현재 8명의 아동이 같은 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최악의 원전사고가 난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 고통이 사라지기는커녕, 세대에 걸쳐 대물림되고 있다고 이 곳 사람들은 믿고 있다.<br/><br/><br/>태어날 때부터 건강을 잃은 아이들<br/>국제단체 ‘체르노빌의 아이들’ 홈페이지에는 한두 달에 한 번 꼴로 부고가 올라온다. 모두 체르노빌 사고 영향으로 선천적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다.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또래보다 훨씬 몸집이 작고, 생전에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다는 점은 같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러시아 등 체르노빌 사고로 집중 피해를 입은 지역의 아동 80%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고 있다. 단체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매년 약 5,000명의 태아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난다고 밝혔다. <br/>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정부 당국이 공식 인정한 것은 방사성 요오드 노출로 인한 갑상선암뿐이다. 이는 사고 뒤 4~5년이 지나 어린이와 청소년층에서 눈에 띄게 발병률이 증가했다. 뒤늦게 발견된 건 그전까지 제대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던 탓이 컸다. 갑상선암은 1995~96년 어린이, 청소년 환자수가 사고 이전에 비해 최고 39배에 이르는 등 피폭과 상관관계가 가장 뚜렷한 질병이다.<br/>반면 백혈병이나 다른 희귀질병은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폭이 그 원인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각종 연구자료 및 통계를 통해 체르노빌 사고 뒤 다양한 질병이 세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를 테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체르노빌 사고 25주기에 발간한 보고서조차 “<span class='quot0'>피폭자 2세들에게서 발병률 및 유병률이 일반아동보다 높다</span>”고 지적한다. 또 2009년 등록된 환아가 1992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질환별로 나누면 ▦내분비계는 11배 ▦근골격계는 5배 ▦소화계 5배 ▦정신 및 행동장애 4배 ▦심혈관질환은 4배 더 많았다. <br/>통계보다 실상은 더욱 참혹하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방문한 비영리단체 ‘젬랴키’는 오염지역 출신이나 원전노동자였던 부모에게서 태어나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크라시스카야 타마라 대표는 “<span class='quot1'>2000년대 들어 태어난 아이들 중 다운증후군, 걷지 못하거나 말을 못하는 아이, 아예 얼굴 없이 태어난 아이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부모가 병으로 죽은 경우도 있어 이처럼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전세계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소아과 의사 출신으로 1989년 부다 코샬레바에 비영리기구 ‘체르노빌의 아이들’을 설립한 발렌티나 스몰니코바 대표도 “<span class='quot2'>사고 이전 이곳 아이들에게서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뇌종양, 안암, 신장암 등 다양한 암이 발병하고 있다</span>”고 했다. 그에 따르면 사고 초기에는 골암이나 피부암이, 몇 년 지나서는 갑상선암과 백혈병 환자가 늘어갔다. 이제는 이 지역에서 열에 한 명 정도가 건강하게 태어날 뿐, 대다수가 면역력이 낮고, 각종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도 했다.<br/><br/><br/>해외로 요양가는 아이들<br/>이리나 시텐코바양은 열 살 때부터 아일랜드와 독일 두 곳을 혼자 다녀온 경험이 있다. 체내 방사능 수치를 낮추기 위해 청정한 나라로 이른바 ‘요양 여행’을 간 것이다. 그는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아일랜드에서 줄지어선 나무들을 보니 신기하고 좋았다. 바다에서 처음으로 수영을 해본 것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며 활짝 웃었다. <br/>아직도 국토 상당부분이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벨라루스의 아이들에게는 이 같은 ‘요양 여행’이 흔하다. 행선지는 벨라루스 북쪽 지역부터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에 한정돼 있다. 과거에는 히로시마 원폭 경험으로 강한 연대감을 표하던 일본도 포함됐지만 후쿠시마 사고 뒤부터 그 길은 막혔다. <br/>물론 벨라루스 일반 가정 수입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국제사회 도움을 받는 비영리단체들이 주축이 돼 현지 가정과 아이들을 연결시켜주고, 항공료 및 일체 비용을 부담한다. 한 번 다녀온 뒤부터는 현지 가정이 자부담으로 아동들을 재초청할 수 있어 여러 번 같은 곳을 다녀온 아이들도 많다. 또 의사와 통역까지 동행하는 ‘요양 캠프’도 있는데, 이는 단순히 현지에 머무는 것 외에 치료에 초점이 맞춰진 체계적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깨끗한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시는 것 자체가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자유롭게 바깥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호응도는 높은 편이다. 2년 전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요양을 다녀온 스비야토슬라브(15)군은 가기 전 750베크렐이던 체내 세슘 수치가 100베크렐로 줄었다. 선천성 천식을 앓고 있는 그는 “<span class='quot2'>공기가 맑아 숨쉬기가 편했다</span>”며 “<span class='quot2'>반 친구들 대부분이 이런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안다</span>”고 했다. <br/><br/><br/>후쿠시마도 체르노빌을 닮아간다<br/>재앙으로부터 5년. 후쿠시마 아이들도 아프다. 체르노빌 아이들이 그랬듯이 사고 직후부터 두통이나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다. 갑상선암 발병 및 의심환우도 급격히 늘었다. <br/>지난해 10월 오카야마 국립대 쓰다 도시히데 교수팀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후쿠시마에 거주하는 청소년 갑상선암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발병률이 일본 평균보다 2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내 검진이 늘어나 발병 사례도 많은 이른바 ‘스크리닝 효과’라고 항변했지만 츠다 교수팀은 “<span class='quot3'>스크리닝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span>”라며 “<span class='quot3'>후쿠시마 결과는 체르노빌 사고 4년 뒤 벨라루스의 갑상선암 발병률과 비슷하다</span>”고 강조했다.<br/>비만도 문제다. 지난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조사에서 후쿠시마 9세 아동의 15.07%가 비만으로, 전국 평균(8.14%)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외에도 6, 7, 11, 12, 13세 아동들이 다른 지역보다 뚱뚱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가 위치한 도호쿠 지방은 유난히 추운 겨울 탓에 실내활동이 많아 다른 지역 아이들에 비해 살찐 경향이 있었지만, 이 비율은 후쿠시마 사고 뒤 급격히 증가했다. 공기 중과 토양 표면 등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 탓에 바깥활동을 자제해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r/>체르노빌에서 배운 것일까. 후쿠시마에는 일찍부터 ‘요양 여행’이 생겨났다. 오키나와, 홋카이도, 오사카 지역 등으로 아이들을 보내 흙을 밟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 가운데는 과거 벨라루스 아이들을 받았던 곳도 상당수다. 한 시설 관계자는 “<span class='quot4'>(체르노빌의 아이들을 받으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3ㆍ11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뿐 아니라 도쿄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다</span>”고 귀띔했다. <br/><br/><br/>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br/>세월이 흘러도 방사능의 공포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염된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생산된 식품으로 인한 피폭 때문이다. ‘체르노빌의 아이들’의 발렌티나 스몰니코바 대표는 “<span class='quot2'>사고 뒤 반경 30㎞ 내를 강제피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많은 지역이 그 밖에 있어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2'>(부다 코샬레바의 경우) 10년이 지나도 자체 측정 결과 규정치 아래로 제염된 곳이 한 곳도 없었고 그 결과 지역 생산물을 먹었던 사람들은 내부피폭을 피할 수 없었다</span>”고 했다. 그는 이어 “벨라루스는 연간 피폭허용량이 1msv인데 일본은 20msv로 매우 높다. 더구나 겨우 4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피난민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아베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뉴스를 보고 놀라 ‘체르노빌의 아이들’ 이름으로 말도 안 된다는 항의서한을 보냈다고도 했다.<br/>스몰니코바 대표의 말처럼 후쿠시마의 상황은 어쩌면 체르노빌보다 훨씬 암담할지도 모른다. 후쿠시마 땅 곳곳에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검은 자루들은 갈 곳이 없다. 중앙정부가 둘 곳을 정하더라도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후쿠시마 사람들은 제염작업이 끝난다 해도 학교와 집, 논밭을 가리지 않고 쌓여있는 이 자루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br/>후쿠시마 어머니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다라치네’ 소속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인 노자키 아유미씨는 “<span class='quot5'>후쿠시마에 살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음식은 일절 사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5'>정부가 안전하다고 하는 지역도 직접 측정해보면 주변에 핫스팟(방사선 수치가 높은 지점)이 종종 발견되는 만큼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span>”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후쿠시마 내 고등학교에서 이론과 실기수업을 병행해 원전 내에서 일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폐로까지 30~4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후쿠시마가 더 절망적인 것은 아이들이 커서 결국 원전이나 제염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강조했다. <br/>부다 코샬레바에서 ‘체르노빌의 아이들’을 방문했을 때 스몰니코바 대표는 인터뷰에 앞서 정찬을 준비해 취재진에게 권했다. 지역식품으로 만들었지만 자체 개발한 경작 및 조리법으로 방사능 수치가 매우 낮은 밥상이라고 했다. 가령 음식에 대한 세슘 기준치는 ㎏당 100베크렐이지만 상 위의 양배추는 7베크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단체는 음식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백서를 소형책자로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체르노빌을 겪지 않은 젊은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었다. 그는 “<span class='quot5'>방사능과 같이 살아야 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고 교육하는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5'>진실을 알리려는 시도 때문에 정부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로 풀어갈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br/>체르노빌?후쿠시마=김혜경 프리랜서기자 salutkyeong@gmail.com<br/>다무라 히사노리 기자 hisanori.ymr@hotmail.f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73.txt

제목: '레버넌트' 감독 이냐리투는 누구인가  
날짜: 2016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07051647449  
본문: 멕시코에서 나고 자랐고, 멕시코에서 주로 활동했다. 좀 늦게 영화계에 발을 디뎠고, 빠르게 인지도를 얻었다. 멕시코 라디오방송에서 진행자로 시작한 이력은 TV와 광고 연출, 영화음악 작곡을 거쳐 영화 연출에 이르렀고, 종국엔 할리우드까지 다다르게 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88회 미국 아카데미영화상 시상식에서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레버넌트)로 지난해에 이어 감독상을 수상한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53) 감독의 범상치 않은 다재다능한 이력에 대한 짧은 설명이다.<br/>이냐리투는 쉽게 정의 내리기 힘든 감독이다. 월드시네마(제3세계 영화라고도 한다) 영역에서 경력을 쌓고선 할리우드의 주요 인사가 됐다. 할리우드의 전설 존 포드와 조셉 맨키위츠 감독 이후 사상 세 번째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2연패했으나 주류라는 수식이 어울리지는 않는다. 그의 멕시코 동료 기예르모 델 토로(‘퍼시픽림’)나 알폰소 쿠아론(‘그래비티’) 감독과 달리 그는 여전히 월드시네마의 감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색깔을 지키면서 할리우드의 인적ㆍ물적 지원을 받는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br/><br/>세계 여행이 빚어낸 코스모폴리탄<br/><br/><br/><br/>이냐리투는 16세 때 화물선에 몸을 실었다. 배를 타기 전 그의 주머니에는 100달러가 있었다. 부유하지 못했으나 아들이 호연지기를 품고 살아가길 원했던 그의 아버지가 준 ‘선물’이었다. 화물선에서 일을 도우며 그는 2년 동안 세계를 주유했다. 10대 후반에 경험한 선원 생활과 세계 여행은 이냐리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냐리투 영화의 무국적성과 다국적성은 10대 후반에 싹텄다.<br/>이냐리투는 2000년 첫 장편영화 ‘아모레스 페로스’로 세계 영화계에 자신을 알렸다. 세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옴니버스영화는 개를 매개로 지옥도 같은 멕시코의 현실을 전한다. ‘아모레스 페로스’로 그는 칸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 대상을 받았다. 곧바로 그는 할리우드 배우 숀 펜과 나오미 와츠, 베니치오 델 토로를 주연으로 한 ‘21그램’(2003)을 연출한다. 자국에서 한 동안 자신의 영화세계를 만들어 가다가 외국 자본이나 인력과의 작업을 모색하는 여느 예술영화 감독과 달리 빠르게 할리우드에 진입한 셈이다.<br/>세 번째 장편영화 ‘바벨’(2007)의 조합도 묘하다.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와 케이트 블랜챗, 일본 국민배우 야쿠쇼 코지와 신인 기쿠치 린코가 출연한다. ‘아모레스 페로스’와 ‘21그램’처럼 단 하나의 서사로 영화를 전진시키지 않고 서로 느슨하게 연결된 여러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바벨’은 모로코 여행 중 미국 여인 스잔(케이트 블랜쳇)이 총격을 당하면서 미국과 멕시코,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다. 나비효과를 모티브로 삼은 영화인데 제목이 암시하듯 지구촌이라는 수식 속에 살면서도 소통하지 못하는 인류의 현실을 비관적으로 은유한다. 이냐리투는 ‘바벨’로 칸영화제 감독상을 받았고,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멕시코 감독으로선 모두 최초의 일이다.<br/>이냐리투는 2010년 ‘비우티풀’로 제3세계 예술영화 감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스페인 출신의 유명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을 주연으로 내세웠으나 ‘비우티풀’은 월드시네마로서의 특징으로 무장했다. 관광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캔버스 삼아 세계화가 만들어낸 지옥도를 그려낸다. 말기암에 시달리면서 어린 두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남자 욱스발(하비에르 바르뎀)을 중심으로 한 불법취업자들과 스페인 빈민의 비극적 삶이 가슴을 누르는 작품이다. 스페인어권 출신이라는 감독의 정체성, 남미와 스페인을 잇는 정신적 연결고리에 대한 묘사, 세계화의 거센 물결에 휩싸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동정 등이 뒤섞인다. <br/><br/>영화 주변부에서 할리우드 중심으로<br/><br/><br/><br/>이냐리투가 4년 만에 내놓은 ‘버드맨’(2014)은 낯설다. 그의 영화 궤적에서 꽤 많이 이탈한 영화다. 마이클 키튼과 나오미 와츠, 엠마 스톤, 에드워드 노튼이 출연한다. 할리우드 배우를 곧잘 캐스팅해 온 이냐리투이기에 배우 진용은 특별하다 할 수 없다. 무국적 또는 다국적성을 띠던 그의 전작들과 달리 ‘버드맨’의 배경과 이야기 얼개는 지극히 미국적이다.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가 주요 공간적 배경인 이 영화는 미국 유명 단편소설 작가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말하지 않는 것들’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할리우드 스타로 한때를 풍미했으나 브로드웨이의 퇴물이 된 리건(마이클 키튼)의 망상과 일상을 그려내며 냉혹한 쇼비즈니스의 세계를 전한다. 여러 인물들의 다양한 사연을 재즈 음악을 곁들이며 끊김 없는 듯한 카메라 움직임으로 묘사하는 형식미가 인상적이다. 곁가지를 뻗을 것 같은 개개 인물의 사연을 리건의 욕망으로 수렴해내는 연출력으로 이냐리투는 지난해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안았다.<br/>‘버드맨’은 멕시코 출신 이냐리투라는 이국성을 제외하면 온전한 할리우드 영화다.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용광로에서 세계의 여러 스태프와 배우들이 모여 영화를 만드는 일은 그저 일상이다. 월드시네마의 영역에서 할리우드 스태프와 협업하거나 자본의 지원을 받는 길을 걸어온 이냐리투는 ‘버드맨’으로 ‘할리우드 감독’이 된다. 옛 유고슬라비아 출신 에밀 쿠스트리차(‘아리조나 드림’)나 독일 유명 예술영화 감독 빔 벤더스(‘해밑’), 박찬욱(‘스토커’) 감독 등이 할리우드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경우와 대조적이다. 이냐리투의 상대적으로 짙은 무국적성이 할리우드 착근에 큰 힘이 됐으리라.<br/>‘레버넌트’로 이냐리투는 할리우드에 안착한다.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라는 큰 별과 톰 하디, 돔놀 글리슨이라는 또 다른 별들이 주연한 이 영화의 제작비는 1억3,500만달러(약 1,630억원)다. 블록버스터급에 해당하는 제작비가 들어갔는데도 이냐리투는 자기 연출 방식을 버리지 않는다. 미 대륙에서 펼쳐지는 초인적인 활극에 오락성을 극대화하기보다 오래 찍기와 자연광 고수라는 작가주의 스타일을 새긴다. 그는 지난해 연말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절에서 볼 만한 영화”라고 ‘레번넌트’를 소개했다. 그는 “왜 사람들이 놀랍고 볼거리가 가득 차고 흥겨운 롤러코스터 같은 영화만 보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왜 대작은 지적이거나 인간애를 지녀서는 안 되냐”고도 물었다.<br/><br/>배우에게 영예를 안기는 감독<br/><br/><br/><br/>이냐리투는 자신의 영화이력을 통해 스타를 만들기도 했으나 스타에 강하게 기대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영화를 발판으로 스타는 더욱 높은 인지도를 얻거나 이전에는 얻지 못한 명예를 가져갔다.<br/>‘아모레스 페로스’의 주인공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은 이냐리투를 통해 스페인어권 스타가 됐고 곧 월드 스타로 자리잡았다. 펜은 ‘21그램’으로 베니스국제영화제 최우수남자배우상을 받으며 연기 인생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피트는 ‘바벨’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드물게 올랐고, 바르뎀은 ‘비우티풀’로 칸영화제 최우수남자배우상을 받았다.<br/>‘버드맨’은 키튼의 부활을 알렸다. 1990년대 ‘배트맨’ 시리즈로 전성기를 누렸던 이 배우는 ‘버드맨’으로 지난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유력 후보로 거론됐고,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스포트라이트’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다. 디캐프리오는 ‘레버넌트’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처음 거머쥐며 많은 화제를 뿌렸다. 배우들에게 이냐리투는 유명 영화상 수상권에 근접하는 일종의 발판인 셈이다. 디캐프리오가 이냐리투와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카데미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br/><br/>필모그래피를 관통하는 아버지의 사랑<br/><br/><br/><br/>이냐리투의 영화세계를 특정 단어로 꼬집어 수식할 수는 없다. 그의 영화들은 정치적인 듯하면서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 ‘아모레스 페로스’와 ‘바벨’, ‘비우티풀’은 매우 현실 비판적이나 특정한 정치적 상황을 묘사하거나 명확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주도하고 있는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고통을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다. 이냐리투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정치적 관점을 예술에 종속시키려 하지 않는다</span>”라며 “<span class='quot0'>감독이 아닌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영화를 만든다</span>”고 밝혔다. <br/>정치적이지 않다 보니 이냐리투의 영화들은 종종 출구가 없다. 잔인한 세상에 대한 묘사는 있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 환상을 비추거나(‘비우티풀’) 주술적으로 마무리 되거나(‘레버넌트’) 염세적(‘아모레스 페로스’ ‘21그램’ ‘바벨’)으로 끝을 맺는다.<br/>이냐리투의 영화를 그나마 표현해내는 수식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바벨’의 리처드는 아이를 잃고 실의에 빠진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모로코 여행에 나섰다가 비극적 상황을 맞는다. 아내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리처드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는다. ‘비우티풀’의 욱스발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 남미 대륙으로 떠난 아버지를 종종 떠올린다. 아이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욱스발은 죽은 뒤에 자신보다 젊은 아버지와 마주한다. 비극으로만 내달리던 영화는 아버지와 조우한 욱스발의 환한 웃음으로 힘겨운 현실을 초월하려 한다. ‘레버넌트’는 동료에게 아들을 잃은 휴 글래스(리어나도 디캐프리오)의 믿기 힘든 모험에 초점을 맞춘다. 애끊는 부정(父情)에서 비롯된 복수심이 상영시간 156분을 관통한다. 이냐리투가 ‘레버넌트’ 연출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글래스와 아들의 사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br/>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냐리투의 관심은 그의 여러 인터뷰와 아카데미 수상소감 등에서도 드러난다. 이냐리투는 부자가 아닌 아버지에게서 많은 삶의 지침을 얻었다고 밝혀왔다. 그는 ‘비우티풀’의 엔딩크레딧이 오를 무렵 ‘떡갈나무 같은 나의 아버지에게’라는 헌정 문구를 새기기도 했다. 이냐리투는 아카데미 감독상을 2연패한 뒤 “<span class='quot0'>아버지가 피부색은 머리카락의 길이만큼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span>”고 말하기도 했다. 백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을 받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부친의 말을 빌려 밝힌 것이다.<br/>wenders@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74.txt

제목: 최대 23시간 대기... 중증환자들 피말리는 응급실  
날짜: 2016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04051516142  
본문: 전국 평균 7시간… 개선 기미 없어<br/>신속한 수술 등 못 받고 발만 동동<br/>과밀화 따른 의자ㆍ바닥 대기 여전<br/>인력ㆍ장비 충족률도 미달 지속<br/>“<span class='quot0'>응급실 통해 입원하는 관행 바꿔야</span>”<br/>,<br/><br/>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치거나 급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중증응급환자가 지역의 주요 20개 병원 응급실에서 평균 14시간을 기다려야 입원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보건복지부가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 과밀화, 대기시간 등을 조사한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대기시간이 긴 상위 20개 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실, 병실 등으로 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14시간이었다. 전년보다 전혀 단축되지 않았다. <br/>전체 414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대기시간은 평균 6시간54분으로 전년(6시간 18분)보다 오히려 36분 길어졌다. 중증응급환자는 뇌경색, 뇌출혈 중증외상 패혈증 등 신속한 진료와 처치가 필요한 28개 질환 환자 등이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대기시간이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시간),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시간) 순이었다. 이들은 지역 거점 응급의료기관이다. <br/><br/>응급실 과밀화도 개선되지 않았다. 과밀화지수 상위 20개 응급실의 평균은 107%로 전년(108%)과 거의 같았다. 응급실 과밀화지수 100%는 응급실 병상이 꽉 찬다는 뜻으로, 100%를 넘으면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간이침대나 의자, 바닥에서 대기해야 한다. <br/>과밀화지수가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182%)으로 전년(175%)보다 더 높아졌다. 환자 2명 중 1명은 병상도 없이 대기한다는 뜻이다. 서울대병원은 3년 연속 과밀화지수가 가장 높았다.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서울성모병원(122.6%) 응급실도 붐볐다. <br/>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이유는, 빨리 입원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과밀한 20개 병원을 보면,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 6.6%가 전체 응급실 병상의 절반 가까이(43.4%)를 차지했다. 암이나 당뇨 등 평소 앓고 있는 병의 합병증 등 급한 질환이 겹친 환자의 경우 급한 질환을 처치한 이후에도 입원을 위해 계속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경증환자까지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고, 응급실과 진료과 간 협업이 잘 안 돼 진료나 입원이 바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과밀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br/>임호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span class='quot1'>외래진료 예약이 늦다고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려는 환자들의 관행이 바뀌어야 하고, 병원 역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병실 입원 우선 순위 부여, 진료과와의 신속한 협업 등을 통해 과밀화를 해소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중앙보훈병원은 남는 병실을 응급환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진료가 어려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2014년 32시간이었던 응급실 대기시간을 지난해 하반기에는 10.2시간으로 줄였다.<br/> 한편 응급실이 갖춰야 할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법정기준 충족률도 81.9%로 전년(83.9%)보다 떨어졌다. 제주, 인천 지역 병원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서울, 울산 등도 하락했다. 3년 연속 법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는데 올해는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등 3곳이 취소될 예정이다. 임호근 과장은 “<span class='quot2'>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겠다</span>”고 말했다.<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75.txt

제목: ‘초등입학 의무휴직’을 許하라  
날짜: 2016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02051346062  
본문: 아이는 더 이상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지 않는다. 자다가 갑자기 고열이 나거나 분리불안으로 이상행동을 하는 일도 없다. 이제 다 키운 것 같은 초등 1학년. 하지만 이 시기는 한국의 워킹맘들이 가장 많이 직장을 그만 두는, 체념과 절망의 2차 관문이기도 하다. 갓난쟁이 떼어놓고 야근도 불사하던 강철엄마들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면 심각하게 흔들린다. “<span class='quot0'>아이가 1학년 되는데 직장 그만둬야 할까요?</span>”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의 단골 질문 중 하나다. <br/>초등학교 교사도 자기 자식 입학할 땐 휴직한다는 잔인한 1학년의 계절이 돌아왔다. 정규 학업과정의 기나긴 트랙에 올라서는 아이, 정서적으로나 학습적으로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하는데, 저녁 8시 이전에는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다. 점심 먹으면 곧장 파하는 학교, 아직 시계 볼 줄도 모르는 아이를 두고 돌봄교실과 학원 뺑뺑이 사이에서 엄마들만 고민이 깊다. ‘워킹맘이냐, 전업맘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싶은 순간 ‘왜 아빠는 이런 고민 안 하나’ 분노의 불길이 치솟으며 부부싸움도 벌어진다. 워킹맘 최대의 난코스인 ‘마의 1학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 걸까?<br/>확산되는 자녀입학 휴가제<br/>공무원 최모(40)씨는 둘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지난해 1년간 휴직을 했다. 주변에서는 무슨 공부를 얼마나 시키려고 유난이냐고들 했지만, 공부 문제만은 아니었다. 생활습관이나 학습태도를 이때 잡아주지 않으면 향후 양육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첫째 때 이미 경험한 바다. 받아쓰기부터 엄마 힘을 빌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숙제, 친구 사귀기 등등 손 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올해 1월 복직한 최씨는 “<span class='quot1'>같은 반의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공무원이라 좋겠다며 많이들 부러워했다</span>”며 “<span class='quot1'>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한 입학 후 첫 일년은 부모의 밀착도움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초등 1학년의 공포’가 만연하면서 초등 입학을 대비해 휴직기간을 남겨두거나 유예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가 2014년 만 8세로까지 확대된 덕분이다. 그렇다면 최대 1년인 법정 육아휴직을 어떤 비율로 나눠야 솔로몬의 지혜가 될까. 의견은 제각각이다. 3~7월까지 한 학기만 돌봐줄 수 있도록 5개월은 초등 1학년에 쓰고 나머지 7개월을 젖먹이 때 쓰라는 의견, 그래도 아기와의 애착 형성이 더 중요하니 한두 달만 남겨두는 게 좋다는 의견,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 초등 1학년을 위해 통째로 아껴두는 게 좋다는 의견 등 다양하다.<br/>초등 입학에 목 맬 것 없으니 쉬지 말라는 조언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업맘이건 직장맘이건 가리지 않고, 최소한 3월 한 달간이라도 휴직할 수는 없느냐는 가슴 아픈 조언들만 게시판에 줄줄이 달린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이토록 중요한 생애사적 사건인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해 입학 후 단 한 달간이라도 아이 곁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br/>이 같은 요구를 반영한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3월부터 최대 1년간의 자녀입학 돌봄 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 도입해 최대 30일간 사용 가능했던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육아휴직도 법정 기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운용 중이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도 최대 2개월간의 취학자녀 돌봄휴가제를 지난해 도입했으며, 한화케미칼도 입학일 기준 최대 30일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br/>그러나 이런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한 직장은 언제나 그렇듯 남의 직장들. 취학아동을 자녀로 둔 직장맘 대부분에게는 직장이냐 가정이냐의 양자택일만이 남아 있다.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 중인 워킹맘 김모(42)씨는 “<span class='quot2'>첫 아이 때는 육아휴직을 쓸 생각도 못했고, 둘째 아이는 만 6세까지만 사용이 가능해 젖먹이일 때 다 써버렸다</span>”며 “<span class='quot2'>회사의 선의만을 바랄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취학 자녀 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br/>여기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br/>아이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경력단절여성이 되지 않았다면, 경제적 이유 외에도 일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3학년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맘월드’의 법칙에 따르면 고지가 머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눈 앞에 두고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은 왜일까. 자신의 야망을 위해 아이의 장래를 망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아이의 유년기를 황폐한 고독의 유배지로 만들고 있다는 죄책감이 커서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는 따돌린다는 온갖 낭설과 괴담까지 심약해진 직장맘을 공격하면 버티기가 힘들어진다. 과연 일하는 엄마는 아이에게 그토록 암적인 존재인 걸까.<br/>지난해 5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캐슬린 맥긴 교수팀이 발표한 ‘아이들은 일하는 엄마에게서 많은 것을 얻는다(Kids benefit from having a working mom)’는 연구 결과를 보자. 모성담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 받는 이 연구는 자아실현과 좋은 엄마 사이에서 갈가리 찢긴 워킹맘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내용들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24개 선진국(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의 성인 5만명을 조사한 결과, 워킹맘의 딸들이 전업주부 엄마를 둔 또래에 비해 더 높은 급여와 성공적인 커리어, 더 평등한 이성관계를 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워킹맘의 딸들은 전업주부의 딸보다 23% 많은 돈을 벌었고, 관리·감독직을 차지하는 비율도 33%로 전업주부의 딸들(25%)보다 8%포인트 높았다. 24개국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 워킹맘의 딸들이 6% 더 소득이 높았고, 관리직 비율은 21%로 전업맘의 딸들보다 3%포인트 높았다.<br/>아들은 어떨까? 아들 역시 일하는 엄마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 워킹맘을 둔 남성들은 어른이 돼 자기 가족과 자식을 돌보는 데 주당 16시간을 사용해 전업주부의 아들(8.5시간)보다 두 배 많은 시간을 썼다. 연봉과 직위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아들과 딸을 불문하고 이런 차이가 성 역할이 고정화된 국가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하는 여성이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노르딕 국가들에서는 차이가 가장 적었던 반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견해차가 큰 국가들이나 러시아나 멕시코처럼 젠더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인 국가들에서는 격차가 컸다.<br/>이 연구는 전업주부의 가치와 존재 의의를 폄훼하는 듯 보인다. 전업맘이 자식에게 제공하는 돌봄노동과 정서적 안정감을 단지 롤모델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순 상계처리 할 수 있는 걸까. 논문의 주저자 맥긴 교수도 이 점을 우려하며 “<span class='quot3'>이 연구가 모든 여성은 일을 해야 한다거나 집에 머물기로 선택한 엄마들이 딸의 장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span>”라고 강조한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집과 직장에서 수없이 다른 선택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살아가면서 선택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존중하고, 가능한 많은 옵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br/>널리 퍼진 믿음과는 달리 이 연구가 밝혀낸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엄마가 직장과 가정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아이들의 행복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 수준, 고용 상태, 소득, 기타 인구학적 다양성을 통제했을 때 직장맘과 전업맘의 아이들은 성인이 돼 더 행복하지도, 덜 행복하지도 않은 비슷한 수준의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br/>“<span class='quot0'>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있다</span>”<br/>그렇다고 워킹맘들이 우쭐할 이유는 없다. 미국 에버그린주립대의 스테파니 쿤츠 교수의 뉴욕타임스 기고를 보면, 많은 연구에서 전업주부보다 워킹맘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이혼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직장에 나가고 싶지 않지만 경제적 이유로 나가야만 하며, 특히 남편이 집안일의 협력자가 아닐 때다. 이 경우 워킹맘의 행복도는 전업주부보다 낮았다. 가장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바로 억지로 일하는 워킹맘이었다.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없는 저임금 직종의 여성이 어린 아기를 둔 경우에도 우울증 위험이 높았다. 하지만 출산 1년간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일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덜한 일일 때는 단축근무 중인 여성보다 우울증을 덜 겪었다. 결국 엄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다.<br/>대기업 화학계열사에 근무중인 워킹맘 이모씨는 “전업주부도 예전에는 워킹맘이었다는 사실을 한국 사회는 간과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1차 관문, 2차 관문에서 자꾸 직장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전업맘이 낫냐 워킹맘이 낫냐는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고 있죠. 워킹맘이 경력을 단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업맘도 걱정 없이 다시 일터로 나올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자들에게는 한번도 요구되지 않는 가정이냐 일이냐의 선택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 받으며 싸우지 말고 여자들끼리 힘을 모아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총선이 코 앞이다. 엄마들이 총궐기해 초등입학 휴직제 의무화의 기치를 높여보면 어떨까. 아빠 의무휴직도 필수로.<br/>박선영기자 aurevoir@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76.txt

제목: 경광등 숨긴 암행순찰차, 출동 30분 만에 전용차로 위반 3대 적발  
날짜: 2016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302051318145  
본문: 함정수사 등 일부 볼멘소리<br/>“난폭 ㆍ얌체운전 잡는 백신” 각오<br/><br/>“<span class='quot0'>아이가 기숙사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span>”<br/>1일 오전 10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다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단속에 걸린 이모(45)씨는 어쩔 줄 몰라하며 이렇게 변명했다. 11인승 승합차 코란도 투리스모를 혼자 탄 채 버스전용차로를 달린 이씨는 ‘11인승 승합차의 경우 6인 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61조2항을 위반했다. 이씨에게는 범칙금 7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됐다. 이씨는 “한남대교 부근부터 15km 가까이 버스전용차로로 달렸다. 암행순찰차가 나와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머리를 긁적였다. 비슷한 시간 인근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안모(51)씨 역시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그는 “<span class='quot0'>승합차로는 무조건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줄 알았다</span>”며 발뺌했다. <br/>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에 경광등 사이렌 전광판 등을 숨겨 놓고 법규위반 차량에 접근해 단속하는 차량이다. 이날부터 경부고속도로(양재IC~신탄진IC)에서 1차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오전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출발한 암행순찰단이 업무에 나선 지 30분 만에 전용차로 법규 위반 승합차만 3대가 나왔다.<br/>언제나 순찰차로 고속도로를 누볐던 윤광득 경사와 김동철 경장도 암행순찰은 처음이다. 주 단속 대상인 칼치기 등 난폭운전이나 갓길을 주행하는 얌체운전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두 사람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기 혐의 수배자가 걸려들었다. 홀로 11인승 승합차를 몰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김모(45)씨는 대뜸 “비싼 세금 내고 승합차를 타는데 탑승 인원으로 단속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내 사기 등 5개 혐의가 있는 수배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볼멘 소리는 수그러들었다. 윤 경사와 김 경장은 즉시 김씨를 관할서인 용인 동부경찰서로 인계했다.<br/>시범운행 첫날치고 성과는 훌륭했다. 다만 고속도로 순찰대는 암행순찰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경계하고 있다. 김 경장은 “아직도 단속에 걸린 운전자 10명 중 8명은 ‘왜 함정 수사를 하느냐’고 따진다”고 말했다. 이날 지정차로 위반 단속에 걸린 이모(57)씨도 “<span class='quot1'>사람 해치는 난폭 운전이나 제대로 단속하라</span>”고 화를 냈다. 암행순찰차의 핸들을 잡은 윤 경사는 “<span class='quot2'>교통 흐름은 인체의 혈액과 같아서 암행순찰차가 혈액 속 나쁜 병균을 잡는 ‘백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경찰청은 6월 30일까지 경부고속도로에 2대의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행하고, 2단계(7월 1일~10월 31일)로 서울외곽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에 3대의 암행순찰차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이 끝나는 2016년 말에는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에 암행순찰차 1,2대가 배치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3'>고속도로는 난폭ㆍ얌체운전이 많아 늘 사고 위험이 크다</span>”며 “<span class='quot3'>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암행순찰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77.txt

제목: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다” 억울한 루저들 편에 서 진실게임  
날짜: 2016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27050939722  
본문: 포기를 모르는 변호사<br/>민ㆍ형사 안 가리고 사건 수임<br/>승산 없고 가난하다고 외면 안해<br/>국가ㆍ고용주 상대로 승소 이끌어<br/>뉴욕주 사형제 폐지에 결정적<br/>강간살인 혐의 받는 19세 흑인<br/>“강압에 의한 자백” 무죄 변론<br/>미란다 원칙 확립에 큰 기여<br/><br/> <br/>법원은 일의 진위와 곡직을 따지고 형편의 경중과 과다를 최종적으로 가리는 문명사회의 제도 공간이다. 하지만 거기서도 진실이 늘 이기는 건 아니다. 그건 법 자체의 한계 탓이기도 하고,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고 이용하는 이들의 대립적 이해가 은밀하게, 당당하게 얽혀 드는 탓이기도 하다. 진실의 승리가 또 언제나 정의의 승리랄 수도 없다. 그것은 사회의 통념과 상식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 법원 판결을 그냥 정의가 아니라 ‘법적’ 정의라 부르는 까닭도 그 판단이 여러모로 온전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허다한 법정 드라마들이 그리는 어떤 정의의 승리와 의연한 패배가 늘 처음처럼 감동적인 이유는, 그게 그만큼 드물고 어려워서다. 법원은 진실과 정의가 최종적으로 짓밟히고 묻히기도 하는 공간이다.<br/><br/> 미국 변호사 마이런 벨도크(Myron Beldock)는 ‘가만한 당신- 루빈 카터(Rubin Carterㆍ2014년 5월 10일자)’편 귀퉁이에 잠깐 등장한 바 있다. 1966년 백인 세 명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흑인 프로권투 선수 ‘허리케인’ 카터가 투옥된 지 19년 만에 풀려나게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변호사가 그였다. 벨도크는 원심 증인이 위증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76년 뉴지저 법원의 재심 재판을 성사시켰다. 재판에서 증인이 다시 자백을 번복하는 바람에 카터는 두 번째 종신형을 선고 받는다. 벨도크는 9년 뒤인 85년 검찰과 경찰이 감추고 조작한 증거 등을 찾아내 연방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 마침내 “<span class='quot0'>(뉴저지 법원 판결이) 이성이 아닌 인종주의에, 공개가 아닌 은폐에 근거한 것</span>”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그는 “<span class='quot0'>진짜 이야기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게 <span class='quot0'>정말 힘겨운 싸움</span>이라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이제 그 집요하고 끈질긴 변호사 벨도크의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할 차례다. 그가 누명 쓴 기결수에게 자유를 되찾아준 게 카터가 처음도 끝도 아니었다는 이야기,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는 “<span class='quot0'>정말 힘겨운 싸움</span>”들의 이야기. 그가 2월 1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br/><br/><br/>마이런 벨도크는 1929년 3월 27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판사였다. 군대를 마치고 58년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그는 브루클린 검찰청 검사보로 2년 남짓 근무한 뒤 변호사가 됐고, 64년 ‘벨도크, 레빈 & 호프만’이라는 로펌을 열었다. 미국의 내로라하는 인권변호사들과 달리, 그가 처음부터 특별한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다. 로펌 동료 변호사 조너슨 무어(Jonathan Moore)는 벨도크를 “<span class='quot1'>이 시대의 마지막 위대한 제너럴리스트(…) 대도시에 개업한 진짜 소읍 변호사</span>”라고 요약했다.(New York law journal, 2016.2.3) 동네 사람 온갖 아픈 데를 도맡아 진료하던 옛날 의사들처럼, 그는 민사든 형사든 파산이든 이혼이든, 안 가리고 맡았다는 거였다. 수임 사건 대부분은 사소하고 잡다한 일상의 송사거나 술자리 난투극 같은 형사 사건들이었다. <br/>그런데 희한하게, 그의 의뢰인들은 고용주나 국가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빈민 혹은 흑인이 많았다. ‘루저들의 변호사’라는 소문이 난 뒤로는 이미 졌거나 승산이 없는, 돈 없고 희망 없는 이들이 그를 찾아오곤 했다. 2014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는 인권 변호사라는 영예가 버거운 듯 “<span class='quot2'>내가 불의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사건이든 <span class='quot2'>닥치는 대로</span> 맡아 했을 뿐</span>”이라고, “나는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약자의 법 인권이 지금보다 더 취약하던 시절이었다. 그는 질까 봐 지레 위축되지도, 졌다고 쉽게 돌아서지도, 돈 없다고 냉큼 외면하지 않고 “<span class='quot2'>닥치는 대로</span>” 맡았고, 더러 이겼다. 2004년 공권력 남용 소송을 맡아 고전 끝에 뉴욕 경찰을 상대로 승리한 그를 뉴욕타임스는 “<span class='quot3'>이상주의적 기질의, 물고 늘어지기의 영웅(a hero to some for stubborn stick-to-itiveness tinged with idealism)</span>”이라고 소개했다.(2004. 9.21) <br/><br/>그가 언론의 주목을 받은 첫 사건은 1963년 8월 28일 뉴욕 맨해튼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이른바 ‘직장여성 살인사건(Career Girl Murders)’이었다. 룸메이트였던 ‘뉴스위크’ 조사원 재니스 와일리(당시 21세)와 교사 에밀리 호퍼트(당시 23세)가 집에서 강간 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피해자가 백인 전문직 직장인이라는 점, 수십 군데씩 칼로 난자 당한 점이 당시로선 충격적이었다. 이듬해 4월, 고교 중퇴 학력의 19세 흑인 조지 위트모어(George Whitmore Jr)가 체포됐다. 며칠 뒤 공개된 61쪽짜리 경찰 조서에는 그가 맨해튼 살인사건 외에도 체포되기 몇 주 전 미니 에드먼즈(Minnie Edmonds)라는 여인을 강간 살해했고, 엘바 보레로(Elva Borrero)라는 또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자백이 포함돼 있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위트모어는 재판도 받기 전에 ‘연쇄강간살인마’가 됐다. <br/>재판에서 위트모어는 백인 경찰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를 못 견뎌 뭔지도 모른 채 조서에 서명했을 뿐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맨해튼 사건 당일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워싱턴광장 연설과 시민인권 행진이 있던 날이었다. 그가 친구들과 함께 뉴저지 와일드우드 고향 집에서 하루 종일 TV를 봤다는 사실, 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친구들의 증언이 지역 신문에까지 보도됐지만 검찰은 묵살했다. 변호를 맡은 벨도크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 예컨대 위트모어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한 피살 여성을 닮은 사진과, 그의 집에서 찾아냈다는 사건 현장 약도 등에 맞서 분투했다. 물론 조작된 것들이었다. <br/>재판이 한창이던 65년 다른 범행으로 체포된 22세 백인 남성(리처드 로블레스ㆍ종신형 선고)이 조사 중 맨해튼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다. 위트모어의 자백이 강압에 의해 조작됐다는 게 사실상 입증됐지만 검찰은 그를 에드먼즈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강행했다. 벨도크는 유일한 유죄 증거인 자백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치지 않고 변론했고, 재판은 배심의견 불일치(hung jury)로 종결됐다. 강간미수사건에서 위트모어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73년 4월이었다.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피해자는 경찰이 나란히 세운 용의자들 가운데 유일한 흑인이던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피해자는 벨도크의 끈질긴 반대 심문에 화를 내며 “그런 일을 겪은 뒤 사는 게 어떤 건지 아느냐?”고 따졌고, 벨도크는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어떤 건지는 아느냐”고 반박했다.(NYT, 2016.2.1) <br/>위트모어(2012년 작고)가 저 모든 사건에서 결백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경찰과 검찰은 벨도크가 “<span class='quot4'>시민의 자유를 명분 삼아 법의 권위를 갉아먹고 있다</span>”고 비난했다. <br/><br/>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찰의 강압수사와 진술 조작, 언론의 성급한 보도와 편견에서 저 일들이 비롯됐다는 사실이었다. 위트모어 재판은 65년 뉴욕 주가 형법을 개정해 사형제를 폐지(경찰 피살사건 제외, 뉴욕 주는 1995년 사형제를 부활했다가 2004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주 의회는 위트모어 사건을 인용하며 “<span class='quot5'>우리는 61쪽에 달하는 완벽하고 치밀한 범인의 자백이 경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다</span>”고 밝혔다.(NYT, 2012.10.15) 1966년 연방대법원은 ‘미란다 원칙(범죄 용의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과 진술 거부권 고지 원칙)’을 판결로 확립하면서, 위트모어 사건을 “가장 눈에 띄는 사례”로 언급했다. <br/><br/><br/>1989년 4월 19일 오전 9시 센트럴파크로 조깅을 하러 나간 한 여성이 오후 2시께 공원 후미진 곳에서 강간과 폭행을 당한 뒤 기절한 채 발견됐다. 환한 대낮에 도심 복판 공원에서 빚어진 일이었다. 당일 밤 공원을 배회하던 흑인과 히스패닉계 10대 소년 다섯 명이 체포됐고, 며칠 뒤 경찰은 그들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그들을 ‘이리떼(Wolf Pack)’ ‘야수(wilding)’ 등으로 명명하며 사건 전모를 전했다. 유죄 입증 자료는 자백이 전부였다.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정액은 용의자 누구의 DNA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훗날 켄 번즈(Ken Burns,2002)의 다큐멘터리 ‘The Central Park Five(2012)’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들은 사건 당시 공원에 있지도 않았고 각자의 진술 역시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많았다. 재판에서 그들은 구타를 못 견뎌 자백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들에게 각각 8~12년형을 선고했다. <br/>살인ㆍ강간 혐의로 33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돼 있던 마티아스 레이스(Matias Reyes)라는 이가 센트럴파크 사건이 자기 짓이라고 자백한 건 2002년 1월이었다. 그는 사건 3개월여 뒤인 89년 8월 다른 사건으로 체포됐다. 뉴욕 시를 상대로 한 ‘이리떼’ 5명과 피해 여성의 소송이 시작됐다. 뉴욕시는 경찰 조사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며 자백 사실에 근거해 기소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2014년 9월 뉴욕시는 그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피해자들에게 4,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벨도크는 레이스의 자백에 있기까지 그들의 결백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은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br/> <br/><br/>1999년 정신 질환을 앓던 31세 유대인 청년이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쏜 총에 12발을 맡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과잉 진압이라며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경찰은 현장 경찰 증언과 목격자 진술 등을 총 동원해 희생자를 ‘악마’로 만들었고, 1심에서 경찰 측은 승리했다. 항소심에 가족 측 변호인으로 가담한 벨도크는 총을 쏜 경찰관이 경미한 찰과상밖에 입지 않은 까닭을 추궁했다. 경찰관은 방탄조끼 덕이었다고 해명했다. 총을 쏘기 전 다른 진압 방법을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경찰관은 페퍼 스프레이를 썼지만 워낙 다급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맞히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벨도크는 숨진 청년의 눈이 후추가스로 거의 실명에 이른 상태였음을 밝히는 부검 자료를 배심원단 앞에 제출했다. 뻔한 질문으로 상대를 방심하게 한 뒤 기습 공격한 셈이었다. 승소 직후인 2004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때는 나도 사람들이 생각하듯 세상이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순진한 생각이다. 세상은 이상이 아니라 권력과 돈에 의해 움직인다.(…) 세상을 나아지게 하려면, 맞설만한 이유(cause)가 있는 한 끝까지 맞서는 도리밖에 없다.”<br/><br/>2013년, 84세의 벨도크는 암 진단을 받았다. 당시 그는 16살 소녀를 유괴ㆍ살해한 혐의로 92년 체포돼 실형을 선고 받은 이버튼 웩스태프(Everton Wagstaffeㆍ47)의 무료 변론을 준비하던 참이었다. 사건 당시 23살이던 웩스태프는 제대로 읽고 쓸 줄도 몰랐지만 감옥에서 혼자 글을 익히고 법을 독학해 직접 재심 청구 서류를 작성할 만큼 죽을 힘 다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가석방 기회조차 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거부한 채 각계에 탄원서를 썼다. 거기 응답한 이가 벨도크였고, 뉴욕의 공익 법률단체들을 설득해 그의 변론에 가세토록 한 것도 벨도크였다. 벨도크는 공판을 앞두고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항암 진통제까지 끊고 재판에 매달했다.(NYT, 16.2.2), 2014년 9월 항소 법원은 경찰과 핵심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 증거를 검찰이 감춘 사실을 들어 원심 판결을 기각했다. <br/>한국인에게 소월의 어떤 시가 그렇듯, 아일랜드인들에겐 그들의 시인 세이머스 히니(Seamus Heaneyㆍ95년 노벨 문학상)의 희곡 ‘트로이 해법 The Cure at Troy)’에 나오는 아래 구절은 아주 유명하다고 한다. <br/>“History says, Don’t hope/ On this side of the grave./ But then, once in a lifetime/ The longed-for tidal wave/ Of justice can rise up/ And hope and history rhyme.” 역사는 무덤가에서 희망을 찾지 말라고 말하지만, 살다 보면 갈망하던 정의의 파도가 솟구치기도 하고, 그 때 희망과 역사는 더불어 노래한다는 의미다. <br/>웩스퍼드 소송에서 이긴 날, 뉴욕타임스의 한 아일랜드 출신 기자(Jim Dwyer)가 벨도크에게 전화를 걸어 외로운 추방자의 구원을 노래한 저 희곡의 시구를 들려주자 그는 “멋지네, 메일로 보내줄래? 난 할 일이 좀 있어서”라고 말했다고 한다.(NYT, 위 기사) <br/>물론 그는, 정의의 파도란 저절로 솟구치는 게 아니라 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간신히 솟구치는 것이라고, 속으로 말했을 것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78.txt

제목: 나미브사막 칼날 능선에 그만 마음을 베이다  
날짜: 2016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27050935684  
본문: “<span class='quot0'>누구에게나 한 조각 황량한 광야의 고독이 필요하다.</span>”<br/>사막 여행자 아킬 모저가 사막으로의 여행을 권하며 던진 말이다. 지구상에 버려진 것만 같은 땅. 하지만 사막은 아름답다. 정적이 도는 황량한 사막에 서면 벼랑 끝 긴장, 그 깊은 울림에 온 몸이 전율하게 된다. <br/>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나미비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으로 꼽히는 사막이 있다. 나미비아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꼭 들러야 하는, 그 사막 때문에 나미비아를 찾게 만드는 나미브(Namib) 사막이다. 붉은 모래언덕의 황홀한 명암의 대비로 전세계 사진작가들을 불러모으는 곳이다. ‘꽃보다 청춘’ 팀이 나미비아를 갔으니 그들도 분명 나미브 사막의 매력에 흠뻑 빠졌으리라. <br/>사막은 나미비아의 대서양 연안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다. 그 폭이 80~140km에 달하는 모래의 바다로 면적은 남한의 1.35배, 세계에서 24번째로 큰 사막이다. 나미브 사막의 모래는 유독 붉고 미세하다. 철 성분이 많은 모래가 오랜 산화작용을 거쳤기 때문이다. 밤새 바람이 치올려 듄의 능선을 만들어 놓으면 뜨거운 태양이 빛을 토해내며 그 능선에 날카로움을 더해준다. <br/>나미브 사막의 하이라이트는 나우클루프트 국립공원의 소수스플라이(Sossusvlei)다. 그 소수스플라이로 들어가는 입구인 세스리엠에는 이른 새벽 차량들이 길게 늘어선다. 게이트가 열리면 재빨리 소수스플라이로 달려가기 위해 줄을 선 것이다. 사막의 듄이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때는 이른 아침이기에 모두들 마음이 급하다. <br/>소수스플라이의 가장 유명한 사구는 ‘듄 45’.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이 듄45를 향해 내달린다. 하지만 그들과 꼭 경쟁해 먼저 도착할 필요는 없다. 가는 길의 다른 사구도 충분히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 <br/>바람이 밤새 치어 올린 듄의 능선은 날카롭다. 그 선을 경계로 붉게 타오른 사면과 검게 드리운 그림자가 분명하게 나뉘어진다. 불룩 튀어나온 듄의 아랫부분에선 비스듬히 태양의 빛을 받아 그림자가 물결치고, 그 빛에 따라 명과 암이 엉키며 조화를 부린다. 황홀한 그러데이션이다. <br/>듄의 능선을 따라 시선을 올리면 빛과 그림자의 충돌이 극명해진다. 명과 암. 그 사이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의 곡선에 그만 마음이 베인다. 결코 지울 수 없는, 가슴 속 황홀한 감동의 문신이 새겨지는 순간이다. <br/>유명한 듄45의 이름에 대해 일부 여행서는 소수스플라이 입구인 세스리엠에서 듄45까지의 거리가 45km라서 45란 숫자가 붙었다고 쓰고 있다. 틀린 이야기다. 사막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이 근방의 듄 몇 개에 번호가 부여됐을 뿐이라고. <br/>둥글게 감싸 올라간 듄45의 능선은 곱다. 모래언덕을 감상하는 최고의 방법은 신발을 벗고 그 능선에 발을 올리는 것이다. 음과 양 사이 그 칼날 같은 능선을 걷는다. 단 몇 cm 차이지만 양지는 따뜻하고 그늘은 차갑다. <br/>시야가 높아질수록 사막의 광활함이 더 묵직하게 다가온다. 소수스플라이의 플라이는 납작한 냄비처럼 아래가 푹 꺼져 평평한 지형이다. 사막에서만 발달하는 마른 강 와디(wadi)의 바닥이다. <br/>사막 한가운데 뻥 뚫린 이 공간에 이끼 같은 연둣빛 덤불이 자라고 있다. 모든 생이 사라진 공간이었을 것만 같은 공간에 생명이 움을 틔우고 있다. 덤불뿐이 아니다. 맨발이 디디는 듄의 능선에선 새까만 딱정벌레들이 튀어나오기 일쑤다. 일교차를 이용해 몸뚱이에 고인 이슬을 받아 먹고 산다는 놈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불모의 땅에선 이따금 하얀 나비도 펄럭인다. 사막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말이다. <br/>나미비아=글ㆍ사진 이성원기자 sungwon@hankookilbo.com<br/><br/><br/>PS<br/>아킬 모저는 사막 여행은 이런 것이라고 정리했다.<br/>-웅장한 원시 세계와의 만남<br/>-걱정 근심의 무거운 짐 내려놓기<br/>-하늘 높이 뛰어오를 듯 기쁜 삶의 감정<br/>-오랜 근본적 가치의 재발견<br/>-신중한 발걸음의 감동<br/>-외로움과 순결함의 만남<br/>-아주 작은 자기 자신의 발견<br/>-영혼의 미로 속에서 감행하는 위태로운 줄타기<br/>-문명이 만들어낸 스트레스에 대한 만병통치약<br/> (더숲 출간 ‘당신에게는 사막이 필요하다’중에서)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79.txt

제목: 죽음 앞에서도 혈기방장했던 ‘형’이 떠난 뒤…  
날짜: 2016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27050816972  
본문: 이렇게 그녀를 잃었다<br/>주노 디아스 지음·권상미 옮김<br/>문학동네 발행·296쪽·1만3,800원<br/>거리의 저급한 은어와 속어로 서정시를 쓴다면 아마 이런 형태일 것이다. ‘씨바’와 ‘열라’와 ‘좆도’와 ‘썅’이 창궐하는 가운데 모종의 슬픔이 솟는다. 혈기방장한 청년이었던 ‘형’의 죽음이 서사공간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유색인종 이민자로서의 험난한 삶과 언제나 갈구하지만 대개는 채워지지 않는 사랑 받고 싶은 욕구, 모국어를 버리고 외국어로 말함으로써 스스로가 스스로를 왜곡해야 하는 존재조건. 애인에게 버림받은 바람둥이들의 이야기를 가난한 이민자들의 스팽글리시(스페인식 영어)로 왁자지껄하게 떠벌리고 있는 상황 자체가 야릇한 슬픔의 진원지일 것이다.<br/>첫 장편소설 ‘오스카 와오의 짧고 놀라운 삶’(2007)으로 퓰리처상과 전미비평가협회상 등을 휩쓸며 스타 작가가 된 주노 디아스(48)는 여섯 살에 미국으로 이민 온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소설가다. 럿거스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코넬대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받은 번듯해 보이는 이력 이면에 낮에는 육체노동을, 밤에는 문학 공부를 하느라 하루 네 시간 이상 자본 적 없는 고단했던 삶이 버티고 있다. 술과 여자를 탐하는, 고국으로부터 선사 받은 체념적 낙천성을 아름다운 변종 영어의 형태로 미국 문학계에 들여온 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서와 언어로 강렬한 감정의 낙차를 빚어내는 작가로 평가 받는다.<br/>바람 피우다 걸려 애인에게 차인 남자들의 신세 한탄을 공통분모로 하는 ‘이렇게 그녀를 잃었다’는 작가의 서사적 페르소나인 유니오르와 그의 가족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연작소설이다. 암에 걸려 죽기 직전까지도 ‘난봉꾼 양아치로서의 가오’를 포기하지 않았던 형 라파와 그가 유산처럼 ‘나’에게 남겨주고 간 여인들과의 이야기가 특별히 서글프다. 푸석하고 건조한 얼굴이 유일한 특징이었던 형의 연인 닐다는 “가끔 형이 보고 싶어.…내 머리카락을 자기 얼굴에 덮고 자곤 했어. 그러면 안전한 기분이 든다고” 말하고, 형이 아니면 사귀지 못했을 깡마른 중년의 여교사 미스 로라는 자꾸만 내게 형에 대해 말을 하게 하려 한다.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암에 걸렸다, 죽었다.” “그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br/>위독의 와중에도 운전을 강행하던 형에게 “진짜 골로 갈 거면 이 차는 나한테 줘라”고 말하자 형은 “이 안에 탄 채로 묻힐 거야”라고 답한다. “뭐 파라오냐?”라고 말하면 중환자는 엄지를 치켜들며“<span class='quot0'>넌 노예니까 트렁크에 묻혀라</span>”고 응수하는 식의 유머가 시종 일관이다. 하지만 형의 죽음이 드리운 그림자는 반경이 넓어서 우스꽝스럽게 끝나버린 사랑과 실연의 서사를 애처롭게 감싸는 하나의 톤으로 기저에서 작용한다. “그때 나는 끝났다는 걸 알았다. 처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끝이다” “사랑의 반감기는 영원이다” 같은 소설 속 잠언들은 어쩌면 실연과 죽음을 동시에 은유한다. 소중한 것은 유한하고, 상처는 무한하다는 것.<br/>거리의 지혜가 돋보이는 리드미컬하고 유희적인 언어를 한국어로 제대로 바꿔낸 이 소설의 번역가는 상찬을 받아 마땅하다. 애인의 마음을 돌리려 데려간 럭셔리 리조트를 “일명 양심 까잡수신 리조트”로, 명랑한 웨이트리스들을 “이 자매님들”로 번역했을 때부터 눈치챘지만 “우리는 언제나 시작에 그치고 만다는 걸”의 마지막에 문장에 이르기까지, 골계와 서정 사이를 능란하게 종횡하는 솜씨가 탁월하다.<br/>박선영기자 aurevoir@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80.txt

제목: [복면 기자단] ‘불패저자’ 혜민 스님 책이 불편하다?!  
날짜: 2016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26051415185  
본문: 각양각색의 관점과 목소리를 지닌 문화부 기자들이 하나의 문화 현상, 콘텐츠를 함께 분석하는 ‘복면(複面) 기자단’ 코너를 신설합니다. 문화부 조태성, 박선영, 황수현, 이윤주, 김혜영 기자가 ‘낮술 마신 밤의 여왕’, ‘뻣뻣한 캣츠걸’, ‘아연한 맨’, ‘하염없이 싸이(PSY)는 뱃살’, ‘행복하슈렉’이라는 다양한 얼굴의 관찰자로 분해 경쾌하고 발랄하게 갑론을박 벌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br/>혜민 스님 열풍이 거세다. 3일 출간된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 약 2주 만에 20만부(22일 기준) 가량 팔렸다. 하루 평균 1만권 판매를 웃도는 흥행 기록이 ‘출판의 위기’를 무색하게 한다. 특히 이 책이 출간 10여일 만에 주요 대형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석권하며 50~51주 1위의 ‘미움 받을 용기’의 아성을 무너뜨린 일은 하나의 사건으로 회자된다. 혜민 스님은 이미 전작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2012)로 300만부 판매의 기염을 토한 저자다.<br/>책을 향한 SNS 등의 반응은 환호 일색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보는 출판계 표정은 복잡미묘하다. 대책 없이 보듬고, 쓰다듬는다며 “아프니까 어쩌라고?!”를 외치고, 어줍은 위로를 거부했던 독자들이 이 힐링북에 다시 보내는 격한 반응에 어리둥절한 기색. 혜민 스님은 이번 책에 그간 자신이 SNS 등에 올려온 명언, 토막글을 골라 담았다. “남들이 다 짜장면 먹겠다고 해도 내가 볶음밥 먹고 싶으면 당당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이왕이면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모습이 좋게 느껴지는 인연과 더 깊게 교류하세요. 김밥은 라볶이와 함께 먹어야 맛있습니다. 비빔밥과 같이 먹으면 맛없어요”, “힘있고 가진 자 앞에서 비굴해 지지 않는 법은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삶에 역경이 없으면 내가 발전하기 힘듭니다” 등의 내용이다. 한 문학평론가는 전작에 쓰인 스님의 이런 화법을 두고 “<span class='quot0'>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도 재주</span>”라며 점잖지만 날 선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독자들의 폭발적 반응과는 대조적인 일각의 편치 않은 표정의 배경은 무엇일까.<br/><br/>낮술 마신 밤의 여왕(이하 여왕)=난 힐링이 끝난 줄 알았다. 김난도 교수가 그렇게 난도질 당하지 않았나. 그런데, 세상에나, ‘힐링 오브 더 힐링’이 나왔다.<br/>아연한 맨(이하 맨)=실업난, 주거난 등 다양한 고통에 억눌린 청년들이 “내가 아프든 말든” “아픈 게 왜 당연해야 하냐” 하고 반응할 법했다. 스스로 패배자를 자처하는 청년들을 비롯해 ‘아프니까 청춘’담론에 명확한 반박층이 생겼던 셈이다. 이번 책은 그런 안티가 생길만한 여지가 없는 편이다. 독자가 청년에 맞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br/>하염없이 싸이는 뱃살(이하 싸이)=서점 통계에 따르면 혜민 스님 책 구매층은 여성들이 압도적이고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많았다.<br/>여왕=‘아프니까 청춘이다’도 처음부터 비판 받았던 것은 아니다. 100만부 넘어가고 하면서(총 290만부 판매) 이게 과연 그럴만한 책이냐는 의문과 비판들이 나왔다. 초기에 비판적 기사는 거의 본 일이 없다. 청춘의 멘토. 영혼의 위로자로 모두 치켜세울 뿐이었다.<br/>행복하슈렉(이하 슈렉)=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 자신이 실신 직전이기 때문에 그저 “많이 힘들죠. 당신은 소중해요. 멈춰도 괜찮아요. 더 가질 필요 없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는 위로도 때론 필요하다. 그러다가 위로의 흥행이 극에 달했을 때 회의도 나온다. “<span class='quot1'>우린 계속 아프고 부족하란 말이냐</span>” 하는 식이다. 사실 혜민 스님 책도 위로의 본질은 비슷하다.<br/>맨=그러니까 그런 ‘부질없는 힐링’의 비판층이 확고하게 형성된 뒤에 이 책이 나온 건데도 비판보다는 환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 가장 의아한 것이다.<br/>슈렉=정치인, 경제학자, 정치학자가 그런 ‘부질없는 힐링’을 하면 용서가 안 되는데, 종교인의 본래 소명은 현상, 정책 변화를 추구하기보단 대중, 신자들이 자기 마음을 가다듬게 돕는 일이라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역할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종교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 “<span class='quot1'>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악한 마음을 버려라, 용서해라, 때리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복권 대신 꽃을 사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행복하다</span>”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말로는 수행 영성 훈련이지만, 어떤 이들에겐 ‘정신 승리’일 뿐이다.<br/>여왕=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지 않았나. 종교인이라서 비판 받지 않는다면, 종교인이 그걸 왜 무료가 아니라 대중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거냐는 비판도 가능하다.<br/>슈렉=전작(‘멈추면 비로소…’)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스님의 트위터를 본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해 트위터 글을 엮어냈다고 한다. 당시 편집자가 따로 출판사를 차려 이번 책도 엮었다.<br/>여왕=어찌 보면 스님은 죄가 없다. 김난도 교수도 마찬가지다. 그 힐링서를 과도하게 소비한 우리의 열정, 그 후에 과도하게 난도질한 변덕이 문제다. 김 교수야 선의로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위로를 한 것이고 처음부터 책을 몇 백 만부씩 팔려고 한 것도 아니었겠지. 스님도 마찬가지고.<br/>뻣뻣한 캣츠걸(이하 캣츠걸)=자기계발서가 잘 팔리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자기계발서도 새로운 지식, 정보, 지혜를 주는 책은 보기 힘들다.<br/>여왕=나는 힐링서와 자기계발서는 좀 다르다고 본다. 한때 ‘아침형 인간’을 읽고 ‘아침형 인간’이 되려 노력했던 적이 있다. 물론 7시에 출근했더니 5시 반에 출근한 부장이 일을 시키는 것을 보고 ‘일찍 일어난 새는 잡혀 먹힌다’는 진리만 깨닫긴 했지만.(웃음)<br/>슈렉=중요한 대목이다. 나의 갈구나 욕망, 불만 같은 게 폭발하려고 할 때, 가끔 어떤 책의 제목이 너무 와 닿으면 그 책을 충동구매 하면서 풀리는 기분이 들지 않나. ‘이 회사에서 나만 제정신이야’라는 표지를 보고 “이건 사야 해!”했던 적이 있다.<br/>맨=‘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책 제목을 참 잘 지었다.<br/>여왕=그러니까 결국 출판시장에서 힐링서가 사랑 받는 이유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도 따라해 보고, 아침형 인간도 돼 보고, 온갖 발버둥을 다 쳤는데도 우리 모두가 뭐도 안됐으니까 “<span class='quot2'>그냥 있는 그대로의 네가 명품이야</span>” 이런 가르침만 남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br/>싸이=그러니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 딱이다, 딱.<br/>여왕=‘완벽하지 않은…’이라는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얼마나 못났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든 너는 소중하다. 너는 명품이다. 네가 너를 아껴라” 하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서 흡수되고 해소돼야 할 감정들인데 너무나 삶이 각박하다 보니 이게 실제 현실에서 전혀 안 되고, 다들 힐링서를 통해 가상의 교류, 만족을 얻어야만 하는 지경에 왔다는 거다. OECD 회원국 중에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답하는 비율이 한국이 꼴찌다. 평균이 88점이면, 한국은 72점 수준이다. 나이 들수록 더 심해져 30~49세부터 ‘도와주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진다. 50세 이상은 1위 아일랜드보다 30점 가량 낮다.<br/>캣츠걸=복잡하고 어려운 책보다는 짧은 글 모음집 등을 선호하는 경향은 문해력 지수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br/>여왕=2008년 이외수의 ‘하악하악’부터 누구누구의 명언, 어록 등을 묶은 대중서가 베스트셀러 1위에 많이 올랐다. 이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대중서들이 책의 숲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입구 중 하나가 돼야 하는데 대부분 독자층이 그 숲의 주변부만 맴돌고 있다는 지점이다. 또 다른 입구, 다음엔 옆의 입구, 또 그 옆의 입구 이런 식으로 둘레만 맴돈다. 대중서 자체로 완성도가 높아 훌륭한 쾌감, 가르침을 주는 책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은 아니었다. “시험이나 면접 보기 전에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면접 떨어지면 책임지나? “<span class='quot1'>지금 힘드신 것은 지나가는 구름입니다</span>”, “<span class='quot1'>너무 잘나가면 생각지도 못한 안티들이 나타납니다</span>”라니.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하면 암도 안 듣는다. 결국 뻔한 소리를 놓고 생산 주체로서의 자격만을 소비하는 것 아닌가 싶다. 책에 부여된 권위의 아우라, 하버드 출신의 유명 스님 또는 서울대 교수가 하는 말이라는 자격.<br/>맨=중요한 호소 지점이다.<br/>싸이=상표가 비싼 커피 같은 느낌이다. 상표 때문에 사서 마시지만 맛은 그다지 모르겠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책을 택할 때 어떤 대단한 지혜를 얻겠다는 큰 기대로 택하고 있느냐는 알 수 없다. 서로 편한 사이끼리 선물하기도 좋은 책이라는 느낌이 강하다.<br/>슈렉=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처럼 썼지만 뜯어보면 불교철학의 개념을 쉬운 비유로 풀어 썼다고도 볼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제행무상), 변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제법무아),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존재한다(연기법) 등이 다 불교적 가르침의 본질이다.<br/>여왕=너무 호의적 해석 같다. “힘든 것은 지나간다” 이런 것은 상식적 문장이다.<br/>맨=‘리빙 포인트’ 같은 대목도 많다. “파프리카를 썰면 기분이 좋아져요. 비타민 C가 풍부해요”등등.<br/>싸이=그런데 사람들이 이 책을 집어들 때 어떤 대단하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볼까. 커피 한잔에 4,000~5,000원 하는 시대에 ‘어? 그래?’하고 사는 게 아니겠나. 팬시 문구 같은 것 아닐까.<br/>여왕=책 매대가 아니라 컬러링북이나 필사책 옆에 둬야 하는?<br/>슈렉=‘너무 당연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람들 모두가 “만사는 마음의 문제”라는 메시지를 갈구하는 상황이 안타깝긴하다. 정말 절박한 절망의 상황에서 긍정, 행복, 용서를 떠올리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을 때도 있지만 모두가 늘 순간의 정신수양만 추구하고 산다면, 그 어떤 변화도 연대도 어렵지 않을까.<br/>맨=나 자신과 혹은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해야 하는 것으로, ‘갈등’ 자체를 문제시 하는 이 책의 정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br/>캣츠걸=그게 더 나가면 논란이 됐던 ‘법륜 스님 처방’이 되는 것 아닌가.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이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 지는 길을 찾는 일입니다. 오직 감사하다는 기도만 하세요” 했던.<br/>여왕= 이 책엔 “잠 잘자고 나면 좋아져요. 토닥토닥” 이런 놀라운 문장도 써 있다.<br/>맨=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라고요.(웃음)<br/>슈렉=사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그 정도 극한에 왔고, 세상을 바꾸려고 애써봤자 내 마음만 너덜너덜해지니 마지막으로 부여잡을 것은 토닥토닥뿐 아니겠나. 김 교수가 대책 없이 위로한다고 비판 받았지만, 그 대척점에서 “청년이여 분노하세요”를 외치고 있는 장하성 교수도 못지 않은 비판을 받는다. “<span class='quot1'>아니, 노장년세대가 만든 세상을 왜 우리에게 분노해서 바꾸라고 하느냐</span>”는 것이다. 대중들은, 특히 청년들은 위로하는 꼰대, 분노하라는 꼰대 다 피곤한 것이다. 종교인들만이 그런 비판을 피하며 위로가 가능한 지위에 남았다. 이 위로는 스님의 종교적 신념에서 나온 거니 정색하고 비판할 수가 없는 거다.<br/>맨=그럼 이 책이 합(合)이야? 변증법적 지양이야?<br/>여왕=어느 네티즌이 댓글에 “<span class='quot3'>지금 한국사회에서 베스트셀러를 쓰고 싶으면 출가를 하라</span>”고 적었더라. 대중이 환호하고 선호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곧 대중을 향한 모욕이 될 수 있어 사실 하기 불편하다. 언론에서도 ‘비판하려면 쓰지 마라, 아예 언급하지 마라’라는 것이 최근 대세다. 그렇긴 하지만 주요 신제품에 대해서는 언론이 견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br/>슈렉=이런 종류의 책을 비판하는 게 유니클로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에르메스랑 비교하면 정말 저급이야’ 하는 느낌도 있다.<br/>여왕=그럼 이런 책은 유니클로 급으로 가격이 싸야지. 10년 공력의 콘텐츠나 트위터 모음이나 책값은 왜 똑같나.<br/>싸이=어떤 책이든 인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이다. 책 만드는 사람들은 진심이든 허세든 누구나 ‘좋은 책을 내놓고 싶다’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가치 측면에서만 훌륭한 책을 만들면 대개 안 팔린다. 예컨대, 세상에 꼭 필요한 경제서를 계속 내고 싶은 출판사가 있다면 우선 많이 팔리는 책을 만들어 돈을 벌어야 한다. 이름 값만 있는 중국 고전 번역서든, 실용서든, 힐링서든. 훌륭하든 아니든 많이 팔린 책이 다시 다른 책을 만드는 데 쓰여서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 선순환되면 된다. 그런데 바짝 벌어 계속 유사한 실용서만 양산하거나 돈을 버는 것으로만 족한다면 그건 문제라고 본다.<br/>여왕=주식으로 치면 단타매매다. 출판산업도 선순환이 돼야 하고, 독자들도 같이 커가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다. 더 많은 독자들이 책의 숲의 한복판을 향해서 한발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저자도 출판사도 왜 함께 발전할 수 없는 걸까. 그게 안타깝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는 게 어떤 종교인의 트위터 글 모음이라는 것은 그런 출판산업의 참담한 민낯 아닐까. 다양한 책들이 사랑 받을 수 있는 풍토가 돼야 하는데 단타매매식의 상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질릴 쯤 되면 또 다른 유사상품이 나오고 깊고 탄탄한 독자층은 영원히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니 훌륭한 저자가 나오기도 어렵다. 이 건강하지 못한 순환구조가 출판의 전부인 것, 그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br/>정리=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81.txt

제목: 포스코청암상 과학상에 조윤제 포스텍 교수  
날짜: 2016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26051100331  
본문: 포스코청암재단은 올해 포스코청암상 수상자로 과학상에 조윤제 포스텍 교수, 교육상에 금오공고, 봉사상에 라파엘클리닉을 각각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br/>조윤제 교수는 암 등 종양을 억제하는 단백질과 단백질복합체의 구조를 규명하고, 분자생물학적 실험을 통해 손상된 유전자를 인식하고 정상 유전자로 치유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그는 암세포 성장을 차단할 수 있는 제미닌 단백질의 작용도 규명해 암치료 연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br/>금오공고는 기능인을 양성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라파엘클리닉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소를 운영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았다.<br/>시상식은 3월30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겐 상금 2억원이 각각 수여된다. 포스코청암상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포스코 창업이념인 창의ㆍ인재육성ㆍ희생ㆍ봉사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2006년 제정됐다.<br/>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82.txt

제목: 자궁경부암 만 20세부터 무료검진  
날짜: 2016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24051448356  
본문: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주기도 6개월로 짧아졌다.<br/>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가 무료로 시행하는 5대 암 검진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 기존 만 30세 이상 여성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돼 2년에 한 번씩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짝수 해에는 짝수 해에 태어난 여성들이, 홀수 해에는 홀수 해에 태어난 여성들이 받는다.<br/> 간암 고위험군의 간암 검진 주기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고위험군은 40세 이상 남녀 중 간경변증,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들이다. 이들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피 검사)를 통해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검진료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83.txt

제목: [건강 소식] 길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열어 등  
날짜: 2016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24051447560  
본문: 길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열어<br/>가천대 길병원은 장애인들의 치아건강을 위한 인천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치과 치료 센터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br/>‘닥터노의 알기 쉬운 부정맥’ 펴내<br/>노태호 성바오로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닥터노의 알기 쉬운 부정맥’(도서출판 우노 발행ㆍ사진)을 펴냈다. 이 책은 심방세동 심실조기수축 서맥 실신 등 다양한 부정맥 질환에 대한 설명과 전극도자절제술 심박동기 등 새로운 치료법을 담고 있다. 노 교수는 “<span class='quot0'>인터넷에 떠도는 엉터리 부정맥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안타까워 부정맥 이해를 위해 펴냈다</span>”고 했다.<br/><br/>서울아산병원 유방ㆍ자궁ㆍ갑상선암 강좌<br/>서울아산병원은 25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연다. 강좌에서는 고범석(유방내분비외과), 박정열(산부인과), 김원구(내분비내과) 교수가 나서 이들 암에 대한 진단과 최신치료법, 예방법에 대한 강의 한다. (02)3010-3051<br/><br/>강동경희대한방병원, 우울증 임상자 모집<br/>강동경희대한방병원 화병스트레스클리닉 정선용 교수팀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침뜸 복합 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한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거나,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이다. (02)440-7134<br/><br/>아주대병원, 난청 재활교실 열어<br/>아주대병원 아주난청센터는 다음달 4일 오후 6시30분 아주대병원 별관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아주난청재활교실을 연다. ‘인공와우의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아주난청센터 소개 및 수술현황, 인공와우 수술의 현재와 미래-잔존청력 보존 수술법 중심, 양측 인공와우, 노화성 난청과 인공와우, 인공와우 수술 후 재활, 환자 사례 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031)219-4319, 4320<br/><br/><br/>‘키홀 서저리’ 국내 처음 라이브 시연<br/>박익성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지난 19일 고난도 뇌수술법인 이른바 키홀 서저리(keyhole surgery)’를 국내 최초로 라이브 시연했다. 박 교수는 29차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학술대회가 열리는 전남 여수 학회장과 실시간 연결해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키홀 서저리를 시연하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키홀서저리는 뇌 속 병변 치료에서 기존의 두개골을 넓게 절개하는 방식이 아닌, 눈썹 부위에 2.5cm 정도 작은 구멍을 뚫어 뇌동맥류와 뇌종양을 치료하는 미세침습 뇌수술 기법이다. <br/><br/>‘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전통문화나눔’ 행사<br/>자생의료재단은 지난 21일 경기 부천시 부천한옥마을에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전통문화나눔 및 전통혼례’ 행사를 개최했다. 재당의료재단이 부천문화원, 부천 이주민지원센터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이 참가, 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전통혼례 윷놀이 투호던지기 떡메치기 등을 체험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84.txt

제목: 식물성 기름도 오래 ‘열’ 받으면 발암 물질 된다  
날짜: 2016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23051409285  
본문: 요리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 암 유발<br/><br/>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을 내게 하는 기름에 대한 한국인의 사랑은 지극하다. 요리를 위해 하루 한 번 이상 기름을 사용한다고 답한 사람이 59.9%(오픈서베이 조사)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을 정도다. 웰빙 바람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인 동물성 지방보다 건강에 좋다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지방을 많이 쓰고 있다.<br/>그런데 최근 옥수수 기름과 해바라기씨유, 참기름, 들기름 등 식물성 지방도 잘못 쓰면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장수를 부르는 ‘지중해식 다이어트’에 빠지지 않는 올리브유(엑스트라버진)도 튀김용으로 잘못 썼다간 발암물질로 변한다고 한다.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도 요리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되므로 기름을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br/><br/>식물성 지방, 오래 가열하면 독성 물질로 변해<br/>지방은 그 자체로 칼로리가 높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무게 당 4㎉의 에너지를 내지만 지방은 9㎉를 발생한다. 같은 양을 먹어도 2배 더 축적돼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또 많이 섭취하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대사증후군과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 지방간 등의 위험을 높이고 발암물질도 만든다. 보통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은 200도 가까운 온도에서 조리하는데, 이때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생긴다.<br/>아크릴아마이드는 아미노산 일종인 아스파라긴과 포도당이 결합해 만들어진다. 감자튀김이나 팝콘 등 전분 함량이 높은 식품일수록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이 생긴다. 과다 섭취하면 신경계 이상을 일으킨다.<br/>벤조피렌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추정 물질이면서 발암 가능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인체 발암 물질’로, 우리나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인체 발암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벤조피렌에 단기간 다량으로 노출되면 적혈구가 파괴되고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장기간 노출되면 암도 발병한다. 특히 참깨나 들깨를 가열하는 시간이 오래 되거나 온도가 높을수록 벤조피렌이 잘 생긴다. 그래서 지방 섭취를 하루 섭취 칼로리의 15~20%로 제한하고 있다.<br/>‘건강한’ 지방이라는 식물성 지방은 상온에서는 불포화지방산이지만 열을 장시간 가하면 독성 물질인 트랜스지방으로 변한다. WHO는 트랜스지방의 하루 섭취량을 2.2g을 넘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라면 등 패스트푸드와 빵ㆍ과자에 많이 쓰이는 경화유인 마가린과 쇼트닝이 더 문제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중 판매 12개 컵라면의 분말 스프와 일부 액상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기준인 2.0㎍/㎏보다 적지만 소량(1.02~0.52㎍/㎏) 검출되기도 했다. 강재헌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산화된 기름을 자꾸 섭취하면 뇌혈관이 막혀 신경전달능력이 떨어지고 치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span>”고 했다.<br/> 최근 옥수수 기름과 해바라기씨유 등 식물성 기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마틴 그루트벨드 영국 드몽포르대 생화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옥수수 기름이나 해바라기씨유 등 식물성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알데히드’라는 발암 물질을 만든다</span>”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루트벨드 교수는 반면 “<span class='quot2'>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등으로 조리했을 때에는 유해물질 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span>”고 덧붙였다.<br/> “<span class='quot3'>들기름 등 오메가3 많은 기름 써야</span>”<br/>식용유를 고를 때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둘 다 불포화지방이지만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으면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ㆍ항노화 작용을 해 비율이 높으면 좋다. <br/>하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옥수수기름 등은 오메가3가 거의 없고 오메가6가 대부분이다. 대두유와 카놀라유는 그나마 오메가3가 10% 정도 함유돼 있다. 오메가3가 압도적으로 많은 기름은 들기름(60% 정도)이다. 올리브유, 땅콩유, 아보카도유 등은 오메가3와 오메가6 둘 다 적은 반면 다른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오메가9 지방산(올레인산)이 풍부하다. 김영미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은 “<span class='quot4'>시판 식용유의 대부분이 오메가6의 비율이 크게 높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4'>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1대 1이며 이상적</span>”이라고 했다.<br/>좀 더 건강한 기름을 먹고 싶으면 재래식으로 짠 참기름과 들기름이 좋다. 재래식으로 짠 기름에는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E가 풍부하다. 다만 참깨나 들깨를 볶아 압축해 만드는 참기름과 들기름은 볶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들기름의 유통기한이 아주 짧아 개봉 후 2~3개월 이내 모두 소비해야 한다. 기름은 산소를 만나 산패(酸敗)되면서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 질 수 있으므로 보관도 중요하다. 기름통은 잘 밀봉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고온과 고열은 산패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냉장 보관해야 한다.<br/>“<span class='quot3'>튀길 때 발연점 높은 포도씨유ㆍ카놀라유 사용을</span>”<br/>다양한 기름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도 건강하게 기름을 섭취하는 요령이다. 튀김 요리를 하려면 발연점(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이 높은 식용유를 써야 한다. 튀김할 때 기름 온도가 보통 180~220도이므로 적어도 발연점이 200도가 넘는 식용유를 골라야 발암 물질 생성을 막을 수 있다. 이수정 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5'>발연점이 높은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발연점 220도 이상)는 튀길 때 사용하거나 고기전, 생선전을 부칠 때 많이 쓰고, 발연점이 낮은 올리브유(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발연점 170~200도)은 무침용이나 가벼운 조리용으로 쓰면 된다</span>”고 했다. 다만 올리브유 가운데 퓨어올리브유는 튀김용으로 써도 괜찮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br/><br/><요리할 때 유해물질 줄이는 방법><br/>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85.txt

제목: “비타민C 보충제, 항암 효과 입증 안 돼”  
날짜: 2016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23051403628  
본문: 비타민C를 음식이 아닌 보충제 형태로 복용할 경우 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사진), 오승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이보배 미국 로마린다의대 학생 연구팀은 국제학회지에 발표된 비타민C 보충제와 암 예방의 관련성을 조사한 7편의 임상시험을 메타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2일 밝혔다.<br/>명 교수 등은 의학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와 엠베이스(EMBASE) 문헌검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7편의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연구(총 6만2,619명 대상)를 추린 뒤 메타분석을 했다. 이 결과 음식이 아닌 보충제 형태로 비타민C를 복용한 군과 위약군 사이에 암 발생률이나 암 사망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비타민C 보충제를 단독 투여하든 다른 보충제와 함께 투여하든, 비타민C 용량이나 복용 기간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br/>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제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이 세포에 가하는 산화적 손상을 억제함으로써 암 예방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데 비타민C를 음식이 아닌 보충제 형태로 복용할 경우에는 이런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br/>특히 이번 메타분석 결과는 이른바 비타민C ‘고용량 보충제 요법’의 효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명 교수는 “<span class='quot0'>일각에서 비타민C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바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span>”고 일축했다.<br/>이번 연구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의 SCI급 영문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br/>송강섭기자 erics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86.txt

제목: [사설] 건보재정 누수 주범, ‘사무장병원’ 발본색원해야  
날짜: 2016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23051400249  
본문: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허위ㆍ과잉진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진료비가 최근 7년 동안 8,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지난해 212곳으로 불과 7년 새 36배나 급증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부당청구 한 금액 역시 2009년 3억4,700만원에서 2011년 576억원, 2013년 1,192억7,900만원, 2015년 2,164억원으로 치솟았다. 모두 합치면 8,119억7,000만원에 달한다.<br/><br/> 사무장병원은 비(非)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ㆍ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명백한 불법이다.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주범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부당청구 급여를 전액 환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당청구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데도 환수율은 8%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비의료인이 일단 병원을 설립한 다음 적발되기 전까지 수익을 빼돌리거나 폐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br/><br/>전문가들은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 설립을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강력한 제재와 함께 내부고발자, 자진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 부당의료기관으로 적발되면 허위청구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징수하고 5년 이하 징역, 25만달러의 벌금을 가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에겐 징수금의 50%를 감면하고 내부고발자에게도 회수금의 15~20%를 보상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자진신고자 보상 규정 등이 전무하다. 부당이득금에 비해 처벌 규정이 이처럼 낮다 보니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br/><br/>고령화 가속화로 우리 건보재정은 2020년부터 적자의 늪에 빠진다고 한다. 적자규모는 2020년 6조3,000억원에서 2030년 28조원, 2050년 102조1,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뿐더러 취약한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엄히 다스리고 징벌적 부과금을 물려야 한다. 건보공단이 검ㆍ경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조기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의사면허를 빌려줘 사무장병원을 방조한 의료인과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87.txt

제목: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날짜: 2016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23051249363  
본문: 소금은 기원전 1세기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화폐로 쓰였다. 로마 군인에 지급된 급료도 소금이었다. 오늘날 급여 생활자(샐러리맨ㆍsalaried man)의 어원도 바로 이 소금(salt)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월급이 짠 이유가 소금의 본성 때문이란 농담도 여기서 나왔다. <br/>조개껍질, 소금, 금 등을 거쳐 최근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등장까지, 화폐의 역사는 유구하지만 화폐의 쓰임은 인류의 역사에 큰 상처를 내기도 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span class='quot0'>돈은 가장 좋은 하인이며 가장 나쁜 주인이다</span>”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br/>금융정보분석원장을 지낸 이철환 단국대 교수는 최근 돈의 출발과 순환 과정을 담은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돈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출간했다. 저자는 “<span class='quot1'>돈은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span>”며 벌고 쓰는 방법에 따라 돈을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br/>먼저 좋은 돈은 벌거나 지출하는 과정이 정당하고 자신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돈이다. 나쁜 돈은 돈을 벌거나 지출하는 과정에 부정이나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거나, 자신과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돈으로, 검은 뒷거래를 통해 생성ㆍ유통되는 돈이다. 이상한 돈은 돈을 모은 방식이나 지출 과정, 결과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돈을 뜻한다. 소위 ‘눈먼 돈’과 ‘공돈’이 여기에 해당한다. <br/>저자는 국내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로 ▦치열한 경쟁 ▦빈부 격차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높아만 가는 청년 실업률 ▦노후불안 등을 제시하며 탐욕에 의한 ‘투기’가 아니라 자산 관리 차원의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투기는 주변 사람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리고 물가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등 국민경제에 암적인 존재라는 이유에서다.<br/>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88.txt

제목: 중세를 사랑한 ‘르네상스맨’ 움베르토 에코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22051820329  
본문: ‘중세학자, 철학자, 기호학자, 언어학자, 문학비평가, 소설가. 르네상스맨은 아님’.<br/>19일 84세를 일기로 타계한 움베르토 에코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직접 쓴 소개 문구다. 인문학의 전방위를 맹렬하게 가로지르며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 최고의 르네상스맨으로 불려온 에코의 유머러스한 단면이 엿보이는 글귀다. ‘장미의 이름’의 소설가로, ‘기호학이론’의 기호학자로, 지식의 가장 넓고 깊은 지대를 종횡무진하며 학계와 대중 모두에게서 사랑 받았던 그의 부음은 생전 광대했던 횡보만큼이나 넓고 깊은 애도의 자장을 만들어내고 있다.<br/>밀라노 자택에서 암으로 숨진 에코는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주 소도시 알레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책을 좋아했지만 책 살 돈은 없었던 소시민 가정에서 자란 에코는 법학을 공부하라는 회계사 아버지의 바람을 저버리고 토리노대학에서 중세 철학과 문학을 공부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대학에서 강의하던 10여 년간 방송사의 문화에디터로 일하기도 했다. 단어, 종교성상(聖像), 의복, 악보 등의 기표와 상징을 통해 문화를 해석하는 학문인 기호학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켜 1975년 유럽 최고(最古) 대학인 볼로냐대학의 기호학 교수가 되었고, 평생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기호학 분야의 고전으로 평가 받는 ‘기호학이론’, ‘열린 예술작품’뿐 아니라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혀낸 ‘미의 역사’와 ‘추의 역사’ 등이 학술 분야의 대표작이다. <br/>이탈리아 신문과 잡지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칼럼니스트로서 국내에서도 널리 읽힌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같은 에세이를 내기도 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치는가’, ‘궁극의 리스트’ 같은 인문서뿐 아니라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 같은 대중문화 분석서, ‘논문 잘 쓰는 방법’과 같은 실용서까지 저서의 범위는 광활하다.<br/>저명한 기호학자였던 에코를 순식간에 세계적 슈퍼스타로 만든 사건은 그가 48세에 쓴 첫 소설 ‘장미의 이름’이다. 비극론을 다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음모에 의해 말소된 ‘희극’편이 있었으리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장미의 이름’은 14세기 중세 이탈리아 수도원을 배경으로 잇단 독살사건을 파헤치는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셜록 홈즈 스타일의 탐정 미스터리로 쓴 작품이다. 중세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써달라는 방송사 친구의 제안으로 구상에 들어가 집필 두 달 만에 탈고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히트해 숀 코너리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소설은 40여개 언어로 번역돼 3,000만부 넘게 팔렸다.<br/>소설가로의 돌연한 변신으로 학계를 놀라게 했지만 에코는 “<span class='quot0'>항상 서사 충동을 갖고 있었다</span>”고 한다. “10세 무렵부터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그는 파리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논문을 써도 언제나 ‘누가 무엇을 했다’의 이야기 형식으로 썼다. 단지 다른 스타일로 해왔을 뿐 항상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span class='quot1'>이론화할 수 없는 것은 이야기해야 한다</span>”는 에코의 신념에 따라 소설은 그의 기호학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론이 됐으며, 20여권의 책으로 응축된 그의 기호학적 관심은 총 7권의 소설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br/>하지만 에코가 항상 학계와 문학계의 열렬한 지지만 받았던 것은 아니다. 정반대로 학자적 진지함과 소설가적 재능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양쪽 모두에서 받기도 했다. ‘장미의 이름’ 이후 펴낸 ‘푸코의 진자’ ‘전날의 섬’ 같은 소설들은 상업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지만, 평단에서는 첫 소설처럼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탄이 나오지 않았다. “<span class='quot1'>엄청난 분량에 어려운 개념들로 가득하지만 독자들은 열광하고, 평론가들은 폄하하는 소설</span>”이라는 식의 비판이 반복됐다. 살만 루시디가 ‘푸코의 진자’를 두고 “<span class='quot2'>유머도 없고, 캐릭터도 죽어있고, 그럴듯한 구어를 흉내도 못 낸, 온갖 공문서에나 나올 법한 까다로운 표현들로 가득한 너무나 지루한 작품</span>”이라고 혹평한 것이 대표적이다. 리처드 번슈타인도 2000년 뉴욕타임스에 쓴 ‘바우돌리노’ 리뷰에서 “에코처럼 솜씨 좋은 스토리텔러가 어째서 이렇게 정형화되고 난삽한 소설을 쓰게 됐는지 독자들은 궁금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미의 이름’은 족쇄와도 같아서 에코 스스로도 “신작을 펴낼 때마다 ‘장미의 이름’이 더 팔린다. 페이퍼백이니까. ‘장미의 이름’을 증오한다”고 말했을 정도다.<br/>에코가 거둔 대중적 성공은 그가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는 작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이었다. 에코는 평생토록 “<span class='quot0'>당신 소설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성공을 거둔 건가요</span>”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 질문을 매우 싫어했다. 과도한 박식이 주는 매력은 “독자 자신이 스스로의 무지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며, 그 수치심이 에코의 화려함에 대한 순진한 존경심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극언까지 들었다. 이에 대해 에코는 “그건 어떤 미인에게 ‘어떻게 남자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죠’라고 묻는 것과 같다”며 “대중들이 단순한 것을 원한다고 믿는 건 출판업자와 기자들뿐이다. 사람들은 단순한 것에 질렸다. 도전 받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실제 “매우 평이한 언어로 전혀 박식하지 않게 쓴 소설” ‘로아나 여왕의 신비한 불꽃’이 에코의 소설 중 가장 조금 팔린 소설이기도 하다.<br/>지식의 최전선에서뿐 아니라 대중문화계에서도 세계적 슈퍼스타였던 에코는 그 이중적 위상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학자들을 불편하게 했지만, 에코 자신은 그런 이중지위에 별다른 모순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근본주의자가 아니다. 호머와 월트 디즈니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하곤 했다. 볼로냐의 선술집에서 밤이면 학생들과 격의 없이 농담을 주고 받으며 와인을 마시던 에코는 “나는 나 자신을 진지한 철학자라고 생각한다. 주말에는 소설을 쓰는 철학자”라고 말한 바 있다. <br/>로마 가톨릭 신자로 나고 자란 에코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신앙의 갈등을 겪으며 가톨릭과 결별했다. “<span class='quot1'>신을 믿지 않지만 종교는 믿는다</span>”고 말해온 그의 종교는 아마도 유머였을지 모른다. 평생 쾌활한 유머와 낙천적 활력으로 왕성한 글쓰기를 해온 에코는 “<span class='quot0'>쓰지 못했지만 썼으면 하고 열렬하게 바랐던 책을 딱 한 권만 꼽아달라</span>”는 파리 리뷰의 질문에 “<span class='quot0'>희극에 대한 이론서를 쓰는 걸 꿈꿨다</span>”고 답했다. “<span class='quot1'>희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향한 인간만의 본질적 반응</span>”이라며 이 이론을 만들 수 없어 ‘장미의 이름’을 썼다는 것이다. 유머가 사탄의 도구라고 믿었던 중세, ‘희극론’을 찾아 나선 수사들의 모험을 그린 ‘장미의 이름’은 그 자체로 웃음의 역할을 종교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문학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br/>에코는 ‘장미의 이름’ 후기에 “나는 모든 곳에서 중세 시기를 본다. 그 시기는 중세적이지만 중세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 일상의 관심사에 투명하게 덮여 있다”고 썼다. 훗날 그 의미를 묻는 파리 리뷰의 질문에 에코는 “중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끌린다. 중세는 암흑시대가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시대였고, 그 시대의 비옥한 토양에서 르네상스가 출현했다”고 답했다. 그야말로 중세를 사랑한 르네상스맨이었다. <br/>소설에 성적 묘사가 너무 적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쓰는 것보다 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라고 유쾌하게 답했던 이 지식의 거장은 라틴어를 비롯한 10여 개 언어에 능통한 언어천재이기도 했다. 자신의 작품이 번역되는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고 감수하며 번역가들을 질리게 했던 그는 ‘장미의 이름’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번역한다는 것’이라는 책으로 남기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작고한 이윤기씨가 1986년 ‘장미의 이름’을 첫 번역한 후 1992년 500개의 각주를 단 개역판을 냈고, 2000년 철학박사 강유원씨의 지적을 수용해 260군데의 오역을 바로 잡은 세 번째 개정판을 선보였다. <br/>에코는 2011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소설가와 학자 중 어떤 것으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판단은 후대에 남겨두겠다”며 “<span class='quot0'>나의 모든 소설은 학문과 서로 연결돼 있다</span>”고 답했다. 가디언의 표현처럼 “ ‘장미의 이름’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과 기호학과 언어철학은 세계적 판매고가 다를 뿐 모두 움베르토 에코라는 퍼즐을 이루는 조각들”이다.<br/>에코가 지난해 펴낸 마지막 소설 ‘0번(Numero Zero)’은 무솔리니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가정 하에 베를루스코니 체제를 낳은 미디어 정치와 언론의 음모를 다룬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올 여름 열린책들에서 번역돼 나온다.<br/>박선영기자 aurevoir@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89.txt

제목: ‘장미의 이름’ 이탈리아 학자 움베르토 에코 별세  
날짜: 20160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21051333378  
본문: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작가이며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가 19일 암으로 별세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84세.<br/>이탈리아 알레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에코는 토리노대에서 중세 철학과 문학을 공부했으며 5년 정도 국영방송인 이탈리아방송협회(RAI)에서 다큐멘터리 PD로 근무하다 1950년대 중반부터 토리노대와 밀라노대, 피렌체대, 볼로냐대 등에서 미학과 건축학, 기호학 등을 가르쳤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서 개인용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지식을 쌓은 그는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비롯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에 통달한 ‘언어의 천재’이기도 하다.<br/>그의 이름은 1980년에 펴낸 첫 소설 ‘장미의 이름’을 계기로 전세계에 알려졌다. 중세 수도원을 무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의 필사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연쇄 살인사건을 추리기법으로 다룬 이 소설은 에코의 방대한 지식이 담긴 현학적인 내용과 미스터리적인 전개방식 등의 매력으로 세계적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1986년 국내에도 소개돼 ‘에코 열풍’을 불렀고, 1989년에는 숀 코너리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인기를 끌었다.<br/>1988년 두 번째로 내놓은 소설 ‘푸코의 진자’도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소설은 영세출판사 편집자 3명이 장난 삼아 템플기사단이 세계를 전복하려 한다는 음모설을 퍼뜨리려다 이 계획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쫓기게 된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이어 ‘전날의 섬’(1994년)에서는 17세기를 무대로 해상에 정박한 무인선에 닿은 한 청년이 멀리 날짜변경선 너머라고 믿는 섬을 보며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내용을, ‘바우돌리노’(2000년)에서는 제4차 십자군 원정 중 콘스탄티노플에서 약탈 중에 벌어지는 허풍선이 기사의 모험을 다뤘다.<br/>2004년에는 다섯 번째 소설 ‘로아나 여왕의 신비한 불꽃’을 냈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고서적 전문가 얌보가 공적인 기억은 온전한데 개인적인 삶과 관련된 기억은 모두 사라진 특이한 기억 상실증에 걸려 경험하는 시간 여행을 담았다. 2010년에 낸 마지막 작품 ‘프라하의 묘지’에서는 거짓과 음모의 중심에 있는 시모니니라는 인물을 통해 19세기 유럽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음모론이 어떻게 생산되고 퍼져 나가는지 보여준다.<br/>소설이 다작은 아니지만 에코의 작품에는 일관된 창작 방식이 있다. 문학과 역사, 다양한 언어적인 맥락을 연계시키는 ‘간(間)텍스트성’이다. 에코는 1990년대 중반 한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내 소설은 이상한 우연으로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아카데믹한 소설이라고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연애소설 같이 쉬운 소설이 아니다</span>”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현대작가로 제임스 조이스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를 꼽은 적도 있다.<br/>소설 이외에도 ‘중세의 예술과 미학’ ‘기호학 이론’ ‘독자의 역할’ ‘기호학과 언어철학’ ‘해석의 한계’ 등 학술서와 에세이도 다수 남겼다. 에코의 소설과 여러 인문학 책들은 모두 열린책들에서 국내 번역 출간돼 있다.<br/>김범수기자 bskim@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90.txt

제목: 계명대 동산병원 로봇수술 1000례 돌파  
날짜: 2016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20051236189  
본문: 로봇으로 폐암ㆍ심장판막수술 지역 최초<br/><br/><br/>계명대 동산병원이 로봇수술을 시작 4년여 만에 1,000례를 달성했다. 아시아 최초로 자궁경부암 단일공수술에 성공하고, 우측결장암 단일공수술 국내 2번째, 폐암, 심장판막성형수술 지역 최초, 자궁내막암 단일공수술 국내 최다 등의 기록을 양산하고 있다.<br/>동산병원에 따르면 로봇수술센터장 조치흠 교수(산부인과)가 지난 15일 부인과 환자 3명을 로봇으로 수술하면서 로봇수술 1,000번째를 돌파했다.<br/>동산병원은 2011년 6월 다빈치Si 로봇수술장비를 도입해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부인암, 대장암, 위암, 폐암, 담낭 및 췌장 수술 등에 적용해 왔다. 1,000건의 로봇수술 중 2014년부터 하고 있는 단일공수술(구멍 하나로 수술)이 231건이나 된다.<br/>로봇수술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최대 15배까지 시야가 확대되기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이 잘 보여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이나 출혈,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전립선이나 자궁, 직장과 같이 수술시야나 수술공간이 좁은 까다로운 부위의 암환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br/>조치흠 로봇수술센터장은 “<span class='quot0'>수술 후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span>”며 “<span class='quot0'>로봇수술 1,000례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치료적인 성과에서 국내 의료기술을 한층 끌어올렸다</span>”고 말했다. 또 “동산병원이 가진 풍부한 수술경험과 새로운 기술 및 연구들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더 많은 의료진들에게 전수해 주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br/>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91.txt

제목: 형이 사형수가 되기까지... 동생이 써내려간 파멸의 가족사  
날짜: 2016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20051224951  
본문: 누가 이 남자를 괴물로 만들었는가?<br/>마이클 길모어 지음·이빈 옮김<br/>박하 발행·703쪽·1만8,000원<br/>‘롤링스톤스’ 편집장을 지낸 대중음악 평론가 마이클 길모어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형수의 동생이기도 하다. ‘사형수의 동생’이라는 딱지 뒤에 ‘답게’가 아닌 ‘이기도’라는 보조사를 붙이기 위해 생 자체가 부단한 투쟁의 여로였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나쁜 피’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절망과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사이의 결투로 점철된 생애가 어쩌면 이 가족사를 쓰도록 추동했을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그 시점을 꼭 찾고 싶다. 우리 가족의 파멸, 특히 게리의 파멸이 잉태된 시점을.”<br/>청소년기 이래 생의 절반을 감옥 담장 안에서 보낸 저자의 형 게리 길모어는 1976년 가석방 상태에서 두 명의 남자를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 받는다. 당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미국 사회에 “나의 사형을 집행하라”고 요구하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길모어는 사형대에 서서 “자, 시작합시다(Let’s do it)”라고 말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나이키의 저 유명한 광고 슬로건이 여기서 나왔을 뿐 아니라 노먼 메일러의 퓰리처상 수상작 ‘사형집행인의 노래’를 낳은 사건이기도 하다.<br/>“<span class='quot0'>우리 집안의 어두운 비밀과 좌절된 희망의 덫이, 어떤 식으로 나의 형 게리에게 전해져서 그의 살해 충동을 만들어냈는지 보여줄 것</span>”이라는 의도로 형의 사형집행 15년 후 마침내 쓰여진 ‘내 심장을 향해 쏴라’는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과 LA타임스 올해의 도서상을 수상했으며, 무라카미 하루키의 번역으로 일본에 소개됐다. 한국에서는 2001년 번역됐다 절판돼 고가의 중고서적으로 거래되던 책이다.<br/>독실한 모르몬교 신자였던 이들 네 형제의 부모는 자비와 용서를 모르는 가혹한 존재들이었다. 폭력과 학대가 난무했고, 증조부모 대부터 내려오는 유령과 주술에 깊게 물든 공포소설과도 같은 분위기가 가족들을 짓눌렀다. 어머니는 언젠가 “내 자식들이 악마에 물들지 않고 자라는 게 이 어미의 소망이다”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다.<br/>부모가 남발했던 애정과 학대의 엇갈린 화살표들은 네 형제를 갈라놓았다. 소년원에서 형 게리를 담당했던 의사는 “<span class='quot1'>게리는 가족, 특히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아버지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왔다</span>”고 기록에 남겼지만, 산후우울증으로 아기였던 저자를 베개로 질식시키려다 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했던 어머니는 “<span class='quot1'>아버지가 게리를 때리고 제 자식이 아닌 것처럼 박대할수록, 그리고 학교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게리에게 심한 형벌을 가할수록, 게리가 자신의 특별한 아들, 자신이 가장 사랑해야 할 자식이라고 더 강한 애착을 보였다</span>”.<br/>유일하게 아버지로부터 사랑 받은 어린 막내였던 저자는 형들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미움 받고 배척당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암으로 죽자 사랑 받았던 아들인 저자는 유일하게 단 한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된다.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왜? “<span class='quot0'>어쩌면 그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아버지가 그 긴 세월 동안 베풀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서러움, 이제 화해의 기회를 영영 상실했다는 안타까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span>”<br/>하지만 ‘어째서 게리만 살인범이 된 걸까?’ 하는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어머니는 “나는 프랭크와 게리를 똑같이 키웠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총을 잡았고, 다른 아이는 그러지 않았죠. 왜일까요?” 울며 묻는다. 하지만 프랭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큰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상에는 온갖 죽음의 방식이 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고 홀로 죽는 사람도 있다. 그건 물론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 따위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br/>게리가 사형 집행 전 마지막 남긴 말은 저자를 아찔하게 한다. 제 생명이 총에 맞아 흩어지기 전 그는 이렇게 말했다. “<span class='quot0'>그래도 아버지란 존재는 늘 남아 있겠지.</span>” 게리를 포함한 네 형제는 모두 결혼해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도 가정을 이뤄 자식을 낳고 싶다는 절실한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은 우리 대에서 끝이 나야 하는데, 자식을 가진다는 건 그 파멸을 영속시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 파멸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그들은 혈통을 이어가기 전에 자신을 끝장내버림으로써, 혈통을 단절시켰다.” 저자는 책의 한 장을 마태복음 10장 36절의 말씀으로 인용한다. “<span class='quot0'>사람의 원수는 그 가족이리니.</span>”<br/>박선영기자 aurevor@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92.txt

제목: 민중의 벗 호남평화인권사랑방 정의행 의장 별세  
날짜: 20160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18051302020  
본문: ‘민중의 벗’으로 불리며 수십년간 생명평화운동을 펼쳐온 정의행 호남평화인권사랑방 의장이 별세했다. 58세.<br/>지난해 9월 발병한 급성 백혈구암으로 투병을 해 온 정씨는 최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해 지난 16일 밤 숨을 거뒀다. 전남 순천 출신인 고인은 고교 졸업 후 출가했다가 환속한 뒤 공단 노동자로 생활하던 중 5ㆍ18민주화운동과 진상규명운동에 참여했다 투옥되기도 했다. 1987년 6월 항쟁 과정에선 지선스님, 법성 스님등과 함께 불교계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으며 2003년부터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공동대표와 반전평화운동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전념했다.<br/> 그는 또 불교에 심취해 ‘한국불교통사’,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를 출간했으며 올해 초에는 광주불교연합회가 선정한 빛고을 불자대상을 받기도 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3년상(喪)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에 참여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가족 지원, 세월호 인양 촉구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하며 느낀 단상들을 담은 시집 ‘노란 리본’을 출간하기도 했다.<br/> 유족으로는 부인 전소연(58)씨와 아들 자주(30)ㆍ한길(26)씨가 있다. 빈소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19일 오전 10시, 장지는 국립 5ㆍ18민주묘지다. (062)231-8901<br/><br/>광주=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93.txt

제목: 갑상선암 확진 日후쿠시마 아동 비율, 통상 발병률 수십 배  
날짜: 2016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16052144297  
본문: 확진 116명·의심 누계 50명…발병원인·방사선 영향 인정 놓고 이견<br/><br/>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당시 18세 이하이던 후쿠시마현 아동 가운데 암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전국 통상 발병률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br/>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현민건강조사 검토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원전사고 당시 후쿠시마현 아동 가운데 116명이 갑상선암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해 발표했다.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갑상선암에 걸렸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은 50명이다.<br/>암 확정 또는 암 의심자 166명 가운데 51명은 사고 발생 후 약 3년간 시행된 첫 번째 주기 조사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가 두 번째 주기 조사에서 이상이 파악됐다. 후쿠시마 아동을 상대로 벌인 갑상선암 조사에서 확진자의 비율은 10대의 갑상선암 발병률보다 높게 집계된다. <br/>일본 전국의 갑상선암 환자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 되려면 후쿠시마 현의 아동 갑상선암 확진자는 2명 정도여야 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br/>하지만, 이를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전국의 갑상선암 발병률보다 수십 배나 높은 비율로 후쿠시마현의 갑상선암 확진자가 파악됐다는 사실이 큰 틀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방사선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와 방사선의 영향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함께 제시됐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94.txt

제목: [웰빙 클리닉] 병도 없는데 나는 왜 항상 피곤할까?  
날짜: 2016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16052134222  
본문: 송찬희 여의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br/><br/>필자가 막 전문의가 되어 환자 진료를 시작했을 무렵의 일이다. 극심한 피로로 집안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한 30대 여성 환자를 진료하고 결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모든 검사가 정상이라고 말하자, 갑자기 환자가 “<span class='quot0'>내가 이렇게 기운이 없고 힘든데 이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span>”며 울부짖어 매우 놀라고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런 경우 의사로서 해 줄 수 있는 말이 “<span class='quot1'>신경성이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음식 먹으며 푹 쉬라</span>”는 극히 상식적인 말 밖에 없었다. 의사로서 자괴감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이후 다행스럽게도 임상 영양이나 스트레스, 피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최신 의학지식을 습득하고 영양 평가나 자율신경기능을 측정하는 심박동 변이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되면서 예전의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피로 환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br/>피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빈혈, 갑상선 질환, 당뇨,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 이상을 일으키는 내분비 질환,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신부전, 심장 및 폐질환, 류마티스성 질환, 암질환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피로 환자의 약 40~5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검진이나 외래 진료에서 비교적 쉽게 원인을 찾아 낼 수 있다. 그러나 피로 환자의 반 이상에서 혈액이나 영상의학 검사로 이상 여부를 밝혀내기 힘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원인과 에너지 대사 저하, 자율신경 기능 저하, 영양불균형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며, 끝까지 원인을 밝혀내기 힘든 ‘원인불명’도 존재한다.<br/>심박동 변이검사를 통해 피로 환자의 자율신경을 평가해 보면 특히 교감 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자율신경에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이 중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하고 극복하도록 작동하는 게 교감신경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며 얼굴이 붉어지고 식은땀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 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교감신경뿐만 아니라 부교감 신경 기능까지 떨어지는 단계로 악화되고 이때부터는 쉬어도 쉽게 회복이 안 되는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게 된다. 보통 이 단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병원을 찾게 된다.<br/>영양학적으로는 가공식품을 통한 과당 및 트랜스 지방산의 과다 섭취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대영양소와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사이의 불균형이 피로환자에게 흔한데 이런 경우 영양소를 혈액에서 세포 내로 이동시킨 후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져 피로를 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br/>따라서 자신이 지금 쉽게 회복이 안 되는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감당할 만한 것인지, 집에 돌아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회복이 되고 있는지,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 균형은 잘 맞고 있는지 살피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피로가 좋아지지 않으면 전문적인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br/>질환이 동반되지 않는 만성 피로는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행복한 삶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만성 피로는 어쩌면 이제까지 타인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자신을 아끼고 돌보지 않은 채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나에게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장일 수도 있다. 어제도 오늘도 피로에 찌들어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생활을 성찰하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해본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95.txt

제목: [이 상품 어때요]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으로 현장 자동차 대출 外  
날짜: 2016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16052051673  
본문: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으로 현장 자동차 대출<br/>신한은행은 모바일ㆍ온라인 자동차대출 상품 ‘써니 마이카(Sunny MyCar) 대출’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의 모바일 전문은행 서비스인 ‘써니뱅크’를 이용하면 처음 거래하더라도 타행 인증서만 있으면 대출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한 현장에서 전용 상담센터(☎1577-9561)를 이용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당일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5%이고, 거래실적에 따라 3.9%까지 낮출 수 있다. 신한은행은 “<span class='quot0'>현재 자동차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점유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비대면 채널 전용 취급으로 고객 접근 편의성을 확대했고 금리 경쟁력도 있어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span>”고 밝혔다.<br/><br/>KB생보, 보험에 노후보장까지 한번에 <br/>KB생명보험은 태아 때부터 가입할 수 있는 ‘무배당 KB행복+자녀사랑보험’을 판매 중이다. 1종 표준형과 2종 입원플러스형으로 나뉜다. 1종 표준형은 주계약 가입만으로도 암과 5대 장기 이식수술, 조혈모세포 이식술, 말기신부전증진단, 재해장해, 골절 등을 보장한다. 2종 입원플러스형은 암진단, 교통재해 및 일반재해 장해, 입원을 보장한다. 가입 연령은 태아를 포함해 0~20세이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KB생보는 “<span class='quot1'>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하면, 환급금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해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span>”고 밝혔다.<br/><br/>KB국민銀, OTP 카드에 공인인증서 최초 결합<br/>KB국민은행은 국내 최초로 스마트 OTP(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카드 IC칩에 공인인증서를 탑재하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폰 메모리, PC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저장된 공인인증서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br/>스마트 OTP카드 IC칩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는 보안 1등급 저장매체인 보안토큰(HSM)과 같은 보안성이 제공된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도 1년에서 4년으로 늘려 편의성을 높였다. 스마트 OTP를 이용하는 국민은행 고객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96.txt

제목: 여행은 체력... ‘프렌치 가이’의 현지 적응 레시피  
날짜: 2016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16051952924  
본문: 장기간 여행은 정신력과 체력 싸움이다. 늘 잘 먹어야 한다. 탕탕과 여행을 결심했을 때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천운이 있었으니, 바로 식사다. 탕탕은 프렌치 가이. 프랑스 남자는 요리를 잘할 것이라는 예견이 이토록 꼭 맞아 떨어질 줄이야. 나이만큼 따라붙는 꼰대 기질 대신 그에겐 천혜의 손재주가 있었다. 쓰러질 것 같은 부엌에서 제한된 재료로 5성급 요리를 만드는 저 미다스의 손! 그를 요리사로 데려간 건 아닐까? 프로이트까지 소환해 나도 몰랐던 무의식을 의심할 정도였다.<br/>멕시코를 떠나니 식당 찾는 재미가 확 줄었다.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식당까지 차원을 달리했던 먹거리 도전은 잿빛처럼 사라졌다. 온두라스 상황은 특히 심각했다. 이 나라는 어찌된 게 구이와 튀김으로만 요리법이 종결된다. 점심은 닭가슴 구이, 저녁은 닭튀김, 다음날 점심은 닭다리 구이다. 배를 가르면 닭이 몇 마리는 나올 것 같았다. 그리고 밥, 밥, 밥. 때론 기름덩이 중국 음식을 오히려 구원자라 생각했다. 그들의 식습관인 초저녁 식사에 동참하지 않는 책임도 있었다. 밤늦게 가면 오로지 ‘닭집’만이 환영했다. 식당 문 앞에선 어김없이 닭살이 돋았다. <br/>만만찮은 가격도 적수였다. '여행자를 위한 식당'에는 ‘돈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달려야 했다. 요리의 폭이 넓은 만큼 가격의 수위가 높았다. 때론 서비스란 이름의 영문 모를 세금이 여행자를 당황케 했다. 한번쯤 분위기를 낸다 해도, '잦은 외식은 가정 경제를 무너뜨린다'라는 기초경제학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 현지인 식당에서 일명 ‘오늘의 메뉴(애피타이저+주요리+음료)’만 먹다가는 기아에 허덕일지도 모르는 상황. 결국 탕탕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요리 솜씨를 발휘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장기 여행을 준비한다면 요리 공부를 추가해도 좋겠다.<br/>자, 숙소로 돌아가자. 5성급 요리는 갖가지 재료와 모든 도구가 잘 갖춰진 부엌에서 탄생한다. 하지만 중남미 숙소에서 이런 조건은 '해당사항 없음'이다. 칼은 용도를 잃은 지 오래요, 프라이팬은 폐기처분 직전이다. 이런 악조건에서 오로지 요리에 대한 경외심에서 우러나온 탕탕의 레시피를 공개한다. 단, 3분 요리 조바심은 사절. 한국에서도 전자레인지용 냉동요리와 인스턴트식품으로 연명했던 나 역시 가장 참기 힘들었던 대목이기도 하다. 맛을 향한 기다림과 탐미가 요리의 8할이다. <br/>※주의: 요리 그림의 색채는 실제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상상하는 동물이니까요. 웹툰 ‘역전! 야매요리’의 말투 표절 의혹. 정다정 작가여, 그대의 언어를 일부 차용하매 용서하시길.<br/><br/>▦온두라스 역습 치킨<br/>① 버터(식용유보다 권장)가 보글보글한 프라이팬에 취향에 따라 부위별로 자른 생 닭을 굽는다. 여기에 소주잔 정도의 화이트 와인과 식초를 조르륵. 요리하면서 화이트 와인은 마셔도 좋다. 취기 in 요리. <br/>② 무조건 큰 냄비를 선수 쳐서 차지. 장차 닭이 친히 들어가 소스와 버무려질 예정. 원하는 소스의 양만큼 물을 붓고 치킨 수프용 분말 가루를 넣고 휘휘 젓는다. 여기에 알아서 소금 조금, 후추 조금, 와인 조금. <br/>③ 또 다른 프라이팬을 공수. 양파와 마늘을 넣고 식용유 없이 불에 지진다. 여기에 와인 조금, 식초 조금. 이때 허브 가루를 뿌리면 그윽한 맛과 향을 만날 수 있으나 목숨 걸 필요는 없다 <br/>④ ③의 내용물을 잠시 접시에 피신, 눈치 보이니 이 프라이팬을 재사용해 4등분한 감자를 굽는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암에 걸릴까 걱정될 때까지 바싹. 감자 굽기는 찌그러진 프라이팬으론 호락호락하지 않아 30분 이상은 소요된다 <br/>⑤ 조리된 양파와 마늘을 ②의 냄비에 투척! 섞어주세요! 머스터드 소스도 본능적으로 원하는 만큼 투척. 원칙상 큰 수저로 2큰술 정도다. <br/>⑥ 자, 회합의 시간. ②의 냄비에 ①의 치킨을 퐁당! 간을 보고 식초나 와인 추가 여부를 판단한다. 괜찮다 싶으면, 100g의 요리용 크림을 아낌없이 붓는다.<br/>⑦ 작은 불로 끓인다. 젓는다. 소스 맛을 다시 탐미한다. 더 필요한 게 식초? 혹은 와인? 체크한다.<br/>⑧ 소스가 앙큼한 거품을 낼 때가 바로 먹을 시간. 대형 접시에 구운 감자와 식초에 빠진 크림 치킨을 담아낸다. 빵과 같이 먹을지는 선택 사항. <br/>⑨ 남은 소스로 삶은 파스타와 한 끼 더?! 온두라스야 좀 배워줘. 끝<br/>\* 소요 시간 : 숙소의 가스 불을 몇 개 쓸 수 있느냐에 따라 1시간(3개)~2시간 이상(1개)<br/><br/>▦이틀 요양 샐러드<br/>① 탕탕 소스 먼저. 식초를 부은 컵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 머스터드 소스를 넣은 뒤 섞는다. 이때 썬 마늘이나 양파를 첨가하면 일품. 마지막으로 식용유를 넣고 다시 손목 스냅. 순서는 그대로. 뒤바꾸면 요상한 이물질을 보게 될 것이다.<br/>② 장 볼 때 감자는 최대한 작은 크기로(특히 안데스 감자).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고 끓인다. <br/>③ 계란도 물론 삶아야겠지? 귀찮으면 ②와 같이 섞어 삶아도 생명에 지장 없다 <br/>④ 숙소엔 샐러드 볼이 보통 없다. 무조건 큰 냄비를 선점(예상보다 양이 50% 이상 불어날 것). 입 크기에 맞게 썬 채소, 치즈와 함께 4등분한 삶은 계란과 감자를 한 자리에 모은다.<br/>⑤ 소스와 함께 모든 재료를 쑥덕쑥덕 섞는다. <br/>⑥ 냄비 속 잡탕식 샐러드를 접시에 담아낼 땐 정갈하고 아리땁게.<br/>⑦두세 접시 해치워도 냄비엔 내일을 기약하는 양이 남아 있다. 샐러드를 빵으로 밀어내며 먹는다. 임시 채식주의자로 정신 수양에 힘을!<br/>\* 소요 시간 : 10여 가지 재료로 만들 시 40분. 여행 동지가 야채 썰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1시간 10분. <br/><br/>▦다짜고짜 새우구이<br/><br/>① 프라이팬에 새우를 가지런히 눕힌다. 팬이 달궈지면 새우가 공중부양할 수 있으니 뚜껑은 덮을 것. 새우에서 빠져나오는 물기를 매몰차게 버린 후 소금과 후추, 적은 양의 럼을 붓고 다시 불의 화신 속으로.<br/>② 새우 색깔이 핑크빛에서 붉은빛으로 전환될 때(보통 5분 후, 사이즈에 따라 다름) 잘게 썬 마늘을 송송 뿌려준다.<br/>③ 마늘이 살짝 까맣게 될 때 럼을 왈칵! 파이어! 미슐랭 3스타 셰프, 저리 가소. <br/>④ 새우와 마늘을 돌려차기 해가며 섞는다. <br/>⑤ 다짜고짜 먹는다. 재빠르게 먹는 것이 포인트. 서로 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br/>\* 소요 시간 : 한 접시당 10~15분. 네 접시면 1시간이 또 훌쩍<br/><br/>▦신맛 홍시 토마테 데 아볼<br/>① 토마테 데 아볼의 껍질을 사과처럼 깎는다. 이후 큰 냄비 밑바닥에 서로 겹치지 않게 정렬한다. 물은 과일이 덮일 정도만 넣고 끓인다. <br/>② 12개 토마테 데 아볼 기준, 자신의 단맛 수위에 따라 최소 500g~1kg의 설탕이 필요하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붓는다. <br/>③ 낮은 불로 끓인 토마토 데 아볼이 물러지고 물이 거의 사라질 때가 조리 끝. 냄비가 차가워질 때 냉장고에 넣는다. <br/>④ 기다린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 천연 주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br/>⑤ 최소 하루 지나 먹는다. 주스에 담긴 토마테 데 아볼과 버터 쿠키를 함께하면 다이어트는 저 멀리에.<br/>\* 소요 시간 : 원하는 질감에 따라 3~5시간 <br/><br/>▦여행의 선물 <br/><br/>강미승 여행칼럼니스트 frideameetssomeone@gmail.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97.txt

제목: [이재훈 건강한 인생] 치료는 기본, 그 이상의 병원문화 창조  
날짜: 2016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16051948266  
본문: 우리나라 고급호텔에서는 컨시어지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않고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다. <br/><br/> 반면 외국의 호텔, 특히 럭셔리 호텔을 지향하는 호텔들은 고객에 대한 컨시어지 서비스가 매우 활발하다.<br/><br/> 호텔과 달리 병원에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환자들은 자신의 일과 생활을 다 포기하고 소중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낸다. 이들은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할 경우 많은 어려움과 함께 불안, 초조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br/><br/> <br/><br/> 병원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과연 그 환자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까? <br/><br/> 일찍이 한 사람의 질병의 치료에 있어 60%는 정신적인 측면이 있다. 결국 치료의 상당 부분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br/><br/> 과거의 병원에 대한 기대가 treatment나 care에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환자들은 그 이상 전인적인 건강에 대한 본원적인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br/><br/>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사회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사회적 갈등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환경의 영향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손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단순한 육체적 접근에 더해 정신적인 지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br/><br/> 정신적으로 행복감과 편안함, 안전감을 가질 때 우리 대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해지는 뇌전달 물질이 증가함으로써 암을 비롯한 질병과 손상된 세포의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br/><br/> <br/><br/> 세계보건기구(WHO)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면 "건강이란 질병이나 손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의과대학에 처음 입학 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말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어느새 그 선언은 박물관에 가있고 환자가 사람이 아닌 질병의 덩어리(?)나 고쳐야할 기계처럼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 <br/><br/> WHO가 정의하듯 오늘날 병원이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질병이나 손상에 대한 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분야의 자원과 그리고 전문가 그룹과 연합하여 환자들에게 진정한 힐링을 되찾아줘야 한다. <br/><br/> 환자를 육체적 대상과 질병의 일부로 보는 순간 의료인의 치료 능력은 그 시각의 부분성,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치료 능력이 제한적이 되며 이러한 의료인의 융통성 없는 접근은 오히려 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 <br/><br/> <br/><br/> 병원에서의 컨시어지 서비스는 환자의 완전하고 전인적인 건강의 회복 뿐 아니라 의료인과 병원의 환자에 대한 시각을 본원적인 곳까지 넓힘으로써 의료의 수준을 정확하고 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야 한다. <br/><br/> 병원 컨시어지 서비스의 주 내용은 무척 다양하고 그 영역의 확장성이 매우 높다. <br/><br/> 첫째 영역은 환자나 그 보호자의 입원시나 외래 체류시 문화예술 공연이나 관람을 통한 정신적 완전함의 추구가 가능한 측면, 둘째영역은 입원이나 외래 체류시 업무 손실에 대한 사무 대행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사회적 손실의 회복, 그리고 셋째영역은 병원이 소속된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한 소속감과 안정감 등 여러 방안과 그에 따른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오늘날 높아진 환자의 욕구와 그 실현을 통한 환자의 완전한 치유(Healing)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br/><br/><br/>한국스포츠경제 master@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98.txt

제목: 말기 암 환자, 집에서 호스피스 받는다  
날짜: 2016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15051826969  
본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방문…진료, 상담 등 제공<br/><br/>3월부터 말기 암 환자는 집에서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통증 완화와 상담 등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br/>보건복지부는 14일 “<span class='quot0'>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월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병원에서 실시한다</span>”고 밝혔다. <br/>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말기 암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적 시술 및 증상 관리, 상담, 다른 보건ㆍ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 배에 찬 복수(腹水)를 빼는 등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의학적 시술을 하거나 구토 설사 등 말기 암 환자들이 흔히 겪는 질환에 대해 약을 처방한다. 가정 호스피스는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점만 다를 뿐,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 환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한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별 후에는 사별가족 모임 등을 주선해 준다. <br/> 호스피스 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간호사가 혼자 방문할 경우 1회 5,000원이고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가 모두 방문할 경우 1만3,000원을 내면 된다. 이 금액에는 진료비, 약제비, 방문료, 교통비 등 의사 간호사 등이 한 번 왔을 때 드는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간호사가 월 8회,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각각 1회씩 환자 가정을 방문할 경우 환자는 월 4만8,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현재 일부 병원에서 하고 있는 가정 호스피스의 비용과 방문 횟수를 근거로 산출한 금액</span>”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br/>가정 호스피스를 원하는 가정은 지역의 해당병원에 환자로 등록하면 된다.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1급 사회복지사가 방문한다. <br/>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적지 않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2012년 말기 및 진행 암 환자 469명을 조사한 결과, 환자의 76%가 가정에서 마지막을 지내기를 원했고, 89%가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br/>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평가작업을 거쳐 8월쯤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같은 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 <br/>또 이번 시범사업에는 강원 충남 경북 등 8개 시도에서는 사업 참여를 지원한 병원이 없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9개 시도만 참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생의 마지막 기간을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존엄하고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충실히 만들어가겠다</span>”며 “<span class='quot1'>참여 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br/><br/>◆가정 호스피스 이용 가능 병원◆<br/><br/><자료: 보건복지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399.txt

제목: 5월 내한공연 올리비아 뉴턴 존 “50년간 부른 노래 찾아가는 여행”  
날짜: 2016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13051320038  
본문: “한국 콘서트에서는 제 히트곡을 모두 선보일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무대도 몇 개 준비했으니 와서 함께 즐겨 주세요.”<br/>16년 만에 내한공연을 하는 팝 스타 올리비아 뉴턴 존(68)은 “한국에서 공연했을 때 매우 따듯하게 환영해줘서 한국 팬들을 위해 다시 공연하고 싶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이메일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콘서트는 지난 50년간 부른 노래를 따라가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00년 첫 내한공연 이후 두 번째로 한국을 찾는 그는 5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이튿날인 15일 부산 수영구 KBS부산홀에서 공연한다.<br/>영국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란 올리비아 뉴턴 존은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는다. 그는 1970년대 초중반 컨트리 스타일의 ‘이프 낫 포 유’, ‘렛 미 비 데어’, ‘아이 어니스틀리 러브 유’, ‘해브 유 네버 빈 멜로’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스타덤에 올랐다. 1970년대 후반에는 뮤지컬 영화 ‘그리스’와 ‘재너두’에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수록곡 ‘유어 더 원 댓 아이 원트’, ‘호플리슬리 디보티드 투 유’, ‘매직’, ‘서든리’ 등도 크게 히트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1981년 발표한 ‘피지컬’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0주간 1위를 지키기도 했다. 1984년 첫 결혼 이후 눈에 띄게 활동이 줄긴 했지만 그가 남긴 히트곡들은 오래도록 전 세계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br/>올리비아 뉴턴 존은 지난 50년 음악 인생이 “축복과 행운이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매일 밤 즐겨 부르는 훌륭한 곡들을 갖게 된 것이 제겐 큰 축복입니다. 다양한 관객이 주는 에너지는 매번 새로운 경험을 안겨 주죠. 살아오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사적인 면에선 딸 클로이가 태어났던 때, 음악 경력에선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 공연했던 때일 겁니다. 수많은 관객과 선수들 앞에서 노래한 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br/>할리우드 배우 존 트래볼타와 공연한 ‘그리스’(1978)는 올리비아 뉴턴 존 스스로도 “<span class='quot0'>내 인생과 경력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span>”으로 꼽는 작품이다. 600만달러의 제작비로 60배가 넘는 39억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뮤지컬로 제작되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영화를 찍으며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영화가 다음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덕에 그 친구들과 여전히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리스’는 내게 좋은 음악, 좋은 우정, 좋은 기억을 남겨준 작품</span>”이라고 했다.<br/>올리비아 뉴턴 존은 1992년 유방암 선고를 받고 한동안 투병 생활을 했지만 완치 후 암 연구ㆍ건강증진 센터를 설립하는 등 여성 건강 증진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멸종 위기 돌고래 보호 메시지를 담은 노래 ‘프로미스’를 발표하는 등 환경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앨범 발표와 공연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는 호주 가수 존 파넘과 함께 한 공연 실황을 담은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제게 중요한 것을 표현하는 음악을 녹음하고 공연하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게 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갖고 있으니 저는 행운아입니다.”<br/>고경석기자 kav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00.txt

제목: [경마예상평] 오영열의 짜릿한 경마 2월 12일~2월 13일  
날짜: 2016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13051249121  
본문: 2월 12일 금요일<br/> <br/>3경주: 국산6등급 1200m<br/> <br/>전력차 크지 않은 접전구도로, 순발력과 근성을 겸비했고 특급기수 기승한 13번 한얼의 질주가 근소한 우위를 보이는 경주가 되겠다. 후착권은 4번 샤프윈이 거세 후 3전째를 맞아 입상도전이 가능하며 10번 라온블루와 8번 리얼리원의 도전도 기대할 수 있겠다.<br/> <br/>5경주: 국산5군 암말경주 1000m<br/> <br/>암말경주로 승군전 나서는 2번 골드선의 입상을 기대할 수 있겠다. 순발력과 근성을 갖췄다. 후착권으로는 코스이점 있는 1번 더퀸이 있고, 외각의 9번 별무리 역시 단거리 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가운데, 3번 레이디챔프의 역습도 가능한 경주가 되겠다.<br/> <br/>9경주: 국산4군 1400m<br/> <br/>우열이 드러난 인기마 대결로 5번 에버인에버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다. 당당한 체구의 마필로 순발력은 물론 지구력을 갖춘 유망주로 다시금 연투가 가능하다. 도전권은 3번 팬텀블레이드와 근성 좋은 9번 인더백. 2번 화려한함성은 틈새를 노리는 복병세력이 되겠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01.txt

제목: 또래보다 처질라… 출생일 늦추는 12월의 부모들  
날짜: 2016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12051611174  
본문: 다음해 1월 생으로 거짓 신고해도 <br/>현장에선 밝혀내기 어려운 실정<br/>지난해 12월 말 딸을 출산한 A씨는 아이의 출생 날짜를 실제보다 6일 늦춰 신고했다. 아이의 법적 생일을 1월로 바꿔주기 위해서다. 그는 조산사인 지인의 도움을 받아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출산증명서 날짜를 고쳤다. 거짓 출생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 불안하다는 A씨. 하지만 그는 11일 “2015년 1월에 태어난 애들보다 11개월이나 늦게 태어났으니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반이 되면 뒤처질 수 있어 걱정이었다. 이제는 2016년생 동기 중 가장 생일이 빠른 아이가 됐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br/>12월에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 중 자녀가 또래 아이들보다 발육이나 학습능력이 뒤처질까 우려해 출생 날짜를 이듬해 1월로 바꾸는 이들이 적지 않다. 출생 날짜를 바꾸는 건 불법이지만 경쟁사회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부모들은 암암리에 정보를 주고 받고 위법 행위까지 강행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br/><br/>날짜 변경 가능한 조산원·병원 찾고 <br/>가정출산 조작 등 다양한 편법 이용<br/><br/>지난해 12월 아들을 출산한 B(25)씨는 출산 직전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고 출산 및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 출생 날짜를 바꿔주는 병원이 있다’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다. 그러나 B씨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한 뒤 출산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안팎의 진료비, 입원비가 수백만원 대로 치솟는다는 설명을 듣고 결국 출생 날짜 조작을 포기했다. B씨는 “나이는 같아도 지난해 5~6월에 태어난 친구 아이들은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우리 아이는 개월 수가 모자라 수업을 못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다”라고 토로했다.<br/>해가 바뀌면 나이도 바로 한 살 더 먹는 한국에서 12월에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고민이 많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때 같은 해 1월부터 12월생이 한 학년이 되면서 걱정이 늘었다. 어린 나이 때는 1월과 12월생 사이에 발육 차이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출산증명서를 원하는 날짜에 만들어주는 병원ㆍ조산원을 찾거나, 가정출산을 했다며 출생신고 날짜를 조작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도 “<span class='quot0'>1월만 되면 평소에 없던 가정출산 신고가 꼭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 집에서 출산했다면서 친인척 등을 인우(隣佑)보증인으로 세워 출생신고를 하면 거짓이라는 의심이 든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래도 산모수첩, 출산증명서 등으로 최소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등록시키는 수밖에 없다</span>”고 말했다. <br/><br/>경쟁사회 속 보호심리 맞물려<br/>암암리 정보 교환·위법행위 강행<br/><br/>거짓 출생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제재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를 밝혀내거나 신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관계기관은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는 못했다. 가족관계등록을 총괄하는 대법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출생신고 접수 공무원은 실제 출생한 날짜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 있으므로 출생신고서에 명백한 허위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수리한다</span>”며 “<span class='quot1'>형법상 죄가 성립된다면 개별 사건에서 재판을 통해 처리될 문제</span>”라고 밝혔다.<br/>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경쟁주의에 부모의 자식에 대한 기대와 보호 심리가 맞물리면서 아이의 출생 날짜 조작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출발선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겠지만,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질까 조바심을 느끼는 부모들이 오히려 교육, 입시, 취업 경쟁 등을 부추겨 부모와 아이 모두를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span>”고 우려했다.<br/>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02.txt

제목: 한류 3.0시대, 중국시장의 명과 암  
날짜: 2016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05051329271  
본문: ▲ 중국판 '런닝맨' <br/>방송도 한류 3.0 시대를 맞았다. '겨울연가'가 일본 한류를 촉발시켰다면 '별에서 온 그대'는 아시아 한류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장악했다. '별그대' '상속자들' '런닝맨' 등의 콘텐츠가 대박을 치면서 수출 시장의 확대뿐 아니라 한류의 활동 범위도 넓어졌다.<br/> <br/>포맷이나 콘텐츠 수출에 그쳤던 과거에서 벗어나 제작으로 한류 3.0 시대로 발전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 자본과 세련된 한류 콘텐츠가 결합하면서 중국에서는 새로운 콘텐츠가 쭉쭉 성장하고 있다. 김영희('일밤'), 장혁재ㆍ 조효진 ('런닝맨' 'X맨'), 표민수 ('프로듀사'), 신우철 ('시크릿가든'), 장태유('별에서 온 그대') PD 등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현장을 이끌고 있다. 중국 광전총국의 사전심의제가 TV뿐 아니라 온라인까지 확대돼 새로운 한중합작 프로그램이 대거 탄생하고 있다.<br/> <br/>중국 자본과 한류 콘텐츠의 결합으로 인한 나비효과는 거세다. 중국 심의 통과를 위해 사전제작 드라마가 생기면서 국내 제작환경이 좋아졌다. 쪽대본 밤샘촬영 등의 열악한 제작 환경이 줄었고, 배우나 제작진이 작품성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이영애·송승헌 주연의 '사임당 더 허스토리', 수지·김우빈 주연의 '함부로 애틋하게', 박서준·박형식의 '화랑', 이준기·아이유의 '보보경심:려' 등이 대표적이다.<br/> <br/> ▲ 중국판 '나는 가수다' <br/>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暗)이 있는 법. '쉬운 수출'을 위해 중국 자본을 마구잡이로 끌어 쓰다 보면 인력 유출, 자본 잠식, 콘텐츠 고갈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꽃보다 남자', '장난스런 키스' 등으로 아시아 시장을 주름잡다 중국 투자 이후 드라마 시장이 급속도로 침체됐다.<br/> <br/>이는 대만과 마찬가지로 한류도 결국 중국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중국 자본이 국내 제작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등 투자가 늘면서, 중국 쪽 의견을 작품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br/> <br/>그럼에도 중국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한류 수익의 보고다. 콘텐츠 시장의 확대, 기대수익 증대 등 부가가치 창출이 당분간 꾸준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의 협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다만 콘텐츠 제공자로서 주체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br/> <br/>'학교다녀오겠습니다'의 한중 연출을 맡은 JTBC 오윤환PD는 "중국은 자본의 힘이 절대적이다. 낙후됐던 과거와 달리 요즘 중국 방송 시스템이나 기술 수준이 우리만큼 탄탄하다. 노하우에 대한 습득도 빨라 금방 따라온다. 때문에 중국 시장에 한류의 필요성을 계속 환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br/><br/><br/>황지영 기자 hyj@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03.txt

제목: “버즈피드의 DNA는 미디어와 IT가 반반이죠”  
날짜: 2016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04051725545  
본문: 美 버즈피드가 밝힌 SNS 정복 비결<br/>신입사원은 데이터 분석부터 배우고<br/>의사 소통은 암호화된 메신저로<br/>정해진 회의 시간조차 없어 파격<br/><br/>직원 1300명 중 기자는 190명 뿐<br/>에티터 475명이 화제의 이슈 찾아<br/>리스티클ㆍ카드뉴스 등 콘텐츠화<br/>하루 600여건 모든 플랫폼에 개방<br/><br/><br/>세계 최대 소셜미디어로 떠오른 미국의 버즈피드는 한 마디로 성격을 정의하기 어려운 업체다. 2006년 미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의 공동 창업자인 조나 페레티가 콘텐츠 확산 경로를 연구하기 위해 직원 5명과 함께 설립한 이 업체는 당시만 해도 평범한 정보기술(IT)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이었다.<br/>그런데 버즈피드는 콘텐츠의 속성을 파악하면서 소셜미디어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어떤 콘텐츠가 인기가 높고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는지 알 수 있게 되자 직접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었다.<br/>초기에는 ‘30세가 되기 전 꼭 해야 하는 10가지 방법’처럼 목록(리스트)과 기사(아티클)를 결합한 형식의 ‘리스티클’을 주로 만들었다. 지난해 초 사람마다 ‘파랑+검정’ 또는 ‘흰색+금색’으로 다르게 보여 논란이 된 일명 ‘드레스 게이트’는 버즈피드가 해당 사진에 투표를 결합해 확산시킨 대표 콘텐츠다. 주로 이용자들이 가볍게 볼 만한 콘텐츠를 만들던 버즈피드는 점차 일반 뉴스 보도로 영역을 넓히다 지난해 초에는 지정석이 49개뿐인 백악관 기자실까지 입성했다. <br/>지금 버즈피드는 인터넷,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로 소비되는 기사나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 콘텐츠 생산 업체가 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버즈피드의 월 평균 순 방문자수(UVㆍ중복 방문을 제외한 수)는 2억명, 월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최근 50억건을 돌파했다. <br/>특히 동영상 분야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2014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에 그쳤던 동영상 광고 매출은 지난해 35%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미국 트래픽 조사업체 컴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버즈피드 비디오는 주 소비층인 18~34세 미국인 사이에서 CBS, NBC, MTV 등 유력 방송사를 제치고 월 조회 수 약 4,500건으로 1위에 올랐다.<br/>회사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2014년 10월 770명이었던 버즈피드의 전체 직원은 지난달 1,300명까지 늘었다. 현재 미국 뉴욕 본사를 포함해 미국 내 8개 지역과 영국, 독일, 캐나다, 인도, 일본 등 10개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영어, 프랑스어, 인도어, 일본어 등 11개 언어로 서비스 중이다. 여기에 연내 한국에도 사무실을 열고 한국어 콘텐츠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br/>IT 업계에서는 버즈피드의 기업 가치가 이미 전통 미디어를 넘어섰다고 본다. 지난해 기술 전문 매체 ‘리코드’는 버즈피드의 기업 가치를 15억달러(약 1조8,247억원)로 평가했다. 지난해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가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수한 금액 13억달러(1조 5,814억원)를 웃도는 금액이다. <br/><br/><br/>암호화된 메신저로 일하는 버즈피드<br/>전 세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버즈피드의 ‘심장’ 미국 뉴욕 맨해튼 5번가의 본사를 최근 방문했다. 버즈피드는 최근 수 년 새 직원이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근처에 다른 건물을 추가로 빌려 뉴욕에서만 2개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유력 매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한 만큼 대형 언론사 분위기를 예상했지만 버즈피드의 첫 인상은 자유로운 스타트업에 가까웠다. <br/>특이한 것은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꽉 들어찬 업무 공간에서 기사를 쓰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 컴퓨터 모니터에 방문자 유입 경로와 콘텐츠 조회 수를 보여주는 복잡한 그래프를 띄워 놓거나 페이스북, 스냅챗 등 인터넷 서비스를 보고 있었다. 앞서가는 IT 기업처럼 서서 일하는 사람도 곳곳에 보였다. <br/>버즈피드에 새로 합류한 직원들이 가장 먼저 익히는 것은 콘텐츠 제작이 아니다. 벤 스미스 버즈피드 편집장은 “<span class='quot0'>신입 직원들은 자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파운드’를 배워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버즈피드의 성공은 훌륭한 직원들을 돕는 좋은 도구(파운드)가 있었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 파운드는 이용자들이 어떤 콘텐츠를 선택하고 공유하며, 어느 지점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수명이 얼마나 긴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다.<br/>버즈피드에서는 얼굴을 맞대고 의논할 만한 일도 대부분 암호화된 메신저로 처리한다. 스미스 편집장은 “<span class='quot1'>우리는 다른 매체들처럼 오전에 편집 회의를 하고 오후에 콘텐츠를 만든 뒤 다시 회의를 하는 등 정해진 일정이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모든 의사 소통은 암호화된 메신저 ‘슬랙’을 이용한다</span>”고 설명했다. 편집국 수장인 그의 역할도 지시가 아니라 ‘정리’라고 정의했다. <br/><br/>기자보다 에디터가 더 많은 회사<br/>스미스 편집장은 월스트리트 저널 유럽과 뉴욕 선, 뉴욕 데일리 뉴스 등 유력 매체에서 정치 분야를 취재하던 기자였다. 2004년부터 워싱턴 정계의 소식을 전하는 블로그 폴리티코, 폴리티커, 데일리 폴리틱 등에서 글을 쓰다가 2011년 말 버즈피드에 합류했다. 정통 매체와 신생 매체를 모두 거친 셈이다.<br/>스미스 편집장은 “<span class='quot1'>버즈피드는 기존에 몸 담았던 매체들과 DNA가 다르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과거 근무한 언론사들은 기자가 ‘별’이고 모두 별이 되기를 원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러나 버즈피드는 미디어와 IT 기업의 DNA가 반반씩 섞여 있다</span>”고 했다. 기자들의 기사 생산이 위주인 전통 언론사들은 소수의 개발자(엔지니어)들이 기자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일을 하지만 버즈피드는 뛰어난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br/>수치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버즈피드는 전체 직원 1,300명 가운데 현장에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는 190명뿐이다. 인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편집자(에디터)다. 약 475명의 에디터들은 인터넷에서 어떤 일이 화제가 되는지 파악하고 이를 리스티클이나 카드뉴스 같은 콘텐츠로 만들어 플랫폼 별로 가공해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br/>여기에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엔지니어가 175명에 이른다. 스미스 편집장은 “<span class='quot1'>로스앤젤레스 동영상 스튜디오에서는 영상 제작 인력 200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들 역시 본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각자 콘텐츠를 생산하며 스냅챗용 7초 영상, 페이스북용 30초 영상 등 플랫폼 별로 세분화해 유통한다</span>”고 설명했다.<br/>이렇게 버즈피드가 생산하는 콘텐츠는 하루 평균 600개다. 버즈피드는 모든 플랫폼에 콘텐츠를 개방하는 ‘오픈 플랫폼’ 정책을 펴고 있어서 자사 홈페이지뿐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핀터레스트 등 30여개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콘텐츠를 배포한다. 그래서 버즈피드 일원으로서 가장 필요한 역량 중 하나는 각 플랫폼 별로 어떤 콘텐츠가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이다. 스미스 편집장은 “<span class='quot1'>버즈피드 홈페이지에 직접 찾아오는 이용자보다 각종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접하는 이용자 비중이 점차 많아지고 있지만 개의치 않는다</span>”고 말했다. 버즈피드 콘텐츠를 소비하는 전체 이용자 수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접속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br/>스미스 편집장은 “<span class='quot1'>몇 년 전 우리를 (언론이 아니라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span>”며 “<span class='quot1'>점점 더 이용자들이 버즈피드의 콘텐츠를 보고 공유하고 알려주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콘텐츠 생산자가 해야 할 역할</span>”이라고 말했다.<br/>글ㆍ사진 뉴욕=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04.txt

제목: 전립선비대증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날짜: 2016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04051422393  
본문: 전립선비대증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br/> <br/> <br/>전립선비대증이 있으신 환자에게 의사가 알아야 할 정보는, 환자의 증상이 어떤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실제 소변을 보는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 전립선암의 유무 정도입니다.<br/> <br/>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소변이 자주 마렵다거나, 소변을 참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 같은 증상도 그 회수나 불편감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가늠 할 수 있도록 한 설문이 있습니다. 보통은 국제전립선점수표라고 하는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점수를 이용하여 불편함의 정도를 판단하고, 치료 후에 증상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 삼게 됩니다.<br/> <br/> 소변을 보는 기능은 요속검사와 배뇨 후 잔뇨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요속검사는 말 그대로 소변이 나오는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측정장치가 설치 된 변기에 소변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검사인데, 소변발의 세기라든가 소변을 본 양 등이 그래프 형태의 그림으로 출력이 됩니다. 비뇨기과 의사라면 결과의 수치뿐이 아니라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서 배뇨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게 됩니다. 잔뇨검사는 배뇨 후에 방광에 남의 소변의 양을 측정하는 것인데, 초음파 기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잔뇨검사를 함으로써 환자가 호소하는 잔뇨감이 진짜 잔뇨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하고, 소변을 본 양과 비교하여 배뇨 기능의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br/> <br/>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을 보기 위해서는 직장 수지검사와 전립선초음파검사를 시행합니다. 전립선 초음파검사는 전립선만을 확대하여 내부에 암처럼 보이는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를 보고, 크기를 측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전립선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초음파 탐침봉이 항문을 통해 전립선을 관찰하게 되어 환자분들이 당황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아 보신 분들은 대부분 별로 힘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검사시간이 짧은 검사이므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직장수지검사는 초음파검사처럼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 전립선을 만져보는 검사인데 손가락 감각으로 전립선 크기를 가늠하고 암이 의심되는 딱딱한 부위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br/> <br/> 마지막으로 40대 이상 전립선 질환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꼭 하셔야 할 검사 중에 하나가 전립선 암 검사입니다. 전립선특이항원감사 라고 하는데, 피검사로 간단히 시행됩니다. <br/> <br/> 위와 같이 전립선비대증의 검사는 설문지 작성, 요속검사, 잔뇨검사, 전립선초음파검사, 전립선특이항원검사 정도를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br/> <br/>이영훈 원장은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산연세비뇨기과에서 근무하며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05.txt

제목: 허위광고로 암환자 울린 父子… 어간유서 중금속 검출  
날짜: 20160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03051333765  
본문: 기준치의 무려 19배에 달하는 중금속 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암환자들에게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한 부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아버지 서모(76)씨는 앞서 2012년에도 경찰에 적발된 전례가 있어 당시 미비한 규정이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br/>부산 기장경찰서는 일명 ‘어간유(명태 간에서 짠 기름)’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서씨와 아들(44)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br/>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경기, 충청 등 전국 150명에게 어간유 2리터 1병당 50만원을 받고 총 7,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이들은 인터넷 유명 포털 사이트에 “어간유를 매일 150~200㎖씩 복용하면 말기 암치료에 탁월하고 남성의 정력과 여성의 자궁에 좋다”는 글을 올려 홍보했다.<br/>그러나 실제 효능은 검증되지 않았다. 심지어 유독물질인 비소와 산가기준(식용유의 신선도)은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비소는 기준치(0.1㎎/㎏)의 19배를 초과했고, 산가기준은 기준치(0.6㎎KOH/g)를 31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br/>발암성 중금속인 비소는 많이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산가기준을 초과한 유지식품은 성인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br/>이 같은 사실은 과거 피해자가 경찰에 서씨의 영업재개를 신고하며 드러났다. 서씨는 앞서 2012년 어간유를 팔다가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영업으로 단속돼 벌금 500만원을 냈다. 하지만 서씨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2013년 다시 판매에 나섰다.<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영업허가를 위해 실시한 기본검사에서는 비소가 검출되지 않아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영업허가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06.txt

제목: 장수가족 106살 할머니, 이번엔 대장암수술 성공  
날짜: 20160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03051229093  
본문: 계명대 동산병원, 지난달 25일 실시… 4일 퇴원 예정<br/>6남매 모두 생존… 김치ㆍ된장 등 발효음식 즐겨 먹어<br/><br/><br/>평생 처음 병원에 입원한 106살 할머니가 대장암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한다. 초고령자들은 수술 과정의 마취나 회복이 더딘데다 수술 후 삶의 질이 낫다는 보장이 없어 잘 하지 않지만 이 할머니는 거뜬히 이겨내 주목을 받고 있다.<br/>계명대 동산병원 대장항문외과 백성규 교수는 지난달 25일 올해 103살인 추득실(대구 서구 비산동) 할머니에 대한 우측 대장절제술을 복강경수술로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100세 이상 초고령자에 대한 암 수술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 1910년생으로 올해 106살이 되는 추 할머니는 호적에는 3년 늦은 1913년생으로 기록돼 있다. 그는 평생 동안 큰 병 한번 앓은 적이 없고, 입원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br/>추 할머니 속이 불편하고 혈변이 나오자 병원을 찾았고, 대장내시경검사에서 ‘오름결장암’ 진단을 받았다. 백 교수팀은 지속적인 출혈과 함께 대장의 대부분이 막혀있어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장절제술을 시행했다. 70대보다 더 정정할 정도로 건강이 좋은 점도 수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br/>백 교수는 “<span class='quot0'>고령 환자의 경우, 회복이 더디고 여러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른 복강경 수술법을 선택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행히 수술을 잘 견뎌냈고, 조만간 퇴원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추 할머니는 집안 내력과 함께 낙천적인 성격, 제철 식품과 발효 음식을 즐겨 먹은 것이 장수비결이라고 밝혔다. 타고난 건강체질 탓인지 윗니 일부만 틀니이고 아랫니는 대부분 자연치 그대로이다. 틀니를 해 넣기 위해 치과에 몇 번 간 것 말고는 몸이 아파 병원신세를 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6남매의 장녀로 90대인 막내까지 모두 생존해 있다고 해 의료진들도 놀라게 했다. 하지만 남편과 일부 자녀들은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추 할머니는 지금도 혼자 밥을 지어 먹을 정도로 건강하며, 남은 두 딸이 수시로 반찬거리 등을 챙겨 들러 빨래를 하는 등 챙기고 있다.<br/>추 할머니는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 수술이 겁났는데, 잘 됐다고 하니 몸도 마음도 젊어진 기분”이라며 “평소 인스턴트식품을 멀리하고 제철 채소와 생식, 발효 식품 위주의 식단이 장수 비결”이라고 밝혔다. 수술 후 경과가 좋아 2일 현재 식사와 목발 등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거동할 수 있을 정도이며, 4일쯤 퇴원할 예정이다.<br/>백성규 교수팀은 2014년 40세 여성의 직장구불결장 이행부 암을 ‘단일공 로봇수술’로 성공하는 등 수술범위가 넓고 어려운 대장암 치료에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를 미국대장항문학회지와 국제의학 로봇수술 학술지 등에 잇따라 게재해 주목 받고 있다.<br/>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07.txt

제목: 43년간 한센인 돌본 외국인 ‘할매 수녀’ 소록도 찾는다  
날짜: 201601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01051744132  
본문: 오는 5월 소록도병원 100주년 기념식 참석 <br/>고향 오스트리아 귀국 후 11년만에 첫 방문<br/>고흥군, 노벨평화상 추천 등 선양사업 추진<br/><br/><br/>40여년간 전남 고흥군 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을 위해 봉사하다 고향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두 ‘할매 수녀’ 중 한 분이 11년 만에 소록도를 찾는다. 고흥군은 31일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오는 5월에 마리안느 스퇴거(82·사진 위줄 오른쪽) 수녀가 소록도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br/>마가렛 피사렛(81·위줄 왼쪽) 수녀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한국 방문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으며, 마리안느 수녀도 최근까지 암 투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현재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br/>1960년대 오스트리아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두 수녀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소록도에 들어왔다. 이후 2005년 귀국할 때까지 43년간 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들을 돌보며 한평생을 보냈다. 이들이 소록도 병원에 와서 한 첫 일은 한센인과 함께 식사하기였다. 국내 의료진조차 치료를 꺼렸던 당시 분위기로서는 소록도 전체에 큰 충격이었다. <br/>외국인 의료진들이 나병환자와 함께 밥을 먹고 환자의 상처 부위를 직접 만지며 약을 발라주는 치료과정은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두 수녀는 간호사지만 한센인들에게는 친근한 ‘할매’로 불렸고 평소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로 유명했다. <br/>할매 수녀들은 은퇴의 나이를 넘어 70대의 고령에 접어든 2005년 11월 한 통의 편지만 남기고 홀연히 이른 새벽에 소록도를 떠났다. 한센인과 이별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해 누구에게도 떠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br/>두 수녀가 남긴 편지는 “평소 ‘제대로 일할 수 없고 부담을 줄 때는 본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실천할 때”라며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천막을 치며 간호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천막을 접어야 할 때다. 부족한 외국인이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드린다”고 썼다. <br/>고흥군은 두 수녀의 공로와 봉사의 숭고한 참뜻을 기리기 위해 노벨평화상 추천 등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는 수녀의 삶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과 기념관을 조성하고 수녀들이 머물렀던 사택과 성당, 한센인 유품에 대한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br/><br/>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08.txt

제목: 1200도 불꽃 자유자재로... 과학 한국 우리 손에 달려  
날짜: 201601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201051708751  
본문: 1960년대 이래 한국의 과학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1966년에 최초의 과학기술 종합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고, 1970년대 초부터는 대덕연구단지에 각종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속속 들어섰다.<br/>이 연구기관들은 1970년대 중화학 공업의 발전을 견인했고, 1980년대 이후로는 전자, 컴퓨터 등 새로운 첨단 기술 분야로 영역을 넓히는 데 일조했다. 또 이 무렵부터 대학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연구 활동을 중시하는 대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학자와 공학자들의 공부가 한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br/>하지만 과학기술자들의 공부는 책상머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대 이후 세계 과학자들이 이룬 성취는 책상머리가 아니라 실험실과 공방(工房)에서 나왔다. 1862년에 설립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모토는 ‘마음과 손’(Mens et Manus)이다.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좋은 과학자 또는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로 생각해 낸 물건을 손을 움직여 구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과학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작업을 도와주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들의 ‘손으로 하는 공부’는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이지 않게 뒷받침했다.<br/>공방에서 도제식으로 기술을 배우다<br/>대전 유성구 궁동의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에 ‘동명이화학’이라는 작은 공방. 이곳에서 일하는 김종득과 김진웅은 과학 실험용 초자(硝子) 가공의 장인들이다. 일본어에서는 초자를 한자로 ‘硝子’라고 쓰고 ‘가라스’(ガラス)라고 읽는데, 네덜란드어로 유리를 뜻하는 ‘glas’에서 온 말이다.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초자 가공이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일본 기술자들에게서 기술을 배운 한국인들이 해방 후 ‘광명이화학’이라는 업체를 세웠다. 1960년대 후반에는 세공(細工) 부서원만 40~50명이 될 정도로 번성했다. 주로 제약 회사에 앰플 병을 납품하거나 몇몇 정부 연구기관에 물건을 댔다.<br/>김종득과 김진웅은 고등학교를 갓 나온 까까머리 시절인 1968년부터 광명이화학에서 일을 시작했다.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험난했다. 고달픈 생활을 버티지 못해 대개 3주가 안 돼 도망갔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3개월 단위로 신입들이 들어왔다.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선배들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경험 많은 선배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어깨 너머로 지켜보며 서로 경쟁적으로 일을 배웠다. 10대 후반의 이들에게 유리를 뜨거운 불에 달궈 입으로 불어가며 자유자재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가는 모습은 매혹적으로 보였다. 김종득은 “기술 욕심이 대단히 많았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선배들이 모두 퇴근한 밤에 몰래 연습하다가 들켜 호되게 혼나기도 했다. 덕분에 광명이화학 출신은 난이도 있는 작업을 잘 한다고 업계에 널리 알려졌다.<br/>1960년대 후반부터 연구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초자 가공 장인들이 줄지어 기관 전속 기능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광명 출신들은 KIST, 원자력연구소, 표준연구소, 고려대 등에 자리를 잡았다. 김진웅도 1978년에 홍릉의 한국과학원(지금의 카이스트)으로 이직했다. 일을 맡고 있었던 광명 출신 선배가 그 해 설립된 화학연구소로 스카우트되면서 생긴 자리였다.<br/>카이스트 초자실은 거의 24시간 비상대기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평소에는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주문한 물건을 제작해 주는 일을 했지만, 사용 중인 실험 도구에 문제가 생기면 한밤중에 자다가도 달려가 해결해 주어야 했다. 특히 미생물이 들어간 실험은 시급을 다투는 경우가 많았다. 한 달 동안 공들여 배양했던 결과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김진웅은 1989년 카이스트가 홍릉에서 대덕으로 이전할 때 같이 대전으로 내려와 2001년까지 20년 넘게 일하다 정년 퇴직했다. 퇴직하고도 카이스트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공방에서 근 50년 지기 동료인 김종득과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br/><br/>온몸에 축적된 한국 과학 연구의 역사<br/>초자 가공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5평 남짓 되는 이들의 작업실에는 나지막한 낡은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앞에는 가스 버너가 설치되어 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굉장한 화력의 불꽃이 솟아오른다. 이날 작업은 카이스트 화학과 유룡 교수의 연구실에서 의뢰한 촉매 반응기였다. 유룡은 작년 톰슨로이터사에서 선정한 노벨화학상 수상 예측 인물에 국내 과학자로는 처음 이름이 올랐을 정도로 왕성한 성과를 내는 과학자다. 그는 지난 이십여 년 동안 나노 다공성 물질을 이용한 고효율 촉매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동명이화학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br/>김진웅은 연구실에서 보내온 주문도를 살펴본 후 익숙한 솜씨로 가느다란 유리관을 집어 불꽃에 달구기 시작했다. 유리관 속에 필터를 집어넣어 고정시킨 후 때때로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어가며 모양을 만들어 갔다. 필요 없는 부분은 입김을 넣어 팽창시킨 후 살짝 깨 버린다. 복잡한 촉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유리관 안에 작은 유리관을 만들어 넣기도 했다.<br/>이들은 한국 최고의 과학기술 연구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부심을 숨길 수는 없었다. 연구자들은 특정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지만, 초자 가공에 있어서는 이들이 ‘박사’다. 하지만 가끔 이들이 ‘손으로 한 공부’의 가치를 폄하하는 연구자도 있다. “자기가 하라는 대로 딱 하라는 거여. 그런데 그 물건은 백 번 해도 안 되는 거여. 선배(교수)들이 다 해 봤던 거고. 나는 안 되는 걸 알아.” 일종의 갑질이다. 이럴 때는 그냥 주문 받은 대로 작업을 해 준다. 그러면 십중팔구 실험에 실패해 다시 돌아온다. 대학원생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는 학생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도 어떤 실험을 하려는 것인지 대강은 알 수 있다고 한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면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지도교수하고 얘기해 보고 다시 찾아오라고 한다. 숨은 지도교수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br/>사라져가는 과학기술의 숨은 손들<br/>복잡한 형태의 초자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섭씨 1,200도 이상의 불꽃을 다뤄야 한다. 도자기 장인들이 불꽃의 색으로 온도를 가늠하듯, 이들도 솟아오르는 불꽃 어느 부위에 유리관을 넣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뜨거운 불꽃에 유리관을 집어넣고 균일하게 가열하기 위해 엄지와 검지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 덕에 두 장인의 지문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형태를 잡기 위해서 계속 입김을 불어야 한다. 새 물건을 만들 때는 그나마 낫지만, 수리 의뢰가 들어오면 기구 안에 들어 있던 각종 화학 약품들이 기화(氣化)되어 입으로 훅 들어와 코로 빠져나간다. 카이스트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수리 업무가 유독 많았던 김진웅은 벌써 두 차례나 암 수술을 받았다. 이렇듯 그들은 한국 과학기술 연구의 역사를 온몸에 축적하고 있었다.<br/>우리는 어려서부터 책상머리에 앉아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이 공부라고 배웠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공부하는 습관은 잃었을지언정 그 관념만은 또렷이 남아 있다. 선비를 숭상하는 유교 문화의 유산일 이러한 관념은 과학 및 공학 공부에서도 강고하게 작동한다. 어린 학생들에게 알고 있는 과학자를 물어 보면 대개 이론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br/>하지만 과학기술 연구를 위해서는 ‘책으로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공부’도 필수적이다. 1845년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제임스 줄은 운동량과 열의 상호 등가성을 알아내는 실험을 하면서 가업인 양조장의 경험 많은 장인들 도움을 받았다. 과학 시간에 ‘줄의 법칙’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양조장 장인들의 이야기는 잊혀졌다. 현대 한국에서 이러한 장인들은 청계천 공구상가와 세운상가, 대전 대화동 공구상가 등지에서 한국의 산업과 과학기술 연구의 한 축을 지탱했다.<br/>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장인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카이스트 초자실은 김진웅이 정년 퇴직한 후 후임을 찾지 못했다.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일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없어서이다. 우리 사회가 보유하고 있었던 기능을 어떻게 유지ㆍ보존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공부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br/>최형섭 서울과학기술대 교수ㆍ과학기술사<br/>공동기획 : 한국일보ㆍ인문학협동조합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09.txt

제목: [뒤끝뉴스] 생존자 증언에도 남는 넥시아 의혹…왜?  
날짜: 20160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31050508802  
본문: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의 효능을 두고 10년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넥시아로 암이 완치됐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이 직접 공개 증언에 나섰습니다. <br/>대한암환우협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4기암 5년 이상 생존자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넥시아 치료로 말기암을 극복한 환자 10여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지만 넥시아를 복용해 17년째 생존 중이라는 70대 여성, 넥시아 치료로 신장암을 극복하고 9년째 생존해 있는 50대 남성 등 다양했습니다. 암 종류는 달랐지만 항암 치료를 견디지 못해 포기하고 넥시아를 접하고는 5년 이상 생존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br/>하지만 넥시아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었다는 이들의 증언에도 넥시아의 효능에 대한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넥시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암이 치료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암치료 등을 병행했거나 또는 끝난 직후 넥시아를 복용했다면 넥시아만의 효과라고 보기 어렵고,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도 암이 치료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br/>다른 환자단체나 양방 의학계에서 과학적ㆍ임상적 연구를 통해 효능을 검증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강석하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span class='quot0'>효능을 말하려면 넥시아를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넥시아를 복용한 그룹이 암 치료율이 높은지 따져봐야 한다</span>”고 지적했습니다. <br/>한의사는 법에 따라 재량으로 한약을 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그토록 좋은 치료제라면 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효능을 규명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는 걸까요? 한 달에 3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넥시아의 효능을 보지 못했다는 환자들도 있기에 검증 과정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검증을 통해 넥시아가 ‘기적의 암 치료제’로 밝혀진다면 고통 받은 암 환자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br/><br/>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10.txt

제목: 한국인의 대장암 아시아 1위 등극  
날짜: 2016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30051352523  
본문: 대구 달서구에 사는 전덕열(48·가명)씨는 위, 대장 내시경을 하기 위해 한 내과를 방문했다. 평소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잦은 음주로 혈변까지 본 전씨는 혹시 ‘암이 아닐까’하는 걱정을 안고 검사를 했지만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br/>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했지만, 암은 아직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다. 중년 이후에는 각종 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10,000만 명 정도가 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또 6,000만 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한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전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남녀 합해 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유달리 이러한 질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br/>은동엽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0'>한국인에서 위암이 서양인보다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한국인의 짜게 먹는 식습관과 높은 헬리코박터균 유병률을 들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음주 등으로 인해 대장 용종 및 대장암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span>”고 말했다. “<span class='quot1'>암은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의 교정과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다</span>”고 덧붙였다.<br/>위암과 대장암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검사는 앞서 언급한 내시경이다. 내시경을 통해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고 용종이 있으면 즉시 조직 검사나 절제 시술도 할 수 있다. 가장 간편하게 위, 대장 병변 유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위, 대장내시경이다. 이는 의료인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하다. <br/>위내시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날 밤 10시부터 금식을 하고 난 후 검사를 한다. 위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직검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떼어낸 조직으로 병리 조직 검사는 물론, 헬리코박터균(위염, 궤양,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균)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균이 발견되면 약물 복용을 통해 박멸하기도 한다. 또 조직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때에 따라서는 암이라 할지라도 내시경적 절제술로 완치될 수도 있다. 단, 초기에 발견한 경우에 한한다.<br/>마지막으로 은 원장은 “<span class='quot2'>위·대장암의 경우 선천적인 요인보다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2'>지나치게 맵고 짠 음식을 피하고 채식위주로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br/><br/>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11.txt

제목: 예천군, 노인건강 및 출생아 지원 프로그램 확대  
날짜: 2016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29051801457  
본문: 경북 예천군이 다양한 노인건강 및 출생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br/>28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원내 투약처방이 가능한 관내 16개 보건진료소와 7개 보건지소에서는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1회 방문에 본인부담금 900원만 내면 한달치 약을 준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과 거리가 먼 농촌지역 만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br/>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찾아가는 경노당?가정 방문 사업은 연간 600차례, 1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특히 노인성 심뇌혈관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암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질병이 발견되는 저소득층에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위암 간암 유방암 등 조기검진과 발견으로 암 사망률을 줄이는 구실도 한다.<br/>메르스 등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음압에어텐트와 백신전용 냉장고 등 장비를 보강하고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체계를 정비한다.<br/>출산더하기 사업으로는 둘째아 월 20만원, 셋째아 30만원, 넷째아 이상은 50만원을 2년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월 3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18세까지 지원한다.<br/>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12.txt

제목: [까톡2030] “티끌은 모아도 티끌, 차라리 현재를 즐기자”  
날짜: 2016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28052158053  
본문: 자포자기형 사치하는 2030<br/> 쥐꼬리 월급의 절반 이상을 꼬박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의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그 이상을 포기한 이른바 N포세대가 된 지 오래다. 부모세대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고 몇 년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를 장만했다는데 불과 20~30년 전에 그런 세상이 있었는가 싶다.<br/> 이런 상황에 처한 2030세대들이 일상을 사는 해법은? 바로 ‘현재를 즐겨라’다. 악착 같이 살아봤자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적은 월급에 돈을 모은다 해도 푼돈은 어차피 푼돈이니 차라리 평소 갖고 싶던 명품 가방을 사거나 고급 취미를 즐기면서 오늘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다. 이른바 ‘자포자기형 사치’다.<br/><br/>“집은 어차피 못 사요”…저축 대신 고급취미 즐기고, 자동차 사고<br/> 은행원 김나영(25)씨는 2년 전 입사하면서 5년 차까지는 저축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당분간 결혼 계획도 없는데다 저축해봤자 큰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대신 김씨는 일상에 투자하기로 했다. 뮤지컬 관람이 취미인 김씨는 한 달에 50만원 이상을 뮤지컬을 보는 데 쓴다. 가끔은 이 고급 취미를 즐기기 위해 뮤지컬의 본고장인 영국 런던에 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런던에서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위키드 등 10개가 넘는 뮤지컬을 보고 왔다. 김씨는 “<span class='quot0'>한 달에 50만원씩, 뮤지컬 관람에 쓰는 돈을 1년간 꼬박 모아도 600만원인데 서울의 웬만한 원룸 보증금도 안 되는 액수</span>”라며 “<span class='quot0'>차라리 귀족들 취미라 불리는 뮤지컬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 순간 만큼은 부자가 된 기분을 만끽하는 쪽이 더 좋다</span>”고 답했다. <br/> 일본계 회사에 근무하는 손모(30)씨는 입사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가의 승용차를 뽑았다. 집안 사정이 넉넉한 편도 아니고, 결혼 비용도 스스로 감당할 생각이지만 적금 통장은 따로 없다. 월급을 마음껏 쓰고, 남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정도다. 손씨는 “<span class='quot1'>3년 안에 돈을 바짝 모아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월급의 80%까지 저축할 텐데 요즘 서울 집값을 보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오늘 하루라도 즐겁게 살려고 한다</span>”고 했다.<br/>모형 1개당 기본 수십만원이 넘는 프라모델(플라스틱으로 된 조립식 모형 장난감)이나 애니메이션 피규어 수집이 취미인 4년 차 직장인 임광철(32)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들은 취미에 너무 큰돈을 쓴다고 하지만 임씨는 이를 포기하고 저축을 할 때 얻는 효용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임씨는 “<span class='quot2'>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이라고 하는데 한 달에 250만원씩 모아도 17년 정도가 걸린다</span>”며 “<span class='quot2'>50살이 될 때까지 집만 바라보며 악착 같이 살수는 없지 않느냐</span>”고 반문했다.<br/>전문가들 “<span class='quot3'><span class='quot3'>N포세대의 슬픈 단면</span>…섣불리 나쁘다고 비판 못해</span>”<br/> 전문가들은 이러한 2030세대의 자포자기형 사치를 “<span class='quot3'>N포세대의 슬픈 단면</span>”이라고 진단하면서도 “<span class='quot3'>합리적인 소비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쁘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span>”고 분석했다.<br/>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건 현재이고 그런 면에서 현재에 충실한 자포자기형 사치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2030세대에게 기성세대가 대안 없이‘너희들 그러면 안돼’라고 말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꼰대(늙은이)의 소리’로 비칠 수 있다</span>”고 분석했다.<br/> 수백 건의 자기소개서와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어렵게 취업이란 관문을 통과했지만 학자금 대출 갚기는 벅차고 내 집 마련, 결혼이라는 2기 과제를 완수할 엄두가 안 나는 게 2030세대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br/>암울한 상황은 각종 통계로도 입증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전망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PIR(Price to Income Ratio)은 7.3(서울)으로 7년 넘게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월급의 절반을 저축한다고 하면 14년이 걸리는 셈인데,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기간은 더 길다. 청년들이 사회초년생이 되기 전 감당해야 하는 등록금도 치솟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4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등 12개 비회원국의 대학 등록금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8,554달러(약 733만원)로 미국(2만1,189달러)에 이어 두 번째(자료 공개 12개국 중)로 많았다.<br/>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런 자포자기형 사치에 대해 “<span class='quot5'>미래를 포기하고 현실에서 만족감을 구하려는 세대의 단면</span>”으로 표현하면서도 “<span class='quot5'>2030세대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사는 방법의 하나로 나쁘게만 보이진 않는다</span>”고 말했다. 과거처럼 ‘오늘은 참고 내일은 즐겨라’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회인만큼 무기력에 빠져 아무 것도 안 하기보다 ‘오늘이라도 즐기자’는 쪽이 건전하다는 것이다. <br/>물론 자포자기형 소비가 유일한 합리적 대응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은 있다. 전 교수는 “<span class='quot4'>본인의 기대수준을 현격하게 낮추거나 다른 가치를 추종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의 돌파구를 왜 소비주의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지 2030세대들에게 물을 수는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br/>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br/>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13.txt

제목: 효특집 오정섭 - 대구 남산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날짜: 201601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28052106049  
본문: ‘수술 중’ - 내 마음을 수술한 다섯 시간<br/><br/>‘수술 중’<br/>불이 켜졌다. 그날, 나는 의사가 아니었다. 환자 보호자였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호자였다.<br/>수술 예정 시간은 다섯 시간이었다. 내가 메스를 잡을 때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평생과 비교해도 결코 짧지 않을 만큼 길었다.<br/>수술은 다급하게 잡혔다. 불과 며칠 전, 아버지가 예고도 없이 병원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br/>“내가 갑상선암이란다. 개안�N제?”<br/>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비쳤다.<br/>“아버지 갑상선암은 암도 아닙니다. 치료기술이 좋아서 금방 치료됩니다. 제가 동산병원에서 제일 잘하는 선배한테 수술 부탁할게요. 걱정 마세요.”<br/>나 역시 큰일 아니라는 듯 평소의 목소리를 유지했다. 내 말에 아버지는 “그렇지.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하면서 병실 밖으로 나가셨다.<br/>진료실 문이 닫히자마자 눈을 감았다. 현기증이 일었다. 말은 쉽게 했지만 갑상선암은 알 수 없는 병이다. 피부를 절개해서 암이 발생한 부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전이 정도를 알기 힘들다. 말 그대로 수술을 하기 전에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죄책감이 일었다. 명색이 의사인데, 아버지 몸에 암 덩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니. 가족에게 무심했던 것이 사무치도록 후회됐다.<br/>“같이 들어가자.”<br/>집도할 선배가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 과정을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나는 차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내 눈으로 아버지의 암 덩어리를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br/>“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겁니다. 우리 병원에서 최고 실력 있는 선배가 집도를 하니까 깨끗하게 수술이 될 겁니다.”<br/>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손이 거칠고 차갑게 느껴졌다. 평생 교편을 잡은 아버지였지만, 막노동을 하는 사람처럼 거칠고 투박하게 느껴졌다.<br/><br/>나를 등에 업고 30분 넘게 뛰었던 아버지<br/>아주 오래전, 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적이 있다. 그때는 뜨겁고 부드러웠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br/>나는 공작물 숙제를 하고 있었다. 무얼 만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린 나에게는 무척 정교한 작업이었다. 제일 세밀한 부분을 작업할 때였다. 접착제를 정확하게 바르려고 나뭇가지를 눈앞에 바짝 대고 순간접착제를 꾹 눌렀다. 그 순간 눈알이 화끈거렸다. 나뭇가지로 눈을 쿡 찌르는 것 같았다. 접착제가 눈에 튄 것이었다.<br/>“아아악!”<br/>내 비명을 듣고 아버지가 거실로 뛰어들어 왔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냅다 뛰기 시작했다. 골목을 막 벗어나다가 내가 넘어지고 말았다.<br/>“업자!”<br/>아버지는 나를 훌쩍 들쳐 업고 뛰었다. 얼마 안 가 아버지의 등이 땀 때문에 축축해졌다. 헉헉거리는 소리가 경적소리처럼 크게 들렸지만 아버지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나는 계속 악을 쓰며 울었다.<br/>의사가 진료를 할 동안 아버지는 내 팔과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아버지의 손은 불덩이 같았다. 가파른 숨소리는 차츰 잦아들었지만 손은 여전히 뜨거웠다. 눈에 통증이 가라앉을 즈음 의사가 물었다.<br/>“자, 여기 한번 봐라. 이거 몇 개야?”<br/>눈을 떴다. 의사가 내 눈앞에 손가락 세 개를 펴서 흔들고 있었다. 나는 거기엔 대답도 않고 내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를 쳐다봤다. 안도감에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 등을 토닥였다.<br/><br/><br/>아버지의 평소 모습은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였다. 아들 앞에서는 더 그랬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시절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근무했다. 다른 반에서는 농담도 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하면서도 우리 반에 들어오면 무뚝뚝해졌다. 발표를 시킬 때도 (다른 반과 다르게) 학생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불렀다. 내 이름을 부르기가 어색했을 것이다.<br/>나도 마찬가지였다. “자, 주목. 고개 들고 앞으로 봐라.”하고서 설명을 할 때도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책을 들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쳐다보곤 했다. 그 손은 내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력을 잃었을 때 세상과 나를 연결해준 감각의 끈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이 언제나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다.<br/><br/><br/>“<span class='quot0'>학원비도 책임 못 지면 어떡해요!</span>”<br/>“왜 그렇게 차가워졌을까. 어느새 그렇게 거칠어졌을까……”<br/>나는 ‘수술 중’이라는 글씨를 쳐다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자처럼 따뜻하고 부드럽던 손이 언제 저렇게 거칠어졌을까. 초등학교 이후 한 번도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나 나나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까닭이었다. 후회가 밀려왔다. 손이라도 자주 잡아드릴걸. 혹시라도 이렇게 훌쩍 떠나면, 아버지는 아쉬워서 어떡하고 나는 죄송해서 어떻게 하나…….<br/>아버지의 손이 저렇게 거칠어질 동안 나는 내 앞길에만 몰두하고 살아왔다. 얼굴이 무릎 사이에 묻히도록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내 귓가에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다.<br/>“공부하겠다는데 왜 돈을 안 줘요? 부모님이 학원비도 책임 못 지면 어떡해요.”<br/>고3 때였다. 수능을 친 후에 친구들과 영어학원을 다니기로 했다. 등록금이 5개월에 100만 원이었다. 학원비를 달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없다고 했다.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br/>그런데 며칠 후 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br/>“학원 등록해라.”<br/>그 안에 백만 원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길로 학원에 등록했지만 한 달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다.<br/>그 즈음 우리 집안은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뭔가 일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얼마 전 이사를 했고, 부모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크게 실감하지는 못 했다. 기숙사에서 생활한 까닭이었다. 주말에 한 번씩 집에 들렀기 때문에 그저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는 생각이 전부였다.<br/>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IMF 때문에 친척이 하던 사업이 기울면서 그 여파가 우리 집까지 덮쳤다. 아버지가 사업 보증을 서주었던 것이다. 부모님 월급이 절반 가까이 압류로 빠져나갔고, 집도 날아갔다. 결국 월세방으로 옮겼다.<br/>아버지가 친척의 보증을 섰다는 건 대학에 진학한 후에야 들었다. 그 고생을 하고서도 그분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br/>“<span class='quot0'>친척 때문에 집이 날아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습니까?</span>”<br/>어느 날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여쭈었더니 아버지는 ‘선생님’다운 말씀을 하셨다.<br/>“사람과 돈을 저울에 달면 세상 모든 돈을 접시에 올려도 사람 한 명 무게를 못 이길 거다. 사람이 돈보다 소중한 거야.”<br/>그러면서 의사로서의 마음 자세를 일러 주셨다.<br/>“넌 특히 그걸 더 명심해야 한다. 병원을 차리면 절대 환자를 돈으로 보지 마라. 의료인은 돈과 환자를 딱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한다.”<br/>아버지는 오히려 친척을 더 챙겼다. 혹시나 자식들 마음에 원망이 생길까 봐 정확한 부채 규모를 말해주지 않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버지가 내 의과대학 등록금을 상환하는데 10년이나 걸렸다.<br/><br/><br/>‘명함 환자’ 많이 올수록 행복해<br/>“아버지를 살려주세요.”<br/>‘수술 중’이라는 글자를 쳐다보면서,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다. 불길한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눈을 뜬 채 악몽을 꾸는 기분이었다. 내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어도 좋으니,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제발 꿈이었으면 하고 바랐다.<br/>“끝났다.”<br/>가족 중 누군가가 외쳤다. ‘수술 중’에 불이 꺼졌다.<br/>‘수술 끝’<br/>나는 벌떡 일어섰다. 몇 발짝만 움직이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 했다. 선배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선배가 환하게 웃으면서 수술실 문을 열었다.<br/>“천만다행이다. 암이 안 퍼졌더라. 수술 잘 됐으니 걱정하지 마라.”<br/>나는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버지는 아직 마취 상태였다. 병실로 옮기는 동안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후두득, 눈물이 떨어졌다.<br/><br/><br/>수술 2년 뒤, 아버지는 정년퇴임을 하셨다.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했다. 스승이자 아버지인 그분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br/>그날 나는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었다. 수술실에서 간절히 기도<br/>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도록 태무심한 아들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이 새삼스레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아버지가 나를 키우고 가르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돌봐드릴 차례였다. 생각해보면 그 다섯 시간 동안 아버지는 몸의 병을 고쳤지만 나는 내 마음을 덮고 있던 무관심이라는 두터운 먼지를 깨끗이 털어냈던 것 같다.<br/>내가 아버지의 주치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아들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아버지 잘 계시냐?”고 물으면 “때때로 즐겁게 지내신다.”라고 대답한다.<br/>“<span class='quot0'>때때로 즐겁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span>”<br/>‘때때로’ 진료실에 내 명함을 들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다. 아버지에게 소개를 받았다는 거였다. 그분들은 대개 “아버지가 아드님을 참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을 전한다. 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표정이더라고 했다.<br/>명함을 들고 오는 분은 진료비가 무료다. 내가 접수대에 나가서 대신 낸다. ‘명함 환자’가 늘수록 대신 지불해야 하는 진료비가 늘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기분이 좋다. 그것은 아버지가 내게 해주시는 칭찬의 양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부자가 얼굴을 맞대고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용기’는 없지만 이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다. 이런 방법으로나마 아버지와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참 다행이다.\*<br/><br/><br/>오정섭<br/>대구에서 태어나 자랐다. 능인고등학교를 졸업 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계명대학교 재활의학 석사 학위 취득 후 동산의료원 재활의학과 전공, 청도 군립요양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청도 대남병원 재활의학과 과정,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남산병원 재활의학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br/><br/>정리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i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14.txt

제목: 암 환자도 빠진 불법 도박사이트의 ‘유혹’  
날짜: 201601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27051115331  
본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한모(43)씨는 지난 2014년 10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항암치료 등이 이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와도 헤어졌다. <br/>질병과 이혼 등으로 힘들어하던 한씨를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몬 건 불법 도박사이트였다. 집 근처 피시(PC)방을 찾아 우연히 접속한 사이트에서 처음 몇 차례 돈을 딴 게 문제였다. 마땅한 수입원이 없던 한씨가 경제적 보탬이 되겠다는 착각을 한 것이다. 예상대로 이기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돈을 탕진하기 시작했고 본전 생각에 누나와 동생, 매형, 친구들에게까지 손을 벌려 도박판에 쏟아 부었다. 한씨가 지난해 4~5월 두 달간 잃은 돈만 7,000만원에 달했다. <br/>검찰에 붙잡혀 벌금까지 내게 된 한씨는 “<span class='quot0'>미련한 생각에 빚만 지게 됐다</span>”며 고개를 숙였다.<br/>수원지검 강력부(부장 강종헌)는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운영자 박모(41)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 접속, 1억 원 이상의 판돈을 걸어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한씨 등 7명도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br/>박씨 등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판돈의 4.3∼4.5%씩 모두 19억여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br/>이들의 사이트에서 이뤄진 도박 규모만 44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br/>검찰은 판돈을 이체 받는 대포통장 모집책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끝에 박씨 등을 붙잡았다.<br/>검찰은 도주한 운영자 배모(45)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해 뒤를 쫓는 한편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을 추적 중이다.<br/><br/>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15.txt

제목: 금나나 “우리나라 사람 유전적으로 비타민D 흡수율 낮아”  
날짜: 20160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26051356113  
본문: 금나나 씨는 21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span class='quot0'>불필요한 것을 안 먹는 게 더 이로울 수 있다</span>”고 답했다. 금씨는 “사람들은 질병 위험이나 건강을 말할 때 ‘뭘 좀 더 챙겨 먹어야지!’라면서 조바심을 갖는다”면서 “부족한 것을 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과잉섭취가 더 문제가 되는 시대”라고 했다.<br/><br/>그동안 각종 연구 결과 질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만 방지와 신체 활동 늘리기라는 게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금씨는 “건강에 특별한 비법은 없다. 얼마만큼 실천하느냐다”라고 잘라 말했다.<br/><br/>최신 국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대장암 발생률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금씨는 “우리나라 사람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최근 20~30년 새 많이 변했다”고 배경을 말하면서, 육식의 증가, 비만도 상승, 운동량 감소, 식습관의 서구화를 한국인에서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주요 인자로 손꼽았다. <br/><br/>금씨는 그러면서 비타민 D 섭취를 권했다. 그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의 질병 예방 효과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활발하다”고 연구 트렌드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서도 집중 조명 받는 게 비타민 D와 칼슘”이라고 했다. 금씨는 “몇몇 논문을 봤더니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비타민 D 흡수율이 낮더라”라면서 “미용을 위해 자외선차단제를 많이 바르는 것은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는 것”이라 했다. 그는 “예전 혈액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져 있길래 매일 1,000ICU씩 6개월 정도 먹었더니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갔다”며 “영양 불균형이 심한 현대인들에게 비타민제를 챙겨 먹는 것은 건강보험에 드는 것과도 같다”고 했다. 금씨는 이어 “문제는 사람들이 비타민제 챙겨 먹기 시작하는 게 몸이 나빠졌을 때”라며 “20대 때부터 꾸준히 먹어야 50~60대가 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br/><br/>금씨는 비만과 관련해선 “비만도(BMI)가 18.5~24.9로 정상범위이더라도 한국인 등 동양인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암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지방은 전체 양도 중요하지만 분포 부위도 중요한 요소인데 지방이 복부, 그 중에서도 내장지방이 많아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금씨는 “서양인 대상의 연구결과가 한국인에게도 반드시 적용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앞으로 한국 내 데이터를 분석해 우리나라 사람의 고유한 특성과 질병 위험을 밝히고 그에 맞는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했다.<br/><br/>금씨는 여건이 되는대로 귀국해 한국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 그는 향후 진로를 묻는 질문에 “교수 이외의 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금씨는 이어 “꼭 하고 싶은 강의가 하나 있는데, 대학 1년생을 위한 영양강좌 같은 것”이라며 “대입시의 관문의 갓 넘은 이 시기는 평생을 좌우할 새로운 생활습관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br/>송강섭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16.txt

제목: 45세 때 앞머리 벗겨지는 남성 대장암 조심해야  
날짜: 20160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26051355236  
본문: 미스코리아(2002년 진) 출신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영양학 및 역학)인 금나나(33) 씨가 최근 대장암 관련 역학연구 논문 2편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잇따라 게재했다. 금씨는 특히 45세 시점의 남성 대머리 패턴과 대장암 위험의 상관관계를 다룬 논문에서 남성의 특정 대머리 유형이 대장암 위험인자임을 세계 처음으로 밝혔다.<br/><br/>금씨는 21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TV시청 등 오래 앉는 라이프스타일 및 남성 대머리 패턴과 대장암 발생의 관련성을 추적한 역학 논문을 지난해 12월 말과 이달 초 국제 암 저널에 각각 발표했다</span>”고 밝혔다. <br/><br/>논문 제목은 각각 ‘남성 대머리 패턴과 대장 용종 및 암의 위험(Male pattern baldness and risk of colorectal neoplasia)’, ‘오래 앉는 라이프스타일 및 저강도 운동과 대장암의 관련성(Sedentary behaviors and light-intensity activities in relation to colorectal caner risk)’이다. 이들 논문은 영국암저널(BJC, British Journal of Caner)과 국제암저널(IJC, 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에 각각 실렸다. BJC와 LJC는 모두 논문 피인용지수(임팩트 팩터)가 5 안팎에 이르는 권위의 국제 저널이다. 금씨는 논문 두 편 모두에 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리며 연구를 사실상 주도했다. <br/><br/>금씨는 2008년 6월 미국 하버드대학교 생화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한 뒤 하버드보건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5월 영양학과 역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박사후연구원(post-doc) 과정을 밟고 있다.<br/><br/>대장암은 한국인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암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보고서인 글로보캔(GLOBOCAN)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대장암 유병률이 45명으로 세계 1위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 대장암 환자는 2013년 기준 2만 7,618명(남성 1만 6,593, 여성 1만 1,025명)이다.<br/><br/>남성 탈모와 대장암 상관관계 밝힌 첫 논문<br/><br/>금씨의 BJC 논문은 다소 엉뚱하면서 흥미로운 주제다. 45세 시점의 남성 대머리 패턴과 대장 용종 및 암의 상관관계를 파고든 최초의 연구다.<br/><br/>금씨는 연구에서 미국 내 대규모 역학연구인 ‘의료종사자 추적연구(HPFS, 1992~2010)’에 참여한 6만 2,552명(대장암 3만 2,782명, 용종 2만 9,770명)의 데이터를 추적했다. 또 남성 대머리 유형을 45세 시점의 탈모 부위에 따라 앞머리 대머리, 앞머리 및 정수리 대머리, 앞머리 및 경도의 정수리 대머리, 앞머리 및 중등도의 정수리 대머리, 앞머리 및 고도 정수리 대머리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결과를 비교했다. <br/><br/>분석 결과 앞머리만 빠진 대머리는 정상인에 비해 대장암 발생이 1.29배, 앞머리 및 경도의 정수리 대머리는 1.3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종성 용종은 앞머리만 빠진 대머리가 정상인에 비해 1.16배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종성 용종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하는 용종이다.<br/><br/>논문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인슐린,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IGF-1), 안드로젠이 많이 분비돼 대장 신생물 생성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추정했다. <br/><br/>남성의 앞머리 및 정수리 탈모가 공격적인 전립선암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은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남성 탈모 유형(45세 시점)이 대장암 발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힌 것은 금씨가 처음이다. 금씨는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45세 때 앞머리가 벗겨지거나 정수리 부위에 탈모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남성이라면 대장암 위험이 높다는 단서일 수 있으므로 내시경 검사 등 예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금씨는 “이번 연구는 남성 탈모와 대장암 상관관계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br/>오래 앉은 라이프스타일이 여성 대장암 위험 높여<br/><br/>금씨는 IJC 논문을 통해서는 TV를 시청하면서 오래 앉아 있는 등의 라이프스타일이 여성에서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br/><br/>금씨는 연구에서 HPFS와 미국 내 또다른 대규모 역학연구인 ‘간호사 건강연구(NHS, 1992~2010)’에 참여한 여성 6만 9,715명과 남성 3만 6,806명의 데이터를 추적했다. 참가자들을 주당 TV시청 시간에 따라 7시간 간격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눴고, 직장 및 출퇴근 등 저강도 활동에 따른 운동량을 함께 분석했다.<br/><br/>이 결과 TV를 시청하면서 앉아 있는 시간이 주당 21시간 이상이면서 운동량이 적은 여성은 TV 시청이 주당 14시간 이하이면서 운동량이 보다 많은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최고 41%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높아진 대장암 위험률은 운동량을 늘린다고 해서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습관이 대장암 위험을 높임은 기존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TV를 시청하면서 장시간 앉아 있는 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한 연구는 단지 2개에 불과해 확증이 필요했고, 더구나 서있는 시간 등 저강도 운동과 대장암 위험 간의 관련성을 밝힌 논문은 전무했다. <br/><br/>금씨는 인터뷰에서 “TV시청 시간 자체가 대장암을 일으키기 보다는 오래 앉는 라이프스타일 중 TV를 시청하느라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오랜 시간 앉는 라이프스타일(sedentary lifestyle)을 가진 사람을 가장 잘 분별하고 또 이런 오래 앉는 라이프스타일이 결국 대장암 위험도를 높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br/><br/>금씨의 이번 논문은 대장암 위협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운동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습관, 특히 TV를 보면서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br/><br/>송강섭 기자 erics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17.txt

제목: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 “남이 공들이지 않는 연구 분야가 우리 성장동력”  
날짜: 20160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26051353147  
본문: 중국 장쑤성(江蘇省) 쉬저우(蘇州) 종합병원 진출, 광교 중증재활병원 설립, 권역외상센터 전용 건물 완공, 간호대 건물 신축, BK21 플러스 사업ㆍ선도연구센터(SRC)ㆍ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ㆍ연구중심병원 등 국내 4개 대형 국책연구사업 동시 수행….<br/><br/>개원 21주년을 맞은 아주대의료원이 적극적인 변화에 나섰다. 유희석(61)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지난 19일 만나 변화의 성과와 함께 최상의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포부를 들어보았다. 유 의료원장은 이 자리에서 “<span class='quot0'>남이 공들이지 않는 연구 분야는 우리의 성장동력</span>”이라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4개 대형 국책연구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랜드 슬램’ 의료기관은 우리 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과 연세대의료원 등 3곳 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연구에 기반을 두지 않은 병원은 사상누각</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유 의료원장은 1979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옥포대우병원 산부인과 과장을 거쳐 미국 오하이오대 제임스 암센터에서 2년간 연구원으로 일했다. 1994년 아주대병원 개원과 동시에 귀국해 줄곧 산부인과에서 부인암 환자를 돌봤다. 이후 교육수련부장, 연구지원실장, 병원장을 지냈고, 2014년 3월부터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일하고 있다.<br/><br/>-아주대의료원이 경기 남부 의료의 주역으로 자부하는데.<br/>“경기도 첫 3차 의료기관인 아주대의료원은 1,085병상 규모로 하루 평균 4,600명이 넘는 외래 환자가 다녀가고, 전국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규모가 6, 7위를 유지할 정도로 경기 남부 의료의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암 수술 적정성 평가 최고 등급 유지, 로봇수술 3,000례 시행 등 국제 수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로 환자와 지역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적들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치료를 통해 우리 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치료의 메카로 자리잡았습니다. 중증 외상환자를 10년 이상 치료해 온 권역외상센터는 전용 건물(지하 2층, 지상 5층) 완공으로 본격 가동되면 외상환자의 예방 가능 사망률을 35.2%(2010년 기준)에서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 이하로 낮출 수 있고, 한 해 1,000명 넘는 외상환자를 치료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최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없는 경기도에서 ‘공립 병원’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br/><br/>-아주대의료원은 연구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br/>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성장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주대의료원이 4대 대형 국책연구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것은 오롯이 개교 초기부터 연구지원책과 인력 양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연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의료원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에 지원을 계속 늘려 나감으로써 의료원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br/><br/>-연구 분야에 강한 의료원이 된 까닭은.<br/> “1994년 대학원 의학과가 개설됐을 때부터 의대 출신이 아닌 학사들에게도 입학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전일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우수한 인력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지요. 같은 해 국내 처음으로 전임 교원이 주축이 된 의과학연구소까지 만들었습니다. 연구가 중심이 되지 않은 대학병원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진료에 집중하던 다른 병원과 달리 20년 전부터 연구 환경 조성과 인력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실제 국내 대학병원은 지금껏 매출의 95% 정도를 환자 진료에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 신약 개발 등으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가 중심이 되지 않은 대학병원은 점차 경영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첨단의학연구원’을 만들어 산하 12개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초, 임상연구 및 중개연구를 지원하고 있지요. 이 같은 노력 덕분에 4개 대형 국책연구사업 동시 수행 등 다양한 국책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강해 수준 높은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지요.”<br/><br/>- 최상의 의료기관 도약하기 위한 계획은.<br/> “가을에 중국 옌볜 제2인민병원 건진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데, ‘아주대의료원’ 브랜드의 첫 해외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열린 한ㆍ중ㆍ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중국 장쑤성 쉬저우 시내 1,0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외상 환자를 본격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전용건물을 완공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9,173.6㎡(2,775평) 규모의 간호대 신축건물 공사를 시작하고, 병원에서 가까운 광교 신도시에 중증재활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설계와 기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18.txt

제목: 한파가 반가운 안동 암산스케이트장  
날짜: 2016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22051245929  
본문: 이상난동 탓 얼음축제 포기… 최근 혹한으로 인파 북적북적<br/><br/><br/>이상난동으로 축제까지 포기한 경북 안동시 남후면 암산얼음스케이트장이 최근 혹한으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축제와 상관없이 천연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얼음썰매를 지치려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br/>안동시는 해마다 1월 초에 열던 안동암산얼음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했다. 고온현장으로 수많은 인파를 감당할 만큼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은 탓이다.<br/>때늦은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스케이트장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뛰어난 천연 스케이트장에 대한 소문이 익히 나 있던 터라 주말에는 안동은 물론 대구 등 대도시에서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br/>암산스케이트장은 강과 맞닿은 기암절벽과 천연기념물 252호 구리측백나무, 병풍처럼 둘러싼 자암산 등이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br/>안동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년째 얼음축제가 취소돼 아쉽지만 내년에 더욱 멋진 축제를 준비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이용객들이 즐기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span>”고 말했다.<br/>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19.txt

제목: [의약계 동정] 중대병원 베트남 의료 봉사 등  
날짜: 2016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22051146616  
본문: 중앙대병원 베트남에서 의료봉사<br/> <br/>중앙대학교병원이 2016년 첫 의료봉사 활동을 베트남 현지에서 시작했다.<br/> <br/>이번 의료봉사는 중앙대병원과 두산중공업 베트남 현지법인인 두산비나가 지난 2009년부터 함께 진행해오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br/> <br/>중앙대병원은 11일부터 5일간 베트남 꽝응아이에서 현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br/> <br/>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서, 김성덕 병원장을 포함하여 18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5일간 약 2,500여명의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과 소아 질환, 내/외과적 다양한 질환 등에 대한 진료를 진행했다.<br/> <br/> 한편, 중앙대병원과 두산비나는 지난 2009년 베트남 꽝응아이성 정부와 의료봉사활동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꾸준히 베트남 현지를 방문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매년 선천성 심장병 환아와 구순구개열(언청이) 환아를 초청해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있다.<br/> <br/> 이와 함께, 중앙대병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 Q-health 사업자로서 베트남 꽝남중앙병원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자문 및 후에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 과 전문의들에게는 한국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장학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베트남 현지의 의료진 양성과 의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br/> <br/>이대목동병원, 적정성 평가 잇달아 1등급 획득<br/> <br/>이대목동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전국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서 위암에 이어 폐암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br/> <br/>심평원은 지난 2014년 12월 폐암 적정성 1차 평가 결과 발표에 이어 '폐암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월 12일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했다.<br/> <br/>이번 평가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 117개 기관에서 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만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br/> <br/>이대목동병원은 치료대응력과 흡연력 기록비율, 치료 전 정밀검사 시행 비율, 임상의에 의한 암 병기 기록 비율, 병리 보고서 기록 충실률 등 총 20개 평가 항목 대부분 최상위 점수를 기록하며 이번 평가 결과에서 1등급을 기록했다.<br/> <br/>이대목동병원은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폐암 1차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br/> <br/>심기남 교수, 추계학술대회에서 잇달아 수상<br/> <br/>심기남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 교수가 최근 개최된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과 우수 논문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br/> <br/>심기남 교수는 제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송현주 교수와 함께 연구한 '2013년도 개정된 한국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진단 및 치료 임상 진료지침에 대한 학회 회원 인지도 웹 설문조사'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br/> <br/>심기남 교수와 송현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치료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 지침과 실제로 진행된 진단과 치료 현황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의료진이 2013년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진료 지침에 대한 홍보와 의료진의 인식 재고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br/> <br/>또 심기남 교수는 장지영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와 '보르만 분류 4형 위암의 다양한 내시경 소견과 임상적 특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우수논문상도 받았다.<br/> <br/>한편, 역류성 식도염, 위암 등 위장관 질환 권위자인 심기남 교수는 검사 및 치료 내시경에서도 명성이 높으며 진료뿐만 아니라 질병 연구에도 탁월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심 교수는 이번 수상을 통해 받은 상금 전액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새 병원 건축기금으로 기부했다. <br/> <br/>조기직장암 환자도 5년 이상 축적관찰해야<br/> <br/>조기 직장암 환자도 5년 이상 추적 관찰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 <br/>암 완치 및 생존율을 평가할 때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조기 직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87%에 달할 정도로 다른 암종에 비해 상대적 위험성이 덜한 탓에 환자는 물론의료진 역시 5년 이상 관심을 두는 경우가 드물다.<br/> <br/>조용범 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 교수·오보영 임상강사 연구팀은 지난 1994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조기 직장암을 경항문 국소절제술로 치료받은 환자 295명을 10년 이상 장기 추적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br/> <br/>경항문 국소절제술은 항문을 통해 암의 발생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도려내는 방식으로, 암 발생 부위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장을 절제하는 방법에 비해 통증은 물론 수술 중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등이 낮아 조기 직장암 환자에게 많이 쓰이는 치료법이다.<br/> <br/>조용범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국소절제술로 직장암을 제거한 환자 295명은 수술 후 첫 2년간은 3개월마다, 이후 3년 동안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았다. 5년 뒤부터는 매년 한 차례씩 상태를 점검했다.<br/> <br/>이들 환자에게서 재발이 확인된 환자는 모두 30명(10.1%)이었다. 재발 시기를 나눠봤을 때 첫 5년 사이에 재발한 경우가 83%(2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5년 이후 재발한 경우도 17%(5명)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br/> <br/>이들은 조직검사 결과 암이 점막하층의 심층부나 주변 림프혈관으로 침윤한 경우, 암을 절제한 부위 주변에 암 조직이 일부 남아 있었던 경우 등으로 확인됐다.<br/> <br/>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대장항문학회 학술지 <Diseases of the Colon & Rectum> 최근호에 게재됐다.<br/> <br/>화이자,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br/> <br/>화이자가 '리리카'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br/> <br/>대법원은 리리카 용도특허가 유효하다고 14일 최종 판결했다.<br/> <br/>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리리카는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보호받게 된다. 리리카의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br/> <br/>화이자는 지난 2012년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2013년 10월 특허법원 항소건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5월,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2014년 2월 삼진제약과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뒀다<br/> <br/>한편 리리카는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제, 성인 환자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및 섬유근육통의 치료제로 KFDA의 승인을 받았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20.txt

제목: [의약계 동정] 중대병원 베트남 의료 봉사 등  
날짜: 2016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22051145798  
본문: 중앙대병원 베트남에서 의료봉사<br/> <br/>중앙대학교병원이 2016년 첫 의료봉사 활동을 베트남 현지에서 시작했다.<br/> <br/>이번 의료봉사는 중앙대병원과 두산중공업 베트남 현지법인인 두산비나가 지난 2009년부터 함께 진행해오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br/> <br/>중앙대병원은 11일부터 5일간 베트남 꽝응아이에서 현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br/> <br/>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서, 김성덕 병원장을 포함하여 18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5일간 약 2,500여명의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과 소아 질환, 내/외과적 다양한 질환 등에 대한 진료를 진행했다.<br/> <br/> 한편, 중앙대병원과 두산비나는 지난 2009년 베트남 꽝응아이성 정부와 의료봉사활동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꾸준히 베트남 현지를 방문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매년 선천성 심장병 환아와 구순구개열(언청이) 환아를 초청해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있다.<br/> <br/> 이와 함께, 중앙대병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 Q-health 사업자로서 베트남 꽝남중앙병원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자문 및 후에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 과 전문의들에게는 한국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장학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베트남 현지의 의료진 양성과 의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br/> <br/>이대목동병원, 적정성 평가 잇달아 1등급 획득<br/> <br/>이대목동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전국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서 위암에 이어 폐암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br/> <br/>심평원은 지난 2014년 12월 폐암 적정성 1차 평가 결과 발표에 이어 '폐암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월 12일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했다.<br/> <br/>이번 평가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 117개 기관에서 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만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br/> <br/>이대목동병원은 치료대응력과 흡연력 기록비율, 치료 전 정밀검사 시행 비율, 임상의에 의한 암 병기 기록 비율, 병리 보고서 기록 충실률 등 총 20개 평가 항목 대부분 최상위 점수를 기록하며 이번 평가 결과에서 1등급을 기록했다.<br/> <br/>이대목동병원은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폐암 1차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br/> <br/>심기남 교수, 추계학술대회에서 잇달아 수상<br/> <br/>심기남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 교수가 최근 개최된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과 우수 논문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br/> <br/>심기남 교수는 제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송현주 교수와 함께 연구한 '2013년도 개정된 한국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진단 및 치료 임상 진료지침에 대한 학회 회원 인지도 웹 설문조사'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br/> <br/>심기남 교수와 송현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치료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 지침과 실제로 진행된 진단과 치료 현황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의료진이 2013년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진료 지침에 대한 홍보와 의료진의 인식 재고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br/> <br/>또 심기남 교수는 장지영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와 '보르만 분류 4형 위암의 다양한 내시경 소견과 임상적 특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우수논문상도 받았다.<br/> <br/>한편, 역류성 식도염, 위암 등 위장관 질환 권위자인 심기남 교수는 검사 및 치료 내시경에서도 명성이 높으며 진료뿐만 아니라 질병 연구에도 탁월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심 교수는 이번 수상을 통해 받은 상금 전액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새 병원 건축기금으로 기부했다. <br/> <br/>조기직장암 환자도 5년 이상 축적관찰해야<br/> <br/>조기 직장암 환자도 5년 이상 추적 관찰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 <br/>암 완치 및 생존율을 평가할 때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조기 직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87%에 달할 정도로 다른 암종에 비해 상대적 위험성이 덜한 탓에 환자는 물론의료진 역시 5년 이상 관심을 두는 경우가 드물다.<br/> <br/>조용범 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 교수·오보영 임상강사 연구팀은 지난 1994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조기 직장암을 경항문 국소절제술로 치료받은 환자 295명을 10년 이상 장기 추적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br/> <br/>경항문 국소절제술은 항문을 통해 암의 발생 부위만을 선택적으로 도려내는 방식으로, 암 발생 부위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장을 절제하는 방법에 비해 통증은 물론 수술 중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등이 낮아 조기 직장암 환자에게 많이 쓰이는 치료법이다.<br/> <br/>조용범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국소절제술로 직장암을 제거한 환자 295명은 수술 후 첫 2년간은 3개월마다, 이후 3년 동안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았다. 5년 뒤부터는 매년 한 차례씩 상태를 점검했다.<br/> <br/>이들 환자에게서 재발이 확인된 환자는 모두 30명(10.1%)이었다. 재발 시기를 나눠봤을 때 첫 5년 사이에 재발한 경우가 83%(2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5년 이후 재발한 경우도 17%(5명)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br/> <br/>이들은 조직검사 결과 암이 점막하층의 심층부나 주변 림프혈관으로 침윤한 경우, 암을 절제한 부위 주변에 암 조직이 일부 남아 있었던 경우 등으로 확인됐다.<br/> <br/>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대장항문학회 학술지 <Diseases of the Colon & Rectum> 최근호에 게재됐다.<br/> <br/>화이자,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br/> <br/>화이자가 '리리카'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br/> <br/>대법원은 리리카 용도특허가 유효하다고 14일 최종 판결했다.<br/> <br/>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리리카는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보호받게 된다. 리리카의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br/> <br/>화이자는 지난 2012년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2013년 10월 특허법원 항소건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5월,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2014년 2월 삼진제약과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뒀다<br/> <br/>한편 리리카는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제, 성인 환자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및 섬유근육통의 치료제로 KFDA의 승인을 받았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21.txt

제목: 올해 7월부터 결핵 치료 전면 무료  
날짜: 2016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21051142324  
본문: 결핵 치료가 전면 무료가 되고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br/>결핵 치료 전면 무료화 <br/>복지부는 이날 결핵환자의 치료비의 10% 수준인 본인부담을 7월부터 면제하고 진료비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결핵은 약에 대한 내성으로 치료 기회가 단 2번뿐이라 3개월간 꾸준히 약을 잘 챙겨먹는 게 완치에 가장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비용 문제로 치료에 실패해 평생 결핵 환자로 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4년 결핵 발생률은 10만명 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가 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해 결핵을 퇴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배경이다. <br/>4대 중증질환 환자부담 2,200억원 경감<br/>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대폭 확대된다. 유도초음파와 수면내시경, 고가 항암제 등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았던 200여개의 항목에 신규로 보험이 적용된다. 건보가 적용되면 외래진료 환자는 진료비의 30%(의원급)~60%(상급종합병원)만 내면 된다. 예컨대 지금은 10만~20만원 정도 하는 수면내시경을 동네 의원에서 받을 경우 3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건보 확대에 따라 4대 중증질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올해에만 약 2,2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3년부터 시작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효과를 모두 합치면 환자 부담은 총 8,35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br/>또 초경 청소년(만 12세)은 6월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회 접종 비용이 15만원 가량이므로 30만원 가량의 혜택(만 12세 이하의 경우 2회 접종 권장)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br/>이 밖에 간병비ㆍ상급병실료ㆍ선택진료비의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67% 수준이었던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올해 33%까지 낮춘다. 선택진료 의사의 수가 줄어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추가 비용을 내고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줄게 된다. <br/>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제외<br/>이밖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2년차를 맞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현금급여액이 월 평균 45만6,000원에서 51만7,000원으로 13.4% 오른다. 또 하반기 중 초기 치매환자가 이용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의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월 52시간에서 63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r/>하지만 이번 업무 보고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은 누락됐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span class='quot1'>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밀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발표시점은 언제라고 말할 수 없다</span>”고 답했다. <br/><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br/><br/>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22.txt

제목: 고령층ㆍ유병자 가입 쉬운 삼성화재 건강보험 출시  
날짜: 2016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20051703947  
본문: 삼성화재는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인 ‘간편하게 건강하게’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br/>50~70세를 대상으로 출시한 이 보험은 10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질병 사망은 8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당뇨나 고혈압으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입원ㆍ수술 ▦2년 이내 질병, 사고로 입원ㆍ수술 ▦5년 이내 암 진단, 입원 및 수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상해ㆍ질병 사망 시 최고 3,000만원, 3대 질병(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본인 혹은 배우자 사망 시 장례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유병자 및 고연령 계층에 필요한 부가 서비스도 갖췄다. <br/>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23.txt

제목: [헬스 프리즘] 위암 진단, 치료 대형병원 꼭 가야하나  
날짜: 20160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19052032514  
본문: 박재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화기병센터장<br/><br/>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암이다. 그 중에서도 위암은 남녀 모두에게 발병하기 쉬운 대표적인 암으로 손꼽힌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에 따르면, 위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남성의 경우 10만 명당 80.2명으로 전체 암 중 1위를, 여성은 39.2명으로 4위를 차지했다.<br/><br/>위암은 별다른 증상이 없거나 단순한 소화불량과 구분하기 힘들어 건강검진 및 위 내시경으로 질병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위 내시경은 어떤 병원에서 받는 것이 좋을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증명하듯 병원 규모가 클수록 건강검진도 잘하는 것일까?<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위암 1차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암 진단 및 치료에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관 중 85개의 의료기관이 위암수술(내시경절제술, 위 절제술 모두 포함) 전체 종합점수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 여기에 개인종합병원도 포함된 것이다.<br/><br/>이번 평가 결과는 향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줄 수 있는 지표로도 평가할 수 있다. 개인종합병원이라고 해도 체계적인 검진 및 진료과목의 확대, 최신기술 등의 특장점을 개발하면 규모가 큰 병원 이상의 실력을 갖출 수 있음이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위암 적정성평가 1등급이 되려면 시술과 수술 뿐 아니라 혈종, 병리 등 모든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환자수가 평가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1등급을 받은 중견병원은 암치료가 병원 전체 레벨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인해 주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br/><br/>위암 등 소화기암 진단, 치료를 위해 중견병원은 전문의료진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병원 못지않은 최신 장비 등 하드웨어 보완은 이제 필수요소이다. 이와함께 암환자를 중심으로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종양외과,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등 다학제 진료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br/><br/>이번 위암 적정성평가는 암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이 심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아니어도 위암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중견병원 경쟁력은 의료의 질과 장비 등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공감진료’ 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24.txt

제목: 셀린 디옹, 남편 잃은 지 이틀 만에 오빠도 사별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18051701322  
본문: 캐나다 출신 팝스타 셀린 디옹(47)의 친오빠 다니엘 디옹이 16일(현지시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59세.<br/>셀린 디옹은 남편 르네 앙젤릴을 암으로 떠나 보낸 지 이틀 만에 오빠를 잃었다. 두 사람 모두 인후암을 앓고 있었다. 인후암과 설암, 뇌종양 등 세 차례에 걸쳐 암 진단을 받은 다니엘 디옹은 수년간 암 투병을 해오다 캐나다 퀘벡에 있는 간병 센터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그는 열네 남매 중 여덟째로 슬하에 두 딸을 뒀다. 가족들은 23일 추도식을 열고 며칠 뒤 고향인 퀘벡 샤를마뉴의 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br/>고경석기자 kav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25.txt

제목: [카드뉴스] 스네이프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날짜: 2016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17051114639  
본문: 영국 배우 앨런 릭먼이 14일(현지시간) 암으로 별세했습니다. 릭먼은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 출연해 국내 팬에게도 익숙한 할리우드 스타인데요. 스네이프 교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영화 '다이하드', '러브액츄얼리' 등 굵직한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를 선보인 중견배우입니다. 그는 생전 스크린 안과 밖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호그와트 학생들의 편지를 통해 그의 일생을 회고했습니다.<br/>글·기획=이소라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br/>디자인=한규민 디자이너<b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26.txt

제목: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교수 타계  
날짜: 2016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16052126063  
본문: 냉전이 빚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 한가운데를 걸어온 시대의 지성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15일 오후 9시 30분께 암으로 별세했다. 75세.<br/>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강사를 거쳐 육군사관학교 경제학과 교관으로 있던 중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1, 2심에서 사형, 최종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고 20년여 복역하다 1988년 8월 15일 특별가석방됐다.<br/>1989년부터 성공회대에서 경제학을 강의했으며, 출소와 동시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옥중서신이 특유의 융숭한 사유와 곡진한 문장으로 고전에 올랐다. 2006년 성공회대에서 정년퇴임 후 석좌교수로 있으며 약 25년간 이 대학에서 강의했다. 지인들에 따르면 고인은 2014년 희귀암 흑색종 진단을 받아 그 해 겨울 학기를 마지막으로 특강을 제외한 강의를 중단하고 투병해왔다. 국내에 치료약이 없어 임상실험약을 써 고통을 견뎌왔지만 최근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br/>저서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나무야 나무야’ ‘더불어 숲’ ‘변방을 찾아서’ ‘강연’ ‘담론’ 등이 있으며, 서화집 ‘처음처럼’도 특유의 단정하고 선이 굵은 필체로 큰 사랑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유영순(68)씨와 아들 지용(26)씨가 있다. 빈소는 성공회대에 마련되고 장례는 성공회대 학교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발인은 18일 오전 11시이다.<br/>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br/><br/>관련기사 <br/>냉전의 모진 비극 겪어낸 한국의 지성 잠들다<br/><br/>신영복 교수가 남긴 명문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27.txt

제목: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길수 있다는데 어떤 병인가요?  
날짜: 2016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16051857047  
본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길수 있다는데 어떤 병인가요?<br/> <br/> <br/>'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고 이에 의하여 폐조직이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만성적인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의 증상과 폐활량의 감소가 있습니다. 폐기종·만성기관지염이 일반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불리우며 기관지천식의 일부에서 위의 특징을 가지기도 합니다.<br/> <br/>우리나라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 하면 주로 폐기종환자를 지칭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흡연량이 많아지면 그 발병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흡연을 할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 감소되는 폐활량보다 훨씬 폐활량의 감소가 심해지게 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흡연은 정상 폐조직을 파괴하여 폐에 기능을 하지 않는 공기주머니같은 폐기종의 변화를 유발합니다.<br/> <br/>흡연을 할수록 폐활량의 감소가 심해지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폐질환이나 심장질환·각종 장기의 암·혈관질환의 위험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흡연자가 금연을 하면 폐활량은 일정기간을 거쳐 정상수준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흡연기간 중에 이미 감소된 폐활량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흡연에 의해 파괴된 폐조직은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금연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환이 진행하면서 만성 기침·가래·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br/> <br/>호흡곤란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며, 활동이나 운동시 호흡곤란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결국 일상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br/> <br/>심한 경우에는 안정시에도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으며 입술과 손끝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흡연력이 있으면서 지속적인 운동성 호흡곤란과 만성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찰 소견과 흉부 방사선 촬영 그리고 폐기능검사들을 종합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하게 됩니다.<br/> <br/>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약물치료는 폐기능을 호전시킨다기 보다 현재의 증상을 개선하고 내과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주력합니다. 또 호흡곤란과 만성적인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감소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증상의 개선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관지확장제와 흡입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28.txt

제목: [삶과 문화] 작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날짜: 2016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16051838086  
본문: 학술회의 참석을 위해 간 하네다 공항. 시간이 남아 들른 책 판매대에 소설가 모리 히로시(森博嗣）의 ‘작가의 수지(收支)’라는 책이 가장 화려한 곳에서 눈에 띈다. 자기 개발서 등의 베스트셀러가 놓인 자리에 소설가의 에세이라니. 그것도 ‘작가의 수지’라는 도발적 제목이라니. 하긴 흥행에서 불패의 신화를 자랑한다는 작가의 유혹이니, 문학연구자의 주머니를 털기에 충분했다.<br/>본인 말대로 모리 히로시는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적은 없다. 데뷔작 ‘모든 것이 F가 된다’의 누계 78만 부가 최고 기록이다. 이것도 19년을 통해 달성한 것이다. 대박 난 책도 없이 일본 아마존 선정 ‘2000년대 최고판매 저자 톱20’에 들었다. 나고야(名古屋)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7년, 취미생활에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소설가가 되었다 하며 2006년에 대학을 그만 둘 때까지 매일 저녁 3시간을 집필하고 2008년에는 작가를 은퇴한다. <br/>책에서 그는 출판의 대량소비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노리는 글쓰기보다 확실히 책을 사는 팬들을 잘 확보해서 관리할 것을 권한다. 데뷔 후 19년 동안 278권을 출판해 총 1,400만부, 순수익이 15억엔을 벌었다 한다. 계산상으로 1권당 5만부를 팔아 약 540만엔을 번 것으로, 그는 ‘불황시대의 최고의 직업이 어쩌면 작가’일지도 모른다는 넘치는 자신감을 피력한다.<br/>문화와 예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문학에 대한 태도가, 이처럼 자본주의적 논리만으로 무장한 그의 시각에 환멸을 느낀다. 자본주의의 막장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형을 보는 듯하다. 그가 쓴 매뉴얼에 의하면 순문학 혹은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지향하는 글쓰기는 구시대의 발상이 된다. 아니, 실패자가 된다. <br/>그가 말하는 대칭점에 유미리(柳美里)가 있다. 모리가 ‘작가의 수지(收支)’로 건방을 떨 때, 유미리는 ‘가난뱅이 신 아쿠다가와상(芥川賞) 작가 빈궁생활기’를 발표해 화제를 뿌렸다. 진보매체인 ‘창(創)’과의 밀린 원고료 지불 투쟁을 상세히 밝힌 내용이다. 진보 미디어라도 작가에게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br/>대학교수 모리 히로시가 데뷔했던 1997년, 일본 문학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던 작가는 고졸 학력의 재일 조선인 유미리였다. 1994년 ‘가족시네마’로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했지만 사인회가 열릴 예정이던 서점들에 ‘독립의용군’ ‘신우익’의 이름으로 협박전화가 걸려와 사인회는 중지되었다. 유미리의 투쟁은 여기서 시작이 된다. 그녀는 위축되지 않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역사수정주의자, 우파 보수들과 일년에 걸친 격렬한 논쟁을 전개했다. 미디어를 철저하게 피하며 자본을 축적해 온 모리의 20년과는 대조적으로, 유미리는 소설작품, 블로그, 트위터에 자신의 사생활까지 노출하면서 소신을 밝히고 논쟁을 벌이다 많은 상처를 입었다. <br/>2008년 모리는 여유롭게 은퇴를 하지만, 유미리의 에세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궁핍한 처지에 놓여있는 전업 작가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들로 메워져 간다. 물론 그녀에게도 ‘생명’ 4부작이라는 밀리언셀러가 있지만 억대가 넘는 인세는 아이 아버지, 연상 유부남의 암치료를 위해 쏟아 부었고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았다.<br/>유미리는 일본 사소설(자신의 사생활을 테마로 한 이야기)의 전통에 서 있다. 개인의 사적 체험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작가의 체험은 실재하는 모든 것이고 실재하는 모든 것은 곧 우리를 둘러싼 사회이다. 작가는 현실에서 소재를 취해 사회를 반영하지만 동시에 현실에 메시지를 던져 새로운 사회를 꿈꾼다 할 때, 유미리의 사소설은 빛난다.<br/>직업으로서 소설 쓰는 모리는 ‘작가의 수지’를 맞춰 부유해지고 성공했지만, 유미리는 한 시대와 사회를 제대로 읽고 성찰하여 행동하게 하는 ‘작가의 책무’를 다하는데 성공하지 않았을까. <br/>고영란 일본 니혼대 부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29.txt

제목: 영화 해리포터 ‘스네이프 교수’ 앨런 릭먼 별세  
날짜: 2016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15051904919  
본문: 영화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 역할을 했던 영국 배우 앨런 릭먼이 14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69세. <br/>영국 BBC는 이날 가족의 성명을 인용해 “<span class='quot0'>암 투병 중이던 배우이자 감독인 앨런 릭먼이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span>”고 전했다. 릭먼은 영화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 영화 ‘다이하드’에서 한스 그루버 역할을 맡았다. <br/><br/>릭먼은 1991년 제45회 영국 아카데미 영화제 남우조연상, 이듬해 제12회 런던 비평가 협회상 영국남우주연상, 1997년 제54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TV영화미니시리즈부문 남우주연상 등을 수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30.txt

제목: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장에 KAIST 박제균 교수 취임  
날짜: 201601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15051556726  
본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박제균(사진)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가 한국바이오칩학회(The Korean BioChip Society) 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한국바이오칩학회는 바이오칩 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학술단체다. 바이오칩은 첨단 융합생명공학 분야인 바이오센서, 바이오멤스(MEMS), 나노융합, 헬스케어시스템 연구의 핵심 원천 기술이다. 한국바이오칩학회 창립 멤버인 박 교수는 다양한 미세유체제어 기술과 암 조직 판별용 랩온어칩을 개발한 전문가로 국제학술지 '바이오센서와 바이오전자(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랩온어칩(Lab on a Chip)' 등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마이크로타스(μTAS) 2015 국제학술대회장을 역임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31.txt

제목: [브리핑] 인도 최대 은행 SBI 국내 영업 개시 外  
날짜: 2016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14051420005  
본문: 인도 최대 은행 SBI, 국내 영업 개시<br/>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SBI)가 13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 서울지점을 설립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1806년 설립된 SBI는 인도 정부가 지분 58.6%를 보유한 국영은행이다.<br/><br/>자동차산업協, ‘사이버자동차산업관’ 개관<br/>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4일 자동차산업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버자동차산업관(사진)을 국내 최초로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단국대 산학협력단과 2년에 걸쳐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산업관을 구축했다.<br/><br/>삼성전자 ‘삼성페이’ 탑재한 갤럭시A5ㆍA7 출시<br/>삼성전자는 14일부터 신형 ‘갤럭시A5’(5.2인치)와 ‘갤럭시 A7’(5.5인치)을 내놓는다. 간편결제서비스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두 제품의 출고가는 각각 52만8,000원, 59만9,500원이다.<br/><br/>녹십자랩셀, 면역세포 암치료제 임상 2상 <br/>녹십자 자회사 녹십자랩셀이 건강한 사람에게서 채취한 면역세포(자연살해세포)로 만든 암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 2상 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혈연관계가 아닌 타인에게서 자연살해세포를 채취해 만드는 치료제가 임상 2상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세계 최초설명했다.<br/><br/>우리銀, 일반 고객 대상 홍채인증 서비스 개시<br/>우리은행은 홍채인증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홍채인증 자동화기기’(ATM)를 금융권 최초로 상용화해 일반 고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 고객 대상 홍채인증 서비스는 금융권에서 처음이다. 우리은행 고객은 카드 없이도 홍채인증으로 입금, 출금, 송금, 조회 업무를 할 수 있다.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서울 명동금융센터, 강남교보타워금융센터, 연세금융센터, 상암동지점 5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br/><br/>신세계백화점, 세일은 목요일부터<br/>신세계백화점은 3월 봄 정기세일부터 모든 대형 할인행사의 시작일을 목요일로 정례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말의 시작을 토요일이 아닌 금요일로 인식하는 소비자들의 변화에 발맞춰 주중 쇼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br/><br/>중기청, 고용ㆍ수출 앞장서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br/>중소기업청이 일자리 창출과 수출에 앞장서는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사업 중 고용지표 반영 사업을 지난해 18개(5,407억원)에서 71개(5조2,721억원)로, 수출지표 반영 사업은 지난해 21개(5,930억원)에서 70개(5조2619억원)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br/><br/>미스터피자, 지난해 중국서 첫 흑자<br/>MPK그룹은 지난해 중국에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현지 2개 합작법인이 매출 641억원과 순이익 11억2,000만원을 거둬 중국 진출 15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80개 점포를 추가로 열 계획인 MPK그룹은 1,500억원 이상 매출과 45억원의 로열티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br/><br/>동부대우전자, 국내 편의점에 전자레인지 공급계약<br/>동부대우전자는 13일 CU, GS25, 세븐일레븐 등 국내 5대 편의점에 상업용 전자레인지 공급계약을 마쳤다. 동부대우전자는 유일하게 다른 전자레인지보다 2배 이상 큰 34ℓ용량 상업용 전자레인지를 만든다.<br/><br/>신한카드 ‘레이디 클래식’ 신용카드 출시<br/>신한카드가 새해 첫 신상품으로 실속형 소비를 하는 여성 고객을 겨냥한 ‘레이디 클래식’ 카드를 13일 출시했다. 해당 카드는 신한카드 빅데이터 트렌드 연구소에서 여성 고객 600만명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개발한 카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32.txt

제목: 금연 실패자들의 4박 5일 도전기…캠프 참가자 4주 성공률 78% 기록  
날짜: 2016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14051359751  
본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을 지낸 정재돈(61)씨는 7년 전부터 폐기종을 앓았다. 45년 넘게 하루 1갑씩 피운 담배가 원인이었다. 기침 등 증세가 심해져 금연을 3차례 시도했지만 매번 담배를 다시 찾았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도움도 소용 없었다.<br/>사진작가로 40년 넘게 활동한 이종목(77)씨는 50년간 하루에 담배를 1갑 반씩을 피웠다. 담배를 피우는데 쓴 돈만 어림잡아 1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심근경색, 고혈압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씨는 한동안 담배를 멀리 했었지만 사업 실패 후에 다시 담배에 손을 댔다.<br/>그랬던 정씨와 이씨는 현재 나란히 38일째 금연 중이다. 이들은 “이번에는 다르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br/><br/><br/>정씨와 이씨는 다른 흡연자 4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7일 나란히 인하대병원에 입원했다. 어디가 아파서가 아닌 ‘흡연’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6명 모두 20년 넘게 담배를 피우고 여러 차례 금연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암이 폐까지 전이된 환자 등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 질환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포함됐다.<br/>이들은 인천금연지원센터로 선정된 인하대병원에서 4박 5일간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건강검진, 상담, 금연강좌 등 금연캠프 프로그램을 강도 높게 소화했다. 눈을 뜨자마자 일산화탄소 측정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완운동(스트레칭)을 1시간씩 했다.<br/>매일 집단 심리 상담, 개별 상담을 받고 하루 2, 3차례씩 금연강좌, 시청각교육을 들었다. 콩나물을 이용한 담배 독성 실험을 하고 자신의 흡연 유형이 스트레스 해소형인지 습관 또는 의존형인지를 파악했다. 산책, 명상을 하고 영양, 운동 처방도 받았다.<br/>가정의학과 의사와 간호사, 심리상담사, 영양사 등이 이들을 도왔다. 참가자들은 특실에서 3인 1실로 생활하고 맞춤형 식단과 금연약(챔픽스), 채소스틱, 껌 등으로 금단증상을 참아냈다.<br/>35년간 담배를 피웠다는 심호섭(54)씨는 “<span class='quot0'>큰 누님이 폐암 4기라는 얘기를 듣고 금연캠프에 참가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지만 담배를 못 끊는 것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 금연약도 처방 받으니 버틸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 심씨는 금연캠프 기간 동안 강의 내용, 식단 사진 등을 동창생 70명이 만든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에 올려 7,8명으로부터 금연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br/>금연캠프는 지난해 9월부터 매달 1차례씩 모두 4기 과정이 진행됐다. 참가자는 과정별로 5, 6명씩 모두 23명. 이 가운데 4주 금연에 성공한 참가자는 모두 18명이라고 하니 성공률은 78%이다. 이들은 모두 캠프 퇴소 후에도 금연을 지키고 있다. 참가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워왔고 금연 실패 경험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성공률은 상당히 높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금연에 실패한 5명도 하루 1갑에서 1갑 반씩을 피던 담배를 1~5개피 이하로 줄였다고 한다. 캠프는 1인당 100만~140만원이 소요되지만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br/>금연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김수정씨는 “<span class='quot1'>하반기까지 캠프 참가자 숫자를 1회에 12명까지 늘려갈 계획이나 이미 80여명이 지원을 마친 상태라 취약계층, 흡연으로 인한 질환자 등을 우선해 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span>”이라고 말했다.<br/><br/>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33.txt

제목: 한의원 진료 표준화, 건보 적용도 확대  
날짜: 2016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14051309382  
본문: 이르면 2020년부터 어느 한의원에 가든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방 물리치료나 약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br/>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확정했다. 발전계획에 따르면 같은 질병인데도 한의원마다 치료법이 달라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감안해 자주 발생하는 질환 30개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을 개발한다. 해당 질환은 감기, 기능성 소화불량, 갱년기장애, 치매, 암, 비만 등이다. 30개 질환 중 진료지침이 일정 정도 개발돼 있는 10개 질환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임상연구를 한 후 시범적용 거쳐 빠르면 2020년부터 전국에서 표준진료를 하게 된다. <br/>한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정부의 표준 진료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표준 진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의약에 대한 건보 적용도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침, 뜸, 부황과 일부 물리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 중 한방 비중은 4.17%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양ㆍ한방 협진 활성화, 국ㆍ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확대,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34.txt

제목: 올해 세액공제, 어떻게 변하나  
날짜: 2016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14051319727  
본문: ▲ 종로세무서 연말정산 상황실. 연합뉴스 제공 <br/>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연 7,0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한도도 두 배 늘렸다.<br/> <br/>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세법개정으로 바뀐 올해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했다.<br/> <br/>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다. 단,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사용액과 각각 2013년, 2014년 사용액의 절반을 비교해, 초과하는 부분의 20%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br/> <br/>종전에는 12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도 두 배인 240만원으로 늘어났다. 가령 연 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년 240만원씩 납입한 경우, 작년에는 12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올해는 120만원 늘어난 240만원의 40%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작년보다 7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br/> <br/>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 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 매년 700만원씩 연금저축을 불입했다면 올해는 300만원에 대해 더 공제를 받게 된다. 36만원 정도의 환급액 증가가 기대된다.<br/> <br/>'난임시술비'에 쓰인 돈도 종전에는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게 됐다.<br/> <br/>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1,50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도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세법이 조정됐다.<br/> <br/>그 밖에도 국세청은 올해도 작년 5월에 개정됐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적용된다며 '월세 세액공제 등 관련 증빙자료 준비', '연말정산 관련 분납 및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br/> <br/>한편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이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라고 소개했다. 갑상선을 비롯한 각종 암을 치료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이 되지만, 이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br/> <br/>이런 사례가 소득공제를 놓친 전체 사례 중 49%를차지했다. 부모님과 따로 산다는 이유로 부양가족 공제를 놓친 경우도 26%로 뒤를 이었다.<br/><br/><br/>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35.txt

제목: 환자 뜻 불명확해도 가족 전원 합의 땐 연명의료 중단  
날짜: 2016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9051124304  
본문: 2018년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시술을 받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가 8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법안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토대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식으로 정리했다. <br/><br/>\_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환자는 누구인가. 어떤 병이라도 상관이 없는가. <br/>“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병의 종류는 상관 없다.” <br/><br/>\_임종과정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br/>“<span class='quot0'>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한다.</span>” <br/><br/>\_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어떤 것인가. <br/>“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만 중단할 수 있다. 치료효과는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진통제 투여, 영양분ㆍ물ㆍ산소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는 참여하지 못한다.” <br/> <br/>\_어떤 근거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가. <br/>“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 혹은 ‘연명의료계획서(POLST)’라는 문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남긴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br/><br/>\_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란 무엇인가. <br/>“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성인이 평소 연명의료 중단이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뜻을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를 할 생각이 없다는 환자의 뜻을 담당의사가 작성한 문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 데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br/><br/>\_이런 서류를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가 결정하는가. <br/>“환자가 이런 서류를 남기지 않았고 의학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 2명 이상(가족 1명인 경우 1명으로 가능)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면 2명(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이 이를 확인해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있어 1명 진술만 달라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2명이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함)이 중단을 요청하고,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 <br/><br/>\_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은 누구인가. <br/>“만 17세 이상인 환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직계 존비속)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형제ㆍ자매가 결정할 수 있다.” <br/><br/>\_일정한 형식 없이 집에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인정되나.<br/>“안 된다. 이 문서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다만 가족들이 환자의 뜻을 추정할 때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쓰일 수 있다. 법 시행 이전 민간단체 또는 병원에서 작성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양식을 갖췄다면 복지부는 최대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는 시설ㆍ인력 등을 고려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한다. 법이 시행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구가 생겨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여기에 등록된다. 작성자가 마음이 바뀌었다면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철회ㆍ변경할 수 있다.” <br/> <br/>\_법 시행은 언제부터인가?<br/>“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2년 후인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 말기암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질환 등 다른 말기질환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은 2017년 7월부터 시행한다.” <br/><br/>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36.txt

제목: 아름다운 행성에서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날짜: 2016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9051117932  
본문: ‘의학계의 계관시인’ 올리버 색스 자서전<br/>온 더 무브<br/>올리버 색스 지음ㆍ이민아 옮김<br/>알마 발행ㆍ496쪽ㆍ2만2,000원<br/><br/>“두렵지 않다고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나는 사랑했고 또 사랑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고 일부는 되돌려주었습니다. 나는 읽고 여행하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세상과 소통했고, 특히 여러 작가와 독자와 소통했습니다.<br/> 무엇보다도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의식 있는 존재, 생각하는 동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내게는 크나큰 특권이자 모험이었습니다.”<br/> 지난해 2월 19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올리버 색스의 특별 기고문 중 일부다. 2005년 눈에 생긴 암이 간으로 전이된 사실과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전하는 이 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세상에 작별을 고하는 겸손하고 따뜻한 인사였다. 그로부터 두달 뒤 그의 자서전 ‘온 더 무브’가 나왔다. 그 해 8월 30일, 올리버 색스는 세상을 떠났다. 전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br/>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온 더 무브’로 다시 만나는 올리버 색스를 이렇게 요약하고 싶다. 죽음을 앞두고 생애를 회고하는데도 유쾌하기 짝이 없다. 솔직하고 뭉클하다. 유머 감각도 여전하다. 올리버 색스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고 나면 그가 쓴 다른 책들을 모조리 찾아 읽고 싶어질 것 같다. <br/> <br/><br/><br/> 대표작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비롯해 그가 쓴 10여 권의 책은 대부분 한국에도 번역 출간돼 있다. 모자를 찾다가 옆에 앉은 아내의 머리를 집어든 신경장애 환자의 이야기인 이 책 덕분에 우리는 알아듣기 힘든 전문 의학용어의 컴컴한 밀림을 헤매지 않고도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낯선 신경질환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인간의 뇌와 정신 활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임상에서 만난 환자들 사연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들려주던 신경과 전문의 겸 저술가, 올리버 색스. 뉴욕타임스는 그를 ‘의학계의 계관시인’이라고 불렀다.<br/>그가 누구인지 설명하려면 한 마디로는 부족하다. 세상 모든 것을 모험으로 받아들였던 타고난 모험가이자 여행가,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으로 지적 여정을 계속한 탐험가, 모터사이클 속도광, 수영과 스쿠버다이빙과 역도에 미친 ‘몸짱’ 청년, 마약중독자, 동성애자, 인간의 약함 특히 환자들과 사랑에 빠진 의사. 육체적 도전을 해도 끝까지 밀어부치는 무모함으로 내달렸던 청년시절 올리버 색스를 두고, 그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이모는 이렇게 말했다. “이 미치광이 같은 놈아.” 오죽했으면!<br/>의사 부모 밑에 나고 자라 원 없이 신나게 살다 간 잘난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상처 투성이 흠집 많은 인간이기도 하다. 스스로는 수줍음 많은 성격에다 사람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맹, 육체는 몸짱이지만 마음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수동적이라고 평한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친구들에게 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생각했으며, 책을 써서 이름이 알려진 뒤에도 내가 정말 잘 쓴 걸까 의심하고 불안해했다. <br/>성정체성 때문에 겪은 갈등은 그의 인생에 큰 자리를 차지한다. 열 여덟 살 때 그가 동성애자임을 안 어머니는 “가증스럽구나.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라고 했다. 그 말은 평생 죄의식이 되어 그를 따라다녔다. <br/><br/>이 자서전에서 올리버 색스는 더없이 솔직하다. 스무 살에 만난 첫사랑부터 일흔 다섯에 만난 생애 네 번째이자 마지막 사랑까지, 동성애 편력을 고백할 때도 다르지 않다.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 당한 뒤 마약에 빠져 지낸 4년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다. 그를 건진 것은 환자들이다. 임상에서 만난, 기이한 신경장애로 끔찍한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서 그는 ‘진짜 사람’의 ‘진짜 문제’를 보았다. 단순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삶다운 삶을 돌려주려고 애쓰면서 그는 자신을 치유했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왔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그 바탕에 있다. <br/>항암치료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그는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불편할 뿐 아니라 슬픈 일이었지만, 그는 달랐다. 마치 ‘신세계를 발견한 듯한 기분’에 ‘신이 나서’ 자신의 증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연구했다. 정말이지 못 말리는 호기심 대마왕이다. <br/> 책 제목 ‘온 더 무브’는 그의 절친인 시인 톰 건의 같은 제목 시에서 가져온 것이다. 책에 그 시의 일부가 나온다. “아무리 나빠도 우리는 움직인다. 아무리 좋아도/절대에 가닿지 못하는, 안식할 곳 없는 우리, / 언제나 멈춰 있지 않아, 더 가까워진다”<br/> 톰 건을 이야기하며 올리버 색스는 이렇게 썼다. “<span class='quot0'>우리는 전혀 예측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진화와 성장의 여정에 닻을 올린 사람들이었다.</span>” <br/>닻을 올려 떠나라. 저승의 올리버 색스가 독자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 말을 하지 않을까. 거기서도 이러고 있을 것 같다. <br/>오미환 선임기자 mhoh@hankookilbo.com<br/><br/>◆국내 번역 출간된 올리버 색스의 책들<br/>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br/>뮤지코필리아<br/>환각<br/>마음의 눈<br/>올리버 색스의 오악사카 저널<br/>색맹의 섬<br/>목소리를 보았네<br/>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웠다<br/>깨어남<br/>편두통<br/>엉클 텅스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37.txt

제목: 제주에 ‘꿈의 암 치료기’ 들어온다  
날짜: 2016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051801155  
본문: 제주국제대, 중입자 가속기 도입 추진<br/>올해 상반기내 설치 공사 착수 계획<br/><br/>제주에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도입이 추진된다. <br/>제주국제대는 올해 상반기 내에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와 공동으로 산학협력기술연구소인 ‘중입자가속기암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교내 부지에 중입자 가속기 설치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br/><br/><br/>앞서 제주국제대와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달 산학협력 기술연구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독일 기업 ‘지멘스’와 덴마크 기업 ‘단퓨직’ 등 유럽 내 기업들이 공동 개발한 중입자 가속기를 제주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br/>3,500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가속기 설립 자금은 싱가포르 투자회사가 주도하고, 시설이 완공되면 국제대학에 연구 및 교육용으로 무상기부한다. 또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5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다. <br/>중입자 가속기는 헬륨, 탄소, 질소, 우라늄 등의 중이온과 양성자를 전자기 힘으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하는 장치다. 암 치료 등 의료용, 핵의 구조 및 희귀원소 생성연구 등 분석용, 미생물 유전자 연구 등 산업용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다.<br/>특히 중입자 가속기는 암 치료과정에서 통증이 없고 정상조직 손상이 없기 때문에 후유증도 거의 없는 게 장점이다.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어 다른 장기로 전이만 되지 않는다면 말기 암과 재발 암을 치료할 수 있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br/>고충석 제주국제대총장은 “<span class='quot0'>이번 연구소 설립과 함께 의공학 학부를 신설하고, 의료공학과 생명공학과, 입자물리학과, 의료건축학과 등의 전공을 도입함으로써 동북아의 생명의료공학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38.txt

제목: 새해, 새출발은 여기서…한국관광공사 추천 1월에 가볼 만한 곳  
날짜: 2016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6051148245  
본문: ▲ 검룡소 가는 길. 한국관광공사 제공<br/> <br/>새해가 밝았다. 한국관광공사가 새해, 새로운 출발에 딱 어울릴만한 곳을 1월 가볼만한 여행지로 추천했다. 퍽퍽한 생활을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직도 막막하다면 공들여 다녀온다. 가서, 장쾌한 바다를 보고 사위 고요한 숲길 걸으며 마음 살피면 위태로운 삶에 큰 위로 된다.<br/><br/> <br/> <br/> <br/>▲ 검룡소. 한국관광공사 제공<br/> <br/>● 강원도 태백 검룡소<br/><br/> <br/><br/>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다. 작은 샘인데 하루 2,000~3,000톤의 지하수가 솟는다. 가물어도 마르는 법이 없다. 이 지하수가 모이고 흘러 한강이 된다. 검룡소는 장구한 한강의 시원인 만큼, 새해 마음 살필 여행지에 늘 이름을 올린다. 검룡소 가는 길은 참 호젓하다. 주차장에서 평탄한 흙길을 따라 20여분 걸어 가면 검룡소다. 태백 시내에는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도 있다. 석탄도시 태백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철암역 주변, 고생대 전문박물관인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태백산도립공원 등과 함께 일정을 짜면 새해 가족여행지로 손색 없다.<br/> <br/> <br/>▲ 영덕 풍력발전단지. 한국관광공사 제공<br/> <br/>● 경북 영덕 '블루로드'<br/><br/> <br/><br/>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약 688km의 해안길 가운데 영덕을 지나는 구간이 '블루로드'다. 대게누리공원에서 강구항, 축산항을 거쳐 고래불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데 길이가 64.6km에 달한다. 산길 구간도 있지만 대부분 바다를 끼고 걷도록 조성돼 있다. 동해를 바라보며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명품 트레킹 코스다. 4개 코스로 조성돼 있는데, 이 중 풍광이 가장 빼어난 곳이 푸른대게의 길(B코스)이다. 다 걸으려면 5시간은 잡아야 하지만 어디든 내려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어본다. 블루로드를 따라 대게 집산지 강구항, 풍력발전단지, 일출명소인 해맞이공원, 죽도산전망대 등 볼거리가 산재해 있다.<br/><br/> <br/> <br/> <br/>▲ 호룡곡산 정상. 한국관광공사 제공<br/> <br/>● 인천 무의도 호룡곡산<br/><br/> <br/><br/> 영종도에서 연륙도로를 따라 잠진도선착장으로 가서 배를 타면 10분만에 무의도에 닿는다. 섬 한가운데 '서해의 알프스'라 불리는 아름다운 호룡곡산과 국사봉이 있다. 특히 호룡곡산은 장쾌한 바다를 내려다보는 최고 천연 전망대다. 자월도, 영흥도, 승봉도 등 주변 섬들과 인천대교, 송도국제신도시까지 다 보인다. 정상까지 40~50분이면 닿는다. 백사장 넓은 하나개해변은 겨울바다의 낭만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인도교로 연결된 소무의도 무의바다누리길은 바다를 바라보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br/><br/> <br/> <br/> <br/>▲ 도솔암에서 본 일몰. 한국관광공사 제공<br/> <br/>● 전남 해남 도솔암<br/><br/> <br/><br/> 도솔암은 해남 달마산 바위 능선에 걸쳐 있는 작은 암자다. 기암 사이에 자리잡은 모양새가 절경이다. 암자도 암자지만 찾아가는 능선길이 더 압권이다. 발 아래로 다도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달마산 암봉들의 자태는 설악산이나 금강산의 그것과 비교될 정도로 절경이다. 산 위에 도솔암이 있다면 산 아래 미황사가 있다. 조선시대 정유재란 때 건물이 불탄 후 여러차례 중건과 중수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단청 빛깔이 다 바랜 대웅보전(보물947호)과 가람 뒤로 보이는 달마산이 자태가 압권이다.<br/><br/> <br/> <br/> <br/>▲ 태안 당봉전망대에서 본 바다. 한국관광공사 제공<br/> <br/>● 충남 태안 만대항<br/><br/> <br/><br/> 만대항은 태안반도 가로림만 북쪽 끝자락에 있는 포구다. 태안 솔향기길 1코스가 여기서 출발한다. 이 코스는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며 걷는 길로 유명하다.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고 솔 향기도 진하다. 사위 호젓해 마음 살피기 딱 좋다. 솔향기길은 삼형제바위, 당봉전망대, 용난굴 등을 거쳐 꾸지나무골 해변까지 이어진다. 포구 인근에는 굴 양식장, 염전 등이 만대마을과 어우러져 있다.<br/><br/><br/>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39.txt

제목: 한국유방암학회-대한의학유전학회 암 분야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 위한 제휴  
날짜: 2016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5051341924  
본문: 한국유방암학회가 대한의학유전학회와 암 분야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br/> <br/>이번 협약으로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 자격인증을 얻은 사람은 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상담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유방암을 비롯한 포괄적인 암 분야의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br/> <br/>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상담사'는 2014년 첫 도입된 자격인증제도로 소아·산전·암·성인 분야의 유전적 질병에 대한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는 한국유방암학회가 유전성 유방암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제공을 위해 2011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인증제도다.<br/> <br/>이번 협약으로 2015년까지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격증 소지자가 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상담사' 연수교육 수료와 인증시험 통과 후 유전상담 로그북을 제출하면 암 분야에 국한한 '유전상담사' 자격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본 자격인증에 대한 지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br/> <br/>대한의학유전학회 이진성 회장은 "유방암 극복에 앞장서는 한국유방암학회와 상호 협약을 맺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두 학회의 협력으로 암과 관련된 유전적 원인을 걱정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br/> <br/>한국유방암학회 한세환 이사장 또한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의 활동을 보다 포괄적인 암 분야로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제휴 협약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br/> <br/>한편, 한국유방암학회는 유방암 극복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국내외 유방암 현황을 집대성한 유방암백서를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유방암 예방과 올바른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병원에서 건강 강좌를 진행한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40.txt

제목: 중부권 암 예방ㆍ치료 전초기지 구축 원년  
날짜: 2016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5051546621  
본문: “<span class='quot0'>메르스와 전쟁을 치른다는 자세로 병원의 전체 직원이 합심했습니다</span>”<br/>박우성(59) 단국대병원장은 구랍 31일 ‘2015 올해를 빛낸 충남인’ 시상식에서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을 수상했다. <br/>지난해 5월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를 맞아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고 지역사회 내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br/>박 원장은 “<span class='quot1'>지리적으로 메르스 발생 병원과 불과 30km 떨어져 있었지만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는 발열 및 폐렴환자 치료, 발열환자 감시, 충남도청 및 관할 보건소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등을 통해 얻어낸 성과</span>”라고 자신을 낮췄다.<br/>단국대병원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보유한 병원이다. <br/>지난해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 발병 이후 6일째부터 8번 환자의 입원을 시작으로 5명의 감염환자를 치료했다. 치료기간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선별진료소에 다녀간 1,000여명의 잠재 의심환자가 병원을 찾았다. 완벽한 진료로 2차 메르스 확진환자가 거쳐간 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원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br/>성격이 곧기로 소문난 박 원장은 첫 환자입원 당시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br/>지역거점병원으로 충남권역 환자가 우선 이었지만 경기 평택에 거주하던 환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후 평택, 경기남부, 안성 등 모든 지역 환자를 수용하기로 결심했다. 인근 병원들이 2차 감염 등을 핑계 삼아 환자를 되돌려 보낸 사례가 속출해 보건당국과 마찰을 빚은 것과 대조를 보였다.<br/>박 원장은 평소 감염병에 대비해 병원 운영을 매뉴얼에 맞춰 놓았기 때문이다. 2014년 아프리카와 미국, 유럽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상황을 가상해 병원 운영체계를 구축해 놓았다. <br/>그는 “<span class='quot1'>병원 내 감염은 어떻게든 막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모든 사람에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모든 가능성을 차단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의료진들이 에볼라를 가상해 이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실수 없이 대처할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 <br/>또한 보건당국에서 제시한 환자 관리지침보다 더 강화한 시스템을 운영했다. <br/>그는 “<span class='quot1'>보건복지부의 의심환자 등 격리기간이 2주였으나 1주 더 연장했다</span>”며 “<span class='quot1'>격리기간을 늘려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메르스로부터 확실하게 안전함을 확인한 후 격리를 해제했다</span>”고 말했다. <br/>하지만 지난 7월 6일 마지막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혼신을 다한 결과는 찬사보다 악성루머에 더 시달리는 어려움을 겪었다. 메르스 환자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래환자수가 급감하고 지역주민의 원망이 쏟아졌다. 심지어 단국대병원 의료진이라는 이유로 택시 승차거부도 당했다. 식당에서도 내쫓긴 직원도 있었다. 메르스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장기화하면서 병원적자는 누적됐다. 메르스 환자의 입원기간이 3개월간 지속되면서 일반 환자의 급감으로 1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당장 직원급여를 걱정해야 했다.<br/>뒤늦게 악성루머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병원과 의료진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알리고 격려를 호소하는 글을 띄우면서 가까스로 진정됐다.<br/>박 원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첫 환자가 발생한 지 218일 만에 메르스가 종결되자 신종전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박 원장은 3개의 음압병실을 7개로 확충하고, 모든 병실을 독립된 형태의 1인실로 만들 예정이다. 응급실에도 격리 치료가 가능한 음압격리병실 2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화학전과 방사능오염 등에 대비한 제염 및 제독설비도 응급실에 설치할 방침이다.<br/>이와는 별도로 이달부터 닥터헬기도 운영한다. 정부와 충남도의 지원으로 닥터헬기가 운영되면 도내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환자 발생 신고 시 5분 이내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증외상환자, 심정지, 심근경색증, 뇌졸증 환자와 급성 호흡곤란이나 쇼크환자, 증증질환의 산모나 신생아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가 제공할 계획이다. <br/>박 원장은 첨단 암센터 건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br/>암센터는 오는 5월 196병상 규모로 착공한다. 15개 전문 암센터를 한데 모아 암환자를 대상으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다학제진료 및 유전자 맞춤치료, 통증관리 등 환자 중심의 맞춤형 암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암센터는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인 대장암 말기환자 생존율(82%)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명실상부한 암 치료 전문기관의 면모를 갖출 전망이다. <br/>암센터 건립은 그 동안 충남에는 암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수도권 병원을 이용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어 줄 수 있다.<br/>박 원장은 “<span class='quot1'>암센터가 완공되면 환자 중심의 맞춤치료와 보호자 정신상담까지 이어지는 전인치료가 이루어 진다</span>”며 “<span class='quot1'>유전체 기반 개인별 암 발생 예측 및 예방과 신 치료 임상연구 등 암 예방의 전초기지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41.txt

제목: 살빼기 결심 올해에는 성공할까, 문제는 고도비만  
날짜: 2016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5051601248  
본문: 다이어트 수술 아닌 고도비만 환자 치료 인식 개선 절실<br/><br/>살빼기(다이어트)는 ‘새해 다짐’으로 첫 손가락에 꼽힌다. 국내에 비만자들이 그만큼 많거니와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의 뿌리라, 국민 건강을 위해 반길 만한 현상이다. 문제는 비만이 관리 가능한 단계를 넘어선 고도비만이다. 비만은 식이, 운동, 약물 요법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고도비만은 이런 방법만으론 효과를 보기 어려워 수술이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br/><br/>국내 비만율은 이미 심각한 수위다. 보건복지부의 제3차 국민건강증진계획ㆍ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인 남성의 비만율은 2008년 35.3%에서 2013년 37.6%로 높아지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이고, 특히 6~18세 청소년의 10명 중 1명가량(11.5%)은 비만 상태다. 고도비만 및 초고도비만 비율의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건강보험공단이 2002∼2013년 건강검진 자료 1억여 건을 분석한 결과 고도비만은 2.5%에서 4.2%로, 초고도비만은 0.2%에서 0.5%로 각각 올랐다. <br/><br/>비만은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 만성질환은 물론 각종 암의 위험률을 높이는 만병의 뿌리다. 특히 청소년기에 비만에 노출되면 성인이 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비만 등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다. 안수민 한림대성심병원 당뇨수술고도비만수술센터장은 “<span class='quot0'>청소년기에 비만에 노출되면 9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저소득층에서 고도비만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span>”고 했다. 몸무게(㎏)를 키(ｍ)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 25~30은 비만, 30 이상은 고도비만, 35 이상은 초고도비만으로 분류한다.<br/><br/>고도비만, 개인의 힘으로 극복 힘들어<br/>고도비만에 우려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도비만은 지방세포 자체에 심각하면서도 구조적인 변성이 생겨난 상태로 이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뇌 식욕중추를 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의지력만으론 벗어나기가 힘들다.<br/><br/>그래서 고도비만이라는 ‘병적 상태’에 이르게 되면 수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고려한다. 안 교수는 고도비만에 대해 “<span class='quot1'>식이, 운동, 약물 등 일반적인 체중감량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1'>비만대사 수술이 현존하는 치료법 중 지속적인 효과가 있으면서도 안전한 방법</span>”이라고 했다. <br/><br/>이는 정부가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식이 조절이나 운동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를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등과 논의 중이다. '베리아트릭 수술'로 불리는 고도비만 수술에는 ▦위밴드 ▦위소매절제술 ▦위우회술 등이 있다.<br/><br/>위밴드 수술, 다이어트 수술 전락 문제<br/>고도비만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보편적인 시술로 자리잡는 데는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고도비만 수술의 정확한 적응증과 치료효과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br/><br/>대표적인 고도비만 수술인 위밴드 수술의 사례를 들여다 보자. 이 수술은 식도와 위과 만나는 위 상부를 실리콘 밴드(조절형 위밴드)로 묶어 음식 섭취량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도입 초기 개원가를 중심으로 수술이 남발되면서 고도비만 환자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이어트 시술로 변질, 크고 작은 후유증을 불렀다. <br/><br/>고도비만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위밴드 수술을 하면 무조건 체중이 감소될 것이라는 믿음도 잘못이다.<br/><br/>고도비만 수술은 보통 식이, 운동, 약물 요법 등을 1년 이상 실시했는 데도 효과가 없거나 적을 경우에 고려해야 한다. 고도비만 환자들은 식이요법 등을 실시하더라도 ▦비만세포 크기 ▦지방축적 능력 변화 ▦내분비 기능변화(렙틴 저항성) ▦에너지 배출 능력 감소 등의 이유로 ‘요요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조민영 서울365mc병원 대표병원장은 “<span class='quot2'>위밴드 수술을 하더라도 식이, 운동, 약물 요법 등을 통해 관리가 이뤄져야 체중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pan>”고 전제를 달았다. 수술을 하더라도 이전의 식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말짱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br/><br/>고도비만 수술은 체질량 지수 30 이상이면서 비만과 관련한 동반질환을 갖고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대한비만학회는 관계자는 “<span class='quot3'>특히 당뇨환자의 경우 체지방이 많은 내장지방형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유전적으로 인슐린 기능 낮고, 당뇨와 관련된 심혈관 합병증이 빨리 발생하기 때문</span>”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br/><br/>안수민 교수도 수술적 치료에 대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라며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 수술의 적응증과 관련, ‘체질량 지수 30~35이면서 당뇨, 고혈압, 심혈관 등 심각한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2007년 미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근거다. 미국에서 위 우회술을 받은 환자 7,925명과 대조군 7,925명을 비교한 연구한 결과, 위 우회술군에서 사망률이 40% 감소하고, 각종 질병 발생(심근경색 56%, 당뇨 92%, 암 60%)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42.txt

제목: 굶다가 강도짓 ‘현대판 장발장’에 시민들 2000만원 십시일반  
날짜: 2016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5051543356  
본문: 흉기로 여성 위협하다 도주 후 잡혀<br/>세월호ㆍ메르스 여파로 사업체 부도 <br/>암투병 노모 등 사연 알려지자 온정<br/>“범죄자를 왜 돕는지…” 의문 제기도<br/><br/><br/>사업 실패로 끼니를 굶는 형편에 처하자 어설픈 강도 행각을 벌여 구속된 50대 남성에게 시민들의 온정이 쏟아지고 있다. 범죄행위와 온정은 구분해야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br/>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이모(53)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몸싸움에서 밀리자 달아났다. 이틀 동안 물로 배를 채워 힘이 없던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흉기마저 현장에 떨어뜨렸다. 며칠 뒤 이씨는 경기 문산의 한 컨테이너에 숨어 있다 강남경찰서 수사팀에 바로 검거됐다.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br/>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씨의 딱한 사정은 당시에도 화제가 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연매출 100억원에 이르는 건축 자재 업체를 운영하다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직격탄을 연이어 맞고 부도로 빚더미에 올라 앉은 사실이 알려졌다. 설상가상 이씨의 80대 노모는 암투병 중이었고 두 자녀도 각각 고교 3학년, 1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br/>‘현대판 장발장’의 사연이 온라인을 타고 퍼지면서 이씨를 돕고 싶다는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언론사와 강남서에 빗발쳤다. 자신도 사업 실패를 겪고 재기했다는 한 남성은 500만원을 쾌척했고, 한 중년 남성은 수사팀에 30만원이 담긴 봉투를 놓고 가기도 했다. 각종 생필품을 이씨 집에 전달한 마트 주인과, 저 멀리 이국 땅에서 도울 방법을 찾는 중국동포의 성원도 이어졌다. 이렇게 이름 모를 독지가 80여명이 십시일반 모은 2,000여만원으로 이씨의 두 자녀는 학비 걱정을 덜게 됐다.<br/>시민들의 온정을 체험한 이씨는 구치소에서 참회와 새로운 인생각오를 담은 편지 한 통을 수사팀 앞으로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span class='quot0'>출소 뒤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span>”고 다짐했다. 연초 전해진 훈훈한 소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며 시민의 힘을 칭송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일부는 “흉기를 들 힘이 있었다면 자칫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던 범죄”라며 범죄자를 옹호하는 여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br/>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43.txt

제목: “하루 최대 2∼3잔”…英 20년 만에 음주 권고 개정  
날짜: 2016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3051130969  
본문: “술을 하루에 2~3잔 이상 마시지 말라. 일주일에 적어도 2일은 마시지 않아야 한다.”<br/>영국 보건당국이 20년 만에 변경한 음주 가이드라인에 이같은 권고를 담을 것이라고 BBC 등 현지 언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br/>정부 내 보건담당 최고 자문가인 CMO(최고의료담당자) 데임 샐리 데이비스 교수는 새로운 권고에서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암을 포함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br/>다만 새 권고안은 하루 최대 섭취 음주량을 남성과 여성과 똑같이 2~3잔으로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남성은 3~4잔, 여성은 2~3잔이다. <br/>권고안에서 정의하는 1잔은 알코올도수 4.5% 라거 기준으로 약 284ml다. 알코올도수 12% 와인 175ml는 2잔에 해당한다.<br/>데이비스 교수가 이끈 이번 음주 가이드라인 검토는 2013년 시작됐다. 현 가이드라인이 1995년 만들어진 이후 음주와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br/>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44.txt

제목: 2016년 인생 리셋-책에 길을 묻다  
날짜: 201512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1051502967  
본문: 결심의 시즌이다. 어차피 작심삼일이 될 거라면 인생을 통째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도 나쁘지 않다. 다른 몸, 다른 성격, 다른 습관, 다른 관계, 다른 취미, 다른 집…. ‘인생 리셋(reset) 프로젝트’를 도와줄 책들을 골라 5개의 키워드를 선정했다. 새해엔 좀더 작고 소박하게, 고독하게, 그리고 경박하게. <br/><br/>단순하게 소박하게<br/>▦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사사키 후미오 지음. 김윤경 옮김 / 비즈니스북스ㆍ276쪽ㆍ1만3,800원<br/>▦작은 집, 다른 삶 / 황수현 지음 / 안그라픽스ㆍ280쪽ㆍ1만6,000원<br/>▦심플하게 산다 / 도미니크 로로 지음. 김성희 옮김 / 바다출판사ㆍ240쪽ㆍ1만2,000원<br/>▦정리하는 뇌 / 대니얼 J. 레비틴 지음. 김성훈 옮김 / 와이즈베리ㆍ636쪽ㆍ2만2,000원<br/><br/>2016년의 인생공식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채우고 가져오기보단 덜어내고 비운 이들이 매료된 환희를 읽고 있노라면 이 명제가 더욱 선명해진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는 소유물을 최소한으로 줄인 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본 출판편집자의 ‘미니멀 라이프’ 안내서다. 책장과 함께 산 책, 혼자 살면서도 꽉꽉 채워두었던 커다란 그릇 장식장, 먼지투성이의 일렉트릭 기타와 앰프 등으로 집을 가득 채우고도 “없는 물건에만 온통 신경이 쏠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그는 미니멀 라이프의 구체 노하우, 효과 등을 담백하게 전한다.<br/>‘작은 집, 다른 삶’은 삶과 집에 관한 세속적 통념을 돌아보게 하는 작은 집 9곳을 소개하는 책이다. 가구, 옷가지, 그릇 등 상당 한 짐을 포기해야 했지만 햇볕의 길이, 서로의 얼굴에 시선을 두는 시간이 늘었다는 부부의 ‘몽당주택’에서부터 옛 마을 공동체를 재현한듯한 협동조합형 주택까지. 빽빽한 아파트 숲을 역행해 진짜 욕망을 찾아간 사람들의 집 짓기 여정은 “<span class='quot0'>불편함은 부족이 아닌 과잉에서 왔다</span>”는 잊혀진 진리를 돌아보게 한다.<br/>올해는 중간에 때려 치울 값 비싼 운동기구, 언제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나면 통독할 예정인 회화교재 따위를 사고 우쭐하거나 흡족하지 말자. 대신 지난 1년 간 쓰지 않은 물건, 뇌를 가득 메운 가짜 욕망 등을 내다버리는 것을 새 송구영신 의식으로 삼자. 당장 버릴 욕망을 택하라. 여전히 “그래도 이건 있어야 해”가 맴돈다고? 버릴 수 없다는 생각부터 버리라니까!<br/>고독의 무한한 힘 <br/><br/>▦혼자 있는 시간의 힘 / 사이토 다카시 지음ㆍ장은주 옮김 / 위즈덤하우스 발행ㆍ216쪽ㆍ1만2,800원<br/>▦외톨이 선언 / 애널리 루퍼스 지음ㆍ김정희 옮김 / 마디 발행ㆍ364쪽ㆍ1만4,500원<br/>▦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 김정운 지음 / 21세기북스 발행ㆍ344쪽ㆍ1만8,000원<br/>▦혼자가 편한 사람들 / 도리스 메르틴 지음ㆍ강희진 옮김 / 비전코리아 발행ㆍ336쪽ㆍ1만6,500원<br/><br/> “친구 없다”는 말에 웃음이 터져 나오는 사회에서는 불행히도 혼자가 되는 일이 녹록지 않다. 10대일 때는 ‘따’, 성인이 된 후에는 ‘부적응자’란 꼬리표를 피하기 위해 원치 않는 관계에 휩쓸려 다니는 동안 ‘내면의 나’는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이다. <br/>일본 메이지대의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에서 자기계발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고독을 제안한다. 혼자 음악을 듣거나 인터넷을 하는 수동적 고독이 아니라, 책 속 저자들(동시대인이 아니면 더 효과적이다)과 교신하는 적극적 고독을 통해 삶이라는 외로운 등반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r/>미국 저널리스트 애널리 루퍼스의‘외톨이 선언’은 외톨이는 ‘교정 대상’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외친다. 그에 따르면 “왜 혼자 있어”란 질문은 “어쩌다 게이가 됐어”란 질문과 다를 바가 없으며, 외톨이는 환자가 아닌 어떤 부류, 다만 모이지 못해 자신들의 유구한 당위를 증명하지 못한 특정 집단을 의미한다. 인용된 릴케의 말은 역으로 ‘비외톨이’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몇 시간 동안 내면의 길을 걸으며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당신이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혼자라고 느끼는 것. 어른들이 무언가 중대한 일로 몹시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아이는 그들이 무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듯이.” <br/>적당히 나쁜 인간으로 살기 <br/>▦나는 나이 들었다고 참아가며 살기 싫다 / 도야마 시게히코 지음ㆍ이영미 옮김 / 21세기북스 발행ㆍ240쪽ㆍ1만3,000원<br/>▦사는 게 뭐라고 / 사노 요코 지음ㆍ이지수 옮김 / 마음산책 발행ㆍ256쪽ㆍ1만2,000원<br/>▦죽는 게 뭐라고 / 사노 요코 지음ㆍ이지수 옮김 / 마음산책 발행ㆍ200쪽ㆍ1만2,000원<br/>▦신경 쓰지 않는 연습 / 나토리 호겐 지음ㆍ이정환 옮김 / 세종서적 발행ㆍ376쪽ㆍ1만5,000원<br/>▦미움 받을 용기 /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지음ㆍ전경아 옮김 / 인플루엔셜 발행ㆍ336쪽ㆍ1만4,900원<br/><br/>지난해 신드롬에 가까웠던 ‘미움 받을 용기’의 인기 요인은 아무래도 ‘신산스런 이 세상, 남 눈 신경 쓰지 말고 속 편하게 살자’는 메시지에 있다. 비슷한 말을 더 원색적으로, 더 맛깔 나게 하는 일본 노인들의 책이 줄을 잇는다. 신년에 92세를 맞은 일본의 영문학자 도야마 시게히코 교수는 “화내라! 우쭐대라! 참으면 병 난다!”고 외친다. ‘나는 나이 들었다고 참아가며 살기 싫다’에서 그는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자기 세계를 축소시키는 자신이라며, 체면 때문에 망설이고 참았던 일을 지체 없이 행하라고 주문한다. 울고 싶으면 울고, 땀도 자주 흘리고, 수다도 잔뜩 떨 것. 우쭐대고 싶을 땐 한 번쯤 그렇게 하자. 아는 게 많은 걸 어쩌란 말인가. <br/>2010년 작고한 동화작가 사노 요코 여사는 일본에서 보기 드문 ‘비치(bitchㆍ온순하지 않은 여자를 일컫는 속어)’ 캐릭터의 원조다. 암이 재발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는 ‘사는 게 뭐라고’와 ‘죽는 게 뭐라고’에서 죽기 2년 전까지의 생활을 낱낱이 기록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를 녹색 재규어로 바꾸고 쇼핑에 돈을 탕진하며 수도국 직원과의 한판 승부에 열의를 불태우는 그는 삶의 막바지에서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욕망하고 분노하고 자학한다. 죽을 때까지 어른이 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도 나쁘지 않다. 아니, 건강하다. 이승의 진흙탕에서 부끄럼 없이 뒹굴라. <br/><br/>사표, 던질까 말까<br/><br/>▦사표의 이유/이영롱 지음/서해문집ㆍ368쪽ㆍ1만4,500원<br/>▦나는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다/모리 겐 지음ㆍ김온누리 옮김/에이지21ㆍ296쪽ㆍ1만3,000원<br/>▦18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면서 후회한 12가지/와다 이치로 지음ㆍ김현화 옮김/한빛비즈ㆍ231쪽ㆍ1만2,000원<br/><br/>‘사표의 이유’는 고민하는 당신에게 왜 버티고 있냐고 묻는다. 무책임하다고? 그렇진 않다. 한국 사회 노동의 민낯을 드러내는 고민과 제안이 묵직하다. 저자가 서문에 쓴 대로 “궤도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혹은 궤도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생의 이야기는 넘쳐흐른다. 이제 이로부터 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다. 오직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30~40대 직장인으로서 10년 안팎 직장을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뒤 인생 경로를 바꿨거나 변경 중인 11명을 인터뷰했다. 귀농ㆍ귀촌,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대안학교, 대학원 진학, 제주 이민 등 그들의 선택은 ‘더 좋은 삶’일까, 아니면 ‘밖은 더한 지옥’일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각자의 능력과 경쟁력이 아닌 협동과 만남에서 다르게 살 용기와 가능성을 확인했다.<br/>‘나는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다’고? 그럴 수 있을까. 회사를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살아가는 일본 청년 13명을 소개한다. 염색이나 신발 장인으로, 섬이나 고향에서, 농부로, 비영리단체 일꾼으로 인생 항로를 바꿨다. 먹고 살 수 있겠느냐는 불안을 떨치고 나서게 한 힘은 ‘나답게’ 살려는 의지다. 성공담만은 아니다. 전직 전후에 벌어진 벌어진 돌발 상황과 홀로서기까지 스스로 짊어져야 할 위험도 이야기한다. <br/>“회사 그만둔 데 대해 미련은 없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틀렸다.”‘18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면서 후회한 12가지’의 일본인 저자는 직장 생활을 잘못했다고 고백한다. ‘회사의 색깔에 물들었어야 했다’ ‘창의적이기보다 건실했어야 했다’같은, 패배자의 항복선언처럼 보이는 그의 조언을, 사표 던지기 전에 한 번 곱씹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br/>탈주-다른 삶은 가능하다<br/><br/><br/>▦내 인생이다/김희경 지음/푸른숲ㆍ258쪽ㆍ1만3,000원<br/>▦낭만자립청년/이정화 지음/페이퍼쉽ㆍ225쪽ㆍ1만4,000원<br/>▦적당히 벌고 잘 살기/김진선 지음/슬로비ㆍ281쪽ㆍ1만5,000원<br/>▦작고 소박한 나만의 생업 만들기/이토 히로시 지음ㆍ지비원 옮김/메멘토ㆍ216쪽ㆍ1만2,000원<br/><br/>너무 늦지 않았을까. ‘내 인생이다’가 소개하는 15명의 사례에서 용기를 얻어보자. 신문기자에서 의사로, 공인회계사에서 요가 지도자로, 간호사에서 소설가로, 다른 삶을 택한 사람들이다. ‘그건 잘난 사람들 얘기지, 내가 어떻게?’라고 반발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 놓고 일단 읽는다. 한두 명을 빼곤 유명인이 아니다. 나이 마흔에 직장 때려치우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미래를 택한 이도 있다. 그들 중 인생 전환 후 수입이 확실이 늘어난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무엇이 그들을 다른 길로 가게 했을까.<br/>‘낭만자립청년’은 남다르게 먹고사는 청춘 11명의 고군분투 자립기다. 자립은 혹독하다. 그런데, 낭만? 장사나 돈벌이가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기 위해 자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들은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br/>도전과 안정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리는 이들에게 ‘적당히 벌고 잘 살기’는 새로운 일하기 실험을 제안한다. 고도의 전문기술이 아니라 적당기술로, 삶의 출구를 찾아 공부를 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애쓰지 않으면서 잘 살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일을 찾은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들은 공부, 우정, 가치, 자립으로 버티고 있다. <br/> ‘작고 소박한 나만의 생업 만들기’는 아주 구체적이다. 창업을 하려면 목돈과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통념을 거부해 더 솔깃하다.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의 게릴라식 자영업인 생업을 하면서 그럭저럭 즐겁게 먹고사는 법을 이야기한다. 부제는 ‘인생을 도둑맞지 않고 사는 법.’<br/>오미환 선임기자 mhoh@hankookilbo.com<br/>황수현기자 sooh@hankookilbo.com<br/>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45.txt

제목: [강정의 길 위의 이야기] 한번 잔인해봐라  
날짜: 201512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31051951753  
본문: 김수영 시 중 이런 게 있다. “<span class='quot0'>한번 잔인해봐라/이 문이 열리거든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봐라</span>” 제목은 ‘잔인의 초’. 순정과 비정이 한끝 차이고 다감과 매정이 동전의 양면이라 여겨질 때, 무슨 공안(公案)처럼 미간에 저 구절이 떠 있다. 어떤 억하심정이나 남에게 말 못할 분루가 속을 어지럽혀서는 아니다. 화가 나거나 진심이 통하지 않아 분통 터질 때라면 그저 퍼부어대거나 속으로 눌러버리면 될 일. 잔인은 폭발과 침잠 그 어느 쪽으로도 융통 가능한 심사가 아니다. 냉엄해지려고 부러 표정을 굳히거나, 마음의 혼돈을 다잡으려 짐짓 평온한 척 너스레 떠는 건 속 좁은 자기기만일 뿐이다. 잔인은 뭐랄까, 무심의 극한이라기보다 전념의 궁극에 가깝다. 시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span class='quot0'>암 지금도 부드럽기는 하지만 <span class='quot0'>좀 다르</span>다</span>” 이를테면, 더 부드러워졌기에 부드러움만으론 안 되는, 때론 악의마저 느껴질 정도로 서슬 퍼런 마음의 극지가 저 구절에선 보인다. “<span class='quot0'>좀 다르</span>”면 당연히 무서워진다. 스스로에게도 상대에게도 ‘좀 다른’ 건 영원히, 많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성복은 “서정시인은 비정해야 한다”고 쓴 적 있다. 김金이든 이李든, 마음의 궁극을 들여다본 자들은 결국 잔인과 비정 안에서 부드러운 칼을 갈고 닦는다. 그렇게 스스로를 찌르고 타인을 발가벗긴다. 시는 위로의 양식이 아니다. 발가벗은 마음의 통렬한 칼날일 뿐이다.<br/>시인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46.txt

제목: 반려동물 비만, 당신의 흡연 때문일 수도…  
날짜: 201512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31051902398  
본문: 반려 동물의 비만, 암 등의 질병이 주인의 흡연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span class='quot0'>영국 글래스고 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 반려 동물들이 간접 흡연 환경에 노출될 경우, 암은 물론, 체중 증가, 세포 손상 등의 다양한 질병을 얻을 수 있다</span>”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30일 보도했다.<br/>이 연구에 따르면 흡연 가정의 반려 동물 세포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간접 흡연은 사람 보다 반려 동물들에게 더 치명적이며, 지속적인 세포 손상 및 중성화 수술 이후 체중 증가를 불러 일으킨다.<br/>특히 고양이들은 개들보다 간접 흡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1'>고양이들이 털 손질(그루밍)을 자주하다 보니, 그만큼 체내에 흡수되는 유해 화학 물질이 많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담배 연기를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br/>하지만, 개와 고양이 모두 한 가치 분량의 담배 연기에 노출돼도 체내 니코틴 지수는 높아졌다. 또 담배 연기에 노출된 횟수가 하루 10 차례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니코틴 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br/>연구팀의 클레어 노튼벨트 동물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흡연 가정의 반려 동물들이 상당량의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며 “<span class='quot2'>반려 동물들은 폐쇄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암 유발 입자가 남아 있는 카페트와 더 밀접하게 생활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span>”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47.txt

제목: “머릿속의 시한폭탄, 뇌혈관질환 검사만이 만능일까”  
날짜: 20151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30052347940  
본문: 대구 수성구에 사는 윤여정(47·가명) 씨는 두통 때문에 영상의학과에서 CT와 MRI 촬영을 했다. 오랫동안 두통이 사라지지 않아 고민하던 중 누군가 ‘영상의학과에서 검사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검진을 받았다. 검사 결과 ‘뇌동맥류 질환’으로 밝혀져 치료를 받고 있다.<br/>김경호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0'>영상의학과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두통이나 질환 등을 보다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들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종합검진부터 정기검진, 예방의 진료까지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이다</span>”고 말했다.<br/>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성인 의 절반이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중 증상을 한 가지씩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이처럼 다양한 질환에 노출된 현대인들은 갑작스레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막기 위해 종합검진 및 정기검진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뇌혈관질환의 경우 응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문제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어, 평소 식습관조절이나 정기검진을 통해 미리 예방해야 한다.<br/>뇌 관련 질환 중 뇌졸중(腦卒中) 혹은 중풍(中風)은 크게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나눌 수 있다. 뇌혈관질환은 문자 그대로 뇌의 혈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고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원인이다.<br/>작은 혈관이 막혔을 때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큰 혈관까지 막히기 시작하면 증상이 나타난다. 뇌혈관질환이 나타나면 치료가 어렵고, 아주 오래가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또 치매의 경우도 대략 30% 정도가 뇌혈관 질환의 악화로 발생하므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뇌 검진이 중요하다. 최근, 뇌혈관질환은 노인층뿐 아니라 생활습관의 변화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br/>보통 뇌 검진에는 주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뇌혈관촬영(MRA)을 사용한다. MRI는 작은 병변이나 혈관이 막힌 것, 급성 뇌경색의 발견에 유용하다. MRA는 MRI를 촬영하는 기계로, 뇌 조직, 두개골 등은 모두 지우고, 뇌혈관만을 강조해서 촬영해내는 영상기법인데 뇌혈관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갑자기 예고 없이 뇌출혈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뇌동맥류(동맥 꽈리)를 발견하는 데 적합하다.<br/>중년 이상이라면 보통 3~4년에 한 번, 증상이 없어도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뇌혈관촬영(MRA)을 촬영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흡연 같은 중풍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이는 뇌 검진이 필수다.<br/><br/>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48.txt

제목: 헤비메탈의 전설 모터헤드 리더 레미 별세  
날짜: 201512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30052329647  
본문: 영국 헤비메탈의 살아있는 전설인 3인조 헤비메탈 밴드 모터헤드의 리더 이언 ‘레미’ 킬미스터가 28일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 70세.<br/>모터헤드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의 훌륭하고 고귀한 친구 레미가 극도로 악성인 암과의 짧은 싸움 끝에 오늘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지난 11일까지 밴드와 함께 공연을 했던 킬미스터는 세상을 떠나기 불과 이틀 전인 26일 암 진단을 받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의 가족 곁에서 임종을 맞았다.<br/>검은 모자와 장발, 구레나룻이 특징인 그는 1945년 영국 중부에서 태어나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전설적인 록 기타리스트 지미 헨드릭스의 로드 매니저로 음악계에 발을 내디뎠다. 1972년 영국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 호크윈드에 베이스 연주자로 참여해 3년간 활동했으나 마약 단속에 걸려 쫓겨나 1975년 모터헤드를 결성해 최근까지 활동해 왔다. 밴드 이름은 킬미스터가 호크윈드에서 활동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곡의 제목이다.<br/>모터헤드는 1977년 밴드와 동명의 앨범 ‘모터헤드(Motorhead)’를 시작으로 20여장의 앨범을 발표했고 ‘에이스 오브 스페이즈(Ace of Spades)’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헤비메탈에 펑크록의 요소를 끌어들여 스피드메탈 또는 스래시메탈의 선구자로 불린다. 킬미스터는 밴드 내에서 유일한 창단 멤버다. 최근 앨범 ‘배드 매직(Bad Magic)’ 발매를 앞두고 내한해 7월에 안산밸리록페스티벌에서 첫 한국 공연도 했다.<br/>영국 헤비메탈 밴드 블랙 새버스의 보컬 출신인 오지 오즈번은 트위터에 “최고의 친구 중 하나를 잃었다. 너무나도 그립다”라고 적었다. 모터헤드의 ‘위플래시(Whiplash)’를 리메이크하며 존경을 표했던 미국 스래시메탈 밴드 메탈리카는 트위터 공식 계정에 “<span class='quot0'>레미, 당신은 우리 밴드가 존재하게 해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우리는 당신이 준 영감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span>”이라고 애도했다. <br/>고경석기자 kav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49.txt

제목: [헬스 프리즘] 난소암 치료 ‘골든 타임’ 가로막는 급여 정책  
날짜: 2015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9051813960  
본문: 김병기 대한부인종양연구회 회장<br/><br/>얼마 전 외래에서 이제 막 항암치료를 시작한 난소암 환자 김모씨를 만났다. 이미 암이 복막과 림프절까지 전이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복수로 배가 남산만해져 있었다. 표적치료제를 쓰면 증상이 완화될 거라 설득했지만, 그녀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해 한 달에 몇 백 만원씩 하는 약으로는 더 이상은 치료를 할 수가 없다며, 왜 하필 치료약이 없는 난소암인건지 하늘을 원망하게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br/><br/>난소암은 치료 성적이 약 20년 전과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표적인 난치성 암이다. 난소암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암이 진행되기까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검진이 어려워 환자의 절반 이상이 치료가 까다로운 말기에 암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에 육박하나 말기로 가면 11%까지 급격하게 떨어진다. 또한 암을 발견했을 때 이미 다른 장기까지 암이 전이된 환자 비율이 유방암에 비해 10배가량 높고 대부분의 환자가 1차 치료를 받더라도 진단 시기를 기준으로 15개월을 전후해 암이 재발하게 된다. <br/><br/>암이 재발하게 되면 환자는 항암제를 바꿔가며 항암 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항암 치료 차수를 거듭할수록 치료 효과는 떨어지고 위험한 합병증의 위험은 높아진다. 이에 따라 난소암은 재발되기 전 첫 번째 치료, 즉 1차 치료가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 타임’이다.<br/><br/>문제는 단 한번 뿐인 골든 타임인 1차 치료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 된 표적 치료제가 오직 1개라는 점이다. 재발이 쉬운 고위험 환자와 진행성 난소암 환자의 특징인 복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더욱 절실한 치료제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험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어 한 달에 몇 백 만원이나 드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환자의 경우 표적 치료제 대신 약 10~20년 전 개발된 항암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난소암 환자는 삶의 기로에서 촌각을 다투는데 난소암 치료의 시계는 20년 전에서 멈춰버린 셈이다. <br/><br/>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허가된 BRCA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재발성 난소암 치료를 위한 표적치료제도 현재 급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난소암은 보장성 정책의 사각지나 다름 없다. 암도 ‘복불복(福不福)’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br/><br/>국내에서 특정 치료제가 보험 급여를 받기까지는 환자수, 치료제 데이터, 재정 영향 등 여러 가지 숫자가 고려된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 바로 환자에게 남은 ‘시간’이란 숫자이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효율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난소암과 같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질환까지 제도적 지원을 넓히는 것이 절실하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50.txt

제목: 질병 키우는 생활습관, 정부가 고친다  
날짜: 2015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9051653419  
본문: 4차 국민건강증진계획 의결<br/>건강수명 73→75세로 상향 목표<br/>고위험군 식습관 개선 등 지원<br/>자살 부르는 우울증 진단ㆍ처방 독려<br/>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도 구축<br/><br/><br/><br/>만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br/>건강ㆍ보건정책 심의기구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질병과 자살 예방에 초점을 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년)’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계획을 보완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종합계획의 목표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4차 계획은 73세(2013년 기준)수준인 건강수명을 2020년까지 75세로 높이는 것이다. <br/>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개인들의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 등을 상담하고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흡연, 음주,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의 문제를 제 때 관리하지 않으면 심ㆍ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질병 전 단계서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유병률을 낮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당뇨ㆍ고혈압ㆍ비만 등 경계치에 있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br/>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동네병원에서도 가벼운 우울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단ㆍ처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을 기피 하는 문화가 있어 정신과 진료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의원급 병원에서 우울증, 불안과 같은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교육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정신과를 소개하도록 안내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울증 등에 대한 선별검사도구를 개발하고, 동네병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빠르면 2017년부터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초기에 우울을 발견해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항우울제 처방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은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국가 중 1위다. 반면 하루 항우울제 소비량은 1,000명 당 20DDD(1일 사용량 단위)로, 조사 대상국 28개 가운데 27위 수준이다. <br/>이 밖에도 노인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방문간호사, 노노케어(老-老 careㆍ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사업)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자살 고위험군 노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 당 55.5명으로 OECD국가 평균의 3배 수준이다. <br/>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51.txt

제목: [2015 게임결산-1] 모바일 게임, 'RPG·IP 활용' 빛났다  
날짜: 2015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9051642216  
본문: 올해 모바일 게임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체 게임산업의 중심에 위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모바일게임 시장규모를 전년 대비 23.3% 증가한 3조5,916억원으로 예상했다. 넷마블게임즈(넷마블)의 '레이븐 with NAVER(레이븐)'을 주축으로 한 역할수행게임(RPG)이 매출 상위권을 점령했으며,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콘텐츠들이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br/> <br/><br/><br/> <br/>■ 넷마블 독주 속 넥슨 반격 통했나<br/> <br/>올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상반기 넷마블의 독주와 하반기 넥슨의 반격으로 나눠볼 수 있다.<br/> <br/><br/><br/> <br/>넷마블은 지난 3월 모바일 RPG 레이븐을 출시하면서 장기 집권하던 '클래시 오브 클랜'을 밀어내고 양대 앱 마켓 최고 매출순위 정상에 올랐다. 이후 9개월 동안 1위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흥행가도를 달렸다.<br/> <br/> <br/>▲ 넷마블게임즈 제공<br/> <br/>네이버와 처음 협업한 게임으로 기대감을 모은 데다, 당시 tvN 예능 '삼시세끼'로 존재감을 드러냈던 배우 차승원을 모델로 기용하며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3D 엔진을 차용한 고퀄리티 그래픽과 1인 육성형 성장 시스템도 흥행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레이븐은 2015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포함한 6관왕에 오르며 저력을 과시했다.<br/> <br/>웹젠도 중국과 국내에서 인기를 거둔 온라인 게임 뮤(MU)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RPG '뮤 오리진'으로 레이븐과 맞섰다.<br/> <br/><br/><br/> <br/>레이븐과 뮤 오리진의 흥행 이후 모바일 시장에서는 남성 배우의 묵직한 이미지를 앞세운 RPG 게임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넷마블은 차기 모바일 RPG '크로노블레이드 with NAVER'의 메인 모델로 하정우를 영입하며 본격적인 연예인 마케팅에 나섰고 이후 쿤룬코리아가 '난투 with NAVER'의 메인 모델로 정우성을 기용했고 로켓모바일도 '고스트' 홍보 모델로 이정재를 섭외하며 남성 톱스타 모시기가 확산됐다.<br/> <br/><br/><br/> <br/>이후 넷마블은 지난 11월 RPG '이데아'로 레이븐에 이은 흥행 열풍을 이어갔고, 넥슨도 같은 달 '히트(HIT)'로 도전장을 내밀면서 모바일 게임시장은 혼전 양상을 보였다. 이데아가 정상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HIT가 정상에 등극하는 등 치열하게 흘러갔다. 전략게임 도미네이션즈로 게임성을 인정받은 데 이어 HIT를 최고 매출 1위에 올린 넥슨은 모바일 게임 시장의 새로운 주인으로 떠올랐다.<br/> <br/> <br/>▲ 넥슨 제공<br/> <br/>그러나 곧바로 넷마블의 반격이 이어졌다. 톱10을 놓치지 않으며 수개월간 장기 흥행을 이어갔던 RPG '세븐나이츠'가 순위 역주행을 통해 HIT를 꺾고 양대 앱 마켓 정상에 오른 것. 28일 기준 현재 넷마블은 세븐나이츠를 필두로 10위권 내에 5개의 게임을 올려 놓으며 확실한 독주 체제를 굳혀가고 있다.<br/> <br/> <br/>▲ 넷마블게임즈 제공<br/> <br/>이를 통해 넷마블은 매출 기준 업계 2위 자리에 올라서며 게임업계의 지형 변화를 예고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7,290억원을 기록하며 2인자 자리를 유지했던 엔씨소프트(6,013억원)를 제친 것이다. 현재 넷마블은 올해 연매출 1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br/> <br/>■ 절치부심 카카오, 자체 경쟁력 키워<br/> <br/>모바일 시장의 주를 이루던 'for kakao' 플랫폼 대신 레이븐 등 탈(脫)카카오 게임들이 인기를 끌자 게임업체들은 카카오 수수료를 모델 섭외에 집중 투자한다.<br/> <br/>카카오는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의 수수료 인하 카드를 빼들었지만 탈카카오 흐름은 가시지 않았다. 결국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에 추가할 모바일 보드게임존에 집중했다.<br/> <br/> <br/>▲ 카카오 제공<br/> <br/>게임업계와 함께 지난 1일 모바일 보드게임의 문을 개방한 카카오는 보드게임존에 맞고게임 4종과 장기 2.0, 오목, 인생역전윷놀이 등 총 7종의 게임을 공개했다. 특히 사행성 논란에 부딪혔던 '맞고 게임'이 전면적으로 카카오 플랫폼과 만나면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프렌즈맞고(엔진), 애니팡맞고(선데이토즈), 맞고의신(조이맥스), 아이러브맞고(파티게임즈) 등 맞고 게임은 출시 직후 카카오 게임하기 인기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br/> <br/> <br/>▲ 카카오, 엔진, 다음게임 제공<br/> <br/>이후 카카오는 자체 게임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게임 계열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엔진과 다음게임의 합병을 결정한 것. 엔진과 다음게임은 지난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최종 결의했다. 양사는 내년 2월 임시주총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엔진이 되며 대표직은 남궁훈 현 엔진 대표이사가 맡는다. 엔진을 통해 PC·온라인과 모바일 영역을 아우르는 게임 퍼블리싱 분야를 강화하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br/> <br/>■ IP 활용 게임의 명(明)과 암(暗)<br/> <br/>인기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출시도 활발한 한 해였다. 성장 동력 부재에 놓여있던 와이디온라인은 동명의 웹툰 IP를 기반으로 개발한 2D 턴제 RPG '갓 오브 하이스쿨(갓오하)'을 통해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했다.<br/> <br/> <br/>▲ 와이디온라인 제공<br/> <br/>갓오하는 지난 5월 21일 구글플레이에 출시된 이후 7개월이 지난 28일 현재 최고 매출 순위 14위에 랭크돼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지난 8일 출시 이후 첫 번째 업데이트를 실시함과 동시에 HIT를 꺾고 최고매출 순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 앱 스토어 최고매출 순위 7위를 유지하며 장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br/> <br/>이러한 갓오하의 흥행 이후 게임업계는 인기 IP를 활용한 게임 개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br/> <br/>특히 14년만에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된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은 앱 내 결제가 없는 대신 8,800원이라는 유료게임으로 출시돼 관심을 모았다. 원작이 갖는 IP 파워를 통해 티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유료게임 부문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출시한 지 5시간만에 관련 분야 정상을 차지했다.<br/> <br/> <br/>▲ 로이게임즈 제공<br/> <br/>카카오프렌즈 IP를 활용한 퍼즐게임 NHN픽셀큐브의 '프렌즈팝'도 흥행 대열에 합류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통해 친숙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로 게임을 개발한 NHN픽샐큐브는 '애니팡(선데이토즈)' 이후 모바일 퍼즐게임의 흥행 가능성 높인데 이어 최고매출 순위에서도 양대 앱 마켓 톱10에 안착했다.<br/> <br/>IP를 통한 모바일 게임이 흥행 보증수표로 떠오른 가운데 표절시비로 인한 법정 다툼도 있었다.<br/> <br/>지난달 서울지방법원 재판부는 게임사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관련 게임인 '포레스트매니아'의 도메인 사용금지와 함께 영국 킹(King)사에 손해배상금 11억7,00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영국의 게임사 킹(King)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킹의 승소를 통해 일부 게임업체는 유사 장르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br/> <br/> <br/>▲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킹의 '팜히어로사가(오른쪽)'와 패한 '포레스트매니아'.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 킹 제공<br/> <br/>업계의 관계자는 "올해 모바일 게임 시장은 넷마블이 주도한 RPG 게임군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체 규모를 끌어 올렸다"며 "탈카카오 현상 이후 주춤했던 카카오가 내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반등의 기회를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br/><br/><br/>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52.txt

제목: 판매금 2%씩 모아 백혈병과 싸우는 어린 생명 살리기  
날짜: 2015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8050903083  
본문: ‘생명의 쇼핑카트가 꺼져가는 어린 생명을 살립니다.’<br/>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 가면 상품 진열대 사이로 이런 문구가 붙은 빨간 팻말이 눈에 띈다. 이는 소비자, 협력사, 대형마트가 함께하는 착한 소비 캠페인을 알리는 팻말이다. 상품이 하나씩 팔릴 때마다 홈플러스와 협력사가 판매 금액의 1%씩 떼어내 홈플러스의 사회공헌재단 e파란재단에 기부한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1,400여개 제품이 여기 해당된다.<br/> 홈플러스가 200여개 협력사와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상품 매출의 2%를 기부하는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시작한 2012년부터 올해까지 9,130만명의 소비자가 해당 캠페인 상품을 구매해 총 81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이는 소아암 중 발병 비율이 가장 높은 백혈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 463명의 수술비와 후유장애 치료비로 쓰였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소비자 1명당 평균 10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작은 정성이 모여 꺼져가는 어린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span>”고 말했다.<br/> 도움의 손길은 단순히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는 수술을 받은 뒤 오랜 치료 과정이 필요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을 회복해도 학업이 뒤처진 상황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재발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br/> 이에 홈플러스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지난 8월부터 ‘힐링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치료에만 전념하느라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심리치료와 학습을 지원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힐링스쿨은 서울, 대구, 부산의 희망다미웰니스센터에서 5~8세 유아와 8~13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유아의 정서 안정과 신체 성장을 돕는 퍼포먼스미술, 키즈요가, 운동, 구연동화, 영어놀이를 통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뮤지컬, 과학교실, 멘사수학퍼즐, 문화활동 등 학교 대체 프로그램 중심으로 짜여있다. <br/> 홈플러스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 돌아가기를 응원하는 취지에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희망 책가방’도 선물한다. ‘SNS 응원 댓글 캠페인’을 통해 댓글 하나 당 2,000원을 기부해 어린이 150명에게 책가방을 전달했다.<br/>이밖에 e파란재단은 협력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해 함께 운영한다. 이달부터 스킨케어 브랜드 니베아와 함께 오랜 항암치료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700여권으로 구성된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다. 또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서, 음악, 미술 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책 읽어주는 니베아’를 전개한다.<br/> 지난 10월 롯데주류와 손잡고 홈플러스에서 판매된 ‘클라우드 기획팩’ 매출의 일부를 미혼모를 돕는 데 기부하기도 했다. 8월에 하이트진로 제품인 하이트, 맥스, 드라이d, 참이슬 매출액의 3%를 여성가족부 산하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부해 600여 다문화가정의 국내 정착을 도왔다.<br/><br/> 주 고객이 30~50대 주부이면서 여성 직원 비율이 65% 이상인 홈플러스는 유방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핑크 플러스 캠페인’도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유방암 예방 중요성 인식 확산과 예방활동, 소외계층 치료지원, 심리치료에 연간 20억원을 지원했다.<br/>지난 1월부터 홈플러스는 국립암센터와 유방암 환자들의 심리치료를 돕는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33명을 도왔다. 지난달 27일에는 ‘핑크플러스 행복 음악회’를 열어 금난새씨가 지휘하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에 유방암 환자와 가족, 협력사 직원 등 1,000여명을 초청했다.<br/> 유방암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과 대구에서 1만3,000여명이 참가하는 ‘핑크플러스 걷기 대회’도 세 차례 개최했다. 국내 여성암 중 발병률 2위인 유방암은 조기 발견 시 95% 이상이 완치할 수 있다. 최현석 요리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아빠의 힐링밥상 요리대회’를 열어 700명의 남성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요리법으로 아내의 건강을 위한 요리실력을 선보였다.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는 자가검진법과 암 예방에 좋은 요리, 요가 등 유방암 예방을 위한 건강 강좌를 진행해 2만7,000여명이 참여했다.<br/> 또 전국 7개 병원과 연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방암 환자 92명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항암, 방사선, 수술비를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계 월소득ㆍ재산이 최저생계비 기준 300% 이하인 유방암 환자라면 누구나 병원의 사회사업실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국립암센터와 대한암협회를 통해 수술 및 치료비가 지원된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span class='quot1'>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엄마의 건강은 어린이의 행복을 좌우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어린이와 엄마 모두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span>”고 말했다.<br/><br/>권영은기자 you@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53.txt

제목: 2016 국민생활 이렇게 달라진다  
날짜: 2015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8050856968  
본문: ◆복지 노동<br/>▦아빠의 달 지원 확대= 남성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3개월 450만원으로 늘어난다.<br/>▦최저임금 6,030원= 최저임금이 올해(5,580원)에서 6,030원으로 8.1%(450원) 오른다. 하루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은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br/>▦임금피크제 근로자 최대 1,080만원 지원=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소득이 10% 이상 줄어든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br/>▦정년 60세 의무화=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적용된다.<br/>▦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93만원 이하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 이하에서 월 16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br/>▦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가입 기준 완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한다.<br/>▦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118만원 이하에서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br/>▦국가 암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간암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br/><br/>◆금융 <br/>▦등록주소 일괄변경서비스= 1월18일부터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모든 거래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된다. <br/>▦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1월25일부터 창의적인 사업 계획을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공모증권을 발행,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br/>▦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금융권별 협회 홈페이지에 분산된 금융상품 정보를 1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정기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br/>▦계좌이동서비스 확대=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만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 신청이 2월부터는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동송금 변경서비스도 2월부터 시행한다.<br/>▦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 = 가계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은 2월1일,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각각 적용된다.<br/>▦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서비스 확대= 4월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개인정보와 사고 유무 등을 입력하면 본인에게 적용될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br/>▦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K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각각 내년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개시한다. 연 10%대 중금리 대출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br/>▦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유예기간 종료로 새해부터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38%)에, 추가 세율(10%)이 덧붙여 부과된다. 3년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br/><br/>◆주거 교통<br/>▦온라인 부동산 계약 체결=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매매ㆍ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월 서초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br/>▦신분당선 연장선(경기 정자~광교) 개통= 1월30일 첫 운행에 들어가며 6개 역사로 이뤄져 있다. 신분당선과 연결돼, 광교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여분 만에 이동 가능하다.<br/><br/>◆세금<br/>▦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예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하나의 통장에 담을 수 있는 ISA가 이르면 3월 출시된다. 연간 2,000만원(총 1억원) 한도 내 3~5년간 가입하면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br/>▦업무용 승용차 과세= 업무용 승용차 보유 법인은 경비 처리를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연간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초과시 주행일지를 작성하면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br/>▦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사전면세제도 도입= 외국인 관광객은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체류 기간 내 총 100만원)까지 부가세 등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br/>▦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자녀와 연로자(65세 이상)에 대한 상속 재산 공제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성년자(19세 이하)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br/>▦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2017년말까지다. 투자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고,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br/>▦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내년 4월부터 국내에서 미용 목적으로 유방확대 등의 성형수술을 받는 외국인 관광객은 1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br/><br/>◆법무ㆍ행정<br/>▦범죄피해자 경찰서 방문 시 여비 지급= 강력범죄 피해자 중 수사협조 위해 심야 시간에 경찰서 방문 시 여비 2만4,00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과 노인은 시간대 상관 없이 지급한다.<br/>▦의사상자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ㆍ부상한 유족이나 의사상자의 공무원 시험에 가점이 부여된다.<br/>▦주민번호 우편물 기재 금지= 우편물 표면에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외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우체국에서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br/>▦서울시 청년수당 신설=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19~29세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구직 활동이나 공공ㆍ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선발한다.<br/>▦여행계약 언제든 취소 가능= 2월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여행계약’도 민법상 계약 형태로 추가돼 출발 전이면 언제든 여행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br/>▦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 활용을 돕기 위해 162개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허용된다.<br/><br/>◆국방<br/>▦병사 봉급 15% 인상 = 병사 봉급이 작년보다 15% 올라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8,000원이 지급된다. 병장 월급은 19만7,000으로 20만원에 육박한다.<br/>▦군내 성폭력 신고 앱 운영 =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성폭력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복무 중인 장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1번씩 받아야 하는 등 병영 성폭력 예방교육도 확대된다. <br/>▦해·공군, 해병대 뽑을 때 수능성적 배제 = 병무청은 해·공군과 해병대 지원병을 모집할 때 수능·내신 성적 대신 자격·면허증과 전공 위주로 심사할 계획이다.<br/><br/>◆교육<br/>▦수능 한국사 필수= 국어는 기존 A,B형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공통으로 출제된다. 모든 수능 응시자는 한국사 시험을 치러야 한다.<br/>▦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전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확대ㆍ실시된다.<br/>▦9개 대학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상명대와 계명대, 순천향대 등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9개 대학에 지역 전략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특화산업학과가 개설된다.<br/><br/>◆농축산<br/>▦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br/>▦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5∼2.7%에서 2%로 낮아진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br/>▦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 확대=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농가가 2월23일부터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면적 10∼15㎡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시설 농가는 4월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br/><br/>◆관광 스포츠<br/>▦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 3월부터 유해시설 없는 100실 이상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에서 75ｍ 이상 떨어진 곳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들어설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 출입문에서 50ｍ 이내는 호텔 건립이 전면 금지됐고, 학교 경계선에서 200ｍ 이내의 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br/>▦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대통합=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25년간 따로 살림을 차렸던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3월부터 하나가 된다. 통합체육회의 명칭은 ‘대한체육회’다. <br/><br/>◆중소기업 서민<br/>▦저소득층 통신요금감면=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와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76만명에 대해 이동전화서비스와 유선서비스 감면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br/>▦햇살론 지원 연장= 저신용ㆍ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2016년 지원 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4,000억원까지 확대된다.<br/>▦창업자금 상환 연장=업력 3~7년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인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황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상반기 중 시행된다.<br/>▦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10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54.txt

제목: 취향저격·나홀로족·꿀팁…빅데이터로 보는 2016년  
날짜: 2015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8050834560  
본문: 다가오는 2016년, 빅데이터로 알아본 새해 트렌드는 무엇일까. 27일 다음소프트에 의하면, 내년 문화·소비 트렌드는 개인 중심적인 콘텐츠가 심화될 전망이다.<br/> <br/><br/><br/> <br/>■ '취향'타는 소비 트렌드, 2016년 관통할까<br/> <br/>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는 내년 소비 트렌드의 핵심으로 '취향'을 꼽았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취향의 언급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br/> <br/>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취향저격(전략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콘텐츠나 제품을 생산하는 현상)'의 월별 언급량을 보면 올해 1∼6월 월평균 6만건을 유지하다가 9월 23만3,683건으로 급증했고, 10월(13만7,768건)과 11월(10만6,683건)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br/> <br/>'편집매장'과 '드럭스토어' 등 소비자가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여러 브랜드 상품을 모아놓은 매장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br/> <br/>SNS에서 드럭스토어 언급량은 올해 31만5,299회로 2011년의 6배 이상으로 늘었고 편집매장은 같은 시기 3만7,744회 언급돼 2011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뛰었다. 가성비를 꼼꼼히 따진 소비도 각광받는다. '가격 대비 성능비'의 준말인 '가성비'는 2011년부터 매년 평균 91%씩 늘어 올해 18만9,274회 언급된 것으로 집계됐다.<br/> <br/><br/><br/> <br/>대신 유행에 따른 '따라하기'식 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SNS상에서 '명품 가방 갖고 싶다·사고 싶다'는 글은 10만건당 언급량이 2011년 8.18회에서 2015년 7.3회로 떨어졌다.<br/> <br/>■ 나홀로족 급부상…1인 트렌드의 명암<br/> <br/>2011년 1월부터 올해 12월 22일까지 블로그(6억5,851만2,182건)와 트위터(79억7,357만5,800건)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도 '나홀로족' 세태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br/> <br/>SNS에서 '혼자 밥 먹기'와 '혼자 술 마시기'의 줄임말인 '혼밥'과 '혼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만 1만5,485회 언급돼 지난해(2,244회)와 비교해 7배 이상 증가했고 2011년(807회)보다 20배 늘었다.<br/> <br/>올해 혼밥·혼술의 연관 감성어로는 '즐기다'(771회) '멋있다'(240회) '맛있다'(218회)가 상위에 포진하면서 점차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지난해는 비슷한 감성어가 40∼70회 언급된 것에 그쳤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배고프다' '무섭다' '싫다' 등 부정적인 감성어가 상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할 때 큰 폭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br/> <br/>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머 게시글 중에 '혼자 밥 먹기 레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다. 1단계 '편의점에서 혼자 라면 먹기', 2단계 '푸드코트에서 혼자 밥 먹기'부터 시작해 6∼7단계쯤 가면 '세련된 요릿집·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먹기'가 나온다. 마지막 9단계는 '술집에서 혼자 술 마시기'다.<br/> <br/>이러한 나홀로족의 급부상은 최근 청년실업과 결혼 포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부작용으로 비쳐지기도 한다.<br/> <br/>미혼(未婚)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비혼(非婚)은 혼인할 의지가 없음을 뜻한다. '비혼'은 올해 16만604회 언급돼 지난해(4,198회)에 비해 약 30배 이상 증가했다. 이성과의 연애에 소극적인 '초식남'을 넘어서 이성과 아예 만나지 않는 '절식남'까지 등장했다. SNS에서 초식남·절식남 언급량은 2011년 9,873회에서 올해 1만4,695회로 40% 이상 늘었다.<br/> <br/>'청년실업'은 올해 5만7,731회 언급돼 지난해(2만4,152회)의 2배 이상 증가했다. 청춘들은 청년실업으로 절규했고 불안해했다. 청년실업 관련어로 '절규'와 '불안'은 각각 1,910회, 790회 언급됐다. 청춘들이 가져야 할 사랑·희망·열정은 '고민(3,793회)' '아픔(2,715회)' '무시무시한(2,247회)' '상처받다(1,264회)' 등과 함께 언급돼 청춘들의 슬픈 자화상을 드러냈다.<br/> <br/>전문가들은 경제적·심리적·사회 관계적으로 빈곤함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남과 함께 하는 문화가 젊은이들에게 부담스럽고 힘들게 다가온다며 '나홀로'가 대세가 된 사회를 우려했다.<br/> <br/>■ 문화 콘텐츠 필수 요소는 '정보성 꿀팁'<br/> <br/>올해 문화 트렌드는 급격하게 변화했다.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냉장고를 부탁해' '집밥 백선생'으로 대표되는 쿡방(요리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재미는 물론 깨알같은 '꿀팁(꿀+Tip)'이 트렌드로 부상했다. 실제로 다음소프트가 2011년 1월부터 올해 12월 22일까지 블로그(6억5,851만2,182건)와 트위터(79억7,357만5,800건)를 분석한 결과 꿀팁의 증가세가 돋보였다.<br/> <br/> <br/>▲ 김풍 작가가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 캡쳐<br/> <br/>올해 '방송' 관련어로 꿀팁은 총 2만2,997회 언급돼 지난해(1,130회)에 비해 2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정보'는 올해 26만2,525회 언급돼 지난해(11만7,272회)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br/> <br/>꿀팁 방송은 주로 쿡방(요리방송)이 주도했지만 내년에는 뷰티·헬스 분야까지도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뷰티와 함께 언급된 꿀팁은 지난해 341회에 그쳤지만 올해 2,475회로 언급량이 크게 늘었다. '뷰티 유튜브'도 지난해 113회에서 올해 952회로 증가해 메이크업 기술을 유튜브 등 영상에 담은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관심량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냈다.<br/> <br/>문화의 향유에서도 결국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재미 플러스 알파(α)'를 최대로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의식주에 대한 DIY(Do It Your Self·손수 만들기)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꿀팁을 주는 콘텐츠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br/><br/><br/>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55.txt

제목: 첫 물, 첫 태양에 기원하는 새해의 희망  
날짜: 20151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8050800746  
본문: 1월의 여행은 특별하다. 새로운 1년을 기원하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br/>한국관광공사는 ‘여기서 새출발 2016’을 테마로 한 1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영덕 블루로드, 태백 검룡소, 무의도 호룡곡산, 해남 도솔암, 태안 만대항 등 5곳을 선정했다. <br/>쪽빛 바다와 함께 걷는 영덕 블루로드<br/>영덕 블루로드는 짙푸른 동해의 희망찬 기운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최고의 트레킹 코스다. 영덕의 가장 남쪽인 대게누리공원에서 강구항, 축산항을 거쳐 고래불해수욕장까지 약 64.6km의 해안길이다. 산길 구간도 있지만 대부분 바다를 끼고 걷도록 조성돼 시원스레 펼쳐진 동해바다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다. 일부 구간에선 파도가 머리 위를 타고 넘어가는 짜릿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자동차로 빠르게 지나칠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영덕의 숨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br/>강구항은 영덕 대게의 집산지인 강구항과 거대한 바람개비인 풍력발전단지, 일출 명소인 창포말등대, 축산항을 굽어보는 죽도산전망대 등도 지난다. 영덕군청 문화관광과 (054)730-6395<br/><br/>한강 발원지에서 새 시작을, 태백 검룡소<br/>검룡소는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맑은 샘으로 이곳에서 하루 2,000~3,000톤 가량의 지하수가 석회암반을 뚫고 솟는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는 법이 없고 수온도 사시사철 9도 안팎으로 일정한 신비의 샘이다. 검룡소에서 넘친 물은 암반을 따라 와폭을 이루는데 마치 이무기가 꿈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해 검룡소를 더욱 신비롭게 한다. <br/>주차장에서 평탄한 흙길을 따라 20여분 걸어 가면 닿을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산책 삼아 다녀오기에도 좋다. 태백 시내에 자리한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 석탄도시 태백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철암역두, 고생대 전문박물관인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태백산도립공원 등도 함께 들러보기 좋다.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033)550-2081<br/><br/>가까이 있어 더 소중한 무의도 호룡곡산<br/>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연륙도로를 따라 잠진도 선착장으로 가서 배를 타면 10분 만에 닿는 섬이 무의도다. 섬 한가운데 ‘서해의 알프스’라 불리는 아름다운 호룡곡산과 국사봉이 솟아있다. 40~50분 가량 쉬엄쉬엄 걸어 호룡곡산 정상에 오르면 자월도, 영흥도, 승봉도 등 주변 섬들과 인천대교, 송도국제신도시까지 보인다. 백사장이 넓게 펼쳐진 하나개해변은 겨울바다의 낭만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인도교로 연결된 소무의도에는 무의바다누리길이라는 해변 산책로가 조성돼 바다를 바라보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인천 중구청 관광진흥실 (032)760-6492<br/><br/>해남 땅끝 달마산의 도솔암<br/>땅끝의 산자락에 대롱 매달려 있는 작은 암자다. 해남 땅끝의 달마산에는 고즈넉한 풍경을 자랑하는 미황사와 함께 신선들이나 살 법한 고즈넉한 암자인 도솔암이 있다. 특히 도솔암은 암자로 가는 중간 즈음 완도의 섬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과 도솔암을 배경으로 떨어지는 일몰이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해남의 너른 들녘과 다도해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풍경은 도솔암만의 특별한 선물이다. <br/>달마산 미황사와 두륜산 대흥사는 해남이 품은 아름다운 절집으로 명불허전임을 실감케 한다. 해남군청 문화관광과 (061)530-5918<br/><br/>솔향기 맡으며 갯내음 적시며 태안 만대항<br/>만대항은 태안반도 가로림만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포구다. 태안 솔향기길 1코스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바닷가 비탈 위로 연결된 태안반도의 끝 길을 걸으며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체험은 색다르다. 솔향기길 1코스의 저녁노을 트레킹은 ‘명품’의 반열에 올라 있다. 해안경관과 함께 솔향, 갯바위를 벗 삼아 걷는 길은 북적이지 않아 상념에 젖기에 더욱 좋다. 만대항의 솔향기길은 삼형제바위, 당봉전망대, 용난굴 등을 거쳐 꾸지나무골 해변까지 이어진다. 만대항의 겨울은 굴이 푸짐하게 쏟아질 때다. 포구 인근에는 굴 양식장, 염전 등이 만대마을과 어우러져 있다. 태안군청 관광진흥과 (041)670-2772<br/>이성원기자 sung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56.txt

제목: [퀴즈] 도전! 뉴스 골든벨(12월 넷째 주)  
날짜: 20151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6050847699  
본문: 내 상식지수는 얼마나 높을까? 이번 주 주요 뉴스를 퀴즈로 정리하며 알아보세요.<br/>[힌트가 되는 기사]<br/>-기부단체 투명성 D등급… 불신 안 걷혔다<br/><br/>-올해의 사자성어 ‘혼용무도’<br/><br/><br/>-“체감경기 어렵다” 아우성치는데… 무디스, 韓 신용등급 역대 최고 왜?<br/><br/>-10년간 GDP 1% 추가 성장, 일자리 5만5,000개 창출 기대<br/><br/>-졸업하려고 대출까지… 미대생 울리는 졸업전시회<br/>-헌재, 6년이나 끌어놓고… “심판 대상 아니다”<br/><br/>-원각사 능엄경서 最古 한글 붓글씨 찾았다<br/><br/>-암 환자 10명 중 7명 생존… 죽을 병 아니다<br/><br/><br/>-올해의 10대 국내 뉴스 / 메르스에 무너진 방역… 온 국민이 감염 공포 外<br/><br/>-올해의 10대 국제 뉴스 / 피로 물든 파리… IS 테러 만행에 지구촌 경악 外<br/>※ 포털 사이트에서 이 기사를 보셨다면 원문 보기를 눌러 주세요. 그래야 퀴즈를 풀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보다 ‘크롬’과 ‘파이어폭스’를 브라우저로 쓰실 때 콘텐츠가 제대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57.txt

제목: “65세 미만 콩팥암 환자 부분 콩팥절제술이 생존율 높아”  
날짜: 2015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5051416817  
본문: 변석수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팀, 5개 병원 622명 환자 분석결과<br/>65세 미만 콩팥암 환자에게서 콩팥 전부를 잘라내는 수술보다 일부를 잘라내는 부분 콩팥절제술이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변석수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정재승 해운대백병원 비뇨기과 교수 연구팀이 콩팥암 치료인 근치적 콩팥절제술과 부분 콩팥절제술의 수술 후 생존율 비교를 통해 65세 미만 환자에게서 부분 콩팥절제술이 생존율이 더 높았다고 24일 밝혔다.<br/><br/>콩팥암은 종양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했거나 25~30% 환자는 주위에 전이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콩팥암은 건강검진이나 소화기 질환 검사 중 초음파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br/><br/>이런 콩팥암에 대해 10년 전까지는 종양을 포함, 콩팥을 완전히 제거하는 근치적 콩팥절제술이 콩팥암 치료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능하면 종양과 주위 정상 조직 일부만 제거하고 콩팥의 나머지는 남겨두는 부분 콩팥절제술이 권장되고 있는 추세다.<br/><br/>특히 건강검진을 통해 크기가 작은 종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콩팥 기능의 보존을 위해 부분 콩팥절제술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다. 근치적 콩팥절제술로 한쪽 콩팥을 모두 제거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콩팥 하나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면서 몸 속 노폐물이 쌓이고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br/><br/>최근 ‘유럽 암 연구 및 치료기구(EORTC)’에서 발표된 유일한 전향적 연구에 따르면 부분 콩팥절제술의 환자군이 근치적 콩팥절제술 환자군보다 전체 생존율이 높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분 콩팥절제술의 생존율 향상 효과에 의구심과 논란이 일고 있다.<br/><br/>이런 상황에서 변 교수팀은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근치적 콩팥절제술과 부분 콩팥절제술의 수술 후 콩팥 기능 및 전체 생존율 비교’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연구는 전국 5개 병원의 콩팥암 환자 자료를 토대로 부분 및 근치적 콩팥절제술을 시행 받은 1기 콩팥암 환자 각각 622명의 자료 분석으로 진행됐다.<br/><br/>수술 후 전체 생존율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65세 미만 젊은 환자에서는 부분 콩팥절제술 환자군의 5년 전체 생존율은 99.7%, 근치적 콩팥절제술 환자군은 96.3%로 부분 콩팥절제술에서 더 나은 생존율을 보였다.<br/><br/>변 교수는 “<span class='quot0'>나이가 젊을수록 부분 콩팥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콩팥 기능을 회복하고 환자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span>”고 했다.<br/><br/>이번 연구는 유럽암학회 공식저널(European Journal of Cancer)에 실렸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58.txt

제목: 국내 암환자 69.4% 사실상 완치…갑상선암 환자, 일반인보다 생존률↑  
날짜: 20151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4051736532  
본문: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22일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넘게 생존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3년 암 발생률ㆍ생존율ㆍ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한다는 것은 사실상 완치를 뜻한다. 이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비환자 대비 생존 환자의 비율)은 69.4%로 2001~2005년(53.8%)보다 15.6%포인트나 높아졌다. 10년 생존율도 1993~1995년 38.2%에서 2004~2008년 56.9%로 18.7%포인트 올라갔다.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암으로 100.2%나 됐다.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이 비환자보다 오히려 생존율이 높은 셈. 전립선암(92.5%), 유방암(91.5%)도 90%대를 기록했으며 대장암(75.6%), 위암(73.1%)도 상대적으로 5년 생존률이 높았다. 특히 위암의 5년 생존율(2009~2013년 기준)은 2001~2005년보다 15.4%포인트나 늘었다. 전립선암(12.3%p), 간암(11.2%p), 대장암(9.0%p)도 생존율 증가 폭이 큰편이었다. 반면 췌장암(9.4%)과 폐암(23.5%), 담낭 및 기타 담도 암(29.0%), 간암(31.4%)은 생존율이 낮은 편이었다.<br/><br/><br/>한국스포츠경제 master@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59.txt

제목: 암 환자 10명 중 7명 생존... 죽을 병 아니다  
날짜: 2015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3090827546  
본문: 과잉진료 논란 갑상선암 첫 감소<br/>위암ㆍ대장암은 美보다 생존율 높고<br/>10만명당 암 환자 수 2년 연속 줄어 <br/><br/><br/>암 환자 10명 중 7명은 완치 기준인 5년 이상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잉진료’ 논란이 일었던 갑상선암 환자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br/>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2013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09~2013년)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9.4%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암에 걸린 환자가 향후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을 추정한 것으로,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다는 의미다. 13년 전인 1996~2000년(44%)과 비교하면 무려 25% 포인트가 높아졌다. 10년 이상 생존율도 높아졌다. 2004~2008년 암 환자의 10년 생존율은 56.9%로, 1996~2000년(40.7%)보다 16.2%포인트 높아졌다.<br/>생존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암으로, 5년 생존율이 100%에 달했다.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갑상선암 환자의 경우 같은 성별ㆍ나이대의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는 뜻</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갑상선암 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없는 건 아니다</span>”라고 설명했다. 갑상선암 외에 전립선암(92.5%) 유방암(91.5%) 위암(73.1%) 대장암(75.6%)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의 경우 의료선진국인 미국(2005~2011년 기준)보다도 생존율이 높았다. 반면 조기진단이 어려운 췌장암(9.4%) 폐암(23.5%) 등은 생존율이 낮았다. <br/>인구 10만 명 당 암 환자수는 2년 연속 줄었다. 연령대를 고려해 암 환자를 추정한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311.6명이었다.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011년 324.2명에서 2012년 322.3명으로, 1999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고, 2013년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세계 인구의 연령대를 고려해 보정하면 우리나라의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85.7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70.3명)보다는 약간 높고, 호주(323명) 미국(318명) 프랑스(303.5명) 보다는 낮았다. <br/>1999년부터 2013년까지 암에 걸렸거나 암에 걸렸다 치유된 이는 총 137만명으로, 국민 37명 중 1명은 암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6%다. <br/>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다. 2013년 새롭게 발생한 전체 암 환자 22만5,343명 중 갑상선암 환자는 4만2,541명으로 18.9%를 차지했다. 이어 위암(3만184명), 대장암(2만7,618명), 폐암(2만3,177명), 유방암(1만7,292명) 등의 순이었다. 암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증가세는 여성이 더 컸다. 2013년 남성의 암 발생률은 328.1명으로 여성의 313.4명보다 높았지만, 과잉 진단 논란이 있는 갑상선암을 제외할 경우 1999~2013년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1.9%)이 남성(0.7%)보다 높았다. 남성 암환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았고,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갑상선암의 경우 여전히 전체 암 중 발생률 1위였으나, 전국 단위의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갑상선암 발생환자수는 1999년 3,325명(인구 10만명당 7.2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는 4만4,494명(인구 10만명당 74.4명)에 육박한 바 있다. <br/>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60.txt

제목: 신한은행, 인터넷 전용 방카슈랑스 암보험 판매  
날짜: 20151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3090815807  
본문: 신한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보장성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전용 방카슈랑스 상품을 21일부터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br/> <br/> <br/>은행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을 방카슈랑스라고 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보험센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br/> <br/>이번에 출시한 인터넷 전용 방카슈랑스 암보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장금액이 증가하는 암보험으로 보험료 인상 없는 비갱신형 보장보험이다.<br/> <br/>신한은행은 향후 다른 보험사들과 추가 제휴를 통해 상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방카슈랑스 가입이 가능하게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br/><br/><br/>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61.txt

제목: 15년 뒤 폐경 여성 비율 43%인데... 호르몬 치료 뒷전만  
날짜: 2015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2052253855  
본문: 15년 뒤 폐경 여성 비율 43%<br/><br/># 주부 A(54)씨는 날씨가 추워지자 얼굴이 화끈거리는 안면홍조 증상이 더 심해졌다. 시도 때도 없이 얼굴에 열이 오르고 별 거 아닌 일에도 남편과 아이들에게 갑자기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지자, 폐경 증상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까지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br/><br/># 최근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진 여성 B(47)씨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얼굴 전체에 땀이 나고, 우울증까지 생기자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폐경 증상을 개선하려고 헬스클럽에 등록했다. 하지만 B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수면장애까지 생겨 결국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br/><br/>기대 수명 증가로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폐경이 되는 나이가 평균 49.7세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여성은 인생 절반을 폐경 상태로 지내게 된다. 또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30년에는 폐경 여성은 전체 여성의 43%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폐경 여성의 70% 정도는 적극적인 치료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르몬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연구 결과, 호르몬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폐경으로 인한 질환 예방을 위해 좋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br/><br/> “<span class='quot0'>60세 이전에 치료해야 심혈관 질환 예방</span>”<br/>우리나라 여성은 평균 49.7세가 되면 여성 호르몬을 분비해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리가 중단된다. 평균 수명이 83.8세인 점을 감안하면 30년 넘게 폐경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한다.<br/><br/>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결핍돼 얼굴이 붉어지고 후끈거리는 안면홍조 등 다양한 증세가 나타난다. 밤에 자다가 식은 땀을 흘리는 야간 발한, 수면 장애, 피로감, 우울증, 불안감, 기억력 장애 등 다양한 신체ㆍ정신적 증상도 생긴다. 특히 안면홍조는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최근 북미폐경학회(NAMS)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안면홍조를 12번 이상 경험한 50대 여성은 하루 4번 이상 경험한 여성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았다.<br/><br/>따라서 폐경 증상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치매 요실금 등 각종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진다.<br/><br/>여성 호르몬이 결핍되면 체중도 늘어난다. 박은정 제일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폐경기 여성은 기초 대사량이 줄고, 체지방 가운데 특히 내장 지방량이 늘어나면서 허리둘레도 증가한다</span>”며 “<span class='quot1'>평균적으로 폐경 전후로 체지방은 3.4㎏, 허리둘레는 5.7㎝ 늘어난다</span>”고 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자연 폐경이 아닌 수술에 의한 인위적인 폐경인 경우 이런 변화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급격한 여성 호르몬 저하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다</span>”고 했다. <br/><br/>이처럼 폐경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경 10년 이내 즉 60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과 인지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br/><br/>대한폐경학회가 얼마 전 전국 45~65세 여성 2,330명에게 폐경 증상과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 여성들은 안면홍조, 야간 발한 등 폐경 증상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70%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지 않았다. 또한 폐경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폐경 여성이 가장 많이 선택한 치료법은 식이요법과 운동(36.5%)으로, 호르몬 치료(19.7%)와 건강기능식품 섭취(11.4%)를 앞섰다.<br/><br/> 그러나 실제 식이요법과 운동을 한 여성 가운데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한 비율은 59.8%이었다. 반면, 병원 내원 및 상담 후 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아 개선 효과를 봤다고 답한 비율은 76.0%나 됐다. 즉, 폐경 증상 개선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식이요법 및 운동을 한 여성군보다 호르몬요법군이 16%포인트 더 높았다. 호르몬 치료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질 출혈, 몸무게 증가, 유방통과 같은 부작용과 암 발생 두려움(88%) 때문이었다. <br/><br/> 신정호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이는 2002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을 병합한 여성 호르몬 치료법이 유방암과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WHI(Women's Health Initiative) 연구결과 발표 이후 호르몬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span>”이라고 했다.<br/><br/>신 교수는 그러나 “<span class='quot3'>WHI 후속 연구를 통해 호르몬 치료가 반드시 유방암 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3'>에스트로겐은 좋은 호르몬으로 여성 신체 변화 연구결과, 병합호르몬요법을 시작한 폐경 환자들은 7년 동안 유방암 위험도가 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3'>추가 연구를 통해 자궁 적출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을 단독 투여하면 유방암 발병률이 떨어지고 생식기 위축, 요로감염,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span>”고 했다. 그는 오히려 “<span class='quot3'>유방암의 상대적인 위험요소는 11세 이전 초경, 40세 이상 노령의 초산, 가족력 등이 더 높다</span>”고 덧붙였다. <br/><br/>“<span class='quot0'>호르몬 치료해도 유방암 발병 거의 안 해</span>”<br/>자궁이 없는 여성은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시행한다. 반면 자궁이 있는 여성에는 에스트로겐과 에스트로겐으로부터 자궁내막을 보호하는 프로게스토겐을 함께 투여하는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 병합요법을 시행한다. 프로게스토겐은 자궁내막 증식을 억제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유방통증, 압통, 치밀도를 늘리고 질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br/><br/>서석교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폐경 관련 증상이 모두 완화하는데 유방암 증가 문제로 이런 장점이 묻혔다</span>”며 “<span class='quot2'>호르몬 투여로 인한 유방암 발생은 최소 5~7년 이상 투여해야 발생한다</span>”고 했다. 실제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 병합요법으로 인한 유방암 발병률도 연간 1만 명 당 8명 꼴로 미미한 수준이다.<br/> <br/>세계폐경학회도 2013년 여러 메타분석과 WHI 2차 분석, DOPS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에스트로겐 요법을 60세 미만인 폐경 10년 이내 젊은 폐경 여성이 시작하면 관상동맥질환 발생과 사망률을 낮춘다고 밝혔다. 김탁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2'>호르몬 제제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나온 이후 위축됐지만 이 연구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을 알아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실제로 호르몬요법은 폐경기 이후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하는 데 장점이 많다</span>”고 했다.<br/><br/>미국 뉴욕대 의대 산부인과 연구팀이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최장 25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 결과, 폐경으로 인한 갱년기 장애 치료를 위해 호르몬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밝혔다.<br/><br/>전문가들은 유방암 발병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프로게스토겐을 대체할 약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로 나온 치료법이 바로 ‘조직선택적 에스트로겐 복합제’다. 조직선택적 에스트로겐 복합제는 혈관운동 증상을 위한 결합형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대신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RMㆍ듀아비브 등)를 조합한 새로운 계열의 약물이다. 치료 효과는 높이면서 자궁을 포함한 생식기나 유방을 자극하지 않는 등 부작용을 줄였다.<br/><br/>이에 따라 대한폐경학회는 “<span class='quot4'>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고 폐경과 관련된 홍조 등 혈관운동증상, 비뇨생식계 위축증상, 폐경 후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호르몬요법을 쓸 수 있다</span>”는 지침서를 내놨다. 또한, “비뇨생식기 위축과 성기능 장애도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상피세포가 위축돼 나타나는 증상인 만큼 호르몬요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br/><br/>이병석 대한폐경학회 회장(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span class='quot5'>여성은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폐경기를 겪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5'>이 시기를 어떻게 잘 사느냐가 중요한데 폐경학회에서는 호르몬요법을 권한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62.txt

제목: 로봇수술의 ‘중심’ 꿈꾼다  
날짜: 2015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2052252823  
본문: 안암ㆍ구로ㆍ안산 의료원 산하 병원, 최신 로봇수술 장비 도입<br/>특정 진료과 편중 없이 적용… 방광ㆍ직장ㆍ전립선암 치료 세계적 수준<br/>‘로봇수술 인증제’ 도입 통해 환자안전ㆍ미래 로봇수술 인력양성 도모 <br/>한 방광암 환자가 로봇수술방에 들어선다. 환자의 모든 의료기록이 로봇에게 전달된다. 로봇은 3D 입체영상을 의료진에게 전송한다. 의료진은 암의 전이 여부, 동반질환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수술에 돌입한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로봇은 모든 수술과정을 데이터화 해 의료진에 전달한다. 축적된 데이터는 전공의와 수술 술기를 연마하는 의료진의 교육에 사용된다.<br/>고려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가 그리고 있는 미래 로봇수술의 청사진이다. 안암병원이 로봇수술의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복안이기도 하다.<br/><br/>강석호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은 중책을 떠맡은 주인공. 강 센터장은 2007년 아시아에서 처음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성공하면서 로봇수술 ‘명의’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방광 절제술 및 체내 요로 전환술’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br/><br/>강 센터장이 로봇수술의 매력에 빠진 이유는 정밀함과 환자만족 때문이다. 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보다 더 세밀한 부위까지 수술이 가능하고, 정상조직과 암 조직을 쉽게 식별해 낼 수 있다. 또 최소침습이라 통증과 합병증 발생 위험이 낮아 환자들의 일상 복귀도 빠르다. 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병변을 10배 이상 확대해 3차원으로 보면서 수술하므로 주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암 조직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span>”고 했다. <br/><br/>구로ㆍ안산병원에도 최신 기종 도입 네트워크 완성<br/>2007년 국내 두 번째로 로봇수술센터 문을 연 안암병원의 궁극적 목표는 수술 연구 교육 등 로봇수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톱’이 되는 것. 고려대의료원은 안암병원에 이어 최근 구로ㆍ안산병원에도 로봇수술 최신 기종인 4세대 ‘Davinci-Si’를 도입했다. 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산하 병원에 최신 장비가 완비돼 환자들에게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로봇수술 연구와 교육시스템도 정착시킬 것</span>”이라고 했다.<br/><br/>로봇수술센터는 내년 1월말 해부용 시체(카데바) 시뮬레이션 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로봇수술 워크숍을 안암ㆍ구로ㆍ안산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연다. 워크숍에서는 고려대의과대학 해부학센터에 기증된 카데바를 통한 로봇수술 시뮬레이션이 펼쳐진다. <br/><br/>김선한 교수 등 권위자 대거 포진… 인증제로 전문가 양성 <br/>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가 국내 로봇수술의 중심으로 빠르게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바탕은 뛰어난 의료진이다. 대장암 및 직장암 수술의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선한 대장항문외과 교수, 전이성 전립선암 등 종양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미국특허를 4개 등록한 천준 비뇨기과 교수는 로봇수술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들. 머리카락 경계선을 이용해 흉터 없는 갑상선 수술을 선도하고 있는 정광윤 이비인후과 교수, 흉터 없는 경구 갑상선 수술에 세계 처음 성공한 김훈엽 유방내분비내과 교수도 쟁쟁한 실력파다. 국내 최초로 흉터 없는 가슴 재건술로 유방암 절제환자와 폴란드 증후군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윤을식 성형외과 교수와 부인암 분야 로봇수술을 선도하고 있는 송재윤 산부인과 교수도 센터를 이끄는 주축이다.<br/><br/> 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특정 진료과에 편중되지 않고 대장 직장 갑상선 산부인과질환 신장 방광 전립선 등 다양한 암치료에 로봇수술을 접목시켰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방광암 직장암 전립선암 등 로봇수술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span>”고 했다.<br/><br/>센터는 차세대 로봇수술 명의를 길러내는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로봇수술 인증’시스템. ‘로봇수술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개복 및 복강경 수술 경험이 충분해야 하고, 동물시험 등 연수절차도 거쳐야 한다. 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이런 조건을 갖추더라도 로봇수술 전문 의료진 참관 하에 로봇수술이 진행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환자안전과 직결돼 있어 엄격한 교육절차를 밟고 있다</span>”고 했다.<br/><br/>국내 로봇수술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강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로봇수술 시뮬레이션 등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다양한 질환을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span>”고 했다.<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63.txt

제목: "대장암 예방하려면 작은 용종도 완전히 없애야"  
날짜: 2015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2052250304  
본문: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 용종(폴립)을 제거해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검사해도 대장암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를 ‘중간 대장암’이라 한다. 이런 중간 대장암의 20% 정도는 용종을 완전히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작은 용종이라도 완전히 잘라내려면 ‘올가미’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br/><br/>이보인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와 김준성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2012~2014년 41세 이상 138명의 대장 용종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 이하의 종양성 용종을 단순히 조직검사용 겸자로 제거하면 불완전 절제율이 13%였고, 특히 5~7㎜ 크기의 용종의 불완전 절제율은 30%로 높았다고 최근 밝혔다.<br/><br/>이는 금속 올가미로 용종의 아래를 조여서 잘라내는 방법의 불완전 절제율이 3%이고, 특히 5~7㎜의 경우 6% 정도임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br/><br/>대장 용종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되어 장의 안쪽으로 돌출되는 것이다. 선종과 같은 종양성 용종의 경우 그냥 방치하면 암으로 악화할 수 있다.<br/><br/>대장 용종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생긴다.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내시경으로 미리 대장 용종을 찾아서 제거해주면 대장암의 80% 정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없는 50대 이상 남녀에게 건강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을 하면 20~30%에서 용종이 발견되므로 50세 이상이면 주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말했다. 또 “원인이 불분명한 빈혈, 혈변, 체중감소, 지속적 복통 등이 있는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br/> <br/>이 교수는 아울러 “<span class='quot0'>검사 중 종양성 용종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제거해야 하며 특히 용종의 크기가 5㎜ 이상인 경우 생검 겸자로 제거하면 불완전 절제율이 30%에 달하므로 작은 용종도 올가미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고주파 전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천공이나 대장벽의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큰 용종이 아니라면 전류를 사용하지 않고 올가미만으로 기계적으로 절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span>”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미국 소화기내시경 학회지 3월호에 실렸다.<br/><br/>우리나라와 미국 내시경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통 5~6㎜ 이하 작은 용종은 ‘조직 검사용 집게’(겸자)로 간단히 없애는 경우가 가장 많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이 많이 사용하던 대장 용종 제거 방식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64.txt

제목: [헬스 프리즘] 침묵의 소장 질환, 내시경으로 조기진단 해야  
날짜: 2015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2052248256  
본문: 박재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화기병센터장<br/><br/>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소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에 이르는 길고 구불구불한 기관으로, 펼쳤을 때 길이가 평균 6m에 달한다. 입, 항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일반 내시경으로는 접근하기가 무척 어렵다. 문제를 찾아내기 어려운 이유다. 예컨대 소장암이 생겨나면 출혈, 장천공, 식욕부진을 동반한 체중감소 등 증상이 동반되지만 이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널리 퍼진 뒤다. 소장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환자들은 특별한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br/><br/>소장질환의 원인은 크게 가족력과 환경적 원인으로 나뉜다. 가족력이 있다면 소장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가족 중 용종증, 크론병, 셀리악병, 포이츠-에거스증후군,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신경섬유종증, 리프라우메니 증후군 등이 나타난 바 있다면 소장 질환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br/><br/>외적 요인은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습관이다. 육류 및 소금에 절인 훈제 음식 등 포화지방 함유율이 높은 음식을 주로 섭취할 때 발생률이 높아진다. 서구에서 소장암 발생 비율이 높은 것도 이런 생활습관과 무관하지 않다.<br/><br/>문제는 한국인의 생활습관이 날로 서구를 닮아가면서 비만과 대사성질환 등 서구형 질환의 발병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비만학회가 최근 발표한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 비만’에 따르면 성인 국민 2명 중 1명은 비만 또는 과체중이고, 5명 중 1명은 복부비만이다. 소장암의 경우 소화기 암의 2% 내로 발생비율은 낮지만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방과 검사가 필요하다.<br/><br/>소장질환은 대부분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하는데, 감각이 퇴화된 성인의 신경은 소장에 발생한 문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뒷목의 뻣뻣함, 등 통증, 이명 등을 호소하는데, 원인은 후복강으로 궤양이 침범했기 때문일 수 있다. 유암종이 발생했을 때는 신경 내 분비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돼 얼굴과 가슴에 홍조가 생기거나 설사, 기관지 천식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내 출혈이 시작되면 빈혈이 뒤따를 수 있다.<br/><br/>소장질환 진단에는 복부촬영이나 영상의학진단기법 등이 동원된다. 위장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소장의 위치가 내시경이 삽입되는 입이나 항문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소장 진단에는 CT 촬영이 선행된다.<br/><br/>그러나 CT로 해결이 안될 경우 캡슐내시경이나 이중풍선 소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캡슐을 삼켜 장 운동에 따라 이동하는 내시경이 소장 상태를 촬영하도록 하는 캡슐내시경 기법은 수면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고, 통증도 없다. 또 검사자가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복통이나 복부팽만감 등의 불편함도 뒤따르지 않는다. 소장 검사에 특화된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은 특수풍선이 장착된 내시경을 소장에 삽입해 전체 소장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캡슐내시경과 이중풍선 소장내시경은 소장 질환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지만 소장 질환 발생률이 일반적으로 높지 않은 데다 진단의 까다로움 등으로 검사 장비 자체가 없는 병원들이 대부분이다. <br/><br/>소장 질환은 위험성에 비해 사전 검사나 예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식습관을 개선하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예방과 조기진단에 힘쓰는 것이 좋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65.txt

제목: 삼성‘바이오제약 세계 1위’ 신호탄 쏘다  
날짜: 2015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2052143502  
본문: 반도체와 휴대폰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선 삼성그룹의 고민은 미래 먹거리다. 특히 휴대폰 부문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이런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바이오제약 사업이다. 삼성은 반도체와 휴대폰처럼 바이오제약 사업도 세계 1위에 올려 놓겠다는 전략이다.<br/>삼성은 이건희 회장 시절인 2010년 일찌감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수종 사업으로 바이오제약을 지정했다. 삼성이 바이오제약을 선택한 이유는 평균수명이 늘고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질병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암, 치매, 아토피 등은 기존 화학합성약품으로는 치료도 어렵고 부작용이 많았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등 생물체에서 유래하는 유전자, 세포, 단백질을 활용한 바이오제약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br/> 바이오제약은 2000년대 들어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2014년 바이오제약의 세계시장 규모는 1,790억달러(약 210조 6,83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시장 규모 825억달러보다 2배 이상 더 크다. 2020년까지는 약 2,780억달러(약 327조2,060억원)으로 늘어나리라는 전망이다.<br/>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바이오제약분야에서 2020년까지 매출 1조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달성하고 2025년에 매출 2조원, 영업이익 9,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삼성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전반적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제4, 제5공장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그러나 세계적 기업들의 특허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생산전문기업(CMO)을 표방하고 있다. CMO는 약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의뢰받은 약품만 생산한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span class='quot1'>제약사들이 치열한 시장 경쟁 때문에 연구개발에만 집중하고 생산을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CMO 시장은 2012년 46억달러에서 2017년 72억달러로 늘어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 맞춰 단계적으로 대비해 왔다. 제 1, 2 공장을 통해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준비를 했고 여기서 얻은 경험을 제 3 공장에 적용해 공격적인 영업을 펼칠 방침이다.<br/>따라서 제 3공장은 생산원가를 낮추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다. 미국 제약회사 BMS의 경우 1조원을 들여 아일랜드에 연 생산규모 9만ℓ 공장을 짓고 있다. 반면 8,500억원이 투자된 삼성의 제 3공장은 연간 18만ℓ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곧 생산원가 감소로 이어져 가격경쟁력에서 앞서갈 수 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span class='quot2'>ℓ당 투자비를 따지면 제 3공장 건립비용이 BMS의 40% 수준</span>”이라고 말했다.<br/> 여기다 모든 관리 시스템을 이중화해 365일 24시간 설비를 멈추지 않고 생산할 수 있도록했다. 김 사장은 “<span class='quot2'>연중 무휴로 가동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생산능력이 발표된 연간 18만ℓ의 1.5배 수준</span>”이라고 설명했다.<br/>삼성의 이 같은 전략은 반도체 사업의 성공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를 통해 대량 생산설비로 생산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인 뒤 이를 무기 삼아 대량 판매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전략이다.<br/>이미 물량 수주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제 1 공장은 수주물량이 모두 찼고 제 2공장도 거의 찼으며 제 3공장 수주도 진행 중이다.<br/>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최근 제 1공장 생산시설에 대해 무결점 합격을 받아 더욱 고무된 분위기다. 바이오제약은 FDA 승인이 없으면 해외 시장에 판매를 할 수 없다. FDA는 생산 시작한 지 1년여 정도 지난 시점에 공장 실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공장의 운명이 달려 있다. 김 사장은 “<span class='quot2'>세계적 제약회사들도 FDA 검사에서 2, 3가지 문제를 지적받는데 제 1공장은 지적은 커녕 권고사항마저 받은 게 없다</span>”며 “<span class='quot2'>무결점 공장 인증을 받은 만큼 물량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66.txt

제목: 경희의료원, '제1회 후마니타스 국제 암 심포지엄'개최  
날짜: 2015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2052019279  
본문: 경희의료원이 18일 세계최초 암병원인 영국 '로얄마스덴',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와 공동주최로 '제1회 후마니타스 국제 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br/> <br/>후마니타스 국제 암 심포지엄은 '직장암에 대한 정밀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진행되며, 정밀의학을 중심으로 세계추세에 맞춘 진단 및 치료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br/> <br/>심포지엄에는 세계적인 직장암 MRI분야 권위자인 로얄마스덴의 지나 브라운교수를 비롯한 하버드대학 부속병원의 릴리아나 보데아누교수, 동경대학교병원의 도시아키 와타나베교수, 웨일즈병원 홍콩 프린스의 사이먼 시우 만교수, 경희대학교병원 김시영 암센터 소장, 경희의료원 외과 이길연 교수 등 국내외 암 전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br/> <br/>특히, 세계 최초의 암병원인 로얄마스덴 소속의 지나 브라운은 직장암 MRI 판독에 있어 세계적인 귄위자로 이번 경희의료원과의 협약체결을 기반으로, 향후 건립 예정인 후마니타스 암병원의 자문위원으로서 역할과 상호 기관간 연구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제 1회 후마니타스 국제 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매년 국제 암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br/> <br/>이들은 직장암 치료의 선진적인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치료를 모색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직장암 진단 및 치료방법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환자 개개인을 중심에 놓는'직장암 치료에 있어서 정밀의학 실천'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br/> <br/>현재의 암치료는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발전해온 '평균의 의학'이다. 그러나 환자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암을 치료하는 것이 치료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재발 가능성도 낮출 수 있어 '정밀의학'의 국내 본격적인 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 <br/>이에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제 직장암 협의체(International Rectal Cancer Consortium)'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공동연구 및 학술발표를 통해 '국제 직장암 치료 컨센서스' 완성에 그 뜻을 두고 있다.<br/> <br/>채준기자<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67.txt

제목: 비영리 민간단체 160만개 넘는 美 불성실 공시·방만 경영엔 가차 없다  
날짜: 2015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1052038930  
본문: 癌기금 등 4곳 1억8700만불 탕진<br/>사기 혐의 제소에 단체 해산까지<br/><br/>담당 기관뿐 아니라 민간 부문서도<br/>'현미경 감시' 자정 노력 기울여<br/><br/><br/>연간 기부금 규모가 3,583억달러(423조원)로 우리나라 정부 총예산보다 많은 미국은 기부 관련 비영리민간단체(NPO)만도 160만개가 넘는다. 또 기부 역사와 규모에 걸맞게 감시기능이 발달해 불성실 공시는 물론 방만 경영에 가차없이 철퇴를 가하는 걸로 유명하다.<br/>지난 5월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워싱턴DC 및 50개 주의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미국암기금, 암지원서비스, 미국아동암기금, 유방암협회 등 4개 단체를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에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이 단체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억8,700만달러(2,037억원) 상당 금액을 텔레마케팅, 우편 등 모금비용과 데이트 사이트 구독, 유명 브랜드 속옷 구매, 직원들의 대학 등록금 등 개인적 용도로 탕진해 물의를 빚었다. 실제 이 기간 암 환자에게 쓰인 금액은 전체의 3%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고 비판 여론이 일자 미국아동암기금과 유방암협회는 단체 해산을 약속했다.<br/>미국재향군인회는 2010년 국세청에 전체 지출 중 67%인 7,700만달러(904억원)를 순수 사업비로 썼다고 보고했지만 이 중 6,800만달러(798억원)를 우편 등 모금 비용에 사용한 사실이 한 단체에 의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br/>이같이 미국에서 기부단체를 향해 매서운 칼날을 댈 수 있는 것은 담당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부단한 감시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NPO의 유형, 특징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기관만도 171개에 이른다. 한 해 평균 690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미국 내 가장 많은 평가정보를 보유한 채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는 ‘가장 기부자가 많은 단체’, ‘가장 비효율적인 단체’ 등 주제별 10개 단체를 선정한 리스트뿐만 아니라 단체 임원 연봉 등 세부내역을 낱낱이 공개한다. ‘기부자 참고 단체’와 ‘주의할 단체 목록’등의 게시판을 통해 피소 여부, 불성실 공시, 부정적 보도와 관련된 단체의 명단과 이유를 밝힌다. 기부자들은 이를 단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 매년 각 단체에 별 네 개를 만점으로 하는 등급 평가를 하는데 올해는 74개 단체가 0점을 받아 망신을 샀다. <br/>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기부 역사가 오래된 미국은 공익재단의 지원을 받는 중간 평가기관의 기능이 발달돼 단체들도 자정적인 노력을 기울인다</span>”며 “<span class='quot0'>국내 역시 공익법인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갖춘 기부 생태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span>”고 조언했다. <br/>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68.txt

제목: 쌍문동 슈퍼맨 활약… '응답하라 1988' 7주연속 시청률 1위  
날짜: 20151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20050505288  
본문: 쌍문동 슈퍼맨들의 활약이 겨울 안방극장에 훈풍이 불었다.<br/> <br/>tvN 금토극 '응답하라 1988'(1988)은 19일 방송한 13회 '슈퍼맨이 돌아왔다' 편에서 남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기 위한 쌍문동 아버지들의 모습이 펼쳐졌다.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가슴 저릿한 에피소드로 호평을 받았다.<br/> <br/>'1988'은 이날 평균시청률 13.4%, 최고시청률 15.7%(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전국 기준)로 7주 연속 시청률 1위를 수성했다.<br/> <br/>이날 방송에서는 가슴에 난 혹이 행여나 암이 아닐까 전전긍긍하는 일화의 모습과 태연한 척 하지만 일화보다 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동일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동일은 일화 앞에서 별 일 아닐 거라 큰소리쳤지만, 성균과 단둘이 가진 술자리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에 눈물을 흘렸다. 유난히 엄마에게 빨래, 밥투정하는 삼남매를 큰 소리로 꾸짖으며 아내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 다행히 물혹이라고 검사 결과를 받은 동일네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br/> <br/>성균은 허술한 맥가이버로 변신했다. 집에 잠시 전기가 나가 우연히 수리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다리미, 드라이기 고장 때마다 연장통을 들고 고치겠다고 나선 것. 성공한 수리는 하나 없어 미란에게 오히려 혼쭐이 났지만,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고 싶은 가장 성균의 귀여운 노력이 안방시청자들을 미소 짓게 했다.<br/> <br/>웬만한 일에 미동도 않는 '곰' 같은 성격의 소유자, 무성은 아들 택이에게 만큼은 부성애 깊은 아버지였다. 일본 공항에서의 한국 국적기 활주로 이탈 사고 뉴스를 본 무성은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다.<br/> <br/>하지만 택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은 후, 아들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침착하게 날씨 이야기를 꺼내며 언제 그랬냐는 듯 애써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아내를 잃고 홀로 키우는 아들 택이 잘못 될 까봐 정신을 놓고 오열하는 아빠 무성의 모습이 코 끝을 찡하게 만들었다.<br/><br/><br/>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69.txt

제목: '나 혼자 산다' 황치열, 경상도 사나이의 다정함  
날짜: 2015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19052225492  
본문: '나 혼자 산다' 황치열이 화제다.<br/> <br/>18일 MBC '나 혼자 산다'에는 가수 황치열이 고향 구미를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br/> <br/>'나 혼자 산다' 황치열은 암으로 투병한 아버지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br/> <br/>'나 혼자 산다' 황치열은 "살이 좀 빠진 거 같다"며 아버지의 안색을 살폈다.<br/> <br/>이에 아버지가 되려 덤덤한 모습을 보이자 '나 혼자 산다' 황치열은 "그건 괜찮죠"라며 조심스레 과거 위암에 대해 물었다.<br/> <br/>'나 혼자 산다' 황치열는 "그 이후로 살이 빠지고 안 찌네"라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br/> <br/>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처<br/><br/><br/>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70.txt

제목: 테레사 수녀 두 번째 기적 인정… 교황청, 내년 성인으로 추대  
날짜: 2015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19052121570  
본문: 로마교황청이 ‘빈자들의 어머니’로 불린 고 테레사 수녀(1910~1997)를 내년 9월 가톨릭 성인으로 추대할 것이라고 18일 AFP가 이탈리아 가톨릭 신문 아베니네를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교황청은 테레사 수녀와 연관된 두 번째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뇌종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브라질 환자 엘미란 페레이라 산토스와 그의 가족이 테레사 수녀를 향해 완치를 원하는 기도를 한 후 이틀 만에 실제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사실을 교황청이 확인한 것이다. 앞서 2002년 교황청은 테레사 수녀 사후 1998년 인도 벵갈족 모니카 베르사가 암 투병 중 역시 기도를 통해 완치한 사실을 첫 번째 기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교황청은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해 최소 2건의 기적을 필요로 한다. 아베니네는 “테레사 수녀와 관련된 기적 2건을 교황청이 인정함에 따라 성인 추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구비됐다”라며 “교황청 소식통에 따르면 성인 추대식은 내년 9월 4일 바티칸 희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br/>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나 1997년 87세를 일기로 사망한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했다. 1979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2003년 30만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로마 교황청에서 성자의 전 단계인 복자로 시복된 바 있다. AFP는 내년 테레사 수녀의 성인 추대식에 대해 “<span class='quot0'>희년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며 시복식 때 이상의 인파가 전 세계에서 모여들 것으로 예상된다</span>”고 전망했다.<br/>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71.txt

제목: “콩팥 얼린 뒤 콩팥암 부분 절제하는 수술은 안전하고 효과 좋아”  
날짜: 2015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19052104997  
본문: 박동수 분당차병원 비뇨기과 교수, 단 한 명도 합병증 없어<br/> 국내 의료진이 개발한 얼음을 활용한 콩팥암 환자의 저온 하 콩팥부분절제술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br/><br/>일반적으로 콩팥 부분절제술의 대표적인 합병증은 출혈이 지속되거나, 소변이 콩팥 밖으로 새는 것이다. 또한, 수술할 때 콩팥 혈류를 차단하고 수술하므로 실온에서 콩팥으로 공급하는 혈류를 차단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콩팥이 파괴돼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 <br/><br/>최근 로봇수술 등 최소침습수술이 발달하면서 콩팥암 수술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그 중 콩팥 부분절제술을 로봇수술로 시행할 경우 수술 후 3~15%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br/>따라서 최근에는 콩팥암 수술 시 종양 크기나 위치 등 난이도를 표시하는 ‘콩팥측정법 점수(nephrometry score)’를 계산해 수술 난이도, 합병증 등을 예측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br/><br/>저온 하 콩팥 부분절제술은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콩팥혈류를 차단한 상태에서 얼음을 사용해 콩팥 온도를 낮춘 후 콩팥을 잘라 내는 수술이다.<br/><br/>박동수 분당차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콩팥암에서 저온 하 콩팥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98명을 3~5년 이상 장기 추적한 결과, 단 한 명도 합병증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br/><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저온 하 콩팥 부분절제술을 적용한 환자들을 장기 추적한 결과, 수술 합병증이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아 이들에서 수술 후유증을 예측하는 ‘콩팥측정법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저온 하 콩팥 부분절제술은 합병증 없이 콩팥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수술법으로서 특히 종양이 크거나 수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콩팥암은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span>”고 했다.<br/><br/>분당차병원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2009년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저온 하 콩팥 부분절제술을 개발했으며, 국내 의사로는 처음으로 국제학회에 보고한 바 있다.<br/><br/>한편, 이번 연구는 비뇨기과 분야 학술지인 ‘캐나다 비뇨기과 학회지(Canadian Urological Association Journal, CUAJ)’에 실렸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72.txt

제목: “진보도 개혁 속에서 거듭나야 한다”  
날짜: 20151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18052224979  
본문: “왜곡이 겁나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보수수구세력에 악용될 위험이 있더라도 진보개혁세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br/>갑작스러운 암 판정으로 지난해 타계한 고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유고집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창비)는 진보진영의 대표적 경제학자이면서도 치열하게 진영 내 도그마와 경직성을 비판해온 고인의 고뇌와 사유가 고스란히 담긴 책이다.<br/>2011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블로그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에 쓴 글들을 김기원추모사업회가 주제별로 뽑아 엮었다. 고인은 당초 일제 귀속재산 분석으로 재벌자본의 뿌리를 드러낸 박사학위 논문이자 저서 ‘미군정기의 경제구조’의 집필을 필두로 참여연대,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경제발전학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등에서 적극 활동하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실천적 지식인이다.<br/>4부로 구성된 책은 각각 경제민주화, 노동운동의 쟁점, 한국 정치사회계의 이슈, 통일의 지향점 등을 화두로 한 고인의 글을 담았다. 그는 곳곳에 만연한 갑을 관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복지 확충 등을 강조했다.<br/>“<span class='quot0'>파견제와 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 예컨대 오른쪽 타이어를 끼우는 정규직에 비해 왼쪽 타이어를 끼우는 비정규직의 월급이 반쯤밖에 안 되는 현실은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span>” (105쪽)<br/>무엇보다 고인이 공을 들이는 것은 진보진영의 각성을 촉구하는 일이다. “<span class='quot0'>한국의 진보파들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전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span>”는 그는 진보진영을 향해 시종일관 더 치열하고, 보고, 배우고, 성취해달라고 주문한다.<br/>“대부분의 진보개혁파 지식인들이 고려하지 않는 것이 ‘세금의 정치학’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증세를 좀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 많은 진보파들이 북유럽의 고부담-고복지를 주창합니다. 그런데 제가 견문이 짧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한국의 연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44~46쪽) <br/>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간행사에서 “<span class='quot1'>평소 귀찮다고 휴대전화도 쓰지 않던 고인이 블로그를 시작한다고 할 때 좀 의아했는데, 우리 사회에 대해 더 자유롭게 발언하고 싶다는 뜻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그의 블로그를 방문해서 나머지 글들도 일독할 것을 권한다</span>”고 썼다.<br/>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73.txt

제목: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결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병인가요?  
날짜: 2015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17051204782  
본문: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결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병인가요?<br/> <br/> <br/>질문 하시길 '어떤 병' 인지를 물어보셨는데,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전립선 결석 그 자체만으로는 병이 아닙니다. 전립선 결석은 초음파 검사에 보이는 현상일 뿐 그 자체가 병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는 소견입니다. 40대 이후 남성 중 초음파에서 전립선에 결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br/> <br/>전립선 결석은 전립선액이 뭉치고 단단해 져서 만들어 지는데, 결석이 발생을 해도 전립선 액이 나가는 길이 막히거나, 염증이나 암 같은 다른 병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요로결석 같은 경우엔 요로에 발생한 결석이 소변의 흐름을 막아 심각한 통증을 만들거나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식이 되지만, 전립선 결석은 그렇지 않으니 지레 겁을 먹지는 마시길 바랍니다.<br/> <br/>전립선에 결석으로 보이는 질환 중에, 드물지만 전립선 부위의 요도에 걸친 결석이 전립선과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드문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도의 결석으로 인한 배뇨장애나 통증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다 소변검사에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나 다른 검사의 이상이 없이 초음파에서 전립선 결석만 발견됐다면, 이 경우와는 다른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br/> <br/>한편 전립선 암의 내부에 석회화를 동반하는 경우도 결석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전립선 암은 '전립선특이항원검사'가 정상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진 결과에 전립선특이항원 수치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br/> <br/>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전립선 결석이 병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는데, 대부분에서 증상의 정도·전립선암 발생률·배뇨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 했습니다.<br/> <br/>전립선 결석이 크거나 정액이 나오는 길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놀랍고 기분이 매우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역시나 병적인 상황이 아니니 신경 쓰시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br/> <br/>이런 경우 미리 많은 걱정을 하지는 마시고,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위에 열거 된 혹시나 할 만한 경우를 확인 하는 정도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br/> <br/>이영훈 원장은 비뇨기과 전문의로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74.txt

제목: SPC그룹,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선정  
날짜: 20151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16051310967  
본문: 서울시가 기관단체 4곳과 개인 2명을 민관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표창한다.<br/> <br/>이번에 수상하는 기업 중에는 서울시와 함께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을 한 SPC 그룹이 눈에 띈다.<br/> <br/>SPC그룹은 2013년 서울시와 장애인 취업 및 자활지원사업 공동협력 협약을 맺고 장애인 직원이 운영하는 행복한베이커리&카페를 만들었다. 현재 4호점을 열었고 2018년까지 20억원을 지원해 1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br/> <br/>한국엡손주식회사는 지난해부터 서울장학재단과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과 대학생 240명에게 장학금 약 13억원을 지원했다.<br/> <br/>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2011년부터 암 환우와 가족 대상 예술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시 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와 연계해 도움을 주고 있다.<br/> <br/>서울경인인터로킹블록사업협동조합은 2011년부터 블록포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서울시 보도환경 개선에 힘썼다.<br/><br/> <br/><br/><br/>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75.txt

제목: ‘폐암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전염된다?’  
날짜: 2015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31322966  
본문: 폐암학회, 전국 960명 조사 결과, 잘못된 상식 많아<br/><br/>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가면 폐암은 호전된다?’, ‘폐암 초기에는 기침, 가래 같은 감기증상이 나타난다?’, ‘말기 폐암인 70세 이상 고령인이 항암치료를 받는 것은 고생만 시키는 일이다?’ 등등.<br/><br/> 대한폐암학회(이사장 조문준 충남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최근 전국 9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폐암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br/><br/> ‘폐암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85%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폐암은 전염되지 않는 암이다. <br/><br/>김승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폐암은 전염성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병이 아니어서 전염되지 않는다</span>”고 했다.<br/> <br/>‘폐암 초기에는 기침과 가래와 같은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76%의 응답자가 답했지만 폐암 초기에 대부분 증상이 없고, 진행되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br/><br/>‘공기 좋은 곳에 이사가면 폐암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0%나 됐지만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br/><br/> ‘폐암환자가 고기 섭취를 많이 하면 암이 더 빨리 자랄 수 있어 고기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70%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잘못된 상식이다. 폐암 환자는 채소와 과일과 함께 고기류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br/><br/> 폐암 말기로 진단 받은 70세 이상 고령인이 항암치료를 받는 것은 환자만 고생시키는 것으로 응답자의 55%가 생각했지만 사실과 다르다.<br/><br/> 이밖에 ‘담배를 끊은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폐암의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와 거의 같아질까요?’라는 질문에 70% 가까이가 10년 이내라고 답했지만 30년이 지나도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병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 폐암학회 측의 설명이다.<br/><br/> 김승준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설문에서 폐암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많고 전문가들 의견도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span>”고 했다.<br/><br/>이와 함께 대한폐암학회가 383명 폐암 전문의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78% 정도가 폐암 검진을 위해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국가 암 검진에 포함시키자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미국에서 발표된 NLST(The National Lung Screening Trial) 연구를 통해 입증됐듯, 저선량 흉부 CT는 폐암 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킨다.<br/><br/>앞서 국립암센터는 지난 9월 발표한 7대 암 검진 권고안에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5~74세 고위험군에게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를 매년 시행(권고등급 B)하라’는 ‘권고’ 내용을 포함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br/>SQ: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76.txt

제목: 온열암 치료 국제 학술대회 성료  
날짜: 2015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31136542  
본문: 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제6회 대한온열암치료 학술대회'가 국내외 온열암 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마쳤다.<br/> <br/>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가 주최하고 이대목동병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50여 명의 의사 및 의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열암 치료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발표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br/> <br/>송창원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교수는 '온열암 치료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암조직은 정상조직에 비해 혈관이 덜 발달되어 있지만 국소 온열치료는 종양조직 내의 산소 분압을 상승 시키거나 항암제의 분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암 줄기세포를 줄여주고 대식세포의 식세포 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세포독성 T cell의 작용을 활성화하는 등 암 면역 반응을 증진시켜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와 병용할 경우 암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 <br/>또한 이윤한 연세대 교수는 국제열치료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Hyperthermia)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해 "온열암 치료가 암세포의 세포자살(Apoptosis)을 유도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과 암 줄기세포를 줄여 주고 줄기세포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암 치료에 있어서 온열암 치료가 암 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br/> <br/>한편,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현재 국내에서 온열암과 관련한 전임상/임상 시험이 20개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임상시험들이 종료되는 2017년 또는 2018년에는 한국의 여러 연구들과 해외 연구들을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br/>SQ: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77.txt

제목: ‘폐암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전염된다?’  
날짜: 2015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15052455944  
본문: 폐암학회, 전국 960명 조사 결과, 잘못된 상식 많아<br/><br/>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가면 폐암은 호전된다?’, ‘폐암 초기에는 기침, 가래 같은 감기증상이 나타난다?’, ‘말기 폐암인 70세 이상 고령인이 항암치료를 받는 것은 고생만 시키는 일이다?’ 등등.<br/><br/> 대한폐암학회(이사장 조문준 충남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최근 전국 96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폐암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br/><br/> ‘폐암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85%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폐암은 전염되지 않는 암이다. <br/><br/>김승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폐암은 전염성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병이 아니어서 전염되지 않는다</span>”고 했다.<br/> <br/>‘폐암 초기에는 기침과 가래와 같은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76%의 응답자가 답했지만 폐암 초기에 대부분 증상이 없고, 진행되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br/><br/>‘공기 좋은 곳에 이사가면 폐암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0%나 됐지만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br/><br/> ‘폐암환자가 고기 섭취를 많이 하면 암이 더 빨리 자랄 수 있어 고기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70%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잘못된 상식이다. 폐암 환자는 채소와 과일과 함께 고기류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br/><br/> 폐암 말기로 진단 받은 70세 이상 고령인이 항암치료를 받는 것은 환자만 고생시키는 것으로 응답자의 55%가 생각했지만 사실과 다르다.<br/><br/> 이밖에 ‘담배를 끊은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폐암의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와 거의 같아질까요?’라는 질문에 70% 가까이가 10년 이내라고 답했지만 30년이 지나도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병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 폐암학회 측의 설명이다.<br/><br/> 김승준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번 설문에서 폐암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많고 전문가들 의견도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span>”고 했다.<br/><br/>이와 함께 대한폐암학회가 383명 폐암 전문의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78% 정도가 폐암 검진을 위해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국가 암 검진에 포함시키자는 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미국에서 발표된 NLST(The National Lung Screening Trial) 연구를 통해 입증됐듯, 저선량 흉부 CT는 폐암 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킨다.<br/><br/>앞서 국립암센터는 지난 9월 발표한 7대 암 검진 권고안에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5~74세 고위험군에게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를 매년 시행(권고등급 B)하라’는 ‘권고’ 내용을 포함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78.txt

제목: 온열암 치료 국제 학술대회 성료  
날짜: 20151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15052223375  
본문: 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제6회 대한온열암치료 학술대회'가 국내외 온열암 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마쳤다.<br/> <br/>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가 주최하고 이대목동병원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50여 명의 의사 및 의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열암 치료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발표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br/> <br/>송창원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교수는 '온열암 치료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암조직은 정상조직에 비해 혈관이 덜 발달되어 있지만 국소 온열치료는 종양조직 내의 산소 분압을 상승 시키거나 항암제의 분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암 줄기세포를 줄여주고 대식세포의 식세포 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세포독성 T cell의 작용을 활성화하는 등 암 면역 반응을 증진시켜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와 병용할 경우 암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 <br/>또한 이윤한 연세대 교수는 국제열치료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Hyperthermia)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해 "온열암 치료가 암세포의 세포자살(Apoptosis)을 유도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과 암 줄기세포를 줄여 주고 줄기세포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암 치료에 있어서 온열암 치료가 암 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br/> <br/>한편,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현재 국내에서 온열암과 관련한 전임상/임상 시험이 20개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임상시험들이 종료되는 2017년 또는 2018년에는 한국의 여러 연구들과 해외 연구들을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79.txt

제목: 사우디 여성 첫 투표, 기대와 실망 엇갈려  
날짜: 20151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31019267  
본문: 여권(女權) 최후의 불모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첫 선거가 12일(현지시간) 진행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된 284개 지방의회 의원 2,106명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사우디는 여성 유권자의 투표와 여성 후보의 출마를 역사상 처음으로 허용했다. 아직도 여성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할 정도인 사우디가 여성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랍의 봄’의 바람이 거셌던 2011년 당시 국왕인 고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가 “<span class='quot0'>2015년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라</span>”고 유언을 남긴 덕분이다. 사우디는 1893년 뉴질랜드가 여성 투표권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끝까지 이를 외면해 온 중동지역에서도 카타르(1999년), 오만(2003년), 쿠웨이트(2005년), 아랍에미리트(2006년), 부탄(2008년)에 이어 120여 년 만에 여성에게 선거의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br/>이날 영국 BBC와 AP 등이 전한 사우디 여성들의 선거참여 풍경을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도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지만, 불공정 경쟁을 치러야 하는 여성 후보자와 얼굴을 감싼 채 남성이 운전하는 차를 기다려 투표소로 나서는 여성 유권자들의 현실을 보면 남녀평등을 향한 길은 여전히 험난한 것 같다. AP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여성은 모두 979명으로 남성 후보자(5,968명)에 비해 수가 크게 적다. 투표를 위해 사전등록한 유권자 여성은 18세 이상 여성의 2%인 13만여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전등록한 유권자 남성(135만6,000여명)과 비교해서는 10분의 1 정도이다. 제도는 시행됐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혀 출마와 투표를 포기한 여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br/>50대 주부 샤라 알 카타니는 이슬람 전통의상인 아바야 얼굴과 몸을 가린 채 수도 리야드의 한 여성 전용 투표소를 찾았다. 사우디 정부는 이날 전국 1,263개 투표소 가운데 424곳을 여성 전용으로 운용해 남녀가 구별된 장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자녀 8명을 둔 알 카타니는 “여성의 투표 참여는 사우디 국민과 사회 모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여성이 남성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기뻐했다. 지방의원 후보로 나선 카리마 보크하리(50)는 “<span class='quot1'>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으며 나는 방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span>”라고 말하며 투표장을 나섰다. <br/>BBC는 “<span class='quot2'>남성이나 여성 모두 얼굴을 공개한 포스터로 유세를 할 수 없지만 남성은 여성과 달리 면대면 연설을 할 수 있어서 남성 목소리를 빌리거나 가림막 뒤에서 유세를 해야 하는 여성 후보는 매우 불리한 레이스를 치른 셈이다</span>”고 평했다.<br/>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오직 지역 이슈에만 관여할 수 있는 지방의원 선거 개혁만으로 여권 신장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를 부당하다 여기는 여론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 쿠란(이슬람경전)을 가르치는 여성 교사 암나 아흐메드(23)는 투표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span class='quot3'>집권자는 모두 남성이고 이들이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여성의 자리는 아직 없다고 생각한다</span>”라며 “<span class='quot3'>사실 남성이 선거에서 모두 이기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투표를 위해 줄을 선 압둘라 알 마이텝은 “<span class='quot4'>여성은 가정을 운영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span>”라며 “<span class='quot4'>내 아내가 정치를 하도록 만들면 누가 아들들을 양육하느냐</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br/>한편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은 살마 빈트 히잡 알오테이비가 메카의 마드라카 의회에서 당선돼 첫 여성 당선자가 나왔다고 이날 전했다. 알오테이비는 다른 7명의 남성 후보와 2명의 여성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br/>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br/>SQ: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80.txt

제목: 사우디 여성 첫 투표, 기대와 실망 엇갈려  
날짜: 20151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14053357409  
본문: 여권(女權) 최후의 불모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첫 선거가 12일(현지시간) 진행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된 284개 지방의회 의원 2,106명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사우디는 여성 유권자의 투표와 여성 후보의 출마를 역사상 처음으로 허용했다. 아직도 여성의 자동차 운전을 금지할 정도인 사우디가 여성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선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랍의 봄’의 바람이 거셌던 2011년 당시 국왕인 고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가 “<span class='quot0'>2015년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라</span>”고 유언을 남긴 덕분이다. 사우디는 1893년 뉴질랜드가 여성 투표권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끝까지 이를 외면해 온 중동지역에서도 카타르(1999년), 오만(2003년), 쿠웨이트(2005년), 아랍에미리트(2006년), 부탄(2008년)에 이어 120여 년 만에 여성에게 선거의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br/>이날 영국 BBC와 AP 등이 전한 사우디 여성들의 선거참여 풍경을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도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지만, 불공정 경쟁을 치러야 하는 여성 후보자와 얼굴을 감싼 채 남성이 운전하는 차를 기다려 투표소로 나서는 여성 유권자들의 현실을 보면 남녀평등을 향한 길은 여전히 험난한 것 같다. AP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여성은 모두 979명으로 남성 후보자(5,968명)에 비해 수가 크게 적다. 투표를 위해 사전등록한 유권자 여성은 18세 이상 여성의 2%인 13만여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전등록한 유권자 남성(135만6,000여명)과 비교해서는 10분의 1 정도이다. 제도는 시행됐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혀 출마와 투표를 포기한 여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br/>50대 주부 샤라 알 카타니는 이슬람 전통의상인 아바야 얼굴과 몸을 가린 채 수도 리야드의 한 여성 전용 투표소를 찾았다. 사우디 정부는 이날 전국 1,263개 투표소 가운데 424곳을 여성 전용으로 운용해 남녀가 구별된 장소에서 투표하도록 했다. 자녀 8명을 둔 알 카타니는 “여성의 투표 참여는 사우디 국민과 사회 모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여성이 남성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기뻐했다. 지방의원 후보로 나선 카리마 보크하리(50)는 “<span class='quot1'>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으며 나는 방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span>”라고 말하며 투표장을 나섰다. <br/>BBC는 “<span class='quot2'>남성이나 여성 모두 얼굴을 공개한 포스터로 유세를 할 수 없지만 남성은 여성과 달리 면대면 연설을 할 수 있어서 남성 목소리를 빌리거나 가림막 뒤에서 유세를 해야 하는 여성 후보는 매우 불리한 레이스를 치른 셈이다</span>”고 평했다.<br/>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오직 지역 이슈에만 관여할 수 있는 지방의원 선거 개혁만으로 여권 신장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를 부당하다 여기는 여론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 쿠란(이슬람경전)을 가르치는 여성 교사 암나 아흐메드(23)는 투표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span class='quot3'>집권자는 모두 남성이고 이들이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여성의 자리는 아직 없다고 생각한다</span>”라며 “<span class='quot3'>사실 남성이 선거에서 모두 이기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 투표를 위해 줄을 선 압둘라 알 마이텝은 “<span class='quot4'>여성은 가정을 운영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span>”라며 “<span class='quot4'>내 아내가 정치를 하도록 만들면 누가 아들들을 양육하느냐</span>”고 목소리를 높였다.<br/>한편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은 살마 빈트 히잡 알오테이비가 메카의 마드라카 의회에서 당선돼 첫 여성 당선자가 나왔다고 이날 전했다. 알오테이비는 다른 7명의 남성 후보와 2명의 여성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br/>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81.txt

제목: 연말에 집중되는 건강검진, 피하는 방법  
날짜: 2015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30855143  
본문: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영향으로 연말에 건강검진이 몰려 제때 검진을 받지 못한 국민들은 내년에 받을 수 있다.<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span class='quot0'>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올해 내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에 별도로 신청해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span>”고 밝혔다. 건보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면 누구든 내년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전화(1577-1000)또는 건보 지사에 방문해 추가검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2월31일까지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br/>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일반검진 대상자 중 만40세인 1975년 출생자와 만66세인 1949년 출생자)과 국가암검진대상자(건보료 하위 50%)는 본인부담 10% 지원과 암환자의료비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어 가능한 올해 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건강검진 예약이 가능한 검진기관을 파악해 이달 15~31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br/>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연말에는 평소보다 수검자가 20%정도 몰려 불편이 반복되므로 검진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br/>SQ: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82.txt

제목: 연말에 집중되는 건강검진, 피하는 방법  
날짜: 2015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12051720154  
본문: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영향으로 연말에 건강검진이 몰려 제때 검진을 받지 못한 국민들은 내년에 받을 수 있다.<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span class='quot0'>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올해 내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에 별도로 신청해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span>”고 밝혔다. 건보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면 누구든 내년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전화(1577-1000)또는 건보 지사에 방문해 추가검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2월31일까지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br/>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일반검진 대상자 중 만40세인 1975년 출생자와 만66세인 1949년 출생자)과 국가암검진대상자(건보료 하위 50%)는 본인부담 10% 지원과 암환자의료비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어 가능한 올해 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건강검진 예약이 가능한 검진기관을 파악해 이달 15~31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br/>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연말에는 평소보다 수검자가 20%정도 몰려 불편이 반복되므로 검진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83.txt

제목: 지구촌 오늘-20151210  
날짜: 20151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11053405835  
본문: 미 미주리주 퍼거슨의 쓰리프트 스토어에서 9일(현지시간) 시크릿 산타로 알려진 한 남자가 쇼핑객들이 의심하지 않게 100달러를 줄 준비를 하고 있다. 캔자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익명의 시크린 산타는 지난 25년동안 매년 12월이면 캔자스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며 현금을 나눠주는 자선활동을 하다 2007년 암으로 사망한 래리 스튜어트의 영향을 받아 이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퍼거슨=AP 연합뉴스 <br/><br/>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84.txt

제목: 환자의사 확인 안돼도 의료행위 중단 가능 ‘18년 논란 일단락’  
날짜: 20151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30334174  
본문: ‘김할머니 소송’으로 공론화<br/>존엄사나 안락사 등과는 달라<br/><br/><br/>환자 본인이 원하거나 가족 전원이 동의할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법안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18년간 지속돼 왔던 연명의료 중단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br/>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명의료 논란을 촉발시킨 사건은 1997년 회복가능성이 있는데도 퇴원시켜 환자가 사망하자 환자 가족과 의료진에게 살인죄가 선고된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이후 2008년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 할머니(2010년 사망)의 가족들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김 할머니가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09년 5월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span class='quot0'>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span>”고 판시하면서 전기가 마련된다. 대법원은 당시 “<span class='quot0'>국가는 입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span>”고 권고해 제도화 논의의 물꼬를 텄다. <br/>그러나 입법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0년 종교계ㆍ의료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제3자인 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종교계가 반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13년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가족 등 제3자에 의한 환자의 뜻 추정과 대리의사결정을 허용하는 ‘연명의료중단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입법화의 골격이 마련됐다. <br/><br/><br/>이 같은 논란 끝에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 뜻을 추정해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br/>입법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성숙됐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88.9%)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인식도 조사’(2011년)에서도 응답자의 72%가 연명의료 중단에 찬성했다. 해외에도 관련 법이 지정된 국가가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41개 주에 사전의료의향서 관련법이 있고, 대만은 200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05년, 오스트리아는 2006년에 환자 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br/>연명의료 중단은 통상 ‘안락사’ 혹은 ‘존엄사’ 허용과 혼용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안락사와 존엄사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 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의사가 환자를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 반면 연명의료는 이런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연명의료법안은 심폐소생술ㆍ혈액투석ㆍ항암제 투여 등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 시기만 지연시키는 행위만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진통제 투여 등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 등의 공급은 지속해야 한다. 한편 이 법안에는 현행 암환자에 국한됐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이용 대상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br/> 법제화의 1차 관문을 넘었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span class='quot1'>연합회 회원의 85%가 연명의료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입법은 긍정적이라고 본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무연고자의 경우 병원 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을 의결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span>”고 말했다. 이 법은 호스피스 관련 시설 확충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 후 3월 공포될 경우, 2018년 3월부터 시행된다.<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85.txt

제목: 환자의사 확인 안돼도 의료행위 중단 가능 ‘18년 논란 일단락’  
날짜: 20151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09051547518  
본문: ‘김할머니 소송’으로 공론화<br/>존엄사나 안락사 등과는 달라<br/><br/><br/>환자 본인이 원하거나 가족 전원이 동의할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법안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18년간 지속돼 왔던 연명의료 중단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br/>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명의료 논란을 촉발시킨 사건은 1997년 회복가능성이 있는데도 퇴원시켜 환자가 사망하자 환자 가족과 의료진에게 살인죄가 선고된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이후 2008년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 할머니(2010년 사망)의 가족들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김 할머니가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09년 5월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span class='quot0'>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span>”고 판시하면서 전기가 마련된다. 대법원은 당시 “<span class='quot0'>국가는 입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span>”고 권고해 제도화 논의의 물꼬를 텄다. <br/>그러나 입법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0년 종교계ㆍ의료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제3자인 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종교계가 반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13년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가족 등 제3자에 의한 환자의 뜻 추정과 대리의사결정을 허용하는 ‘연명의료중단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입법화의 골격이 마련됐다. <br/><br/><br/>이 같은 논란 끝에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 뜻을 추정해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br/>입법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성숙됐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88.9%)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인식도 조사’(2011년)에서도 응답자의 72%가 연명의료 중단에 찬성했다. 해외에도 관련 법이 지정된 국가가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41개 주에 사전의료의향서 관련법이 있고, 대만은 200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05년, 오스트리아는 2006년에 환자 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br/>연명의료 중단은 통상 ‘안락사’ 혹은 ‘존엄사’ 허용과 혼용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안락사와 존엄사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 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의사가 환자를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 반면 연명의료는 이런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연명의료법안은 심폐소생술ㆍ혈액투석ㆍ항암제 투여 등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 시기만 지연시키는 행위만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진통제 투여 등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 등의 공급은 지속해야 한다. 한편 이 법안에는 현행 암환자에 국한됐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이용 대상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br/> 법제화의 1차 관문을 넘었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span class='quot1'>연합회 회원의 85%가 연명의료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입법은 긍정적이라고 본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무연고자의 경우 병원 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을 의결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span>”고 말했다. 이 법은 호스피스 관련 시설 확충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 후 3월 공포될 경우, 2018년 3월부터 시행된다.<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86.txt

제목: 김인석, 갑상선 암 투병 연애할 때 숨겨  
날짜: 2015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30247873  
본문: 12월 8일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서 김인석과 아내 안젤라 박의 신혼집이 공개되었다.<br/> <br/>이날 김인석은 "내가 갑상선암으로 아플 때가 있었다. 정말 친한 사람 가족 말고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괜히 흠이 될 까봐 그랬다"고 고백해 주변의 놀라움을 자아냈다.<br/> <br/>그는 이어서 "결혼 준비 할 때, 나중에 서로 호감이 생겼을 때쯤 (아내 안젤라박에게) 얘기했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br/> <br/>한편 김인석은 유명 영어강사로 활약 중인 안젤라박과 5개월 열애 끝 지난해 11월 결혼했다.<br/> <br/>사진 = SBS '좋은 아침' 방송 캡처<br/><br/><br/>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87.txt

제목: 김인석, 갑상선 암 투병 연애할 때 숨겨  
날짜: 20151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09051420615  
본문: 12월 8일 방송된 SBS '좋은 아침'에서 김인석과 아내 안젤라 박의 신혼집이 공개되었다.<br/> <br/>이날 김인석은 "내가 갑상선암으로 아플 때가 있었다. 정말 친한 사람 가족 말고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괜히 흠이 될 까봐 그랬다"고 고백해 주변의 놀라움을 자아냈다.<br/> <br/>그는 이어서 "결혼 준비 할 때, 나중에 서로 호감이 생겼을 때쯤 (아내 안젤라박에게) 얘기했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br/> <br/>한편 김인석은 유명 영어강사로 활약 중인 안젤라박과 5개월 열애 끝 지난해 11월 결혼했다.<br/> <br/>사진 = SBS '좋은 아침' 방송 캡처<br/><br/><br/>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88.txt

제목: 암 극복 카터 '방사선 표적 치료법+신약' 효과  
날짜: 2015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30137685  
본문: 전이성 흑색종을 앓던 제39대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6일 “<span class='quot0'>최근 받아 본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결과, 암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span>” 며 완치 가능성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6일 카터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한 침례교회에서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하며 수술 4개월 만에 성과를 낸 암 치료법에 주목했다.<br/>피부암의 한 종류인 ‘전이성 흑색종’은 멜라닌 형성 세포로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사망 위험률이 높은 질병 중 하나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간에 있는 암 제거 수술 중, 뇌에서 2mm 크기의 암세포 4개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br/>수술 후 지난 4개월 동안 일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방사선을 뇌 전체가 아닌 암세포가 자리 잡은 4곳에만 정확히 쏘는 치료법을 병행했다. 방사선 치료를 특정 부위에만 받게 되면 인지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었지만, 다행히 차도를 보였다. <br/>방사선 치료뿐 아니라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서 승인 받은 흑색종 치료 신약인 ‘키트루다(Keytruda)’도 효과가 있었다. 방사선 치료가 암세포를 제거했다면, 키트루다는 약해진 면역체계를 다시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다른 부위에서 암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방지했다. 키트루다는 악성 흑색종 세포가 면역 체계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못하도록 제지해 면역체계가 미세 암 세포와도 싸울 수 있도록 도왔다. 카터 전 대통령은 면역체계 강화를 위해 당분간 지속적으로 키트루다를 투여 받아야 한다. <br/>카터 전 대통령을 치료해 온 에모리 대학병원 의료진은 “<span class='quot1'>실제로 키트루다처럼 면역체계의 재활을 돕는 의약품은 꾸준히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카터 전 대통령의 경우 9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했기 때문에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span>”고 전했다. <br/>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암 전문가 데일 셰퍼드 박사는 “<span class='quot2'>아직 완치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를 수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노령의 암 환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span>”고 전했다. 또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만 빼면 새로 개발된 의약품은 더 이상 기존 치료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전영현 인턴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89.txt

제목: “한국인 96%가 호스피스 필요해”  
날짜: 2015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30205448  
본문: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가운데 9명은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가운데 8명은 연명의료결정을 희망했다.<br/><br/>호스피스는 말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증, 증상 완화 등의 신체적 치료와 함께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종합적인 의료행위를 말한다.<br/><br/>서울대 의대는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의 20~69세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주제로 패널 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패널은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30만 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지역, 성별, 연령 등에 따른 할당 추출 방식이 사용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 포인트다.<br/><br/>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자의 증상 호전 없이 임종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br/><br/>또 응답자의 96.1%는 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가 말기 상태일 경우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br/><br/>이 대상에 편입되길 희망하는 질환은 치매(72.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킨슨병(64.1%), 뇌졸중(61.6%), 만성 폐질환(21.9%), 근위축성 측삭경화증(20.9%), 만성 신부전(19.4%), 후천성 면역결핍증(18.5%), 만성 간경화(17.4%) 등의 순이었다.<br/><br/>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 주도로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95.8%)이 반대(4.2%)를 압도했다.<br/><br/>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의 국가처럼 호스피스 재단을 설립해 관련 기금을 모으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94.1%)이 반대(5.9%)보다 훨씬 많았다.<br/> <br/>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본인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만든 것이다. <br/><br/>의사가 말기 환자에게 질병 상태 등을 설명한 후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도 찬성(90.0%)이 반대(10.0%)보다 월등히 높았다.<br/><br/>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했어도 의사 2인(담당의사 1인과 해당 질병의 전문의사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87.6%, 12.4%였다.<br/><br/>조사를 주도한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매년 27만 명이 죽음을 맞고, 130만 명의 가족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국가는 암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호스피스 지원을 확대하고, 법 제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제도화해야 한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90.txt

제목: [뒤끝뉴스]금융 바이오 인증 시대의 명과 암  
날짜: 2015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5952520  
본문: 금융권에 바이오 인증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손바닥으로 카드를 발급 받고 눈동자로 자금을 이체하는 일상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당국이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했던 유권해석을 바꿔 이번 달부터 비대면 방식을 허용한 게 발판이 됐습니다. <br/>신한은행을 선두로, 시중은행들은 홍채 지문 등 바이오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도입 논의에 한창입니다.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1일부터 무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손바닥 정맥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을 기기에 설치된 특수 센서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고, 카드 발급, 예ㆍ적금ㆍ펀드 가입 등 기본적인 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br/>원리는 이렇습니다. 손바닥에 근적외선을 투과하면 이를 흡수한 혈관 안 헤모글로빈이 까맣게 찍히는데 이게 바로 정맥 지도입니다. 정맥 모양은 사고나 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 한, 일란성 쌍둥이를 포함해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정맥 인증은 현재 ▦손바닥 ▦손등 ▦손가락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이 중 손바닥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손바닥 정맥이 가장 굵고 복잡하며 많은 혈관이 지나가고, 손가락에 비해 온도에 따른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r/>바이오 인증의 정확성은 통상 오인식률(FAR)과 오거부율(FRR)로 측정합니다. 타인을 나로 오인해서 수락하는 게 오인식률이고, 본인인데도 나를 못 알아보고 거절하는 비율이 오거부율입니다. 아무래도 ‘인증’의 특성상 ‘오인식률’이 낮은 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 신한은행의 디지털 키오스크를 개발한 한국후지쯔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손바닥 정맥 인증 기술의 경우 FAR은 0.00008%, FRR은 0.01% 수준입니다. 통상 손바닥 정맥 인증은 현재 활발히 개발 중인 서명, 행동, 안면, 목소리 등 여러 바이오 인증 방식 중 가장 낮은 오류를 자랑합니다. 한국후지쯔 측은 앞으로 손바닥 정맥에 더해 손금까지 인식해 인증의 정확도를 더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br/>손바닥 정맥 인증은 사실 해외에선 이미 익숙한 기술입니다. 일본의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보편화돼 쓰입니다. 브라질의 상업은행인 브라데스코에서는 손바닥 정맥 인증이 연금 수령을 할 때 이용됩니다. 브라질에서도 한국처럼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타가는 부정수급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손바닥 정맥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과 부정수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이죠. <br/>하지만 바이오 인증의 미래가 장밋빛이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기술의 한계가 첫 번째 넘어야 할 벽입니다. 대표적으로 홍채인식의 경우 손바닥 정맥 인증과 같이 높은 정확도를 지니지만, 아직 ‘안경’이나 ‘컬러렌즈’에 따른 본인확인 인증 오류를 온전히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정맥 인증도 손에 상처가 나서 붕대를 감으면 인식이 어려워 양쪽 손을 다 등록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주민센터에 가서 손쉽게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무인 기계 앞에 섰다가 지문인식에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애초에 여러 번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하고 위치나 오차를 감안해서 이미지를 저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정맥 같은 신체 내부 정보와 달리 지문은 외부에 노출된 정보이다 보니 복제를 통한 위ㆍ변조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br/>만에 하나 생체정보가 유출되면 영구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위험도 따릅니다.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바꿀 수 있고 보안카드를 분실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생체정보는 유출이 돼도 갱신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죠. 현재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들은 생체정보가 통째로 유출돼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두 곳에 쪼개서 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해킹 공격 등을 받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의 비대면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혁신적인 본인인증 방식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금융권의 여러 신(新)기술이 그 혁신성만큼 ‘안전한 기술’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길 기대합니다. <br/>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91.txt

제목: [뒤끝뉴스]금융 바이오 인증 시대의 명과 암  
날짜: 20151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06051449429  
본문: 금융권에 바이오 인증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손바닥으로 카드를 발급 받고 눈동자로 자금을 이체하는 일상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당국이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했던 유권해석을 바꿔 이번 달부터 비대면 방식을 허용한 게 발판이 됐습니다. <br/>신한은행을 선두로, 시중은행들은 홍채 지문 등 바이오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도입 논의에 한창입니다.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1일부터 무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손바닥 정맥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을 기기에 설치된 특수 센서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고, 카드 발급, 예ㆍ적금ㆍ펀드 가입 등 기본적인 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br/>원리는 이렇습니다. 손바닥에 근적외선을 투과하면 이를 흡수한 혈관 안 헤모글로빈이 까맣게 찍히는데 이게 바로 정맥 지도입니다. 정맥 모양은 사고나 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 한, 일란성 쌍둥이를 포함해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정맥 인증은 현재 ▦손바닥 ▦손등 ▦손가락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이 중 손바닥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손바닥 정맥이 가장 굵고 복잡하며 많은 혈관이 지나가고, 손가락에 비해 온도에 따른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r/>바이오 인증의 정확성은 통상 오인식률(FAR)과 오거부율(FRR)로 측정합니다. 타인을 나로 오인해서 수락하는 게 오인식률이고, 본인인데도 나를 못 알아보고 거절하는 비율이 오거부율입니다. 아무래도 ‘인증’의 특성상 ‘오인식률’이 낮은 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 신한은행의 디지털 키오스크를 개발한 한국후지쯔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손바닥 정맥 인증 기술의 경우 FAR은 0.00008%, FRR은 0.01% 수준입니다. 통상 손바닥 정맥 인증은 현재 활발히 개발 중인 서명, 행동, 안면, 목소리 등 여러 바이오 인증 방식 중 가장 낮은 오류를 자랑합니다. 한국후지쯔 측은 앞으로 손바닥 정맥에 더해 손금까지 인식해 인증의 정확도를 더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br/>손바닥 정맥 인증은 사실 해외에선 이미 익숙한 기술입니다. 일본의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보편화돼 쓰입니다. 브라질의 상업은행인 브라데스코에서는 손바닥 정맥 인증이 연금 수령을 할 때 이용됩니다. 브라질에서도 한국처럼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타가는 부정수급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손바닥 정맥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과 부정수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이죠. <br/>하지만 바이오 인증의 미래가 장밋빛이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기술의 한계가 첫 번째 넘어야 할 벽입니다. 대표적으로 홍채인식의 경우 손바닥 정맥 인증과 같이 높은 정확도를 지니지만, 아직 ‘안경’이나 ‘컬러렌즈’에 따른 본인확인 인증 오류를 온전히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손바닥 정맥 인증도 손에 상처가 나서 붕대를 감으면 인식이 어려워 양쪽 손을 다 등록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주민센터에 가서 손쉽게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무인 기계 앞에 섰다가 지문인식에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애초에 여러 번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하고 위치나 오차를 감안해서 이미지를 저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정맥 같은 신체 내부 정보와 달리 지문은 외부에 노출된 정보이다 보니 복제를 통한 위ㆍ변조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br/>만에 하나 생체정보가 유출되면 영구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위험도 따릅니다.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바꿀 수 있고 보안카드를 분실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생체정보는 유출이 돼도 갱신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죠. 현재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들은 생체정보가 통째로 유출돼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두 곳에 쪼개서 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해킹 공격 등을 받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의 비대면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혁신적인 본인인증 방식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금융권의 여러 신(新)기술이 그 혁신성만큼 ‘안전한 기술’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길 기대합니다. <br/>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92.txt

제목: 지난해 태어난 여아 평균 85세, 남아 79세까지 산다  
날짜: 2015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5758812  
본문: 암으로 죽을 확률 男 28%-女 17%<br/>女 기대수명 OECD 4위… 男 17위<br/><br/>지난해에 태어난 여자 아이는 평균 85세, 남자 아이는 79세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었고, 남성 기대 수명은 OECD 중위권 수준으로 조사됐다.<br/>3일 통계청이 낸 ‘2014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적으로 82.4년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자 아이는 85.5세, 남자 아이는 79.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한 아이의 기대 수명은 2013년에 태어난 아이보다 0.5세 더 길었다.<br/>생명표(life table)는 지금 같은 사망 수준이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말한다. 인구추계 등에 활용될 뿐 아니라 보험료율 책정, 연금 비율 산정 등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된다.<br/>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80세(2094년)까지 살아 있을 확률은 남아 56.8%, 여아 77.9%로 나타났다. 65세(2079년)까지 생존 확률은 남아 86.5%, 여아 94.3%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 아이 생존확률이 남자 아이보다 높았다.<br/>지난해에 태어난 아이가 암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은 남아 28.4%, 여아 16.9%였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활 확률은 남녀 각각 9.6%, 12.3%였다. 만약 암이 정복돼 사망원인에서 암이 사라진다면,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는 기대수명보다 4.8년, 여자아이는 2.8년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br/>또한 지난해 60세를 맞은 1954년생 여자는 평균적으로 27.4년을 더 살 수 있고, 60세 남자는 평균 22.4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0세 남성과 여성은 각각 기대여명이 40.2년, 46.3년이었다. 신생아보다 성인의 총 기대수명이 더 길게 나타나는 건, 사고나 질병 등의 위험을 이미 상당 부분 벗어났기 때문이다. <br/>지역별로도 기대수명에서 제법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기대수명이 가장 긴 지역은 서울(83.6년) 경기(82.9년) 제주(82.8년) 순이었고, 기대수명이 짧은 곳은 울산(81.3년) 강원(81.4년) 부산(81.6년) 경남(81.6년) 등이었다.<br/>한국인의 이 같은 기대수명(남자 79.0년, 여자 85.5년)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여성의 경우 일본(86.6년) 스페인(86.1년) 프랑스(85.6년)에 이어 OECD 4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남자의 기대수명은 OECD 34개국 중 17위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스위스(80.7년) 아이슬란드(80.5년) 이탈리아(80.3년) 등의 순이었다. <br/>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93.txt

제목: 지난해 태어난 여아 평균 85세, 남아 79세까지 산다  
날짜: 20151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04052500022  
본문: 암으로 죽을 확률 男 28%-女 17%<br/>女 기대수명 OECD 4위… 男 17위<br/><br/>지난해에 태어난 여자 아이는 평균 85세, 남자 아이는 79세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었고, 남성 기대 수명은 OECD 중위권 수준으로 조사됐다.<br/>3일 통계청이 낸 ‘2014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적으로 82.4년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자 아이는 85.5세, 남자 아이는 79.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한 아이의 기대 수명은 2013년에 태어난 아이보다 0.5세 더 길었다.<br/>생명표(life table)는 지금 같은 사망 수준이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말한다. 인구추계 등에 활용될 뿐 아니라 보험료율 책정, 연금 비율 산정 등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된다.<br/>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80세(2094년)까지 살아 있을 확률은 남아 56.8%, 여아 77.9%로 나타났다. 65세(2079년)까지 생존 확률은 남아 86.5%, 여아 94.3%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 아이 생존확률이 남자 아이보다 높았다.<br/>지난해에 태어난 아이가 암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은 남아 28.4%, 여아 16.9%였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활 확률은 남녀 각각 9.6%, 12.3%였다. 만약 암이 정복돼 사망원인에서 암이 사라진다면,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는 기대수명보다 4.8년, 여자아이는 2.8년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br/>또한 지난해 60세를 맞은 1954년생 여자는 평균적으로 27.4년을 더 살 수 있고, 60세 남자는 평균 22.4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40세 남성과 여성은 각각 기대여명이 40.2년, 46.3년이었다. 신생아보다 성인의 총 기대수명이 더 길게 나타나는 건, 사고나 질병 등의 위험을 이미 상당 부분 벗어났기 때문이다. <br/>지역별로도 기대수명에서 제법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기대수명이 가장 긴 지역은 서울(83.6년) 경기(82.9년) 제주(82.8년) 순이었고, 기대수명이 짧은 곳은 울산(81.3년) 강원(81.4년) 부산(81.6년) 경남(81.6년) 등이었다.<br/>한국인의 이 같은 기대수명(남자 79.0년, 여자 85.5년)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여성의 경우 일본(86.6년) 스페인(86.1년) 프랑스(85.6년)에 이어 OECD 4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남자의 기대수명은 OECD 34개국 중 17위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스위스(80.7년) 아이슬란드(80.5년) 이탈리아(80.3년) 등의 순이었다. <br/>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94.txt

제목: 콩팥암, 클립을 이용한 연속 봉합술로 수술시간 단축  
날짜: 2015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5553371  
본문: 홍성후 서울성모병원 교수팀, 기존 수술법을 새로 고안해<br/><br/>우리나라 의료진이 기존 복강경 부분 콩팥 절제술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새로 고안한 수술법 ‘클립을 이용한 연속 봉합술’로 수술시간을 단축했다.<br/><br/>홍성후ㆍ김강섭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팀은 2008~2010년 실로 봉합한 콩팥암 복강경 수술 환자 28명과 2011~2013년 클립으로 봉합한 콩팥암 복강경 수술 환자 51명을 비교한 결과, 클립 봉합 환자의 수술시간은 22분, 온허혈 시간(출혈을 멈추는 작업시간)은 11분 단축됐다고 밝혔다.<br/><br/>기존 방법으로 수술한 환자의 수술시간은 170.0분, 온허혈 시간은 32.3분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수술한 환자의 수술시간은 148.7분, 온허혈 시간은 21.5분이다.<br/><br/>복강경 부분 콩팥 절제술을 할 때 온허혈 시간이 길어지면 수술 후 콩팥 기능 감소가 더 크다.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하는 사람에게도 큰 부담이어서 기존 수술법을 더 발전시킨 이번 봉합술이 2만6,000여명의 우리나라 콩팥암 환자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br/><br/>최근 콩팥암 환자를 수술할 때 콩팥 전체를 잘라내기 보다 복강경을 이용한 콩팥 부분절제술이 보편화 되고 있다. 하지만 숙련된 비뇨기과 의사조차도 짧은 온허혈 시간 동안 암을 제거하고 출혈을 완벽히 잡아 콩팥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br/><br/>온허혈 시간이 1시간 길어질 때마다 급성신부전 발병 위험뿐만 아니라 콩팥 기능 저하 위험이 5~6%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콩팥은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산소와 영양분도 줄어 세포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br/><br/>클립 봉합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수술법에 홍 교수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새로 고안한 수술법이다. 기존의 방법은 복강경 수술기구를 이용해 암 덩어리를 잘라낸 뒤 절제면을 봉합한 뒤 세 번 매듭을 지어야 하므로 온허혈 시간이 길었다.<br/><br/>하지만, 새로운 봉합술은 30㎝ 정도의 긴 실로 한꺼번에 봉합한 상태에서 차례로 실을 하나씩 잡아당겨 클립으로 고정해 온허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br/><br/>클립을 끼워 실이 한꺼번에 풀릴 위험성을 줄이고 시간도 단축되는 획기적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복강경에 익숙하지 않은 비뇨기과 의사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법으로 결국 환자의 콩팥 기능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된다.<br/><br/>홍 교수는 “<span class='quot0'>복강경 부분 콩팥 절제술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막고 암 덩어리를 절제한 다음 봉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 넘으면 콩팥 기능이 확 떨어져, 비뇨기과 의사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수술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하는 수술</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새로운 클립 봉합술이 수술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이번 연구로 증명하게 돼 의미가 크다</span>”고 했다.<br/><br/>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복강 내시경 수술학술지(Journal of Laparoendoscopic & Advanced Surgical Techniques) 1월호에 실렸다.<br/>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95.txt

제목: 콩팥암, 클립을 이용한 연속 봉합술로 수술시간 단축  
날짜: 2015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03051742621  
본문: 홍성후 서울성모병원 교수팀, 기존 수술법을 새로 고안해<br/><br/>우리나라 의료진이 기존 복강경 부분 콩팥 절제술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새로 고안한 수술법 ‘클립을 이용한 연속 봉합술’로 수술시간을 단축했다.<br/><br/>홍성후ㆍ김강섭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교수팀은 2008~2010년 실로 봉합한 콩팥암 복강경 수술 환자 28명과 2011~2013년 클립으로 봉합한 콩팥암 복강경 수술 환자 51명을 비교한 결과, 클립 봉합 환자의 수술시간은 22분, 온허혈 시간(출혈을 멈추는 작업시간)은 11분 단축됐다고 밝혔다.<br/><br/>기존 방법으로 수술한 환자의 수술시간은 170.0분, 온허혈 시간은 32.3분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수술한 환자의 수술시간은 148.7분, 온허혈 시간은 21.5분이다.<br/><br/>복강경 부분 콩팥 절제술을 할 때 온허혈 시간이 길어지면 수술 후 콩팥 기능 감소가 더 크다.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하는 사람에게도 큰 부담이어서 기존 수술법을 더 발전시킨 이번 봉합술이 2만6,000여명의 우리나라 콩팥암 환자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br/><br/>최근 콩팥암 환자를 수술할 때 콩팥 전체를 잘라내기 보다 복강경을 이용한 콩팥 부분절제술이 보편화 되고 있다. 하지만 숙련된 비뇨기과 의사조차도 짧은 온허혈 시간 동안 암을 제거하고 출혈을 완벽히 잡아 콩팥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br/><br/>온허혈 시간이 1시간 길어질 때마다 급성신부전 발병 위험뿐만 아니라 콩팥 기능 저하 위험이 5~6%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콩팥은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산소와 영양분도 줄어 세포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br/><br/>클립 봉합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수술법에 홍 교수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새로 고안한 수술법이다. 기존의 방법은 복강경 수술기구를 이용해 암 덩어리를 잘라낸 뒤 절제면을 봉합한 뒤 세 번 매듭을 지어야 하므로 온허혈 시간이 길었다.<br/><br/>하지만, 새로운 봉합술은 30㎝ 정도의 긴 실로 한꺼번에 봉합한 상태에서 차례로 실을 하나씩 잡아당겨 클립으로 고정해 온허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br/><br/>클립을 끼워 실이 한꺼번에 풀릴 위험성을 줄이고 시간도 단축되는 획기적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복강경에 익숙하지 않은 비뇨기과 의사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법으로 결국 환자의 콩팥 기능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된다.<br/><br/>홍 교수는 “<span class='quot0'>복강경 부분 콩팥 절제술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막고 암 덩어리를 절제한 다음 봉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 넘으면 콩팥 기능이 확 떨어져, 비뇨기과 의사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수술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하는 수술</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새로운 클립 봉합술이 수술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이번 연구로 증명하게 돼 의미가 크다</span>”고 했다.<br/><br/>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복강 내시경 수술학술지(Journal of Laparoendoscopic & Advanced Surgical Techniques) 1월호에 실렸다.<br/>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96.txt

제목: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아티스트들이여 예술만 하시라"  
날짜: 2015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5532027  
본문: 화가 류노아(31)는 올해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제 레지던시(작가에게 거주하며 작업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라익스아카데미에 왔다. 동양화를 전공한 뒤 2010년 유화로 방향을 튼 그는 “유학 경험이 전무했기에 네덜란드에서 머무는 것 자체가 작업에 큰 자극이 됐다”고 했다. “라익스아카데미에 조언가(어드바이저)로 오는 작가들이 제 작품을 보고 그림 그리는 것보다 풍경을 보러 다니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제 작품에 네덜란드의 풍경이 많이 반영된 건 그 때문입니다.” 그의 최근작 ‘커뮤니케이션’이 묘사하는 흐린 하늘과 대지의 지평선은 확실히 한국에서 보기 힘든 풍광이다. 자연스레 작품 주제도 달라졌다. “<span class='quot0'>한국에선 사람들의 관계를 주로 묘사했는데 네덜란드에서 이방인이 된 이후로는 고독감과 사람들 사이의 경계선을 묘사하는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span>”<br/>류노아와 김영은(35) 김지선(30) 등 한국 작가 3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네덜란드 미술계의 핵심인 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시에 참여하고 있다. 옛 기병대 막사에 자리잡은 라익스아카데미는 목재ㆍ금속ㆍ도자기와 회화를 다루는 공방, 미술작가를 위한 작업실, 전세계에서 모은 미술자료 도서관과 사무공간 등 최고의 시설을 제공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세계의 유명 작가들이 조언가로 참여해 레지던시 작가들과 작품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며 영감과 다른 시야를 준다는 점이다. 네덜란드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작가들이 여기서 어울려 다양한 미술을 개척하고 있다. <br/>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정도인 여느 레지던시와 달리 2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생계 등에 대한 압박 없이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는 점은 라익스아카데미의 첫번째 장점이다. 레지던시 작가들은 연간 1만2,200유로의 생활비와 1,500유로의 작업비, 작업실과 숙소를 지원받는다. 한국 작가의 경우 이 비용은 라익스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부담하고 있다. <br/><br/><br/>김지선은 “<span class='quot1'>라익스아카데미에서 머무는 2년 동안 생계나 생활에 대한 고민을 덜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작업 자체에 몰두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환경</span>”이라고 말했다. 과거 그는 주로 단발적인 퍼포먼스 작업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레지던시 2년의 여유를 활용해 전시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다.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이기는 것과는 무관하게 엉뚱한 목적을 설정해 ‘잉여력(쓸모없는 노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들이 실제 게임하는 장면을 이어붙인 ‘다음 신의 클라이막스’다. 게임 ‘그랜드 테프트 오토 5’에서 기상천외한 자살 방법을 보여주는 유튜브 스타 ‘울산큰고래’와 게임 ‘마인크래프트’에서 25년 동안 세상의 끝으로 걸어가려 시도하는 커트 맥이 소개된다. 김지선은 이들을 관찰하며 “<span class='quot1'>게임의 ‘잉여’들처럼 현실 세계에서도 원래 목표에서 탈주하면서 저항할 수 있지 않을까</span>”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 작품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의 개관 페스티벌에서 상영됐다. <br/><br/>한국에서는 특정 공간에 맞춰 소리 설치 작업을 했던 김영은은 라익스아카데미에서의 실험을 통해 소리를 위한 전시공간을 직접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았다. ‘후광 컴포지션’이라는 작품은 마이클 잭슨이나 존 레논처럼 유명한 팝 가수의 노래에서 숨소리나 추임새만 추출해 들려준다. 하지만 가짜 벽지ㆍ기둥ㆍ커튼ㆍ문짝 등을 설치해 스피커를 은폐하고 관객이 소리의 정체를 추측하게 한다. 그가 2년간 네덜란드에서 제작한 작품들 중 ‘주물 2중창’은 서울 황학동 케이크갤러리에서, ‘후광 컴포지션’은 청담동 하이트콜렉션에서 한국 관객을 만났다. 네덜란드왕립음악원을 졸업한 경력 때문에 네덜란드 연고 작가로 분류돼 참여한 김영은은 “<span class='quot2'>레지던시를 통해 네덜란드 안팎의 다양한 미술작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좋았다</span>”고 말했다.<br/><br/><br/>라익스아카데미는 본래 피트 몬드리안ㆍ카렐 아펠 등 유명 작가를 배출한 미술학원이었지만 1980년대부터 레지던시로 전환하면서 해외 작가들을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라익스 출신 작가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오데크 라익스아카데미 디렉터는 “<span class='quot3'>레지던시는 미술관 전시나 화랑 판매를 목표로 하는 그룹이 아니라 철저히 미술작가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작가들은 원래 자신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공방을 사용할 수 있고, 의견을 듣고 싶은 작가나 미술 전문가가 있다면 최대한 초청해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span>”고 설명했다.<br/>2004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시에 참여한 작가는 15명이다. 뉴욕을 무대로 활동 중인 김성환이 지난해 아트선재센터에서 연 개인전 ‘늘 거울 생활’은 미술계의 극찬을 받았다. 함양아는 2008년 에르메스미술상과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보였다. 송상희ㆍ배고은ㆍ안지산은 라익스를 나온 후에도 꾸준히 네덜란드의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라익스아카데미가 한국 작가의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된 셈이다. 서울 동숭동 아르코미술관은 내년 3월 참여작가들의 작업을 모아 연합 전시를 열 계획이다.<br/><br/>암스테르담=인현우기자 inhy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97.txt

제목: "보험금 못준다"…모호한 약관에 두번 우는 암환자  
날짜: 2015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5506909  
본문: 지난 2014년 1월 암보장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올해 2월 난소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암 진단비로 4,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병원 진단과 달리 상피내암이고 보험가입 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며 암 진단비의 10%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했다.<br/> <br/>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암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 중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과소 지급 등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92.5%(208건)을 차지했다. 이 중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는 157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는 51건으로 조사됐다.<br/> <br/> ▲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br/>암보험 약관의 문제점으로는 불명확한 약관규정과 보험사별 암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른 점이 꼽혔다.<br/> <br/>암보험 약관의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암보험금 지급 사유에 있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무엇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br/> <br/>소비자가 암보험금 청구 시에 보장 내용이 동일한 암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사별로 약관해석이 달라 수령하는 암보험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였다.<br/> <br/>보험사들은 암 입원비나 수술비 지급 규정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을 해야 한다고 적어 놓고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br/> <br/>반면 보험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들은 이 규정을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입원'으로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가입자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br/> <br/>막상 분쟁에 돌입하더라도 가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31.8%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br/> <br/>세부 암보험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이 30.0%로 가장 낮았으며, 손해보험 35.7%, 공제 44.4%로 나타났다.<br/> <br/>소비자들이 주로 피해를 보는 암종류는 유방암이 68건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장암이 32건(14.2%), 갑상선암이 30건(13.3%), 위암이 20건(8.9%)으로 나타났다.<br/><br/><br/>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98.txt

제목: “유방암입니다. 멍멍!”  
날짜: 2015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5443525  
본문: 6년 전 유방암에 걸렸던 클레어 게스트는 반려견 데이지 덕분에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 데이지가 게스트를 빤히 쳐다보고 가슴을 파고드는 등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게스트는 데이지의 암 발견 능력 발견을 계기로 개의 후각 능력을 통해 암 진단을 연구하는 영국 자선단체 메디컬 디텍션 도그스(Medical Detection Dogs) 대표를 맡고 있다. <br/>개는 정말로 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미 방송 매체인 폭스59(FOX59)는 최근 높은 정확도로 암 냄새를 감지하는‘루시’라는 이름의 탐지견에 대해 보도했다. 루시는 안내견 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낯선 냄새에 쉽게 반응해 안내견에 탈락했다. 하지만 주인은 냄새에 민감한 루시의 능력이 유용한 곳에 쓰일 것이라 보고, 7년간 방광, 신장, 전립선 등 ‘암의 냄새’를 맡는 훈련을 받았다. 루시의 암 진단 정확도는 95%. 이는 기존 검사 방법의 정확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메디칼 디텍션 도그스 소속의 루시는 7마리의 다른 견공들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환자들로부터 채취된 3,000개 이상의 소변 샘플의 냄새를 맡아 암을 진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br/><br/><br/>개의 코에는 300만개 이상의 후각 신경이 분포하며 사람에게는 없는 2차 후각 기관인 야콥슨 기관이 있다. 훈련된 개들은 이러한 2중 후각 체계를 이용해 암이 갖고 있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만의 고유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다.<br/>하지만 개가 암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89년 런던의 킹스 칼리지 병원 소속 의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반려견이 한 여성 환자의 다리에 난 점의 냄새를 계속 맡았는데, 알고 보니 그 점은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의 초기 단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6년 간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지에서 개의 암 발견 능력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고, 개들이 냄새로 암을 감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br/>현재 영국에서는 개가 환자의 나이나 다른 질병에 관계없이 암 냄새를 맡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원형의 실험기구를 여덟 칸으로 나눈 뒤 그 중 한 칸에는 암 환자의 소변 샘플을, 나머지 일곱 칸에는 정상인의 소변 샘플을 넣고 개에게 냄새를 맡아보게 한다. 이 때 비교 대상이 된 집단은 암 환자와 비슷한 나이대로서 암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 암 환자는 아닌 사람들로 구성했다. <br/>아쉽게도 지난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의 암 냄새 감지 능력은 상업적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다. 개의 암 탐지 능력은 탁월하지만 활용 방안과 차후 연구에 대한 투자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래디 메모리얼 병원 유방암 센터장인 가브람 박사는 “<span class='quot0'>개의 암 탐지 능력은 분명 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분야지만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span>”고 말했다.<br/>최현진 인턴기자 (서강대 신문방송학3)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499.txt

제목: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아티스트들이여 예술만 하시라"  
날짜: 2015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02154255483  
본문: 화가 류노아(31)는 올해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제 레지던시(작가에게 거주하며 작업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라익스아카데미에 왔다. 동양화를 전공한 뒤 2010년 유화로 방향을 튼 그는 “유학 경험이 전무했기에 네덜란드에서 머무는 것 자체가 작업에 큰 자극이 됐다”고 했다. “라익스아카데미에 조언가(어드바이저)로 오는 작가들이 제 작품을 보고 그림 그리는 것보다 풍경을 보러 다니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제 작품에 네덜란드의 풍경이 많이 반영된 건 그 때문입니다.” 그의 최근작 ‘커뮤니케이션’이 묘사하는 흐린 하늘과 대지의 지평선은 확실히 한국에서 보기 힘든 풍광이다. 자연스레 작품 주제도 달라졌다. “<span class='quot0'>한국에선 사람들의 관계를 주로 묘사했는데 네덜란드에서 이방인이 된 이후로는 고독감과 사람들 사이의 경계선을 묘사하는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span>”<br/>류노아와 김영은(35) 김지선(30) 등 한국 작가 3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네덜란드 미술계의 핵심인 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시에 참여하고 있다. 옛 기병대 막사에 자리잡은 라익스아카데미는 목재ㆍ금속ㆍ도자기와 회화를 다루는 공방, 미술작가를 위한 작업실, 전세계에서 모은 미술자료 도서관과 사무공간 등 최고의 시설을 제공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세계의 유명 작가들이 조언가로 참여해 레지던시 작가들과 작품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며 영감과 다른 시야를 준다는 점이다. 네덜란드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작가들이 여기서 어울려 다양한 미술을 개척하고 있다. <br/>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정도인 여느 레지던시와 달리 2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생계 등에 대한 압박 없이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는 점은 라익스아카데미의 첫번째 장점이다. 레지던시 작가들은 연간 1만2,200유로의 생활비와 1,500유로의 작업비, 작업실과 숙소를 지원받는다. 한국 작가의 경우 이 비용은 라익스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부담하고 있다. <br/><br/><br/>김지선은 “<span class='quot1'>라익스아카데미에서 머무는 2년 동안 생계나 생활에 대한 고민을 덜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작업 자체에 몰두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환경</span>”이라고 말했다. 과거 그는 주로 단발적인 퍼포먼스 작업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레지던시 2년의 여유를 활용해 전시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다.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이기는 것과는 무관하게 엉뚱한 목적을 설정해 ‘잉여력(쓸모없는 노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들이 실제 게임하는 장면을 이어붙인 ‘다음 신의 클라이막스’다. 게임 ‘그랜드 테프트 오토 5’에서 기상천외한 자살 방법을 보여주는 유튜브 스타 ‘울산큰고래’와 게임 ‘마인크래프트’에서 25년 동안 세상의 끝으로 걸어가려 시도하는 커트 맥이 소개된다. 김지선은 이들을 관찰하며 “<span class='quot1'>게임의 ‘잉여’들처럼 현실 세계에서도 원래 목표에서 탈주하면서 저항할 수 있지 않을까</span>”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 작품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의 개관 페스티벌에서 상영됐다. <br/><br/>한국에서는 특정 공간에 맞춰 소리 설치 작업을 했던 김영은은 라익스아카데미에서의 실험을 통해 소리를 위한 전시공간을 직접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았다. ‘후광 컴포지션’이라는 작품은 마이클 잭슨이나 존 레논처럼 유명한 팝 가수의 노래에서 숨소리나 추임새만 추출해 들려준다. 하지만 가짜 벽지ㆍ기둥ㆍ커튼ㆍ문짝 등을 설치해 스피커를 은폐하고 관객이 소리의 정체를 추측하게 한다. 그가 2년간 네덜란드에서 제작한 작품들 중 ‘주물 2중창’은 서울 황학동 케이크갤러리에서, ‘후광 컴포지션’은 청담동 하이트콜렉션에서 한국 관객을 만났다. 네덜란드왕립음악원을 졸업한 경력 때문에 네덜란드 연고 작가로 분류돼 참여한 김영은은 “<span class='quot2'>레지던시를 통해 네덜란드 안팎의 다양한 미술작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좋았다</span>”고 말했다.<br/><br/><br/>라익스아카데미는 본래 피트 몬드리안ㆍ카렐 아펠 등 유명 작가를 배출한 미술학원이었지만 1980년대부터 레지던시로 전환하면서 해외 작가들을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라익스 출신 작가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오데크 라익스아카데미 디렉터는 “<span class='quot3'>레지던시는 미술관 전시나 화랑 판매를 목표로 하는 그룹이 아니라 철저히 미술작가 개인을 위한 프로그램</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작가들은 원래 자신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공방을 사용할 수 있고, 의견을 듣고 싶은 작가나 미술 전문가가 있다면 최대한 초청해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span>”고 설명했다.<br/>2004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시에 참여한 작가는 15명이다. 뉴욕을 무대로 활동 중인 김성환이 지난해 아트선재센터에서 연 개인전 ‘늘 거울 생활’은 미술계의 극찬을 받았다. 함양아는 2008년 에르메스미술상과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보였다. 송상희ㆍ배고은ㆍ안지산은 라익스를 나온 후에도 꾸준히 네덜란드의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라익스아카데미가 한국 작가의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된 셈이다. 서울 동숭동 아르코미술관은 내년 3월 참여작가들의 작업을 모아 연합 전시를 열 계획이다.<br/><br/>암스테르담=인현우기자 inhy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00.txt

제목: "보험금 못준다"…모호한 약관에 두번 우는 암환자  
날짜: 2015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02154205027  
본문: 지난 2014년 1월 암보장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올해 2월 난소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암 진단비로 4,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병원 진단과 달리 상피내암이고 보험가입 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며 암 진단비의 10%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했다.<br/> <br/>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암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 중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과소 지급 등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92.5%(208건)을 차지했다. 이 중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는 157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는 51건으로 조사됐다.<br/> <br/> ▲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br/>암보험 약관의 문제점으로는 불명확한 약관규정과 보험사별 암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른 점이 꼽혔다.<br/> <br/>암보험 약관의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암보험금 지급 사유에 있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무엇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br/> <br/>소비자가 암보험금 청구 시에 보장 내용이 동일한 암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사별로 약관해석이 달라 수령하는 암보험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였다.<br/> <br/>보험사들은 암 입원비나 수술비 지급 규정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을 해야 한다고 적어 놓고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br/> <br/>반면 보험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들은 이 규정을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입원'으로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가입자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br/> <br/>막상 분쟁에 돌입하더라도 가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31.8%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br/> <br/>세부 암보험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이 30.0%로 가장 낮았으며, 손해보험 35.7%, 공제 44.4%로 나타났다.<br/> <br/>소비자들이 주로 피해를 보는 암종류는 유방암이 68건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장암이 32건(14.2%), 갑상선암이 30건(13.3%), 위암이 20건(8.9%)으로 나타났다.<br/><br/><br/>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01.txt

제목: “유방암입니다. 멍멍!”  
날짜: 20151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02154107988  
본문: 6년 전 유방암에 걸렸던 클레어 게스트는 반려견 데이지 덕분에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 데이지가 게스트를 빤히 쳐다보고 가슴을 파고드는 등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게스트는 데이지의 암 발견 능력 발견을 계기로 개의 후각 능력을 통해 암 진단을 연구하는 영국 자선단체 메디컬 디텍션 도그스(Medical Detection Dogs) 대표를 맡고 있다. <br/>개는 정말로 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미 방송 매체인 폭스59(FOX59)는 최근 높은 정확도로 암 냄새를 감지하는‘루시’라는 이름의 탐지견에 대해 보도했다. 루시는 안내견 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낯선 냄새에 쉽게 반응해 안내견에 탈락했다. 하지만 주인은 냄새에 민감한 루시의 능력이 유용한 곳에 쓰일 것이라 보고, 7년간 방광, 신장, 전립선 등 ‘암의 냄새’를 맡는 훈련을 받았다. 루시의 암 진단 정확도는 95%. 이는 기존 검사 방법의 정확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메디칼 디텍션 도그스 소속의 루시는 7마리의 다른 견공들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환자들로부터 채취된 3,000개 이상의 소변 샘플의 냄새를 맡아 암을 진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br/><br/><br/>개의 코에는 300만개 이상의 후각 신경이 분포하며 사람에게는 없는 2차 후각 기관인 야콥슨 기관이 있다. 훈련된 개들은 이러한 2중 후각 체계를 이용해 암이 갖고 있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만의 고유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다.<br/>하지만 개가 암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89년 런던의 킹스 칼리지 병원 소속 의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반려견이 한 여성 환자의 다리에 난 점의 냄새를 계속 맡았는데, 알고 보니 그 점은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의 초기 단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6년 간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지에서 개의 암 발견 능력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고, 개들이 냄새로 암을 감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br/>현재 영국에서는 개가 환자의 나이나 다른 질병에 관계없이 암 냄새를 맡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원형의 실험기구를 여덟 칸으로 나눈 뒤 그 중 한 칸에는 암 환자의 소변 샘플을, 나머지 일곱 칸에는 정상인의 소변 샘플을 넣고 개에게 냄새를 맡아보게 한다. 이 때 비교 대상이 된 집단은 암 환자와 비슷한 나이대로서 암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 암 환자는 아닌 사람들로 구성했다. <br/>아쉽게도 지난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의 암 냄새 감지 능력은 상업적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다. 개의 암 탐지 능력은 탁월하지만 활용 방안과 차후 연구에 대한 투자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래디 메모리얼 병원 유방암 센터장인 가브람 박사는 “<span class='quot0'>개의 암 탐지 능력은 분명 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분야지만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span>”고 말했다.<br/>최현진 인턴기자 (서강대 신문방송학3)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02.txt

제목: [숨가쁜 신경외과 진료실] 뇌 정밀검사, 누가, 언제 받아야 할까  
날짜: 2015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5406420  
본문: 박익성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뇌졸중센터장<br/>신경외과 외래를 찾는 사람 중에는 팔ㆍ다리 마비나 언어장애, 시력저하 등 뚜렷한 장애가 있는 경우도 적지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즉 자신이 느끼는 증상이 큰병이 아닐까 해서, 뇌질환으로 고생하는 지인들이 경험한 증상과 비슷해서, 언론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판단한 결과 머리 혈관이 터지거나 신경이 끊어질 것 같아서 등 자신이 먼저 진단을 내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이 아주 많다. 뇌에 발생하는 질환이어서 후유증이 심각하고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아주 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큰 것이다.<br/><br/>뇌질환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뇌졸중은 심근경색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데다 암에 이어 사망률 2위이므로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뇌졸중의 대표적 원인은 장기간에 걸쳐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다. 뇌졸중은 가족력도 있어 직계가족 중 2인 이상이 뇌졸중의 병력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최소 10년 이상 되었는데 신경 써서 관리를 안 했거나 약 복용을 하지 않고 지냈다면 이미 여러 혈관이 손상 된 것으로 생각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심장 전문의나 뇌졸중 전문의의 진료 후 적절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br/><br/>뇌졸중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잘 발생하는 퇴행성 혈관질환이므로 발병 전 관리와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다. 뇌졸중의 위험요인인 성인질환을 가진 환자가 만일 가벼운 마비 증세나 활동할 때 심해지는 어지러움증, 극심한 뒷목 통증 등을 호소하면 뇌졸중 전구증상을 의심하고 뇌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br/><br/>뇌졸중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뇌질환인 뇌종양은 머리 안에 혹이 생겨서 뇌 신경을 압박하거나 손상을 주어 증상이 나타난다. 뇌종양은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악성 종양인 경우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지 뇌종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T나 MRI 검사를 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 추천되지는 않는다. 또 뇌졸중과 다르게 그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지 않아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는지 미리 알 수도 없다. 뇌종양에 의한 증상은 대부분 천천히 진행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다가 오후가 되면 좋아지고, 이러한 두통이 2~3주 이상 지속되며 두통의 강도가 심해지면 뇌종양에 의한 뇌압상승 증상이므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br/><br/>뇌 안의 시신경이 뇌종양에 의해 압박되면 눈이 점점 안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탓으로 처음에는 안과를 찾았다가 신경외과로 의뢰되어 오는 환자도 많다. 여성의 경우 무월경, 유즙분비를 초래하는 뇌종양도 있다. 팔ㆍ다리 어느 한쪽이 천천히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말을 하려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잘 안 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뇌종양을 의심하고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반면 머리카락을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거나 머리를 눌러서 아픈 경우, 머리가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아픈 경우, 그냥 머리가 묵직하고 기분 나쁘게 아프지만 직장에서 일은 할 수 있는 경우, 두통 외에도 팔다리가 쑤시고 어지럽고 다양한 증상들이 같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뇌 정밀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03.txt

제목: [숨가쁜 신경외과 진료실] 뇌 정밀검사, 누가, 언제 받아야 할까  
날짜: 2015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1201052539593  
본문: 박익성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뇌졸중센터장<br/>신경외과 외래를 찾는 사람 중에는 팔ㆍ다리 마비나 언어장애, 시력저하 등 뚜렷한 장애가 있는 경우도 적지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즉 자신이 느끼는 증상이 큰병이 아닐까 해서, 뇌질환으로 고생하는 지인들이 경험한 증상과 비슷해서, 언론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판단한 결과 머리 혈관이 터지거나 신경이 끊어질 것 같아서 등 자신이 먼저 진단을 내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이 아주 많다. 뇌에 발생하는 질환이어서 후유증이 심각하고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아주 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큰 것이다.<br/><br/>뇌질환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뇌졸중은 심근경색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데다 암에 이어 사망률 2위이므로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뇌졸중의 대표적 원인은 장기간에 걸쳐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다. 뇌졸중은 가족력도 있어 직계가족 중 2인 이상이 뇌졸중의 병력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최소 10년 이상 되었는데 신경 써서 관리를 안 했거나 약 복용을 하지 않고 지냈다면 이미 여러 혈관이 손상 된 것으로 생각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심장 전문의나 뇌졸중 전문의의 진료 후 적절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br/><br/>뇌졸중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잘 발생하는 퇴행성 혈관질환이므로 발병 전 관리와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다. 뇌졸중의 위험요인인 성인질환을 가진 환자가 만일 가벼운 마비 증세나 활동할 때 심해지는 어지러움증, 극심한 뒷목 통증 등을 호소하면 뇌졸중 전구증상을 의심하고 뇌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br/><br/>뇌졸중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뇌질환인 뇌종양은 머리 안에 혹이 생겨서 뇌 신경을 압박하거나 손상을 주어 증상이 나타난다. 뇌종양은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악성 종양인 경우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지 뇌종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T나 MRI 검사를 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 추천되지는 않는다. 또 뇌졸중과 다르게 그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지 않아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는지 미리 알 수도 없다. 뇌종양에 의한 증상은 대부분 천천히 진행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다가 오후가 되면 좋아지고, 이러한 두통이 2~3주 이상 지속되며 두통의 강도가 심해지면 뇌종양에 의한 뇌압상승 증상이므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br/><br/>뇌 안의 시신경이 뇌종양에 의해 압박되면 눈이 점점 안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탓으로 처음에는 안과를 찾았다가 신경외과로 의뢰되어 오는 환자도 많다. 여성의 경우 무월경, 유즙분비를 초래하는 뇌종양도 있다. 팔ㆍ다리 어느 한쪽이 천천히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말을 하려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잘 안 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뇌종양을 의심하고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반면 머리카락을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거나 머리를 눌러서 아픈 경우, 머리가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아픈 경우, 그냥 머리가 묵직하고 기분 나쁘게 아프지만 직장에서 일은 할 수 있는 경우, 두통 외에도 팔다리가 쑤시고 어지럽고 다양한 증상들이 같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뇌 정밀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04.txt

제목: 온라인 보험 쇼핑몰 공식 운영 시작  
날짜: 2015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5218447  
본문: 온라인 보험 쇼핑몰이 드디어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br/> <br/>생명·손해 보험협회는 30일부터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 웹사이트가 공식 운영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다모아는 23일부터 시험 운영돼왔다.<br/> <br/>보험다모아는 생명보험사 20곳, 손해보험사 13곳이 참여했다. 상품별로는 단독실손(25개), 자동차(11개), 여행자(9개), 연금(35개), 보장성(94개), 저축성(43개) 보험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6종의 217개 상품이 올라있다.<br/> <br/>하지만 내년 1월 일부 보험사들이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 중이어서 등록 상품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br/> <br/>보험다모아는 보험료와 보장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다. '온라인 가입'을 누르고 체결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br/> <br/>협회는 앞으로 인터넷 포털에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암보험과 어린이보험 상품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br/><br/><br/>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05.txt

제목: [삶과 문화] 나이 듦에 관하여  
날짜: 2015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800109  
본문: 며칠 전 마흔세 번째 생일이 지났다. 이십 대에 사십 대의 내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은 육십 대의 내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겠다. 그래도 이것만은 안다. 지금의 내가 어이없을 정도로 이십 년 전의 나와 똑같은 것처럼, 이십 년 후에도 사십 년 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는 사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먹어간다는 생각이 든다.<br/>어릴 땐 1960년대 옛 가요를 흥얼거리는 어른들을 보며 저 나이가 되면 저런 노래가 좋아지나보다 짐작했다. 잘못 짚었다. 그 분은 변한 게 아니었다.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를 아직까지 쭉 좋아하고 있을 뿐이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다. 사람이 어디 그리 쉽게 변하던가. 노년의 삶은 자주 몰이해 당하거나 오해 받는다. 그럼에도 그 세계를 예습하려드는 젊은이는 없다. 그 미지의 세계를 염탐하는 자세로 나는 일본 그림책 작가 사노 요코가 노년에 쓴 에세이 두 권을 읽기 시작했다.<br/>사노 요코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아저씨 우산’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에서였다. 그 책은 아주 멋진 우산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남자가 날렵하고 반짝이는 검은 우산을 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아까워서. 그토록 사랑하는 우산이 젖어버릴까 두려워하던 남자가 처음 우산을 펴서 빗속으로 한 발 나서는 이야기를 이 작가는 산뜻한 그림체와 담담한 플롯으로 형상화해냈다. 제 안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세상을 향해 빼꼼 고개를 내민 중년 사내의 모습은, 한 인간의 성장이란 일평생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말을 새삼 일깨운다.<br/>사노의 연보는 이렇다. ‘1938년 태어나 2010년 72세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작가가 노년의 삶에 대해 쓴 에세이집의 한국어판 제목은 각각 ‘사는 게 뭐라고’와 ‘죽는 게 뭐라고’다. 인생 후반기에 병마와 싸우며 혼자 살았던 이 작가가 얼마나 겸허하고 성찰적 태도로 세상과 이별을 고했을까 궁금했다. 그러나 나는 또 한 번 잘못 짚었다. 겸허한 성찰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책 안에는, 암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평소 멋지다고 여기던 수입차를 덜컥 계약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서 ‘내 마지막 물욕이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욕망이 있었다.<br/>평생 작가로 살아온 그녀의 일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노인에 대해 가지는 통념과 거리가 멀다. 여성노인에게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일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평생 가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헌신해온 어머니, 등허리가 굽고 머리칼이 희어지고 나서도 불철주야 자식 잘 되기만을 축원하는 할머니 대신, 그녀는 끝까지 한 명의 독립적인 개인이었다. 평생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온 직업인이었으며, 누군가의 친한 친구였고, 스스로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자급자족하는 원칙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 인간이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활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권을 가진 완벽한 개인.<br/>암 투병을 하면서도 작가는 여전히 운동하기 싫어하고, 친구들과 삐졌다 풀어졌다 하며, 멋진 배우와 의사를 몰래 사모한다. 삶에 대해, 스스로에 대해, 투명하고 솔직했다. 어쩌면 각종 사회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노년기야말로 ‘진짜 내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귀한 시간임을 잘 보여준다. 노인이 된다고 한 사람이 극적으로 바뀔 리 있겠는가. 인간은 여전히 우스꽝스럽고 서글프고 고독한 존재일 테고, 매일매일 소소히 상처받고 소소히 행복해하면서 조금씩 변해갈 것이다. 어떻게 죽는가는 결국 어떻게 늙는가, 혹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일지 모른다.<br/>이 작가의 결론은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다.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꽃 한송이의 생명조차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아는 것이라고는 나 자신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죽는다는 사실이다.’ 이미 세상을 뜬 한 인간의 정직한 고백이 유난히 가슴에 와 닿는 계절이다.<br/>정이현 소설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06.txt

제목: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직업병 보상 착수  
날짜: 2015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805329  
본문: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보상작업에 들어간다.<br/>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25일 암 발병 빈도나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이며 암의 발생 원인 자체가 복잡해 작업장과 발암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회사 차원의 포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검증위원장인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렸다면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증위 판단"이라고 말했다.<br/>위원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경기 이천 및 충북 청주공장은 모든 산업의 전체 근로자들보다 갑상선암, 뇌종양, 백혈병 발병률이 남성은 1.2~2.6배, 여성은 0.2~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 내 쓰이는 발암 물질도 아르신, 황산 등 18종이 확인됐다. <br/>SK하이닉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검증위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꾸려 전ㆍ현직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 등 100여명에 대한 보상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br/>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백혈병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검증위를 구성해 청주와 이천의 가장 오래된 생산시설을 1년간 조사하도록 했다.<br/><br/>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07.txt

제목: SK하이닉스 반도체 작업장과 직업병의 인과관계 확인 불가  
날짜: 2015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801914  
본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근로자들의 백혈병 등 직업병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들의 진단결과가 나왔다. <br/> <br/>검증결과 반도체 작업장과 발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br/> <br/>하지만 이들 외부 전문가들은 인과관계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SK하이닉스가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발병자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유했다.<br/> <br/>SK하이닉스는 검증위 제안을 받아들여 사내 위원회를 구성, 직업병 의심사례로 나타난 전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br/> <br/>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는 25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간 진행한 SK하이닉스 작업장 산업보건 실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br/> <br/>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장 내 직업병 관련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회사와 독립적으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증위는 이후 1년 간 작업환경 실태 및 직업병 의심사례 조사 등을 포함한 산업보건진단을 실시했다.<br/> <br/>검증위 조사 결과 지난 2010∼2014년 암으로 병가를 신청한 SK하이닉스 근로자는 모두 108명. 이 중 갑상선암이 전체의 56.5%(6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종양(10.2%), 위암(9.3%), 유방암(8.3%) 등의 순이었다.<br/> <br/>백혈병 등 조혈기계 암은 4.6%였다.<br/> <br/>검증위는 SK하이닉스 근로자들의 갑상선암 발생 확률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남성은 2.6배, 여성은 1.3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br/> <br/>피부염과 방광염 발병률, 자연유산율 역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br/> <br/>그러나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거론된 뇌종양이나 백혈병, 남성 비호지킨림프종 등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br/> <br/>검증위는 "암이나 발생률이 극히 낮은 희귀질환들은 인과관계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웠다"면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상당한 수준의 노출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직업병 관련 논란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r/><br/><br/>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08.txt

제목: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2015 한국PR대상 '최우수상' 수상  
날짜: 2015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611577  
본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여성의 몸과 마음을 잘 아는 병원, 이대여성암병원 브랜드 차별화 프로젝트'로 한국PR협회에서 주최하는 '2015 한국PR대상'에서 종합병원 최초로 이미지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br/> <br/>이미지 PR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대여성암병원 브랜드 차별화 프로젝트'는 치열해진 의료 시장의 경쟁 속에서 이화의료원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시작되었다. 1887년 국내 최초 여성병원인 보구여관(保救女館)을 전신으로 하는 이화의료원은 우수한 여성 질환 전문 인력을 보유한 차별화된 자산과 여성의 평균 수명 증가로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여성암 분야를 특화․육성하게 되었다.<br/> <br/>이대여성암병원은 검진부터 진료, 환자 케어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암 환자에 특화된 서비스를 시행했다. 먼저 여성의 '몸'을 잘 아는 병원으로 거듭나고자 여성암 전문 인력 충원 및 최첨단 장비 도입은 물론,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여성 전문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했으며, 국내 최초로 여성암 환자 전용 레이디병동을 운영하며 여성친화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br/> <br/>이대여성암병원 백남선 원장은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는 보구여관 정신을 계승하여 여성암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여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대여성암병원은 국내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서 여성암 환자에서 더 나아가 모든 여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09.txt

제목: 흡연폐해 정부 실험실 25일 첫 개소  
날짜: 2015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613693  
본문: 담배의 성분을 분석해 중독성과 위해성 여부를 찾아내는 정부 차원의 실험실이 처음으로 문을 연다.<br/> <br/>2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5일 충북 오송의 본부 건물 내에 흡연폐해 실험실이 개소된다.<br/> <br/>실험실은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첨가물 포함)과 연기 등의 배출물을 분석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알아보는 역할을 한다.<br/> <br/>담배에 니코틴, 타르, 암모니아, 흡습성물질 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또 멘솔, 당류 등 중독성을 강화하는 첨가물질은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분석한다.<br/> <br/>아울러 담배 연기에 어떤 성분이 검출되는지, 연기가 사람의 몸과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한편, 혈액, 소변, 모발 등 인체 시료나 먼지 같은 환경시료에 담배연기를 노출해 어느 정도 위해성이 발생하는지 살펴본다.<br/> <br/>실험동물과 동물 세포를 활용해 담배 연기가 암, 심혈관질환, 감염성 질환, 성장발달장애, 중독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도 이 실험실의 역할이다.<br/> <br/>실험실 연구 결과물은 향후 금연 정책 수립과 담배회사 대상 소송의 증거 등으로 활용된다.<br/> <br/>담배회사가 인위적으로 첨가물을 넣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br/> <br/>흡연폐해 실험실은 1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며 연기표집장치, 스모킹 머신 등 실험 장비를 갖췄다. 올해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br/> <br/>질본은 이 실험실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받도록 연구 역량을 키우는 한편 전세계의 비슷한 연구소들이 모인 국제보건기구(WHO)의 담배연구소네트워크(TobLabNet) 가입도 추진할 방침이다.<br/><br/><br/>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10.txt

제목: 이화여대, 새 병원 착공식 가져  
날짜: 2015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611209  
본문: 이화여자대학교가 23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새 병원 및 의과대학 착공식을 가졌다.<br/> <br/>강서구 내발산동 신축 현장에서 열린 이번 착공식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윤후정 명예총장과 학교법인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 이화여자대학교 최경희 총장과 김승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동창, 기부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새 병원 및 의과대학의 착공을 축하했다.<br/> <br/>이화의료원 새 병원은 지하 5층과 지상 10층의 1,036병상 규모다. 의과대학은 지하 5층, 지상 12층으로 건립되며 대림산업주식회사가 시공을 맡아 2018년 하반기 준공된다.<br/> <br/>이번에 착공하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새 병원은 대한민국 병원의 기존 진료 시스템과 의료 문화를 바꿀 새로운 환자 중심 병원으로 건립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 환경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기준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로 설계되었으며, 완벽한 감염 관리를 위해 공조 시스템이 분리된 호흡기 내과 병동과 음압 격리 병동 및 응급의료센터내 음압 격리실, 병동 내 별도 면회실 등이 설치된다.<br/> <br/>아울러 암과 심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난이도 중증질환을 특화 육성하며, 첨단 국제진료센터와 프리미엄 건강증진센터 운영, 당일 진료 및 검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외국인 전용 원무 창고 개설 등을 통해 국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br/> <br/>새 병원과 함께 신축되는 의과대학은 첨단 영상 회의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실과 동시통역 시설을 완비한 강당과 최신 기숙사 등 최고의 교육 연구 시설로 지어져 미래 의학을 선도할 여성 의학자와 의사를 양성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여자 의과대학으로서 여성 의료인 육성에 앞장서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국내 의학 발전과 국제 의학 교류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br/> <br/>최경희 총장은 기념사에서 "새 병원과 의과대학 건립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시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 진료 시스템을 갖춰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라는 비전 실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11.txt

제목: [왕태석의 빛으로 쓴 편지] 선사(先史)의 선물 반구대 암각화  
날짜: 20151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622077  
본문: 울산 태화강 상류 대곡천변 암벽에는 7,000년 전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반구대(盤龜臺)암각화(국보 285호)가 자리 잡고 있다. 깎아지른 듯 높은 절벽아래 고래, 거북, 호랑이, 멧돼지 등 동물들과 작살, 그물 등 수렵도구, 그리고 사람들 얼굴과 전신상이 새겨져 있어 그 당시 생활상을 한눈에 짐작해 볼 수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1970년 발견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상류지역 댐의 방류로 침수와 노출이 반복돼 훼손이 가속화됐고 울산시의 식수 확보와 문화재 보존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물에 잠겨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 암각화 주변에 투명 물막이(카이네틱 댐) 설치를 연구 중이다. 201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반구대 암각화가 훼손 없는 원형 보존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길 바란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br/>멀티미디어부 차장 kingwa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12.txt

제목: 전립선암 사망률 30년간 10배나 껑충  
날짜: 2015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542901  
본문: 임달오 공주대 교수팀 연구결과<br/>여성 췌장암 사망률 4배 최고 증가<br/>남녀 모두 위암 사망률은 73% 줄어<br/>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 간 사망률이 가장 증가한 암은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10배), 여성은 췌장암(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률 감소폭이 가장 큰 암은 남녀 모두 위암이었다.<br/> 임달오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팀은 1983~2012년 국내 13개 주요 암 사망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암 역학(Cancer Epidemiology)’ 12월호에 실렸다.<br/>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1983년 당시 남성이 위암(83.5명), 간암(48.6명), 폐암(18.4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여성은 위암(23.1명), 간암(8.0명), 자궁암(7.2명) 순이었다. 하지만 30년 후인 2012년에는 남성이 폐암(44.4명), 간암(34.0명), 위암(22.4명) 등으로, 여성도 폐암(16.5명), 대장암(14.0명), 위암(13.0명) 등으로 순위가 바뀌었다.<br/>연구팀의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이 30년간 10.5배가 늘어 암 사망 증가율 1위를 기록했고, 대장암(3.7배), 췌장암(2.9배)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여성은 췌장암(4.0배), 비호치킨림프종(3.4배), 뇌암(3.1배) 등의 순으로 암 사망 증가율이 높았다. 연구팀은 전립선암 사망률의 급증 요인으로 비만, 지방섭취, 운동부족 등을 꼽았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0'>전립선암은 개발도상국은 증가하고 더 풍족한 국가는 감소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에서는 2002년 이후부터 조기 검진과 관리 개선으로 전립선암 사망률이 낮아졌다</span>”고 설명했다. 대장암과 췌장암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서구형 식사, 과체중, 운동부족, 흡연 등이 꼽혔다. 췌장암의 경우 1994년까지 늘어나다 흡연율이 떨어지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br/>반면 암 사망 감소율은 남성이 위암(-73.2%), 간암(-30.0%), 식도암(-26.8%) 등의 순으로, 여성은 위암(-73.3%), 간암(-16.8%), 식도암(-63.0%), 자궁암(-56.8%) 등의 순이었다. 이런 암 사망 감소율에는 조기 검진 증가와 생활습관 개선 등의 예방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남녀 모두 비호치킨림프종만 지속적으로 늘어났을 뿐 췌장암과 전립선암, 대장암 등의 증가 폭은 크게 낮아졌다.<br/>임 교수는 “<span class='quot0'>1983년 이후 30년간 국내 암 사망 추이는 전통적인 한국형 암인 위암, 식도암, 간암, 자궁암 등이 줄어들고, 서구형 암인 전립선암, 비호치킨림프종,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등이 크게 늘어나는 양상이었다</span>”고 말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13.txt

제목: 췌장암 검진율 3%에 불과…갑자기 몸무게 줄면 의심을  
날짜: 2015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434688  
본문: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국내에서 8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췌장암 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자의 80%가 수술이 불가능해졌을 때 진단을 받고 있다.<br/><br/>한국임상암학회(이사장 정현철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세계 췌장암의 날’(11월 13일)을 맞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서울 및 6대 광역시 거주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검진율이 가장 높은 암은 위암으로 48.3%였다. <br/><br/> 또한, ‘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암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8%만이 췌장암을 꼽았다. 위암(38.1%), 폐암(14.8%), 유방암(13.1%), 간암(11.9%), 대장암(9.3%), 자궁암(5.7%), 갑상샘암(2.9%)에 이은 8위였다.<br/><br/>췌장암 검진율이 낮은 것은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췌장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중이 빠지는 것이 고작이다. 게다가 영상검사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명치 끝과 배꼽 사이 간ㆍ위ㆍ소장ㆍ십이지장이 인접한 위치에 깊숙이 있어서다. <br/><br/>환자의 80% 정도는 수술이 불가능해졌을 때 진단을 받는다. 현재 췌장암 검진법인 혈청표지자검사(CA19-9)의 민감도(병이 있는 것을 있다고 감별하는 능력)가 높지 않은 것도 조기진단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복부 초음파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br/><br/>그렇다고 췌장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아무 이유 없이 6개월간 평소 몸무게의 5% 이상이 빠졌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당뇨병 환자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의 2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만성 췌장염 환자도 췌장암 고위험군이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검사해 발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r/><br/>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췌장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촬영보다 3배 이상 세밀히 촬영해야 감별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기 진단이 되면 생존율이 높아진다. 병기별 생존율(보건복지부, 2012년 발표)에 따르면, 췌장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은 8.8%에 불과하지만 비교적 초기인 ‘국소 진행’ 병기에는 12.5%, ‘국한’ 병기에는 27.4%까지 상승한다. 국소 진행은 암이 췌장 외 주위 장기나 림프절을 약간 침범한 상태를, 국한은 암이 발생한 장기에 머문 상태를 말한다.<br/><br/>그렇지만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8.8%(2008~2012년 발생 기준)로 암 가운데 가장 낮다. 같은 기간 전체 암 평균 5년 생존율(68.1%)과 큰 격차를 보인다. 특히 전이성 췌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7%에 불과하다.<br/><br/>박준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췌장암의 완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span>”고 했다. 특히 최근 10년 만에 췌장암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입증된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가 개발돼 희망을 주고 있다. 해당 신약은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 사망위험을 28% 줄이고, 기존 치료법보다 췌장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br/>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br/><br/><췌장암 예방을 위한 수칙><br/>-금연, 특히 췌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필수<br/>-절주 고 알코올 함량 독주가 더 위험<br/>-비만 예방, 평소 표준체중 유지에 노력<br/>-운동, 적절한 운동은 모든 암 예방에 도움<br/>-과다한 육류, 고지방식, 가공식품 줄이기<br/>-현미ㆍ잡곡, 신선 채소, 다양한 과일 섭취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14.txt

제목: 환자 눈높이 서비스로 주목 받는 '치료 내시경의 리더'  
날짜: 2015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552347  
본문: 국내 치료 내시경 분야를 앞에서 이끌어온 고려대 안암병원이 환자 눈높이 행보로 다시 주목을 모으고 있다. 환자 대기 공간 확장 등 소화기센터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이은 복통 등 특화센터 추진 등이 그 사례들이다.<br/><br/>고려대 안암병원의 소화기 내과는 내시경 치료에서 전통적으로 두각을 보여 왔다. 1984년 조기 위ㆍ식도암에 대한 내시경 치료, 92년 난치성 위 정맥류에 대한 내시경 치료 세계 첫 고안, 2002년 장출혈 궤양과 염증성 장질환 등에 대한 캡슐내시경 첫 도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수술 시 절제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최소침습’ 치료가 내과 영역에서의 내시경 기술, 외과에서의 복강경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이라고 볼 때, 이 병원 소화기 내과의 역사가 곧 국내 최소침습의 역사라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닌 셈이다. <br/><br/>안암병원 소화기센터는 내시경과 관련한 세계적인 특허 수십 개를 보유 중이다. 내시경을 통해 병변 부위를 3차원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차세대 다광자현미경, 내시경으로 시술 시 절제 부위를 직접 꿰매는 봉합 기술 등이다. 이 병원 의료진이 임상 연구와 개발에 기울여 온 그동안의 열정의 정도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br/><br/>안암병원 소화기센터의 탄탄한 인맥의 뿌리는 현진해 전 고려대의무부총장 겸 병원장 등으로 거슬러 오른다. 현 전 의무부총장은 국내에 치료 내시경을 처음 소개한 인물. 현재 센터에는 20여 명의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이 포진해 있다. 간 질환의 류호상 엄순호 서연석 교수, 간과 췌담도의 김창덕, 이홍식 교수, 상하부 위장관 질환 및 내시경적 절제술 분야의 전훈재 진윤태 금보라 교수 등이다. 이들 전문의들은 분야별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국내 소화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 연구를 이끌어 오고 있다.<br/>소화기계는 위장관과 간, 췌담도, 대장으로 크게 나뉜다. 위장관에서 발생한 조기암은 내시경점막하박리술을 이용하면 배를 가르지 않고 내시경 시술만으로 암 완치가 가능하다. 안암병원 소화기센터는 점막에 국한된 조기 위암과 조기 대장암에 대해 앞선 치료내시경 기술과 임상경험을 토대로 최소침습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화기계의 양성 및 악성 종양에 대한 내시경적 절제술 뿐 아니라 점막하층과 근육층, 림프절이나 주변 장기까지 볼 수 있는 초음파내시경, 소장질환에 대한 캡슐 내시경 등 기술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br/><br/>간세포암에 대해서는 간절제술이나 간이식 뿐 아니라 경동맥방사선색전술(TARE), 간동맥주입 화학요법(HAI), 토모치료 같은 첨단치료를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br/><br/>담낭 및 담관 결석에 대해서는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과 경피담도배액술, 담석제거술 및 쇄석술 등을 시행한다. 초음파내시경과 미세탐침 담도초음파, 담도내시경을 이용해 담도의 미세 병변까지 진단해 내며, 담낭의 낭성종양이나 췌장의 가성낭종에 대한 내시경적 배액술을 시행, 비수술적 췌담도질환 치료술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br/><br/>내시경 치료에서 빛나는 전통을 세워 온 안암병원 소화기센터는 최근 들어서는 환자 눈높이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연초 진료실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신호탄이다. 외래 진료실을 4개에서 7개로 늘리면서 환자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 들었다. 초음파 검사실과 상하부장관 운동 검사실, 초음파 내시경실 등을 분리 배치해 효율성을 높이고, 1일 입원 시술 시스템을 완비해 입원 등 절차가 크게 간편해지고 빨라졌다는 후문이다.<br/><br/>안암병원의 환자친화 행보는 복통센터 설치, 난치성 질환인 염증성장질환에 대한 영양 평가 도입, 췌장암의 극심한 통증을 덜어 주는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도입 등 노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br/><br/>센터의 이런 변신 노력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급속한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려는 것이기도 하다. 이홍식 교수는 “<span class='quot0'>이제 병원들 간의 병을 진단하고 고치는 술기와 인적 수준 차이는 거의 없어졌다고 본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진료와 치료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냐가 핵심</span>”이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복통센터 설치 방안과 관련, “<span class='quot0'>환자들이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적절한 진료나 치료 못 받은 경우가 많음을 알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의사들이 환자들 호소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진단과정에도 환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했다.<br/>송강섭기자 ericsong@hankookilbo.com<br/><br/><br/>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센터의 진료실 모습.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15.txt

제목: 이화의료원 새 병원 신축 첫삽  
날짜: 2015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552148  
본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새 병원 및 의과대학 신축 착공식이 23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현장에서 열렸다.<br/> <br/>이날 착공식에는 윤후정 이화여대 명예총장과 장명수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과 김승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경효 의과대학장ㆍ의학전문대학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김영주 이화여대 총동창회장, 오혜숙 이화여대 의과대학 동창회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신기남 김성태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br/><br/>이화의료원 새 병원은 지하 5층~지상 10층의 1,036병상 규모, 의과대학은 지하 5층~지상 12층으로, 대림산업주식회사가 시공을 맡아 2018년 하반기 완공한다. <br/><br/>이화의료원 새 병원은 국내 진료 시스템과 의료 문화를 바꿀 환자 중심 병원으로 건립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 환경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기준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로 설계됐다. 완벽한 감염 관리를 위해 공조 시스템이 분리된 호흡기 내과 병동과 음압 격리 병동 및 응급의료센터 내 음압 격리실, 병동 내 별도 면회실 등이 설치된다. <br/><br/>암과 심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난이도 중증질환을 특화 육성하며, 첨단 국제진료센터, 프리미엄 건강증진센터 등도 들어선다. 당일 진료ㆍ검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와 외국인 전용 원무 창구 등 국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br/><br/>새 병원과 함께 신축되는 의과대학은 영상 회의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실과 동시통역 시설을 완비한 강당과 최신 기숙사 등 첨단 교육 연구 시설로 지어져, 미래 의학을 선도할 여성 의학자와 의사를 양성하고, 국제 의학 교류의 중심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br/>최경희 총장은 “<span class='quot0'>새 병원과 의과대학 건립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시작</span>”이라고 했다. 김승철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국내 최초의 기준 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 등 새로운 병실 환경과 국제 수준의 감염 관리 시스템을 갖춰 의료 문화를 선도할 것</span>”이라고 했다.<br/>송강섭기자 erics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16.txt

제목: "한국 남성 1위 위암, 조기 발견 땐 95% 이상 완치"  
날짜: 2015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549180  
본문: 위암은 한국 남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남성 위암 환자는 2만839명에 이른다. 여성 위암 환자는 남성의 절반인 1만여명 선으로,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에 이어 4위에 올라있다. 한국인이 왜 위암에 잘 걸리는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위암에서는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br/><br/>이주호 이대목동병원 외과교수(위암ㆍ대장암협진센터 위분과장)은 위암 조기진단의 중요성에 대해 “생존율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의 설명은 병기별 생존율 수치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위암 1기 생존율이 95%에 달하는 데 비해, 2기는 70~80%, 3기는 40~50%로 급속히 떨어진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위암은 발생은 잦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생존이 가능하다</span>”고 했다.<br/><br/>위암 4기는 암세포가 간 등 다른 장기로 전이돼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생존율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간 대장 복막 등으로 전이되면 수술로도 안 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외과 전문의들이 조기진단을 ‘제2의 예방’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pan>”고 말했다. 국내 위암의 5년 생존율이 71.5%에 이르지만, 전체 위암환자의 28.5%는 결국 사망하는 것이 현실이다. <br/><br/>동아시아인 높은 발생률은 염장문화 탓<br/>위암 발생은 인종과 유전의 영향을 받지만 환경 탓도 아주 크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 위암 환자가 많은 것은 염장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힘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젓갈류 등 염분이 많은 음식물이 변형되면 발암물질인 니트로스아민이 생겨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미국 하와이로 이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추적연구 결과, 일본 본토인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100이라면, 이민 1세대는 70, 이민2세대는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짜고 맵고, 가열한 음식을 즐기는 환경에서 반대 환경으로 이동한 것이 위암 발생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남성들은 술과 담배를 즐기고 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span>”고 했다.<br/>조기위암은 위 점막에서 발생된 암이 점막에 국한되거나, 점막을 넘었더라도 점막하층에 한정돼 있어 적절한 수술이 시행되면 95% 이상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암 검진의 보편화로 조기위암 환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암수술도 복강경이 전통적인 개복수술의 자리를 채워나가고 있다. 전통적인 개복수술에서는 25cm 정도 배를 크게 가른 뒤 림프절까지 넓게 절제했다. 반면 복강경 수술은 개복 없이 배 안으로 0.5~2㎝의 구멍을 3~5개 정도 뚫고 공기를 흡입, 부풀어진 뱃속에 카메라와 전자 메스, 집게 등 수술기구를 넣어 몸 밖에서 수술을 진행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조기위암은 암세포가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돼 위벽 침습이 깊지 않고 림프절 전이도 적어 개복을 하지 않고 복강경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도 빠르고 미용적 효과가 뛰어나 환자 만족도가 높다</span>”고 했다. <br/><br/>복강경 위암수술은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검증 받으며 현재 조기위암 수술의 표준치료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99년부터 조기 위암환자를 개복수술군과 복강경 위암수술군으로 나눠 장기 생존율과 폐, 심장 등 합병증 등을 추적한 결과, 개복수술과 차이가 없었다</span>”고 설명했다. <br/><br/>복강경 수술의 적응증은 관련 술기와 장비의 발달에 따라 조만간 진행성 위암으로까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이 교수는 내다본다. 진행성 위암은 조기위암과 달리 암세포가 점막하층을 지나 근육층 너머로까지 뚫고 들어 간 상태다. 이 경우 암이 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위 림프절은 물론 간 췌장 결장 비장, 폐, 뼈 등으로 원격전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한국복강경위장관연구회에서 진행형 위암환자에게 복강경 수술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2~3년 후 관련 유의한 결과가 발표되면 진행성 위암에도 복강경 수술이 시작될 것</span>”이라고 했다. <br/><br/>위암 환자의 증가세는 지속될까. 이 교수는 2020년 무렵부턴 위암 환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20세기 초 위암은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었지만 1950년대 냉장고가 대중적으로 보급된 후 30년이 지난 1980년대부터는 미국에서 사례를 보기 힘든 암이 됐다</span>”고 했다. 2012년 기준 위암은 미국에서 10대 암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도 1990년대 냉장고 보급이 완료된 만큼 미국처럼 30년이 경과한 2020년 무렵에는 위암환자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span>”고 전망했다. <br/> <br/>고령화로 위암환자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경계 대상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과거에는 50~50대 연령에서 위암환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많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수술기법이 발달해 고령이라 해도 장년층과 비교해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의료진이 수술을 권유하면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span>”고 했다. <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17.txt

제목: [건강 소식] 기침 알리는 ‘빨간 열쇠’ 캠페인 등  
날짜: 2015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551199  
본문: 기침 알리는 ‘빨간 열쇠’ 캠페인 진행<br/>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신동호)는 올해 말까지 기침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빨간 열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의 상징인 ‘빨간 열쇠’는 기침이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의미의 ‘열쇠’, 폐의 모습을 형상화한 열쇠 손잡이, ‘주의’를 뜻하는 빨간색을 결합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다. 학회는 30일까지 전국 병ㆍ의원 2,000여 곳에 ‘빨간 열쇠’ 캠페인 포스터 및 기침 바로 알기 리플렛을 무료로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br/><br/>이화의료원, 2015 한국PR대상 최우수상<br/>이화여대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이 ‘여성의 몸과 마음을 잘 아는 병원, 이대여성암병원 브랜드 차별화 프로젝트’로 ‘2015 한국PR대상’(한국PR협회 주관)에서 이미지 PR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검진부터 환자케어에 이르기까지 여성암 환자에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전문 건강증진센터와 여성 환자 전용 레이디병동 등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등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 받았다. <br/><br/>물에 타먹는 감기약 ‘타이롤핫’ 출시<br/>한미약품이 물에 타먹는 종합감기약 ‘타이롤핫 건조시럽’(사진)을 출시했다. 타이롤핫은 해열진통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과 코막힘을 해결하는 수도에페드린, 알러지 반응 억제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제)으로 구성돼, 발열 콧물 코막힘 두통 등 감기증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으로,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이 1일 2회, 1회 1포씩 복용하면 된다. <br/><br/>녹십자, 4가 독감백신 임상 승인<br/>녹십자는 세포배양 기술을 활용한 4가 독감백신 ‘GC3106’의 3상 임상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았다. 앞서 녹십자는 지난 4월 국내 제약사 최초로 식약처에 유정란 배양방식 4가 독감백신의 품목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4가 독감백신은 1978년 3가 독감백신이 소개된 이후 거의 40년 만에 한 단계 진화된 독감백신으로, 4종류의 독감 바이러스 면역력을 1회 접종으로 얻을 수 있다.<br/><br/>JW중외, 피부보호 필름 ‘필모겔’ 내놔<br/>JW중외제약은 구내염, 입술물집, 손발 등 피부 갈라짐에 간편하게 바르는 보호 필름 '필모겔 시리즈'(사진)를 내놨다. 필모겔 시리즈는 상처 부위에 직접 바르는 액상 제형의 점착성 필름 밴드다. 기존 상처치료제나 밴드 등의 단점이었던 외관상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했다. 구내염 등 입 속 염증에 바르는 ‘오라케어’, 헤르페스바이러스로 인해 발현되는 입술물집에 바르는 ‘리보오’, 손발 등 피부 갈라짐에 바르는 ‘크레바스’ 등 3가지 종류다.<br/><br/>차바이오텍, 알츠하이머병 임상 승인<br/>차바이오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태반줄기세포 유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CB-AC-02'의 임상 승인을 받았다. 이번 임상은 안전성과 잠재적 치료효과를 평가하는 1ㆍ2a상으로 23개월간 30명에게 정맥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지숙 차의과학대 바이오공학과 교수팀은 2013년 쥐에 태반 유래 줄기세포를 투여한 결과, 미로에서 길 찾는 능력의 개선과 함께 치매 유발 물질인 아밀로이드-베타 축적이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해 세계적인 학술지(‘Neurobiology of Aging')에 발표한 바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18.txt

제목: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134종 보험적용  
날짜: 2015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415688  
본문: 내년 1월부터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134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소토스증후군(대뇌성 거인증)의 유전자 검사의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비용 부담이 준다. <br/>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에는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질환)의 유전자검사 가운데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br/>이에 따라 소토스 증후군의 원인 유전자 중 하나인 NSD1 유전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 환자 부담이 1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준다. 급성 골수병 백혈병 BAALC 유전자 검사는 24만원에서 7,000원으로, 직결장암 NRAS 유전자 검사는 최대 40만원에서 8,000원으로 검사비용이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비용 문제로 적기에 검사를 받지 못해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적기에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 적용으로 연간 4만4,000여명의 중증환자가 87억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br/>한편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br/><br/>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19.txt

제목: 세계적 석학에게 듣는다 ‘한국인의 비만 해결’  
날짜: 2015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314328  
본문: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재단 자문위원회 의장, UCLA 인체 영양 센터 설립이사 데이비드 히버 박사 인터뷰<br/><br/>한국인의 비만인구가 늘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성인 비만 인구는 총 1,300만 명으로 이 중 고도 비만은 200만 명에 달하고, 소아청소년도 120만 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만이 한국이 직시한 사회적 질병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비만과 암 예방, 치료 목적의 영양분야의 세계적 석학 데이비드 히버 박사가 지난 10월 21일 방한했다.<br/>히버 박사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약 2,000명의 한국허벌라이프 회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뉴트리션 철학과 건강한 노화’를 주제로 ‘웰니스 투어’를 진행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 교수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단백질 식사대용 제품을 통한 체중 조절에 대한 발견’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데이비드 히버 박사는 고단백질 식단과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한 식사대용 제품의 체중 관리 및 유지 효과에 대한 폭넓은 연구 결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했으며, 교수 및 학생들 역시 고단백질 식단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br/>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 영양 학회(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내의 임상 영양 위원회(Medical Nutrition Council) 의장을 역임하고, 로이터 통신이 선정한 ‘2014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인 데이비드 히버 박사로부터 한국인들의 비만문제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개선방법을 들어봤다.<br/>Q. 뉴트리션 분야의 석학으로서 한국인의 식단에대해 말한다면?<br/>한국의 전통 식단은 된장, 채소 및 마늘과 고추 등 향신료를 사용한 매우 건강한 식단이었다. 예로부터 된장에 사용된 콩을 통해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뛰어난 품질의 단백질인 대두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다. 대두 단백질은 허벌라이프의 ‘Formula 1 Healthy Meal 건강한 식사’와 한국의 전통식단의 장점 일부분을 더욱 현대적이면서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형태로 다시 선보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허벌라이프 제품들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br/>Q. 과거와 달리 비만이 한국에도 찾아왔다. 현재의 한국의 식생활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문제인가?<br/>과도한 지방, 설탕과 소금이 많이 첨가된 패스트푸드의 도입이 가장 큰 문제다. 이전에 비해 한국인들의 식습관은 더욱 서구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br/>Q.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3가지를 말한다면?<br/>체지방 과다의 가장 문제점은 단순히 비만, 과체중뿐만 아니라 당뇨병, 신부전 및 심장병까지도 초래한다는 점이다.<br/>또한 유방암, 전립선암과 대장암 등 대다수의 암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시간 앉아있는 라이프스타일과 서구화된 식습관은 근육량 감소와 지방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현상은 중년층에서 특히 자주 나타나며, 서구적인 식단을 즐기는 젊은 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br/>또한 과체중에 따른 당뇨병인 ‘2형 당뇨병’은 ‘비만 당뇨’라고 불릴 정도로 체내 지방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체내 지방 증가는 췌장에 부담을 주며, 이로 인해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하여 혈당을 조절하려고 한다. 이 질환은 십 여 년을 걸쳐 천천히 악화되며 신부전증을 유발하고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br/>비만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로 당뇨병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인자들을 일컫는 ‘신진대사장애(Metabolic Syndrome)’가 있다. 허벌라이프는 여러 나라에 걸친 수많은 연구를 통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대용 제품을 활용한 자사 프로그램이 연구 대상의 2/3에 달하는 인원들의 신진대사장애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br/>허벌라이프 제품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단백질 식단보다 단백질이 풍부한 쉐이크와고단백 저지방 식단이 복부 지방 감소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중 1/3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진대사장애를 앓고 있으며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높은 복부 지방률을 보인다. 특히 외관상 날씬해 보이는 사람들도 내장 지방은 많을 수 있다.<br/>Q. 웰니스 투어에 대한 설명과 투어를 이끌게 된 이유나 배경이 있다면?<br/>아시아 지역 또한 비만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뉴트리션과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명한 과학자와 의사로 구성된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자문위원회(Nutrition Advisory Board, NAB)의 위원 다섯 명이 아시아 태평양 14개국에 방문하여 ‘변화의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수천 명의 허벌라이프 회원들에게 뉴트리션 교육을 제공했다.<br/>Q. 웰니스 투어에서 논의되는 웰빙 향상에 도움이 되는 라이프스타일 개선방법의 공통점,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br/>허벌라이프 쉐이크 제품을 활용해 매 식사마다 단백질은 적절하게, 몸에 해로운 지방은 적게 섭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의 일환으로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resistance exercise)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하는 것이 이번 웰니스 투어의 핵심이다. 또한 20대 및 3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만큼, ‘건강한 노화’에 대해서도 전한다. 허벌라이프는 체중 조절과 근육 건강유지를 넘어 자사 뉴트리션 제품을 통해 웰니스(Wellness)와 신체 전반이 건강하게 노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방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원들이 소비자들과 친근한 관계를 토대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는 허벌라이프에서 진행하는 모든 회원 대상 트레이닝에서 강조하는 점이기도 하다.<br/>Q. 박사가 강조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장기적인 체중조절의 주안점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실천리스트가 있다면?<br/>매일 아침 식사로 ‘Formula 1 Healthy Meal 건강한 식사’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침 식사는 하루 세 끼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아침 식사는 아침시간 동안 공복을 인내하는데 도움을 주며,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체중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는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걷기, 자전거, 러닝 및 다양한 스포츠 등 야외 활동뿐만 아니라 유산소와 저항 운동을 비롯해 30분에서 45분 정도 매일 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동반된 운동을 습관화 하는 것은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일상화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br/>Q. 믿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사라지고 있다. 좋은 뉴트리션과 양질의 단백질이란 무엇인가?<br/>허벌라이프 제품은 종자에서부터 완제품까지 각각의 생산과정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행하는 ‘종자에서 제품까지(Seed to Feed)’ 전략을 취하고 있다. 상품 성분과 성분 표시 라벨에 적힌 내용은 언제나 일치하며 허벌라이프는 성분 배합부터 검사, 운송 중 온도 및 습도 관리, 시판 후 분석을 위한 제품 샘플 보유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탁월한 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br/>좋은 뉴트리션이란 허벌라이프의 ‘글로벌 뉴트리션 철학’에 따라 과학에 기반한 품질과 다양한 영양소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뜻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영양소로는 적정량의 단백질, 탄수화물, 필수지방, 식이섬유, 수분,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식물 영양소 등이다. 한편, 허벌라이프 제품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백질은 식물계에서 가장 고품질 단백질인 대두 단백질이다.<br/>Q. 박사가 생각하는 허벌라이프 제품의 특징과 소비자들이 신뢰할 만한 요소는 무엇인가?<br/>허벌라이프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제품들의 사용 용도를 ‘글로벌 뉴트리션 철학’에 준거한 뉴트리션 기준에 철저히 맞췄다는 점이다. 성분표시 라벨에 표기된 내용들은 모두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뉴트리션이며, 허벌라이프의 탁월한 품질 관리 절차는 뛰어난 제품력의 근간이다.<br/>Q. 끝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br/>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까운 지인 및 가족들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거나 건강하지 않은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할 경우, 본인 또한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될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이에 허벌라이프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Changing People’s Lives)’라는 비전 하에 사람들이 뉴트리션과 건강에 대해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뉴트리션 클럽(Nutrition Club)’을 운영하고 있다.<br/>허벌라이프 회원들이 운영하는 ‘뉴트리션 클럽’은 뛰어난 뉴트리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럽에 모인 다른 이들과 문화 및 사교 활동을 통한 소속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다.<br/>현재 전 세계에는 10만 개 이상의 뉴트리션 클럽이 운영 중이며, 한국은 그 중에서도 뉴트리션클럽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다.<br/><br/>데이비드 히버 박사 주요 약력<br/>■ 2014년 로이터 통신 선정 ‘2014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br/>■ 2013년 미국 영양 학회 선임 연구원<br/>■ 2005년~ 현재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인스티튜트 의장<br/>■ 2005년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자문위원회 합류<br/>■ 1996년 UCLA 휴먼 뉴트리션 센터 소장<br/>■ 1978년~ 현재 UCLA 의대 교수 / UCLA 임상 연구팀 책임자 / 미국 최고 의사상 수상 / 미국 인명사전 수록<br/>■ 1978년 캘리포티아 주립대학 생리학 박사<br/>■ 1973년 하버드 의대 석사<br/>■ 1969년 UCLA 화학과 졸업<br/><br/>뷰티한국 뉴스팀 beauty@beautyhankook.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20.txt

제목: 갑을장유병원, 전국 4대 병원과 핫라인  
날짜: 2015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238318  
본문: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이사장 박한상)의 갑을장유병원이 전국 4대 병원과 진료 협력병원 조인식 체결을 완료, 김해지역의 의료서비스 강화하고 보건의료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게 됐다.<br/>김해시 장유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갑을장유병원은 최근 서울아산병원과 의학정보교류, 의료 기술지원을 협력하는 등 진료의뢰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br/>이로써 갑을장유병원은 김해지역 병원 최초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까지 전국 4대 주요 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br/>2011년 갑을상사그룹 갑을의료재단 소속병원으로 편입된 갑을장유병원은 경상도 내 권역응급의료 지역센터의 하나로 응급의학전문의가 24시간 상주,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 <br/>병원 측은 인공관절전문센터를 비롯한 척추디스크 전문센터, 미세접합전문센터, 스포츠외상전문센터 등 외상전문센터 및 내시경전문센터, 종합검진센터 및 인공신장센터를 개설, 2013년 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표창과 지난해 암검진 우수종합병원으로 선정됐다.<br/>박한상 갑을의료재단 이사장은 “<span class='quot0'>대형병원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김해지역 중증 응급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중대질환에 대해 수도권 유명 병원 수준의 병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한편 2010년 갑을의료재단(갑을장유병원, 갑을녹산병원, 갑을구미병원 운영)을 설립한 갑을상사그룹(CEO 박효상)은 섬유제조업으로 출발, 국내 섬유산업을 이끌어 오다가 90년대 들어 자동차 부품 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철강, 전선, 건설, 환경, 의료부문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했으며 현재 20여개 계열사 중 동국실업과 갑을오토텍 등 자동차부품부문 기업이 그룹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21.txt

제목: [영상]무슬림의 IS 테러반대 목소리 담은 동영상 확산  
날짜: 20151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4223328  
본문: “<span class='quot0'>독일 국민 모두가 히틀러의 만행을 비난하듯,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들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span>”<br/>파리 테러 발생 사흘 만인 지난 16일, 파키스탄 무슬림 청년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테러 규탄’ 영상에는 반전주의자였던 존 레넌이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쓴 곡 ‘이매진’이 내내 흘러 나온다. 다섯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레넌의 노래 소리와 겹치며 “무슬림은 테러리즘의 가장 큰 희생양”이라는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br/>청년들은 “우리 무슬림도 지금 세계인들이 느끼는 것처럼 극단주의자들의 만행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다”며 “이 영상을 최대한 많은 유럽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달라”고 말한다. 이들은 “히틀러의 만행을 독일인 모두가 인정하듯, 무슬림 모두의 의식이 극단주의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테러리즘에 시달리는 상위 10개 국가 중 8개가 이슬람 국가인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페샤와르학교 테러로 어린이 130여명 등 총 150명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들며 “파키스탄에서 이러한 테러는 일상과도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게재 나흘 만인 19일 300만회가 넘어섰다.<br/>파리 테러 이후 반(反) 이슬람 정서가 급속도로 퍼져가는 가운데, 무슬림들이 테러리즘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고 BBC가 18일 보도했다. 특히 이들은 ‘무슬림은 곧 잠재적 극단주의자’라는 의식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중이다.<br/><br/><br/><br/><br/>17일 한 무슬림 남성이 프랑스 파리의 르 리퍼블리크 거리에서 벌인 ‘프리 허그’ 영상도 게재 사흘 만에 1,700만건이 넘는 시청 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렸다. 손수건으로 두 눈을 가린 채 이 거리에 선 청년의 발 끝에는 ‘나는 무슬림 입니다. 나를 믿는다면, 부디 저를 안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한 백발 노인의 포옹을 시작으로 길을 지나던 현지인들은 차례로 그의 등을 두드리며 울음을 터뜨린다. 한참이 지나서야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푼 청년은 “나는 무슬림이지만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나와 무슬림들을 믿어주세요”라고 말한다. <br/>싱가포르 무슬람 남성이 ‘이슬람과 이슬람국가(IS)를 하나로 연결 짓지 말아달라’며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도 4만2,000번 이상 공유됐다. 그는 “극단주의를 품고 테러를 자행하는 이들은 무슬림 중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며 “특히 IS는 무슬림의 심장을 해하는 암 같은 존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무슬림은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경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br/><br/>‘내 이름으로는 안 돼’(#NotInMyName)라는 해시태그는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물결처럼 번지고 있다. IS가 파리 테러를 이슬람 유일신인 알라의 뜻에 따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이슬람의 이름으로 테러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규탄한다는 의미다. <br/>히잡을 쓴 채 ‘내 이름으로는 안 돼’ 문구가 쓰인 스케치북을 가슴에 든 여성의 사진을 게재한 한 무슬림 여성은 트위터에 “나는 자신들이 무슬림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와 테러 공격을 반대한다”며 “내 이름으로 테러리즘을 저지르지 말라”고 촉구했다. <br/>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22.txt

제목: 한 쪽 음낭이 점점 커져 주먹만하게 만져집니다  
날짜: 2015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3922808  
본문: 한 쪽 음낭이 점점 커져 주먹만하게 만져집니다. 이상이 생긴 걸까요?<br/> <br/> <br/>질문에 대해 한 번에 떠오르는 질병은 '음낭수종' 혹은 '고환암' 정도가 떠오릅니다. 만약 통증이나 열감이 있으며 며칠 사이에 갑자기 악화가 되었다면 고환이나 부고환의 염증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 등 다른 증상이 더 심하여 고환이 주먹만 해 질 정도까지 견디는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br/> <br/> 이런 이유로 병원을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질병이 음낭수종인데, 말 그대로 음낭에 물로 이루어진 종괴가 생기는 병입니다. 고환은 그 바깥에 한 겹의 막으로 덮여 있고, 이 막과 고환 사이에는 항상 약간의 액체가 고여 있습니다. 그 액체는 생성과 배출이 균형을 이루어 항상 일정한 양을 유지 합니다. 이 균형에 이상이 생기면 액체의 양이 점점 불어나서 음낭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보통 통증도 없고 천천히 커지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처럼 어른 주먹만큼 커 진 후에야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런 경우엔 음낭에 플래쉬 빛을 대 보면 내부가 투명하게 조영되어 보이므로 어느 정도 짐작 할 수 있습니다.<br/> <br/>고환이 커 진 경우에는 고환암도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고환암은 암 자체가 매우 빨리 자라는 질환이라 한 두 달 사이에 고환이 급격히 커지는걸 느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나 통증도 없기 때문에 증상이 음낭수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br/> <br/> 드물게는 서혜부탈장이 생긴 경우 탈장 주머니가 음낭까지 내려와서 음낭이 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에 힘들 주어 복압을 높이면 더 커지고, 누워있으면 작아지는 등 상황에 따라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변화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br/> <br/> 보통 초음파 검사 등으로 내부의 모양을 확인 합니다. 내부에 물이 차 있으면 음낭수종으로 판단 하고, 고환과 비슷한 형태로 채워져 있으면 고환암으로, 탈장성분이면 탈장으로 판단하여 치료합니다. 치료는 모두 수술로 교정을 하든가 제거 하야 하는데, 어떤 진단을 받더라도 큰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이 아닌 치료법이 없으므로, 고민 없이 수술을 진행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br/> <br/>이영훈 원장은 비뇨기과 전문의로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23.txt

제목: [단독]보안 뻥 뚫린 다음메일… 해킹 땐 속수무책  
날짜: 2015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3817712  
본문: 구글 투명성보고서<br/>“<span class='quot0'>다음ㆍ네이트 메일 보안 수준 0%</span>”<br/>국제 표준 보안 기술 적용 안 해<br/>암호화 안 된 상태로 메일 전송<br/><br/><br/>국내에서 3,800만명이 이용하는 다음 메일(한메일)이 해킹 위험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일을 보낼 때 암호화를 하지 않아 해커들이 내용을 훔쳐 볼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br/>16일 세계 최대 인터넷업체 구글의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 메일(hanmail.net, daum.net) 계정으로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 보안 수준이 0%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1년에 두 차례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해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및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 저작권자의 검색 결과 삭제 요청 건수와 처리 결과 등을 공개한다. 여기에 전세계 지메일 이용자들과 주고 받는 이메일 서비스 업체별 보안 수준도 수치화해서 발표하고 있다.<br/>구글에 따르면 미국의 아마존(amazon.com), 페이스북(facebook.com), 트위터(twitter.com), 야후(yahoo.com) 등은 모두 보안 수준이 100% 이거나 99.9%다. 이는 해당 계정과 지메일 이용자가 주고 받는 메일 1만개 가운데 암호화되지 않아 해킹 위험이 있는 이메일이 아예 없거나 1개뿐이라는 뜻이다. 지메일끼리 주고 받을 경우 보안 상태 역시 100%이다.<br/><br/><br/>반면 다음 메일은 보안 수준이 0%로 나온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 메일 역시 보안 상태가 0%였다. 네이버 메일은 100%로 나타났다. 또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상위 10개 이메일 서비스도 중국 텐센트의 큐큐닷컴(qq.com) 등 2, 3개를 제외하면 보안 수준이 5% 미만에 불과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br/>이처럼 다음을 비롯한 일부 서비스 업체들의 이메일이 보안에 취약한 이유는 전송 시 암호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국제 표준 방식인 전송계층 보안(TLS) 기술을 서버에 적용하지 않아서 다른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낼 때 전혀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전달한다. 편지를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것과 같은 원리다.<br/>이렇게 되면 해커가 중간에서 이메일을 가로채 손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 측은 “<span class='quot1'>완벽한 보안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래도 이메일 업체 간에 서버 암호화가 돼 있으면 보안 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그만큼 카카오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는 지난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겪은 뒤 카톡에 메시지 암호화 기능을 도입했지만 정작 기본 서비스인 이메일 보안을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보안 전문가는 “<span class='quot2'>TLS 적용은 최대 수십억원이 필요해 기업 성장을 우선하면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2'>업체 측에서 보안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span class='quot3'>다음 계정끼리 이메일을 주고받을 경우는 보안(SSL) 조치가 돼 있으며 TLS는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할 계획</span>”이라고 해명했다.<br/>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24.txt

제목: 아산상 대상에 호스피스병원 강릉 갈바리 의원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3606274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27회 아산상 대상에 국내 첫 호스피스 병원인 강릉 갈바리의원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br/>천주교 수녀회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가 운영하는 갈바리의원은 1965년 3월 15일 개원해 수많은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왔다.<br/>예루살렘 북쪽 언덕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의 이름을 딴 이 의원 개원 당시에는 호스피스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집을 방문해 호스피스 활동을 했다. 가난한 사람이나 노숙자, 무연고 환자들을 위해서도 때로 인근 여관을 빌려 돌보는 일도 적지 않았다. 갈바리의원은 이런 활동을 통해 개원 후 50년간 호스피스에 대한 표준을 세우고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br/>아산상 의료봉사상에는 23년 동안 의료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에서 제자 2,000명을 길러내고 병원을 설립한 우간다 마케레레대 의대 유덕종 명예교수에게, 사회봉사상은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한국생명의전화에 각각 돌아갔다.<br/>시상식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열린다. 대상에 3억원을 수여하는 등 7개 부문 12명의 수상자에게 총 8억 4,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아산상은 재단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인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생명 존중과 나눔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개인ㆍ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1989년 제정됐다.<br/>고경석기자 kav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25.txt

제목: 평생 국가 시행 건강검진만 30회…관련 비용 한해 최대 18조5,000억원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3602863  
본문: 국내에서 갑상선암 과잉검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생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만 받아도 30회가 넘는 검진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br/>15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 교수)의 ‘건강검진은 어떻게 산업이 되었나?’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수명을 80세로 놓고 봤을 때 태어나서 기대여명까지 사는 동안 영유아검진 10회, 학생검진 8회, 5대 암검진 등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만 받아도 총 30회가 넘는 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br/>또 건강검진과 관련해 드는 비용은 민간 영역을 포함해 한 해 적게는 8조에서 많게는 18조5,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검진에 든 비용, 건강검진으로 인해 유발된 의료비용(유소견이 나온 환자가 병원을 다시 찾은 경우) 추정치를 합산한 수치다. <br/> 보고서는 “갑상선 검진의 증가와 더불어 갑상선암 발생이 급증해 과잉진단 여부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며 “과잉진단에 의한 건강 위험 증대와 의료비 상승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br/>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26.txt

제목: 건강하게 사는 의학 상식, 이영훈 '콸콸콸'  
날짜: 20151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3140455  
본문: 전립선암 치료에 수술이 아닌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요?<br/> <br/> <br/>전립선 암의 치료는 크게 수술과 약물치료, 그리고 방사선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암의 치료 방법을 말 하라고 해도 위의 세가지 입니다.<br/> <br/>대부분 암의 치료에서는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가 수술 전후에 수술의 보조적인 치료로 사용 되는 일이 많지만 전립선암에서의 약물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각각 하나의 치료 만으로도 훌륭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br/> <br/> 일단 암이 있다고 하면 수술로서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 입니다. 다만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요실금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수술에 필적하는 효과적인 다른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br/> <br/> 전립선암의 약물 치료는 남성호르몬의 역할을 막는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암의 약물치료처럼 머리가 빠지거나 살이 많이 빠지는 등의 부작용은 없는 치료 입니다. 3개월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고, 먹는 약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근육량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을 겪지만 견디기 힘들어 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br/> <br/>오히려 치료의 단점이라면 약을 끊게 되면 종양이 다시 자라게 되므로 지속적인 치료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또 오랜 기간 약을 쓸 경우 골다공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병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합니다. 보통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나 환자의 연령을 고려하고 투여를 결정 합니다.<br/> <br/>방사선치료는 전립선에 국소적인 방사선을 투과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인데, 수술에 비해서는 완치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 치료 자체만으로도 전립선 암의 완치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보통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40회 정도로 나누어 방사선을 조사하게 됩니다. 방사선의 영향이 주변에 있는 방광이나 직장에 영향을 주어 배뇨장애나 설사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br/> <br/> 수술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부작용이 많이 줄어 들고 있는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치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br/> <br/>이영훈 원장은 비뇨기과 전문의로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27.txt

제목: “지온이 낳고 턴아웃은 더 잘 돼요”  
날짜: 20151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3104264  
본문: 지온 엄마 아닌 발레리나로, 3년 만에 복귀하는 윤혜진 <br/><br/>이렇게 잘 우는 취재원은 처음이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에서 2012년 세계 최정상의 컨템퍼러리 발레단인 모나코 몬테카를로에 화려하게 입단, 그 해 부상으로 귀국해 오랜 공백기를 가진 무용수 윤혜진(35) 얘기다. 일반에는 영화배우 엄태웅의 아내, 지온이 엄마로 더 잘 알려졌다. 모던발레‘카르멘’의 마담M, ‘신데렐라’의 요정과 계모 역할을 맡으며 카리스마 강한 춤과 연기로 이름을 알린 그가 발레가 아닌 현대무용으로 다시 무대에 선다.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국립현대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춤이 말하다’에서 김영숙(한국 전통무용), 김설진(안무가), 예효승(현대무용)과 함께 출연하게 된 것. 5일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만난 그는 3년간의 복귀 과정을 말하며 연신 눈물을 글썽거렸다. <br/>“집에서 국립발레단 연습실까지 차로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요. 오전 9시쯤 출발해 11시 후배들이랑 클래스(발레 기본 동작 연습) 하고 오후 1시 반쯤 끝나 집에 가면 3시에요. 발레단 연습이 있으면 거의 매일 나와요. 수십년 했던 거라 동작 순서야 다 아는데, 같이 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하니까요.”<br/>출산 후 늘어난 몸무게와 늘어진 배로 산후우울증에 걸렸던 윤혜진은 모유 수유가 끝난 2013년 12월부터 ‘관리’에 들어갔다. 다이어트와 근육운동을 하고, 동네 발레학원을 빌려 혼자 기본기를 다졌다. 출산 전 ‘국내에서 몸 라인이 가장 아름다운 무용수’란 수식어가 따라다닌 그에게 “양 무릎이 닿지 않는” 경험은 충격이었다고. “부상과 출산은 확실히 다른데, 일단 골반이 벌어지고 허벅지가 일자로 안 붙어요. 봉 위에 다리 얹으면 덜덜 떨리고. 지온이 낳고 ‘끝났다’고 생각했죠.” <br/><br/><br/>이를 악물고 연습한 그에게 기회는 빨리 왔다. 5개월여를 혼자 연습한 지난해 4월, 일면식도 없는 강수진 단장에게 발레단 연습실을 써도 되는지 물어봤고 “내일부터 당장 나오라”며 허락을 받았다. “연습 나온 지 얼마 안 돼 강 단장님이 10월 초연하는 ‘봄의 제전’ 주역을 제안하셨어요. 그 작품이 일반적인 클래식 발레랑 다른 모던발레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br/>하지만 곧 아버지인 원로배우 윤일봉씨가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받으며 복귀는 무산됐다. 그는 “온종일 연습에만 매달려도 모자란 때에 책임감 없이 혼자 심란해하면서 발레단 공연을 망칠 수는 없었다”며 “(암 판정 후) 바로 거절했고, 아버지 방사선 치료가 차도를 보인 후에 다시 양해를 구해 연습실에서 1년여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진은 “<span class='quot0'>애 낳고 나서 턴아웃(다리를 양 옆으로 벌리는 발레 동작)은 더 잘 된다</span>”며 깔깔 웃었다. 오전 연습 후 후배들이 각자 배역 맡은 작품 리허설에 들어가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span class='quot1'>음악만 들어도 미칠 것 같아서</span>” 2012년 국내 고별공연 이후, 그는 3년간 무용 공연을 보지 못했다. <br/><br/><br/>‘춤이 말하다’에는 이런 그의 고백과 춤이 곁들여진다. 2013년 처음 무대에 올려진 이 공연은 매년 다양한 분야의 무용가들이 출연해 춤과 이야기를 통해 동시대의 무용을 되짚어보는 렉처 퍼포먼스다. 객석 점유율 102%를 달성하는 국립현대무용단 대표 레퍼토리로 쟁쟁한 현역 무용가들에게도 꿈의 무대로 꼽힌다.‘유명세로 너무 쉽게 큰 무대에 서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신인이 아니다”라는 말로 선을 그었다. <br/>“제가 무대에 다시 서고 싶은 이유는 옛 명성을 되찾겠다거나 테크닉 좋았던 예전 춤을 다시 추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무용수들이 하지 못한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을 통해 저만이 출 수 있는 춤이 있다면, 그런 춤을 추고 싶어요. 클래식발레는 만족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그보다 더 자유로운 춤을 추고 싶어요.”<br/>(02)580-1300<br/><br/>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28.txt

제목: 가공육 섭취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면 김치 곁들여라  
날짜: 2015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932482  
본문: 그림 1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최근 소시지와 햄, 베이컨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지만 한국인의 가공육 섭취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뉴시스<br/><br/>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소시지와 햄, 베이컨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가공육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한국인의 가공육 섭취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span>”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하루 평균 6.0g 정도이기 때문에 발암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공식 발표했다.<br/>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소시지와 햄, 통조림, 말린 고기 등 가공육을 매일 50g을 섭취하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들며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에 포함시켰다. 또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적색육)도 하루 100g 이상 먹으면 발암 위험이 17% 높아진다며 ‘2군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로는 술ㆍ담배ㆍ석면 등이 있고, 2군 발암물질로는 제초제 등이 포함돼 있다.<br/><br/>■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물질 분류<br/> 자료: 국제암연구소(IARC)<br/><br/>“<span class='quot1'>가공육ㆍ붉은 고기 발암물질 분류 과민 반응 불필요</span>”<br/>국내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철분, 칼슘 등이 풍부한 고기를 즐기되 가공육이나 고기를 과다 섭취하는 것은 피하면 괜찮다</span>”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나친 육류 섭취는 심장병, 당뇨병 등 다른 질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1군 발암물질 분류에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br/>백형희 단국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특히 “<span class='quot2'>가공육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됐다고 해서 가공육 섭취가 흡연이나 석면만큼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2'>WHO의 분류는 가공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의미이지, 위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span>”고 덧붙였다.<br/>WHO가 매일 섭취 시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힌 가공육 50g은 핫도그형 소시지 1개 또는 비엔나 소시지 5개 정도다.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1일 가공육 섭취량은 6g 정도에 불과하다. 가공육을 많이 먹는 순서로 상위 5% 이내에 든 사람은 하루 14g, 1% 이내인 사람은 151g을 섭취한다. 또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 적색육의 1일 평균 섭취량은 56g으로 WHO가 문제 삼은 하루 100g 이상의 절반 수준이다. <br/>적색육 섭취량이 많은 순서로 상위 5%는 하루 302g, 상위 1%는 886g을 섭취한다.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이처럼 과도한 양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를 줄일 필요는 있다</span>”고 했다.<br/> 그렇지만 최윤재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는 “<span class='quot4'>우리나라 노인의 90% 이상이 현재 적색육 등 육류 섭취가 부족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4'>정부가 각 연령대ㆍ성별 적정 육류 섭취량을 하루 속히 마련해 국민에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span>”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4'>미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가공육을 10배가량 더 먹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지금보다 2~3배 더 먹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br/> 유창식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5'>햄ㆍ소시지와 붉은 살코기를 과다 섭취하는 것은 현재 크게 늘어나고 있는 대장암을 일으키는 요인</span>”이라면서도 “<span class='quot5'>그 유해성을 술, 담배 등과 비교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span>”이라고 했다. 유 원장은 “<span class='quot6'>만일 술ㆍ담배를 많이 하면서, 운동도 잘 안하고 비만이라면 1주일에 3~4번씩 부대찌개를 먹는다면 위험요소가 가중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6'>하지만 일반인이 한 달에 1~2회 부대찌개를 먹거나 1주일에 1~2회 햄이 들어간 샌드위치나 소시지가 들어간 핫도그를 먹는다면 대장암에 걸릴 지 않는다</span>”고 했다.<br/><br/>/그림 2 소비자가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가공육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br/><br/>직화 구이 피하고, 칼슘 충분히 섭취해야<br/>WHO 산하 IARC가 문제를 삼는 가공육 내 발암가능 성분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이환방향족아민(HCA), 니트로스아민 등이다.<br/>김형식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span class='quot7'>PAH와 HCA 등을 최대한 적게 섭취하려면 고기를 직접 불에 직화해 구워먹지 말고 삶거나 익히는 등 고기에 열은 가급적 낮게, 짧게 가하는 것이 좋다</span>”고 했다.<br/> 가공육이나 적색육의 발암 위험성을 예방하려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정상희 호서대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8'>WHO 산하 IARC 보고서에서 칼슘을 섭취하려면 가공육이나 적색육에 의한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직접 밝혔다</span>”며 “<span class='quot8'>IARC가 평가에 참고한 문헌에는 클로로필(엽록소), 폴리페놀,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암 발생을 차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span>”고 했다.<br/> 김치가 소시지, 햄 등 가공육으로 인한 발암 가능성을 낮춰 주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동호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7'>가공육과 적색육을 섭취할 때 김치를 곁들이면 발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span>”고 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9'>암은 염증에서 출발하며, 누적된 염증 물질이 유전자(DNA) 손상을 일으켜 암으로 진행된다</span>”며 “<span class='quot9'>식물성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를 즐겨 먹으면 장내 염증은 물론 암의 악화ㆍ전이 과정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span>”고 했다. <br/>김치에 든 유산균이 대장암 예방은 물론 초기 대장암부터 진행 암까지 억제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건강 증진 효과를 가진 미생물)란 것이다. 특히 김치의 양념으로 사용되는 마늘, 생강 등에 염증 억제 성분이 다량 포함돼 있어 가공육ㆍ적색육의 PAHㆍHCA 등 일부 발암 성분의 독성을 상쇄해준다는 것이다.<br/> 박건영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0'>김치 유산균은 면역 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시켜 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암을 유도하는 효소 생성을 차단하며, 발암물질에 달라붙어 함께 분해되거나 체외로 배설된다</span>”고 했다. 박 교수는 또한 “<span class='quot10'>김치 유산균은 소시지 등 가공육의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span>”이라고 덧붙였다.<br/>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모든 것은 균형의 문제”라고 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0'>몸에 좋다는 과일도 지나치면 당뇨병과 비만을 일으킨다</span>”며 “<span class='quot10'>붉은 고기 섭취가 건강에 무조건 해롭다면 추운 내륙지방에서 붉은 고기 위주로 식생활을 해온 몽골인은 멸종했어야 한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29.txt

제목: 암 찾는 고가 유전자 분석, 효과는 아직 미지수  
날짜: 2015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933927  
본문: 한국 여성의 유방암 발생에서 두드러진 점은 젊은 층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생활패턴의 급속한 서구화 때문으로, 한국유방암학회가 30세 이후 매달 유방 자가검진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방암은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 데도 현재 검진율은 높지 않다. 30~40대의 자가검진율은 13.5% 선이고, 유전자 변이가 원인인 이른바 ‘유전성 유방암’으로 눈을 돌리면 사정이 더 심각해, 유전자 변이가 있음에도 정기 검진을 받는 사람은 4명 중 1명에 불과하다.<br/> <br/>김성원 대림성모병원 원장(한국유방암학회 홍보이사)을 최근 만나 유방암과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 물었다. 2000년 초부터 유전성 유방암 연구에 매달려 온 권위자인 김 원장은 유전성 유방암의 치료율 향상을 위한 해법으로 ‘환자 감시(surveillance) 강화’를 손꼽았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유전자 변이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현재 4명 중 3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더 어린 나이부터, 검사를 자주 받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으므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span>”고 했다. <br/><br/> 최근 국내 의료계 일각에선 유전자 검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등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의 전체 유전자 해독 비용이 1억원 선에서 최근 100만원 안팎까지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 일부 기관과 병원은 이런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건강검진에 패키지로 묶어 1,500만원 안팎의 고가에 제공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br/><br/> 김 원장은 유전자 분석 서비스와 관련, “<span class='quot0'>해석적 측면에서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span>”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한 개의 유전자 변이에 따른 암 발생률 편차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70%에 이르는데, 2~3만개의 유전자들의 복합적 상호작용 결과를 분석한다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유전자 변이와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뚜렷이 밝혀진 것은 유전성 유방암ㆍ대장암ㆍ갑상선암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제대로 된 유전상담이란 좋은 점과 더불어 나쁜 점도 꼭 설명해 줘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검사 결과에 따른 환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차별, 보험에서의 차별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span>”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아는 게 병’이라고, 자칫 검사결과가 자살이나 이혼 등에 따른 가정 붕괴 등 만만찮은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 개인의 전체 유전자를 분석해 각종 질병의 위험을 미리 밝히는 지노믹카운슬링(genomic counseling)은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의학 분야다. 김 원장은 유전상담에 대한 수가 인정과 유전자 해석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유전상담 정착의 선결 과제로 꼽았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유전자 검사가 대중화 할수록 상담사도 늘어야 하지만, 상담에 대한 수가 인정이 안 되고 있어 병원들이 고용을 꺼린다</span>”고 했다. 유전자 해석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빈혈치는 정상인 12, 여성 11 이상이면 정상이라는 ‘컷오프’가 있지만 지노믹카운슬링에는 이게 없다”며 “컷오프를 어느 선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정상이 1만명이 될 수도, 단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br/><br/> 최근 들어 유전성 유방암에서는 각종 표적치료제가 쏟아져 나와 치료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김 교수는 항암제와 함께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표적치료제인 허셉틴에 대해 “<span class='quot1'>her2 유전자가 있는 여성에서 이 약의 사용 여부에 따라 사망률이 20~30% 차이 난다</span>”고 긍정 평가했다. 김 원장은 이른바 ‘3중음성 유방암’은 유방암 정복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라고 했다. 3중음성이란 유방암의 가장 중요한 타겟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her2 수용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없는 환자로, 이 경우 호르몬치료도 못 하고 허셉틴도 못 쓰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가 어렵다. <br/><br/> 유방 검진을 과연 몇 살 때부터 시작해야 좋은지를 둘러싼 논쟁은 얼마전까지 세계 유방암학계를 달군 이슈다. 사회주의 의료 체계를 도입한 영국에선 50세부터 3년마다 할 것을, 미국에선 40세부터 2년마다 또는 1년마다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span class='quot0'>그 나라의 복지수준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span>”이라면서도 “<span class='quot0'>더 젊어서부터, 더 자주 할수록 진단율이 높아진다는 데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span>”고 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다만 40~50세 사이 맘모그램(X선 유방촬영술) 촬영의 정확도는 아직까지 미지수</span>”라며 “<span class='quot0'>50~70세는 확실히 사망률 감소와 연관성이 있는데 반해, 40~50세는 그렇지 않다</span>”고 했다.<br/><br/>송강섭기자 erics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30.txt

제목: ‘비만의 역설’… 고령일수록 적당히 비만해야 장수  
날짜: 2015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933329  
본문: /그림 1 김신곤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br/>50대 이상 연령에서는 비만이 저체중보다 건강에 도움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신곤(사진)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팀이 2002~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중 30세 이상을 조건으로 100만 명을 추출해 표본 코호트를 만들어 질병과 건강행태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다.<br/><br/>연구팀은 비만에 의해 생기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사람의 체질량지수(BMI)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사망위험률(HR)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과체중(BMI 수치 23~24.9) 환자의 사망위험률을 1로 했을 때, 중등도 비만 환자의 사망위험률은 0.86배 낮은 반면 저체중(BMI 수치 18.5 미만) 환자의 사망위험률은 2.24배 높았다.<br/><br/>30~49세, 50~69세, 70세 이상의 세 그룹으로 연령대를 나눠 조사한 결과에서는 30~49세 연령층의 경우 BMI에 따른 사망위험률이 저체중 환자 1.38, 고도비만(BMI 수치 30~32.4) 환자 1.39로 체중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br/><br/>반면 5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저체중 환자의 사망위험률은 2.9로 과체중 환자에 비해 3배가량 높았지만, 고도비만 환자의 사망위험률은 1.2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고도비만 환자의 사망위험률은 0.81이었다.<br/><br/>또 현재 국내 비만 인구와 비만 관련 질병은 늘고 있지만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은 감소 추세여서, 비만 관련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br/><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므로, 일반적으로 비만이라면 만성 질환으로 더 빨리 사망할 것으로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러나 오히려 비만 때문에 본인 질병과 건강상태를 조기에 진단, 치료하므로 사망위험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span>”고 했다. <br/><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고령층에서 ‘비만의 역설’이 두드러진 것은 근육량과 지방이 치명적인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적정한 몸무게는 좋은 영양상태와 근육량을 반영하므로 중장년층은 일정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 좋다</span>”고 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0'>BMI 18.5 미만 저체중 그룹은 심혈관계질환, 암 등에서 가장 높은 사망 위험을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지방이 적당히 있어야 좋은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며 외부 저항능력을 키울 수 있는데, 다만 살을 찌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는데 집중해야 한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31.txt

제목: 20대 딸이 50대 엄마보다 유방암 발병 위험 2.4배 높아  
날짜: 2015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929237  
본문: /그림 1유방암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평소 자가검진과 1년에 한 번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강북삼성병원 제공<br/><br/>20대 딸이 50대 엄마보다 유방암 발병 위험이 2.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br/><br/>한국유방암학회(이사장 한세환 아주대병원 유방암센터장)가 유방암의 달(10월)을 맞아 전국 20~50대 여성 1,000명(연령대별 각 250명)을 대상으로 유방암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를 조사, 유방암 발생률을 예측했다. 그 결과, 현재 50대 여성이 74세까지 생존 시 유방암 발병 확률이 3.14%인데 비해 20대인 여성이 같은 나이까지 생존 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42%로 위험도가 약 2.4배나 높았다.<br/><br/>이는 젊은 층인 20~30대와 중년 층인 40~50대의 생활환경이 변화한 탓이었다. 젊은 층일수록 유방암 원인 중 하나인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노출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요소를 다수 가지고 있었다.<br/><br/>20대 중 13세 미만에 초경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23.6%(59명)나 됐지만 50대 경우는 4.8%(12명)에 그쳤다. 이른 초경으로 월경기간이 길어지고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br/><br/>유방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출산, 모유 수유 등의 경험 비율은 40~50대가 높았다. 40~50대의 82%(410명)가 출산 경험이 있었지만 20~30대의 25.2%(126명)만이 출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회적으로 결혼과 출산 적령기로 꼽히는 30대 여성 중에서도 미혼 비율이 40.4%(101명)나 됐고 절반 이상(54%, 135명)은 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br/><br/>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결혼과 출산 나이가 늦어지는 등 장기간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 유방암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어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0기나 1기에 암을 진단받는 비율이 57.5%로 상승했다.(2000년 32.6%) <br/><br/>자기 유방을 보존하는 부분 절제술 역시 계속 상승 중이다. 0~2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에 이른다.<br/><br/>이에 따라 학회는 연령별로 조기검진 권고지침을 만들었다. 30세 이후에는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권하고,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검진,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을 할 것을 권한다. 고위험군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br/><br/>또 포화지방 섭취량이 많을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1주일에 5회 이상 45분~1시간 정도 하는 운동과 채소 및 과일 섭취는 유방암 위험을 줄이는 인자로 꼽힌다. 특히 폐경 후에는 지방 조직이 에스트로겐의 주된 공급원이므로 체중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br/><br/>한세환 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세계보건기구도 한국을 서구만큼이나 유방암 위험이 큰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현재 젊은 여성은 활발한 사회 진출과 변화한 생활로 정기적인 검진이 더욱 중요해졌다</span>”고 했다.<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32.txt

제목: 스태미너 식품 토마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날짜: 2015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822239  
본문: 토마토는 영국에서 '러브애플'로 불리워질 만큼 정력에 좋은 음식이다. 철분과 비타민,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있는 리코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은 토마토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 확률이 45%나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br/> <br/>그런데 이런 천연 정력제 토마토를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열을 가해 먹는 것이다. 열을 가해진 토마토는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지고 체내 흡수율도 좋아져 심혈관계 질환과 암 예방에 효능이 높다.<br/> <br/>실제로 최근 유럽에서는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하루 1회, 3주간 섭취한 사람은 혈중 임파구 및 전립선 조직의 산화 손상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br/> <br/>이에 따라 엔존B&F는 '구운 토마토환'을 개발해냈다. '구운 토마토환'은 토마토에 88도 이상의 열을 가해 토마토의 라이코펜을 최대로 늘린 제품이다. 깐깐하게 가열한 후 위생적인 건조 공정을 거쳐 먹기 쉬우면서도 토마토의 영양소를 온전히 보존했다.<br/> <br/>엔존B&F의 관계자는 "얼마 전 '구운 토마토환'에 과대광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은 사실상 토마토의 효능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며 "토마토는 우수한 정력식품이다. 평소 우리 제품을 휴대하면서 자주 섭취하면 정력에 매우 좋다"고 말했다.<br/> <br/>하이파이브마트 (www.hi5mart.co.kr 전화:1833-5793)는 천연 정력식품 '구운 토마토환'을 30% 할인해 3만2,000원(시중가 4만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br/> <br/>구운 토마토환 확인하기 ☜<br/><br/><br/>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33.txt

제목: 부정맥, 환절기 돌연사 부른다  
날짜: 20151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832520  
본문: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환절기, 전문가들은 부정맥에 주의할 것을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에 크게 신경 쓴다. 부정맥은 계절 변화의 영향을 받는 심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이자 급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br/> <br/>심장은 자발적인 전기 신호로 근육을 수축·이완한다. 부정맥은 전기 전달 체계에 변화 및 이상이 생겨 심장 박동과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을 말한다. 정상인의 맥박이 분당 약 60~100회인데, 이보다 지나치게 느리거나 빠른 경우 또는 불규칙적인 상태일 때 부정맥으로 진단한다.<br/> <br/>맥박이 100회를 넘으면 '빈맥', 60회 미만인 경우엔 '서맥',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아주 빠르게 뛰면 '심방세동'으로 구분한다.<br/> <br/>최근 부정맥 환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부정맥 환자는 2011년에 14만7,159명에서 2013년 18만7,085명으로 크게(약 27%) 증가했다. 이는 암에 이어 국내 주요 사망원인 2위인 심혈관 질환(협심증·심근경색)의 환자가 동일한 기간 내에 5%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약 5배나 많은 수치이다.<br/> <br/>부정맥의 대표적인 증상은 긴장하지 않았는데 심장이 자주 쿵쾅거리거나 참기 어려운 가슴 통증 발생, 반대로 힘이 빠지면서 어지럼증, 호흡 곤란, 무력감, 피로감 등을 느끼는 것이다. 다만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15~35%의 심방세동 환자는 증상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 <br/>박준범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 교수는 "협심증 및 심근경색 환자 수는 지난 몇 년간 정체되어 있는 반면 부정맥 환자 수는 급증해 최근 심장질환의 발생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며 "부정맥을 방치하면 심장 내 혈전이 생겨 뇌졸중이나 심부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평소 자신의 맥박이나 심장 박동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br/> <br/>부정맥 예방 및 관리법<br/> <br/>▲규칙적인 운동·적정 체중 유지<br/> <br/>호주 대학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가 정상에서 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심방세동 위험은 29%씩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 이로 인해 심장의 이완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맥 유발 위험이 높아진다. 부정맥을 예방하려면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해, 적정 체중 및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걷기나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과 온몸의 근육을 풀 수 있는 체조나 요가 등을 권장한다. 다만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과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br/> <br/>▲부정맥 악화시키는 3요소, 술·담배·커피<br/> <br/>건강한 사람도 술이나 담배, 카페인 등이 원인이 되어 심장의 전기 시스템이 고장 날 수 있다. 술은 하루에 1~2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고, 반드시 금연한다. 담배를 끊을 때는 흡연량을 점차 줄이는 것보다 한 번에 끊는 것이 성공률이 높으므로, 되도록 한 번에 금연할 것을 권한다. 흡연을 대체할 습관을 만드는 것도 금연에 도움이 된다. 최근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이 커피가 심방세동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현재 커피와 부정맥 발생 위험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나, 하루에 1~2잔 정도가 적당하다.<br/> <br/>▲ 스트레스는 부정맥에 악영향<br/> <br/>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극심한 감정 변화를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스트레스는 흡연이나 음주, 폭식 등 다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원인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취미생활을 갖거나 운동 등 본인의 성향이나 관심사에 맞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좋다.<br/> <br/>▲ 소금 적정량 섭취, 하루 3~5g 필요<br/> <br/>나트륨 섭취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건강 상식이나, 나트륨을 매우 적게 섭취해도 부정맥 위험은 커진다. 캐나다 맥마스터대 연구팀이 심장병 환자 약 3만여 명의 7년간 기록을 분석한 결과, 나트륨 섭취가 많을 때뿐만 아니라 너무 적을 때도 심장병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나트륨은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는데 양이 부족하면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아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1일 소금 섭취량을 5g, 미국심장학회는 3.75g을 권장하고 있다.<br/> <br/>▲ 부정맥, 중년 남성·폐경기 여성 위험<br/> <br/>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술과 담배, 기름진 음식을 자주 즐기는 남성들만의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폐경기 여성들도 예외일 수 없다. 심장 보호 효과를 가진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면, 심혈관 질환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폐경기 여성에게는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단순한 폐경기 증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때문에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몸 변화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검진해 볼 것을 권장한다.<br/> <br/>▲ 부정맥 환자, 음식 섭취 신경 써야<br/> <br/>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환자들이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비타민 K가 많이 포함된 음식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와파린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액 응고 인자의 생산을 방해해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하는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효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비타민 K는 주로 된장이나 두부, 두유, 콩기름, 콩가루 등 콩 음식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또 클로렐라나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등에도 비타민 K가 많으므로, 채소나 녹즙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34.txt

제목: [채널선택] 마지막 백제 왕 의자왕의 비밀  
날짜: 2015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644545  
본문: 역사저널 그날(KBS1 밤 9.40)<br/>백제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무왕의 장자임에도 마흔을 훌쩍 넘겨 왕위에 오른다. 그런데 즉위 다음해 백제 왕실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 왕족과 고위급 인사 40여명이 추방 당한 것. 그 중에는 의자왕의 이복조카와 누이동생 4명도 포함돼 있다. 즉위하자마자 대거 축출에 나선 의자왕, 마침내 효자의 가면을 벗고 정적 제거에 나선 것일까? 삼천궁녀를 거느리며 사치와 향락을 일삼다 백제를 멸망시킨 원흉으로 지목돼 온 의자왕의 진면모를 밝힌다. <br/><br/>진료실에서 못다 한 암 이야기<br/>SBS스페셜(SBS 밤 11.30)<br/>암을 불치병으로 단정하는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 사망원인 1위다. 암 전문의들도 암 정복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암 환자들은 넘쳐나는 정보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각종 매체에서 병원 이외의 치료법을 홍보하기도 한다. 정체불명의 주사제, 치료제 등 검증되지 않은 암 치료법에 기대는 환자들도 늘고 있다. 현직 암 전문의들의 입을 통해 암 진료의 진실과 오해를 밝힌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35.txt

제목: 농사꾼 5년차, 모내기부터 벼 베기까지 문제 없기는 처음  
날짜: 2015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658806  
본문: [원유헌의 구례일기 32] 새 트럭을 어디 쓸꼬<br/><br/><br/>5년 숙원이던 트럭 드디어 장만<br/>삐져 나온 스펀지ㆍ13년 된 엔진 소리<br/>눈귀에 거슬려도 내겐 리무진<br/><br/> 방금 전 안개 자욱한 초겨울이었는데 세상이 환해진다. 해가 허공에 달처럼 나타나더니 물기는 죄다 빨아먹고 금새 내 몸만 적신다. 그러다가 산성봉 너머로 해 떨어지면 그늘 닿은 지 10분도 안 돼 또 ‘을씨년’이 찾아올 것이 뻔하다. 딱 양은냄비다. 내 맘이 그런 건지, 날씨가 그런 건지.<br/><br/>작년에 간전댁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여름에 벌레 많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에게 모기가 그랬단다. “<span class='quot0'>모구 댕긴다고 해싸도 우리가 없으면 느그 새끼들은 벌 볶아서 주왕에 찌끄러 논 거 맹키로 벌벌 떨거이여.</span>” 자기네 모기들 욕하지만 조금 추워져서 모기가 없어지면 불에 덴 벌들 쪼그라지듯이 부엌 불 앞에 앉아 벌벌 떨며 추워할 거라는 얘기다. 딱 요맘때가 그렇다. 농막 난로에 불을 지필까 말까 수 차례 뜨겁게 고민하다 벌벌 떨며 집으로 돌아온다.<br/><br/>그래도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된 것이 있어 좋다. 5년 숙원이던 트럭을 장만했다. 며칠 전까지 농장으로 가는 길이면 오토바이 위에서 첩보작전 모스부호 보내 듯 아래윗니를 부딪치며 가야 했는데 이젠 다르다. 안락의자 부럽지 않은 운전석에 앉아 달콤하고 잔잔한 가을 음악 들으며 보란 듯이 안개를 뚫는다. 농장에 도착해 살짝 엉덩이 들이밀 듯 조심스레 후진해서 안착을 알리듯 주차브레이크 쫙 당겨주니, 꼬리 흔들며 반가워하는 희동이가 오늘따라 진돗개 스러워 보인다. 물론 13년 된 엔진이 선율을 방해하기도 하고, 운전석 시트에서 터져 나온 스펀지가 거슬리기도 하지만 나한테는 과분 덩어리다. 50cc 스쿠터에서 100cc 오토바이로 올라탔을 때도 그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3,000cc 리무진에 올랐으니 말해 뭐하랴. <br/><br/>논 네 귀퉁이 안방 크기만큼<br/>콤바인 틀 수 있게 낫으로 베어 놔야<br/>친구는 나락 70포대 장담했지만<br/>결국 50개로 끝나<br/>그래도 작년 42개보다는 나아졌네<br/><br/>트럭도 생겼겠다 창고도 정리했겠다, 이제 나락만 갖다 쌓으면 된다. 콤바인(벼를 베서 낟알을 터는 일까지 한 번에 해주는 기계) 작업을 해 줄 S형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슬 걷히면 바로 시작 허세이. 근디 왜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받는 당가. 뭐이 바쁜가?” 10시는 지나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벼 베는 일은 기계가 하지만, 그 기계의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는 사람의 ‘시다바리’가 필요하다. 논의 귀퉁이에서 콤바인이 쉽게 방향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네 귀퉁이에 안방크기만큼씩 낫으로 벼를 베어 놓아야 한다. 그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아 숨이 찼던 거다. 쪼그리고 허리 굽히는 모든 일은 신체 특성상 아직도 혈류장애를 일으키거나 호흡곤란을 가져 오곤 한다.<br/><br/>“올해도 암것두 안 쳤는가. 인증 받았다구 했쟈? 작년보다는 훨 나은 거 맹키로 보이는구마.” 형님은 별 대답 없어도 혼자 얘기 잘 하는 스타일이다. 일단 술 한잔 하고 시작하는 습관에 맞춰 맥주와 마른안주를 펼쳤다. 도시 사람들 생각엔 시골에선 다 막걸리만 먹고 사는 줄 알지만, 내가 이곳에 내려왔을 때 이미 맥주로 통일돼 있었다. 막걸리는 배만 부르게 한다며 막을 내린 지 오래였다. 지난해 수확이 워낙 모자랐던 탓에 그걸 기억하는 형님이 듣기 좋은 소리로 시작했다.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서 나락 담을 포대도 새것으로 한 20장 더 구입해 놨다. <br/><br/>모 심는 속도와 벼 베는 속도는 거의 비슷하다. 3,000제곱미터 논 한 단지 작업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다. 물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만 그렇다. 이앙기가 물구덩이에 빠져 온 동네 청년이 다 동원된 적도 있고,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콤바인 세워 놓고 낫으로 벤 적도 있다. 작업을 지켜보며 걱정하는 게 1이고 문제가 생겨 몸이 힘든 게 10이라면 맘 아픈 건 100도 넘는다. 겸연쩍어 겉으로는 웃어 보여도 속으론 통곡을 하게 된다. <br/><br/>모내기와 벼 베기 작업 모두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낸 게 처음이다. “<span class='quot0'>몇 해 농사 짓다 보면 다 제대로 잡히게 돼 있응게 너무 걱정 마시게.</span>” 처음 벼 농사를 시작했을 때였다. 수평이 맞지 않아 풀도 많이 자라고, 여기저기 물도 많이 새어나가고, 논두렁은 허물어져가고, 얼굴 윤곽이 없어질 정도로 걱정이 들어찼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 같이 해주시던 말씀이다. 속으로는 ‘그게 도대체 언제냐구요. 몇 해가 정확히 몇 년을 말씀하시는 거냐구요!’ 답답해했지만 어느덧 그 때가 됐나 보다. 올해가 다 제대로 잡히게 된 첫 해이다.<br/><br/><br/>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다. 온 나라가 가뭄이라고 기우제라도 지낼 판이지만 내 속은 달랐다. 비가 오긴 와야 하지만 하필이면 내가 나락 말려야 할 때 비가 와야 할 이유는 없었다. 별 수 없이 형님네 건조기에 넣기로 했다. “45도루 해주세요 네?” 어거지를 부렸다. 정부가 매상하는 벼는 급한 사정에 60℃ 고온에 말리지만 그러고 나면 미질이 나빠지고 밥 맛도 떨어진다. 정미소에 물어보니 50℃ 이하로만 하면 널어 말린 것 보다 낫다고 했다. 온도를 낮춰 건조시키면 그만큼 오래 기계를 돌려야 하고 시간으로나 연료로나 기계 임자는 손해다. 그래서 떼를 썼고 형님은 들어주셨다. <br/><br/>다음날 아침, 혹시나 하는 마음과 달리 여지 없이 비가 내렸다. 야속한 하늘 바라보던 7시쯤 전화벨이 울렸다. “쌀 빼!” 트럭을 몰고 내려갔다. 걸레로 짐칸 물기를 닦아내고 부직포를 깔며 부산하게 나락 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장하는 친구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나타났다. “왠 일이래?” 전화도 안 했는데 도와준다고 튀어왔다. “<span class='quot0'>올핸 몇 포대나 나오나 함 세 볼라구.</span>” 키득거리며 나락포대를 어깨에 짊어졌다. 작년 수확량이 워낙 적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는 말이다. “걱정 말어! 70개는 나올 테니까. 자네 트럭에도 실어야 하니까 준비해 둬!” 결국 50개로 나락은 끝이 났고, 친구 트럭은 필요 없었다. 그나마 작년 42개보다 나으니 다행이다.<br/><br/>순익 따져보니 평당 3000원 남짓<br/>생난리 쳐 가며 그냥 바보짓 했네<br/>오줌 누고 지퍼도 못 올리는 가을<br/>머리띠에 트럭 몰고 여의도 가 볼까<br/><br/>비가 계속 내려 움직일 수도 없었고 S형님은 저장고에서 맥주와 단감을 꺼냈다. 낫을 들더니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 컵을 만들어 맥주를 나눠 마셨다. 콤바인과 건조기 사용비를 확인하고 내친김에 벼농사에 들어간 비용과 예상매출, 순이익을 계산했다. 얼추 따져보니 3.3제곱미터(평)당 3,000원 남짓. 그나마 인건비와 운송비용, 종자 값은 생각도 안 한 결과다. 금리가 바닥이라지만 그 중 수익률 좋다는 금융상품에 논 값을 집어넣어 보면 대강 비슷한 수익이 나온다. 즉, 누구한테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생기는 돈을 누구는 생 난리를 쳐가며 겨우 만들어 낸다는 얘기다. 앞뒤 잴 것도 없다. 그냥 바보 같은 짓이다. <br/><br/>이장 친구와 창고에 나락포대를 다 쌓아놓고 뿌듯함도 같이 내려 놓았다. 친구가 새참도 마다하고 감자 비닐하우스로 가는 바람에 나도 바로 농장으로 향했다. 길가엔 “개 사료값 만도 못한 쌀값...가자! 서울로” 같은 플래카드가 끈 한 쪽이 떨어진 채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 갈 새가 어딨나. 단풍철이라고 코 앞에 있는 피아골도 못 가는데...’ 생각하며 농장에 도착했다. 콩 수확도 절반 이상 남았고, 꺾어 둔 들깨는 바짝 말랐는데 털지도 못하고 있다. 울타리 콩은 곧 터져나갈 듯 매실나무에 걸려 손을 기다리고, 양파 모종은 두둑 위에 몇 개 꽂히다 말았다. <br/><br/>양파는 정말 열심히 심어도 진도가 안 나간다. 반나절 동안 한 두둑 심어보니 6개씩 75줄이면 450개, 두둑이 5개니 2,000개를 넘게 심어야 한다. 괜히 계산했다. ‘뭘 먼저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물이나 마시기로 했다. 술 마시고 물 마시고 쌀쌀하니 아랫도리에서 급하다는 소식이 왔다. 보일러처럼 덥힌 물을 빼야 하니 또 추워지겠다 아까워하며 돼지감자 앞으로 다가갔다. 손을 모아 준비 하려는데 지퍼가 내려가 있다. ‘오토매틱인가?’ 생각하니 아까 창고 옆에서 한 번 내렸던 생각이 났다. “<span class='quot0'>가실(가을)일 할 때는 오줌 누고 골마리(허리춤)도 못 추켜 올린답디다</span>” 하시던 간전댁할머니 말씀이 생각났다. 허리춤이야 복잡하다지만 지퍼도 제대로 못 올리는 가을이다.<br/><br/><br/>대충 추스르고 장갑 끼는데 트럭이 한 대가 들어왔다. D동생이다. “형님. 항아리 가져 왔어라.” 어제 저녁에 감식초 담을 항아리가 필요해 여분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알아 보겠다구 하고선 대뜸 싣고 왔다. “<span class='quot0'>씻어 놨던 것잉게 볏짚 태워서 소독하고 그냥 쓰시면 될 겁니다 형님</span>” 두 말 들이 항아리를 3개나 실어왔다. “나락은 다 쟁였는게라? 몇 개나 나왔는가요?” 쓰게 웃으며 대답했더니 “흐미, 짠한거. 넘들 반짝보다 그야말로 쪼끔 더 나온 거 아니래요. 어쨌든 애쓰셨소 형님. 세상에 없는 쌀 잉게 묵는 사람들 그거나 알고 묵으라고 허세요.” 짧은 몇 마디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한다. “점심이나 먹으러 가세.” 하는데 장씨아저씨 차가 슬그머니 미끄러져 들어온다. “탕 한 그릇 하러 가시죠.” 차에서 내리던 아저씨도 반기신다. “그래 가자. 탕이든 국밥이든 묵고 싶은 거 묵자.”<br/><br/> 밥 먹으며 이러 저런 얘기하다가 쌀값 얘기도 나오고 정부 지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안 좋은 방법으로 지원금 받고 제대로 농사 짓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후배가 내려와 지원금 오용 사례를 조사한다던 기억이 나서 신고하면 된다고 했더니 두 사람 다 반응이 비슷하다. “<span class='quot0'>확 꼰질러 버리면 속이 시원 하겄는디, 그라믄 그 사람 처자식은 어찌 된당가</span>” 식이다. D동생도 말을 이었다. “지가요 맘이 약해요. 남 잘못되는 걸 못 본당게요. 맘이 약해서 요로코롬 허우대 훤한디도 아직 여자도 못 만나고 장개도 못가고...” 아저씨가 “이봐. 이런 데서 ‘지가 맘이 약해요’ 하는 것은 ‘지가 바보예요’ 하는 소리여.” “그것이 아니지라. 지는 그냥 한국적 정서가 몸에 확 들어 앉아서...” “웃기는 소리 말어. 쌀값이 30년째 그대론데 아무 말 못하고 살잖어. 다 맘 약한 바보라서 그런겨. 이 국밥 값은 얼매가 올랐는가. 왜 암것두 못하고 내놓으라는 값에 쌀을 내놔야 하나 말이여!”<br/> 겸연쩍어하던 D가 슬그머니 화제를 바꿨다. “형님. 트럭은 잘 나가제라?” “잘 나가지. 쌩쌩해.” “그라믄 형님 트럭 타고 서울 한번 안 가실라요?” “서울은 왜?” “아 담주에 다덜 서울 간다고 하잖애요. 우리두 함 가죠 뭐. 쌔차 타고요 잉?” 동생의 말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다. 매년 여의도에서 모이던 사람들. 죽기 살기로 소리지르던 사람들. 겉에서 빙빙 돌며 바라보기만 했던 그 사람들 틈에 내가 낀 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다. ‘콩은 어떡하고, 들깨는 언제 털고, 감식초는...’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 “가자 까이꺼. 트럭 몰고 서울 가자!” <br/> 참 대책 없는 가을이다.<br/><br/>前 한국일보기자 cameragaga@naver.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36.txt

제목: 연말정산 역전 노려라... '13월 세금폭탄' 피하는 법  
날짜: 20151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604009  
본문: 빠진 것 없나 공제항목 꼼꼼히 살펴봐야<br/>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절세 금융상품에도 관심<br/><br/><br/>연소득이 5,5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5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미리 보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돌려 봤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지난해보다 오른 급여 등 몇 가지를 보정해봤더니, 내년 초 토해내야 할 세금이 90만원으로 나왔다. 자녀 둘의 인적 공제를 받고 신용ㆍ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3,000만원 정도 쓰고 본인과 자녀 병원비를 200만원이나 썼는데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이 허탈하기만 했다.<br/>하지만 소득공제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올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나도 넣지 않은 사실이 눈에 띄었다. 공제한도금액인 240만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다시 해봤더니, 세금이 76만원으로 14만원이나 줄어들었다.<br/>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관심이 세금에 쏠린다. 한 때는 ‘13월의 보너스’로 불릴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세금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br/>안타깝게도 연말까지 남은 두 달, A씨처럼 세금을 더 낼 처지의 직장인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고 봐야 한다. 세금 좀 더 돌려받겠다고 소비(카드 등 사용)를 늘릴 수도 없고, 인적 공제를 억지로 추가할 방법도 없다. 그렇다고 의료비 공제를 위해 일부러 병원을 찾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세금 폭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다고 조언한다. <br/>빠지기 쉬운 공제항목부터 점검해보자<br/>전문가들은 일단 “<span class='quot0'>빠지기 쉬운 공제항목을 챙기라</span>”고 말한다. 먼저 1인당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추가공제에 암환자 등 중증환자도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보통 암환자 등은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장애인의 범위에 들지 않는데, 세법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즉 지병 때문에 평소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사람도 똑 같은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76만원을 환급해야 할 A씨의 경우 부양가족 중 암환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추가로 낼 세금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정도로 혜택이 크다.<br/>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전세 입주자라면 월세공제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예컨대 2억원 전세로 살고 있다가 올해부터 20만원씩 매달 추가로 돈을 내는 직장인은 연 월세 총액 240만원의 10%인 24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75만원(월세 총액 750만원)까지가 한도이며, 총급여가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br/>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지출 증빙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사전에 챙겨야 한다. 나이와 소득의 제한 없이 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시력교정용으로 구입을 했다는 확인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도 중ㆍ고등학생 한 명당 연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을 두고 있다면 주 1회 이상 다니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수강료도 대상이 된다는 점,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br/>신용카드 사용액 채웠다면 체크카드에 올인 하자<br/>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넘어섰다면 신용카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야 한다</span>”고 조언한다. 총 급여가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5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신용카드(공제율 15%)의 사용액이 이 기준을 넘었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30%)을 쓰면 두 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br/>지금이라도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경우 총 급여로 5,500만원 이하는 16.5%, 그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현조 우리은행 PB 팀장은 “<span class='quot1'>지금 당장 카드 사용액을 늘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결국 혜택이 제공되는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span>”이라고 말했다.<br/>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37.txt

제목: [브리핑]현대로템, 중남미시장 본격 공략 외  
날짜: 20151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350305  
본문: 현대로템, 중남미시장 본격 공략 <br/>현대로템은 3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로 엑스포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제18회 브라질 철도전시회’에 전시관(사진)을 설치해 브라질에서 수주한 ‘살바도르 2호선’ 무인 전동차와 현지 전략 차종 ITX-청춘 등을 선보였다. 현대로템은 중남미 최대 철도전시회인 이번 행사를 통해 중남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br/><br/>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국내 육류 섭취량, 암 유발 우려 없다” <br/>김대경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중앙대 약대 교수)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의 가공육, 적색육 발암물질 지정 관련 긴급세미나’를 갖고 “<span class='quot0'>우리나라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량은 IARC 발표 암 유발 기준의 4분의 1 정도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span>”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span class='quot1'>올바른 식습관을 통한 고른 영양 섭취는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기를 먹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대한항공, A321네오 30대 구매 <br/>대한항공은 4일 에어버스사와 중소형 여객기 A321네오(neo) 30대 확정주문 및 추가 20대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에어버스의 A321네오는 신형 엔진을 탑재해 항속 거리가 늘었지만 연료소모량이 15% 줄었다.<br/><br/>엔씨소프트, 3분기 영업익 506억원<br/>엔씨소프트는 3분기에 매출 1,957억원, 영업이익 506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8%, 영업이익이 38% 감소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등 주요 게임의 대규모 업데이트와 마케팅이 4분기에 집중돼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br/><br/>LS산전 인도네시아에 PC 200대 기부 <br/>LS산전은 4일 인도네시아의 저소득 정보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정보기술(IT)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아프리카아시안난민교육후원회(ADRF)에 재생 컴퓨터(PC) 200여대를 기부했다. 이들 PC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부품교체 등을 통해 보급형 PC로 재생한 것이다.<br/><br/>과학벨트에 들어갈 극저온 냉각장치 개발 <br/>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에 필요한 극저온 냉각장치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고 4일 밝혔다. 미래부는 가속기의 가속관 내부를 영하 271도의 극저온, 저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span class='quot2'>초유체 헬륨을 대량 생성하는 기술은 우리나라와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세계 10개국 정도만 구현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다.<br/><br/>디아지오코리아 ‘윈저 더블유 레어’ 출시 <br/>디아지오코리아는 4일 알코올도수 35도의 ‘윈저 더블유 레어’를 출시했다.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는 한국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로열 라크나가 증류소 오크통 200통 중 한 통의 확률로 까다롭게 선택된 원액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br/><br/>포스코 10개 벤처창업 선정 지원 <br/>포스코는 4일 인천 송도 트라이볼에서 제10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개최하고 지원 벤처기업 10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는 포스코가 벤처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한 벤처기업을 투자자에 연결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벤처기업은 헬로긱스, 아이센랩, 에스앤지텍, 힉스컴퍼니, 네이처글루텍 등이다. <br/><br/>동대문미래창조재단, 미라클 페스티벌 개최 <br/>동대문 미래창조재단은 두산그룹과 함께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동대문 미라클 페스티벌’을 5~6일 진행한다. 경품권 추첨,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선수 사인회, 가수 공연 등이 동대문 일대에서 펼쳐진다. <br/><br/>대우조선, 국내 최초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 시연 <br/>대우조선해양은 4일 특허를 보유한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장치 ‘PRS®’의 시연회를 옥포조선소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에서 열었다. PRS®는 기화된 가스를 모아 다시 액화해 화물창으로 돌려보내는 장치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38.txt

제목: 환자단체, 한방암치료제 ‘넥시아’ 효능 검증 요청  
날짜: 20151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400365  
본문: 옻나무 추출액을 이용한 한방암치료제 ‘넥시아’의 효능을 두고 10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효능 검증을 요청했다. <br/>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등이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span class='quot0'>넥시아의 효능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보건복지부가 ‘넥시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검증에 나서달라</span>”고 요구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span class='quot1'>넥시아의 양방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항암제 ‘아징스 75’에 대한 임상시험이 2009년 11월 이후 진행돼 왔지만 시험이 종료되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환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혼란이 지속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span>”고 말했다. <br/>넥시아는 1996년 최원철 단국대 석좌교수(전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암센터장)가 옻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이용해 만든 암 치료제로, 2006년 9월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가‘넥시아로 치료한 3,4기 암환자의 22.4%가 5년 이상 생존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br/>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효과를 봤다는 환자들 상당수가 양방에서 치료를 받은 후 넥시아를 복용한 것으로 양방치료의 효과인지 넥시아의 효과인지 명확히 알 수 없고, 넥시아를 복용한 환자와 복용하지 않은 환자간 대조연구가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2'>논문을 들여다 보면 비전문가가 보아도 의학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수준</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상황이 이런데도 환자들은 일말의 희망 때문에 한 달에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span>”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암환우협회 등 일부 환자단체와 환자들은 넥시아를 복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며 넥시아에 대한 비판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br/>상황이 이런데도 혼란을 수습해야 할 보건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3'>효능이 있고 없는 것은 복지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당사자 또는 연구자들이 입증해야 할 부분</span>”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교수는 “<span class='quot4'>(검증을 한다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조하겠다</span>”고 말했다. <br/>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39.txt

제목: [브리핑]아시아나항공 차세대 중ㆍ소형기 25대 도입 외  
날짜: 2015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231775  
본문: 아시아나항공 차세대 중ㆍ소형기 25대 도입 외<br/>아시아나항공은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에서 김수천(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장이 파브리스 브레지에(왼쪽 두 번째) 에어버스 최고경영자와 에어버스의 차세대 중ㆍ소형기 A321-200네오 25대 도입 서명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 기종은 좌석수 180석에 신형 엔진을 장착해 연료를 20% 정도 절감할 수 있다.<br/><br/><br/>삼성정밀화학 비대위 구성…고용안정 등 요구<br/>롯데그룹으로 매각된 삼성정밀화학의 노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고용과 처우에 대한 보장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3일 내놨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삼성과 롯데 양측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br/><br/>LS전선아시아, 동남아시장 공략 위해 520억원 조달<br/>LS전선은 3일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자회사 LS전선아시아의 지분 19.6%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LS전선은 이렇게 조성된 자금 520억원을 설비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br/><br/>LG CNS, 콜롬비아 60억 규모 버스관리시스템 수주<br/>LG CNS는 3일 60억원 규모의 콜롬비아 버스관리시스템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배차 간격 조정을 돕는 시스템으로 이번 수주가 중남미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br/><br/>LG전자, 레드닷에서 아시아 최초 ‘올해의 브랜드상’ 수상<br/>LG전자는 3일 아시아기업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레드닷디자인협회로부터 ‘올해의 브랜드’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사장 혁신적 디자인으로 브랜드를 알린 업체에 주는 상으로 앞서 아우디, 벤츠 등이 이 상을 받았다.<br/><br/>SK텔레콤, 국내 요금 수준 중국 로밍 요금제 출시<br/>SK텔레콤은 3일 차이나유니콤과 손잡고 ‘내 집처럼 T로밍 중국’요금제를 내놨다. 중국 현지에서 분당 100원 정도에 음성 로밍을 지원한다. <br/><br/>KT, 클립 이용자 추첨해 ‘폰 다이어리’ 증정 이벤트<br/>KT는 3일 스마트모바일 서비스 클립 이용자 1만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폰 다이어리’를 증정한다. 폰 다이어리는 앞면을 접으면 스마트폰 거치대가 된다.<br/><br/>암젠코리아 공식 출범 <br/>글로벌 생명공학제약기업 암젠의 한국법인 암젠코리아가 3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노상경 암젠코리아 대표는 “<span class='quot0'>‘환자를 위한다’는 기업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span>”는 다짐을 밝혔다.<br/><br/>한-일 공동 후쿠시마 방사선 탐사 <br/>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공동으로 3~5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지역에서 무인헬기를 활용한 공중 방사선 탐사를 실시한다. 탐사 결과를 활용해 연구원은 “<span class='quot1'>후쿠시마 지역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탐사 결과 분석과 장비 보정 기술 등의 정보를 교환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br/>기후변화대응 범부처 전략 수립 <br/>미래창조과학부는 외교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와 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기술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내에 효율적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전략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br/><br/>남동발전, 중기 채용박람회 개최<br/>한국남동발전은 3일 경남 진주시 경상대에서 경남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우수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연다. 남동발전은 이번 행사를 통해 채용 예정 인력 40여명에게 급여와 함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을 거쳐 채용이 확정되면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40.txt

제목: 전립선비대증을 방치하면 전립선암이 생기나요?  
날짜: 2015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223933  
본문: 전립선비대증을 방치하면 전립선암이 생기나요?<br/> <br/> <br/>일단 두 질병은 공히 전립선에 발생하지만 두 질환은 서로 연관이 없는 다른 질병입니다.<br/> <br/>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후의 남성에게는 반 이상에게 발견되고, 전립선암 또한 남성 암 발생률 5위를 차지하는 흔한 질병이니, 중년 남성이라면 둘 다 관심을 가져야 할 질병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생긴 증상을 치료 하러 비뇨기과에 들렀다가 함께 시행한 전립선암 검사를 통하여 암이 발견되는 과정을 겪어와서 이런 의문이 들거라 추측합니다.<br/> <br/> 전립선암도 초기를 지나 암의 크기가 많이 커 지면, 결과적으로는 전립선비대증처럼 전립선의 크기가 커 져서 소변 보기가 불편한 증상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지 전립선암 만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사실상 전립선 암 자체는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더 합당합니다.<br/> <br/>전립선암의 진단은 우선 피검사로 PSA(전립선특이항원)라는 수치를 검사하여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이 수치가 정상 수준을 넘어갈 경우에 전립선 조직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하게 됩니다. PSA 검사는 아주 일반적인 피검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요즘에 시행하는 보통의 건강검진에는 거의 포함 되어 있습니다. 40대 이후의 남성에겐 1년마다 한 번씩은 시행하길 권하는 검사이니 건강검진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검사를 해 보시길 당부 드립니다.<br/> <br/>보통 전립선비대증 증상으로 비뇨기과를 방문하게 되면, 기본적인 검사에 이 피검사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보기가 불편하여 비뇨기과를 방문한 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되면, 그 증상이 전립선 암 때문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의 대부분은 전립선암과 함께 있었던 전립선비대증 때문에 배뇨증상이 발생한 것이고, 그 증상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숨어있는 전립선암을 발견하는 운이 좋은 경우들입니다.<br/> <br/>질문하신 분의 말처럼 전립선비대증을 방치하여도 전립선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더 심한 전립선비대증으로 발전하게 마련이니, 적절한 치료를 늦추지는 마시길 권합니다. 또한 소변 보기가 불편하다고 해도 암부터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전립선암에 대해서라면 일단은 PSA 검사로 간단히 측정이 되니, 오히려 아무런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적절한 검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br/> <br/>이영훈 원장은 비뇨기과 전문의로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41.txt

제목: “암 나빠지면 죽겠죠”라며 봉사활동 나선 카터  
날짜: 2015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207300  
본문: 암투병 중인 지미 카터(91) 전 미국 대통령이 2일 국제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건재를 과시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집을 짓기 위해 흰색 보호모를 쓰고 망치 등 연장이 들어있는 가죽 벨트를 두르고 일하는 그의 모습은 여느 자원봉사자나 다를 것이 없었다.<br/>카터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건강 상태가 좋다”며 “<span class='quot0'>아직은 스케줄을 줄이지 않았다</span>”고 활기찬 얼굴로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암이 더 나빠지면 (죽을 날이)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이가 들수록 좀 더 감성적이 된다”며 새 집을 얻은 사람들에게 집 열쇠와 성경을 넘겨줄 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라고 말했다.<br/>예정된 시간보다 이르게 해비타트 집짓기 장소에 도착한 카터 전 대통령은 파란색 점퍼를 벗고 펜과 줄자, 해머 등 건축용 도구를 가져와 준비를 마쳤다. 아내 로절린 카터(88)도 옆에서 벽 버팀대를 설치하고 연장을 가지고 와서 못을 뽑아냈다. 로절린은 “힘이 드네요”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br/>카터는 “<span class='quot0'>일하고 있을 때는 방해 받고 싶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지 않았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 카터 재단은 1984년부터 31년간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 운동에 참여해 왔다. 백악관을 떠난 이후 카터는 14개국 3943개 사업장에서 일을 해왔다. 이를 통해 500만 명 가량이 도움을 받았다. 카터 부부는 매년 한주씩 해비타트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나단 렉포드 해비타트 대표는 “<span class='quot1'>카터 전 대통령은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는 집중력이 높고 정말 대단하다</span>”고 말했다.<br/>카터는 지난 8월 뇌종양 4개를 제거하기 위해 방사능 치료를 받았다. 이와 함께 암세포를 찾아내는 면역체계를 지원하는 신약을 복용하고 있다. 카터는 “계속 이 약을 복용할 것”이라며 “<span class='quot0'>의사들이 약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span>”고 말했다. 이어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지금까지 치료 후 아프거나 불편했던 적이 없다”며 “이번 치료법으로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다.<br/>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42.txt

제목: 미 가족계획협회 태아 조직 거래 논란... 대선 핫이슈로  
날짜: 2015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156491  
본문: 가족ㆍ여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ㆍ이하 가협)가 내년 대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7월 반(反) 낙태 시민단체가 가협의 태아 조직거래 행태가 담긴 영상을 폭로하면서, 이들에 대한 5억달러(약 5,670억원) 규모의 연방 정부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1920년대 설립된 가협은 성병치료와 피임, 나아가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반 낙태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공화당 보수파와 운동가들의 표적이 돼 왔다.<br/>최근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협에 대한 지원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를 대선 이슈로 부각시켰다. 일부 강경파들은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연방정부 ‘셧 다운’(부분폐쇄)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아직 세부 지출 항목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협 예산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영상 폭로 이후 낙태 담론을 대선 주요 의제로 꼽는 여론이 커짐에 따라 정치권의 ‘낙태 찬반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br/><br/>‘태아 조직 거래’ 동영상 폭로에 논쟁 점화<br/>미국은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임신 2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다산 후유증으로 숨진 여성 보건 운동가 마가릿 생어가 ‘계획적 출산’ 장려를 위해 설립한 가협이 지난해 제공한 전체 서비스 중 3%가 낙태 시술이었다. 700여개 진료소를 운영하는 가협은 지난 한 해에만 약 1,000만 건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성병 검사와 치료 450만건 ▦피임 관련 서비스 360만건 ▦임신 검사 100만건 ▦암 검사 및 치료 90만건이 포함된다. 가협 이용자들의 80% 이상은 빈곤층 여성이다.<br/>가협을 둘러싼 최근 논란의 발단은 한 시민단체가 지난 7월 가협의 태아 조직 거래 행태를 폭로하는 동영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낙태를 반대하는 의학진보센터(CMP) 소속 회원들은 의료기업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연구 목적으로 태아 장기를 구매하겠다며 가협 직원에게 접근해 영상을 찍었다. 가협 직원은 낙태된 태아의 조직을 외부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30달러에서 100달러 상당의 대가를 받는다고 털어놓는다. CMP는 이 동영상을 통해 “가협이 불법적으로 낙태 태아 조직을 판매하고 심지어 거래 비용을 흥정해 축적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br/>한 달여 뒤인 8월 CMP가 10분 길이의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며 파장은 커졌다. 자신을 가협 협력회사인 ‘스템익스프레스’의 실험실 직원이었다고 밝힌 홀리 오도넬은 영상에서 “<span class='quot0'>동료 직원들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낙태된 태아의 신체 일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산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동료들은 원하는 태아 장기를 그냥 가져갔고 엄마들은 아무것도 모른다</span>”며 “<span class='quot0'>나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은 지시에 따라 태아 장기를 꺼냈다</span>”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을 다 마치고 난 후 이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오도넬은 “<span class='quot0'>가협 소속 의사가 낙태 시술로 큰 명성을 얻었다</span>”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영상에는 몇몇 여성들이 실제 가협 클리닉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br/>영상이 공개되자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미 전역의 가협 클리닉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심지어는 가협 클리닉 건물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수 차례 발생했다. 지난 8월 괴한들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가협 클리닉 건물에 돌을 던지고 창문을 깬 데 이어 지난달 초에는 이 건물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했다. 앞서 9월에도 워싱턴 가협 클리닉에 방화가 일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 집기가 모두 탔다.<br/><br/>‘불법 행위 아니다’가 중론이지만 여론 악화<br/>그럼에도 CMP가 공개한 영상 만으로 가협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생명윤리학자들은 “CMP가 폭로한 동영상은 잘못된 행위를 고발한다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식을 심어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이자 미 노스웨스턴대의과대학원 조교인 케이티 왓슨은 가디언에 “<span class='quot1'>CMP가 공개한 동영상의 목적은 생명윤리와 전혀 상관 없어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들은 영상 편집을 통해 태아 조직 거래에 대한 논의보다는 반 낙태 주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추기려 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미 뉴욕대의대 의학윤리과의 아서 캐플랜 학과장도 “동영상에는 문제가 될만한 새로운 의제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며 “1993년 개정된 공중보건 및 복지 관련법 42조에 따르면 태아 조직을 이윤을 위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조달 비용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br/>저명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 역시 사설을 통해 “해당 영상은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태아 조직에 대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캠페인”이라면서 “여성과 태아 연구의 가치를 저하시킨 영상에 우리는 분노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가협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br/>4개 하원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공화당 출신 법관들은 12개 주에서 가협이 불법 행위를 벌였는지 조사를 시작하고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조지아주와 인디아나주, 매사추세츠주, 미주리주, 사우스다코다주 등은 가협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애리조나주는 지난 2012년 이미 가협에 대한 지원 중단을 시도했다가 법정에서 진 바 있어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br/>전문가들과 각 주 사법기관이 법위반이 없었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악화하자 가협은 지난달 14일 결국 정책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협회장인 세실 리차드는 미 국립보건원에 서한을 보내 “<span class='quot2'>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태아조직 제공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span>”며 “<span class='quot2'>영상 공개로 불거진 논란들이 모두 사라지길 바란다</span>”고 밝혔다. 또 “우리는 그 동안 1993년 제정된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기관을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이러한 법을 뛰어넘어 어떤 합리적인 비용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br/><br/>‘낙태’ 내년 대선 주요 쟁점으로 <br/>영상 속 가협 행위의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이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미 의회가 가까스로 예산안을 통과 시켰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는 낙태 논란을 지속적으로 대선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앞에는 내달 중순까지 구체적인 2016 회계연도의 정부지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어 세부 지출 항목을 두고 민주당과의 충돌이 또다시 점쳐지는 상황이다. <br/>공화당이 가협을 대선의 핵심 이슈로 끌어오려는 이유는 동영상 폭로 이후 미 유권자들이 낙태를 내년 대선의 중요 의제로 꼽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9월 공개된 CNNㆍORC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의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낙태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27%에 달했다. 지난 2011년 6월 조사 때보다 7%포인트 오른 수치다. 또 낙태는 불법이다(58%)라는 답이 합법이다(39%) 보다 높게 나오는 등 낙태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보수화된 경향도 나타났다. <br/>공화당 내 대선 지지율 1위인 도널드 트럼프는 일찌감치 “<span class='quot3'>당 내부의 ‘셧 다운 불사’ 의지를 지지한다</span>”며 가협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대선 경선주자인 랜드 폴(켄터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후보 역시 가협 자금 지원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폴, 크루즈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는 예산안 통과 당일에도 “이번 조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무모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폴 의원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행사하면서 새벽까지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br/>반면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공화당의 비판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맞서는 중이다.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는 “여성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의료에서 소외 받는 여성들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라고 까지 얘기하고 있다.<br/>정치권이 가협을 두고 공방을 멈추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캐플런 뉴욕대의대 의학윤리학과 학과장은 “지금 우리는 틀린 방향의 논쟁을 하고 있다”며 “낙태 논란으로 비화한 정치적 논쟁 대신 우리는 의료 서비스와 소외계층, 그리고 태아 조직 거래와 관련한 윤리 정립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br/>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43.txt

제목: 립스틱 바르고 스마일… “예뻐지니 암과 싸울 자신감도 커져”  
날짜: 2015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146928  
본문: 여성 암 환우 대상 8년째 운영<br/>“<span class='quot0'>지루했던 병원 생활에 기분 전환</span>”<br/>다도 교실ㆍ꽃 공예 프로그램 등<br/>다양한 체험으로 긍정적 힘 키워줘<br/><br/>“<span class='quot0'>메이크업 교육 캠페인에 참여한 뒤부터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했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span>”<br/>21일 ‘아름다운 손길, 희망을 메이크업하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크게 붙은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소강당. 무대에 설치된 스크린에선 짧은 머리의 김지연(당시 36세·가명)씨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2010년 유방암 투병중이던 김씨는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Make Up Your Life)’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가발 모델이 돼 새 삶을 살고 있다. 덕분에 암도 이겨낼 수 있었다.<br/>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라는 슬로건으로 아모레퍼시픽이 8년째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여성 암 환자를 위한 일종의 외모 가꾸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암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가 칙칙해지고 거칠어지는 등 외모 변화 때문에 고통을 받는 여성 암 환자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총 9,221명의 여성 암 환자와 2,904명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br/><br/>이날 행사에는 분홍색 스카프를 두른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27명과 암 환자 39명이 참여했다. 모자를 깊이 눌러썼거나 짧은 머리인 여성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영상메시지가 끝나자 아모레퍼시픽 전문강사가 피부 관리법을 알려줬고, 직접 메이크업을 시연했다. 지난해 11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이경춘(63)씨는 “<span class='quot1'>매달 한 번씩 맞는 항암주사 때문에 머리카락이 수세미같이 뻣뻣해지고, 피부도 거칠어졌다</span>”며 “<span class='quot1'>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왔다</span>”고 말했다. 카운셀러 이보람(29)씨의 손길이 그의 얼굴에 닿자 생기가 돌았다. “보세요. 분홍빛 립스틱만 살짝 발라줬을 뿐인데 얼굴이 환해졌네요.” 이날로 두 번째 메이크업 자원봉사에 나선 이씨는 “환자들이 낯설고 어색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생기를 부여해주는 정도로 진하지 않게 화장을 해드린다”고 말했다.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자칫 상처를 낼 수 있는 눈썹 손질용 칼은 사용하지 않는다.<br/>신혼 때 이후로 처음 화장을 했다는 이씨는 “어색하다”면서도 주변의 “예쁘다”는 칭찬에 쑥스럽게 웃었다. “<span class='quot0'>항암 치료 때문에 부은 얼굴이 몹시 신경 쓰였다</span>”는 이씨는 항암 치료의 고통 때문에 여러 차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고 털어놨다.<br/>다행히 분당서울대병원에 마련된 환자 모임에 나가게 되면서 생각을 고쳐먹은 이씨는 “<span class='quot2'>가까운 지인들보다 오히려 같은 처지의 환자들과 어울리며 속내를 털어놓으니 풀리는 게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환자들끼리 만나면 삶의 희망이 자꾸 생긴다</span>”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씨는 “<span class='quot2'>약을 먹으면 전기 감전되듯 다리가 저리고, 두피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쥐어뜯는 것처럼 아픈데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마사지 프로그램이나 두피·피부 관리 프로그램도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span class='quot0'>거울에 비친 내 모습, 한없이 슬펐습니다.</span>” 아모레퍼시픽이 익명의 암 환자들로부터 투병 과정에서 생기는 고민을 적어달라고 했더니 외모에 대한 고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 환자(51)는 “항암 치료 중 제일 먼저 머리와 눈썹 등 온 몸의 털이 빠졌을 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span class='quot0'>거울 앞에 서거나 밖에 나가는 게 두렵다</span>”거나 “<span class='quot0'>너무도 달라진 외모 탓에 아이들이 엄마를 창피해 하는 게 가장 마음 아팠다</span>”는 응답이 많았다.<br/>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에게 외모 문제가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싶지만 ‘화장의 힘’은 셌다. 실제 학계에서는 ‘립스틱 사인’이란 용어를 쓴다. 투병 중 삶에 의욕을 잃었던 환자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것은 다시 사회로 나와 삶에 적극적으로 임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는 의미다. 환자들은 자신을 다시 가꾸기 시작하면서 병과 싸우고, 새 삶을 꿈꾸게 된다.<br/><br/><br/>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환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span class='quot0'>지루했던 병원 생활에 기분 전환</span>이 됐다”, “<span class='quot0'>잠시라도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좋았다</span>”, “<span class='quot0'>우울했는데 퇴원하면 열심히 피부도 가꾸고 운동해서 다시 삶의 희망을 가꿔 아름답게 살겠다</span>” 등의 소감을 남겼다.<br/>‘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프로그램에 단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17%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투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관리가 치료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br/>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은영(52)씨는 지난 6월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12월 복직을 앞두고 있다. “환자라도 생기있게 외모를 꾸미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환자가 되면 매사에 주눅들고 귀찮아져 화장은 꿈도 못 꾸죠.” 메이크업을 통해 반달 모양의 눈썹을 요즘 유행하는 일자형 눈썹으로 바꾼 게 마음에 든다는 김씨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꽃도 만지니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br/>메이크업 실습이 끝난 후 부케를 만드는 꽃 공예 시간이 이어졌고, 꽃을 만지는 환자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br/><br/>아모레퍼시픽은 이날부터 특별 프로그램으로 따로 실시했던 꽃 공예를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메이크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취미생활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프리미엄 녹차 브랜드 ‘오설록’과 함께 하는 다도 체험, 플라워 서브스크립션 브랜드 ‘꾸까(Kukka)’의 꽃을 활용한 공예, 퍼스널컬러 커뮤니티 ‘컬러즈’의 ‘나에게 맞는 색상 선택법’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br/>환자들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나서는 카운셀러들도 큰 보람을 느낀다. 이보람씨는 “<span class='quot3'>메이크업을 통해 환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감사함을 느낀다</span>”며 “<span class='quot3'>카운셀러 활동을 하는 동안만큼은 이런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span>”고 말했다.<br/><br/><br/>류제천 아모레퍼시픽 부사장은 “<span class='quot4'>아모레 카운셀러는 1964년 방문판매가 처음 도입된 이래 우리 사회에 아름다움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4'>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 카운셀러가 함께 펼치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통해 환자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되찾게 되기를 기원한다</span>”고 말했다.<br/>‘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프로그램은 암 수술을 받은 지 2년 이내인 여성환자로 현재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중인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카운셀러 자원봉사단이 직접 자택이나 병실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전화(02-318-8673)로 안내 받을 수 있다. 11월에는 이화의료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광주현대병원, 전북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제주대병원에서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br/>성남=권영은기자 you@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44.txt

제목: 가공육ㆍ적색육, 한국인 섭취량으로는 위험하지 않을 것... 식약처 발표  
날짜: 2015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031387  
본문: 정부가 가공육·적색육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섭취량으로는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식품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발암물질로 규정됐었다.<br/> <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는 최근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 실태, 외국의 관련 권장 기준, WHO 발표 내용, 육류의 영양학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린 판단이다.<br/> <br/>식약처는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1일 평균 6.0ｇ 수준"이라며 "매일 가공육 50ｇ 섭취시 암 발생률이 18% 증가한다는 WHO 발표 내용을 참고하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 수준이 WHO가 밝힌 위험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br/> <br/>가공육의 색을 내거나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의 섭취량도 우려 수준에 한참 떨어졌다. 2009~2010년 기준 한국인의 아질산나트륨 1일 섭취량은 WHO 1일 섭취허용량(0~0.06㎎/체중 1㎏)의 11.5% 수준이었다.<br/> <br/>한국인의 적색육 섭취량도 1일 61.5ｇ 수준으로 매일 100ｇ을 섭취하면 암 발생률이 17% 증가한다는 WHO의 주장에 따르면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br/> <br/>해외의 섭취 권장량과 비교해도 한국인의 가공육ㆍ적색육 섭취 정도는 낮은 편이였다. 한국인의 가공육과 적색육 1일 섭취량은 67.5g으로 호주의 섭취권장량(65~100ｇ)에 낮은 수준으로 포함됐다. 또 영국의 섭취권장량(70ｇ)보다는 낮았다.<br/> <br/>다만 식약처는 "적색육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성인 남성과 가공육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채소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과 균형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부로 마무리했다.<br/> <br/>식약처는 내년 하반기쯤 가공육과 적색육의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가공육ㆍ적색육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는 학계, 관계기관의 식품ㆍ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외국의 섭취권고 기준과 한국인 대상 식생활 실태조사 등이 연구 적용된다.<br/> <br/>식약처 관계자는 "가공육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식품에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육류 뿐 아니라 적정 섭취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식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br/> <br/>한편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11월 27일(현지시간)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1군 발암물질은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지정되며 담배와 석면도 이에 속한다.<br/> <br/>이와 함께 WHO는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등 붉은색을 띠는 적색육에 대해서도 2A군의 발암 위험물질에 포함시켰다.<br/><br/><br/>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45.txt

제목: “우리 국민 붉은 고기 가공육 섭취 우려 수준 아니다”  
날짜: 2015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2114332  
본문: 하루 고기 섭취 100g 넘는 20,30대 남성은 “삶아서 섭취해야”<br/>식약처, 내년 하반기 ‘적정 섭취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br/><br/><br/>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발표한 것보다 적은 양의 가공육과 붉은 고기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30대 남성은 붉은 고기를 기준보다 조금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br/>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pan class='quot0'>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의 가공육과 붉은 고기 섭취량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0'>다만 국민들의 가공육 및 붉은 고기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적정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달 26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햄ㆍ소시지 등 가공육과 소ㆍ돼지ㆍ양고기 등 붉은 고기를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자 열린 것이다. <br/> 식약처가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1일 평균 6g, 붉은 고기는 61.5g이었다. 매일 가공육 50g, 붉은 고기 100g을 먹을 경우 직장암 및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각각 18%, 17%씩 증가한다는 WHO 발표보다 적은 양이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1'>우리 국민의 평균 섭취량은 영국의 가공육과 붉은 고기 섭취 권장량 70g, 호주 65~100g 과 유사한 수준</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또 가공육 발색 및 보존에 사용되는 아질산난트륨의 1일 섭취량(2009~2010년)도 WHO의 1일 섭취허용량의 11.5%에 불과하다</span>”고 설명했다. <br/> 하지만 20,30대 남성은 붉은 고기, 10대 청소년은 가공육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20대 남성(112.4g)과 30대 남성(106.8g)의 붉은 고기 섭취량은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100g 이상이고, 10대(14.9g)는 전 연령 중 가공육 섭취량이 가장 많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WHO의 100g 기준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을 포함한 평균치이고, 건강한 청년이 100g 넘게 먹는 것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2'>지금 수준으로 먹되, 불에 구워먹는 조리법 대신 발암 가능 물질을 피할 수 있도록 삶아서 수육 등으로 먹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가공육 및 붉은 고기 섭취 가이드라인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학계 및 관련기관 등과 함께 외국의 섭취 권고기준 및 설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식생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청소년들의 과도한 가공육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자율로 돼 있는 가공육의 고기함량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br/>청주=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46.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 '개인 맞춤 암 치료 클리닉' 오픈  
날짜: 2015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939632  
본문: 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는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 암치료 클리닉'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br/> <br/>기존의 암 치료 방식과 달리, 삼성서울병원의 개인 맞춤 암 치료 클리닉은 환자마다 유전체를 분석해 달리 치료를 진행한다. <br/> <br/> 암환자 내원 시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꼭 맞는 표적항암제를 찾아내는 한편, 그에 따른 혁신 신약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br/> <br/> 실제로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62세 남성 안 모씨는 소화불량 탓에 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위암 4기 판정을 받아 손쓰기 힘든 상태였다.<br/> <br/> 통상적 항암치료로 1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란 진단을 받았지만 삼성서울병 유전체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릭토 유전자 증폭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환자에게 맞는 치료제를 찾아 투여한 결과 현재 뱃속에 자리 잡았던 암이 서서히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br/> <br/> 병원측에 따르면 안 씨 같은 암 환자의 경우 삼성유전체연구소의 '캔서스캔(CancerSCAN)'이란 암유전체진단키트를 이용해 암 속성부터 파악하게 된다.<br/> <br/> 한번에 381개에 달하는 유전자를 대상으로 맞춤항암제의 표적으로 알려진 돌연변이 500여종이 있는지 찾는 작업이다. 2~3주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br/> <br/>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본격적으로 표적치료제가 투여된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쓰이는 표적치료제는 10여 개에 불과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글로벌제약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표적치료제를 20개 이상 확보,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범위를 넓혔다.<br/> <br/>손태성 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장(소화기외과)은 "위암분야에서 유전체에 기반을 둔 포괄적 임상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개인 맞춤 치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br/> <br/>채준기자<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47.txt

제목: 중앙대병원, '독감과 폐렴'·'혈액종양내과 심포지움' 진행  
날짜: 2015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936918  
본문: 중앙대학교병원, '독감과 폐렴'·'혈액종양내과 심포지움' 진행한다.<br/> <br/> 중앙대학교병원이 4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겨울철 불청객, 독감과 폐렴을 이기자!'란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 <br/> 독감과 폐렴은 환절기와 겨울철에 특히 신경 써야 할 건강의 위험요소로 특히, 65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권고되고 있다.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의료진은 '독감의 치료와 예방'(정진원 교수), '폐렴의 치료와 예(최성호 교수)의 제목으로 성인들의 필수 예방접종으로 알려진 폐렴과 인플루엔자의 증상과 발병 원인을 알아보고 백신의 종류, 접종시기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br/> <br/> 이번 강좌는 별도의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강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앙대병원 대외협력팀(02-6299-2219)으로 연락하면 된다.<br/> <br/>또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병원 중앙관 4층 강의실에서 '제2회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심포지움'을 개최한다.<br/> <br/> 이번 연수강좌는 의사·약사·간호사·임상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소화기내과 김재규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Innovation in Oncology'(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Innovation in Hematology'(혈액종양내과 홍정용 교수)·'Advance in Lung cancer'(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 등과 Q&A의 내용으로 진행된다.<br/> <br/> 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는 "각종 주요 암에 대하여 '항암제의 최신 동향(Recent advances in anti-cancer drug)'이라는 주제로 최근까지의 연구성과와 현 시점에서의 표준요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 보고자 한다"며 심포지움의 의의를 전했다.<br/> <br/>이번 심포지움은 대한의사협회 평점 2점을 부여하며, 등록비는 무료이다. 강좌 사전등록 신청(10월 14일~30일) 및 문의사항은 메일(cau.hmo@gmail.com) 또는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02-6299-3242)로 연락하면 된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48.txt

제목: 50대보다 더 힘들어질 20대 여성, 골다공증-유방암 조심  
날짜: 2015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937781  
본문: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현재의 50대보다 더 힘든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 <br/>산업화와 공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여성들을 더욱더 위험에 노출 시킨 것이다. 그 중 유방암과 골다공증은 현재 20대 여성들에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젊은 여성들일 수록 더욱더 자신의 몸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할 이유다.<br/> <br/>▲유방암<br/> <br/>한국유방암학회가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 유방암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 신규 환자가 1만7,792명 발생해 16년 사이 약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인구 10만 명당 환자도 70.7명을 기록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특히 젊은 층의 생활 습관이나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유방암 발병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br/> <br/>한국유방암학회는 전국에 거주하는 20~50대 여성 1,000명(연령대별 각 250명)을 대상으로 유방암 영향을 끼치는 인자를 조사해 유방암 발생률을 예측했다. 분석 결과, 현재 50대 여성이 74세까지 생존 시 유방암 발병 확률이 3.14%인데 비해 20대인 여성이 같은 나이까지 생존 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42%로 위험도가 약 2.4배나 높았다<br/> <br/>같은 나이까지 생존 시에도 유방암 발병 확률이 달라지는 것은 비교적 젊은 층인 20~30대와 중년층인 40~50대의 생활 환경이 크게 변화한 탓이다. 젊은 층일수록 유방암의 원인 중 하나인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요소를 다수 가지고 있다.<br/> <br/>20대 중 13세 미만에 초경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23.6%(59명)나 되었지만, 50대의 경우는 4.8%(12명)에 그쳤다. 이른 초경으로 생애 동안 월경 기간이 길어지며,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br/> <br/>반면 유방암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출산·모유 수유 등의 경험 비율은 40~50대의 82%(410명)였지만 20~30대의 25.2%(126명)만 경험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결혼과 출산 적령기로 꼽히는 30대 여성 중에서도 미혼 비율이 40.4%(101명)나 되었고, 절반 이상(54%, 135명)은 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경이 빨라진 20~30대가 낮은 출산과 모유수유 비율을 유지한다면, 유방암 발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운동(주 1회 이상)을 하는 비율은 40, 50대(66%, 330명) 20~30대(55.6%, 278명)보다 높았다.<br/> <br/>▲유방암 대처법<br/> <br/>한국유방암학회는 연령별로 조기검진 권고 지침을 만들었다. 30세 이후에는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권하고,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검진,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을 할 것을 권한다. 고위험군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br/> <br/>위험 인자 중 개인이 조절 가능한 요소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알코올을 하루 10g(알코올 40% 위스키 25㎖, 25% 소주 40㎖, 12% 포도주 85㎖, 맥주 250㎖) 이상 섭취하면, 폐경 여부와 관계없이 유방암 발생위험이 7~10% 정도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음주는 삼간다. 포화 지방 섭취량이 많을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폐경 후에는 지방 조직이 에스트로겐의 주된 공급원이므로 체중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br/> <br/>한세환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은 "이미 세계보건기구도 한국을 서구만큼이나 유방암 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 젊은 여성은 활발한 사회 진출과 변화한 생활로 정기적인 검진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br/> <br/>▲골다공증<br/> <br/>최근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소식지에 따르면 한국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8.9%로 알려졌다. 이번 통계는 20대 여성 10명 중 1명 꼴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의미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br/> <br/>특히 흡연은 뼈를 이루는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방해해 지속적으로 뼈 속의 칼슘 농도를 떨어뜨려 뼈를 약하게 만들고 여성 호르몬(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방해해 호르몬 변화로 인한 골밀도 감소를 유발한다.<br/> <br/>이로 인해 폐경기 이후에나 나타나야 할 증상인 골다공증이 20대 젊은 나이에 발생할 수 있다.<br/> <br/>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상태의 질환으로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중년층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이다.<br/> <br/>골다공증의 주요 증상은 골절이다. 척추·대퇴부·손목골절이 흔히 발생한다. 경미한 외상이 생기거나 저절로 뼈에 이상이 오기도 하며, 치료를 해도 재골절 위험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심하면 골절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허리가 굽거나 휘게 될 수도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다.<br/> <br/>또 최근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게 되면서 과도한 다이어트가 각광받고 있다. 다이어트도 골다공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br/> <br/>문제는 꾸준한 흡연과 과도한 다이어트를 경험한 20대 여성의 50대 이후에 골다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br/> <br/>▲골다공증 예방 <br/> <br/>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을 필수다. 또 평소 꾸준한 운동과 우유와 치즈, 요구르트, 달걀 및 두부 등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의식적으로 자주 챙겨 먹는 습관으로 골밀도를 높여야 한다. 이승엽 참튼튼병원 은평지점 원장은 "골다공증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흡연은 뼈의 영양 공급을 막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므로 삼가야 하며 주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49.txt

제목: 갑상선암, 남자에게도 위험  
날짜: 2015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934753  
본문: 국내 갑상선암 환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성에게도 위험한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br/> <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갑상선암 환자 30만3,006명 중 여성이 25만2,489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남성에게도 위험한 암으로 주목 받고 있다. 남성 갑상선암 환자는 2010년 2만8,000여명에서 2014년 약 5만 명으로 크게 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br/> <br/>갑상선 암은 다른 암과 달리 45세 전후로 나누어 병기가 판정 되는데 '45세 이상'·'암 크기 4cm 이상'·'다른 부위로 전이' 시 고위험군이다. 여기에 남성 갑상선암도 고위험군에 속한다.<br/> <br/>만약 암의 크기가 1cm 미만이라면 성별과 무관하나 그 이상이라면 같은 상태여도 남성 환자가 여성 갑상선암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이 및 재발 위험이 큰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생명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식도나 기도 부근 갑상선에 암이 생겼거나 미분화암이라면 매우 치명적이다.<br/> <br/>만약 목 주변이 육안으로 눈에 띄게 부었거나 뭔가 만져지고,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하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피곤하거나 이유 없이 목이 쉰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br/> <br/>갑상선암 진단은 초음파 검사로 가능하며 초음파 결과에 따라 갑상선 결절이 암으로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만약 갑상선암으로 확진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br/> <br/>김종민 민병원 갑상선센터 대표원장은 "갑상선암은 주로 여성들에게만 발병한다고 생각하기에 남성들은 갑상선 정기검진을 잘 받지 않는다. 이에 암이 상당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갑상선암은 진행이 느리고 생존율이 매우 높아 흔히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갑상선암이 그런 것은 아니다"며 "특히 남성 환자들은 더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넥타이나 면도 시에 목 주변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30대 이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갑상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50.txt

제목: [기고] 함께 해결해야 할 질병 ‘비만’  
날짜: 201511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946065  
본문: 전세계 각국에서 10월 11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살찌는 인류’의 심각성을 되새긴다. 비만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인구의 30%, 숫자로는 약 21억 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비만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암이나 다른 합병증을 야기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대 여명이 최고 3~8년 줄어들며,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기대 수명은 더 감소한다.<br/>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15년 전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자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정했으며 최근 소아비만퇴치위원회(ECHO)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2007년 대한비만학회는 제4회 아시아ㆍ오세아니아 비만학술대회를 한국에 유치하여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비만과 관련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비만은 다른 질환의 위험요인이자 그 자체가 질환이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서울 공동선언’도 채택했다.<br/>지난달 3일 일본에서 개최된 제8회 아시아ㆍ오세아니아 비만학술대회에서 역시 비만에 의해 유발되거나 혹은 비만과 연관되어 건강상의 문제를 동반한 병리적인 상태를 ‘비만병’으로 규정했다. 체중 감소가 임상적으로 바람직하며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나고야 선언도 발표했다.<br/>현재 국내 성인 비만 인구는 총 1,300만 명으로 이 중 고도 비만은 200만 명에 달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비만이 되리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소아청소년도 예외는 아니어서 120만 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상태이다.<br/>비만을 개인의 게으름이나 탐욕 같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비만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개인 건강의 위협을 넘어 엄청난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질환 진료에 사용된 건강보험 비용은 2002년 8,000억 원에서 2013년 3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7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br/>더군다나 비만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더 높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비만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해진다. 특히 고도비만은 소득 수준에 따라 유병률의 차이가 명확하며 아동청소년 비만 또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br/>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각국이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잘 알려진 미국의 ‘렛츠 무브(Let’s Move)’ 캠페인은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가 직접 진두지휘한다. 미국은 이 캠페인을 통해 비만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급식법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을 하고 있다.<br/>대한비만학회와 보건복지부는 세계 비만의 날에 동참하여 10월 11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비만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와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노력을 지속해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들을 펼치고 있다.<br/>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비만 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비만이 가진 심각성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저소득층 비만 예방과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비만을 야기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사회 각계와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을 때 우리 자신과 가족, 사회, 국가의 미래에 끼칠 비만의 해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br/>유순집 대한비만학회 이사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51.txt

제목: 美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유방암 사망 확률 더 높다  
날짜: 2015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821318  
본문: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뉴욕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유방암 진단을 받을 확률이 백인 여성이 더 높았다.<br/>미국 암 학회(American Cancer Society)의 신간 보고서를 집필한 캐롤 데산티스 박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이제는 흑인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백인 여성과 비슷해 졌다</span>”며 “유방암은 흑인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 질병이 됐다"고 전했다.<br/>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여성 10만 명 중 유방암에 걸린 여성은 2004년 백인 135명, 흑인 120명이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유방암 발발 흑인 여성이 135명으로 증가, 백인 여성과 비슷해졌다. 특히 흑인 여성들은 백인 여성 보다 어린 나이에 유방암으로 판명되거나 더 많이 유방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br/>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변화의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비만’을 꼽았다. 백인 여성의 비만율은 꾸준히 33%에 머무른 반면, 흑인 여성 비만율은 지난 10년 동안 39%에서 58%로 급증했다. 비만 정도와 유방암 발병률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br/>비만 외에 결혼 패턴, 생활 수준 등 생활요인도 발병률을 높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모유 수유는 유방암을 예방한다”며 “흑인 여성이 백인에 비해 아이를 적게 낳거나 늦게 낳는데 이 또한 흑인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br/>미국 로스웰파크 암 연구소의 크리스틴 모이시치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미국 내 흑인과 백인의 생활 수준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그는 흑인 여성이 받는 의료수준이 백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유방 검진용 X선 촬영을 못 받거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가 흑인 여성의 암 발병률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br/>미국 암 학회 관계자는 “유방암은 피부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다”며 “45세 이상의 여성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br/>전영현 인턴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52.txt

제목: 개와 코끼리에게 암 정복의 열쇠가 숨어있다  
날짜: 2015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636204  
본문: 암은 오늘날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흡연과 콜레스테롤 과다섭취 등의 비율이 높은 미국 성인의 주요 사망원인이고, 영국에서는 75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면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약 11만명이 암에 걸리면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 연수인 기대수명대로 살 경우 남자 3명 중 1명, 여자 4명 중 1명에게 암이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다. <br/>암은 비숙련 노동자들이 전문직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발병률을 기록하는 등 불평등의 민낯을 드러내는 질환이기도 하다. 암을 예방하고 정복하기 위해 암 연구자들은 수많은 시간과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암을 정복한다면, 죽음의 끈질긴 위협에서 벗어나 인간이 완전히 새롭고 안전한 노후를 꿈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br/>암 연구자들이 최근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 방법이 인간과 유사한 포유류 동물이 걸리는 암 질환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다. 특히 개와 코끼리는 의미심장한 연구대상으로 지목돼왔다. 개는 인간과 유사한 암 질환에 걸려 죽음을 맞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개의 암 질환 연구를 통해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는 인간이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 하며 진화해 인간과 매우 비슷한 생활방식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br/>코끼리는 인간이나 개에 비해 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 주목돼왔다. 암이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무한 증식하면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포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수명이 길수록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암 연구자들이 동물원과 야생에서 죽은 코끼리를 부검해본 결과 암으로 죽는 개체는 평균 5% 미만이었다. 1970년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페토 박사는 이러한 현상에 의문을 제기했고 암 과학자들은 이를 ‘페토의 역설’이라 일컬으며 지금껏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그 비밀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br/><br/>개, 암 질환을 감지하는 ‘광산의 카나리아’ <br/>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도시인 세바스토폴에서 경찰로 근무하는 닉 벨리비우(28)는 차량 순찰을 나갈 때 독일 셰퍼드종 프랭크를 항상 데리고 나간다. 지난해 2월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행인 세 명을 검문하다 시비가 붙어 크게 다칠 뻔한 위기의 순간 프랭크가 자신을 구해주었다. 한 명이 깨진 유리병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자 경찰차에서 대기하던 프랭크가 쏜살같이 뛰어 나와 이들을 넘어뜨려 단숨에 제압한 것이다. 생명의 은인인 프랭크가 올해 초 경찰서 주차장 구석에서 갑자기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했다. 프랭크는 동물병원에서 혈액암의 일종인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수의사는 프랭크에게 “<span class='quot0'>19주 정도 소요되는 화학치료를 받지 못하면 프랭크는 얼마 살지 못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대형견인 셰퍼드의 평균수명은 10~12년으로 프랭크는 올해로 7년째였다. 사람 나이로 계산하면 프랭크는 올해 50세쯤 되는 것이었다. <br/>개는 인간만큼 암에 취약한 동물이다. 개가 기대 수명대로 산다면 암에 걸릴 확률은 인간고 비슷하다. 특히 식습관과 환경 등의 차이로 아시아인과 백인, 흑인 등 인종에 따라 발병하는 주요 암 질환이 다르듯이 개도 견종에 따라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인다. 스위스 베른이 원산지로 대형견인 버니즈 마운틴 독은 악성 종양 질환을 주로 많이 앓고, 중국 기원의 고대견종으로 사자와 곰을 닮은 차우차우는 구강점막의 입천장과 볼점막, 잇몸 등에서 발생하는 악성흑색종에 취약하다. 이는 순수혈통 유지를 위한 근친교배나 여러 종의 장점만을 섞는 무분별한 교배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수 세대에 걸쳐 개량이 이뤄지면서 치명적인 유전 결함으로 견종마다 특이한 암 질병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고대 그리스 때부터 사냥개에 이용된 비글이나 다리가 짧은 소형 사냥개로 독일에서 개량된 닥스훈트는 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은데 과학자들은 아직까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br/>산업화 이후 인간과 반려견은 페인트 같은 화학성분이 내뿜는 유독성 물질과 인스턴트 식품 속 환경호르몬 등 발암물질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 개의 암 발병률을 조사하면 해당 지역의 인간들이 나중에 겪게 될 암 발병률을 유추할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암 연구센터 대표인 매튜 브린은 “<span class='quot1'>개는 인간과 같은 공기 같은 물을 마신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비스페놀, 탄 고기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 등 반려견은 주인과 동일한 발암물질에 노출된다</span>”고 지적했다.<br/>개는 인간보다 몸집이 작고 수명이 짧은 만큼 동일한 양의 발암물질에 노출돼도 시기적으로 먼저 암이 발병할 확률이 크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에 사는 개의 암 질환을 조사하면 해당 지역이 발암물질에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브린은 “<span class='quot1'>미국 전체 가구의 약 절반 정도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개들은 궁극적으로 탄광에서 유독가스를 먼저 감지해 위험을 알리는 ‘탄광의 카나리아’가 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코끼리, 암 정복의 희망 <br/>코끼리는 수십 년 동안 암 연구자들이 가장 열심히 매달린 연구과제 중 하나였다. 세포가 많을수록 암 발병률이 커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여겼지만 코끼리는 이런 상식을 무너뜨린 존재다. 코끼리는 인간보다 약 100배 많은 세포 수를 가지고 있다. 페토 박사에서의 의문에서 시작된 난제인 ‘페토의 역설’을 풀 수 있다면 인간의 암 정복도 멀지 않은 일이다.<br/>그런데 애리조나 대학의 생물학자인 카를로 말리 박사가 최근 미국의학협회지(JAMA)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 비밀의 실마리를 풀었다. 페토의 역설의 비밀은 종양 억제 유전자 ‘TP53’를 확인한 것이다. 말리 박사는 코끼리의 세포와 정상인의 세포, 그리고 TP53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유전 결함인 리-프라우메니(LFS) 증후군 환자의 세포를 비교했다. 연구팀은 일반 세포들에 방사선을 쫴서 암세포로 변형시켰는데, 연구 결과 암세포가 죽는 비율이 코끼리는 14.64%로 가장 높았고 정상인은 7.17%, LFS 증후군 환자는 2.71%에 불과했다. TP53이 제 기능을 못한 LFS 증후군 환자에게서 암세포가 가장 적게 죽었다는 점은 코끼리와 정상인 사이에서 암 발병률의 차이도 TP53의 영향을 받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 유타 대학 헌츠먼 암센터의 소아 종양학자인 조슈아 시프먼 교수는 지난 8일 미국의학협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보통 인간은 TP53이라는 종양 억제 유전자를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하나씩 받아 총 2개에 불과하지만, 코끼리의 몸에서는 무려 40개나 발견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코끼리가 인간에 비해 TP53을 20배나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었다. <br/>암 연구가들은 코끼리가 TP53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진화의 산물’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형 포유류인 코끼리는 종의 목표인 번식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코끼리의 임신 기간은 22개월 정도로 굉장히 긴 데다가 한번에 적은 수의 자손을 출산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인 코끼리는 오랫동안 수명을 누리며 자손을 낳아야 한다. 이 때문에 코끼리는 체내에 TP53의 유전자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화함으로써 인간과 비슷한 수명(70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암 질환으로 죽을 확률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었다. <br/>흰돌고래도 마찬가지다. 대형 포유류인 흰돌고래는 인간보다 약 1,000배나 많은 세포 수를 갖고 있지만 미국인의 약 25%가 암 질환으로 사망하는 반면 흰돌고래는 오직 18%만이 암으로 죽는다. 유타 대학 연구팀은 “TP53 유전자가 P53 단백질을 통해 암세포에 세포자살이라는 형태의 세포괴사를 유발시킨다”면서 “TP53은 암세포를 죽이는 권총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br/>TP53의 명령을 받아 암세포를 죽이는 P53의 기능도 인간과 코끼리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간 내 P53가 암세포를 발견하면 고치거나 복원하려고 에너지를 쏟는 반면 코끼리는 암세포를 죽이는데 더 충실했다. 유타 대학 헌츠먼 암센터의 조슈아 치프먼 박사는 “<span class='quot2'>인간이 중고차를 고쳐 다시 타려고 하는 거면 코끼리는 헌 차를 버리고 새 차를 구입하는 식</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코끼리가 더 확실히 위험이 될 암세포를 완벽히 처리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페토의 역설을 풀었지만 이 발견을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이 2개만 가지고 있는 TP53 유전자를 암 질환을 막겠다고 코끼리처럼 40개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것은 물론 실제 그런 임상실험을 진행했을 때 인간 신체에 어떤 부작용이 초래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미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캠퍼스(UCSF)의 헬렌 딜러 가족종합암센터의 알랜 애쉬워스 센터장은 “<span class='quot3'>TP53 유전자를 통한 접근은 기존의 화학치료 요법보다는 획기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3'>하지만 인간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 <br/>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53.txt

제목: [지평선] 발암물질 가공육  
날짜: 2015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645866  
본문: 가공육의 섭취가 담배나 석면만큼 발암(發癌) 확률이 높다는 뜻인가? “아니다. 가공육은 담배나 석면과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1등급’에 올랐지만, 동급으로 해롭다는 의미는 아니다. IARC(국제암연구소) 등급은 위험도의 차이라기보다 발암물질에 대한 과학적 증거 유무에 대한 분류다.” 가공육이나 붉은 살코기가 암의 원인이 되어 얼마나 많이 사망한다는 것인가? “같은 개념으로 사망원인을 대비하면 담배의 경우 1,000,000건, 술은 600,000건, 공기오염은 200,000건이다. 가공육은 34,000건, 살코기는 50,000건 정도다.”<br/> ▦ WHO(세계보건기구)는 질병과 건강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다. 직속기관인 IARC도 다르지 않다. 거기서 전세계를 향해 ‘가공육=담배ㆍ석면’이라고 선언했다니 그 충격이 작지 않다. 모든 언론은 IARC 발표의 앞부분만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발표에 이어 현장에서 진행된 해설용 일문일답은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앞은 그 일문일답의 일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육을 즐기면 금연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식의 ‘가공보도’가 전세계로 퍼져나갔다.<br/> ▦ 아이들과 서민이 수시로 즐겨먹는 햄과 소시지 등이 그 못된 담배나 석면과 동급으로 몸에 해롭다고 WHO가 발표한 셈이니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적게 먹으니 괜찮겠지, 육류가 주식인 서양사람들의 문제일거야 등의 자위책으로 흘릴 일만은 아니다. 발암물질은 발암물질임이 분명하고, 특히 ‘1등급’은 ‘확실하게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2등급’인 ‘암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는 물질(2등급 그룹A)’이나 ‘가능성이 있는 물질(2등급 그룹B)’과는 뚜렷이 구분하고 있다.<br/> ▦ 앞서 2007년 세계암연구재단(WCRF)과 미국암연구협회(AICR)는 가공육을 ‘대장암 증가에 확실한 요인’으로 분류해 발표한 바 있다. WCRF는 1997년에도 ‘붉은색 육류가 대장ㆍ직장암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이번 IARC의 발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는 질문에 IARC는 결론적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암 발병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ㆍ국제적 권장사항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다. 각 정부가 식이요법 지침을 결정하는 새로운 정보가 될 수 있다.”<br/> <br/> <br/> 정병진 논설고문 bjju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54.txt

제목: 대전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기저귀 값 등 월 7만5000원  
날짜: 2015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647878  
본문: 대전시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일부터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한달 최고 7만5,000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br/> 양육비 조사결과 만 1세 미만의 영아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가 한달 평균 2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전시는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br/> 지원대상은 기저귀의 경우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암이나 B형 간염 등 각종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산모의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br/>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는 기저귀, 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 분이 지원된다.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단위로 지원한다.<br/> 기저귀만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3만2,000원을, 지원 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 질환 등으로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할 때에는 월 7만5,000원이 지원된다. <br/>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으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유형에 따라 확정일 다음날 바우처 포인트를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br/> 대전시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2,000여 저소득 가구에서 양육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br/> 대전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이 있는 가정의 기혼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조사가 나왔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지원대상 확대와 단가인상 노력을 기울이겠다</span>”고 말했다. <br/> 한편 대전시가 양육비를 조사결과, 만 1세 미만의 영아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가 한달 평균 2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br/>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55.txt

제목: 유방암 퇴치 나선 미스코리아 녹원회 권정주 회장  
날짜: 2015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500450  
본문: “<span class='quot0'>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협하는 유방암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스코리아가 앞장 서겠습니다.</span>”<br/>미스코리아 수상자 모임인 녹원회는 26일 강원 춘천시 더 플레이어스 컨트리클럽에서 ‘핑크리본 자선 골프대회’를 열어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와 수술에 써달라고 1,000만원을 제일병원 여성암센터에 전달했다.<br/>녹원회를 이끌고 있는 권정주(44) 회장은 “<span class='quot1'>유방암은 여성이 겪는 대표적인 질병 중의 하나이고 미스코리아 중에서도 투병을 한 사람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유방암 퇴치 캠페인인 ‘핑크리본’ 활동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span>”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골프 대회는 발대식 성격이었고 내년부터 매년 대회를 열어 수익금을 유방암 퇴치 기금 등으로 기부할 예정”이라며 “마라톤과 걷기대회, 바자회, 핑크리본 패션쇼 등으로 확대 발전시켜 국내 여성 암 1위인 유방암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방암 자가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br/>올해로 창립 59년을 맞은 미스코리아 녹원회는 역대 미스코리아 본선 수상자 40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다. 친목모임으로 시작했다가 2013년 서울시 사단법인으로 새출범해 여성, 장애인, 어린이, 다문화 가정 등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 서고 있다.<br/>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56.txt

제목: [사설] 가공육 남용에 경각심 일깨운 WHO 경고  
날짜: 2015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336053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충격적인 발표를 냈다. 소시지와 햄 같은 가공육이 담배나 석면 못지않은 암 유발물질이라는 것이다. 이번 발표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0개국 22명의 전문가를 써서 육류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건의 연구조사를 검토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바탕을 뒀다. WHO는 이에 따라 소시지, 햄, 핫도그, 베이컨, 햄버거 등을 담배와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소 돼지 등 붉은 고기도 ‘발암 위험물질 2A군’으로 분류할 예정이다.<br/> WHO의 보고는 즉각 전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 높아진다’는 계량분석을 제시했으나, 국내외 육류업계에서는 “암의 양상은 매우 복잡해 한 가지 요소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span class='quot0'>육류 영양소의 중요성은 이론적 위험보다 훨씬 크다</span>”는 반론도 나왔다. 이에 WHO도 이번 보고의 목적이 해당 식품의 퇴출이 아니라, 지나친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br/> 사실 섭취물의 유해성을 제한된 틀에서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은 폭넓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 출근길 교통사고에도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수십 가지의 원인이 작용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특정 섭취물의 질병유발 작용을 계량화할 수 있느냐는 식의 회의 때문이다. 석면 금지에 100년이 걸리고, 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가공육은 국내에도 연간 약 1조5,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돼 있어 기업들의 반론은 크다. <br/> 그러나 WHO의 경고는 가볍지 않다. 업계에선 IARC가 경고한 가공육 섭취량은 매일 50g으로 연간 18㎏이지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가공육 소비량은 4㎏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고열량 육식 위주 식생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대장암 발병률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4월에 세계 1위(고대 구로병원 오상철 교수팀 분석)에 오른 상황이다. 차제에 가공육을 포함한 육류 소비행태를 돌아보고,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57.txt

제목: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年 11조  
날짜: 2015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333627  
본문: 각종 신체ㆍ정신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간병비 등에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연간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27일 발표한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1,360억원이었다. 이 비용 분석은 현실에 맞는 장애인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br/> 항목별로는 장애로 인한 질환 치료 등에 드는 의료비(보조기기 구입ㆍ유지비 포함)가 5조2,040억원(47%)으로 전체 비용의 절반에 육박했고,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도 3조4,450억원(31%)에 달했다. 간병비(1조3,010억원),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생산성 손실비용(8,830억원), 병원에 다닐 때 드는 교통비(2,930억원)도 적지 않았다. <br/> 장애 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4조4,250억원) 뇌병변 장애(3조2,750억원) 신장 장애(1조6,160억원) 정신 장애(6,030억원) 시각 장애(3,570억원) 순으로 치르는 비용 이 컸다. 2008년 8조1,140억원이었던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1년에는 11조원을 넘어섰다. 장애로 인한 비용(2011년 기준)은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14조8,000억원ㆍ2012년 기준)의 75%에 해당하고, 국내총생산(GDP)의 0.85%에 달했다. 재활연구소는 등록장애인 데이터베이스, 장애인 실태조사,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자료 등을 활용해 장애로 인한 비용을 처음으로 추계했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50만 명에 달한다. <br/> 양종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span class='quot0'>선천적 장애인보다 중간에 장애를 얻는 ‘중도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비용도 점차 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재활, 직업 훈련 지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58.txt

제목: ‘국가 대표 미녀’ 미스코리아 녹원회, 유방암 퇴치 나서다  
날짜: 201510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237794  
본문: ‘대한민국 대표 미녀 군단’인 미스코리아들이 유방암 퇴치를 위해 나섰다.<br/> 사단법인 미스코리아 녹원회(회장 권정주)가 주최한 ‘핑크리본 자선 골프대회’가 26일 강원도 춘천 더 플레이어스 컨트리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핑크리본 자선 골프대회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협하는 유방암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녹원회가 진행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렸다. <br/> 이날 핑크리본 자선 골프대회 발대식에는 권정주 녹원회 회장을 비롯해 홍여진(79년 선), 김예분(94년 미) 등 역대 미스코리아들과 유방암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는 문영건설, 벤제프, 정관장 등 후원업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br/> 이날 발대식에서 녹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와 수술에 써달라며 회원들이 모은 녹원회 기금 가운데 1,000만원을 제일병원 여성암센터에 전달했다. 녹원회는 이와 별도로 이날 자선 골프대회 행사의 수익금과 기부금도 향후 제일병원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골프대회, 자선행사 등을 통한 수익금도 유방암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br/> 이날 발대식에서는 미스코리아 녹원회가 여성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선도하는 단체로 발전할 것을 다짐하는 비전 선포와 함께, 자선 골프대회 참가자 모두가 유방암 캠페인에 동참하며, 동시에 유방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대규모 자선 골프대회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br/> 권정주 회장은 “<span class='quot0'>내년부터 핑크리본 자선 골프대회는 핑크리본 마라톤과 걷기대회, 바자회, 핑크리본 패션쇼 등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 암 1위인 유방암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방암 자가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span>”고 말했다. <br/>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 수상자 400여명으로 구성된 미스코리아 녹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의 사절단으로 한국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 서고 있다. <br/>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59.txt

제목: "소시지 같은 가공육 담배 만큼 위험하다"  
날짜: 2015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217283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26일 베이컨과 소시지 등 가공육을 담배만큼 위험한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소ㆍ돼지ㆍ양 등 붉은 고기도 가공육보단 덜 하지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구분했다. <br/>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span class='quot0'>가공육은 인체에 발암담배와 비소, 석면, 술과 함께 암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가공육을 섭취하면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span>”고 밝혔다. IARC가 발암물질으로 구분한 식품에는 햄과 베이컨, 살라미 소시지와 함께 핫도그, 햄버거 등도 포함됐다. 또 가공육보다는 덜 위험하지만 붉은 고기 역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내놨다. 붉은 고기를 매일 50g씩 먹으면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18%나 높아진다는 것이다.<br/>IARC의 이 같은 결정은 가공육 제조 과정 중 첨가되는 화학물질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가공육에는 고기 색을 선명하게 하고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하는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되는데, 적정량 이상 사용될 경우 암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다. IARC는 아질산나트륨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미국공익과학센터(CAPI) 역시 가장 피해야 할 식품 첨가물 중 하나로 이를 꼽는다.<br/>IARC 발표에 관련 학계 및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베리 카펜터 북미육류연구소(NAMI) 소장은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span class='quot1'>IARC는 940개에 달하는 물질을 ‘이론적으로 위험한’ 발암물질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요가 바지 하나일 정도</span>”라며 “<span class='quot1'>붉은 고기와 가공육도 이들에 포함되는 것 뿐</span>”이라고 밝혔다. <br/>영국에서 육류자문위원(MAP)으로 활동하는 캐리 럭스톤도 “<span class='quot2'>붉은 고기를 섭취량을 줄일 필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2'>여성과 소녀, 미취학 아동 들은 오히려 영양 공급을 위해 붉은 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br/>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60.txt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은행나무 암수 구분기술 중국 특허 등록  
날짜: 2015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128801  
본문: 국립산림과학원 은행나무 암수 구분기술 중국 특허 등록<br/> <br/>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은행나무 잎 DNA를 분석해 암ㆍ수 나무를 조기에 구분하는 기술을 중국에 국제특허로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br/> 은행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좋고 병충해에 강하며 가을단풍이 아룸다워 가로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을철이면 암나무에 달린 열매 특유의 냄새로 불쾌감을 유발하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조기에 암나무를 걸러내는 것이 과제였다. 지금까지는 나무가 15년 가량 자라야 암수 구분이 가능한 실정이다. <br/> 산림과학원은 은행나무 잎의 DNA를 분석해 조기에 성별을 구분하는 기술을 2011년에 개발하고 지난해 국내에 특허 등록을 했으며, 이번에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br/> 은행나무 암ㆍ수 구분 기술의 중국 특허 등록은 은행나무 원산지이자 세계 최대 은행 생산국인 중국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산림과학원은 설명했다. <br/>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암ㆍ수구분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가로수용으로 적합한 수은행나무 식재에 적극 활용하는 등 조경수 분야의 새로운 시장도 개척할 수 있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 은행나무 산업의 경쟁력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 <br/>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61.txt

제목: [인터뷰] '애인있어요' 눈길 백지원 "안 예뻐도 배우다운 얼굴 만족"  
날짜: 2015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144435  
본문: “제가 얼굴이 좀 눌려있죠? 다른 여배우들은 입체적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버텨야죠.(웃음)”<br/>26일 서울 목동 SBS홀에서 만난 배우 백지원(42)은 인터뷰 내내 수줍었고, 자신을 한참 낮췄다. SBS 주말극 ‘애인있어요’에서 최진언(지진희)의 이복누나 최진리의 사악한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이라는 백지원은 댓글이 무서워 자신에 대한 기사도 잘 안 본다. 다만 “예쁘진 않아도 배우로서 쓸모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r/>그가 연기하는 최진리는 아버지 사업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계모(나영희)와 경쟁하는 안하무인 재벌 딸이다.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막말을 퍼붓고 갑질을 일삼는다. 하지만 전형적인 악역과는 다르다. 이복동생의 불륜녀 강설리(박한별)에게 “거지발싸개 같은 게 따박따박 말대꾸냐”며 모욕을 주자 특히 중년 여성시청자들이 “속이 시원하다”며 열광한다. 그는 “악랄하기보다는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유아기적 캐릭터”라며 “그래서인지 평소 할 말 못하고 참는 분들이 좋아한다”고 말했다.<br/>캐릭터 분석이 심상치 않은 이 배우는 연극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1996년 ‘떠벌이 우리 아버지 암에 걸리셨네’란 작품으로 데뷔했으니 벌써 20년 차. 꽃을 좋아해 원예학과(경희대)에 진학했다가 20살이 넘어 무대에 서기 시작한 백지원은 “<span class='quot0'>집, 학교만 알던 소위 모범생이 연극을 통해 비로소 자유로워졌다</span>”며 “<span class='quot0'>연극영화학과가 아니라 배우지 못한 것을 책으로 독학해 연극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span>”고 털어놨다.<br/>그가 대중에 얼굴을 알린 건 ‘안판석 사단’에 이름을 올리고부터다. JTBC ‘아내의 자격’(2012)을 시작으로 ‘밀회’(2014)의 왕 비서, SBS ‘풍문으로 들었소’(2015)의 유 변호사로 안 PD 작품에 잇달아 출연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출연작마다 개성 강한 조연을 맡아온 그는 “<span class='quot0'>이번 드라마에서 처음 앞머리를 자르고 화장도 진하게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 ‘애인있어요’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span>”고 말했다.<br/>이번 드라마에서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배우는 “(남편 역) 공형진 선배”란다. “<span class='quot1'>연기톤을 늘 칭찬해주고 대사를 잘 받아준다</span>”고 했다. 또 지진희를 터프, 김현주는 연기파, 이규한은 섬세, 박한별은 쿨함이라 단어로 설명하며 웃었다. <br/>백지원은 “<span class='quot0'>주인공의 삶을 잘 받쳐주는 역할을 정확히 해내는 것이 목표</span>”라는 말로 연기 철학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양념이 많은 캐릭터인데 언젠가는 아주 담백한 성격을 가진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br/>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62.txt

제목: 등산복 방수 소재, 자연 해치고 인간 위협한다  
날짜: 2015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046240  
본문: 침낭·신발에도 쓰는 과불화 화합물<br/>그린피스가 10개국 오지서 찾아내 <br/>"비바람에 씻겨 생태계 곳곳 확산"<br/>암 유발 등 인체 유해 사례 확인<br/>미국·EU는 감축·사용금지 추진<br/><br/><br/> <br/>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앞. 주말을 맞아 산에 오르려는 등산객들이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울긋불긋 물든 가을 산 만큼이나 이들의 등산복도 형형색색이었다. 색깔은 제 각각이었지만 공통점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방수ㆍ바람막이 기능성등산복을 입고 있는 것. 어림짐작으로 산행객 10명 중 6,7명은 이런 차림새였다. 10년째 산에 오르고 있다는 김철민(61)씨는 “<span class='quot1'>방수, 방풍이 되는 고어텍스 재킷만 있으면 산에서 비나 추위를 만나도 안심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1'>활동에 편한 것도 있지만 몇 년 전부터 유행처럼 돼 버렸다</span>”고 말했다. 이런 기능성 등산복들은 등산객들의 필수품목이 됐지만, 최근 환경단체들이 이 등산복의 소재인 ‘과불화 화합물(Perfluorinated compoundsㆍPFC)’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지목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br/> 그린피스 “등산복의 과불화 화합물 생태계에 확산돼”<br/> 25일 아웃도어용품 업계 등에 따르면 방수기능 등산복은 크게 ‘소프트쉘’과 ‘하드쉘’로 나뉜다. 두 종류 모두 외피에 방수코팅을 했다는 점은 같지만, 하드쉘은 외부 바람과 비는 막아주면서 내부의 땀은 배출하는‘방수막’을 포함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고어텍스(Gore tex)’ 기능이다. 방수막은 수많은 미세 구멍이 뚫린 인조 화합물로 생산되는데, 여기에 과불화 화합물의 일종인 ‘PFOA(과불화옥탄산)’이 주로 쓰인다. PFOA는 등산복뿐만 아니라 등산화, 침낭 등 아웃도어 용품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린피스는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 산을 다니는 동안 과불화 화합물이 바람에 날리거나 물에 씻겨 생태계 곳곳으로 퍼져 나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5월 그린피스가 낸 보고서 ‘눈 속에서 찾은 화학 발자국’에 따르면 스위스, 슬로바키아 등 10개국에서 사람의 발이 닿지 않은 산이나 호수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다. <br/> 과불화 화합물 동물 실험에서 위험성 확인<br/>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과불화 화합물은 10여 년 전부터 해외에서 위험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06년 과불화 화합물의 발암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체 유해성이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동물실험 등에서 내분비계 교란과 면역기능 악화, 암 유발 사례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올해까지 자국내 과불화합물 사용을 95% 이상 감축하기로 하고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규제를 권고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4월 과불화 화합물의 독성을 이유로 유럽 내 단계적 사용금지를 검토하기도 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span class='quot2'>한국은 화학물질 사용이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아직 과불화 화합물에 노출된 국내 인구가 몇 명인지, 발병률이 어떤지 연구가 부족하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2'>의학적으로 다른 환경호르몬처럼 당뇨나 고혈압 등 지병을 악화시키고 기형아 출산 등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span>”고 경고했다. 7년째 등산을 즐기고 있다는 직장여성 이모(27)씨는 “<span class='quot3'>등산복, 등산용품 등을 합하면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데 인체에 위험하다면 파장이 클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환경부 “상황 지켜보고 있다” <br/> 독일과 노르웨이 등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과불화 화합물 규제 기준을 마련한 것과 달리 한국은 등산복에 쓰이는 PFOA에 대한 규제가 없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 환경유해물질 규제 기구 ‘스톡홀름협약’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4'>국내에서도 위험성이 계속 지적되는 만큼 정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4'>국제적인 동향에 맞춰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그린피스의 하보미 활동가는 “<span class='quot5'>폴리우리텐이나 실리콘 등 과불화학물의 대체 물질은 얼마든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5'>아웃도어 업체들은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불화 화합물 사용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그리피스는 국내 유통 중인 과불화합물 사용 아웃도어 업체는 10여 곳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기업으로 지목된 한 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6'>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주의를 해서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br/><br/>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63.txt

제목: 김성원 대림성모병원장, “우울한 암 환자, 화장하면서 스트레스 17% 감소”  
날짜: 2015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040097  
본문: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제대로 화장도 할 수 없는 여성 암 환자들에게 화장을 통해 기분을 좋게 해주면 실제 치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머리 손질을 하거나 예쁘게 화장하면 기분 전환이 되는 것과 같다.”<br/>유방암 권위자인 김성원 대림성모병원장은 “<span class='quot0'>치료 과정에서 따르는 스트레스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환자에게 긍정적 마음을 갖게 해 질병 극복에 도움이 된다</span>”고 강조했다. 그는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메이크업 교육 프로그램이 유방암 환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했다.<br/><br/><br/>-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br/>“환자들은 병에 걸리면 우울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특히 유방암은 여성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 유방을 절제하거나 항암 치료 과정에서 폐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 과정에서 우울한 여성이 상당히 많다는 게 연구 시작점이었다. 우울한 환자들이 예후가 좀 더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번 연구는 화장의 단기적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br/><br/>-결과는 어떻게 나왔나.<br/>“3년 전 유방암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장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암 환자의 심리 상태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초로 입증한 것이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에 참여한 환자들의 경우 한 번만 참여해도 스트레스 지수가 17% 감소하고 암에 대한 회피적 대응 정도도 12% 줄었다. 교육 직후 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투병에 대한 의지도 더 강해지고 부부관계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br/> <br/>-화장방법 교육 프로그램이나 취미생활이 암 환자의 심리 상태에 어떤 도움을 주나. <br/>“투병 중 너무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환자가 2명 있었다. 그래서 평소 환자를 볼 때 단순히 검사 결과만 나열하지 않고 환자 기분을 밝게 해주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스트레스 온도계(1점부터 10점 사이에서 스트레스 지수를 묻는 방법ㆍ5점 이상이면 위험)를 이용하거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핀다. 특히 암 진단 4기일 경우 언제 사망할 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4기 환자 중 한 명이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거워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의사로서 기분이 좋았다. 이 모든 게 대표적 완화요법(CAMㆍContemporary Alternative Medicine) 중 하나다. 특히 유방암은 신체 형태가 변하는 대표적 질환이다. 자신의 신체 형태를 좋게 하는 것은 완화요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도 유방암에 국한해서 진행하다가 요즘에는 모든 여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br/><br/>-유방암 예방법이 있다면.<br/>“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과체중을 조심해야 한다. 또 적절한 식이습관과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야채와 단백질 등을 균형 있게 먹어야 한다. 운동도 많이 해야 한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해야 한다.”<br/>권영은기자 you@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64.txt

제목: 립스틱 바르고 스마일… “예뻐지니 암과 싸울 자신감도 커져”  
날짜: 201510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1031688  
본문: 여성 암 환우 대상 8년째 운영<br/>“<span class='quot0'>지루했던 병원 생활에 기분 전환</span>”<br/>다도 교실ㆍ꽃 공예 프로그램 등<br/>다양한 체험으로 긍정적 힘 키워줘<br/><br/><br/><br/>“<span class='quot0'>메이크업 교육 캠페인에 참여한 뒤부터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했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span>”<br/> 21일 ‘아름다운 손길, 희망을 메이크업하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크게 붙은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소강당. 무대에 설치된 스크린에선 짧은 머리의 김지연(당시 36세·가명)씨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2010년 유방암 투병중이던 김씨는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Make Up Your Life)’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가발 모델이 돼 새 삶을 살고 있다. 덕분에 암도 이겨낼 수 있었다.<br/>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라는 슬로건으로 아모레퍼시픽이 8년째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여성 암 환자를 위한 일종의 외모 가꾸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암 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가 칙칙해지고 거칠어지는 등 외모 변화 때문에 고통을 받는 여성 암 환자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총 9,221명의 여성 암 환자와 2,904명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br/><br/>이날 행사에는 분홍색 스카프를 두른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27명과 암 환자 39명이 참여했다. 모자를 깊이 눌러썼거나 짧은 머리인 여성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영상메시지가 끝나자 아모레퍼시픽 전문강사가 피부 관리법을 알려줬고, 직접 메이크업을 시연했다. 지난해 11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이경춘(63)씨는 “<span class='quot1'>매달 한 번씩 맞는 항암주사 때문에 머리카락이 수세미같이 뻣뻣해지고, 피부도 거칠어졌다</span>”며 “<span class='quot1'>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왔다</span>”고 말했다. 카운셀러 이보람(29)씨의 손길이 그의 얼굴에 닿자 생기가 돌았다. “보세요. 분홍빛 립스틱만 살짝 발라줬을 뿐인데 얼굴이 환해졌네요.” 이날로 두 번째 메이크업 자원봉사에 나선 이씨는 “환자들이 낯설고 어색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생기를 부여해주는 정도로 진하지 않게 화장을 해드린다”고 말했다.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자칫 상처를 낼 수 있는 눈썹 손질용 칼은 사용하지 않는다.<br/>신혼 때 이후로 처음 화장을 했다는 이씨는 “어색하다”면서도 주변의 “예쁘다”는 칭찬에 쑥스럽게 웃었다. “<span class='quot0'>항암 치료 때문에 부은 얼굴이 몹시 신경 쓰였다</span>”는 이씨는 항암 치료의 고통 때문에 여러 차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고 털어놨다.<br/>다행히 분당서울대병원에 마련된 환자 모임에 나가게 되면서 생각을 고쳐먹은 이씨는 “<span class='quot2'>가까운 지인들보다 오히려 같은 처지의 환자들과 어울리며 속내를 털어놓으니 풀리는 게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환자들끼리 만나면 삶의 희망이 자꾸 생긴다</span>”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씨는 “<span class='quot2'>약을 먹으면 전기 감전되듯 다리가 저리고, 두피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쥐어뜯는 것처럼 아픈데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마사지 프로그램이나 두피·피부 관리 프로그램도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span class='quot0'>거울에 비친 내 모습, 한없이 슬펐습니다.</span>” 아모레퍼시픽이 익명의 암 환자들로부터 투병 과정에서 생기는 고민을 적어달라고 했더니 외모에 대한 고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 환자(51)는 “항암 치료 중 제일 먼저 머리와 눈썹 등 온 몸의 털이 빠졌을 때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span class='quot0'>거울 앞에 서거나 밖에 나가는 게 두렵다</span>”거나 “<span class='quot0'>너무도 달라진 외모 탓에 아이들이 엄마를 창피해 하는 게 가장 마음 아팠다</span>”는 응답이 많았다.<br/>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에게 외모 문제가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싶지만 ‘화장의 힘’은 셌다. 실제 학계에서는 ‘립스틱 사인’이란 용어를 쓴다. 투병 중 삶에 의욕을 잃었던 환자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것은 다시 사회로 나와 삶에 적극적으로 임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는 의미다. 환자들은 자신을 다시 가꾸기 시작하면서 병과 싸우고, 새 삶을 꿈꾸게 된다.<br/><br/><br/>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환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span class='quot0'>지루했던 병원 생활에 기분 전환</span>이 됐다”, “<span class='quot0'>잠시라도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좋았다</span>”, “<span class='quot0'>우울했는데 퇴원하면 열심히 피부도 가꾸고 운동해서 다시 삶의 희망을 가꿔 아름답게 살겠다</span>” 등의 소감을 남겼다.<br/>‘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프로그램에 단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17%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투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관리가 치료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br/>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은영(52)씨는 지난 6월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12월 복직을 앞두고 있다. “환자라도 생기있게 외모를 꾸미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환자가 되면 매사에 주눅들고 귀찮아져 화장은 꿈도 못 꾸죠.” 메이크업을 통해 반달 모양의 눈썹을 요즘 유행하는 일자형 눈썹으로 바꾼 게 마음에 든다는 김씨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꽃도 만지니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br/> 메이크업 실습이 끝난 후 부케를 만드는 꽃 공예 시간이 이어졌고, 꽃을 만지는 환자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br/><br/><br/>아모레퍼시픽은 이날부터 특별 프로그램으로 따로 실시했던 꽃 공예를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메이크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취미생활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프리미엄 녹차 브랜드 ‘오설록’과 함께 하는 다도 체험, 플라워 서브스크립션 브랜드 ‘꾸까(Kukka)’의 꽃을 활용한 공예, 퍼스널컬러 커뮤니티 ‘컬러즈’의 ‘나에게 맞는 색상 선택법’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br/>환자들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나서는 카운셀러들도 큰 보람을 느낀다. 이보람씨는 “<span class='quot3'>메이크업을 통해 환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감사함을 느낀다</span>”며 “<span class='quot3'>카운셀러 활동을 하는 동안만큼은 이런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span>”고 말했다.<br/><br/><br/>류제천 아모레퍼시픽 부사장은 “<span class='quot4'>아모레 카운셀러는 1964년 방문판매가 처음 도입된 이래 우리 사회에 아름다움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4'>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 카운셀러가 함께 펼치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통해 환자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되찾게 되기를 기원한다</span>”고 말했다.<br/>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프로그램은 암 수술을 받은 지 2년 이내인 여성환자로 현재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중인 환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카운셀러 자원봉사단이 직접 자택이나 병실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전화(070-7604-2116)로 안내 받을 수 있다. 11월에는 이화의료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광주현대병원, 전북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제주대병원에서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br/>성남=권영은기자 you@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65.txt

제목: 후쿠시마 원전 근로자 암 발병 첫 공식 확인  
날짜: 201510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0514446  
본문: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현장작업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뒤 백혈병에 걸린 전 직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2011월 3월 원전사고 후 지금까지 현지에서 일한 근로자가 4만명을 넘긴 가운데 관련 산재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br/>20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기타큐슈(北九)에 사는 이 남성은 2012~2013년 도쿄전력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와 4호기 주변에서 구조물 건설 및 용접작업 등을 해왔다. 그러다 작년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 중이다. 이 남성은 2012년 규슈전력 겐카이(玄海) 원전의 정기점검 공사에 투입돼 3개월간 4밀리시버트(m㏜)의 방사선에 노출됐으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할 당시엔 16m㏜에 노출돼 누적 피폭선량이 20m㏜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6개월간 원전에서 일하는 동안 작업시 항상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br/>후생노동성은 남성의 업무내용과 피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후생노동성검토회의 의견을 청취해 산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남성에게는 치료비와 휴업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본정부의 방사선 피폭에 따른 백혈병 산재인정 기준은 1976년에 정해졌다. ‘연 5m㏜ 이상 피폭돼 1년 이후 발병하고 바이러스 감염 등 다른 요인이 없을 경우’가 조건이다. <br/>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작업과정에 투입된 직원의 산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관련 산재신청은 지금까지 11건이 있었지만 6건은 인정돼지 않았고 1건은 신청이 취하됐다. 나머지 3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건은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불명확하지만 노동자 보상의 관점에서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br/>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제1원전의 복구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피폭에 대한 산재 신청자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은 현재 1일 평균 7,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연5 m㏜ 이상 피폭 작업을 한 인원은 작년에만 6,600명에 달해 증가추세다. 이번 산재인정과 관련 도쿄전력 측은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작업환경 개선 및 피폭관리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갈 것</span>”이라며 틀에 박힌 답변만 반복해 현장 근로자의 의문과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br/>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66.txt

제목: “곤충은 미래신약의 보고”특허 출원 활기  
날짜: 201510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0353718  
본문: “곤충은 미래신약의 보고”특허 출원 활기<br/> <br/> 귀뚜라미, 매미, 꽃매미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거나 심지어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던 곤충들이 의약품의 새로운 후보물질로 주목 받고 있다. <br/>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곤충소재 의약품 관련 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5~2009년 매년 10건 안팎에서 2010년 이후에는 20~3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br/> 곤충은 특성상 신약개발을 위한 생물자원으로서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고 특허청은설명했다. 지구상에 알려진 동물 100만종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다양하고 공룡보다 먼저 지구상에 출현하여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합성신약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생물체로부터 분리되는 천연물을 이용함으로 안전성면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br/>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곤충 소재 의약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특허출원에 반영되고 있다고 특허청은 덧붙였다. <br/> 연구대상 곤충도 전통적으로 약재로 사용되어 온 벌침이나 누에외에도 최근에는 해충으로 인식되던 갈색거저리나 꽃매미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적용대상 질환도 염증, 암, 알츠하이머, 심혈관계 질환, 바이러스 질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br/> 종전에는 곤충 전체를 추출물로 이용하는 단순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펩타이드 등 특정 약효성분만을 분리하여 치료효과를 높이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쇠통구리가 분비하는 항균 펩타이드를 천연 항생제로 이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br/> 출원인들은 내국인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신약개발분야보다 국내에서의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김용정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span class='quot0'>세계적으로 곤충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중 곤충을 소재로 한 신약개발이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신약개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척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67.txt

제목: 살충제 처리된 모기장, 아프리카 말라리아 공포 차단막으로  
날짜: 2015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0034231  
본문: 말라리아(학질)는 모기가 매개체가 되는 전염병 중 하나로서,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림으로써 감염된다.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고통을 받고 있고, 매년 70만 명 정도가 말라리아로 생명을 잃고 있다. 환자 10명 중 9명, 사망자 10명 중 8명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2010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었던 월드컵에 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던 국악단원 2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된 뒤 사망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준 기억도 있다. <br/>우리나라도 말라리아 안전 국가가 아니며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는 매년 말라리아 모기가 발견되고 있다. 그 동안 말라리아 예방 백신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데, 2013년 영국의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비영리단체인 PATH 및 말라리아백신기구(Malaria Vaccine Initiative: MV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말라리아 후보백신(RTS,S)의 임상 결과를 공개하고, 2014년 유럽의약청에 허가 신청을 냈다. GSK는 이 백신을 만드는 데 3억 5,000만달러(약 3,800억원)를 투자해서 아프리카 7개국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GSK는 지난 7월 유럽의약청(EM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자사가 개발중인 말라리아 후보백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RTS,S’를 3회 접종한 후 18개월 간 추적 관찰한 결과, 생후 5~17개월이었던 유아의 말라리아 발생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RTS,S’가 아직 상용화된 것은 아니며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해당 백신의 사용이 채택된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사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그럼,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적정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br/><br/>▦말라리아 관련 적정기술<br/>필자는 2010년 6월 수수숯과 건망고 제조 등의 적정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차드의 수도인 은자메나를 방문했다(본보 7월 20일자 19면 참조). 은자메나에 있는 숙소에 도착하여보니 침대 위에 모기장이 하나 설치돼 있었다. 단순한 모기장이 아니고 베스터가드프란센에서 제조한 살충제로 처리된 ‘퍼머넷’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모기장을 ‘장기 지속 살충 모기장(Long-LastingInsecticide-treated Netㆍ이하 LLIN)’이라고 하는데, 일반 모기장에 비해 5배나 오래 사용할 수 있어 4년 정도까지 사용 가능하다. 현재 LLIN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합성 살충제는 ‘피레스로이드제(pyrethroid)’인데, 인체 및 포유류에 미치는 위해성이 매우 낮지만, 곤충에게는 미량이라도 유독성을 띈다. 말라리아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필자가 2012~2014년에 적정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탄자니아 다레살렘 인근에 있는 키왈라니 마을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을 때도, 마을 주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한 것 중 하나가 말라리아였으며, 이들에게는 말라리아에 걸리는 것이 거의 연례 행사였다.<br/>아프리카에서 마을 단위로 진행된 임상실험을 통해 LLIN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20%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말라리아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LLIN 보급률을 달성한 국가에서 말라리아 피해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도 이제는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 등의 취약계층뿐 아니라 말라리아 발생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LLIN을 보급해 사용하도록 하는 '보편적 보장'(universal coverage) 수준의 달성을 권고하고 있다. LLIN은 대규모 프로그램들을 통해 약 3년 주기로 보급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2억9,400틀의 모기장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보급되었다.<br/>또한 호주 광고 에이전시인 GPY&R는 파푸아뉴기니 수도인 포트모르즈비에서 맥주를 제조하고 있는 SP브루어리(SP Brewery)를 위해 모지박스(Mozzie Box)라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모지박스는 SP브루어리가 판매하는 맥주인 SP라거스(SP Lagers)를 담은 골판지 상자다. 이 골판지 상자는 모기가 싫어하는 유칼립투스 나무 성분으로 코팅 처리가 되어있다. 따라서 저녁에 이 박스를 태우면서 불 주위에 둘러앉아서 맥주를 마시면, 모기에 물리지 않으면서도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다.<br/><br/><br/>한편 1년에 약150만 명의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거나, 효과가 떨어진 백신을 접종 받음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한다. 효과가 떨어진 백신을 접종 받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예방백신은 2~8℃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최상의 접종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선진국에서는 백신용 냉장고에 이를 보관한다. 하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오더라도 전기수급이 불안정한 아프리카 시골 마을 등에서는 이런 백신 냉장고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말라리아 예방백신이 상용화 된다고 해도 아프리카 등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br/>빌게이츠 재단과 인텔렉철벤처스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백신 냉장고를 개발하였다. 이 냉장고는 백신 주변을 감싸고 있는 8개의 플라스틱통에 물을 얼리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백신 300개를 약50일 정도 보관할 수 있다. 냉장고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통 내부는 알루미늄 호일로 싸여져 있으며, 진공상태로 밀봉되어있다. 또한 입구를 12cm로 작게 만들어서 내부로 공기가 잘 들어갈 수 없게 하였다.▦진단용 적정기술<br/>질병이 이미 많이 진행되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발생 초기에 조기발견하고 치료하면 치료비용도 절약되고 완치 확률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의료시설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거나 선진국에 살더라고 가난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이는 쉽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질병진단기술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지금까지 개발된 저렴한 질병진단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br/>코넬대학교 기계항공공학과의 데이빗 에릭슨과 그의 팀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과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조직검사용 샘플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태양열 ‘중합효소연쇄반응기(Polymerase chain reaction thermocyclers, PCR)’를 만들었다. PCR은 지금까지 질병감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비싼 기계 값과 가지고 다니기 어려운 부피에 전기콘센트를 찾기도 어려운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PCR 기기는 만약 암세포가 존재한다면, 암의 DNA를 탐지하고 샘플에 그 DNA를 복사한다. 충분한 양의 DNA를 복사하여 조직검사를 위한 데이터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한다. <br/>에릭슨과 그의 연구팀은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 가능한 오프그리드 버전의 PCR 순환기를 고안해냈다. 먼저 태양을 향해 렌즈를 맞춰서 샘플 안의 챔버를 적절한 온도로 가열한다. 챔버는 정해진 양의 태양열만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마스크를 통해 적절한 온도로 조절된다. 샘플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DNA가 복사되면, 사용자가 스마트폰 액세서리에 샘플을 올려놓는다. 그러면 임신테스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색깔이 바뀌며 암의 존재여부를 알린다. 스마트폰은 카메라를 통해 결과를 읽고 시스템을 위해 개발된 앱을 이용해 결과를 분석한다. 태양이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30분의 소요시간 동안 기계는 80mW의 에너지밖에 소모하지 않는다. 에릭슨 팀은 아이폰 배터리로 70시간 동안 이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었다. 저렴한 가격과 높은 이동성은 이 기기의 가장 큰 장점이다. 현재 연구진들은 암의 일종인 카포시육종 테스트를 개발 중이지만, PCR을 바탕으로 한 테스트를 사용해서 다른 종류의 암이나 에이즈, 결핵, 각종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발견해낼 수도 있다. <br/>전세계에서 약 4,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80%는 검안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존의 검안장비는 무겁고, 비싸고, 사용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그 동안 개발도상국의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검안 장치를 사용해서 시력 검사를 받기가 어려웠다. 앤드류 바스타우로스(Andrew Bastawrous)와 동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모든 종류의 검안이 가능한 도구인 PEEK-Retina를 개발했다. 이 키트는 전통적인 검안경과 스마트폰에 있는 망막 카메라를 결합한 기술로서, 이동 가능하고, 저렴하며, 사용하기가 쉽다. 현재는 삼성 갤럭시 S3에서만 작동하지만 향후 다른 스마트폰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인디고고를 통해서 펀딩에 성공했으며, 제품은 올해 10월에 주문자에게 배달될 예정이다. 가격은 95달러이다.<br/><br/><br/><br/>일본 큐슈대학교 후각센서연구개발센터의 연구팀은 ‘C.엘라강스’라고 불리는 1mm 크기의 선충을 이용한 암진단기를 개발 중에 있다. 이 선충은 사람보다 10만 배 이상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는데 암환자의 오줌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암환자의 오줌에서 나오는 특이한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위로 모여든다고 한다. ‘C.엘라강스’를 이용해서 판별할 수 있는 암의 종류는 식도암, 폐암, 췌장암 등 9종류에 달하며 암환자 발견 비율은 95.8%로서 혈액을 사용하는 종양마커 검사보다 정확도가 3배 가까이 높았다. 1회 검사에 드는 비용은 9백원 정도이며, 1시간 반 정도면 암 유무를 진단할 수 있다. 현재 연구팀은 히타치 제작소와 함께 진단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br/>췌장(이자)은 위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화 효소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이다. 췌장암 환자의 약 85%는 조기진단에 실패하므로 평균 사망률이 다른 암에 비해 높다고 한다. 췌장암 초기에는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해서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잭 안드라카는 15살 때 장당 3센트의 비용으로 췌장암, 난소암, 폐암을 5분 안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종이 센서를 발명했다. 그는 가깝게 지내던 아버지 친구가 갑자기 췌장암으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췌장암 진단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안드라카는 8,000여개의 단백질을 조사한 끝에 췌장암, 난소암, 폐암에 반응하는 단백질인 ‘메소텔린’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이 단백질에 항체와 탄소나노튜브를 결합해서 종이센서를 만들어냈다. 안드라카는 현재 이 센서를 상용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br/>2002년 스탠포드 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한 엘리자베스 홈스는 싱가포르의 게놈 연구소 인턴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방식의 혈액 검사와 신체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홈스는 2003년 학교를 그만두고 테라노스(Theranos)를 창업하였다. 회사명인 ‘테라노스’는 치료를 의미하는 ‘Therapy’와 진단을 의미하는 ‘Diagnos’를 합성한 것이다. 테라노스가 개발한 혈액검사 키트인 에디슨은 기존 방식처럼 주사기를 통해 대량의 혈액 샘플을 채취할 필요 없이, 작은 전자침으로 한 번 찌르기만 하면 각종 질환 검사가 가능하다.<br/><br/><br/><br/>혈액은 채취와 동시에 퓨즈처럼 생긴 0.5인치 높이의 초소형 유리관(Nanotainer)에 들어가 최소 70회의 혈액검사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이 혈액검사 키트는 간호사의 도움 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테라노스가 개발한 1형 헤르페스 바이러스(HSV-1) 검사 및 실험실 분석 시스템은 2015년 6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가격은 약 9달러 정도로서 기존의 혈액검사와 비교할 때 매우 저렴하다. 최근 에디슨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테라노스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 흥미롭다. (본보 10월 17일자 10면 참조)<br/>보건의료 분야의 적정기술은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술로서 인간의 삶의 질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도국과 선진국에 사는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저렴한 보건의료 관련 적정기술이 앞으로 많이 개발되길 기대해 본다. <br/>홍성욱ㆍ국립한밭대 적정기술연구소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68.txt

제목: '쇼미더머니4' 논란 그 후, 래퍼 전성시대 '아이러니'  
날짜: 2015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0028523  
본문: 래퍼들의 전성시대다.<br/><br/> 산이·버벌진트·베이식·마이크로닷 등은 장르를 뛰어 넘으며 피처링 1순위에 손꼽히고 있고, 나설 때마다 음원차트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다. 조만간 새 음반을 내놓을 박재범·지코 등에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 <br/>■ '쇼미더머니4' 아이러니 <br/><br/>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래퍼들의 공통점은 Mnet '쇼미더머니4'에 출연했던 이력이다. 방송 당시에는 각종 논란을 만들어오던 주인공들이다. 선정성·비속어·여성비하 등은 물론 판정 번복까지 끊이지 않는 잡음을 일으켰다. 프로그램 종영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상 최대 징계인 과징금 5,000만원을 제작진에게 물렸다.<br/> <br/>힙합계 안에서도 쓴 소리가 흘러나왔던 '쇼미더머니4'. 하지만 '쇼'가 끝난 뒤 이들을 향한 관심은 더욱 뜨겁다. 2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경연곡으로 흘러나왔던 '겁'은 10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출연 래퍼들은 움직일 때마다 화려한 조명을 빨아들이고 있다.<br/> <br/> <br/>■ '쇼미더머니4' 딱지 떼고<br/><br/> '쇼미더머니4'가 랩을 소재로 펼쳐진 한 편의 드라마였다면 진짜 링 위의 승부가 열린다. 프로듀서로 활약했던 박재범·지코·산이·타블로 등이 잇따라 신곡을 내놓는다.<br/> <br/>산이가 먼저 한 곡을 던졌다. 정규앨범 '양치기 소년' 이후 6개월 만에 신곡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을 16일 발표했다. 발매 첫 날 멜론차트 5위로 출발했다.<br/> <br/>'쇼미더머니4' 방영 기간 '겁' '오키도키' '거북선' 등 가장 많은 히트곡을 만들었던 지코는 출격 채비를 마쳤다. 더콰이엇과 페노메코와 손잡고 19일 '말해 YES or NO'를 발표하고 11월 초 한 장의 싱글을 더 발매한다. 블락비 이미지를 넘어 래퍼 지코로서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br/> <br/>지난달 선공개곡 '솔로'를 발표했던 박재범은 조만간 정규 3집 앨범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타블로 역시 새 레이블 하이그라운드에서 첫 신곡을 발표하겠다고 분위기를 달궜다.<br/> <br/> <br/>■ '쇼미더머니4' 명과 암<br/><br/> '쇼미더머니4'에 출연한 래퍼들은 음악적인 흥행 외적으로도 큰 수혜를 입었다.<br/> <br/>우승한 차지한 베이식은 회사원 이철주 씨에서 다시 래퍼의 길을 열었다. 작곡가 김도훈이 대표로 있는 레인보우브릿지월드와 전속계약을 맺고 잃었던 꿈을 되찾았다. 준우승 송민호는 '실력 있는' 아이돌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어갔다. 4강에 올랐던 이노베이터는 한동안 소속사 없이 활동해왔지만 방송 이후 FNC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었다. 팔로알토는 CJ E&M의 투자·유통·마케팅·글로벌 네트워크를 등에 업고 음악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게 됐다.<br/> <br/> <br/>반면 '쇼미더머니4'를 들었다놨다 했던 블랙넛은 정작 별다른 후광을 얻지 못한 사례로 남았다. 속옷 노출에 여성 혐오, 일베 논란 속에서도 블랙넛은 방송 끝무렵 다큐멘터리 형태로 랩에 대한 열정이 그려져 높은 공감을 샀다. 유종의 미를 완성하며 인지도를 높인 최고 수혜자로 꼽혔다.<br/> <br/>하지만 여세를 잘 잇지 못하고 홍보 과욕이 화를 불렀다. 지난달 블랙넛은 신곡 발매를 앞두고 하의도 모자라 속옷까지 내린 사진을 공개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쇼미더머니4'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래퍼였지만 '문제아' 이미지 그 이상을 얻지 못하게 됐다.<br/><br/><br/>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69.txt

제목: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서울대회 핑크빛 성료  
날짜: 201510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20004854  
본문: '2015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의 서울대회가 10월 유방건강의 달을 맞아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br/> <br/>유방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가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주관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주최한 이 대회에는 1만 여명의 참가자들이 여의도 일대를 핑크빛으로 물들였다.<br/> <br/>올해로 15주년을 맞은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은 국내 여성암 1위인 유방암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방자가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아모레서피식의 대표행사다.<br/> <br/>이날 서울대회에는 라네즈 옴므모델 송재림과 한율 모델 임지연이 참석해여성 건강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에 의미를 더했다.<br/> <br/>현장에서는 핑크리본캠페인 일반인 홍보대사인 '핑크제너레이션'이 유방암 환우의 완쾌를 기원하며 핑크색 실을 감아 완성한 핑크리본 대형 조형물 전시 및 노래 공연을 선보였으며 덕성여대 김승민 교수의 핑크리본 작품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축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br/> <br/>유방자가검진 교육, 무료 유방암 상담ž검진 등 유방건강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비롯해, 유방건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뜻을 함께한 헤라(HERA), 아리따움을 비롯해 페이스북, 금호타이어 등 핑크리본캠페인 후원사의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됐다.<br/> <br/>아모레퍼시픽과 한국유방건강재단은 15주년을 맞아 '언제나 내가슴愛' (Pink Ribbon, Always) 슬로건을 선포하며 유방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연중캠페인으로 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br/> <br/><br/><br/>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70.txt

제목: 엔지니어링·에너지신산업 등 경제 동맹 24건 MOU 체결  
날짜: 201510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5939749  
본문: 우주협력협정 빠른 시일 내 맺기로<br/> <br/>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미국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경제동맹 강화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혁신 제조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1위의 항공우주 기술ㆍ산업 국가인 미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우주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br/> 양국은 우주ㆍ엔지니어링ㆍ에너지신산업ㆍ보건의료 등 의 협력으로 경제 동맹을 고도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24건을 체결했다. 양국이 체결한 MOU에는 메르스 백신ㆍ치료제와 암ㆍ호흡기질환 등 체외 진단기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 및 미국이 연구용 위성과 기술을 지원하고 한국은 기상ㆍ대기 자료를 제공하는 동북아지역 대기 질 공동 연구, 국내 사이버보안 업체의 미국 진출 확대와 빅데이터 산업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br/> 청와대는 또 “<span class='quot0'>빠른 시일 내에 우주협력협정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2020년까지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한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주 탐사 핵심 기술 확보에 좋은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span class='quot1'>이로써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span>”고 의미를 부여했다. <br/>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 대책으로 제조업 혁명을 주도하는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고용 창출과 직결된 제조업 혁신 협력을 하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미국이 3D 프린팅과 디지털 디자인,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해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협력이 국내 첨단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만들기, 기술 혁신의 기회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미국의 제조업 혁명은 80만 개의 신규 일자리(2010~2014년)를 만들어 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해 제조업 개혁 방안인 ‘제조혁신 3.0’을 발표하는 등 첨단 제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br/> 한미 경제 네트워크도 탄탄해졌다. 양국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1988년 만든 기업 간 채널인‘한미 재계회의’에 이어 우리 상공회의소와 미국 제조업협회가 협력 채널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청와대는 “<span class='quot0'>경협 창구가 두 개로 는 것은 기업 교류가 활발해지고 경제 동맹이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연간 457조원의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조달시장에 우리 중소기업 진출할 길을 넓히고 미국 시장에 뛰어들려는 우리 창업기업에 창업보육ㆍ금융 지원 기회를 주는 등 중소기업 지원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br/> 워싱턴=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71.txt

제목: 바이오벤처 신화 테라노스의 위기  
날짜: 2015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5927869  
본문: 혈액으로 암진단 과장 의혹 확산<br/><br/>피 한 방울로 암 진단에까지 이르는 수백가지의 질환 검사를 할 수 있는 혈액 검사 키트를 개발해 바이오 벤처 신화를 일궈낸 테라노스(Theranos)의 기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고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테라노스는 특히 2003년 미 스탠퍼드 대학을 중퇴한 재원 엘리자베스 홈즈(31)가 불과 19세 때 세운 회사로 홈스는 여성벤처인의 상징 같은 인물이다. 테라노스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손꼽히는 바이오 벤처로 성장했으며 기업 가치가 약 90억달러(10조 1,600억원)에 달한다.<br/>WSJ는 테라노스의 전 직원들과 의사, 간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테라노스가 제공하는 240가지의 혈액검사 항목 중 15개 항목만이 테라노스의 기술인 ‘에디슨’을 통해 검사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검사 항목은 테라노스의 기술이 아닌 지멘스와 같은 전통적인 혈액검사 기기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직원들은 에디슨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직 테라노스 직원은 테라노스의 기술 오류가 연방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br/>테라노스의 혈액검사 기술이 미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3년 시장에 공개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미국에서 클리닉 실험실은 FDA의 허가를 받은 장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테라노스는 에디슨을 다른 실험실에 팔지 않고 시장에 공개했기 때문에 FDA의 허가가 필요치 않았다. 올 7월이 돼서야 테라노스는 120개의 FDA 승인 신청 검사 중 헤르페스를 감지하는 테스트에 대해 처음으로 FDA의 허가를 얻었다. <br/>뿐만 아니라 의무절차인 샘플에 대한 숙련도 테스트도 허위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WSJ는 비타민 D와 갑상선 호르몬, 전립선 암 진단에 대해 테라노스에서 에디슨으로 수행한 테스트가 타사 기계로 수행한 것에 비해 뒤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br/>테라노스를 퇴직한 직원은 “<span class='quot0'>테라노스의 대표 서니 발와니가 실험실 연구원들에게 에디슨 사용을 멈추고 다른 회사 검사 장비로 나온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span>”고 증언했다. 의혹이 점차 구체성을 띠어가자 뉴욕주 보건부는 지난해 4월 테라노스를 테스트 수행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정식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br/>테라노스가 테스트 과정에서 양을 늘리기 위해 희석된 혈액 샘플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희석된 샘플을 사용하면 정확한 혈액 내 물질 측정이 어려워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테라노스의 전 직원은 “<span class='quot1'>검사 중 한 환자에게서 나타난 칼륨의 일부 결과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다</span>”고도 말했다.<br/>이런 실험 조작과정에서 실제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귀에 이명이 있었던 한 여성 환자는 테라노스의 혈액 검사를 한 결과 칼슘과 단백질, 세 개의 간 효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녀의 주치의는 뇌졸증을 우려하며 병원 응급실행을 권했고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 이 환자는 “테라노스의 저렴한 가격을 좋아하지만, 시행착오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br/>테라노스는 제기되는 온갖 의혹에 대해 총력 방어하는 모습이다. 테라노스의 외부 변호사 데이비드 보이스는 테라노스가 아직 모든 테스트에 에디슨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혈액검사의 전체에 에디슨을 사용하는 것이 달성되어야 할 목표라고 답했다. <br/>WSJ의 보도가 나오자 테라노스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우리의 실험 대부분은 단지 몇 방울의 혈액만을 필요로 한다’ 등의 문구를 삭제했다. 뿐만 아니라 WSJ가 보도한 테라노스 검사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기사가 잘못 나갔다는 서명을 받기도 했으며 증언을 한 테라노스의 전 직원의 부인에게는 고소를 하겠다는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br/>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72.txt

제목: [새 책] 시골에서 로큰롤 外  
날짜: 2015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5922493  
본문: 문학ㆍ예술<br/><br/><br/>▦시골에서 로큰롤 <br/>오쿠다 히데오 지음. 권영주 옮김. ‘공중그네’ 작가의 신작 에세이. 반권력과 반권위가 그 무엇보다 멋지다고 생각했던 소년 시절과 청춘기를 구원해준 록 음악을 아련하게 회상한다. 은행나무ㆍ356쪽ㆍ1만3,500원<br/>▦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 <br/>리안 모리아티 지음. 김소정 옮김. 서로 다른 비밀을 간직한 세 여자가 만나며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사소한 거짓말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된다. ‘허즈번드 시크릿’으로 이름을 알린 모리아티의 최신 소설. 마시멜로ㆍ632쪽ㆍ1만4,800원 <br/>▦내가 읽은 우리 소설 <br/>김윤식 지음. 반세기 가까이 현장 비평가로 활동 중인 문학평론가 김윤식 선생의 소설평 모음.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지난 2년간 우리 소설의 발자취를 좇았다. 도서출판 강ㆍ732쪽ㆍ2만2,000원<br/>▦외람된 희망 <br/>이문구 지음. 명천 이문구 선생의 산문 중 문학과 관련된 글들을 추려 모았다. 처음 문학을 하게 된 동기와 창작의 희비, 그가 만난 작가들, 읽은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특유의 문장에 실렸다. 실천문학ㆍ368쪽ㆍ1만4,000원. <br/><br/>교양ㆍ실용<br/><br/><br/>▦나치의 병사들<br/>죙케 나이첼, 하랄트 벨처 지음. 김태희 옮김. 평범한 인간이었던 독일 병사들이 어떻게 살인, 폭력, 강간, 파괴를 저지르고 무용담을 늘어놓는 괴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탁월한 통찰. 원저 출간 당시 홀로코스트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민음사ㆍ580쪽ㆍ3만2,000원<br/><br/><br/>▦남자 50, 다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br/>최창환 지음. 남자 남편 아버지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50대 남성들의 고민과 뜨거운 꿈을 담았다. ‘조급하지 말자, 만끽하자’는 저자의 조언이 마음을 울린다. 끌리는책ㆍ232쪽ㆍ1만3,000원<br/><br/><br/>▦싸우는 미술<br/>강태웅, 김용철, 한정선 편저.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이론의 전쟁미술에 관한 연구서다. 전쟁 수행을 위해 미술이 어떻게 개편되고 어떤 기대를 받았는지 분석했다. 고려대 아연출판부ㆍ161쪽ㆍ1만원<br/><br/><br/>▦크리스토퍼 힐 회고록 <br/>크리스토퍼 힐 지음. 이미숙 옮김.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덴버대 조지프코벨 국제관계대학원 학장이 대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으로 뛰며 겪은 외교 최전선의 현장을 기록했다. 메디치미디어ㆍ524쪽ㆍ2만2,000원<br/><br/><br/>▦홀가분한 삶<br/>이시카와 리에 지음. 김윤경 옮김. 나름의 방식으로 일과 삶을 분리해 가뿐한 삶을 살아가는 수필가, 편집자, 부부, 사회활동가, 공예가 등의 이야기다. 평범해 보이나 유효한 각종 정리요령이 담겼다. 심플라이프ㆍ164쪽ㆍ1만3,000원<br/><br/><br/>▦장자 <br/>장주 지음. 김갑수 옮김. 40년간 장자와 도가를 연구해온 역자가 장자를 일상어와 명료한 문체로 정리했다. 허무주의자이자 자연주의자, 낙천주의자인 장자 사상의 본질을 바른 우리말 어법으로 담았다. 글항아리ㆍ536쪽ㆍ2만2,000원<br/><br/>어린이ㆍ청소년<br/><br/>▦국경을 넘어야 하나요? <br/>타마르 베레트제하비ㆍ로니 로젠틀 글, 실비아 카비브 그림, 김루시아 옮김. 내전을 피해 국경을 넘는 아프리카의 난민 어린이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쓰고 그린 책. 열 살짜리 쌍둥이 남매의 이야기다. 그림에 아프리카의 토속적 색채와 문양이 두드러진다. 초록개구리ㆍ32쪽ㆍ1만1,000원<br/><br/>▦423킬로미터의 용기<br/>댄 거마인하트 지음, 천미나 옮김. 7년의 투병도 보람없이 암이 재발하자 열두 살 소년 마크는 죽음을 맞이하려고 높은 산으로 떠난다. 마지막 순간 삶의 진실을 발견하는 뭉클한 이야기. 알에이치에이코리아ㆍ212쪽ㆍ1만1,000원<br/>▦아빠와 나의 행복한 방 <br/>안덕자 지음. 엄마 없이 아빠와 노숙하는 초등학생 주인공과 부모에게 상처받은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꿈을 그린 따뜻한 동화. 시와동화ㆍ152쪽ㆍ1만2,000원<br/>▦철의 시대 <br/>강창훈 지음. 고대 쇠도끼부터 최첨단 아이언맨까지 철을 통해 들여다본 세계사. 철의 과학과 기술, 철과 함께해온 인류 문명의 흐름을 설명한다. 중학생. 창비ㆍ220쪽ㆍ1만1,000원<br/>▦늑대들이 사는 집<br/>허가람 글, 윤정주 그림. 겉모습만으로 남을 판단하는 섣부름을 경계하는 우화.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오누이는 험상궂게 생긴 늑대를 만나자 겁을 집어 먹는데…. 유머와 세련된 문체가 돋보이는 재미있는 이야기. 초등 저학년. 비룡소ㆍ92쪽ㆍ8,500원<br/>▦역사의 나들목 여기는 항구 <br/>조성은 글, 송진욱 그림. 부산으로 들어온 고구마, 고려청자운반선이 출발하던 강진, 신라시대 처용이 상륙한 울산 등 사람과 물자, 배가 오가던 항구 여섯 곳에 깃든 한국 역사 이야기. 초등 4~6학년. 책과함께어린이ㆍ148쪽ㆍ 1만1,000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73.txt

제목: [브리핑] SK 대학생 창업지원 ‘청년비상 프로젝트’ 外  
날짜: 201510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5806481  
본문: SK 대학생 창업지원 ‘청년비상 프로젝트’<br/> SK그룹은 16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비상(飛上)’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하는 공고를 낼 예정이다. ‘청년 비상’은 대학과 기업이 대학생에게 창업 교육과 창업 인큐베이팅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25개 대학을 선정해 2년간 2만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br/> <br/> 마하셔 에쓰오일 대표 금탑산업훈장 수상<br/> 나세르 알 마하셔 에쓰오일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을 열고 마하셔 대표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마하셔 대표는 5조원 규모의 정유화학 시설 투자, 연구개발센터 건립,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한국 정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br/> <br/> KB국민카드, ‘유니온페이 모바일 카드’ 출시<br/> KB국민카드는 15일 국내에서 발급 받은 카드로 중국 등 해외에서 터치 방식으로 결제 가능한 ‘KB국민 유니온페이 모바일 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별도의 범용이용자식별모드(USIMㆍ유심) 칩을 발급 받거나 기존 유심 칩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br/> <br/> 삼성증권, 2015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br/> 삼성증권은 15일 ‘제4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기업사회공헌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상은 나눔 문화을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봉사, 기부, 생명나눔, 희망멘토링, 기업사회공헌 5개 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상이다. <br/> <br/> 신한금융투자, (무)VIP건강보험 판매 개시<br/> 신한금융투자는 ‘신한생명 (무)VIP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납입 기간 종료시점부터 같은 금액으로 매월 돌려주는 구조의 상품이다. 보장이 100세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매월 돌려받는 자금으로 생활비 마련도 가능하다. 또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암, 2대질병, 5대질병 진단시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br/> <br/> 전기·수도 계량기 이상 유무 1시간 내 현장서 확인한다<br/>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가정용 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이동형 검사장비’를 개발했다. 그 동안 전기, 가스, 수도, 난방열량계의 고장이 의심되거나 계량기로 인한 요금 시비가 있는 경우 계량기를 떼어내 검사기관에 의뢰해 수일 동안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1시간 안에 계량기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br/> <br/> 남아도는 자가용 생산전력 묶어서 팔게 한다<br/>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소규모 자가용 생산 전력을 묶어서 팔 수 있게끔 ‘전력거래 중개사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br/> <br/> 전자제품 인도네시아 수출입 빨라진다<b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15일 인도네시아 국영 시험인증기관인 피티 수코핀도와 전기전자, 소재부품, 에너지 관련 양국 수출입 제품의 시험인증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과 에너지 분야의 인도네시아 수출입 과정이 간소화될 전망이다.<br/> <br/> 아이디어 상품 전문점 ‘아임쇼핑’ 본점 개장<br/> 중소기업청은 목동 행복한백화점 정책매장을 아이디어 혁신제품 전문 판매점인 ‘아임쇼핑’ 본점으로 개편해 15일 문을 열었다. 아임쇼핑은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에 다리를 놓는 유통채널이다. <br/> <br/> ‘BIXPO 2015’ 7,700억 수출상담 성과<br/> 한국전력은 12~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5)’ 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간 54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돼, 총 6억7,232만달러(약 7,698억원) 상당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한전은 브라질 국영 전력회사 푸르나스(FURNAS), 중국 남방전망, 부탄 전력청 BPC, LS산전 등 국내외 기업들과 8건의 전력·에너지 분야 협력 협정(MOU)도 체결했다. <br/> <br/> “<span class='quot0'>미국시장 열려면 소수인종·공유경제·CUV에 주목해야</span>”<b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5일 펴낸 ‘키워드로 살펴보는 미 소비시장 트렌드’ 보고서에서 미국인의 지갑을 열려면 최근 구매력이 높아진 소수인종, 양육비 및 생활비 지출이 적어 가처분소득이 높은 성적소수자에 주목하고, 제품을 나눠쓰는 공유경제와 실용성을 극대화한 크로스오버차량(CUV) 분야 등을 공략해야 한다는 분석했다.<br/> <br/> 기아차, 신형 스포티지 1.7 디젤 출시<br/> 기아자동차는 15일 U2 1.7 디젤 엔진을 장착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더 SUV 스포티지’ 1.7 디젤을 출시했다.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가 더해져 복합연비는 15㎞/ℓ(2륜 구동, 17인치 타이어 기준)로 2.0 디젤(14.4㎞/ℓ)보다 조금 높다. 가격은 트렌디 2,253만원, 노블레스 2,449만원이다.<br/> <br/> 르노삼성, 2년 연속 100억원 규모 민관협력펀드 결성<br/> 르노삼성자동차는 15일 중소기업청과 자동차 분야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협력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르노삼성과 중기청은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조성해 3년간 중소 협력업체 기술개발 등에 사용한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자동차 업계 최초로 1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해 협력업체 14곳에 93억원을 지원 중이다.<br/> <br/> 기아차 ‘카니발 하이리무진’ 1만대 돌파<br/> 기아자동차는 지붕을 높이고 편의사양을 강화한 ‘카니발 하이리무진’(사진)이 2006년 국내 출시 이후 9년 만에 누적 판매 1만대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21.5인치 뒷좌석 모니터, LED 무드램프 등을 갖추고 등장한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42% 늘어난 3,516대가 팔리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br/> <br/> 아시아나, 나눔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br/> 아시아나항공은 ‘2015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기업 사회공헌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4회째를 맞은 나눔국민대상은 국내외에서 나눔을 실천한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아름다운 나눔ㆍ환경ㆍ교육ㆍ문화를 중점 사회공헌 주제로 정하고 국내외에서 실천 중이다.<br/> <br/> SK텔링크, 알뜰폰 최초 스마트폰 ‘루나’ 출시<br/> SK텔링크는 15일 온라인 직영숍(www.sk7mobiledirect.com)를 통해 스마트폰 ‘루나’를 알뜰폰으로 내놨다. 월 2만4,000원 요금제 기준으로 44만9,900원의 루나폰에 23만원의 지원금을 준다.<br/> <br/> LG유플러스, 스마트홈 기기 홈보이 G패드II 출시<br/> LG유플러스는 15일 사물인터넷, 비디오포털 등에 쓸 수 있는 스마트홈 기기 ‘홈보이 G패드Ⅱ’를 내놨다. 외장메모리는 128GB까지 확장할 수 있고 전용 스타일러스 펜, 듀얼 윈도우 기능 등을 추가했다. 음향 담당하는 스피커 스테이션은 오디오 업계의 거장 마크 레빈슨이 튜닝했다.<br/> <br/> KT, 독일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 T-SDN 시연<br/> KT는 15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네트워크 인프라 세미나에서 자체 개발한 광 전송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T-SDN)를 전시해 국내외 사업자의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러 제조사가 만든 네트워크 환경에서 최적 경로를 찾아내 네트워크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br/> <br/> LH 이재영 사장 부산 주거복지현장 방문<b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재영 사장이 부산 연제구 소재의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 가구를 방문해 입주민의 만족도와 의견 청취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 가구의 낡은 주택을 개량해주는 제도로 LH가 주택조사를 하고 노후도를 평가한 후 보수 범위를 세분화해 가구당 9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다. LH는 현재 6,600가구에 대한 개량사업을 진행중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74.txt

제목: 김제 옛 미군기지 토양오염 확인  
날짜: 201510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5747541  
본문: 市 정밀조사 후 정화작업 실시<br/> <br/> 전북 김제시는 15일 황산동 옛 미군기지와 주변 마을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br/> 이 지역은 군부대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지적이 나와 김제시와 국방부, 한국환경공단 등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던 곳이다.<br/> 조사위가 서해환경과학연구소에 의뢰해 부대 인근 덕조마을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농도가 1,231.0㎎/㎏으로 기준치(500㎎/㎏)보다 배 이상 높았다. 부대 안에서는 이보다 높은 2,443.5㎎/㎏이 나왔다. <br/> 조사위는 이곳에 주둔했던 미군부대의 기름탱크에서 경유가 유출되며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결론지었다.<br/> TPH는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 등의 유류로 인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항목으로, 지나치게 많으면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 이 군부대는 1970년대 초까지 주한미군의 미사일 기지로 쓰였으며 이후 2008년까지는 우리나라의 공군 포대기지로 사용됐다. <br/> 김제시는 이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고 2차 정밀조사를 요청하고,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 등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토양 정화작업을 벌일 계획이다.<br/> <br/> 최수학기자 shchoi@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75.txt

제목: 65세 이상 여성 암 발생률 1위, 여성 대장암 경계령  
날짜: 201510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5345372  
본문: 노년 여성에게 대장암이 강력한 위험으로 다가왔다.<br/> <br/>대장암은 국내 남성암 발생 2위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대장암 발병 추이를 보면 한국 여성도 대장암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발표된 국내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대장암은 65세 이상 노령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집계됐다.<br/> <br/>또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1999~2012년) 암 발생 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해마다 4.3%씩 늘어나고 있다.<br/> <br/>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 협진센터장 김광호 교수는 "국내 여성의 대장암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 발병하는 암 중에서는 3위, 65세 이상 노령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성에 비해 대장암의 조기 발견이 늦고 상대 생존율이 낮아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대장암의 예방과 조기 검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br/> <br/>▲대장암 여성에도 위험<br/> <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10만 명당 대장암 발병률은 58.7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게 대단히 위험한 질병이다. 여성에게도 대장암은 흔하다. 단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장암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령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2012년 암등록통계에서 65세 이상 고령군에서 암 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남성은 대장암이 3위인데 반해 여성은 대장암이 1위이다.<br/> <br/>특히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의 경우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br/> <br/>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1993~2012년 대장암의 성별 상대생존율 자료를 살펴보면, 5년 생존율의 경우 여성은 65.9%, 남성은 70.5%로 4.6%나 낮다. 이는 대장암은 '남성암'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장암 검진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여 병이 진전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br/> <br/>▲폐경기 접어든 중년 여성, 대장암 주의<br/> <br/>여성의 대장암 발생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br/> <br/>많은 역학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낮은 이유로 에스트로겐의 효과, 혹은 호르몬 대체요법과의 관련성을 제시한다.<br/> <br/>대표적으로 'Women's Health Initiative 코호트 연구'에서 호르몬 대체요법(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병합)은 결장암 위험을 약 30%, 직장암 위험을 약 43%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여성이 폐경기에 접어들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대장암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br/> <br/>또. 여성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해 허리둘레가 늘어나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선 대장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br/> <br/>복부비만은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데 특히 여성의 비만은 남성에 비해 대장암 발병에 더욱 위험하다. 실제 세계소화기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10cm 증가하면 여성의 대장암 발병 위험이 16%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폐경을 맞은 여성의 복부비만 유병률은 폐경 전 32.1%, 폐경 후 44.5%로, 폐경 후 여성이 12.4%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br/> <br/>▲내시경 자주 받아야<br/> <br/>대부분의 대장암은 양성 종양인 선종이 5~15년에 걸쳐 서서히 악성으로 변하여 생기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하다.<br/> <br/>정기 건강검진을 충실히 받으면 대장암 발생률을 90%나 줄일 수 있는 만큼,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대장암 조기 검진 권고안에서도 50세부터 매 5~10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일찍 검사하는 것이 도움 된다.<br/> <br/>대장 내시경은 대장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 중 하나지만, 검사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검사받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대장 내시경은 장을 비운 후 항문으로 내시경 기기를 삽입, 대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장 세정제 복용과 오랜 시간 설사를 해야 하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br/> <br/>김광호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 협진센터장은 "대장 내시경은 대장 내부를 관찰하고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이 있으면 용종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조직 검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뿐 아니라 치료까지 가능한 검사 방법이다"며 "만 50세 이상 대장암 위험군이라면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대장 내시경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권장한다"고 조언했다.<br/> <br/>대장암 예방 3 UP & DOWN 캠페인<br/> <br/>▲ 1 UP 섬유질 섭취량을 늘린다<br/> <br/>권장 식이 섬유의 양은 하루에 20~25g 정도로 사과에는 약 5g, 바나나에는 약 4g의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다(1개 기준).<br/> <br/>▲ 2 UP 칼슘 섭취량을 늘린다<br/> <br/>칼슘 권장 섭취량은 하루 성인 남녀 700mg(폐경기 여성 800mg)으로 우유는 하루 2컵 이상,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br/> <br/>▲ 3 UP 대장암 고위험군의 경우 정기 건강검진 횟수를 늘린다<br/> <br/>50세 이상 성인은 5~10년마다,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2~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br/> <br/>▲ 1 DOWN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인다<br/> <br/>20세 이상 성인 여성의 경우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2,000kcal를 넘지 않도록 한다.<br/> <br/>▲ 2 DOWN 트랜스 지방 섭취량을 줄인다<br/> <br/>과자, 도넛, 케이크, 패스트푸드 등에 주로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의 섭취량을 줄이도록 한다.<br/> <br/>▲ 3 DOWN 흡연과 음주량을 줄인다<br/> <br/>과도한 음주는 직장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흡연은 대장 선종과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76.txt

제목: [아침을 열며] 복지방해부?  
날짜: 201510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5238103  
본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자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앞으로 하나의 공문을 보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라는 긴 제목의 공문이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복지부 장관이 간사인 사회보장위원회란 곳에서 전국 지자체가 자체 실시하고 있는 총 5,891개의 사업을 이 잡듯 조사해 보니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그도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섰단다. 그리하여 그 중 25.4%에 해당하는 1,496개 사업을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고 통보한단다. 이로 인해 무려 9,997억원의 예산이 절약되고 이것을 더 효율적인 사업에 쓰면 승인절차를 간단히 해주는 배려를 하겠다는 내용이다.<br/>언뜻 보면 참으로 대견한 일이다. 지자체가 방만하게 쓰고 있던 낭비성 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바로잡겠다니 말이다. 그간 보편적 복지 운운하며 지방정부의 예산 중 복지 비중을 마구 늘리던 자치단체장들의 정신 나간(?) 행보를 우려하던 이들에겐 속 시원한 조치라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과연 진실은 어떨까?<br/>강원 원주시에 사는 부부는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월 2만원 미만의 건강보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받아 왔다. 만 10세까지 암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골절, 화상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중단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나 급여비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이다.<br/>경기 군포시에 사는 만 85세 어르신이 효도수당으로 연 2회에 걸쳐 9만원씩 받던 것도 중단될 예정이다. 다른 수많은 지자체에서 행하는 어르신을 위한 수당 지급도 모두 중단된다. 중앙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지자체가 추가로 주는 것은 선심성이란다. 아동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현금 수당성 지원도 거의 중단된다.<br/>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지원받던 구청의 추가 프로그램 운영비도 중단된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던 전국의 지자체 사업도 중단된다. 중앙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중복이란다.<br/>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결연히 중단을 통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나 수당, 보험료ㆍ융자금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국민들은 646만명에 달한다. 경기도가 170만명이고 인천이 97만명, 서울 87만명, 대구가 65만명 등이다. 영향을 받는 인구 규모 면에서 본다면 최근 중앙정부의 어떤 조치보다도 파급력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br/>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국민에게는 대참사요, 중앙정부로서는 최대의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조치는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등 수많은 법들과 충돌한다. 행정부 내에 최소한 법리를 점검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것인지 의심하게 한다. 게다가 기존 법과 상충 여부를 떠나 이런 엄청난 일을 사회보장위원회의 몇몇 공무원과 전문가연 하는 이들이 모여 결정하고 내년 1월까지 결과를 보고하라는 일방적인 처사가 30년 가까운 지방자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 걸 맞는 일인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깎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기민하게 바꾸는 모습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br/>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큰 틀을 짜면, 지방정부는 스스로 주민들의 추가적인 욕구와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살을 붙이는 것이 기본이다. 이번 조치는 복지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난폭한 행정에 다름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라고 말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라는 한 자치단체장의 힐난이 헛말이 아니다. 당장 이 난폭한 처사를 거둬들여야 한다. 복지부 장관에게 그럴 권한과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br/>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77.txt

제목: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돼…아내 암 투병  
날짜: 201510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5055018  
본문: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br/> <br/>7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br/> <br/>경찰은 발견 당시 가장이자 아버지인 58세 이씨가 손과 발이 묶인 채 거실에 누워있었다고 전했다.<br/> <br/>덧붙여 아내와 딸 이양은 방 안 바닥에 누운채로 숨져있었다고 전했다.<br/> <br/>일가족 3명의 숨진 채 발견된 시점은 이씨의 처조카가 유서로 추정되는 등기우편을 받은 뒤 경찰신고를 통해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br/> <br/>이씨가 죽기 전 보낸 것으로 알려진 등기우편에는 "아내 병치레와 씀씀이 문제로 빚이 많아 살기 힘들다"며 "친척들이 빚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 <br/>경찰은 수사결과 아직까지 주택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나 타살 가능성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br/> <br/>사진=JTBC '아침&' 방송 캡처<br/><br/><br/>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78.txt

제목: “한글문신 멋있죠?” 외국인들 패션 아이템으로  
날짜: 201510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5026745  
본문: 직선으로 뻗어 있는 글자체에 매료<br/>컴퓨터 정자체만 쓰던 예전과 달리<br/>캘로그라피 등 디자인 선택 넓어져<br/>K팝 가사나 한국 추억 담긴 문구도<br/> <br/> “<span class='quot0'>가수 김광석 노래 가사 중 일부를 문신으로 새기고 싶어요.</span>”<br/> 8일 충북 청주 상당구에 위치한 문신숍 ‘메가타투’에 미국인 데이비드 스파크스(38)씨가 들어섰다. 문신을 해달라면서 그가 보여준 문구는 김광석 노래 ‘서른 즈음에’의 가사 일부인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였다. 30여분간 문신사 서유정(24)씨와 글씨체, 문신 위치 등을 상의한 스파크스씨는 서씨가 직접 만든 글씨체로 왼쪽 팔 안쪽에 김광석의 가사를 문신으로 새겼다. 그는 “<span class='quot0'>같이 음악활동을 하던 친구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노래</span>”라며 “<span class='quot0'>현재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친구와 한국을 기억하기 위해 한글 문신을 새기기로 결심했다</span>”고 말했다.<br/> 최근 외국인 사이에 한글 문신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난 제시카 리그워터(30ㆍ여)씨는 왼쪽 어깨에 한글 정자체로 ‘사랑’이라는 문신을 새겼다. 지난달 여행을 위해 한국에 왔다는 그는 “<span class='quot0'>직선으로 뻗어 있는 한글이 멋있게 느껴져 친구와 함께 문신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달 말 미국에 돌아가는데 샤워를 할 때마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떠오를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해외 팝스타들이 한글 문신을 새긴 것을 보고 문신을 결심한 이들도 있었다. 영국 출신으로 한국에서 4년간 살고 있다는 한나(28ㆍ여)씨는 “미국의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것을 보고, 나도 ‘한나’라는 문신을 새겼다”며 왼쪽 팔목을 드러내 보였다.<br/> 최근 외국인 사이에 한글 문신의 인기가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글씨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태원에서 문신숍을 운영하는 김모(27ㆍ여)씨는 “컴퓨터 글씨체(정자체)로만 한정돼 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문신사가 자신의 개성을 살려 직접 개발한 글씨체로 문자를 새기는 캘로그라피 문신이 대중화되면서 외국인의 호기심을 사로잡고 있다”며 “그들의 눈에는 독특한 글씨체로 보이기 때문에 한글 문신을 패션 아이템으로 여기는 추세”라고 말했다.<br/> 최근에는 ‘결코물러나’ ‘육개장’ 등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소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단어를 새기던 것에서 벗어나 외국인이 직접 원하는 문구를 새겨 넣는 추세다. 글자에 디자인 개념이 들어간 캘로그라피 문신이 인기를 끌면서 생긴 변화다. 메가타투의 김지훈(44) 문신사는 “요즘에는 문신사와 상의해 이름이나 노래 가사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문구를 새기거나 애초부터 자신이 직접 원하는 문구를 정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날 메가타투를 찾은 영국 북아일랜드 출신 루이스(26)씨도 그런 경우다. 그는 이날 뒷목에 ‘린호’라는 자신의 한국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다. 아일랜드의 상징인 사슴과 흡사한 모습을 한 기린의 ‘린’자와 한국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호’자를 따서 본인이 직접 만든 이름이라고 했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이름을 단 하나뿐인 글씨체로 몸에 새겼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br/><br/>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79.txt

제목: 야맹증이 심하면 실명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인가요?  
날짜: 201510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4751279  
본문: 야맹증이 심하면 실명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인가요?<br/> <br/> <br/>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을 볼 때, 처음에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차츰 적응되면서 시야가 되살아납니다.<br/> <br/>이를 암순응이라고 하는데, 망막의 간상세포라는 곳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척적으로 간상세포에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혹은 후천적으로 비타민 A가 부족해 간상세포의 기능이 약해지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야맹증이 됩니다. 암순응에는 대개 5~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10분이 지나도 물체의 구별이 어렵고 잘 보이지 않는다면 검진이 필요합니다.<br/> <br/>야맹증이 심해지면 실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야맹증으로 인해 실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의 증상으로 야맹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망막색소변성증입니다.<br/> <br/>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적인 질환으로 망막에 존재하는 시세포가 퇴행하면서 주변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시력이 떨어지면서 시력을 잃어가는 질환입니다.<br/> <br/>개인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나 진행속도가 모두 다르고, 치료가 어려워 현재로는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이 생기면 초기에 야맹증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외에 선천성 비진행성 야맹증, 비타민 A 결핍 등에서 야맹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br/> <br/>원인에 따라 야맹증의 치료법은 각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적으로 망막세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치료방법이 없지만,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한 야맹증은 당근, 시금치,토마토, 호박같이 비타민 A가 많이든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습니다.<br/> <br/>망막색소변성인 경우는 백내장, 녹내장 등 다른 안과 질환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검진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실명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더불어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 색안경을 쓰거나 모자를 써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등 생활 속 관리가 필요합니다.<br/> <br/>어두운 곳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어둠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맹증 외에도 빛이 강할 때 주변이 잘 인지되지 않을 정도로 눈부심이 심해지거나 시야가 점점 답답해진다면 망막색소변성증일 수 있으니 꼭 주변 안과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br/> <br/>김부기 원장은 온누리스마일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 진료 분야는 굴절교정(라식, 라섹, 스마일, 안내렌즈삽입술, 난시교정)<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80.txt

제목: DNA 복구 메커니즘 찾아낸 과학자 노벨화학상 공동수상  
날짜: 201510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4903149  
본문: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손상된 유전자(DNA)를 스스로 복구하는 원리를 규명한 미국과 스웨덴의 과학자들이 올해의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br/>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span class='quot0'>DNA 복구 메커니즘을 공동 연구한 토마스 린달(77·스웨덴) 프랜시스크릭연구소 명예교수, 폴 모드리치(69·미국) 미국 듀크대 의과대학 교수 겸 하워드휴스연구소 연구원, 터키·미국 이중국적자 아지즈 산자르(69)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등 3명을 올해의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span>”고 밝혔다.<br/> 우리 몸의 유전자 물질이 변형·해체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건 분자 시스템 차원에서 DNA를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고 복구하기 때문인데 이들 수상자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밝혔다. 왕립과학원은 “<span class='quot1'>세포가 손상된 DNA를 어떻게 복구하고 유전자 정보를 보호하는지를 분자 수준에서 밝혀냈다</span>”고 설명했다.<br/> 린달은 DNA가 일정하게 붕괴되고 지속적인 대응 반응으로 회복된다는 ‘염기 절제 복구’(base excision repair) 원리를 밝혀내 1970년대까지만 해도 DNA가 극도로 안정적인 분자라고 여겨지던 과학계의 통념을 깨뜨렸다. 왕립과학원은 “<span class='quot1'>지구에 생명체가 생겨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DNA의 속성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br/> 산자르는 ‘뉴클리오타이드 절제 복구’(nucleotide excision repair) 연구를 통해 세포가 자외선에 의해 입은 손상을 복구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복구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리며, 세포가 돌연변이 유발 물질로 생긴 결함을 뉴클리오타이드 절제복구를 통해 없앤다는 사실도 그의 연구로 밝혀졌다.<br/> 모드리치는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가 복제될 때 일어나는 손상을 세포가 극복해내는 과정을 입증한 ‘부정합 복구’(mismatch repair)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선천적 결함이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는 점도 그의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br/> 왕립과학원은 “<span class='quot1'>이들 수상자는 살아있는 세포 기능에 대한 근본적 지식을 제공했으며 특히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의 길이 열렸다</span>”고 평가했다.<br/> 수상자들은 상금 800만 크로나(한화 약 11억2,000만원)를 나눠가지게 된다. 시상식은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10일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br/>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81.txt

제목: 삼성서울병원,'부인암환자의 날'개최  
날짜: 201510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4256406  
본문: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부인암센터는 6일 오전 9시30분부터 암병원 지하1층 강당서 '제 11회 부인암환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br/> <br/>올해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부인암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 투병의지를 독려하고 희망을 나누면서 부인암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br/> <br/>이날 행사는 ▲부인암센터 소개(김병기 부인암센터장) ▲부인암 치료의 최신지견(최철훈 산부인과 교수) ▲암환자의 스트레스 관리(윤세창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부인암 방사선치료의 최신경향(박 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암환자를 위한 맞춤형 통합교육(김임령 전문간호사) ▲부인암 Q&A(이정원 산부인과 교수) ▲암환자를 위한 요가, 치유명상(김수미 강사)의 강연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br/> <br/>김병기 부인암센터장은 "부인암센터는 치료뿐만 아니라 부인암의 예방에서 치료 및 정상적인 생활로의 재활까지 총괄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환자와 가족, 평소 관심 있는 분들이 부인암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br/> <br/>한편, 이번 행사는 사전 예약 없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강의 후 부인암 관련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문의: 삼성서울병원 부인암센터 02-3410-2246).<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82.txt

제목: 키 클수록 암 걸릴 확률이 높다  
날짜: 201510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4113143  
본문: 남성과 여성 모두 키가 클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일 보도했다. 스웨덴의 연구진이 키 100cm부터 225cm, 만 24세부터 77세의 표본을 대상으로 총 550만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연구한 결과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0'>질병과 키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연구</span>”라고 밝혔다.<br/>스웨덴 의과대학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따르면 키가 10cm가 클수록 여성의 경우는 암 발병률이 18%, 남성의 경우는 11% 높아진다. 암의 종류에 따라 발병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키와 가장 관련이 높게 측정된 피부암은 10cm당 남녀 모두 30% 더 위험하고 여성인 경우 유방암은 20% 높아진다. 하지만 큰 키가 비만이나 흡연, 불규칙한 식단만큼 치명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br/>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에밀리에 베니 박사는 여러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키가 큰 만큼 세포가 많아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세포의 비율도 높거나, 키가 큰 사람은 암을 유발하는 성장인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요인은 아직 모르지만, 신빙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드릴 수 있는 사안</span>”이라 말했다.<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키가 큰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죽음까지 이르는지는 알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는 키와 질병사의 상관관계를 연구할 계획</span>”이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제54회 유럽 소아내분비학회에서 소개된다.<br/>전영현 인턴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83.txt

제목: [기고] 간접흡연, 더 이상 참을 사람 없다  
날짜: 201510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4056867  
본문: 흡연자들이 볼 멘 소리로 말한다. 이제 마음대로 담배 피울 데가 없다고. 언뜻 맞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요즘 흡연자들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일 때 주변을 돌아보면서 불을 붙이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까 말이다.<br/>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커피숍,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과거에 음식점마다 식사 후에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고 비흡연자들은 그 연기를 맡으면서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기 위해 고통을 참아야 했던 일은 겪지 않아도 된다. 실외 금연구역도 계속 넓어지고 있어서 서울시의 경우 버스정류소, 공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초중고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혼잡한 길거리를 모두 포함하면 서울시에만 실외 금연구역이 무려 만 군데나 된다.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1,600여 곳에 달하는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br/>그럼 비흡연자들은 이런 상황에 만족하고 있을까? 과거 간접흡연의 피해를 봤으면서도 말 못하던 비흡연자들은 이제 길거리 간접흡연도 불쾌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길거리 흡연의 가장 큰 문제는 길을 걸을 때 앞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뒷사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아파트에서 간접 흡연은 이웃 간 다툼으로 문제가 커진다. 화장실이나 베란다를 타고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짜증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아기라도 키우는 집의 경우 왜 우리 아이가 당신들의 흡연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분노를 표시한다.<br/>흡연자들은 이런 비판에 대해 ‘내 집에서도 못 피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어떤 흡연자들은 흡연자를 죄인 취급하지 말라고 한다. 맞는 말씀이다. 흡연자는 죄인이 아니고, 흡연행위는 죄가 아니다. 흡연자는 불행하게도 인생의 어떤 시기에 흡연을 시작했고, 니코틴에 중독되어 끊지 못하는 피해자일 뿐이다.<br/>그런데 딱 한 가지, 흡연자가 죄인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간접흡연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1급 발암요인 즉, 인간에서 암 발생이 확인된 발암물질로 공표된 지 오래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고, 심장혈관과 뇌혈관을 막아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킨다. 어린이에게는 중이염, 천식 발작을 일으키고, 아무 질병이 없던 영아가 갑자기 사망하는 영아돌연사증후군도 유발한다. 부모 모두가 흡연자인 가정에서 자라는 소아는 그렇지 않은 집보다 호흡기질환이 72% 더 많다.<br/>이런 심각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을 때 비흡연자의 69%가 눈의 자극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32%가 두통을, 29%는 코 자극증상을, 그리고 25%가 기침을 호소한다. 대략 5,000만명인 우리 국민 가운데 흡연자는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제 모든 실내의 완전금연과 혼잡한 길거리를 비롯한 실외 금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br/>간접흡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 이웃이다. 어떤 흡연자가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강요할 수 있을까? 어린이와 함께 탄 차 내 금연에 국내 흡연자의 94%가 찬성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질문에 답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차 안에 함께 있는 상황을 떠올렸을 것이다. 자기는 흡연을 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간접흡연에서 보호하려는 애정이 느껴진다. 흡연자들은 바로 그런 마음씨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마땅하다. 배려할 이웃에는 가족만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같은 길을 걷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br/>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ㆍ국립암센터 금연지원센터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84.txt

제목: '고객과 직원' 섬김 실천하는 건강검진 분야의 리더, KMI한국의학연구소  
날짜: 201510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3844658  
본문: 30년 전 의료 검사는 대소변 혹은 혈액검사가 고작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은 각 과별로 분과된 외국과 달리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 우리나라 의료검진발전을 비롯해 건강의 인식을 질병관리에서 예방으로 바꾸는데 주역을 맡아 온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br/> <br/>■ 설립 30주년 맞은 KMI, 우수한 인력과 장비에 친절은 기본<br/> <br/>KMI(www.kmi.or.kr)는 '평생을 건강하게'라는 목표로 1985년 설립되어 현재 서울 광화문, 강남, 여의도, 지방은 수원, 대구, 부산, 광주 7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주하는 직원은 현재 총 1266명, 134명의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종합검진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과 우수한 장비로 종합검진을 선진국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다.<br/> <br/>KMI는 지난해에만 검진을 받은 80만여 명의 사람들 중 1,568명의 암 같은 중증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0년 누적된 검진정보를 바탕으로 KMI에서는 VIP종합검진센터,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며 보다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우수 검진 기관 및 대학병원과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다.<br/> <br/>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수장인 이규장 이사장은 규모에 맞지 않게 소탈하다. 이사장직을 맡고 있지만 그의 방은 늘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열려 있다. 입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영업 일선에서 직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현역을 고수한다. 그에게 KMI의 성장과 30년의 역사에 대한 언급을 하자 업계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경쟁력을 먼저 꺼내었다. 이규장 이사장은 KMI가 업계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한 검진을 바탕으로 한 친절한 검사, 조기발견·조기치료를 목적으로 우수한 장비와 인력 그리고 그들의 열정이라 했다. 그는 다시 열정이라는 덕목에 고객과 직원 섬김을 덧붙인다. "고객은 우리 우주에서 제일 소중합니다." 이규장 이사장은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KMI가 이룬 고객철학과 신념을 설명했다.<br/> <br/>■ 3:3:3:1 경영이념으로 자존심과 신뢰가지고 고객우선 지켜내<br/> <br/>이규장 이사장은 우수한 장비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업계리더로서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한 정보력뿐만 아니라 실무급에서 요청하는 최고의 기기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을 꼽았다.<br/> <br/>KMI는 어려운 시기에 있었더라도 중고 장비에 대한 유혹은 갖지 않았다. 자존심과 신뢰를 가지고 고객우선을 지켰다. 병원의 공기 질 관리와 의료검진 시 1회용이나 소독의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가이드라인과 친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항목으로 지켜오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결국 KMI가 리더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돼 주었다.<br/> <br/>고객생명우선이라는 소신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KMI의 3:3:3:1 경영이념 때문이다. 수익의 30%는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 후생을 위해, 30%는 시설 및 의료장비 투자를 위해, 또한 30%는 미래를 위한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10%는 취약계층 지원, 의료봉사 같은 사회 환원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br/> <br/>10%의 사회 환원활동은 매년 겨울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 지원,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검진 및 쌀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올해 5월21일에는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 MOU를, 의료 인프라 부족과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어업 인들을 위해 지난달 13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훈련비가 없는 운동선수 유망주 등을 도와주고 있으며 야구를 접하기 힘든 어린이 대상 KMI 야구교실 운영 등 다방면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br/> <br/>KMI한국의학연구소는 의학 보건 분야 발전을 위해 연구비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2008년부터 의과대학의 산학연과 협력하여 연구비가 없어 연구가 중단되는 열악한 현실에 놓인 연구원들을 위해 매년 8~10건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17억 여 원을 지원하였다.<br/> <br/>이런 활동의 결과 KMI한국의학연구소는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소통경영 대상, 제9회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한 바 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일하기 좋은 기업 탐방사례집에 실리면서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전파하는데도 리더역할을 하고 있다.<br/><br/><br/>김종일 기자 mudaefor@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85.txt

제목: 불임여성 직접 출산 꿈 성큼  
날짜: 201509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3708077  
본문: 스웨덴에 이어 영국에서도 불임여성에게 자궁을 이식해 임신을 유도하는 수술이 내년 봄부터 시행된다고 BBC가 30일 보도했다. 런던의 왕립 의대가 자궁이식 수술을 윤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승인한 결과, 우선적으로 10명이 여성이 수술을 받게 된다. 수술에 성공하면 늦어도 2017년이나 2018년에 아이가 태어난다. 작년 스웨덴의 성공이 계기가 됐다. <br/>지난해 9월, 스웨덴의 36살 여성이 61세의 여성에게 자궁을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 두 명의 아들을 낳았던 61세 여성의 자궁을 빌려 태어난 빈센트는 얼마 전 첫 돌을 맞았다. <br/>연구의 책임자인 영국 샬럿 병원의 리처드 스미스 박사는 자궁이식 분야를 19년간 연구했다. 그는 “부부에게 ‘불임’은 큰 충격”이라며, “입양이나 대리모를 생각하는 부부들에게 이와 같은 기술이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에서 5,000명에 1명꼴로 여성이 자궁 없이 태어나거나 암과 같은 질병 때문에 후천적으로 자궁을 잃는다고 보도했다. <br/>수술은 뇌사판정을 받은 환자의 자궁을 여성의 몸에 이식하고 1년이 지난 후 미리 인공수정한 배아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신 기간에는 면역억제제(생체의 면역반응을 줄이는 약)를 먹으며 신체가 자궁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임신할 계획이 있는지를 고려해 더 이상 자녀 계획이 없다면 자궁을 꺼낸다. <br/>스미스 박사는 “<span class='quot0'>대리모와 같은 방법도 있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를 갖고 싶은 여성의 소망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기술이 필요한 불임 여성들이 많다</span>”고 말했다. <br/>수술은 25세 이상 38세 이하의 건강한 신체를 가진 여성이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자궁 이식 수술을 위해 영국의 자궁이식 추진단체 WTUK(Womb Transplant UK)에 300명 가까이 되는 여성들이 문의했고, 104명이 기준을 통과했다. <br/>전영현 인턴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86.txt

제목: 삼성생명, '삼성생명 생활습관건강보험' 출시  
날짜: 201509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3620859  
본문: 삼성생명이 최근 '삼성생명 생활습관건강보험'을 출시했다.<br/> <br/>생활습관건강보험은 과거 성인병으로 불리던 '생활습관병'에 대한 입원과 수술 등을 종합보장한다. 생활습관병은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는 각종 질병을 말한다. 완치를 위해서는 대부분 입원·수술 등의 치료과정이 동반된다.<br/> <br/>과거에는 주로 장년층인 40~60대에 발생해서 성인병으로도 불렸지만, 최근에는 소아나 20대인 저연령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생화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명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생활습관 관련병'으로 독일은 '문명병', 일본은 '생활습관병' 등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5월부터 생활습관병'으로 명명했다.<br/> <br/> '삼성생명 생활습관건강보험'의 보장 대상은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추가로 중증생활습관병보장특약·소액질병진단특약·실손의료비 보장 특약 등 총 18종의 특약을 활용하면 생활습관병의 진단부터 입원·수술에 이르는 전체 치료과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br/> <br/>구체적으로 살펴 보면(주보험 1000만 가입시),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입원시 1일당 3만원 또는 5만원, 다른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입원시 1일당 2만원을 지급한다. 또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관혈 수술시에는 회당 120만원 ~ 300만원, 내시경, 카테터, 신의료 수술시는 회당40만원 ~ 100만원(최대 3회)을 보장한다. 만기 생존시에는 만기보험금으로 200만원도 지급한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이며, 기본 보장 기간은 1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암의 경우 이미 암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많아 특약을 통해서 보장여부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br/> <br/>삼성생명 관계자는 "그 동안 암보험이나 CI보험 등 중증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은 계속 판매해 왔지만,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는 종합 건강보험은 2006년 이후 10년만에 다시 판매하는 것"이라며,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질병에 대한 입원, 수술, 치료 등의 보장이 가능한 종합건강보험이라 매우 유용한 상품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87.txt

제목: 텃밭서 캔 '나눔의 행복' 도시농부의 넉넉한 추석  
날짜: 2015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3349774  
본문: "직접 키운 채소, 이웃과 소통 촉매"<br/>홀몸 노인이나 암 환자에 기부도<br/><br/>국내 도시농부 100만명 눈앞<br/>자급자족·공동체적 삶 꿈꿔<br/>"일구고 나누며 도시생활 치유"<br/><br/><br/><br/>지난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동 친환경텃밭. 평상에 튀김 요리가 한 상 차려졌다. 올 봄 도봉구청의 도시농부 과정을 함께 수료한 동기생 모임 ‘텃밭애(愛)’ 회원들이 밭에서 깻잎, 당귀, 명월초, 자소엽, 당근잎 등을 수확해 노릇하게 튀겨 냈다. 추석(27일)을 앞두고 추석 성수품 구매가 몰리는 시기지만 이들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신 텃밭에서 추석 맞이를 시작했다. 박동주(47)씨는 “<span class='quot1'>텃밭애 모임 후에는 늘 가족과 나눌 이야깃거리가 풍부해진다</span>”며 “<span class='quot1'>다른 회원 덕에 처음 맛본 명월초 튀김을 이번 명절에 가족에게 만들어 줄 생각</span>”이라고 말했다.<br/> 추석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에 좋은 때이지만, 이들에게는 텃밭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 역시 소중하다. 박씨와 윤원숙(57), 신경자(50), 원옥분(57)씨 를 비롯한 6명의 회원은 49.58㎡ 넓이의 밭에서 배추와 갓, 파, 무 등 다양한 작물을 경작한다. “<span class='quot0'>텃밭을 일궈 수확의 기쁨과 나눔의 행복을 누리면서 팍팍한 도시 생활의 치유를 경험했다</span>”는 게 공통된 말이다.<br/> 수학 강사인 박씨는 3년 전 암 진단을 받고서 자연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생각에 텃밭에 관심을 갖게 됐다. 도시농부 5년 차인 원씨는 집 안 한편에 쓰다 남은 퇴비용 가축분뇨가 종종 쌓일 정도로 텃밭 가꾸기에 푹 빠졌다. 요양보호사인 신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원씨의 권유로 도시농업에 발을 들였다. 그는 “<span class='quot0'>채소는 거의 사 먹을 일 없을 정도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span>”며 “<span class='quot0'>수확물은 이웃과의 거리를 좁혀 주는 촉매제 역할까지 한다</span>”고 말했다. “<span class='quot0'>텃밭에 들른 날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과 대화를 풀어가기가 평소보다 훨씬 수월하다</span>”는 것이다. 가을 수확물을 어디에 전할 지가 이 사람들의 고민거리다. 원씨는 “예년과 달리 작물이 아직 여물지 않아 추석 나눔을 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간 수확물의 절반 이상을 홀몸노인이나 암환자에게 기부해왔다. 이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와 이렇게 경험한 수확과 나눔의 과정을 공유하는 행복이야말로 진짜 추석 선물이라 믿고 있다. 박동주씨는 “<span class='quot1'>도시에서는 삭막하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만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처럼 땅을 밟고 협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소외를 덜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렇게 느낀 감사의 마음을 담뿍 담은 텃밭 채소를 곁들인 음식을 가족과 이웃에게 정성껏 대접하는 것은 돈으로 쉽게 해결하는 선물과 차원이 다르다</span>”고 말했다.<br/> 만인의 경쟁과 대량생산, 소비문화에 절어 사는 게 도시민이지만 ‘왜 꼭 그래야만 하느냐’는 사람들도 있다. 자급과 공동체적인 삶을 꿈꾸는 소규모 그룹을 일컬어 ‘도시부족’(Urban Tribe)이라 한다. 대표적 부족인 한국의 도시농부는 알게 모르게 늘어나 1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br/>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88.txt

제목: "김치녀·여시충… 성차별 이제 그만"  
날짜: 2015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3335352  
본문: 여가부 양성평등 방안 조사<br/>"비하ㆍ차별 표현 자제 필요" 58%<br/>똑같은 잘못 저질러도 '~녀' 조롱<br/>암탉이 울면… 등 속담 금지 요구도<br/><br/> ‘김여사, 김치녀, 된장녀, 여시충…….’<br/>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 한달 간 정책 포탈사이트 ‘위민넷’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댓글 형식으로 양성평등 실현하는 방안을 받았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맞춰 시행된 이번 공모에서 전체 450건 가운데 57.8%(260건)는 성(性) 비하ㆍ차별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성을 비하하거나 성별 고정관념 표현을 담은 용어와 속담을 우선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br/> 이런 사례로 제시된 성 비하 용어들은 여성에 대한 것이 대다수였다. 우선 ‘김여사’는 운전을 잘 못하는 여성을, ‘김치녀’는 금전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려는 여성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또 ‘된장녀’는 분수에 넘치게 사치하는 여성을 뜻하고, ‘여시충’은 여성이 많이 활동하는 포탈사이트 회원을 벌레를 뜻하는 한자 ‘충’(蟲)에 비유한 것으로 모두 여성을 차별하며 인격을 깎아 내리고 있다. 아이디 ‘mh\*\*’를 사용하는 한 누리꾼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여자만 ‘~녀’라 칭하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을 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리 사회에 만연된 여성 비하 분위기를 우려했다. 특히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성에 대한 모멸성 글들이 난무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등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속담들은 아예 쓰지 말자는 글들도 많았다.<br/> 여성 차별뿐 아니라 남성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아이디 ‘45\*\*’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결혼에서 남자가 집을 장만하고 여자는 혼수를 준비하는 문화부터 사라져야 한다”며 “결혼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평등해야 한다”고 적었다.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해?’, ‘남자가 울면 안 된다’ 등 무심코 뱉은 말이 남성들에게 상처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양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성적 고정관념을 깨려 노력할 때 실현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89.txt

제목: 한국인 사망원인 부동의 1위 '암', 폐암·간암·위암 순으로 많아  
날짜: 201509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3127060  
본문: 한국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암'으로 나타났다.<br/> <br/>23일 통계청의 '2014년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었다. 사망원인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로 32년째 부동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는 총 7만6,611명이 각종 암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150.9명이다.<br/> <br/>암 종류별 사망률은 폐암(34.4명)이 가장 높았고 간암(22.8명), 위암(17.6명)이 뒤를 이었다. 30대는 위암 사망률이 1위였고 40·50대는 간암, 60세 이상은 폐암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br/> <br/>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암의 사망순위가 가장 높았다. 남자의 암 사망률은 188.7명으로, 113.2명인 여자의 1.67배였다.<br/> <br/>전년에 전체 사망원인 2위였던 뇌혈관 질환은 심장질환에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내려앉았다.<br/><br/><br/>한국스포츠경제 webmaster@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90.txt

제목: 자살률 줄었지만… 20, 30대는 오히려 늘었다  
날짜: 201509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3025256  
본문: 작년 암 사망 7만여명… 32년째 1위<br/>비만 등 성인병 늘며 심장질환 2위로<br/>10대는 세월호 여파 '운수사고' 1위<br/><br/><br/> 지난 해 하루 평균 733명이 숨을 거뒀다. 이들의 절반 가량(47.7%)은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3대 질병이 사망 원인이었다. 특히 대표적인 선진국 질병으로 꼽히는 심장질환이 뇌혈관질환을 추월, 암 다음 자리를 차지했다. 전체 자살률은 감소했지만 20대와 30대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했고, 50대 남성의 경우 사망률이 같은 연령대 여성의 3배 가까이에 달했다. <br/> 2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4년 사망통계분석’에 따르면 선진국 질병으로 꼽히는 심장질환(인구 10만명당 사망률 52.4명)이 뇌혈관질환(48.2명)을 제치고 사망원인 순위 3위에서 2위로 한 단계로 올라섰다.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2004년 70.1명에서 꾸준히 감소하면서 작년 50명 이하로까지 떨어진 반면, 심장질환은 같은 기간 36.7명에서 계속 증가해 50명을 넘어섰다. “<span class='quot0'>고도산업화 시대의 후유증으로 지적되는 비만이나 성인병이 크게 늘면서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span>”라는 진단이 나온다. <br/> 악성신생물(암)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32년째다. 지난해 암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총 7만6,611명으로, 사망률은 150.9명에 달했다. 2위인 심장질환의 3배 가까운 수치로, 암 사망률은 2004년 132.6명, 2013년 149.0명 등 계속 증가 추세다. <br/> 암 가운데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은 폐암(34.4명)이었다. 간암(22.8명), 위암(1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직장 스트레스와 잦은 음주 회식 문화에 노출된 40대와 50대는 간암에 의한 사망률(40대 10.4명, 50대 33.4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에 의한 사망률(23.7명) 증가도 눈에 띈다. 폐렴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고령화로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폐렴은 2004년 사망 원인 순위 10위(7.1명)에서 작년에는 5위로 상승했다. <br/> 작년 한 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3,836명이었다. 자살률은 27.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0명)의 두 배를 웃돌지만, 2010년 3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20대와 30대 남성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20대 남성의 자살률은 작년 20.9명에서 21.8명으로 늘었고, 30대 남성 역시 36.4명에서 36.6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20~30대 사망 순위에서도 자살은 압도적인 1위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취업난 등 팍팍한 현실을 반영하듯 자살이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에 달했다. 10대의 경우 사망 원인 1위는 사망률 4.8명의 운수사고였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사망자 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br/> 성별 사망률 차이가 가장 큰 연령대는 50대였다. 50대 남성 사망률은 550.2명으로 여성(192.8명)에 비해 2.85배가 높았다. 베이비부머 세대 가장들의 스트레스 질환이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br/>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91.txt

제목: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암기 잘하는 비법도 남달라… 암기왕닷컴 주목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2552494  
본문: 서울 화곡동 A학교에 다니는 김 모(16)군은 책상에 오래 앉아 계속 읽고 쓰기를 반복하지만 제대로 암기를 하지 못해 책을 덮고 휴대폰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기 일쑤다.<br/> <br/>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은 비단 김 군뿐만이 아니다. 김군과 같은 학생들은 대부분 집중력이 약해서라기보다 암기법이 잘못된 것인데, 이들은 주로 앞 글자를 따서 무작정 외우는 방식을 따른다.<br/> <br/>반면 상위권 학생들은 먼저 앞 글자를 따서 스토리를 만든 후 암기를 시작한다.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줄줄이 암기하는 것이 아닌, 일명 연상법을 통해 그림으로 만들어 외우는 방식이다.<br/> <br/>암기왕닷컴 이종일 원장 역시 "암기 잘하는 법 및 공부 잘하는 법, 기억력 좋아지는 법은 따로 있다"며 "우선 그림 연상을 통한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외울 단어들을 쉬운 단어로 변환해주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br/> <br/>암기왕닷컴은 암기비법 인터넷 강의 전문사이트로 현재 '주요과목암기법'과 '수능영단어암기법' 두 종류의 강의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 중 '주요과목암기법' 과정은 7시간 강의를 통해 암기비법을 마스터할 수 있어 수강생들 사이에서 특히 주목 받고 있다. 수강 대상은 암기과목에 약한 청소년과 공무원, 임용고시 등을 준비하는 성인들이다.<br/> <br/>암기왕닷컴에서는 암기과목을 공부할 때 외울 것이 너무 많거나 순서대로 외워야 하는 역사사건 등을 유형별로 정리해서 암기 잘하는 법을 알려준다. 또한 강의를 모두 본 후에는 이메일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실전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실전학습자료에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보며 어떻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br/> <br/>암기왕닷컴 이종원 원장은 "하위권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체크해보면 대부분 눈으로 여러 번 보고 다 외웠다고 하는데, 이는 진정한 암기 방법이 아니다"라며 "암기왕닷컴은 어떠한 것이 나와도 학생들 본인들이 스스로 암기할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 좋아지는 법, 암기 잘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br/> <br/>이어 "학원에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서도 공부 잘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7시간 동안 연습 하면 누구나 암기의 고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br/> <br/>암기왕닷컴 수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mgiking.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br/><br/><br/>한국스포츠경제 webmaster@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92.txt

제목: 죽은 사람의 뇌 스캔 컴퓨터 파일로 ‘영혼’ 살린다  
날짜: 2015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2248801  
본문: 亡者의 정신을 디지털화<br/>사후 뇌 냉동 보관 후 조직 스캔…신경세포 정보교환 경로 복원<br/>美 여대생, 뇌 얼려 부활 꿈꿔<br/>난관 많으나 기술진보 빨라…토끼 이어 돼지 뇌 연구도 성공<br/><br/>‘불멸’을 향한 인류의 열망은 단 한 번도 식은 적이 없다. 최근 한 이탈리아 의사가 2017년 중국 하얼빈(哈爾濱)에서 세계 최초로 척수성근위축증 환자의 머리를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수술을 하기로 밝혀 영생을 원하는 인간의 바람이 얼마나 실현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탄소화합물과 물로 이뤄진 인간의 신체는 언젠가는 기능을 다하고 썩어 사라지기 마련이다. 병을 고치고 부서진 사지를 재생시키더라도 어차피 한계는 있다. <br/>유한한 인체의 기능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연구와 더불어, 최근 과학계에선 인간의 뇌에 깃드는 기억과 감정, 지적인 성과들을 사라지지 않게 영구 보존함으로써 이른바 ‘정신의 불멸’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br/>뇌를 구성하는 1,000억개 신경세포의 연결구조와 시냅스 활동원리가 담긴 뇌의 지도 ‘커넥톰(Connectome)’연구를 주도하는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 승현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를 필두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에서 뇌의 신비를 풀기 위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뇌의 소프트웨어적인 분석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이론상 정신의 불멸이 가능해진다.<br/>사망 후 뇌의 조직이 붕괴되기 전 뇌를 냉동 보관한 후 조직을 정확히 스캔한다. 이를 통해 시냅스들의 정보교환이 이뤄진 경로들을 복원하고 그 데이터를 0과 1값으로 모두 디지털화한다면 미래의 어느 날‘죽었던’사람의 정신이 컴퓨터를 통해 부활하는 것이 현실화된다는 게 현재까지 정립된 뇌의 복원 과정이다. 이러한 시도가 실제 성공한다면 사라진 파일을 복구하듯 뇌를 파일형태로 되살리고, 이미 죽어버린 신체의 다른 부분은 인공기구로 대체해 몸과 정신이 모두 ‘영생’하는 세상이 열릴 수도 있다. 지난 13일 뉴욕타임스(NYT)는 먼 훗날 부활을 기대하면서 2013년 봄 뇌를 영구보관하고 숨진 23세 여대생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가까운 미래, 인류가 맞이하게 될지 모를 ‘불멸’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짚어봤다.<br/>영생을 바라며 뇌를 냉동시킨 대학생<br/>미 콜로라도 대학에서 인지과학을 공부하는 킴 수오지와 미주리 주의회에서 인턴십 과정을 준비하던 남자친구 조쉬 쉬즐러는 2011년 3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킴을 괴롭혀왔던 두통의 이유가 뇌종양이었고, 머지않아 호흡중추를 멈추게 할 정도로 종양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다는 진단이었다.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과 방사능 치료를 받은 후 다행히 한 신약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암은 사라진듯했다. 그러나 2012년 봄 뇌종양이 재발했고, 킴은 몸의 오른쪽을 거의 쓸 수 없게 됐다. 오른손은 물건을 집을 수도, 펜을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약해졌고 죽음의 공포는 젊은 커플을 옥죄기 시작했다. 육체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던 이 커플은 2007년 킴이 인지과학 수업 당시 읽었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의 책 ‘정신능력을 지닌 기계들의 시대‘(The Age of Spiritual Machines)를 떠올리며 희망을 찾았다. 기계의 지능 수준이 인간을 초월하는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할 때까지 뇌를 냉동 보관하고 이후 뇌의 정보를 컴퓨터에 업로드해 정신의 수명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br/>결국 자신의 뇌를 냉동 보관해 기술력이 갖춰진 어느 미래에 정신으로나마 되살아나고 싶다는 뜻을 굳힌 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레딧(Reddit)에 사연과 이 같은 작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 “죽어가는 23세 젊은 여성입니다. 내 뇌를 얼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로 시작되는 영상은 적지 않은 독지가들의 마음을 얻어내도록 이끌었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던 킴의 희망은 미국 내 최대 장기보관 기업인 ‘알코 라이프 익스텐션(Alcor Life Extension Foundation)’의 시술을 통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br/>사망 후 뇌 조직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술이 필요한 만큼, 킴은 알코 라이프 익스텐션과 가까운 곳에 머물며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끝내 2013년 봄 어느 이른 새벽, 조쉬는 알코 라이프 익스텐션 비상대기팀에 킴의 생명이 다해간다는 다급한 전화를 걸었고 수분 만에 도착한 의료진은 킴의 사망을 확인하자마자 계획된 절차대로 정신적인 영생을 위한 단계들을 밟아갔다. 혈액순환이 멈춰 뇌 조직이 급격히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피를 돌리는 작업을 하고, 부종이 진행되지 않도록 약물이 투여됐다. 새벽 5시 즈음 사망한 킴의 시신은 정오가 되기 전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처리가 끝났다. 정신을 담은 뇌는 질소가스용액으로 이뤄진 냉동고로, 마지막 호흡을 끝으로 생명의 온기가 사라진 몸은 흙으로 향했다.<br/><br/>머지않은 미래, 정신의 영생은 눈앞에<br/>킴의 희망은 사실 현재로썬 과학이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span class='quot0'>현대과학만으로 인간의 뇌를 영구보존하고, 여기서 커넥톰을 완벽히 분석해 스캔하기까지는 수백억달러의 자금과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span>”고 전했다. 만일 뇌의 정보를 모두 보존하고, 이를 디지털로 복원하더라도 과연 여기에 인간의 지적 능력과 자아가 온전히 남아있을 것이란 뚜렷한 보장이 없다는 점도 난제이다.<br/>우선 뇌를 냉동하는 데 있어 난관이 적지 않다. 인간의 뇌는 수천억개의 뇌세포와 이것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들로 이뤄져 지적 능력을 발현하는 복합체이다. 만일 이렇듯 복잡한 뇌 조직에 피나 수분이 한 방울이라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냉동 처리될 경우 이후 얼음결정이 조직을 파괴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도 있다. 또한 현대 과학은 뇌의 어떤 부분이 각각의 지적 능력을 담당하는지 완벽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냉동과정 중 손실되는 조직이 정확히 무엇을 잃게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br/>하지만 과학자들은 기술의 진보가 한 순간도 속도를 줄이고 있지 않는 만큼, 정신의 영생이 현실화되는 시대는 멀지 않다고 장담한다. 독일 뇌생물학연구기관인 막스 플랑크(Max Planck)의 책임 연구원 빈프리드 덴크는 “<span class='quot1'>40년 정도면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정확히 복제해 디지털로 구현하는 기술과 도구를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span>”라며 “<span class='quot1'>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희망이나 전망이 아니다</span>”고 밝혔다. 2009년 최초로 토끼의 뇌조직을 냉동해 뇌세포간 전달내용을 전기적 신호로 바꿨던 그레그 페이 21세기 메디슨 연구소 책임과학자는 최근 돼지의 뇌에 대해서도 같은 연구에 성공, 학술지 ‘네이처 메소드(The journal Nature Methods)’에 관련 논문이 실렸다. <br/>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93.txt

제목: 용서…망각…기억… 지독한 상처의 종착지는  
날짜: 201509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2300788  
본문: 기억 공유 안 되는 노부부 통해 망각의 효용과 기억의 고통 대비<br/>개인·국가 향해서도 정체성 질문…유고 내전과 르완다 학살에서 영감<br/><br/> <br/> 도깨비가 암약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용의 입김이 안개가 돼 평원을 뒤덮은 고대 잉글랜드를 배경으로 용을 무찌르려는 전사가 나오고, 전사들의 결투와 도깨비에 물려 환각증세를 보이는 소년이 나온다. 그러나 판타지 소설의 외피를 띤 이 픽션이 하나의 우화일 것이라는 짐작은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작가의 이름이 불러 일으키는 필연적 연상작용이다. 이 우화가 의미하는 원관념을 파악하려 탐침을 곧추 세우고 읽다 보면, 어떤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하든 상실의 슬픔으로 귀결되는 그의 일관된 정조에 이내 감염된다. <br/> ‘남아 있는 나날’로 1989년 부커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일본계 영국작가 이시구로는 30년 넘는 작가 생활 동안 단 여섯 권의 장편과 한 권의 단편집을 펴냈다. 탐정물과 공상과학소설 등 장르를 종횡무진하며 형식적 변주를 펼쳐왔지만, 서사보다 인물의 내면 풍경이 승한 소설들을 써왔다. 그가 10년 만에 펴낸 신작으로 올 봄 영미 문학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파묻힌 거인’은 망각의 안개로 자욱한 판타지의 공간 속에 슬픔으로 흥건한 질문 하나를 공명시킨다. “<span class='quot0'>함께 나눈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서로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span>” 망각의 효용과 기억의 고통을 대비시키며 개인과 사회, 가족과 국가를 향해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묻는 소설이다.<br/> 액슬과 비어트리스는 한시도 떨어지지 못할 만큼 사랑이 깊은 브리튼족 노부부. 암용 케리그가 내뿜는 안개로 인해 기억을 잃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어느 봄날, 날카로운 기억의 편린이 액슬을 할퀸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었다’는 희미한 기억. 저 먼 어느 마을에서 사는 아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비밀스런 결심은 언젠가 아내가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자신이 끝내 반대했던 것이었다. <br/><br/><br/> 노구를 이끌고 위험한 여정에 나선 부부는 폭풍우를 피하러 들어간 어느 폐가에서 뱃사공 남자를 만난다. 그가 사람들을 날라다 주는 일을 했던 섬은 수백 명이 살고 있지만, 서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 다들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곳이다. 한번에 한 사람밖에 데려다 줄 수 없는 그 섬에 가기 위해서는 뱃사공이 묻는 질문에 각기 똑같은 대답을 내놔야 한다. 둘 사이에 가장 소중한 기억을 뱃사공 앞에 제시해야만 강한 사랑의 유대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섬으로 건너갈 배를 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결코 헤어질 수 없으나 지난 일이 기억나지 않는 노부부의 내면에 불안이 엄습한다. <br/> 소설은 노부부의 여정에 색슨족과 브리튼족의 살육전쟁, 헌신했던 이민족 전사에 대한 차별과 배척, 배신과 음모, 복수와 전쟁 등 다양한 모험서사를 삽입해 기억과 망각이라는 작품의 주제 반경을 넓힌다. 색슨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헌신과 용맹을 무참히 짓밟힌 후 브리튼족을 배신하게 되는 전사 위스턴, 아서왕의 조카로 브리튼족의 영예를 위해 망각의 용을 지키려는 기사 가웨인 경, 용에 물린 상처의 냄새로 용을 불러들이는 미끼가 됐지만 실은 빼앗긴 엄마를 찾기 위해 술수를 부리고 있는 소년 에드윈. 각각의 인물들은 판타지의 스펙터클을 구현함과 동시에 기억이냐 망각이냐의 서사적 혈투를 벌인다. <br/> 겁에 질린 아련한 말투로 신비와 슬픔을 자아내는 인물들의 대사는 이 소설의 백미다. 마지막 챕터를 읽기 위한 소설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반전의 세기가 큰 이 작품은 그토록 사랑함에도 상처와 아픔으로 점철된 관계에 대해 오래 생각하도록 만든다. 용서할 수 없다면 망각해야 하는가, 기억하는 한 용서할 수 없는가. 마침내 뱃사공의 질문 앞에 선 노부부에게 생살점이 떨어져나갔던 자리가 선명한 상흔을 드러낸다. 함께 저 섬에 갈 수 있을까. <br/> “잘못된 일이 그냥 잊힌 채 벌받지 않기를 바라는 신은 어떤 신인가요? … 학살과 마법사의 술수 위에 세워진 평화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젊은 전사 위스턴의 입을 빌어 소설이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은 비단 사랑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작가는 미국공영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유고 내전과 르완다 대학살에서 소설의 영감을 얻었다</span>”고 밝힌 바 있다. <br/><br/><br/> 박선영기자 aurevoir@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94.txt

제목: 고혈압·당뇨 환자 보험 가입 쉬워진다  
날짜: 201509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2129546  
본문: 만성질환자 가입요건 완화<br/> <br/> 앞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도 더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암이나 사망은 물론 다른 질병에 대한 입원과 수술 등으로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가입 가능 나이도 기존 60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br/>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1,183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보장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현실을 반영했다. 실제로 보험사 25곳에서 유병자 전용보험을 팔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장범위가 암과 사망으로 제한돼 있어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br/> 금감원은 우선 유병자 전용보험의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줄이고, 입원·수술 고지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는 면제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도 75세 이상까지로 늘어난다. <br/>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암이나 사망만 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론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은 물론 입원과 수술 등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br/>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span class='quot0'>유병자 전용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1.5~2배 가량 비싼 만큼 보험사가 건강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병자 전용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span>”고 말했다.<br/>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95.txt

제목: '슈퍼스타K' 역대 우승자 히스토리  
날짜: 201509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2045602  
본문: 2009년 10월 9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CGV아트홀. 500여 관객이 한 사람을 향해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다. 박수의 주인공은 사회 유명인사도, 연예계 톱스타도 아닌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72만대 1을 뚫은 이날의 주인공은 7개월간의 노력이 생각난 듯 왈칵 눈물을 쏟았다. 대학생 서인국이 스타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br/> 서인국을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이하 '슈스케')가 시즌 7을 맞았다. 그동안 MBC '위대한 탄생', Mnet '보이스코리아', SBS 'K팝스타' 등 오디션 프로그램이 세분화되면서 인기도 잠시 주춤했지만,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대중에게 처음 절감하게 했던 슈스케가 국내 오디션의 간판이라는 걸 부인할 순 없다. 시즌6부터 새롭게 정비된 모습으로 다시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청률 10%의 명성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br/> 역대 '슈스케' 우승자들의 오디션 비하인드 스토리와 데뷔 후 행적을 정리했다. 짜릿한 인생역전의 순간을 되돌아보고 시즌 7의 우승자를 추측해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겠는가. <br/> <br/> 시즌 1. 서인국, 연기 잘하는 가수로<br/><br/> '슈스케' 최초의 우승자 서인국은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기대를 샀다. 그는 파이널 무대 심사위원 점수에서 라이벌 조문근에게 뒤쳐졌으나 시청자 투표에서 선방해 역전승을 거뒀다. 그는 상금 1억원으로 뭘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용역 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폐휴지를 모으시는 어머니께 김치찌개 가게를 차려드리고 싶다"고 소박한 계획을 전했다.<br/> 가수로 활동하던 서인국은 2011년 드라마 '사랑비'를 통해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이후 tvN '응답하라 1997'(2012), '고교처세왕'(2014) 등에서 특출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배우로 거듭났다. 지난해 KBS연기대상에서 '왕의 얼굴'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br/> https://youtu.be/5srgAhN7rYU<br/><br/> <br/> 시즌 2. '한국의 폴포츠' 허각, 서민의 롤모델 되다<br/><br/> 163㎝의 작은 키에 평범한 외모, 어려운 가정 형편까지. 허각은 곤궁한 자신의 처지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환풍기 설치 보조기사인 허각이 지원자 134만명을 뚫고 승자가 되는 장면은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br/> 허각은 보상으로 상금 2억원과 자동차 1대, 앨범 제작의 기회를 얻었다. 그야말로 폴포츠를 연상케 하는 인생역전의 주인공이 됐다. 허각의 감동 스토리에 힘입어 시즌 2는 시청률 10%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br/> 이후 그는 방송활동을 최소화하면서 음악 활동에 집중했다. '헬로(Hello)' '4월의 눈' '동네술집' 등을 음원차트 상위권에 올리며 정상급 가수로 자리잡았다. 2013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아내가 둘째를 가졌다"고 고백한 바 있다. <br/> https://youtu.be/SSgYU7wjlQs<br/><br/> <br/> 시즌 3. 임윤택의 투혼, 울라라세션에 우승을 안기다<br/><br/> 시즌3에서는 그룹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특히 울랄라세션은 아마추어답지 않은 무대로 일찌감치 우승 후보로 거론됐다. 이들은 장르적 스펙트럼과 완성된 실력을 인정받아 버스커버스커를 누르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br/> 울라라세션의 우승이 더욱 극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당시 위암 말기로 투병 중이던 고(故)임윤택 때문이다. 부쩍 마른 임윤택은 우승 발표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멤버들은 달랐다. 멤버 박광선은 "윤택이형이 목숨을 걸고 이 대회에 나왔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다"며 눈물의 소감을 남겼다.<br/> 임윤택은 투병 중에도 결혼식을 올리고 독립기획사 울랄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삶에 최선을 다해 암 환자들에게 귀감이 됐다. 2013년 2월 그는 가족과 멤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울랄라세션은 제 5의 멤버 군조와 함께 4인 체제로 활동 중이다. <br/> https://youtu.be/d4K73Sm-hNw<br/><br/> <br/> 시즌 4. '엄친아' 로이킴의 통 큰 기부<br/><br/> 로이킴은 준수한 외모와 '금수저' 스펙으로 예선부터 여성 팬을 확보했다. 그의 부친은 막걸리 업계 선두 브랜드 장수막걸리를 만든 서울탁주제조협회 김홍택 회장이다. 여유있는 집안환경의 영향일까. 로이킴은 자신의 프로필에 우승상금을 전액 기부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br/> 시즌 4 결승에서 로이킴은 밴드 딕펑스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생방송 무대에서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점수 합계 60% 비율을 차지하는 대국민 문자투표에서 희비가 갈렸다. <br/> 2013년 로이킴은 상금 5억원 중 음반 제작비 2억원을 제외한 3억원을 모두 기부했다. 현재'봄봄봄' 'Love Love Love' 등 히트곡을 뽑아내며 싱어송라이터로 활동 중이다. <br/> https://youtu.be/aw--sXaLMfE<br/> <br/> 시즌 5. '비운의 우승자' 박재정의 새로운 시작<br/><br/> 시즌 5 결승전은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며 씁쓸하게 막을 내렸다. 박재정은 치명적인 가사 실수에도 박시환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여론을 의식한 듯 "가사 실수를 했지만 조금 더 성장해서 돌아오겠다. 여태까지 내 목소리를 들어줘서 고맙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재정은 19살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자의 타이틀을 안았지만 별다른 화제가 되지 못한 채 비운의 우승자로 남았다. <br/> 하지만 심사위원 윤종신은 박재정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듯하다. 지난 7월 박재정은 윤종신의 소속사 미스틱에 둥지를 틀었다. 지난달 11일 그는 '미스틱 오픈런' 공연으로 미스틱에서의 첫 공식 행사를 마쳤다.<br/> https://youtu.be/Zueqnv8nVrU<br/> <br/> 시즌 6. '차세대 싱어송라이터' 곽진언, 담백한 감성도 통했다<br/><br/> 거창한 기교없이 통기타와 목소리만으로 채워진 무대였다. 시원한 고음, 화려한 퍼포먼스 등 기존의 우승 공식을 깨고 차분한 감성의 곽진언이 승자로 남았다. 그는 자작곡 '자랑'으로 파이널 무대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97점을 준 김범수를 제외한 세 심사위원(백지영 윤종신 이승철)이 모두 99점을 줬다. "풀반주가 안 나오고 통기타로 처음부터 끝까지 생방송으로 가는 무대가 있을 수 있을까 싶었다"(윤종신) "목소리가 너무 환상적이다. 끝까지 행복하게 해줘서 감사드린다" (이승철) 등의 극찬이 쏟아졌다. <br/> 곽진언은 지난 2월 소속사 뮤직팜과 계약한 후 아직까지 공식 데뷔앨범을 내지 않고 있다. 이슈 흐름에 따라 빠르게 앨범을 발매한 기존 우승자와는 다른 행보다. 직접 곡을 만드는 만큼 신중하게 앨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https://youtu.be/mIkzS3wu6ew<br/> <br/> 시즌 7 승자는 누가 될까. 일각에서 여자 우승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보이시한 매력의 김민서 이지희, 독특한 그루브의 박수진이 화제인물로 떠올랐다. <br/> 하지만 늘 의외의 복병은 숨어있다. 지금은 '음원좀비'(매년 같은 곡으로 음원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가수에게 붙이는 별칭. 인터넷 신조어)가 된 버스커버스커는 시즌 3에서 생방송 직전 탈락했다가 추가 합격해 결승까지 올라갔다. 시즌 4 우승자 로이킴은 예선 탈락 위기에서 슈퍼패스의 혜택을 보기도 했다. 운명의 장난을 좋아하는 '슈스케' 제작진이 이번엔 어떤 드라마를 펼칠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 <br/> <br/> 이소라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96.txt

제목: 갑작스럽게 소변에 빨갛게 피가 섞여 나오는데 병원에 꼭 가야 할까요?  
날짜: 201509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1755477  
본문: 갑작스럽게 소변에 빨갛게 피가 섞여 나오는데 병원에 꼭 가야 할까요?<br/> <br/> <br/>정답부터 말씀 드리자면 절대 참으시지 마시고 비뇨기과를 찾으셔야 합니다.<br/> <br/>제가 예전에 소변검사에 피가 나오는 상황을 질문 주신 분이 있어 큰 걱정은 하시지 마시도록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사에서 확인되는 것과 육안으로 피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br/> <br/> 제가 이렇게 병원을 찾으시도록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방광암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피가 나올 수 있는 질환은 크게 염증과 결석 그리고 암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염증과 결석은 대부분 그로 인한 배뇨통·빈뇨·옆구리 통증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br/> <br/>하지만 방광암인 경우에는 통증이 없고 간헐적으로 피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일단 처음엔 소변에 피가 나와 놀라서 병원에 가려다가도 피가 멎으면 잊어버리는 분 들이 가끔 계십니다.<br/> <br/>이런 분 중엔 결과적으로 진짜 방광암이 있는 상태를 방치해서 병을 키워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비뇨기과 의사로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br/> <br/> 일단 방광암이 의심되면 방광 내시경으로 방광을 들여다 보게 됩니다.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방광내부를 보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기분이 매우 안 좋은 검사이지만 꼭 하셔야 하는 검사입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방광내시경 기구가 직선으로 만들어진 금속기구를 사용하는 바람에 환자분들이 통증까지 아주 심하게 호소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요도의 길을 따라 구부러지는 부드러운 내시경이 도입되어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br/> <br/>방광암도 모든 암이 그렇듯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 암입니다. 방광암의 조기 진단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조기 암과 그렇지 않은 암은 수술의 방법이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기 암인 경우에는 방광내시경 기구를 이용한 간단한 수술만으로 암이 완전히 제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술은 내시경으로 방광 내부만 수술하므로 몸 밖에는 수술 흉터 조차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개복하여 방광을 완전히 들어내고 장을 이용해서 사라진 방광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고 때로는 소변을 모으는 주머니를 배에 차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br/> <br/> 이전보다 검사 방법이 매우 편해졌고,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간단한 치료로 합병증 없이 지낼 수 있는 병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방광암이라 단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은 검사를 꼭 해야 할 상황 입니다. <br/> <br/>이영훈 원장은 비뇨기과 전문의로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97.txt

제목: 64마리 키울 자신 있나요  
날짜: 201509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1646072  
본문: “제가 밥 주는 길냥이가 임신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후배가 집 주변에 사는 길고양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고 항의하는 주민과 불화도 있다고 했다. 길고양이들의 생존율이 낮고, 1년에 여러 번 임신을 하는 암컷 고양이의 삶이 고단하다는 것은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주변에 물어보니 먼저 암컷 고양이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함께 다니는 수컷 고양이까지 포획해 중성화수술(TNR)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br/>암컷 고양이는 임신 중이었다. 더구나 ‘터키시앙고라’라는 이른바 품종묘였다. 애교가 많아 아무래도 집에서 길렀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수컷 고양이는 수술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암컷 고양이었다.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은 “출산을 해도 집고양이 출신 암컷과 새끼들의 생존율은 낮다. 수술을 한 후 어미 고양이는 입양을 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 다행히도 수술을 마친 수컷은 방사 이후에도 후배의 밥을 먹으러 들렀고, 어미 고양이 역시 새 가정을 찾았다. <br/>고양이 부부는 헤어졌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TNR이라는 게 보통 정성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느꼈다.<br/>사람들은 길고양이들이 매우 사납고 사람을 경계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시달린 결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 것 같다. 밥을 챙겨주는 캣맘, 캣대디에게는 목소리만 듣고도 달려오며 벌러덩 누워 뒹굴뒹굴 구르기도 하고 쥐를 잡아 고이 선물 하기도 한다.<br/>길고양이의 매력에 빠진 이들은 캣맘, 캣대디가 되지만 정작 TNR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필요성을 몰라서일 수도 있고, 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밥만 주는 것은 오히려 못 본 척 지나친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고양이를 예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무심코 밥만 챙겨준다면 주변에 몰려든다는 이유로 고양이가 오히려 사람의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 실제 서울 마포 일대에 길고양이들이 독극물을 먹고 잇따라 희생됐다. 더욱이 해당 지역에 고양이 수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생존 경쟁은 치열해지고 결국 도태된 고양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복잡한 과정이 없어도 길고양이들은 로드킬, 추위, 배고픔 등으로 평균 2, 3년밖에 못살고 죽는다.<br/>길고양이나 집고양이나 ‘그냥 놔두는 것,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일본의 러시아어 동시통역가 요네하라 마리가 쓴 ‘인간 수컷은 필요 없어’에는 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대화가 나온다. “좀 가여운데요, 조금은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할까…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요네하라) “암수가 1년에 2, 3차례, 4~6마리씩 낳겠죠. 태어난 새끼들이 또 낳으면 1년 후에는 대략 64마리 정도 될까요. 그 정도 키울 각오가 있으면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수의사)<br/>계절이 가을로 접어들었다. 길고양이들의 발정기도 본격 시작된다. 더 지나 겨울이 오면 길고양이들은 마실 물도 얼어버리고 추위도 견뎌야 하는 시련의 시간을 맞는다. 주변에 밥 챙겨주는 길고양이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TNR에 참여하면 어떨까.<br/>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98.txt

제목: 재능교육 해고자 2822일 만에 복직  
날짜: 2015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1130776  
본문: 학습지 교사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8년 가까이 거리농성을 벌여온 재능교육 해고노동자들이 2,822일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br/>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는 재능교육 해고노동자인 유명자씨와 박경선씨가 11일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본사에서 복직 합의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해고자 2명 복직 ▦급여를 삭감하는 ‘마이너스 월 순증수수료’ 조항 삭제 ▦하절기 휴가비 지급 ▦육아와 부상 등의 휴업 사유 확대 등에 합의했다. <br/> 재능교육 노조는 2007년 12월 21일 회사가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임금을 대폭 삭감하자 단협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사측은 이듬해 학습지 교사는 법적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며 노조 소속 교사 12명을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1월 노조원인 이지현 교사가 암 투병 중 사망하기도 했다. <br/> 노조는 긴 투쟁과 202일간 고공농성 끝에 2013년 8월 회사와 9명 복직에 합의했다. 그러나 유씨와 박씨는 노사 합의안이 부실하다며 거부해 복직되지 않았다. <br/> 유씨는 “오랜 투쟁으로 과연 끝이 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지만 원만히 해결돼 다행스럽다”며 “장기간 거리 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돼 약간의 휴식을 가진 뒤 복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599.txt

제목: "매일 운동 하듯이 접촉하라" 장수섬 伊사르데냐의 교훈  
날짜: 2015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1129732  
본문: 의료 혜택 등 열악한 환경에도<br/>건강하고 행복한 비결 '마을 효과'<br/>일상이 가족·이웃들과 빵 굽고 수다<br/>100세 노인이 말하는 오래 사는 이유<br/>"모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지"<br/><br/><br/> <br/> 이탈리아의 사르데냐섬은 장수촌으로 유명하다. 주민들은 의료 혜택조차 열악한 환경에서 거칠고 힘들게 살지만 다른 지역 사람보다 20~30년 이상 장수하며, 100세 이상 노인 숫자는 지구의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여섯 배 이상 많다. 그 비결이 뭘까.<br/> ‘빌리지 이펙트’를 쓴 발달심리학자 수전 핀커는 일상 생활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얼굴을 마주하는 ‘친밀한 접촉’에서 답을 찾는다. 그 바탕에는 끈끈한 가족애와 공동체 정신이 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주말마다 이웃 친지들과 함께 모여 빵을 굽고, 광장에 모여 수다를 떤다. 나이든 어른을 모시는 것을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여기고, 자녀들은 성장한 뒤에도 가족과 친지들 가까이 살면서 깊은 정을 나눈다. 덕분에 노인은 행복하게 장수한다. 바로 ‘빌리지 이펙트’ 곧 ‘마을 효과’다. 오래 사는 기분을 묻자 100세 테레사 할머니가 들려준 대답에서 이를 실감할 수 있다. “모두 하느님 뜻”이라고 이웃 주민이 끼어들자 할머니는 “<span class='quot0'>아니, 그건 사람들이 모두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span>”라고 바로잡았다. <br/> “인간은 사회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추위와 가난을 느끼게 될 것이다.” 미국 사상가 겸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이 한 이 말을 요즘 세상으로 옮겨보자. 디지털 네트워크를 타고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촘촘히 연결된 지금, 우리는 덜 춥고 덜 가난한가. 페이스북 친구가 많으면 더 행복한가. <br/> <br/><br/><br/>저자는 아니라고 말한다. 디지털 접속이 증가하는 만큼 얕고 넓은 소통의 한계가 뚜렷하다.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 관계를 위해서는 얼굴을 마주하며 깊이 교류하는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긴밀한 사회적 유대가 건강, 장수, 행복, 인지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신 연구 성과와 사례를 동원해 차근차근 짚어간다. 식탁에서 식구들과 농담을 주고 받거나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행복을 일구는 요소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br/> 사회적 유대관계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인지 능력, 질병에 대한 면역력까지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증례가 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사회적 접촉을 즐기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외토리보다 평균 수명이 15년 이상 길다. 가볍게 끌어안고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신체 면역력이 올라간다. 여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 친구를 많이 만나는 사람의 완치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네 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br/><br/><br/><br/> 왜 그런지는 신경생리학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긍정적인 사회적 접촉이 일어나면 인체는 일종의 마약 성분을 만들어낸다. 이 성분은 진통제 역할을 하며, 때로는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같은 호르몬으로 바뀌어 스트레스 요인을 약화시킨다. 반면 고립되어 지내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고 암 사망률도 높다는 보고가 있다. 저자는 사회적 접촉을 꺼리는 내향적 사람에게도 사회 생활은 ‘예방 주사’역할을 할 수 있다며, 매일 운동을 하듯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며 관계를 만들어가라고 조언한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가족, 친구, 이웃과 어울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다. <br/> 오미환 선임기자 mhoh@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00.txt

제목: 말기암 환자를 100억대 지주로 둔갑시켜 대출사기 벌이려던 일당 검거  
날짜: 201509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1058803  
본문: 말기 암환자 명의로 100억원대 땅 주인 행세를 하며 대출을 받으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br/> 서울 강남경찰서는 땅 주인 몰래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박모(58)씨와 황모(53)씨를 구속하고 간암 말기환자인 또 다른 박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br/>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등기에 땅 주인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는 땅만 골라 일당 중 한 명이 땅 주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 자신들이 땅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에 토지를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으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br/>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984년 7월 이전에는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을 악용해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땅을 물색해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경기 화성시의 공시지가 기준 100억원대에 이르는 15만㎡ 규모 토지를 발견해 땅 주인과 성이 같은 간암 말기 환자 박씨를 찾았다. 박씨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이들에게 억대 사례금을 약속 받고 지난해 8월 땅 주인의 이름으로 개명했다. <br/>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위조까지 마친 이들은 6월 29일 제2금융권인 캐피탈 회사에 땅을 담보로 40억원대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주민등록초본 발급 날짜가 계약 당일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미리 알지 못해 계약은 불발됐다.<br/> 이후 이들은 또 다른 70대 노인을 섭외해 같은 수법으로 경기 안양시의 한 은행에서 대출 사기 범행을 벌이려고 했지만, 이 노인이 약속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다시금 범행을 실패했다.<br/> 경찰은 지난 2일 세 번째 대출 사기를 시도하려던 박씨 등을 잠복 끝에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일당에게 지시를 내린 총책 ‘황사장’의 뒤를 쫓는 한편 또 다른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01.txt

제목: 갑상선암 요양병원 방류수서 기준치 3600배 방사능 검출  
날짜: 201509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0925436  
본문: 서울 소재 갑상선암 요양병원의 방류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3,600배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br/> 10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갑상선암 의료기관 방류수의 방사능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6월 서울 서대문구ㆍ강남구ㆍ강북구 등에 위치한 세 요양병원에서 나온 방류수가 모두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br/> 서대문구 A의원에서 나온 방류수의 방사성 요오드 농도는 1리터당 1,100~2,790㏃, 강남구 B의원은 1,710~10만8,000㏃, 강북구 C의원은 2,780~1만7,300㏃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진료환자 배설물 배출기준은 1리터당 30㏃로, 강남구 B의원의 경우 기준치의 최대 3,600배에 이르는 것이다.<br/>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와 갑상선암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되며,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갑상선암 요양 의료기관은 갑상선 암 환자가 방사능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하는 곳으로, 해당 환자는 일정 기간 상당한 농도의 방사성요오드를 배출한다. 하지만 갑상선암 요양기관은 직접 방사성물질을 다루지는 않아 진료병원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장하나 의원은 “<span class='quot0'>요양 기관의 하수를 담당하는 하수처리장 등 공공수역의 방사성 물질 감시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02.txt

제목: 눈물 펑펑 감동 영화 10선  
날짜: 201509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0841910  
본문: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한바탕 눈물을 쏟고 몸도 마음도 개운해진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당신이 아직 안 봤을 것 같지만 IPTV나 다운로드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을만한, 그러나 그 감동만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올 영화 10편을 선정하여 소개합니다.<br/><br/>1.천국의 아이들<br/><br/><br/>1997, 마지드 마지디 감독<br/><br/>아랍권에는 정말 순수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들이 많습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체리향기’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같은 영화들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삶의 교훈을 주긴 하지만 사실 살짝 지루하기도 하죠. 하지만 ‘천국의 아이들’은 지루하지 않고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들을 보고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스크린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br/><br/>아이들의 순수하고 착한 모습에 마음이 정화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마지막 마라톤대회 장면에서는 당신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주인공을 응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에요. <br/><br/>2. 사토라레<br/><br/><br/>2003, 모토히로카츠유키 감독<br/><br/>한창 일본영화붐이 일었을 때 들어왔던 일본의 전형적인 오락영화 중 한편입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뜻밖으로 강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생중계되는 주인공과 할머니의 관계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흐를 겁니다. 우리나라의 히트작 ‘집으로’처럼 손자에 대한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br/> <br/><br/>3. 맨발의 꿈 <br/><br/><br/>2010, 김태균 감독<br/><br/>제목과 짧은 스토리만으로 굉장히 뻔한 내용의 코미디 영화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연스러운 연기, 아름다운 음악, 재미있는 스토리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섞여 있어 재밌으면서도 감동적인 영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br/><br/>배우가 아닌 현지 아이들이 직접 펼치는 연기는 웬만한 배우들의 연기보다 훨씬 진정성 있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말에 영화를 보고 나서 실제 주인공들을 인터넷에 꼭 한 번씩 검색하게 되는 마법의 영화입니다.<br/><br/> <br/><br/>4.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br/><br/><br/>2008, 마크허만 감독<br/><br/>유대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은 매우 많지만 아이, 그것도 독일인 장교의 아들이 주인공인 영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용소 관리인의 아들과 수용되어있는 유대인의 순수한 우정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생각보다 충격적인 결말에 엔딩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멍하게 앉아있게 되는 슬프면서도 충격적인 영화입니다.<br/><br/> <br/><br/><br/>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br/><br/><br/><br/>2011, 민규동 감독<br/><br/>2013년 고3 모의고사 지문에 등장해 학생들이 시험을 치다가 눈물을 적셨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나문희 주연의 드라마로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 영화로 다시 태어났죠.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죽이려 하는 장면은 처절한 감동을 부릅니다.<br/><br/>평소에 서로에게 무신경하던 가족들이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가 관객의 마음을 무섭도록 후벼 팝니다.<br/><br/> <br/><br/><br/>6. 크로싱<br/><br/><br/>2008, 김태균 감독<br/><br/>북한 노동자와 그의 아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별하게 되고, 서로를 찾기 위해 8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br/><br/>북한의 모습이 꽤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 진짜로 북한에서 찍은 것이 아닌가 싶은 정도의 느낌을 주죠. 남한으로 전향한 북한 실향민의 모습들도 매우 현실적입니다. 예수는 남조선에만 있느냐고 울부짖는 차인표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어느새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br/><br/> <br/><br/>7. 블랙<br/><br/><br/>2009, 산제이 릴라 반살리 감독<br/><br/>인도영화 중에는 생각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세 시간이 넘는 상영시간에 중간중간에 노래와 춤이 들어가는 영화가 대부분이라 선입견을 품기 마련이지만, 그와 달리 정극으로 승부하는 영화들도 있는데 ‘블랙’이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br/><br/>헬렌 켈러를 떠올리게 하는 장애를 가진 여자아이와 그 가정교사로 일하게 된 선생님의 이야기죠. 촬영과 연기가 영화의 8할 이상을 책임지며 관객을 영화에 쏙 빠져들게 합니다. “<span class='quot0'>네 세상은 블랙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하다</span>”는 선생님의 대사가 보는 이에게 꽤 묵직한 희망을 던져줍니다.<br/><br/> <br/><br/>8. 아홉살 인생<br/><br/><br/><br/><br/>2004, 윤인호 감독<br/><br/>이게 연기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아홉 살 영화입니다. 사실 눈물을 펑펑 쏟을 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신들린듯한 연기를 하는 아이들과 꽤 재미있는 줄거리덕에 끝까지 굉장히 몰입하게 됩니다.<br/><br/>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치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보다 진지했던 아홉 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음직 한 풋사랑을 매우 사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싸움을 말리니까 “내가 한 대 더 맞았단 말이야” 하는 대사는 저절로 웃음을 자아냅니다.<br/> <br/><br/>9. 오세암<br/><br/><br/><br/><br/>2003, 성백엽 감독<br/><br/>‘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아이’라는 매우 뻔한 내용이지만, 눈물폭탄의 세기로는 10편의 영화 중 가장 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을 듯한 느낌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개봉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극찬이 쏟아졌지만 결국 한국영화배급시스템에서는 1주일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br/><br/>옛날 ‘하얀 마음 백구’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성백엽 감독이 온 힘을 다해 확실한 한국형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포털 댓글에 ‘중학교 때 교실에서 보다가 울다가 뛰쳐 나갔음ㅠㅠ’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영화를 보면 왜 울다가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죠. 100이면 100 모두가 울게 되는 그런 신기한 애니메이션입니다.<br/> <br/><br/>10. 자전거 도둑<br/><br/><br/>1948,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br/><br/>1948년 당시 이탈리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빵 하나를 사 먹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고된 일을 해야 했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었죠. 영화의 역사를 배우면 꼭 배우게 되는 ‘네오리얼리즘’의 대표작으로, 이런 이탈리아의 비극적인 상황을 전문배우가 아닌 보통사람을 주인공으로 그려냈습니다.<br/><br/>‘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고 했던 노래 가사처럼, 자신은 끼니를 거를지언정 아들에게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과 그러기 위해서 도둑질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뼈저리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전거를 훔치다가 걸려 사람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이 보게 되는 장면과 아들과 함께 걸으며 아들 몰래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뇌리에서 잊히지 않을 겁니다.<br/><br/><br/>쉐어하우스(필자 티몬) 제공 ▶ 원문보기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03.txt

제목: 평창강 휘감고 날아 수억년 비밀의 시공간으로  
날짜: 201509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0612320  
본문: ‘해피(happy)700’이라지만 평창 땅이 고루 높은 것은 아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대관령면, 오대산과 월정사를 끼고 있는 진부면이 대표적인 고지대에 속하고 실제 평창군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일찍부터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덕이 컸다. 정작 군청소재지인 평창읍은 평창에서도 소외된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평창읍과 미탄면 등 평창군 남부지역으로 하늘과 강, 땅속 여행을 떠났다.<br/><br/><br/>▦장암푸르나에서 평창의 가을 하늘로<br/>“<span class='quot0'>자 뛰세요 뛰세요, 달려요 달려!</span>” 조종사의 다급한 명령이 발걸음보다 빠르다. 벼랑 끝을 향해 약 10m 전력 질주한다. 낭떠러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몸은 어느새 허공으로 떠올랐다. ‘바람 한 점 없는 이런 날도 패러글라이딩이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은 기우였다. 귓전을 울리는 바람소리가 의외로 크다.“엉덩이 끌어 당기세요.” 안전 복장에 거북이 등처럼 붙어있던 장치의 실체를 그제서야 알아차렸다. 글라이더에 팽팽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의자다. 잠깐의 두려움도 발아래 펼쳐지는 장쾌한 풍광에 바람처럼 사라졌다. 평창읍내를 휘감은 평창강 물줄기와 조금씩 누런빛을 더해가는 들판이 이미 가을 색이다. 주위는 온통 높은 산에 둘러 싸였는데 노성산 자락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읍내는 군청소재지답지 않게 소담스럽다. 창공을 선회하는 동안 서서히 고도가 낮아지고 착륙지점이 가까워져 아쉬움이 커질 즈음, 온몸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허공에서 몇 차례 좌우로 요동친다. 두려움과는 또 다른 짜릿함이 머리끝까지 전해진다. 지그재그 비행은 초심자들을 위한 고객서비스다. <br/>평창읍내 동편의 장암산은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에게 늘 사랑 받는 곳이다. 평창강에서 거의 수직으로 솟은 절벽을 타고 오르는 열기가 패러글라이딩에 더없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활공장은 정상 부근 해발 750m 지점이고, 착륙장은 바로 아래 해발 300m 지점이다. 몇 가지 안전 수칙만 지키면 초보자도 쉽게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점프하지 말고 벼랑 끝까지 달릴 것, 임의로 이륙했다고 판단해 주저앉지 말 것, 무서우면 앉지 말고 제자리에 멈출 것’ 등 이륙할 때 몇 가지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조종사가 컨트롤한다. 이륙한 후부터는 창공을 나는 기분을 마음껏 즐기기만 하면 된다. 체공시간은 약10분, 열기의 조건이 좋을 때는 2,800~3,200m 높이까지 날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1,600~2,000m 사이까지 오른다. <br/> “<span class='quot0'>바람을 타기에는 문경이 좋고 경치로는 단양이 그만인데, 장암산은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span>”는 것이 조나단 패러글라이딩 학교(hp700.com) 김동술 학교장의 평가다. 그래서 마니아들 사이에선 안나푸르나에 빗대 ‘장암푸르나’로 통한다.<br/>https://youtu.be/NLa63hT-LqE<br/><br/> ▦시간조차 멈춘 자연 동굴의 원형, 백룡동굴<br/>“자 수그리세요, 수그려. 미리 일어서면 다쳐요” 조명등을 비추는 동굴해설사 이행자씨의 주의는 탐사 내내 이어졌다. 평창 미탄면 백룡동굴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관광동굴이 아니다. 동굴 안 탐방로에는 최소한의 안전시설물만 설치했다. 신비감을 강조하기 위한 빛 고운 조명은 고사하고, 희미한 불빛 하나 없다. 오로지 헤드랜턴과 해설사가 추가로 들고 있는 조명등 하나만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그래서 관광보다는 탐사에 가깝다. <br/><br/>1976년 인근 주민들에 의해 발견된 이후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됐고, 수 차례 학술조사를 거쳐 2010년 생태체험학습장으로 개방됐다. 사람의 발길이 닿은 이상 어느 정도 훼손은 불가피하겠지만 수 억년 자연의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 이정도 불편은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br/>탐사 준비는 매표소를 겸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부터다. 안전을 위해 상하 일체형 ‘동굴복’으로 갈아입고 헤드랜턴이 장착된 헬멧과 장화까지 착용한 후에야 출발이다. “광원복장이라 생각하면 탄 캐는 사람으로 보이고, 소방복이라 생각하면 불 끄는 사람으로 보이겠죠. 저는 우주복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우주인이 되겠죠?” 해설사의 입담에 재치가 넘친다. 동굴까지는 약500m, 작은 도선을 타고 동강을 거슬러 올라야 닿는다. 도선이 다니지 못할 때는 바위절벽에 설치한 데크를 이용한다. <br/>동굴입구는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부착된 철문으로 막혀있다. 들어가기 전 해설사의 당부사항이 다시 한번 이어진다. 동굴내부의 종유석이나 석순은 절대 만지지 말라는 게 우선이다. 손에 붙은 미생물이 동굴생태에 영향을 줘 색이 변하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물방울을 먹는 것도 금지다. 동굴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석회 성분이 많아 뱃속이 굳어질 수도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덧붙인다. <br/>어둠은 공간과 시간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동굴의 신비는 빛에 좌우되고, 그래서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다. 해설사가 조명을 비추는 방향에 따라 종유석 하나가 고드름으로 보이기도 하고 폭포가 되기도 한다. 부처님이 버티고 섰다가 김삿갓으로 변신하고, 신의 손에서 조명이 넓어지면 문득 피아노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달걀부침이고 달리 보면 거대한 영지버섯이다. 갖가지 모양의 종유석과 석순 석주에 해설사의 달변까지 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br/>그 사이에 몇 번은 무릎으로 기어야 하고, 두어 차례는 ‘개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완전 포복도 해야 한다. 그렇게 750m를 들어가면 대형광장을 만난다. 탐방객이 갈 수 있는 끝이다. “<span class='quot0'>자, 이제 모두 랜턴을 끄고 눈을 감으세요</span>” 아이러니하게도 백룡동굴 탐험의 하이라이트는 암흑의 시공간에 있다. “<span class='quot0'>이제 눈을 뜨고 20초간만 침묵해 보겠습니다.</span>” 그랬다. 눈을 떴는데도 보이는 게 없다. 완벽한 어둠이다. 모든 게 정지된 느낌이다. 기온도 항상 12.5℃를 유지하고 있다니 이곳에선 시간의 흐름도 멈춘 것이나 다름없다. 동굴 속을 울리던 해설사의 음성도 이명이 되어 사라질 즈음이었다. “똑! 똑!” 어디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청아하게 들린다. <br/>암흑의 시공간이 좀 더 지속되길 바랐지만 광장 한 구석 흘러내리듯 만들어진 유석에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다. 백룡동굴의 유일한 조명시설이다. 조명은 곧 꺼지지만 잔상은 오래 남는다. 수 억년에 거쳐 만들어진 비밀의 지하세계가 언제까지나 간직되길 바라며 발길을 돌린다. 다시 도선을 타고 매표소로 돌아왔을 땐 2시간 30분이 훌쩍 지나 있었다. <br/>평창=최흥수기자 choisso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04.txt

제목: 이대 의료원, 여성건강백서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 발간  
날짜: 2015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0218552  
본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여성건강백서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를 발간했다.<br/><br/>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344쪽 정가1만6,500원)는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의 삶의 질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중년 이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가꿔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자랑하는 각 분야 전문의 21명이 공동 집필에 참여,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조언을 담았다.<br/> <br/>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지만, 임신 · 출산 · 육아 등 생애 주기에 걸쳐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우울감, 화병 등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등 노년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br/> <br/>이번에 발간한 책에서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해 여성 4대 암부터 골반장기 탈출증이나 폐경·화병 같은 여성들만의 질환을 비롯해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와 섹스 등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와 노안·백내장·관절염·치매·수면건강·임플란트 등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br/> <br/>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는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담았다."면서 "이 책이 믿을 수 있는 여성 전문 건강 도서로, 여성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br/><br/> <br/><br/> <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05.txt

제목: 이대 의료원, 여성건강백서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 발간.  
날짜: 2015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0219694  
본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여성건강백서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를 발간했다.<br/>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344쪽 정가1만6,500원)는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의 삶의 질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중년 이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가꿔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자랑하는 각 분야 전문의 21명이 공동 집필에 참여,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조언을 담았다.<br/> <br/>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지만, 임신 · 출산 · 육아 등 생애 주기에 걸쳐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우울감, 화병 등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등 노년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 이번에 발간한 책에서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해 여성 4대 암부터 골반장기 탈출증이나 폐경·화병 같은 여성들만의 질환을 비롯해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와 섹스 등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와 노안·백내장·관절염·치매·수면건강·임플란트 등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br/> <br/>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는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그 동안 쌓아온 다양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담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 책이 믿을 수 있는 여성 전문 건강 도서로, 여성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span>”라고 말했다.<br/> <br/> 채준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06.txt

제목: 이화의료원, 국내 최초 기준병실 3인실 시대 연다  
날짜: 2015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0206282  
본문: 국내 최초로 3인실을 기준병실로 하고 중환자실을 모두 1인실로 운영하는 환자중심의 미래 지향적 스마트 병원이 탄생한다.<br/> <br/>이화의료원은 3일 '이화의료원 마곡 병원'의 구체적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개원 예정인 이화의료원 마곡 병원은 진료 환경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기준병실을 3인실로, 모든 중환자실을 1인실로 설계했다.<br/> <br/>이화의료원은 진정한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병실 환경부터 혁신하겠다는 의지로 기준병실을 3인실로, 모든 중환자실을 1인실로 운영한다.<br/> <br/>새 병원의 기준병실인 3인실의 병상당 면적은 10.29㎡로 의료법상 기준인 6.5㎡보다 1.5배 이상 넓다. 또 국내 9개 대형병원의 기준병실의 병상당 면적(7.72~10.07㎡)과 비교해도 가장 넓어, 감염 위험을 줄이고 환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중환자실의 경우에도 국내 최초로 전 병실을 1인실로 운영, 최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br/> <br/>김승철 이화의료원 원장은 "새 병원은 원래 전 병실 1인실로 계획하였으나, 현재의 저수가와 향후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도입 등 의료정책 변화를 고려했을 때 전 병실 1인실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새 병원 기준병실을 3인실로 하고, 중환자실을 1인실로 운영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br/> <br/>한편 이대목동병원, 중장기적으로 여성·소아 질환 및 연구 중심병원으로 특화된다. 이대목동병원은 여성암병원, 여성질환 전문센터, 어린이병원, 척추관절센터 등 여성과 소아 진료 분야에서 쌓아온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나간다는 전략이다. 국내에서 특성화 성공 모델로 꼽히고 있는 여성암병원을 필두로 고위험 산모를 위한 모자센터, 극소저체중출생아 전문센터 등 여성과 소아의 중증질환을 치료, 연구하는 종합병원으로 차별화 한다.<br/> <br/>채준 기자<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07.txt

제목: 뚱뚱해지는 성인 남녀… 5년 후엔 40%가 비만  
날짜: 2015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0157919  
본문: 고콜레스트롤혈증도 증가<br/> 2020년이면 성인 10명 중 4명은 비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음과 고열량 음식 섭취, 수면부족 등은 남녀를 떠나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br/> 6일 질병관리본부가 의뢰해 백인경 국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작성한 ‘비만과 이상지혈증 유병률 추이의 기여요인 분석연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남녀의 2020년 비만(체질량지수 25 이상) 유병률은 39%로 예측됐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46.8%, 여성은 32.3%로, 2010년과 비교할 때 각각 10.4%포인트와 7.5%포인트씩 증가했다. <br/> 비만 유병률은 남성의 경우 젊을수록, 기혼이고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사무직 종사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기혼이고 서비스 등 단순근로직 종사자일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가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았다. 과음, 고열량 섭취, 수면부족은 남녀를 떠나 공통적으로 유병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br/><br/> 비만과 관련된 5대 질환 중 하나인 고콜레스테롤혈증(이상지혈증)의 경우 유병률이 2020년 33%로, 10명 중 3명이 고콜레스테롤혈증에 해당할 것으로 조사됐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05년 이후 계속 상승했는데, 육류 섭취량이 늘고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이 증가하는 등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부족이 영향을 미쳤다. <br/> 백인경 교수는 “<span class='quot0'>비만은 주된 사망원인인 암, 당뇨병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에 개인적ㆍ국가적 비용 부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음주, 수면, 식습관 등은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span>”고 지적했다. <br/> 백 교수는 대안으로 대학생 맞춤형 금주 교육 프로그램 도입, 음식점 메뉴에 식품 열량 표시 의무화, 수면부족 원인에 대한 역학연구와 수면장애 치료를 위한 연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일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49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1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br/> 이번 조사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기초통계인 국민건강영양조사(1998~2011년)를 기반으로 식이섭취 자료가 있는 대상자 4만2,584명의 정보 등을 반영해 도출했다. 비만과 이상지혈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습관 등 요인까지 고려해 향후 유병률을 예측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br/><br/>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08.txt

제목: 동거녀 살해하고 시화호 갈대밭에 암매장  
날짜: 201509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0109031  
본문: 한달 만에 30대 검거… 생활비 갈등<br/>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br/>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 종업원인 김씨는 지난달 1일 서울 역삼동 한 원룸에서 생활비 문제로 동거녀 이모(31)씨를 말다툼 도중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화성시 남양읍 시화호 인근 갈대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br/>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시신을 김장용 비닐 등으로 감싸 나흘간 집에 방치하다 지난달 5일 오전 4시 차량을 이용해 자신이 낚시를 하러 가끔 들러 지리를 알고 있는 시화호의 갈대밭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시신은 4일 약초를 캐기 위해 이곳을 지나던 행인 김모(57)씨로부터 “지독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암매장 된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br/>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씨와 동거하던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후에도 이씨 소유의 원룸에서 생활해오던 김씨를 5일 오후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 때문에 홧김에 이씨를 살해했다. 평소 잘해준 이씨와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br/> <br/>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09.txt

제목: 유방암 걸린 유방암 전문의 환자의 삶을 치유하다  
날짜: 201509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10018119  
본문: 남자들의 아성인 1980년대 외과, 실력 갖추고 성차별에 맞서 진입<br/>환자와 관계 오래 유지하려 선택… 2003년 갑작스런 유방암 판정<br/>끝내 의사 복귀는 못했지만… 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열정<br/> <br/>캐럴린 캘린(Carolyn Kaelin)은 미국의 유방암 연구자겸 전문의였다. 그는 의약분야의 고질적인 성 차별을 딛고 30대에 하버드 의대 부설 암 치료ㆍ연구기관의 창립이사에 발탁돼 주목 받았다. 40대에 유방암에 걸린 뒤 환자 권익과 삶의 질 개선 활동에 힘썼다. 사인은 뇌암이었다. 그는 자신의 병든 뇌를 신약 테스트 등 새로운 치료ㆍ시술에 내맡겨 뇌종양 치료법 발전에 기여했다. 7월 28일, 54세의 캐럴린 캘린이 별세했다. <br/> <br/> 캘린은 1961년 4월 4일 미국 뉴욕 주 시러큐스에서 태어나 뉴저지 프랭클린 레이커스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의약품 홍보업자였고 어머니는 교사였다. 스미스대학에서 경제학과 생화학을 전공한 뒤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의대 재학 중 남편 윌리엄 캘린(William Kaelin)을 만나 88년 결혼했다. 남편 윌리엄은 하버드 의대 교수 겸 브리검 여성병원 내과주임이 됐다. 캘린 부부는 그러니까, 고액 연봉의 전문직 종사자로 미국 중산층의 전형이었고, 앵글로색슨 백인이었다. 예일대를 졸업한 딸과 예일대에 입학한 아들도 캘린 부부의 자랑거리였다.<br/><br/> 먼저 딴 얘기를 잠깐 하자. 미국 스키드모어(Skidmore) 대학 사회심리학과 조교수인 코린느 모스 라쿠신(Corinne Moss Racusin)은 2012년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과학 관련 기관들의 성차별 실태’라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STEM’즉,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matics) 분야의 연구기관 127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연구소 소장급 포지션에 이력서를 보내 취업 평가를 받았다. 그가 준비한 이력서는 두 종류였다. 연령과 학력 성적 경력 등이 똑 같은, 다만 지원자의 이름만 다른 두 통의 가상 이력서였다. 하나의 이름은 ‘John(남자)’이었고, 또 하나는 ‘Jenifer(여자)’였다. (미국의 취업지원서와 이력서는 지원자의 성별이나 증명사진을 요구하지 않는다.)<br/> 결과는 그의 예상대로 ‘존’이 채용 점수, 연봉 등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존에게 제시된 연봉 평균은 3만238.1달러인 반면 제니퍼는 2만6,507.945달러였다. 라쿠신의 실험은 그 해 2월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일종의 항변이었다. 백악관 보고서의 요지는 “(지금 추세라면) 2020년대 10년 동안 약 100만 명의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거였고, 라쿠신 보고서 이면의 메시지는 과학적 객관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과학기술분야의 리더들이 성 차별의식만 극복해도 인력 부족의 상당부분은 해소될 것이라는 거였다.<br/> STEM의 ‘S’에는 당연히 의학도 포함된다. 캘린이 의대를 다니던 무렵의 성차별은 지금보다 더 심했을 것이다. 80년대 미국 의대에서 외과는 남자들의 아성이었고, 여성이 진입하려면 실력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차별에 맞설 용기와 배짱이 필요했다고 한다. 남편 윌리엄은 선임 의사가 환자에게 인턴을 소개할 때, 남자일 경우는 ‘의사’라고 소개하지만 여자라면 그냥 ‘이름’을 부르는 식의 은밀한 차별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뉴욕타임스, 2015.8.9)<br/> 캘린은 그 금녀의 벽을 넘어선 여성 외과의 가운데 한 명이었다. 1995년 그는 하버드 의대 교육병원인 보스턴 브리검여성병원과 병원 부설 종합유방건강센터 창립이사가 됐는데, 당시로선 여성이 그 보직을 맡은 사실만으로도 뉴스거리가 될 정도였다. 당시 그는 34세였다. 2001년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새로운 세기의 여성 15인’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br/> <br/> 캘린이 유방암 전문의를 택한 것은, 대표적인 여성암이라 환자들이 여성 의사를 선호하는 분야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즈음 가장 뜨거운 개척분야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다만 그는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고 말했다. 99년 보스턴글로브 인터뷰에서 캘린은 “탈장 수술이나 담낭절제술과 달리 유방암은 진료를 한번 시작하면 생을 두고 환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야다. 그래서 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가, 더군다나 한쪽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두고 대등한 관계를 맺기란 극히 어렵다. 조직검사 결과가 안 좋거나 수술 후 예후가 나쁠 때도 많아 “<span class='quot0'>감정적으로 얽히게 되면 그럴 때 정말 힘들다</span>”고 그는 말했다. 브리검여성병원 수석외과의 마이클 진너(Michael Zinner)는 “캘린의 온화함과 배려에 환자들은 그와 사랑에 빠지곤 했다. 캘린이 자기 아이들을 다 재운 뒤 밤 10시에 전화를 건 적도 있다는 말을 환자로부터 듣기도 했다. 아이들과 침대에 있으면서도 환자를 생각했다는 얘기였다”고 말했다.(뉴욕타임스)<br/> 그는 수영 사이클 등 운동을 즐겨 여성종양학자 사이클 동호회 멤버로도 활동했다. 다나 파버 암연구소 자선기금 모금 대회로 매년 192마일을 달리는 ‘팬-매스 챌린지(Pan-Mass Challenge)는 그가 빠뜨리지 않고 출전하는 종목 중 하나였다. 2003년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마친 어느 날 그는 가슴 한쪽이 당기는 느낌을 받는다. 심상찮은 기미를 느낀 그는 다음날 곧장 방사선 검진을 받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X선 검사가 모든 유방암을 다 찾아내진 못한다는 건, 의사로서 그가 환자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었다. 그는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된다. 훗날 한 인터뷰에서 그는 “<span class='quot0'>마치 내가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span>”고 말했다. 암세포 절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를 이어가던 중 그의 증상이 악화했다. 첫 진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두 개의 암 덩이가 새로 발견됐고, 그는 유방절제수술을 받았다. <br/> 환자로 지내는 동안 그는 두 권의 책을 썼다. ‘Living Through Breast Cancer 유방암 이겨내기’와 ‘The Breast Cancer Survivor’s Fitness Plan 유방암 완치환자의 운동법’이었다. 첫 책은 환자로서 느낀 증상과 치료, 후유증 등에 대한 자신의 체험과 대응법 등을 기술한 거였고, 두 번째 책 역시 체험을 통해 통증 등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운동 요법을 소개한 거였다. 유방암 수술 후 겨드랑이 통증과 림프부종을 완화하는 데 노젓기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그가 환자로서 세상과 나눈 재활 운동의 성과였다.<br/> 첫 책은 그와 프란체스카 콜트레라의 공저였고, 두 번째 책은 그를 포함 4명의 공저였다. 공저자들은 고스트라이터(ghost-writer) 즉 전문필자였지만, 그는 표지에 모두의 이름이 대등하게 올라야 한다고 고집했다고 한다. 위너(Winer)는 “동료 의사로서 캐럴린의 가장 인상 깊었던 면은 모든 환자는 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치료와 정성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그는 환자가 유명 정치인의 부인이든 단골 식당 종업원의 사돈의 팔촌이든 똑같이 대했다. 만일 당신이 그의 환자가 된다면 당신은 그의 확장된 가족 구성원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남편 윌리엄은 의사로서의 그런 철학이 공저자에게도 공정한 대접을 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보스턴글로브, 2015.8.3) <br/> <br/> 유방암이 완치된 건 2005년이었다. 그 무렵 그는 자신의 책을 들고 abc의 한 방송에 출연해 “<span class='quot0'>병을 직접 앓아보니 의사로서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느끼고 이해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 화학치료를 직접 받아 보고서야 환자들이 고통스럽게 하소연하던 ‘쇠맛’이 어떤 건지 알게 됐고, 만성피로가 얼마나 지독한지 알게 됐다는 거였다. 거울 앞에서 듬성듬성해진 머리나 눈썹도 속눈썹도 다 빠진 얼굴을, 밋밋해진 가슴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인지도. 자신이 그랬듯 “환자에게 그 혹독한 항암투병 과정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 이웃들의 따듯한 격려”라며, “하루빨리 병원에 돌아가 환자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2005.2.17) <br/> 캘린은 다시 의사로 일하지 못했다. 일시적 수술 후유증으로 알던 손가락 감각 마비가 내도록 풀리지 않아서였다. 대신 그는 환자 및 가족 교육과 재활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온 열정을 쏟았다.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가미한 YMCA 유방암 환자 재활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병원 내 ‘삶의 질 펀드’와 ‘지식과 힘과 품위’라 이름 단 일련의 유방암 교육 컨퍼런스를 조직했다. 사이클링을 하며 자주 들러 제2의 고향처럼 여기던 콜로라도 주 아스펜 시에서도 친구들과 함께‘삶의 질 암펀드(Quality of Life Cancer Fund)’를 만들어 매년 10만 달러씩 모인 기금으로 지역의 가난한 암 환자를 도왔다.(lehmanreen.com) <br/> <br/> 2010년 캘린은 타이핑이 제대로 안 돼 뇌 단층촬영을 받게 된다. 그는 뇌종양 중에서도 악성으로 알려진 교아세포종(glioblastoma) 진단을 받는다. 두 차례 뇌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면 걷기부터 시작되는 재활 치료를 받았다. 5년 남짓 투병하는 동안 그에겐 온갖 항암 신약들이 투여됐고, 그 중에는 임상실험 단계의 약도 있었다. 치료 후에는 약성 확인을 위한 검사들이 뒤따랐다. 그 말은 캘린이 특별한 환자여서 특별한 치료의 혜택을 받았다는 뜻도 되지만 그의 투병이 막바지까지 그만큼 험난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치료를 받는 환자인 동시에 항암 실험 대상자였다. 모든 치료는 물론 캘린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 윌리엄스는 미 전역의 암 센터 연구진들이 “<span class='quot1'>모자에서 토끼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span>”그에게 매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기적을 바란 것도, 또 그 가능성에 가장 회의한 것도 어쩌면 그였을 것이다. 캘린이 숨진 뒤 남편 윌리엄은 “<span class='quot2'>그가 받은 새로운 치료들이 캘린에게 정말 도움이 됐는지 확신하지 못한다</span>”고 말했다.(뉴욕타임스) 마지막까지 캘린은 의연했다고 한다. 숨지기 일주일 전 병문안을 했던 첫 책의 공저자 콜트레라는 “캘린은 유방암 발병을 ‘아이러니’라고 말하더니, 뇌종양에 대해서는 그냥 ‘불운일 뿐’이라고 담담히 말했다”고 전했다.(워싱턴포스트, 15.8.3)<br/> 그녀의 친구였고, 주치의였고, 다나-파버 암연구소 유방암 프로그램 책임자였던 에릭 위너(Eric Winer)는 “캘린은 열정적인 연구와 저술로 늘 주변에 영감을 주는 존재(inspirational figure)였다. 그를 잃은 건 환자와 연구소 동료들의 손실이고, 이 사회의 손실”이라고 말했다. 8월 28일 체스트넛힐 성 이그나시어스 교회에서 열린 그의 추도식 드레스코드는 당연하게도 ‘핑크’였다. <br/> 최윤필기자 proos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10.txt

제목: [새 책] 여름을 지나가다 外  
날짜: 2015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5948053  
본문: ●문학 예술 <br/> <br/> ▦여름을 지나가다 <br/><br/><br/><br/> 조해진 지음. 실업자, 신용불량자, 주거침입자. 몰락의 청춘을 통과하는 세 남녀가 도시의 뜨거운 태양 아래 ‘겨우겨우’의 삶을 살아낸다. 2004년 등단한 작가의 네 번째 장편소설. 중앙북스ㆍ212쪽ㆍ1만2,800원<br/> ▦숨바꼭질 <br/> 이언 랜킨 지음. 셜록 홈스 이후 최고의 범죄소설 캐릭터로 꼽히는 존 리버스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마약 살인 사건을 맡은 존이 새로운 파트너 홈스를 만나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인다. 오픈하우스ㆍ300쪽ㆍ1만2,000원 <br/> ▦나쁜 놈들(상ㆍ하)<br/> 마쓰모토 세이초 지음. 김경남 옮김. 나쁜 놈 VS 악녀, 승자는 누구일까. 돈에 눈 먼 남자의 완전범죄와 죽음보다 무서운 복수를 꿈꾸는 악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장편소설. 일본에서 네 차례 드라마로 제작됐다. 모비딕ㆍ340~360쪽ㆍ각권 1만2,800원<br/> ▦파리의 우울 <br/>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 지음. 황현산 옮김. 시적 선율이나 박자를 염두에 두지 않은 보들레르의 거칠고 혁명적인 산문시 50편. 작품마다 불문학자 황현산씨가 붙인 주해가 맛을 더한다. 문학동네ㆍ284쪽ㆍ1만3,000원. <br/> ▦고갱: 끝없는 변신 <br/> 스타 피규라 지음. 강나은 옮김. 뉴욕 현대미술관이 공개하는 고갱의 희귀작 222점. 목판화, 수채 모노타이프, 유채 전사 드로잉 등 회화에 비해 덜 알려진 작품들을 소개한다. 알에이치코리아ㆍ248쪽ㆍ5만원. <br/> ▦김광국의 석농화원<br/> 김광국 지음. 유홍준ㆍ김채식 옮김. 조선후기 서화수장가 김광국의 화첩. 공민왕 안견 김홍도 심사정의 그림까지 조선 400년을 아우르는 방대한 회화 컬렉션이 수록됐다. 눌와ㆍ632쪽ㆍ5만5,000원. <br/> <br/> ●교양ㆍ실용<br/> <br/>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br/><br/><br/><br/> 김창호 박용수 신현기 최선 김가나 지음. 대통령제는 무능한 국정운영자에게 제왕적 권한을 부여하는 실패한 제도인가. 87년 이후 대통령사를 분석했다. 저자들은 민주적 리더십의 회복을 과제로 지목한다. 더플랜ㆍ452쪽ㆍ1만8,000원<br/> ▦불순한 언어가 아름답다<br/> 고종석 지음. 작가이자 언어학자 신문기자인 저자의 ‘말하는 인간, 인간의 말’에 대한 통찰을 풀어냈다. 네 차례 강의를 묶은 책을 관통하는 것은 ‘순수의 틀에 갇힐 때 언어가 죽음의 길로 들어선다’는 고민이다. 로고폴리스ㆍ232쪽ㆍ1만4,500원<br/> ▦금기, 무슬림 여성을 엿보다 <br/> 엄익란 지음. 베일과 히잡에 고착된 이슬람 여성들의 일상사를 담백하고 애정 어린 문체로 그렸다. 할례, 명예살인 등 21가지 주제어를 통해 무슬림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전한다. 한울아카데미ㆍ216쪽ㆍ1만9,000원<br/> ▦미리 배우지 않아도 좋아요<br/> 데이빗 엘킨드 지음. 이지연 옮김. ‘조기교육이 슈퍼키드를 만든다는 믿음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유아교육의 고전서다. 원저는 1987년에 나왔다. 아이가 먼저 배워야 할 신뢰, 자율성, 자신감 등의 가치를 안내한다. 미지북스ㆍ268쪽ㆍ1만2,800원<br/> ▦자연이 보내는 손익 계산서<br/> 토니 주니퍼 지음. 강미경 옮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깨끗한 물을 내어주는 숲, 홍수를 예방하는 산호초, 해충을 먹는 포식자 등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정밀하게 드러내며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갈라파고스ㆍ372쪽ㆍ1만6,500원<br/>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br/> 게이버 메이트 지음. 류경희 옮김. 몸의 세포를 움직이는 감정의 생리작용을 분석했다. 천식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환자에 대한 인터뷰가 토대가 됐다. 김영사ㆍ520쪽ㆍ1만8,000원<br/><br/><br/>●어린이ㆍ청소년 <br/> <br/> <br/>▦프랑스 아이의 과학 공부 <br/><br/> 장마르크 레비르블롱 지음. 철학과 문학을 좋아하는 물리학자 할아버지와 과학을 멀게만 여기던 열여섯 살 손녀가 나누는 즐거운 과학 이야기. 정다운 대화 속에서 어느덧 과학이 친근해진다. 중학생 이상. 문박엘리 옮김. 휴머니스트ㆍ136쪽ㆍ1만원<br/><br/><br/>▦두더지 마을 <br/><br/> 토르벤 쿨만 지음. 땅 밑 두더지 마을이 문명과 개발로 파괴되는 모습을 통해 발전과 현대화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림책. 두더지 마을은 초록이 거의 사라지고 나서야 녹색 협정을 맺는다. 초등 저학년. 김경연 옮김. 현암사ㆍ30쪽ㆍ1만원. <br/> <br/><br/>▦삐뚤빼뚤 가도 좋아 <br/><br/> 이남석 지음.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도전과 용기로 나아가는 중학생 두 소년의 좌충우돌을 그린 청소년 소설. 각 장의 끝에는 청소년에게 주는 조언이 붙어 있다. 사계절ㆍ184쪽ㆍ9,800원<br/> <br/><br/>▦거리에 핀 꽃 <br/><br/> 존아노 로슨 기획, 시드니 스미스 그림. 삭막한 회색도시에서 거리에 핀 꽃을 모으는 어린 소녀를 통해 작고 평범한 것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그림책. 글자 하나 없이 은은한 감동을 준다. 유아ㆍ초등 저학년. 국민서관ㆍ32쪽ㆍ1만원<br/> <br/><br/>▦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br/><br/> 권재원 지음. 항아리 저금통과 열두 살 아이의 대화와 토론으로 화폐의 역사를 들려준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일러주는 교양서. 초등 고학년. 창비ㆍ148쪽ㆍ1만1,000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11.txt

제목: 반려동물 버릴 때 돈 내라면 유기견 더 많아질 것  
날짜: 2015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5924287  
본문: 英 동물보호협회 리틀페어 국장<br/><br/><br/><br/>“<span class='quot0'>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돈까지 내고 버릴까요?</span>”<br/>지난달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서울대공원 등의 초청으로 ‘동물보호 교육’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영국 왕립영국동물보호협회(RSPCA) 폴 리틀페어(53) 국제협력국장은 최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정부가 도입을 논의할 ‘소유권 포기 동물인수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span class='quot0'>오래된 기계를 버릴 때 재활용을 해야 한다며 돈을 내라고 하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가서 버리는 것과 반려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span>”라는 것이다.<br/>정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불가피하게 버릴 경우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소유권 포기 동물인수제’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기된 동물은 지역자치단체가 보호하면서 새 가정을 찾아준다는 취지다.<br/>리틀페어 국장은 “<span class='quot1'>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돈을 내고 포기하라면 유기견들이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영국의 보호소들은 반대로 강아지를 입양하려는 사람에게 약 60~80파운드 가량을 받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입양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책임감을 갖게 할뿐 아니라 지불한 돈을 나머지 유기견과 단체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기쁘게 비용을 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RSPCA가 1년에 새 가정을 찾아주는 유기견만 6만여 마리에 달한다.<br/>리틀페어 국장은 최근 서울대공원의 사슴, 흑염소 등 매각에 대해 “<span class='quot1'>전시동물이 일반 유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span>”이라고 말했다. 동물원의 전시 동물과 식용 동물은 원칙적으로 관리체계가 다른데 전시 동물이 식용고기로 유통되는 것 자체가 이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는 암수 분리, 중성화 수술 등 인도적 방법을 통해야 하며 상황이 급박할 경우 식용고기로 판매할 것이 아니라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span class='quot0'>사슴은 공포를 느껴서 죽기도 하는 예민한 동물인데 트럭으로 이동시킨 것은 대단한 스트레스였을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br/>RSPCA는 1824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보호단체다. 영국 리츠대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리틀페어 국장은 중국의 열악한 동물원 환경과 잔인한 도축 장면을 목격하고 동물보호 활동에 뛰어들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동물학대 방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br/>그는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span class='quot0'>암 연구 지원과 치매 연구 활동 중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span>”면서 “<span class='quot0'>인간의 복지는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복지가 실현된 다음 동물을 돕는 것은 어렵다</span>”고 말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동물복지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사람과 동물 모두 중요한 것이고 나와 내가 속한 조직은 동물을 위해 일하는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br/>글ㆍ사진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br/>김혜리 인턴기자 (숙명여대 경영학과 4)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12.txt

제목: [인터랙티브] 실험견, 안락사 대신 새 삶을 얻다  
날짜: 201509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5642696  
본문: 편집자주 : 이 기사는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제작 되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를 눌러 한국일보닷컴에서 기사를 보시면 더 풍성한 내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br/><br/>♥Part1. 나는 실험견입니다 : 6세 비글 태백이<br/>“철컹” <br/>2015년 2월 2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반년 전 일입니다. 이 날도 어김없이 철창 문이 열리고, 늘 그랬듯 낯익은 남자가 나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발가락을 벌려야만 힘겹게 서 있을 수 있는 창살 바닥에서 탈출한다는 해방감도 잠시, 이내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br/>“오늘도 시작인가.”<br/> 나는 미세하게 몸이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 남자가 저를 안고 데려간 곳은 옆방 실험실이었고,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주사바늘, 형광등 불빛, 철제 수술대와 실험대, 알코올 냄새, 그리고 고통뿐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이곳에 들어와 5년간 똑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던, 나는 실험견입니다.<br/><br/><br/>5년을 매일같이 겪어왔던 일이니 익숙해질 법도 한데, 고통에 초연해진다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날도 맘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주사바늘 앞에 쫄지 않으리라. <br/>그런데 웬 걸. 문 밖에 나가니 낯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나를 보고 웃어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오늘은 뭔가 색다른 일이 있으려나 싶었고, 그게 부디 또 다른 고통이 아니길 빌 뿐이었습니다. <br/>그런데 늘 드나들던 방이 아닌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아닌 햇빛을, 예전에 맡아보지 못한 상쾌한 공기와 향기를, 네 발로 뛰어다닐 수 있는 넓은 땅을 만나게 된 거죠. <br/><br/><br/><br/>기분은 좋지만 무서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참, 깜빡할 뻔했네요. 실험실 동기는 저까지 10마리였답니다. 눈치를 보니 동기들도 어리둥절해 하긴 마찬가지였어요. 한 녀석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응가를 해 버릴 정도였다니까요. <br/>누군가 말하더군요. “<span class='quot0'>지금 이 비글들은 사람으로 따지면 태어나자마자 감옥에 갇혀 마흔에서야 세상 빛을 본 거라고.</span>” 어때요? 제 상황이 좀 이해되시나요? <br/><br/>제 오른쪽 귀 안 쪽에 푸르스름하게 남아있는 문신 자국은 제 코드명 같은 거에요. 실험실 사람들은 저를 6자리 번호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난 사람들이 ‘태백’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른 동기들에게도 모두 이름을 붙여줬죠. 가야, 금강, 까치, 달마, 설악, 소백, 유달, 주왕, 한라. 새 이름이 낯설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누군가 저와 눈을 맞추며 이름을 불러준 적은 지금껏 한번도 없었거든요.<br/><br/><br/><br/>우리는 그렇게 실험실을 벗어나 한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에 이상은 없는지 검사도 하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도 받고요. 그렇게 2주쯤 지났을 무렵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형과 누나를 만난 거죠. 그리고 2월 2일만큼이나 잊을 수 없는 날짜, 2월 17일. 새 가족과 함께 두 번째 삶을 시작한 첫 날입니다. <br/><br/>♥Part2. 태백이의 ‘화양연화’: 반려인 박근덕(33)씨<br/>인생의 3분의 1이 넘는 12년이란 시간을 함께 한 핏불테리어 ‘푸’를 떠나 보낸 지도 어느덧 반년이 넘었다. 선뜻 다른 친구를 곁에 둘 수 없었다. 하지만 공허함이 그리움을 밀쳐내는 것 또한 막을 길이 없었다. <br/>우연한 기회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실험견 입양 프로젝트를 알게 됐다. 5년간 실험실에 갇혀 지낸 아이란다. 안 그래도 유기견 입양을 생각하고 있던 차였다. 두 번째 삶을 살게 된 실험견에게 진짜 멋진 세상을 보여주는 게 더 보람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br/>“<span class='quot0'>사람한테 병 옮기고 그러는 거 아니냐?</span>”며 걱정하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입양 담당자는 자양강장제나 숙취해소제의 임상실험에 쓰였다고, 안심해도 좋다고 했다.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민주도 힘을 보탰다. 듬직하게 생겼다며 한 눈에 태백이를 점찍은 것도, 사실은 민주였다. <br/><br/>까다로운 입양 심사를 통과했다. 비록 1인 가구에, 뛰놀 수 있는 마당도 없지만 쉬는 날이면 캠핑도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겠노라고 했다. <br/>태백이가 우리집에 온 첫 날. 땅을 딛고 걷는 게 서툴렀고 안아 들면 몸서리를 쳤다. 갈비뼈가 앙상했지만 사료 앞에선 눈치만 살폈다. 실험실의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안쓰러웠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광경이 눈 앞에 펼쳐졌다. 애써 누르고 있던 슬픔이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와 뒤섞여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난 태백이를 보듬어 줄 수 없었다. 그게 외려 폭력적일 것 같아 한동안 가만히 지켜만 봤다. 주룩주룩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없었다. <br/><br/>태백이는 서서 졸았다. 배를 채우니 졸음이 온 모양이다. 처음엔 네발로 서서 자다 휘청거렸다. 그렇게 피곤하면 엎드려 잘 법도 하건만, 엉덩이만 겨우 바닥에 붙이고선 고개가 외로 떨궈지는 와중에도 앞다리는 곧게 편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편히 자는 법을 몰랐던 걸까, 아니면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낯설어서일까. 이유야 어쨌든 태백이의 조는 모습은 적잖이 충격적이었다. <br/>새 가족을 맞이한 첫 날의 우리 집은, 웃음꽃은 못 피울 망정 눈물바다가 됐다. 민주는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이나 흐느껴 울었다. 내가 못 견뎠던 공허함 따윈 태백이가 겪었던 고통에 비할 바도 안 된다는 걸 느꼈다. 그 때 다짐했다. 세상이 뭔지, 사랑을 하고 받는다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태백이가 근사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br/><br/>태백이와 함께 한 지 나흘 째 첫 캠핑을 떠났다. 뛰는 게 어색하긴 해도 그새 제법 활발해졌다. 다른 종의 개에게 유독 관심이 많았다. 낯설지만 반가웠을 거다. 소형견들에 비해 덩치가 큰 태백이가 작은 친구들 앞에서 몸을 숙여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보니 대견했다. ‘이렇게 살가운 아이인데……. 하마터면 세상 누구도 너의 이런 모습을 못 볼 뻔 했구나’ 느낌이 좋았다. 이제 곧 태백이에게도 ‘화양연화(花樣年華ㆍ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말)’가 찾아오리라 기대했다. <br/><br/>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캠핑은 계속됐고, 새 삶에 잘 적응해갔다. 처음엔 서서 자던 녀석이, 얼마 전까지‘푸’가 그랬던 것처럼 침대 발치에서 엎드려 잤다. 그리고 이내 침대 위에서 널브러져 자기 시작했다. 진짜 가족이 됐구나 싶었다. 낭패를 거듭하던 변 가리기도 두 달쯤 되니 용케 해냈다. 실험실에선 소위 뜬장(배설물 처리를 쉽게 하려고 지면에서 띄워 놓은 철창)에서 살았기 때문에 배변 습관이 엉망이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집 전체가 지뢰밭일 정도였다. <br/>태백이를 집에 혼자 두고 나설 때 현관문 너머로 들리는 하울링 소리는 매번 그렇게 애잔할 수가 없다. 첨엔 안 그랬는데 친해지고 나서 생긴 행동이다. 반갑지만 짠했다. 마음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뇐다. “괜찮아, 태백아. 금방 올게. 이제 더 이상 네 삶이 외롭지 않게 해줄게.” <br/>♥Part 3. 보고싶다 친구야! : 임시보호인 김경순(53)씨<br/>사람 손만 닿으면 아팠던 애들이다. 철창과 철제 실험대의 감촉이 미치도록 차가웠을 애들이다. 손 위의 사료를 먹지 않는 것도, 사료 그릇이 바닥과 부딪쳐 내는 ‘쨍그랑’소리에 기겁을 하고 꽁무니를 빼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br/>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에서 실험 비글 6마리를 당분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사단법인 ‘나비야 사랑해’, 이리온 동물병원과 함께 실험견 입양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먼저 가족을 만난 태백, 까치, 금강, 소백이 외 나머지 애들이다. 언제 입양될 지 모르는데다 비글이 중형견이다 보니 동물병원에 마냥 두긴 힘들다. 10년 넘게 유기동물 봉사활동을 해와서 개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흔쾌히 맡았다. 더구나 안락사 될 운명에서 운 좋게 비켜선 애들이다. <br/><br/>애들 몰골을 보니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서 키운 것 같았다. 갈비뼈와 꼬리뼈가 툭툭 불거져 있었다. 사흘 동안 맘껏 먹으라고 자율배식을 했다. 먹다 토하고 또 먹기를 반복했다. 운동량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비글들이 첫 3, 4일은 움직이질 않았다. 사람, 특히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유별났다. 실험실 연구원들이 남자였으려니 했다. 가야는 하도 안 움직이길래 안아 올렸더니 그대로 실례를 해버렸다. 계단을 올라는 가도 내려오지 못했다. 다들 잔뜩 겁에 질려있었다. 그게 비글 여섯 형제들의 첫 인상이었다. <br/>2월 말에 만난 비글들은 그렇게 50여 일간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나갔다. 생각보다 훨씬 잘 해냈다. 그 동안 잠시 새 가족을 만났다가 금세 돌아온 아이도 있다. 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5년을 사람 손에 고통 받던 아이들이다. 그리고 열흘만 참고 기다려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을 여는 아이들이다. <br/>다행히 모두 좋은 가족을 만났다. 국내가 아니라 저 멀리 미국 LA에서 만났다. 미국의 실험견 구호 단체인 비글 프리덤 프로젝트(Beagle Freedom Project)의 도움 덕이다. 다들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든다. “<span class='quot0'>거봐, 문제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야.</span>”<br/><br/>♥Part4. 실험견에게 새 삶을 허하라<br/>비글은 동물실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견종이다. 성격이 지나치게 활발해 ‘악마견’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사료비가 적게 들고 좁은 철창에도 잘 적응하는 등의 이유로 간택됐다. 국내 실험 기관들은 대개 중국의 실험 동물 공급 업체에서 실험견을 사들인다. <br/>국내 실험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따르면 실험견은 2012년 6,851마리(83개 기관)가 사용됐으나 이듬해 8,650마리(49개 기관), 지난해 9,967마리(54개 기관)까지 늘었다. 주목할 것은 3년간 실험에 사용된 개의 마리수 증가율(45.5%)이 전체 사용된 실험동물수 증가율(31.5%)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br/><br/>하지만 왜 증가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실험기관이 어떤 용도의 실험에 어떤 동물을 사용했는지는 정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br/>다만 검역본부는 개의 주요 실험 사용 목적에 대해 “<span class='quot1'>잔류독성 > 약물동태학 > 의료기기 > 암 순이며, 수의과대학에서는 초음파 > 피부 알러지 > 해부학 실습 > 병원균 접종 순으로 파악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검역본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실험견의 상당수는 실험 종료 후에도 건강한 상태로, 일반에 입양해도 큰 문제가 없는 실험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br/>하지만 국내의 실험 종료 동물 처리 규정은 실험견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기보다 실험 기관이 동물을 손쉽게 처리하는 데 더 용이하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실험 동물이 반려 동물이면, 고통이 뒤따를 경우에만 안락사 시킨다”고 했지만, 실험 주체가 스스로 판단해 처리하고 통보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100% 안락사”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실험 기관들은 혹시나 입양시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덤터기 쓸 수 있으니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안락사 시키기는 게 관례다. 태백이 등 10마리 비글처럼 기관으로부터 인계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br/><br/>외국 상황은 우리보다 낫다. 물론 비글 프리덤 프로젝트처럼 실험견 구조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의 역할이 크고, 시스템을 완벽히 갖췄다고 보긴 힘들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관에서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입양을 권장한다. 영국 실험동물과학협회(Laboratory Animal Science Association)는 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실험견 입양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에 소개된 ‘The Animal Health Trust’의 사례를 보면 “실험 동물을 입양해 주는 것이 연구원들의 사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은 실험견을 입양 보내는 것은 동물과 사람, 그리고 연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적고 있다. <br/><br/>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듀크대, 캘리포니아 주립대, 펜실베니아 대학 등 미국 대부분의 대학들도 실험동물 사후처리와 입양에 관한 내규를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br/>프랑스의 수의과대학인 The Alfort Veterinary School의 2012년 연구에 따르면, 2002년부터 8년간 191마리의 실험 비글을 입양시킨 후 적응 상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파양율이 6%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br/>국내에서도 동물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사람을 위해 희생한 실험견에게 두 번째 삶을 찾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험견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다. <br/>태백이 입양자의 여자친구인 민주씨는 “<span class='quot2'>개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도 실험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뿐더러, 태백이 얘길 하면 어떤 실험에 쓰였냐고 제일 먼저 물어본다</span>”며 “<span class='quot2'>실험견에 입양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금만 활발해져도, 사람을 위해 희생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새 삶을 선물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동물보호 국제기구인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의 이형주 동아시아담당 매니저는 “<span class='quot3'>실험 종료견 입양은 동물뿐 아니라 실험자의 죄책감도 덜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3'>정부 기관이 앞장서 한두 마리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김경준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13.txt

제목: [채널선택] 면역력을 높이는 마사지법  
날짜: 201509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5516210  
본문: 비타민 (KBS2 오후 8.55)<br/> 현영, 이의정, 김승현, 문세윤, 이지현이 출연한다. 모든 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을 주제로 대상포진 폐렴, 암 등 면역력과 관련된 질병들을 다루고, 전문의들과 함께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그룹 쥬얼리 출신 이지현은 “아기를 둘이나 낳고, 연년생을 키우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남편이 워낙 바빠 육아를 도와주지 않아 최근 면역력이 더 떨어진 것 같다”며 남편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는다. 이에 전문의는 이지현을 위해 남편과 함께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 마사지를 소개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14.txt

제목: [브리핑] 아시아나항공, 비행자료분석위원회 운영 外  
날짜: 201509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5435130  
본문: 아시아나항공, 비행자료분석위원회 운영<br/>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노사가 함께 안전운항 강화를 위한 비행자료분석(FOQA)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노사 양측 8명으로 이뤄진 FOQA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되며, 익명으로 올라온 비행기록에 대해 심사해 잠재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한다.<br/> <br/> ATM 30분 지연 인출 100만원부터 적용<br/> 금융권이 2일부터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은행,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을 통해 100만원 이상을 입금하면, 해당 계좌에서 30분 동안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이체가 금지된다. 새마을금고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br/> <br/>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드림벤처 스타 2기’ 출범식(사진)<br/> SK그룹이 후원하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드림벤처 스타 2기’ 출범식을 1일 개최했다. 대전센터는 지난해 벤처기업 10곳을 드림벤처 스타 1기로 선발해 사업화를 지원했다. 드림벤처 스타 2기에는 적외선 센서와 에너지저장장치, 레이저 활용 암진단, 플라스마 활용 멸균 기술 등 대학ㆍ연구소에서 확보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한 벤처기업들이 선발됐다.<br/> <br/> 3~5일 터키서 G20 재무장관 회의<br/>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5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G20 회원국들은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정책 공조 방안을 찾는다.<br/> <br/> 신세계, 내년까지 2만여명 신규 채용<br/> 신세계그룹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난 해소를 위해 15일에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협력사와 함께 ‘신세계그룹&파트너사 채용박람회’도 개최한다. <br/> <br/> SK텔레콤-에스원, 사물인터넷 협력<br/>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위해 SK텔레콤이 1일 보안업체 에스원과 손잡기로 했다. 양사의 스마트홈과 세콤 홈블랙박스 서비스가 연동되는 것으로 이르면 12월부터 에스원의 서비스에 가입하면 SK텔레콤 서비스도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br/> <br/> 현대차, 고객초청 아반떼 신형 발표회<br/> 현대자동차는 고객들을 초청해 신형 아반떼를 공개하는 행사를 10일 경기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는 고객들에게 차량을 체험하고 개발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br/> <br/> 그린카, 회원에 롯데월드 65% 할인<br/>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는 회원들에게 롯데월드 어드벤처 야간 자유이용권(오후 4시 이후 입장) 6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월드 매표소에서 회원 인증을 받으면 동반 1인까지 1인당 1만3,000원에 표를 살 수 있다.<br/> <br/> KT, 2019년까지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br/> KT는 러시아월드컵 본선 진출 등을 기원하며 2019년까지 축구 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한다고 1일 밝혔다. 2001년 이후 18년간 후원하게 된다.<br/> <br/> 롯데마트, 대형마트 최초 ‘드라이브 스루’<br/> 롯데마트가 1일 대형마트 최초로 서울 노원구 중계점에 드라이브 스루(Drive-thruㆍ승차구매)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앱이나 PC로 상품을 주문, 픽업할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매장 내 드라이브 앤 픽 데스크를 방문하면 주차나 쇼핑을 할 필요 없이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br/> <br/> 쌍용차, 코란도C 사고 시 신차 교환 서비스<br/> 쌍용자동차는 코란도C LET 2.2 9월 출고분에 대해 무상보증기간을 기존 3년/6만㎞에서 5년/10만㎞로 연장하고, 출고 1년 이내 차대차 사고 시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차 교환은 타인 과실 50% 이상, 차량 가격의 30% 이상 손해 발생 시 적용되며 영업용, 법인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br/> <br/> 맛동산 28억 봉지 팔렸다<br/> 올해로 출시 40주년을 맞은 해태제과의 ‘국민 과자’ 맛동산이 28억개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 맛동산은 발효 과정에서 국악을 틀어 효모의 활동량이 늘어나게 한다. 지난 1월에는 김치 유산균을 첨가하기도 했다.<br/> <br/> 현대글로비스, 해양대와 전문가 양성<br/> 현대글로비스가 한국해양대와 해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해운 인력 채용 프로그램’을 이수한 해양대 재학생을 채용하고 부문별 특화교육 등을 통해 해운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현대글로비스 임직원이 해운 전공과목 수업을 맡아 맞춤형 인력을 키울 방침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15.txt

제목: [삶과 문화] 환대가 필요한 시간  
날짜: 201508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5133163  
본문: 구로공단은 1964년 조성된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다. 지금은 구로디지털단지로 이름이 바뀐 그곳에서 작년에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던 모양이다. 임흥순 감독의 다큐멘터리 ‘위로공단’(올해 베니스비엔날레에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초대되어 은사자상을 받았다)은 초반부에 그 장면을 조금 멀리서 보여준다. 그러다 후반부에 이르러 그날 그 행사장 밖의 또 다른 풍경 하나를 삽입한다. 피켓을 들고 일렬로 늘어선 이들의 모습이다. 노란 손팻말 위의 한 문장이 잊히지 않는다. “<span class='quot0'>50년 전에는 공순이, 50년 뒤에는 비정규직</span>”<br/> ‘위로공단’은 70년대부터 시작되는 우리 누이들의 이야기다. 흐릿한 형광불빛 아래 환기도 안 되는 좁은 다락방 먼지 속에서 타이밍을 먹으며 14시간씩 일해야 했던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어린 소녀들, 구사대로부터 똥물을 뒤집어쓰고 끌려가야 했던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참혹한 이야기가 이제는 오륙십대의 나이에 이른 바로 그이들의 증언으로 화면에 등장한다. “<span class='quot0'>배고파 못 살겠다고 외쳤죠.</span>” “생지옥이었습니다.”<br/> 그리고 가리봉 오거리 일대에 모여 있던 닭장집. 발도 제대로 뻗기 힘든 그 좁은 방에서 밤늦은 퇴근 후 라면을 끓여 먹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포개져 쪽잠을 자야 했다. 그러다 폐결핵에 걸린 이들은 그나마의 일터에서도 쫓겨나 더 참담한 곳으로 갔다. 80년대 노조활동을 하다 구속되고 해고되었던 한 여성 노동자는 웃으며, 그 시절 어린 여자 후배가 떠올린 구호를 전한다. “나도 나이키를 신고 싶다.”<br/> 그러니까, 우리는 혹 이런 것들이 얼마간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나 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대기업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다 암에 걸려 직장을 떠나야 했던 여성들. 비정규직, 파견직 노동자들의 기나긴 싸움. 콜센터에서 일하는 한 40대 여성 노동자는 작은 용돈조차 부모님에게 보내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다 결국 흐느낀다. 항공기 여승무원들은 육체와 감정 모두를 바닥까지 쥐어짜는 회사의 가혹한 노동 통제를 증언한다. 베트남 이주 여성 노동자가 서툰 한국어로 읽어나가는 간절한 호소, 캄보디아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현지 여성 노동자들의 실상은 구로공단의 70년대가 지속되는 또 다른 비참의 국면을 보여준다. 여전히 일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한 중년의 여성 노동자가 그 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며 그나마 아이들을 가졌을 때가 살면서 가져본 거의 유일한 휴식이었던 것 같다고 말할 때는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온몸을 휘감았다.<br/> 다큐 중간중간에는 흰 천으로 눈을 가린 채 공단 이곳저곳을 떠도는 여성, 거울 앞에 선 여성들이(소녀에서 할머니까지) 등장한다. 그런데 거울은 그이들의 온전한 얼굴을 좀처럼 비춰 보여주지 않는다. 얼굴이 우리의 존엄과 인격이 매순간 상호 인정되고 교류되는 ‘신성한’ 장소라면, ‘위로공단’이 환기하는 또 다른 차원의 아픈 진실은 그이들의 그 시간이 경제적 물리적 고통과 함께 지속적인 모욕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사실이다.<br/>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한 계약직 여성 노동자는 탈의실 바닥에 앉아 밥을 먹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넓은 매장에 그들이 쉴 곳, 그들만의 공간은 없다. 고공의 철탑이 그들의 자리인가.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의 마지막 호소는 바로 그 ‘사람의 자리’에 대한 것이었다. ‘사람, 장소, 환대’의 저자 김현경씨는 벌거벗은 생명을 돕는 단 한 명의 존재, 그 미약하지만 절대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사회가 구성되고 정초되는 지평을 상상한다. 그리고 우리를 설득한다. “<span class='quot0'>구성원들을 절대적으로 환대하는 것, 그들 모두에게 자리를 주고, 그 자리의 불가침성을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다.</span>” 우리 ‘사회’는 지금 그 환대의 이야기, ‘사람의 자리’에 대한 관심과 연대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버린 걸까.<br/> 정홍수 문학평론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16.txt

제목: 미인의 조건  
날짜: 201508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4816394  
본문: 올바른 자세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br/><br/>입추가 지나도 여전히 무더워 쉽게 지치는 계절이다. 지치게 되면 자꾸 어딘가에 기대어 앉으려 하기 마련이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했던가. 누워 잘 수 없지만 최대한 편하게 있어보려고 구부정하게 어딘가에 밀착하는 자세가 사실은 제일 에너지 소모적이고 몸에도 무리가 가는 자세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구나 그러한 생활이 누적되면 인생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바른 자세가 다시금 중요해지는 이유다. <br/>현대인의 생활 중 평균 8~9시간은 앉아서 생활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만큼 나의 엉덩이와 허리는 어딘가에 닿아있기 마련. 불과 백 년 전만 해도 인간은 하루 대부분을 일어선 상태로 지냈다. <br/>그러나 급격한 생활의 변화로 앉아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우리 몸은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자세가 가지는 중요성 보다는 앉아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br/>최근 인간공학 논문에 따르면 앉아있는 자세 자체로 바닥에 닿는 회음부를 감싸는 뼈인 좌골결절 간의 거리가 증가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상체의 무게를 받쳐줘야 하는 회음부에 압력이 더욱 가중되며 좌우로 벌어지는 힘까지 받게 되니 그 안에 갇혀있는 하부 생식기와 비뇨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하체로 가는 혈류 또한 방해받게 된다. <br/>결정적으로 골반이 뒤로 누우려는 힘이 작용하게 되어 자연스레 점점 구부정한 자세가 되고 급기야 책상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지경에 이른다. 앉아있는 행위 자체가 몸에 무리가 되고,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다는 의미이다. <br/>그런데 이런 구부정한 자세는 단순히 이런 기계적인 악영향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br/>구부정한 자세는 알 수 없는 근골격계 통증을 소아청소년층에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는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사회과학 및 예방의학 논문에서도 은퇴인구의 앉아있는 시간이 심혈관계 악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사회에 부담을 주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했다. <br/>뿐만 아니라 장시간 앉아있는 행위가 성인에게 당뇨, 심혈관질환, 암, 심지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소아청소년에게선 과체중과 인지발달장애를 유발한다는 게 스포츠의학 논문의 경고다. <br/>어차피 앉아서 일할 것이라면, 바른 자세 하나만 가지려고 노력하여도 많은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br/>또한 자주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를 잊지 않고 챙겨야 한다. 가볍게 생각하고 스쳐지나가려던 요소가 내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지금부터 바른 앉는 자세를 가지도록 해보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17.txt

제목: 난해한 의학, 만화로 펴내… 과학기술, 예술과 접목시켜 대중에 알려  
날짜: 2015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4619119  
본문: ‘옛날 옛적에 AIMP2라는 재능 많고 착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난소세포 안에 단백질 합성 효소들이 모여 사는 MSC(multi-tRNA synthetase complex) 마을에서 소년은 단백질 합성 효소들을 도우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난소세포가 암세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IMP2는 눈물을 머금고 정들었던 MSC 마을을 떠났습니다. (중략)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siRNA가 내려와 DX2의 근거지를 마구 공격했습니다. DX2가 사라지자 암세포는 치료제에 의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br/> 암 억제 인자인 AIMP2가 암 세포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의인화해 아기자기하게 풀어낸 만화 내용이다. 이 만화는 서울대 의약바이오컨버전스 연구단의 바이콘 스튜디오에서 제작했다. 과학학술지 ‘셀’에 게재된 복잡한 과학 연구 성과를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단 소속 권남훈 박사가 솜씨를 발휘했다. 그는 어릴 적 꿈이 만화가였다. 이렇게 만든 만화만 4편이다.<br/> 경기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입주해 있는 바이콘 스튜디오는 겉보기에 평범한 연구실이지만 소속 연구원 3명의 면면이 독특하다. 이들의 전공은 광고홍보, 정보기술(IT), 축산경영이다. 의약바이오와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들의 업무는 ‘생명과학의 대중화’이다.<br/> 이들은 의약바이오컨버전스 연구단의 주요 연구 결과를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 이미지, 3D 영상으로 만든다. 전문성이 필요한 복잡한 영상 작업은 외부 그래픽 디자이너와 협업해 진행한다. 결과물은 홈페이지, 학회지, 각종 기술박람회 등에서 발표된다.<br/> 스튜디오 설립은 연구단장인 김성훈 서울대 바이오제약학과 교수의 아이디어였다. 그는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던 미국 MIT에서 예술가들에게 교수직을 주고 공학자 과학자들과 협업시켜 과학기술을 예술로 표현해 내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br/> 그래서 김 교수는 세계적 수준의 우리 과학기술이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소통 부족’에서 찾고 있다. 그는 “연구 결과를 제대로 알리려면 예술 능력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예술가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연구를 깊이 들여다보게 해서 예술적 결과물로 내놓도록 협업하는 것이 스튜디오를 만든 취지”라고 말했다.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파묻혀 창의력을 상실해가는 지금의 연구 방식을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다.<br/> 바이오콘 스튜디오는 일방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대중들이 직접 생명과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바이오아트 공모전’도 매년 열고 있다.<br/>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18.txt

제목: 꽃다운 나이에 웬 청승? 오늘을 후회없이 사는 법 배우죠  
날짜: 2015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4622113  
본문: 젊은이 대상 교육 수강문의 늘어… 노인들 주로 찾던 세태 변화<br/>친구 등 가까운 사람 죽음 계기로 행복한 마지막 일찍부터 고민<br/>"죽음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 삶의 질만큼 떠나는 순간도 중요"<br/> <br/> 죽음은 노년만의 문제일 까. 혹은 불치의 병에 걸린 말기환자만의 문제일까. 천수를 누리든 요절을 하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이다.<br/> 많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죽음(자살이 아니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젊은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특별히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이 되어서가 아니다.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려는 ‘웰다잉’ (Well-Dying)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2030들도 ‘언제 죽느냐’보다는 ‘어떻게 죽느냐’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과연 젊은 이들은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br/> <br/> <br/> 나는 왜 죽음을 고민하게 되었나 <br/><br/> 임은비(24ㆍ동국대 대학원생) <br/> 올 초 대학시절 몸 담았던 밴드 동아리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밴드 동아리를 하며 친하게 지냈던 오빠의 상(喪)을 알리는 전화였다. 귀가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었다. 믿기지 않았다. 평소 좀 더 살갑게 대할 걸, 졸업 후 좀 더 자주 만날 걸 하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붙잡을 수 없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동아리방에서 매일 보던 오빠는 그렇게 내 곁을 떠났다. <br/> 허탈했다. 열심히 공부해 사회에 멋지게 진출하려 했던 목표들은 한 순간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산다는 건 뭐고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빠의 나이는 스물 여덟. 대학 졸업 후 카이스트(KAIST) 대학원에 진학해 로봇 개발자를 꿈꾸던 전도유망한 공대생이었다. 갑작스럽게 죽는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이 아무 의미 없게만 느껴질 거 같았다. <br/> 고민이 시작됐다. 죽음은 어떤 것이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지인의 죽음은 나로 하여금 관심 가지지 않았던 죽음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사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했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던 나를 돌아봤다. <br/>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죽음에 대해 공부해가는 단계다. 학교 홈페이지에 뜬 웰다잉 강좌 공고를 보고 ‘이거다’ 싶어 신청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강의를 통해 나에게도 분명히 닥칠 죽음에 대해 좀 더 알아가 보고 싶다. <br/> <br/> 고한범(24ㆍ한국폴리텍대 의료정보학과 1학년)<br/> 5년 전부터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던 외할아버지가 2주 전 돌아가셨다. 수술을 받으시고 경과가 좋아지나 했는데 병이 재발하면서 84세의 나이로 세상과 작별했다. 같이 살진 않았지만 외갓집의 큰 손주였던 나를 유독 아껴주셨던 각별한 분이다. <br/> 유품을 정리하다 할아버지가 쓰신 일기장을 발견했다.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병을 앓으신 후 할아버지가 쓰는 일기 끝에는 이런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다.<br/> 마음 아픈 내용도 있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프다는 이유로 화를 낸 내 자신이 너무 싫다.’ 명절에 삼촌과 다툼이 있어 속상하셨는지 할머니에게 화풀이를 하셨는데 자신의 간병만으로도 힘든 할머니에게 화를 냈다며 후회하시는 모습이었다. 몸이 아프셔서 평소보다 짜증낼 때가 많지만 여생 동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듯 했다. <br/> 할아버지의 일기장은 나를 돌아보게 했다. 의학용어 외우기에 하루하루 바빴던 날들이었다. 언제 올 지 모를 죽음에 대해 대비가 필요했지만 전혀 준비 돼 있지 않았다.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br/> 피할 수 없다면 삶을 마무리하는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에는 순서 없다’는 말처럼 누구든 언제 삶을 마감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주변에 잇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최대한 하지 않고 배려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부터 하려 한다. 앞으로 달라질 내 모습이 기대된다. <br/> <br/> 가까이서 본 죽음 <br/><br/>박지영(37 · 신촌세브란스병원 간호사)<br/> “죽음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현재 삶에서 중요한 게 뭔지 되돌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죽음은 임박해서만 마주해야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br/>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만난 박지영(37) 간호사는 많게는 한 달에 10명이 넘는 암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생각을 털어놓았다. 완화의료센터는 암 치료과정 중 생기는 환자의 신체적 고통과 우울,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돕고 음악치료ㆍ미술치료ㆍ마사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곳이다. <br/> 10년 차 박 간호사가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된 건 본격적으로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3~4년 전부터다. 환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마지막을 가까이서 함께 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겪었다. <br/> 지난해 12월에는 삶이 일주일 정도 밖에는 남지 않은 33살 남성환자를 만났다. 7년 사귄 여자친구에게는 애틋한 연인이었고, 자녀가 형제뿐인 부모에게는 딸 같은 아들이었다. 충격이 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시간만 보내던 가족들에게 의료진은 언약식을 제안했고, 가족들의 축복 속에 언약식이 치러졌다. <br/> 환자는 눈 앞에 흐려진다면서도 여자친구에게 평소 즐겨 먹던 까르보나라를 직접 떠먹여 줬고, 아버지에게는 소주 한 잔을 따라주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고 했다. 산소포화도가 40%까지 떨어졌지만 그는 하나씩 묵묵히 해냈다. 보통은 산소포화도가 80% 이하로만 떨어져도 눈을 뜨고 있을 수 없고 숨이 차 임종을 맞이한다. 축가를 부르는 가족들의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흘렀다. <br/> 올 초 1년 간 봐 왔던 30대 폐암 환자를 떠나 보낸 일도 기억에서 지울 수 없다. 또래라서 친구처럼 지낸데다 똑같이 아이들 둔 엄마로서 마음이 더 갔다. 임종을 목전에 두고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환자의 아들이 ‘엄마 1년만 더 살다 가면 안 되느냐’고 조르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아른거린다. <br/> 박 간호사는 “<span class='quot1'>죽음을 앞둔 시간과 마주하면 1분 1초가 아깝다</span>”며 “<span class='quot1'>의미 없이 100살, 150살까지 사는 것보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남은 삶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실제 박 간호사는 지난해부터 연 단위로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목록)를 만들어 실천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일과 공부에 매진하느라 소홀했던 남편에게 동영상을 만들어 생일 이벤트를 해줬고 ‘리마인드 웨딩’을 올렸다. 올해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매달 가족여행을 가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전국을 누비고 있다. <br/> 그는 “<span class='quot1'>마지막을 염두에 두면 더 보람되게 살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젊을수록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 고민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니까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2030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span>”고 덧붙였다. <br/> <br/> <br/>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 <br/>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강당에는 2030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웰다잉 준비 교육과정을 듣기 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모였다. 수강생 정원은 50명이었지만 수강 문의가 폭주했다. 노인들의 문제로만 치부됐던 웰다잉이 젊은 세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br/> 전문가들은 죽음과 남은 삶에 대한 고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한다. 실제 2009년 대한간호학회지에 실린‘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총 5주에 걸쳐 죽음준비교육을 받은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 44명(실험군 22명ㆍ대조군 22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웰다잉 교육이 대학생들에게 삶의 가치와 자아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현재를 좀 더 충실히 살아가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r/> 2030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을 마련한 최영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2'>젊은세대에게 웰다잉 교육은 보다 폭넓게 사고하게 하고 남은 삶을 알차게 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계기가 됐음 한다</span>”고 말했다. <br/>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19.txt

제목: 특허도 산업화 길목서 좌절… 마케팅 전략이 과학을 살린다  
날짜: 201508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4619378  
본문: 생명과학 연구 실력 10위권인데<br/>개발 신약 극소수만 제품화 성공<br/><br/>기초 과학·임상 의학 사이 간극<br/>나라마다 다른 기준 개발 걸림돌<br/><br/>정부의 중개연구 지원 사업 복잡<br/>임상의-연구자 '매칭' 기반 필요<br/><br/><br/><br/> <br/> ‘암을 정복할 신물질을 개발했다’, ‘난치병 유전자를 찾아내 신약 개발에 다가섰다’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과학계 소식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왔지만 아직까지 암 정복은 감감무소식이고 국산 신약은 구경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생명과학 연구 실력은 세계 10위권이지만 막상 연구 성과가 의료 현장이나 제약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다.<br/> 연구 결과물도 시장에 팔려면 전략이 필요한데 학계나 산업계 모두 이를 잘 하는 사람이 좀처럼 없다. 기초와 임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지원책은 다양하지만 연구자들은 여전히 산업화로 향한 지름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구 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치밀한 전략과 원활한 중개의 부재로 많은 생명과학 연구가 산업화로 가는 길목에만 몰려 있는 ‘병목현상(보틀넥)’이 심각하다.<br/> <br/> 기술이전이 끝이 아니다 <br/> 생명과학자 A씨는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난치병 치료제 후보물질의 특허 기술을 다국적제약사에 7년여 전 이전했다. 초기에 약 100억원을 투자하며 산업화에 공들이던 제약사는 갑자기 개발을 중단했다. A씨는 개발을 이어갈 다른 길을 찾기 위해 특허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제약사에서 이를 거부했다.<br/> A씨는 소송을 고민했으나 다국적제약사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면 수년 씩 끌려 다닐 게 뻔해 포기했다. A씨는 힘들게 개발한 난치병 치료제 후보물질의 산업화를 막기 위한 제약사의 전략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br/> 특허권이나 관련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면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A씨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술 이전은 시작일 뿐이다. 생명과학 분야의 특성상 기술 이전 후에도 임상시험 등 제품화까지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승인 및 허가 절차도 까다롭다. <b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국가 연구비로 개발된 기술이 국내에서 특허로 등록된 건수는 생명과학 분야가 4,966건으로 정보통신(7,390건)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기술이전 건수도 정보통신(3,157건)을 제치고 생명과학이 4,09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br/>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여전히 국산 약이나 기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개발된 국산 신약은 개량신약까지 포함해 20개에 그친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연 매출 100억원 이상 제품은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와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뿐이다. <br/> <br/> 연구자에겐 낯선 개발 전략 <br/> 성영철 포스텍 생명과학과 교수는 자체 개발한 유전자(DNA) 치료백신을 제일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등 국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자궁경부암 전 단계인 자궁경부전암 환자들에게 임상시험 중이다. 이르면 5년 이내에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공하면 수술로만 완치됐던 자궁경부전암을 간단한 주사로 치료할 수 있다. <br/> 성 교수는 국내와 유럽에서는 병원과 협력해 임상시험을 하고 중국 시장을 겨냥해 현지 회사에 특허권을 50% 넘기는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성 교수는 “<span class='quot0'>과학과 마케팅을 모두 아는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임상시험 진행과 특허권 이전 전략을 나라별로 각각 설계했다</span>”고 설명했다.<br/> 생명과학 성과를 산업화하기까지 큰 불확실성이 따른다. 나라마다 다른 시험 기준과 복잡한 규제가 걸림돌이다. 실험만 해왔던 연구자들에게 그만큼 산업화는 멀고 험한 길이다.<br/> 때문에 초기 연구개발 단계부터 기술사업화 전문가와 협업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 이후에도 단계별 자금 확보나 마케팅, 투자 자금 회수 방안 등에 대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br/> 아쉽게도 국내에 연구자를 도와 이런 일을 맡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성 교수는 “<span class='quot0'>정부에서 생명과학 기술의 산업화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이들이 연구자들을 찾아다니며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아직 먼 기초-임상 간 거리<br/> 성 교수가 임상연구 병원을 확보한 것은 정부의 ‘중개연구’ 지원사업 도움이 컸다. 중개연구는 생명과학 성과를 제약이나 의료 현장으로 이어주는 연구다. 기초과학과 임상의학 사이 간격이 커서 연구 성과가 산업화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2000년대 초 국제학계에 형성되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중개연구가 본격 확산됐다.<br/> 우리나라도 최근 국가 차원에서 중개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 교수처럼 적절한 도움을 받는 생명과학자는 많지 않다. 한 대학 교수는 “<span class='quot1'>연구에 관심 있는 임상의를 중국 미국 등 외국 병원까지 직접 다니며 수소문해야 한다</span>”며 한탄했다. <br/> 생명과학자들은 중개연구 지원사업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세분화 돼 연구에 필요한 부처와 관련 사업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중개연구 개념조차 부처별로 다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span class='quot2'>창의적 시도를 잘 하는 임상의를 발굴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초연구자와 연결시키는 방식</span>”으로 보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span class='quot2'>기존 임상시험을 포함해 임상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span>”로 다르게 보고 있다. 그렇다 보니 미래부는 인물(의사), 복지부는 기관(병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기초연구자들에게 거리가 멀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기초연구자와 임상의의 자발적 ‘매칭’이 활발하게 이뤄 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br/>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20.txt

제목: [스피드팩트] 생애 마지막 여행  
날짜: 2015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4515131  
본문: http://youtu.be/0Wqg82mzQ1o<br/><br/>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합법인 스위스로 ‘자살 관광’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출신까지 포함해 한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향하는 중이다. 이를 두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생명 경시 풍조와 자살 남용을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br/><br/>스위스 안락사 지원 전문병원 4곳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을 받아주는 곳이 ‘디그니타스’ 병원이다. 이달 14일에는 폐암 진단을 받은 영국인 남성 밥콜(68)씨가 스위스에서 안락사했다. 파킨슨병을 앓던 부인이 이곳에서 안락사한 지 18개월 만이다. 밥 콜씨의 사연과 디그니타스 병원 관련 '자살 관광' 논란을 영상으로 정리했다.<br/><br/><br/><br/>※본 내용은 한국일보 8월 20일자 지면에 실린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를 참조했다.<br/><br/>박리세윤 인턴PD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21.txt

제목: 수학에 눈 뜬 기업들 "대학과 산학협력 통해 난제 해결"  
날짜: 201508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4413085  
본문: 삼성重, 부산대 수학과와 협약<br/>삼성전자·넥슨·수협 등도 수학자 채용·수학계와 협력 고려<br/><br/><br/><br/> 삼성중공업은 최근 수학자들과 ‘동행’을 시작했다. 부산대 수학과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해양플랜트 등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교류하기로 했다. 사업에 수학이 반드시 필요해도 기업 입장에서 당장 수학자들을 채용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삼성중공업과 부산대는 산학협력 교류를 통해 난제 해결과 인력 양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br/> 제약이나 생명공학 기업들도 수학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삼양사와 파미셀, 노바셀 등은 건국대 수학과 연구진과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난제 해결에 나섰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 기술이 실제 임상에 쓰일 만큼 한 단계 발전하려면 원하는 장기의 세포로 정확히 분화하도록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업들은 수학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줄기세포의 분화 과정을 필요한 대로 설계하거나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 KT는 빅데이터팀에 수학과 출신 직원들이 포진했다. 이들은 매일 쏟아져 나오는 정보통신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수학적 기법을 고안해 각계에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성과도 몇 차례 냈다. 서울 시내 심야버스 노선을 결정할 때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을 정류장으로 점 찍었고,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철새 분변이 아닌 축산 차량으로 확산된다는 근거 역시 수학으로 제시해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았다.<br/> 삼성전자와 넥슨, 메리츠화재보험, 수협, 세브란스병원 등도 수학자 채용이나 수학계와 협력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비공식적으로 수학계의 ‘슈퍼 인재’들을 찾아나서는 등 수학자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첨단 반도체 산업의 암호화 기술이 수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금융, 교통 분야에 쓰이는 반도체인 스마트카드칩의 보안과 전자 서명 등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수학 기반의 암호화 기술이 필수</span>”라고 말했다.<br/> 구글이나 페이스북, 벨연구소 등 세계적 기업의 혁신 기반이 수학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약 4,000조원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유명 헤지펀드사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활용하는 주요 전략 역시 수학 알고리즘이다. 수학자 3명이 2008년 공동 창업한 미국 벤처기업 아야스디는 위상수학을 활용해 추가 암 검진이 필요한 환자와 사기성 신용카드 등을 판별해내는 기술을 상업화했고, 1억달러 이상의 투자자금을 확보했다. <br/>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22.txt

제목: "품위 있는 전직 대통령의 귀감" 암 투병 카터 성경교실에 700여명 몰려  
날짜: 2015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4121887  
본문: 미국 남부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경교실은 일요일이던 23일 무려 700여명의 사람들로 북적댔다. 간에서 생긴 암이 뇌로 전이됐다고 사흘 전 공개한 91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린 인파였다. 카터는 퇴임 후 30여년 간 매주 일요일 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왔는데 평소 참석 인원은 40여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br/>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어 카터는 이날 교회에서 1차로 460명에게 설교를 하고, 인근 고등학교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2차 설교를 해야 했다. 카터는 ‘사랑’을 주제로 “<span class='quot0'>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면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span>”고 강조했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태복음 5장 구절을 읽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br/> 카터는 특히 1978년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중동 평화협상과 1994년 방북 사실을 거론하며 “<span class='quot0'>중재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AP통신은 “<span class='quot1'>‘짐이 무거우면 주께 도움을 청하라’는 말씀은 익숙한 것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러나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카터 전 대통령이어서 더 강력하고 인간적으로 와 닿는 의미가 컸다</span>”고 전했다. 카터는 평소처럼 편안하게 미소 짓는 인상이었으며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과 일일이 사진촬영에도 응했다.<br/> 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평상심을 잃지 않는 카터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23일자 사설에서 “<span class='quot2'>품위 있는 전직 대통령의 귀감</span>”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카터 전 대통령은 침착하고 차분하게, 또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게 ‘나에게 어떤 일어나더라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돼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그가 퇴임 이후의 활동을 통해 보여준 품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은 중동문제와 다른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견해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며 “그러나 카터 전 대통령과 견해를 달리한 사람들조차도 그의 명예로운 삶과 그가 만들어놓은 전직 대통령 상을 칭송하고 있다”고 전했다.<br/> 또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호화로운 기념도서관을 짓거나 연설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벌지 않고 실질적이면서도 시민정신에 기반한 캠페인을 벌여나갔다”며 “특히 민주주의를 해외에 전파하고 저개발국의 질병을 퇴치하는데 노력해 생명들을 살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암 치료 과정을 통해서도 ‘조용한 용기’의 모델을 보여줬으며, 이는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그는 여전히 11월 네팔에 가서 국제 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벌이고 부인과 함께 낚시를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br/>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23.txt

제목: 무섭지 않은 공포영화 '무서운 집'… 웃기는 흥행 사연  
날짜: 2015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4130197  
본문: 추정 제작비는 수백만원이고 등장인물은 달랑 셋(그나마 감독이 1인2역을 했다)이다. 내용도, 완성도도 허점투성이다. 촬영과 조명은 1970~80년대 조악한 한국영화를 떠올리게 한다. “<span class='quot0'>영화 중간에 스마트폰이 나와 요즘 영화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span>”는 감상평도 있다. 귀신으로 등장하는 마네킹도 무섭기보다 귀엽다. 소리 없이 개봉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질 영화인데 올 여름 대형 흥행작 ‘암살’과 ‘베테랑’이 부럽지 않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저예산 공포영화 ‘무서운 집’의 웃기는 흥행 사연이 늦더위를 쫓고 있다.<br/> ‘무서운 집’은 지난달 30일 서울의 극장 한 곳에서 형식적으로 개봉을 했다. 그러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배급사(미로비전)와 계약을 맺고 지난 10일 4곳으로 상영관을 확대했다. 그래 봤자 23일까지 관객 수는 641명(영화진흥위원회)이다.<br/> ‘무서운 집’의 이야기는 무서울 정도로 단순하다. 사진가 남편이 출장을 가고 새로 장만한 큰 집에 홀로 남겨진 중년 여인(구윤희)이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려 집안 스튜디오에 들어갔다가 마네킹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다. 여인은 겁에 질렸지만 부엌칼 등으로 귀신에 맞선다. <br/> 이 단조로운 이야기를 롱테이크(카메라를 한번에 오랫동안 작동시키는 촬영기법)로 98분 동안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신기’다. 여인이 김치를 담그는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할애하기도 한다(감독은 적어도 김치 담그는 법이라도 알려주려는 의도라고 한다).<br/> 영화는 극장 밖에서 열광적인 환대를 받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 달린 감상평만 708건이다. 영화평을 담은 블로그도 많다. 칭찬 일색이다. “<span class='quot0'>이 영화를 보고 (많이 웃어서) 암이 나았어요</span>” “<span class='quot0'>옆자리에 앉았던 하반신 마비 장애아저씨는 마네킹이 등장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줌을 지리며 도망치셨습니다</span>” 등 반어적 표현이 넘친다. 대중은 공포영화를 코미디로 받아들이며 유희적인 감상 자체를 즐기고 있다.<br/> 양병간(64) 감독의 이색 이력과 튀는 발언도 눈길을 끈다. ‘피조개 뭍에 오르다’(1985)로 데뷔한 양 감독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1993)로 비디오대여점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다. 20여년 만에 충무로에 복귀한 그는 “<span class='quot0'>‘무서운 집’은 의도적으로 못 만든 영화</span>”라며 “<span class='quot0'>연극배우 출신 여자 주인공이 연기를 잘하려고 해 촬영 중 갈등이 많았다</span>”고 밝혔다.<br/> 김영진 명지대 영화뮤지컬학부 교수는 “<span class='quot1'>처음 볼 땐 괴로울 정도로 지루했으나 어느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span>”며 “<span class='quot1'>빡빡한 산업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요즘 극장가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영화</span>”라고 평가했다.<br/> 라제기기자 wenders@hankookilbo.com<br/>https://youtu.be/Yw7XiHBtLnQ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24.txt

제목: 강아지에게 배우는 5가지 인생 교훈  
날짜: 2015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4039805  
본문: 6살 꼬마 쉐인은 10살 난 반려견 벨커(Belker)가 숨을 거둘 때까지 꼭 끌어 안고 있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벨커는 이날 안락사 됐다. 안락사를 결정한 쉐인의 부모님과 수의사는, 벨커가 눈을 감은 뒤 사람보다 짧은 수명을 타고난 동물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러자 쉐인이 입을 열었다.<br/>“난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배우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이를테면 ‘항상 사랑하고 친절해라’처럼. 근데, 개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살 필요가 없는 거에요.”<br/>외국의 한 수의사가 쓴 글이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된 건 약 7, 8년 전 일이다. 하지만 이 글은 꾸준히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적어도, 주어진 삶을 행복으로 채워 나가는 능력만큼은 사람이 개에게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일 터. 강아지의 삶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5가지를 정리했다. <br/><br/>https://youtu.be/rp03AorAWLY<br/><br/><br/>1. 사랑하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라<br/>“왔어?”<br/>무미건조한 한마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지친 몸으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족 중 누군가가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툭 한마디 뱉는다. 누구는 먹는 데 정신이 팔려 있고, 누구는 방에 틀어박혀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 때 기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 타인, 특히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무관심은 꽤나 기운 빠지는 일이다. 무관심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건 꼬리를 살랑거리며 반갑게 맞아주는 반려견이다. <br/>‘개vs고양이’의 저자 이안 블랙은 “<span class='quot0'>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오면 항상 달려가 맞이하라</span>”고 조언한다. 간단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애정표현에 가장 인색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br/>가족뿐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경비 아저씨, 버스 기사 아저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웃으며 인사해보자. 인사를 받은 사람은 물론 당신의 삶도 한결 밝아질 것이다. <br/><br/>https://youtu.be/yD3yVwC0fjg<br/><br/>2. 작은 일에도 기뻐하라<br/>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니뭐니해도 먹는 거다. 사료든 간식이든 음식 앞에선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밥 먹을 시간’이라는 신호가 감지되는 순간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입안에 고인 침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 입맛을 다신다. 강아지가 먹을 것만큼이나 좋아하는 건 산책. 반려인이 산책 준비를 한다 싶으면, 목줄만 보여도 꼬리를 한껏 흔들며 뱅글뱅글 돈다. <br/>한편 사람은 강아지만큼 기뻐할 줄 모른다. 우리 삶 속 곳곳에 숨어있는 기쁨들은 외면 받기 일쑤다. 오히려 서로 얼마나 무덤덤한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심지어 로또에 당첨돼도, 1등이 아니라면 기쁨보다 아쉬움이 먼저다. 만족과 기쁨 대신 아쉬움, 타박, 불평을 늘어놓는데 선수다. <br/>이안 블랙은 “<span class='quot1'>오래 산책한다는 단순한 즐거움만으로도 기뻐하라</span>”고 했다.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겐 굉장한 사치일 수도 있다. 보물찾기를 하듯 우리 일상을 샅샅이 뒤져보면 생각보다 기뻐할 일은 많다.<br/><br/>https://youtu.be/9uuqXXT7VYo<br/><br/>3.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기<br/>주절주절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친구,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꼬치꼬치 따지는 애인, 술자리 안주 삼아 주고 받는 직장 상사 뒷담화까지. 누군가 얘기할 때 당신이 끝까지 귀담아 듣는 얘기는 얼마나 될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 니가 잘못했네” “몰라, 듣기 싫어” “<span class='quot2'>그건 약과야, 우리 부장은~</span>”라며 상대방의 말문을 막거나 말을 가로챈 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br/>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려 노력하기 보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건,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병폐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데서 오해와 다툼이 싹튼다.<br/>‘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의 저자 매트 와인스타인은 “<span class='quot0'>개들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다</span>”고 했다. 사람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귀는 쫑긋하고, 반려인을 바라보는 눈빛은 말똥하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사람 말을 경청하는 강아지는 사람보다 행복에 가까이 있다. <br/>진정한 소통은 경청에서 비롯된다. 상대방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자기 할 말만 생각하지 말고, 강아지처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자. 새로운 행복에 눈 뜨게 될 것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는 덤으로 따라 올 것이다.<br/><br/>https://youtu.be/f31m5-5-xUY<br/><br/>4. 편견 없이 상대방 대하기<br/>강아지는 친구를 만나면 반갑다. 산책길이나 애견카페에서 다른 강아지를 만나면 서로 으르렁 대기도 하지만 이내 좋은 친구가 된다. 강아지에게 우연히 만난 친구는 그저 또 다른 강아지일 뿐이다. 친구가 순종이든 잡종이든, 말티즈든 리트리버든, 미용을 했든 안 했든, 장애가 있든 없든 차별 없이 친구를 사귄다. 다른 동물들, 심지어 고양이와도 말이다. 매트 와인스타인은 “개들은 품종을 따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인사를 나눈다”며, 이를 강아지의 행복 비결 중 하나로 꼽았다.<br/>사람은 강아지와 달리 차별에 익숙하다. 몇 해전 한 TV 토크쇼에 출연한 케냐 유학생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면 자기보다 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옆에 아무도 앉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우리나라는 약과다.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국가에서 인종차별은 사회악이다. 인종을 비롯해 성별, 재력, 외모, 학벌, 종교, 출신지역, 성적 취향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잣대를 들이대며 차별하고 편견을 만들어낸다. 이런 편견은 ○○충, ○○녀 등 구별 짓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회는 니편 내편으로 갈리고 파편화된다. <br/>차별하고 무시하는 대신 편견 없이 상대방의 참모습을 보려는 자세는, 개인은 물론 인류 전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강아지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br/><br/>https://youtu.be/S-0jjNsH38Y<br/><br/>5.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br/>쌍꺼풀 수술쯤은 이제 성형수술 축에도 안 낀다. 턱과 광대를 깎고, 코와 이마에 보형물을 넣고, 두툼한 뱃살에선 빼내고 빈약한 가슴엔 채워넣는다. 눈은 크게 코는 오똑하게 얼굴은 갸름하게 가슴은 풍만하게 허리는 잘록하게. 무슨 인형 공장의 슬로건 같다. 그렇게 ‘강남언니’가 탄생했다. 자신의 개성이 아닌, 타인의 아름다움을 탐한 결과다. <br/>아름다움에 대한 비뚤어진 욕망은 반려견에게까지 향한다. 강아지 눈을 앞트임하고 보톡스도 맞춘다. 하지만 반려견은 스스로를 받아들인다. 매트 와인스타인은 “개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닥스훈트가 짧은 다리를 원망하지 않고, 불독이 주름진 얼굴을 못마땅해 하지 않는다. 털이 길든 짧든, 점박이든 아니든 자기만의 개성을 즐기며 산다. 그래서 소모적인 시기도, 헛된 질투도 없다. 우리가 강아지에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인생의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br/>김경준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br/>김혜리 인턴기자(숙명여대 경영학부 4)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25.txt

제목: "품위 있는 전직 대통령의 귀감" 암 투병 카터 성경교실에 700여명 몰려  
날짜: 2015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2410018343894  
본문: 미국 남부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경교실은 일요일이던 23일 무려 700여명의 사람들로 북적댔다. 간에서 생긴 암이 뇌로 전이됐다고 사흘 전 공개한 91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린 인파였다. 카터는 퇴임 후 30여년 간 매주 일요일 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왔는데 평소 참석 인원은 40여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br/>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어 카터는 이날 교회에서 1차로 460명에게 설교를 하고, 인근 고등학교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2차 설교를 해야 했다. 카터는 ‘사랑’을 주제로 “<span class='quot0'>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면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span>”고 강조했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태복음 5장 구절을 읽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br/> 카터는 특히 1978년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중동 평화협상과 1994년 방북 사실을 거론하며 “<span class='quot0'>중재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AP통신은 “<span class='quot1'>‘짐이 무거우면 주께 도움을 청하라’는 말씀은 익숙한 것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러나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카터 전 대통령이어서 더 강력하고 인간적으로 와 닿는 의미가 컸다</span>”고 전했다. 카터는 평소처럼 편안하게 미소 짓는 인상이었으며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과 일일이 사진촬영에도 응했다.<br/> 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평상심을 잃지 않는 카터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23일자 사설에서 “<span class='quot2'>품위 있는 전직 대통령의 귀감</span>”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카터 전 대통령은 침착하고 차분하게, 또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게 ‘나에게 어떤 일어나더라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돼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그가 퇴임 이후의 활동을 통해 보여준 품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은 중동문제와 다른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견해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며 “그러나 카터 전 대통령과 견해를 달리한 사람들조차도 그의 명예로운 삶과 그가 만들어놓은 전직 대통령 상을 칭송하고 있다”고 전했다.<br/> 또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호화로운 기념도서관을 짓거나 연설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벌지 않고 실질적이면서도 시민정신에 기반한 캠페인을 벌여나갔다”며 “특히 민주주의를 해외에 전파하고 저개발국의 질병을 퇴치하는데 노력해 생명들을 살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암 치료 과정을 통해서도 ‘조용한 용기’의 모델을 보여줬으며, 이는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그는 여전히 11월 네팔에 가서 국제 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벌이고 부인과 함께 낚시를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br/>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26.txt

제목: 무섭지 않은 공포영화 '무서운 집'… 웃기는 흥행 사연  
날짜: 2015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2410018343912  
본문: 추정 제작비는 수백만원이고 등장인물은 달랑 셋(그나마 감독이 1인2역을 했다)이다. 내용도, 완성도도 허점투성이다. 촬영과 조명은 1970~80년대 조악한 한국영화를 떠올리게 한다. “<span class='quot0'>영화 중간에 스마트폰이 나와 요즘 영화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span>”는 감상평도 있다. 귀신으로 등장하는 마네킹도 무섭기보다 귀엽다. 소리 없이 개봉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질 영화인데 올 여름 대형 흥행작 ‘암살’과 ‘베테랑’이 부럽지 않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저예산 공포영화 ‘무서운 집’의 웃기는 흥행 사연이 늦더위를 쫓고 있다.<br/> ‘무서운 집’은 지난달 30일 서울의 극장 한 곳에서 형식적으로 개봉을 했다. 그러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배급사(미로비전)와 계약을 맺고 지난 10일 4곳으로 상영관을 확대했다. 그래 봤자 23일까지 관객 수는 641명(영화진흥위원회)이다.<br/> ‘무서운 집’의 이야기는 무서울 정도로 단순하다. 사진가 남편이 출장을 가고 새로 장만한 큰 집에 홀로 남겨진 중년 여인(구윤희)이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려 집안 스튜디오에 들어갔다가 마네킹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다. 여인은 겁에 질렸지만 부엌칼 등으로 귀신에 맞선다. <br/> 이 단조로운 이야기를 롱테이크(카메라를 한번에 오랫동안 작동시키는 촬영기법)로 98분 동안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신기’다. 여인이 김치를 담그는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할애하기도 한다(감독은 적어도 김치 담그는 법이라도 알려주려는 의도라고 한다).<br/> 영화는 극장 밖에서 열광적인 환대를 받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 달린 감상평만 708건이다. 영화평을 담은 블로그도 많다. 칭찬 일색이다. “<span class='quot0'>이 영화를 보고 (많이 웃어서) 암이 나았어요</span>” “<span class='quot0'>옆자리에 앉았던 하반신 마비 장애아저씨는 마네킹이 등장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줌을 지리며 도망치셨습니다</span>” 등 반어적 표현이 넘친다. 대중은 공포영화를 코미디로 받아들이며 유희적인 감상 자체를 즐기고 있다.<br/> 양병간(64) 감독의 이색 이력과 튀는 발언도 눈길을 끈다. ‘피조개 뭍에 오르다’(1985)로 데뷔한 양 감독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1993)로 비디오대여점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다. 20여년 만에 충무로에 복귀한 그는 “<span class='quot0'>‘무서운 집’은 의도적으로 못 만든 영화</span>”라며 “<span class='quot0'>연극배우 출신 여자 주인공이 연기를 잘하려고 해 촬영 중 갈등이 많았다</span>”고 밝혔다.<br/> 김영진 명지대 영화뮤지컬학부 교수는 “<span class='quot1'>처음 볼 땐 괴로울 정도로 지루했으나 어느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span>”며 “<span class='quot1'>빡빡한 산업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요즘 극장가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영화</span>”라고 평가했다.<br/> 라제기기자 wenders@hankookilbo.com<br/>https://youtu.be/Yw7XiHBtLnQ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27.txt

제목: 강아지에게 배우는 5가지 인생 교훈  
날짜: 2015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2410018342826  
본문: 6살 꼬마 쉐인은 10살 난 반려견 벨커(Belker)가 숨을 거둘 때까지 꼭 끌어 안고 있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벨커는 이날 안락사 됐다. 안락사를 결정한 쉐인의 부모님과 수의사는, 벨커가 눈을 감은 뒤 사람보다 짧은 수명을 타고난 동물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러자 쉐인이 입을 열었다.<br/>“난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배우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이를테면 ‘항상 사랑하고 친절해라’처럼. 근데, 개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살 필요가 없는 거에요.”<br/>외국의 한 수의사가 쓴 글이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된 건 약 7, 8년 전 일이다. 하지만 이 글은 꾸준히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적어도, 주어진 삶을 행복으로 채워 나가는 능력만큼은 사람이 개에게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일 터. 강아지의 삶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5가지를 정리했다. <br/><br/>https://youtu.be/rp03AorAWLY<br/><br/><br/>1. 사랑하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라<br/>“왔어?”<br/>무미건조한 한마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지친 몸으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족 중 누군가가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툭 한마디 뱉는다. 누구는 먹는 데 정신이 팔려 있고, 누구는 방에 틀어박혀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 때 기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다. 타인, 특히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무관심은 꽤나 기운 빠지는 일이다. 무관심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건 꼬리를 살랑거리며 반갑게 맞아주는 반려견이다. <br/>‘개vs고양이’의 저자 이안 블랙은 “<span class='quot0'>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오면 항상 달려가 맞이하라</span>”고 조언한다. 간단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애정표현에 가장 인색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br/>가족뿐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경비 아저씨, 버스 기사 아저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웃으며 인사해보자. 인사를 받은 사람은 물론 당신의 삶도 한결 밝아질 것이다. <br/><br/>https://youtu.be/yD3yVwC0fjg<br/><br/>2. 작은 일에도 기뻐하라<br/>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니뭐니해도 먹는 거다. 사료든 간식이든 음식 앞에선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밥 먹을 시간’이라는 신호가 감지되는 순간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입안에 고인 침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 입맛을 다신다. 강아지가 먹을 것만큼이나 좋아하는 건 산책. 반려인이 산책 준비를 한다 싶으면, 목줄만 보여도 꼬리를 한껏 흔들며 뱅글뱅글 돈다. <br/>한편 사람은 강아지만큼 기뻐할 줄 모른다. 우리 삶 속 곳곳에 숨어있는 기쁨들은 외면 받기 일쑤다. 오히려 서로 얼마나 무덤덤한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심지어 로또에 당첨돼도, 1등이 아니라면 기쁨보다 아쉬움이 먼저다. 만족과 기쁨 대신 아쉬움, 타박, 불평을 늘어놓는데 선수다. <br/>이안 블랙은 “<span class='quot1'>오래 산책한다는 단순한 즐거움만으로도 기뻐하라</span>”고 했다.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겐 굉장한 사치일 수도 있다. 보물찾기를 하듯 우리 일상을 샅샅이 뒤져보면 생각보다 기뻐할 일은 많다.<br/><br/>https://youtu.be/9uuqXXT7VYo<br/><br/>3.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기<br/>주절주절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친구,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꼬치꼬치 따지는 애인, 술자리 안주 삼아 주고 받는 직장 상사 뒷담화까지. 누군가 얘기할 때 당신이 끝까지 귀담아 듣는 얘기는 얼마나 될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 니가 잘못했네” “몰라, 듣기 싫어” “<span class='quot2'>그건 약과야, 우리 부장은~</span>”라며 상대방의 말문을 막거나 말을 가로챈 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br/>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려 노력하기 보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건,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병폐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데서 오해와 다툼이 싹튼다.<br/>‘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의 저자 매트 와인스타인은 “<span class='quot0'>개들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다</span>”고 했다. 사람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귀는 쫑긋하고, 반려인을 바라보는 눈빛은 말똥하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사람 말을 경청하는 강아지는 사람보다 행복에 가까이 있다. <br/>진정한 소통은 경청에서 비롯된다. 상대방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자기 할 말만 생각하지 말고, 강아지처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자. 새로운 행복에 눈 뜨게 될 것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는 덤으로 따라 올 것이다.<br/><br/>https://youtu.be/f31m5-5-xUY<br/><br/>4. 편견 없이 상대방 대하기<br/>강아지는 친구를 만나면 반갑다. 산책길이나 애견카페에서 다른 강아지를 만나면 서로 으르렁 대기도 하지만 이내 좋은 친구가 된다. 강아지에게 우연히 만난 친구는 그저 또 다른 강아지일 뿐이다. 친구가 순종이든 잡종이든, 말티즈든 리트리버든, 미용을 했든 안 했든, 장애가 있든 없든 차별 없이 친구를 사귄다. 다른 동물들, 심지어 고양이와도 말이다. 매트 와인스타인은 “개들은 품종을 따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인사를 나눈다”며, 이를 강아지의 행복 비결 중 하나로 꼽았다.<br/>사람은 강아지와 달리 차별에 익숙하다. 몇 해전 한 TV 토크쇼에 출연한 케냐 유학생은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면 자기보다 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옆에 아무도 앉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우리나라는 약과다.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국가에서 인종차별은 사회악이다. 인종을 비롯해 성별, 재력, 외모, 학벌, 종교, 출신지역, 성적 취향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잣대를 들이대며 차별하고 편견을 만들어낸다. 이런 편견은 ○○충, ○○녀 등 구별 짓기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회는 니편 내편으로 갈리고 파편화된다. <br/>차별하고 무시하는 대신 편견 없이 상대방의 참모습을 보려는 자세는, 개인은 물론 인류 전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강아지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br/><br/>https://youtu.be/S-0jjNsH38Y<br/><br/>5.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br/>쌍꺼풀 수술쯤은 이제 성형수술 축에도 안 낀다. 턱과 광대를 깎고, 코와 이마에 보형물을 넣고, 두툼한 뱃살에선 빼내고 빈약한 가슴엔 채워넣는다. 눈은 크게 코는 오똑하게 얼굴은 갸름하게 가슴은 풍만하게 허리는 잘록하게. 무슨 인형 공장의 슬로건 같다. 그렇게 ‘강남언니’가 탄생했다. 자신의 개성이 아닌, 타인의 아름다움을 탐한 결과다. <br/>아름다움에 대한 비뚤어진 욕망은 반려견에게까지 향한다. 강아지 눈을 앞트임하고 보톡스도 맞춘다. 하지만 반려견은 스스로를 받아들인다. 매트 와인스타인은 “개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닥스훈트가 짧은 다리를 원망하지 않고, 불독이 주름진 얼굴을 못마땅해 하지 않는다. 털이 길든 짧든, 점박이든 아니든 자기만의 개성을 즐기며 산다. 그래서 소모적인 시기도, 헛된 질투도 없다. 우리가 강아지에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인생의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br/>김경준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br/>김혜리 인턴기자(숙명여대 경영학부 4)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28.txt

제목: 홈플러스, 올해 첫 '가을 햇 톱밥꽃게' 판매  
날짜: 2015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3941253  
본문: 홈플러스가 가을 톱밥꽃게를 초특가에 판매한다.<br/> <br/>홈플러스는 21일부터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가 풀리자마자 어획한 가을 톱밥꽃게를 선보이며, 첫 출하를 기념해 27일까지 일주일간 100g당 980원 초특가에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br/> <br/>금어기 해제일인 21일 새벽 서해안에서 잡은 톱밥꽃게를 당일 산지 직송해 일부 점포에서 선보이며, 22일부터는 판매 점포를 140개 전 점포로 확대해 전국 고객들이 어디에서나 신선한 가을 꽃게를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br/> <br/>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수산 카테고리에서 꽃게가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무려 25%에 달했다. 금어기 이후 첫 조업에서 잡힌 꽃게들은 금어기 동안 살이 올라 더욱 통통하고 쫄깃해 인기가 좋다.<br/> <br/>홈플러스 관계자는 "3월과 8월 연중 두 번의 철을 맞는 꽃게는 봄에는 알이 가득 찬 암꽃게가, 가을에는 살이 오른 통통한 숫꽃게가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29.txt

제목: 4대 중증질환 의심돼 초음파… 내달부터 보험 적용  
날짜: 2015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4018551  
본문: 다음달부터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양성자 치료 범위도 확대된다.<br/>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만 초음파검사에 대한 보험이 적용됐으나 다음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아도 1회에 한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br/> 그 동안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양성자 치료도 소아암 전체와 성인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 등으로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양성자 치료는 정상세포는 그냥 통과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야 방사선을 방출하는 치료법으로 기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인 최신 의료기술이다. 1,000만~3,000만원 이상 드는 비용 부담으로 그간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br/> 또 식도암과 간담도암 시술 등에 사용되는 금속스텐트는 개수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폐병변이 의심될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던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갑상선결절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br/>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금번 건강보험 확대 조치로 연간 1,034억~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으로, 연간 12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br/>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30.txt

제목: 홈플러스, 올해 첫 '가을 햇 톱밥꽃게' 판매  
날짜: 2015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2310018329221  
본문: 홈플러스가 가을 톱밥꽃게를 초특가에 판매한다.<br/> <br/>홈플러스는 21일부터 금어기(6월 21일~8월 20일)가 풀리자마자 어획한 가을 톱밥꽃게를 선보이며, 첫 출하를 기념해 27일까지 일주일간 100g당 980원 초특가에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br/> <br/>금어기 해제일인 21일 새벽 서해안에서 잡은 톱밥꽃게를 당일 산지 직송해 일부 점포에서 선보이며, 22일부터는 판매 점포를 140개 전 점포로 확대해 전국 고객들이 어디에서나 신선한 가을 꽃게를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br/> <br/>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수산 카테고리에서 꽃게가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무려 25%에 달했다. 금어기 이후 첫 조업에서 잡힌 꽃게들은 금어기 동안 살이 올라 더욱 통통하고 쫄깃해 인기가 좋다.<br/> <br/>홈플러스 관계자는 "3월과 8월 연중 두 번의 철을 맞는 꽃게는 봄에는 알이 가득 찬 암꽃게가, 가을에는 살이 오른 통통한 숫꽃게가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31.txt

제목: 4대 중증질환 의심돼 초음파… 내달부터 보험 적용  
날짜: 201508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2310018330995  
본문: 다음달부터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양성자 치료 범위도 확대된다.<br/>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만 초음파검사에 대한 보험이 적용됐으나 다음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아도 1회에 한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br/> 그 동안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양성자 치료도 소아암 전체와 성인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 등으로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양성자 치료는 정상세포는 그냥 통과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야 방사선을 방출하는 치료법으로 기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인 최신 의료기술이다. 1,000만~3,000만원 이상 드는 비용 부담으로 그간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br/> 또 식도암과 간담도암 시술 등에 사용되는 금속스텐트는 개수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폐병변이 의심될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던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갑상선결절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br/>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금번 건강보험 확대 조치로 연간 1,034억~1,8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으로, 연간 12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br/>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32.txt

제목: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아버지께 홧김에 주먹질.. '20년 만에 재회'  
날짜: 2015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3901111  
본문: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의 과거 가정사 발언이 눈길을 끈다.<br/> <br/>지난 3월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택시' 게스트로 출연한 박태준은 솔직한 입담을 뽐내며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br/> <br/>당시 박태준은 어린시절 집안 형편과 유년시절부터 이어진 아버지와의 불화를 고백했다.<br/> <br/>박태준은 "어린시절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며 "어릴 때부터 집이 화목과는 거리가 멀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난 아버지와 주먹 싸움까지 했다"고 말했다.<br/> <br/>이어 박태준은 "과거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가장으로서의 노력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했다. 고3때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서 나왔다"며 "그런데도 어느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밤늦게 귀가해 할머니에게 밥을 차리라며 화를 내시더라. 그때 10년동안 쌓인 게 폭발했다. 아버지께 대들며 패륜을 저질렀다"고 밝혔다.<br/> <br/>이에 MC 이영자는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전화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박태준은 20년 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br/> <br/>한편 박태준 작가 웹툰 '외모지상주의'는 매주 금요일에 인기리에 연재 중이다.<br/> <br/>사진=박태준 (tVN '택시' 캡처)<br/><br/><br/>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33.txt

제목: 모던 재즈·주가 예측·암 치료법… 실생활에 파고든 복잡계 과학  
날짜: 2015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3839376  
본문: 고대 그리스 이래 서양의 과학은 이 우주를 이루는 근본 구성요소를 찾아왔다. 물질을 원자로 환원한 후 다시 원자를 쪼개서 원자핵과 전자를 얻었고 원자핵을 쪼개 양성자와 중성자를 얻었으며 이를 또 쪼개 쿼크를 발견했다. 부분을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환원주의의 접근법을 따라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br/> 이 우주를 레고 블럭으로 만든 커다란 구조물이라 가정해보자. 우리는 이제 우주 구조물에 사용된 몇 가지 레고 블럭의 기본 모형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레고 블럭으로 우주를 재조립해낼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재조립 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연은 재조립하는 방법이 하나뿐인 잘 설계된 퍼즐이 아니라 복잡성이라는 성질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br/> 복잡계 이론은 바로 이렇게 환원주의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탄생했다. 저자 닐 존슨은 “복잡성에 관한 정량적인 이론 탐구의 바탕에 깔린 철학은 우리가 어떤 개체들의 집합체가 만들어낼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그 개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단순한 조각들이 단순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복잡성의 본질이다”(40쪽)라고 주장한다. <br/>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할 당시의 목표 여섯 가지를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첫째가 나이나 배경, 과학지식의 수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독자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책이 결코 난해할 수 없다. <br/> 닐 존슨이 정의하는 복잡계는 어떤 것일까? 그에 의하면 복잡계는 다수의 상호작용하는 개체 또는 행위자의 집합체를 포함하며 개체들의 행태는 기억 또는 되먹임(feedback)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행위자 집합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두 같은 종류의 되먹임을 받게 되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자기조직화라 하며 ‘자기조직화 하는 집합적 현상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창발이라고 한다. 이 결과 복잡계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며 질서정연한 행태와 무질서한 행태가 복잡하게 뒤섞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br/>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제1부는 파일 정리의 사례라든가 모던 재즈의 음계, 술집 선택 전략 등의 사례를 동원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복잡계의 개념을 충실히 다진다. 2부에서는 복잡계 과학의 다양한 현실 적용 사례가 제시된다. 예를 들어 교통 혼잡을 덜려면 적정한 우회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왜 완벽한 주가 예측 모델은 있을 수 없는지, 전쟁의 거듭제곱 법칙이란 무엇인지, 암을 고사시키려는 새로운 치료법의 원리는 무엇인지 등의 사례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던 과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실생활을 파고든다. <br/> 퀴즈! 완벽한 파트너, 천생연분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지금 당장 사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까? 복잡계 과학이 주는 답이 궁금한 사람은 이 책을 읽어보는 게 좋겠다.<br/> ‘과학책 읽는 보통 사람들’ 운영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34.txt

제목: 홍석천, 스캔들 나지 않는 '연예계 마당발'  
날짜: 2015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3824910  
본문: [한국스포츠경제 연예부] 한국스포츠경제는 요즘 가장 핫한 셀럽들의 빠르고 트렌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인스타스타'라는 코너를 선보입니다. 진실된 한 장의 사진은 열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이지요. 인스타스타를 통해 스타들의 민낯인듯 민낯 아닌 모습들을 함께 감상하시죠. 팔로우 팔로우미~.<br/> <br/>홍석천 (tonyhong1004ㆍ127k)<br/> <br/>얼마 전 홍석천이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뉴스에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콕의 폭탄 테러 현장 근처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팬들과 소통을 좋아하는 그는 인스타그램에도 사건 현장 사진과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홍석천은 심각한 글을 올리기 보단 자신의 일상을 주로 포스팅합니다. 지인들을 살펴보면 자타공인 '연예계 마당발'답습니다. 의외의 인물과 함께한 사진도 많았습니다.'마누라'는 있는데 스캔들은 나지 않는 '프로 게이' 홍석천. 인스타그램에서 그의 인맥을 살펴봤습니다.<br/> <br/> <br/>1<br/> <br/>#bkk 갑자기 큰 폭발음이들렸다 난 천둥소리인줄 알았다 잠시후 구급차 싸이렌소리와 움직이지않는 차들을 보고 뭔일이 생긴걸알았다.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걸로 알려지고있다. 한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 ㅠㅠㅠㅠ 더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없이 희생되지 않길빈다<br/> <br/> <br/>2<br/> <br/>#대륙여신 #추자현 #이태원 #마이홍 에 식사하러온 내동생 #추자현 항상 겸손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여배우 자현이 오랫만에 보는 얼굴이지만 민낯에도 정말예쁜 ㅎ 마음은 더 예쁜 자현이 중국에서 성공하기까지 말 못할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녀의 성공과 미래에 박수를 보내고 나도 정말 더 열심히 해야함을 배운다 자현아 정말 반갑구 한국에서도 많은 활동 부탁해 ㅎ<br/> <br/> <br/>3<br/> <br/>#냉부해 오늘 드디어 #지디 #태양 과 함께 녹화를 끝냈다 난징 공연을 끝내고 와서 정말 피곤했을텐데 정말 재밌게 함께 해줘서 진심 고맙다.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큰기쁨을 주는 #빅뱅 멤버들 모두 건강하구 좋은 음악활동 보여주길 기도한다. 최고의 멤버들과 한 냉부해 많은 시청바랍니다. 오늘 판타스틱 했어여 ㅎ<br/> <br/> <br/>4<br/> <br/>#이찬오 세프의 예비신부 #김새롬 결혼을 앞둬서 그런지 더 예뻐졌다 새롬아 결혼 축하해 언제 찬오랑 집에서 와인마시며 심야영화 한편보자 ㅋㅋㅋㅋㅋㅋ<br/> <br/> <br/>5<br/> <br/>#wax 내 마누라 내 베프 내생일날 생일 축하노래 공짜로 세곡이상 불러주는 내 전속가수 ㅋㅋㅋㅋ우리 이쁜이 행복하자 ㅎㅎㅎ사랑해 왁양 ㅋㅋㅋ<br/> <br/> <br/>6<br/> <br/>#이기광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마주친 기광이 오랫만에 방갑네 이젠 멋진 연기자로 볼 수 있겠다. 기광아 홧팅 희애누나랑 하는건 다 대박야 힘내<br/> <br/> <br/>7<br/> <br/>#최민호 #샤이니 #박소담 #처음이라서 드라마 촬영시작 난 카메오 아침부터 민호랑 멱살잡고 다투는 장면 찍느라 벌써 녹초 두 젊은 연기자의 알콩달콩 연애드라마 기대하시라<br/><br/><br/>한국스포츠경제 webmaster@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35.txt

제목: "암 뇌로 전이… 신의 손에 달렸다" 담담히 웃음지은 카터  
날짜: 2015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2110018318547  
본문: 이란 인질 구출 실패 후회되지만 퇴임 후 활동엔 큰 자부심 보이기도 <br/>"죽기 전 기생충 박멸 보고 싶어"<br/><br/><br/><br/> <br/> 지미 카터(91) 전 미국 대통령은 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an class='quot1'>자신의 암이 뇌까지 전이됐다</span>”고 담담하게 밝혔다.<br/> 카터 전 대통령은 “<span class='quot2'>이달 초 수술로 간에 있던 흑색종을 모두 제거했으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서 뇌에서 4개의 새로운 흑색종이 발견됐다</span>”며 “<span class='quot2'>암이 다른 장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span>” 설명했다.<br/> 그는 “<span class='quot2'>이제 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2'>어떤 결과가 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span>”고 말했다. 청바지에 재킷 차림으로 45분 가량 기자회견을 하면서 환한 웃음과 쾌활한 태도로 유머를 섞어가며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다고 AP 등이 전했다.<br/> 지난 3일 뇌로 종양이 전이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카터 전 대통령은 “<span class='quot2'>그날 밤 ‘이제 살 날이 몇 주밖에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아주 편안하게 느껴졌다</span>”고 전했다. 이어 “나는 멋진 삶을 살았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누렸다, 난 지금 내 아내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다”고 덧붙였다.<br/> 가장 후회된 일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대통령 재임 시절 이란의 미국 인질 구출작전에 실패한 것을 꼽으면서 “<span class='quot3'>헬리콥터 한 대를 더 보내고 싶었다, 그랬다면 우리는 인질을 구하고 나도 재선에 성공했을 것</span>”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또 “4년의 대통령 임기를 더 맡는 것과 카터센터 중 하나를 고르라면 난 카터센터를 고를 것”이라며 퇴임 후 활동에 자부심을 보였다. <br/><br/> 가장 보고 싶은 세상의 변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카터센터가 집중하고 있는 기니웜(오염된 물에 사는 기생충) 근절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span class='quot4'>내가 죽기 전에 세상에 남은 마지막 기니웜이 죽는 것을 보고 싶다고</span>”말하기도 했다.<br/> 카터 전 대통령은 “암 진단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존 바이든 부통령,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그 사람들이 내게 전화를 건 것은 오래간만”이라고 덧붙여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br/> 애틀랜타의 에모리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카터 전 대통령은 뇌로 전이된 종양 치료를 위해 이날부터 방사선 치료와 함께 지난해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흑색종 치료약 키트루다(Keytruda) 1회분을 투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 키트루다는 절제수술이 어려운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면역체계를 자극,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내 파괴하게 해준다.<br/> 의료진은 카터 전 대통령이 고령임에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완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치료를 담당하는 월터 쿠란 주니어 에모리대 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5'>다른 장기로 전이된 흑색종 환자에게서 완치를 기대하기 힘들다</span>”며 “<span class='quot5'>추가 전이를 억제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치료 목표</span>”라고 말했다.<br/> 암 전문가들은 그가 완치되지 않더라도 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텍사스대 MD앤더슨 암센터의 패트릭 화 박사는 키트루다가 기존 항암화학제보다 부작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br/>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36.txt

제목: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아버지께 홧김에 주먹질.. '20년 만에 재회'  
날짜: 2015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2110018319011  
본문: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의 과거 가정사 발언이 눈길을 끈다.<br/> <br/>지난 3월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택시' 게스트로 출연한 박태준은 솔직한 입담을 뽐내며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br/> <br/>당시 박태준은 어린시절 집안 형편과 유년시절부터 이어진 아버지와의 불화를 고백했다.<br/> <br/>박태준은 "어린시절 어려웠던 가정 형편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며 "어릴 때부터 집이 화목과는 거리가 멀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난 아버지와 주먹 싸움까지 했다"고 말했다.<br/> <br/>이어 박태준은 "과거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가장으로서의 노력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했다. 고3때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서 나왔다"며 "그런데도 어느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밤늦게 귀가해 할머니에게 밥을 차리라며 화를 내시더라. 그때 10년동안 쌓인 게 폭발했다. 아버지께 대들며 패륜을 저질렀다"고 밝혔다.<br/> <br/>이에 MC 이영자는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전화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박태준은 20년 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br/> <br/>한편 박태준 작가 웹툰 '외모지상주의'는 매주 금요일에 인기리에 연재 중이다.<br/> <br/>사진=박태준 (tVN '택시' 캡처)<br/><br/><br/>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37.txt

제목: 모던 재즈·주가 예측·암 치료법… 실생활에 파고든 복잡계 과학  
날짜: 2015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2110018318537  
본문: 고대 그리스 이래 서양의 과학은 이 우주를 이루는 근본 구성요소를 찾아왔다. 물질을 원자로 환원한 후 다시 원자를 쪼개서 원자핵과 전자를 얻었고 원자핵을 쪼개 양성자와 중성자를 얻었으며 이를 또 쪼개 쿼크를 발견했다. 부분을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환원주의의 접근법을 따라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br/> 이 우주를 레고 블럭으로 만든 커다란 구조물이라 가정해보자. 우리는 이제 우주 구조물에 사용된 몇 가지 레고 블럭의 기본 모형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레고 블럭으로 우주를 재조립해낼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재조립 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연은 재조립하는 방법이 하나뿐인 잘 설계된 퍼즐이 아니라 복잡성이라는 성질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br/> 복잡계 이론은 바로 이렇게 환원주의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탄생했다. 저자 닐 존슨은 “복잡성에 관한 정량적인 이론 탐구의 바탕에 깔린 철학은 우리가 어떤 개체들의 집합체가 만들어낼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그 개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단순한 조각들이 단순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복잡성의 본질이다”(40쪽)라고 주장한다. <br/>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할 당시의 목표 여섯 가지를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첫째가 나이나 배경, 과학지식의 수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독자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책이 결코 난해할 수 없다. <br/> 닐 존슨이 정의하는 복잡계는 어떤 것일까? 그에 의하면 복잡계는 다수의 상호작용하는 개체 또는 행위자의 집합체를 포함하며 개체들의 행태는 기억 또는 되먹임(feedback)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행위자 집합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두 같은 종류의 되먹임을 받게 되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자기조직화라 하며 ‘자기조직화 하는 집합적 현상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창발이라고 한다. 이 결과 복잡계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며 질서정연한 행태와 무질서한 행태가 복잡하게 뒤섞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br/>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제1부는 파일 정리의 사례라든가 모던 재즈의 음계, 술집 선택 전략 등의 사례를 동원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복잡계의 개념을 충실히 다진다. 2부에서는 복잡계 과학의 다양한 현실 적용 사례가 제시된다. 예를 들어 교통 혼잡을 덜려면 적정한 우회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왜 완벽한 주가 예측 모델은 있을 수 없는지, 전쟁의 거듭제곱 법칙이란 무엇인지, 암을 고사시키려는 새로운 치료법의 원리는 무엇인지 등의 사례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던 과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실생활을 파고든다. <br/> 퀴즈! 완벽한 파트너, 천생연분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지금 당장 사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을까? 복잡계 과학이 주는 답이 궁금한 사람은 이 책을 읽어보는 게 좋겠다.<br/> ‘과학책 읽는 보통 사람들’ 운영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38.txt

제목: 홍석천, 스캔들 나지 않는 '연예계 마당발'  
날짜: 2015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2110018318250  
본문: [한국스포츠경제 연예부] 한국스포츠경제는 요즘 가장 핫한 셀럽들의 빠르고 트렌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인스타스타'라는 코너를 선보입니다. 진실된 한 장의 사진은 열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이지요. 인스타스타를 통해 스타들의 민낯인듯 민낯 아닌 모습들을 함께 감상하시죠. 팔로우 팔로우미~.<br/> <br/>홍석천 (tonyhong1004ㆍ127k)<br/> <br/>얼마 전 홍석천이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뉴스에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콕의 폭탄 테러 현장 근처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팬들과 소통을 좋아하는 그는 인스타그램에도 사건 현장 사진과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홍석천은 심각한 글을 올리기 보단 자신의 일상을 주로 포스팅합니다. 지인들을 살펴보면 자타공인 '연예계 마당발'답습니다. 의외의 인물과 함께한 사진도 많았습니다.'마누라'는 있는데 스캔들은 나지 않는 '프로 게이' 홍석천. 인스타그램에서 그의 인맥을 살펴봤습니다.<br/> <br/> <br/>1<br/> <br/>#bkk 갑자기 큰 폭발음이들렸다 난 천둥소리인줄 알았다 잠시후 구급차 싸이렌소리와 움직이지않는 차들을 보고 뭔일이 생긴걸알았다. 내가 있던 씨암 파라곤 바로옆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단다. 폭탄이 터진걸로 알려지고있다. 한시간 전에 내가 지났던 곳이었는데 ㅠㅠㅠㅠ 더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유없이 희생되지 않길빈다<br/> <br/> <br/>2<br/> <br/>#대륙여신 #추자현 #이태원 #마이홍 에 식사하러온 내동생 #추자현 항상 겸손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여배우 자현이 오랫만에 보는 얼굴이지만 민낯에도 정말예쁜 ㅎ 마음은 더 예쁜 자현이 중국에서 성공하기까지 말 못할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녀의 성공과 미래에 박수를 보내고 나도 정말 더 열심히 해야함을 배운다 자현아 정말 반갑구 한국에서도 많은 활동 부탁해 ㅎ<br/> <br/> <br/>3<br/> <br/>#냉부해 오늘 드디어 #지디 #태양 과 함께 녹화를 끝냈다 난징 공연을 끝내고 와서 정말 피곤했을텐데 정말 재밌게 함께 해줘서 진심 고맙다.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큰기쁨을 주는 #빅뱅 멤버들 모두 건강하구 좋은 음악활동 보여주길 기도한다. 최고의 멤버들과 한 냉부해 많은 시청바랍니다. 오늘 판타스틱 했어여 ㅎ<br/> <br/> <br/>4<br/> <br/>#이찬오 세프의 예비신부 #김새롬 결혼을 앞둬서 그런지 더 예뻐졌다 새롬아 결혼 축하해 언제 찬오랑 집에서 와인마시며 심야영화 한편보자 ㅋㅋㅋㅋㅋㅋ<br/> <br/> <br/>5<br/> <br/>#wax 내 마누라 내 베프 내생일날 생일 축하노래 공짜로 세곡이상 불러주는 내 전속가수 ㅋㅋㅋㅋ우리 이쁜이 행복하자 ㅎㅎㅎ사랑해 왁양 ㅋㅋㅋ<br/> <br/> <br/>6<br/> <br/>#이기광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마주친 기광이 오랫만에 방갑네 이젠 멋진 연기자로 볼 수 있겠다. 기광아 홧팅 희애누나랑 하는건 다 대박야 힘내<br/> <br/> <br/>7<br/> <br/>#최민호 #샤이니 #박소담 #처음이라서 드라마 촬영시작 난 카메오 아침부터 민호랑 멱살잡고 다투는 장면 찍느라 벌써 녹초 두 젊은 연기자의 알콩달콩 연애드라마 기대하시라<br/><br/><br/>한국스포츠경제 webmaster@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39.txt

제목: 사망원인 81%는 만성질환, 잦은 흡연·음주 탓  
날짜: 2015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3803949  
본문: 암ㆍ당뇨ㆍ순환기계ㆍ호흡기질환 등 고혈압 환자 치료율 53%에 불과<br/>당뇨병 사망률은 OECD의 1.4배<br/><br/> <br/>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암, 순환기계 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 생활습관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20일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은‘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사망 중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이 81%를 차지했다. 이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신체 손상으로 인한 사망(12%), 폐렴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7%) 등의 순이었다. <br/> 만성질환 사망자 중에는 암(35%) 순환기계질환(22%) 당뇨병(5%) 만성 하기도(호흡기)질환(3%) 등 ‘4대 만성질환’사망자가 70%나 됐다. 전체 사망원인 상위 10개 중에서도 4위 자살(5.4%), 6위 폐렴(4.1%), 9위 운수 사고(2.3%)를 뺀 7개는 모두 만성질환이었다. <br/> 하지만 만성질환을 불러 일으키는 흡연, 음주 등의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0%를 웃돌았고, 1주일에 소주 5잔(여성), 7잔(남성) 이상 술을 마시는 술자리를 2번 이상 갖는 ‘고위험 음주율’도 12.5%나 됐다. 지방 과잉 섭취자도 2007년 12.5%에서 2013년 21.6%로 늘었다. 반면 꾸준하게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7년 54.7%에서 2013년 47.2%로 감소했다..<br/>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비만 등은 관리만 잘 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도 치료율은 낮았다. 성인 10명 중 3명이 앓고 있는 고혈압은 치료율이 53.6%에 불과했고, 고콜레스트롤혈증은 14.9%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3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8명)을 웃돌았고, 예방이나 치료를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사망을 뜻하는‘회피 가능 사망률’역시 38.8%로 영국에 비해 14.8%포인트나 높았다. 전체 사망자 중 10명 중 4명은 적절한 보건 정책이나 치료를 통해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내년에 모든 만성질환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만성질환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40.txt

제목: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날짜: 2015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3652716  
본문: 조력 자살 1942년 합법화, 전문병원 4곳… 1곳만 외국인 받아<br/>생명 경시 논란에도 美 20개주서 안락사 입법 추진 <br/>英은 하원서 지원안 내달 심의, 佛 시한부 환자의 선택권 인정<br/>허용 범위 넓히려는 움직임 확산<br/><br/><br/><br/>영국인 자매 타라 오레일리 베이커(40)씨와 로즈 베이커(29)씨는 지난달 17일 특별한 파티를 열었다. 어머니 재키 베이커(59)씨의 ‘존엄사’를 위한 모금 파티였다. 올 2월 사고로 신경손상 장애를 갖게 된 어머니는 “더 고통 받기 전에 편안히 죽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고, 자매는 어렵사리 이를 받아들였다. 자매는 안락사가 불법인 자국을 떠나 스위스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 위해 8,000유로(약 1,050만원)의 비용을 모으기로 결심했다. 타라씨는 “<span class='quot0'>처음엔 어머니의 결정에 화나고 겁났지만 지금은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어머니를 고통에 시달리게 두고 싶지 않다</span>”고 텔레그래프에 털어놨다.<br/> 이달 14일에는 폐암 진단을 받은 영국인 남성 밥콜(68)씨가 스위스에서 안락사했다. 파킨슨병을 앓던 부인이 이곳에서 안락사한 지 18개월 만이다. 앞서 3일에는 간호사 출신 영국 여성 길 파라오(75)씨도 “늙는 것이 끔찍하다”며 스위스로 가 안락사를 택했다.<br/> 이처럼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합법인 스위스로 ‘자살 관광’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출신까지 포함해 한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향하는 중이다. 이를 두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생명 경시 풍조와 자살 남용을 부추긴다는 비판 목소리도 거세다.<br/> <br/> 스위스 원정자살 한 해 200여명, 매년 증가<br/> 스위스는 1942년부터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합법화 해왔다. 법은 ▦본인이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제 3자의 압력이 없으며 ▦장기간 죽기를 원해온 사람을 돕는 것을 허용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스위스 형법은 의사가 처방한 치사약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복용하는 것만 허용하고, 의사를 포함한 제3자가 먹여주는 행위는 금한다. 115조는 자살을 하려는 이들을 ‘이기적 목적으로’ 돕는 사람은 최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br/> 스위스 안락사 지원 전문병원 4곳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을 받아주는 곳이 ‘디그니타스’ 병원이다. 콜 부부와 파라오씨가 안락사한 병원이기도 하다. 디그니타스에 따르면 1998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905명이 이곳에서 안락사했다. 이 가운데 스위스 거주자는 156명뿐이고 다른 국적자들이 1,749명에 이른다. 이들의 국적은 다양한데, 가장 많은 것은 독일인으로 920명에 달한다. 영국(273명) 프랑스(194) 이탈리아(79) 미국(51) 오스트리아(39) 캐나다(36명) 이스라엘ㆍ스페인(24명) 네달란드(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아시아 출신도 각각 1명씩 포함됐다. 디그니타스 병원에서 설립 당해 시행된 안락사는 6건에 불과했지만, 2003년 100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04건을 기록했다. <br/> 연령대와 이유도 다양하다. 디그니타스 병원의 설립자 루드비히 미넬리 원장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하루는 독일 뮌헨에서 택시를 타고 300㎞를 달려온 90대 노파가 병원을 찾았고 그 다음날은 20대 젊은 남성이 ‘당장 죽고 싶다’고 털어놓았다</span>”고 밝혔다. 간암과 췌장암으로 힘들어하다 디그니타스를 찾은 에드워드 도네스와 조안은 입원 당시 각각 85세, 74세였고, 훈련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럭비 선수 다니엘 제임스는 23세였다. 스위스 취리히대가 201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애’(370명)였으며 암(227) 류마티스질환(140) 심혈관질환(93) 정신질환(10) 순이었다.<br/> <br/><br/><br/> ‘디그니타스’ 조력 자살 절차는<br/> 디그니타스를 찾는 사람 모두가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이 정해놓은 일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절차는 우선 일정 가입비와 연회비를 내고 디그니타스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의료 진료 기록과 함께 본인이 삶을 포기하려는 이유를 자필로 정리한 문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수 차례 곱씹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는 취지다. 디그니타스 의사들은 이 문서들을 검토한 뒤 치사약을 처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승인이 되면 디그니타스 측과 안락사 날짜를 조율하고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전달 받는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의사와 신청자는 약속한 날짜에 병원이나 병원 소속 인근 주택에서 만남을 갖는다. 의사는 여기서 60㎖ 정도의 물에 펜토바르비탈나트륨 15㎎을 섞어 당사자에 주고 직접 복용케 한다. 동석한 디그니타스 직원은 이 모든 과정을 비디오 카메라로 기록한다. 비용에는 ▦가입비 및 연회비 227유로(약 30만원) ▦치사약 처방비 2,400유로(약 317만원) ▦승인 후 준비비 2,400유로 ▦상담비 800유로(약 105만원) ▦화장비 1,600유로(약 210만원) 등이 포함된다.<br/> 디그니타스는 매년 10만유로 가량을 각종 법적 분쟁에 쓸 만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인권 변호사 출신인 미넬리 원장은 안락사와 조력 자살 허용법이 꼭 유지돼야 할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누군가에게 자살과 관련해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주게 되면 그가 실제로 자살에 나설 확률이 오히려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미넬리 원장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이 최종 승인을 결정한 이들 중 80%는 결국 안락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넬리 원장은 또 조력 자살이 실제로 많은 이들의 정신ㆍ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고 있으며, 투신자살이나 약물복용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확률을 낮춰준다고 주장한다.<br/> <br/> 비판 거세지만 안락사 찬성 늘어<br/> 스위스가 외국인의 안락사나 조력 자살을 돕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수 있는 데다 자칫 취약계층 환자나 불치병 환자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안락사 반대 단체인 ‘케어낫킬링’은 “대부분 국가가 안락사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은 빈곤층과 장애인, 노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바로네스 이로라 핀레이 영국 카디프대 교수도 BBC에 “<span class='quot2'>법 제한 없이 의사들이 최종 결정자가 되면 안락사 결정이 너무 쉬워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일반인들이 생명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사랑하는 이의 안락사를 지켜본 가족이나 지인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10여년 전 스위스에서 안락사하는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본 한 독일 남성은 가디언에 “<span class='quot3'>어머니를 말리지 않은 게 후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3'>사랑하는 이가 고통 받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 한 선택이지만, 그를 어렵게 떠나 보내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 힘들다</span>”고 말했다. <br/> 최근 들어서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이들의 안락사를 허용해주어야 하느냐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하지만 노화하는 게 싫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택해 디그니타스에서 숨진 여성 파라오씨가 대표적이다. <br/> 현재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나라는 스위스를 비롯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소수다. 미국은 오리건주 등 5개주와 캐나다 퀘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에서 안락사 허용 입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다음달 하원에서 안락사 지원법안을 심의할 예정이고, 프랑스 하원은 올 3월 시한부 환자가 연명치료를 포함해 음식 및 수분 공급 등을 모두 중단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올 6월 식물인간 상태인 프랑스인 뱅상 랑베르(38)씨에게 인위적인 영양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유럽 인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15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조력 자살을 허용해야 하냐’는 질문에 찬성이 우세한 국가가 러시아 포르투갈을 제외한 13개국에 달하기도 했다.<br/> 의학전문 변호사 찰스 포스터는 법학 전문지 ‘저널 로’에 “<span class='quot4'>찬반 의견 모두 존중해야 하지만 이들 논리의 한가지 공통점은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4'>스위스가 자국민 외에도 외국인 원정자살을 끌어 안으려거든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승인 절차를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br/>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41.txt

제목: 사망원인 81%는 만성질환, 잦은 흡연·음주 탓  
날짜: 2015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2010018310800  
본문: 암ㆍ당뇨ㆍ순환기계ㆍ호흡기질환 등 고혈압 환자 치료율 53%에 불과<br/>당뇨병 사망률은 OECD의 1.4배<br/><br/> <br/>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암, 순환기계 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 생활습관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20일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은‘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사망 중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이 81%를 차지했다. 이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신체 손상으로 인한 사망(12%), 폐렴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7%) 등의 순이었다. <br/> 만성질환 사망자 중에는 암(35%) 순환기계질환(22%) 당뇨병(5%) 만성 하기도(호흡기)질환(3%) 등 ‘4대 만성질환’사망자가 70%나 됐다. 전체 사망원인 상위 10개 중에서도 4위 자살(5.4%), 6위 폐렴(4.1%), 9위 운수 사고(2.3%)를 뺀 7개는 모두 만성질환이었다. <br/> 하지만 만성질환을 불러 일으키는 흡연, 음주 등의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0%를 웃돌았고, 1주일에 소주 5잔(여성), 7잔(남성) 이상 술을 마시는 술자리를 2번 이상 갖는 ‘고위험 음주율’도 12.5%나 됐다. 지방 과잉 섭취자도 2007년 12.5%에서 2013년 21.6%로 늘었다. 반면 꾸준하게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7년 54.7%에서 2013년 47.2%로 감소했다..<br/>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비만 등은 관리만 잘 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도 치료율은 낮았다. 성인 10명 중 3명이 앓고 있는 고혈압은 치료율이 53.6%에 불과했고, 고콜레스트롤혈증은 14.9%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3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8명)을 웃돌았고, 예방이나 치료를 통해 막을 수 있었던 사망을 뜻하는‘회피 가능 사망률’역시 38.8%로 영국에 비해 14.8%포인트나 높았다. 전체 사망자 중 10명 중 4명은 적절한 보건 정책이나 치료를 통해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내년에 모든 만성질환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만성질환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42.txt

제목: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날짜: 201508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2010018308868  
본문: 조력 자살 1942년 합법화, 전문병원 4곳… 1곳만 외국인 받아<br/>생명 경시 논란에도 美 20개주서 안락사 입법 추진 <br/>英은 하원서 지원안 내달 심의, 佛 시한부 환자의 선택권 인정<br/>허용 범위 넓히려는 움직임 확산<br/><br/><br/><br/>영국인 자매 타라 오레일리 베이커(40)씨와 로즈 베이커(29)씨는 지난달 17일 특별한 파티를 열었다. 어머니 재키 베이커(59)씨의 ‘존엄사’를 위한 모금 파티였다. 올 2월 사고로 신경손상 장애를 갖게 된 어머니는 “더 고통 받기 전에 편안히 죽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고, 자매는 어렵사리 이를 받아들였다. 자매는 안락사가 불법인 자국을 떠나 스위스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 위해 8,000유로(약 1,050만원)의 비용을 모으기로 결심했다. 타라씨는 “<span class='quot0'>처음엔 어머니의 결정에 화나고 겁났지만 지금은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어머니를 고통에 시달리게 두고 싶지 않다</span>”고 텔레그래프에 털어놨다.<br/> 이달 14일에는 폐암 진단을 받은 영국인 남성 밥콜(68)씨가 스위스에서 안락사했다. 파킨슨병을 앓던 부인이 이곳에서 안락사한 지 18개월 만이다. 앞서 3일에는 간호사 출신 영국 여성 길 파라오(75)씨도 “늙는 것이 끔찍하다”며 스위스로 가 안락사를 택했다.<br/> 이처럼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합법인 스위스로 ‘자살 관광’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출신까지 포함해 한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향하는 중이다. 이를 두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생명 경시 풍조와 자살 남용을 부추긴다는 비판 목소리도 거세다.<br/> <br/> 스위스 원정자살 한 해 200여명, 매년 증가<br/> 스위스는 1942년부터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합법화 해왔다. 법은 ▦본인이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제 3자의 압력이 없으며 ▦장기간 죽기를 원해온 사람을 돕는 것을 허용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스위스 형법은 의사가 처방한 치사약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복용하는 것만 허용하고, 의사를 포함한 제3자가 먹여주는 행위는 금한다. 115조는 자살을 하려는 이들을 ‘이기적 목적으로’ 돕는 사람은 최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br/> 스위스 안락사 지원 전문병원 4곳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을 받아주는 곳이 ‘디그니타스’ 병원이다. 콜 부부와 파라오씨가 안락사한 병원이기도 하다. 디그니타스에 따르면 1998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905명이 이곳에서 안락사했다. 이 가운데 스위스 거주자는 156명뿐이고 다른 국적자들이 1,749명에 이른다. 이들의 국적은 다양한데, 가장 많은 것은 독일인으로 920명에 달한다. 영국(273명) 프랑스(194) 이탈리아(79) 미국(51) 오스트리아(39) 캐나다(36명) 이스라엘ㆍ스페인(24명) 네달란드(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아시아 출신도 각각 1명씩 포함됐다. 디그니타스 병원에서 설립 당해 시행된 안락사는 6건에 불과했지만, 2003년 100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04건을 기록했다. <br/> 연령대와 이유도 다양하다. 디그니타스 병원의 설립자 루드비히 미넬리 원장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하루는 독일 뮌헨에서 택시를 타고 300㎞를 달려온 90대 노파가 병원을 찾았고 그 다음날은 20대 젊은 남성이 ‘당장 죽고 싶다’고 털어놓았다</span>”고 밝혔다. 간암과 췌장암으로 힘들어하다 디그니타스를 찾은 에드워드 도네스와 조안은 입원 당시 각각 85세, 74세였고, 훈련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럭비 선수 다니엘 제임스는 23세였다. 스위스 취리히대가 201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애’(370명)였으며 암(227) 류마티스질환(140) 심혈관질환(93) 정신질환(10) 순이었다.<br/> <br/><br/><br/> ‘디그니타스’ 조력 자살 절차는<br/> 디그니타스를 찾는 사람 모두가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이 정해놓은 일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절차는 우선 일정 가입비와 연회비를 내고 디그니타스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의료 진료 기록과 함께 본인이 삶을 포기하려는 이유를 자필로 정리한 문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수 차례 곱씹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는 취지다. 디그니타스 의사들은 이 문서들을 검토한 뒤 치사약을 처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승인이 되면 디그니타스 측과 안락사 날짜를 조율하고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전달 받는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의사와 신청자는 약속한 날짜에 병원이나 병원 소속 인근 주택에서 만남을 갖는다. 의사는 여기서 60㎖ 정도의 물에 펜토바르비탈나트륨 15㎎을 섞어 당사자에 주고 직접 복용케 한다. 동석한 디그니타스 직원은 이 모든 과정을 비디오 카메라로 기록한다. 비용에는 ▦가입비 및 연회비 227유로(약 30만원) ▦치사약 처방비 2,400유로(약 317만원) ▦승인 후 준비비 2,400유로 ▦상담비 800유로(약 105만원) ▦화장비 1,600유로(약 210만원) 등이 포함된다.<br/> 디그니타스는 매년 10만유로 가량을 각종 법적 분쟁에 쓸 만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인권 변호사 출신인 미넬리 원장은 안락사와 조력 자살 허용법이 꼭 유지돼야 할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누군가에게 자살과 관련해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주게 되면 그가 실제로 자살에 나설 확률이 오히려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미넬리 원장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이 최종 승인을 결정한 이들 중 80%는 결국 안락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넬리 원장은 또 조력 자살이 실제로 많은 이들의 정신ㆍ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고 있으며, 투신자살이나 약물복용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확률을 낮춰준다고 주장한다.<br/> <br/> 비판 거세지만 안락사 찬성 늘어<br/> 스위스가 외국인의 안락사나 조력 자살을 돕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수 있는 데다 자칫 취약계층 환자나 불치병 환자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안락사 반대 단체인 ‘케어낫킬링’은 “대부분 국가가 안락사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은 빈곤층과 장애인, 노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바로네스 이로라 핀레이 영국 카디프대 교수도 BBC에 “<span class='quot2'>법 제한 없이 의사들이 최종 결정자가 되면 안락사 결정이 너무 쉬워질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일반인들이 생명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사랑하는 이의 안락사를 지켜본 가족이나 지인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10여년 전 스위스에서 안락사하는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본 한 독일 남성은 가디언에 “<span class='quot3'>어머니를 말리지 않은 게 후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3'>사랑하는 이가 고통 받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 한 선택이지만, 그를 어렵게 떠나 보내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 힘들다</span>”고 말했다. <br/> 최근 들어서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이들의 안락사를 허용해주어야 하느냐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하지만 노화하는 게 싫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택해 디그니타스에서 숨진 여성 파라오씨가 대표적이다. <br/> 현재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나라는 스위스를 비롯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소수다. 미국은 오리건주 등 5개주와 캐나다 퀘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에서 안락사 허용 입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다음달 하원에서 안락사 지원법안을 심의할 예정이고, 프랑스 하원은 올 3월 시한부 환자가 연명치료를 포함해 음식 및 수분 공급 등을 모두 중단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올 6월 식물인간 상태인 프랑스인 뱅상 랑베르(38)씨에게 인위적인 영양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유럽 인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15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조력 자살을 허용해야 하냐’는 질문에 찬성이 우세한 국가가 러시아 포르투갈을 제외한 13개국에 달하기도 했다.<br/> 의학전문 변호사 찰스 포스터는 법학 전문지 ‘저널 로’에 “<span class='quot4'>찬반 의견 모두 존중해야 하지만 이들 논리의 한가지 공통점은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4'>스위스가 자국민 외에도 외국인 원정자살을 끌어 안으려거든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승인 절차를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br/>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43.txt

제목: 서울 도착한 고 이맹희 20일 영결식, 장남 이재현 장례 참석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3235229  
본문: 지난 14일 중국에서 암으로 별세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오는 20일 오전 CJ인재원에서 엄수된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55) CJ그룹 회장도 법원이 허가해 부친 장례에 참석한다.<br/> CJ그룹은 17일 오후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운구된 이 명예회장 시신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고, 장례는 7일장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br/> 이채욱 CJ 대표가 장례위원장인 CJ그룹장으로, 조문은 18일 오전 9시 시작된다. 발인은 20일 오전 7시, 영결식은 한 시간 뒤인 오전 8시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진행된다.<br/>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20일까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해 부친 빈소에서 발인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br/>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건강상 이유로 현재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br/>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됐고, 이 명예회장 빈소도 같은 병원이라 별도의 주거지 변경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입원실과 장례식장 지번이 다른 것이 확인돼 이 회장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br/> 다만 영결식장은 주거제한 장소가 아닌데다 CJ그룹 관계자도 “<span class='quot0'>거동이 힘들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span>”고 밝힌 만큼 이 회장의 영결식 참석이나 장지 동행 등은 어려울 전망이다.<br/> 허재경기자 ricky@hankookilbo.com<br/>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44.txt

제목: 이재용 부회장, 故 이맹희 빈소 찾아 조문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3251510  
본문: 삼성-CJ그룹 화해 국면 맞을 듯<br/>이재현 회장, 거주변경 허가 빈소에<br/><br/>중국에서 암으로 별세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범 삼성가(家) 친족들이 찾아 조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의 조문으로 2013년 이맹희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 다툼으로 촉발된 양가의 갈등이 화해 국면을 맞게 될 지 주목된다.<br/>CJ그룹에 따르면 17일 오후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운구된 이 명예회장 시신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이채욱 CJ 대표가 장례위원장인 CJ그룹장으로, 조문은 18일 오전 9시 시작된다. 발인은 20일 오전 7시, 영결식은 한 시간 뒤인 오전 8시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진행된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55) CJ그룹 회장도 법원의 허가로 부친 장례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br/>공식 조문에 앞서 17일 오후 9시쯤 이재용 부회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이에 앞서 홍라희 관장과 이부진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도 조문했다. 당초 이재용 부회장의 조문 여부는 재계 안팎의 큰 관심사였다. 이 부회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할 경우 선대에서 발생한 ‘갈등의 골’이 일정부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br/> 이날 빈소에는 이 명예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여동생인 이숙희 여사, 이순희 전 제일기획 고문,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작고한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부인인 이영자 전 새한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재은 조선호텔 명예회장 등이 방문해 조문했다.<br/>재계에서는 이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재현 CJ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사촌인 이 부회장이 선처해달라고 제출한 적이 있는데다가 삼성과 CJ간 소송이 마무리된 상태여서 빈소를 찾아 조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왔다.<br/>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20일까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해 부친 빈소에서 발인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br/>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건강상 이유로 현재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br/>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됐고, 이 명예회장 빈소도 같은 병원이라 별도의 주거지 변경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입원실과 장례식장 지번이 다른 것이 확인돼 이 회장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br/>다만 영결식장은 주거제한 장소가 아닌데다 CJ그룹 관계자도 “<span class='quot0'>거동이 힘들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span>”고 밝힌 만큼 이 회장의 영결식 참석이나 장지 동행 등은 어려울 전망이다.<br/>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br/>권영은기자 you@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45.txt

제목: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시신 오늘 오후 서울로 운구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3121159  
본문: 지난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시신이 17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다.<br/> CJ그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오늘 오후 늦게 운구가 이뤄지지만 유족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도착 시각은 공개하기 어렵다</span>”고 밝혔다.<br/> 운구는 이 명예회장의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중국에서부터 가족 대표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은 이채욱 CJ주식회사 대표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주말까지 치를 예정이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되고, 조문은 18일 시작된다. <br/> 현재 구속 집행 정지 결정으로 같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명예회장의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입관식 등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br/> 허재경기자 ricky@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46.txt

제목: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시신 오늘 오후 서울로 운구  
날짜: 20150817  
기자: 허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17100000030  
본문: 지난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시신이 17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다.<br/> CJ그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오늘 오후 늦게 운구가 이뤄지지만 유족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도착 시각은 공개하기 어렵다</span>”고 밝혔다.<br/> 운구는 이 명예회장의 차남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중국에서부터 가족 대표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은 이채욱 CJ주식회사 대표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주말까지 치를 예정이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되고, 조문은 18일 시작된다. <br/> 현재 구속 집행 정지 결정으로 같은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명예회장의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입관식 등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br/> 허재경기자 ricky@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47.txt

제목: 서울 도착한 고 이맹희 20일 영결식, 장남 이재현 장례 참석  
날짜: 20150817  
기자: 허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17100000228  
본문: 지난 14일 중국에서 암으로 별세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오는 20일 오전 CJ인재원에서 엄수된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55) CJ그룹 회장도 법원이 허가해 부친 장례에 참석한다.<br/> CJ그룹은 17일 오후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운구된 이 명예회장 시신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고, 장례는 7일장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br/> 이채욱 CJ 대표가 장례위원장인 CJ그룹장으로, 조문은 18일 오전 9시 시작된다. 발인은 20일 오전 7시, 영결식은 한 시간 뒤인 오전 8시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진행된다.<br/>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20일까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해 부친 빈소에서 발인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br/>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건강상 이유로 현재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br/>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됐고, 이 명예회장 빈소도 같은 병원이라 별도의 주거지 변경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입원실과 장례식장 지번이 다른 것이 확인돼 이 회장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br/> 다만 영결식장은 주거제한 장소가 아닌데다 CJ그룹 관계자도 “<span class='quot0'>거동이 힘들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span>”고 밝힌 만큼 이 회장의 영결식 참석이나 장지 동행 등은 어려울 전망이다.<br/> 허재경기자 ricky@hankookilbo.com<br/>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48.txt

제목: 이재용 부회장, 故 이맹희 빈소 찾아 조문  
날짜: 20150817  
기자: 김청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17100000251  
본문: 삼성-CJ그룹 화해 국면 맞을 듯<br/>이재현 회장, 거주변경 허가 빈소에<br/>중국에서 암으로 별세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범 삼성가(家) 친족들이 찾아 조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의 조문으로 2013년 이맹희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 다툼으로 촉발된 양가의 갈등이 화해 국면을 맞게 될 지 주목된다.<br/>CJ그룹에 따르면 17일 오후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운구된 이 명예회장 시신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이채욱 CJ 대표가 장례위원장인 CJ그룹장으로, 조문은 18일 오전 9시 시작된다. 발인은 20일 오전 7시, 영결식은 한 시간 뒤인 오전 8시 서울 중구 CJ인재원에서 진행된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현(55) CJ그룹 회장도 법원의 허가로 부친 장례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br/>공식 조문에 앞서 17일 오후 9시쯤 이재용 부회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이에 앞서 홍라희 관장과 이부진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도 조문했다. 당초 이재용 부회장의 조문 여부는 재계 안팎의 큰 관심사였다. 이 부회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할 경우 선대에서 발생한 ‘갈등의 골’이 일정부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br/> 이날 빈소에는 이 명예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여동생인 이숙희 여사, 이순희 전 제일기획 고문,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작고한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부인인 이영자 전 새한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재은 조선호텔 명예회장 등이 방문해 조문했다.<br/>재계에서는 이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재현 CJ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사촌인 이 부회장이 선처해달라고 제출한 적이 있는데다가 삼성과 CJ간 소송이 마무리된 상태여서 빈소를 찾아 조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왔다.<br/>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20일까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해 부친 빈소에서 발인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br/>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건강상 이유로 현재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br/>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됐고, 이 명예회장 빈소도 같은 병원이라 별도의 주거지 변경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입원실과 장례식장 지번이 다른 것이 확인돼 이 회장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br/>다만 영결식장은 주거제한 장소가 아닌데다 CJ그룹 관계자도 “<span class='quot0'>거동이 힘들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span>”고 밝힌 만큼 이 회장의 영결식 참석이나 장지 동행 등은 어려울 전망이다.<br/>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br/>권영은기자 you@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49.txt

제목: 중년, 뇌졸증-대장암  
날짜: 2015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3027039  
본문: ▲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에서 뇌혈관이 얼마나 좁은지 검사를 진행하는 뇌혈류 초음파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br/>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1세를 넘겼다. 이제 80대는 기본인 시대가 온 것이다. 하지만 천수를 누리려면 40~50대에 필히 조심하고 관리를 시작해야 할 질병이 있다.<br/> <br/>바로 뇌졸증으로 인한 돌연사와 대장암이다. 최근 40~50대 중년층 사이에서 돌연사가 늘고 있다. 또 대장암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다.<br/> <br/>21세기에 들어오면서 40~50대는 왕성한 일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됐다. 제2의 청년이라 불릴 만큼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 한창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br/> <br/>▲뇌졸중 <br/> <br/>죽음의 급행열차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최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br/> <br/>2013년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는 50.3명에 이른다. 단일 장기 질환으로는 암을 제치고 사망률 1위를 차지했다.<br/> <br/>뇌졸중이란 뇌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통로인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뇌혈관질환을 말한다.<br/> <br/>대표적으로 혈관이 터져서 생긴 뇌졸중을 '뇌출혈',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한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일시적으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도 있다.<br/> <br/>암이 죽음으로 가는 완행 열차라면 뇌졸중은 급행열차다. 그만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발병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거나 반신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얻을 수 있다.<br/> <br/>따라서 정기 검진을 통해 뇌졸중 위험 인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br/> <br/>하지만 일반적인 종합 검진에는 뇌를 면밀히 검사할 수 있는 뇌 MRI(자가공명 영상)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뇌졸중의 위험 요인을 발견하기 어렵다.<br/> <br/>뇌 안의 구조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CT와 MRI 검사가 있다. CT 검사의 경우 뇌출혈을 식별할 수 있지만 뇌경색 및 급성 뇌졸중은 MRI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급성 뇌졸중으로 인한 돌연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하다.<br/> <br/>박찬익 참튼튼병원 구로지점 원장은 "평소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음과 흡연은 삼가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면서 "뇌졸중은 암에 비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MRI 검사를 통해 위험 인자를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br/> <br/>▲대장암<br/> <br/>대장암은 인생의 절정기를 넘기자 마자 찾아오는 질병이다.<br/> <br/>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과도한 동물성지방섭취, 섬유질 섭취부족, 칼슘이나 비타민 부족, 튀김이나 구운 음식 섭취, 운동부족 등 후천적 요인도 크다.<br/> <br/>우리나라 대장암 환자 100명 중 97명은 40대 이상 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장암 발생률이 40대 이상에서 크게 증가한다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식생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인 팜스코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 대장암 환자정보 1만8,430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br/> <br/>분석결과 대장암은 40대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병률의 97.4%가 40대 이후다. 40대(40~49세) 8.5%, 50대(50세~59세) 23.4%가 발병했다.<br/> <br/>또 60대(60세~69세) 29.1%, 70대(70세~79세) 28.5%, , 80대(80~89세) 7.4%인 것으로 보고됐다.<br/> <br/>대장암은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발병하지만 40대부터 크게 커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br/> <br/>그래서 전문가들은 장수를 원한다면 40대부터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br/> <br/>대장암은 진행속도가 느려 40대부터 꾸준히 관리하면 발병을 방지 할 수 있다. 또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대단히 높은 질병이기 때문이다.<br/> <br/>내과 전문의 윤승재 원장은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대장암은 극복할 수 있다. 40대부터는 최소 5년에 한번씩, 가능하다면 3년에 한번 씩은 검진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br/> <br/>한편 대장암 환자의 성별대비 최종 암병기는 1기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각61.4%, 38.6%로 나타났다. 그러나 4기로 갈수록 그 격차가 줄어 남성 58.2%, 여성 41.8%의 비율을 보였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50.txt

제목: [브리핑]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 교육기부 外  
날짜: 2015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3054820  
본문: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 교육기부<br/>NH농협은행의 ‘대학생봉사단 N돌핀’은 수도권에 사는 저소득층, 청소년, 다문화가정 중고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이틀간 대학교 학과탐방, 진로멘토링 등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농협은행이 실시하는 행복채움금융교실 중 하나로 최근 3년 간 4,234회 진행했으며 약 32만여명이 참여했다.<br/> <br/>국내 연구진, 당뇨치료 부작용 줄인 인슐린 대체 핵산물질 개발<br/>류성호 포항공대(POSTECH) 생명과학과 교수팀과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연구진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 인슐린으로 인한 암 발생이나 동맥경화 같은 부작용 위험은 줄인 새로운 핵산물질(Aptamer) ‘IR-A48’을 개발했다. 류 교수는 “<span class='quot0'>IR-A48을 이용한 신약 기술 개발에 7∼8년 정도가 걸릴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핵산 분야 국제학술지 ‘핵산연구’(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5일자)에 게재됐다.<br/> <br/>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br/>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이 신기술개발제품·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13가지 유형의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구매하도록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br/> <br/>한전, 필리핀 최대 배전회사 ‘메랄코’와 에너지신기술 협력<br/>한국전력이 필리핀 최대 배전회사인 메랄코와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정보와 인력을 교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14일 체결했다.<br/> <br/>동국·고려대, 중증천식 치료물질 제약사에 기술이전<br/>미래창조과학부는 동국대와 고려대가 개발한 중증 천식 등 난치성 호흡기 염증질환 치료물질 ‘PVS02696’을 한국파비스제약에 기술 이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물질은 동국대 이경·한효경 교수팀과 고려대 김재홍·최용석 교수팀이 공동 개발했다.<br/> <br/>기아차, 2016년형 K7 출시<br/><br/><br/><br/>기아자동차는 내ㆍ외관을 고급화하고 편의성을 높인 2016 K7을 17일 출시한다. 기존 2.4 모델 선택사양이었던 HID 헤드램프를 가솔린 3개 트림에 기본 적용했고, 3.3 모델에만 사용된 LED 안개램프도 전 트림에 달았다. 패키지 사양이었던 18인치와 19인치 알로이휠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2,984만~3,902만원이다. <br/> <br/>현대차, 국내 최초 365일 정비 서비스<br/>현대자동차는 전국 23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주말과 휴일에도 차를 고칠 수 있는 ‘365 열린 정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식적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정비를 해주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직영 센터 이외에 서비스 협력업체 블루핸즈도 전국 6대 광역시 100개 지점에서 365 서비스를 제공한다.<br/> <br/>LG전자 올레드 TV, 4년 연속 유럽영상음향협회상 수상<br/>LG전자는 16일 65인치 LG 울트라 올레드 TV가 유럽영상음향협회(EISA)의 ‘유럽 홈 씨어터 TV’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럽 오디오 전문지 편집장 50여명으로 구성된 이 상은 유럽 최고 권위의 영상음향분야 상이라는 게 LG전자의 설명이다.<br/> <br/>KT, 데이터 걱정없이 프로야구 2경기 동시 관람<br/>KT는 16일 두 곳의 프로야구경기를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볼 수 있는 ‘올레 기가 파워라이브 멀티채널’을 시범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5, 갤럭시노트3, 갤럭시A5, 갤럭시A7, 갤럭시S6, 갤럭시S6엣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br/> <br/>LG화학은 중국 로컬 1위 완성차업체인 창안(長安) 자동차가 2016년 이후 양산할 차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LG화학은 2009년부터 창안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배터리 단독 공급 계약 체결로 수천억원의 매출을 확보하게 됐다. LG화학 권영수 전지사업본부장은 “<span class='quot1'>이번 수주로 중국 로컬 브랜드 톱10 업체 중 절반 이상을 고객사로 확보하게 돼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게 됐다</span>”고 밝혔다.<br/> <br/>삼성물산 상사부문 해외봉사단이 국제아동 후원단체인 ‘플랜’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4일간 인도 델리 남동부 마단푸르 카다르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삼성물산 임직원과 가족, 인도 협력사 임직원 등 총 60여 명으로 이뤄진 해외봉사단은 교실 환경 미화, 화단 조성, 빗물 정화시설 및 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 활동과 티셔츠 페인팅, 미니 올림픽 등의 문화교류 활동을 수행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51.txt

제목: 美 슈퍼컴 233대 보유 압도적 1위  
날짜: 2015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3012099  
본문: 매년 반기 별로 500위까지 발표<br/>한국 기상청 보유 '우리'는 191위<br/><br/>미국과 중국이 ‘슈퍼컴퓨터’를 둘러싸고 자존심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다. 냉전시대 우주개발을 놓고 과거 미국과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양대 강국 미ㆍ중 이 상대보다 계산 속도가 빠른 컴퓨터를 보유하기 위해 정부주도이 총력적을 벌이기 시작했다. <br/> 지난달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2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미국 과학자들이 개발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또 가장 빠른 컴퓨터의 구체적 사양까지 제시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20배 더 빨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초당 연산 속도가 100경 회를 넘어서는 이른바 ‘엑사플롭’(Exaflop) 급 컴퓨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br/>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국가전략컴퓨팅계획’(NSCI)을 수립하고 가능한 빨리 새로운 슈퍼컴퓨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br/> 오바마 대통령이 ‘엑사플롭’급 컴퓨터 개발을 주문한 것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가 미국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2차대전 직후 컴퓨터가 개발된 이래 줄곧 이 분야를 주도해온 미국은 2013년 6월 중국에게 이 부문의 선두자리를 빼앗겼다. 중국이 미국 인텔 등에서 수입한 초고성능 반도체 칩을 조립해 ‘톈허(天河)-2’를 완성한 것. ‘톈허-2’는 초당 33.86페타플롭(Petaflop·1초당 1,000조회 연산)의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전까지 1위였던 미국 슈퍼컴퓨터보다 두 배가 빠르다.<br/> 영국 에든버러패럴렐컴퓨팅센터(EPCC)의 마크 파슨스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슈퍼컴퓨터 레이스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깨닫게 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번 계획은 중국에 빼앗긴 최고 자리를 찾아오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span>”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 과학ㆍ기술정책실의 톰 카릴 기술ㆍ혁신 부책임자도 “<span class='quot1'>지금 슈퍼컴퓨터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의 연산능력 수요와 기술개발에 대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수 십 년간 미국의 지도적 지위를 보장하게 될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 <br/> 이번 시도는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첫 사례가 아니다. 미국은 올 2월 대 중국 수출금지 품목에 인텔의 초고성능 칩 ‘제온’(Xeon)을 포함시켰다. 미국 상무부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는 무역거래가 금지되는 명단에 중국의 국방과학기술대학, 광저우 슈퍼컴센터 등을 추가했다. 국방과학기술대학은 중국 첨단무기기술 연구의 핵심이며, 광저우 슈퍼컴센터는 텐허-2호를 운영하는 주체다.<br/> 미국의 공세에 중국도 강력하게 맞받아 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초고성능 칩의 금수를 계속할 경우 러시아와 함께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온 직후인 이달 초에는 자신들도 8테라플롭 이상의 연산속도를 내는 슈퍼컴퓨터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r/> 전산분야의 세계적 컨설팅업체 IDC의 밥 소렌슨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2'>중국의 슈퍼컴퓨터 금수선언은 오히려 역설적인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다</span>”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 1위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고성능 상업 컴퓨터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여전히 뒤진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 발표에 맞서는 조치를 내놓겠다고 한 것은 미국과 대응할 정도로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br/>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슈퍼컴퓨터 대결을 벌이는 이유는 뭔가. 전문가들은 다가올 미래에는 슈퍼컴퓨터 성능이 곧 국가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br/> 슈퍼컴퓨터는 당장 군사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실제로 폭발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슈퍼컴퓨터만 있다면 보유 중인 핵폭탄의 성능을 개량시킬 수 있다.<br/> 정확한 날씨 예보와 유전자 분석이나 단층촬영을 통한 암 진단 등 일상생활에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슈퍼컴퓨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극한의 연산능력을 지닌 컴퓨터 파워가 요구되고 있다.<br/> 예컨대 슈퍼컴퓨팅은 가상화 기술을 통해 극대와 극미, 초고속과 초저속, 초고위험 등 인간의 역량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해 준다.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슈퍼컴퓨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IBM이 개발한 슈퍼컴퓨터 ‘왓슨’이 인간을 상대로 한 퀴즈 대결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대표 사례다. <br/> 산업 현장에서는 실시간 이미지 분석을 통해 불량품을 검사하고, 인터넷 포털 서비스에서는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 이미지 자동분류 기법에 슈퍼컴퓨터가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통로는 슈퍼컴퓨터일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br/> 상황이 이쯤 되자, 러시아도 미ㆍ중에 뒤지지 않으려고 자체 슈퍼컴퓨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의 견제로 원자력 분야에서 외국산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독자적인 슈퍼컴퓨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의 슈퍼컴퓨터 업체인 로스아톰은 2011년 초보적인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성능이 높아져 현재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 하지만 미ㆍ중의 슈퍼컴퓨터 대결이 과거 미ㆍ소의 군비경쟁처럼 쓸데 없는 자원낭비라는 혹평도 나온다. 두 나라가 보유한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만으로도 현재 기술수준의 복잡한 실험과 데이터 분석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br/>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임스 루이스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은 실질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pan class='quot2'>미국의 과학정책, 특히 컴퓨터 분야는 최근 수 년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과학정책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좌우되고, 과학계도 연방정부 연구예산을 차지하려는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다</span>”고 말했다. 또 “1위 컴퓨터만 보유했을 뿐 총 보유 슈퍼컴퓨터 대수와 활용도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과잉 대응으로 평가했다. <br/> 세계 1위 연산능력을 자랑하는 텐허-2호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span class='quot3'>중국 과학계의 현실에 비춰 톈허-2호의 계산 속도는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다</span>”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주요 물리학 연구소들이 톈허-2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뒤,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몸값이 24억위안(4,500억원)에 달하는 이 기계는 또 다른 ‘거품’이라고 지적했다.<br/>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52.txt

제목: 냉전시대 美·蘇 우주경쟁처럼… 美·中 슈퍼컴퓨터 개발 레이스  
날짜: 2015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3012570  
본문: 오바마 행정명령에 서명<br/>2025년까지 中보다 20배 빠른 엑사플롭급 주문하며 총력전 나서<br/>中, 톈허-2호 세계 최고 슈퍼컴<br/>2013년 이후 美 자존심에 상처, 고성능 칩 금수 조치 등 강력 견제<br/>속도= 국가경쟁력 "새로운 산업혁명 슈퍼컴서 시작"<br/><br/>미국과 중국이 ‘슈퍼컴퓨터’를 둘러싸고 자존심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다. 냉전시대 우주개발을 놓고 과거 미국과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양대 강국 미ㆍ중 이 상대보다 계산 속도가 빠른 컴퓨터를 보유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총력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br/> 지난달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2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미국 과학자들이 개발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또 가장 빠른 컴퓨터의 구체적 사양까지 제시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20배 더 빨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초당 연산 속도가 100경(京) 회를 넘어서는 이른바 ‘엑사플롭’(Exaflop) 급 컴퓨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br/>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국가전략컴퓨팅계획’(NSCI)을 수립하고 가능한 빨리 새로운 슈퍼컴퓨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br/> 오바마 대통령이 엑사플롭급 컴퓨터 개발을 주문한 것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가 미국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2차 대전 직후 컴퓨터가 개발된 이래 줄곧 이 분야를 주도해온 미국은 2013년 6월 중국에게 이 부문의 선두자리를 빼앗겼다. 중국이 미국 인텔 등에서 수입한 초고성능 반도체 칩을 조립해 ‘톈허(天河)-2’를 완성한 것. ‘톈허-2’는 초당 33.86페타플롭(Petaflop·1초당 1,000조회 연산)의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전까지 1위였던 미국 슈퍼컴퓨터보다 두 배가 빠르다.<br/> 영국 에든버러패럴렐컴퓨팅센터(EPCC)의 마크 파슨스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슈퍼컴퓨터 레이스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깨닫게 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번 계획은 중국에 빼앗긴 최고 자리를 찾아오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span>”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 과학ㆍ기술정책실의 톰 카릴 기술ㆍ혁신 부책임자도 “<span class='quot1'>지금 슈퍼컴퓨터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의 연산능력 수요와 기술개발에 대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수 십 년간 미국의 지도적 지위를 보장하게 될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 <br/> 이번 시도는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첫 사례가 아니다. 미국은 올 2월 대 중국 수출금지 품목에 인텔의 초고성능 칩 ‘제온’(Xeon)을 포함시켰다. 미국 상무부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는 무역거래가 금지되는 명단에 중국의 국방과학기술대학, 광저우 슈퍼컴센터 등을 추가했다. 국방과학기술대학은 중국 첨단무기기술 연구의 핵심이며, 광저우 슈퍼컴센터는 텐허-2호를 운영하는 주체다.<br/> 미국의 공세에 중국도 강력하게 맞받아 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초고성능 칩의 금수를 계속할 경우 러시아와 함께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온 직후인 이달 초에는 자신들도 8테라플롭 이상의 연산속도를 내는 슈퍼컴퓨터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r/> 전산분야의 세계적 컨설팅업체 IDC의 밥 소렌슨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2'>중국의 슈퍼컴퓨터 금수선언은 오히려 역설적인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다</span>”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 1위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고성능 상업 컴퓨터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여전히 뒤진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 발표에 맞서는 조치를 내놓겠다고 한 것은 미국과 대응할 정도로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br/>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슈퍼컴퓨터 대결을 벌이는 이유는 뭔가. 전문가들은 다가올 미래에는 슈퍼컴퓨터 성능이 곧 국가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br/> 슈퍼컴퓨터는 당장 군사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실제로 폭발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슈퍼컴퓨터만 있다면 보유 중인 핵폭탄의 성능을 개량시킬 수 있다.<br/> 정확한 날씨 예보와 유전자 분석이나 단층촬영을 통한 암 진단 등 일상생활에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슈퍼컴퓨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극한의 연산능력을 지닌 컴퓨터 파워가 요구되고 있다.<br/> 예컨대 슈퍼컴퓨팅은 가상화 기술을 통해 극대와 극미, 초고속과 초저속, 초고위험 등 인간의 역량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해 준다.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슈퍼컴퓨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IBM이 개발한 슈퍼컴퓨터 ‘왓슨’이 인간을 상대로 한 퀴즈 대결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대표 사례다. <br/> 산업 현장에서는 실시간 이미지 분석을 통해 불량품을 검사하고, 인터넷 포털 서비스에서는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 이미지 자동분류 기법에 슈퍼컴퓨터가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통로는 슈퍼컴퓨터일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br/> 상황이 이쯤 되자, 러시아도 미ㆍ중에 뒤지지 않으려고 자체 슈퍼컴퓨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의 견제로 원자력 분야에서 외국산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독자적인 슈퍼컴퓨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의 슈퍼컴퓨터 업체인 로스아톰은 2011년 초보적인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성능이 높아져 현재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 하지만 미ㆍ중의 슈퍼컴퓨터 대결이 과거 미ㆍ소의 군비경쟁처럼 쓸데 없는 자원낭비라는 혹평도 나온다. 두 나라가 보유한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만으로도 현재 기술수준의 복잡한 실험과 데이터 분석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br/>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임스 루이스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은 실질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pan class='quot2'>미국의 과학정책, 특히 컴퓨터 분야는 최근 수 년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과학정책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좌우되고, 과학계도 연방정부 연구예산을 차지하려는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다</span>”고 말했다. 또 “1위 컴퓨터만 보유했을 뿐 총 보유 슈퍼컴퓨터 대수와 활용도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과잉 대응으로 평가했다. <br/> 세계 1위 연산능력을 자랑하는 텐허-2호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span class='quot3'>중국 과학계의 현실에 비춰 톈허-2호의 계산 속도는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다</span>”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주요 물리학 연구소들이 톈허-2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뒤,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몸값이 24억위안(4,500억원)에 달하는 이 기계는 또 다른 ‘거품’이라고 지적했다.<br/>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53.txt

제목: 중년, 뇌졸증-대장암  
날짜: 2015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16100000050  
본문: ▲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에서 뇌혈관이 얼마나 좁은지 검사를 진행하는 뇌혈류 초음파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br/>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1세를 넘겼다. 이제 80대는 기본인 시대가 온 것이다. 하지만 천수를 누리려면 40~50대에 필히 조심하고 관리를 시작해야 할 질병이 있다.<br/> <br/>바로 뇌졸증으로 인한 돌연사와 대장암이다. 최근 40~50대 중년층 사이에서 돌연사가 늘고 있다. 또 대장암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다.<br/> <br/>21세기에 들어오면서 40~50대는 왕성한 일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됐다. 제2의 청년이라 불릴 만큼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 한창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br/> <br/>▲뇌졸중 <br/> <br/>죽음의 급행열차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최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br/> <br/>2013년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는 50.3명에 이른다. 단일 장기 질환으로는 암을 제치고 사망률 1위를 차지했다.<br/> <br/>뇌졸중이란 뇌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통로인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뇌혈관질환을 말한다.<br/> <br/>대표적으로 혈관이 터져서 생긴 뇌졸중을 '뇌출혈',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한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일시적으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도 있다.<br/> <br/>암이 죽음으로 가는 완행 열차라면 뇌졸중은 급행열차다. 그만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발병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거나 반신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얻을 수 있다.<br/> <br/>따라서 정기 검진을 통해 뇌졸중 위험 인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br/> <br/>하지만 일반적인 종합 검진에는 뇌를 면밀히 검사할 수 있는 뇌 MRI(자가공명 영상)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뇌졸중의 위험 요인을 발견하기 어렵다.<br/> <br/>뇌 안의 구조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CT와 MRI 검사가 있다. CT 검사의 경우 뇌출혈을 식별할 수 있지만 뇌경색 및 급성 뇌졸중은 MRI 검사를 통해서만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급성 뇌졸중으로 인한 돌연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하다.<br/> <br/>박찬익 참튼튼병원 구로지점 원장은 "평소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음과 흡연은 삼가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면서 "뇌졸중은 암에 비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MRI 검사를 통해 위험 인자를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br/> <br/>▲대장암<br/> <br/>대장암은 인생의 절정기를 넘기자 마자 찾아오는 질병이다.<br/> <br/>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과도한 동물성지방섭취, 섬유질 섭취부족, 칼슘이나 비타민 부족, 튀김이나 구운 음식 섭취, 운동부족 등 후천적 요인도 크다.<br/> <br/>우리나라 대장암 환자 100명 중 97명은 40대 이상 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장암 발생률이 40대 이상에서 크게 증가한다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식생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인 팜스코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 대장암 환자정보 1만8,430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br/> <br/>분석결과 대장암은 40대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병률의 97.4%가 40대 이후다. 40대(40~49세) 8.5%, 50대(50세~59세) 23.4%가 발병했다.<br/> <br/>또 60대(60세~69세) 29.1%, 70대(70세~79세) 28.5%, , 80대(80~89세) 7.4%인 것으로 보고됐다.<br/> <br/>대장암은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발병하지만 40대부터 크게 커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br/> <br/>그래서 전문가들은 장수를 원한다면 40대부터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br/> <br/>대장암은 진행속도가 느려 40대부터 꾸준히 관리하면 발병을 방지 할 수 있다. 또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대단히 높은 질병이기 때문이다.<br/> <br/>내과 전문의 윤승재 원장은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대장암은 극복할 수 있다. 40대부터는 최소 5년에 한번씩, 가능하다면 3년에 한번 씩은 검진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br/> <br/>한편 대장암 환자의 성별대비 최종 암병기는 1기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각61.4%, 38.6%로 나타났다. 그러나 4기로 갈수록 그 격차가 줄어 남성 58.2%, 여성 41.8%의 비율을 보였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54.txt

제목: [브리핑]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 교육기부 外  
날짜: 2015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16100000161  
본문: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 교육기부<br/>NH농협은행의 ‘대학생봉사단 N돌핀’은 수도권에 사는 저소득층, 청소년, 다문화가정 중고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이틀간 대학교 학과탐방, 진로멘토링 등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농협은행이 실시하는 행복채움금융교실 중 하나로 최근 3년 간 4,234회 진행했으며 약 32만여명이 참여했다.<br/> <br/>국내 연구진, 당뇨치료 부작용 줄인 인슐린 대체 핵산물질 개발<br/>류성호 포항공대(POSTECH) 생명과학과 교수팀과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연구진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 인슐린으로 인한 암 발생이나 동맥경화 같은 부작용 위험은 줄인 새로운 핵산물질(Aptamer) ‘IR-A48’을 개발했다. 류 교수는 “<span class='quot0'>IR-A48을 이용한 신약 기술 개발에 7∼8년 정도가 걸릴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핵산 분야 국제학술지 ‘핵산연구’(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5일자)에 게재됐다.<br/> <br/>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br/>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이 신기술개발제품·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13가지 유형의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구매하도록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br/> <br/>한전, 필리핀 최대 배전회사 ‘메랄코’와 에너지신기술 협력<br/>한국전력이 필리핀 최대 배전회사인 메랄코와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정보와 인력을 교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14일 체결했다.<br/> <br/>동국·고려대, 중증천식 치료물질 제약사에 기술이전<br/>미래창조과학부는 동국대와 고려대가 개발한 중증 천식 등 난치성 호흡기 염증질환 치료물질 ‘PVS02696’을 한국파비스제약에 기술 이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물질은 동국대 이경·한효경 교수팀과 고려대 김재홍·최용석 교수팀이 공동 개발했다.<br/> <br/>기아차, 2016년형 K7 출시<br/><br/><br/><br/>기아자동차는 내ㆍ외관을 고급화하고 편의성을 높인 2016 K7을 17일 출시한다. 기존 2.4 모델 선택사양이었던 HID 헤드램프를 가솔린 3개 트림에 기본 적용했고, 3.3 모델에만 사용된 LED 안개램프도 전 트림에 달았다. 패키지 사양이었던 18인치와 19인치 알로이휠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2,984만~3,902만원이다. <br/> <br/>현대차, 국내 최초 365일 정비 서비스<br/>현대자동차는 전국 23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주말과 휴일에도 차를 고칠 수 있는 ‘365 열린 정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식적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정비를 해주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직영 센터 이외에 서비스 협력업체 블루핸즈도 전국 6대 광역시 100개 지점에서 365 서비스를 제공한다.<br/> <br/>LG전자 올레드 TV, 4년 연속 유럽영상음향협회상 수상<br/>LG전자는 16일 65인치 LG 울트라 올레드 TV가 유럽영상음향협회(EISA)의 ‘유럽 홈 씨어터 TV’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럽 오디오 전문지 편집장 50여명으로 구성된 이 상은 유럽 최고 권위의 영상음향분야 상이라는 게 LG전자의 설명이다.<br/> <br/>KT, 데이터 걱정없이 프로야구 2경기 동시 관람<br/>KT는 16일 두 곳의 프로야구경기를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볼 수 있는 ‘올레 기가 파워라이브 멀티채널’을 시범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5, 갤럭시노트3, 갤럭시A5, 갤럭시A7, 갤럭시S6, 갤럭시S6엣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br/> <br/>LG화학은 중국 로컬 1위 완성차업체인 창안(長安) 자동차가 2016년 이후 양산할 차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에 배터리를 공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LG화학은 2009년부터 창안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배터리 단독 공급 계약 체결로 수천억원의 매출을 확보하게 됐다. LG화학 권영수 전지사업본부장은 “<span class='quot1'>이번 수주로 중국 로컬 브랜드 톱10 업체 중 절반 이상을 고객사로 확보하게 돼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게 됐다</span>”고 밝혔다.<br/> <br/>삼성물산 상사부문 해외봉사단이 국제아동 후원단체인 ‘플랜’과 함께 지난 10일부터 4일간 인도 델리 남동부 마단푸르 카다르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삼성물산 임직원과 가족, 인도 협력사 임직원 등 총 60여 명으로 이뤄진 해외봉사단은 교실 환경 미화, 화단 조성, 빗물 정화시설 및 화장실 설치 등 환경개선 활동과 티셔츠 페인팅, 미니 올림픽 등의 문화교류 활동을 수행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55.txt

제목: 美 슈퍼컴 233대 보유 압도적 1위  
날짜: 20150816  
기자: 조철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16100000042  
본문: 매년 반기 별로 500위까지 발표<br/>한국 기상청 보유 '우리'는 191위<br/>미국과 중국이 ‘슈퍼컴퓨터’를 둘러싸고 자존심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다. 냉전시대 우주개발을 놓고 과거 미국과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양대 강국 미ㆍ중 이 상대보다 계산 속도가 빠른 컴퓨터를 보유하기 위해 정부주도이 총력적을 벌이기 시작했다. <br/> 지난달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2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미국 과학자들이 개발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또 가장 빠른 컴퓨터의 구체적 사양까지 제시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20배 더 빨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초당 연산 속도가 100경 회를 넘어서는 이른바 ‘엑사플롭’(Exaflop) 급 컴퓨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br/>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국가전략컴퓨팅계획’(NSCI)을 수립하고 가능한 빨리 새로운 슈퍼컴퓨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br/> 오바마 대통령이 ‘엑사플롭’급 컴퓨터 개발을 주문한 것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가 미국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2차대전 직후 컴퓨터가 개발된 이래 줄곧 이 분야를 주도해온 미국은 2013년 6월 중국에게 이 부문의 선두자리를 빼앗겼다. 중국이 미국 인텔 등에서 수입한 초고성능 반도체 칩을 조립해 ‘톈허(天河)-2’를 완성한 것. ‘톈허-2’는 초당 33.86페타플롭(Petaflop·1초당 1,000조회 연산)의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전까지 1위였던 미국 슈퍼컴퓨터보다 두 배가 빠르다.<br/> 영국 에든버러패럴렐컴퓨팅센터(EPCC)의 마크 파슨스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슈퍼컴퓨터 레이스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깨닫게 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번 계획은 중국에 빼앗긴 최고 자리를 찾아오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span>”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 과학ㆍ기술정책실의 톰 카릴 기술ㆍ혁신 부책임자도 “<span class='quot1'>지금 슈퍼컴퓨터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의 연산능력 수요와 기술개발에 대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수 십 년간 미국의 지도적 지위를 보장하게 될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 <br/> 이번 시도는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첫 사례가 아니다. 미국은 올 2월 대 중국 수출금지 품목에 인텔의 초고성능 칩 ‘제온’(Xeon)을 포함시켰다. 미국 상무부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는 무역거래가 금지되는 명단에 중국의 국방과학기술대학, 광저우 슈퍼컴센터 등을 추가했다. 국방과학기술대학은 중국 첨단무기기술 연구의 핵심이며, 광저우 슈퍼컴센터는 텐허-2호를 운영하는 주체다.<br/> 미국의 공세에 중국도 강력하게 맞받아 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초고성능 칩의 금수를 계속할 경우 러시아와 함께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온 직후인 이달 초에는 자신들도 8테라플롭 이상의 연산속도를 내는 슈퍼컴퓨터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r/> 전산분야의 세계적 컨설팅업체 IDC의 밥 소렌슨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2'>중국의 슈퍼컴퓨터 금수선언은 오히려 역설적인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다</span>”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 1위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고성능 상업 컴퓨터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여전히 뒤진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 발표에 맞서는 조치를 내놓겠다고 한 것은 미국과 대응할 정도로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br/>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슈퍼컴퓨터 대결을 벌이는 이유는 뭔가. 전문가들은 다가올 미래에는 슈퍼컴퓨터 성능이 곧 국가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br/> 슈퍼컴퓨터는 당장 군사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실제로 폭발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슈퍼컴퓨터만 있다면 보유 중인 핵폭탄의 성능을 개량시킬 수 있다.<br/> 정확한 날씨 예보와 유전자 분석이나 단층촬영을 통한 암 진단 등 일상생활에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슈퍼컴퓨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극한의 연산능력을 지닌 컴퓨터 파워가 요구되고 있다.<br/> 예컨대 슈퍼컴퓨팅은 가상화 기술을 통해 극대와 극미, 초고속과 초저속, 초고위험 등 인간의 역량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해 준다.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슈퍼컴퓨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IBM이 개발한 슈퍼컴퓨터 ‘왓슨’이 인간을 상대로 한 퀴즈 대결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대표 사례다. <br/> 산업 현장에서는 실시간 이미지 분석을 통해 불량품을 검사하고, 인터넷 포털 서비스에서는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 이미지 자동분류 기법에 슈퍼컴퓨터가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통로는 슈퍼컴퓨터일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br/> 상황이 이쯤 되자, 러시아도 미ㆍ중에 뒤지지 않으려고 자체 슈퍼컴퓨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의 견제로 원자력 분야에서 외국산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독자적인 슈퍼컴퓨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의 슈퍼컴퓨터 업체인 로스아톰은 2011년 초보적인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성능이 높아져 현재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 하지만 미ㆍ중의 슈퍼컴퓨터 대결이 과거 미ㆍ소의 군비경쟁처럼 쓸데 없는 자원낭비라는 혹평도 나온다. 두 나라가 보유한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만으로도 현재 기술수준의 복잡한 실험과 데이터 분석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br/>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임스 루이스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은 실질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pan class='quot2'>미국의 과학정책, 특히 컴퓨터 분야는 최근 수 년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과학정책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좌우되고, 과학계도 연방정부 연구예산을 차지하려는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다</span>”고 말했다. 또 “1위 컴퓨터만 보유했을 뿐 총 보유 슈퍼컴퓨터 대수와 활용도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과잉 대응으로 평가했다. <br/> 세계 1위 연산능력을 자랑하는 텐허-2호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span class='quot3'>중국 과학계의 현실에 비춰 톈허-2호의 계산 속도는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다</span>”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주요 물리학 연구소들이 톈허-2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뒤,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몸값이 24억위안(4,500억원)에 달하는 이 기계는 또 다른 ‘거품’이라고 지적했다.<br/>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56.txt

제목: 냉전시대 美·蘇 우주경쟁처럼… 美·中 슈퍼컴퓨터 개발 레이스  
날짜: 20150816  
기자: 조철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16100000055  
본문: 오바마 행정명령에 서명<br/>2025년까지 中보다 20배 빠른 엑사플롭급 주문하며 총력전 나서<br/>中, 톈허-2호 세계 최고 슈퍼컴<br/>2013년 이후 美 자존심에 상처, 고성능 칩 금수 조치 등 강력 견제<br/>속도= 국가경쟁력 "새로운 산업혁명 슈퍼컴서 시작"<br/>미국과 중국이 ‘슈퍼컴퓨터’를 둘러싸고 자존심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다. 냉전시대 우주개발을 놓고 과거 미국과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양대 강국 미ㆍ중 이 상대보다 계산 속도가 빠른 컴퓨터를 보유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총력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br/> 지난달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2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미국 과학자들이 개발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또 가장 빠른 컴퓨터의 구체적 사양까지 제시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20배 더 빨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초당 연산 속도가 100경(京) 회를 넘어서는 이른바 ‘엑사플롭’(Exaflop) 급 컴퓨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br/>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국가전략컴퓨팅계획’(NSCI)을 수립하고 가능한 빨리 새로운 슈퍼컴퓨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br/> 오바마 대통령이 엑사플롭급 컴퓨터 개발을 주문한 것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가 미국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2차 대전 직후 컴퓨터가 개발된 이래 줄곧 이 분야를 주도해온 미국은 2013년 6월 중국에게 이 부문의 선두자리를 빼앗겼다. 중국이 미국 인텔 등에서 수입한 초고성능 반도체 칩을 조립해 ‘톈허(天河)-2’를 완성한 것. ‘톈허-2’는 초당 33.86페타플롭(Petaflop·1초당 1,000조회 연산)의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전까지 1위였던 미국 슈퍼컴퓨터보다 두 배가 빠르다.<br/> 영국 에든버러패럴렐컴퓨팅센터(EPCC)의 마크 파슨스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슈퍼컴퓨터 레이스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깨닫게 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번 계획은 중국에 빼앗긴 최고 자리를 찾아오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span>”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 과학ㆍ기술정책실의 톰 카릴 기술ㆍ혁신 부책임자도 “<span class='quot1'>지금 슈퍼컴퓨터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의 연산능력 수요와 기술개발에 대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수 십 년간 미국의 지도적 지위를 보장하게 될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 <br/> 이번 시도는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첫 사례가 아니다. 미국은 올 2월 대 중국 수출금지 품목에 인텔의 초고성능 칩 ‘제온’(Xeon)을 포함시켰다. 미국 상무부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는 무역거래가 금지되는 명단에 중국의 국방과학기술대학, 광저우 슈퍼컴센터 등을 추가했다. 국방과학기술대학은 중국 첨단무기기술 연구의 핵심이며, 광저우 슈퍼컴센터는 텐허-2호를 운영하는 주체다.<br/> 미국의 공세에 중국도 강력하게 맞받아 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초고성능 칩의 금수를 계속할 경우 러시아와 함께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온 직후인 이달 초에는 자신들도 8테라플롭 이상의 연산속도를 내는 슈퍼컴퓨터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r/> 전산분야의 세계적 컨설팅업체 IDC의 밥 소렌슨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2'>중국의 슈퍼컴퓨터 금수선언은 오히려 역설적인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다</span>”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 1위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고성능 상업 컴퓨터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여전히 뒤진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 발표에 맞서는 조치를 내놓겠다고 한 것은 미국과 대응할 정도로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br/>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슈퍼컴퓨터 대결을 벌이는 이유는 뭔가. 전문가들은 다가올 미래에는 슈퍼컴퓨터 성능이 곧 국가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br/> 슈퍼컴퓨터는 당장 군사분야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실제로 폭발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슈퍼컴퓨터만 있다면 보유 중인 핵폭탄의 성능을 개량시킬 수 있다.<br/> 정확한 날씨 예보와 유전자 분석이나 단층촬영을 통한 암 진단 등 일상생활에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슈퍼컴퓨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극한의 연산능력을 지닌 컴퓨터 파워가 요구되고 있다.<br/> 예컨대 슈퍼컴퓨팅은 가상화 기술을 통해 극대와 극미, 초고속과 초저속, 초고위험 등 인간의 역량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해 준다.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슈퍼컴퓨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IBM이 개발한 슈퍼컴퓨터 ‘왓슨’이 인간을 상대로 한 퀴즈 대결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대표 사례다. <br/> 산업 현장에서는 실시간 이미지 분석을 통해 불량품을 검사하고, 인터넷 포털 서비스에서는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 이미지 자동분류 기법에 슈퍼컴퓨터가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통로는 슈퍼컴퓨터일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br/> 상황이 이쯤 되자, 러시아도 미ㆍ중에 뒤지지 않으려고 자체 슈퍼컴퓨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의 견제로 원자력 분야에서 외국산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독자적인 슈퍼컴퓨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의 슈퍼컴퓨터 업체인 로스아톰은 2011년 초보적인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성능이 높아져 현재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 하지만 미ㆍ중의 슈퍼컴퓨터 대결이 과거 미ㆍ소의 군비경쟁처럼 쓸데 없는 자원낭비라는 혹평도 나온다. 두 나라가 보유한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만으로도 현재 기술수준의 복잡한 실험과 데이터 분석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br/>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제임스 루이스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은 실질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pan class='quot2'>미국의 과학정책, 특히 컴퓨터 분야는 최근 수 년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과학정책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좌우되고, 과학계도 연방정부 연구예산을 차지하려는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다</span>”고 말했다. 또 “1위 컴퓨터만 보유했을 뿐 총 보유 슈퍼컴퓨터 대수와 활용도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과잉 대응으로 평가했다. <br/> 세계 1위 연산능력을 자랑하는 텐허-2호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span class='quot3'>중국 과학계의 현실에 비춰 톈허-2호의 계산 속도는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다</span>”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주요 물리학 연구소들이 톈허-2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뒤,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몸값이 24억위안(4,500억원)에 달하는 이 기계는 또 다른 ‘거품’이라고 지적했다.<br/>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57.txt

제목: 이맹희, 이재현 CJ 회장 부친 별세  
날짜: 2015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2847392  
본문: 이맹희(84)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br/><br/> 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73)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br/><br/> CJ그룹 관계자는 14일 "이맹희 전 회장이 지병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간 오전 9시 39분 별세했다"고 밝혔다.<br/> <br/><br/><br/> 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br/><br/> 하지만 이듬해 말 암이 부신(콩팥 위에 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전이돼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았고, 2014년에는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 림프절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중국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등 투병생활을 해왔다.<br/> <br/><br/><br/> 이맹희 전 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3남 5녀 가운데 장남이었지만 후계 구도 싸움에서 밀리며 동생인 3남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기고 제일제당을 물려받아 독립했다.<br/><br/> 이맹희 전 부회장은 2012년 2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몰래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7,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br/> <br/><br/><br/> 한편 이맹희 전 회장의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천78억원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신장 이식 수술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br/><br/>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과 함께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58.txt

제목: 이맹희, 이재현 CJ 회장 부친 별세  
날짜: 201508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14100000072  
본문: 이맹희(84)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 14일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br/><br/> 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희(73)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부친이다.<br/><br/> CJ그룹 관계자는 14일 "이맹희 전 회장이 지병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간 오전 9시 39분 별세했다"고 밝혔다.<br/> <br/><br/><br/> 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12월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br/><br/> 하지만 이듬해 말 암이 부신(콩팥 위에 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전이돼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았고, 2014년에는 암세포가 혈액을 통해 림프절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중국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등 투병생활을 해왔다.<br/> <br/><br/><br/> 이맹희 전 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3남 5녀 가운데 장남이었지만 후계 구도 싸움에서 밀리며 동생인 3남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기고 제일제당을 물려받아 독립했다.<br/><br/> 이맹희 전 부회장은 2012년 2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몰래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7,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br/> <br/><br/><br/> 한편 이맹희 전 회장의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천78억원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뒤 신장 이식 수술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br/><br/>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과 함께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59.txt

제목: 고환암은 어떤 병인가요?  
날짜: 2015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2555534  
본문: 고환암을 극복한 운동선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환암은 어떤 병인가요?<br/> <br/> <br/>축구선수 로벤, 싸이클선수 암스트롱 등이 고환 암을 극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도 암에 걸리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데, 암을 극복하고 이런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br/> <br/>고환암은 그 성질만으로는 매우 빨리 자라는 암입니다. 그로 인해 고환이 몇 주 사이에서 급격히 커 지게 되어 대부분 초기에 암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기에 발견되어 조기에 치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치율이 90% 이상인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br/> <br/>일단은 고환의 크기가 커져 있으면, 고환 초음파검사와 피검사로 암 여부를 진단합니다. 암이라고 판단 되면 암이 발생한 고환을 제거 하게 되는데,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보통 1시간 이내에 끝이 나고 입원 기간도 매우 짧습니다. 이렇게 암을 제거 하더라도 추가 항암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이내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젊은 나이에 발병하게 되므로, 힘들긴 해도 항암치료를 비교적 잘 견뎌 냅니다. 항암치료에 대한 효과도 아주 좋은 편이어서 지금 언급한 정도의 치료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은 뒤라도, 2~3 년 뒤에는 남은 한쪽 고환으로만 아이를 갖는데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br/> <br/>만약 걸린 병이 몸 속 깊은 곳에서 생긴 큰 종양이라면, 그 종양을 떼는 수술만으로도 운동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환암은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그로부터의 회복이 조금은 덜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술 후 회복 기간과 항암치료만으로도 4~5 개월을 소요 하고, 그로 인한 공백과 극심한 체력소모를 극복하여 세계 정상에 선 그 의지에는 찬사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br/> <br/>운동선수가 아니고 고환 암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암에 걸리더라도 치료를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 입니다. 일상 생활에의 복귀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므로 평소에 건강 검진에 신경 쓰시는 걸 잊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br/> <br/>이영훈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비뇨기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60.txt

제목: 고환암은 어떤 병인가요?  
날짜: 2015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12100000061  
본문: 고환암을 극복한 운동선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환암은 어떤 병인가요?<br/> <br/> <br/>축구선수 로벤, 싸이클선수 암스트롱 등이 고환 암을 극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도 암에 걸리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데, 암을 극복하고 이런 성과를 거두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br/> <br/>고환암은 그 성질만으로는 매우 빨리 자라는 암입니다. 그로 인해 고환이 몇 주 사이에서 급격히 커 지게 되어 대부분 초기에 암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기에 발견되어 조기에 치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치율이 90% 이상인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br/> <br/>일단은 고환의 크기가 커져 있으면, 고환 초음파검사와 피검사로 암 여부를 진단합니다. 암이라고 판단 되면 암이 발생한 고환을 제거 하게 되는데,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보통 1시간 이내에 끝이 나고 입원 기간도 매우 짧습니다. 이렇게 암을 제거 하더라도 추가 항암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이내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젊은 나이에 발병하게 되므로, 힘들긴 해도 항암치료를 비교적 잘 견뎌 냅니다. 항암치료에 대한 효과도 아주 좋은 편이어서 지금 언급한 정도의 치료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은 뒤라도, 2~3 년 뒤에는 남은 한쪽 고환으로만 아이를 갖는데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br/> <br/>만약 걸린 병이 몸 속 깊은 곳에서 생긴 큰 종양이라면, 그 종양을 떼는 수술만으로도 운동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환암은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그로부터의 회복이 조금은 덜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술 후 회복 기간과 항암치료만으로도 4~5 개월을 소요 하고, 그로 인한 공백과 극심한 체력소모를 극복하여 세계 정상에 선 그 의지에는 찬사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br/> <br/>운동선수가 아니고 고환 암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암에 걸리더라도 치료를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 입니다. 일상 생활에의 복귀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므로 평소에 건강 검진에 신경 쓰시는 걸 잊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br/> <br/>이영훈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비뇨기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61.txt

제목: [지평선] 용변권  
날짜: 201508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2433328  
본문: 당장 화장실에 가라는 생체신호가 뇌에 전달되는 것은 방광에 소변이 300~400㏄정도 찼을 때다. 성인 남성의 방광에는 대체로 시간당 50~100㏄의 소변이 찬다. 따라서 늦어도 3, 4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아야 한다. 물론 방광은 더 많은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있다. 성인 남성의 방광이 저장 가능한 소변량은 최대 700~800㏄. 이때 방광의 팽창으로 방광 두께는 1.5㎝에서 3㎜까지 얇아진다. 하지만 이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방광이 터지진 않는다지만 몸에 이로울 리 없다. <br/> ▦소변을 오래, 자주 참으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소변에는 소화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 물질들과 세균들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소변이 체내에 오래 머물면 방광에 이상이 생긴다. 대표적인 질병이 대장균 등이 방광 내에서 번식해 생기는 방광염이다. 최근에는 소변을 오래 참는 행위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소변이 방광에 장시간 머무는 사이 소변 내 발암물질과 방광 점막 간 접촉 시간이 늘어나면서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br/> ▦힌만 증후군(Hinman syndrome)은 소변 참기를 강요당한 어린이들이 일으키는 배뇨 장애 증세를 말한다. 하지만 반드시 어린이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 때, 제 마음대로 생리 현상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장시간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성인들도 배뇨 장애를 비롯한 비뇨기계 질환에 노출돼 있다. 3~4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버스 기사, 대형 마트 캐셔, 자동화된 대형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등은 업무ㆍ직장 특성이나 근무 형태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시간 소변을 참아야 하는 남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br/>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시에 버스 회차 지점마다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업체가 할 일을 시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거리 간선 버스 기사들은 커피는 안마시고 식사후 물은 3분의 1컵만 마시는 등 매일 소변과의 전쟁을 치른다. 당연히 비뇨기계 질환을 앓을 위험이 높다. 간이 화장실 설치 장소는 결국 도로변이 될텐데 버스 업체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비용은 업체들이 대더라도 위치 선정이나 설계 등은 시가 주도적으로 처리해서 버스 기사들의 용변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맞다.<br/> 황상진 논설위원 april@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62.txt

제목: 구글 지주사 체제 전환… 차세대 먹거리 육성 나선다  
날짜: 201508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2444981  
본문: 지주사 세워 구글-자회사들 분리<br/>무인차·스마트안경 등 신사업 박차<br/>지주사는 공동창업자가 이끌고 <br/>자회사 구글 CEO엔 인도계 피차이<br/>"핵심사업에 집중 추세와 역행<br/>워런 버핏식 복합기업" 평가도 <br/><br/>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지주사 전환을 선언했다. 다양한 자회사를 세워 여러 사업들을 관리하고 지주사는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전세계 인터넷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혁신을 통해 새 사업을 추구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란 위기 의식의 발로다.<br/> 10일(현지시간)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페이지는 구글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지주사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구글은 알파벳이란 이름의 지주사를 만들어 그 밑에 구글과 구글X, 파이버, 칼리코 등 다양한 사업 자회사를 두는 방식이다. 래리 페이지 CEO는 “<span class='quot0'>알파벳이란 이름은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의미하는 알파를 추구(Alpha-bet)한다는 의지의 표현</span>”이라고 밝혔다.<br/> 자회사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용체제(OS), 인터넷 검색과 지도(구글맵), 동영상(유튜브), 수익사업인 인터넷광고 등 주력 사업을 맡는다. 무인 자동차와 스마트 안경(구글 글래스), 스마트홈, 노화 예방과 암 치료 등의 바이오, 벤처 투자와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등 미래 먹거리를 대비한 신규 사업은 구글 X, 파이버, 칼리코 등이 담당한다. . 래리 페이지 CEO는 “<span class='quot0'>첨단기술 분야에서 적당히 머무르는 것이 불편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주사 체제 개편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사업들을 가능하게 할 것</span>”이라고 봤다.<br/><br/><br/> 구글 공동창업자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지주사인 알파벳 CEO와 사장을 맡기로 했다. 자회사 구글의 CEO는 인도계 순다르 피차이 수석부사장이 발탁됐다. 2004년 구글에 합류한 뒤 크롬 개발팀에서 일했던 피차이는 지난해 10월 구글 조직개편 때 사실상 구글을 총괄하면서 이미 창업자들의 후계자로 꼽혔다.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지난해 임명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이타 나델라 CEO 이후 두번째 인도계 CEO다.<br/> 외신들은 구글의 지주사 변신을 성장 관점에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span class='quot1'>기민하게 새로운 사업을 찾기에 구글의 덩치가 너무 커졌다는 것이 창업자들 시각</span>”이라고 평했다.<br/> 투자자들의 불만도 작용했다. 영국 타임즈는 “<span class='quot2'>구글이 너무 다양한 사업을 벌여서 정체성을 모르겠다는 것이 구글 투자자들의 오랜 불만</span>”이라고 전했다. 구글 매출의 90%는 인터넷 검색과 검색 광고에서 나온다. 지주사 체제가 되면 구글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을 때보다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는 지 자금 흐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br/> 하지만 구글의 지주사 전환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포브스는 구글의 개편을 ‘워런 버펫 식의 복합기업’이라고 평했다. 투자가 워런 버펫은 버크셔해서웨이라는 투자 회사를 중심으로 보험, 구두, 속옷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포브스지는 “구글의 행보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핵심 역량에 힘을 모으는 최근 추세와 다르다”며 “결국 래리 페이지가 워런 버펫만큼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자금 운용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br/>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63.txt

제목: [지평선] 용변권  
날짜: 20150811  
기자: 황상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11100000125  
본문: 당장 화장실에 가라는 생체신호가 뇌에 전달되는 것은 방광에 소변이 300~400㏄정도 찼을 때다. 성인 남성의 방광에는 대체로 시간당 50~100㏄의 소변이 찬다. 따라서 늦어도 3, 4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아야 한다. 물론 방광은 더 많은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있다. 성인 남성의 방광이 저장 가능한 소변량은 최대 700~800㏄. 이때 방광의 팽창으로 방광 두께는 1.5㎝에서 3㎜까지 얇아진다. 하지만 이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방광이 터지진 않는다지만 몸에 이로울 리 없다. <br/> ▦소변을 오래, 자주 참으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소변에는 소화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 물질들과 세균들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소변이 체내에 오래 머물면 방광에 이상이 생긴다. 대표적인 질병이 대장균 등이 방광 내에서 번식해 생기는 방광염이다. 최근에는 소변을 오래 참는 행위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소변이 방광에 장시간 머무는 사이 소변 내 발암물질과 방광 점막 간 접촉 시간이 늘어나면서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br/> ▦힌만 증후군(Hinman syndrome)은 소변 참기를 강요당한 어린이들이 일으키는 배뇨 장애 증세를 말한다. 하지만 반드시 어린이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 때, 제 마음대로 생리 현상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장시간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성인들도 배뇨 장애를 비롯한 비뇨기계 질환에 노출돼 있다. 3~4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버스 기사, 대형 마트 캐셔, 자동화된 대형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등은 업무ㆍ직장 특성이나 근무 형태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시간 소변을 참아야 하는 남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br/>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시에 버스 회차 지점마다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업체가 할 일을 시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거리 간선 버스 기사들은 커피는 안마시고 식사후 물은 3분의 1컵만 마시는 등 매일 소변과의 전쟁을 치른다. 당연히 비뇨기계 질환을 앓을 위험이 높다. 간이 화장실 설치 장소는 결국 도로변이 될텐데 버스 업체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비용은 업체들이 대더라도 위치 선정이나 설계 등은 시가 주도적으로 처리해서 버스 기사들의 용변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맞다.<br/> 황상진 논설위원 april@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64.txt

제목: 구글 지주사 체제 전환… 차세대 먹거리 육성 나선다  
날짜: 20150811  
기자: 조태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11100000166  
본문: 지주사 세워 구글-자회사들 분리<br/>무인차·스마트안경 등 신사업 박차<br/>지주사는 공동창업자가 이끌고 <br/>자회사 구글 CEO엔 인도계 피차이<br/>"핵심사업에 집중 추세와 역행<br/>워런 버핏식 복합기업" 평가도 <br/>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지주사 전환을 선언했다. 다양한 자회사를 세워 여러 사업들을 관리하고 지주사는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전세계 인터넷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혁신을 통해 새 사업을 추구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란 위기 의식의 발로다.<br/> 10일(현지시간)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페이지는 구글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지주사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구글은 알파벳이란 이름의 지주사를 만들어 그 밑에 구글과 구글X, 파이버, 칼리코 등 다양한 사업 자회사를 두는 방식이다. 래리 페이지 CEO는 “<span class='quot0'>알파벳이란 이름은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의미하는 알파를 추구(Alpha-bet)한다는 의지의 표현</span>”이라고 밝혔다.<br/> 자회사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용체제(OS), 인터넷 검색과 지도(구글맵), 동영상(유튜브), 수익사업인 인터넷광고 등 주력 사업을 맡는다. 무인 자동차와 스마트 안경(구글 글래스), 스마트홈, 노화 예방과 암 치료 등의 바이오, 벤처 투자와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등 미래 먹거리를 대비한 신규 사업은 구글 X, 파이버, 칼리코 등이 담당한다. . 래리 페이지 CEO는 “<span class='quot0'>첨단기술 분야에서 적당히 머무르는 것이 불편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주사 체제 개편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사업들을 가능하게 할 것</span>”이라고 봤다.<br/><br/> 구글 공동창업자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지주사인 알파벳 CEO와 사장을 맡기로 했다. 자회사 구글의 CEO는 인도계 순다르 피차이 수석부사장이 발탁됐다. 2004년 구글에 합류한 뒤 크롬 개발팀에서 일했던 피차이는 지난해 10월 구글 조직개편 때 사실상 구글을 총괄하면서 이미 창업자들의 후계자로 꼽혔다.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지난해 임명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이타 나델라 CEO 이후 두번째 인도계 CEO다.<br/> 외신들은 구글의 지주사 변신을 성장 관점에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span class='quot1'>기민하게 새로운 사업을 찾기에 구글의 덩치가 너무 커졌다는 것이 창업자들 시각</span>”이라고 평했다.<br/> 투자자들의 불만도 작용했다. 영국 타임즈는 “<span class='quot2'>구글이 너무 다양한 사업을 벌여서 정체성을 모르겠다는 것이 구글 투자자들의 오랜 불만</span>”이라고 전했다. 구글 매출의 90%는 인터넷 검색과 검색 광고에서 나온다. 지주사 체제가 되면 구글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을 때보다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는 지 자금 흐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br/> 하지만 구글의 지주사 전환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포브스는 구글의 개편을 ‘워런 버펫 식의 복합기업’이라고 평했다. 투자가 워런 버펫은 버크셔해서웨이라는 투자 회사를 중심으로 보험, 구두, 속옷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포브스지는 “구글의 행보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핵심 역량에 힘을 모으는 최근 추세와 다르다”며 “결국 래리 페이지가 워런 버펫만큼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자금 운용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br/>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65.txt

제목: 4대 중병 치료비 부담 줄었지만… 다른 질병들은 '사각지대'  
날짜: 201508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1958389  
본문: 암, 심ㆍ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br/>"병마다 다른 보장에 형평성 논란… 사회보험 취지와도 안 맞아" 지적<br/><br/> <br/>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65)씨는 지난해 7월 직장암 4기 진단을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치료비를 어떻게 댈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둔 이씨의 수입은 매달 받는 국민연금 25만원이 전부였다. 치료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루었지만 이씨는 2주마다 한 번씩 맞아야 하는 항암치료제‘얼비툭스’비용이 크게 줄었다는 병원의 설명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한 번 맞을 때 223만 2,000원을 내야했던 이 치료제에 지난해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씨는 5% 수준인 11만1,600원만 부담하면 됐다. 이씨는 “<span class='quot1'>당시 암에 걸리면 집 팔고 재산 다 탕진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생각나 앞이 캄캄했다</span>”며 “<span class='quot1'>한 달에 약값으로 400만원 넘게 내야 했다면 나도 치료를 포기했을 것</span>”이라고 털어 놓았다. “<span class='quot0'>치료초기 머리가 많이 빠지고 체중이 15㎏이나 줄어 친한 친구들도 자신을 못 알아볼 정도였다</span>”는 이씨는 “<span class='quot0'>꾸준한 항암치료 덕택에 몸무게도 늘었고 혈색도 되찾아 이제 완치된 수준</span>”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br/>이씨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암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이씨의 의지였다. 여기에 정부의 4대 중증질환(암, 심ㆍ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정책도 큰 도움이 됐다. 정부는 2013년부터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비용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2013년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고가 항암제와 MRI(자기공명영상), 올해는 유방재건술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항목 176개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됐다. 복지부는 약 750만1,000명(중복 포함)이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6년까지 총 628개 비급여 항목에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br/> 정부는 2005년 4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10%로, 2009년부터는 5%로 낮춰주는‘산정특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들 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좀처럼 감소하지 않았다. 산정특례제도는 급여항목에만 적용되는데, 비급여항목의 의료비가 계속 늘어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실제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2011년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항목의 의료비 증가율(25%)은 급여항목의 의료비 증가율(13%)보다 2배 정도 가팔랐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공약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 부담 때문에 결국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전액 보장은 포기했지만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br/><br/>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은 크게 확대됐지만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다른 질환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2008~2011년 한국의료패널을 분석한 논문‘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의료비가 평균 131.3% 증가하지만 소아마비, 뇌성마비 등 다른 중증질환에 걸리면 평균 151.2% 증가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보장성이 다른 것은 각자 형편에 따라 보험료는 달리하되 혜택은 공평하게 누린다는 사회보험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2'>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질환자는 4대 중증질환보다 더 가파른 의료비 증가를 겪으면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span>”며“<span class='quot2'>특정 질병 중심으로 한 산정특례제도를 소득수준별로 보장률을 차등화하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하면 질병 간ㆍ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3'>2016년까지는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다른 질환들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계속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66.txt

제목: 인하대 포괄간호병동 가 보니  
날짜: 201508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1853625  
본문: 보호자ㆍ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운동ㆍ머리 감기 등 24시간 수발<br/>낙상사고 年 3건서 0.8건으로<br/><br/><br/><br/> <br/> 인천 중구 인항로 인하대병원 동 11병동은 보호자와 간병인으로 북적대는 일반 병동과 차이가 난다. 일부 환자들 곁에만 보호자가 있을 뿐 과일, 음료수 등을 손에 든 문병객조차 보이지 않는다. 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은 일반 병동보다 2배는 많다.<br/> 이곳은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이하 포괄 병동), 이른바‘보호자 없는 병동’이다. 포괄 병동은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 간호인력이 24시간 입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는 수술 전후나 면회시간에만 환자 곁을 지킨다. 일반 병동은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12~14명이지만 포괄 병동은 7, 8명 수준으로 간호인력이 더 많다.<br/> 동 11병동 함영주 수간호사는 “<span class='quot0'>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남성 병동 도우미가 30분 간격으로 순회하면서 환자들을 돌본다</span>”며 “<span class='quot0'>그 동안 보호자들에게 맡겼던 환자들 운동 시키기,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체위 바꾸기, 머리 감겨주고 씻기기, 소변량 측정 등을 전문 간호인력이 하기 때문에 환자 회복의 질이 높아진다</span>”고 말했다.<br/> 포괄 병동이 최근 각광받는 이유는 일반인이 아닌 간호인력이 간병을 맡기 때문에 체계적인 감염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환자 곁을 지키고 문병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우리 병원 문화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만 보호자나 문병객이 드나들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이 낮고 하루 7만원 수준인 간병비 부담도 덜 수 있다.<br/> 함 수간호사는 “도입 초기에는 환자 곁에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간호사, 환자, 보호자 모두 불안해 하기도 했다”며 “특히 환자들이 요구사항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br/> 하지만 포괄 병동 도입 2년 후 환자들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다. 병실 가동률도 일반 병동 수준인 80~90%(평일 기준)으로 올랐다.<br/> 2014년 병원 자체 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포괄 병동은 평균 96.4점으로, 일반 병동(평균 89.4점)보다 높았다. 포괄 병동에 재입원할 의사가 있는 환자가 87.0%에 이르렀다.<br/> 병원 측의 4개 포괄 병동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는 병동당 평균 연 0.8건으로 포괄 병동 지정 전인 2012년 3.0건에 비해 감소했다. 욕창 발생도 같은 기간 연 13.8건에서 7.5건으로 줄었다. 환자 입원일 수도 7.0일에서 6.1일로 0.9일 줄어 조기 회복률이 높았다.<br/> 포괄 병동에서 한달째 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유영희(49·여)씨는 “가까이서 간호사가 돌봐주는 것이 환자 입장에선 좋다”며 “다만 간호 인력이 교대될 때 바로 처치 같은 것이 안될 때가 있어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br/> <br/> <br/>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67.txt

제목: 4대 중병 치료비 부담 줄었지만… 다른 질병들은 '사각지대'  
날짜: 20150809  
기자: 남보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09100000133  
본문: 암, 심ㆍ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br/>"병마다 다른 보장에 형평성 논란… 사회보험 취지와도 안 맞아" 지적<br/> <br/>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65)씨는 지난해 7월 직장암 4기 진단을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치료비를 어떻게 댈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둔 이씨의 수입은 매달 받는 국민연금 25만원이 전부였다. 치료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루었지만 이씨는 2주마다 한 번씩 맞아야 하는 항암치료제‘얼비툭스’비용이 크게 줄었다는 병원의 설명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한 번 맞을 때 223만 2,000원을 내야했던 이 치료제에 지난해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씨는 5% 수준인 11만1,600원만 부담하면 됐다. 이씨는 “<span class='quot1'>당시 암에 걸리면 집 팔고 재산 다 탕진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생각나 앞이 캄캄했다</span>”며 “<span class='quot1'>한 달에 약값으로 400만원 넘게 내야 했다면 나도 치료를 포기했을 것</span>”이라고 털어 놓았다. “<span class='quot0'>치료초기 머리가 많이 빠지고 체중이 15㎏이나 줄어 친한 친구들도 자신을 못 알아볼 정도였다</span>”는 이씨는 “<span class='quot0'>꾸준한 항암치료 덕택에 몸무게도 늘었고 혈색도 되찾아 이제 완치된 수준</span>”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br/>이씨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암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이씨의 의지였다. 여기에 정부의 4대 중증질환(암, 심ㆍ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정책도 큰 도움이 됐다. 정부는 2013년부터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비용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2013년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고가 항암제와 MRI(자기공명영상), 올해는 유방재건술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항목 176개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됐다. 복지부는 약 750만1,000명(중복 포함)이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6년까지 총 628개 비급여 항목에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br/> 정부는 2005년 4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10%로, 2009년부터는 5%로 낮춰주는‘산정특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들 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좀처럼 감소하지 않았다. 산정특례제도는 급여항목에만 적용되는데, 비급여항목의 의료비가 계속 늘어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실제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2011년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항목의 의료비 증가율(25%)은 급여항목의 의료비 증가율(13%)보다 2배 정도 가팔랐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공약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 부담 때문에 결국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전액 보장은 포기했지만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br/>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은 크게 확대됐지만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다른 질환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2008~2011년 한국의료패널을 분석한 논문‘건강보험의 질병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의료비가 평균 131.3% 증가하지만 소아마비, 뇌성마비 등 다른 중증질환에 걸리면 평균 151.2% 증가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보장성이 다른 것은 각자 형편에 따라 보험료는 달리하되 혜택은 공평하게 누린다는 사회보험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2'>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질환자는 4대 중증질환보다 더 가파른 의료비 증가를 겪으면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span>”며“<span class='quot2'>특정 질병 중심으로 한 산정특례제도를 소득수준별로 보장률을 차등화하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하면 질병 간ㆍ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3'>2016년까지는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다른 질환들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계속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68.txt

제목: 인하대 포괄간호병동 가 보니  
날짜: 20150809  
기자: 이환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09100000057  
본문: 보호자ㆍ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운동ㆍ머리 감기 등 24시간 수발<br/>낙상사고 年 3건서 0.8건으로<br/><br/><br/><br/> <br/> 인천 중구 인항로 인하대병원 동 11병동은 보호자와 간병인으로 북적대는 일반 병동과 차이가 난다. 일부 환자들 곁에만 보호자가 있을 뿐 과일, 음료수 등을 손에 든 문병객조차 보이지 않는다. 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은 일반 병동보다 2배는 많다.<br/> 이곳은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이하 포괄 병동), 이른바‘보호자 없는 병동’이다. 포괄 병동은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 간호인력이 24시간 입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는 수술 전후나 면회시간에만 환자 곁을 지킨다. 일반 병동은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12~14명이지만 포괄 병동은 7, 8명 수준으로 간호인력이 더 많다.<br/> 동 11병동 함영주 수간호사는 “<span class='quot0'>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남성 병동 도우미가 30분 간격으로 순회하면서 환자들을 돌본다</span>”며 “<span class='quot0'>그 동안 보호자들에게 맡겼던 환자들 운동 시키기,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체위 바꾸기, 머리 감겨주고 씻기기, 소변량 측정 등을 전문 간호인력이 하기 때문에 환자 회복의 질이 높아진다</span>”고 말했다.<br/> 포괄 병동이 최근 각광받는 이유는 일반인이 아닌 간호인력이 간병을 맡기 때문에 체계적인 감염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환자 곁을 지키고 문병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우리 병원 문화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만 보호자나 문병객이 드나들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이 낮고 하루 7만원 수준인 간병비 부담도 덜 수 있다.<br/> 함 수간호사는 “도입 초기에는 환자 곁에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간호사, 환자, 보호자 모두 불안해 하기도 했다”며 “특히 환자들이 요구사항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br/> 하지만 포괄 병동 도입 2년 후 환자들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다. 병실 가동률도 일반 병동 수준인 80~90%(평일 기준)으로 올랐다.<br/> 2014년 병원 자체 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포괄 병동은 평균 96.4점으로, 일반 병동(평균 89.4점)보다 높았다. 포괄 병동에 재입원할 의사가 있는 환자가 87.0%에 이르렀다.<br/> 병원 측의 4개 포괄 병동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는 병동당 평균 연 0.8건으로 포괄 병동 지정 전인 2012년 3.0건에 비해 감소했다. 욕창 발생도 같은 기간 연 13.8건에서 7.5건으로 줄었다. 환자 입원일 수도 7.0일에서 6.1일로 0.9일 줄어 조기 회복률이 높았다.<br/> 포괄 병동에서 한달째 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유영희(49·여)씨는 “가까이서 간호사가 돌봐주는 것이 환자 입장에선 좋다”며 “다만 간호 인력이 교대될 때 바로 처치 같은 것이 안될 때가 있어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br/> <br/> <br/>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69.txt

제목: [동정] 성균관대 김정탁 교수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 최우수논문상  
날짜: 2015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201251987  
본문: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김정탁 교수가 지난달 30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암과 동아시아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논문으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70.txt

제목: [동정] 성균관대 김정탁 교수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 최우수논문상  
날짜: 201508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06100000118  
본문: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김정탁 교수가 지난달 30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암과 동아시아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논문으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71.txt

제목: 등 돌린 형제들… 아파트 한 채 놓고 소송까지  
날짜: 201508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195417427  
본문: 법정싸움 4년 만에 2배 이상↑<br/><br/><br/> 장남인 A씨는 아버지 생전 19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 받았다. 형제인 B씨와 C씨는 각각 2억6,000만원, 4억3,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는 1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고, 이 유산은 법정 비율에 따라 어머니와 A씨 형제가 각각 1.5 대 1 대 1 대 1로 나눠 가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암 환자인 아버지를 간병했고, 수년 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한 걸 감안하면 부족한 액수라며, 어머니와 형제를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냈다.<br/> A씨가 기여분 30％를 주장하며 먼저 이를 떼어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자, 어머니도 A씨를 상대로 “남편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 내 기여분 30％를 인정해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맞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5부 재판부(부장 송인우)는 A씨 어머니의 기여분 20％를 인정하고, 나아가 자식들이 이미 증여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넣어 총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뒤 어머니까지 네 사람의 상속분을 다시 나눴다. A씨는 소송전을 촉발시켜 오히려 유산이 줄어 들었다.<br/> 롯데그룹의 2세 간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이처럼 일반인들의 상속재산 다툼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2011년 154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매년 20∼30％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5일 현재까지 176건이 접수돼,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br/>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를 두고도 형제간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다</span>”고 설명했다. 수십, 수백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벌이던 과거와 달리, 소액의 상속재산이라도 한 푼을 더 받기 위해 가족간 법정다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현상이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 실업률 증가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스로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상속재산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br/> 장자 존중, 남녀 차별의 가치관이 사라지면서 차남이나 딸이 부모의 상속재산 균등배분을 적극 요구하게 된 것도 상속재산 다툼 증가의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br/>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72.txt

제목: 등 돌린 형제들… 아파트 한 채 놓고 소송까지  
날짜: 20150805  
기자: 김관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05100000217  
본문: 법정싸움 4년 만에 2배 이상↑<br/><br/><br/> 장남인 A씨는 아버지 생전 19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 받았다. 형제인 B씨와 C씨는 각각 2억6,000만원, 4억3,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아버지는 1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고, 이 유산은 법정 비율에 따라 어머니와 A씨 형제가 각각 1.5 대 1 대 1 대 1로 나눠 가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암 환자인 아버지를 간병했고, 수년 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한 걸 감안하면 부족한 액수라며, 어머니와 형제를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냈다.<br/> A씨가 기여분 30％를 주장하며 먼저 이를 떼어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자, 어머니도 A씨를 상대로 “남편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 내 기여분 30％를 인정해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맞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5부 재판부(부장 송인우)는 A씨 어머니의 기여분 20％를 인정하고, 나아가 자식들이 이미 증여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넣어 총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뒤 어머니까지 네 사람의 상속분을 다시 나눴다. A씨는 소송전을 촉발시켜 오히려 유산이 줄어 들었다.<br/> 롯데그룹의 2세 간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이처럼 일반인들의 상속재산 다툼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2011년 154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매년 20∼30％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5일 현재까지 176건이 접수돼,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br/>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를 두고도 형제간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다</span>”고 설명했다. 수십, 수백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벌이던 과거와 달리, 소액의 상속재산이라도 한 푼을 더 받기 위해 가족간 법정다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현상이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 실업률 증가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스로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상속재산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br/> 장자 존중, 남녀 차별의 가치관이 사라지면서 차남이나 딸이 부모의 상속재산 균등배분을 적극 요구하게 된 것도 상속재산 다툼 증가의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br/>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73.txt

제목: 건강상담 Q&A 대장내시경 검진주기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194644842  
본문: 건강상담 Q&A 대장내시경 검진주기<br/> 김재희 대구 덕재내과원장<br/> <br/> Q.40대 남성입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진 주기는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br/> A.중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이 좋습니다.<br/> <br/>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여러 건강 정보가 넘쳐나지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역시 ‘예방’과 ‘조기검진’입니다. 어떤 병이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까닭입니다.<br/>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운동부족, 흡연, 과음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성인병과 각종 암에 쉽게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질병을 유발할만한 위험요소를 찾아 예방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br/> 각종 질환의 치료율이 높아진 이유도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질환을 발견한 것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봅니다. <br/> 위암의 경우 위내시경을 통해 조기 진단만 되면 90% 이상이 완치됩니다.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시경을 통해 간단하게 암 조직을 제거합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검진으로 암의 전단계 병변을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암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방암도 검진으로 조기 진단만 되면 유방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고 암을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br/> <br/> 대장암 가족력 있으면 내시경 일찍 시작해야<br/> 암은 자각증상이 없습니다. 정기검진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대장암은 대부분 대장용종(폴립)에서 발생하므로 대장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대장암의 전단계인 대장용종을 제거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장용종은 대장내시경 검사로 찾아냅니다. <br/> 갑작스러운 변비 증상이 생기거나 대변에 혈액이 묻어나오는 상황, 혹은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면 대장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대장암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대장에 양성 종양이 있다고 진단 받은 사람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br/> <br/> 대한대장항문학회는 50세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5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으라고 권고하지만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br/> 질병은 발병하면 완전히 치료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정기검진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한다면 큰 병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몸 상태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기검진 시기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74.txt

제목: 이화의료원,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승철 교수 임명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194703418  
본문: 이화의료원,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승철 교수 임명<br/> - 이대목동병원장에는 유경하 교수 선임<br/> <br/> 이화의료원은 제15대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승철 교수(58·산부인과)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제11대 이대목동병원장에는 유경하 교수(55·소아청소년과)가 선임됐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각각 2년이다. <br/> <br/> 김승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부인암 분야 국내 최고의 명의로 손꼽히며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와 대한산부인과학회 감사,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br/> <br/> 경기고와 서울대 의대(1982년)를 졸업한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미국 UIHC 부인암 연구소 연구 교수를 지낸 바 있으며 이대목동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 의무부장, 이대목동병원장과 함께 초대 이대여성암병원장,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장,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임상 및 수술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br/> <br/> 이와 함께 새롭게 이대목동병원장에 임명된 유경하 교수는 혜원여고와 이화의대(1984년)를 졸업, 1996년부터 이화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해왔다.<br/> <br/> 소아종양, 혈액종양 분야의 명의로 손꼽히는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이사,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이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대목동병원 초대 진료협력센터장과 교육연구부장,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며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75.txt

제목: [채널선택] 광복 이후 한국인의 체형과 건강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194538409  
본문: 광복70년 특집-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왔나 4부작 (KBS1 밤 10.00)<br/> 광복 이후 70년 동안 한국인의 몸,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 체형, 암, 전염병, 정신건강 주제로 나눠 한국인의 건강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1부 체형 편에선 한국인의 체형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짚어본다. 1953년부터 2000년까지의 남성 평균신장을 비교해보면 166.42cm에서 173.4cm로, 약 7cm 커졌다.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와 경제적 풍요를 겪은 세대 간에 체형 차이는 어떨지 영양학적, 유전학적 요인으로 살펴본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76.txt

제목: 이화의료원,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승철 교수 임명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60107194534162  
본문: 이화의료원은 제15대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승철 교수(58·산부인과)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제11대 이대목동병원장에는 유경하 교수(55·소아청소년과)가 선임됐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각각 2년이다.<br/> <br/> ▲ 김승철 신임 의료원장 (사진제공=이화의료원) <br/>김승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부인암 분야 국내 최고의 명의로 손꼽히며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와 대한산부인과학회 감사,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왔다.<br/> <br/>경기고와 서울대 의대(1982년)를 졸업한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미국 UIHC 부인암 연구소 연구 교수를 지낸 바 있으며 이대목동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 의무부장, 이대목동병원장과 함께 초대 이대여성암병원장,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장,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임상 및 수술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br/> <br/> ▲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사진제공=이화의료원) <br/>이와 함께 새롭게 이대목동병원장에 임명된 유경하 교수는 혜원여고와 이화의대(1984년)를 졸업, 1996년부터 이화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해왔다.<br/> <br/>소아종양, 혈액종양 분야의 명의로 손꼽히는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이사,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이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대목동병원 초대 진료협력센터장과 교육연구부장,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며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77.txt

제목: 건강상담 Q&A 대장내시경 검진주기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03100000163  
본문: 건강상담 Q&A 대장내시경 검진주기<br/> 김재희 대구 덕재내과원장<br/> <br/> Q.40대 남성입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진 주기는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br/> A.중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이 좋습니다.<br/> <br/>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여러 건강 정보가 넘쳐나지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역시 ‘예방’과 ‘조기검진’입니다. 어떤 병이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까닭입니다.<br/>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운동부족, 흡연, 과음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성인병과 각종 암에 쉽게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질병을 유발할만한 위험요소를 찾아 예방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br/> 각종 질환의 치료율이 높아진 이유도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질환을 발견한 것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봅니다. <br/> 위암의 경우 위내시경을 통해 조기 진단만 되면 90% 이상이 완치됩니다.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시경을 통해 간단하게 암 조직을 제거합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검진으로 암의 전단계 병변을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암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방암도 검진으로 조기 진단만 되면 유방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고 암을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br/> <br/> 대장암 가족력 있으면 내시경 일찍 시작해야<br/> 암은 자각증상이 없습니다. 정기검진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대장암은 대부분 대장용종(폴립)에서 발생하므로 대장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대장암의 전단계인 대장용종을 제거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장용종은 대장내시경 검사로 찾아냅니다. <br/> 갑작스러운 변비 증상이 생기거나 대변에 혈액이 묻어나오는 상황, 혹은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면 대장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대장암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대장에 양성 종양이 있다고 진단 받은 사람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br/> <br/> 대한대장항문학회는 50세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5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으라고 권고하지만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br/> 질병은 발병하면 완전히 치료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정기검진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한다면 큰 병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몸 상태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기검진 시기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78.txt

제목: [채널선택] 광복 이후 한국인의 체형과 건강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03100000113  
본문: 광복70년 특집-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왔나 4부작 (KBS1 밤 10.00)<br/> 광복 이후 70년 동안 한국인의 몸,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 체형, 암, 전염병, 정신건강 주제로 나눠 한국인의 건강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1부 체형 편에선 한국인의 체형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짚어본다. 1953년부터 2000년까지의 남성 평균신장을 비교해보면 166.42cm에서 173.4cm로, 약 7cm 커졌다.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와 경제적 풍요를 겪은 세대 간에 체형 차이는 어떨지 영양학적, 유전학적 요인으로 살펴본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79.txt

제목: 이화의료원,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승철 교수 임명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03100000199  
본문: 이화의료원,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승철 교수 임명<br/> - 이대목동병원장에는 유경하 교수 선임<br/> <br/> 이화의료원은 제15대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승철 교수(58·산부인과)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제11대 이대목동병원장에는 유경하 교수(55·소아청소년과)가 선임됐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각각 2년이다. <br/> <br/> 김승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부인암 분야 국내 최고의 명의로 손꼽히며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와 대한산부인과학회 감사,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br/> <br/> 경기고와 서울대 의대(1982년)를 졸업한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미국 UIHC 부인암 연구소 연구 교수를 지낸 바 있으며 이대목동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 의무부장, 이대목동병원장과 함께 초대 이대여성암병원장,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장,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임상 및 수술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br/> <br/> 이와 함께 새롭게 이대목동병원장에 임명된 유경하 교수는 혜원여고와 이화의대(1984년)를 졸업, 1996년부터 이화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해왔다.<br/> <br/> 소아종양, 혈액종양 분야의 명의로 손꼽히는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이사,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이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대목동병원 초대 진료협력센터장과 교육연구부장,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며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80.txt

제목: 이화의료원,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승철 교수 임명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803100000076  
본문: 이화의료원은 제15대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김승철 교수(58·산부인과)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제11대 이대목동병원장에는 유경하 교수(55·소아청소년과)가 선임됐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각각 2년이다.<br/> <br/> ▲ 김승철 신임 의료원장 (사진제공=이화의료원) <br/>김승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 부인암 분야 국내 최고의 명의로 손꼽히며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와 대한산부인과학회 감사,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왔다.<br/> <br/>경기고와 서울대 의대(1982년)를 졸업한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미국 UIHC 부인암 연구소 연구 교수를 지낸 바 있으며 이대목동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 의무부장, 이대목동병원장과 함께 초대 이대여성암병원장, 이대여성암정복특성화연구센터장,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임상 및 수술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br/> <br/> ▲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사진제공=이화의료원) <br/>이와 함께 새롭게 이대목동병원장에 임명된 유경하 교수는 혜원여고와 이화의대(1984년)를 졸업, 1996년부터 이화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해왔다.<br/> <br/>소아종양, 혈액종양 분야의 명의로 손꼽히는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이사,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이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대목동병원 초대 진료협력센터장과 교육연구부장,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며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81.txt

제목: 현실을 부정하는 셩향이 없었다면…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다  
날짜: 201507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31100000038  
본문: ‘부정 본능’은 아지트 바르키와 고(故) 대니 브라워의 리믹스 출판물이다. 대니 브라워는 분자생물학자이며 유전학자로서 이 책의 주된 아이디어를 연구하던 도중 미완성 원고를 남기고 희귀질병으로 사망했다. 책을 완성시킨 것은 고인과 단 한 번 만나 연구주제를 공유하고 이후 10년 이상 연구를 지속했던, 의사이며 당(糖)생물학 연구의 권위자인 아지트 바르키다. <br/> 저자들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중 적어도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와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두 물음은 과학적 탐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영장류학, 진화생물학, 신경과학, 언어학 및 인류학 등 인간 본성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총망라한 후 자신들의 가설을 과감하게 제시한다. <br/> 유전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최신의 분류학에 의하면 대형 유인원(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과 인간을 합쳐 호미니드라고 분류하며 우리와 침팬지의 공통조상이 나타난 후(700만~500만년 전)에 출현한 화석종을 호미닌이라고 한다. 영국의 루이스 리키 연구팀이 발견해낸 약 200만년 전부터 시작되는 화석들은 호모라는 속명을 얻었는데 이들은 이전에 비해 두뇌가 약간 커졌고 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생 인류(호모 사피엔스)와 매우 유사한 골격을 갖춘 뼈는 약 20만년 전부터 비로소 등장한다. <br/> 저자들은 20만년 전 출현한 ‘해부학적으로 현대적인 인간’과 10만년 전에 출현한 ‘행동 측면에서 현대적인 인간’을 구분한다. 후자는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이후 전 지구에 퍼져 다른 종들 가령 구인류인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등을 대체했다. 이들은 다른 종과는 구별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장식물을 만들었으며 자신의 모습과 활동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위해 치장했다. 이는 인류가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을 갖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마음의 이론이란 “한 개체가 자신을 인식할 뿐 아니라 다른 개체 또한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을 안다는 뜻”으로 고도의 인지능력을 의미한다. <br/> 저자들은 마음의 이론을 갖게 되면 죽음에 대한 엄청난 의식적 공포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 흔적은 약 10만년 전에 처음으로 나타난 장례의식을 통해 알 수 있다. 만약 이 공포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생존과 번식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적응도가 낮아져 진화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게 된다. 현생 인류의 일부는 이런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의 기제를 발전시켰는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고유한 본성이라는 것이다. <br/> 현실을 부정하는 인간의 성향은 탈리 샤롯과 같은 뇌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 인간이 가진 낙관주의적 편향도 일종의 현실 부정 성향으로 볼 수 있다. 현실 부정 성향은 암 투병과 같은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구온난화와 같은 위기를 애써 외면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결론이다.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저자들의 주장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br/><br/> ‘과학책 읽는 보통 사람들’ 운영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82.txt

제목: '암살' 개봉 7일째 400만 돌파…'어벤져스2'와 동급  
날짜: 201507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28100000150  
본문: 영화 '암살'이 개봉 7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br/> <br/>암살의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암살'은 28일 오후 3시 30분(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배급사 기준)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br/> <br/>400만 돌파 속도는 역대 여름 개봉 1,000만 관객 영화인 '도둑들', '괴물'보다 하루 빠르다. 특히 역대 외화 최단기간 기록을 싹 갈아치운 올해 최고 흥행작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같은 기록이다.<br/> <br/>'암살'은 앞서 주말(24~26일)에만 244만3,081명을 극장으로 불러들이며 흥행 순항 중이다. 역대 한국영화 주말 박스오피스 2위의 기록이다.<br/> <br/>'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일본군, 친일파 암살작전을 벌이는 독립군과 임시정부대원, 청부살인업자들의 엇갈린 선택과 운명을 그렸다.<br/><br/><br/>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83.txt

제목: 평화의 섬, 제주… 그들은 다시 행진을 시작했다  
날짜: 20150727  
기자: 김영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27100000129  
본문: 해군기지 반대 투쟁 3000일 앞두고 <br/>강정평화대행진단 250여명 대장정<br/>5박6일간 섬 전역 돌아 강정서 합류<br/><br/> <br/> “<span class='quot0'>제주도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span>”<br/> 27일 오전 제주도청 앞마당. 이날 제주 해군기지 건설중단을 촉구하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단 사이에서 만난 가이안(11ㆍ경기 양평군)양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세 번째 행진에 참가한 가양은 “솔직히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지만 해군기지가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을 위한 군사시설인 것은 틀림없지 않느냐”며 “그저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매년 제주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진단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던 가양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br/>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에서 평화를 위한 행진이 시작됐다. ‘함께 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를 주제로 강정생명평화대행진단이 제주 전역을 돌며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나선 것이다. 벌써 올해로 6번째다. 특히 이번 행진은 다음달 3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3,000일을 앞두고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br/>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출발한 행진단엔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홍기룡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집행위원장, 문정현 신부, 이태호 제주해군기지저지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리아리나스 필리핀 평화여성파트너 회장 등 외국 평화활동가, 강정주민 등 250여명이 함께 했다. <br/> 행진 참가자들은 이날 출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벌써 3,000일이다. 지금까지 강정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말도, 제주를 생명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며 “해군기지가 지어지고 나면 제주는 일본의 오키나와와 미국의 괌처럼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참가자들은 이어 “행진에 참가한 세계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한국의 대표적인 반기지 평화구축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작은 마을 강정에서 우리나라의 평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또 필리핀에서 온 리아리나스 앙겔레스 평화여성파트너 회장도 필리핀 수비크만 지역 미군기지 철거운동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span class='quot1'>오랜 투쟁 끝에 미군기지가 철수했지만 미군이 버린 유독성 폐기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암 등 중증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빈곤과 성매매와 같은 사회 문제들이 계속돼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강정마을과 제주도가 필리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돕기 위해 행진에 동참하게 됐다</span>”고 말했다. <br/>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강정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이들은 5박 6일간 제주의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걸어 다음달 1일 강정마을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부근에서 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인간 띠잇기 행사를 가진 후 2015 평화대행진 해단식과 함께 해군기지 반대 투쟁 3,000일 범국민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행진 참가자들은 31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br/>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span class='quot2'>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그만 두고 싶어도 정부와 해군이 그만 둘 수 없게 만들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마을주민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한편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출발에 앞서 지난 24일 바다에서는 ‘평화항해단’이 요트로 제주 일주를 시작했다. 또 해군기지 반대 투쟁 3000일을 맞아 제주지역 음악인들이 모여 만든 강정헌정음반 ‘Gang jeong - 다시 구럼비 위에서’도 27일 공식 발매됐다.<br/>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84.txt

제목: [부고] 백남준의 예술적 동반자 부인 구보타 시게코 여사 별세  
날짜: 20150726  
기자: 인현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26100000035  
본문: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1932~2006)의 부인이자 전위예술가인 구보타 시게코(久保田成子) 여사가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서 23일 저녁(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8세. <br/> 백남준아트센터는 26일 “<span class='quot0'>생전 백남준 선생과 작품활동을 함께했던 작가 등으로부터 구보타 여사가 23일 현지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투병을 하던 구보타 여사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span>”고 밝혔다. 이어 “슬하에 자녀가 없는 구보타 여사의 장례절차 등은 현지 지인 등이 의논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br/> 1937년 일본 니가타현에서 태어난 구보타 여사는 1960년 도쿄교육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중학교 미술교사로 활동했다. 대학시절 다다이즘에 심취했던 구보타 여사는 존 레논과 결혼한 오노 요코 등과 교류하다 전위예술 유파인 ‘플럭서스’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백남준의 아내로 알려졌지만 구보타 여사 또한 뉴욕현대미술관이 14점의 작품을 소장할 정도로 실력 있는 비디오아티스트로 평가 받는다. 뉴욕예술재단상, 록펠러상, 구겐하임상 등을 수상했으며 뉴욕 휘트니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br/> 구보타 여사는 도쿄 쇼게츠홀에서 백남준의 전위예술을 보고 충격을 받아 뉴욕으로 건너가1963년 백남준을 만났고, 10여년 간 예술적 동반자로 지내다 1977년 결혼했다. 1996년 백남준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2006년 타계할 때까지 자신의 예술활동을 포기하고 남편을 돌봤다. <br/> 그는 생전 인터뷰 등에서 남편 백남준에 대해 “연인으로는 최고였지만 남편으로서는 최악이었다”면서도 예술가로서는 “21세기 예술의 문을 연 사람”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우리는) 음양처럼 나눌 수 없는 존재”라고 밝혔다. 회고록 ‘나의 사랑, 백남준’을 남겼다. <br/> 인현우기자 inhy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85.txt

제목: '삐끼' 산수국 헛꽃의 애프터 서비스  
날짜: 2015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23100000106  
본문: ※ 한국일보 이계성 수석논설위원은 자타공인 '걸어다니는 자연백과사전' 입니다. 생활 속에서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자연의 속삭임을, 본 코너를 통해서 '통역'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br/><br/> 아침 집을 나서자 아파트 주변 나무들에서 매미 울음이 요란하다. 보통 장마가 끝날 즈음에 본격적으로 매미 시즌이 시작되지만 올해는 마른 장마기간을 못 참고 참매미, 말매미가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매미 중 가장 일찍 우는 털매미는 6월20일께부터 울음 소리가 들렸다. 씨유~ 하고 긴 호흡으로 울다가 중간에 처진 소리를 다시 높여 우는데 한번 시작하면 1분30초 가량 지속된다. 참매미는 맴 맴 맴~ 하고 운다. 전형적인 매미소리다. 몸집이 가장 큰 말매미는 짜라라라~ 하고 우는데, 한 녀석이 울면 주변 것들이 경쟁적으로 따라 울어 정말 시끄럽다. 이제부터 진짜 한여름이다. <br/> 이 때쯤이면 아파트 화단의 산수국들은 대부분 헛꽃이 뒤집어진다. <br/><br/><br/> 5월 말부터 특유의 시리도록 푸른 빛깔로 출근길을 즐겁게 했던 산수국 꽃들이 아쉽게 졌다. 알다시피 산수국 꽃송이 둘레의 큰 꽃잎들은 가짜 꽃이다. 가운데 암술과 수술을 갖춘 진짜 꽃은 아주 작다. 수많은 꽃송이들이 뭉쳐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벌과 같은 중매쟁이를 불러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꽃받침을 변형시킨 헛꽃을 둘레에 배치해 중매쟁이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일종의 ‘삐끼’ 역할이다. <br/> 그런데 수분이 끝나면 이제 가게 문 닫는다는 표시로 하늘을 향해 있던 헛꽃들이 뒤집어져 축 늘어진다. 장사 끝났는데 괜히 중매쟁이들을 불러들여 공연한 수고를 끼치지 않겠다는 배려인 것 같다. 삐끼 치고는 참 예의가 바른 녀석이다. <br/> 이 헛꽃들은 산수국 열매가 익은 후까지도 그대로 매달려 있다. 가을에는 보랏빛 계열의 단풍도 든다. 메마른 채이지만 한겨울 추위도 견디고 이듬해 다시 꽃이 필 때까지 열매 곁을 지킨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연로한 부모를 떠올린다고 했다. 몸이 다 사위어 가는데도 노심초사 자식 걱정하는 늙은 부모 모습과 똑 같다는 것이다. 내게는 한 철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br/><br/> 평지 아파트 단지에서는 끝물이지만 아직 산자락에는 산수국들이 피고 지고 있으니 산수국 꽃 얘기를 더 해보자. 눈에 확 띄는 산수국 헛꽃은 여러 색깔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한다. 헛꽃만 보다가 작은 진짜꽃의 아름다움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 헛꽃이 활짝 핀 다음 그때까지 꽃봉오리상태로 있던 진짜꽃이 피기 시작한다. 가까이 들여다 보면 짙푸른 보석들이 알알이 박혀 있는 것 같다. 아득히 먼 별들의 고향과 같은 신비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꽃잎은 3~5장인데 대체로 둘레의 헛꽃잎 수와 일치한다.<br/> <br/> 산수국 꽃색은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산성도가 강할수록 푸른색이 짙고 알칼리성 토양이면 연한 자주나 보랏빛이 돈다. 중성일 때는 흰색이다. 동일한 산수국 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요즘 탐스럽게 피는 수국은 산수국에서 가짜 꽃만 피게 개량한 것인데 토양 산성도를 변화시켜 다양한 빛깔의 꽃을 만들어냈다. <br/><br/><br/><br/> 산수국의 꽃말은 변하는 사랑, 변심이다. 수국의 꽃말도 같다. 그런 수국을 요즘 결혼식장 장식용 꽃으로 많이 쓰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결혼서약을 하는 자리인데 말이다. 더구나 암ㆍ수술 없는 헛꽃들만 모여서 열매를 맺지 않는 수국이다. 요즘 저출산 추세가 결혼식장에 수국을 장식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br/><br/> 그런데 신기하게도 산수국 헛꽃에도 암수술이 있는 유성화(진짜꽃)가 피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제주도에 자생하는 탐라산수국의 헛꽃 가운데 진짜꽃이 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 아파트 단지나 도심 소공원에서 만나는 산수국을 자세히 보면 진짜꽃을 피우는 헛꽃들이 적지 않다. 탐라산수국이 조경용으로 많이 퍼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br/>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발한 수국에는 보통 수국 말고도 나무수국, 떡갈잎 수국도 있다. 목수국이라고도 부르는 나무수국은 수국 종류 중에 가장 늦게 피고 긴 원통형 꽃 모양이 참으로 탐스럽다. 꽃색깔은 연한 연두색으로 피었다가 우윳빛으로 변하는데, 경기도 어느 골프장에서 다양한 색깔의 목수국을 만난 적 있다. 내가 출근길에 지나가는 옆 아파트 화단에 요즘 나무수국꽃이 피기 시작했다. 떡갈잎 수국은 잎이 떡갈나무를 닮았고, 꽃 모양은 원추형이다. <br/> <br/><br/><br/> 수국 비슷한 꽃 가운데 불두화(佛頭花)라는 것도 있다. 엄밀히 말해 이 꽃은 수국 계통이 아니다. 분류학적으로 산수국과 수국은 범의귀과에 속하는데, 불두화는 인동과다. 불두화는 꽃 모양이 산수국을 닮은 백당나무를 개량한 식물이다. 백당나무도 산수국처럼 가장 자리에 헛꽃이 피고 가운데 작은 진짜꽃무리가 오글오글 모여있다. 가을에는 빨간 열매가 무척이나 아름답다. 이 백당나무를 헛꽃만 피도록 개량한 게 바로 불두화다. 수국백당이라고도 부른다. 부처님 탄생일인 초파일 전후에 피는 불두화는 불상의 머리를 연상시켜서인지 사찰 내에 많이 심는다. 요즘에는 도심 소공원 등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개화시기가 5월초 석탄일 전후로 산수국과 수국 종류보다는 한달 가량 일찍 핀다. <br/> <br/><br/>wksle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86.txt

제목: [사설] 막판 매듭 못 푼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조정  
날짜: 201507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23100000226  
본문: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가 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삼성전자에게 1,000억 원을 기부, 공익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은 기부금의 70%를 보상사업에 쓰게 된다. 대상은 2011년 1월1일 이전 입사자 가운데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뇌종양 등의 질환이다.<br/>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번 권고안을 거부했다. 세부 사항에서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 때문이다. 우선 퇴직 후 잠복기를 최장 14년까지 보장하라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60세에 은퇴할 경우 74세까지 보장을 하라는 것인데, 70대 남성의 3분의 1이 암환자로 조사되는 상황에서 이런 보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삼성전자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 조정위가 28개 질환을 명시하고, 이 병에 걸린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치료비 전액을 보전하라는 것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br/> 경영권 침해 문제도 삼성전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이다. 새로 설립되는 공익법인에게 삼성전자 사업장 내부 시스템을 점검할 권한을 준다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공익법인 이사회가 추천한 옴부즈맨 3명이 삼성전자 사업장 전반의 주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번 조정위 권고안에 포함됐다. 이는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판단이다.<br/> 이번 권고안이 보상문제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공익재단에 맡기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이라는 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최종타결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br/> 2007년 3월 기흥공장 반도체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당시 23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뒤 세상에 알려진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이 8년을 끌고 있다. 여전히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안타깝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해 사망률 1위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하루 평균 5.3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산업재해에 관한 한 우리는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관리는 기업은 물론, 국가의 책무다. 조정위가 내놓은 것은 권고안에 불과하다. 양측이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혀 좋은 결말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87.txt

제목: 고환이 하나입니다. 문제 없는 건가요?  
날짜: 201507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22100000032  
본문: 성인인데 어릴 적부터 고환이 하나입니다. 문제 없는 건가요?<br/> <br/> <br/>음낭에 고환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선천적으로 고환이 하나만 발생했거나, 고환이 아닌 배 속 어디엔가 고환이 숨겨져 있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br/> <br/>선천적으로 고환이 하나만 생겼다면 더 이상의 처치가 필요가 없으나, 배속에 고환이 남겨져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거 해야 합니다.<br/> <br/>신기하게도, 임신 중 태아의 고환은 성인의 신장이 있는 부위에서 생겨서, 출생 시에는 지금의 음낭 위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환이 음낭까지 다 내려오지 못하는 상태를 잠복고환이라고 합니다.<br/> <br/>고환은 사람의 체온보다 낮은 곳에 있어야 정상적인 발육과 기능을 하게 됩니다. 평소 음낭은 주위 온도에 따라 고환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잠복고환인 경우엔 몸 속의 높은 온도로 인하여 고환 발육이 멈추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낼 경우 그 고환은 기능이 없어지고, 암이 발생할 확률이 정상 고환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 하게 됩니다.<br/> <br/> 잠복고환인 경우 고환의 기능과 발육을 유지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수술을 해 주는데, 늦어도 생후 1세 정도에는 정상 위치로 고환을 끌어내리는 수술을 하길 권유 합니다.<br/> <br/>요즘은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기본으로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렇게 20년 이상 지난 상태이므로 그 기능을 아쉬워하기 보다는, 혹시나 앞으로 생길 지 모르는 고환 암을 예방하기 위해, 남아있는 고환을 찾아 제거 해야 합니다.<br/> <br/> 보통 한쪽의 고환만으로도 2차 성징이나 임신 등 남자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지금까지 남자로서 큰 이상 없이 살아왔다면 기능적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음낭의 모양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경우엔 고환 모양의 보형물을 음낭에 넣는 일종의 성형수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br/> <br/> 질문하신 분은 일단 본인의 한 쪽 고환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몸 안에 남아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배속에 한쪽 고환이 남아있다면 미련 없이 제거 하시길 권유 합니다.<br/> <br/>이영훈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비뇨기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88.txt

제목: 한화생명,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 CI보험' 출시  
날짜: 201507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21100000036  
본문: 한화생명이 중도인출·추가납입 등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유니버셜 기능을 탑재한 '한화생명 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 CI보험'(스마트플러스 보험)을 출시했다. 스마트플러스 보험은 중대한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13가지의 치명적 질병(CI: Critical Illness) 진단 시, 가입금액의 8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20%는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중대 질병인 만큼, 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br/> <br/>특히 이 상품은 주식·채권 등에 간접 투자해 기본 보장에 추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변액보험에, 고객 니즈가 높은 유니버셜 기능을 더해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과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도 가능하게 했다.<br/> <br/>여성만을 위한 '여성 특정 4대 질병 보장특약'을 탑재한 것도 특징이다.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술(500만원),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200만원), 중증 루푸스 신염(2,000만원), 다발성경화증(2,000만원)과 같은 여성들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을 보험료 갱신 없이 평생토록 보장한다(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br/> <br/>스마트플러스 보험은 발병률이 높은 암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중대한 암으로 주계약에서 진단자금을 받았더라도, '더블케어암보장특약'으로 전이암은 물론 재발암까지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로 암 진단자금 수령이 가능하다.<br/> <br/>갈수록 늘어나는 치매보장에 대한 고객 니즈역시 반영했다. 'LTC보장특약' 가입 시, 중증 치매상태나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받을 경우 가입금액만큼의 간병자금을 최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br/> <br/>이외에도 실손의료보장, 성인병보장, 항암약물·방사선치료, 재해·입원·수술보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 부족한 보장을 필요에 따라 골라 담을 수 있다. 계약시에는 물론, 가입 후에도 중도부가가 가능하다. 또한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계약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2명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다. <br/> <br/>스마트플러스 보험은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최대 4%까지 월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고액 가입시 2.5% 할인되며, 보험료 자동이체시 1% 추가 할인, 한화생명과 협약된 단체의 종사자가 가입하면 1.5%의 단체할인혜택도 있다.<br/> <br/>이외에도 노후자금에 대한 필요가 늘어날 때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금전환기능은 물론,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고품격 의료서비스인 '헬스케어 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24시간/365일 건강상담, 전국 병의원 정보제공 및 진료예약, 해외병원 예약, 엠뷸런스 무료지원 등이 포함된 서비스다.<br/> <br/>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최근 변액보험은 저금리시대에 투자수익률에 따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며, "여기에 유니버셜 기능을 더해 보험료 납입 유연성까지 높인 스마트플러스 보험은 한 단계 진화한 CI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br/> <br/>최저가입 기준은 가입금액 1,000만원 및 월 보험료 5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 15세~60세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89.txt

제목: 유방암 예방에 좋은 음식과 자가 진단법  
날짜: 2015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20100000029  
본문: 현대인들의 일생은 암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암이 인류의 생을 단절시키고 있다.<br/> <br/>한국 여성들의 경우 유방암은 위험하고도 흔한 암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40대 여성 4명 중 1명(23.5%)은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암을 꼽았다. 또 여성에게 생기는 암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 자궁경부암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48.7%, 487명), 실제로는 유방암 발생자 수(16,521명)가 가장 많았다. (갑상샘암 제외) 그 뒤를 대장암 (11,543명), 위암(10,008명)이 뒤따랐다. 자궁경부암은 유방암의 약 1/5 수준인 3,548명에 그쳤다. 또 유방암은 연평균 5.9%씩 발생률이 증가(1999년~2012)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방암을 두려워할만한 병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피할수도 있는 암이기 때문이다.<br/> <br/>이대목동병원은 유방암 예방에 좋은 음식과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소개했다. 유방암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다. 유방암 예방에 있어 추천되고 있는 식품들은 콩류 및 콩 제품·과일 및 야채·녹차·비타민 D·저지방 고섬유식 등이다.<br/> <br/>▲ 콩류 및 콩 제품<br/> <br/>콩이 유방암 예방에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동양인들이 콩으로 만든 두부와 두유·비지·된장국 등을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인보다 유방암의 발생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콩에는 식물성 여성호르몬인 피토케미컬(Phytochemicals)과 피토에스트로겐(Phytoestrogens)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여성호르몬 수용체의 발현을 낮게 하여 유방암 억제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청국장의경우는 식물성 여성호르몬의 일종인 이소플라본(Isoflavones)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으며, 이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 조절체(SelectiveEstrogen Receptor Modulator)로 작용하여 유방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 <br/>폐경기 여성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호르몬 대체 요법이 유방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분석도 있는데, 콩류를 섭취함으로써 식물성 여성호르몬을 얻어 갱년기 증상 호전에 도움을 받고 유방암도 예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br/> <br/>2) 과일 및 야채<br/> <br/>과일 및 야채를 섭취하면 항산화제와 섬유소 등을 통해 유방암을 억제할 수 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에 많은 인돌-3-카비놀(Indol-3-Carbinol)은 에스트로겐 농도를 저하시켜 유방암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근과 호박, 고구마 등 적황색 채소와 브로콜리, 시금치 등 진한 녹색의 채소는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5개 이상의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이 2개 미만의 과일과 야채를 소비하는 사람보다 유방암의 위험률이 0.64배로 현저히 낮았다. 이 때문에 하루에 3∼5회 이상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이러한 식습관을 키워주는 것이 유방암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br/> <br/>3) 녹차<br/> <br/>녹차 성분인 폴리페놀,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방암 조직의 혈관 성장을 둔화시킨다. 또한, 에스트로겐 농도를 저하시켜 유방암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방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다. 하지만 녹차를 발효시킨 홍차의 경우에는 녹차에 비해 폴리페놀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게 함유돼 있다.<br/> <br/>4) 유제품, 비타민 D, 칼슘<br/> <br/>우유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다. 특히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을 대변하는 지표인 인슐린 성장 인자(Insulin Like Growth Factor II)의 양을 증가시켜 유방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칼슘과 비타민 D의 효과는 폐경 전 여성에 있어서 더욱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성인은 하루에 1컵,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하루에 2컵씩 우유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br/> <br/>유방암 조기에 발견하려면 자가진단법 활용 추천<br/> <br/>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가검진 방법이 대표적이다. 또, 전문가의 신체 검진 그리고 유방 촬영 및 유방 초음파와 같은 영상학적 진단 방법 등이 있다. 한국유방암학회의 권고 사항에 따르면 보통 3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받도록 하며 3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진찰, 40세 이상의 여성들은 1∼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진찰 및 유방 촬영술,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는 서양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치밀 유방(유방의 유선 조직이 많이 발달해 있는 유방)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혹이 있어도 유방 촬영술에서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가 유방암의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br/> <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90.txt

제목: 순천지청, ‘1억 땅 50억 뻥튀기’ 기획부동산 일당 적발  
날짜: 20150720  
기자: 하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20100000144  
본문: 순천지청, ‘1억 땅 50억 뻥튀기’ 기획부동산 일당 적발 <br/> 가짜 지적도로 임야를 상업지역 속여<br/> 남편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까지 털려<br/> <br/> 임야를 상업지역으로 속여 시세보다 50배나 뻥튀기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이 적발됐다. <br/>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가짜 지적도로 임야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50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 A(51)씨와 대표이사 B(41)씨, 상무이사 C(3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영업부장 D(5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br/> A씨 등은 2013년 7월 9일부터 올해 5월 21일 사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곡안리 임야 2만4,816㎡와 진북면 금산리 임야 1만3,487㎡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74명으로부터 87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50억6,328만원을 챙긴 혐의다. <br/> 조사 결과 이들은 창원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자 경사도가 높거나 대형 송전탑의 전선이 지나는 등 이유로 개발이 불가능해 ㎡당 1,150원~2,350원에 불과한 임야를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허위 표시한 지적도를 보여주며 평당 40만원~73만원에 임야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r/> 피해자 중에는 남편이 암 투병 중인 상황에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땅을 사들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까지 털어 땅을 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br/> <br/>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91.txt

제목: [지평선] 내 나이 예순넷일 때  
날짜: 20150719  
기자: 조재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19100000044  
본문: 영국의 전설적 밴드인 비틀즈 노래 중에 ‘When I'm Sixty-Four(내 나이 예순 넷일 때)’가 있다. 1967년 곡으로 젊은 남자가 사랑하는 소녀에게 늙어서도 자신을 사랑해줄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가사에 배어있다. 이 노래는 폴 매카트니가 16세에 만들어 비틀즈가 결성된 이후인 25세에 발표한 것이다. 굳이 64세인 것은 은퇴와 관련이 있다. 폴은 훗날 “당시 영국에서 정년은 보통 65세여서 64세는 은퇴 준비를 하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br/> ▦ 저출산과 고령화로 올해 5,100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2060년에는 4,4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통계청 전망이 나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주말 “<span class='quot0'>인구감소가 국가발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0'>3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주거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span>”고 했으나 그런 게 해결방안일 리는 없다. 인구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카타르와 오만 등 소국을 제외하면 세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br/> ▦ 대한노인회가 얼마 전 “<span class='quot1'> 65세로 되어있는 노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공론화 안건을 정기이사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span>”고 발표한 이후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단계적으로 노인기준을 70세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4년마다 1세씩 늘리면 20년, 2년마다 1세씩 늘리면 10년 후가 된다. 지하철 무료이용이나 기초연금수급 등의 혜택을 받는 기간을 뒤로 미루어 국가부담을 덜고자 하는 취지다.<br/> ▦ ‘When I'm Sixty-Four’를 만든 폴은 정작 64세인 2006년을 암울하게 보냈다. 첫 번째 부인을 암으로 보낸 후 결혼한 두 번째 부인 히서 밀스와 그 해에 결별했다. 10대 때 꿈꾼 ‘장밋빛 사랑’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5년 뒤 세 번째 결혼한 그는 올해 5월 4만5,000여명의 관객이 모인 한국 공연에서 무려 160분간 37곡을 연창하는 정열적 무대를 선보였다. 이 젊은 노인들을 생산인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다면 늙은 나라 걱정은 크게 덜어도 된다. 폴은 올해 73세다. <br/> <br/> 조재우 논설위원 josus62@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92.txt

제목: 암 환자 호스피스에 건보 적용됐지만… 인프라 턱없이 부족  
날짜: 20150716  
기자: 채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16100000128  
본문: 병원급 의료병동서 23일간 입원 때 진료비 680만원 중 43만원만 부담<br/>아직은 전국 60개 병원만 서비스… 이용률 12.7%로 대만보다 저조<br/> <br/> <br/> <br/> “<span class='quot0'>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 ‘잘 가시오, 잘 있으시오’라고 작별인사를 제대로 하는 건 망자(亡者)나 남겨진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span>”<br/>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만난 라정란 수녀(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팀장)는 매일 죽음을 목도하는 이곳에서 오히려 희망을 본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매달리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조차 건네지 못한 이는 슬프고 뒤틀린 얼굴을 지닌 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환자들의 통증치료는 물론,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심적, 영적 지원을 한다. 비교적 평온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br/> “지난주 간암으로 돌아가신 80대 할아버지는 너무 정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를 하셔서 감탄이 나올 정도였어요. 간호하던 할머니가 ‘저 양반이 사실 죽기 싫어했지만, 준비가 된 것 같다. (나도)성모님 곁으로 보낼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의료진이나 자원봉사자들조차 우리의 죽음도 저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두 분 모두 평온하셨죠.”<br/> 지난해 여름에는 최연소 호스피스 환자였던 생후 9개월 아기가 이곳에서 숨을 거뒀다. 라 팀장은 한복 입은 아기를 찍은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며 자원봉사자들이 피곤한 엄마를 대신해 유모차도 밀어주며 예뻐했던 아기라고 설명했다. 천사를 뜻하는 ‘미카엘’이란 세례명이 꼭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암으로 아기를 떠나 보낸 엄마는 최근에도 사별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고 한다. 호스피스는 유족들의 상처까지 어루만진다.<br/>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현재 말기 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이용률이 12.7%(2013년 기준)에 불과하다. 미국(43%)이나 대만(3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br/>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성기 병동에서 임종 시 수백만원에 달했던 환자 부담이 수십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span class='quot1'>상급 종합병원에 50일 가량 입원한 경우 약 70~80% 가량 환자 부담이 완화되는 정도</span>”라며 “<span class='quot1'>앞으로 (호스피스)이용률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하루 진료비가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28만~37만원, 환자 부담은 1만8,000~2만3,000원)가 적용되고 비급여 항목은 줄어든다. 요양보호사 간병비도 건보 적용이 돼 하루 4,000원만 더 내면 된다. 예컨대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의료병동에 23일간 입원한 뒤 임종을 맞을 경우 진료비 681만8,596원 중 43만7,035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종합병원급에서도 본인부담금은 51만3,395원 정도로 저렴하다.<br/>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은 23병상을 운용하는데, 의사 3명, 간호사 18명, 사회복지사 1명, 자원봉사자 60명, 수녀와 신부 4명의 인력이 환자와 가족들을 돌보고 있다. 가족휴게실과 상담실, 가족들의 식사공간, 미니정원, 자원봉사자 휴게실까지 갖춰져 있다.<br/> 기도와 예배를 보는 공간도 있는데 라 팀장은 “<span class='quot2'>특정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때론 스님에게도 공간을 빌려주기도 한다</span>”고 귀띔했다. 2009년 이곳에서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 추모 공간도 기념관 겸 회의실로 운영되고 있다.<br/>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아직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2003년 암관리법 제정으로 호스피스 의료완화가 법제화된 이후 12년 만에 수가 적용이 됐지만 전국 60개 병원(1,009병상)만 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2015년까지 호스피스 병상을 2,500개로 늘리려던 정부 계획에 크게 못 미친 수준이다. 암 환자 대부분이 서울 5개 대형병원 몰리고 있으나 ‘빅5’ 병원 중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한 건 서울성모병원이 유일하다. 병동 신설 비용,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 민간 병원들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 서울대병원도 2006년 병동을 개설했다 철수하기도 했으며, 국립암센터도 이달에야 9개 병상 규모로 호스피스 병동을 개설했다. 라 팀장은 “<span class='quot2'>서울성모병원은 종교적인 사명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건보 수가가 반영돼도 적자 폭을 줄이는 정도</span>”라고 말했다.<br/> 1987년 개설된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은 쾌적한 시설에 운영 노하우도 쌓여, 대기자가 줄을 섰지만, 시립ㆍ구립 등 공공병원은 가동률이 70% 안팎에 그친다. 대부분 시설이 낙후돼 환자들을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일당정액제로 수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요양병원들은 참여를 원하지만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기존 호스피스 기관 평가에서도 12곳이 시설ㆍ인력 등 법적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질 관리도 시급한 실정이다.<br/> 복지부는 집으로 의료진이 방문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한다.<br/>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는 “<span class='quot3'>1970년대 후반부터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이 된 일본도 이용률이 매우 낮고, 암 치료 중단 후 면역치료 등을 찾아 헤매는 ‘암 낭인’이 늘어났다</span>”며 “<span class='quot3'>항암 치료 중단 이후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통증관리와 심리적ㆍ영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빅5’ 병원에 완화의료 전문팀을 두는게 더 시급하다</span>”고 강조했다.<br/> 채지은기자 cj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93.txt

제목: 건강상담 Q&A 여성형 유방 여유증, 수술로 치료할 수 있나  
날짜: 201507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16100000161  
본문: 건강상담 Q&A 여성형 유방 여유증, 수술로 치료할 수 있나<br/> 김도형 대구 파파스남성의원 원장 <br/> <br/> Q.남자인데 여자처럼 유방이 튀어나오고 처집니다. 여유증 수술로 개선이 가능할까요?<br/> A.주로 비만한 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지방을 빼고 유선조직을 잘 제거하면 호전됩니다. <br/> 여유증은 ‘가슴 달린 남자’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한마디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방이 여성처럼 불룩 나오거나 처진 경우를 말합니다. 여성호르몬 때문에 유선조직의 반응이 민감해져 유방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갑상샘 기능 저하, 암 등에 의한 호르몬 이상, 신장 기능 이상, 내분비계 이상, 간 경화 등의 대사성 질환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 ‘비만’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br/> 비만은 지방조직의 증가는 물론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의 수치를 증가시켜 가슴을 돌출시킵니다. 지방이 가슴을 두텁게 하는 동시에 유선조직도 발달하는 것입니다. 간혹 운동으로 여유증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지방만 빠진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지방조직만 빠지고 유선조직만 남아있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br/> 여유증은 외과적인 절제수술로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술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두 주변을 절개하여 유선조직을 제거하고 지방 흡입술로 전체적인 피하지방의 부피감을 줄입니다. 수술적 치료로 여유증으로 인한 고민을 일시에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94.txt

제목: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주체적으로 대면하는 '웰다잉' 사회 인식 필요  
날짜: 20150716  
기자: 채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16100000149  
본문: “어떤 임종을 원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맞는 평온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호스피스로 모시길 꺼립니다. ‘웰다잉(Well-Dying)’ 하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br/> 지난 3월 출범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민본부 10,000+’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나이가 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 김모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소설가 김주영씨 등 정ㆍ관ㆍ학계 인사 80여명이 참여한 이 단체의 이름에 들어간 ‘10,000+’는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벌써 1만5,000명 가까이 서명했다. 이들은 ‘죽음의 질’ 평가에서 세계 40개국 중 32위로 하위권인 우리 현실에서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정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br/> 김 전 장관은 “<span class='quot0'>아직 유교 전통이 강해 자식 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어느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마음의 부담을 덜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삽관 등을 받으며 연명하길 원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단체 발기인으로 참여한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span class='quot1'>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의생명공학시대에 죽음은 병원의 치료실패로 여겨지고 있지만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죽음을 피동적이 아닌 주체적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br/> 이 단체는 말기암 환자를 넘어 다른 질환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은 “<span class='quot2'>말기 암 진단을 받으면 보통 두달 안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임종을 맞게 되는데 치매나 만성질환의 경우 보험수가 적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건보재정 소요가 크고, 말기암 만큼의 통증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 채지은기자 cj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95.txt

제목: "흡연 폐해는 개인 문제 아니다… 담배회사 니코틴 중독 전략 탓"  
날짜: 20150716  
기자: 채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16100000199  
본문: 세계적 석학 커밍스 교수…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br/><br/> <br/> <br/>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아닙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은 담배회사의 니코틴 전략에 따라 중독됐기 때문입니다.”<br/> 마이클 커밍스(62)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대 교수(정신의학, 행동의학)는 16일 “<span class='quot0'>담배회사들이 니코틴 중독을 의도한 담배 제품으로 금연을 어렵게 만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0'>흡연을 개인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span>”고 단호하게 말했다.<br/>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그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독성물질임을 알면서도 담배를 매일 계속 피우는 게 되는 건 니코틴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1'>1980년대까지만 해도 흡연은 개인 선택의 문제로 여겨졌는데, 이는 도박장을 차려놓고 도박을 하지 말라는 말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다</span>”고 했다.<br/> 커밍스 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100건 이상의 담배소송에 전문가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것으로 유명하다. 2012년에만 13개의 담배소송에 관여했다. 그는 담배로 가족을 잃기도 했다. 미국 3대 메이저 담배회사인 로릴라드에서 부회장을 지낸 할아버지와 세일즈 담당 임원이었던 삼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릴 적 집의 커튼에 담배가 그려져 있을 정도로 담배와 친숙한 집안 분위기에서 자란 그는 10대 때 호기심에 몇 번 담배를 피운 것을 제외하면 평생을 담배와 싸워왔다고 말했다.<br/> 담배회사가 그를 감시하고 모든 증언을 기록하며 때론 협박도 서슴지 않지만, 커밍스 교수는 담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담배회사는 마음만 먹으면 금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담배를 설계하고 있다</span>”고 주장했다.<br/> 한국 흡연자의 80%가 금연을 시도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그럼에도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것은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이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 흡연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뇌를 조절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br/> 그는 담배회사들은 인산염, 암모니아, 인산이암모늄 등 유해 물질이 함유된 담배에 각종 첨가물을 넣어 자극을 낮추고, 새로운 향미를 첨가해 청소년 등 새로운 흡연자를 양산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비판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중단할 수 있는 제품을 팔게 되면 (회사 입장에선) 영원히 불안감에 떨어야 한다”고 한 모 담배회사의 1982년 보고서를 근거로 담배업체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br/>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해외 학자들도 담배회사들이 청소년과 여성을 타깃으로 의도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고 비판했다.<br/> 내부고발자가 보내 온 8,000만장의 담배회사 문서를 근거로 담배회사와 싸워 이 분야 최고 권위자가 된 스탠튼 글란츠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의대 교수는 “<span class='quot2'>담배회사들은 과학을 조작해 국민과 정책입안자, 법원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등 부도덕할 뿐 아니라 농간을 부리는데 능하다</span>”고 비판했다. 담배회사들이 다른 법적 정치적 분야에서 전혀 요구된 바 없는 불가능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것이다.<br/>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달 5차 변론까지 마친 상황이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span class='quot3'>이번 심포지엄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소송과정에서 담배의 폐해와 중독성에 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span>”고 밝혔다.<br/> 채지은기자 cj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96.txt

제목: 진시황이 그토록 찾던 동방의 영약… 함양 산양삼으로 '환생'  
날짜: 20150716  
기자: 이동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16100000066  
본문: 삼봉산 등서 7100만 포기 재배… 2020년 산삼엑스포도 준비<br/><br/> 백두대간의 기점인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에 둘러싸인‘산골’ 경남 함양군은 산에서 돈이 나온다. 전체 면적의 78%인 산지를 활용, 산양삼(山養蔘) 재배를 통해‘부촌’의 꿈일 일구고 있기 때문이다. 함양군은 불로장생의 대명사로 꼽히는 옛 고려산삼 종주국의 명예를 되찾겠다며 ‘산삼밸리’조성에 나섰고, ‘함양 산삼’의 우수성을 국외에 알리기 위한 ‘2020년 세계산삼엑스포’ 개최도 준비중이다.<br/> 최근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종바이러스 출현은 국민들에게 평소 건강관리, 면역체계의 소중함을 각인시켰다. 이를 계기로 산삼의 효력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산삼은 삼국시대부터 탁월한 효능이 알려져 중국 왕실에서도 동방의 영약으로 귀하게 여겼다. 실크로드를 따라 서방에 까지 산삼의 명성은 퍼져나갔고, 항암 효과를 비롯, 조혈작용, 당뇨억제, 혈압조절 등의 약리작용은 현대 과학을 통해서도 속속 검증되고 있다.<br/> <br/> ▦진시황 특명 받은 서복 흔적, 삼봉산ㆍ서암동<br/>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시황은 영원불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하 서복을 보내 동방의 불로초인 산삼을 구하라고 명했다. 서복은 남해를 거쳐 지리산 천왕봉과 맞은편 삼봉산에 산삼을 캐러 왔고, 그가 기거했다는 흔적이 마천면 추성리 서암동에 남아 있다고 전한다.<br/> 삼봉산은 예부터 지리산 보다 약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약초산으로 불렸다. 신라, 백제의 경계인 남덕유산 깃대봉 바로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깃대봉 일대는 지금도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시대를 거쳐 전국의 심마니가 모여 제를 올린 제단과 약수터가 남아있어 우리나라 산삼 생산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br/> 특히 황석산 자락의 ‘삼박골’이란 지명에서 알 수 있듯 이 일대는 산삼이 많았다는 걸 짐작하게 한다. 깃대봉 일대는 지금도 함양의 최대 산삼 산지로 조성돼, 화려했던 함양 산삼의 명성을 잇고 있다.<br/> <br/> ▦세계 최대 산삼밸리, ‘부자 함양’ 만들기 시동<br/> 함양군은 진시황의 지시로 불로장생 약초를 찾기 위해 함양에 온 서복의 흔적을 배경 삼아 산삼단지를 조성하고 있다.<br/> 함양은 해발 1,000m가 넘는 산이 15개나 되고, 토양이 산삼의 기본적 입지조건인 배수가 잘 되는 부양토가 많다. 암 예방과 콜레스테롤 제거를 통한 혈액정화, 노화방지, 면역조절 작용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게르마늄 성분이 다른 지역 토양보다 3~6배나 많이 함유하고 있다. 항암효과가 매우 높은 기능성 사포닌 컴파운드 성분도 다량 함유, 산삼과 산약초가 자생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힌다.<br/> 군은 2003년부터 산지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삼봉산에서 채취한 산삼을 재배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함양 산양삼’이다. 산양삼은 산삼 종자를 해발 700~800m 높은 산에 옮겨 심어 자연적으로 자라게 한 삼이다. 군은 산삼이 많이 자라는 깃대봉 줄기에 산양삼 시범단지를 조성해 11개 읍ㆍ면에 대한 시범 재배를 시작으로 ‘함양 산양삼’ 명품화에 시동을 걸었다.<br/>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청정지역에서의 산양삼 재배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을 시작했고, 군청에 ‘산삼계’를 신설했다. 군이 직접 종자를 구매하고 펜스를 설치하는가 하면 관리직원을 채용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난해 말 현재 460농가가 산지 700㏊에 총 7,100만 포기의 산양삼을 재배하는 데 성공, 국내 최대 산양삼 재배단지로 도약했다. 군은 지난해 산양삼 82억원어치를 팔았고, 올해는 100억원 돌파가 목표다.<br/> 함양 산양삼이 다른 지역 산양삼보다 고품질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었기 때문. 최근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는 추세에 맞춰, 잔류농약, 중금속 검출 여부 등 소비자가 생산물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종자 구입에서부터 생산, 판매까지 전 관리과정을 기록하는 생산이력제로 청정함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br/> 특히 함양은 2006년 산림청 생산이력제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함양 산양삼은 종자 파종에서부터 출하까지 엄격한 검사를 거쳐 한국임업진흥원의‘합격필증’을 받은 뒤에야 출하된다.<br/> 또 농협 등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인력양성ㆍ마케팅ㆍ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연고혁신산업(RIS)을 추진하는 등 산양삼 가공제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산양삼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08년부터 경희대에 산양삼 최고 경영자과정을 개설해 지금까지 152명의 인재를 배출했으며, 중국 지린(吉林)성 및 베트남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산양삼 국제화도 추진하고 있다.<br/> <br/> ▦산삼휴양밸리, 체험단지 조성…2020년 세계산삼엑스포 개최<br/> 군은 산양삼을 활용한 ‘힐링관광 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 산양삼 산지로 꼽히는 대봉산 일대에 산삼휴양밸리를 조성하고, 산양삼체험단지를 만들어 2020년 세계산삼엑스포 행사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세계산삼엑스포 때 산삼체험단지로 활용하기 위해 60㏊에 이르는 산지에 3년째 심어 놓은 산양삼도 700만 포기에 달한다.<br/> 또 지난 2008년부터 병곡면 광평리 일대 598만㎡에 모노레일 등 함양 명품 산삼을 활용, 11개 휴양관광시설을 짓고 있는데, 진입로인 임도를 개설해 억새숲이 어우러진 철쭉, 느릅, 돌배, 야광나무 등이 있는 생태숲과 휴양림 일대의 전경은 일품이다.<br/> 지리산과 덕유산 등 아름다운 백두대간에 주위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노레일도 만들고 있다. 도시에서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의 숲과 치유센터가 자리하고, 도시민의 산삼ㆍ산약초 재배 체험을 위한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도 속속 조성되고 있다.<br/> <br/> 함양=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97.txt

제목: 매달 60여명 탈영… 그들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날짜: 20150715  
기자: 인현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15100000094  
본문: 육군 헌병대 탈영병 체포조 소재로 군대 내 가혹행위ㆍ부조리 등 그려<br/>"군대 조직 자체에 질문 갖게 되길"<br/><br/>“군대는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이에요. 내부고발을 하면 내부고발자 꼬리표가 붙어요. 가혹행위가 싫어도 내리갈굼이 워낙 뿌리깊은 조직이다 보니 한 사람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군대 내의 부조리를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br/> 2013년 ‘아만자’로 혜성처럼 등장한 만화가 김보통이 그의 두 번째 연재작 ‘디피(DP)-개의 날’을 출간했다. DP는 육군 헌병대 내 탈영병 체포조를 부르는 말로,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지만 보통 ‘더티 플레이’로 불린다. 김보통은 “<span class='quot1'>‘디피’를 통해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 성추행, 간부와의 불합리한 관계 등을 다룰 예정</span>”이라 말했다.<br/> 김보통 자신이 탈영병 체포조로 복무했다. 하지만 그는 “<span class='quot1'>실제 사건을 토대로 한 자전적인 만화는 아니다</span>”라고 말했다. ‘매달 약 60명의 탈영병이 발생하고 그들을 잡는 병사들이 있다’는 모티브만 가져왔다. <br/> “탈영병들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탈영병이 생기면 그 사람 개인이 참을성이 없어서, 조직생활에 적합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얼마나 힘들었을까’‘탈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진 않아요. 제 만화를 보면서 군대라는 폐쇄된 조직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좋겠어요.”<br/> 김보통은 “<span class='quot1'>2년 전만 해도 만화를 그린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span>”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4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만화가 최규석의 추천을 받아 2013년부터 연재한 데뷔작 ‘아만자’는 암투병 끝에 사망한 아버지의 모습을 투영한 만화다. 암에 걸린 26세의 주인공이 환상의 세계를 여행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 만화는 주인공의 죽음을 암시하며 끝나지만 김보통은 ‘해피엔딩’이라 강조한다. “<span class='quot0'>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행복한 나라로 갔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린, 개인적인 만화입니다.</span>”<br/> ‘아만자’로 2014년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하고 ‘디피’연재도 하고 있지만 그는 만화가로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운이 좋지만 이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피’가 끝나면 수필도 쓰고, 삽화집도 그리고, 동화책도 쓰려 합니다. 지금 제가 가고 싶은 길로 나아가고 있으니,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br/> 인현우기자 inhyw@hankookilbo.com<br/> 장윤정 인턴기자(경희대 언론정보학과 4년)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98.txt

제목: 생활고 견디다 못해 강남 백화점서 강도행각 벌인 50대 남성 구속  
날짜: 20150713  
기자: 박주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13100000021  
본문: 서울 강남경찰서는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흉기로 60대 여성을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br/>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강남구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친 A(60ㆍ여)씨가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올라 타자 조수석에 따라 탄 뒤 공업용 커터 칼을 들이댔다.<br/> A씨는 이씨와 승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씨는 흉기를 떨어뜨렸다. 이틈을 타 A씨가 차 밖으로 나가 비명을 지르자 이씨는 도주했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에 의해 10일 경기 파주시 한 식당에 딸린 컨테이너 집에서 붙잡혔다.<br/> 조사 결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인 이씨는 학교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이었으나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부도를 맞는 등 사정이 좋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렸다. 또 암 투병 중인 모친과 백혈병을 앓고 있는 형 등 주변환경도 점점 나빠졌던 것으로 파악됐다.<br/> 이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span class='quot0'>부자가 많이 산다는 서울 강남을 찾아 사정을 얘기하면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막상 강남에 와서 외제차가 즐비한 것을 보고 백화점 화단에서 주운 흉기를 이용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span>”고 말했다.<br/> 경찰은 이씨가 애초에 강도 행각을 염두에 두고 강남에 왔을 가능성도 감안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br/>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699.txt

제목: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이 뭔가요?  
날짜: 201507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09100000023  
본문: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이 뭔가요?<br/> <br/> <br/>대사증후군이란 여러 가지 신진대사(대사)와 관련된 질환이 함께 동반된다(증후군)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고중성지방혈증(high level TG), 낮은 고밀도콜레스테롤(low level HDL), 고혈압 및 당뇨병을 비롯한 당대사 이상 등 각종 성인병이 복부비만과 함께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br/> <br/>대사 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소하여 근육 및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고자 더욱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br/> <br/>복강 내의 내장지방은 대사적으로 매우 활발하여, 아주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하여 고인슐린혈증, 인슐린저항성 및 혈당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 혈관 내 염증이나 응고를 유도하여 동맥경화를 촉발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이렇게 유발된 고혈압, 당뇨병 및 고인슐린혈증 또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br/> <br/>아래 기준 중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br/> <br/>1) 허리둘레 : 남자 90cm(35인치 이상), 여자 80cm(31인치 이상)<br/> <br/>2) 중성지방(TG) : 150mg/dL 이상<br/> <br/>3) 고밀도지방(HDL) : 남자 40mg/dL 미만, 여자 50 mg/dL 미만<br/> <br/>4) 혈압 : 130/85 mmHg 이상 또는 고혈압약 투약 중<br/> <br/>5) 공복혈당 : 100mg/L 이상 또는 혈당조절약 투약 중<br/> <br/>허혈성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및 이에 의한 사망률이 약 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없는 대사 증후군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당뇨병이 생길 확률은 3~5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 외에도 지방간 및 폐쇄성 수면 무호흡과 연관성이 깊고, 각종 암에 의한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br/> <br/>정리=채준기자 doorian@sporbiz.co.kr<br/> <br/>신규식 원장은 광화문 경희지인 한의원 원장이다. 주 진료과목은 통증과 소화기질환 보약.<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00.txt

제목: 암 투병 과학자의 ‘마지막 불꽃’  
날짜: 20150706  
기자: 김창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06100000099  
본문: 故 도윤경 UNIST 교수 세포분화과정 세계 최초 규명<br/> <br/><br/> 암 투병 대학교수가 마지막 향학 불꽃을 태워 흑사병, 에이즈, B형 간염 등 난치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기초를 마련해놓고는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br/> 사연의 주인공은 촉망 받던 젊은 여성 과학자 고 도윤경(43ㆍ사진) UNIST 교수. 지난 5일은 그가 난소암으로 타계한지 100일째 되는 날로, 도 교수를 그리워하는 가족, 동료, 동문들의 추모 글이 최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 받는 계기가 마련됐다.<br/> 대학 측에 따르면 생명과학부 소속인 도 교수는 면역 반응의 중요한 세포분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거의 규명하고 지난 3월 28일 지병인 난소암으로 숨을 거뒀다. 암 발병으로 ‘쉬어야 한다’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강의와 연구에 몰두했던 그가 개발한 세포의 이름은 ‘폴리큘라 헬퍼 T세포(Tfh세포).<br/> 2010년부터 시작된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 3대 학술지 ‘셀’의 자매지인 ‘셀 리포츠’에 지난달 30일 게재했다. 교신저자로 참가한 도 교수는 조명도 받지 못한 채 그의 마지막 논문만 학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br/> 도 교수 연구팀은 체내 면역시스템을 총괄하는 수지상세포의 한 종류인 ‘CD8α-수지상세포’가 특화되지 않은 ‘T세포’를 ‘Tfh세포’로 분화시키는 사실을 최초 발견했다. 세포 분화는 특화되지 않은 세포가 특정한 기능을 가진 세포로 발달되는 과정이다.<br/> ‘CD8α-수지상세포’에 의해 분화된 ‘Tfh세포’는 체액 내 항체를 만드는 ‘B세포’를 다시 분화시킨다. ‘B세포’는 인체에 침입한 병원체를 기억해 다음에 같은 병원체가 다시 침입하면 이를 제거할 항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병원체를 제거한다.<br/> 도 교수의 남편이자 공동교신저자인 류성호 순천향대 의생명연구원(SIMS) 교수는 “<span class='quot0'>‘Tfh세포’ 분화 과정의 비밀을 밝혀내 백신의 효능을 향상은 물론 새로운 자가면역 치료제 개발의 기반도 마련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나라의 백신 및 항체 관련 질병 치료제 개발기술의 우위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UNIST 측은 “<span class='quot1'>병마와 싸우는 과정에서도 연구열에 불타 올랐던 도 교수의 정신을 후학들이 이어 받아 향후 백신개발에 더욱 매진했으면 한다</span>”고 밝혔다. <br/> 한편 도 교수는 포스텍 91학번으로 생명과학부 학사(1995년)와 서울대 분자생물학 석사(1997년)을 거쳐 국비장학생으로 미국 버지니아 의대로 유학을 떠나 면역학박사(2003년) 학위를 받았다.<br/> 이후 수지상세포 연구에 관한 공로로 2011년 노벨상을 받은 록펠러 대학 랄프 슈타인만 박사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다 2009년 UNIST 교수로 부임했다. <br/>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01.txt

제목: 고양시, 고민 끝에 ‘세월호 의인’ 김홍경씨에 성금 850만원 전달키로  
날짜: 20150706  
기자: 이태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06100000045  
본문: 경기 고양시가 암 투병 중에 지난 2일 사망한 ‘세월호 의인’ 김홍경(59)씨 유족에게 성금 850만원을 전달하기로 6일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 20명을 구한 김 씨가 관내 국립암센터에서 위암 투병 중이란 소식에 모금활동을 벌였으나, 그의 일부 행적에 논란이 일자 성금 전달방법 등을 고민해왔다.<br/> 6일 시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위암과 폐렴 등 합병증으로 숨졌으며 4일 발인을 마쳤다. 배관설비사인 그는 지난해 4월 16일 승합차와 배관 장비를 싣고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사고 당시 김동수(51)씨, 김성묵(39)씨와 함께 커튼과 소방호스를 이용해 단원고 학생 20명을 구했다.<br/> 김홍경 씨는 그러나 이 사고로 승합차와 장비 등 재산을 잃은 후 위암까지 발병해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한 채 국립암센터에서 투병해왔다. 소식을 접한 시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난달 12일부터 시청 1층 로비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모금활동에 들어갔다.<br/> 하지만 김동수 씨는 지난달 19일 고양시청을 방문해 당시 소방호스와 커튼을 묶어 학생들을 구조한 건 자신과 김성묵(39)씨 2명이라고 밝혔다. 김동수씨는 “<span class='quot0'>김홍경 씨가 동영상만 찍고 구조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구조활동을)도와달라’는 말은 외면한 채 촬영만 했다</span>”고 주장했다. 김성묵 씨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우리가 한 일을 김홍경 씨가 한 것처럼 잘못 보도가 돼 화가 나서 각 언론사에 수 차례 연락했지만 소용이 없었다</span>”고 주장했다.<br/> 시는 지난달 19일 고양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김홍경 씨를 위한 모금활동은 구조에 대한 진위 논란이 있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후원금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공지를 올렸다. 결국 당초 2주일간 계획된 모금활동은 1주일 만에 종료됐으며, 920만원을 쾌척한 24명의 후원자들 가운데 취소 의사를 밝힌 3명에게 70만원의 성금이 되돌아갔다.<br/> 시는 생전 김홍경 씨가 자신도 구조활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휴대폰 동영상을 통해 구조활동이 알려진 점 등을 인정해 남은 후원금 850만원을 모두 전달하기로 했다.<br/> 시 관계자는 “유족들과 모든 협의를 마쳤으며, 6일과 7일 중 성금이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br/>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02.txt

제목: 사리던 몸뚱이, 감자밭에 몽땅 내던지고 나서야 "버리면 얻는구나"  
날짜: 20150703  
기자: 한국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03100000127  
본문: 작전 바꿔 털퍼덕 주저 앉으니 느껴지는 흙의 속살… "진작 이럴 걸"<br/> 무당이 굿하며 방울 흔들 듯, 감자 뿌리를 털어냈다. “<span class='quot0'>감자 알맹이만 남고 풀 껍데기는 가라~</span>” 속으로 주문도 외쳤다. 장마전선이 올라온다는 예보도 있고, 하지에 맞춰 수확해서 하지감자인데 며칠 늦으니 마음이 급해졌다. 맘만 급했지 몸은 전혀 급하지 않은가 보다. 당최 따라와 주질 않는다. 그래 본 적도 별로 없지만 이번만큼은 몸과 맘이 호흡이 맞았으면 했는데 나한테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 <br/> 쪼그려 앉는 것은 애초에 포기했다.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마다 ‘임신여성 빈혈증상이 이렇겠구나’ 하는 어지럼증을 겪었다. 피가 통하지 않던 장딴지에 급히 수혈하느라 머리 속까지 텅 비는 느낌이 들었고, 파란 하늘은 연두색을 거쳐 노랗게 변했다가 5초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달랑 무릎 관절에 쌀 한 가마 몸땡이를 걸치고 버틴다는 것은 나에겐 체벌에 가까웠다. 착하게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이라고 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애써 성실하게 벌 받을 필요는 없었다.<br/> 그냥 두 무릎을 땅에 댄 채 호미도 내 던지고 두 손으로 번갈아 가며 두둑을 파헤쳤다. 오체투지가 별거 있겠나. 머리는 땅에 안 닿아도 팔꿈치까지 쓰면서 이 정도 힘들게 전진하면 그게 그거지 싶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자. 30미터 두둑 13개, 400미터도 안 되는 길이를 해결 못하고 쓰러지기야 하겠는가’ 생각하며 세 번 째 두둑을 시작하는데 쓰러질 것 같았다. <br/> 작전을 바꿔 그냥 주저앉은 채로 전진했다. 다리가 편찮으신 간전댁할머니 방식이다. 가물었지만 방금 헤집은 흙의 속살은 촉촉하고 시원했다. 살짝 젖어가는 엉덩이를 땅에 끌면서 나아가니 ‘왜 진작 이러지 못 했을까. 뭐할라고 쓸데없는 내 몸을 아꼈을까’ 싶었다. 버려야 얻는다는 말을 실감했다.<br/> 현기증 없이 일어나 넷째 고랑으로 들어서려는데 가랑이가 근질근질했다. 약간은 따끔거리기도 했고, 긁어도 가라앉질 않았다. 털퍼덕 앉은 채로 작업하다 보니 아무래도 속으로 개미가 들어간 모양이다. 긁다가 쥐어 뜯다가 해도 소용없었다. 체벌을 빗겨간 것에 대한 또 다른 형벌인가. 연신 비비고 꼬집어가며 농막에 들어가 바지를 내렸다. 까만 바지 까만 살 틈에서 엄폐하고 있는 개미를 찾기란 불가능했다. 작년에 보건소에서 나눠준 해충 기피제를 손에 들고 흔들었다. 프로야구 심판처럼 자세를 잡고 시원하게 뿌려댔다. <br/> 개미가 즉사할 만큼 뿌렸다. 마음까지 시원해졌다. 한 3초 그랬다. 그 이후는 캠핑장 토치를 들이댄 듯 뜨거워졌다. 펄쩍펄쩍 뛰기만 했다. 가랑이를 벌리고 물을 바르고 선풍기를 들이대봐도 소용 없었다. 피가 나도록 긁어댄 피부에 살충제를 뿌렸으니 당연했다. 고등학교 때 지은 죄가 생각났다. 하루는 근면성실하고 순진했던 짝이 결석을 했다. 다음날 학교에 나왔지만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랜 기간 나를 피했다. 결석 전날, 가랑이에 습진이 생겼다 길래 “스프레이파스가 최고”라고 했던 것 뿐인데 많이 아팠나 보다. 응당한 대가라고 생각했지만 움직일 수 없게 아팠다.<br/> 틀어놓고 나간 라디오에선 노래가 나왔다. “<span class='quot0'>베이베 베이베~알러뷰 베이베~</span>”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를 국산 노래에서 왜 그렇게 많이 지껄이는지 모르겠다. ‘나만 안 쓰고 살아왔나?’ 싶었지만 듣기 싫어 껐다. 시간이 지나야 화기가 가라앉을 터, 배달된 채 뜯지도 않았던 주간지를 펼쳤다. 표절에 대한 기사들로 가득했다. 좋아하던 작가였는데 맘이 좋지 않았다. 표절이 드러날까 봐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을까 생각하니 더 안쓰러웠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었다는데 그 ‘알만한 사람’들은 여태까지 뭘 했던 걸까. 공범들이다.<br/> 표절을 일본에서는 도작(盜作)이라 표현한다고 했다. 내 생각에도 절도가 맞다. 출판사는 장물아비니 우리 집 책꽂이엔 애써 취득한 장물들이 꽂혀있다. 도둑질도 나빴지만 변명은 더 언짢다. 작가와 출판사 책임자들이 쓰는 화법은 희한했다. 그들의 말투를 빌려 내 생각을 말하자면 이렇다.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를 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법 하다는 점을 당신들이 인정한다 해도,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움에 치밀어 오르는 비속한 욕을 하게 되면 나의 깨끗하지 못한 육신에 입까지 더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욕은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신 거친 숨이라도 뱉을 수 밖에 없는 사안임을 인정하시고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도둑질과 다르다고 할 수 없는 짓은 도둑질에 해당하므로 그에 마땅한 욕을 드시는 것이 낫겠다는 소견을 마지 못해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 욕심 많은 사람들아.”<br/> 어느 기사에 보니 먹어도 살 찌지 않았으면, 늙지 않았으면, 1만년만 살았으면, 저절로 돈이 생겼으면, 뭐 이런 바람이 남녀노소에 따른 바람이라고 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 식 자재비가 무지하게 든다든가, 친구를 계속 새로 사귀어야 한다든가, 마지막 1천년은 ‘죽을 때가 다됐네’하며 살아야 한다든가 하는 어려움 말이다. 로또 1등 치고 제대로 생활하는 사람 없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병은 오히려 암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들었다.<br/> 비 오기 전에 얼른 남은 감자 캐야 해서 아픈 몸을 끌고 나갔다. 다시 네 발로 기는 자세로 작업에 들어갔는데 D동생이 밭으로 올라왔다. “도와드릴께라?” 짜식, 꼭 필요할 때 나타나니 미워할 수가 없다. “근디 형님, 뭔 자세가 고런다요. 고렇게 엎드리는 거 좋아 헝게 배가 튀어 나오지라” 이?S 맘이 쏙 들어간다. ‘그러면 눕는 거 좋아하는 놈은 등이 튀어나온다냐!’ 하려다가 “그냥 이게 편해” 하고 말았다. <br/> 동생 덕분에 두어 두둑 수월하게 작업하고 잠시 주저앉은 채로 쉬었다. 농막에서 물병을 가져온 동생이 앉으며 말했다. “<span class='quot0'>형님, 올해는 확 거시기를 쳐불까 생각도 했는디, 걍 자연농법만 하기로 했어라.</span>” 농약 안쓰고 감 농사를 짓는데 작황이 좋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어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었다. “잘 생각했어. 나두 혼자 하긴 힘들어. 조그만 더 해보자.” 지금까진 친환경 약재를 같이 만들어왔는데 품이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의지할만한 친구라 ‘잘 했다’는 말은 진심이었다. “잘 허기는요. 형님 우린 이제 모 아니면 도여라. 작년 맹키로 조져 불면 오래 못 버텨라.” “우리한테 모가 오겄냐? 도 나와도 한 칸은 가니까 괜찮어.” “빽 도가 문제지라.” “그래도 멈춰있는 것 보다는 움직이는 게 닛지.” “아따, 진짜 왜 그라신다요. 형님은 가만 보면 남성호르몬이 부족허당게. 테스테론인지 뭔지 약 좀 구해다 드려야 쓰겄네. 뭐 바라는 거 ?좁??” 한숨 참고 얘기했다. “잘 죽는거.” 오랜만에 동생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죠 잉. 허기사 잘 죽을라고 열심히 사는 거지라.”<br/>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속도는 오르지 않았다. 이러다 늦겠다 싶어 초조해지는데 순천으로 귀농해 매실농사를 짓고 있는 형님이 불쑥 찾아오셨다. “엔진 톱 좀 빌리자~.” “형님 우리 엔진 톱 없어요. 남원 친구랑 헷갈리셨나 보네요. 오신 김에 일 좀 도와주시죠 뭐.” 양말이랑 장화를 갖다 드리니 기꺼이 쪼그려 앉으신다. “매실은 많이 파셨어요?” 구례 매실농가들은 작년보다 값이 나아졌다지만 작황이 좋지 않아 울상인 곳이 많다. “나야 없어서 못 팔았지.” 웃으면서 대답하셨다. “우와, 잘 나갔나 보네요. 수입도 좀 올랐어요?” “허어,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팔았다구.” 수확량이 얼마 안됐다는 말씀이었다. “근데 엔진 톱은 왜요?” “<span class='quot0'>응, 매실나무 확 다 베 버릴라구.</span>” 또 웃으셨다. 안 좋은 표정으로 쳐다보니 “괜찮어. 나 살만큼은 벌었어. 맘 편하면 됐지 뭐.”<br/> 사람들이 흔히 하는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은 사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했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잘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희한하게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대부분 “맘 편한 게 최고”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다. 아무리 해 봐도 둘 다 편하기는 어렵다는 걸 깨닫고 난 후에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몸 편한 게 최고”라는 말을 듣기 힘든 것도 희한하긴 하다.<br/> 두 사람 덕분에 비 오기 전날 감자를 모두 수확했다. 다른 농가처럼 쏟아져 나오듯 얻어내진 못했지만 항상 하는 생각대로 비슷하게 생긴 게 나온 것만도 감사했다. 3년간 해왔던 꾸러미를 중지하고 유일하게 들락거리는 SNS에 “감자 팝니다”하고 올렸더니 하루 만에 300킬로그램이 다 나갔다. 그냥 드려도 시원찮은 분들에게 돈 받고 팔아먹는다는 것에 얼굴이 화끈대기도 했다. 어쨌든 흔히 신장 개업하는 가게에서 나타나는 “오픈빨” 현상일 터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에 기쁘기보다는 덜컥 겁이 났다. ‘이게 정점일지 모르는데. 분명 의리에 이끌린 충동구매가 절반일 텐데...’ <br/> 한편으로는 기분이 묘했다. 감자를 팔기 위해서는 한알 한알 세번씩은 손이 갔고, 함께 판매한 감잎차와 어성초스킨도 아내와 간전댁할머니가 씻고 다듬고 뜨거운 솥에 여러 번씩 팔뚝 데어가며 애쓴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내 드리고 내가 얻은 것은 모니터상의 숫자들이다. 이게 뭐길래 늘어난 칸을 보며 안심하고 기뻐하며 먹고 사는 건지.<br/> 이장 친구네 트랙터를 빌려다가 처음으로 운전도 해보고 콩 심을 밭도 갈았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콩 파종기를 가져와 200평 가까운 밭에 메주콩을 다 심었다. 넓게 심었더니 그물을 덮어 주기도 힘들고 잡새 들이 와서 파 먹든 잘라 먹든 어쩔 수 없다 싶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이 비가 오면 새들이 덜 날아오고 피해도 적어진다고 하셨다. 하늘이 날 도와줄 때도 있구나 싶었다.<br/> 트랙터를 다시 갖다 주고 친구와 작물 판매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그 친구는 하우스에서 재배한 수박이 제값을 받지 못해 속상해 했다. “난 돈 들어오는 것 보다 잘 먹겠다고 맛 있다고 메시지 주면 그게 더 좋더라구. ” 하는데 친구가 말을 무 자르듯 끊었다. “얌마! 돈 안 들어오고 메시지만 받아두 그게 좋다고? 그건 아니잖어. 그리고 그것두 욕심이여!” <br/> 맞는 말이다. 욕심 없다고 말하는 것도 욕심이고, 그런 척 하는 건 더한 욕심이다. 생각해보니 하늘이 나만 도와줄 리도 없다. 별걸 다 갖다 붙여 생각했다. 건방지게 하늘 아래 혼자만 살겠나.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것만 욕심이라 하지 말고 들어주면 좋겠구만. 그것도 지나치다면야 할말 없고.<br/> 前 한국일보 기자 cameragaga@naver.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03.txt

제목: 꼭 봐야 할 아침뉴스 7 (7월 2일 목요일)  
날짜: 201507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02100000017  
본문: 1. 청와대-친박 '유승민 물밑 고사작전'<br/>-유승민 주재·참석 회의 줄줄이 '삐걱'<br/>-'유승민 감싸기' 나선 비박계 중진들<br/>-여당 최고위원 3인방의 낯뜨거운 돌변<br/><br/>2. 삼성병원 조사방해? 정부는 묵인!<br/>-"공권력 가진 당국의 직무유기"<br/>-"지원은 쥐꼬리, 책임 전가만.." 뿔난 의사들<br/>-"WHO, 한국이 정보 안 줘 직접 방문했다"<br/><br/>3. '15조+α카드', 고꾸라진 경제 살릴까<br/>-수출·내수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br/>-"근본적 성장잠재력 확충" 목소리<br/><br/>4. 월세면 어때? 난 꾸미고 산다<br/>-금전적 여유 없는 20,30대<br/>-나만의 공간 가꾸기 매력에 빠져<br/><br/>5. 요동친 朴-솟구친 劉... SNS선 엇갈린 명암<br/>-6월 트위터 흐름 분석<br/>-劉 몰아내기 논란 이후 부정어 급증..劉, '진심, 책임' 등 긍정적 언급 많아<br/><br/>6. [단독]야당 중진의원 측근 '뇌물 수뢰 혐의'로 체포<br/>-건설폐기물 업체, 사업 수주 위해 금품로비 의혹<br/>-A의원의 친동생도 연루돼 A의원까지 수사 확대될지 주목 <br/><br/>7. 8인조 소녀시대 vs 4인조 원더걸스<br/>-2007년 데뷔 동기 4년 만에 맞대결<br/> <br/> ‘꼭 봐야 할 아침뉴스 7’에서 소개된 기사들은 한국일보닷컴(www.hankookilbo.com)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04.txt

제목: 소변 검사에서 소변이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날짜: 201507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01100000046  
본문: 소변 검사에서 소변이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br/> <br/> <br/>육안으로 소변이 피처럼 빨갛게 보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소변검사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소변에 극소량의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이 검출 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검사에서만 검출 될 정도면 출혈 양도 매우 적은 양이므로 빈혈을 걱정할 일도 전혀 아닙니다. 다만 소변 검사에서 피가 검출되는 현상이 소변이 만들어지고 이동하고 보관되는 장기인 신장·요관·방광·전립선·요도 등의 질병에 의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 추가 검사를 해 보시도록 권유 합니다.<br/> <br/> 아무 문제 없이 체질상 피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가 나올 수 있는 질환은 크게 염증과 결석 그리고 암으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염증인 경우에는 애초에 시행 한 소변검사에 피 성분뿐이 아니라 염증세포가 함께 검출 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빈뇨·급박뇨·배뇨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상태에서 혈뇨가 검출 되는 경우엔 염증을 치료 하여 혈뇨가 사라지는지 확인 하면 됩니다.<br/> <br/>검사에서 염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엔 요로 결석이나 드물긴 하지만 암 발생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방광내시경과 CT를 찍으면 속 시원하게 이상이 있나 없나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 심하지 않은 혈뇨에 속 시원 하려고 이 두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과한 진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만 검출 되는 정도의 혈뇨라면 신장과 방광을 보는 초음파 검사와 소변에 암세포의 존재를 확인 하는 정도로도 충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정도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이 소변검사 이상으로 발견 되는 경우엔 결석이든 암이든 아주 초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오히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더 맞습니다.<br/> <br/> 비뇨기계의 이상을 발견하기 위해 하는 검사 중, 소변검사는 아주 간단하고 유용한 검사이니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쯤은 꼭 검사를 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소변에 피가 나올 경우 너무 놀라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아 검사를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br/> <br/>이영훈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비뇨기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05.txt

제목: 동에는 동학사, 서에는 갑사...털레털레 둘러보세  
날짜: 20150701  
기자: 최흥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701100000166  
본문: 널리 알려져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 충남 공주 계룡산이 그렇다. 이상보의 수필 ‘갑사로 가는 길’하나만으로 계룡산 등산로는 훤히 꿰뚫고 있는 듯하고, 남매탑 전설 하나로 갑사와 동학사는 모두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br/>닭볏을 닮은 용머리 능선 따라 28개 봉우리와 7개의 계곡을 품고 있는 계룡산은 네 골짜기에 이름난 사찰을 품고 있(었)다. 동에는 동학사, 서에는 갑사, 남에는 신원사가 있다. 북측 구룡사 터에는 도예촌이 들어섰다. ‘절이 다 그렇지’한다면 겉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한 평가다. 제각기 다른 색을 품고 있는 4개 사찰을 따라 계룡산을 한 바퀴 돌아본다. <br/>https://youtu.be/wModTIDjVsE<br/>●계룡산 도사들의 성지, 신원사.<br/>전국에 명산이 많지만 계룡산만큼 도사와 어울리는 산도 없다. 설악산에서 도를 닦았다면 웃음거리가 되기 쉽고, 지리산에서 수행했다면 뭔가 좀 부족하게 들린다. ‘수능 100일 기도’현수막은 어느 사찰에서나 흔하다. 신원사 경내에는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현수막이 하나 더 있다. 이른바 ‘산신 100일 기도 도량’. 산신을 모시는 전각이 대웅전보다 유명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파격적이다. 그래서 신원사에서 눈 여겨 볼 건물은 중악단(中嶽壇)이다. 악(嶽)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 큰 산’이다. 묘향산과 계룡산 지리산에 각각 상·중·하악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룡산 중악단만 남았으니, 산신에게 제를 올리는 곳도 이곳이 유일하다. <br/>중악단은 외형부터 절간 건물이 아니다. 솟을대문 형식의 정문, 행랑채가 딸린 중문을 지나 중악단까지 3개 건물이 일직선을 이루고 주위로 담장을 둘렀다. 양반가옥 구조에 위인을 모시는 단묘(壇廟) 형식을 더했다. 궁궐의 축소판으로도 볼 수 있다. 붉은 기와 꽃 문양이 담장을 장식하고, 추녀마루에는 7개의 잡상(雜像)까지 올렸다. 고종 16년(1879) 명성황후의 명으로 다시 지었다니 궁궐 양식을 더한 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br/>중악단에선 매년 음력 3월 16일 대규모로 산신제를 올리고, 매월 16일에도 일반법회 보듯 제를 올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주로 계룡산 인근 무속신앙인들이다. 갑사에서 신원사로 통하는 도로 주변에는 ○○암, ○○굿당, ○○도사 등의 간판을 내건 신당(神堂)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국립공원 안의 기도시설을 정비하면서 산속에서 나온 무속인들이 대부분 계룡산을 뜨지 못하고 인근에 자리잡은 결과다. 말로만 듣던 ‘계룡산 도사님’이 도처에 깔린 모습이 흥미롭다.<br/>●으뜸 사찰 으뜸 숲길, 갑사<br/><br/>갑사는 말 그대로 으뜸인 절이다. 누군가는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으뜸이라지만 방문객들에게 으뜸은 누가 뭐래도 울창한 숲길이다. 주차장에서 사천왕문에 이르는 길에 수령 100년이 넘는 아름드리 거목들이 터널을 이루고 있다. 이름하여 ‘갑사오리길’이지만 실제 길이는 5리(2km)에 못 미친다. 큰 나무가 뿜어내는 신선한 기운에 발걸음도 오리처럼 절로 느릿해지니 그리 불러도 좋겠다. <br/>호젓하기로는 이 길 중간쯤에서 오른편으로 갈라지는 옛길이 한 수 위다. 개울을 끼고 걷는 비포장 흙 길이다. 작은 다리를 건너면 오솔길 사이로 문득 큰 굴뚝처럼 당당한 철 당간이 버티고 섰다. 당간은 절 입구에 깃발을 매다는 장대였으니 애초 갑사의 시작은 이곳이었으리라. 지름 50㎝, 15m 높이의 철 기둥이 홀연히 하늘을 찌르고 있는 모습이 신라시대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br/>이곳에서 소박한 돌 계단 몇 개 오르면 작은 전각과 돌탑을 만난다. 대적전과 승탑이다. 비로나자불을 모시는 대적전엔 석가모니불을 모셨고, 무덤에 해당하는 승탑을 불전 앞에 세웠으니 불가 예절로는 모두 오류로 지적된다. 대적전도 원래 대웅전이 있던 자리였다니 이 또한 뒤죽박죽이다. 복잡한 사연까지는 알 길이 없고, 길손의 눈길은 연꽃모양 받침에 아기자기한 조각이 돋보이는 승탑에 머문다. 달리는 듯한 사자상 앞에 보일 듯 말 듯 정교한 사천왕상이 앙증맞다. <br/>이곳에서 산모퉁이 돌아 계곡을 건너면 바위아래 조그만 석조약사여래입상이 발길을 잡는다. 작은 석굴암을 보는 듯하다. 이것도 갑사 뒤편 암자에서 옮겨온 것이란다. 예서 몇 걸음 옮기면 그제야 정문에 해당하는 강당이다. 세 글자 이름에 익숙하다 보니 그냥 ‘갑사’로는 뭔가 허전하다. 그래서일까? 강당에 걸린 현판은 ‘鷄龍甲寺(계룡갑사)’다. 푸른 하늘보다 진한 쪽빛 글자가 선명하다. 강당은 보통 대웅전 뒤편에 위치하는데 갑사 강당은 특이하게도 대웅전 앞을 지키고 있다.<br/>그러고 보니 갑사에는 제자리 아닌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어긋남에서 오는 불편함보다 자연스런 평온함이 느껴지는 건 순전히 시간의 힘이리라. 백제 때(420년) 창건해 수 차례 중건·소실·재건 과정을 거치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을 게다.<br/>●동학사, 사찰일까 사당일까 <br/><br/>동학사 입구는 나무향기보다 부침개 냄새가 더 고소하다. 주차장에서부터 매표소까지 넘친다 싶을 정도로 음식점이 즐비하다. 대전과 가까워 계룡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번잡스럽지 않을 만큼 계곡은 넉넉하고 걷는 길도 포장이 잘 돼 있다. 대신 갑사에서 느끼는 아늑함은 포기해야 한다. <br/>동학사에선 일주문에 닿기 전에 홍살문을 먼저 지난다. 능이나 묘(廟), 관아의 정면에 세우는 문이 사찰 입구를 지키고 있으니 의아할 수 밖에 없다. 동학사가 역사 인물을 기리는 3개의 사당을 품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숙모전과 삼은각, 동계사가 사찰 한 가운데 주인처럼 자리잡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된 듯도 하다.<br/>가장 먼저 생긴 동계사(東鷄祠)는 신라 충신 박제상과 고려 개국공신 류차달을 배향하는 곳이고, 삼은각(三隱閣)은 고려말기 성리학자 목은(牧隱)이색, 포은(圃隱)정몽주, 야은(冶隱)길재를 기리는 사당이다. 숙모전(肅慕殿)에는 조선 세조 때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된 사육신과 그들의 시신을 수습한 김시습, 단종의 위패까지 봉안하고 있다. 매년 수많은 유생과 후손들이 참가하는 제사도 올리고 있다니 동학사는 사찰(寺刹)이 아니라 사당(祠堂)이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다. <br/>그러나 동학사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남매탑 전설에서 비롯한다. 목숨을 구해준 스님에게 여인을 선물한 호랑이의 엉뚱한 보은으로 끝내 의남매로 열반에 들 수 밖에 없었던 두 남녀의 전설이 깃든 상원암이 출발점이다. 큰 사찰에 딸린 암자들이 본사에서 떨어진 산중에 위치하는 것과 달리 동학사 가람 배치는 관음암 길상암 미타암을 거쳐 범종각과 대웅전으로 이어진다. 산을 훼손하지 않고 계곡 주변 좁은 터를 따라 불사를 지은 탓이다.<br/>●철화분청사기의 부활, 계룡산 도자예술촌<br/><br/>계룡산 북측자락 반포면 상신리에도 구룡사라는 사찰이 있었다. 공주에서 대전 유성구로 이어지는 32번 국도를 따라가다 동학사 입구 못 미쳐 하신리·상신리로 들어선다. 목 좁은 계곡을 한 굽이 돌면 하신리 마을이고, 끝날 것 같은 길을 다시 한번 돌면 상신리다. 계룡산 도예촌은 더 이상 찻길이 없는 계곡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br/>이곳 도예촌은 1992년쯤 청년 도예가들이 삶의 터전을 꾸리며 시작돼 지금은 12가구가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집집마다(대부분 부부가 함께 작업한다) 작품경향은 다르지만 도기의 이름은 모두 계룡산 철화분청사기다. 철분이 많은 흙에 쇳가루와 돌 가루로 그림을 그린 철화분청사기는 이곳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도예인들 사이에선 그냥 ‘계룡산’이라면 통한단다. <br/>14세기부터 이 일대에서 철화분청사기를 제작했다니 역사가 오래다. 일본 아리타 도자기의 도조(陶祖)로 추앙하는 이삼평(?~1655)도 반포면 출신이다. 지금은 국립공원지역으로 흙을 채취할 수 없고 교통도 불편해 딱히 입지조건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도 철화분청사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곳을 뜨지 못한다. <br/>“도기 만드는 사람은 들어앉아 꾸준히 일해야 하는데, 이곳은 사방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어서 별로 나가고 싶은 맘이 생기지 않아요. 절터라서 아늑한 것도 좋고…” ‘웅진요’ 공방을 운영하는 양미숙 작가의 대답이다. 마을 정면 삼불봉에서부터 계룡산 기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br/>그러나 더 큰 이유는 이곳 도예 작가들이 직접 작업장과 집을 짓고 상신마을 주민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도움도 얻고 신뢰도 쌓았다. 예술촌으로 이름나면 전원주택이 들어서 땅값이 오르기 일쑤고, 카페와 식당까지 북적이면 결국 예술가들이 떠나는(쫓겨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반해 계룡산 도예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다. 도예촌 전시장에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곳에 모아 전시 판매하고 있다. 집집마다 특색 있는 작품을 내건 마을을 둘러보는 것도 흥미롭다.<br/>상신마을 중간에는 구룡사 당간지주만 남아 이곳이 절터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당간지주 뒤편 미완의 팔각정이 흥미롭다. 서울 소공동의 환구단을 본뜬 듯한 3층 팔각정은 20년 가까이 공사 중이란다. 한 개인의 집념이 어떤 모습으로 결실을 맺을지 궁금해진다.<br/>공주=최흥수기자 choissoo@hankookilbo.com<br/>[여행 메모]<br/>●계룡산 4개 사찰(터)을 둘러보려면 갑사와 신원사를 한 구역으로 묶고, 계룡산 도예촌과 동학사를 다른 구역으로 묶어 이동하면 편리하다. 신원사와 동학사 사이에는 연결도로가 없다. 수도권에서 간다면 당진대전고속도로 공주IC을 이용하는 것이 빠르다. ●4개 구역은 모두 등산로로 연결돼 있다. 남매탑까지는 동학사에서 가장 가깝다(약 1.7km). ●계룡산 도예촌(041-857-7331)은 가족과 단체를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작가 별로 운영하며 당일과 숙박프로그램이 있다. ●공주시는 ‘으뜸공주맛집’100개를 지정해 식당 입구에 표시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위생과 맛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70여 개 식당이 지정돼 있다. 음식점은 시내권에 공산성 주변, 계룡산권에는 동학사 지구에 밀집해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06.txt

제목: 천안 고교평준화 ‘지망순위 무제한 학교배정’  
날짜: 20150630  
기자: 이준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30100000187  
본문: 천안 고교평준화 ‘지망순위 무제한 학교배정’<br/> <br/> 충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학교배정을 학생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는 ‘지망순위 무제한 배정방법’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br/> 지망순위 무제한 배정은 남학생 1지망부터 9지망, 여학생은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희망 학교를 지정, 제출하면 천안지역 고입전형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배정정원의 100%를 지망 순위에 따라 1지망 지원자부터 컴퓨터 추첨으로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방법이다.<br/> 이 방법은 해당 학교의 모집정원을 1지망에서 못 채우면 2지망, 3지망, 4지망 등의 학생을 순차적으로 배정한다.<br/> 또한 1지망 지원 학생이 모집정원을 넘으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고 탈락한 학생은 2지망, 3지망, 4지망 등의 학교에 순차적으로 배정해 마지막 지원 학교까지 배정하게 된다.<br/> 특수한 경우는 배정에서 우선 고려했다. <br/> 천안시 읍·면 지역 중학교 졸업생은 출신 중학교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1개 학교를 제외하고 배정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와 체육 특기자는 해당 위원회에서 배치한 학교에 배정키로 했다.<br/> 지체부자유자, 암·희귀·난치병 환자, 국가유공자 자녀, 소년·소녀 가장, 2급 이상 중증 장애부모의 자녀 등은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거리 고교에 배정토록 배려했다.<br/> 이인수 교육정책국장은 “<span class='quot0'>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비 선호학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장거리 통학생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요청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br/> <br/>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07.txt

제목: 2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날짜: 201506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30100000069  
본문: 국방<br/> <br/> ▦군인 전투복 태극기 부착=8월부터 전 장병 전투복에 태극기 마크를 부착한다. 일반 군복색과 위장색 두 종류로, 전투복에 떼고 붙일 수 있다. <br/>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보급=부모가 군 복무 중인 자식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4만4,686대가 올해 말까지 보급된다. <br/> ▦예비군 사격훈련체계 개선=5월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고정 틀과 안전고리 표준화, 통제관의 안전고리 스마트키 관리 등 사격훈련체계 개선 방안을 도입한다.<br/> ▦인터넷에 병역기피자 신상정보 공개=불법 해외체류, 징병검사 회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7월 1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역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병역기피 일자와 요지 등을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br/> <br/> 생활<br/> <br/>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도입=여권신청서에 영문성명과 연락처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담당공무원이 여권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불러와 확인하는 방식의 여권 업무 간소화제도. 7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239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br/> <br/> <br/> 세제ㆍ공정거래<br/>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로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선택할 수 있다. <br/> ▦우체국 보험ㆍ택배 피해도 소비자원 구제= 우체국 보험ㆍ예금 ㆍ택배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볼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소비자원은 우체국을 상대로 한 소비자 민원에 관련 법에 의거해 상담 서비스 정도만 제공해 왔다. <br/> <br/> 금융ㆍ증권ㆍ외환<br/> ▦계좌이동제 시행= 7월부터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ㆍwww.payinfo.or.kr)에서 각종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출금이체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등록된 모든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새 계좌로 옮겨지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br/> ▦사망자 재산 원스톱 확인= 자녀 등 상속인이 전국 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정보, 국민연급 가입여부, 부동산보유 현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br/> ▦성실 상환자 긴급 생계자급 대출= 8월부터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미소금융 등 서민 정책금융 상품 이용자 중 1년 이상 꾸준히 갚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에서 대출이 허용된다. <br/> ▦징검다리 전세대출 보증상품 대상 확대= 주택금융공사가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 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의 수혜대상을 2012년 11월 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서 올해 5월 말 이전 대출로 확대한다. <br/> ▦‘한국판 다우지수’ 도입= 7월 중순 국내 초우량 종목을 편입시켜 만든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가 탄생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30개가 포함된다. <br/> <br/> 농림ㆍ해양ㆍ교통<br/> ▦미곡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7월 7일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유통ㆍ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br/> ▦마리나 서비스업 도입= 요트대여, 클럽형 마리나 운영 등이 가능한 마리나 서비스업이 7월부터 도입된다. 운영사는 선박 보관ㆍ계류업을 하면서 선박수리ㆍ청소 등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br/>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허용= 4.5톤 이상 화물차도 8월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톨게이트 진입 시 중량을 측정하는 축중기가 설치된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br/> ▦장애인용 저가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보급형인 하이패스 행복단말기에 본인인증을 위한 지문인식기능이 추가된 10만원대 미만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9월부터 보급된다. <br/> <br/> <br/> 산업·에너지·무역<br/>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국 647만 가구에 총 1,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8만1,000여 곳에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br/>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 동절기 난방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총 1,058억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 규모는 3개월간 평균 10만6,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로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올 12월부터 3개월간 쓸 수 있다. 수령 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br/>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 지난해 말 법 개정으로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분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항만 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계획변경 소요 기간이 3∼6개월 단축된다.<br/> ▦유럽산 소형차 관세율 인하 =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째를 맞아 일부 유럽산 수입 자동차의 관세율이 낮아진다. 한·EU FTA 규정에 따라 7월1일부로 유럽차 중 배기량 1,500㏄ 이하 소형차의 관세율이 종전 2.6%에서 1.3%로 인하된다. 유럽산 하이브리드카 관세율도 2.6%에서 1.3%로 조정되고, 화물차 관세율은 3.3%에서 1.6%로 낮아진다.<br/> <br/> 중소기업<br/> ▦중소기업 확인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기업이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던 지배·종속관계기업 매출액 등 관련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 해당 과정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편된다.<br/> ▦정부 지원 부당 수령 과태료 기준 상세화 = 허위 자료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진다. 3년 사이 처음 적발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1차 과태료 부과일을 기준으로 2차와 3차 위반행위 적발일이 3년 이내일 경우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br/> ▦농식품·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자 ‘제7 홈쇼핑’으로 불려온 공영 TV홈쇼핑이 7월 출범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수협중앙회를 주주로 하는 공영 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중점적으로 판매한다.<br/> ▦내년 만료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 =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에 기한이 끝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재합의 신청을 9월부터 접수해 재합의를 진행한다. 내년에 지정이 만료되는 품목은 플라스틱봉투,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산식품 소매업, 제과점업(이상 2월 말), 기타식사용 조리식품, 음식점업, 자동차 전문수기업(이상 5월 말) 등이다.<br/> <br/> 통신·과학<br/>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 = 3월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업체에서 침해사고나 정보 유출, 일정 기간 서비스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줘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종료나 중단의 경우 이용자 정보를 반드시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br/> ▦광역지자체 소프트웨어(SW) 영향평가 = 하반기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SW영향평가가 시행된다. 공공정보화사업을 기관 공동사용형과 대 국민 서비스형으로 분류해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재검토, 실행유의사업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br/>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통합 지원 = SW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전공 교육 강화, 산학 협력 활성화, SW융합인력 양성 등 고급 SW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로부터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SW교육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7월 공모를 통해 SW 중심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br/> ▦소프트웨어(SW) 창의캠프 전국 확대 시행 = SW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SW 창의캠프(기초영역)가 7월부터 전국 4대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2013년 100명, 2014년 200명이었던 SW창의캠프 참가인원을 올해 1,500명으로 확대했고, 개최횟수도 기초캠프 12회, 심화캠프 2회로 늘려 많은 학생들이 SW창의캠프에 참가해 SW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br/>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제 도입 =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비 관리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br/> <br/> <br/> 복지ㆍ보건<br/> ▦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로 =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높아지고,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br/>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지원 = 실업크레딧 제도에 따라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br/>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ㆍ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혜택의 경우 내후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br/>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br/> ▦국가흡연폐해 연구소 출범 = 담배의 위해성을 연구할 첫 국가 연구소인 ‘국가 흡연폐해연구소’가 8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된다. 연구소는 우선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과 첨가물, 배출물(연기)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br/> <br/> 여성ㆍ청소년<br/>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동이 학대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되면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볼 수 있다.<br/>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 지난 20여 년간 여성 정책의 근간이 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된다. 남녀 모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모성권 외에 부성권이 보장된다. <br/>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 의무공개 = 8월 4일 시행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가 의무 공개돼 이용자의 알권리가 보장된다.<br/> ▦야영장업 등록제 도입 = 야영장업의 등록제 도입으로 기존 야영장업자는 올해 8월 3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또 야영장업자는 8월 4일부터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시행해야 한다. 화재예방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반입ㆍ사용이 금지된다. <br/> ▦모든 공연장 등록 의무화 = 현행 공연법은 객석 수 50석이나 객석 바닥면적 50㎡ 이상 공연장에 대해서만 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올해 11월부터 모든 공연장이 등록 대상이 된다.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br/> <br/> <br/> 교육 <br/>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시범도입= 대학 강의를 누구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가 오는 9월쯤 시범 도입된다. 서울대와 고려대, 포항공대 등 10개 대학에서 27개 강좌가 우선 선보인다.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br/>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내달 21일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학교급별 중점 사항을 반영한 인성교육 지도자료 및 권장도서 목록 등이 개발된다. 인성교육은 하반기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내년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br/> <br/> 사법ㆍ법무<br/> ▦일반인 경찰제복 착용하면 처벌=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ㆍ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제조ㆍ판매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행은 12월 31일부터다.<br/>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높고 긴급할 경우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된다.<br/> ▦청원경찰 보수 인상= 청원경찰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으로 인상된다. 7월 1일부터 적용된다.<br/> ▦안전기준 초과 차량 허가 절차 간소화=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도로법상 안전기준도 초과할 경우 운행을 위해서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 양쪽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어느 한쪽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br/>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 가정폭력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7월부터 피해자 집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경찰의 주기적 순찰도 시행된다.<br/> ▦강력범죄자 가석방 정보, 경찰에 통보= 살인ㆍ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 방지 차원에서 가석방된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된다.<br/>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시행= 채무액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관계인 집회 절차가 생략되고 비용도 줄어드는 ‘간이회생절차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br/> ▦미혼부 출생신고제 도입= 11월 19일부터 미혼부가 아이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땐 가정법원 확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br/> ▦친권 정지ㆍ제한 재판제도 시행= 10월 16일부터 자녀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친권자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제도가 시행된다. 부모의 친권 남용,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안 해 자녀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서다. 친권자의 친권 행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땐, 친권의 일시정지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br/> ▦단독사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제 도입=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었던 형사단독(법관 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들 가운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희망 시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참여재판 진행이 가능해진다.<br/> ▦민사재판 당사자 의견진술권 보장= 내달부터 민사재판의 소송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 재판장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상대방 당사자가 사전에 신문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신문사항 사전제출 의무’를 정한 대법원 규칙은 폐지된다.<br/> ▦무연고 사망자 통보제 시행= 7월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처리할 수 있게 된다.<br/>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 가능= 경량항공기(탑승자 2인 이하ㆍ자체중량 115㎏ 이상ㆍ최대 이륙 중량 600㎏ 이하)와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11월 19일부터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만 가능했다.<br/> <br/> 서울시정<br/> ▦남산 대기청정지역 조성ㆍ운영= 8월부터 서울 남산이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배출가스를 내뿜는 경유버스의 통행료는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br/>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12월부터 스마트폰에 카카오톡만 설치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ETAX 또는 STAX(서울시 스마트폰 세금납부) 이용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방법 중 카카오페이 선택, 고지서 바코드 촬영 후 결제 비밀번호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다.<br/>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7월부터 한옥에 대한 건축법 적용 규정이 완화돼 한옥 건축 절차가 쉬워지고, 한옥 건축의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의무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br/>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가동=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비스가 시행돼 복지 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찾아가 건강상태 체크,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br/> <br/> 노동ㆍ환경<b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자 1인당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하된다. <br/> ▦대체인력 지원 강화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 지원했으나 하반기부터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br/>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 강화 = 지금까지 사업주가 도산했을 때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승소 확정판결 일자는 2015년 7월 1일 이후여야 한다. <br/> ▦친환경 제품 표시·광고 감시 강화 = 친환경 위장 광고 등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가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 기업이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br/> ▦초등학교 도서관 환경안전관리 강화 =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외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9월 25일부터 초등학교 내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환경안전관리기준(납ㆍ카드뮴ㆍ수은ㆍ6가크롬 합이 0.1%이하)을 지켜야 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08.txt

제목: 온라인 암보험, 오프라인과 별 차이 없어  
날짜: 201506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29100000089  
본문: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 비해 10~15% 저렴하다. 설계사에게 돌아갈 수수료를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악화로 합리적 소비 문화가 자리매김하면서 같은 이유로 온라인 암보험이 관심 대상이다. 온라인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가입 시보다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br/> <br/>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14개 생명보험사의 45개 암보험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40개 상품이 대면(설계사를 통한 가입)ㆍ비(非)대면(온라인, 홈쇼핑 등) 채널 판매 가격에 차이가 없었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입 시 가격 차이가 없었다는 말이다.<br/> <br/>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40개 상품의 경우 대면-비대면 가입 채널 차이와 상관없이 보험료, 만기환급금, 보험료지수가 같았다. 특히 보험료지수가 같다는 것은 보험사가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에 필요한 사업비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업비에는 설계사 수당ㆍ판매촉진비ㆍ점포운영비ㆍ직원급여ㆍ수금비용 등이 포함된다.<br/> <br/>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보험은 설계사 수당, 점포 운영비 등이 거의 들지 않는데도 설계사를 통해 계약하는 상품과 똑같은 사업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에게 돌아 가야 할 가격 혜택은 그만큼 줄어든다.<br/> <br/>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온라인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설계사의 행정적 지원 등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데도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막연히 비대면 채널 상품의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br/> <br/>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요율 자율화 정책에 따라 사업비 부과를 금융사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br/><br/><br/>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09.txt

제목: [한국에 살며] 한국의 성소수자 문제  
날짜: 20150626  
기자: 웰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26100000084  
본문: 성소수자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부인에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한국은 의미있게도 유엔의 성소수자 보호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얼마 안 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하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또한 성소수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높이는 데 찬성했다. 반 총장은 ‘호모포비아와의 싸움’이라는 한 행사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인용해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고 있다. 일부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다”라고 말했다.<br/>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의 많은 곳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것 같다. 지난해 한국내 한 조사에서 57%가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깜짝 놀랄 만큼 높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서울시는 크게 잘못된 일련의 동성애 혐오세력들의 반대시위 이후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계획을 폐기했다. 문제는 지난 달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맞서 몇몇 기독교 조직이 벌인 반대시위로 더 분명해졌다.<br/> 축제 개회식 동안 시청과 덕수궁 주변에 있었다. 수백 명의 반대시위자들이 ‘게이 아웃:동성애자들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플래카드를 흔들고 마이크로 증오를 외치며 평화로운 행사를 방해하려 했다. 이런 광경에 정말 충격을 받았다.<br/> 나는 아리랑TV 의 토론 프로그램인 ‘슈터스(Shooters)’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몇 주 전 결혼제도가 구식인지 아닌지를 토론했다. 나는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됐고 그렇다면 결혼은 구식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아일랜드는, 결혼이 우리가 최근 서울의 길 위에서 봤던 차별, 증오와 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줬다.<br/>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합법화 투표 결과는 사회적 혁명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아일랜드가 가톨릭교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오랜 보수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오늘의 투표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냈다. 우리는 포용, 관용, 사랑 그리고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관대하고, 인정 있고, 대담하며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한국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주목할만한 사건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아일랜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면 한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br/> 한국에서 5년을 지내오면서 한국이 내 고향 스코틀랜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이 스코틀랜드를 본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코틀랜드는 성소수자 평등에서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소리를 최근 들었다.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성소수자 권리를 두고 씨름하는 방식과 한국의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br/> 올해 초 한국 정부는 성소수자와 동성애에 관한 교육을 가로막는 새로운 ‘성교육 표준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다. 한국은 대신 영국 고등학교의 동성애자 교감인 린드세이 스키너의 사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스키너는 “<span class='quot0'>학교 내에 동성애자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다양성을 논의하고 동성애혐오증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매우 귀중하다</span>”고 말했다. 그가 옳다. <br/> 의심할 여지없이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급진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한다. 동성애 공포심에 사로 잡힌 기독교 혐오세력들은 암적 존재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력과 한국 정부의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무관심은 세계적인 문제다. 내일은 ‘2015 서울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가 열린다. 한국은 아일랜드가 그랬듯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런 행사를 통해 전세계를 향해 평등권과 포용 그리고 사랑을 옹호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br/> 배리 웰시 숙명여대 객원교수ㆍ서울북앤컬처클럽 주최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10.txt

제목: 5년 만의 새 앨범도 저항가요… 대상은 암세포죠  
날짜: 20150625  
기자: 고경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25100000082  
본문: 항암치료 중에도 틈틈이 녹음… "좋아하는 일할 땐 고통도 멈춰"<br/> <br/> “어때 보여요. 환자 같지 않죠?”<br/> 19일 서울 연희동 지하 스튜디오에서 만난 안치환(50)이 대뜸 물었다. 지난해 직장암 판정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그는 약간 핼쑥해진 것 빼곤 크게 아팠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머리 숱도 변함이 없다. “저도 의사에게 그것부터 물어봤어요. 직장암은 항암제를 맞아도 머리가 별로 안 빠진대요. 몸무게도 원래 67㎏에서 54㎏까지 빠졌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해서 63㎏쯤 됩니다.”<br/> 완치라는 표현 대신 그는 “치료가 끝난 지 5개월쯤 된다”고 말했다. “5년이 지나야 완치됐다고 말한답니다. 음식 가려 먹고 운동하면서 조심조심 살아야죠. 전에도 직장(職場) 없이 살았는데 이젠 평생 직장(直腸) 없이 살아야 합니다.(웃음)”<br/> 암과 싸우면서 그는 5년 만의 정규앨범인 11집 ‘50’을 만들었다. 쉰이라는 나이에 접어들며 느낀 좌절과 고통, 희망을 담은 앨범이다. 병원에서 쓴 ‘나는 암환자’와 ‘병상에 누워’도 있고,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며 비통한 마음에 쓴 ‘천국이 있다면’, 세상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외치는 ‘셰임 온 유’ 같은 곡도 있다. 포크 록과 발라드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적 색채는 큰 변함이 없다.<br/> 치료를 받으며 녹음을 해낸 과정은 경이롭다. 항암치료로 1주일간 죽을 듯한 고통을 느끼고 나면 다음 치료 전까지 1주일 정도 견딜 만한 시간이 오는데 그 잠깐의 시간에 집중했다.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음악 하는 사람인데 음악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릿속에 음악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는데 그걸 갖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br/> 수술 후 하루에 수십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젠 공연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정도다. “옐로카드를 받았다”는 생각에 담배도 끊고 음주량도 확 줄이고 식생활도 바꿨다. 하지만 “스트레스의 근원인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각만은 잘 바뀌지 않더라”라며 웃었다.<br/> 일생 저항을 노래했던 그는 이제 저항의 화살을 암세포에게로 돌렸다. “<span class='quot0'>암에게 저항하며 투쟁하는 저항가요</span>”라는 ‘나는 암환자’에서 그는 ‘내 목숨 주인은 암이 아니라 / 널 이겨낼 나라는 걸 / 내가 몸으로 보여주겠어’라고 노래한다. 앨범에는 염세적인 가사도 담겼지만 희망의 정서가 지배적이다. “당연하죠. 노래는 희망이고 바람이고 꿈이니까요.” <br/> 무조건 항복하는 대상도 있다. ‘병상에 누워’는 자신을 간호하느라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담아 쓴 곡이다. 그는 “<span class='quot0'>낯설고 두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 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span>”고 했다. <br/> 안치환은 민중가요 노래패 ‘새벽’ ‘노래를 찾는 사람들’ 멤버로 시작해 1989년 솔로 데뷔한 뒤 ‘내가 만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여러 곡의 히트곡을 냈다. 하지만 가수로서 청춘기를 보낸 지금 그는 대중과 소통의 밀도가 줄어드는 것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사랑이 떠나버려 나는 울고 있네’는 바로 그런 심정을 담은 노래다. <br/> 그는 연말쯤 단독 콘서트를 할 계획이다. “예전만큼 공연이 잘 되지 않아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규모의 공연장이든 작은 공연장이든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앞으로 남은 인생, 뮤지션으로서 잘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면 고통도 멈추더군요.” <br/>고경석기자 kav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11.txt

제목: 어머니… 가장 소중한 세이브를 놓쳤습니다  
날짜: 20150624  
기자: 함태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24100000086  
본문: "단단한 몸 물려주신 어머니 덕" 입에 달고 살던 두산 마무리 노경은<br/>모친 암 판정 두 달 만에 별세 "지켜드리지 못해…" 뼈아픈 사모곡<br/>“건강한 몸을 물려주셔서….”<br/> 기자와 마주 앉아 진행한 모든 인터뷰에서 노경은(31ㆍ두산)은 ‘어머니’란 단어를 빼 먹지 않았다. 2012년 8월 어느 날이었다.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해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갑자기 투구수가 불어났는데 몸은 괜찮냐”고 묻자 “아무 문제 없다. 좋은 몸을 물려받았다”고 했다. 1년 반 뒤 이번엔 2013시즌을 마치고 잠실구장 식당에서 마주했을 때도 그는 “몸은 괜찮다. 어머니 덕분인 것 같다”며 웃었다. 그 해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시즌을 맞이한 그는 토종 투수로는 가장 많은 3,000개의 공을 정규시즌에서 던졌다. <br/> 그의 입에서 다시 ‘어머니’ 소리가 나온 건 올해 2월26일 일본 미야자키에서였다. 1차 전지훈련에서 턱 뼈가 부러져 입 안에 와이어를 끼고 있던 그는 동료들이 보고 싶다며 2차 캠프를 방문했다. 그는 “병원에 가니 오른쪽 턱이 사람 머리 만큼 부었다. 거울을 봤는데 누가 뒤에서 날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다”며 “다행히 수술은 할 필요 없다고 한다. 역시 내 몸은 단단한 것 같다”고 농을 치는 여유를 보였다. 그러면서 “6주 뒤면 공을 던질 수 있다고 들었다. 빠르면 4주 안에도 낫는다고 하더라”며 “예전에 갈비뼈 2개가 부러졌을 때도 치료가 금방 끝났다. 부모님이 좋은 뼈를 주셔서 그런지 이번에도 아주 심하게 다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br/> 노경은에게 어머니 전기순(50)씨는 그런 존재였다. 큰 부상 없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통뼈’를 물려주신 분이었다. 하지만 턱뼈 부상을 털고 예상보다 빠르게 1군 엔트리에 등록된 뒤 며칠이 지났을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려왔다. 50세의 어머니가 유방암 4기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암이 전이된 뒤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워낙 건강했던 분이라 처음 건강검진에서 재검 판정이 나왔을 때 무심코 지나쳤는데, 그것이 화를 불렀다. 그의 누나는 울며 불며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고, 노경은은 그런 누나와 어머니 곁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검 소견을 받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못한 자기 자신만 원망했다. <br/> 노경은은 자신의 SNS에서 ‘엄마, 아들 야구 하는 거 보러 와야지’라는 글귀를 남기며 공을 던졌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힘들 법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훈련을 소화하며 페이스를 끌어 올렸다. 그러다가 5월 중순부터는 100%의 컨디션을 자랑하며 잇따라 세이브를 올리기도 했다. 시속 142~143㎞의 고속 슬라이더는 2012년 때의 구위를 보는 듯 했다. 두산 코칭스태프도 “역시 투수 중 최고의 구위다. 페이스를 이어가면 마무리 걱정은 없다”고 평했다. <br/> 하지만 머지 않아 노경은의 SNS 글귀는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로 바뀌었다. 암 판정을 받은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전 씨는 22일 위독해졌고, 23일 끝내 아들 곁을 떠났다. 노경은을 잘 아는 지인은 “동료들한테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공을 던졌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느냐”며 “경은이는 분명 더 단단해져 돌아올 것이다. 그럴 선수다”고 말했다. <br/> 함태수기자 hts7@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12.txt

제목: [함태수의 백네트] 노경은의 인터뷰에서 빠지지 않았던 이름 '어머니'  
날짜: 201506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24100000042  
본문: [한국스포츠경제 함태수] "건강한 몸을 물려주셔서…."<br/> <br/>기자와 마주 앉아 진행한 모든 인터뷰에서 노경은(31ㆍ두산)은 '어머니'란 단어를 빼 먹지 않았다. 지난 2012년 8월 어느 날이었다.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해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갑자기 투구수가 불어났는데 몸은 괜찮냐"고 묻자 "아무 문제 없다. 좋은 몸을 물려받았다"고 했다. 1년 반 뒤 이번엔 2013시즌을 마치고 잠실구장 식당에서 마주했을 때도 그는 "몸은 괜찮다. 어머니 덕분인 것 같다"며 웃었다. 그 해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시즌을 맞이한 그는 토종 투수로는 가장 많은 3,000개의 공을 페넌트레이스에서 던졌다. <br/> <br/>그의 입에서 다시 '어머니' 소리가 나온 건 올해 2월26일 일본 미야자키에서였다. 1차 전지훈련에서 턱 뼈가 부러져 입 안에 와이어를 끼고 있던 그는 동료들의 얼굴이 그리워 팀의 2차 캠프를 방문했다. 그는 "병원에 가니 오른쪽 턱이 사람 머리 만큼 부었다. 거울을 봤는데 누가 뒤에서 날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다"며 "다행히 수술은 필요 없다고 한다. 역시 내 몸은 단단한 것 같다"고 농을 치는 여유를 보였다. 그러면서 "6주 뒤면 공을 던질 수 있다고 들었다. 빠르면 4주 안에도 낫는다고 하더라"며 "예전에 갈비뼈 2개가 부러졌을 때도 치료가 금방 끝났다. 부모님이 좋은 뼈를 주셔서 그런지 이번에도 아주 심하게 다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br/> <br/>노경은에게 어머니 전기순(50)씨는 그런 존재였다. 큰 부상 없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통뼈를 물려주신 분이었다. 하지만 턱뼈 부상을 털고 예상보다 빠르게 1군 엔트리에 등록된 뒤 며칠이 지났을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려왔다. 50세의 어머니가 유방암 4기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암이 전이된 뒤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워낙 건강했던 분이라 처음 건강검진에서 재검 판정이 나왔을 때 무심코 지나쳤는데, 그것이 화를 불렀다. 그의 누나는 울며 불며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고, 노경은은 그런 누나와 어머니 곁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검 소견을 받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못한 자기 자신만 원망했다.<br/> <br/> 노경은은 SNS에서 '엄마, 아들 야구 하는 거 보러 와야지'라는 글귀를 남기며 공을 던졌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힘들 법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훈련을 소화하며 페이스를 끌어 올렸다. 그러다가 5월 중순부터는 100%의 컨디션을 자랑하며 잇따라 세이브를 올리기도 했다. 시속 142~143㎞의 고속 슬라이더는 2012년 때의 구위를 보는 듯 했다. 두산 코칭스태프도 "역시 투수 중 최고의 구위다. 페이스를 이어가면 마무리 걱정은 없다"고 평했다.<br/> <br/>하지만 머지 않아 노경은의 SNS 글귀는 '엄마, 이젠 아프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로 바뀌었다. 암 판정을 받은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전 씨는 22일 위독해졌고, 23일 끝내 아들 곁을 떠났다. 노경은을 잘 아는 지인은 "동료들한테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공을 던졌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느냐"며 "경은이는 분명 더 단단해져 돌아올 것이다. 그럴 선수다"고 말했다.<br/> <br/>사진=두산 노경은.<br/><br/><br/>함태수 기자 hts7@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13.txt

제목: 분초 다툰 능동감시 환자 간 이식… 7시간 대수술 끝 새 생명  
날짜: 20150624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24100000119  
본문: 삼성서울 입원 치료 중 위중 상태<br/>"이송 수술" 병원 찾았지만 난색<br/>"생명 위급" 분당서울대병원 나서 <br/>수술복ㆍ방호복 세 겹 껴입고 집도<br/> <br/> <br/>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중증 간염 환자가 응급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앞서 24일엔 메르스에 감염됐던 만삭의 임신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등 메르스 사태 속에서도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료진들의 분투가 이어지고 있다.<br/> 분당서울대병원은 “<span class='quot0'>지난 20일 음압시설과 보호장구 등을 갖추고 7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메르스 능동감시 환자의 응급 간 이식에 성공했다</span>”고 24일 밝혔다.<br/> 환자는 대전에 사는 전모(72ㆍ여)씨로. B형 간염과 담도경화증으로 간과 담도가 많이 손상된 상태였다. 올해 초 병이 악화되면서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수술을 위해 이달 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이 때문에 능동감시 대상이 됐다. 메르스 환자와 직접 접촉하진 않았지만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증상이 나타나는 지를 보건당국이 계속 확인해야 했던 환자였다.<br/> 전씨는 11일쯤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빨리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급히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다행히 간을 기증할 수 있는 뇌사자를 찾았지만, 뇌사자가 있는 병원측에선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식할 간을 가져올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전씨의 수술을 해줄 다른 병원을 찾았으나, 번번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다. 그러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연락이 닿았고, 이 병원은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br/> 20일 새벽 전씨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의료진은 환자의 원내 진입부터 중환자실 입실, 수술실 이동, 수술 중 관리, 수술 후 중환자실 이동 등 모든 과정을 자체 수립해둔 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철저히 대비했다.<br/> 수술 당일인 20일 교수 3명을 포함한 전임의, 전공의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2명으로 이뤄진 수술팀은 수술복 위에 방호복을 입고 다시 수술복을 덧입었다. 수술용 확대경에 보호안경을 추가로 쓰고, 수술실 내부를 음압 상태로 조절했다. 수술을 집도한 한호성(외과 전문의) 암ㆍ뇌신경진료부원장은 “<span class='quot1'>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환자가 위중했던 데다 혹시 모를 감염 위험까지 차단해야 했던 터라 긴장감이 최고조였다</span>”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br/> 수술팀은 “보호안경 내부에 습기가 차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장갑을 세 겹이나 끼어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세 겹의 옷을 껴입고 장시간 서서 수술하는 동안 속옷까지 땀으로 흠뻑 젖었다”고 말했다. 한 간호사는 인공호흡기에서 나오는 환자의 날숨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쓴 N95마스크 때문에 숨이 차 수술 직후 탈진해 쓰러지기도 했다.<br/> 수술 후 전씨는 스스로 호흡하며 간과 혈액 검사 지표가 호전되고 있으며, 이틀 간격으로 받고 있는 메르스 검사에선 계속 음성이 나오고 있다. 다만 콩팥 기능이 좋지 않아 24시간 투석을 받는 중이다. 하지만 이식된 간으로 혈액이 잘 드나드는 상태라 곧 콩팥 기능도 좋아질 것으로 의료진은 예상하고 있다. 한 부원장은 “<span class='quot2'>타인의 간을 이식받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면역거부반응을 막기 위해 면역억제제를 쓰고 있는데, 이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갑작스럽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환자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중</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어느 병원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수술이었지만, 감염관리 지침을 다시 한번 숙지하면서 꼬박 하루를 준비한 덕에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br/>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14.txt

제목: 무례하고 고압적인 직장상사는 회사를 망친다  
날짜: 20150622  
기자: 송옥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22100000031  
본문: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세상만사에 자신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직장 상사. 이처럼 고압적이고 이기적이며 무례한 직장 상사는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깎아버리는 암적 요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r/> 미국 조지타운대 경영전문대학원의 크리스틴 포라스 교수는 21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에서 직장 내 상사의 막말 등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br/> 포라스 교수는 20여년간 17개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개인들의 언행과 무례함을 연구한 결과, 1998년에는 25% 정도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정도 무례한 행위를 접했다고 밝혔으나, 2011년에는 50% 이상으로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br/> 직장상사들의 대표적인 무례함 또는 고압적 태도로는 사람들의 말을 자르거나 개인들의 결함이나 특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놀리는 행위, 조직 내 위계질서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행위, 조직원들의 업적을 가로채는 행위 등이 꼽혔다. <br/> 이런 경우 부하 직원들은 협업과 아이디어 공유를 중단하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의료인 4,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71%가 막말과 폭언, 고압적인 행동이 의료사고로 연결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7%는 상사들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동이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br/> 고압적인 무례함은 생산성도 떨어뜨렸다. 퍼즐 맞추기와 아이디어 내기 등에서 폭언과 무시를 당한 시험군은 폭언을 듣지 않은 대조군보다 30% 이상 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br/> 그럼에도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자각 증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도 부하일 때 그런 대우를 당한 터라 상사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말을 하는 사람은 유능하다’는 믿음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25%가량은 공손한 사람들은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또 답변자의 40% 정도는 스스로 일터에서 정중하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함부로 다룰 것이라고 믿었다. <br/> 남가주대 경영전문대학원 모건 맥콜 교수는 “<span class='quot0'>무례해서 성공한게 아니라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span>”이라며 경영 실패에서 가장 흔히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부하 직원들을 못살게 구는 막말 등 무례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br/>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15.txt

제목: “두 번의 음성 결과 믿은 게 잘못, 뒤늦은 확진 판정으로 치료시기 놓쳐”  
날짜: 20150621  
기자: 박경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21100000144  
본문: 20일 사망한 112번 환자 유족 반발<br/> “자가격리돼 제대로 치료 못받아<br/> 처음 양성 받았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br/> <br/> <br/> “정부의 검사(음성)를 너무 믿었다. 초반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해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것 같다.”<br/> 전북 전주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격리치료를 받던 112번 환자 김모(63)씨가 20일 오후 6시10분쯤 숨졌다. 김씨 가족들은 21일 “<span class='quot0'>메르스 증상을 보였지만 두 번이나 음성결과를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결국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난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span>”고 주장했다.<br/> 아들 김모(36)씨는“아버지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된 기분이다”며 “자가격리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처음에 양성 진단이 나왔으면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아 살 수 있지 않았겠냐”며 울먹였다. <br/> 그는“두 번의 검사에 음성이 나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아버지가 전화로 수 차례 아프다고 했지만 병원도 가지 못한 채 진통제와 해열제에만 의존하다가 메르스 바이러스가 폐에 전이된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br/> 이에 대해 전북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호흡기능상실이며 간접 원인은 메르스 감염에 의한 다장기 부전(폐, 심장, 간, 신장)으로 파악하고 있다</span>”며“<span class='quot1'>음성 판정을 받을 당시엔 단순 감기 정도의 증세였는데 만일 이 같은 증상으로 병원 격리치료를 받으면 현재 수천여명이 병원신세를 져야 한다</span>”고 말했다.<br/> 한편 허혈성 심장질환과 당뇨를 앓았던 김씨는 지난달 27일 아내의 암 치료차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었고, 30일 오전부터 오한과 발열 증상을 보여 전주 예수병원을 찾았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메르스 14번 환자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보건소에 신고한 뒤 자가격리 조치됐다. 하지만 1,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2일부터 자가격리에서 능동감시 대상으로 완화됐다가 1주일 뒤 9일 다시 근육통과 기침 설사 증세를 보였고 3차 검사 결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거점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호흡기능 상실로 사망했다. <br/>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16.txt

제목: 음성→뒤늦게 양성, 확진 열흘 만에 사망  
날짜: 20150621  
기자: 박경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21100000145  
본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뒤늦게 양성으로 확인된 112번 환자가 20일 확진 열흘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잘못된 검사 결과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1,2차 검사 때 음성 판정을 받아 안심했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들이 많아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상태가 호전돼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br/> 2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12번 환자인 김모(63ㆍ남)씨는 지난달 27일 암 환자인 아내의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30일 오전부터 오한과 발열 증상이 나타나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실시한 1,2차 유전자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2일부터 격리가 해제됐고, 보건소에서 매일 증상을 체크하는 능동감시 대상이 됐다. 하지만 근육통과 기침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나 전주보건소에 다시 신고했고, 3차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 1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처음 증세가 나타난 지 11일만이었다. 하지만 전북의 지역거점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는 확진 판정 열흘 만에 급성 호흡기능 상실로 사망했다.<br/> 김씨의 아들은 “첫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아버지는 집에서 해열제와 감기약 등을 복용하며 고통을 참았다”며 “처음부터 양성이 나왔으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방치한 게 너무 아쉽고,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메르스 전북대책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검사 결과가 잘못 됐다기보다 첫 검사 당시에는 메르스가 아닌 감기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span>”며 “<span class='quot0'>김씨가 평소 앓았던 당뇨와 허혈성 심장질환이 상태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 119번 환자인 평택경찰서 이모(35) 경사도 비슷한 경우다. 이씨 역시 첫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지난 3일 서울의료원에 격리됐으나 2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바뀌어 다음날 퇴원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돼 다시 실시한 두 차례 검사 모두 양성이 나와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30대인데다 지병도 없었지만 한 때 심폐기능 보조장치인 에크모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었다.<br/> 반면 조기에 메르스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완치율도 높은 편이다. 지난 18일 일주일만에 퇴원해 ‘퇴단기 완치자’로 기록된 삼성서울병원 의사 박모(37ㆍ138번 환자)씨는 10일 처음 증상이 나타나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18일 퇴원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현재 43명의 퇴원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나타난 후 바로 확진 판정을 받고, 빨리 치료를 시작한 사람들</span>”이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가 뒤바뀌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메르스 검사는 기관지 깊숙한 곳인 ‘하기도’에서 가래를 채취해야 가장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 발열 등의 증상만 있고 가래가 없는 사람은 채취가 어려워 정확히 판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span>”고 말했다.<br/> 때문에 부산시는 호전돼 음성 판정을 받은 143번 환자(31)에 대해 “<span class='quot3'>22일쯤 다시 검사를 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이 때 음성이 나오면 퇴원 조치할 예정이지만 시민들의 감염 우려가 있어 퇴원 후 2주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 한편 메르스 확진자는 이날 3명이 추가돼 169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34)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36)가 추가 감염됐고, 강동경희대병원에서 76번 환자와 접촉한 53세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퇴원자는 7명 늘었고, 사망자는 1명 늘어 퇴원자와 사망자는 각각 43명, 25명으로 집계됐다.ㅇㄹ<br/>전주=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br/>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17.txt

제목: 역대급 전쟁물 '밴드 오브 브라더스' '더 퍼시픽' 풀어낸 이야기꾼 父子  
날짜: 20150620  
기자: 최윤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20100000013  
본문: '밴드…' 스테펜 앰브로스<br/>의예과 진학 후 역사학자로 전향…영웅서사 베스트셀러 작가로<br/>'더 퍼시픽' 휴 앰브로스<br/>아버지 자료 수집 거들며 경험…보통 군인들 이야기로 대박<br/> 소년의 아버지는 2차대전 중 미 해군 군의관이었다. 그는 부상병들 틈에서 전장의 풍문과 무용담을 들으며 자랐고, 전선의 기록영화들을 넋놓고 관람하곤 했다. 50년대 중반, 청년이 된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위스콘신대 의예과에 진학하지만 이내 역사학으로 전공을 바꾼다. 훗날 뉴올리언스대 역사학과 교수가 된 그의 주 관심분야는 2차대전사였다. 그는 학자로서보다는 대중 역사서, 특히 논픽션 영웅서사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큰 명성을 얻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난 10살이었어요. 전장에서 돌아온 베테랑들은 당시의 내겐 야만으로부터 이 세계를 구한 거인들이었죠. 그 때나 지금이나 나는 영웅 숭배주의자입니다.”(NTY, 2002.10.14) 그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Band of Brothers, 1992)’의 저자 스테펜 앰브로스(Stephen Ambrose, 1936~2002)다.<br/> 스테펜에겐 다섯 아이가 있었다. 그는 책 취재 여행이나 역사 현장 답사에 아이들과 함께 다니곤 했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자신을 매료시킨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이야기를 하며 글의 얼개를 구상하고 질문에 답하며 취재의 구멍을 메웠다. 그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원고를 썼고, 다 쓴 글을 온 가족을 모아놓고 낭독하기도 했다. 그건 전직 고교 교사였던 아내(Moira)의 비평을 듣고자 해서였지만, 아이들을 교육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br/> 막내 휴(Hugh) 앰브로스는 가장 열성적인 청자 가운데 하나였다. “10살 때였어요. 아버지와 우리는 몬태나 주에서 아이다호 주로 이어지는 롤로(Lolo) 트레일을 하이킹했죠. 루이스와 클라크가 걸었던 바로 그 길입니다. 눈도 오고 우박도 쏟아지던 그 길을 꼬마인 나도 내 장비를 매고 걸었어요. 아이에겐 험한 여정이었지만 무척 즐거웠고, 그 때 뭔가가 나를 사로잡은 것 같아요.”(몬태나매거진, 2010.10) 휴는 2010년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쌍을 이루는 2차대전 미니시리즈 ‘더 퍼시픽(The Pacific)’의 컴패니언북을 출간하고, 드라마 제작 전반의 고증과 자문을 맡았다. 휴 앰브로스가 5월 23일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48세. <br/> <br/> 모르는 이가 있을까 싶지만 부연하자면, 밴드 오브 브라더스(드라마 2001년)’와 ‘더 퍼시픽(The Pacific, 2010년)’은 책 제목이자 미국 민영 케이블방송 HBO가 제2차세계대전의 유럽 전투와 태평양 전투를 소재로 만든 각 10부작 미니시리즈다. 두 드라마 모두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가 제작 및 감독을 맡았고, 모두 그 해의 에미상을 석권하다시피 했다. 밀리터리 마니아 중에는 인류가 만든 전쟁 영상물을 통틀어 저 둘을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br/> ‘최고’는 사실 위험한 단어다. 평가란 게 결국 주관적인 거여서 서술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서열을 절대화한다는 점에서 미학적으로도 그리 탐탁한 말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치른 2차대전의 양상을 그만한 스케일과 디테일로 담아낸 작품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또 미국인들이 ‘위대한 세대(The Greatest Generation)’라 우러르는 세대- 대공황기에 태어나 대전을 겪고 경제부흥을 일군 세대-의 희생을 그만큼 극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 없다는 점에서, 최고라는 평가는 결코 과하지 않다. 날짜와 날씨, 서사, 배경, 전투별 사용 무기에 이르기까지, 드라마의 장면 하나하나를 난도질하다시피 하며 진위를 따지고 트집 잡아온 ‘밀덕’들의 열정은 저 작품들에 지닌 애정의 반증이었고, 드라마의 가치를 훼손하기보다 그 명성을 신화화하는 데 일조했다. 그 밑그림과 디테일을 제공한 이가 스테펜과 휴 앰브로스 부자였다. <br/> <br/> 휴 알렉산더 앰브로스는 1966년 8월 12일 볼티모어에서 태어났다. 그는 작고한 어머니 모이라 버클리의 세 아이중 막내였는데, 스테펜은 68년 버클리와 결혼하면서 아이들을 입양한다. 일가는 스테펜의 학교가 있던 뉴올리언스에 정착했고,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겪은 뒤 몬테나 주 헬레나로 이주했다. <br/> 휴가 몬태나대 역사학과를 졸업한 뒤 스테펜은 아들에게 로스쿨 진학을 권했다고 한다.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잘 버는 데 유리하다는 게 휴를 설득한 스테펜의 논리였다.(위스콘신스테이트저널, 2012. 4.22) 하지만 청년 스테펜이 그랬던 것처럼, 휴는 역사학과 대학원 진학을 택했다. <br/> 그 무렵 스페텐은 ‘루이스와 클라크의 탐험(1804년 토머스 제퍼슨의 지시로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북미 대륙을 횡단하며 지리 등을 조사한 탐험)’으로 유명한 메리웨더 루이스의 전기 ‘Undaunted Courage 불굴의 용기(1996)’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휴에게 아버지가 전화를 건다. 자료 수집과 조사 작업을 거들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였다. “잠시 머뭇거린 뒤 아버지가 주문(呪文)을 걸더군요. ‘급료를 줄게!’” 그게 90년대 중반이었다. 2차대전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일부터 벌지 전투와 독일 항복까지의 전사를 기록한 ‘Citizen Soldiers(1998)’, 1860년대 샌프란시스코와 아이오아주를 잇는 3,069km 대륙횡단철도(피시픽 레일로드) 건설사를 다룬 ‘Nothing Like It in the World(2010)’, 2차대전 B-24폭격기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The Wild Blue(2001)’ 등등 이후의 그의 책들에 휴의 땀이 뱄다. <br/> 휴는 참전 군인과 유가족 등을 만나 인터뷰하고 편지나 일기 등을 수집해 사료와 대조해서 정리하는 등 작업을 했다고 한다. 스테펜은 다 쓴 초고를 휴에게 보내 읽어보게 했다. 휴는 점차 초고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보내게 되고, 토론하기도 한다. 말년의 스테펜은 휴를 신뢰하는 작업 파트너로 대한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드라마 제작 때도 폐암 투병 중이던 스테펜의 연락책이자 자문역으로 휴가 주로 촬영 현장을 지켰다고 한다. <br/>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에미상 1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돼 미니시리즈 최우수 작품상 등 6개부문상을 수상한다. 그 해 골든글로브 TV미니시리즈 부문 최우수 작품상, 방송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바디’상, 2003년 미국 각본가연맹상도 이어졌다. 에미상 시상식에 참석한 휴에게 “이게 끝이 아니야. 태평양 전쟁 드라마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건 스필버그였다. <br/> <br/> ‘더 퍼시픽’은 해병 1사단 소속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고 드라마에도 주인공 가운데 한 명으로 등장하는 유진 슬레지의 책 ‘With the Old Breed(1981)’’와 로버트 레키의 ‘Helmet for My Pillow(1957)’를 뼈대 삼고, 휴가 보충한 다양한 자료들로 살을 붙여 만든 작품이다. 육군 101공수사단 506 낙하산 보병연대 2대대 5중대(Easy중대) 대원들의 동선을 따라가며 그들의 전투 양상을 그린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달리 ‘더 퍼시픽’은 태평양 전쟁의 주요 전투를 먼저 놓고 참전 부대(크게 해병 1사단 3개 연대)의 이야기를 잇고 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중대장이던 리처드 윈터스를 사실상 주인공(즉 스테펜의 ‘영웅’)으로 앞세운 반면, ‘더 퍼시픽’은 거의 매회 주인공이 바뀐다. 휴는 “아이젠하워나 패턴 장군 같은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군인들의 전투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고 뉴올리언스 신문 ‘nol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span class='quot0'>진짜 군인들의 모습, 그들의 이야기를 담으려면 반드시 그런 평범한 군인들이 필요했고, 이야기도 거기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span>” 절대악에 맞서는 숭고한 선의 전쟁이 아니라, 때로는 적보다 더 잔혹해지고,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정신착란으로 바지에 오줌까지 지리는, 표백되지 않은 보통 군인들의 이야기가 ‘더 퍼시픽’에는 있다. 물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던 선배 세대의 희생을 부각함으로써 후대가 그 정신을 계승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는 두 작품이 공유하는 가치였다. <br/> 시청률에선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압도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첫 회 시청자는 무려 1,000만 명이었지만 ‘더 퍼시픽’은 300만 명 선이었고, 그 차이는 방송이 끝날 때까지 대체로 이어졌다. 거기에는 두 전쟁의 양상과 두 드라마의 관점이 다른 탓도 있겠지만, 미국 시민들에게 유럽 서부전선의 전쟁에 비해 대 일본 태평양전쟁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2010년 에미상 시상식에서 ‘더 퍼시픽’은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 7개 부문 상을 수상했다. <br/> <br/> 스테펜은 80년대 이후 거의 매년 한 권씩 책을 쓸 만큼 다작했다. 아이젠하워와 닉슨 전기 등 대부분 베스트셀러였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외에도 영화나 방송 등의 역사 자문역으로도 늘 분주했고, 스필버그의 98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컨설턴트로도 참여했다. 하지만 2002년 초 몇몇 책에서 표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러야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몇 부분에) 인용부호를 붙이지 못한 실수</span>”를 인정했고, 개정판에서 수정했다. <br/> 그에 대한 주류 사학계의 은근한 타매도 없지 않았다. 표절 시비 직후 콜럼비아대 역사학자인 에릭 포너는 “<span class='quot1'>누구도 그처럼 많은 책을 그처럼 빠른 속도로, 더구나 잘 써내진 못할 것이다</span>”(NYT, 02.10.14)라고 말했는데, 물론 찬사였겠지만 다른 의미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다. 2002년 10월 그는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br/>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태평양전쟁 참전 군인들은 휴의 작업 덕에 한껏 기를 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고, 좋든 궂든 격렬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 시청자들로선 두 드라마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었다. ‘The Pacific’에 대한 반응이 특히 더했는데, 휴에 대해선 모욕적인 글들도 적지 않았다. 일본군의 ‘사무라이 정신’을 지나치게 미화한 반면 해병대의 유약한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했다는 비난도 있었고, 미군이 일본군 전사자의 금니를 뽑는 장면(제 5화, 제7화)을 트집 잡는 이들도 있었다. 대표성 없는 몇몇 참전 군인들의 “오락가락하는 기억과 기록”으로 그게 전쟁의 전모인 양 다룸으로써 모든 참전 군인(가족)들의 사적인 기억과 경험을 모독하면서 자신의 책은 태평양 전쟁의 정사(正史ㆍstraight-up history)가 아니라는 식으로 “정직하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비꼰 이도 있었다. <br/> 그들에게 두 드라마는 최고는커녕 저급한 오락물에 가까울 테지만, 그 판단에는 두 부자가 전쟁으로 획득한 부와 명성에 대한 반감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2001년 10월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테펜 부자가 인세 수입 등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 평균 300만 달러라고 추산했다. 스테펜은 2000년 뉴올리언스의 국립 디데이 박물관 등을 건립하는 데 5년간 약 500만 달러를 썼다. <br/> 휴에게 더 가혹했던 건, 그가 아버지의 우람한 어깨 위에 앉아 비교적 빠르고 편한 길로 성장한 까닭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와 차별화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자 애쓴 것도 맞다. 다만 그의 삶은 너무 짧았다. <br/> 최윤필기자 proos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18.txt

제목: 따당~ 따당따~ 대장장이 父子의 망치질 하모니 신명나네  
날짜: 20150618  
기자: 김기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18100000133  
본문: 60년 전통의 서울 도심 속 대장간, 기계 의존 않고 오로지 수작업<br/>공장서 찍어내는 중국산과 달라… 석공·목수 등 전문가들이 주고객<br/>아들이 60년 경력의 부친 대 이어<br/>"잠깐 도우려던 게 벌써 20년째…"<br/>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골목길에서 경쾌한 쇠망치 소리가 들려온다. 쇠망치와 쇳덩이가 서로 치대는 그 소리엔 리듬과 박자가 엉겨 붙어, 골목길에 울리는 망치질 소리를 신명 나게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만 40년 넘게 이어져온 ‘불광대장간 교향곡’이다. <br/> 서너 평 남짓한 좁고 허름한 불광대장간 안. 백발 노인이 벌겋게 달궈진 쇠뭉치를 가마에서 꺼내 모루(받침으로 쓰는 쇳덩이) 위에 올려놓자 중년 남성이 연신 메질을 해대고 있었다. “옳지. 옳지. 거기. 그렇지.” 노인의 추임새에 맞춰 중년 남성의 망치가 달아오른 쇠뭉치 위로 정확히 떨어지면, 노인이 쇠뭉치를 이리저리 돌려 모양을 다듬어 간다. 쇠뭉치를 잡고 있는 노인도, 망치질을 하는 중년 남성도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br/> 골목 밖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엄습한 17일, 대장간 안에는 가마에 불이 올라 바깥의 더위를 무색하게 했다. 시뻘건 가마 앞에서 달궈진 쇳덩이에 망치질에 몰두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에선 경건함마저 느껴진다. <br/> 이들은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불광대장간의 박경원(78)ㆍ상범(46)씨 부자다. 한 평생을 대장장이로 살아온 아버지는 20년 경력인 아들의 망치질이 성에 차지 않는가 보다. 쇠뭉치 돌리던 손을 잠시 멈추고는 “쯧쯧, 좀 더 야물게 치지…” 하고 혀를 차며 나무란다. 중년의 아들 대장장이는 아직도 스승인 아버지에게 단련을 받고 있다.<br/> 불광대장간은 서울 도심 속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공간이다. 모두가 첨단을 추구하는 시대지만 이들 부자는 여전히 과거를 고집하고 있다. 불광대장간에는 여느 작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계화 장비를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대장장이 두 부자의 힘과 기술만으로 쇠를 녹여 두드리고 다듬어 연장을 만든다. 화덕에 유입되는 공기를 조절하는 10만원짜리 바람조절 장비와 날을 갈 때 쓰는 연마기만이 이 공간에 있는 단 두 개뿐인 기계화 장비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단련 작업을 손으로만 하는 대장간은 수도권에서 불광대장간뿐이다.<br/> 박씨가 대장장이 생활을 시작한 것은 60년이 넘는다. 강원 철원이 고향인 박씨는 한국전쟁이 났을 때 경기 용인으로 피란을 떠났다. 당시 13세였던 박씨는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품삯을 대신해 하루 국수 한 그릇을 얻어먹는 조건으로 대장간 허드렛일을 시작했다. “휴전이 됐지만 격전지였던 고향에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더라고. 서울로 나와서 새로 살 길을 찾아야 했지.” 피란길에 허드렛일을 하며 어깨너머로 배웠던 대장장이 일을 떠올리며 서울의 한 대장간을 찾았다. 그렇게 시작한 대장간 일은 평생의 끼니를 책임져주었다. <br/> 아들 상범씨는 군 전역 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장간 일을 시작했다. 작업 인부를 구할 수 없어 휴가 때마다 아버지를 돕다 절로 대장장이가 됐다. “휴가를 나와보니 어머니가 아버지 일을 돕는데 숟가락을 든 어머니 손이 떨리시는 것을 보고 제가 대신하기로 마음 먹었죠. 처음에는 저도 인부 구할 때까지만 도울 생각이었는데 평생 직장이 됐어요” <br/> 사람 둘이 간신히 움직일 공간밖에 없지만 불광대장간에는 쇠를 가지곤 못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 망치와 도끼를 만들고 호미 낫 쇠스랑 같은 농기구도 만든다. 요즘 같은 시대에 서울에서 ‘대장간에서 살 게 있을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와 주문을 한다. 동네 아주머니가 화단 손질한다고 호미를 사가고 중년 남자는 장작을 패려는지 튼실한 도끼를 사간다. 대장간을 찾은 한 손님은 “마트에서 파는 중국산 공산품이 가격은 싸지만, 몇 번 사용하고 나면 금방 고장이 나서 이렇게 수제품을 사러 오게 된다”고 말했다.<br/> 요즘 캠핑 인구가 늘면서 손도끼나 망치, 장도리 같은 캠핑용 장비도 많이 나간다. 아들 상범씨는 “요즘 제일 많이 나가는 건 호미하고 괭이에요. 텃밭 가꾸고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도 풀을 제거할 때 쓰는 도구를 많이 사갑니다. 캠핑용 장비도 많이 나가요”라고 설명했다. <br/> 하지만 불광대장간의 주 고객은 전문가들이다. 손으로 만들어야 사람 손에 꼭 맞는 연장을 만들 수 있고 기계로 찍어낸 공구보다 수명도 훨씬 길다. 그래서 물건의 진가를 알아보는 석공이나 목수들이 더 찾는다. 도구에 ‘불광’이라고 찍힌 마크가 그들에게는 명품 상표인 셈이다. <br/> 때마침 옷을 곱게 차려 입은 70대 할머니가 대장간을 찾았다. 경기 안산시에서 낫을 사러 왔다면서 크고 무거운 낫과 작고 가벼운 낫을 1개씩 들고 한참을 고민에 빠졌다. 잠시 작업을 쉬고 있던 상범씨가 나서 “가벼운 것으로 해요. 우리집 것 다 튼튼해요. 할머니 나 못 믿어요? 내 말 믿었다 속은 적 없었잖아요”며 낫을 골라주자 할머니는 “알지, 왜 못 믿어. 여기 다닌 지가 얼만데…”라며 바로 돈을 내민다.<br/> 불광대장간은 알음알음 입소문으로 불러모은 단골들이 전국에 많다. 서울은 물론 강원 홍천, 경북 포항 등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온다. 그들에게는 불광대장간이 단순하게 공구를 구입하는 곳이 아니라 추억의 장소가 되고 있다. “얼마 전에 단골손님 한 분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이유를 여쭤봤더니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나서 추억이 남아있는 곳을 돌아보는 중에 불광대장간을 찾았다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아프면서도 ‘내가 단순하게 도구를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br/> 아들 상범씨에게는 작은 꿈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대장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요즘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상범씨는 “우리 전통 기술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는 대장간이라면 외국 관광객들이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땅값이 너무 비싸 결국 돈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라며 웃었다.<br/> 또 다른 꿈은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할아버지와 자신의 뒤를 이어 3대가 같이 대장간을 하는 것이다. 상범씨는 “일이 힘들지만 아들이 이 일을 하겠다면 좋겠어요. 아직은 ‘아빠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는 것처럼 나도 아빠하고 일하고 싶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라고 말했다.<br/> 아버지 박경원씨의 꿈은 소박하고 진중했다. 앞으로 이 일을 10년은 더 했으면 좋겠다는것.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옛 방식 그대로 서너 시간씩 꼬박 쇠를 두드려 작은 물건 하나를 만드는 대장장이 아버지의 정성은 변하지 않았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뜻을 소중히 이어가고 있다.<br/>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19.txt

제목: "내사랑 마리아 김" 캐나다 노신사의 한인 아내 추모광고 뭉클  
날짜: 201506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17100000073  
본문: 세상을 떠난 한국인 아내를 못잊는 캐나다 노신사 빌 스튜어트(68)의 순정이 현지 한인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아내 마리아 김은 암 투병 끝에 2013년 4월 22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내의 기일에 캐나다 한국일보에 추모광고를 냈다.<br/> 스튜어트 씨는 중국계 여성을 만나 재혼했지만 마리아 김을 잊을 수 없다며 “<span class='quot0'>매년 기일이 다가오면 아내를 기억하기 위해 그녀가 생전 읽던 한국일보에 추모 글을 싣고 있다, 해마다 한 번씩 커다란 항아리 12개를 부엌 바닥 가득 늘어놓고 김치를 담그던 마리아를 잊을 수 없다</span>”고 말했다. 그가 낸 추모광고에는 아내의 초상 아래 “마리아! 우리가 사랑한 30년 동안 당신은 내가 되었고, 나는 당신이 되었소... 부디 영면하기를”이라는 문구가 적혔다.<br/> 스튜어트 씨가 마리아를 만나 결혼한 것은 1984년 마리아의 이민 3년 차 때였다. 그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자기 입맛에 꼭 맞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던 마리아에게 푹 빠졌고, 마리아가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을 계기로 영어 선생과 제자로 발전,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br/> 현재 이 부부의 사연을 소개한 기사는 캐나다 한국일보 홈페이지의 ‘가장 많이 본 기사’에 올라있다.<br/> 박병준 인턴기자(서강대 정치외교 4년)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20.txt

제목: 전문가들 "기저질환 없어도 치명적일 수 있다"  
날짜: 20150616  
기자: 채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16100000012  
본문: "질환별 위험도 분석 어려워"<br/><br/> <br/> 사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 중 특별한 지병이 없던 2명이 사망하면서 메르스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우자를 간병하던 50대 남성과 60대 여성도 비교적 가벼운 당뇨나 고혈압 외에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사망률이 10%를 넘어선 가운데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이라고 알려진 것과 다른 양상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br/> 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사망자는 16명으로 70대가 7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5명, 80대 2명, 50대 2명의 순이다. 남성(11명)이 여성(5명)보다 많고, 50대 미만 사망자는 없는 상태다.<br/> 16명의 사망자 가운데 14명(87.5%)은 만성호흡기질환이나 암, 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 사망한 81번은 61세 남성으로 비교적 젊고 지병이 없었다.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처남 병문안을 다녀온 후 감염돼,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에서 격리치료를 받아오다 호흡 곤란과 폐렴 등 증세가 악화돼 숨졌다. 부산 첫 메르스 환자인 그는 확진 후 일주일에 사망했다.<br/> 사망한 51번 역시 72세로 고령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다. 지난달 14일 평택성모병원에 요로계통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첫 메르스 환자에게서 감염됐으며, 6일 확진판정을 받은 후 혼수상태에 이르는 등 증상이 급속히 악화해 12일 숨졌다.<br/> 28번과 118번은 기저질환을 가진 사망자로 분류됐으나, 생전 배우자를 간병할 정도로 상태가 심하지 않았다. 14일 숨진 28번은 58세 남성으로 메르스 1차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해있던 배우자를 간호하다 감염됐는데, 당뇨를 앓고 있었다. 67세 여성인 118번도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해있던 배우자를 간병하다 메르스에 감염된 사례다. 갑상선기능저하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으나 확진 후 3일만에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감염자들의 개별 질환 별로 얼마나 위험도가 높을지 분석하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50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 더 위험하다는 경향성을 특정할 수는 있으나 모든 케이스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span>”고 설명했다.<br/> 채지은기자 cj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21.txt

제목: 암 투병 ‘세월호 의인’ 김홍경씨, 손해 배상금 추가로 받는다  
날짜: 20150612  
기자: 김용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12100000118  
본문: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적극적인 구조활동으로 ‘세월호 의인’이란 별칭을 얻었지만 최근 암 투병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던 김홍경(59)씨가 추가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br/> 해양수산부는 김씨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입원 중인 국립암센터로 12일 직원을 보내 ‘인적손해 배상금 신청서’ 작성을 돕겠다고 밝혔다.<br/> 배관설비사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작업차량(스타렉스)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다 세월호가 기울자 소방호스와 커튼을 묶어 만든 구명줄을 이용해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승객 20여명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탈출했다.<br/> 작년 말 갑작스런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김씨는 정부가 세월호 배ㆍ보상 지침을 발표한 이후, 올해 4월 28일 차량 및 차량 내 물품에 대한 물적 손해배상만 신청해 이달 5일 530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김씨는 차 안에 설치한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손해를 인정받았지만 기타 공구와 의류 등은 차량 안에 실려 있었다는 증거자료가 없어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br/> 해수부는 “<span class='quot0'>김씨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에게 적용되는 인적 손해 배상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span>”며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해수부는 “<span class='quot0'>김씨에게는 국민성금 약 5,000만원과 국비 위로지원금, 사고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이 지급될 것</span>”으로 예상했다. <br/> 한편 해수부는 이날 제5차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했다.<br/>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22.txt

제목: 노벨상 교수, 여성 비하 논란 사임  
날짜: 20150611  
기자: 신지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11100000113  
본문: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영국 노벨상 수상자가 결국 명예교수직을 사임했다.<br/> 11일 더타임스에 따르면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은 10일 밤 성명을 내고, 팀 헌트 생명과학과 명예교수가 사임했다고 발표했다.<br/>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헌트 명예교수는 9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과학기자대회에 참석, 여성과학자들과의 오찬에서 자신이 남성우월주의자라며 “<span class='quot0'>여성과학자들은 실험실에 있으면 남성과학자와 사랑에 빠지고, 비판하면 울기만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동성 과학자들만 있는 실험실을 선호한다</span>”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br/>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트 교수의 발언이 알려지자, 동료 교수들은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헌트 교수는 “<span class='quot1'>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가벼운 마음으로 반어적인 농담을 한 것인데 관중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span>”고 해명했다.<br/> 하지만 UCL은 성명에서 “UCL은 영국 최초로 여학생에게 남학생과 평등한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한 대학”이라며 “헌트 교수의 사임은 양성평등에 대한 UCL의 공헌과 같은 맥락의 결정”이라고 밝혔다.<br/> 헌트 교수는 ‘세포 주기’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고 이를 토대로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한 공로로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br/>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23.txt

제목: 전립선 암은 치료가 필요 없는 암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날짜: 201506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10100000043  
본문: 전립선 암은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암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br/> <br/> <br/>보통 암이라고 하면 상상으로도 하기 싫은 어려운 일 들을 떠올리게 되고, 실제 주변에서 암을 경험 해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암도 종류에 따라서 몇 년을 기다려도 잘 자라지 않거나 아주 천천히 자라서 몇 년이 흐른 후에야 치료를 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암 중에 자주 거론 되는 것이 전립선암이고 그래서 비교적 '착한 암'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전립선 암은 다른 암과는 다르게 호르몬 치료에도 잘 듣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도 환자의 나이나 다른 건강요인을 감안하여 약물 치료를 선택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br/> <br/>질문처럼 약도 수술도 안 한 상태로 지켜 볼 수 있는 수준의 전립선 암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불과 1-2년 만에 생명을 잃게 될 정도의 나쁜 암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해도 악성도가 낮은 암으로 판단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악성으로 성장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안 할 정도의 암으로 판단 되어도 주기적인 피검사와 영상검사 그리고 반복적인 조직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치료의 한 방법이지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님니다.<br/> <br/> 또 이전에는 전립선암 수술 자체가 아주 어렵고 위험했었고, 수술 후 요실금이나 발기 부전 등의 합병증이 자주 발생 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술 방법이 눈부시게 발전 되어, 예전처럼 두려움을 가질 과정은 아닌 상황입니다. 조기 암인 경우 오히려 수술 합병증 없이 완치 될 확률이 높으므로 나이 등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 해서 수술을 선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br/> <br/> 전립선암은 최근까지도 그 치료 지침이 자주 변화하고 있는 암입니다. 치료 방법의 개발 뿐이 아니라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 패턴의 변화 때문일 것입니다. 일단 전립선암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당황하시지 말고 너무 마음을 놓지도 않되, 전문가와 본인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도록 조언 드립니다.<br/> <br/>이영훈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비뇨기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24.txt

제목: 40, 50대 가장 많이 감염… 사망자 모두 고령 만성질환자  
날짜: 20150609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09100000144  
본문: 주요 증상 발열 90%ㆍ기침 34%<br/>60%이상 고혈압ㆍ당뇨 등 지병<br/>남 65%ㆍ여 34%… 사우디와 비슷 <br/> <br/> 9일 현재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95명으로 이 중 7명이 사망했다.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환자들에게서 관찰된 임상 증상은 중동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치사율은 7.3%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모두 메르스 감염 전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br/> 메르스에 가장 많이 걸린 연령대는 40~50대다. 감염학회가 확진자 중 58명의 연령대와 성별을 분석한 결과 40대와 50대가 각각 14명으로 24.1%씩을 차지했다. 70~80대가 10명(17.2%)으로 뒤를 이었고, 10대는 알려진 대로 응급실에서 감염된 고교생 1명(1.7%)이다. 확진자의 남녀 비율은 65% 대 34%로 최다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하다. <br/> 주요 증상으로 알려진 발열과 기침은 각각 확진자의 89.6%, 34.4%에서 나타났으며, 발열 환자의 절반 이상(54.0%)이 입원 후 7일째에 열이 내렸다. 가래와 근육통 증상은 각각 22.4%가 겪었고, 호흡곤란이 생긴 환자는 18.9%였다. 중환자실에 있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했던 환자는 16.6%였다. 특이하게도 확진 뒤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환자도 1명 있다. 이에 대해 김우주 감염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사우디에서도 초기에는 중증 환자가 다수였다가 환자가 늘면서 경증이나 무증상 사례가 나타났다</span>”고 말했다. <br/> 확진자 가운데 약 3분의 2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암, 폐?간?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확진 후 사망한 환자 중 1명이 신장암으로 신장 한쪽을 떼낸 상태였던 걸 제외하면 신장질환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 학계는 주목하고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사우디에서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된 뒤 중증으로 악화한 경우가 적지 않아 메르스가 신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달리 국내에선 확진자 중에서도 신장 기능 이상이 아직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이 점에서 국내 메르스 치명률은 (사우디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span>”고 분석했다. 나머지 확진자들(36.2%)은 기저질환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감염됐다. <br/><br/> 확진 후 사망한 환자들은 모두 고령에 만성적인 병을 갖고 있었다. 사망자 7명 중 암을 앓았거나 앓고 있던 사람은 3명, 폐렴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같은 호흡기질환을 가진 사람이 4명, 심장질환이 있던 사람은 2명이다. 9일 사망이 발표된 47번째 확진 환자는 68세 여성으로 심장(판막)질환을 앓다 호흡 곤란으로 지난달 27~28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14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격리 치료 중 상태가 악화했다. <br/>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25.txt

제목: 11년 동거녀에게 성매매 시킨 뒤 뒤통수 친 50대 남성  
날짜: 20150609  
기자: 박주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09100000120  
본문: 11년간 함께 동거한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이 여성이 모은 돈을 들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br/> 서울 송파경찰서는 절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모(54)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4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49ㆍ여)씨에게 “<span class='quot0'>미국 시민권자인데, 유명 컴퓨터 회사의 한국지사로 파견됐다</span>”고 속여 접근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아버지는 미국에 살고 있고, 어머니는 사망했다</span>” “<span class='quot0'>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오갈 곳이 없다</span>” 등 동정심을 유발해 송파구 잠실동 A씨 거주지에서 동거를 시작했다.<br/> 신씨는 A씨가 이혼 후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던 점을 노려 “<span class='quot0'>성매매로 돈을 벌어서 노년을 대비하자</span>”고 설득해 2006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나눠 가졌다. 하지만 수입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신씨는 A씨가 모아둔 돈에 눈독을 들였다. 결국 그는 지난해 2월 A씨가 설을 맞아 고향에 내려간 사이 “미국에 계시는 아버지가 암에 걸려 위독하다. 내가 이 돈으로 치료시켜 효도하고 싶다. 다녀와서 꼭 돈을 갚겠다”는 쪽지를 남긴 채 A씨가 모아둔 1억2,200만원을 들고 도망쳤다.<br/> 조사결과 신씨는 이 돈으로 송파구 마천동에 8,000만원짜리 전셋집을 얻어 B(49ㆍ여)씨와 살림을 차렸고, 이 여성에게도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br/> 신씨는 20여년 전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신분을 속인 채 피해여성들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10년 넘게 함께 생활한 피해여성도 신씨의 본명 등 인적 사항을 전혀 몰라 신고를 못했다</span>”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추적 중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26.txt

제목: 김제 메르스 확진환자 나흘간 무방비 노출  
날짜: 20150608  
기자: 하태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08100000216  
본문: 김제 메르스 확진환자 나흘간 무방비 노출<br/> <br/> 전북 김제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판정을 받은 50대 확진자가 격리되기 전까지 최소 사흘간 무방비로 해당 지역을 돌아다니고, 병원에 이틀간 입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파악한 A씨 접촉자만 369명에 달해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되고 있다. <br/> 8일 전북 메르스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김제에 거주하는 A(59)씨는 지난 1일 두드러기 증세로 해당 지역의 B병원을 찾았고, 이틀 뒤에는 고열로 C병원을 방문했다. 이어 5일 D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뒤 같은 날 폐렴 판정을 받은 E병원에 입원했다. <br/> A씨는 정부가 공개한 메르스 환자 발생ㆍ경유 병원 명단에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된 그의 보호자가 메르스 감염 의심 신고를 한 뒤에야 7일 격리 조치됐다. 8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그는 지난달 28일 암을 앓고 있는 장모 병문안을 위해 14번 확진자가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다. <br/> 보건당국은 3일 A씨를 진료한 병원이 이를 보고했으나 그가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고열 증세도 가라앉아 의심환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난 3일 역학조사관이 직접 A씨의 상태를 살피러 현장에 나갔지만 상태가 호전되면서 가래 등이 나오지 않아 1차 검사를 하지 못했다</span>”고 말했다. <br/> 그러나 고열 증세가 나타난 3일부터 격리된 7일까지 나흘간 사실상 무방비로 지역사회를 돌아다닌 셈이어서 지역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일 네 번째로 들른 E병원에선 이틀간 입원해 다른 환자와 의료진이 메르스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보건당국은 가족 등 369명이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r/> 전북 메르스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재 A씨와 접촉한 369명에 대해 공무원 1인당 2명씩 밀접감시를 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27.txt

제목: "한방 암 치료 핵심은 면역력 강화"  
날짜: 20150607  
기자: 전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07100000148  
본문: 체질에 따른 개별 맞춤형 처방으로 항암력 키워<br/>잘못된 습관 바꿔 원인부터 다스리는 치료가 중점<br/> <br/> 국내 암 환자 100만 시대 돌파, 발병률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3명 중 1명이 암환자라는 통계가 말해 주듯 라이프스타일변화와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암은 이제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br/> 국가 사망원인 1위의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꼽히는 암 치료는 그 동안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가 대표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한의학적 치료방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br/>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한방 암 치료법을 부산 ‘달맞이한의원’ 허정구(64ㆍ사진) 원장을 만나 들어봤다.<br/> <br/> -한방 암 치료의 장점은<br/> “몸의 손상을 감수하면서도 암 자체를 사멸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양방적 치료에 비해 한방의 암 치료는 암과 내 몸의 경쟁에서 면역력을 높여 내 몸이 더 앞서나가도록 도와주는 치료다. 한의학적 건강의 기본인 기혈의 적절한 배치와 순환을 바로잡아 몸의 생기를 북돋우고,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종양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의 원인부터 다스리는 치료다. 암세포는 약화시키면서 정상세포는 건강하도록 해 암세포에게는 불리하고, 정상적인 세포에게는 유리한 인체 환경을 만들어 주는 선순환적 치료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br/> 또 한방은 사람의 감정과 장기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스트레스, 즉 정신적인 독소를 제거 한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br/> -주요 치료법은<br/> “우리 몸은 생태계와 같다. 어느 하나의 잘못으로 서서히 생태계가 망가져 이상 징후가 나타나듯이 우리 몸도 평소 잘못된 습관으로 암이 생기기 좋은 환경으로 몸이 변한 것이다. 따라서 한방 암 치료의 시작은 그 동안 살아온 생활 습관 속 어딘가 잘못된 점을 바로 찾아내고 환경을 바꾸기 위한 교정부터 출발한다. 또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방해하는 육체ㆍ정신적 독소를 제거 하는 각종 해독요법, 오장육부의 균형을 바로 잡는 달뜸요법, 인체의 자연치유력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치료들을 하고 있다.<br/> 옻, 운모와 송화분 등 20여가지 이상의 약재로 만들어진 백비고는 기와 혈이 뭉쳐서 생긴 암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다. 산삼과 옻을 사용한 혈맥약침은 산삼과 옻의 강한 항산화효과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처방하고 있다. 또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침과 직구 요법을 시행하고 사향, 녹용, 홍화, 유황 등을 이용한 경혈약침, 유산균세정, 토르말린 찜질방, 달뜸, 칠정요법, 명상요법 등을 통해 환자들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관리 하면서 체력을 증진하는 치료법들이 있다.”<br/> -한방 암 치료 효과는 <br/> “한방 암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다양하다. 미국의 저명한 암 센터들에서는 통증완화와 항암방사선에 대한 부작용 해소 효과 등을 인정하고, 환자들에게 한방치료를 실시하거나 권유하고 있다. <br/> 한의원 내 자체 설문조사에도 응답자의 70∼80%가 통증완화와 각종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생명연장의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br/> 암은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병이지만, 치료를 꾸준히 하는 환자들 중에는 기대 이상의 치료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조직 검사와 내시경 검사상 진행성 위암 3기로 진단 받은 환자가 6개월여 간의 치료 끝에 종양이 없어졌다는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관리 차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위암, 갑상선암, 방광암 등을 진단 받은 환자들이 기존 치료방법이 아닌 한방치료만을 통해 완치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전이가 진행된 폐암, 갑상선암, 부신피질의 흑생종 등의 종양이 축소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사례 등 한방치료를 통해 종양자체에 대한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다.”<br/> -암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br/> “암 환자들에게 두 가지를 꼭 당부하고 싶다. 첫 번째는 암에는 특효약이 없다는 것이다. 암 진단 후 불안과 초조한 마음에 특효약을 찾아 헤맨다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극소수 이긴 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 생활해 암이 치유 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니다. 몸이 스스로 변해 암이 살 수 없는 생태계로 만든다면 암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 이를 명심하고 몸과 마음을 바꿔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 <br/>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마음의 독소를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용서하는 마음은 결국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몸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단 한 순간이라도 즐겁고 행복하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 아주 의미 있는 삶의 순간을 사는 것이다.” <br/>글ㆍ사진 전혜원기자 iamjhw@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28.txt

제목: "아파도 병원 안 가" 메르스 병원 공개 후 진료 취소 잇따라  
날짜: 20150607  
기자: 장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07100000119  
본문: 시민들 병 키우고 의료계는 운영난<br/> 최근 갑상샘 암 수술을 받고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온 최모(51ㆍ여)씨는 메르스 걱정에 다음 주 정기검진을 취소할까 고민 중이다. 최씨는 “<span class='quot0'>다니는 곳이 정부가 공개한 메르스 노출 병원 명단에는 없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스케줄을 미루려고 한다</span>”고 말했다. <br/> 메르스 공포에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도 병원 방문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육아카페 게시판에서 A씨는 “아이의 체온이 40도까지 오르며 나흘째 고열증상을 보이는데 집에서 버티고 있다. 해열제를 먹이며 메르스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B씨도 “20개월 된 아이가 조만간 탈장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잠정 보류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 마냥 미룰 수만은 없어서 걱정”이라고 털어놨다.<br/>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 차원에서 ‘메르스 병원’명단을 공개한 7일을 전후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예정된 진료를 취소하거나 몸이 아파도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는 등 병원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공개된 병원들뿐 아니라 다른 병원들까지도 내원 환자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의료계는 비상이 걸렸고 시민들은 진찰을 미루다 병을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br/> 지난 5일 보건의료노동조합이 공개한 메르스 병원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진료한 병원들은 방문자수가 뚝 떨어져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각한 곳은 메르스 사태 이전보다 응급실과 외래 환자수가 각각 85%, 60%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도 36% 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지난주부터 외래 환자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병원들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업계 전반에서 ‘사스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정부에 국민 우려를 해소시킬만한 대국민 홍보 등을 요청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 의료인들은 이번 사태가 질병을 방치하는 등 부작용을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r/>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pan class='quot2'>몸이 아파서 검진이나 수술이 필요한데도 무작정 참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질환을 부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메르스 노출 병원 중에서도 몇몇 곳을 제외하면 잠복기가 지나 안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방문해도 된다</span>”고 말했다.<br/><br/>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29.txt

제목: 암 딛고 ‘예능대세’된 홍진경 “방송이 감사하더라”  
날짜: 20150603  
기자: 양승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03100000136  
본문: 키 180cm의 늘씬한 여인이 검은색 천으로 덮인 단 위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캣워크(모델의 걸음)를 선보였다. 패션쇼장이 아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KBS 케이블채널 KBSJoy ‘한 끼의 품격’제작발표회. 모델 출신 방송인 홍진경(38)의 장난에 현장은 웃음바다가 됐다.<br/> 지난해 암 투병 사실을 고백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홍진경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 4월 MBC ‘무한도전’새 멤버를 뽑는 ‘식스맨 프로젝트’에 출연해 엉뚱한 모습으로 웃음을 준 뒤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등 인기 예능에 출연하며 ‘예능 대세’로 떠올랐다. <br/> 홍진경은 지난 2005년 김치 사업을 시작한 뒤 한동안 방송 활동을 자제해왔다. 그런 그녀가 현재 출연중인 예능 프로그램만 주중 3개가 넘는다. 이를 두고 홍진경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span class='quot0'>많이 웃는 게 건강에도 좋지 않냐</span>”는 게 그녀의 말이다. <br/> 지난해 여름 암 수술을 받은 홍진경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력을 찾은 듯했다. 홍진경은 “내가 방송에서의 모습과 달리 고민이 많고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라며 “지난해 말 ‘SNL코리아’(tvN)에 출연하면서 동료 후배들과 즐겁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알았다. 그 때 이후 찾아주면 즐겁게 (방송을) 하자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br/> 음식 사업을 하는 홍진경이 일반인들의 엉뚱한 요리를 선보이는 ‘한 끼의 품격’의 진행자로 나선 점도 흥미롭다. 홍진경은 “<span class='quot1'>식성도 보수적이라 퓨전음식도 안 먹고 된장 김치찌개 등 먹는 음식만 먹는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번 방송을 하며 내 식단이 정말 단조로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span>”고 웃었다. 4일 오후 8시20분에 첫 방송될‘한 끼의 품격’에서는 먹다 남은 튀긴 닭으로 탕을 끓여 먹는 특이한 조리법과 그에 얽힌 일반인 신청자의 사연이 소개된다. <br/> 홍진경은 이 프로그램에 딱 맞는 동료로 방송인 이영자를 꼽았다. 홍진경은 “이영자 언니와 미국을 3개월 동안 횡단한 적이 있다. 외환위기 직후 1달러 환율 2,000원 할 때였다”며 “정말 돈이 없어서 미시시피 지역을 지날 때 이영자 언니가 어디에선가 미역을 구해왔고 소금이 없어 자신의 손을 씻은 물로 미역국을 끓여준 걸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제작발표회장에선 웃음이 넘쳐흘렀다. <br/> 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30.txt

제목: 암 극복한 92세 철녀, 마라톤 풀코스 완주 신기록  
날짜: 20150601  
기자: 박병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01100000169  
본문: 7시간대… 최고령으로 기네스 올라<br/>카네기홀 공연한 피아니스트 출신<br/>백혈병ㆍ림프종 환자 돕기 위해 78세 입문, 지금까지 10만달러 모금<br/><br/>92세 여성이 42.195㎞ 마라톤 코스를 완주해 세계 최고령 마라톤 완주 기네스 기록을 경신했다. 주인공 해리엇 톰프슨 씨는 백혈병과 림프종 환자를 위한 모금 활동을 위해 76세에 마라톤에 입문해 16년 동안 계속 암환자 모금을 위해 뛰고 있으며, 스스로도 두 차례나 암을 극복하며 불굴의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br/> 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톰프슨씨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31일(현지시간)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7시간 24초 36의 기록으로 마라톤을 완주했다. 그의 나이는 정확히 92세 93일로 이전 최고령 마라톤 기네스 기록을 74일 경신했다. 종전 기록은 2010년 호놀룰루 마라톤을 완주한 글래디스 버릴(여) 씨가 보유하고 있었다. <br/> 톰프슨씨는 지난해에는 같은 대회에서 7시간 7분 42초의 완주기록을 세워 90대 마라톤 주자 중 최단시간 완주기록도 가지고 있다. 그가 지난해 세운 이 기록은 종전 90대 여성 완주기록을 1시간 30분 가량이나 단축한 것이었다.<br/> 톰프슨씨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이번 마라톤이 지금까지 중 가장 힘들었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올 1월 남편과 사별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남편의 간호에 매달리느라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다리 한쪽에 포도구균이 감염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마라톤 참가를 포기하지 않았고, 완주에 성공했다.<br/> 그는 “어떤 지점에선 정말 힘들었다. 21마일쯤 달렸을 때 언덕을 만났는데,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겨웠다”며 “당시 ‘내 나이에 미친 짓’이란 생각을 했다, 하지만 마침내 내리막을 만나자 기분이 좀 나아졌고 아들이 탄수화물을 계속 먹여줘서 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들 브레니(56)는 그를 응원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 함께 참가했다. 그는 달리는 내내 훌륭한 페이스를 유지해 감탄을 자아냈고, 결승선에는 그의 사연을 전해들은 참가자들과 시민 등이 몰려들어 신기록의 수립을 축하했다.<br/> 톰프슨씨는 원래 육상과는 거리가 먼 클래식 피아니스트였다. 그는 음악가들에게는 꿈의 무대인 뉴욕 카네기홀에서 세 차례나 공연할 정도로 성공한 연주가였다. 그런 그가 마라톤에 입문하게 된 것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의 권유 때문이었다. 그는 백혈병과 림프종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에 “<span class='quot0'>부모와 3명의 남자형제를 모두 암으로 잃었기 때문에 막연히 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span>”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렇게 시작한 마라톤을 통해 그가 지금까지 모은 기금은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에 달한다.<br/> 그는 “<span class='quot0'>내가 이렇게 뛰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것</span>”이라며 자신이 암을 극복하는 데 마라톤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덧붙여 “<span class='quot0'>나는 환자들을 돕고 있고, 그들도 어떤 의미로 나를 돕고 있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박병준 인턴기자(서강대 정치외교 4년)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31.txt

제목: "흑인 스스로가 맨처음 동족을 노예로 매매"  
날짜: 2015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601100000177  
본문: 인류 최초의 가축으로 …. 낙타나 염소, 양 혹은 소가 꼽힌다.<br/> <br/>고고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가축으로 …. 개를 꼽는다.<br/> <br/>과연 그럴까? 탄자니아에 온 것은 …. 고고학적인 호기심에 이끌렸기 때문이다.<br/> <br/>인류 최초의 가축은 무엇이었을까?<br/> <br/>나도 참 …. 먹고살 만하니깐, 별짓을 다 하네 …. 늙으면 그냥 조용히 죽어야 하는데,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 요게 잘 안 돼.<br/> <br/>몇 개월 전, 탄자니아 올두바이 계곡에서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되었다.<br/> <br/>기원전 40만 년 전의 구석기 유적지 …. 유적지에는 다량의 돌도끼가 발견되었다.<br/> <br/>"이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돌도끼를 만들었을 거야."<br/> <br/>솔레이가 설명해주었다.<br/> <br/>인류 최초의 가축은 개가 아니다.<br/> <br/>바로 인간이다.<br/> <br/>노예로 불리는 인간들 …. 이들이 최초의 가축이다.<br/> <br/>40만 년 전, 이 계곡에 갇혀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돌을 깎아야 했던 …. 사람들을 상상해본다.<br/> <br/>이들의 자식들도 노예가 되어, 누군가를 위해 돌을 깎아야 했겠지.<br/> <br/>이번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골은 …. 압도적으로 …. 어린 아이의 것이 많았다.<br/> <br/>아이만큼 다루기 쉬운 존재도 없겠지. 개. 소. 돼지. 닭보다 다루기 쉽다.<br/> <br/>어린이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다.<br/> <br/>현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 이러한 풍토가 생긴 것은 …. 백 년도 되지 않는다.<br/> <br/>옛부터 아이들은,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었다.<br/> <br/>인간이 인간을 사고 팔았다.<br/> <br/>이것은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이자 진실이다.<br/> <br/>아직도 인신매매는 ….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이다.<br/> <br/>사람들이 세계사에 대해 …. 몇 가지 오해하는데 …. 그중 하나가 백인들이 ….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팔았다는 거다….<br/> <br/>이런 생각은 좀 고칠 필요가 있다.<br/> <br/>맨 처음 흑인을 노예로 사고판 것은 …. 백인들이 아니다. 바로 흑인들 자신이었다.<br/> <br/>아프리카인들은 부족 사냥을 통해서, 자신들의 동포를 팔아넘겼다.<br/> <br/>12세기의 아프리카 왕국들은 …. 동족을 백인들에게 팔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다.<br/> <br/>노예 무역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들은 …. 다름 아닌 아프리카 현지인들이었다.<br/> <br/>노예 …. 인간의 가축화 ….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 정치.<br/> <br/>꼬레아는 동족에게 노예 낙인 찍는 정치꾼들에게 투표를 한다.<br/> <br/>이건 정말 크나큰 비극이다.<br/> <br/>이런 현실을 희곡으로 쓴다면, 세익스피어를 뛰어넘는 비극적인 작품이 나온다고 장담한다.<br/> <br/>암울하고 슬픈 현실은 …. 그 나름대로 …. 해석 방법과 대응 방식에 따라 …. 기회가 된다.<br/><br/><br/>한국스포츠경제 webmaster@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32.txt

제목: [단독] 간병 스트레스에… 흉기로 아버지 찌른 딸  
날짜: 20150528  
기자: 채지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28100000008  
본문: "집안 안 돌봐…" 평소 불만에<br/>癌 간병까지 맡자 극단적 선택<br/> <br/> 암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병 도중 흉기로 찌른 2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br/> 서울 성북경찰서는 간암 말기 환자인 아버지의 얼굴과 머리 등을 과도와 가위로 찌른 혐의(존속상해)로 A(21ㆍ여)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b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오후 3시쯤 성북구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간병을 하다 아버지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집안을 돌보지 않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간병까지 맡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가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도박에까지 손을 대면서 가족이 해체됐다”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고 더 이상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r/> A씨의 아버지는 간암 투병 중 최근 암세포가 척추로 전이돼 하반신이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별거 중이었고, 언니는 결혼을 앞두고 따로 살던 터라 간병은 오로지 A씨의 몫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간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다</span>”며 “<span class='quot0'>원래부터 우울증이 있었지만 간병을 하게 되면서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br/>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이 환자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서울 구로구에서는 70대 노인이 아내를 간병하던 중 신변을 비관해 아내를 목 졸라 죽이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br/> 2011년 국립암센터 연구진이 암환자 가족 보호자 3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 67%가 높은 수준의 우울 증세를 갖고 있으며 증세가 극심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환자 가족 간병인 가운데 17.7%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2.8%는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b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33.txt

제목: 경륜•경정, 미국에 수출된다.  
날짜: 201505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27100000061  
본문: 경륜·경정이 미국에 수출된다.<br/> <br/>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와 창원·부산경륜시행체 3사가 20일 오후 5시 서울올림픽파크텔 런던홀에서 미국 '암웨스트 엔터테인먼트사'와 경륜ㆍ경정 경주콘텐츠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br/> <br/>이날 체결식에는 이명호 경륜경정사업본부장, 박상재 창원경륜공단이사장,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김효영 이사장과 미국 암웨스트 엔터테인먼트사 넬슨 E. 클레멘스 회장과 미국사업자 한국에이전트인 아이베트 장동석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br/> <br/>켄터키에 본사가 있는 암웨스트사는 미국 내 120여개 경마장과 20여개 경견장 콘텐츠를 인터넷과 전화 등을 활용해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중계하는 회사다. <br/> <br/>암웨스트사는 경마, 경견에 식상한 미국 팬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찾고 있었고 한국 경륜과 경정을 매력적인 베팅 스포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r/> <br/>양해각서에 따라 양측은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콘텐츠 송수신을 위한 정보보안·시설·장비 등 기술적 해결방법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식계약 체결을 위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해 조속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br/> <br/>넬슨 암웨스트 회장은 "한-미간 시차로 인해 한국의 경륜경정은 미국 야간 시간대에 열린다. 이는 현재 야간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스포츠베팅을 즐기는 미국인들에게 최적의 콘텐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br/> <br/>이명호 본부장도 "이번 양해각서로 그 동안 우리가 바라던 한국 경륜경정 국제화의 전기가 마련됐다. 경륜경정의 해외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박진감 넘치는 경륜, 경정을 미국인들도 즐길 수 있도록 제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r/> <br/>한편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넬슨 회장은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미사리 경정공원을 방문 경정경주를 관람하고 방송실, 심판실, 고객편의 시설 등을 둘러보며 한국경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경정 관계자는 전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34.txt

제목: 삼성화재, 'NEW엄마맘에쏙드는’ 자녀보험' 출시  
날짜: 20150526  
기자: 송원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26100000187  
본문: 삼성화재, 'NEW엄마맘에쏙드는’ 자녀보험' 출시 <br/> <br/> <br/> 삼성화재는 기존 자녀보험을 개정한 ‘EW엄마맘에쏙드는’ 보험을 최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에 대한 실손입원의료비 등 산모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출산용품 지원, 포토북 제작, 문화체험 등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화재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NEW엄마맘에쏙드는’자녀보험은 기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던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담보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해당 담보는 통상분만을 제외한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자궁경관 무력증,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 시 1,000만원 한도로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또한 많은 산모들이 걱정하는 임신중독증도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br/> 늦어지는 여성의 출산시기에 따라 태아의 선천성 이상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NEW엄마맘에쏙드는’ 자녀보험은 선천성 발달장애 중 뇌성마비 및 다운증후군 진단 시 10년간 매년 양육자금을 지원하는 보장도 담았다. ‘NEW엄마맘에쏙드는’ 자녀보험은 실실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담보를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유치 또는 영구치의 충치 등으로 인한 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존치료지원금'과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중증 뇌수막염 등을 보장하는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도 포함됐다. 아울러 암 진단, 수술, 입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암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암 입원일당의 경우 입원 1일째부터 보장한다.<br/> <br/> ‘NEW엄마맘에쏙드는’ 자녀보험은 일정 가입조건 만족시 ▦출산용품 지원▦포토북 제작 ▦문화체험 중 한가지 서비스를 1회에 한해 제공한다. <br/>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정병록 상무는 “<span class='quot0'>‘NEW엄마맘에쏙드는’ 자녀보험은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상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녀보험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엄마들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을 담았다</span>”고 말했다.<br/> 송원영 기자 wysong@hankookilbo.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35.txt

제목: 탈모 고통 여성 암환자들에 외모 관리 서비스  
날짜: 201505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26100000053  
본문: 국내 화장품 업계 1위 기업 아모레퍼시픽은 주요 고객인 여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br/> 2008년부터 시작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AMOREPACIFIC Makeup Your Life)’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이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변화와 탈모 등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 받는 여성 암환자들에게 메이크업,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동시에 내면의 아름다움과 긍정적 태도에 눈 뜨도록 도우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모두 9,221명의 여성 암환자가 참여할 정도로 반응이 좋아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도 상반기(5~7월)·하반기(9~11월)로 나눠 전국 35개 병원에서 진행된다. 암 수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현재 방사선 또는 항암치료 중인 여성 환우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br/> 아모레퍼시픽은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도와 자립과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희망가게’도 올해로 13년째 실시 중이다. 2003년 기금을 조성해 이듬해 1호점이 개설됐고, 2013년에는 200호점을 돌파했다. 희망가게 창업주들의 평균 소득이 창업 전 98만원에서 창업 후 253만원으로 약 2.5배로 불어나 효과도 높았다.<br/> 아모레퍼시픽은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span>”고 밝혔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36.txt

제목: [지평선] 자외선주의보  
날짜: 20150522  
기자: 정병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22100000120  
본문: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자외선 관측자료. 어제 오후2시 상황은 위협적이다. “서울, 현재 총자외선지수(A+B) 8, 최고 총자외선지수(A+B) 9, ‘매우 높음(8이상~10미만)’. 태양에 노출 시 매우 위험하며 노출된 피부는 빠르게 타서 위험해질 수 있음. 겉옷을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야 함.” 전남 목포시는 “현재 지수 9, 최고 지수 11”로 ‘위험(11이상)’ 수준까지 이르기도 했다. 이 경우 “피부는 몇 분 내에 탈 수 있음”이었다.<br/> ▦햇빛을 (프리즘으로)쪼개면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색깔이 나온다. 눈에 보이니 가시(可視)광선이다. 빨간색 바깥에 있는 적외선(赤外線)과 보라색 너머에 있는 자외선(紫外線)은 파장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외선 중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것을 A, 중간을 B, 짧은 것을 C로 부른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아 위험한데, 인체에 치명적인 자외선C는 지구오존층에서 걸러져 지표면까지 거의 오지 못한다. B는 조금, A는 많이(B의 약 10배) 우리에게 도달한다.<br/> ▦자외선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D를 만들어주고 살균작용을 하는 것은 알려진 바. 문제는 과다 노출로 인한 부작용. 특히 C에 가까운 B는 홍반(紅斑) 백내장 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찍부터 경계해 왔다. 그 동안 다소 무관심했던 A는 침투력이 강해 구름과 유리창도 통과하고, 피부 깊숙이 들어가 피부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새로운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다. 기상청이 B 외에 A까지 포함하는 ‘총자외선지수(A+B)’를 시시각각 공개하는 이유다.<br/> ▦봄엔 며느리를, 가을엔 딸을 밭에 내보낸다는 속담이 있듯이 오뉴월 햇빛이 가을 햇살보다 자외선을 1.5배 정도 더 많이 갖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피부 관련 암이나 각화증(角化症)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10~15%씩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이 지난 3월부터 자외선지수를 측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참 잘 하는 일이다. 이왕 시작하였으니, 황사경보 폭염경보 건조주의보 등처럼 요즘 같은 날에는 자외선주의보나 자외선경보를 발령해 주면 좋겠다.<br/> <br/> 정병진 논설고문 bjjung@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37.txt

제목: 틀니ㆍ치과 임플란트 건보 적용  
날짜: 20150521  
기자: 남보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21100000234  
본문: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시중 반값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말기 암 환자의 완화 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br/>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틀니(완전 및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가 7월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틀니는 약 61만원, 임플란트는 약 60만원만 내면 된다. 또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도 금속상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br/> 건정심은 말기 암 환자들이 받는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진료 등에 대해서도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7월 15일부터 이처럼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 완화 의료 기관에서 23일 동안 입원하고 임종할 경우 유가족은 총 진료비 681만8,000원 중 43만7,000원만 내면 된다. 건정심은 또 7월부터 상복부 통증 환자가 간암이나 췌장암 등 4대 중증질환 감별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br/>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38.txt

제목: 암환자 성금 '2천억원' 흥청망청 쓴 美 자선단체  
날짜: 20150520  
기자: 송옥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20100000027  
본문: 한화 2,000억원이 넘는 암 환자 돕기 성금을 흥청망청 쓴 미국의 자선기금 모금 단체 4곳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br/> 19일 뉴욕타임스와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워싱턴, 50개주의 법무장관은 미국암기금, 암지원서비스, 미국아동암기금, 유방암협회 4개 암 기금 모금 단체를 사기 혐의로 18일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br/> 자선금 사기와 관련해 FTC와 50개주 정부가 공동 소송을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br/> 4개 단체의 직원은 텔레마케팅, 우편 등을 통해 미국 시민에게서 거둬들인 암 환자 돕기 성금을 체육관 등록비, 콘서트 티켓 구매, 디즈니월드 방문, 대학 학비, 짝짓기 데이트 웹사이트 구독 등 순전히 개인 비용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2012년 이렇게 쓰인 돈이 무려 1억8,700만달러(2,037억원)나 된다. 그 사이 암 환자에게 돌아간 돈은 이 액수의 3%도 안 된다.<br/> FTC와 50개 주 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4개 단체는 암환자 수송, 항암화학요법, 아동 진통제 구매 등을 위해 성금이 사용된다고 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면서 “<span class='quot0'>기부 덕분에 4개 단체 직원만 부자가 됐다</span>”고 비판했다.<br/> 문제가 된 4개 단체는 제임스 레이놀즈 시니어와 그의 아들, 친구, 교회 친구들이 운영하는 족벌 친교 집단에 가깝다. 특히 미국암기금은 2013년 플로리다주 지역 신문인 탬파베이 타임스의 탐사 보도에서 미국 내 두 번째로 악명 높은 자선 재단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탬파베이 타임스는 자선단체의 10년간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전문 모금인과 회사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다면서 ‘아메리카 암펀드’는 9,800만달러를 거둬 8,040만 달러를 모금인에게 되돌려주고 불우이웃에게 고작 전체 모금액의 0.9%만 전달했다고 폭로했다.<br/>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소송을 당하자 미국아동암기금과 유방암협회는 FTC와 함께 곧바로 조정 협상에 착수하고 단체 해산도 약속했다. <br/> 설립자 레이놀즈의 아들인 레이놀즈 주니어는 자선기금 감독, 자선 재단 운용, 기금 모금 등 세 가지 행위에 대한 전면 금지 조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br/> 송옥진기자 clic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39.txt

제목: 성 경험 빨라진 2030, 생식기사마귀 발병 급증  
날짜: 20150518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18100000017  
본문: 환자수 12년 만에 6.4배 늘어<br/>남성이 여성보다 2~4배 더 많아<br/>발병 여성, 자궁경부암 위험 커져<br/><br/> <br/> 사라지고 있다고 여겨졌던 성병이 최근 10여 년 사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성병으로 알려진 임질이나 매독은 꾸준히 감소하는 데 유독 생식기사마귀 질환(곤지름)은 6배 넘게 급증했다.<br/> 17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2002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생식기사마귀 환자는 326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계속 늘어 지난해엔 2,094명을 기록했다. 12년 만에 환자 수가 6.4배 증가한 것이다. 성 매개 질환들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같은 기간 동안 임질은 12배 감소하고, 클라미디아감염증은 1.8배 느는데 그쳤다.<br/> 전문가들이 특히 눈여겨보는 부분은 생식기사마귀 환자의 70%가 20~30대라는 점이다. 남성은 25~29세, 여성은 18~24세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최근 성경험 나이가 빨라지고 있는데 성 매개 질환 예방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부족하다</span>”는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013년 국내 중고생 3,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 경험이 있는 학생의 평균 연령은 남학생은 12.7세, 여학생은 13.0세로 나타났다.<br/> 성기나 그 주변 피부 일부가 돌출되는 생식기사마귀 자체는 큰 병은 아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고, 병원에서 레이저나 전기치료 등으로 간단히 없앨 수 있다. 눈에 띌 정도로 크지 않으면 생식기사마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는 경우도 많다.<br/> 문제는 생식기사마귀가 자궁경부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생식기사마귀의 주범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한 유형이기 때문이다. 남성에겐 생식기사마귀를 유발했던 HPV가 여성의 몸에선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가령 HPV에 감염된 남성이 감염 사실을 모르거나 숨긴 채 성생활을 하다 상대 여성에게 HPV를 전염시키면 그 여성은 자궁경부암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HPV 100여종 가운데 자궁경부암은 6형과 11형, 16형, 18형이, 생식기사마귀는 6형과 11형이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br/> 임질이나 매독 등은 콘돔으로 어느 정도 전염을 막을 수 있는데 비해 생식기사마귀는 콘돔이 별 소용이 없다. 생식기 내부가 아니라 외부나 주변에 주로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일부 자궁경부암 백신이 남성(9~26세)에게도 접종이 허가됐다. 그러나 2,3회 맞는데 회당 접종 비용이 10만원이 넘어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심봉석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남성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려면 성경험 이후엔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험 전에 접종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 국내 생식기사마귀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0대에선 약 2배, 30대에선 4배 더 많다. 국내 18~28세 남성 중 약 10%가 이미 HPV에 감염돼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이 남성들에게도 HPV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서주태 제일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생식기에 점이나 혹이 생긴 것을 발견하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span>”고 조언했다.<br/>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40.txt

제목: 김포공항 습지 골프장 터에서 멸종위기 대모잠자리 발견… 환경 보호 갈등 커질 듯  
날짜: 20150517  
기자: 변태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17100000090  
본문: 김포공항습지 골프장 사업 예정부지에서 또다시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환경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온 갈등이 계속 될 전망이다.<br/> 17일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골프장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쯤 환경단체 활동가ㆍ전문가 등 10여명이 김포공항습지 생태조사를 하던 중 멸종위기종 Ⅱ급 대모잠자리(사진) 암ㆍ수 각 1마리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습지 골프장 예정부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은 총 41종으로 늘었다. <br/> 날개 무늬가 대모거북과 비슷해 대모잠자리로 불리는 이 곤충은 서식지인 습지가 개발 등으로 줄면서 개체수가 급감해 2012년 5월 멸종위기종으로 선정됐다. 잠자리과에서 멸종위기종에 이름을 올린 곤충은 대모잠자리를 포함해 꼬마잠자리, 노란잔산잠자리 등 3종에 불과하다<br/> 그러나 골프장 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골프장 예정부지에서 발견된 잠자리 목록에 대모잠자리가 포함돼 있지 않다. 앞서 2005년 11월 내놓은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한국공항공사는 “<span class='quot0'>김포공항 골프장 예정부지에서 발견된 법적보호종은 없다</span>”고 밝히기도 했다. <br/> 공대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김포공항습지에 대한 객관적인 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는 민관합동 4계절조사를 수용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대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골프장 건설이 지역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국회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공항공사는 거절했고, 오는 26일 토론회 참석도 거듭 거절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한국공항공사는 골프장 조성의 타당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인근 습지에 서식하는 조류로 인해 항공기 운항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서울 강서구 오곡동과 경기 부천 고강동에 걸친 99만8,126㎡ 지역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해왔다. <b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41.txt

제목: 건보공단, 암환자 3484명 흡연력 제출… 담배회사들 "데이터 못 믿겠다"  
날짜: 20150515  
기자: 손현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15100000145  
본문: 담배소송 4차 변론서도 공방 격화<br/> <b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암 진단을 받은 3,484명의 구체적인 피해내역을 입증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흡연과 암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b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 심리로 이날 열린 담배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건보공단은 폐암(편평세포암ㆍ소세포암)과 후두암 환자 3,484명의 흡연력(歷)과 급여비 내역을 제출하고,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span class='quot0'>흡연 피해자들이 개별 담배회사의 어떤 담배를 피웠는지 밝히겠다</span>”며 담배회사를 압박했다.<br/>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측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3,484명의 흡연력, 급여비 내역 중 일부의 신빙성과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주 무기인 ‘빅 데이터’만으로는 인과관계는 물론 배상의 정도를 산정할 없다는 논리를 폈다. 담배회사들은 그러면서 “개인이 20갑년 이상 담배를 피웠다는 확인서와 문진표, 건강검진기록 등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br/> 건보공단 측은 “<span class='quot1'>민법상 공동의 원인 행위에 대해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환자와 가족에게 20갑년 이상 흡연력을 재확인하고, 요양급여명세서 등 추가 자료를 낼 것</span>”이라고 응수했다.<br/> 건보공단은 폐암과 후두암 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음 재판은 7월3일 열린다.<br/> 손현성기자 hsh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42.txt

제목: 암 투병 중에도… 덤프트럭 돌진해도… 시민 지킨 경찰들  
날짜: 20150515  
기자: 김민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15100000124  
본문: 현장愛 영웅 18명 사례 발표<br/><br/>충남 서산경찰서 최완재(43) 경사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강력통 경찰이다. 2001년 경찰에 입문해 2008년 ‘서산 발바리’로 알려진 상습 성폭행범을 검거했다. 2012년 서산 엽총 살인범을 붙잡을 당시에는 총상을 입고도 끝까지 범인을 잡는 투혼을 보였다.<br/> 그러나 2013년 9월 그에게 신장암 3기라는 병마가 찾아왔다. 하지만 최 경사는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지난해 10월까지 과학수사팀으로 옮겨 현장 감식을 맡았다. 최근 신장암 4기로 병세가 더 나빠졌지만 그는 다시 수사지원팀 보직을 맡아 일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최 경사는 “<span class='quot0'>숟가락 들 힘이 있을 때까지 치안 현장을 지키겠다</span>”고 말했다.<br/> 경찰청은 15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 최 경사처럼 사건ㆍ사고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해낸 공로로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3명씩 표창 받은 경찰 18명을 한데 모았다. 전국 지방경찰청 추천과 내부 심의원회를 거쳐 선정된 ‘현장애(愛) 영웅’들에는 경찰청 내부 인터넷망에 사례마다 댓글이 200개 넘게 달릴 정도로 칭찬이 자자하다. 이들은 이날 동료 경찰들 앞에서 사례 발표 후 소감을 말하고 격려 오찬을 가졌다.<br/> 충남 공주경찰서 최상(42) 경사 역시 온몸을 던져 150명을 구한 ‘슈퍼맨’ 경찰이다. 지난 1월 공주시 계룡면 국도에서 갈짓자로 졸음 운전을 하던 14톤 덤프트럭이 국토대장정 중이던 학생 150명을 덮치려는 찰나 순찰차로 트럭을 가로 막았다. 대열 후미에서 학생들을 뒤따르다 순간의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차량은 완파됐고 최 경사는 갈비뼈와 어깨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지난달 업무에 복귀한 최 경사는 “<span class='quot0'>학생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비슷한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span class='quot1'>현장 영웅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이라 여기는 바람직한 경찰상을 대변한다</span>”고 강조했다.<br/> 김민정기자 fact@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43.txt

제목: 의고조(擬古調) 스승의 박타령에 부침  
날짜: 201505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14100000216  
본문: 입시 전선 이웃 없다<br/> 짝꿍부터 이겨야 한다<br/> 교실에서 시작된 구호가<br/> 이제는 형만 한 동생 없다<br/> 스승만 한 제자 없다.<br/> <br/> 놀부시대 구호도 가지가지<br/> 스승을 이기려는 제자들이<br/> 여기서 저기서 줄서기 <br/> 재주가 미제이다<br/> 의리보다 실리를 <br/> 신가루지기 타령이 <br/> 명약 팔기에 신명이 났다.<br/> <br/> 놀부는 질색이지만 나는야<br/> 흥부 사촌도 별로 흥미 없어<br/> 단심가 흉내 내며<br/> 알아주지 않는 일편단심<br/> 서리 내리기 전 고향 가는 길 물으며<br/> 박 씨 속에선 박 씨밖에 나오지 않는다던<br/> 서은 선생 박타령 흥얼흥얼 숨찬 지명 고개<br/> IMF 빚 보따리 이고 지고 아리랑 고갤 넘는다.<br/> <br/> 대를 이어 나오는 정상배<br/> 그 실력 날로 번성하건만<br/> 스승 닮은 시인은 씨가 멸종되고<br/> 부자되세요, 인사말 타락한 그 속마음<br/> <br/> 염소수염 쓰다듬으며 암! 그렇고말고<br/> 놀부 집 문전엔 똥개들만 <br/> 우글우글 흥이 났구나.<br/> <br/> \*의고조 (擬古調): 옛 어르신의 말씀을 헤아리는 것.<br/> <br/> <br/> 소개<br/> 문재철은 <br/><br/><br/> 1961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호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br/> 종합문예지“문화예술“에 글을 싣고 문단에 나왔다.<br/> 그간 각종 무크지 위주로 작품을 발표하다가 현재는<br/> 서은문학연구소와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br/> 문예지도사 및 시낭송강사로 활동하고 있다.<br/> 시집으로 “머물지 않는 바람” 외 다수<br/> <br/> <br/> 해설 / 안종준<br/> <br/> 일찍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일이 많다.<br/> 보고 듣고 익힌 깨달음이 겸손의 절개를 지키며 끊임없이 <br/> 제 공부를 돌아볼 때 기어코 조각품은 완성하지 않는가?<br/> 색이 다르면 성격도 파장도 다르다.<br/> 빨강색은 파장이 길고 파랑색은 파장이 짧다.<br/> 제 색깔의 파장을 고유하게 지닐 때 색은 아름다운 제 모습을 갖춘다.<br/> 자신의 지식과 능력도 길고 짧음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겠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44.txt

제목: "링 위의 40년 행복했습니다"  
날짜: 20150514  
기자: 김지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14100000064  
본문: WWA 헤비급 등 7차례 챔피언<br/>김일 후계자로 전세계 1600회 경기<br/>2년 전 발병한 담도암 이겨냈지만 마이크 타이슨과 경기 무산 아쉬움<br/>홍상진ㆍ김종왕 등 젊은 후배들과 프로레슬링 인기 회복 힘쓸 것<br/><br/><br/>한국 프로레슬링의 살아있는 전설 이왕표(61·사진)가 40년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정든 링을 떠난다.<br/> 이왕표는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이왕표 은퇴기념 포에버 챔피언(FOREVER CHAMPION) 2015 WWA(World Wrestling Association) 국제프로레슬링대회에서 은퇴식을 갖는다.<br/> 이번 대회는 WWA 헤비급과 울트라 FC 헤비급 등 7차례나 챔피언에 오른 이왕표의 은퇴를 기념한다. 이왕표는 1975년 김일 체육관 1기생으로 프로레슬링에 데뷔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2013년 발병된 담도암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지만 세 차례에 수술 끝에 호전돼 은퇴식을 준비해 왔다. <br/> 이왕표는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섭섭하고 아쉽다”며 “<span class='quot0'>막상 은퇴한다 생각하니까 영광스러운 것보다 부족한 점만 떠오른다</span>”고 프로레슬링 인기를 다시 올려놓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0'>40년 동안 팬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 행복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프로레슬링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져주길 바란다</span>”고 당부했다.<br/> <br/> ● 스승의 은퇴식에서 획득한 챔피언 벨트<br/> 이왕표는 1975년 김일 체육관 1기생으로 프로레슬링에 입문했다. 하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데뷔 이후 20경기 전패를 당하며 회의감을 느꼈다. 이왕표는 “레슬링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며 “어둠의 유혹으로 방황을 많이 했다. 그 때 김일 선생님한테 정말 많이 맞았다. ‘쓸데 없이 건달들하고 어울려 다니냐. 네가 깡패냐’라고 다그쳤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니 경기에서 한 두 번 이기고 재미도 붙었다”고 돌이켜봤다.<br/> 이왕표는 1985년 처음으로 NWA(National Wrestling Alliance) 오리엔탈 태그팀 챔피언에 오른 이후 승승장구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는 2000년 3월 스승 김일의 은퇴식에서 펼쳐진 자이언트 커간(캐나다)과의 WWA 타이틀 매치를 꼽았다. 이왕표는 “<span class='quot0'>1967년에 김일 선생님이 WWA 챔피언 벨트를 차지한 이후 33년 만에 가져와 더욱 기뻤다</span>”고 설명했다.<br/> 또한 2010년 밥 샙(미국)과의 승부도 지목하며 “나이는 스무살, 몸무게는 40㎏ 차이가 났는데 종합격투기로 타이틀을 가져왔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밥샙이 ‘이왕표는 머리가 좋다. 그 나이에도 힘이 밀리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를 보는 팬들에게 ‘나이 먹어 왜 링에 올라왔느냐’는 말을 안 듣기 위해 더 집중했다. 40~50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br/> <br/>https://youtu.be/4TZ\_k8wTjsM <br/> ● 담도암 투병, 타이슨과 매치 무산돼 아쉬워<br/> 이왕표는 세월이 흘러도 건재했다. 본인 스스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열정이 항상 살아 있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투쟁심이 불탔다. 오랜 시간 챔피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로 그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은 운동을 의무처럼 했더니 나이 먹은 것을 못 느꼈다”면서 “20대 때에는 패기만으로 붙다 보니 많이 졌는데 나이가 들면서 노련미도 생겨 이기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br/> 늘 강인했던 이왕표는 2013년 담도암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했다. 때문에 세기의 빅 매치가 아쉽게 무산되기도 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3년 초까지 헤비급 전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미국)과의 경기 성사 여부를 의논하고 실제 서울과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는 것으로 굳어졌는데 암 투병을 하면서 무산 됐다. 투병 생활은 힘들었지만 열정과 투지가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의사들도 ‘불사조’라고 하더라”고 털어놨다.<br/>https://youtu.be/Qyb3f0ToCxA <br/> ● 2~3년 안에 후계자 만들겠다<br/> 이왕표는 한국 프로레슬링의 1960~70년대 전성기를 경험한 마지막 세대다. 김일의 후계자로 40년간 미국 멕시코 일본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약 1,600회의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프로레슬링 인기 하락세를 멈출 수는 없었다. 흑백 TV 시절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 1980년대 중반 자취를 감췄다. 그렇게 프로레슬링은 배고픈 종목이 됐다.<br/> 이왕표는 “전성 시대 궤도로 레슬링을 올려놨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언론 노출이 안돼 그렇지, 후배들 가운데 좋은 선수들이 많다. 후배들이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 2~3년 안에 후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양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br/> 이번 이왕표 은퇴기념 포에버 챔피언 대회는 새로운 스타를 발굴할 기회다. 이왕표는 “SBS스포츠에서 생중계를 한다”며 “WWA 극동 챔피언인 노장 노지심을 비롯해 WWA 태그 챔피언 홍상진, 김종왕 그리고 김남훈 임준수 김민호 등 기대가 되는 젊은 피들이 출격한다. 이번 대회는 후배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와 큰 성원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br/> 한편 이번 대회는 27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한 차례 더 열린다. 프로레슬링을 사랑하는 팬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br/><br/> 김지섭기자 oni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45.txt

제목: [기고] 역학에 대한 몇가지 오해  
날짜: 20150513  
기자: 김동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13100000060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의 요지는 국내외 3개 담배회사에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흡연력 20갑년 이상이자 30년 이상 흡연한 자들 중에서 흡연 연관성이 특히 높다고 보고된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편평세포암 환자 치료 비용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폐암 발병 개개인이 제기한 이전 소송과는 달리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특정 암환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판결의 추이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재판의 변론과정에서 역학이라는 학문의 가치와 유용성에 대한 논란을 접하면서 역학 연구하는 학자로서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br/> 우선 담배회사들은 역학 연구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법정에서 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역학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역학 연구에서 제시된 과학적 증거를 법정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다. 역학 연구는 개개인을 관찰해서 밝혀낼 수 없는, 질병 발병위험을 높이는 유해요인을 찾아내는 실용적 학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과학적 증거에 관한 참조 매뉴얼’ 3판에서는 역학 연구의 결과가 법정에서 적극 활용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고,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도 이들 역학 연구 결과를 적용하도록 주문하고 있다.<br/> 담배회사들은 또 역학이 인구집단에서 관찰된 특정 요인과 질병과의 일반적 관련성만 말할 수 있을 뿐 개개인의 발병 원인을 밝혀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집단과 그 구성원인 개인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역학 연구에서 보고된 인과적 관련성에 대해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에게서 관찰되는 개별적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역학 연구의 결과는 허공에 뜬 구름 잡기가 되고 만다. 장기간 흡연으로 인한 집단적 피해와 흡연 감소로 인한 예방 효과는 흡연하는 개인에게서 관찰되는 개별적인 인과적 관련성의 총합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법정에서 따져야 할 것은 역학 연구에서 관찰된 관련성이 실제 인과적이라 할 수 있는지, 제시된 연구결과가 제대로 수행된 연구에 근거한 것인지, 그 관련성의 크기가 다른 위험요인의 영향을 배제할 정도인지 등의 대목이다.<br/> 환경적 유해 요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질환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도 문제가 있다. 과거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질환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나누고, 흡연으로 초래되는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의학 분야에서는 생소한 것이어서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단일요인으로 발생하는 만성질환은 없다. 결핵과 같은 감염병도 균의 존재는 필요조건일 뿐이고, 기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야 질병이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특정 만성질환과 특정 환경적 유해요인과의 관련성에 특이성이 있는가, 있다면 그 수준이 높은 가이다. 그런 점에서 소세포암 등 일부 조직학적으로 특수한 폐암은 다른 조직형의 폐암보다 흡연과의 특이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적 유해요인과 특정 질환과의 특이성의 정도가 법적 책임 공방에서 개별적 인과성을 수용할 정도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br/> 담배소송이 갖는 공익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건보공단이 매년 1조7,0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담뱃값 인상과 막대한 국가 재원의 투자는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회정의의 실천과정이기도 하다. 지난 수십 년간 담배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취해 온 담배회사에 집단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br/>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46.txt

제목: 고의 교통사고 사기범들 동료 살해ㆍ암매장  
날짜: 20150513  
기자: 한덕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13100000134  
본문: 고의 교통사고 사기범들 동료 살해ㆍ암매장 <br/> <br/>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던 20대 들이 합의금을 더 가지려 다투다 친구를 살해하고 암매장했다.<br/>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구모(20)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20)ㆍ지모(2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r/> 경찰은 또 구씨의 시신을 차량에 실은 혐의(사체유기 등)로 이모(20)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r/> 이들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2시쯤 김씨가 사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원룸에서 둔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씨의 고향인 강원 강릉시의 한 야산 농로길 옆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br/> 오토바이 퀵서비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2년여 전부터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구씨는 범행을 주도하면서 뜯어낸 합의금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김씨 등이 구씨가 돈을 더 많이 챙기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면서 이들의 빗나간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김씨 등은 범행 당일 구씨가 관리하던 통장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r/> 이들은 통장을 손에 쥐었으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 이들이 챙긴 건 구씨 수중에 있던 20만원이 전부였다. <br/>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들이 겁만 주려다 일이 커졌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47.txt

제목: 한 지붕 두 가족 '게임빌·컴투스'의 명과 암  
날짜: 2015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13100000052  
본문: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까지 모바일 게임 점유율 90%를 나눠 가졌던 게임빌과 컴투스가 합병 후 동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br/>11일 게임빌·컴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컴투스는 35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1,720％ 상승한 반면 게임빌은 같은 기간 59.4% 감소한 1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br/> <br/>매출액 부분에서도 게임빌(356억원)과 컴투스(937억원)는 약 3배 차이를 보이며 양사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br/> <br/>앞서 게임빌과 컴투스는 합병 전인 2013년 1분기까지 비슷한 규모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 기간 게임빌은 매출 173억원, 영업이익 48억원을 거뒀고 컴투스는 매출 248억5,600만원, 영업이익 51억원을 기록했다.<br/> <br/>그러나 2013년 10월 게임빌의 송병준 대표가 컴투스 창업자 박지영 대표의 주식을 700억원에 전량 사들여 인수·합병하면서부터 명암이 엇갈리기 시작했다.<br/> <br/>송병준 대표는 2013년 말부터 컴투스와 게임빌의 양사의 대표직을 겸직하는 대신 기존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게임빌과 컴투스, 두 회사를 각각 운영했다. 대신 게임빌의 '서클'과 컴투스의 '허브' 등 게임 관리 플랫폼을 '하이브'로 일원화하면서 게임간 공동 프로모션 등을 통해 공동 사업을 확장했다.<br/> <br/>합병 효과를 기대했던 2014년 1분기에는 게임빌이 먼저 웃었다. 2013년까지 연도별 프로야구 게임으로 2012년까지 모바일 스포츠 게임을 장악했던 게임빌은 2014년 공게임즈와 합작해 풀 3D 형태의 '이사만루 2014 KBO'를 출시하며 흥행 몰이에 나섰다.<br/> <br/>이로 인해 2014년 1분기 게임빌은 매출 278억원, 영업이익 37억원, 당기순이익 36억원을 거두며 매출 211억원, 영업이익 20억원, 당기순이익 11억원을 기록한 컴투스보다 앞섰다.<br/> <br/>게임빌이 국내 게임시장을 공략했다면 컴투스는 2013년 6월부터 '서머너즈워', '낚시의 신' 등을 글로벌 출시하며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렸다.<br/> <br/>'낚시의 신'과 '서머너즈 워'의 해외 매출을 통해 서서히 몸집을 불린 컴투스는 지난 2분기 매출 매출 430억원, 영업이익 173억원을 올리며 매출 332억원, 영업이익 22억원을 거둔 게임빌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컴투스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체질 변화를 이뤄냈다고 평가 받았고 서머너즈 워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했다.<br/> <br/>특히 지난해 4분기 컴투스는 360억1200만원의 영업이익과 837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458%, 318.7%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모바일 RPG '별이 되어라 for kakao'로 승부수를 띄운 게임빌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 19억4,200만원, 매출액 415억500만원을 거두는 등 상승세를 보였지만 컴투스의 성장세를 따라갈 순 없었다.<br/> <br/>결국 합병 후 동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게임빌과 컴투스는 인수 주체인 게임빌의 부진과 컴투스의 급성장에 쓴웃음을 짓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컴투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점도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br/> <br/>일각에서는 서머너즈 워가 부진할 경우 게임빌과 컴투스가 단기간 내 동반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웹젠, 넷마블, 넥슨 등 대형 모바일 게임사들이 앞다퉈 신작을 쏟아내며 매출 상위권에 머무는 사이 10위권을 지키던 서머너즈 워, 별이 되어라 등은 꾸준히 순위 하락을 맛보고 있다.<br/> <br/>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출시한 지 2년이 다 되가는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가도를 유지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면서도 "'서머너즈 워'의 뒤를 이을 대형 차기작이나 사업 영역확장 등의 차별화 전략이 없다면 게임빌·컴투스도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br/>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48.txt

제목: 한 지붕 두 가족 ‘게임빌·컴투스’의 명과 암  
날짜: 20150512  
기자: 채성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12100000078  
본문: 한 지붕 두 가족 ‘게임빌·컴투스’의 명과 암<br/> <br/> 인수 주체 게임빌, 컴투스 영업이익의 5%에 그쳐<br/> 합병 후 동반 시너지 효과 못 살린 채 컴투스 의존도만 높아져<br/> <br/>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까지 모바일 게임 점유율 90%를 나눠 가졌던 게임빌과 컴투스가 합병 후 동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11일 게임빌·컴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컴투스는 35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1,720％ 상승한 반면 게임빌은 같은 기간 59.4% 감소한 1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br/> 매출액 부분에서도 게임빌(36억원)과 컴투스(937억원)는 약 30배 차이를 보이며 양사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br/> 앞서 게임빌과 컴투스는 합병 전인 2013년 1분기까지 비슷한 규모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 기간 게임빌은 매출 173억원, 영업이익 48억원을 거뒀고 컴투스는 매출 248억5,600만원, 영업이익 51억원을 기록했다. <br/> 그러나 2013년 10월 게임빌의 송병준 대표가 컴투스 창업자 박지영 대표의 주식을 700억원에 전량 사들여 인수·합병하면서부터 명암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br/> 송병준 대표는 2013년 말부터 컴투스와 게임빌의 양사의 대표직을 겸직하는 대신 기존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게임빌과 컴투스, 두 회사를 각각 운영했다. 대신 게임빌의 ‘서클’과 컴투스의 ‘허브’ 등 게임 관리 플랫폼을 ‘하이브’로 일원화하면서 게임간 공동 프로모션 등을 통해 공동 사업을 확장했다. <br/> 합병 효과를 기대했던 2014년 1분기에는 게임빌이 먼저 웃었다. 2013년까지 연도별 프로야구 게임으로 2012년까지 모바일 스포츠 게임을 장악했던 게임빌은 2014년 공게임즈와 합작해 풀 3D 형태의 ‘이사만루 2014 KBO'를 출시하며 흥행 몰이에 나섰다. <br/> 이로 인해 2014년 1분기 게임빌은 매출 278억원, 영업이익 37억원, 당기순이익 36억원을 거두며 매출 211억원, 영업이익 20억원, 당기순이익 11억원을 기록한 컴투스보다 앞섰다.<br/> 게임빌이 국내 게임시장을 공략했다면 컴투스는 2013년 6월부터 ‘서머너즈워’, ‘낚시의 신’ 등을 글로벌 출시하며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렸다.<br/> ‘낚시의 신’과 ‘서머너즈 워’의 해외 매출을 통해 서서히 몸집을 불린 컴투스는 지난 2분기 매출 매출 430억원, 영업이익 173억원을 올리며 매출 332억원, 영업이익 22억원을 거둔 게임빌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컴투스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체질 변화를 이뤄냈다고 평가 받았고 서머너즈 워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했다.<br/> 특히 지난해 4분기 컴투스는 360억1200만원의 영업이익과 837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458%, 318.7%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모바일 RPG ‘별이 되어라 for kakao’로 승부수를 띄운 게임빌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 19억4,200만원, 매출액 415억500만원을 거두는 등 상승세를 보였지만 컴투스의 성장세를 따라갈 순 없었다.<br/> 결국 합병 후 동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게임빌과 컴투스는 인수 주체인 게임빌의 부진과 컴투스의 급성장에 쓴웃음을 짓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컴투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점도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br/> 일각에서는 서머너즈 워가 부진할 경우 게임빌과 컴투스가 단기간 내 동반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웹젠, 넷마블, 넥슨 등 대형 모바일 게임사들이 앞다퉈 신작을 쏟아내며 매출 상위권에 머무는 사이 10위권을 지키던 서머너즈 워, 별이 되어라 등은 꾸준히 순위 하락을 맛보고 있다.<br/>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출시한 지 2년이 다 되가는 게임이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가도를 유지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전무후무한 일</span>”이라면서도 “<span class='quot0'>’서머너즈 워’의 뒤를 이을 대형 차기작이나 사업 영역확장 등의 차별화 전략이 없다면 게임빌·컴투스도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br/>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49.txt

제목: 소람한방병원, 한의술 우수성 알리는 국책지원사업 선정  
날짜: 201505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11100000035  
본문: [한국스포츠경제]<br/> <br/>소람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년 한의약 해외 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br/> <br/> <br/>'2015년 한의약 해외 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한방은 물론 양방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한방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한의약 특화치료 집중개발과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br/> <br/>올해 사업 지원 대상 기관은 소람한방병원을 포함해 총 5개 기관이 새롭게 선정됐다.<br/> <br/>소람한방병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관광 특화 유치 업체인 ㈜고려의료관광개발과 함께 외국인 면역, 외국인 암 치료 및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를 이어간다. 또한 소람한방병원의 "7일 집중 면역 암치료", "12주 통합 암치료"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면역 증진을 위한 건강 먹거리 생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br/> <br/>소람한방병원 성신 병원장은 "이번 특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 선정으로 통합면역암 치료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해외에 제대로 알려 의료의 한류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br/><br/><br/>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50.txt

제목: 브레이크 없는 액션… 120분 내내 쉴틈없는 헤비메탈 음악과 닮아  
날짜: 20150511  
기자: 라제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11100000227  
본문: 거칠고 잔혹하고 황량하다. 수려한 장면들이 스크린을 수놓는 예쁜 영화는 아니다. 하지만 극장 문을 나설 때는 알 수 없는 삶의 의지가 솟구치고 희망을 품는다. 미친 세상에서도 끈끈히 살아남은 인간애가 가슴을 친다. 역설적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이 작품은 ‘미친 영화’라 해도 과하지 않다.<br/> 때는 22세기. 인류는 구렁텅이로 떨어진다. 국가들끼리 석유를 두고 싸움이 일었고 물을 두고 전쟁이 벌어졌다. 다툼은 핵전쟁으로 번지고 인류는 지구는 온통 황야로 변한다. 인간은 암 덩어리를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수명은 반 토막이 났다. 국가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기름과 물, 무기를 근간으로 한 소수 공동체로 헤쳐 모였다.<br/> 생존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된 시대, 전직 경찰관인 맥스(톰 하디)는 수혈용으로 사냥되었다가 한 전투집단의 내란에 휘말린다. 여인들을 씨받이처럼 활용해 전투용 아이를 계속 생산하려는 임모탄에게 그의 부하 사령관 퓨리오사(샤를리스 시어론)가 반기를 들면서 영화는 거세게 가속기를 밟는다. 분란의 틈을 타 탈출에 성공한 맥스는 의도치 않게 퓨리오사와 여인들을 지키게 되며 전투의 중심에 서게 된다.<br/> 영화는 120분 동안 쉴새 없이 연주되는 헤비메탈 음악을 닮았다. 전자굉음처럼 브레이크 없는 액션이 내내 휘몰아친다. 기름기 쏙 빠진 단출한 이야기를 에너지 삼아 달리고 질주하고 또 내달린다. 스크린을 종횡무진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무리의 엔진 소리만으로도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br/> 영화는 1979년 멜 깁슨을 세계적 스타로 만들어낸 ‘매드맥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85편 3편을 마지막으로 맥이 끊겼다. 더 이상 관객을 불러모을 수 없다는 판단에 용도폐기 됐다가 30년 만에 부활했다. 데뷔작 ‘매드맥스’로 스타 감독이 된 외과의사 출신 조지 밀러가 다시 메가폰을 잡았다. 올해 70세인 이 노장은 박진감 넘치는 여러 장면과 리드미컬한 편집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웅변한다. 누구도 흉내기기 힘든, 멋진 컴백이다. 14일 개봉, 15세 이상.<br/>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br/>https://youtu.be/p-fDEhVBnv4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51.txt

제목: 소람한방병원, 한의술 우수성 알리는 국책지원사업 선정  
날짜: 201505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10100000030  
본문: [한국스포츠경제]<br/> 소람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년 한의약 해외 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br/> <br/> ‘2015년 한의약 해외 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한방은 물론 양방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한방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한의약 특화치료 집중개발과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br/> <br/> 올해 사업 지원 대상 기관은 소람한방병원을 포함해 총 5개 기관이 새롭게 선정됐다.<br/> <br/> 소람한방병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관광 특화 유치 업체인 ㈜고려의료관광개발과 함께 외국인 면역, 외국인 암 치료 및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를 이어간다. 또한 소람한방병원의 “7일 집중 면역 암치료”, “12주 통합 암치료”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면역 증진을 위한 건강 먹거리 생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br/> <br/> 소람한방병원 성신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특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 선정으로 통합면역암 치료를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대한민국의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해외에 제대로 알려 의료의 한류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52.txt

제목: [문화산책] 50년 만에 되살아난 남자  
날짜: 20150508  
기자: 정이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08100000081  
본문: 예술작품에는 저마다의 운명이 있다. 존 윌리엄스의 장편소설 ‘스토너’의 운명을 보면 이 문장을 곱씹지 않을 수 없다. 이 작품은 1965년 미국에서 첫 출간된 소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50년 전이다. 작가인 존 윌리엄스는 1922년 생으로 평생 총 네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다른 소설로 내셔널 북어워드를 공동수상한 적은 있으나 생전에 화려한 대중적 조명은 받지는 못했다. 그는 작가인 동시에 덴버대학교에서 30년 동안 문예창작을 가르친 교수이기도 했다.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소설을 쓰는 조용한 삶을 살다가 1994년 세상을 떠났다.<br/> 20여 년 가까이 ‘스토너’는 도서관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빛의 속도보다 빨리 잊히는, 그 수많은 옛날 소설들 가운데 하나였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연한 기회에 이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친구들에게 권했다는 거다. 이 책을 먼저 읽은 한 명의 독자로서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안다. 오랫동안 절판되었던 책이 2006년 ‘뉴욕 리뷰 오브 북스’판으로 재출간되는 과정에도 이 입소문이 한몫을 했다고 전해진다. 한 서점 주인이 출판사 편집장에게 이 소설을 극찬했다. 그는 소설을 구해 한 자리에서 다 읽었고, 언제 절판되었는지도 모를 이 책의 출판권을 재빨리 구입했다. 이어 ‘빈티지 클래식’판으로 출간되면서 이 입소문의 기적은 더 멀리까지 퍼져간다.<br/> 여러 영향력 있는 작가와 평론가를 비롯한 예술가들이 먼저 이 소설에 매료되었고 홍보를 자처했다. 프랑스의 작가 안나 가발다는 프랑스어판의 번역을 꼭 직접 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 하나인 영국 작가 줄리언 반스는 2013년 12월 가디언에 이런 제목의 글을 썼다. ‘스토너:2013년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소설’. 줄리언 반스는 ‘이 소설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신이 문학적인 깨달음을 얻은 순간, 문학의 마법이 지닌 의미를 처음으로 아련하게나마 이해하고 그것이 삶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순간을 떠올릴 것’이라고 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br/> 제목‘스토너’는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이다. 윌리엄 스토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업을 돕기 위해 미주리대학 농대에 진학한다. 영문학개론 수업시간에 셰익스피어의 73번째 소네트를 접한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 그는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삶의 고통과 부조리를 묵묵히 견디면서 다만 읽고 가르치고 살아간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고? 세속적 성공도 가족의 행복도 이루지 못하고 평생을 책 속에서 고독하게 살다 암에 걸려 죽는다. 이것이 소설의 전부다.<br/> 그런데 왜 이 특별할 것 없는 남자의 일생이 이토록 뒤늦게, 2010년대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키게 된 걸까?(네덜란드에서는 20만부 넘게 판매되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영국에서는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뉴요커’에 실린 팀 크라이더의 글은 참고할 만 하다. 그는 스토너를 반(反)개츠비적인 인물로 읽었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개츠비는 우리가 허구의 인물에게 바라는 환상을 구현하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사랑에 목숨을 거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비밀을 간직한, 젊고 잘 생긴 부자. 비극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 같지만, 그 정점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화려한 비극성이야말로 개츠비에 대한 하나의 판타지를 완성한다. 그러나 스토너는 그 정반대편에 있다. 그는 중세의 학문을 연구하면서 느리고 소박하게, 때론 꾸역꾸역 산다. 자신에게 왔다가는 치욕과 고통과 슬픔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문학을 통해 가지게 된 내면의 존엄을 잃지 않음으로써 운명에 대항한다. 마음의 빈 공간 같은 것을 꿈꿀 시간도 여력도 없는 시대, 21세기 사람들은 그래서 앞서 살다간 한 평범하고 위대한 남자의 생을 응시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br/> 정이현 소설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53.txt

제목: 위기의 홍준표 "진실게임 해보자" 장외 변론  
날짜: 20150507  
기자: 조원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07100000012  
본문: 수사기관 윤승모 관리설 등 주장<br/>검찰, 불쾌한 분위기속 기소 자신 <br/><br/> <br/> ‘모래시계 검사’ 출신 홍준표(61) 경남지가가 20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친정인 검찰에 8일 소환된다. 소환에 앞서 홍 지사는 연일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날 선 장외 변론을 펴고 있다. 검찰이 창과 홍 지사의 방패가 맞부딪히며 파열음이 나오는 형국이다.<br/> 6일 오전 7시25분 홍 지사는 출근길 취재를 위해 기다리던 기자들을 집무실로 안내 한 뒤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돈 1억원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지사는 먼저 이번 사건을 ‘망자와의 진실게임’으로 규정하고, 윤 전 부사장은 ‘사자(死者)의 사자(使者)’라고 했다.<br/> 홍 지사는 검찰에 대해 ‘윤 전 부사장 관리설’을 제기했다. 홍 지사는 “<span class='quot0'>윤 전 부사장이 한 달 동안 검찰의 관리통제를 받았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 협력자였다</span>”며 “<span class='quot0'>병상심문을 포함해 적어도 10여 차례 이상 조사 받았다</span>”고 했다. 검찰의 정식조서 작성은 4차례만 이뤄졌다. 홍 지사는 “<span class='quot0'>윤씨에 대한 조사는 (원래) 한나절이면 끝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자금전달 장소도 오락가락하는 유일한 증인을 (한 달간)통제하며 진술을 조정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span>”고 거듭 주장했다.<br/>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측근들과 병원에 입원 중인 윤 전 부사장을 찾아간 것도 “<span class='quot1'>배달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하려 한 것</span>”이란 논리를 폈다. 성 전 회장이 배상사고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굳이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생전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1억원에 대해 “<span class='quot1'>윤 전 부사장의 생활자금으로 준 것</span>”이라고 진술한 것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근거라고 주장했다.<br/> 검찰은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지만, 수사의 신빙성을 흔드는 홍 지사의 장외 발언에 상당히 불쾌하다는 분위기다. 윤 전 부사장을 관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암 투병 중인 그의 건강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전 부사장은 최근 수술을 받았으며 자연스러운 대화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전 회장이 윤 전 부사장을 만나 돈 전달 사실을 확인한 것도 사건 폭로 준비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성 전 회장이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조사에서 1억원이 “윤씨에게 준 생활자금”이라고 진술한 것도 실은 정치권 로비를 부인하기 위한 거짓 진술로 보고 있다.<br/> 검찰은 “수사의 목적은 기소”라며 사실상 홍 지사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가 윤씨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의 진술이 바뀌면 공소유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홍 지사를 옭아맬 ‘히든 카드’를 내 놓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b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54.txt

제목: “원전 탓 갑상선암 근거 없다” 의학계 주장, 또다른 갈등 부르나  
날짜: 20150506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06100000009  
본문: 학회 워크숍 자료 미리 살펴보니<br/>"방사선 피폭 인과관계 단정 못해"<br/>지난해 법원 판결과 반대 내용 담겨<br/><br/> <br/> 암 및 방사선의학 전문가들이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해 의학적으로 원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지난해 법원이 원전에 책임 있다고 인정한 판결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유사 소송을 준비 중인 다른 원전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br/> 한국원자력학회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는 6일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원전 주변 주민과 갑상선암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주제로 워크숍을 연다. 본보가 사전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사로 참석하는 의학자들은 대부분 “원전 주변 지역의 갑상선암 발견 건수가 통계적으로 높지만 원전의 방사선 피폭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의견이다.<br/>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과장은 “<span class='quot1'>원전의 방사선이 암에 영향을 미쳤다면 남녀 모든 부위에서 일관된 발병 위험 경향이 관찰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국가암등록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1993~2008년 원전 주변 여성 갑상선암 발생률은 10만명 당 61.4명으로 서울(102.5명)이나 대전(109.4명)보다 낮다</span>”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진영우 연구기획부장은 “<span class='quot2'>원전 주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아 갑상선암이 더 많이 발견됐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갑상선암 검진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여성의 갑상선암 발견률이 외국보다 평균 15배 많다</span>”고 설명했다. <br/> 이는 지난해 재판 결과를 뒤집는 내용으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고리 원전 인근에 사는 한 여성은 원전 때문에 갑상선암이 발병했다며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한수원이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한수원은 항소했다.<br/> 당시 법원은 2012년 서울대 의학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판결 근거로 들었다. 조사 내용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원전 4곳의 인근에 사는 암이 없던 성인 3만6,000여명을 20년간 추적 관찰해 암의 발병 추이를 다뤘다. 이 가운데 여성 갑상선암만 원전에 가까이 살 수록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 이에 대해 의학자들은 “의학적으로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의학자들은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 수준이 일반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일반 환경을 뛰어넘는 고선량에 피폭돼야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한편 일각에선 원전관련학회들이 워크숍을 통해 한수원 옹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한수원이 원자력학회 특별회원으로, 학회 사업에 각종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55.txt

제목: 당신은 어느 쪽으로 뛰겠습니까  
날짜: 20150506  
기자: 박서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06100000020  
본문: 차량 정체가 이어지는 도심 터널 안, 나란히 운전 중이던 A와 B씨는 차 내부로 스며드는 매캐한 냄새에 놀라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이미 화재로 인한 연기가 터널 내부에 가득 찬 상황, 불행 중 다행으로 두 사람은 희미한 녹색 불빛을 발견한다. 바로 양쪽 출구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거리표시유도등인데, 먼 발치에서도 왼쪽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 그림이 한 눈에 들어왔다. 연기를 많이 마신 A씨가 먼저 그림이 달리는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반면 B씨는 그림 아래 숫자를 읽고 왼쪽보다 오른쪽 출구가 훨씬 가깝다고 판단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림을 따른 A씨와 숫자를 선택한 B씨, 과연 누가 살아 남았을까.<br/>국내 터널 대부분의 거리표시유도등, 출구까지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그림이 한쪽 방향으로만<br/>방재 전문가들은 터널 내 화재 시 출구까지의 거리는 물론 발화지점이나 바람의 방향 등을 고려해 탈출 방향을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상황판단이 어려운 경우 일단 출구 가까운 쪽으로 뛴 B씨의 생존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문자나 숫자보다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한다. 결과와 관계 없이 A씨의 판단이 빨랐던 것도 그 때문이다. 비록 가상이지만 가까운 오른쪽 출구를 향해 달리는 그림이 표시되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서울 남산3호 터널이나 금화터널 등엔 이미 가까운 출구 쪽으로 뛰는 사람 그림이 표시되어 있고 한국도로공사도 신설 터널에 보다 시각적인 그림 표지를 채택하고 있다. 이미지의 속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터널 내 거리표시유도등 속 주인공들은 출구와의 거리에 상관 없이 한쪽 방향으로만 뛰고 있다.<br/>문맹자ㆍ외국인도 쉽게 이해해야 할 공공안내 그림표지, 이미지만으로 알 수 없는 경우 많아터널 내 화재처럼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뜻이 모호한 안내 이미지 때문에 당황스러운 경우도 적지 않다. 비상구나 화장실, 장애인 시설 등 각종 안내표지판에 쓰이는 이미지를 ‘공공안내그림표지(그래픽심볼)’라고 하는데 글씨를 모르는 문맹자나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설명 없이는 도저히 의미를 알 수 없거나 오히려 안내문자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경우도 주변에서 쉽게 눈에 띈다.<br/><br/>경기 고양시의 한 공원 시설물에 설치된 공공안내그림표지.‘유아 및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서 있는 이미지만으로 전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지하철역 대합실 표시나 비상시 탈출 표시 등도 별도의 안내문 없이 뜻을 짐작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위급상황에 필요한 소화기나 비상출입문, 비상전화 표시를 아예 한글로만 표시하는 바람에 외국인이나 문맹자에겐 무용지물이 돼 버린 경우도 흔하다.<br/><br/><br/>같은 의미지만 모양이 제각각 이라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사용주의 표시는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코레일에서 게시한 것과 제조 및 관리 업체가 제작한 이미지가 서로 다르다. <br/><br/><br/><br/>널리 통용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표시 역시 장소에 따라 모양이 다양하고 화장실이나 버스 정류장, 출입금지 등도 설치 주체나 시기에 따라 디자인이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국가기술표준원이 권고하는 공공안내그래픽심볼을 비교하면 혼란은 더욱 커진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 지난해 국제표준(ISO)을 따라 채택한 국내표준(KS) 그래픽 심볼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교체비용 등 현실적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안다</span>”고 말했다. 장영호 서울시 공공시설디자인팀장은 “<span class='quot1'>이미 많은 시민들에게 익숙한 그림표지를 국제 표준을 따르기 위해 다시 교체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다만, 이미지만으로 의미 전달이 확실치 않은 공공안내그림표지는 개선해가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밝혔다.<br/>암호문 같은 공공안내그림박서강기자 pindropper@hk.co.kr <br/>류효진기자 jsknight@hk.co.kr <br/>이명현 인턴기자(숙명여대 미디어학부4)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56.txt

제목: 금기 깬 中 인간배아 유전자 교정…디스토피아의 서막인가  
날짜: 20150505  
기자: 송옥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05100000161  
본문: 실험서 배아 대부분 죽거나 다수 변이<br/>체세포와 달리 결과 대물림돼<br/>"인간배아 연구 잠정 중단하자"<br/>전 세계 생명과학자 선언 잇따라<br/>英 세 부모 아기 논란 계속<br/>伊 의사는 머리이식수술 예고<br/>내로라하는 전세계 생명과학자들이 잇따라 “<span class='quot1'>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편집 연구를 잠정 중단하자</span>”며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있다. 생식세포의 유전자를 편집하면 체세포와 달리 그 결과를 후대로 물려주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권위 있는 과학잡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물론 일간지에도 같은 취지의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br/> 미국 노벨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볼티모어와 폴 버그 박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span class='quot2'>과학계가 기술과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 행동의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지금은 유전자를 편집하기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할 시간</span>”이라고 호소했다. 저명한 생화학자이자 국제줄기세포연구학회(ISSCR) 회장인 루돌프 재니쉬도 타임 기고를 통해 이에 동참했다. <br/><br/>中 인간 배아 손 대다<br/>모라토리엄 선언은 중국이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편집 실험을 했다는 과학계에 떠도는 소문이 발단이 됐다. 논란의 핵심에는 일명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Cas9)로 불리는 크리스퍼 기술이 있다. 크리스퍼 기술은 특정 염기서열을 찾아내 해당 부위 유전자를 절단하는 효소로 인간ㆍ동식물 세포의 유전체 교정에 사용된다. <br/>현존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 중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되는 크리스퍼의 등장으로 유전자공학은 진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동시에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br/>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경우가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중산대 황쥔주 박사팀의 연구다. 황 박사팀은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해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편집 실험을 한 논문을 온라인 과학잡지 프로테인&셀에 지난달 게재했다. 이들은 현지 불임클리닉에서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인간 배아를 얻은 뒤 지중해성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에 대한 편집을 시도했다. <br/>황 박사는 “<span class='quot3'>우리의 연구 결과를 세상에 알려서 이런 방식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알아보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상적인 배아에 이 방법을 쓰려면 확률이 100%에 가까워야 한다”면서 “그래서 실험을 중단했다. 아직은 미숙한 상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br/>실험에서는 대부분의 배아가 죽거나 유전자를 바꾸지 못했으며 다수에서 변이가 생겼다.<br/>생식세포의 유전자 조작을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 문제, 남용에 따른 부작용 등의 이유를 들어 암묵적으로 금기시해 온 학계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br/>프랜시스 콜린스 미국국립보건원(NIH) 원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윤리적 의문을 제기하며 “<span class='quot4'>미국은 절대로 배아 변형 연구를 위한 자금 모금을 하지 않을 것</span>”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비영리조직인 유전학과 사회센터의 마시 다노브스키 소장은 “<span class='quot5'>이 실험이 유전질환 때문이라 하더라도 배아 선별 등 다른 기술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식세포를 조작할 만한 의료적 필요성과 설득력이 없다</span>”고 꼬집었다. <br/>반면 존 해리스 영국 맨체스터대 생명윤리학과 교수는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6'>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배아는 어차피 체외수정 과정에서 폐기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span>”고 반박했다. <br/> <br/><br/> 세 부모 아기의 미래는 <br/> 영국에서 허용된 세 부모 체외 수정이 논란인 이유도 이 법안이 아기를 디자인하는 시대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이다. 영국 하원은 2월 세계 최초로 부모 3명의 유전자를 결합해 아기를 낳는 이른바 ‘세부모 아기법’을 통과시켰다. <br/> 가디언에 따르면 세 부모 체외 수정은 미토콘드리아 결함이 있는 엄마의 난자에서 핵만 빼내, 핵을 제거한 다른 여성의 난자에 삽입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이상으로 인한 유전질환의 대물림을 막자는 취지다.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적 결함이 유전되면 아기는 대사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암 등 150개의 심각한 유전질환을 물려 받을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로 인한 질병은 모두 모계 유전이다.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는 영국에서 한 해 100명, 미국에선 1,000~4,000명에 달한다. 영국에서는 이 법으로 2,500명의 가임기 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r/> 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에 부모와 제3의 여성 이렇게 3명의 유전자를 지닌 아기가 탄생할 수도 있지만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장애나 질병을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한편 사람들이 피부색 눈동자색 머리카락색 등을 선택해 아기를 낳는데 한 발짝 다가서게 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br/> 또 세 부모 아기법 초안에 ‘미토콘드리아 기증자의 익명이 보장되며 기증자는 아이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법에 따라 누구나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를 알 권리와 충돌한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반면 세부모 아기법 찬성론자들은 아기의 유전자의 99.8%는 부모에게서 물려 받고 나머지 0.2%만 미토콘드리아 엄마로부터 전달된다며 그 유전적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 환자들을 위한 세부모 아기 연구의 중심지인 뉴캐슬대는 이미 아기의 ‘두 번째 엄마’가 되는 기증자에게 500파운드를 지불하고 있다. <br/> 영국 보건부 수석 의료담당 데임 샐리 데이비스 박사는 “<span class='quot7'>미토콘드리아를 바꾸는 것은 고장 난 자동차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7'>세부모 아기법이 미토콘드리아 관련 질환을 앓는 여성과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고 이는 옳다고 생각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br/><br/>머리이식수술은 천국이 될 수 있을까 <br/> 머리이식수술은 유전자 편집이나 세부모 아기법 보다 대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생명윤리 이슈다. 이탈리아 신경외과의 세르지오 카나베로는 다음달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리는 미국신경ㆍ정형외과의 연례학회에서 머리이식수술 계획을 발표한다. 카나베로는 이 수술을 ‘head anastomosis venture’(머리이식수술)의 앞 글자를 따 ‘HEAVEN’(천국)이라고 명명했다. <br/> 수술 과정은 이렇다. 뇌사 상태지만 몸은 건강한 신체 기증자와 환자의 머리를 아주 날카로운 칼로 자른다. 카나베로가 ‘마법의 물질’이라고 부르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이용해 잘린 두 척수를 잇는다. 환자의 머리와 기증자 몸이 하나로 이어져 붙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4주간 혼수상태로 둔다. 새 몸에 대한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 강력한 면역억제제를 투여한다. 카나베로는 이 수술에 36시간과 750만파운드(128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비용은 주로 수술을 마치는데 필요한 의료진 150명의 인건비다. <br/> 일부 신체장애인 사이에서 이 수술은 곧 희망이다. 데일리메일은 러시아에서 컴퓨터과학자로 일하는 발레리 스피리도노프(30)가 이 수술을 첫 번째로 받을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스피리도노프는 선천적으로 신경근육계 희귀 유전질환인 베르드니히-호프만병(척수성 근육위축병)을 앓고 있다. <br/> 스피리도노프는 “<span class='quot8'>나는 지금 겨우 내 몸을 제어할 수 있고 매일, 매 순간 도움이 필요한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8'>수술이 위험성과 그 위험이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나에게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span>”고 말했다. 이 병을 앓는 환자는 대개 평균 수명이 20년이다. 그는 내년에는 수술을 받게 되길 원한다. 그는 “<span class='quot8'>가족도 첫 번째 수술 대상자가 되겠다는 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span>”고 말했다. <br/> 그러나 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9'>카나베로 박사가 척수를 다시 연결하는 어려움을 단순화하고 있다</span>”며 “순수한 판타지”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카나베로의 모국인 이탈리아에서는 그를 ‘프랑켄슈타인’으로 비유한다. 아더 카플란 뉴욕대 랭곤메디컬센터 박사는 카나베로를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br/> 성공 여부와 별개로 윤리적 논란도 뜨겁다. 미국의 생명윤리학자 페트리샤 스크립코는 “이식을 통해 사람을 살려낸다 해도 그가 누군지 정의하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가디언에서 전했다. 그 사람이 머리이식을 한 환자인지 기증자인지, 만약 결혼을 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또 누구의 아이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미국신경외과학회장인 헌트 배트저 박사는 CNN에 “<span class='quot10'>나는 누구도 이런 수술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10'>죽음보다 더 나쁜 많은 일이 벌어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맞춤형 아기를 출산하고 몸을 바꿔가며 불로장생하는 공상과학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될 날이 코 앞에 닥쳤다. 어떤 기술이든 천국으로 쉽게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br/> 송옥진기자 clic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57.txt

제목: [채널선택] 신해철 떠난 뒤 남겨진 가족들  
날짜: 201505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03100000013  
본문: 휴먼다큐- 사랑 ‘단 하나의 약속’ (MBC 밤 11.15)<br/><br/> 2014년 10월 27일 가수 신해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결혼 전 두 번이나 암과 싸우는 동안 아내 윤원희(39)씨를 지켜주었던 운명 같은 사람, 신해철. 그가 떠났다는 사실을 가족들은 믿지 못하고, 아내 원희씨 앞에는 남편 없이 해결해야 할 일이 자꾸만 쌓여 간다. 생계도 책임져야 하고 아빠의 빈자리도 채워야 한다. 아직 어린 지유(9)와 동원이(7)를 위해서다. 아빠의 부재 이후, 서로를 보듬으며 하루하루를 살아 내고 있는 고 신해철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58.txt

제목: 어린이보험 가입 체크리스트  
날짜: 20150503  
기자: 김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503100000019  
본문: 보장내역 확인하고 맞춤설계로 활용도 높여야 <br/> <br/>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자녀를 지키는 안전장치로 어린이보험을 선택하는 부모들도 증가 추세다. <br/> <br/> ● 보장내역 확인 필수<br/> 어른보다 면역력과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과 사고발생빈도가 높고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보장범위를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절, 화상 등 성장기 자녀에게 발생하기 쉬운 각종 위험부터 아토피, 비염, 천식 등 생활질환의 보장여부를 확인한다. 또 입원 및 통원치료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이용가능성이 높은 응급실 내원 시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체크한다. 이외에도 암을 포함한 중대질병의 보장 범위도 확인한다. <br/> <br/> ● 생명보험ㆍ손해보험 상품 차이 확인해야<br/>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어린이보험을 판매한다. 생명보험은 가입 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암, 백혈병 등 치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력, 선천성 등 큰 질병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모들이 선호한다. 반면, 손해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치료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실손 의료비 형태이므로 실제 사용한 치료비를 보장받고자 할 때 유리하다. 두 가지 상품 모두 약간의 보험료 추가로 특약에 가입하면, 중증 질병에 대한 고액 치료비와 실손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설계가 가능하다.<br/> <br/> ● 출산 전부터 준비하는 태아특약, 가입 시 주의사항은<br/> 어린이보험에는 출산 직후 각종 선천성 질병에 대한 보장기능인 ‘태아특약’이 있다. 가입 시 주의할 점은 다둥이의 경우 먼저 태어나는 아이만 보장이 되므로 모든 아이에 대해 보장받고자 한다면 각각 하나씩 가입해야 한다. 또 사고위험률이 비교적 높은 남자아이를 가정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보험사에 알려 보험료 차액을 적립하거나 환급 받아야 한다.<br/> <br/> ● 교육비, 결혼자금 마련…실용성 높인 어린이보험도 주목<br/> 최근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교육비, 결혼자금 등 다양한 양육자금 마련기능을 추가해 상품의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하나생명의 ‘(무)행복한어린이100세보험’은 0세부터 100세까지 각종 암에 대해 최대 1억까지 보장하며, 중도급부형의 경우 자녀가 결혼할 나이인 30세에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의 ‘굿앤굿어린이CI보험’은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계약 2년 경과 후부터 고객 요청 시 회사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보험 년도마다 1회 중도인출이 가능해 자녀교육비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br/> 최춘석 하나생명 마케팅기획부 차장은 “<span class='quot0'>상품 자체의 특장점들을 비교한 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사가 지급절차상의 편리함을 갖추고 있는지도 체크해볼 것을 권한다</span>”고 말했다.<br/> 김성환기자 spam001@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59.txt

제목: 한국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날짜: 20150430  
기자: 변태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30100000137  
본문: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열량 육류 위주의 식생활과 운동 부족으로 발병해 ‘선진국형 암’으로도 불리는 대장암은 발병 초기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치료의 핵심이다.<br/> 30일 고려대 구로병원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CR)의 2012년 기준 암 발병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대장암 발병률은 한국이 45명으로 조사 대상 18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br/> 슬로바키아가 42.7명으로 뒤를 이었고, 헝가리(42.3명) 덴마크(40.5명) 네덜란드(40.2명) 체코ㆍ노르웨이(이상 38.9명) 오스트레일리아(38.4명) 순이었다. 전 세계 평균 대장암 발병률은 10만명당 17.2명, 아시아 평균은 13.7명이다.<br/> 성별로 구분해 보면 한국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10만명당 58.7명으로 여성(33.5명)보다 훨씬 높았다. 슬로바키아(61.6명) 헝가리(58.9명)에 이어 세계 3위다.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35.8명)였고, 덴마크(35.7명) 네덜란드(33.9명) 뉴질랜드(33.5명)에 이어 한국은 5번째였다.<br/> 민병욱 고대구로병원 대장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에는 서구화한 식습관 등으로 30~40대에서도 대장암 발병이 늘고 있는 추세</span>”라며 “<span class='quot0'>대장암 진단 시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절반에 이를 정도로 암세포 증식이 빨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 오상철 고대구로병원 대장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야채를 많이 먹는 등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섬유소 섭취가 대장암 예방에 중요하다</span>”고 조언했다.<b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60.txt

제목: "김정일 애용 특효약" 풍문… 北 '금당2호' 마취제였다  
날짜: 20150430  
기자: 전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30100000182  
본문: 밀반입해 유통시킨 몽골인 등 적발<br/> <br/>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생전 애용했고, 암 치료에 특효라고 소문 난 북한산 ‘금당2호’가 실은 마취제 성분인 프로카인이 주성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금당2호는 수술 시 사용되는 마취제 프로카인으로 이뤄졌고, 인삼 추출액과 백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프로카인은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쇼크나 중추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시중에선 금당2호가 인삼추출액과 백금으로 만들어진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인터넷을 통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br/>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허가 받지 않은 북한산 의약품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몽골인 알모(33ㆍ여)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국내 목사, 선교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밀반입한 의약품을 사들인 뒤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한방 주사제로 투약하거나 판매한 우모(76)씨 등 2명도 함께 입건됐다.<br/>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1월부터 4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북한산 의약품 금당2호 6,000여개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 등은 폐암과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 250여명에게 금당2호가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이 들어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개당 1만원에 주사하는 등 지난 6년 동안 10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당2호가 몽골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러시아에서도 밀반입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br/>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금당2호의 마취제가 주성분이다 보니 환자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 만병통치약으로 소문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북한 지도자들이 애용했다는 것도 광고를 위해 퍼뜨린 거짓 내용일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 부산=전혜원기자 iamjhw@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61.txt

제목: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는 우리나라  
날짜: 20150430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30100000018  
본문: 우리나라 국민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br/> 고려대 구로병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CR)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10만 명당 45명으로, 조사 대상 18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세계 평균(17.2명)과 아시아 평균(13.7명)을 크게 웃도는 발병률이다.<br/> 슬로바키아는 42.7명으로 2위였고, 헝가리(42.3명) 덴마크(40.5명) 네덜란드(40.2명) 노르웨이(38.9명) 벨기에(36.7명) 등 선진국이 발병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br/> 우리나라는 남성 통계만 놓고 보면 10만 명당 대장암 발병률이 58.7명이나 된다.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61.6명)로, 우리는 헝가리(58.9명)에 이어 3위다.<br/>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33.5명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다다. 여성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35.8명)다.<br/> 대장암은 고열량 육식 위주 식생활과 운동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혀 ‘선진국형 암’으로 불린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일단 암이 진행되면 다른 암보다 암세포의 증식이 빠르고 말기 생존율이 낮아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br/>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62.txt

제목: [기고] 담배 경고그림이 행복추구 침해?  
날짜: 20150430  
기자: 조홍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30100000130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법안이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 새누리당의 한 국회의원은 담뱃갑에 혐오그림을 넣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막았다. 그림이 너무 혐오스럽다는 것이다. 흡연으로 인해 매년 우리 국민 5만 8,000여명이 사망한다. 전체 사망의 20%가 흡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사망의 30%는 흡연이 원인이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은 이런 혐오스러운 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다. 담배의 해로움을 제대로 알려 국민의 건강권과 진정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br/>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문자 경고 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경고그림은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흡연자가 금연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결국 흡연율을 떨어뜨릴 것으로 확신한다.<br/> 캐나다는 이미 2001년에 세계 최초로 경고그림을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흡연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이런 효과는 청소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담뱃갑은 그 자체가 중요한 광고수단이다. 담뱃갑의 현란한 색과 디자인은 청소년을 유혹해서 담배를 피우도록 하고, 담배를 끊은 흡연자가 다시 담배를 집어 들도록 유혹한다. 경고그림은 청소년에게 담배가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방지해 담뱃갑이 더 이상 담배를 광고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준다.<br/> 경고그림 도입은 담배규제의 국제적 표준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180개국이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뱃갑 앞뒤 면의 50% 이상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5년 현재 77개국이 그림경고를 도입했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내년부터 경고그림을 도입한다. 경고그림은 선진국에서만 도입한 것이 아니다. 칠레, 우루과이 등 중남미와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도 경고그림을 도입했다. 최근 이를 도입하는 나라가 크게 늘고 있으나 우려하는 어떤 부작용도 보고된 바가 없다.<br/> 담배회사는 여러 이유를 들어 경고그림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명확하다. 청소년을 새로운 흡연자로 유인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결국 담배소비가 줄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외국 담배회사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그림 도입을 방해해왔다. 이들은 경고그림이 담배소비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으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에게 과도한 혐오감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소비에 영향이 없다면 굳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br/> 경고그림이 아니라 담배 자체가 건강을 해치는 더 혐오스런 물건이다. 담배는 담배회사가 만든 목적대로 소비하면 사용자의 절반을 죽이는 아주 예외적인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규제 역시 예외적으로 강력하다. 담배만을 규제하기 위해 별도의 국제조약이 존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국민에게 담배의 해로움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br/> 정부는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이는 세수확충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에게 이를 설득하기 위해 올해 안에 담뱃갑에 그림경고를 도입하고 편의점의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br/>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ㆍ대한금연학회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63.txt

제목: [칼럼으로 한국 읽기] 진보가 자빠지면  
날짜: 201504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30100000195  
본문: 위선이 드러났다. 자빠진 진보를 보수가 밟는다. 늘 고깝던 잘난 척이다. 불결이 과장된다. 같은 편은 민망하다. 과신이 부른 사달이다. 대개 법은 선의를 모른다. 교육감이 안이했다.<br/> <b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민주주의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민주화 투사다. 그런 그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가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독설을 퍼부었다. 사법 민주주의를 한발 진전시켰다고 평가받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향해서다. 그는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법률을 잘 모르시는 비전문가 배심원들이 굉장히 미시적인 법률 판단을 하셨다”고 했다. (…) 궤변을 듣고 보니 그가 추구해온 민주화라는 건 교육감 자리를 위한 ‘포장지’였을 뿐이란 생각이 든다. (…) 그 자리에 적합한 재능을 갖췄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부모가 누구인지 얼굴은 잘났는지 혹은 화려한 스펙을 갖췄는지 따지는 풍조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가리지 않고 나라 전반을 휩쓸고 있다. 덕분에 화려한 말재주나 독설 퍼붓기 실력만으로 전문가로 행세하거나 한발 나아가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 적지 않다. 대중을 속이는 데 성공하고 그 이후 법의 심판이나 매서운 검증의 그물에 걸려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들은 실력도 없이 권력의 단물만 빨아먹을 게 분명하다. 더 두려운 것은 앞으로 어떤 허울과 껍데기를 뒤집어쓴 채 세상을 속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하는 점이다. 그 껍데기를 걷어내지 않고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길 기대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다.”<br/> -‘조희연의 포장지’를 걷어내야 산다(동아일보 ‘광화문에서’ㆍ이동영 사회부 차장) ☞ 전문 보기 <br/> <br/> “공소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한 검찰의 ‘표적수사’라는 조 교육감 측의 주장에는 100% 공감한다. 13명이나 되는 진보교육감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현 정부의 태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의심을 품을 수 있다. 또 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에 대한 의혹 제기가 교육감 직을 당선 무효 시킬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헷갈린다. 아울러 조 교육감의 억울함이 클 것이라는 데 심정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조 교육감의 억울함과 그의 행위는 별개다. 공소 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한 것은 검찰이 그만큼 충분히 조사한 뒤 신중하게 기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선거운동 기간 표현ㆍ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반대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흑색선전과 보수 세력의 단골 메뉴인 ‘색깔론’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1심 재판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평생 학자로 지내며 사회적 양식을 위해 활동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자기 명예를 걸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학자로서의 양심, 도덕성, 정의감, 개혁 의지를 과신해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무죄 입증에 소홀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 성경 마태복음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구절이 있다. 전ㆍ현직 진보 교육감들의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알기에 그들의 ‘뱀과 같은 지혜’가 더욱 아쉽다.”<br/> -‘뱀의 지혜’가 필요한 진보 교육감(4월 28일자 한국일보 ‘36.5˚’ㆍ한준규 사회부 차장대우) ☞ 전문 보기 <br/> <br/> 도둑으로 몰려 도덕을 뺏겼다. 별 수 없는 좌파다. 집권은 독 든 성배다. 권력은 부패한다.<br/> <br/> “‘성완종 메모’를 들여다볼수록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 그 56자에는 많은‘다잉메시지(죽기 직전 남기는 단서)’가 숨겨져 있다. (…) 메모 앞 부분에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을 차례로 열거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 보인다. (…) 메모는 금품을 제공한 수많은 정ㆍ관계 인사를 놓고 추린 요약본일 가능성이 많다. 별도의 복기 자료의 존재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더한 의문이 생긴다. 검찰이 대통령의 뜻을 받아 메모 쪼가리조차 없는 사면로비 수사를 할 지다. ‘정치 검찰’을 자인해 온 저간의 행태로 보면 가이드라인을 따를 가능성이 짙다. 리스트 수사는 이완구와 홍준표로 끝내고 사면 수사로 저울추를 옮길 것이다. 하지만 실체가 밝혀질 리 없고 여야간 특검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다 흐지부지되리라는 건 안 봐도 뻔하다.”<br/> -성완종 메모 다시 보기(한국일보 ‘지평선’ㆍ이충재 논설위원) ☞ 전문 보기 <br/> <br/> “성완종 사태가 폭로한 한국 사회의 문제는 여럿이다. 고질적인 정경 유착과 금권정치, 만성화된 부정부패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수십년간 무차별적 로비 대상으로 삼은 여야 정치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들이 스스로에게 부여된 공적 권력을 철저히 사유화(私有化)했다는 사실이다.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 분야 등의 권력 엘리트가 강력한 부패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신들의 사적 이해를 위해 공적 자산을 약탈하는 것이 도둑정치의 본질이다. (…) 수평적 권력 교체 과정에서 여야 모두 그의 로비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추론이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그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 권력의 향배였기 때문이다. 메모에 적시된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물론이려니와 성완종이 참여정부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 받은 걸 문제 삼는 것도 단순한 ‘물 타기’라고만 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 성완종 메모에는 도둑정치의 줄을 타고 하늘 높이 비상하다가 파멸의 나락으로 추락한 자(者)의 르상티망(원한)과 사회적 고발이 함께 담겨 있다. 그것이 한국적 도둑정치의 뇌관을 건드려 폭발 직전에 이른 지금의 상황은 역사의 우연임과 동시에 필연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도둑정치는 단연코 한국 정치 최대의 암(癌) 덩어리다. 도둑정치가 횡행하는 곳에 좋은 나라의 꿈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br/> -‘도둑정치’(조선일보 기명 칼럼ㆍ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 전문 보기 <br/> <br/><br/> 시간ㆍ기억을 탈각한 공간은 어떤 정서도 환기하지 않는다. 깊이라곤 전혀 없는 박빙 영화.<br/> <br/> “‘어벤져스’가 그렇게 대단한 영화인가? 1편 볼 때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를 만큼 푹 잤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극장을 찾았을 때는 커피를 마셔가며 졸지 않고 봤다. 놀라울 만큼 재미없고 지루한 영화였다. (…) 영화의 상당량을 한국에서 찍은 것은 분명 눈요깃거리였다. (…) 그러나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요소는 거의 없다. 청담대교의 복잡한 진출입 램프는 서울 사람들이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 할리우드가 원했던 것은 ‘도쿄나 홍콩이 아닌 아시아의 어떤 도시’였던 셈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어벤져스’ 한국 촬영의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가 2조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한 결과인지 궁금하다. (…) 영화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문화부 기자의 의무감 같은 것 때문에 본 영화이긴 해도 ‘어벤져스’의 캐릭터나 스토리는 심하게 너절하다. 1970~80년대 식으로 말하면 태권브이와 마징가제트, 600만불의 사나이와 소머즈와 원더우먼이 총출동해서 나쁜 놈을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 ‘어벤져스’는 못 하는 게 없는 캐릭터들끼리 밀고 당기다가 결국은 우리 편이 이기는, ‘그럴 줄 알았어’류의 영화다. (…) 어떤 영화를 택하는 데는 단지 두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는 이유도 있다. (…) 그 이상 기대하기 힘든 영화이고,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다. 다만 왜 이 정도 영화가 전국 극장의 80%를 차지한 채 한국 영화사의 흥행 기록을 죄다 깨 나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이것이 정말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인가, 아니면 한국 문화 자본의 수준인가.”<br/> -영화 ‘어벤져스’가 뭐길래(조선일보 ‘한현우의 팝 컬처’ㆍ문화부 차장) ☞ 전문 보기 <br/> <br/> “영화 ‘어벤져스2: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한국에서 이미 작년부터 화제가 되었다. ‘어벤져스2’ 일부가 한국에서 촬영된 덕분이다. 반포 세빛둥둥섬, 문래동 철강대로, 마포대교, 상암동 월드컵대로 등이 영화 촬영지로 예고되었다. (…) 한국 촬영에 대한 기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 제고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다.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벤져스2: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등장하는 한국은 꼭 한국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보인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서울은 그저 울트론과 어벤져스팀이 싸우는 무대에 불과하다. (…) 그곳이 서울, 한국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울이라는 공간이 영화에 특별한 정서적 환기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 ‘어벤져스2’에 그려진 대한민국 서울은 ‘우리’만 알아보는 서울에 가깝다. 가족을 길에서 우연히 만날 때 드는 생경함처럼 그렇게 어벤져스 속의 한국은 낯익어서 더 낯설다. (…) 영화 속에 그려진 서울은 영화를 보고 난 후 가보고 싶어지는 곳은 아니다. (…) 사람들은 어떤 정서를 찾기 위해 그곳에 가고 싶어 한다. 마치, 존재하지도 않지만 늘 가보고 싶은 무진처럼, 문제는 장소 자체가 아니라 공간이 주는 정서이기 때문이다.”<br/> -2015년 어벤져스 서울(4월 27일자 경향신문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읽기’ㆍ영화평론가(강남대 교수)) ☞ 전문 보기 <br/> <br/> \* ‘칼럼으로 한국 읽기’ 전편(全篇)은 한국일보닷컴 ‘이슈/기획’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64.txt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민군협력 기술교류회  
날짜: 20150426  
기자: 목상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26100000152  
본문: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헌곤)은 국방과학연구소(소장 정홍용)와 공동으로 28일 부산국방벤처센터에서 국방벤처기업 및 부산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국방벤처ㆍ민군협력 기술교류회’를 개최한다.<br/> 이 행사는 국방연구개발기술을 벤처기업에 이전해 민수사업화를 촉진하고, 국방벤처기업의 우수기술이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2013년부터 두 기관이 공동 개최해오고 있다.<br/> 이번 교류회는 조선ㆍ해양분야 민ㆍ군 협력을 위해 실시되며, 부산국방벤처센터 입주기업 ㈜엔솔브의 암ㆍ복호화 보안기술을 활용한 함정 및 국방 출입통제 시스템 등 국방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민간기술 7건과 국과연의 저소음 마찰 감속기 등 국방기술 민수사업화 기술 4건 등 총 11건이 소개된다.<br/> 2013년부터 개최된 이 교류회를 통해 그간 총 45건의 국방기술과 43건의 민간기술이 소개됐으며, 이 중 4건이 민수이전 성과를 거뒀다.<br/> 기품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앞으로도 분야별 기술교류회를 지속 개최, 국방벤처기업과 국방분야의 협력 대상을 발굴하고 민ㆍ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목상균기자 sgmo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65.txt

제목: [강정의 길 위의 이야기 눈 시리게 화창한 죽음  
날짜: 20150424  
기자: 강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24100000051  
본문: 재작년 봄, 숙부가 돌아가셨다. 수년간의 암 투병 기간이 있었다. 예상 가능한 일이었지만, 잠깐 동안의 호전 증세를 겪은 탓에 돌연함은 예상 밖이었다. 장지는 부산. 만사 제치고 KTX를 탔다. 숙부에겐 아들만 하나 있다. 나보다 일곱 살 연하에 미혼. 상주 노릇 하는 외아들의 처연한 등을 보며 목젖 아래에서 물큰한 게 올라왔다. 숙모는 10여 년 전부터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어 언행이 불편한 상태. 어머니는 영정을 보며 “에고, 할머니가 삼촌이 제일 먼저 보고 싶으셨나 보다” 했다. 이러저러한 안부들이 오갔다. 죽음 곁에 있으되, 산 사람들의 북적댐은 이상하게 정겨웠다. 산 사람들의 추념 속에 있으되, 죽은 이의 보이지 않는 눈빛이 이상하게 또렷했다. 다음날 아침 장지로 이동. 날이 기가 막히게 맑고 밝았다. 검은 복장의 조문객들로 넘쳐나는 화장장이 새로 지은 영화 세트 같았다. 의례적인 절차에 의한 입관과 통곡이 이어졌다. 눈물이 찔끔 나왔다가 다시 담소하는 과정마저 무슨 절차 같았다. 화장이 끝나고 사촌동생이 유골함을 들었다. 휠체어에 탄 숙모가 유골함을 어루만졌다. 숙부의 이름자를 또박또박 발음하며 마지막 인사말을 전했다. “OO야, 잘 가라. 내 쫌 이따 따라갈꾸마, 기다려라.” 하늘처럼 높고 맑고 명랑한 음성이었다.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터졌다. 눈 시리게 화창한 봄날이었다. <br/> 시인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66.txt

제목: '암 전이 여부 확인' 핵의학 영상검사 원료 국내 생산ㆍ수출도 활짝  
날짜: 20150423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23100000098  
본문: 미국산 우라늄 사용 제약 사라져<br/>방사성동위원소 자체 조달 가능<br/>부산 기장 연구로 조기 완공 과제 <br/> <br/> 한ㆍ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암 진단 등에 쓰이는 핵의학 영상검사 원료를 안정적으로 자체 조달할 수 있게 됐다.<br/> 핵의학영상검사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환자의 몸에 주입한 뒤 특수 카메라로 병이 퍼진 부위나 손상된 조직을 찾는 진단법이다. 위암이나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폐암 등이 뼈에 전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검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사성동위원소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테크네튬(Tc)-99m’이다. 연구용원자로에서 우라늄에 핵분열반응을 일으켜 인공 방사성동위원소인 ‘몰리브덴(Mo)-99’을 만든 다음 여기서 뽑아내야 한다.<br/> 현재 국내에선 몰리브덴 자체 공급이 불가능하다. 관련 설비도 없고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원료인 우라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몰리브덴 생산용 우라늄은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농축도 기준 하한선에 가까워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했다.<br/> 그래서 우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 몰리브덴을 전량 수입해왔다. 문제는 생산국 사정에 따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공급이 원할하지 못하면 국내 병원에서 암 진단 검사 등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br/> 원자력업계와 의료계는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해 국내에서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몰리브덴 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뜻이다.<br/> 그러나 실제 국산 몰리브덴을 만들어내려면 별도 원자로를 비롯한 생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료용,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를 만들어내는 연구용원자로 ‘하나로’가 있지만 몰리브덴은 생산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미 부산 기장군에 동위원소 생산용 연구로를 짓기로 했다.<br/> 다만 완공이 늦춰지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최종 허가조차 나지 않은 데다 완공 목표 시기도 당초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연기됐다</span>”고 말했다. <br/>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67.txt

제목: “경제가 부자들의 부 축적 매커니즘으로 전락”  
날짜: 20150423  
기자: 김혜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23100000091  
본문: 칼폴라니 딸 폴라니 레빗 교수 방한<br/>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개소식 참석차<br/> <br/> “<span class='quot0'>시장주의 일변도가 만들어 낸 환경 파괴나 지독한 불평등이 결국 앞선 문명을 붕괴시켰다는 점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span>”<br/> 사회적 경제 이론의 토대를 닦은 경제인류학자 칼 폴라니(1886~1964)의 외동딸이자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명예이사장인 폴라니 레빗 캐나다 맥길대 교수가 연구소 아시아지부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KPIA) 개소식(24일)과 심포지움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br/>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그는 “<span class='quot0'>21세기는 시장의 작동이 삶을 지배하는 지독한 시장 지배의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사회전체가 경제 성장의 필요에 복무하는 상황이 돼버렸다</span>”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19세기 중반 이전의 유럽 상황보다 현재 불평등이 증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가 상위 부자들의 부 축적 매커니즘으로 전락해버렸고 그 과정에서 금융부문이 암 덩어리처럼 계속 불어나 산업경제를 암세포처럼 먹어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br/> 또 “19세기 문명이 1914년 즈음 (세계대전 등으로) 완전히 붕괴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물론 칼 폴라니가 문명의 붕괴를 예언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잘못을 반복할 것인지, 문명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대해서 분명한 책임의식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 레빗 교수는 “<span class='quot1'>(탈산업화, 정보화가) 풍요와 여가의 가능성을 열었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에서 배제된 수 많은 유럽과 미국의 고학력 청년들이 택시운전을 비롯해 2,3개의 일을 하며 정보기술 혁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가와 삶,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경제생활의 조직을 바꿔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 이어 “한국의 구체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경제권력이 엄청나게 집중돼 있다는 것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며 “이 같은 집중된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br/> 그는 “빠르게 성장해온 동아시아가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지배적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나, 불균형과 환경파괴가 심각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서양의 쇠퇴, 중동과 아프리카의 혼란 속에 아시아가 이상적 선회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아시아 지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br/> 24일 문을 여는 KPIA는 칼 폴라니의 학술성과를 계승하고 시장경제와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서울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며 박진도 충남대 교수가 연구소 협동조합 이사장을, 정태인씨가 소장을 맡았다.<br/> 글ㆍ사진 김혜영기자 shin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68.txt

제목: 건강검진 잘 하는 병원은 어디?  
날짜: 20150422  
기자: 남보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22100000192  
본문: 보건복지부가 22일 5,509개 건강검진기관의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br/> 복지부는 전국 검진기관 중 연간 300건 이상의 검진을 실시하는 병원급 이상 1,047개소, 의원급 4,462개소의 검진 시스템을 2012~2014년까지 평가했다. 의사 및 전문가 282명이 참여한 평가단은 검진 항목을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 검진(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으로 나눠 평가한 후, 항목별 점수에 따라 S, A, B, C, D 다섯 등급으로 나눴다. 100점 만점인 평가 점수에서 90점 이상은 최고 등급인 S, 60점 미만일 경우 최하위인 D 등급을 부여했다.<br/> 영유아 검진과 구강검진처럼 검진 방법이 비교적 간단한 분야는 전체 병ㆍ의원의 평균 등급이 ‘S’로 높게 나왔지만, 검진 상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간암과 유방암은 병ㆍ의원 모두 ‘B’등급을 받았다. 병원급 이상의 경우, 간암 검진 기관 685곳 중 S등급을 받은 곳은 53곳(7.7%)뿐이었고 유방암 역시 전체 검진 기관 669곳 중 S등급은 23곳(3.4%)뿐이었다. <br/>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건강검진 평가결과를 공개해 각 기업의 보건관리자들이 검진기관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D등급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평가결과를 잘 활용해 검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span>”이라고 밝혔다.<br/> 건강검진기관 평과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건강in -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 - 검진기관/병원평가’ 순서로 가면 확인할 수 있다. 찾고자 하는 지역과 종합병원 일반병원 등 병원 규모 등을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건강검진기관의 항목별 등급을 볼 수 있다.<br/>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바로 보기 http://hi.nhis.or.kr/ggph008m01\_l01.do?mn\_idx=MN00000186<b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br/> <br/> <br/> <br/> ◆서울지역 간암 검진 S등급 병원<br/> ▦강남구<br/> 미즈메디병원<br/> 한국의학연구소강남의원<br/> (의)미래의료재단미래지안의원<br/> 지디스내과의원<br/> (사)한국학교보건협회강남주의원<br/> ▦강서구<br/>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br/> 미래아이산부인과의원<br/> ▦관악구<br/> 양지병원<br/> ▦광진구<br/> 성동주민의원<br/> 화양영상의학과의원<br/> ▦금천구<br/> 의료법인희명병원<br/> (재)이랜드재단이랜드의원<br/> 내일내과의원<br/> ▦노원구<br/> 성문의원<br/> ▦동대문구<br/>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br/> 속편한내과의원<br/> ▦동작구<br/> 연세내과의원<br/> ▦서대문구<br/>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br/> 독일의원<br/> 박성규내과의원<br/> ▦서초구<br/> 정해복지부설한신메디피아의원<br/> 의료법인녹십자의료재단녹십자의원<br/> 가야내과산부인과의원<br/> ▦송파구<br/> 국립경찰병원<br/> 서울병원<br/> ▦양천구<br/> 힘찬병원<br/> 서울특별시서남병원<br/> ▦영등포구<br/>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br/> 대림성모병원<br/> 케이엠아이여의도의원<br/> 의료법인한국의료재단아이에프씨의원<br/> ▦종로구<br/> 세란병원<br/> 의료법인하나로의료재단부속하나로의원<br/> ▦중구<br/> 더맑은가정의학과의원<br/> ▦중랑구<br/>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br/> <br/> ◆서울지역 유방암 검진 S등급 병원<br/> ▦강동구<br/> 정인성내과의원<br/> ▦강서구<br/>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br/> ▦관악구<br/> 이내과의원<br/> 신대방성모내과의원<br/> ▦구로구<br/> 서울내과의원<br/> ▦노원구<br/> 제이내과의원<br/> 건강미소내과의원<br/> ▦도봉구<br/> 에이치큐브병원<br/> 건강제일의원<br/> ▦동대문구<br/>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br/> 속편한내과의원<br/> ▦마포구<br/> 재단법인서울비전의료재단서울비전의원<br/> 합정연세365의원<br/> ▦서대문구<br/> 스마일영상의학과의원<br/> ▦성북구<br/> 최현주영상의학과의원<br/> 베스트서울외과의원<br/> 열린산부인과의원<br/> ▦송파구<br/> 국립경찰병원<br/>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br/> ▦양천구<br/> 공내과의원<br/> ▦영등포구<br/>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br/> 속편한내과의원<br/> ▦용산구<br/> 혜광의원<br/> ▦은평구<br/> 박근태내과의원<br/> ▦종로구<br/> 세란병원<br/> ▦중랑구<br/> LBO의원<br/> 서울우리들내과의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69.txt

제목: 암 치료의 진화… 면역 항암제 속속 등장  
날짜: 20150416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16100000011  
본문: 흑색종·간암용 면역항암제 4종<br/>지난달 국내 시판 잇따라 획득<br/>부작용 없애고 치료 효과 개선<br/>세계 시장 규모 350억달러 추정<br/><br/> 암 치료의 획기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면역항암제들이 잇따라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다. 정부의 약값 책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본격 판매되려면 적어도 수 개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에서도 암 치료 방법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br/> 15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개발된 흑색종 및 간암용 면역항암제 4종이 지난달까지 잇따라 국내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도 대부분 지난해 시판 허가한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면역항암제를 상당히 빨리 받아들인 셈이다.<br/>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화학항암제나 암 관련 유전자를 공격하는 표적항암제와 달리 환자의 몸이 암세포에 맞서 싸우도록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는 약이다. 미국 과학학술지 사이언스는 2013년 환자 스스로 암을 물리치게 만드는 면역항암제의 획기적 방법 때문에 ‘가장 주목할 연구’분야로 꼽았다.<br/> 무엇보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존 화학 및 표적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개선된 치료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화학항암제는 증식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암세포의 특징을 포착해 공격하는데, 모낭세포나 혈액세포처럼 증식이 활발한 정상세포까지 공격한다. 그래서 화학항암제를 쓴 환자들이 머리가 빠지고 백혈구가 감소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br/> 이를 해결하고자 암을 일으키는 사실이 확인 된 유전자나 단백질만 골라 공격하는 표적항암제가 나왔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여러 표적항암제가 ‘꿈의 암 치료제’로 불리며 십수년 간 항암제 시장을 장악했다. 하지만 표적항암제가 점점 늘면서 표적을 공격해도 별다른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사례들이 보고됐다.<br/> 그래서 다국적제약사와 과학자들은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고 치료 효과를 개선한 면역항암제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제약분석기업 이벨류에이트파마는 세계 면역항암제 시장이 3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 봤다.<br/> 현재 세계 시장에 나온 면역항암제는 흑색종 치료제 ‘키트루다’(MSD)와 ‘옵디보’(BMS), ‘여보이’(BMS) 등 3가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올해 이 약들을 모두 허가했고, 국산 간암 치료제인 녹십자셀의 ‘이뮨셀-LC’에 대해서도 추가 임상시험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br/> 제약업계에서는 면역항암제가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원리여서 다양한 암에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헌 한국MSD 의학부 이사는 “<span class='quot0'>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과 방광암, 두경부암, 위암 등에 대해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 중</span>”이라고 말했다.<br/> 하지만 면역항암제 역시 완벽한 의약품은 아니다. 면역기능을 지나치게 강화시켜 과잉면역반응의 일종인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br/> 가격도 문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표적항암제도 한 달 약값이 수백만원까지 나온다. 다국적 제약사의 면역항암제는 아직 국내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모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1'>현실적으로 비싼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또 다른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걱정</span>”이라고 우려했다.<br/>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70.txt

제목: 건강하게사는 의학상식, 윤승재 속편안한  
날짜: 201504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16100000059  
본문: 건강하게 사는 의학 상식, 윤승재 속편안한<br/> <br/> 질문=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데 너무 불편해요?<br/> <br/> 답변=대장암, 염증성장질환 등 장의 해부학적 이상 없이 대장근육의 과민해진 수축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을 통틀어 말하는 질환입니다.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으며 대장 감각의 과민성 증가와 장의 운동장애 등이 관찰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과민성 대장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7~15% 정도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배가 사르르 아프고 부글거리는 소리가 나다가도 배변후에는 호전되는 특징이 있다.<br/> 배변후에도 계속 변이 남은 듯한 느낌이 있거나, 자주 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 복부팽만이나 잦은 트림· 방귀·점액성의 대변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에서 몇 년씩 증상이 계속되어도 몸 상태에 큰 이상이 없는 것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특징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생화학적, 구조적 이상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어떤 한 가지 특수 검사로 진단 할 수 없습니다. 대변 기생충 검사, 대장 내시경, 혈액검사 등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되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대장의 기능성 장애이므로 만성으로 지속되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고 생명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중감소·혈변·빈혈·대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50세 이상에서 증상이 처음 생긴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검사·복부 CT 검사 등으로 대장암 가능성을 배제해야합니다. 치료방법은 식사 요법이 중요합니다. 항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며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보리밥, 옥수수, 잎이나 줄기가 많은 채소류)을 먹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과 유제품·탄산음료·카페인음료·술은 피하며 니코틴이 증상을 더 심하게 하므로 금연해야 합니다.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에는 콩 종류의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고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물치료는 장의 예민도를 떨어뜨리는 진경제, 변비에 효과적인 부피형성 완하제(수분을 흡수해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약) 등의 약제를 사용하며, 약간의 신경안정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br/> <br/> 정리=채준기자 doorian@sporbiz.co.kr<br/> <br/> 윤승재 원장은 '사랑의 의원' 원장으로 내과 전문의다. 주 진료과목은 소화기와 신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71.txt

제목: 꼭 봐야 할 아침뉴스 7 (4월 16일 목요일)  
날짜: 201504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16100000012  
본문: 세월호 참사 발생 뒤 꼭 1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는 대한민국에 대한 준엄한 경고일 겁니다. 규명돼야 할 건 제한된 진상이 아닌 진실입니다. 고통을 피하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br/>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금품을 준 적 있는 정치권 인사들 중 폭로할 대상을 추리기 위한 대책회의를 측근들과 가졌는데 녹취된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br/> <br/> 1. [세월호를 잊지 말자] 다시, 피울음 삼키는 봄<br/> -세월호 참사 1주년 맞아 유족 200여명 사고해역 찾아<br/> -“엄마가 왔어… 우리 새끼 너무 보고 싶다” 오열의 바다<br/> -신경림 시인 추모시/ 언제까지고 우리는 너희를 멀리 보낼 수가 없다<br/> -정부 “세월호 인양, 위험ㆍ실패 가능성 알리고 결정”<br/> -참사 1년 넘도록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매듭 못 져<br/> -뒤늦게 추모 일정 잡는 장관들<br/> -슬픔 나누고 아픔 보듬고… 전국 곳곳 추모물결<br/> -[참사 1년 기획- 개조] (3) 朴대통령 담화 이행 실적/ 정부 조직ㆍ법 뜯어 고쳤지만 ‘세이프 코리아’ 빈틈<br/> -의원들 너도나도 법안 발의 253개나… 공포된 법은 11개뿐, 그마저도 졸속 통과<br/> -[사설] 세월호 참사 1년, 우리는 한 발도 내딛지 못했다<br/> <br/> 2. [단독] 검찰 ‘成의 금품수수자 선별 회의’ 제2 녹취파일 확보<br/> -성완종, 측근들과 폭로대상 골라내 ‘금고지기’ 前 부사장이 檢에 전달… 돈 받은 정치인 더 담겼을 가능성<br/> -檢, 성 前 회장 의원 시절 ‘보좌진 7인의 입’ 우선 주목<br/> -한 前 부사장은 ‘비자금 관리 밑그림’<br/> -成 일정 기록ㆍ통화내역도 퍼즐 맞출 중요 단서<br/>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李총리 즉시 사퇴 후 검찰 수사에 임해야”<br/> -상황 바뀌면 말바꾸기… 의혹 키우는 ‘카멜레온 이완구’<br/> -李 총리 “<span class='quot0'>대단히 광범위한 수사 될 것</span>”… 또 뭇매<br/> -문재인 “부패 몸통은 새누리… 수사 촉구할 처지 아니다”<br/> -격랑의 與… 비주류도 “총리 사퇴하라” 포문<br/> -박 대통령 “<span class='quot1'>정치개혁 차원에서 바로 잡을 것</span>”… 성완종 리스트 정면돌파 의지<br/> -새누리 의원들 잇단 설화… 끓은 민심에 기름 붓기만<br/> -재보선 판세 휘청… 1주일 새 180도 뒤바뀐 여야<br/> -유승민 팽목항 찾아 묵묵히 세월호 행보<br/> -[사설] 총리 직무연장 무의미, 박 대통령 결단이 돌파구<br/> <br/> 3. [단독] 이사장이 쥐락펴락… 6년째 교장 없는 숭실고<br/> -비리 교감을 신임 교장에 추천… 측근들 이사 선임해 전권 행사<br/> -“학생들 피해… 이사장 자격 박탈을” 교사ㆍ학부모들이 법원에 탄원서<br/> -시교육청은 법정 다툼 우려 뒷짐만<br/> <br/> 4. 론스타와 무슨 일 있었기에… 입 꾹 다문 정부<br/> -외환銀 론스타에 430억 지급 관련… 금융당국, 관련 정보 공개 거부, 내달 ISD 첫 심리도 비공개 방침<br/> -국가 예산 수조원 걸린 중대 사안에 정부는 비밀주의 고수 논란 확산<br/> -“론스타, 1조원 요구 협상안 제출” “MB 증인으로 요청” 등 說 무성<br/> <br/> 5. 암 치료의 진화… 면역 항암제 속속 등장<br/> -흑색종ㆍ간암용 면역함암제 4종, 지난달 국내 시판 잇따라 획득<br/> -부작용 없애고 치료 효과 개선… 세계 시장 규모 350억달러 추정<br/> -건보 미적용, 한 달 약값 수백만원… 과잉 면역 반응, 신중 사용 이견도<br/> <br/> 6. 범죄 예방효과 사라진 美 대량 투옥 정책, 40년 만에 폐기되나<br/> -[세계는 지금]<br/> -1970년대 흑인 인권운동 탄압서 시작/ 흑인이 수감자의 40% 이상 차지, 새 인종차별 메커니즘 비판 이어져… 1인당 年 2700만원 비용도 논란<br/> -“투옥률ㆍ범죄율 연관 없어졌다”/ 재정악화 뉴욕시 비용 절감 위해 투옥률 26% 줄였지만 범죄율도 하락… 미시건ㆍ뉴저지 주에서도 같은 현상<br/> -유력 대선주자들 공약화 움직임/ 마약복용 같은 경범죄는 수감 자제, 내년 대선 직후 사법개혁 나설 듯… 민간 교도소 업체 로비가 걸림돌<br/> <br/> 7, 아시아나機, 비정상 저고도 착륙 왜?<br/> -日정부, 경위 조사에 주력… 국토부 “민감한 때 발생”<br/> -A320 조종사 전원 긴급 점검<br/> <br/> ‘꼭 봐야 할 아침뉴스 7’에서 소개된 기사들은 한국일보닷컴(www.hankookilbo.com)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72.txt

제목: 건강하게 사는 의학 상식, 이영훈 콸콸콸  
날짜: 2015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14100000045  
본문: 건강하게 사는 의학 상식, 이영훈 콸콸콸<br/> <br/> 질문 = PSA가 높으면 전립선암 일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br/> <br/> 답변 = 보통 PSA 라고 불리는 수치는 우리말로 '전립선특이항원' 이라고 합니다. 보통사람들에겐 이 수치가 1~1.5 정도에 머무르는데, 전립선암이 있는 경우에 이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보통 수치가 4 이상인 경우에 전립선 조직 검사를 통해 암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암이라면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수치가 4~10 인 경우에는 15~20% 정도의 환자에게서 암이 진단됩니다. 암이 아니어도 전립선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거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이 수치가 일시적으로 아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염증이나 배뇨장애가 해결되면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특이 체질인 경우 암도 염증도 없는 정상인데 그냥 수치가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br/> <br/> 암이 매우 작을 때는 암이 있더라도 조직검사 때 암이 검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PSA 수치가 점차 증가하게 되므로, 조직검사에서 암이 없더라도 일단 수치가 높으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br/> 비뇨기과 의사들은 40대 이후에는 PSA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권유 합니다. 단지 4 이상의 수치로 결정 하는 것 보다, 점진적인 수치의 상승이 있을 때 암이 발견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기본적인 수치를 알아 놓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수치가 정상 보다 높은 경우는 보통 조직검사 후 6개월마다의 검사를 권유 합니다. <br/> <br/>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아 보신 분 중에 다시는 검사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불편 감을 호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 염증 증상이 확실하거나 소변이 안 나올 정도의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치가 높더라도 해당 질병의 치료를 먼저 한 후 추후 PSA 수치를 다시 측정 해 보고 조직검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br/> <br/>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PSA 수치가 높다고 해도 암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즘처럼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약간 올라간 정도에서 발견되는 전립선암은 그 단계가 매우 초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완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고 의사와 상담 후 차근차근 접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br/> <br/> 정리=채준기자 doorian@sporbiz.co.kr <br/> <br/> 이영훈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비뇨기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73.txt

제목: [채널선택]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변주  
날짜: 201504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14100000185  
본문: 문화빅뱅- 윤건의 더 콘서트 (KBS1 밤 11.40)<br/>피아니스트 손열음, 테너 배재철, 소프라노 김순영이 출연한다. 손열음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 모차르트의 ‘론도 가단조 K.511’로 첫 무대를 선사한다. 연이어 멘델스존의 ‘무언가’ 중 ‘실 잣는 노래’와 ‘한여름 밤의 꿈’ 중 ‘결혼행진곡’ 변주곡을 연주한다. 그녀는 변주마다 다르게 선보이는 기교와 다채로운 음색으로 관객의 환호를 받는다. 갑상선 암으로 한쪽 성대 절제술을 받은 배재철은 파올로 토스티의 ‘작은 입술’과 신귀복의 ‘얼굴’을 노래하며 풍부한 성량과 감성으로 감동을 준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74.txt

제목: ‘악의 연대기’ 손현주 “지난해 갑상선 암 수술”  
날짜: 20150413  
기자: 이현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13100000076  
본문: 배우 손현주가 갑상선 암 수술을 고백했다.<br/> 손현주는 13일 영화 ‘악의 연대기’ 제작보고회에서 암 수술을 털어놨다. 손현주는 “영화 촬영을 미루고 갑상선 암 수술을 했다. 나 때문에 한달 반 정도 촬영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br/> 손현주는 촬영 지연에도 군말 없이 자신을 기다려준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했다. 손현주는 “수술 후 촬영에 합류했는데 배우들이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고 날 기다려줬다. 수술을 하고 회복이 돼 영화사를 갔더니 감독이 울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br/> 손현주는 암 수술 이후 현재까지 식이요법과 운동 등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다행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고 있는 편이다. 손현주는 “지금도 조절하며 살고 있다. 의사 선생님이 주름 쪽으로 수술을 깔끔하게 잘 해줬다”고 농쳤다.<br/> ‘악의 연대기’는 특진을 앞둔 순간 사람을 죽인 형사반장이 자신이 저지른 살인 사건의 수사를 은폐하려다 더 큰 범죄에 휘말리는 내용을 담았다. 마동석과 최다니엘, 박서준 등이 출연한다. ‘끝까지 간다’ ‘더 테러 라이브’ 등 흥행 제작진이 합류했다. 5월 14일 개봉.<br/> 이현아기자 lalala@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75.txt

제목: 中동포 서울대 연구원, 美암학회 젊은 과학자상  
날짜: 20150413  
기자: 김민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13100000066  
본문: 재중동포 2세 서울대 연구원이 세계 최고 권위의 암 학회에서 ‘젊은 과학자상(Scholar-in-Traing Award)’수상자로 선정됐다.<br/> 서울대 약대 종양 미세환경 연구센터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박연옥(32) 연구원은 18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국암학회 연례 학술대회(AACR) 2015’에서 젊은 과학자상 상을 받게 됐다. 박 연구원은 또 학회 초록집에 낸 자신의 논문을 구두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br/> 박 연구원이 이번에 제출한 논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유도된 인산화를 통한 위암세포의 미토파지 촉진’에 대한 논문이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그 동안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 됐지만 이 균이 위암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박 연구원은 이번 논문을 통해 파일로리균이 위 점막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전달 회로를 새롭게 밝혀냈다.<br/> 이번에 박 연구원이 받게 될 젊은 과학자상은 대학원생이나 박사후 과정에 있는 연구자가 암 연구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2,000달러의 상금도 수여된다. 2만명 이상 참석하는 암학회에서 논문 발표 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미국암학회 초록집에 실린 만 편 가량 논문 가운데 5%가 채 되지 않는 논문에만 구두 발표 기회가 주어진다.<br/> 재중동포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옌벤대 약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5년 전 서울대로 유학 온 박 연구원은 지난 해 안타깝게 미국암학회 방문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 세계 최고 권위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논문 초록까지 제출했지만 대사관 실수로 비자가 제때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회 참석이 좌절 됐지만 박 연구원은 1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논문 데이터를 보강했다. 박 연구원은 지난 해의 해프닝을 전화위복 삼아 올해 새로 제출한 논문으로 젊은 과학자상을 거머쥐었다.<br/> 박 연구원은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신호전달 현상을 기반으로 연구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 전달 회로의 작동 원리까지 밝혀낼 수 있도록 연구의 저변을 넓히고 싶다</span>”고 말했다.<br/> 김민정기자 fact@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76.txt

제목: 실버영화도 결국… 2030이 흥행성적 좌우  
날짜: 2015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12100000110  
본문: 장수상회·화장, 성적 신통치 않아<br/><br/><br/><br/><br/>중ㆍ장년이상 관객들을 겨냥한 ‘실버영화’가 흥행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 2월 각각 개봉한 ‘강남 1970’과 ‘쎄시봉’이 예상 밖 흥행 부진을 보인데 이어 9일 나란히 개봉한 ‘장수상회’와 ‘화장’이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실버영화가 아직은 흥행 주류로 진화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br/> 강제규 감독의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은 ‘장수상회’는 전형적인 실버영화다. 케이블 오락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와 ‘꽃보다 누나’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노년스타 박근형과 윤여정이 남녀 주연을 맡아 황혼의 사랑을 그렸다.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 찬열과 젊은 배우 조진웅, 한지민이 조연으로 출연했으나 주 타깃은 중ㆍ장년층 이상이다. <br/> ‘장수상회’가 11일까지 모은 관객은 24만68,611명(영화진흥위원회 집계). 11일 관객만 11만6,854명으로 8일 먼저 개봉한 ‘분노의 질주: 더 세븐’과 지난달 선보인 ‘스물’에 이어 일일 흥행 순위 3위를 차지했다. 앞서 개봉한 영화보다 순위가 아래라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이런 추세면 100만 관객 고지 도달도 힘겨워 보인다. 강 감독은 “<span class='quot0'>흥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영화가 아니다</span>”고 밝혔으나 작품마다 수백만 관객을 동원하던 흥행술사답지 않은 성적표를 받게 됐다. <br/> 임권택 감독의 ‘화장’은 더 우울하다. “대가의 작품답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외면하고 있다. 11일까지 누적관객수는 5만439명, 11일 일일 흥행 순위는 5위에 그쳤다. 말기암 아내를 간호하는 한 50대 대기업 임원의 정신적 방황이라는 소재가 중ㆍ장년층의 관여도가 높을 만하지만 흥행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br/> 지난해 말 ‘국제시장’과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로 실버영화 열풍이 불었지만 영화계에서는 아직 미풍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20대 관객이 초반 흥행세를 이끈 뒤 40대 이상 관객이 극장가를 찾으면 대박으로 이어진다는 흥행공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실버영화라 해도 20대 관객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년 소재가 무조건 실버 관객들의 호감을 얻는 것도 아니다. 영화평론가 오동진씨는 “<span class='quot1'>노년의 사랑을 다룬다 해도 좀 더 파격적인 형식과 내용이 따라야 관객들의 시선을 끌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br/> 멀티플렉스체인 CJ CGV가 지난 2일 열린 미디어포럼에서 발표한 수치도 실버영화의 열기가 아직 아랫목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CGV가 매해 4회 이상 영화를 예매한 9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 관객 비중은 2012년 4.6%에서 지난해 5.7%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20대 관객의 비중은 36%에서 34%로 줄었으나 여전히 영화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원 CGV리서치센터 팀장은 “<span class='quot2'>지난해 40~50대 관객이 400만이 볼 영화를 500만 관람 영화로 키우며 새로운 주요 관람층으로 부상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2'>관람객의 64%가 아직은 20~30대</span>”라고 말했다.<br/><br/> 라제기 wender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77.txt

제목: 고통 아닌 힐링... 엔딩노트 적는 美 10대 말기 환자들  
날짜: 20150412  
기자: 송옥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12100000123  
본문: 의사결정 권리 주는 사례 늘어<br/>엔딩노트, 2년간 2만부 배포<br/>통증 관리·장례 방법 스스로 결정<br/>남은 시간 집중할 일 등 선택하며 <br/>기억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 그려<br/><br/><br/>꿈 많은 미국 10대 소녀 애슐레이 맥헤일(18)은 지난해 7월 어느 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청바지와 크리스마스에 입으려고 사두었던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카우걸 부츠도 신었다. 애슐레이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 앉아 잘 차린 밥을 먹었다. 메뉴는 멕시코 음식인 스테이크 파히타와 구운 옥수수였다. <br/> 이 날은 애슐레이의 장례식이었다. 임종 장소를 병원이 아닌 오클라호마주 카투사 집으로 택한 것이나, 입관할 때 입을 옷과 신발, 가족들의 만찬 아이디어부터 식사 메뉴까지 모두 애슐레이의 ‘작품’이었다.<br/> 애슐레이의 모친 론다 맥헤일은 “우리가 이 모든 결정을 해야 했다면 경황이 없어 허둥지둥 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다.<br/> <br/> 성인 전유물이던 웰다잉, 10대 환자도 관심<br/> 미국에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10대 환자들 사이에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웰다잉은 그 동안 성인 환자들의 전유물이었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법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이 없을 때 의료진은 대개 부모에게 연명치료 여부, 장례 방법 같은 어려운 선택을 넘겼다. <br/> 그러나 최근에는 10대 환자들에게 이런 어려운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10일 사망한 미국 여대생 농구선수 로렌 힐도 같은 경우다. 힐은 열아홉 살 때 뇌종양으로 시한부 2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생존률 0%로 수술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농구팀 코치에게 “경기에 뛰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지난해 말 실제로 경기에 선발 출전해 득점까지 올렸다. <br/> 지난해 발간된 ‘미국인의 죽음’이라는 보고서에서 소아과 부문을 집필한 파멜라 S. 하인즈 교수는 “<span class='quot0'>청소년 환자들과 얘기하다 보면 의외로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span>”고 말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0'>10대 환자들이 자신의 남은 시간을 계획하는데 관여하기를 더 선호하고 그런 개입이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pan>”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암, 심장병,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10대 사망자 수는 전체 청소년 사망의 11%를 차지한다. 매년 1,700명 수준이다. <br/> 그러나 현실적으로 ‘죽음’이란 화두가 날씨 이야기처럼 가벼울 수는 없는 법이다.<br/> 환자나 가족들은 누군가 남은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꺼내면 말을 돌려버리기 십상이다. 이런 대화 자체를 삶에 대한 희망을 버렸다는 신호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br/>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10대들이 가족들과 마음을 터놓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미 국립정신건강협회의 정신과 의사 메릴랜드 파오는 “<span class='quot1'>10대 환자들은 가족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속내를 털어 놓기를 편하게 느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의료진에게도 10대 환자와 죽음을 주제로 대화하기란 고통스럽기 마찬가지다. 많은 의료진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또 일부는 이런 대화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으로 해롭다고 여긴다.<br/> 그러나 조사 결과는 이런 대화를 회피하면 청소년 환자들의 두려움과 고립감이 오히려 심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2년 조사에서 청소년 에이즈 환자들의 56%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죽음보다 더 나쁘다”고 답했다. <br/> 필라델피아아동병원 완화의료 담당 소아과 의사이자 윤리학자인 크리스 퓨드너는 10대 환자와 가족들이 대화를 하면서 ‘죽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0대 환자들도 금기로 여겨졌던 주제를 입 밖에 내면서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br/> <br/><br/><br/> “표현 자체가 치료” 엔딩노트 적기 <br/> 10대 말기 환자들에게 ‘나의 선택지’(Voicing My Choices)란 엔딩노트를 적으라고 권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 이 노트는 최초로 성인 환자가 아닌 청소년 환자와 그의 부모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졌다. 웰에이징 비영리단체인 ‘존엄하게 나이 들기’ (Aging With Dignity)가 2년 전 제작해 배포한 이후 지금까지 70곳이 넘는 병원과 10대 환자 가족이 2만부 가까이 주문해 사용했다.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슬로바키아어로 된 번역본도 있다.<br/> 나의 선택지 제작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로리 와이너 박사는 “<span class='quot2'>나의 선택지는 청소년이 남은 시간에 집중할 일들을 선택하고 인생을 긍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환자가 자신이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어하는지를 알 수도 있다</span>”고 말했다. <br/> 나의 선택지 작성은 간단하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하면 된다. 주관식도 있다. 활동지는 통증 관리 같은 의료적 결정부터 좋아하는 음식과 음악 같은 취향까지 다양하게 묻는다. “<span class='quot3'>나에게 힘과 기쁨을 주는 대상은 무엇입니까?</span>” “<span class='quot3'>남은 시간 무엇을 용서하고 싶습니까?</span>” “<span class='quot3'>용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span>” 같은 질문도 있다. <br/> 애슐레이의 독특한 장례식도 나의 선택지 덕분에 가능했다. 애슐레이가 열일곱 살이던 1년 전, 미국국립보건원(NIH) 병실로 사회복지사가 찾아 왔다. 사회복지사는 애슐레이에게 나의 선택지를 내밀었다. <br/> 애슐레이는 핫핑크 색 펜을 들고 “누군가 병문안을 왔는데 내가 자고 있다면 깨워주기를 바라나요?” “방문객이 울고 싶을 땐 병실 밖에서 울기를 바라나요? 아니면 당신과 그 감정에 대해 대화하기를 바라나요?” “의식을 잃었을 때 생명 유지 장치를 원하나요?” “장례식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컴퓨터는 누가 물려 받기를 원하나요?” “애완견은 어떻게 할까요?” 같은 질문에 열심히 답을 적었다. <br/> “나를 알기 위해 중요하다”라고 시작하는 애슐레이의 나의 선택지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다. “나는 춤추기를 좋아하고 월마트 복도에 앉아 노래 부르기도 좋아한다.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고, 용기 있고, 똑똑하고, 과격하지만 귀엽고 살짝 제정신이 아니다.” <br/> 퓨드너 박사는 “<span class='quot4'>청소년기는 자아성찰과 정체성 확립 욕구가 강해 내가 누군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과정 만으로도 치료가 된다</span>”고 말했다. <br/> 네 살 때부터 자가면역질환으로 병원을 오갔던 에린 보일(25)은 최근 죽기 전 “나의 선택지에 내 소원들을 적으면서 마음이 편했고 죽고 난 이후에 대한 걱정 없이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보일의 시신은 고인 뜻대로 NIH에 기증됐다. <br/> <br/> 어린 환자들의 위대한 유산, 엔딩노트<br/> 10대 환자들에게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일의 필요성을 언제,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 지 정해진 기준은 없다. 의료진이나 혹은 사회복지사의 직관과 경험에 맡길 뿐이다. 퓨드너 박사는 소아암 환자들의 경우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이르게 엔딩노트 이야기를 꺼내면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조언한다. <br/> 현장에선 그러나 환자들에게 나의 선택지 같은 엔딩노트를 소개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 문제라고 말한다. 의료진이 미루다 엔딩노트 이야기를 꺼낼 땐 환자들이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기엔 상태가 악화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r/> 파오 박사는 자신이 상담했던 10대 환자의 보호자 사례를 언급했다. 환자 엄마는 뒤늦게 죽어가는 아들의 꿈이 궁금해졌지만 아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진 뒤였다. 환자 엄마는 “아들이 열일곱 살이나 됐지만 우리는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해 본 적이 없다”고 후회했다.<br/> 와이너 박사는 그래서 치명적인 질병 진단을 받으면 바로 엔딩노트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 심리가 안정적이라는 조건 아래서다. <br/> 인디애나주 먼시 출신 대학생 칼리 코크와 그의 가족은 엔딩노트를 대하는 좋은 자세의 예다. <br/> 지난해 봄, 열아홉 살 칼리는 울혈성 심부전증 진단을 받고 NIH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 신장 동맥 90%가 망가졌다고 했다. 칼리는 이전에도 4기 림프종과 유전면역체계질환으로 생사를 오갔었다. 언니 켈시는 스물두 살이 되던 해 먼저 세상을 떠났다. <br/> 그간의 사정을 잘 아는 병원 상주 심리치료사는 칼리 엄마 타미에게 나의 선택지를 소개했다. 타미에게서 “칼리는 남은 시간을 계획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다. 타미는 칼리 머리맡에 나의 선택지를 두고 병실을 나왔다. <br/> 칼리도 재미있는 놀이로 받아들였다. 그는 “남은 시간을 계획하는 과정은 우울한 일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여러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칼리는 지난해 7월 어려운 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부모는 여전히 칼리의 나의 선택지 사본을 침실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다.<br/> 타미는 “<span class='quot5'>우리는 이미 한 번 자식을 앞세워 보내봤다</span>”며 “<span class='quot5'>그 때 그 애가 원했었던 게 진짜 뭔지 궁금했고 그래서 우리는 칼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 엔딩노트는 어쩌면 세상에 남은 가족들을 위한 어린 환자들의 위대한 유산일지 모른다. <br/> 송옥진기자 clic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78.txt

제목: [브리핑] 소리샘보청기, 4월부터 '효 한대 더~' 이벤트 外  
날짜: 2015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12100000133  
본문: 소리샘보청기, 4월부터 ‘효 한대 더~’ 이벤트<br/> 보청기 전문 업체인 소리샘보청기는 고가의 가격 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고객 대상으로 이달부터 6월30일까지 ‘효 한대 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 기간 중에 지정된 행사 모델 가운데 한 대를 구입하면 동일한 모델을 한 대 더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소리샘보청기 홈페이지(www.sorise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br/> <br/> LG전자 올해 전략 스마트폰 ‘G4’, 디자인 등 내부사양 통째 유출<br/> LG전자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인 ‘G4(사진)’ 세부 사양이 12일 인터넷에 내부 직원 실수로 추정된 사고와 함께 6시간 동안 통째로 유출됐다. LG전자 신제품 소개를 주로 담당하는 마이크로사이트에 공개된 G4는 천연가죽 후면 커버에, 8.9㎜ 두께와 5.5인치 고화질 IPS 퀀텀 디스플레이, 착탈식 배터리(용량 3000mAh) 등을 탑재했다. 이 제품은 이달 29일 공식 출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br/> <br/> 삼성그룹, 12일 공채시험 SSAT 국내외 82개 시험장서 일제히 실시<br/> 올해 삼성그룹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의 첫 관문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가 12일 오전 국내외 82개(해외 3개 지역 포함)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SSAT는 언어, 수리, 추리, 상식을 포함한 기존 영역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가된 시각적 사고(공간지각능력) 등 5개 평가(총 160문항) 영역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응시자 수는 지난해 10만명 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올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와 유사한 4,000~4,500명이다.<br/> <br/> 동아원, 150억원에 포도플라자 매각<br/> 동아원그룹 관계사인 탑클라우드코퍼레이션은 10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포도플라자를 150억원에 매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포도플라자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와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매각 대금은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에 쓸 것”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동아원그룹은 최근 페라리와 마세라티 수입사인 FMK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계열사 대산물산의 서울 논현동 사옥을 매각하는 등 비주력 사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br/> <br/> 쉐보레, 스파크 전기차 구입에 1,800만원 지원<br/> 쉐보레가 서울시의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과 연계해 서울시내 대리점 52곳에서 전기차 스파크EV 구입 신청을 6월5일까지 받는다. 국비와 시비 등 1,800만원을 보조 받으면 스파크EV를 2,190만원에 살 수 있다. 충전기 설치 비용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쉐보레는 12일부터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 스파크EV를 전시하고 현장에서 구매신청도 받는다.<br/> <br/> 현대백화점 ‘패션&아트 by K패션’ 기획전<br/>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 등 주요 점포에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와 함께 ‘패션&아트 by K패션’ 기획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도입한 브랜드 슬로건인 ‘패션&아트’를 내건 첫 번째 행사로 이상봉, 손정완, 신장경, 앤디앤뎁 등 14개 디자이너 브랜드의 한정상품과 기획상품을 30억원 규모로 3,500여벌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최근 해외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span>”라고 말했다.<br/> <br/> SKT, 제일병원과 여성질환 진단기술 개발<br/> SK텔레콤은 서울 제일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차세대 여성질환 진단기술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사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여성암 등의 분야에서 질병 발병 위험도 및 질병 유무와 진행 정도 진단 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br/> <br/> LG전자, 중동에 몽블랑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신제품 출시<br/> LG전자는 자사 프리미엄 공기청정기인 ‘몽블랑’ 시리즈를 이달 중순부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국가에 12일 밝혔다. LG전자는 건조한 사막 기후, 매연, 대기 오염 등으로 중동 지역 공기청정기 수요가 점증함에 따라 에어컨 사업의 노하우와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을 내세워 현지 고객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중동지역의 공기청정기 수요는 연평균 10%가량 성장하고 있다.<br/> <br/> 현대글로비스 안전공감 나눔 마라톤 대회<br/> 현대글로비스가 ‘안전공감 나눔 마라톤 대회’를 다음달 31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서 개최한다. 참가 접수는 1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안전공감 캠페인 공식 사이트(csr.glovis.net)에서 선착순 5,000명까지 받는다. 참가비(1만원) 절반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에 쓴다. 현대글로비스는 졸음운전 방지키트 배포, 재난재해 예방교육 등도 실시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79.txt

제목: 한뼘 타일에 새긴 슬픔과 다짐, 팽목항 '기억의 벽' 이어나간다  
날짜: 20150410  
기자: 오미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10100000121  
본문: 2차 설치작업 내일 마무리 / 누군지도 모르는 4500여명 참여<br/>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글과 그림, 타일 한 장 한 장마다 간절한 마음 <br/> "정부가 시큰둥하니 국민도 그럴까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 섭섭해"<br/><br/>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 오래오래 가야 할 일이지. 잊어서는 안 될 일이지. 매스컴이 지겹도록 이것만 얘기한다고들 하는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구. 내 자식이나 똑같은데, 장차 이 나라 이끌 아이들인데, 여행길에 한꺼번에 죽게 한 건 어른들 잘못이야.“<br/> 10일 오후 진도 팽목항에서 만난 강계동(65)씨는 1년 전 세월호 참사를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경기 화성에 살다가 암 수술을 받고 휴양 차 전남 해남에 내려와 있다는 그는 팽목항에 기억의벽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다. <br/>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엿새 앞둔 이날, ‘세월호를 기억하려는 어린이책 작가 모임’(이하 작가모임)이 진행한 기억의벽 2차 설치작업이 팽목항 방파제에서 시작됐다. 결코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정말로 그랬듯이 멍하니 지켜봐서는 안 됐던 일을, 이제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믿음에서 기억의벽이 만들어진다.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추억하겠다는 전국 수천명이 한뼘 타일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br/> 앞서 2월 23일 설치된 1차 기억의벽은 전체 170m 방파제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전국에서 1,7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완성된 타일 벽이다. 그 옆으로 붙이는 2차분 타일 2,920장이 9일 팽목항에 도착했다. <br/> 일을 도우려고 내려온 10여 명의 작가들이 밤새 타일을 분류했다. 1, 2차분을 다 합치면 총 4,656장, 손바닥만한 타일 한 장 한 장마다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여주의 가마에서 구워 가져왔다. 가마에 넣기 전 타일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일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했다. 하나라도 깨질까 봐 조심해서 옮긴 무게가 1톤. 트럭 기사는 기름값만 받고 운송해줬다. 타일 판매상은 한푼이라도 덜 받으려고 애를 썼다. 전국 곳곳에서 그렇게들 마음을 보태줬다. <br/> 작가모임은 자발적인 모임이다. 세월호 참사 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란 엽서 만들기, 한뼘 그림책 걸개전 등을 진행하며 뜻을 모았다. 따로 대표가 없고 총괄, 홍보, 동양상 제작 등 일을 나눠 맡아서 하고 있다. 기억의벽은 한국작가회의,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진행했다.<br/><br/> 기억의벽 진행을 총괄하고 있는 임정자 작가는 “전체 참여자는 4,500명 이상, 작가만도500명 이상일 것”이라며 “워낙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일이라 누가 누군지 일일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br/> “마음을 모아준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해서 특별히 누가 인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기억나는 장면을 꼽자면 울먹이다가 끝내 타일에 그림을 그리지 못한 유가족, 울면서 그림을 그린 시민들이 생각나요. 특히 예닐곱 살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그리라고 일러주지 않았는데도 뒤집힌 배를 그리고 살려달라고 쓰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지요.”<br/> 많을 때는 10여 명, 적을 때는 5명 정도의 작가들이 팽목항에 머물며 일을 돕고 있다. 경기 고양에 사는 작가 신재섭(44)씨는 이날 아침 9시 안산 분향소 앞에서 출발하는 추모객 운송 버스를 타고 팽목항에 왔다. 오후에 도착하자마자 기억의벽 윗부분에 방수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다. 집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내려왔다는 그는 지난해 세월호 한뼘 그림책 북콘서트에서 시 낭송을 하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됐다.<br/> “참 속 상한 게 세월호 관련 행사를 하면 늘 모이는 사람만 모이는 거에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은데 안타까웠죠. 정부가 시큰둥하니 국민도 그런 것 아닐까요.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br/>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팽목항은 사람이 많지 않다. 이날도 조도로 떠나는 배를 타려는 승객들을 빼면 기억의벽에 참여하는 작가와 타일 작업하는 사람을 다 합쳐도 열 명 남짓. 참사 직후 끝없이 이어지던 추모객 행렬이 거의 끊겼다. 1년 동안 이야기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도 들린다. 신 작가와 함께 페인트칠을 하던 유영선(33) 작가는 “이해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양가적 감정”이라고 말했다. <br/> 타일 붙이는 일은 나주에서 활동하는 동양화가 몽피 김경학 일행 다섯 명이 하고 있다. 그는 구례 사성암을 지은 한옥 건축가이기도 하다. 그에게 그림과 건축을 배우는 대안학교 출신 문하생 3명, 함께 가르치는 동료와 팽목항에서 작업 중이다. 타일 한 장 한 장을 정성들여 붙이고 있다. 타일을 다 붙이고 나면 페인트 마감, 타일 간격을 탄탄하게 고정시키는 줄눈 놓기, 빗물 스며들지 말라고 방부목 대는 일이 남는다. 다 마치려면 2~3일 걸릴 예정이다. <br/> 타일 시공에 참여한 김 작가의 동료 정철환(43)씨는 착잡하다고 했다. “희생된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안 좋죠.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br/> 이번 2차 시공은 기억의벽을 만든 취지문과 석조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난다. 타일벽 중앙에 붙일 석조물은 세월호 희생자 304위의 이름을 초성으로 새긴다. ‘김철수’라면 ‘ㄱㅊㅅ’ 식으로. ㄱㅊㅅ는 그 초성으로 시작하는 수많은 다른 이름이고 바로 나일 수도 있다. 작가모임의 홍보를 맡고 있는 김하은씨는 “그들이 곧 살아있는 우리라는 뜻을 담아 초성으로 조각한다“고 설명했다. 석조물과 취지문은 12일 팽목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그날로 설치를 마치고 기억의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br/> 완성을 앞두고 있지만 끝은 아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는 한 결코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팽목항에 오는 이들은 완성된 기억의벽과 석조물을 보며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러보게 될 것이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들을. <br/> 오후 5시, 기억의벽 설치작업을 하던 이들도 철수한 방파제를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배회한다. 인적이 끊긴 방파제의 기억의벽 맞은편 난간에 걸린 노란 현수막이 펄럭인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 “세월호 희생자분들, 그대들이 바로 나다.“<br/> 팽목항의 식당 주인은 불만을 쏟아냈다. “사람을 먹고 살게 해줘야지. 보상? 우리는 그런 거 받은 거 없어. 1년 됐으니 이제 저런 거 철거하고 관광객이나 오게 해주면 좋겠어.” 마음이 나빠서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서운하게 들릴 수는 있는 말. <br/> 기억의벽에 타일로, 석조조형물로 남는 희생자들은 아무 말이 없다. 타일에 그려진 그림과 적힌 글씨만이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전한다. 그중 하나에 누군가 시를 써놓았다. <br/> “엄마 엄마 비가 와도 울지마/ 아빠 아빠 눈이 와도 걱정마/소록소록 하얀 눈/솜이불로 덮을게/토닥토닥 빗소리/자장가로 들을게.”<br/> 봄이라지만 해질녘이 되자 쌀쌀해서 방파제에 오래 서 있기가 괴롭다. 저 바다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고혼이 떠돌고 있다. 벚꽃 흐드러지고 조팝나무는 쪼르륵 귀여운 꽃을 단 채 바람에 흔들리는데, 작년 이맘때 이 꽃들을 만나러 떠났던 이들은 돌아오지 못한다. 봄은 오지 않았다. 그들은 잊는다면 봄은 영영 오지 않을 것이다. <br/> 진도=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80.txt

제목: 폐암 진단받아 수술했는데 폐렴, 오진 피해구제 62%가 암이었다  
날짜: 20150409  
기자: 이성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09100000191  
본문: 폐암·유방암 순 오진 많아 <br/> <br/> 40대 남성 윤모씨는 2013년 4월 병원에서 폐종양 의심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대형병원에 입원했다. 대형병원 측은 윤씨에게 “폐암 가능성이 있다”며 수술을 권유, 윤씨는 폐 절제술까지 받았지만 조직검사 결과 윤씨의 병은 폐암이 아닌 폐렴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졸지에 멀쩡한 폐 일부를 잃게 된 윤씨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지난해 말 대형병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배상 받았다.<br/> 윤씨처럼 암 관련 오진으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암 오진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296건으로 전체 오진 관련 피해구제 건수(480건)의 61.7%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암 오진 피해구제 건수 가운데 병원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까지 이뤄진 건수는 181건(61.1%)에 달했다.<br/> 암 오진 중에는 피해자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 측에서 “암이 아니다”고 진단한 경우가 80~90%였다. 실제로 30대 여성 정모씨는 오른쪽 가슴에 멍울이 생겨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됐고, 3개월 뒤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유방암 2기로 판단돼 뒤늦게 수술을 받아야 했다.<br/> 암이 아닌데도 병원이 암으로 진단한 경우도 10~20%로 적지 않았다. 2011년 말 자궁경부암 확진 판정을 받아 자궁을 적출하고 난소 난관을 절제하는 대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 이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씨의 병은 단순한 자궁경부염인 것으로 밝혀졌다.<br/> 오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암은 폐암이 60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span class='quot0'>폐암의 경우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면 확진을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야 하지만 초기 방사선 판독 오류로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유방암(48건) 오진이 두번째로 많았고 소화기계 암인 상부위장관(39건) 간담도췌장(36건) 하부위장관(25건)도 적지 않았다.<br/> 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에서 오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114건ㆍ38.5%)했고 의원(110건)과 상급종합병원(72건)의 순이었다.<br/>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81.txt

제목: 美알레스카항공, 암환자 가족 비행기서 쫓아내 물의  
날짜: 20150409  
기자: 강주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09100000022  
본문: 미국의 알래스카항공이 암 환자와 그 가족을 비행기에서 쫓아낸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br/> 다발성 골수종 환자인 엘리자베스 세드웨이(51ㆍ여)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낸 뒤 귀가하기 위해 8일(현지시간) 하와이 공항에서 새너제이로 가는 알래스카항공 여객기에 올랐다.<br/> 항공사 직원은 그러나 세드웨이가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보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세드웨이는 “<span class='quot0'>몸이 아파서 탑승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span>”고 말했다.<br/> 항공사 직원은 의사를 불렀고, 세드웨이와 가족이 비행기 좌석에 앉은 후 다른 직원이 와서 “<span class='quot1'>비행기를 타도 괜찮다는 의사의 비행 허용 진단서가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span>”며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강요했다. 세드웨이는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고, 의사는 “<span class='quot2'>본인(세드웨이)이 판단하기에 비행기를 타도 괜찮을 것 같으면 그냥 타면 된다</span>”고 말했지만 항공사 직원은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r/> 세드웨이는 5년 전 암 진단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는 데 문제가 있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비행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동영상에서 세드웨이는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마치 범죄자나 전염병 환자인 것처럼 쫓겨나고 있다. 내가 암 환자이고 비행기를 타도 좋다는 허가서가 없다는 이유로 내 가족이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항공사 직원들에게 항의했다. 이어 여객기의 좁은 통로로 나가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시간이 지체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br/> 비행기를 타지 못한 그녀는 하와이에 하루 더 머물러야 했으며, 예약돼 있던 이틀간의 화학치료를 놓쳤다. 남편은 결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결석했다.<br/> 이에 대해 알래스카항공은 “<span class='quot3'>세드웨이 씨가 어제 겪은 불편함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상황 대처 방식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span>”며 “<span class='quot3'>항공료는 환불됐으며 하루 더 머무른 숙박료는 우리가 부담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82.txt

제목: "기술과 데이터로 젊음의 샘 창조"… 죽음에 도전하는 IT 거인들  
날짜: 20150409  
기자: 박소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09100000188  
본문: 영생 꿈꾸는 실리콘밸리 억만장자<br/>페이팔 공동창업자 틸<br/>생명연장·세포재생에 거액 투자<br/>구글의 페이지·오라클의 앨리슨 노화방지에 수억달러 지원<br/>美 작년 생명과학 민간투자 86억달러<br/>불치·난치병 치료 믿음 커졌지만 부자에 생명연장 혜택 집중<br/> <br/> 페이팔, 구글처럼 정보통신(IT) 분야에서 막대한 부를 손에 쥔 미국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속속 수명연장 연구에 뛰어들고 있다.<br/>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IT거인들, 죽음을 이겨내는 최신 프로젝트에 빠지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span class='quot0'>과거 탐험가들이 ‘젊음의 샘’을 찾아 전세계 오지를 헤맨 것처럼 오늘날 억만장자들이 기술과 데이터를 이용해 영원한 젊음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span>”고 보도했다.<br/> 22억달러(약 2조4,000억원)의 재산을 지닌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47)이 수명연장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분자생물학자 신시아 캐년과 영국 컴퓨터 과학자인 오브레이 디그레이에게 거액을 투자하며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캐년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회충의 수명을 두 배로 늘리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디그레이는 기술의 발전이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으로, 틸이 창립에 기여한 센스 연구 재단에서 사람의 전생애에 걸쳐 축적된 세포 및 분자의 손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틸은 또 무기한 보존할 수 있고 손상된 것은 줄기세포를 이용해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장기에 대한 고속냉각 기술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도 투자해 왔다. 유전자 구조 연구를 통해 인간의 세포를 재생함으로써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br/> 구글 역시 인간의 수명과 건강 관리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 래리 페이지는 2013년 노화방지 연구를 수행할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의 줄임말인 칼리코(Calico)를 세웠다. 구글에서는 칼리코에 최대 7억5,000만달러(약 8,200억원)를 투자하고 있다.<br/> 페이팔,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이베이 냅스터 등을 세운 IT 거인들도 건강, 수명연장 나아가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한 의학 연구에 수억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정보 혁명을 일으키는데 사용했던 칩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로 현존하는 가장 복잡한 기계인 인간의 몸을 이해하고 한 단계 향상시키는 것이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이 발병을 예측하고 패턴을 찾아낼 수 있으며 불치ㆍ난치 질환의 치료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다. <br/> 대표적인 예로써 구글은 타미플루나 ‘감기 증상’을 검색한 인터넷 사용자의 주소를 모아 집단을 만들어 독감활동을 예측하는 ‘독감 열 지도’를 개발했다.<br/> IT 억만장자들이 뛰어들면서 미국의 생물 의학 연구분야에서 과학적 연구절차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가설과 실험, 연구 결과 분석과 과학계의 내부적인 검토 이후에야 일반에게 공개돼 시간이 오래 걸렸다. <br/>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의료 및 건강 관리연구의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남겨놓은 각종 디지털 지문들을 분석해 얻고 있으며, 슈퍼 컴퓨터가 수조개의 가설을 모의 실행해 패턴을 집어내고 상관관계를 분석해 의학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빠른 시간 안에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접근은 이미 유전자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br/> 워싱턴포스트는 IT기업들의 의학에 대한 투자는 산업적 차원뿐 아니라 설립자의 개인적 관심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냅스터 공동 설립자 숀 파커는 알레르기 및 새로운 암 치료법에 수백만달러를 기부했고 향후 파킨슨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LRRK2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은 유전자 연구에 1억5,000만 달러를 기부했다. <br/> 또 생물학을 전공한 그의 아내는 유전자 신생벤처기업 ‘23andME’를 설립했다. 세르게이 브린 뿐만 아니라 실리콘 밸리의 억만장자 중에는 과학이나 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배우자로 맞는 경우가 많은데,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의 부인인 프리실라 챈은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종합병원에 7,5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주커버그 부부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발견을 한 과학자들에게 주는 상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기금을 내기도 했다. <br/><br/><br/><br/><br/> IT 거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도전적이다. 오라클의 창립자인 래리 엘리슨은 영원히 살고 싶다는 소망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4억3,000만달러를 노화방지 연구에 기부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전기작가에게 “<span class='quot0'>죽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도 없다</span>”고 잘라 말했다. 틸은 WP와의 인터뷰에서“나는 인간이 영생을 얻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br/> 하지만 이들이 막대한 부를 자신들의 관심사에 쏟아 부으면서 오랫동안 연방정부의 영역이었던 여러 과학 연구분야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세기 대부분 거대한 규모의 과학 연구는 연방 정부의 관할이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과학은 사람을 달에 보내고 원자폭탄을 만들었으며 인터넷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킹 프로토콜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정부의 과학에 대한 영향력이 공적자금 축소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이후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예산은 11%가 감소했다. 수천개의 연구들이 투자비가 삭감되거나 투자 받지 못했다. 반면 과학 분야에 대한 민간 자본 비중은 급증해 생명과학 같은 특정 분야에만 투자가 몰려 지난해 86억달러까지 치솟았다. <br/> IT 억만장자들은 연방정부가 위험 회피를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의료 연구 발전에 방해만 되고 있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다. 정부주도 연구가 실패하면 연구 책임자는 의회 청문회와 회계 감사원 조사에 불려나가 고초를 받게 되지만, 기업이 투자한 연구는 실패를 혁신을 위한 학습 기회로 간주해 오히려 장려를 된다는 것이다. <br/><br/> 독일에서 태어나 북부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틸은 공상과학 소설이나 티비쇼에 푹 빠져 성장했다. 그는 1970년대와 80년대 예측했던 기술 문명이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있다. 그가 자신의 재단을 통해 보조금을 주고 있는 브레이크아웃연구소는 과학전 진보가 느린 것에 대한 그의 해결책이다. 틸은 대담한 아이디어를 가진 과학자들이 한두번의 실패로 경력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span class='quot1'>연구진을 기존의 연구기관에서 탈출시키려 한다</span>”고 말했다. <br/> 그는 “닉슨이 1971년 암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금까지도 느리게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며 “85세 이상의 3분의 1이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앓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생의 마지막 분야에 대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틸은 “나는 죽음은 항상 끔찍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과 싸우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r/> IT 억만장자들의 대담한 수명연장 연구 투자에 우려를 나타내는 윤리학자나 다른 과학자들이 늘고 있다. 노스웨스턴 대학 생명윤리학자 조로스는 “<span class='quot2'>빠른 과학적 진보가 반드시 더 좋은 것만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2'>과학이 결과로 산출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가끔 우리 세대에 답을 알 수 없기도 하다</span>”고 말했다. 스탠포드 대학 선임 연구원이자 전 생명윤리에대한대통령위원회 멤버였던 정치이론가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수명의 급격한 증가는 생존에 필요한 사람들의 의욕을 앗아가 버릴 것이며 그런 세계 속에서 사회적 변화는 정지하며 결국 나이든 독재자가 오랫동안 권력을 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WP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2'>수명 연장에 대한 연구는 큰 사회적 재난이 돼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span>”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IT 억만장자들이 개인적으로 흥미 있는 분야에만 기존 학계보다 2,3배 많은 연구보조금과 월급을 주는 것은 연구의 우선순위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한다.<br/> 노화 중단 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부정적이다. 2013년 퓨리서치센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51%가 ‘노화를 중단하거나 역전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한 치료가 천천히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한 3분의 2는 ‘급격한 수명연장이 자연 자원의 변형을 가지고 올 것’을 우려했다. 또 부자들만이 새로운 치료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의료진들은 이것이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완벽히 이해하기 전에 치료를 제공하는 위험도 막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br/> 무엇보다 답변자들 중 58%는 사람의 수명을 수십년 더 연장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답했다.<br/><br/>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83.txt

제목: "세계물포럼 때 문중 자랑 좀 해야죠"  
날짜: 20150408  
기자: 김성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08100000201  
본문: 생존확률 20% 죽음의 공포 이기고 옥산정사 이언적 유물전시관 완성<br/>문화유산 해설사로 왕성한 활동… "죽는 날까지 가문ㆍ전통 지킬 것" <br/><br/>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보물 제143호 옥산정사(玉山精舍). 조선 중기 문신인 회재(晦齋) 이언적(李彦迪, 1491~1553)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지은 사랑채로 독락당(獨樂堂)으로도 불리는 유서 깊은 곳이다. 이곳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메가폰을 들고 독락당의 유래와 이언적 선생의 학문 등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인물이 있다. 여강(驪江) 이(李)씨 옥산파 18세 주손(胄孫, 한 집안의 대를 잇는 장손자) 이해철(67ㆍ사진)씨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조리 있는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 이언적의 학문세계와 당시 시대상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저절로 떠오를 정도다.<br/> 그의 말솜씨에 매료된 관람객들은 이씨가 10년 전부터 3가지 암으로 생사를 넘나들었다는 대목에 이르면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다. 겉보기에는 전혀 암환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업에서 은퇴하고 소일 삼아 여가시간을 보내는, 영락없는 문화유산해설사 모습이다.<br/> 이씨가 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것은 2005년 8월쯤이다. 농사를 지으며 문중일을 해 온 이씨는 “<span class='quot0'>맨 처음 위암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닌가 걱정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행히 비교적 빨리 발견돼 수술 후 관리만 잘 하면 90% 이상 완치된다고 해 수술대에 누웠다</span>”고 말했다.<br/>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경과도 좋았다. 다시 문중일에 몰두했다. 당시 문중에서는 독락당 회재 유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었고, 이씨는 기획과 전시품 수집 등의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밤잠을 설치며 유물관 건립에 집중하던 2007년 2월, 또다시 병마가 몰려왔다. “<span class='quot1'>컨디션이 좀 별로인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이번엔 급성 직장암이라고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바로 수술을 하고 나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몇 달 지나서 이번엔 편도암이라고 했다</span>”며 당시 위급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br/>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잘 돼 목소리를 잃지 않았고, 직장암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아찔한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병원에선 하던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가족들도 말렸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암수술 이후 과로 때문인지 상태가 악화해 한때 생존확률 20%라고 했다. 그땐 정말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br/> 그는 암 극복을 위해 먼저 암을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명의 50인이 말하는 암과 국내외 의학서적 등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병은 자랑하라’,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했다”고 말했다.<br/> 좀 움직일만하면 옥산정사에 나갔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도 병을 자랑했다. “병원에서 치료와 함께 암을 이긴 분들이 전수한 민간요법을 병행했다”며 “누군가 알려준 민물고기찜과 채소,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삼았고, 반신불수나 다름 없는 몸이지만 살기 위해 걸었다. 처음엔 5분, 10분, 점차 걷는 시간을 늘렸고 지금은 서 너 시간은 너끈하다”고 말했다.<br/> 그는 투병 중에도 병상일기를 쓰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 동안 써 온 병상일지는 대학노트 10권 정도로 불어났다. “<span class='quot1'>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중에 이 경험을 누군가 공유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span>”고 말했다.<br/> 사실 그는 살기 위해 나름 몸에 좋다는 것은 거의 다 구해 먹었다. 장뇌삼이 대표적이다. “<span class='quot1'>딱 꼬집어 말하긴 그렇지만, 장뇌삼이 암극복에 도움을 준 것은 확실한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1'>봄철 싹이 나오기 전과 가을에 땅속에 들어갈 때가 약성이 가장 좋은 것 같다</span>”고 경험담을 늘어 놓았다.<br/> 그는 4년 전쯤 거의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도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저녁 모임에도 도시락을 싸 간다. 도시락을 싸 들고 가기 어려운 곳은 아예 피한다. 단전호흡도 그의 건강관리법 중 하나다. 안강읍 주변 도덕산 자옥산 등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가 단전호흡을 하노라면 세상근심을 다 잊을 수 있고,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조금씩 하던 술ㆍ담배도 완전 끊었다. “<span class='quot1'>사실 아직도 암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span>”는 그는 “<span class='quot1'>설과 추석 명절 때를 제외하면 매일 2, 3시간 정도 걷는다</span>”고 말했다.<br/> 요즘 그는 12일부터 열리는 2015 대구ㆍ경북 세계물포럼 때 옥산정사를 찾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br/> 각기 다른 3가지 암을 이긴 이해철씨. 그는 “<span class='quot1'>3번째 암도 이겼는데 지금 죽어도 호상이란 말이 나올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죽는 그날까지 가문과 전통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겠다</span>”고 강조했다.<br/> 김성웅기자 ksw@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84.txt

제목: 동물과 함께 겪는 어려운 순간, 의지와 힘이 되는 책 만들어요  
날짜: 20150408  
기자: 고은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08100000085  
본문: 김보경 '책공장더불어' 대표<br/><br/><br/>동물 전문 1인 출판사. 그나마 잘 팔리는 귀엽고 따뜻한 동물 사진을 담은 에세이 대신 유기동물, 동물쇼, 펫로스(반려동물과 이별에 대한 슬픔) 등 무거운 주제를 다룬다. 더구나 요즘 대세인 전자책도 내지 않는다. 어디를 봐도 돈이 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2004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24권의 동물 전문 책을 냈다. 10년 넘게‘책공장더불어’를 이끌고 있는 김보경(46) 대표다.<br/>동물 관련 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요즘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의 책들 가지고도 출판사 운영이 가능할까. 김 대표는 “<span class='quot0'>이미 반려동물 인문서는 다른 출판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농장, 실험, 전시동물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반려동물 관련 책을 낼 때도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거나 사료, 피부병 등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차별화했다</span>”고 강조했다.<br/>물론 처음부터 대중적인 책을 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김 대표가 2년간의 준비를 걸쳐 2006년 출간한 첫 책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20년간 동물과 소통했던 내용을 담은 ‘동물과 이야기하는 여자’번역본이다. 잡지사 기자로 10여 년간 근무하던 중 그는 키우는 강아지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찾아봤지만 국내에는 마땅한 것이 없었다. 원서로 이 책을 발견하게 됐고 국내에도 이런 책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지 않을까 하며 1인 출판사를 차렸다. 번역부터 편집, 마케팅까지 혼자 담당하며 출간한 결과는 성공이었다. 한 달 만에 2,000권을 추가 인쇄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1만6,000권이 팔렸다.<br/>이후 ‘채식하는 사자 리틀타이크’ ‘치료견 치로리’ 등을 출간하며 꾸준한 독자층이 생겼고 이후 ‘임신하면 왜 개, 고양이를 버릴까?’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 ‘고등학생의 국내 동물원 평가 보고서’ 등 소수의 독자층을 위한 책들을 발간했다.<br/>“10년 전이면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20여권이 넘는 책들이 나오다 보니 이제 매출 균형을 맞춰주고 있어서 예전보단 부담감이 덜한 측면이 있어요.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출판사가 아니면 세상에 나오지 못할 책들을 발굴하고 출간하고 있습니다.”<br/>그가 전자책을 내지 않는 이유는 독자들이 소장하고 싶고 필요한 순간 언제라도 꺼내볼 수 있도록 서가에 꽂혀있는 책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책 내용이 다소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반려동물을 위해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또 적용해 보는 독자들을 겨냥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달 피부병이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 ‘개 피부병의 모든 것’을 출간한 데 이어 암에 걸린 노령견들을 위한 책, 동물에 대한 연민을 다룬 에세이도 낼 예정이다.<br/>“처음부터 동물을 버리겠다 마음먹고 입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반려인이 임신을 했을 때 등 동물을 버리거나 남에게 주는 쉬운 결정을 하게 될 순간이 오는데 그럴 때 마음을 다잡게 하고 힘이 되는 책을 내고 싶습니다.”<br/> 글·사진=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85.txt

제목: "걸어야 산다" 실천 간암말기 극복  
날짜: 20150407  
기자: 이용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07100000191  
본문: 2001년 간암 말기… 6개월 시한부<br/>"암세포가 커 수술 불가능" 판정<br/>4년간 항암치료 견디고 수술 성공<br/>"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생활화<br/>과수재배 등 100% 정상생활<br/><br/> <br/>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무병장수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병은 우리 삶의 일부다. 그럼에도 우리는 질병과 환자를 끊임없이 나와 무관한 타자로 배척하고 격리하고 심지어 죄악시하기까지 한다. 특히 난치병 환자들은 일차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만만찮은 의료비용,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는 삼중고를 겪어야 한다.<br/> 한국일보 대구취재본부는 난치의 질병들을 극복한 의지적 사례들을 모아 ‘2015 희망 릴레이3 - 병마를 이긴 사람들’을 연재한다. 온전한 삶을 포기하거나 아예 삶을 끝내라고 다그치는 극한의 상황에서 ‘삼중고’를 이겨낸 그들의 투지와 결기에 경의를 표하고 지금도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던지기 위함이다. 희망은 절박한 상황에서 굳세게 돌아온 자의 몫. 우리에게 다함 없는 밑천은 언제나 희망 하나다.<br/> <br/>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옛말이 딱 맞아. 병원에선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는데, 소백산을 매일같이 오르내리면서 한번도 죽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 암도 스트레스에서 왔으니 등산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렸고, 자연스레 암도 이기게 된 것이지.” 소백산다람쥐 박재완(58ㆍ경북 봉화군 화천리)씨. 소백산에서 그를 만난 등산객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회복하게 된 것을 “걸어야 산다”는 평범한 철학을 실천하며 스트레스를 날려 버렸기 때문이라고 믿는다.<br/> 그가 간암 말기 선고를 받은 것은 2001년이다. 그때 그의 나이는 42살밖에 되지 않았다. 영주시내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 대리점을 하다 다른 사업 구상을 위해 촌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던 시기였다. “배가 아파 안동의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고 했다. 혹시나 하고 서울의 큰 병원에 갔지만 간암 확진 판정이 났다. 암세포 크기가 13㎝나 돼 수술도 어렵다고 했다. 하늘이 노랬다. 간이식도 맞는 간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비용문제도 있어 쉽지 않았다.” 그는 당시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의사는 그에겐 단지 간암이라는 사실만 알렸다. 가족들에게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우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br/> 그대로 포기할 순 없었다. 0.1%의 가능성에 도전했다. 수술을 하려면 일단 암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었다. 물론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했다. 의료진과 박씨가 선택한 치료법이 간암색전술이다. 간암 세포에 가는 영양분을 차단, 암세포가 굶어 죽게 하는 치료법이다. 4년 간 동맥을 통해 항암제를 투여하는 색전술을 11차례나 받았다. 한 달에 20번이나 해야 하는 방사선 치료도 총 3회 받았다. 항암치료로 머리가 다 빠지고 피골이 상접할 지경이었지만 그는 견뎌냈다.<br/> 2005년쯤에는 암세포는 줄었지만 횡경막과 임파선으로 전이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것도 이겨냈다. “<span class='quot0'>4년이나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이겨냈는데, 그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그대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span>”고 말했다. 횡경막은 수술로, 임파선은 방사선으로 치료하고 전체 간의 60%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했다. 2005년 9월이었다. 그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br/> 그 시간을 이겨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박씨는 단연코 걷기라고 말한다. 4년간 소백산 등산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평소에도 산이 좋아 소백산을 제집 드나들 듯 했으니 산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뿐이었다. “<span class='quot0'>색전술을 받으면서 처음엔 100미터도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span>”고 말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계속된 헛구역질에 시달렸다.<br/> “죽을 지경인데 왜 산에 갔냐? 걸어야 살기 때문이다. 집안 내력에 암이라곤 없었다. 유전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결국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다. 소백산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비지땀을 흘리면 무아지경에 빠진다. 스트레스는 한방에 날아간다. 암을 이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br/> 처음엔 마을 옆 하천 가를 쉬엄쉬엄 걷는 것부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자 소백산으로 향했다. “아프기 전에도 산을 좋아했다. 소백산 비로사에서 비로봉까지 왕복 1시간 30분이면 족했다. 비로사에서 비로봉, 연화봉, 희방사까지 2시간에 내달렸다”고 말했다. 산을 걷는 것이 아니라 거의 뛰어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반인들은 비로사 주차장에서 비로봉까지 2시간30분은 잡아야 한다. 초보자들은 3시간도 부족하다.<br/> 워낙 빨리 걷다 보니 무방공비로 오인을 받은 적도 있다. 1996년 9월 비로사에서 희방사로 내려오니 갑자기 무장경찰과 전경 수십명이 총구를 겨누고 수갑을 채웠다. 알고 봤더니 북한 특수부대원처럼 빨리 걷는 박씨를 보고 다른 등산객등이 무장공비로 신고한 것이었다.<br/> 항암치료를 받는 4년간 그는 병원에 가지 않는 날이면 매일, 평균 1주일에 서너번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소백산을 올랐다. 아침을 먹은 뒤 9시쯤 출발해서 12시까지 산에서 지냈다. “<span class='quot0'>소백산은 삼림이 울창하고 공기가 좋은데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오를 수 있어 환자들이 운동하기 좋은 산</span>”이라고 말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길에는 맨발로 걸었다. 소백산을 오르는 동안에는 항암치료로 인한 고통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br/> “암을 극복한 비결? 살 수 있다는 의지, 병과 싸워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등산은 이 같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요즘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지만 수술 10년이 지나도록 재발조짐은 없다. 5년 이상 생존하면 완치라고 하니 그는 완전 나았다고 볼 수 있다. 키 167㎝의 작달막한 그는 발병하기 전 60㎏이던 몸무게가 63㎏으로 되레 늘었다. 나이를 생각하면 적당한 수준이다.<br/> 암은 극복했지만 그는 요즘 먹는 것이 다소 고역이다. 일반인들처럼 아무것이나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span class='quot0'>절반이 넘는 간을 절제한 만큼 아무래도 싱겁게 먹어야 하고, 채식 위주로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죽다가 살아났는데 이 정도 불편은 불편도 아니다</span>”고 말했다. 제철 채소와 산나물, 된장, 두부 등이 박씨가 즐겨 먹는 음식이다. 입맛이 없어도 세끼 밥은 한 공기씩 꼭 챙겨 먹는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span class='quot0'>산나물은 살짝 데쳐 된장에 찍어 먹고 두부 넣고 끓인 담북장을 늘 챙겨 먹는다</span>”고 했다.<br/> 6개월 시한부 선고를 극복한 소백산다람쥐 박재완씨. 그는 “<span class='quot0'>살 수 있다는 의지와 운동, 음식 이 3가지를 잘 지켜야만 병마를 이길 수 있다</span>”고 재확인했다. “<span class='quot0'>간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 중, 고교생이던 형제가 아버지 병치레 때문에 고생을 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span>”며 남은 인생을 덤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과수농사를 짓고 있다.<br/>이용호기자 lyho@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86.txt

제목: 국내 줄기세포 임상시험 세계 2위  
날짜: 20150407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07100000028  
본문: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활발하게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표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4’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임상 등록 사이트(www.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줄기세포 임상시험 건수는 전체 277건 가운데 한국이 39건으로 미국(13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중국 25건, 스페인 21건, 이스라엘·인도(각 13건), 영국·말레이시아(각 4건), 일본(1건) 등의 순이었다.<br/>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미국 안팎에서 이뤄지는 줄기세포 임상시험 정보를 이 사이트에 등록, 관리하고 있다. 미국 내 시험은 반드시 사이트에 등록해야 하고 이외 국가의 시험은 자율적으로 등록한다.<br/> 한국에서 진행되는 줄기세포 임상시험 중에는 척추 손상 등 신경계 관련 연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크론병(만성 염증성 장질환) 등 소화기계 관련 연구 6건, 퇴행성 관절염 등 정형외과 관련 연구 5건 등이었다.<br/> 반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51건)가 진행되는 심장 관련 임상시험은 국내에서 2건에 그쳤다. 미국은 전체 135건 가운데 심장 관련 시험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계(22건), 암(13건), 혈관(10건) 등의 순이었다.<br/> 식약처는 “<span class='quot0'>앞으로도 줄기세포치료제와 관련된 제도 및 연구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87.txt

제목: 흡연-폐암 개별 인과관계 소송서 인정해야  
날짜: 20150406  
기자: 남보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06100000175  
본문: 석면과 중피종 피해 인정한 것처럼 역학적 증거 개별 환자에 적용해야<br/>새 질병 원인 탐구하는 것이 역학… 철학적 사고가 문제 푸는 데 도움 돼<br/> <br/> <br/> <br/>다음 가정을 보자. “역학조사 결과 담배를 피우는 사람 100명 중 10명이 폐암에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담배를 피우는 A씨는 폐암에 걸렸다. A씨는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린 것일까?”<br/> 이 질문이 담배 소송의 핵심이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률이 10%로 비흡연자 암 발생률(1%)의 10배나 되기 때문에 A씨 역시 담배로 인해 암이 걸린 것이고, 그러니 담배회사가 배상하라고 한다. 반면 담배 회사들은 “10%는 통계적인 결과일 뿐 A씨의 평소 식습관이나 대기오염, 유전력이 폐암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10%라는 통계가 개개인의 암 발병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원 역시 역학조사로 드러난 흡연과 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역학조사 결과를 개인 암 발병의 인과관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br/> 그러나 알렉스 브로드벤트(35)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대 철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역학연구의 증거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개인 발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span>”고 주장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과학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브로드벤트 교수는 철학자로는 처음으로 의학의 한 분야인 역학(疫學)을 연구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저서 ‘역학의 철학’이 국내에 번역 출간돼 지난 5일 방한했다.<br/>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역학은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학문이다. 콜레라가 유행하던 1840년 ‘오염된 물 때문에 병이 확산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감염을 크게 줄인 것이 역학의 시초다. 이는 콜레라 균의 발견보다도 앞섰다.<br/> 6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난 브로드벤트 교수는 법원이 흡연과 폐암 발병간의 역학조사 결과를 개개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영국에서도 석면에 노출된 후 악성중피종에 걸린 사람들은 개인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모두 그 원인을 석면으로 인정해줬다</span>”며 “<span class='quot0'>담배를 피웠다는 걸 입증했는데도 담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span>”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석면피해구제법이 있어 석면을 다루는 회사에 다녔거나 석면 회사 근처에 살았다는 기록만 있으면 악성중피종(폐와 위장관 등을 둘러싼 막인 ‘중피’에 생기는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는다. 그는 또 “<span class='quot0'>법원과 담배회사들은 역학이 통계일 뿐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흡연으로 인한 암 발병율이 높다는 걸 알고 금연한 사람은 불합리한 판단을 한 것인가</span>”라고 되물었다.<br/>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은 최소 3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 중 폐암(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에 걸린 3,448명을 추려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9년간 130만명의 질병 정보를 역학 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흡연자의 후두암 발생위험 정도가 비흡연자의 6.5배에 달했고, 이 같은 담배의 폐해 때문에 건강보험이 지출하는 진료비도 한 해 1조7,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배 회사 측은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통계적인 인과성’일 뿐이라며 3,448명이 모두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입증하길 요구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달 15일 개인별 입증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br/> 이날 건보공단이 주최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역학적 증거가 가지는 의미’ 세미나에서 발제를 한 브로드벤트 교수는 한 가지 예를 제시했다. 그는 “A씨가 1,000명당 1명이 걸리는 희귀병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다. 이 검사는 오류가 있어 5%는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양성으로 잘못 나온다. 그렇다면 A씨가 실제로 이 병에 걸렸을 확률은 얼마일까? 대부분 95%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은 2%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95%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병의 유병률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1,000명 중 1명이 걸리고 5%인 50명은 병에 안 걸렸는데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이므로, 실제 병에 걸렸을 확률은 51명 중 1명 즉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브로드벤트 교수는 “<span class='quot1'>이 사례에서 1,000명 당 1명 이라는 역학적 증거를 무시하면 명백한 오류를 일으킨다</span>”며 “<span class='quot1'>따라서 역학적 증거는 개별 사례에 대한 사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적절하다</span>”고 강조했다.<br/> 철학을 전공한 그는 왜 역학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브로드벤트 교수는 “<span class='quot1'>박사학위를 마치고 케임브리지 PHG(Public Health Genomics) 재단 책임자로부터 역학에 관한 연구를 제안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역학은 이론 체계가 확실히 갖춰진 것도 아니지만 사례를 통해 질병의 원인을 입증해 나가는 방식이 철학자에게는 흥미로운 과제였다</span>”고 말했다. 대학에서 2년간 법학을 전공하기도 했던 그는 “<span class='quot1'>인식론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관점에서도 역학적 증거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충분히 적용돼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그는 자신의 책 ‘역학의 철학’에 대해 “<span class='quot1'>역학적 문제를 철학적 도구와 생각으로 풀어 나가는 입문서</span>”라며 “<span class='quot1'>역학은 그 동안 통계 수학 등과 밀접했지만 철학적 사고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span>”고 소개했다.<br/> 브로드벤트 교수는 8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특강, 10일 대한보건협회 특강 등의 일정을 마치고 11일 출국한다.<b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88.txt

제목: "이영훈표 이문세는 잊어주세요"  
날짜: 20150406  
기자: 고경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06100000158  
본문: 13년 만에 신보 '뉴 디렉션' 발표<br/>여러 작곡가 협업… 창법도 바꿔<br/><br/> <br/> “<span class='quot0'>새로운 방향의 음악이라는 거창한 의미보다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span>”<br/> 13년만에 정규 앨범 ‘뉴 디렉션’을 내놓은 가수 이문세(56)가 6일 서울 삼성동 백암아트홀에서 신보에 담긴 곡들을 발표했다. ‘뉴 디렉션’의 신곡 9곡은 7일 자정 공개된다. 이전 정규 앨범은 2002년 ‘빨간 내복’이었다.<br/> 15집 앨범 제목이 뜻하는 이문세의 ‘새로운 음악적 방향’이란 작곡가 이영훈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이문세와의 결별을 뜻한다. ‘난 아직 모르잖아요’ ‘광화문 연가’ ‘붉은 노을’ 등 이문세의 히트곡 대부분을 작곡한 이영훈은 2008년 세상을 떠났다. 이번 앨범에서 이문세는 다양한 작곡가에게 곡을 받았고, 창법도 바꿨다. “과거의 이문세가 이영훈 작곡가의 곡만 불렀다면 이젠 열린 마음으로 어느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엔 ‘그녀의 웃음소리뿐’처럼 내지르거나 ‘옛사랑’처럼 읊조리는 창법 위주였는데 이번엔 가창을 드러내기보다 음악 흐름에 맞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br/> 새 앨범은 과연 다양한 작곡가들의 색채가 드러난다. 일기예보, 러브홀릭 출신의 강현민이 작곡한 타이틀 곡 ‘봄바람’은 기타의 찰랑거리는 리듬이 돋보이는 팝 스타일의 노래. 경쾌한 라틴 리듬의 달콤한 프러포즈 곡 ‘그대 내 사람이죠’와 재즈 ‘무대’는 팝과 가요, 재즈를 넘나드는 조규찬의 것이다. 동화적 감수성을 표현한 ‘그녀가 온다’는 가수 노영심이 작곡했다. ‘사랑 그렇게 보내네’에선 연주자로 참여한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섬세한 서정성을 읽을 수 있다. <br/> ‘그녀가 온다’는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규현, ‘봄바람’은 R&B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나얼과 함께 불렀다. “노영심이 ‘그녀가 온다’를 작곡한 뒤 가사를 주지 않고 잠적해 버려서 할 수 없이 직접 가사를 썼습니다. 혼자 불렀는데 밋밋한 느낌이어서 여자가수나 목소리가 높고 맑은 남자가수와 함께 불렀으면 했죠. 마침 지난해 제 노래 ‘깊은 밤을 날아서’를 리메이크한 규현이 떠올라서 같이 부르자고 부탁했죠. 나얼과는 처음부터 같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작업했고요.”<br/> 이문세는 앨범의 가창 부분을 자신의 집 작업실에서 홈레코딩으로 녹음했다. “<span class='quot0'>스튜디오를 정해놓고 하면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해야 하지만 집에서 하면 가장 몸이 좋은 상태에서 노래할 수 있잖아요.</span>” <br/> 이문세는 8년 전 갑상선 암을 발견,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해 재발해 다시 한 번 수술대에 올랐다. 성대를 지키기 위해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남겨놓았다는 그는 이날 건강을 묻는 질문에 “아주 건강하다”고 답했다. “섬세하고 예민한 가창을 요하는 곡일수록 몸 상태가 중요해서 집에서 한 것일 뿐 열흘에 하루 꼴로 몸이 좋아져서 홈레코딩 방식을 택한 건 아닙니다. 물론 목에 좋다는 건 다 복용했죠. 집에서 프로듀서, 엔지니어와 노닥거리다 마이크를 한 번 잡았는데 모두들 ‘아주 좋아’라고 했을 때의 쾌감이 있었어요. 녹음하며 이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대중의 가슴에 관통할 것인가가 숙제죠.”<br/> 이문세는 15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2015 씨어터 이문세’를 열 예정이다. <br/>고경석기자 kav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89.txt

제목: 미스터 건보의 일침 "요즘 관료, 어려운 것 안하려해"  
날짜: 20150405  
기자: 채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05100000107  
본문: 정부 건보 개선안 안 내놓는데, 지역가입자 소득으로 부과 마땅<br/>이사장 때 담배소송 냈는데, 인권 향상·국민 관심 유도 위해 제기<br/>퇴임 후 영월 생활은… 체험학교 육아사업 아내 도우며 동양철학 서적 독서<br/><br/> <br/> <br/> “세상이 변하면 프레임도 따라 변해야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0년 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상식 밖의 이야기다. 당시엔 자동차가 있으면 잘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젠 차 없는 사람도 드물지 않나. 과거에는 자동차 재산 등 두세 가지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보험료 부과하는 게 틀리지 않았지만 이젠 다르다.”<br/> 김종대(68)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미스터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되고, 확대될 때마다 그가 중심에 있었다. 공직을 떠나게 됐던 계기도 건보 통합에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한 그는 임기 내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었다.<br/> “<span class='quot0'>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도 매달 5만여원씩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수천만원의 연금 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나는 퇴임 후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span>” <br/> 그가 지난해 11월 퇴임 직전 블로그에 남긴 한 마디는 짧지만 강렬하게 대중에게 꽂혔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의 당위성을 꼬집은 일성(一聲)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 관련기사)<br/>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세계 3번째, 아시아국가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그였다. 그의 뚝심 있는 모습에, 취임 초기 낙하산 인사라며 극렬히 반대했던 건보공단 직원들 조차도 그를 할 일은 제대로 한 이사장으로 기억한다. <br/> 지난달 23일 김 전 이사장의 강원도 영월 집으로 찾아갔다. 여러 차례 인터뷰를 고사하던 그는 집으로 들이닥친 기자들에게 “<span class='quot0'>떠난 사람이 뭘 더 얘기하겠냐</span>”며 손을 내저었지만 아직도 현안 관련 수치를 줄줄이 쏟아내며 말을 이어갔다. 작심한 듯 ‘포정해우’란 고사성어를 꺼내며 “정책행정이라는 건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 피를 흘리지 않고 소를 잡았다는 백정 포정처럼 행정도 예술의 경지가 돼야 마땅한데, 요즘엔 어려운 것을 안하고 도망만 가려고 한다”며 정부 관료들의 복지부동을 꼬집었다.<br/> 올해 초 건보 부과체계 백지화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개선안 발표의 시점이나 구체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br/> <br/> -퇴임하자 영월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지내나.<br/> “체험학교 같은 육아 사업을 하는 아내가 아이들 농촌체험 하라고 만든 곳이다. 평소 혼자 지내고 두어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온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 미뤄뒀던 노자 장자 등 동양철학을 다시 꺼내보고 있다. 도덕경이나 사기를 보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웃음).”<br/> -1999년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해 면직까지 됐었다.<br/> “보험료 부과를 소득기준으로 하는 건 맞지만 당시에는 소득 파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른 참모들은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만 안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에서 직권 면직됐다. 그런데 소득 기준 통합을 2000년부터 4년 정도 시도했는데 안 됐다. 이게 안 되니까 성별 등 다른 부과 기준들을 계속 추가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내는데, 어떤 사람은 월급 외 소득이 7,200만원이 넘어도 안 내고…. 점점 편법을 더하다 보니 한계가 온 거다. 그래서 2011년 11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발령받자마자 문제를 고치자고 나선 거다.”<br/>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br/>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가 갹출해서 돈을 내는 것으로 상부상조 정신이 깔려있다. 또 사회보험이라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적은 사람은 덜 낸다. 그런데 현행 체계는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에 보험료를 매긴다. 재산을 팔아 보험료를 내라는 얘긴데, 그래서 소득 위주로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건 망설이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다.”<br/> -소득이 아닌 재산에 부과하는 규모가 얼마나 되나.<br/> “2012년 총 소득 중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했지만 실제 소득액보다 적게 매긴 게 합하면 251조3,000억원이다. 이건 다 파악된 소득인데도 건보료를 물리지 않는다. 그런데 자동차ㆍ나이ㆍ남녀 성별ㆍ재산 등 소득이 아닌 것 90조원에 보험료를 매긴다. 파악된 소득에는 안 매기고, 소득이 아닌 것에 자꾸 끌어다 매기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br/> -정부는 왜 부과체계 개선을 안 하려고 하나.<br/> “어려운 정책은 안하고 도망가려고 한다. ‘내가 독립 운동 안 해도 대한민국 독립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그래도 해야 한다. 책무니까. 세금 받아 먹는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힘든 거다. 장자를 보면 ‘포정해우’란 얘기가 나온다. 전국 시대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소를 잡는,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가진 백정 얘기다. 19년간 소를 잡으니 살과 뼈와 힘줄 그 틈새가 다 보인다고 했다. 행정도 이 정도로 예술이 돼야 하는 거지.”<br/> -정부가 보험료 오르는 고소득자들 의식하는 건가.<br/> “나처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어서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2,052만명이나 된다. 이 중에 소득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나. 물론 보험료 더 내라고 하면 반발하겠지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그렇게 과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br/> -2012년부터 부과체계 개편 적기라고 했는데 이미 2015년이다.<br/> “당시에 했어야 했다. 갈수록 시기를 놓치고 있다. 기준이 불합리 하니까 체납 보험료가 2조3,000억원이나 된다. 생계형 체납자도 많다. 그들을 위해 기준도 낮춰야 한다.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건보가 지속가능 하다. 매년 5,160만건의 건보료 민원이 제기된다. 제도가 세상에 못 맞추면 폭발하게 된다.”<br/> -담배소송도 복지부와 갈등 빚고 어렵게 제기했다고 들었다.<br/> “2012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이 1조6,000억원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담배를 피우면 암 발생률이 2.9~6.5배 높아지기 때문이다. 건보 제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외부 요인이 담배다. 미국 캐나다가 소송을 했고, 가장 강력한 금연억제정책 중 하나가 소송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히고 있다. 물론 반발 크고 어렵지만 소송 과정에서 언론이 계속 보도를 하게 되면 담배의 해악이 다 밝혀지게 된다(웃음). 소송 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관심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 시작한 소송이다.”<br/> -보건복지부의 반대가 무척 심했는데.<br/> “주요 소송을 하려면 건보공단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담배 소송을 안건에 넣자 경제부총리실, 대형 로펌 등에서 ‘정말 소송하는 거냐’는 문의가 빗발쳤지만 직접적 압력은 없었다. 나는 당시 90% 정도는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상태였지만 ‘결정된 것 없다, 내 결심도 안 섰다’고 답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담배소송을 이사회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바꿔 올리라고 지시했고, 기자들에게도 이 지시 내용을 알려 사실상 ‘의결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이사회 직전에는 2,3개 정부 기관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니 이사회 일정을 늦추면 안 되느냐’고 연락이 왔다. 한참을 고민했지만 이사회를 늦출 이유가 없었다. 소송 권한은 공단 이사장에게 법적 제도적으로 부여돼 있다. 그래서 ‘그대로 가자’고 했다.”<br/> -국민적 관심이 컸는데, 이사회 분위기는 어땠나.<br/> “공단이 생긴 이래 방송 카메라가 그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었다.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사회에서는 다 찬성했는데 2명이 반대했다. 보건복지부 국장과 기획재정부 국장이었다.”<br/> -담배소송 해놨더니 정부가 담뱃값을 올렸다.<br/> “공단이 담배 소송 안 했으면 담뱃값 올렸겠나. 공단에 감사패 줘야 한다.”<br/> -담배소송은 어떤 의미가 있나.<br/> “담배 회사들이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아시아가 담배 팔아먹는 데 ‘호구’이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는 나중에 못 끊게 애들한테 담배 준다. 담배 소송은 인권에 관한 문제다. 우리나라 소송이 담배 많이 피우는 중국 일본에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 국격을 올리는 소송이기도 하다.”<br/> -공단의 빅 데이터가 소송에 큰 역할을 했다.<br/> “공단은 가입자들의 방대한 자료 갖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걸 활용했다. 최소 3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담배 피운 사람 중 고등법원에서 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3,448명을 추렸다. 담배회사에 537억원을 물어내라고 했다.”<br/> -담배회사 측은 피해자 개별 입증을 요구한다.<br/> “담배회사는 빅 데이터로 뽑은 피해자 모두가 담배 때문에 암에 걸린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개인별 인과관계를 다 증명하라는 건데, 처음 소송 준비할 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행정은 100%가 안 되면 어느 허점에서 찔릴지 모르기 때문이다.”<br/> -소송 이길 것으로 전망하나.<br/> “아기 안고 있는 엄마가 있는 버스 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상상이 가나. 그게 불과 얼마 전이다. 지금은 ‘야만인’이 된다. 그만큼 세상은 변했다. 세상의 흐름에 따르는 거라 이긴다고 확신한다.”<br/> -이사장 취임 때 1인 시위를 하는 등 극렬하게 반대했던 직원이 찾아와 하루 밤 자고 갔다고 들었다.<br/> “‘죄송했다’ 하길래 ‘지나간 일이다. 그 때는 그게 당신의 소신이니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 직원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반대한 거다.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거여서 좋다. 아침에 내가 고명 얹어서 떡국까지 끓여줬다.”<br/>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인가.<br/> “공단이 결정하는 거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신청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이사장이었던 나도 모른다. 담당자도 부과 체계 일람표를 찾아서 몇 번을 계산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다. 말이 안 되는 제도다. 개선이 시급하다.”<br/>-후배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br/>“최근에 논란이 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봐도 의료서비스업을 발전시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개념적인 얘기만 오가는 것 같다. 세계에 없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 일본은 한방 없앴고 중국은 한방이 양방에 흡수돼 있다. 양ㆍ한방을 통합한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걸 주목해야 한다.”<br/><br/> 영월=채지은기자 cje@hk.co.kr<br/> 영월=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90.txt

제목: "일본 정치인들 전쟁 이후에 태어나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 이해못해"  
날짜: 20150405  
기자: 송옥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05100000093  
본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자살특공대 전투기 ‘제로센’의 조종사였던 하라다 가나메(98)씨가 최근 강연에서 다시 한 번 전쟁의 참상을 증언했다. <br/> 뉴욕타임스(NYT)는 3일 하라다씨가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반전 강연에서 “인생 마지막 사명은 내 참전 경험담을 널리 알려 일본이 다시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에게 내 전쟁의 공포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전투기 19대를 격추시킨 전설적인 조종사다. <br/> 이날 딸의 부축을 받고 강단 위로 올라선 하라다씨는 직접 그린 전쟁 지도와 참전 당시의 젊은 시절 사진을 공개했다. 가죽재킷을 입은 사진 속 조종사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눈빛에서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br/> 그러나 시간이 지나간 흔적이 역력한 주름진 얼굴의 노병, 하라다씨는 “전쟁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쇠약해 곧 바스러질 듯 했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활기 넘쳤다. 표정도 부드럽고 온화했다. 이내 진주만 작전, 미드웨이 해전, 과달카날 상륙작전에 대한 참전 경험담이 90분간 이어졌다. <br/> 강연이 끝난 후 하라다씨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현존하는 “마지막 제로센 파이터”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후 전투를 할 때 어떻게 상대 전투기의 꼬리를 물고 늘어져 기관총을 난사 했는지, 얼마나 상대 전투기와 가까이 날았는지를 설명했다. <br/> 하라다씨는 “나는 아직도 내가 죽인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혹은 아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증오하거나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쟁은 당신을 낯선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낯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강제로 몰아 넣는다”며 “그것이 전쟁이 당신으로부터 인간성을 빼앗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br/> 하라다씨는 이어 “일본 정치인들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br/> 하라다씨는 1942년 교전 중 자신이 몰던 전투기가 과달카날의 한 섬에 추락했지만 정글 위로 떨어져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대신 다신 조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팔을 크게 다친 그는 일본으로 귀국해 조종사 훈련 업무를 맡았다. 전쟁의 후유증은 오래 갔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잠시 낙농업에 종사한 적도 있었는데 밤마다 자신이 죽인 미국 조종사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던 그는 1965년 나가노에서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면서 양심의 가책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r/> 하라다씨가 반전 강연을 하게 된 계기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일본 아이들이 폭탄을 비디오게임 수준으로 피상적으로 묘사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충격을 받은 후였다. 이후 그는 지난해 탈진 때문에 강연 횟수를 줄인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몇 년간 연간 수십 회씩 강연을 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후두암 진단을 받고도 후대에 전쟁의 비극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확신은 더 강해졌다. <br/> 나가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다카시 가쓰야마(54)는 “나는 전쟁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학교에서 배운 적도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일본은 진짜 전쟁 경험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br/><br/>하라다씨는 강연 말미에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의 아이들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본 것을 증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br/> 송옥진기자 clic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91.txt

제목: ‘헤이 주드의 엄마’ 존 레넌 첫 부인 암으로 숨져  
날짜: 20150402  
기자: 박소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02100000014  
본문: 비틀스의 기타리스트 존 레넌의 첫 부인인 신시아 레넌이 1일 스페인 마요르카의 자택에서 암으로 숨졌다. 향년 75세. <br/> 신시아의 아들 줄리안(51)은 자신의 웹사이트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어머니를 위해 본인이 직접 가사를 쓰고 부른 노래를 담은 동영상을 올렸다. <br/> 부친의 창법을 모방한 이 노래에서 줄리안은 “<span class='quot0'>제게 당신의 인생을 주셨지요, 사랑에 당신의 삶을 바쳤지요…당신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거예요</span>”라며 어머니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한다.<br/>https://youtu.be/fsyYqJxf9Qk<br/><br/>그의 대리인은 신시아가 짧지만 용감하게 암과 싸웠고 줄리안이 내내 그 옆을 지켰다고 전하면서 “기도에 감사하다. 어려운 시기에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밝혔다. <br/> 신시아는 1957년 리버풀의 음악 학교에서 존을 만나 비틀스가 명성을 얻기 직전 결혼했지만, 당시 10대 우상이었던 비틀스의 이미지를 지키고자 결혼 사실을 숨겼다. <br/> 이들은 존이 오노 요코와 만나기 시작한 이후인 1968년 이혼했다. <br/> 비틀스의 ‘헤이 주드’(Hey Jude)는 부모의 이혼에 상처받았을 줄리안을 위해 폴 매카트니가 줄리안의 이름을 주드로 바꿔 쓴 곡이다. <br/> 매카트니는 블로그를 통해 “<span class='quot1'>리버풀 시절부터 알았던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줄리안에게 좋은 엄마였고 우리 모두 그녀를 그리워할 것이며, 함께 했던 시간을 항상 기억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비틀스의 유일한 공식 전기를 쓴 헌터 데이비스는 신시아를 유명한 남편에게 학대받는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묘사했으며, 존과 달리 “<span class='quot2'>조용하고 말수가 적은데다 결코 히피가 아니었다</span>”고 말했다. <br/> 음악 학교의 동료들도 두 사람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관계가 지속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br/> 신시아도 자서전에서 존을 질투심 많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자신이 비틀스 초기 멤버였던 스튜어트 서트클리프와 춤을 췄을 때 존에게 맞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br/> 하지만 2005년 인터뷰에서는 “그의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모두가 그에게 경탄했다”며 레넌의 카리스마를 칭송하기도 했다. <br/>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92.txt

제목: 호암재단, ‘제25회 호암상’ 수상자 선정  
날짜: 20150402  
기자: 허재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402100000027  
본문: 호암재단은 천진우(53)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 등 5명을 ‘제25회 호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천 교수는 과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천 교수 외에 김창진(57) 미국 UCLA 교수가 공학상을, 김성훈(57) 서울대 교수가 의학상을, 현대미술작가 김수자(58)씨가 예술상을, 간호사 백영심(53)씨가 사회봉사상을 각각 받는다.<br/> 이들은 국내외 각계 주요 기관과 전문 인사들로부터 후보자로 추천돼 국내외 저명 학자·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37명)의 면밀한 업적 검토, 국제적 명성의 해외 석학(30명)들로 구성된 자문단 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로 확정됐다.<br/> 천 교수는 나노과학의 대가로 세계적 수준의 나노물질 개발을 위한 화학적 설계 기술을 확립했다. 나노과학을 의학분야와 성공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진보적 융합과학 연구분야를 개척했다.<br/> 김창진 교수는 전기 습윤기술의 창시자로 전위차를 이용해 액체의 습윤성과 표면장력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 기존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미세유체의 제어를 가능하게 했다.<br/> 김성훈 교수는 항암 단백질 전문가로 생체 단백질 합성효소가 세포의 증식·분화·사멸에 관여하고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br/> 김 작가는 뉴욕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보따리’, ‘바늘여인’, ‘호흡’, ‘지수화풍’ 시리즈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 예술세계를 구축했다.<br/> ‘말라위의 나이팅게일’로 불리는 백 간호사는 1994년부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지에 병원을 설립한 데 이어 간호대학과 초등학교·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을 세웠다. 시상식은 6월1일 오후 3시 호암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수상자들은 상장과 메달(순금 50돈), 3억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br/> 호암재단은 시상식 전후인 5월 29일과 6월 2일 호암상과 노벨상 수상자 등 국제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회 호암포럼'을 개최한다.<br/>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0년 제정한 호암상은 올해 25회 시상까지 총 127명의 수상자들에게 199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93.txt

제목: 화장품 빈 병 모아 친환경 프로젝트  
날짜: 20150331  
기자: 조아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31100000013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1945년 창립 이래 화장품 업계 1위 기업으로서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한 관심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펼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Makeup your life) 캠페인은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br/>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자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 헤어 연출법 등을 전수해 환자들이 긍정적 태도를 고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까지 총 9,270명의 여성 암환자와 2,891명의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했다. <br/> 또 아모레퍼시픽은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하고, 유방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핑크리본캠페인도 전개 중이다.<br/> 이와 관련해 진행하는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프로그램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01년부터 25만4,000여 명이 참가해 마련한 26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했다. <br/> 환경경영 활동의 일환인 그린사이클 캠페인은 아모레퍼시픽의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이 캠페인은 빈 화장품 병을 수거해 다시 재생하거나 새 제품으로 만드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빈 화장품 병을 활용한 작품 ‘모아나무’를 서울 명동 프리메라 매장에 전시했고, 이니스프리에선 수거된 빈 병을 화분으로 활용해 식물을 키우는 에코 그린 팟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 지난 17일 서울시의 연중 도시 녹화 캠페인 ‘서울, 꽃으로 피다’상설 전시전에 동참해 빈 화장품 병, 1회용 컵 등 재활용품을 활용해 정원을 꾸미는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br/>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94.txt

제목: 생명보험료 6~7% 인상… 의료실손보험 개인 부담 커져  
날짜: 20150331  
기자: 김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31100000124  
본문: 종신·연금보험 등 예정이율 인하 탓<br/>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로 높여<br/>3년 주기 경험생명표 조정도 영향<br/><br/> <br/> 4월부터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최소 6~7% 정도 오른다.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소폭 내리지만 개인 의료비 부담이 커져 실제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r/>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적용되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비율 상향, 예정이율 인하, 보험료 산정 기준 변화 등 보험체계 변화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로 표준화하면서 자기부담금 10% 상품의 판매가 중단된다. 사고 등으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때, 앞으로 무조건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br/> 자기 부담 비율이 커진 만큼 보험료는 물론 내려간다. 그러나 인하 수준이 매달 1,000~2,000원 정도인 반면, 의료비 부담은 두 배로 커지는 만큼 보험료 인하가 꼭 반가운 일은 아니다. 다만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당장은 개인부담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줄고 이에 따라 손해율이 낮아져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는 측면도 있다</span>”고 말했다.<br/>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장기보험은 예정이율 인하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의 개념으로, 보험사가 해당 금액만큼을 보험료에서 차감해준다.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현재 3.5%인 예정이율은 4월부터 3.25%로 0.25%포인트 인하된다.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통상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는 6~7% 정도 오른다</span>”고 말했다. <br/> 암, 질병 관련 상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8차) 조정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당 기준의 조정은 보험가입자들의 사망률과 잔여수명 등을 예측해 3년마다 이뤄진다. 8차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남녀 평균 수명은 7차 때에 비해 각각 80세에서 81.4세, 85.9세에서 86.7세로 늘었고, 암 발생률도 남녀 각 11%, 22% 증가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사망보험료와 연금수령액은 줄어드는 반면, 질병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고 암 발생률 증가 등으로 암이나 질병, 상해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r/> 최선홍 서울보험계리법인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2'>각자 보험 포트폴리오를 돌아봐야 할 시점</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의 저축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보험은 최대한 보장 위주로 하되 그중에서도 수명 연장으로 인한 의료비, 연금 등을 보강하는 게 좋다</span>”고 말했다. <br/>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95.txt

제목: 감동적인 태국 광고 영상 BEST6  
날짜: 2015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30100000185  
본문: [믿고 보는 동영상]<br/><br/>유튜브로 전세계의 영상 경계가 사라지면서 우린 실시간으로 외국의 좋은 영상을 볼 수 있다. 덕분에 외국의 재미있는 광고도 쉽게 모바일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30초 남짓 되는 광고는 짧지만 강렬한 인상과 감동을 남기기도 한다. <br/>최근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는 의외로 태국의 광고 영상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언어는 다르지만 그 스토리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 영상은 SNS를 통해 국경을 뛰어넘어 어디서든 통하기 때문이다. <br/>태국의 광고 영상은 주로 짧은 스토리를 통해 감동을 전하고 있는데, 태국의 독특한 광고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한 광고 회사 관계자는 "태국의 광고주는 계약 체결 이후 광고 제작에 관한 전권을 광고 회사에 위임한다. 광고주는 광고가 공개된 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또는 ‘계약 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고 회사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광고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br/>감동적인 태국의 광고 6편을 소개한다. <br/><br/>6. 도마뱀의 사랑(SHERA 천장재)<br/>https://youtu.be/QuWLijFi\_0s<br/>어두컴컴한 곳에서 재회한 암수 도마뱀은 서로를 부둥켜 안는다. 그러나 이내 갈라진 바닥 사이로 암컷 도마뱀이 추락하고, 세 명의 남성이 바둑을 두고 있는 바둑판에 떨어져 죽는다. 도마뱀이 있었던 곳은 천장이었다. 암컷 도마뱀의 죽음에 충격 받은 수컷 도마뱀 역시 천장의 갈라진 틈 사이로 몸을 던진다. 바둑을 두던 남성들은 “왜 Shera 천장재를 쓰지 않은 거야?”라며 화를 냅니다. 기발한 재미와 독특함으로 해당 광고는 2007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은상을 수상했다.<br/><br/>5. 흡연하는 아이들(태국 금연 공익 광고)<br/>https://youtu.be/g\_YZ\_PtMkw0<br/>‘어른들은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 스스로는 그 사실을 상기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로 광고가 시작된다. 어린 아이들은 담배를 피고 있는 어른들에게 가서 담뱃불을 빌린다. 어른들은 ‘담배는 독을 가지고 있다.’, ‘암을 유발한다.’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타이른다. 아이들은 그 어른들에게 쪽지를 건네고, 쪽지에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적혀있다. ‘당신은 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왜 정작 본인은 걱정하지 않나요?’<br/><br/>4. 청소맨(Garbage Man·타이 생명보험 광고)<br/>https://youtu.be/oujqv98ZsZM<br/>‘내가 되고 싶은 Super Hero’를 그리는 수업시간. 자석, 시간, 전기의 힘을 가지고 싶다는 또래 친구들과 달리 ‘쓰레기 영웅’이 되고 싶다는 학생이 있다. 학생의 그림을 이해할 수 없었던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가서 학생을 찾는다. 이에 친구들은 학생이 엄마를 도와 길가의 쓰레기를 청소하러 갔다고 전한다. 아이의 숨겨진 스토리를 들은 선생님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동하게 된다.<br/><br/>3. 말 없이 주는 것이 최고의 소통이다(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태국 통신사 True move H 광고)<br/>https://youtu.be/P2YLwXnD7xE<br/>아픈 엄마를 위해 약을 도둑질하던 소년은 한 부녀의 도움을 받아 약과 죽을 얻는다. 어느 날 소년을 도와준 남성이 쓰려져 병원이 실려 가고, 그의 딸은 큰 액수의 진료비를 떠안는다. 그러나 딸은 진료비가 모두 지불되었다는 영수증을 받는다. 남성을 진료한 의사는 30년 전 약을 훔치다 남성의 도움을 받은 소년이었던 것. 이 광고는 존스홉킨스의 창단 멤버인 하워드 캘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br/><br/>2. 더 가까이(Closer·LINE 태국 광고)<br/>https://youtu.be/MqZkKU3Lt6s<br/>이 광고는 어머니를 여읜 슬픔과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딸에게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라인을 사용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받았다. 특히, 이 CF는 ‘More Line, Much Closer’라는 주제로 태국 이용자들로부터 접수 받은 실제 이용담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더욱 큰 감동을 선사했다. 광고는 2014년 제 61회 칸 국제 광고제에서 동상을 수상했다.<br/><br/>1. 소리 없는 사랑(Silence of Love·타이 생명보험 광고)<br/>https://youtu.be/p7cRw2dspGw<br/>소녀의 아버지는 벙어리이다. 소녀는 남들과 다른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 받고, 남자친구와 싸운다. 단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그녀는 자신의 생일날 ‘자살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아버지는 딸을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 딸을 위해 자신의 피를 써달라고 한다. 마지막 멘트가 가슴을 울린다.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완벽하게 사랑합니다.’<br/><br/>김연수 인턴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3)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96.txt

제목: 봄날, 한강공원이 부른다  
날짜: 20150329  
기자: 김기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29100000045  
본문: 인공암벽장 무료 등 프로그램 다양<br/> <br/> 4월 서울 한강공원을 찾으면 전시와 공연부터 암벽등반, 문화장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봄을 만끽할 수 있다.<br/>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반포 달빛무지개 분수와 여의도 물빛광장 분수가 가동되고, 전시공연장인 광진교 8번가와 뚝섬 ‘자벌레’에서는 봄맞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br/>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하지원과 윤상현이 함께 암벽등반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뚝섬 인공암벽장도 1일부터 11월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입문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은 암벽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미가입자는 6,000원으로 하루 단기보험에 들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높이 3m 이하인 볼더링 암벽은 암벽화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규 코스인 빌레이 암벽(3m 이상)은 안전벨트 등 개인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br/> 뚝섬 자벌레에서는 김춘추 시인의 ‘꽃’을 주제로 한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전시회, 광진문인협회 소속 시화 창작자들의 시화전, 지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사진전 등 전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br/> 광진교 8번가에선 1일부터 이종우 개인전이 열려 산책을 테마로 한 20여 점의 서양화 작품을 선보인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영화가 상영되고 주말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열린다. <br/> 한강공원 7곳에선 11월 초까지 친환경 농축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한강문화장터가 운영된다. <br/> 고홍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span class='quot0'>가까운 한강공원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문화생활도 즐기고 먹거리도 맛보면서 봄을 만끽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br/> 김기중기자 k2j@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97.txt

제목: 졸리 암 예방 위해 이번엔 난소·나팔관 제거  
날짜: 20150325  
기자: 김범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25100000073  
본문: 할리우드 톱스타 앤젤리나 졸리가 난소암 예방을 위해 난소와 나팔관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br/> 졸리는 이날 뉴욕타임스에 '앤젤리나 졸리 피트: 수술 일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자신에게 유방ㆍ난소암 위험을 높이는 BRCA1 변이유전자가 있으며 난소암 발병 확률이 50%에 달해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했다고 밝혔<br/> 졸리는 "친인척에게 암이 발생한 시점보다 10년 전에 예방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의료진이 권고했다"며 "내 어머니는 49세 때 난소암을 진단받았고 나는 39세다"라고 말했다. 졸리의 어머니인 배우 마르셀린 버트란드를 비롯해 졸리의 외조모와 이모들은 모두 난소암으로 사망했다.<br/> 졸리는 "유방절제술보다는 복잡하지 않은 수술이었지만 수술의 영향은 더 심각했다"며 "이 수술을 받은 여성은 폐경기를 겪게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게 되지만 "더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고 신체적인 변화도 느껴진다"며 폐경기의 영향을 설명했다. 졸리는 2013년에는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양쪽 유방 절제 및 재건 수술을 받은 바 있다.<br/><br/> 김범수기자 bskim@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98.txt

제목: [오늘] 내 피가 희망의 증표가 되고…  
날짜: 2015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25100000046  
본문: 엘 살바도르의 로마 가톨릭교회 대주교 오스카 로메로(1917~1980)가 숨진 지 만 35년이 됐다. 남미 해방신학의 상징적 존재로 빈자의 생존권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로메로 대주교는 80년 3월 24일 프로비덴시아 병원 경당에서 말기 암환자들을 위한 미사를 집전하던 도중 군사정권에 의해 암살됐다. 당시 레이건 미 행정부는 좌파 인민해방전선을 견제하기 위해 우파 군사독재정권을 지원했다. <br/> 끊임없는 암살 위협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는 피살 전날 인터뷰에서 “순교는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생명의 희생을 받아주신다면, 내 피가 해방의 씨앗이 되고 곧 현실로 다가올 희망의 증표가 되기를 바랍니다”라 말했다. 하느님은 뜻은 알 수 없으나 로마 교황청은 무려 35년 뒤인 지난 2월에야 그의 죽음을 순교로 인정했다. 시복식은 5월 23일 엘 살바도르에서 열린다.<br/> 하지만 교황청 조치 이전부터 엘 살바도르의 시민들에게 그는 ‘산(sanㆍ聖) 로메로’였다. 가톨릭 교회 바깥, 예컨대 영국 국교회와 루터파 일부 개신교단도 그를 성인 달력에 등재해 기리고 있다. 런던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에는 20세기 순교자 10인 가운데 한 명으로 그의 성상이 서 있다. <br/> 그가 숨진 뒤 태어났을 한 청년이 추도식 영정 그림을 그리고 있다.<br/> 최윤필기자 proose@hk.co.kr 산 살바도르=AP 연합뉴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799.txt

제목: 유전자 검사로 암 걸릴지 예측… 유전상담 한번 받아볼까  
날짜: 2015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2210016810122  
본문: 분석 기술 발달하고 비용 싸져 확산… 줄리, 돌연변이 발견해 유방 절제술<br/>유전성 유방암·대장암 상담 많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과제도 남아<br/> <br/> 질병치료는 예방이 최선이다. 각종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있다면 발병을 미리 막거나, 적어도 효과적인 대처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예측 능력이다. 나와 가족에게 어떤 질병이, 언제쯤, 얼마의 확률로 발병할지 정확히 알아내기는 현 의학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의학ㆍ과학 기술은 날로 진보하고 있다. 분자생물학ㆍ세포유전학적 분석 기술 발달로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 유형과 발생 기전이 속속 밝혀지면서 질병의 위험률 예측 능력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제네릭 카운슬링(genetic counselingㆍ유전상담)은 이런 흐름에 따라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의료 서비스다.<br/> 국내에서 유전상담의 역사는 길지 않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1990년대 임상에 도입됐고, 현재 미국 대형병원들에서는 이를 위한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 한 상태다. 할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방암 발생에 관여하는 BRCA1 유전자 돌연변이를 발견, 유방 절제술을 받으면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br/> 현재 각종 암 중에서 유전상담이 가장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분야는 유방암과 대장암이다. 암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가장 많이 발견된 분야들이다. 전체 암의 5~10%가량은 유전이 원인이고, 이런 유전성 암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총 150개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 현재 암 환자에게 유전상담을 하고 있는 국내 병원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암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속속 추가되고 있고,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ㆍ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전체 분석이 예전보다 한결 쉬워지고 값싸지면서 유전상담에 관심을 쏟는 병원과 의사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br/> 유전상담은 단순한 유전자 검사만은 아니다. 유전질환을 앓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해당 질환이 무엇인지, 증상과 경과는 어떤지, 대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환자의 특정 질환 위험도를 평가하거나, 환자나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이에 포함된다.<br/> 적용 대상 암종은 병원마다 다르다. 암 유발 유전자가 뚜렷한 유방암과 대장암에 집중하는 병원이 대다수인 가운데, 더러 모든 암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br/> 김열홍 고대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가족성 대장암 유전자에 주목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해 12월 대장암 확진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전상담을 시작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임상연구 결과 전체 대장암 환자의 5~7%가량은 가족성 유전자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가족성 대장암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경우 평생에 걸쳐 대장암, 위암, 자궁암(여성의 경우)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짐은 물론 그 가족들에서 이들 암이 줄줄이 생겨난다</span>”고 했다.<br/> 대장암에서는 APC, MUTYH, MLH1, MSH2, MSH6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유전성 및 가족성 암으로는 유방암과 난소암이 손꼽힌다. 유방암ㆍ난소암에서는 BRCA1, BRCA2의 돌연변이가 문제의 원인이다.<br/> 박지수 연세암병원 암예방센터 교수는 유전상담의 적응증과 관련해 “<span class='quot1'>다양한 유전성 암과 가족성 암 환자들이 대상</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그 중에서도 유전성 대장암과 유전성 유방암ㆍ난소암의 진료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span>”고 했다. 유전성 대장암은 가족성 샘종 폴립증, 약화형 가족성 샘종 폴립증, 유전성 비용종성 대장암 등을 포함한다.<br/> 김종원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적용 대상 분야를 특정 암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현대 의료체계는 특정 장기나 시스템이 중심이지만, 유전자는 모든 세포에 존재하므로 모든 장기와 시스템이 암 발생의 후보</span>”라면서 “<span class='quot0'>분석 대상을 한정 짓지 않아야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가능하다</span>”고 이유를 밝혔다. <br/> 진단은 분자유전 및 세포유전학적 분석을 통하는데, 분자유전학적 방법으로 염기서열 분석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환자의 병력과 가족력을 토대로 조직검사를 해 이상 유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혈액검사를 통한 정밀 분석으로 확진하는 것이 보통이다.<br/> 검사 비용은 유전자와 검사법의 종류, 카운슬링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유종하 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검사 비용은 유전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50만 원 선이고 암 환자일 경우 이중 5%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다</span>”고 했다. 박지수 교수는 “<span class='quot3'>유전자 검사에 따라 본인부담이 5만~110만 원 정도</span>”라며 “<span class='quot3'>카운슬링에 대해 기본 진료비 이외에는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span>”고 했다. 김열홍 교수는 “<span class='quot4'>유전자를 하나 하나 분석해야 하는 지금의 검사법은 유전자당 35만 원</span>”이라며 “<span class='quot4'>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새로운 검사법으론 10가지를 한꺼번에 보는데도 50만원이면 된다</span>”고 했다. 김종원 교수는 “<span class='quot5'>유전상담의 범위를 단순 유전자 검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비용이 10만~1,000만 원으로 크게 달라진다</span>”고 했다. <br/>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59%)은 자신의 전체 유전자를 해독하는 전장 유전자검사를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유전상담이 보다 널리 이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보험 적용을 통한 비용 낮추기, 유전자 이상에 따른 공포감 해소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br/> 유전상담의 확산에는 기대와 우려도 엇갈리고 있다. 김열홍 교수는 “암에 잘 걸릴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일은 환자에게 커다란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 대물림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현명하다”며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에 대한 보험 적용 등을 통해 검사 비용을 좀 더 낮춰야 한다”고 했다. 박지수 교수는 “<span class='quot3'>전문인력을 배출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유전상담에 대한 합당한 수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span>”고 했다.<br/> 유종하 교수는 “<span class='quot6'>유전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신장, 지능, 체질 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6'>무분별한 유전자 검사는 외려 유전자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span>”고 했다. 김종원 교수는 “<span class='quot5'>제네틱 카운슬링은 우리 사회의 법적, 사회적, 윤리적 기준과 부합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5'>유전상담이 없는 유전 검사와 진단은 환자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span>”고 했다. <br/> 송강섭기자 ericsong@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00.txt

제목: '산맥' 넘어 함께 잔 기울이던… 두 '거인'의 재회  
날짜: 2015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22100000077  
본문: 50년 넘게 카메라의 앞뒤에 각각 서 있었던 이들은 오래 전부터 충무로를 상징했다. 이름 앞에 ‘국민’이라는 수식이 붙곤 했다. 숱한 별들이 떴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내달 9일 개봉하는 영화 ‘화장’은 그들의 빛나는 이력이 덧없지 않았음을, 앞으로도 꽤 오래도록 그들의 깊이 있는 활기가 스크린에 새겨질 것임을 시사하고 예고한다. ‘취화선’(2002)이후 13년 만에 ‘화장’으로 의기투합한 임권택 감독과 배우 안성기를 지난 19일 오후 서울 사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br/> <br/> -둘이 다시 영화로 만났을 때 감회가 달랐을 듯하다.<br/> 임권택 감독(임)= 오랜 세월 영화를 같이 해온 사이이고 어떤 연기자인지 잘 알아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 동명 원작소설을 영화화하는 과정이 내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 든든한 동지와 함께 한다는 기분이었다. <br/> 안성기(안)=‘오염된 자식들’(1982)이후 ‘태백산맥’(1994)에 출연할 때까지 10년 넘게 감독님과 함께 하질 못했다. ‘왜 안 불러주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마땅한 작품도 없었다. 아마 내게 맞는 영화가 있었으면 분명 불러주셨을 텐데. 종종 뵙지만 작품으로 뵈니 기뻤다.<br/> -소설 ‘화장’의 어느 점 때문에 연출을 했고 출연 결심을 내렸나.<br/> 임=오랫동안 영화감독으로 일하면서 알게 모르게 임권택의 틀이 생겼다. 내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의 수난사나 판소리를 담은 내 옛 영화들을 훌쩍 벗어나 ‘화장’으로 일상의 모습을 한번 담고 싶었다. <br/> 안=예전부터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애독한다(‘화장’은 2004년 이상문학상 수상작이다). ‘화장’은 굉장히 섬세하면서 문학, 예술적으로 아주 깔끔한 단편이라 읽을 당시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다. <br/> <br/> 영화 ‘화장’은 암환자 아내(김호정)를 4년 동안 간호해온 오상무(안성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오상무는 회사 여직원 은주(김규리)와의 일탈을 잠시 꿈꾸기도 하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다. 대기업 임원이라는 번듯한 직함과 10억대의 주택, 별장까지 지녔으나 삶은 건조하다. 영화는 흔들리는 마음을 누르며 아내를 간호하고 업무를 보고 장례를 묵묵히 치러내는 오상무의 고독한 삶을 차갑게 그려낸다. 인생 대부분을 효율을 따지며 사무적으로 살아온 한국 50대 남자들의 삶이 담겼다. 오상무가 투병에 힘겨워하는 아내를 붙잡고 소변을 보도록 돕는 장면, 아내의 대변 처리를 위해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 등이 매우 세세하게 묘사돼 관객들을 상념에 젖게 한다. <br/> <br/> -노출을 마다하지 않으며 투병과 간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br/> 임= 스위스에서 유명한 한 의사가 내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했다고 얘기했다. 사실감이 있어 무척 좋다고 했다. (영화 속에 묘사된) 투병과 간호 과정을 자기 간호사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실감을 놓치면 영화가 공중으로 뜬다고 생각했다. <br/> 안=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영화였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현실감 있게 그려지면서 가슴을 친다.<br/> -영화 촬영 중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br/> 임= 원작의 힘, 박력이라고 할까. 소설은 오상무의 의식세계를 엄청난 힘으로 그려냈는데 그걸 영상으로 옮기기가 어려웠다. <br/> 안= 오상무의 감정을 쌓아두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다. 촬영 후에도 흐트러지지 않게 감정을 가둬두어야만 했다. 회사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중증 전립선 비대증에 따른 고통, 아내의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마음이 뒤섞여 연기가 나와야 하니 힘들었다. <br/>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br/> 임= 오상무가 욕실에서 소변보는 아내를 돕는 장면이다. 오래 살아온 부부이면서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아내의 자존심 같은 것, 고통 받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미안함을 제대로 전하려면 배우의 치부가 얼핏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했다. 내 영화 인생에서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장면이다.<br/> 안= 개인적으로는 오상무가 회식 때 춤추는 은주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장면을 좋아한다. 감추고 싶은 오상무의 속마음을 카메라가 훔쳐보는 느낌을 준다. <br/> -‘국민감독’ ‘국민배우’로 불리니 부담은 없었나.<br/> 임= 이렇게 오래 이 나이까지 많은 편수의 영화를 해낸 것을 보면 우리에 대한 큰 실망감이 없었던 듯하다. 나이 들면서 사회에 밝고 건강하게 기여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게 우리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br/> 안= 관객이 기대하는 것만큼 배우로서, 인간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다. 열심히 연기하라는 걸로 받아들인다. 나는 어차피 제작도 안 하고, 감독도 되지 않고 배우만 할 생각이니까 그리 부담은 없다.<br/> -둘 다 100편 이상의 영화를 연출하거나 출연했다. 장수의 비결은 무엇인가?<br/> 임= 나는 워낙 영화를 좋아하는 인간인데 평생을 영화 만들면서 살았으니 엄청난 행운이다. 관객의 지지가 없어서는 불가능한데 내가 지지를 받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br/> 안= 영화만 쭉 했기 때문에 영화배우라고 믿음을 주는 게 있는 것 같다.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영화에서 보여주는 매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노력도 했다.<br/> -둘이 함께 한 영화 중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인가?<br/> 안= ‘만다라’(1981)와 ‘축제’(1996)다. 특히 ‘축제’는 제 친척들이 보고선 많이 울었다. 전화도 많이 받았다. 여러 연기자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속에서 튀지 않고 평범하나 인간적인 모습을 연기할 수 있어 아주 좋았다.<br/> 임= ‘축제’는 ‘서편제’의 소설가 이청준의 소설로 만든 영화인데 이청준이 기대를 많이 했다. 그가 영화를 본 뒤 (‘서편제’보다) 한참 위라고 했다. 그런데 흥행에서 아주 작살이 났다(웃음). 그래도 (영화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축제’ 이야기를 한다.<br/> -둘이 함께 영화 찍으며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br/> 임= ‘만다라’ 촬영 때다. 두 승려에 대한 영화인데 주인공들이 영화 밖에서도 수도자의 고행을 겪었다. ‘이야, 저 사람들(전무송 안성기) 독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정도였다. 법운(안성기)이 산사를 태우는 마지막 장면을 국립공원 안에서 찍었다. 잘못해 불이 번지면 전부 철창에 들어갈 수 있었다. <br/> 안= 처음엔 불을 넣을 때 불이 붙지 않아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도 산밑에 소방차가 한 두 대 와 있었다. <br/> 임= 거리가 멀어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물을 뿌릴 수 없었다. 그냥 불러만 놓은 것이지(웃음).<br/>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박준호 인턴기자(동국대 불교학과 4년)<br/>https://youtu.be/2tJ0X8CeX\_8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01.txt

제목: [카드뉴스] '천원의 밥상' 김선자 할머니가 남긴 사랑  
날짜: 2015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20100000005  
본문: 전남 광주 대인시장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0원짜리 백반을 팔아온 김선자(73) 할머니가 지난 18일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사보기)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밥과 국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천원의 밥상'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김 할머니. 가난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에게 행복을 전해 주던 김 할머니의 뜻대로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br/><br/>-디지털뉴스부·조한울 인턴기자(한양대 영어영문 3)-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02.txt

제목: 주범 문부식·김현장씨 사형선고→특사→투옥 '신산한 삶'  
날짜: 20150320  
기자: 고경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20100000061  
본문: 노무현 1심 변호·이회창 상고심 판결<br/> <br/><br/> <br/> 1983년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방화사건을 배후에서 지휘한 김현장씨와 현장에서 총괄한 문부식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문부식씨를 은닉해준 이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부는 1주일 만에 특별사면으로 김씨와 문씨를 무기로 감형했다. <br/> 문씨는 수감 6년 9개월만인 1988년 12월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그러다 1989년 7월 한미문제연구소 설립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돼 1년 6개월간 복역했다. 계간 ‘당대비평’의 주간 겸 시인으로 활동하던 그는 2011년 진보신당 대변인으로 정치에 발을 담갔다. 하지만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사건으로 대변인을 맡은 지 한 달 만에 사임하고 짧은 정치인생을 끝냈다. <br/> 김씨는 1988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뒤 전민련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내면서 1989년 5월 조선대생 이철규군 변사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누설혐의로 구속돼 7년형을 선고 받았다. 1993년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난 뒤에는 줄곧 5ㆍ18 관련 단체에서 일하다가 199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일본 도쿄대 연구원으로 지냈고 고향 광주에서 개인 사업을 했다. 지금은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 방화에 가담했던 김은숙씨는 출소 후 소설가로 데뷔했다. ‘이성이 잠들면 요괴가 눈뜬다’를 시작으로 작품활동에 전념하다 4년 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br/><br/>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는 여럿이 훗날 정치 거물이 된 인물들도 있다. 부산에서 있던 1심 재판의 변호인단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관으로 판결에 참여했다. 훗날 대통령 후보로 맞붙은 이들이 이 사건과 직간접적 연관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 전두환 정권에 정면으로 맞선 천주교, 재야 법조인들이 있었다. <br/> 고경석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03.txt

제목: [지구촌 책장] 슬프도록 아름다웠던 그들의 첫 사랑 "안녕 헤이즐"  
날짜: 2015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910016808729  
본문: 올해 미국에서 10대 중ㆍ후반 청소년들의 필독서를 꼽으라면 단연 ‘The Fault in Our Stars’이다. 이 책은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도 번역됐다. 8일 기준으로 118주째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청소년 소설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다.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리 집 애가 이 책을 사달라고 하던데, 읽으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사니까 그저 따라서 하는 것 같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br/> 존 그린의 장편소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는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열광할 많은 소재와 이야기를 두루 담고 있다. 암 투병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첫 사랑에 빠진 소년ㆍ소녀의 이야기인데다가 기성 세대에 대한 사춘기 특유의 반항도 녹아 있다.<br/> 이 소설은 말기 암 환자인 16세 소녀 헤이즐이 교회 환자 모임에서 골육종(뼈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다리 하나를 절단한 소년 어거스터스를 만나면서 시작한다. 호흡이 곤란해 산소 탱크가 신체 일부나 다름없고 항암제 부작용으로 얼굴도 부은 헤이즐은 첫 눈에 의족을 한 어거스터스가 맘에 들었지만, 첫 만남에서는 마음을 열지 못한다. <br/> 그렇지만 그들의 진심은 곧 통했고, 둘은 주위의 불안한 시선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안하며 가까워진다. 두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서로와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로 이겨 낸다. 영화도 보고, 게임도 즐기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반항한다.<br/> 급기야 어거스터스는 헤이즐이 평소 동경하는 작가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동행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의지하는 관계는 갈수록 깊어진다.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대화도 나온다. “여행자들은 암스테르담을 죄의 도시라고 하지만, 실은 자유의 도시야. 그런데 그 자유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라는 어거스터스의 말은 미국 청소년들의 즐겨 인용하는 표현이 됐다.<br/> 그러나 추억의 여행은 골육종에서 회복됐다던 어거스터스의 병세를 마지막 상황으로 몰고 간다. 어거스터스는 헤이즐에게 자신의 암이 온 몸으로 펴진 사실을 고백한다. 또 헤이즐이 장례식에 와 주고 자신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소설은 잊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간직되길 원했던 소년의 죽음과 함께 마무리된다.<br/> 이 책은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그렇듯이 지난해 여름 동명의 영화가 개봉된 이후 서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이 됐다. 미국에서의 흥행몰이에 힘입어 한국에서도 지난해 8월 ‘안녕 헤이즐’이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개봉됐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br/> 하지만 자녀 세대들이 열광하는 것과 달리 미국 어른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인터넷 서점의 서평 코너에는 어른들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다. ‘10대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려냈다’ ‘환상적이면서도 재밌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다’ ‘욕설이 많다’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을 부추긴다’는 악평도 있다. 세계 어느 곳이나 자녀 교육은 기성세대의 영원한 숙제인 듯하다.<br/>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04.txt

제목: 고령화 가속… 2040년엔 3명 중 1명이 노인  
날짜: 20150319  
기자: 김현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9100000207  
본문: 65세 이상, 25년 전보다 2.5배로<br/>초중고 사교육 참여는 줄어 68% <br/>주택보급률 지속 증가 103%<br/>살인ㆍ강도 줄고 성폭행 범죄 늘어<br/><br/><br/>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로 현재 인구 10명중 1명 꼴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40년에는 3명 중 1명까지 급증할 걸로 전망됐다. 6년 전 남학생을 앞지른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갈수록 격차를 벌이고 있고, 살인ㆍ강도 등이 줄어든 강력범죄의 공간을 성범죄가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br/> 19일 통계청이 인구, 가구, 노동, 교육, 복지 등 우리 사회 주요 부분의 현 주소를 집계해 발표한 ‘2014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5,042만명)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12.7%)은 전년 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br/> 약 25년 전인 1990년(5.1%)과 비교하면 2.5배 가량 증가한 수치지만 이는 앞으로 25년 후에는 또 다시 2.5배 증가해 2040년 3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불과 50년 만에 인구 100명 중 5명 꼴이던 노인인구가 30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셈이다. 특히 극심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지난해 17.3명에서 2040년 57.2명까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br/> 가계 소비행태에는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255만1,000원)은 전년(248만1,000원) 대비 2.8% 증가했다. 소비 항목 가운데는 ‘식료품ㆍ비주류음료’가 1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통’(13.1%), ‘음식ㆍ숙박’(13.1%), ‘교육’(11.2%)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13%)을 기점으로 꾸준히 줄면서 같은 해 각각 11.9%, 12.7%에 머물던 교통과 음식ㆍ숙박비 비중이 소폭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br/> 교육비 감소는 가구 내 사교육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초ㆍ중ㆍ고교생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2010년(73.6%)에 비해 5.0%포인트 떨어졌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이었다.<br/> 지난해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70.9%로 전년(70.7%)보다 소폭 상승했는데, 여학생의 진학률(74.6%)은 남학생(67.6%)을 크게 앞질렀다. 전통적으로 남학생이 더 높던 대학진학률은 지난 2009년 남학생 81.6%, 여학생 82.4%로 처음 역전된 후, 격차가 2012년 5.7%포인트, 2014년 7%포인트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br/> 소득불평등 정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학계 일부의 주장과 달리 꾸준히 호전되는 추세로 조사됐다. 2009년 0.314였던 지니계수는 2013년 0.302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br/> 2013년 주택보급률은 103%로 전년(102.7%)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주택보급률은 2008년(100.7%) 처음 100%를 넘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br/>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뇌혈관 질환이 인구 10만명 당 50.3명을 기록, 심장질환(50.2명)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2013년 기준 기대수명은 81.94년으로 1990년(71.28년)에서 약 10년 가량 늘었다.<br/> 살인 강도 등 주요범죄가 2013년 기준 50만4,000건 발생해 1년 전(51만건) 보다 1.1% 감소한 가운데, 성폭행이 같은 기간 26.1% 급증한 2만7,000건을 기록했다. <b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05.txt

제목: 따뜻한 1000원짜리 밥상 이어 가겠습니다  
날짜: 20150319  
기자: 고은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9100000144  
본문: 광주광역시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 백반 1000원에 팔던 김선자씨 별세<br/>노점상·일용직 근로자 등 애용… 상인회서 식당 계속 운영하기로<br/><br/><br/><br/><br/>“김선자 할머니의 ‘해뜨는 식당’은 우리 시장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식당이 계속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유지는 받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br/> 전남 광주 대인시장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0원짜리 백반을 팔아온 김선자(73) 할머니가 18일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는 이제 없지만 “누군가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도록 식당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는 유언을 들은 홍정희(65) 대인시장상인회장을 중심으로 한 광주 대인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아 식당을 이어가기로 했다.<br/> 김 할머니는 2010년 8월부터 밥과 된장국, 반찬 세가지로 나오는 백반을 1,000원에 팔아왔다. 주로 찾는 이들은 노점상, 일용직 근로자, 독거 노인 등 가난한 사람들이다. 하루에 찾는 이들만 100명에 달했다.<br/> 할머니가 식당을 연 것은 자신의 자영업 실패가 계기였다. 갖은 어려움을 겪은 후 돈 없어 밥도 못 먹는 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절감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밥과 국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먹을 식당을 차려보자는 생각을 했다. ‘해뜨는 식당’의 재개장을 도왔던 광주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공짜로 밥을 먹으면 눈치도 보이고 하는데 당당하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00원을 받으신 것으로 안다</span>”고 말했다.<br/> 밥 한끼에 1,000원을 받다 보니 가게는 당연히 적자다. 자녀들에게서 받는 용돈과 주위 도움으로 버텨가던 중 2012년에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식당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홍 회장은 “<span class='quot1'>치료비도 없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할머니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span>”며 “<span class='quot1'>시장상인들과 광주신세계백화점 등이 함께 내부를 수리하고 필요한 물건도 지원해 2013년 다시 문을 열었다</span>”고 말했다.<br/><br/><br/><br/> 할머니가 투병 중에는 대인시장 상인들이 돌아가며 식당을 운영했다. 그 사이 할머니의 건강은 다소 호전됐고 지난해 1월부터 식당에 나와 일을 했다. 하지만 지난 설 명절 전후로 건강이 악화해 다시 병원 신세를 지다가 결국 눈을 감고 말았다.<br/> 식당은 늘 적자였지만 광주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도움이 답지했다고 홍 회장은 말했다. 매달 익명으로 20㎏ 쌀 2포대를 보내주는 사람, 화장지나 반찬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었다. 식당에 들러 1,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20만원을 주고 가는 사람도 있다. 설거지, 청소 등 자원봉사자도 식당 운영에 한몫을 했다. 1,000원짜리지만 조미료 없이 조선된장을 사용하는 된장국을 만드는 식당으로 알려져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에서 식사 하기 위해 버스 타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br/><br/> 2남 4녀 유족들은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상인회의 식당 운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요한병원 장례식장에는 김씨를 추모하는 상인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span class='quot2'>천원 밥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배부른 밥상이다</span>”며 “<span class='quot2'>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span>”고 애도했다. 홍 회장은 “수지가 맞을 수는 없다. 적자는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따뜻한 후원들이 있기에 지금까지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분들 덕에 행복하다. 상인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해가겠다”고 말했다.<br/> 김선자 할머니의 ‘해뜨는 식당’처럼 1,000원을 내면 따뜻한 밥 한끼 먹을 수 있는 식당은 드물지만 다른 곳에도 있다. 민간봉사단체 기운차림봉사단운영본부는 서울 경동시장, 경기 광명시장 등에서 1,000원으로 밥과 국, 김치를 포함한 반찬 세 가지를 제공하는 기운차림식당 12곳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선착순 100명 한정이고, 이 식당 역시 후원자들의 물품과 후원금,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된다.<br/>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06.txt

제목: 꼭 봐야 할 아침뉴스 7 (3월 19일 목요일)  
날짜: 2015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9100000022  
본문: 압수수색의 상징 파란박스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 재계 모두 초긴장 상태입니다.<br/>개성공단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br/>청년실업률이 IMF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br/>암울한 봄입니다.<br/><br/>1. 롯데쇼핑 거액 비자금 조성 포착<br/><br/>- 검찰, 2011~2012년 롯데쇼핑서 백화점ㆍ마트 등 수십억 유입 확인<br/>- 자금담당 임직원 10여명 소환 돈 주고받은 이유ㆍ용처 집중수사<br/>- 러 유전개발 사업 수사, MBㆍ盧정권 동시에 겨눈 다목적 카드<br/>- "포스코 수사 불똥 튈라" 포항 정ㆍ재계 초긴장<br/>- 정준양 "다 밝혀질 것" 떳떳한 기색<br/><br/><br/>2. 3대 경제 현안 후속 논의에 탄력… 합의 도출까진 '가시밭'<br/><br/>- 최저임금 인상 : 여 '노동자 급여 50%' 법제화는 반대<br/>-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야 "3자 회동 발표문이 협상의 바탕"<br/>- 공무원 연금 개혁 : 여야정노 4자 접점 도출은 미지수<br/><br/>3. 사드 배치 공론화 급물살… 되레 더 격랑에 휩쓸릴라<br/><br/>- 국방부 "카터 美장관 내달 방한, 사드 문제 거론될 가능성 높아"<br/>- 중국 무시한 채 강행 인상, 中에 외교 보복 시나리오 우려 <br/>- 친이계 "사드 적극 대처" 유승민 엄호<br/><br/>4. 개성공단 임금 갈등 '얼어붙은 봄'<br/><br/>- 입주기업 대표단 방북 면담 불구<br/>- 北, 당국간 협의 건의문 접수 거부<br/>- 정부도 강경모드 일관 해법 감감 <br/><br/><br/>5. "벽에 얘기한 듯" 낯 붉힌 문재인-홍준표<br/><br/>- 무상급식 중단 놓고 팽팽한 설전<br/>- 文 "예산 핑계 의회 뒤 숨지 마라"<br/>- 洪 "대안을 가져오지 그랬느냐"<br/><br/>6. 2월 청년 실업률 11% 돌파… 15년반 만에 최고<br/><br/>- 15~29세 실업자 48만명 넘어<br/>- 정부 "구직 늘고 계절 특성 때문"<br/>- 일각 "기업 투자ㆍ고용 줄어든 탓"<br/>- [사설] 마침내 IMF 위기 때 수준에 달한 청년실업률<br/><br/>7. [단독] 해군 중장, 부대 골프장 캐디에 상습 성희롱<br/>- '버디하면 섹시춤 춰라' 모욕감 줘 <br/>- 해군은 조치 없이 넘겨 은폐 의혹<br/><br/>‘꼭 봐야 할 아침뉴스 7’에서 소개된 기사들은 한국일보닷컴(www.hankookilbo.com)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br/>디지털뉴스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07.txt

제목: 암 예방 수명 연장, 당뇨치료제의 도전  
날짜: 20150318  
기자: 신지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8100000170  
본문: 전 세계 저명한 과학자들이 ‘무병장수’ 실현을 위한 신약 발굴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저렴한 당뇨치료제로 노인성 질환 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br/> 미국 알베르트아인슈타인대 연구진이 알츠하이머와 심장질환, 암 등 노인병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연장할 약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br/> WSJ에 따르면 연구진은 ‘메트포민을 통한 노화 관련 실험’(TAME)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1,000명 가량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당 치료제의 노인병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방침이다. 그런데 ‘메트포민’은 지난 60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당뇨 치료제로, 치명적인 부작용이 없는데다 값도 싸다. <br/>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니르 바질라이 알베르트아인슈타인대 노화 연구소장은 WSJ에 “<span class='quot0'>노화가 심장질환과 암, 당뇨, 알츠하이머 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실질적인 노인병 예방 효과를 얻으려면 노화를 막아야 하는데, 메트포민을 통해 이를 시도해 볼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 TAME 연구진은 이미 메트포민의 효과를 검증했다. 이들은 지난해 영국인 18만명의 의료기록을 활용, 메트포민과 또 다른 당뇨 치료제인 ‘술포니누리아’의 약효를 비교한 결과 메트포민을 복용한 사람들이 술포니누리아를 복용한 이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메트포민을 복용한 71~75세 당뇨 환자들은, 당뇨 환자가 아닌 비교군보다 생존률이 15%나 높았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br/> 메트포민은 노화 중 분비되는 특정 화학물질이 인근 세포에 악영향을 끼치는 독성 물질로 변하는 것을 막는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등지에서는 메트포민 외에도 항암제인 다사티닙과 항염증제인 퀘세틴을 조합해 노화를 늦추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WSJ은 전했다.<br/> 신지후기자 hoo@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08.txt

제목: 건강하게 사는 의학상식, 이영훈 콸콸콸  
날짜: 2015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7100000039  
본문: 건강하게 사는 의학상식, 이영훈 콸콸콸<br/> <br/> 질문 = 전립선 수술을 하면 성기능이 약화 되나요?<br/> <br/> 답변 = 전립선 수술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전립선 암에 걸린 경우에 하는데 각각 수술 하는 방법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 한 후 전립선이 감싸서 좁아진 요도 부위를 넓히는 수술입니다. 이 경우 몸에 보이는 상처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전립선 암이 걸렸을 때 하는 수술은 개복 또는 내시경적인 방법으로 전립선 전체를 완전히 제거하고 요도와 방광을 다시 이어 주는 상당히 큰 수술입니다. <br/> 전립선 암 수술은 전립선을 제거 할 때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을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 손상이 발기 능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신경 보존을 위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도 성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의 치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각광 받는 로봇수술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r/> 반면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엔 발기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안심 해도 됩니다. 희한하게도 성관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성관계 마지막에 정액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성관계시 사정은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정액이 전립선 앞 부분의 요도에 포탄을 장전하듯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전립선이 일시에 조여지며 정액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엔 전립선 부위에 이전보다 넓은 공간이 생겨 정액을 짜 내는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성관계의 절정을 느껴도 정액만 보이지 않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요도에 고여있던 정액은 다음 배뇨 시에 소변에 섞여 나오게 됩니다. <br/> 예전에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시 발기 부전의 우려가 있었다. 지혈을 하기 위한 전기소작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전린섭 주위 신경에 열손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예전보다 지혈도 월등히 쉬워져 열손상이 발생 할 일도 거의 없다가, 기계 자체가 주변 조직에 주는 영향도 매우 적어 발기 부전을 걱정 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br/> 전립선 수술은 질병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전립선 수술이라고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이 멀쩡한 사람을 성 불구로 만들 것 같은 생각은 기우이니 수술이 필요한 경우엔 수술을 꺼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br/> <br/> 이영훈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비뇨기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 <br/> 정리=채준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09.txt

제목: 암세포 죽게 하는 항암물질 ‘아폽토졸’ 개발  
날짜: 20150316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6100000013  
본문: 동물실험까지 완료<br/> ‘아폽토졸’투여한 생쥐 암 발생률 평균 60% ↓<br/> <br/>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의 성장을 저해하고 자살을 유도하는 항암물질을 개발했다. 동물실험을 통해 그 효능도 입증했다. <br/> 연세대 화학과 신인재 교수팀은 16일 열충격단백질70(HSP70)의 작용을 저해하는 물질 ‘아폽토졸(Az : Apoptozole)’을 개발했으며, 세포 실험과 암 모델 생쥐 실험을 통해 이 물질이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과학저널 ‘셀(Cell)’을 발행하는 셀프레스의 화학·생물학 저널 ‘캐미스트리 & 바이올로지(Chemistry & Biologyㆍ3월 13일자)’에 게재됐다. <br/> HSP70은 정상 세포에서는 열충격 등 외부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세포가 죽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암세포에서는 항암제 내성을 강하게 만들어 암세포가 죽는 것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저해제를 개발, 항암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널리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성공한 예는 없는 상태다. <br/>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새로운 HSP70 저해제로 아폽토졸을 개발, 각종 암세포를 이용한 실험으로 이 화합물의 세포 내 작용 과정을 밝히고, 암세포를 이식한 생쥐모델에 투여해 항암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아폽토졸은 암세포 내에서 HSP70이 세포자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인 에이팝-1(APAF-1)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막아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알려진 항암제인 독소루비신(Doxorubicin)을 아폽토졸과 함께 암세포에 처리하면 항암효과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피부에 사람의 폐암과 결장암, 자궁경부암 세포 조직을 이식한 생쥐 모델에 2일에 한번씩 2주간 아폽토졸(4㎎/㎏)을 투여한 결과, 암 조직의 크기가 대조군보다 폐암은 61%, 결장암 65%, 자궁경부암은 68% 감소했다. 또 자궁경부암 세포 조직을 이식한 생쥐에 같은 방식으로 아폽토졸과 항암제 독소루비신을 따로 투여하고, 이어 두가지를 함께 투여한 결과 아폽토졸과 독소루비신을 따로 투여했을 때는 암 조직 크기가 각각 68%와 61% 감소했으나 두가지를 함께 투여했을 때는 8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br/> 신인재 교수는 “<span class='quot0'>아폽토졸을 투여한 경우에는 체중 감소나 설사, 치료 관련 사망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아폽토졸이 기존 항암제 농도를 낮춰 부작용은 줄이고 항암효과는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span>”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또 “<span class='quot1'>이 연구가 효능이 뛰어난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덧붙였다.<br/>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br/> <br/> ◆ 열충격단백질70(HSP70) : 암세포에서 많이 생성되며 암세포가 죽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10.txt

제목: 장기요양 노인 30%, 임종 前 한 달 동안 집중 연명 치료 받아  
날짜: 20150316  
기자: 채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6100000119  
본문: 사망 임박할수록 총 급여비 급증<br/><br/><br/>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고 요양 중 사망한 10명 가운데 3명은 임종 전 한달 동안 집중적인 연명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망 시점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임종 직전까지 고통스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돼 연명 치료 대신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br/>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7월~2012년 12월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인정받고 치료 중 숨진 27만1,474명의 생애 마지막 한달 간의 진료 내역을 분석한 결과 31.8%(7만5,451명)가 연명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br/> 1인당 평균 총급여비 지출은 사망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했다. 사망 12개월 전 1인당 평균 65만원이었던 총급여비는 사망 6개월 전 시점에 118만7,000원으로 2배 가량 늘었고, 사망이 임박한 1개월 동안 208만9,000원으로 증가했다. 진료 내용은 인공적 영양공급이 15.2%로 가장 많았고,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인공호흡 등이었다. 진료 비용에서는 혈액투석이 가장 비중이 컸고, 중환자실 입원, 양전자단층촬영(PET) 순으로 나타났다.<br/>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신청해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인정받는다. 1~3등급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용시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br/> 노인장기요양등급 전체 대상자의 99.3%(26만9,531명)가 사망 전 1년 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입원비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받은 1인당 평균 급여비는 1,425만원이었다.<br/> 사망원인은 순환기계 질환(29.8%)이 가장 많았고,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호흡기계 질환(11.6%) 등의 순이었다.<br/> 사망한 노인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특히 고혈압(44.3%)과 치매(42.3%), 당뇨(22.5%)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등급 인정 후 사망까지 평균 수급기간은 516.2일이었으며, 등급 인정 후 1개월 이내 사망한 경우는 8.7%, 6개월 이전 사망은 31%, 1년 이내 사망은 45.6%, 1년 이상 생존한 경우는 54.4%, 3년 이상 생존한 경우는 12.7%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60.6%,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이 74.7%를 차지했다.<br/> 이들의 사망장소는 의료기관이 64.4%로 대부분 병원 치료 중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택(22%), 사회복지시설(9.2%), 병원이동 중 사망(4.2%)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주수발자는 자녀인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23.6%), 간병인(23.2%)의 순이었다. 연구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사망자가 40.9%나 되는 만큼 노인들이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임종 케어를 포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br/> 채지은기자 cj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11.txt

제목: [최춘석 톡톡 재테크] 월드컵은 4년마다……보험은 3년마다  
날짜: 201503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510016796594  
본문: 1930년 첫 대회 이후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다. <br/> 이와 유사하게 보험사도 3년마다 축제는 아니지만 수익구조 관련 큰 공사를 한다. 과거에는 5년마다 시행하다가 질병 관련 발병률과 생존율이 급변하는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3년마다 변경 작업을 하고 있다. 첫째, 위험률 변경이다. 사망률, 생존율, 발병률 등 보험료 산출에 기초가 되는 위험률을 4월에 변경한다. 이 때 보통 사망률은 낮아지고, 반대로 생존율은 올라가 이로 인해 연금개시 시 받는 종신연금액이 줄어든다. 즉 국민연금처럼 수급자가 많아지면 받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처럼, 생존율이 올라가면 종신연금액이 줄어드니 변경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각종 의료비 관련 수술, 입원 등의 발병률이 올라간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축소되므로 마찬가지로 변경 전 가입이 유리하다. <br/> 둘째, 저금리 기조에 따라 미래의 보험사 자산 운용 능력을 감안하여 예정이율 및 최저보증이율도 함께 검토한다. 검토를 한다는 것은 보통 내려간다는 의미이다. 이율이 내려간다는 말은 할인율이 내려감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료 인상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변경 전인 3월 가입이 더욱 더 중요하다. 만일 이미 가입해 놓은 상품이 있다면 현명하며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다. 만일 없다면 지금 당장 준비를 해야 한다. 축구에서 골대를 지키는 골키퍼처럼, 수많은 질병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축구공처럼 날아 왔을 때 슈퍼세이브로 막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11명 축구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듯이 보험도 역할이 있다. 수비를 담당하는 든든한 DF와 유사한 역할로, 암과 같은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다. 상대방 공격 시 DF라인이 뚫리면 골을 준거나 다름 없다. 마찬가지로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많은 비용 지출과 주 수입원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최대한 고액으로 가입하여 가정의 든든한 DF용 건강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또 다른 포지션으로 상대방 공격을 차단하고 우리 팀의 공격 시발점인 MF가 있다. 보험으로서의 MF인 주기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은 질병 침투를 사전에 막아준다.<br/> 혹자는 보험을 가입했지만, 한번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만일 여러분이 축구 수비수라면 상대방의 공이 오는 것이 좋은가? 안 오는 것이 좋은가? 보험은 가입했지만 이왕이면 건강한 것이 돈 버는 것이다. 최근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에서는 주요 3대 질병을 100세까지 보장하고, 보험료납입이 끝나면 바로 동일한 납입기간 동안 건강관리 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 스테디셀러로 판매되고 있다. 혹시 은행에 가면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br/> 최춘석 하나생명 마케팅기획부 차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12.txt

제목: 갑상선암 급증은 과잉 진단 탓? 무증상 땐 초음파 검사 안 한다  
날짜: 201503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310016796511  
본문: 발병률 매년 25%씩 급증 불구 사망률 10만명당 0.7명 유지<br/>환자들 수술 취소 등 부작용… 의사들은 "검진 필요" 반발<br/> <br/> 과잉 검진 논란을 빚고 있는 갑상선암을 알아내는 데 증상이 없는 성인은 초음파를 통한 갑상선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제정위원회(제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갑상선암 국가검진권고안’을 마련, 다음달 대한의사협회지에 공개하기로 했다.<br/> ‘순한 암’으로 불리는 갑상선암은 치사율이 높지 않을뿐만 아니라 조기 발견해도 사망률을 낮추지 못하고, 평생 호르몬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갑상선암 과다 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갑상선암 과다 진단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정부와 의료계에 촉구해 제정위가 마련됐다.<br/> 하지만 대한갑상선학회는 “<span class='quot0'>갑상선암 발병 급증은 조기 진단만으로 설명하기 곤란하고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도 있고, 치료계획은 제반 사정을 감안해 경제논리가 아닌 순수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제재는 위험하다</span>”고 반발하고 있다. 갑상선암 수술을 집도해 온 외과의사들도 “<span class='quot1'>일선 의료현장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암 환자가 수술을 취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span>”고 반대했다.<br/> <br/> “<span class='quot2'>갑상선암 급증, 과잉 진단 탓</span>”<br/> 제정위는 지난해 8월 14일 공개한 초안처럼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는 초음파를 통한 갑상선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제정위의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무증상 성인에게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 검사는 권고하거나 반대할만한 의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해 일상적 선별 검사로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다.<br/> 최종 권고안은 ‘갑상선암 검진의 잠재적 이득’에 대해 ‘초음파 검사는 촉진(觸診)에 비해 갑상선 암의 조기 발견에 더 유리하므로 질병의 중증도 및 치료 강도(수술 범위, 방사선요오드 투여 여부, 갑상선 호르몬 복용 여부 및 용량)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로 했다. 초안에서는 ‘갑상선암의 95% 이상은 진행이 매우 느리지만, 드물게 빠르게 자라는 일부 갑상선암의 경우 검진을 통해 조기 치료를 받음으로써 질병의 중증도와 사망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로 명시한 바 있다.<br/>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 권고안을 마련한 김열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과 과장은 “<span class='quot3'>지난해 8월에 만든 초안이 바뀐 부분도 있지만 무증상 성인에서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은 권고하지 않는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span>”고 했다. 김 과장은 “<span class='quot4'>건강검진은 건강한 대중을 대상으로 권고해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득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4'>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검진을 포함한 예방적 의료서비스가 근거가 불충분하다면 일상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span>”고 했다.<br/> 안형식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span class='quot5'>1988~2011년 우리나라 암등록병원에서 보고된 암환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ㆍ분석한 결과, 갑상선암 발생률과 검진율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5'>하지만 갑상선암 진단 증가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아 갑상선암 발생은 과진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pan>”고 했다.<br/> 신상원 고려대 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와 이재호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영국 의학저널 랜싯(Lancet)에 기고한 ‘한국의 갑상선암 과잉진단과 검진’이라는 글에서 “<span class='quot6'>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이 매년 25%씩 폭증하는 이유는 암 검진을 권장하는 한국의 의료시스템 탓</span>”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년 간 한국인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매년 25%씩 급증했지만, 지난 30년 간 갑상선암 사망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과잉 진단 근거로 “한국에서 1㎝ 미만 크기의 갑상선암 비율이 1962년 6.1%에서 2009년 43.1%로 폭발적인 증가 양상을 보인 데 반해 같은 기간 갑상선암 사망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r/>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영돈 가천의대 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5'>일본 논문에 따르면 1㎝ 이하로 갑상선 암을 진단 받은 후, 3㎜ 이상 커지는 경우가 5~10년에는 15.9%에 불과하지만 15년이 지나면 45% 이상에서 커졌다</span>”며 “<span class='quot5'>작은 갑상선암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도 그 또한 ‘호랑이 새끼’라 내 아이를 해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키우지 않아야 한다</span>”고 권고안에 반대했다. <br/>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span class='quot7'>마치 갑상선암은 증세가 있어야만 진단할 수 있고, 미세한 종양은 수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호도하는데 검진 목적은 원래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 생명을 보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에 비용과 생존율만 따져선 안 된다</span>”고 했다. <br/> <br/> 갑상선암 95% 이상, 진행속도 느려<br/> 통상 갑상선암의 95% 이상이 진행속도가 느리다. 일부 빠르게 자라는 갑상선암의 경우 검진을 통해 조기에 치료를 받아 병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문제는 검진의 이점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다.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아 수술하면 평생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 것은 물론, 2.3% 정도가 목소리가 변하고, 7% 정도는 손발저림으로 지속적으로 칼슘제와 비타민D를 먹어야 한다.<br/> 제정위가 갑상선암 검진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검진 이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진을 받은 성인이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1㎝ 미만의 갑상선암 발견율은 높았지만 암세포의 임파선 침범 여부나 원격 전이 여부 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r/>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갑상선암 환자가 크게 늘었다. 인구 10만 명당 갑상선암 환자(2012년 기준)는 여성 88.6명, 남성 17.3명이나 됐다. 갑상선암을 조기 진단하지 않는 일본(여성 6.5명, 남성 2.2명)이나 영국(여성 4.9명, 남성 1.5명)보다 15배 정도 많다. 초음파 진단을 많이 하는 편인 미국(여성 20.2명, 남성 6.4명)보다 4배 정도 많다. 하지만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0.5~0.7명 수준에서 10년 넘게 유지돼 왔다.<br/>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13.txt

제목: [읽어보세요] 사회운동단체ㆍ기업의 모순적 공생  
날짜: 20150313  
기자: 강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3100000038  
본문: 사회운동단체ㆍ기업의 모순적 공생 <br/>저항 주식회사 / 피터 도베르뉴 외 지음<br/> <br/> 환경, 노동, 인권, 반전, 성평등, 사회정의 등을 부르짖는 사회운동단체들의 이면을 들여다 본 책이다. ‘저항 주식회사’라는 책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저항운동이 기업이나 정부, 시민들로부터 후원?협력을 받기 위해 기업화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담았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세계에서 알루미늄과 유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코카콜라와, 핑크리본 캠페인으로 잘 알려진 수잔코멘유방암 재단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패스트푸드 업체 KFC와 파트너십을 맺는가 하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환경보호단체 시에라클럽은 오히려 환경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러 온 가스산업에서 몇 년에 걸쳐 수천만 달러를 후원받았다. 저항운동이 비즈니스로 전락해 기업과 공생하는 모순적 실체를 날카롭게 꼬집는다. 황성원 옮김·동녘·276쪽·1만4,000원 <br/> 강은영기자 kiss@hk.co.kr<br/><br/>콜럼버스와 이순신 장군의 관계는?<br/>생각의 융합 / 김경집 지음<br/> <br/> “<span class='quot0'>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위키피디아식 지식은 필요 없는 시대, 생각은 자유로운 레고블록이어야 한다.</span>”<br/> 인문학자 김경집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역사적 사건들을 엮어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는 ‘융합적 사고 방법’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콜럼버스와 이순신의 만남.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과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 이 시기는 대항해가 활발하게 펼쳐지던 시대로 서구 열강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총을 지닌 한 포르투갈인이 일본인과 조우하게 되고, 일본은 총 제작기술을 받아들여 조선을 침략하기에 이른다. 저자는 역사, 과학, 신화, 미술,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모든 역사적 순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br/> 더 숲ㆍ495쪽ㆍ1만6,500원<br/>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br/><br/>사진으로 보는 구름의 모든 것<br/>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름사전/ 무라이 아키오ㆍ우야마 요시아키 지음 <br/> <br/> 구름을 사랑하는 두 과학자가 구름 관찰의 표준이 되는 사진 자료집을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10년 동안 준비해서 낸 책이다. 직접 찍은 구름 사진 230여 컷을 중심으로 100여 종의 구름을 소개한 ‘구름 카탈로그’다. 기상예보관이면서 천문학자인 두 사람은 10년째 매일 구름 사진을 찍고 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봄부터 한겨울까지 모든 시간대와 계절을 아우르는 수많은 구름 사진을 비롯해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특이한 구름, 구름 때문에 생기는 무지개, 채운, 달무리 사진도 실려 있다. <br/> 책의 뒤편에는 태양과 달이 구름과 함께 빚어내는 22가지 아름다운 대기 광학 현상, 구름 관찰 요령, 구름을 찍기에 적당한 카메라 렌즈, 구름 사진을 잘 찍는 7가지 노하우를 정리하고 저자들이 사용하는 카메라와 렌즈까지 공개했다. 사이ㆍ304쪽ㆍ2만1,000원<br/> 오미환기자 mhoh@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14.txt

제목: 줄줄 새는 건보료… 외국인 부당수급 年 7500억원  
날짜: 20150312  
기자: 채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2100000015  
본문: 친인척·지인 명의 등 도용, 중증질환 치료 후 먹튀 출국 <br/><br/>수십년전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김모(여ㆍ58)씨는 외국 생활 중 췌장암에 걸렸다. 현지의 비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김씨는 2009년 한국으로 돌아와 여동생(53)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그 해 12월부터 2012년까지 51차례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3,400만원의 부담금을 지급했다. 동생 이름으로 치료를 받던 김씨는 결국 사망했고, 서류상 자신이 사망 처리돼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한 여동생이 자진 신고하면서 부당수급 사실이 드러났다.<br/>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외국인과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재외국민에게 2012년 한 해 동안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2012년 내국인을 제외한 건보 이용자는 총 152만410명(외국인 144만5,103명, 재외국민 7만5,307명)인데, 이들이 사용한 건보 재정은 최대 1조191억원으로 추산됐다.<br/>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지출된 건보 급여 중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은 2,696억원이었고,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 등으로 인한 부당수급 액수는 최대 7,495억원에 달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산했다.<br/>정부가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대상자가 된다. 소액의 건보료만 내면 고액의 암, 심장질환 치료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해 건보 혜택만 누리고 떠나는 ‘먹튀족’이 늘어 건보 재정 누수가 생긴다는 지적이다.<br/>특히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면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정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건보 부당수급은 무자격 외국인이나 주민등록 말소자, 국적상실자, 신분노출 우려자 등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해 은밀히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누수 규모는 1조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분석이다.<br/>2008~2013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보험료를 6개월간 내지 않은 외국인이 10.2%였고, 1년까지 내지 않은 경우도 20.6%나 됐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거주지 불명 등의 이유로 부당수급을 받아도 환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은 이름과 주민번호 외에는 사실상 본인임을 확인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전자건강보험증(IC 카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br/>채지은기자 cj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15.txt

제목: 건보 '무임승차' 피부양자 2000만명… 부당수급도 年 17만 건  
날짜: 20150312  
기자: 채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2100000019  
본문: 건보 흑자 늘어도 보장 확대 답보, 부정 사례 전체의 86%나 차지<br/>불법 사무장 병원 관리도 구멍, 공단 측 "시정 권한 없다" 항변<br/><br/><br/><br/><br/>정부는 재정부족을 탓하며 복지 확대가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12조8,000억원의 기금을 쌓아둔 채 유례없는 흑자 행진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건보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해야 정상이다. 흑자가 많이 나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br/> 정부도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0%)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그만큼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건보 보장률을 80%까지 높이는데 12조4,0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br/>과거 건보 재정 적자가 지속되자 정부는 국가가 건보 재정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호법 한시 조항을 만들어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14%는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는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고 지원은 2016년까지이나,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만 8,000억에 달한다.<br/>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건보 재정에 투입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돈이 새고 있다.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부정사용 등 ‘무임승차’가 많기 때문이다.<br/>지난해 12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보험 혜택만 누리는 피부양자는 2,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 꼴이다. 지난 10일 감사원은 2012년 연간 수입이 4,000만원이 넘는 소득자 4,827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건보공단에 관리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br/>부당수급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17만 여건에 달했다. 이 중 내국인의 부당수급이 3만건, 외국인이 14만건으로 집계돼 외국인에 의한 부정사례가 86%나 됐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평균 보험료만 내도록 한 탓에 이들은 암이나 만성질환 등 값비싼 진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은 뒤 다시 외국으로 돌아간다.<br/>무상의료제도가 잘 돼 있는 영국도 치료를 목적으로 몰려드는 이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골치를 앓다가 유상진료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확실할 경우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이들에게 지출되는 건강보험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br/>또 돈벌이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 허술도 건보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화재로 29명의 환자가 사망한 전남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의 경우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의료인력 허위 신고, 입원료 가산 청구 등 불법 행위가 적발돼 지급받은 건보 재정 618억원에 대한 환수와 병원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br/>이처럼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적발된 불법 사무장 병원은 478곳으로, 89%인 426곳이 폐업처리 됐다. 그러나 부당 지급된 건보 급여의 환수금액은 당초 목표인 1,960억원의 9%에 불과한 178억원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도 크게 늘어났는데, 2009년 449억원이었던 부당청구 환수액은 2014년 4,488억원으로 늘어 5년 만에 10배나 증가했다.<br/>부실한 관리 감독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고 있지만 건보공단 측은 “<span class='quot0'>부정사용 등 문제점을 알지만 권한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있다</span>”고 항변하고 있다. 현재 건보 지급 체계에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비용을 청구하고, 심평원이 지불 적합여부를 심사해 건보공단에 통보하면 지체 없이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br/>건보공단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이후 부당청구금을 환수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span class='quot1'>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심사와 지급 기관이 각각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 분리되어 있어 누수를 제대로 잡기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1'>건보공단이 진료비를 청구받아 사전 또는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1'>2014년 심평원의 심사조정률은 0.6%(공단 환수 결정 액수는 5,766억원)에 불과한데 미국, 유럽연합 등의 10분의 1 수준</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건보공단은 수급자격 및 진료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심평원은 고유의 전문성을 살려 급여의 적정성 및 경제성을 심사 평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이에 대해 심평원은 “<span class='quot2'>부정수급은 사후관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해 진료비 청구를 공단이 맡더라도 결과는 비슷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청구와 심사가 유기적 관계에 있는 만큼 인력ㆍ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 체제가 효율적</span>”이라고 밝혔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심평원이 공단에 심사 세부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의신청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분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br/>채지은기자 cj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16.txt

제목: 中 남성우월주의자 비꼬는 신조어 유행  
날짜: 2015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1100000090  
본문: 암덩어리 같은 남성 '지난아이'<br/>인터넷 타고 급속히 확산 <br/><br/>최근 중국에서 온라인에 만연한 여성 차별에 대해 반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고리타분한 남성우월주의자를 비꼬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포린폴리시가 10일 보도했다.<br/> 중국 인기 웹 사이트 도우반과 웨이보에서 등장한 ‘지난아이’(直男癌)라는 신조어는 직역하자면 ‘암덩어리 같은 남성 이성애자’쯤 된다.<br/> ‘지난아이’란 시대착오적이고 편협한 남성중심 사고를 보이는 사람들을 통칭하는데, 중국 포털사이트 소후에는 지난아이의 특성으로 ▦가부장적 ▦광신적 애국주의자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동성애 혐오증 ▦패션감각이 떨어지고 ▦우쭐대기 좋아하는 성격 등이 열거돼 있다.<br/><br/> 지난아이는 올 초에 처음 등장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 1월 중국의 유명 철학자 저우궈핑(周國平)이 “<span class='quot0'>남성은 1,000개의 야망을, 여성은 하나의 야망을 가져야 한다</span>”“<span class='quot0'>여성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할 때에 아름답다</span>”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쏟아내 지난아이란 비판을 받았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중국어로 번역한 린샤오화(林少華) 교수도 학생들에게 “<span class='quot1'>가사노동을 하는 것은 남성의 정신을 무뎌지게 한다</span>”라는 발언을 했다가 지난아이 명단에 올랐다.<br/> 지난 8일 여성의 날에는 중국 대표 검색포털 바이두가 기념 로고 디자인으로 여성을 주체적 존재가 아닌 그저 예쁜 장난감(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오르골 상자 속에 들어있는 공주 인형)으로 표현했다가 지난아이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br/> 지난아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여성 네티즌들은 양성평등을 지향한다. 여성작가 예쒸에마오마오(葉雪猫猫)는 중국 여성들에게 “<span class='quot2'>애인이 지난아이인지 잘 살펴보고 만일 그렇다면 주저 없이 헤어지라</span>”고 조언하며 “<span class='quot2'>그래야 그런 남성들은 유전자 풀에서 사라지게 될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br/> 박병준 인턴기자(서강대 정치외교 4년)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17.txt

제목: 건강하게 사는 의학 상식, 이영훈 콸콸콸  
날짜: 2015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0100000038  
본문: 건강하게 사는 의학상식, 이영훈 콸콸콸<br/> <br/> 질문 =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탈모치료가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br/> <br/> 답변 =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크게 두 가지다. 한 종류는 전립선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전자를 알파차단제라고 하고 후자를 5알파환원억제제라고하는데 후자에 속하는 약물이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 <br/> 남성의 몸 속에 존재하는 남성호르몬이 5알파환원효소를 만나 기존의 남성호르몬 보다 5-10 배정도의 강력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체내에서 이런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 작용을 하는 장기가 전립선과 두피다. 결국 이런 영향에 민감한 체질인 사람에게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노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남성호르몬이 없는 여성에게는 탈모가 생기지 않는 것 이다.<br/> 실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이를 이용하게 되어 나온 약물이 5알파환원억제제인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약물인데, 이 약물이 노인성 탈모와 전립선 비대증이 치료에모두 사용이 된다. 약물은 같은 약물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용량이 다르다.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하는 경우엔 탈모 치료 보다 5배 용량의 약물을 사용하게 되므로, 그 목적에 따른 약물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br/> 이런 종류의 약물은 부작용으로 성욕이 떨어질 수 있고, 전립선 암 검사 시 검사 결과를 원래 상태 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는 영향을 준다. 당연히 사용 전에 전문의와의 상의가 꼭 필요할 것이다. 혹시라도 탈모 치료를 위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전립선 검사 시에 약물 투여 여부를 의사에게 알려 주기를 당부 한다. 부작용을 열거 했지만 실제 부작용을 호소 하는 사람이나 정도가 미미하고 그 효과가 뚜렷해 두 질환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 중인 약물이다. <br/> <br/> 모든 전립선 비대증 약물이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탈모도 그 원인과 형태가 다양한 만큼 각각의 경우 우선 해당과 전문가의 진단 후 사용을 권한다. <br/> <br/> 이영훈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비뇨기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 <br/> 정리=채준 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18.txt

제목: 선심성 복지예산 결국 누더기 변모… 취약계층 더 '벼랑끝'  
날짜: 20150310  
기자: 채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10100000187  
본문: "복지 비중 30% 돌파" 홍보에도 저소득층 위한 증액 고작 41조<br/>표심만 노린 무상급식·무상보육, 예산 설계없이 도입돼 큰 후유증<br/><br/> <br/> <br/>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약 116조원이다. 정부는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 비중이 30%가 넘는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복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4대연금,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의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편성된 순수 복지예산은 4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다. 정치권에선 복지 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오히려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게 복지전문가들의 생각이다.<br/> <br/> <br/> GDP 대비 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이하<br/>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OECD 주요 8개국 사회복지지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0.5%로 OECD 회원국 평균 23.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의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국민부담률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12년 기준 34.7%로, 비교대상인 OECD 20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OECD 평균은 63.9%이며, 우리는 그 절반 수준이었다. 국민들이 세금이나 연금 등으로 부담하는 돈 가운데 복지에 쓰이는 비중이 다른 나라는 3분의 2에 달하지만, 우리는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br/> 결국 사회복지 지출을 조정하기 전에 이른바 ‘복지 대란’을 야기한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 공약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가장 손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복지 공약을 남발해 복지 예산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리면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br/> <br/><br/><br/>예산 증액은 자연증가분에 따른 착시<br/>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복지 예산을 뜯어보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32%, 노인ㆍ청소년 부문 예산은 38% 증가했다. 그러나 세부항목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으로 4,280억원이 새로 책정된 것 외에 다른 항목 예산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장애인을 제외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br/> 노인ㆍ청소년 부문 예산 역시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예산의 자연증가분이 반영됐을 뿐이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급돼 6개월치 예산만 반영된 2014년과 달리 올해는 12개월치가 편성돼 기초연금 예산이 2조4,000억원 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br/>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span class='quot0'>노인인구 증가와 무상보육 범위 확대 때문에 자연 증가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을 빼면 질적인 측면에서 복지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span>”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span class='quot0'>송파 세 모녀 자살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긴급복지 예산이 지난해 499억원에서 올해 1,013억원으로 103% 상승한 것 정도가 눈에 띄지만 불용액이 매년 수백억원씩 발생하는 등 실제 예산을 배정해놓고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현장의 문제점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등 복지 인력이 확충돼야 복지 서비스가 대상자들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는데 정부가 예산문제를 이유로 인력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br/> 정부는 2017년까지 복지 공무원 6,000여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신규 인력 채용이 아닌 다른 직렬 공무원들의 재배치를 통한 충원이어서 여전히 안정된 복지 전달체계 구축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br/> <br/> 간단치 않은 복지 구조조정<br/>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상복지 재조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정치권은 복지예산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도 복지 수준은 예산 조정이 쉽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은 촘촘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어느 한쪽을 뚝 떼어 다른 한쪽을 지원하는 식으로 구조조정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한다.<br/> 지난달 새누리당은 정부 자료를 토대로 7가지 주요 복지사업만 구조조정 해도 연간 12조원이 넘는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평균 3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체납액의 20%를 징수할 경우 2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을 뜯어고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쉽게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다.<br/> <br/> 포퓰리즘에 요동치는 복지 예산<br/>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누리과정(만 3~5세 아동 보육비 지원사업)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정작 무상보육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떠넘기다 보니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은 결국 정부가 예산 일부를 편성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예산 분담에 대한 합의나 관련 규정이 없어 매년 비슷한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br/>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해 지방교육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며 위기를 맞고 있다. 여야가 10일 누리과정 예산 5,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대선 공약으로 도입된 정책이 예산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매년 보육료 걱정으로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다.<br/>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모두 선거를 앞두고 나온 복지 정책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세밀한 설계 없이 도입ㆍ시행돼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진통 끝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은 학교 무상급식도 올해 경남 지역에서는 홍준표 지사의 예산 지원 거부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br/>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제도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큰 관계없이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줄여야 한다고 몰고 나가면 저복지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span>”고 말했다.<br/> 전문가들은 이미 시행된 복지 정책을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사정을 고려해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br/> <br/> 아동 청소년 분야 관련 예산 편성은 소홀<br/>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2년 기준 48.5%로 독일, 영국 등 주요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최고 2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노인 빈곤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좀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생활비 보조가 절실한 노인들에게 좀 더 높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때 연금 액수를 뺀 나머지만 지급받아 ‘줬다 뺐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기초연금은 주요 복지정책 중에서도 예산 투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 됐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소요 비용이 2015년 10조3,000억원에서 2040년이면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br/>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투표권을 가진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반면 투표권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분야 관련 예산은 소외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 계획을 보면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예산은 지난해 353억원에서 올해 334억원으로 오히려 5% 감소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시설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데 반해 2만명 가까이 되는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 재정 문제에서 순위가 밀리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복지정책관은 “<span class='quot2'>장애인, 노숙자, 아동 청소년 지원은 매년 예산부족이 지적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2'>특히 아동복지시설이 전체 복지제도 중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span>”라고 밝혔다.<br/> <br/> 재정 넉넉해도 개선 없는 의료 서비스<br/> 재정이 비교적 넉넉한데도 서비스 면에서 큰 개선이 없는 의료복지 분야를 문제로 꼽는 목소리도 높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민간 공급위주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늘리라는 주문이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국가 보장 공약을 내건 박근혜 정부가 소득 하위 50% 환자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암 환자 지원사업 등의 예산은 깎으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국민건강과의 관련성도 적은 보건산업 육성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외환자 유치 진흥책, 뷰티산업 선진화 등 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부분에 대한 과다한 지출부터 줄이라는 것이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span class='quot3'>정부가 의료비 경감 대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메디텔(의료관광 호텔)설립 규제 완화, 의료비 폭등을 부르는 제약산업 육성 등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span class='quot3'>건강보험의 막대한 적립금으로 지난해 이자 수익만 1,227억원을 올렸는데, 이 돈이면 600병상짜리 종합병원 하나를 세울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그럼에도 장기 입원비 인상 등 환자 복지는 축소하고 있는 게 현실</span>”이라고 비판했다.<br/> 채지은기자 cj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19.txt

제목: 김현주 "강심이처럼 무뚝뚝했던 딸, 후회돼요"  
날짜: 20150309  
기자: 강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09100000026  
본문: 국민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장녀역… "찍으면서 많이 울어"<br/>"촬영 2주 전 대본 미리 나와 상대역 감정까지 분석, 연기 도움"<br/><br/> <br/> 불륜 등 막장 코드 없이 43.1%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지난달 종영한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는 ‘국민 드라마’였다.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아버지 차순봉(유동근)의 절절한 부성애와 철 없는 자녀들의 연기가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br/> 그런데 눈물에 빠진 것은 시청자들만이 아니었다. 장녀 강심 역의 김현주(39)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 “나 역시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돌아가셨기에 자연스럽게 연기에 묻어났다”며 “촬영하면서 많이도 울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 2010년 지병으로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곤 했다는 그는 “생전의 아버지와 대화하기 싫어하며 ‘내가 다 알아서 한다’식으로 말하던 무뚝뚝했던 딸”이라고 말했다. 드라마와 같이 맏딸인 그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후회가 된다”고도 했다.<br/> 그래서인지 ‘가족끼리 왜이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술에 취한 차순봉이 딸의 거짓 임신을 알면서도 “<span class='quot1'>결혼해줘서 고맙고, 입덧도 고맙다</span>”며 유언처럼 말하는 대목이라고. 그는 “<span class='quot1'>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나온 모든 연기자들이 소리 내어 울었다</span>”고 회상했다.<br/> 6개월 간 가족처럼 동고동락했던 배우들과 이별에 아쉬움도 컸다. 그는 “<span class='quot1'>얼마 전 연기자들이 제주도로 포상휴가를 다녀왔는데 서울로 돌아오는 공항에서 서운한 마음 때문에 울기까지 했다</span>”며 휴대폰으로 찍은 동료들과의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줬다.<br/> 김현주는 배우들과 더 끈끈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span class='quot2'>강은경 작가의 빠른 대본 덕분</span>”이라고 공을 돌렸다. 촬영 2주 전에 대본이 나온 덕분에 자신의 캐릭터를 완벽 마스터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대 배우의 감정까지 파악할 수 있어 연기가 안정적이었다는 것이다. <br/> 김현주와 강 작가는 13년 전 SBS ‘유리구두’에서 신인 배우와 신인 작가로 만나 시청률 40%대를 합작했었다. “지금까지 20여편의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처음으로 원 톱 주인공으로 나선 ‘유리구두’는 연기의 맛과 재미를 알게 해 준 작품이었어요. 이번에 다시 만났을 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br/> 30대 후반이 되면서 결혼과 건강 관리에도 신경이 쓰일 법하다. “억지로 하는 결혼은 싫어요.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새는 운동에 빠져서 지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배에 근육을 만들면 꼭 보여드릴게요(웃음).” <br/><br/>강은영기자 kis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20.txt

제목: 꼭 봐야 할 아침뉴스7 (3월 6일 금요일)  
날짜: 2015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06100000011  
본문: 1. 리퍼트 대사 앉은 헤드테이블 뒤쪽서 기습적으로 덮쳐<br/>-한미 혈맹, 핏� 테러 당했다<br/>-김씨, 과격행동 수차례 전력<br/>-역대 최연소 리퍼트 미국 대사는?<br/>-얼굴 상처 길이 11센티, 깊이 3센티..1센티만 더 깊었어도 치명상<br/>-"경호 요청 없어" 불구 돌발상황 무방비<br/><br/>2. 임종룡(금융위원장 후보자)까지 넷 모두..위장전입자 내각될라<br/>-다음주 청문회 앞둔 장관급 후보자 유기준,유일호,홍용표 이어 사실로<br/>-투기 의혹에 "이득 없었다" 사과<br/><br/>3. 주민번호 대체 아이핀마저 해킹에 뚫렸다<br/>-해킹으로 75만건 부정 발급<br/>-못 믿을 시스템, 시민은 불안하다<br/><br/>4. [단독]임권택-강제규 같은날 개봉<br/>-임 감독 102번째 작품 '화장' 강 감독 노년의 사랑 '장수상회'<br/>-배급사 간 힘겨루기 시각<br/><br/>5. "10년째 마트 월급 100만원..여성 노동자가 봉이냐"<br/>-최저임금 증언 대회서 성토<br/>-전체 16.9%는 최저 임금도 못 받아<br/><br/>6. 현대카드, 기아차 할부금융 중단. 왜?<br/>-'형님' 위한 희생?<br/><br/>7. 사망원인 1위 암,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14조<br/>-5대 사망 원인 따른 비용<br/>-사망원인 4위는 자살<br/><br/>'꼭 봐야 할 아침뉴스 7'에서 소개된 기사들은 한국일보닷컴(www.hankookilbo.com)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21.txt

제목: [인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실장 유의동 外  
날짜: 2015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06100000085  
본문: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실장 유의동 ▦산업기획팀장 이상철<br/><br/>◆제주방송 ▦이사 송정일<br/> ◆연세대의료원 의료원▦용인세브란스병원장 박진오 ▦재활병원장 신지철 ▦심혈관계질환 유전체 연구센터 소장 장양수 보건대학원◇주임교수 ▦병원경영학과 이상규 ▦보건정책학과 정우진 ▦국제보건학과 전병율 ▦역학건강증진학과 지선하 ▦보건통계학과 남정모 ▦산업환경보건학과 노재훈 ◇전공지도교수 ▦병원경영 김태현 ▦보건정보관리 남정모 ▦국제보건 김소윤 ▦보건정책관리 박은철 ▦보건의료법윤리 이일학 ▦건강증진교육 김희진 ▦보건통계 박소희 ▦역학 지선하 ▦산업보건 원종욱 ▦환경보건 신동천 의과대학▦의사학과장 여인석 ▦의학교육학과장 전우택 ▦법의학과장 신경진 ▦연세의생명연구원장 백순명 ▦부원장 이은직 ▦강남부원장 정석훈 ▦송당암연구센터장 정현철 ▦연구지원부장 김승일 ▦실험동물부장 남기택 ▦동은의학박물관장 여인석 ◇주임교수 ▦의학공학교실 박종철 ▦내과학교실 한광협 ▦신경과학교실 허 경 ▦피부과학교실 정기양 ▦외과학교실 김남규 ▦흉부외과학교실 백효채 ▦정형외과학교실 강호정 ▦성형외과학교실 유대현 ▦산부인과학교실 배상욱 ▦영상의학교실 김명준 ▦방사선종양학교실 금기창 ▦진단검사의학교실 김정호 ▦응급의학교실 정성필 ◇연구소장 ▦환경공해 신동천 ▦보건정책및관리 박은철 ▦열대의학 용태순 ▦소화기병 송시영 ▦알레르기 박중원 ▦인체조직복원 유대현 ▦세균내성 정석훈 ▦피부생물학 정기양 ▦척추신경 조용은 ▦관절경 최종혁 ▦연의-생공연 메디컬융합 허용민 ▦뇌전증 김흥동 치과대학▦치주조직재생연구소장 조규성 ◇주임교수 ▦구강병리학교실 육종인 ▦구강악안면방사선과학교실 박창서 세브란스병원▦창의센터장 김진영 ▦유전자은행장 김호근 ▦VRE병동 책임관리의사 구남수 ◇부장 ▦내과 한광협 ▦외과 김남규 ◇과장 ▦소화기내과 송시영 ▦호흡기내과 김영삼 ▦내분비내과 차봉수 ▦신장내과 강신욱 ▦알레르기내과 박중원 ▦감염내과 최준용 ▦류마티스내과 박용범 ▦신경과 허 경 ▦정신과 남궁기 ▦유방외과 박세호 ▦갑상선내분비외과 정웅윤 ▦중환자외상외과 이재길 ▦이식외과 김명수 ▦흉부외과 백효채 ▦정형외과 문성환 ▦성형외과 유대현 ▦피부과 정기양 ▦산부인과 배상욱 ▦영상의학과 김명준 ▦진단검사의학과 김정호 ▦응급의학과 박인철 ▦임상약리학과 박민수 ▦건강의학과 김승민 ◇소장 ▦국제진료 인요한 ▦응급진료센터 박인철 ▦임상연구보호센터 라선영 ▦세브란스산업보건의원 원종욱 ▦외상전문의수련센터 이재길 ◇차장 ▦내과계 이상길 ▦외과계 이재길 ▦소아구역 김기환 ▦소화기병센터 김원호 ◇실장 ▦내시경검사 이용찬 ▦당뇨병센터 차봉수 ▦신장병센터 최규헌 ▦장기이식센터 김순일 ▦로봇내시경수술센터 이강영 ▦VIP건강증진센터 정재복 ▦뇌종양센터 장종희 ▦골연부조직암센터 신규호 ▦세포치료센터 김현옥 강남세브란스병원▦차장 최의영 백승혁 ▦적정진료관리실 감염관리실장 정석훈 ▦위식도암클리닉팀장 정희철 ▦유전자은행장 홍순원 ◇진료부장 ▦허종기 이세준 ▦척추병원 진동규 ◇과장 ▦척추신경외과 김근수 ▦척추정형외과 석경수 ▦척추재활의학과 강성웅 ▦호흡기내과 변민광 ▦감염내과 송영구 ▦소아청소년과 김지홍 ▦피부과 김수찬 ▦흉부외과 이성수 ▦신경외과 김용배 ▦성형외과 노태석 ▦안과 한승한 ▦방사선종양학과 이익재 ▦병리과 홍순원 ▦응급의학과 정성필 ▦유방외과 정 준 ▦갑상선내분비외과 장항석 ▦이식중환자외상외과 주만기 ▦소아외과 최승훈 ◇소장 ▦심장혈관센터 임세중 ▦내분비당뇨병센터 안철우 ▦응급진료센터 정성필 ◇원장 ▦치과병원 문익상 ▦암병원 최승호 ◇관리의사 ▦방사선안전 전태주 ▦보건 심재용 치과병원▦구강악안면방사선과장 박창서 용인세브란스병원▦적정진료관리실장 이정은 ◇부장 ▦진료 김형식 ▦교육수련 정수윤 ◇과장 ▦내과 이정은 ▦신경과 홍지만 ▦소아청소년과 오승환 ▦외과 임진홍 ▦정형외과 김형식 ▦산부인과 김혜연 ▦가정의학과 정동혁 ▦영상의학과 정수윤 ▦마취통증의학과 박원선 ▦진단검사의학과 김희정 ▦치과 전국진 연세암병원◇과장 ▦방사선종양학과 금기창 ▦종양내과 안중배 ◇센터장 ▦위암 형우진 ▦간암 최진섭 ▦대장암 안중배 ▦췌장담도암 박승우 ▦식도암 이용찬 ▦폐암 김대준 ▦갑상선암 정웅윤 ▦혈액암 정준원 ▦부인암 김영태 ▦비뇨기암 최영득 ▦두경부암 김세헌 ▦소아청소년암 유철주 ▦개인맞춤치료 백순명 재활병원▦진료부장 김덕용 ▦재활의학과장 김용욱 심장혈관병원◇과장 ▦심장내과 최동훈 ▦소아심장과 최재영 어린이병원◇과장 ▦소아신경과 김흥동 ▦소아정형외과 김현우 ▦소아영상의학과 김명준<br/>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이동훈<br/> ◆차의과학대 ▦전산정보실장 윤 호 ▦도서관장 김은혜 ▦생활관장 이성기 ▦글로벌경영연구원장 신은경<br/> ◆우석대 ▦종합실습장 본부장 마상용 대학장▦과학기술 이홍기 ▦식품과학 오석홍 ▦약학 이미경 ▦보건복지 조성길 ▦문화사회 김주석 ▦체육과학 조현철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22.txt

제목: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죽음의 초미세먼지, 연 1600명 앗아 가"  
날짜: 20150305  
기자: 변태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05100000016  
본문: 8기서 하루 석탄 3만여톤 태워 미세먼지 농도 24시간 '매우 나쁨'<br/>한마을 주민 200여명 중 24명이 암, 발병률 전국 평균보다 5배나 높아<br/><br/> <br/> “암 판정을 받았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 아니겠나.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렇게 해로울 줄 알았다면 애초에 들어서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br/> 2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2리에서 만난 임종석(81)씨는 지난 2011년 폐의 상당 부분을 잘라냈다. 폐암 때문이었는데 이듬해에는 암세포가 위로 전이돼 이번에는 위 절제 수술을 받았다. 임씨는 “<span class='quot0'>저녁에 갑자기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숨이 가빠 병원에 갔더니 폐암 판정을 내렸다</span>”고 했다. 지금 그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올라 농사일은 거의 손을 놓았다.<br/> 하지만 그는 지금도 24시간 내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비산먼지ㆍ미세먼지(PM10)ㆍ초미세먼지(PM2.5)에 직접 노출돼 있다. 이날 측정된 이곳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으로 전국 평균인 나쁨 수준을 웃돌았다. 교로2리 주민들은 마을에서 3㎞도 못 미쳐 8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데다, 두 개의 송전탑이 마을을 가로질러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입을 모았다. 2009년 위암 판정을 받은 임청일(74)씨는 “송전탑 밑에서 형광등을 들고 있으면 불이 켜질 정도로 전자파 영향이 크다”고 불안해 했다. 지금까지 교로2리에서는 30년 이상 거주자 200여명 중 24명(13명 사망)이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1999년 이후 암 진단을 받았다. 전국 평균 암 발병률(2.2%)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수치다.<br/>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교로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급격히 나빠졌다. 이진석(66) 이장은 “<span class='quot1'>가을에 김장을 하려고 배추를 다듬다 보면 속 사이마다 검은 석탄재가 내려 앉아 있다</span>”고 말했다. 임관태(57)씨는 “강한 바람이 불면 석탄화력발전소 회처리장에 야적한 석탄재가 눈처럼 날린다. 돔 건설 등을 요구했지만 당진화력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수년 째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br/> 한국동서발전 산하 당진화력은 현재 교로2리 인근에서 발전용량 50만㎾급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 가동을 목표로 100만㎾급 9ㆍ10호기도 추가로 건설 중이다. 이곳에서 하루에 태우는 석탄은 3만2,000톤에 달한다.<br/> <br/> 매년 1,600명 조기 사망<br/> 심각한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은 값싼 에너지로 각광받아 온 석탄화력발전의 어두운 이면이다. 배출된 분진과 온실가스는 ‘보이지 않는 비수’가 돼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br/> 4일 미국 하버드대와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공동 연구해 발표한 것만 봐도 석탄화력발전의 위해성은 명확히 드러난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3기에서 나오는 PM2.5만으로 뇌졸중(370명)ㆍ허혈성 심장병(330명)ㆍ만성폐쇄성 폐질환(150명)ㆍ폐암(120명)ㆍ기타 심폐질환(120명) 등에 걸려 연평균 최대 1,600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24기가 추가 완공되는 2021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조기 사망자 수가 1,100~2,8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PM2.5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ㆍ1㎛는 100만분의 1m) 이하인 먼지를 뜻하는 데, 이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를 계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대기응용과학연구팀을 이끄는 미국 하버드대 대기화학환경공학과 다니엘 제이콥 교수의 주도로 이뤄진 이번 연구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미세먼지 건강위험성 정량적 평가 모델에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PM2.5 발생량ㆍ예상 배출량을 넣어 계산했다.<br/> <br/> 정부도 “향후 10년간 PM2.5 줄지 않아”인정<br/> 머리카락(50~70㎛)보다 30배 가량 작은 PM2.5는 세포벽을 직접 통과해 여러 신체 기관에 악영향을 준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PM2.5는 만병의 원인”이라며 “<span class='quot2'>폐질환ㆍ폐암ㆍ천식ㆍ뇌졸중ㆍ동맥경화ㆍ심근경색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입증됐다</span>”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PM2.5를 1급 발암물질로 구분한다.<br/>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의 경우 매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PM2.5 등 오염물질로 인해 연간 1만7,000여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 PM2.5의 연평균 농도가 5㎛/㎥ 늘어날 때마다 협심증, 심근경색 등 돌연사로 대표되는 관상동맥질환 발병률이 13%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진화력 인근 주민의 유독 높은 암 발병률 역시 PM2.5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br/> 문제는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보이지 않는 살인자’로까지 불리는 PM2.5의 배출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span class='quot3'>2024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PM2.5의 1차 배출량은 줄지만 질소산화물 등과 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는 2차 생성량이 늘면서 PM2.5 농도는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span>”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현재도 국내 PM2.5 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향후 건강 피해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 2013년 PM2.5 연평균 농도는 25㎍/㎥으로 뉴욕(13.9㎍/㎥)ㆍ파리(15㎍/㎥)ㆍ런던(16㎍/㎥)보다 훨씬 높다. WHO의 권고 기준은 10㎍/㎥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span class='quot4'>수많은 환경문제를 초래하는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br/> 당진=글ㆍ사진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23.txt

제목: 사망 원인 1위 암,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14조  
날짜: 20150305  
기자: 채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05100000122  
본문: 5대 사망 원인 따른 비용, 4년 새 18% 늘어 32조원<br/>사망 원인 4위 자살, 비용 손실은 6조 넘어 2위<br/>질병 우선 보건시스템 개선 필요<br/><br/> <br/> <br/> 암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2년 기준 연간 1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5일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5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대 사망원인으로 인해 지출된 직접비ㆍ간접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2년 32조4,086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당뇨병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직접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입원ㆍ외래치료 등 직접 의료비와 교통비, 간병비 등을 합한 것이며, 간접비는 질병으로 조기 사망할 경우 발생하는 미래소득 손실액과 직장 결근 등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을 더한 비용이다.<br/> 2012년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순위는 암이 146.5명으로 1위이며, 심장질환(52.5명), 뇌혈관질환(51.1명), 자살(28.1명), 당뇨병(23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5대 사망원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27조3,635억원, 2009년 28조1,845억원, 2010년 28조8,860억원, 2011년 31조4,990억원, 2012년 32조4,08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이 기간 동안 18.4%나 늘었다.<br/> 5대 사망원인 중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14조86억원으로 4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자살도 6조4,769억원으로 20%를 차지했는데,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사망률 순위와 다르게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질병 치료에 우선순위를 둔 현행 보건의료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 뇌혈관질환(5조1,297억원ㆍ15.8%), 심장질환(4조186억원ㆍ12.4%), 당뇨병(2조7,748억원ㆍ8.6%) 순이었다.<br/> 사회경제적 비용 중 간접비는 20조1,793억원(62.3%)으로, 직접비(12조2,294억원ㆍ37.7%)보다 1.7배 많았다.<br/> 성별로는 남성 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여성보다 2.5배 많았다. 남성은 23조668억원(71.2%), 여성이 9조3,418억원(28.8%)이었다. 다만 5년 간 추이를 보면 여성 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비중이 증가했다.<br/>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조8,596억원(27.3%)으로 가장 지출 규모가 컸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비용이 줄었다. 50대는 8조6,033억원(26.5%), 40대는 7조3,791억원(22.8%), 30대는 4조3,289억원(13.4%), 20대는 2조1,573억원(6.7%), 10대 이하는 1조803억원(3.3%)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발생했지만, 20~30대에서는 자살로 인한 비용이 컸다.<br/> 채지은기자 cj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24.txt

제목: [인사] 행정자치부 국장급 ▦국제행정협력관 정인균 外  
날짜: 2015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04100000172  
본문: ◆행정자치부 국장급 ▦국제행정협력관 정인균<br/>◆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국립현대미술관 근무(과장직위) 노정동 ▦청와대비서실 박병우 ◇과장 ▦체육관광정책실 국제관광 김근호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 이기정 <br/>◆관세청 국장급 ▦기획조정관 정일석관심사통심사정책국장 이찬기 ◇세관장 ▦서울 서윤원 ▦인천공항 박철구 ▦부산 정재열 ▦인천 차두삼 ▦대구 주시경<br/>◆농촌진흥청 ▦충북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차선세<br/>◆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장 이승학 본부장 ▦임업소득 변재경 ▦목재산업 도금현 ▦산림정보 김재성 팀장 ▦전략기획 강승모 ▦운영지원 오왕수 ▦소득지원 선주남 ▦조사관리 여진기 ▦산업지원 박병수 ▦시험평가 강인애 ▦산림인증 손석규 ▦임업경제 서수안 <br/>◆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 ▦인증지원본부 인증심사센터 강호우 ▦경영지원본부 인사복지실 김선호 ▦의료헬스본부 의료기기심사센터 김정수 ▦산업표준본부 전기전자표준센터 송상훈 ◇시스템융합본부 ▦응용기술센터 서노근 ▦IT안전기술센터 이수연 책임연구원 ▦산업표준본부 기계역학표준센터 김동현 ▦인증지원본부 인증심사센터 김정환 ▦경영지원본부 총무자산실 김태영 ▦시스템융합본부 응용기술센터 최용훈 김경희 ▦디지털산업본부 이동통신기술센터 곽필근 서준석 ▦경기지역본부 장재화 <br/>◆무학 ▦부사장 이수능 ▦전무 홍순환 이종수<br/>◆아주경제 ▦정치부 대기자 강성주<br/>◆계명대 동산의료원 ▦연구처장 겸 암센터장 조치흠 ▦부원장 겸 응급의료센터장 황재석 ▦진료협력센터장 배기철 ▦교육수련부장 조용원 ▦심사실장 정우진 ▦응급실장 직대 주명돈 ▦의과학연구소장 서성일 ▦암연구소장 백원기 ▦간호과학연구소장 이경희 ▦뇌연구소장 김희철 ▦통증연구소장 조철현 ▦분자의학교실 주임교수 장병철 ▦의료정보학교실 주임교수 이중정 ▦내분비대사내과 분과장 김혜순 ▦간호대학 간호학과 야간특별편입과정 학과장 이은숙 ▦대외협력팀장 이성재 ▦건강증진팀장 강한표<br/>◆경북대 ▦학생처장 정희석 ▦대외협력부처장 김영신 ▦산학연구부처장 이 호<br/>◆고려대 ▦총무처 부처장 겸 인력개발팀장 이석형 부장급 ▦총무부장 겸 병무행정팀장 겸 상조회장 송인식 ▦국제교류팀장 조금생 ▦예산팀장 윤택상 ▦미래전략실 부장 한재호 ▦정보통신대학·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학사지원팀장 겸 정보대학학사지원부장 이상경 ▦법과대학·법무대학원학사지원부장 겸 법학전문대학원학사지원부장 유원종 <br/>◆가천대 ▦특임부총장 박승철 ▦평생교육원장 김용욱 ▦뇌과학연구원부원장 김우경 ▦진단치료제연구센터장 이도 다츠오 ▦이길여 암·당뇨연구원부원장 전희숙 ▦에너지나노소재연구센터장 최형욱 ▦아랍문화연구소설립추진위원장 김동억 ▦발전기금본부장 이인봉<br/>◆차의과학대 ▦교학부총장 문창진 ▦의무부총장 지훈상 ▦행정대외부총장겸 교양교육원장 서재원 ▦일반대학원장 김세종 ▦일반대학원 부원장 김남근 ▦의학전문대학원장 신동은 ▦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황태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최성욱 ▦의학전문대학원 연구부원장 김광일 ▦통합의학대학원장 최중언 ▦보건복지대학원장 문병우 ▦미술치료대학원장 김선현 ▦임상약학대학원장 최경업 ▦간호대학장 임지영 ▦건강과학대학장 정우식 ▦생명과학대학장 백광현 ▦융합과학대학장 김주헌 ▦기획처장 정광회 ▦교무처장 김진경 ▦학생처장 강형곤 ▦입학처장 김재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강상진 ▦사무처장 김효승 ▦전산정보실장 윤 호 ▦도서관장 김은혜 ▦생활관장 이성기 ▦글로벌경영연구원장 신은경 <br/>◆중원대 ▦기획정보처장 겸 인성교육원장 조용태 ▦학생역량개발처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조민호 ▦대외협력처장 겸 홍보실장 김성호 ▦대학원장 한형서 ▦인문사회대학장 이세우 ▦이공대학장 안정좌 ▦의료보건대학장 장지홍 ▦항공대학장 이호일 ▦국제교류센터장 겸 한국어교육센터장 전춘련 ▦스포츠단장 김은정 ▦학술정보원장 윤영걸 ▦영어교육원장 박찬규 ▦평생교육원장 이태수 ▦생활관장 김 진 박금숙 ▦이주다문화통합연구센터장 김철수 ▦비행교육원장 정원길<br/>◆세계일보 ▦비서실장 김희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25.txt

제목: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죠  
날짜: 20150304  
기자: 고은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04100000126  
본문: 한국, IMF 이후 자살률 3배 증가<br/>65세 이상은 일본의 4배 넘어<br/><br/><br/><br/>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 이듬해 3월 자살로 숨진 성인 숫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앞섰다. 이후 자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외환위기 이전 인구 10만명 당 10.8명이었던 자살률이 2013년 28.5명으로 약 세 배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은 12.1명으로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자살률이 높다는 일본(20.9명)과 폴란드(15.7명)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br/> 한국에서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그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 정신과 의사, 목사, 교수 등 각계 인사가 모여 만든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 2013년 설립된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LIFE)’다.<br/>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에는 주말 낮인데도 라이프의 올해 첫 강연을 듣기 위해 15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가족의 소중함’. 이날 행사는 유방암에 걸린 후 이를 가족에 대한 사랑의 계기로 바꿔 두 딸을 입양했지만 암이 뼈로 전이되면서 투병중인 주부 백영희씨,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사랑을 전하는 동화작가 오선화씨의 강연과 SBS오디션 프로그램 케이팝스타 시즌3 출신인 허은율양의 공연으로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br/> 라이프를 이끄는 이명수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장은 이날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우리나라도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인 이코노사이드(‘economy’와 ‘suicide’의 합성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문제는 이전보다 나, 남보다 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우울하게 된다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인관계 가운데서도 가족들의 말 한마디 여파가 크다는 것이다.<br/> 한국의 자살률이 지금과 비슷하던 때가 과거에도 있었다. 박정희 개발독재 시기다. 경제만 우선하는 압축 성장과정에서 공동체는 급격히 와해했지만 그 충격을 보완해줄 사회안전망은 빈곤하기 짝이 없던 시절이다. 자살률은 구조적으로 한국이 여전히 그런 사회에서 한걸음도 발전하지 못했거나 다시 그런 사회로 되돌아가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br/> 이 대표는 한국인 자살률 증가에서도 유난히 두드러진 특징으로 “<span class='quot1'>노인 자살, 이미 상당수 퇴직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중장년층 남성의 자살이 늘고 있다</span>”는 점을 꼽았다. 65세 이상 노인의 10만명당 자살률은 80명 이상으로 우리 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일본의 네 배 이상이다. <br/>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일가족 자살에 대해 이 대표는 “<span class='quot1'>동반자살이 아니라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span>”며 “<span class='quot1'>이 험한 세상에 남겨두고 갈 수 없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기인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수능비관자살 같은 표현도 자제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시험을 잘못 봤다는 기준이 다 다른데 자살한 학생보다 시험점수가 낮은 학생 입장에선 나도 죽어야 하나 생각할 수 있다</span>”고 지적했다. “<span class='quot2'>60대 실직가장 자살도 마찬가지</span>”라며 “<span class='quot2'>실직했다고 해서 다 자살한 건 아닐 것인데 또 다른 실직자들에게 여파를 미칠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br/> <br/> “우리는 가족이 항상 옆에 있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소중함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가족은 제일 가깝기도 하지만 또 쉽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죠. 그래도 가족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이 대표는“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게 말 한마디”라며 “가족, 친구 등 주변에서 하는 말과 행동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26.txt

제목: 건강하게 사는 의학상식, 이영훈 원장의 콸콸콸  
날짜: 2015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03100000049  
본문: 건강하게 사는 의학상식, 이영훈 콸콸콸<br/> <br/> 질문= 주사나 약으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면 젊어지나요? <br/> <br/> 답변 =남성 호르몬은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남성 생식기관의 발달과 근육·뼈의 발달, 수염 등의 2차 성징 시 남성으로의 발달을 담당하며, 남성의 성욕, 활력과 행동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30대 이후부터는 남성 호르몬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여성이 폐경을 겪으며 단시간에 여성호르몬의 부족을 겪게 되는 것과 달리 남성호르몬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남성호르몬을 젊음의 샘처럼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남성호르몬 저하가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다. <br/> 중년 이후 활력은 떨어지고 쉽게 피곤을 느끼며 삶에 의욕도 떨어지는데다 성욕까지 떨어진다면 누구나 '내가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모자라는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면 마치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br/> 약물은 피부에 바르는 크림·먹는 약·주사제가 있는데, 크림의 경우 어깨 등 넓은 부위에 바르도록 하는데 드물게 성기에 바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 난감할 때가 있다. <br/> 남성호르몬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보충의 효과가 없다. 또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호르몬이 고환의 기능을 대체 하게 되어, 고환의 위축이 발생 할 수 있다. 향후 출산 계획이 더 있는 젊은 남성이 활력을 더하거나 더 젊어 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br/> 신진대사를 증가시키므로 빈혈과 반대로 적혈구 양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약물 사용 중에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전립선 암이 있는 경우 암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치료 전에 전립선 암이 없다는 것을 검사로 꼭 확인 하고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행한다.<br/> 남성호르몬은 직접적인 발기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처방하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잘 듣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남성호르몬을 함께 투여 해 호전을 기대하는 경우는 있다. 남성호르몬이 젊음을 줄 수 있다는 근거는 약하다. 하지만 중년 이후 남성에게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적절한 보충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생각 해 볼 만 할 것이다. <br/> <br/> 이영훈 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비뇨기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비뇨기종양학회와 내비뇨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 <br/> 정리=채준기자 doorian@sporbiz.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27.txt

제목: 갑상선암과의 동거...수술 없이 삶의 질 높여요  
날짜: 2015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0110016786532  
본문: 크기 작고 림프절 전이 없다면<br/>피해 큰 수술보다 정기검진 충분<br/>로봇 수술ㆍ초음파 절삭기 등 <br/>흉터ㆍ후유증 줄이는 도구도 속속 <br/><br/><br/> <br/> [정밀의학 시대] 요즘 질병 치료에서 환자 개개인을 중심에 놓는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이 대세다. 기존 방법은 병기(病期)가 비슷한 환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이드라인(표준치료법)을 꿰맞추는 두루뭉슬 한 것이었다. 하지만 같은 병기이더라도 증상 상태, 유전적 특질 등은 환자마다 각기 다르다. 정밀의학은 환자들 사이의 이 같은 개인 차이에 주목하고 진단과 치료의 모든 과정을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춘다. 최근 국내에서 본격 시도되고 있는 정밀의학의 모습을 들여다본다.<br/> <br/>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분화 속도가 느려 진행이 더디다. 암환자에게 불행 중 다행인 이 같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갑상선암을 물리치는 치료법 개발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항암제는 암세포 분열 시기를 집중 공략하는 원리다. 다른 암에서는 표적치료제다 뭐다 해서 각종 최신 치료법이 쏟아지고 있지만 갑상선암 만은 예외다. 그래서 갑상선암에선 수술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우선의 치료법이다. 신무기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로라도 잘 싸워 침입한 적을 무찌르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br/> 박원서 경희대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갑상선암에서 정밀의학이란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현재 가용한 가장 적합한 무기(치료법)을 적용하는 것</span>”이라고 했다. 환자 개개인의 증상 상태나 치료 목적 등에 따라 치료법과 절제 범위 등을 달리하면서 완치율을 높이고, 후유증은 줄이며,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는 최선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br/> <br/> 보다 신중해진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 흐름<br/> 지금 갑상선암을 몸에 지니고 있거나 암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혼란스럽다. 과다 검진 논란 이후 뚜렷한 치료 방침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br/> 최근의 갑상선암 치료 흐름은 예전보다는 좀 더 보존하자는 쪽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미국 가이드라인도 보존론에 힘을 싣고 있다.<br/> 과잉진단은 과잉치료로 이어진다. 과잉치료를 막기 위해서는 진단부터가 보다 신중하면서도 보수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 “<span class='quot1'>갑상선암이 의심되더라도 크기가 0.5cm 미만이고, 갑상선 내부에 위치하며, 림프절 전이가 없고, 가족력 등 위험 인자가 없다면 초음파로 정기적인 관찰만 해도 된다</span>”고 했다.<br/> 불과 얼마 전까지도 갑상선암이라고 하면 무조건 갑상선 조직 전부를 잘라낸 뒤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했다.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요오드를 이용해 수술 뒤 남아 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박멸해내는 것으로, 갑상선 잔여 조직까지 완전히 파괴한다. 보통 의사들은 이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갑상선암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인 사이로글로블린(thyroglobuline) 수치가 0.1ng/mL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암세포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 경우 ‘암의 완벽한 제거’가 목적인 의사들은 만족스럽다. 문제는 환자들이다. 암은 사라졌더라도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는 등 수술 후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록 초음파상 암으로 보이더라도 주변 조직 침범이나 림프절 전이 소견이 없는 작은 암의 경우에는 세포검사 등을 하지 말고 추적관찰만 하자는 것이다. 공격적 진료는 과잉치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예 진단 자체를 하지 말자는 입장 선회다.<br/> <br/> “<span class='quot2'>갑상선 한 쪽의 작은 암은 반절제만 하자</span>”<br/> 박 교수는 갑상선암에 대한 무조건적 전절제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암이 나비 모양의 갑상선 조직 한 쪽에 1cm 미만 크기로 국한된 경우 한 쪽만 잘라내는 반절제를 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갑상선암이 1cm 미만이고, 림프절 전이가 없고, 가족력이 없을 경우 반절제를 해도 치료성적이 같다는 연구결과가 여럿 나왔다</span>”고 했다.<br/> 반절제 시 갑상선호르몬 보충제 복용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도 최근 들어 달라진 흐름이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1'>반절제 시 반대 쪽 조직의 갑상선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거나 암 재발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span>”고 했다.<br/> 조기암에서 환자가 수술 후 흉터를 꺼리는 경우라면 로봇수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절제수술 시에는 갑상선이 자리한 목 부위를 5~7cm가량 짼다. 목의 자연스런 주름을 따라 절개한다지만 워낙 눈에 잘 띄는 돌출 부위라 작은 흉터라도 보기 흉하다. 여성 환자들이 고가임에도 흉터가 드러나지 않는 로봇수술을 선호하는 이유다. 로봇수술은 겨드랑이 양쪽에, 또는 양쪽 겨드랑이와 유륜선에 각각 2개의 작은 구멍을 뚫는 방식이라 흉터가 드러나지 않는다. 완치율과 합병증 발생률에서 로봇과 외과적 절제수술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 박 교수는 로봇수술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암세포가 주변 조직에 침범한 진행된 암은 조기암보다 재발 확률이 더 높다. 재발 시에는 로봇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br/> 갑상선에 생겨난 양성결절이 너무 튀어나와 미관을 해치는 경우에도 레이저나 고주파 시술로 흉터 없이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박 교수는 “여러 번 검사 했는데도 결절이 양성인 경우 미용 목적으로 선별적으로 크기를 줄이는 시술을 할 수 있다. 지름 5cm짜리를 4cm로 1cm만 줄여도 부피가 반으로 줄어 들어 안 보일 수 있다”고 했다. <br/> <br/> 양성결절 레이저 등 시술 시 후유증 조심<br/> 양성결절에 대한 레이저 또는 고주파 시술 시에는 과잉시술에 따른 후유증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 일부 대학병원 의사들은 “<span class='quot3'>개원가에서 고주파 등 시술을 받은 뒤 손을 못 쓸 정도로 갑상선 조직이 망가져 오는 이들이 적지 않다</span>”고 말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span class='quot1'>누가 봐도 명백한 양성이고, 증상이 없고, 사이즈도 크지 않고, 미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놔둬도 괜찮다</span>”고 했다.<br/> 박 교수는 그러나 진단 결과 진행된 암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근치적 수술(갑상선 전절제술과 림프절 곽청술)과 이후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통해 재발률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1'>갑상선암은 천천히 자라니까 두고 봐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위험한 생각</span>”이라고 했다. 갑상선암의 확진은 세포검사, BRAF 유전자 검사, 림프절 세침흡인 검사를 통해 이뤄진다.<br/> 정밀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출혈 등 수술 후유증을 줄여 주는 보조기구 개발 등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풍부한 조직 중 하나다. 갑상선이 자리한 목에는 경동맥을 비롯한 큰 혈관이 지나간다. 이에 따라 갑상선암 수술 시 응급 대처를 요하는 출혈이 1~2%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술환자 100명 중 1~2명가량은 아찔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갑상선 수술 후 출혈은 기도를 막아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출혈 위험을 낮춰 주는 수술 보조기구는 초음파 절삭기가 대표적이다. 신경의 위치를 파악해 알려주는 신경도자와 수술 부위의 유착을 예방하는 유착 방지제도 개발돼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술은 아직은 초보 단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br/> <br/>송강섭기자 ericsong@hk.co.kr <br/> <br/> 바로잡습니다<br/> 2월24일자 20면 기사 ‘자살률 1위, 와그라 증후군, 건강염려증… 아프니까 중년이다?’의 사진이 내용과 무관한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부부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28.txt

제목: [건강신간] 우리 자연의 65가지 명약 알려 주는 '산야초 민간요법'  
날짜: 2015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0110016786524  
본문: ‘산야초 채취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꽃은 아름답게 피었을 때, 잎만을 쓰거나 줄기를 쓸 때는 잎이 무성할 때, 과실은 성숙되었을 때, 뿌리는 잎이 떨어진 가을이나 겨울에 채취해야 약효가 좋다. 이른 봄에는 뿌리에 있는 약효 성분이 오르려고 하지만 아직 가지나 잎으로 퍼지지 않고, 가을에는 가지와 잎이 마르고 약성이 다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이다.’(15쪽)<br/> 신간 ‘질병을 치료하는 한국의 산야초 민간요법(정구영ㆍ정경교 지음)은 국내에서 자생하는 산야초 65종을 주요 질병(뇌졸중 치매 암 당뇨 고혈압)과 인체 부위(관절 폐 신장 간 심장 위장)에 따라 분류하고 효능을 알기 쉽게 설명해놓았다. 채취 시기, 가공법, 보관법과 함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산야초로 차 술 환 효소를 만드는 방법과 왕실비방 65가지도 담았다.<br/> 저자들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덕태산(1,113m)의 섬진강 발원지 자락에서 힐링자연치유센터와 오가피 농장을 운영하면서 나무에서 비롯된 생명력과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br/>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에 따라 우리 몸에 침투한 질병들도 자연에서 얻은 약초를 통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 그대로를 담고 있는 산야초야말로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것이다. 중앙생활사ㆍ324쪽ㆍ1만9,500원<br/><br/> 송강섭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29.txt

제목: 칼슘보충제, 심근경색 위험 27%나 높여  
날짜: 2015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0110016786519  
본문: 비타민D의 골다공증 예방효과<br/>근거 불충분하다고 알려져있지만<br/>식약처는 우수등급 포함해 논란 <br/>건강기능식품 맹신하지 말고<br/>삼시세끼 잘 챙겨먹는 게 중요 <br/><br/><br/> <br/>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44%)은 홍삼, 비타민, 미네랄 등 식이보충제를 먹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수준으로, 하루 삼시세끼만 잘 챙겨 먹으면 식이보충제를 따로 복용하지 않아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칼슘보충제 등 일부 제품은 심근경색 등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복용 자제가 필요하다는 경고까지 나온다.<br/> <br/> 식이보충제 소비 확산의 주역은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었다. 홍삼, 비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쏟아지면서 소비 욕구에 불을 지폈다. 2000년대 들어 널리 퍼진 ‘웰빙’문화는 소비에 기름을 부었다. 건강에 좋다면 돈을 아끼지 않는 풍조가 건강보조식품 의존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식이보충제 섭취율은 해마다 치솟았다. 2005년 25%(남성 22.3ㆍ여성 29.3%)에 머물던 섭취율은 2013년 44%(남성 41.0ㆍ여성 47.0%)로, 8년 새 1.7배 증가했다.<br/> <br/> 야채위주 식단 꾸민 암 환자도 권장섭취량 초과<br/>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을 완치한 한 50대 중년여성의 사례는 우리가 얼마나 식이보충제를 맹신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 여성은 아침식사로 쌀밥 반 공기, 시래기된장국, 배추김치, 호박볶음, 도라지나물 등을 먹었다. 여기에 콩조림(콩자반)을 얹은 것이 점심이었다. 저녁에는 야채와 과일이 추가됐다. 가지나물 부추겉절이 브로콜리 시금치나물 복숭아 황도 등 골고루 먹었다. 암 환자의 식단으로 특별한 것이 없었음에도 주요 영양소별 1일 권장섭취량을 모두 충족했다. 칼슘과 인 섭취량은 1,344mg, 1,063mg로 권장섭취량(각각 1,000mg, 700mg)을 초과했다. 철분 비타민B2 비타민A 비타민C 섬유질 등 섭취도 권장량을 웃돌았다.<br/>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일반인의 경우 특정 음식에 편중하지 않고 골고루 식사만 제 때 잘하면 식이보충제 섭취가 필요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홍삼, 비타민 등을 챙겨먹는 것보다 골고루 제 때 먹는 식사습관이 더 중요하다</span>”고 했다.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정작 필요한 열량과 단백질 섭취를 등한시 한 채 식이보충제로 부족하지도 않은 영양소를 섭취해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발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음식 섭취를 통한 인 철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등 영양소 섭취 비율은 권장섭취비율(100%)을 초과하고 있다.<br/> 유일한 예외가 비타민C이다. 2010년 조사 때 남녀 모두에서 권장섭취비율을 초과했던 비타민C의 남성 섭취율이 9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10~20대 등에서 과일 및 야채 섭취가 줄어 들어 섭취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span>”고 했다. 명승권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span class='quot1'>비타민C 섭취비율이 감소했지만 음식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비타민C를 섭취하고 있어 실제 섭취율은 국민건강통계보다 2,3배 높을 것</span>”이라고 했다.<br/> 칼슘·비타민D 보충제 먹어야 하나<br/> 칼슘, 비타민D보충제의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한다는 ‘자제론’까지 나오고 있다. 2013년 미국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USPSTF)는 권고안을 통해 “골다공증이나 비타민D 결핍이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성인 남성과 폐경 전 여성에서 골절 예방을 목적으로 한 칼슘ㆍ비타민D 보충요법의 이로움과 해로움의 균형을 평가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쉽게 말하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하루 1,000mg이하 칼슘과 400IU 이하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USPSTF는 또 심혈관 질환과 암 예방을 위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E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종합비타민도 심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 이롭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br/> 칼슘보충제 복용이 심근경색에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논문도 발표됐다. 2010년 영국 의학저널(BMJ)은 2007년까지 44년 간 발표된 총 15편의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7편의 임상시험 결과에서 칼슘보충제를 복용하면 심근경색증 위험성이 27%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한가정의학회도 골다공증이 없는 폐경 후 여성은 저용량 칼슘ㆍ비타민D보충제 복용을 삼가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조정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음식이 아닌 약재를 통해 비타민 등을 복용했을 때 인체에 유의한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고 복용을 삼가라는 권고안까지 발표됐기에 관련 보충제를 가급적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span>”고 했다.<br/> <br/>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다?<br/> 현재까지 효능과 안전성과 관련 논란이 가시지 않은 식이보충제를 '국민건강식품'으로 등극시킨 건강기능식품제도도 문제다. USPSTF가 칼슘과 비타민D 보충제는 골절 예방 효능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하고 있다.<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등급 ▦생리활성기능 1~3등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칼슘과 비타민D 보충제는 건강기능식품 중 기능이 가장 우수한 등급인 질병발생 위험감소기능 등급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명 교수는 “<span class='quot1'>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D 보충제가 기능성이 가장 우수한 등급에 포함된 것은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1'>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최신 연구결과를 검토해 건강기능식품제도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span>”이라고 했다. 실제로 영국의 유명 의학전문지 랜싯(THE LANCET)은 지난해 1월 '비타민D 보충제 사용은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표했다.<br/> 애매모호한 생리활성기능 정의도 손봐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지적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들을 ▲기억력 개선 ▲혈당조절 ▲혈압조절 ▲치아건강 등 30가지의 생리활성기능이 가능하다고 분류했지만 이마저도 생리활성기능 등급(1~3)에 따라 차이가 난다. <br/> 일례로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기억력 개선’ 기능이 있다 해도 1등급이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 2등급이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며, 3등급이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 시험이 미흡한 제품’으로 각각 분류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중 이런 등급의 존재를 인지하고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br/> 더욱 놀라운 것은 생리활성기능 1등급에 해당되는 성분이 글루코사민 대두이소플라본 루테인 지아잔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폴리감마글루탐산 폴리코사놀 등 7종류뿐이라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대명사라 할 홍삼은 생리활성화기능 2등급이다. 식약처 등급분류에 따르면 홍삼은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다. 명 교수는 “<span class='quot1'>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뒤집으면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국민들은 이러한 등급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른 채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고 있다</span>”고 꼬집었다.<br/> 비타민제 중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비타민C 보충제의 효능도 논란 대상이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비타민C 보충제가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예방차원으로 섭취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인체에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span>”라며 “<span class='quot0'>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지 않다</span>”고 했다. 실제로 영국의 국제적 비영리연구단체인 코크란연합이 2010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29편의 임상시험데이터를 메타분석을 한 결과, 예방적으로 비타민C 보충제를 하루에 200mg 이상 복용한 사람과 복용하지 않은 사람과 감기빈도에 차이가 없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다만 극심한 육체노동을 한 사람이나 운동선수 등을 관찰한 일부 연구에서 감기이완기간이 짧아졌다는 결과가 있을 뿐</span>”이라고 했다. <br/> 비타민C 1일 권장섭취량도 현실적이지 못하는 지적도 나왔다. 명 교수는 “<span class='quot1'>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C를 1일 100mg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과 차이가 있다</span>”고 했다. WHO는 성인은 1일 45mg, 임신여성은 55mg, 수유여성은 70mg를 각각 권장하고 있다. 미국 의학협회의 권장량은 성인남성은 1일 90mg, 여성은 75mg, 수유여성은 120mg씩이다. 영국 음식표준국은 성인의 경우 1일 40mg 정도 비타민C를 음식을 통해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비타민C 보충제는 해가 될 수 있어 1일 1000mg 이상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br/> <br/> 진시황제처럼 쉬운 건강법 모색<br/> 현대인들이 식이보충제로 건강을 유지하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 건강관리에 부실했을 것이라는 불안심리 때문이라는 게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조 교수는 “<span class='quot2'>건강기능식품으로 대표되는 식이보충제 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평소 건강관리를 못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중의 욕구 때문</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진시황제가 불로장생을 위해 불노초를 구하려 한 것처럼 현대인들은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 한다</span>”고 꼬집었다. 또 “의학적으로 인체에 유의 하다는 검증이 되지 않은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채와 과일 등을 매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현명한 건강관리”라고 했다. 명 교수는 “<span class='quot1'>천연 영양물질과 화학구조가 같다고 해서 효능이 동일할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부작용과 안전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식이보충제에 의존하지 말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실천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WHO는 건강을 위해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하루 400g 이상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평소 식단에 적용하면 김치를 포함,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면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1조7,920억원에 달한다. 올바른 식습관을 지키지 못한 대가치고는 너무도 큰 액수다.<br/> <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30.txt

제목: 영·수는 선택, 학비 없는 학교… 스마트폰 대신 호미 든 아이들  
날짜: 20150301  
기자: 김혜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301100000048  
본문: 변산공동체학교 개교 20년 <br/>김희정 대표 '산적떼 같은…’ 펴내<br/><br/> <br/> “한 달만 있다 갈 거에요.”<br/> 여관도 요양소도 아닌데,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하는 학교가 있다.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도 시험도 경쟁도 없고 수업료도 받지 않는다. 원하는 수업만 골라 오전에 듣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산 들 바다를 헤맨다.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보다 농사법을 가르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입학생마다 ‘나는 이렇게 실험적 곳에 오래 머무를 뜻이 없다’고 입을 모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이 결의는 대부분 빈말에 그친단다.<br/> 1995년 문을 연 변산공동체학교의 김희정(47) 대표가 신간 ‘산적떼 같은 요놈들, 예쁘다’(보리출판사)를 펴냈다. 책에는 농촌형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자연 속에서 학생들과 부대끼며 겪어 온 20년의 일상 보람 고민 등이 오롯이 담겼다.<br/><br/> 변산공동체학교는 윤구병(72) 전 대표가 95년 설립한 변산공동체에 있다. 충북대 철학과 교수를 지낸 윤 전 대표는 스스로 사직 후 낙향해 농사, 젓갈 효소 술 만들기 등으로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세웠다. 공동체에는 20가구 50여명이 살고 있다. 윤 전 대표의 제자이기도 한 김 대표는 일손을 도우러 학교에 왔다가 “눌러 앉았다”고 했다. <br/> 지난달 28일 오전 입학식 겸 졸업식을 찾았다. 변산을 등지고 서해를 마주한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에 자리한 학교로 향하는 비탈진 언덕길 좌우로 짚간, 장독대, 효소실, 도자기실, 장작가마 등이 늘어섰다. 식이 열릴 강당 앞에는 학생들이 키워 추수, 탈곡, 포장한 쌀과 콩 등이 놓였다. 직접 구운 도자기 접시와 찻잔도 가지런히 놓여 손님들을 맞이했다. <br/> 입학ㆍ졸업생은 각각 중등부 3명, 6명과 고등부 4명, 5명. 졸업장을 받아 든 임채우(19) 군은 “힘들게 논에서 벼를 베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다”고 했다. 짐짓 농사가 싫은 듯 엄살은 부렸지만 임군을 비롯한 졸업생 2명은 공동체에 남기로 했다. 어엿한 ‘어른식구’로 농사도 짓고 학교에서 도자기 공예를 가르치게 된 것. 이제까지 공동체에 남은 졸업생은 모두 6명이다.<br/> 금방 떠나겠다던 아이들을 눌러 앉게 한 것은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는 자연 중심 교육이다. 행사 내내 학생들의 연애사와 특징을 줄줄 꿰는 진행으로 식장을 웃음바다로 만든 김 대표는 학생들에게 희정아저씨, 희정삼촌, 희정언니로 불린다.<br/> 그는 “처음부터 농촌의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언니 오빠가 수업을 하다 보니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쓰지 않게 됐다” 며 “호미나 짚단을 들고 종일 함께 일하다 보면 아이들과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했다. 바쁜 일과로 얼굴 마주 보기도 어려운 도시에서와 달리 이들의 수다 주제는 선거 연예인 연애고민 등을 망라한다.<br/> 수업은 글쓰기, 역사, 짚풀공예, 풍물, 연극, 미술, 도자기, 태껸 등으로 영어나 수학 등은 배우고 싶은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직접 공부한다. 그 외에는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모내고 밭을 매고 집을 짓는 가운데 아이 스스로 성장하게 돕는다. 학생들의 입학 배경도 ▦아이가 자연에서 뛰놀길 희망한 부모의 권유로 ▦새장처럼 답답하다며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고 ▦소위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 방황하다 ▦난폭한 행동을 일삼다 초등학교에서 쫓겨나서 등으로 다양하다.<br/> 2013년 학교를 찾았던 상우(가명)는 게임중독으로 결석을 반복하다 지인의 소개로 이 학교를 찾았다.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홀로 힘겹게 상우를 키워왔다. 입학 후 한동안은 걸핏하면 읍내 PC방으로 탈출하길 반복했던 상우는 친구들과 농사, 게임, 농구를 하며 몰라보게 달라졌다. 모니터 바깥 세상의 즐거움을 이제야 만끽하게 된 것이다.<br/> 김 대표가 이양기 등 흔한 농기계도 쓰지 않고 ‘사서 고생하는 농사법’을 고집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도시나 정규 학교에서 상처투성이 몸과 마음을 안고 공동체를 찾아온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다”며 “아이들이 손에 컴퓨터나 손전화 대신 낫과 호미를 들게 해 죽어가는 감각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br/> 그의 최근 고민은 대학과정 신설에 관한 것이다. 졸업 후에도 공동체에 남으려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학비 한푼 받지 않고 농사로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쉽지 않은 계획이다. 김 대표는 “<span class='quot0'>젊은 친구들이 농촌에서 함께 꿈을 찾겠다고 하니 든든하면서도 더 많은 공부를 시킬 여건을 차차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span>”고 했다.<br/> 당장 올해부터는 초중고 과정에 수영과 인문학 수업을 추가한다. 수영은 제 앞가림 하는 사람, 농사꾼이 되려면 우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신설했다. 인문학 수업은 인문공동체 수유너머의 도움으로 진행한다.<br/> “올해 교육 목표는 ‘생각하는 농부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이 자기철학까지 가진다면 농촌에는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br/> 변산=김혜영기자 shin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31.txt

제목: 농사꾼 겨울휴가 벌써 끝나나… 강원도 산골은 5월부터 일한다는데  
날짜: 20150227  
기자: 한국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27100000074  
본문: 겨울만 되면 기막힌 기획도 하고 책 30권 읽고, 약도 끓여놓고 <br/>계획은 늘 하지만 그걸로 끝나… 이번 겨울도 허망하게 지나가네<br/><br/> <br/> 길을 나서니 차들이 난리 북새통이다. 어느 정승집 자제라도 돌아가셨는지 마을 장례식장 주차장이 모자라 갓길도 없는 길가에 차들이 늘어섰다. 좁은 길을 왕복하는 차들과 오가는 사람들 탓에 아찔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br/> 그날 아찔한 건 나였다. 식장 길을 따라가는데 운전석 문을 불쑥 열며 나오는 한 문상객 때문에 급정거를 하며 겨우 사고를 면했다. 그나마 속도를 미리 줄이느라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큰일 치를 뻔 했다. 나도 놀랐지만 그쪽도 적잖이 놀랬나 보다. 시커먼 얼굴에 흰자위가 다 나올 정도로 둥그래졌던 눈이 점차 작아지더니 입으로 뭐라 중얼댄다. 모양만 봐도 무슨 숫자를 말하는 거다. 애들도 알 법한 그 모양에 창문 열고 한마디 해줄까 하다가 참았다. 인상 더럽기가 나 못지 않은 걸 보니 살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 들은 교육에서 강사가 뭔 법칙이라며 말하기를 “<span class='quot0'>첫인상에서 시각적 요소가 차지하는 게 절반 이상</span>”이라던데, 그 인간도 ‘외모랑 상관없는 일을 해야 먹고 살겠다’ 싶어 남 같지 않은 마음에 봐 준거다. <br/> 차 번호판을 보니 이 지역 차는 아닌 것 같았다. 누가 들으면 지역 표기도 없는데 어찌 알까 싶겠지만, 구례 바닥이 원체 좁아서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번호판과 차종이 눈에 익게 된다. 번호판이 곧 이름표인 셈이다. 마주 오는 차 안에 탄 사람은 안보여도 번호판을 알아보고는 서로 인사한다. 심지어는 사람 이름대신 차량번호로 호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삼공구랑 사칠이팔이랑 점심에 수제비 집으로 들어가던데” 하는 식이다. 혹은 서 너 명 앞에 두고 “거 무쏘 삼팔삼칠 어떤 놈인지 아는 사람 있나” 하면 거의 그 자리에서 신상이 털리기도 한다. 짙게 썬팅한 차 안에서도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이유다. <br/> 어쨌든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도 했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맘 추스리고 농장으로 향했다. 둘러보니 요 며칠 새 마늘이랑 양파가 부쩍 자랐다. 왕겨 훈탄도 만들어 넣고 이것 저것 유기물도 많이 얹어 줬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뿌듯했다. 비닐 안 덮어도 잘 자라주는 게 고마워 ‘누가 좀 봐줬으면’ 싶은 마음도 들었다. 노란 볏짚과 왕겨를 바탕으로 진한 초록이 대비되니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br/><br/> 마음이 통한 것 일까. 때마침 전 이장님댁 사모님인 오봉댁 어머니가 농장에 들르셨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인사 드리면서도 시선을 은근히 마늘밭 쪽으로 유도했다. 환하게 웃으시던 오봉댁 어머니가 드디어 마늘밭을 보고 말씀하셨다. “이거 워쩌까이. 얼릉 풀을 뽑아야 쓸꺼인디. 쟈들이 금시 방석처럼 들어 앉어분단 말이시” 하며 찡그리셨다. 그러고 보니 살짝 살짝 보이던 풀들이 어느새 군데군데 자그마한 섬들을 이루고 있었다. 내 눈엔 마늘만 보였고, 어머니 눈엔 풀이 먼저 보였던 거다. 바로 표정 가다듬고 대답했다. “뽑아야죠 뭐.” 4년간 어르신들과 밭에서 나누는 대화 중에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다. <br/><br/> “원샌 애쓰는 거 다 아니께 이거 궈 잡수시면서 시나브로 허씨요.” 설 대목 장봐서 집에 들어가시는 길에 삼겹살을 사셨단다. 고기라면 그냥 엎어지고 환장하는걸 아시고 일부러 사오신 거다. 나 위해서 짓는 농사, 변변한 것 하나 갖다 드린 게 없는데 늘 애쓴다며 자식처럼 생각해 주신다. 설 쇠러 서울 가기 전에 인사 드리려고 술 걸러 병에 담던 참인데 한 발 늦었다. “내일 서울 간다요? 선재랑 즈그 어매랑 이따 와서 저녁이나 묵고 가요 잉” 풀 때문에 창피하고 고기 때문에 감사한데, 서울 간다고 또 챙겨주시니 멍하니 서서 아무 말씀도 못 드렸다.<br/> 사실 이 곳에 내려와서 부모님이 많이 생겼다. 형님이라고 부를 사람보다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해야 할 분들이 더 많다. 꼭 연세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가끔 마을회관을 지나치다가 어머니들과 눈이 마주치면 강렬한 손짓을 보내신다. 들어가보면 “점심 안 잡쉈지? 여기서 잡숫고 가요. 동태 지져놨응게 후딱 한 그릇 잡솨” 하신다. 점심을 먹었건 안 먹었건, 감사히 한 그릇 먹고 나면 오히려 “고맙소 원샌” 하신다. 엥? 처음엔 이해가 안됐다. 아니, 빈손으로 지나가던 놈 애써 불러들여 뜨신 밥 먹여주시고는 먹은 놈한테 고맙다니,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어머니들은 의아해 하는 나에게 “반찬도 없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잘 잡수니 얼매나 고마우요” 하신다. 한참 어린 놈에게 존대를 하시지만 아마도 자식 대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나도 들을 때 마다 엄마 말씀처럼 들리곤 한다. 뭐라 말씀 드리기도 어려워 “차려주시는 밥 먹고 고맙다는 말씀 듣는 데는 여기 밖에 없을 거예요” 하면 그저 또 고맙다고 하신다.<br/>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아침 서둘러 서울로 출발했다. 구례로 내려온 이후 우리 가족은 명절 때마다 거꾸로 상행선 도로를 탄다. 충남 공주쯤 가다 보니 하행선은 벌써 도로가 만차 상태다. 아내에게 “아이구 저거 차 밀리는 것 좀 봐. 서울부터 막혔을 텐데 어쩌냐” 하니 아내가 “그래서, 좋아?” 묻는다. “좋기는 뭐가 좋아! 막히니까 안타깝다는 거지.” 힐끗 쳐다본 아내가 “저쪽은 막히는데 이쪽은 뻥 뚫리니까 좋지 않냐구. 아니야?” 되묻는다. “에이, 사람이 그러면 안되지. 어떻게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인가.” “당신 예전에두 반대편 막히면 은근히 좋다구 했으면서 뭘!” 사실 조금 흐뭇하긴 했다. 꼭 반대편이 막혀서 좋다는 게 아니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귀성하는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꼭 기분이 나빠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아닌가?<br/>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은 얼굴이 예전 같지 않으셨다. 편찮으신 곳은 늘고 기력은 확연히 줄었다. 4년 전, 귀농하겠노라 말씀 드렸을 때 걱정보다는 격려에 무게를 두셨던 아버지는 암 수술 뒤끝이 길게 이어져 내내 힘들어 하셨다. 아들 식구 사는 집을 내려와 직접 보고서야 “쓰러져가는 집에 살까 봐 걱정했다”며 우려와 안도가 담긴 한숨을 내쉬던 어머니는 허리와 다리 통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지만 내년이면 팔순이다. <br/><br/> 설날 아침, 세배 드리는 마음이 좀 묘했다. 뭐라고 설명하긴 힘들다. 예전엔 마음 속으로나 드리는 말씀이나 그냥 ‘건강하세요’ 였지만 이번엔 달랐다. 머리를 마루에 대며 나도 모르게 읊조렸다.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br/> 농사 짓는 자식 덕도 별로 못 보시면서, 내려가는 차편에는 아이스박스가 터지도록 음식을 담아주셨다. 자식들 앞에서는 ‘끙’ 소리 한 번 안 내지만 걸음걸이도 힘드신 분이 어떻게 했을지 뻔한데 넙죽 받아 드는 꼴이라니. 자식은 이마도 넓어지고 흰머리도 늘어가는 중년에 있건만 부모님 맘에 한 번 막내는 영원한 막내인가 보다. 아버지는 차 뒤꽁무니가 사라질 때까지 길가에 서 계셨다. 그러고도 조금 더 계셨을 게 분명하다.<br/> 내려와서 아내와 함께 간전댁 할머니를 찾아 뵈었다. 곶감과 함께 어머니가 마련해준 양말 꾸러미를 챙겨 들어서니 마당 한 편에서 또 뭔가를 하고 계셨다. “세배 받으세요” 하니 손사래를 치시며 도망가신다. 안되겠다 싶어 방에 먼저 들어갔고 마지못해 따라 들어오신 할머니는 우리 가족을 꼭 안아주시며 “절은 됐어요. 선재네한테 내가 많이 고마워요” 하신다. 나보다 작은 체구의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폭 안아주실 수 있을까. 푸근한 큰엄마요 할머니였다.<br/> 전 이장님댁도 찾아 뵙고 세배를 드렸다. 내외분은 서른 살 아래인 우리 부부에게 맞절을 하셨다. 오봉댁 어머니는 나에게, 아버님은 아내에게 아직도 말씀을 놓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작년 보다 100퍼센트 인상된 세뱃돈을 주셨다. 5000원에서 두 배 오른 1만원이다. “아버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했지만 자주 뵐 수 없는 환한 표정으로 “자식들한테는 다 줬어” 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다. <br/> 농사꾼과 상관 없는 연휴도 지나고 날씨도 푹해지니 이제 겨울휴가도 끝인가 보다. 아쉽다. 내내 기다렸던 겨울이 이렇게 지나가나 싶어 허망하다. 겨울만 되면 기가 막힌 기획도 한 번 해보고, 책도 한 30권 읽고, 작물에 뿌릴 약도 좀 많이 끓여 놓고 하려던 계획은 또 계획으로 끝나나 보다. 강원도 산골은 겨울이 6개월이라는데 그쪽으로 내려갔으면 일년의 절반은 쉴 수 있는 걸 잘못한 걸까. 한 달 전만 해도 “여기가 이렇게 추운데 강원도로 가면 어쩔 뻔 했어”하며 아내와 얘기한 기억이 또렷한데도 얼마나 됐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 한심하다. <br/><br/> “씨감자 받았는가~” 장씨아저씨가 농장으로 들어오셨다. 작은아버지 같은 분이다. 아주머니도 따라 오셨다. “예, 한 박스 신청해서 설 전에 받았어요.” 마늘밭에서 뽑던 풀 던져버리고 나오니 아저씨가 물으신다. “허던 일 계속 해! 나중에 나 땜시 일 못했다 소린 허덜 말고.” 시선은 반대편을 향한 채로 두 분이 농막 쪽으로 걸어가셨다. 어떻게 하라시는건지.<br/> 차를 내드렸더니 첫 입을 댔다가 뜨겁다고 뱉으셨다. 내가 부러워하는 아저씨의 두꺼운 아랫입술은 그런 과정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우리 감자씨는 누가 삶아 먹었는지 왜 아직도 안 왔으까요” 아주머니가 걱정 하시길래 “아직 2월인데요 뭐, 한참 남았네요” 답했다. 아저씨가 바로 정색하신다. “요 아래 조씨는 벌써 감자밭 다 갈아놨더만. 한가한 소리 하구 있네”하며 퉁바리를 주셨다. 나도 이제 좀 안답시고 말대답 했다. “거긴 비닐 씌우니까 서리 와도 괜찮지만 저희는 조금 늦게 심어야 돼요. 서리에 감자싹 꼬실라지면 어떡해요.” 아저씨가 헛웃음을 치신다. “어쭈, 웃기구 있네. 지금부터 땅 갈아서 3월에 심으면 싹 날 때쯤 때 맞춰 서리 끝나네. 상추도 늦었어. 토란 생강까지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 둬. 부모만 안 기다리는 줄 아는가. 땅도 기다려주지 않어.”<br/> 화제를 바꿨다. “아저씨 세배 드려야 되는데...” 했더니 “설이 언젠디 이제 세배여. 좋아. 남원에 맛있는 집 알아놨응게 그리 가서 하세” 하시며 일어나셨다. 농막을 나서던 아저씨가 물으셨다. “육공팔이는 어쩌고 아직 추운데 싸이카 타고 다니는가.” 육공팔이는 우리 차 번호고 싸이카는 오토바이를 말한다. “제가 육공팔이 타고 애 엄마 싸이카 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답하니 “그건 그러네. 아주머니한테 잘 혀. 늘그막에 도망가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인가. 아저씨는 승용차건 경운기건 항상 아주머니를 뒷자리에 태우고 다니신다. <br/> 아저씨 배웅 겸 마늘밭을 지나면서 잡초가 보기 싫어 궁시렁 댔다. “강원도는 4월까지 얼음이 있다는데... 거기 사람들은 5월부터 농사 시작한대요.” 아저씨가 다시 묘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니 일갈하신다. “그냥 일하기 싫으면 싫다고 혀. 그럼 에스키모는 365일 놀고 먹는다냐!” 아시는 것도 많다. 말씀마다 옳으신 말씀이다. 그저 “네” 할 수 밖에.<br/><br/> 前 한국일보 기자 cameragaga@naver.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32.txt

제목: 부품 찾아 세계 여행...두 바퀴 오타쿠의 자전거 예찬  
날짜: 20150227  
기자: 고경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27100000022  
본문: 로버트 펜 지음ㆍ박영준 옮김<br/> 책읽는수요일 발행ㆍ296쪽ㆍ1만3,000원<br/><br/> <br/> ‘이것은 모두 자전거 이야기입니다(It’s All About the Bike)’ 이 책의 원제다. 암을 극복하고 투르 드 프랑스에서 일곱 번째 우승한 이야기를 쓴 랜스 암스트롱의 회고록 ‘이것은 자전거 이야기가 아닙니다(It’s Not About the Bike)’를 살짝 비틀었다. <br/> 자전거 애호가를 넘어 오타쿠 수준의 애착을 지닌 저자 로버트 펜은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한다. 세상 어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나만의 자전거를 원한다”고. 저자가 자신만의 ‘꿈의 자전거’를 완성하는 과정을 쓸 것이란 예고다.<br/> 책은 맞춤 자전거 제작을 위해 펜이 선수 출신의 수제 자전거 제작자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전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대체 뭔 소린가 싶을 이야기가 이어진다. 정말 온통 자전거 이야기뿐이다. 요즘 자전거 업계가 가벼운 자전거를 생산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느니, 지난 70년간 도로용 자전거의 이상적인 헤드 튜브 각도는 73도였다느니, 자전거의 조향과 핸들 작용의 특성이 트레일이라고 불리는 수치에 의해 결정된다느니…. <br/> 자전거 한 대를 만들기 위해 미국 포틀랜드와 캘리포니아 마린 카운티, 이탈리아, 독일 등을 누비는 동안 저자는 자전거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재미나게 엮어낸다. 그의 지독한 자전거 사랑은 부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역사와 미학, 가치에 관한 이야기들에서 쉽게 파악된다. 저자에 따르면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에서 착안한 스프로켓과 체인을 통해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방식을 사용한 라이트 플라이어를 만들었다. 자전거가 있었기에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가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다.<br/> 펜의 자전거 예찬은 곧 장인정신에 대한 존경의 표시다. 그는 “<span class='quot0'>우리는 모든 물건의 품질이 상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나빠지지 시작하는 반 유토피아의 시대를 살고 있다</span>”고 말한다. 3,500파운드(약 600만원)를 들여 자신의 집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는 행복에 푹 젖는다. 자전거 덕에 마음 속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사라졌다니 그 정도면 헐값의 사치가 아닐까 싶다. <br/><br/>고경석기자 kav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33.txt

제목: 물음표 붙은 법원 판결들, 국민의 심문 앞에 서다  
날짜: 20150227  
기자: 김혜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27100000027  
본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br/> 북콤마 발행ㆍ652쪽ㆍ2만2,000원<br/> <br/><br/>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br/> 이보다 더 ‘다만’과 어울리는 문장이 또 있을까. 법원을 나서는 이들이 앵무새처럼 존중을 말하지만 진심은 대체로 그 뒤에 있다. 비상식적 판결에 대한 절규부터 정치공세로 재판부를 흔드는 경우까지, 여러 모습으로 판결에 따라붙는 물음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포위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정말 죄가 없나.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대형마트가 아니면 무엇인가. 23년 만에 실현된 정의는 과연 정의라 할 수 있나.<b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공평한가?’는 한국 법원을 성역의 유리성에서 끌어낸다. 2005~2014년 총 10년간 나온 66건의 판결을 심판대에 올렸다. 센터가 2005년부터 해온 판결비평이 바탕이 됐다. 교수, 변호사 등이 법리, 판례와 해외사례를 토대로 판결문을 해부하고 진단한다. 판결에 이르는 과정, 논리의 근거, 엎치락뒤치락한 1~3심의 흐름 등도 논의 대상이다.<br/> ‘이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을 둔 조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비평한 조수진 변호사는 근거가 된 유통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판결의 비상식성을 들춘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롯데쇼핑 이마트 등이 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마트측 손을 들었다. 법이 대형마트를 ‘면적 3,000㎡ 이상으로 점원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집단’으로 보는데 이마트 등에 점원이 일하는 정육점이 있어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것이다.<br/> “판결 해석은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문리 해석 범위를 벗어났다, 당초 법에 점원도움 유무가 들어간 것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엄격히 해석할 일은 전혀 아니다. 대법원도 상가가 일부 있다고 주택 전체를 상가로 보지는 않는다. 이야말로 꼼수와 편법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조 변호사)<br/> ‘원세훈 선거개입 무죄’ 판결은 법치주의와 국민을 모독했다는 호된 질책 앞에 무너진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원세훈이) 선거개입을 지시한 많은 발언을 제쳐두고 개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소위 알리바이성 발언을 지나치게 믿은 재판부의 맹목적 선의가 의심스럽다</span>”고 지적한다.<br/> ‘김용판 선거개입 무죄’ 판결은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른 경찰들과 달라 믿을 수 없다고 했다가 난타를 당한다. “재판부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진술보다 공범자일 수 있는 경찰 17명의 진술에 무게를 뒀다. 법정에서는 늘 경찰 정보관이 재판을 기록했다고 한다. 허위 진술할 정황은 역력했다. 벼랑 끝으로 자유심증주의를 딸려 보낸 가장 형편없는 판결이다.”(이광철 변호사)<br/> 책은 또 인터넷의 오류까지도 그대로 베껴온 엉터리 판결문, 부하를 성추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소령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종교활동의 공유’를 선처 사유로 든 군 법원,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게 꼬박 23년 만에야 무죄가 선고된 일 등을 다룬다.<br/><br/><br/> 사회 진전에 바탕이 됐다고 호평 받은 일명 ‘디딤돌 판결’도 있다. 고리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선 암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외부 성기를 뺀 모든 요건을 갖춘 성전환 남성의 성별 정정 청구를 받아들인 결정, 내부고발자의 명예훼손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등이다.<br/> 갈등의 태반은 법원으로 수렴된다. 정치 소통 화해 상생이 상실된 시대의 비루한 단면이다. 66건 판결비평의 바닥에는 ‘판사가 만능일 순 없지만 불능이어서도 안 된다’는 호소가 흐른다. 과연 공평한가? 누군가의 잘못을 따져 물어왔던 법원이 이제 국민의 심문 앞에 서 있다. <br/> <br/>김혜영기자 shin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34.txt

제목: "잠 8시간 이상 자면 뇌졸중 발병률 되레 높아져"  
날짜: 2015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26100000057  
본문: 최근 미국 수면재단이 발표한 ‘연령대별 새로운 권장 수면시간’에 따르면, 성인의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이다. 그러나 권장 수면시간만큼 자는 것이 오히려 뇌졸중 위험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면 10년 내에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br/>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수면 시간과 뇌졸중 발병과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해 41세에서 81세 사이의 성인 남녀 약 1만명을 9년 반 동안 관찰해왔다. 실험 참가자 중 70%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반면 10%는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으며, 조사 기간 동안 참가자 중 346명이 경미하거나 치명적인 뇌졸중을 앓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br/> 수면 외의 나이와 성별 등 다른 요소들을 조정한 뒤, 연구진은 “<span class='quot0'>8시간 이상을 자면 뇌졸중 걸릴 확률이 46%로 높아지며, 반면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 역시 발병 확률이 18%로 뇌졸중의 위험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span>”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의 ‘수면 부족이 신진대사 교란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연관되어 고혈압과 뇌졸중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다.<br/> 그러나 연구진은 오랜 시간 자는 것이 뇌졸중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단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보고 있다.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의 왕위 렝 박사는 “<span class='quot1'>과다한 수면과 뇌졸중 발병률 증가와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span>”라면서도 “<span class='quot1'>그러나 과다한 수면이 뇌졸중의 초기 지표인지 심혈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span>”고 덧붙였다.<br/> 영국 의학 연구위원회와 영국 암 연구 협회(UK Cancer Research)로부터 후원 받은 이 연구 결과는 의학 전문지 뉴롤로지(Neurology)에 실렸다. <br/> 함지현 인턴기자(한양대 국어국문 4년)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35.txt

제목: 몸 바꿔 가며… 불로장생 가는 길 열리나  
날짜: 2015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26100000106  
본문: 佛의사 2년內 전신 이식 수술 계획, 1970년 원숭이 실험 9일간 생존<br/><br/> <br/>늙거나 병든 신체를 거듭 바꿔가며 불로장생하는 공상소설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탈리아의 한 신경외과의사가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다른 이의 몸에 이식하는 ‘전신 이식’ 수술 계획을 발표했다.<br/>25일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신경외과의 세르지오 카나베로는 올 6월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리는 미국 신경ㆍ정형외과의 연례 학회에서 ‘전신 이식’수술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가 수술에 성공하면 말기암 환자나 신체 마비 장애인의 완치가 가능해진다.<br/>카나베로 박사는 이달 초 전신 이식 수술의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르면 2년 안에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두 신체의 목 부위를 각각 절개한 뒤 얇은 관을 이용해 환자 머리와 기부자 신체의 혈관을 잇는다. 이들은 신경 손상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각 신체의 척수를 절개, 이식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br/>카나베로 박사는 이식 수술 후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인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이용해 뇌와 이식된 신체를 연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환자는 수주간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가 의식을 되찾은 후 점차 대화나 감각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 만일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줄기세포나 후각초성화세포(OEC)를 척수에 이식 받아야 한다. OEC는 후각 시스템의 신경섬유가 계속해서 재생될 수 있는 경로 역할을 하는 세포로, 지난해 10월 영국의 의료진이 하반신이 마비된 남성의 척수에 OEC를 이식해 움직이게 한 바 있다. 카나베로 박사에 따르면 이미 여러 환자가 이 같은 전신 이식 수술에 자원한 상태다.<br/>전신 이식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의 로버트 화이트 박사는 1970년 원숭이 머리를 다른 원숭이 몸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이 원숭이는 인공 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며 9일 동안 생존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하얼빈의대 연구진이 쥐를 이용해 전신 이식을 시도해 호흡 및 순환 기능 유지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br/>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척수 신경을 끊었다 다시 연결하는 수술법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성공하더라도 면역계가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퍼듀대 신체마비 연구소의 리처드 보겐 소장은 “<span class='quot0'>척수와 뇌를 연결해 지각을 깨우고 신체 운동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span>”고 말했다. <br/>윤리적 논란도 잇따른다. 미국의 생명윤리학자인 페트리샤 스크립코는 “이식을 통해 사람을 살려낸다 해도 그가 누군지 정의 내리는 데는 혼란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br/>카나베로 박사의 계획은 최근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에 실렸다.<br/>신지후기자 hoo@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36.txt

제목: 호스피스 건보 적용 말기암 환자 부담 준다  
날짜: 20150225  
기자: 채지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25100000139  
본문: 5인실 이용 땐 평균 진료비 하루 1만5000원만 본인 부담<br/> <br/> 올해 초 말기 난소암 판정을 받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51일(일반병동 32일, 중환자실 19일)간 입원해 치료받다 사망한 A(58)씨의 총 진료비는 2,396만원이었다. 항생제와 항암제를 투여 받고, 인공호흡 치료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한 비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간병비 포함)은 551만원이었지만 이마저도 A씨 가족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br/> 그런데 A씨가 같은 기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동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치료를 받았다면 불필요한 항암치료나 비급여 항목 진료가 발생하지 않아 본인 부담금은(간병비 포함) 101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반병동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보다 비용이 82% 감소한다. <br/> 올해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항암 치료의 경우 비급여 치료 등이 천차만별이지만 환자 부담금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br/> 복지부 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 정액 수가가 적용되고, 고가의 통증관리나 기본상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가가 산정된다. 일당 정액에는 임종실이나 상담실 등 특수 시설 유지비, 음악ㆍ미술 치료 요법, 전인적 환자 관리 등이 포함된다. 마약성 진통제 투여나 방사선치료, 혈액암 환자 수혈 등은 의료행위별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은 1인실 이외의 모든 병실에 대해, 의원의 경우 1인실을 포함한 모든 병실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출이 컸던 간병 서비스도 건보 급여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br/> 수가 적용으로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하루 평균 진료비 22만 1,000원 중 1만5,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간병비도 30만1,000원 중 1만9,000원만 내면 된다.<br/> 이번 복지부 안은 2009년 12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수가를 적용한 후 5년 여 만에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br/> 전문가들은 다만 호스피스 병상 부족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라정란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팀장은 “<span class='quot0'>건보 적용은 환영할 만하지만 임종을 맞이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말기 암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점이 아쉽다</span>”고 말했다.<br/> 암 환자 대부분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빅5’라고 불리는 서울 5개 대형병원 중 성모병원만 유일하게 호스피스 병동을 설치하는 등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56개로 병상은 939개에 불과하다. 라 팀장은 “<span class='quot1'>호스피스 병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용률이 낮은 것도 사실이지만, 호스피스 병동 중 상당수는 시설이 열악해 환자들이 이용을 꺼려 빈 병상이 꽤 된다</span>”고 말했다. 대형병원의 참여를 끌어내고 열악한 호스피스 병동을 정비하는 등 질적인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br/> 호스피스 치료는 통증 등 증상관리뿐 아니라 심리 상담과 사별가족 관리까지 병행해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물론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치료사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해 종합병원들은 호스피스 치료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재용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span class='quot2'>현재까지는 호스피스 의료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지만 수가 체계가 마련되고 적용되면 점차 늘어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 복지부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호스피스 기관에 대해서는 퇴출을 유도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3'>호스피스 병원의 차별화된 서비스 등 적극적인 말기 암환자 유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br/> 채지은기자 cj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37.txt

제목: 헝겊 '아바타'에 침… 황당치료 하다 환자 사망  
날짜: 20150224  
기자: 정광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24100000039  
본문: 헝겊인형에 침을 놓는 방법으로 질병을 치유한다는 황당한 침술사가 진짜로 침을 놓다가 환자를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br/> 대구 달서경찰서는 24일 무자격으로 유방암 환자에게 침을 놓다가 숨지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자칭 기 치료사 김모(50ㆍ경기 광주시)씨를 구속했다.<br/>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대구 달서구 한 가정집에서 유방암환자인 송모(56)씨에게 길이 13~14㎝ 가량의 침을 6차례 놓아 복막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송씨와 함께 침을 맞은 이모(55)씨도 심한 통증을 호소, 병원치료를 받고 겨우 목숨을 건졌다.<br/>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자수자 힐링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환자 이름을 써 붙인 헝겊 인형에 침을 놓는 방법으로 ‘아바타 테라피’ 요법으로 암 등 중증환자를 치료해 왔다. 환자에게 직접 침을 놓지 않고 아바타에 시침하는 것만으로 동기감응을 일으켜 치료가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br/> 숨진 송씨 등은 지난 1월 인터넷 카페를 보고 직접 자수자 힐링원을 찾아가 아바타 침을 시술했으나 차도가 없자 진짜 침을 놓아줄 것을 요청했고, 김씨가 이날 직접 대구에 출장, 시침하는 과정에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br/> 김씨 측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카페에는 아바타 테라피를 음양오행 색채요법으로 아바타를 정한 뒤 그 아바타에 시침하는 방법으로 뼛속이나 오장육부의 막힌 기혈을 풀어 병기를 뽑아낸다고 홍보하고 있다.<br/>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대의학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무자격 침술사가 난치병 환자들의 ‘혹시나’ 하는 절실함과 무지를 악용해 돈벌이를 하다가 인명사고를 낸 경우</span>”라며 “<span class='quot0'>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38.txt

제목: 손 떨림 없는 로봇, 美 전립선암 수술 80~90% 도맡다  
날짜: 2015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2210016742813  
본문: 배 절개하는 너비 크게 줄여<br/>요실금ㆍ발기부전 등 부작용 최소화<br/>동작 정교해 신장암 수술에도 인기<br/><br/><br/> <br/> [정밀의학 시대]<br/> 요즘 질병 치료에서 환자 개개인을 중심에 놓는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이 대세다. 기존 방법은 병기(病期)가 비슷한 환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가이드라인(표준치료법)을 꿰맞추는 두루뭉슬 한 것이었다. 하지만 같은 병기이더라도 증상 상태, 유전적 특질 등은 환자마다 각기 다르다. 정밀의학은 환자들 사이의 이 같은 개인 차이에 주목한다. 진단과 치료의 모든 과정을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춘다. 맞춤치료이다 보니 치료율이 올라가고 후유증 발생은 줄어 들 수밖에 없다. 최근 국내에서 본격 시도되고 있는 정밀의학의 모습을 들여다 본다.<br/> <br/> 요즘 전립선암이 초기(1~2기)인 국소성 전립선암은 95%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문제는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의 가능성이다. 수술로 암이 사라지더라도 성(性), 소변 등 기능 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아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기능 이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게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을 하는 비뇨기과 의사들에게 남겨진 숙제다. 전립선암을 수술하는 의사들은 지금도 절제범위 등을 이리저리 바꿔 보면서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선책으로 주목 받는 것이 로봇을 이용한 정밀수술(precision surgery)이다.<br/> 로봇수술은 2005년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로봇은 병변을 10~15배로 확대해 3차원 고화질 영상으로 보여 주는 데다 손 떨림 방지 등 기능이 있어 정교한 수술을 돕는다. 현재 미국에선 모든 전립선암 수술의 80~90%가 로봇으로 이뤄지고 있다. 로봇수술은 전 세계적으로 국소성 전립성암에 대한 표준치료법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r/> 전승현 경희대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로봇의 장점은 최소침습이 가능하다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전립선암 수술에서 요실금, 발기부전 등 후유증 발생을 줄여 준다</span>”고 했다. 개복수술은 배꼽에서 시작해 치골 부위까지 복부의 30cm가량을 째는 큰 수술. 로봇수술은 배에 작은 구멍 5~6개만 뚫는다. 절개 범위를 최소화 하기 때문에 흉터와 통증 발생이 적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 <br/><br/><br/> 국내외 연구 결과,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암 수술은 개복에 비해 합병증을 줄여 주는 것으로 보고됐다. 암 치료 성적은 로봇과 개복이 비슷하다는 게 대체로 일치된 견해다. 다만 전립선암의 로봇과 개복의 수술 결과는 연구 주체에 따라 엇갈리는 쟁점이다.<br/> 전 교수는 “<span class='quot1'>로봇수술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span>”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span class='quot1'>로봇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비용이 고가라는 단점이 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수술 후 발기능력과 요실금 회복 속도가 개복수술보다 더 빠르다</span>”고 했다.<br/> 로봇수술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전립선암 수술비가 800만원 안팎으로 비싸다. 복강경수술은 300만~400만원, 개복은 200만~300만원가량이다.<br/> 전 교수는 “<span class='quot1'>정밀의학은 전립선암에 딱 맞아떨어진다</span>”라고 했다. 예전엔 암이라고 하면 암 덩어리를 포함한 주변을 폭넓게 잘라내는 광범위한 절제가 주된 치료법이었다. “<span class='quot2'>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전립선암 환자들은 요실금 증상으로 평생 기저귀 차고 다니고 발기부전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span>”고 전 교수는 이유를 밝혔다. <br/> <br/> 로봇, 고난도 부분신절제술에서도 유용<br/> 정교한 수술을 돕는 로봇은 전립선암 뿐 아니라 고난도 신장암 수술에서도 유용하다. 신장암으로 신장을 보존한 채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잘라내는 부분신절제술에서 특히 그렇다. 부분신절제술은 비뇨기과에서 최고난도 수술로 꼽힌다. 몸속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은 하는 신장에는 엄청난 양의 혈액이 지나간다. 이 수술을 위해서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의 차단이 필요한데, 오랜 시간 혈관을 차단하게 되면 피 공급이 안돼 허혈성 손상으로 신장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혈관을 20분 정도 잡아놓고, 종양을 잘라내고, 다시 꿰매는 과정을 거친다. 부분신절제술은 시간싸움이다. <br/> 전 교수는 로봇을 이용한 부분신절제술의 이점에 대해 “<span class='quot1'>로봇으로 하게 되면 육안보다 더 확대돼 보이는 데다 로봇 기구가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복처럼 손이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span>”고 했다. <br/> 신장암 수술은 신장을 다 절제해내는 근치적절제술과 신장을 보존한 채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잘라내는 부분신절제술로 크게 나뉜다. 전 교수는 “<span class='quot1'>신장암의 종양 사이즈가 4cm 미만으로 비교적 작은 일반적인 부분신절제술에서는 로봇수술이 추천된다</span>”고 했다. 다만 종양 크기가 4cm 이상으로 크면서 근치적신절제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 예컨대 신장이 하나 밖에 없거나, 한쪽 신장의 기능이 망가져 부분신절제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로봇보다는 개복이 더 유리하다고 전 교수는 밝혔다.<br/> 부분신절제술에서 복강경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로봇이 더 섬세하다는 설명. 전 교수는 “복강경으로 혈관을 찾아 꿰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 신장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 가급적 빨리, 정교하게 하는 데는 로봇 또는 개복이 낫다”고 했다.<br/> <br/> 표적치료제, 전이성 신장암에서 생존기간 연장<br/> 전이성 신장암에서는 표적치료제가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연장해 주는 정밀의학의 한 도구가 되고 있다. 신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환자의 20~30%가량은 진단 당시부터 전이 양상을 보이는 무서운 암. 신장에만 국소적으로 암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적 치료가 매우 어렵다. 다른 암과 달리 방사선 또는 일반 항암제가 잘 듣지도 않는다. 이 같은 이유로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진 전이성의 경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불치병으로 여겨졌다.<br/> 표적항암제의 등장과 이용은 신장암 치료에 획기적 변화를 불러왔다. 수텐(성분명 수니티닙), 넥사바(소라페닙), 아피니토(에베로리무스) 등 표적항암제가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때론 사이즈까지 줄임으로써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br/> 2007년 3월 국내에 선보인 수텐은 전이성 신장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26.4개월로 늘려 주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 2006년 국내 복용이 허가된 넥사바는 기존 항암제 사용에 따른 탈모, 구토 등 부작용도 줄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아피니토는 1차 치료제로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신장암에 대한 2차 치료제다. 1차 치료에서 실패한 진행성 신장암 환자 대상의 임상연구 결과, 이 표적치료제로 치료한 환자군의 무진행 생존기간은 4.9개월로 대조군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br/> 전 교수는 “표적치료제는 얼마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기간 충분한 용량을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2차 치료제마저 안 듣는 경우 쓸 약이 없다. 1차, 2차 약제를 가급적 길게 가져가는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했다.<br/><br/> 송강섭기자 ericsong@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39.txt

제목: 아름다운 지구에서 생각하는 동물로 살아 행복  
날짜: 20150222  
기자: 고은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22100000050  
본문: 美 저술가·신경학자 올리버 색스… 시한부 선고받고 인생 소회 밝혀<br/><br/><br/><br/>영화 ‘사랑의 기적(Awakening)’의 원저작자이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등 여러 저술로 잘 알려진 미국 신경학자 올리버 색스(81)가 최근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 9년 전 수술 받은 안암(眼癌)이 간으로 전이돼 병원에서 여명 몇 개월 통보를 받은 것이다.<br/> 색스는 자신에게 남겨진 길지 않은 삶을 가장 윤택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철학자 데이비드 흄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단편의 자서전 쓴 것에 착안해 글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쓴 자서전은 조만간 책으로 나올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색스는 말기암 선고를 받고 자서전을 쓰면서 느꼈던 인생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고로 털어놨다. 지난 19일자 뉴욕타임스 오피니언면에 실린 색스의 ‘내 인생(My Own Life)’ 칼럼을 요약한다.<br/> 한달 전 나는 건강상태가 좋았다. 심지어 양호하다고 느꼈다. 81세에 여전히 하루에 1.6㎞ 수영을 한다. 하지만 내 운은 다 했다. 몇 주 전 나는 간에 여러 종양이 전이 된 것을 알게 됐다. 9년 전 안구흑색종으로 눈에 종양을 발견했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방사능, 레이저치료를 했지만 결국 한쪽 시력을 잃었다. 이 같은 종양전이는 매우 드물다. 나는 불행한 2%에 속한다.<br/> 첫 진단 이후 9년간 건강상태가 좋았던 것에 감사하지만 지금 나는 죽음과 직면해 있다. 진행은 더딜지라도 암은 내 간의 3분의 1를 차지하고 있고 이 특별한 종류의 암을 멈출 방법은 없다.<br/> 남은 수개월을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것은 나한테 달렸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여유롭고 깊이 있고 생산성 있게 살아야만 한다.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 데이비드 흄의 글 가운데 용기를 얻는다. 그는 65세에 병세가 위중해져 1776년 4월 어느 날 ‘나의 삶’이라는 짧은 자서전을 썼다.<br/> 흄은 ‘나는 온화하고, 분노를 억제하고, 열려있고, 사회적이고, 유머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증오에 다소 예민하고 내 모든 열정을 조절한다’고 적었다. 나는 흄과 다르다. 나는 사랑하는 관계와 우정을 즐기는 반면 진정한 증오는 없지만 온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격렬한 기질이 있고 폭력적이며 열정이 과도하다.<br/> 흄의 에세이 한 줄이 나를 깨운다. 그는 ‘삶 속에 있는 것보다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더 힘들다’고 썼다. 지난 며칠간 나는 높은 곳에서 풍경을 보듯 내 삶을 볼 수 있었다. 삶을 끝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반대로 그 시간에 나는 강렬하게 살아있고, 내가 사랑한 것들에 작별을 고하고, 우정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힘이 된다면 여행도 하고 이해와 통찰력을 한 단계 높인다고 느낀다. 이는 대담함, 명확함, 솔직함을 동반한 것이다. 세상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간에는 약간의 재미를 위한 시간도 있을 것이다.<br/> 그러다 갑자기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불필요한 무언가를 위한 시간이 더는 없다는 것이다. 내 자신, 내 일, 내 친구에 집중해야 한다. 더 이상 매일 밤 뉴스를 보지 않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 같은 논쟁이나 정치에도 더 이상 관심 쏟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무심이다. 나는 중동문제와 지구온난화, 불평등 확대를 걱정하지만 더 이상 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미래에 속하는 것들이다.<br/> 나는 지난 10년 아니 그 이상 주위 사람들 누구보다도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왔다. 내가 느끼는 각각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자신의 일부를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들은 채울 수 없는 구멍을 남기고 간다. 그 자신의 길을 찾고, 그 자신의 삶을 살며, 그 자신의 삶을 죽는 모든 인간은 고유의 개인이고 유전학적이며 신경학적인 운명이다.<br/>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나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뚜렷하게 나는 ‘감사’를 느끼고 있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 받았다. 많이 받았고 답례로 무언가를 주었다. 읽고 여행하고 생각하고 썼다. 세상과, 특히 작가와 독자들과 교류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아름다운 지구에서 지각하는 존재였고 생각하는 동물이었다. 그것만으로 큰 특혜와 모험이었다.<br/><br/>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40.txt

제목: 자살률 1위, 와그라 증후군, 건강염려증...아프니까 중년이다?  
날짜: 2015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2210016742019  
본문: 유신독재ㆍ경제성장ㆍ외환위기...<br/>쉼 없이 달려와 인생 2막 준비 시기<br/>가정ㆍ사회서 소외감 정신질환 늘어<br/>고통 수용하는 성숙한 자세 바람직<br/><br/><br/> <br/> 유신독재에서 고도 경제성장, 5ㆍ18민주화운동, 외환위기까지 현대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관통한 우리 사회 50대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신을 내팽개 친 채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건만, 이들 앞에는 와그라 증후군, 불안장애 등 각종 정신적 증상들이 불청객처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증상은 인체 노화에 따른 것들. 지난 시간을 찬찬히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자기 관리법을 통해 이런 정신적 걸림돌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인생 후반전의 성패가 엇갈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br/> <br/> 우리 사회 50대들의 우울한 자화상<br/>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59세의 사망원인 2위는 자살이다. 10만명당 자살률도 19.0%로 40대와 함께 1위다. 자살 동기는 경제ㆍ생활문제(26.0%)보다 정신적 문제(2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버팀목이라 할 50대들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50대 나이는 직장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한편,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설계를 해야 할 시기. 인생의 중대 전환점를 맞는 이들의 삶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0'>사망률과 출생률의 동반 감소에 따라 늙었지만 죽지 않는 노인들과 젊지만 독립해서 어른 노릇을 못하는 젊은이들을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낀세대가 50대</span>”라며 “<span class='quot0'>이들이 미래에 대한 인생설계를 제대로 못 하게 되면 불행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다</span>”고 지적한다.<br/> <br/> 당신도 혹시 ‘와그라 증후군’?<br/> 직장 회식자리나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거나, 다 큰 자식을 무릎 꿇게 하고 몇 시간씩 설교를 한 경험이 있다면 ‘와그라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와그라 증후군은 치매나 노화 증상은 아니지만 생각이 중심을 잃고 곁가지를 맴도는 증상으로 언어와 행동 변화가 특징이다. 단어가 잘 기억나지 않고, 이름이 혀끝에 맴돌긴 하는데 기억을 못하거나, 엉뚱한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주요 증상이다. 필요한 물건을 이미 구입했음에도 또 쇼핑을 하거나, 은행이나 관공서를 여러 번 들락거린다면 이 역시 와그라 증후군에 따른 것일 수 있다.<br/> ‘오십후애사전(五十後愛事典)’ 저자 이나미 한국융연구소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0'>와그라 증후군은 성호르몬 저하 뿐 아니라 갑상선과 부신피질 등 전반적인 호르몬 기능 실조, 뇌세포 노화 위축 등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증상에 대해 너무 초조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청년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음을 정신적으로 수용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span>”고 했다.<br/> <br/> 잘못된 몸 사랑법 ‘건강염려증’<br/> 사회와 가정에서 사랑 대신 희생을 요구 받고 있는 50대에 흔히 생기는 증후군이 바로 건강염려증이다. 건강염려증은 개인이 누군가에게 충분히 사랑 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고,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발생한다. <br/> 분석심리학의 선구자 칼 융의 상담 사례. 한 50대 중년남성이 어느날 융을 찾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span class='quot1'>사회적으로 성공한 후 갑자기 몸 속에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강박관념이 생겼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span>” 중년남성은 그러면서 수십 년 전 자신이 매독에 걸린 기억과 함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의 상처를 떠올렸다. 융은 그가 앓고 있는 건강염려증은 그동안 성공에만 사로잡혀 소홀히 해온 몸이 반란을 일으켜 아우성을 치는 것으로, 몸에 대한 진정한 사랑 없인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 결론내렸다.<br/> 정찬승 마음드림의원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span class='quot2'>건강염려증은 우리 몸이 자신을 점검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병적으로 진행될 경우 죄책감이 증폭돼 우울증상이 심화될 수 있다</span>”고 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3'>아프다고 남들에게 관심 받고 그로 인해 행복한 것은 일시적 위안일 뿐</span>”이라며 “<span class='quot3'>건강염려증과 같은 잘못된 사랑법이 아닌 자신의 몸을 제대로 건강하게 사랑해야 50대 이후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span>”고 했다.<br/> <br/>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br/> 50대가 되면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성생활을 즐기는 부부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성호르몬의 변화로 여성은 공격적으로 변하고, 남성은 여성처럼 쉽게 토라져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신체 변화에 적응하지 않은 채 외도를 꿈꾸거나, 실제 외도하는 이들이 많다. 외도를 안 하더라도 성적 부조화로 인해 부부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의처증, 의부증이 발생한다.<br/> 정 원장은 “<span class='quot4'>외도는 남녀 모두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서 새로운 자극이나 쾌락을 갈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span>”며 “<span class='quot4'>평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추구했던 이들일 경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외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span>”고 했다.<br/> 50대의 외도 양상은 남녀가 크게 다르다. 남성은 자신의 지위나 경제적 강점을 이용해 젊은 여성의 마음을 현혹시키려 하는 반면, 여성들은 연하남과의 교제를 꿈꾸는 ‘쿠커신드롬’에 흔히 빠진다.<br/>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의 한 50대 남성은 아내와 불륜을 의심, 외출하는 아내를 미행한 끝에 차량에 동승해 있던 남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해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50대 초반부터 매년 아내와 함께 병원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김영일씨(74)는 부부 동반으로 등산, 수용 등을 즐기면서 건강과 사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각기 다른 두 부부의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br/> 이 교수는 “<span class='quot3'>파트너를 교체한다고 해서 성 기능이 크게 호전되지도 않고, 매혹적인 낯선 이에게 혹하는 마음은 반감기가 매우 짧다</span>”고 했다. 정 원장은 “<span class='quot4'>외도는 그동안 억눌렀던 자기감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4'>외도를 통해 내면에 잠재된 감정을 분출하지 말고, 악기 춤 그림 문학 등 예술적 취미를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효과적</span>”이라고 했다.<br/> <br/> 당신은 사자단계인가, 낙타단계인가?<br/>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의대 교수팀은 1938년부터 2000년대까지 60여 년간 하버드대 학생 268명을 선정, 대학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행복과 삶의 조건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부조리와 불합리를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방어기제)와 심하게 분노하지 않고 스스로 소외되지 않은 이들이 8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프리드리히 니체는 변증법적 분석을 통해 50대의 불안과 목표를 ‘사자단계’와 ‘낙타단계’로 비유해 관심을 끈 바 있다. 우선 사자단계. 자신의 위치가 불안한 이들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 당하면 분노하고 투쟁한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고독하고 일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힘들다. 이에 따라 이들은 술, 외도, 도박 등 중독성이 강한 쾌락에 빠진다. 직장에서 착취적인 상사, 가정에서는 권위적인 아버지가 이에 해당된다.<br/> 노부모와 자식을 부양하기 때문에 조용히 자기 일에 충실한 낙타단계. 상황은 사자와 다를 바 없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삶의 목표가 있어 부지런히 일 하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원망은 물론 낙오와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 받는다. ‘워커홀릭 (workaholic)’이 이에 해당된다. <br/> 박한선 성안드레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경인류학자)는 “<span class='quot0'>불안과 목표라는 상반된 화두를 안고 사는 50대들 중 불안장애를 겪는 이들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잊고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br/> <br/> 늦었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는 방법<br/> 유신독재에서 최근의 외환위기까지 우리 현대사의 질곡을 두루 경험한 우리 사회 50대들. ‘베이비부머’ ‘낀 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도태’가 곧 ‘실패’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가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왔건만 정작 가정과 사회에서는 초대받지 못하는 대상일 뿐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3'>직장 업무 때문에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50대들이 가정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자신이 집안에서 낯선 국외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3'>갑자기 나타나서 오랫동안 집안의 구성원이었던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균형 상태에 있는 가족들의 평화만 깨져버린다</span>”고 충고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3'>가족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지난 과오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했다.<br/> “<span class='quot1'>어릴 적에는 정말 착했는데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네요.</span>” 진학, 결혼문제로 자녀와 문제가 생겨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50대 부모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자녀에 대한 인식도 변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 원장은 “<span class='quot4'>부모와 갈등하는 것은 이제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날 때가 됐다는 신호</span>”라며 “<span class='quot4'>성장한 후에도 부모의 말만 듣는다면 착한 아이가 아니라 바보</span>”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3'>대학에서 늙은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교육시키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3'>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슨 일을 하던 자기 입을 책임지고 주변에서 받은 만큼 되갚으라는 책임감을 길러주는 일</span>”이라고 했다.<br/> <br/> 자아 사랑ㆍ위로해야 행복<br/> 인생 후반전을 맞는 50대부터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노년에 행복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수희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5'>50대 이후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관리, 위로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5'>특히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50대의 경우 자신이 그동안 해 온 일들을 관조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해야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span>”고 했다.<br/>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편견도 사라져야 한다. 최 교수는 “<span class='quot5'>병원을 찾은 50대 환자 중 상당수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암에 걸린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말한다</span>”며 “<span class='quot5'>정신과 치료도 다른 질환 치료처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span>”고 했다.<br/> 자기관리도 필요하다. 행복과 삶의 조건에 대한 연구로 명성을 얻은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의대 교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조건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 ▲안정된 결혼생활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 ▲금연 ▲금주 ▲체중조절 ▲운동 등 7가지를 꼽았다. 박 전문의는 “<span class='quot6'>50대 이후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면 행복한 노년을 맞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span>”이라고 했다. <br/> <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k.co.kr<br/> <br/>▶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의대 교수의 ‘품위 있는 인생 후반기를 위한 여섯 가지 조건‘<br/> <br/> 1.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보살피고 새로운 사고에 대해 개방적이며 신체건강의 한계 내에서도 사회에 보탬이 되려 한다.<br/> 2. 노년의 초라함을 기쁘게 감내한다.<br/> 3.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주체적이어야 한다.<br/> 4. 유머감각을 갖고 놀이를 통해 삶을 즐긴다.<br/> 5. 과거를 돌아볼 줄 알고 과거에 이룬 성과를 소중한 재산으로 삼는다.<br/> 6. 오래된 친구들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41.txt

제목: 건보료 지출 증가세 뚝… 한국인 건강해졌다?  
날짜: 20150217  
기자: 양진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17100000011  
본문: 지난해 5.7% 늘어 44조원 지출, 10년 전에 비해 증가율 절반 감소<br/>인구고령화로 노인성 질환은 급증 "80대 이상 고령에 정책적 지원을"<br/><br/><br/> <br/> 최근 3년 간 의료비로 지급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이 이전 6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조기검진이 정착되고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인의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br/>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지출액은 2013년에 비해 5.7%(2조3,868억원) 증가한 43조9,155억원이었다. 2005~2011년 연 평균 12%씩 증가하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수치다.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도 5.5%에 그쳐 건보료 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보 재정은 4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도 12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br/> 복지부는 건강보험 의료급여비의 증가율이 이처럼 떨어진 원인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 등 건강 관리 행태의 변화를 꼽았다. 국가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이 가능해져 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꺾였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그 동안 진료비 증가의 주요인이던 만성질환비와 노인의료비 항목에서 진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원은 “<span class='quot0'>흡연율 감소와 같은 건강행태 개선과 조기건강검진의 정착으로 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span>”고 분석했다.<br/>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민 가운데 건강검진을 받는 수검률은 2007년 60%에서 지난해 74.1%로 증가했다. 암 검진 수검률도 같은 기간 35.4%에서 45.2%로 늘어났고, 이에 따른 암 급여비 증가율은 2007~2010년 연평균 15.7%에서 최근 3년 사이 3.1%로 크게 완화됐다.<br/> 의료비 지출증가세가 꺾인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대기환경의 개선도 큰 이유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그 덕분에 병원 입ㆍ내원 일수가 줄어 들었고, 호흡기와 계절성 질환의 발생 증가세도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건강한 노인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07~2010년 연평균 9.1%로 증가했으나 2011~2014년에는 3.8%로 증가율이 낮아졌다. 노인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젊은 60대가 가장 건강해, 최근 3년 간 1인당 진료비가 오히려 1.4%씩 감소하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70대의 1인당 진료비도 연평균 1.7%씩 증가하는데 그쳤고, 80대와 90대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각각 4.9%, 10.6%씩 증가했다.<br/> 다만,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와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의 진료비와 급여비의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치매 진료비는 2011년부터 3년간 연평균 19%씩 증가했고, 요양병원 급여비는 지난해 17.9% 늘었다.<br/> 신현웅 연구원은 “<span class='quot1'>건강한 노령화는 진료비 발생시기를 늦출 수는 있지만 노인의료비 발생 최고점은 사망 직전</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노인도 연령에 따라 예비ㆍ전기ㆍ후기로 나눠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둔화한 배경에 최근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이 병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신 연구원은 “<span class='quot2'>경기침체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증질환은 보장성 강화 대상이고,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span>”라고 설명했다.<br/>양진하기자 realha@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42.txt

제목: [지평선] ‘구정’ 아닌 ‘설’이다  
날짜: 20150217  
기자: 이충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17100000069  
본문: 국가기록원이 어제 공개한 설날 관련 기록물을 들춰보니 ‘음력과세방지에 관한 건’이 눈길을 끈다. 1954년 입안된 이 정부 문건에는‘광신적 제반 인습은 무지한 대중생활에 뿌리 깊이 만성화한 암적 존재이므로 이를 급속히 시정해 민족문화 발전에 일대 혁신을 기해야’운운하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서 전근대적 악습으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묘사된 것은 음력설이다. 이런 인식과 함께 정부는 10여 가지의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세배 다니지 말 것, 떡방아ㆍ가축도살ㆍ밀주조 단속, 일반 상가 철시 금지 등이다. <br/> ▦ 음력설은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오랜 세월 푸대접을 받았다. 을미개혁으로 1896년 태양력을 수용하면서 전통 명절인 음력설이 사라지고 양력 1월1일이 공식적인 ‘설날’이 됐다. 그러나 개혁이 민중들의 반발에 부닥치면서 그때부터 양력설은 ‘왜놈 설’로 치부됐다. 음력설을 쇠는 것은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일제는 음력설을 말살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떡방아간을 폐쇄하고 흰 옷을 입고 세배 다니는 사람들에게 검은 물이 든 물총을 쏘아 얼룩이 지게 했다. <br/> ▦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정부가 계속 음력설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중과세 폐단이었다. 그럼에도 음력설은 꺾이지 않았고 논란은 매년 이어졌다. 1981년에는 정부에서 ‘신정과 구정’이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내놨는데 논리가 걸작이다. 구정을 공휴일로 하자는 주장은 고유풍습을 계승하자는 관점에서 나온 것인데 제사와 세배는 구정 날 아침이나 저녁에 하면 되니 굳이 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민속놀이는 여가를 활용하면 되고, 도시근로자 귀성은 신정연휴나 크리스마스에 가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명절이라 해서 반드시 공휴일이어야 할 이유가 없음이 증명됐다고 멋대로 결론지었다. <br/> ▦ 음력설은 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어정쩡한 이름으로 절반쯤 복권됐고, 89년에야 완전히 명예를 되찾았다. 정부는 음력설을 ‘설’이라 명명하고 사흘간의 휴무를 줬다. 우리가 지금 당연한 듯 쇠고 있는 설에는 스스로를 낮추고 폄하했던 아픈 역사가 스며있다. 이런 의미를 안다면 구정이니 신정이니 하는 용어와 음력설이니 양력설이니 하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설은 음력 1월1일 하나뿐이다. <br/> <br/> 이충재 논설위원 cjle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43.txt

제목: 국내 대학생 논문 국제학술지에 잇따라 실려  
날짜: 20150216  
기자: 정준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16100000085  
본문: 광운대 박성묵·건국대 정예람 씨<br/> <br/> 대학 학부생들이 석ㆍ박사 수준의 연구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잇따라 논문을 게재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광운대 화학공학과 4학년 박성묵(25)씨와 건국대 융합생명공학과 4학년 정예람(24ㆍ여)씨. <br/> 16일 광운대에 따르면 박씨가 쓴 ‘수경재배를 활용한 나노물질 개발’ 논문은 국제학술지인 ‘국제나노과학저널(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에 올해 중 게재가 확정됐다. 박씨는 기존의 화학적 방식에서 벗어나 콩나물, 무순, 새싹채소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나노물질을 제조하는 법을 개발했다. 고온ㆍ고압의 위험한 환경 속에서 실험해야 하는 화학 방식과 달리 식물을 활용하면 안전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br/> 정씨는 무려 6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건국대는 정씨가 4학년 재학 중 1년 동안 주저자로 쓴 논문 3편을 포함, 총 6편의 논문이 ‘화학생물학 & 약물분자설계(Chemical Biology & Drug Design)’ 등 4개의 국제저널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게재됐다고 밝혔다. 정씨는 딸기, 감, 양파 등 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휘세틴(fisetin)이라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항암효과를 일으키는 과정을 규명해 향후 새로운 항암물질 발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별장학생으로 건국대 대학원에 입학 예정인 정씨는 “<span class='quot0'>좀 더 폭넓은 방향으로 암뿐만 아니라 치매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천연물질을 연구해보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br/> 정준호기자 junhoj@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44.txt

제목: 실명 위기 넘긴 아프리카 소녀 "의사 될래요"  
날짜: 20150216  
기자: 김현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16100000090  
본문: 한국 구호단체·병원 도움으로 국내서 10시간 안면 수술 성공<br/> <br/> 얼굴을 뒤덮은 종양 때문에 실명 위기에까지 몰렸던 아프리카 소녀가 한국 구호단체와 의료진의 도움으로 새 희망을 찾았다.<br/> 국제구호단체인 ‘기아대책’은 안면기형으로 고통 받던 아프리카 소녀 찬사 멜리사(14)에게 지난달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br/> 아프리카 잠비아의 한 빈민촌에 사는 멜리사는 2살 무렵부터 왼쪽 얼굴이 붓기 시작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13살이 되던 지난해 그녀의 얼굴을 뒤덮은 종양은 주먹 크기만큼 커졌다.<br/> 멜리사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온 건 지난해 4월. 교육ㆍ의료 봉사 차 잠비아에 파견 나간 기아대책 봉사단이 멜리사의 사연을 접하고 단체 차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 1월 25일 한국 땅을 밟은 멜리사는 나흘 뒤인 29일 수술대에 올랐다. 병명은 영양실조를 겪는 아프리카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주 발견된다는 신경섬유종증으로 밝혀졌다. 수술을 맡은 김정태(53) 한양대병원 교수가 “<span class='quot0'>그냥 두면 암으로 변형되거나 안구를 적출해야 할 수도 있다</span>”고 했을 정도로 멜리사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10시간에 걸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얼굴의 종양은 모두 제거됐고 허리 피부를 떼어 종양을 제거한 부위를 덮는 수술도 마쳤다.<br/> 수술 후 의식을 찾은 멜리사는 “수술을 받을 수 있어 고맙다”며 “아프리카로 돌아가 성형외과 의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아대책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긴급의료지원기금을 통해 멜리사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span>”고 말했다. <br/><br/>김현빈기자 hbkim@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45.txt

제목: "임상의과학자 양성" 학생당 1억 투자...글로벌 연구 중심으로  
날짜: 201502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1510016740840  
본문: 실험동물연구센터 잇달아 개원<br/>SARS 등 위험 질병 백신 개발<br/>대형 국책과제 수주도 속속<br/>석ㆍ박사 1만8500명 연구 지원 <br/><br/><br/> <br/> 의대에 부는 변화 바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하<br/> 의대가 달라지고 있다. 예비의사 양성소의 단순한 역할에서 탈피, 첨단 의과학 연구의 중심으로 변신하고 있다. 임상과 기초과학 연구 역량을 겸비한 의과학 인재가 힘의 바탕이다. 동물실험실 등 첨단 연구 인프라는 비상을 위한 날개다. 고려 의대의 변신 노력을 살펴본다.<br/> <br/> 1895년 독일 물리학자 뢴트겐(1845~1923)의 X선 발견은 20세기 가장 빛나는 발견으로 손꼽힌다. 뢴트겐은 특허를 걸지 않았다. 그의 위대함이 더욱 빛나는 이유다. 그는 “X선은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한 것이므로 모든 인류의 것”이라며 제안을 뿌리쳤다. 그가 처음 발견한 X선은 현재 질병 진단에서 공항 검색, 예술품 감식, 건물 비파괴 검사 등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 하나의 기초과학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실례다.<br/> <br/>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의과학 연구의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인 중이다. 기초와 임상 연구에 두루 정통한 임상의과학자 양성에 눈 돌리는가 하면, 연구 인프라 확충에 아낌없이 돈을 쏟고 있다. 한국에서 제2,제3의 뢴트겐 신화를 쓰기 위한 노력이다. <br/> 이 대학은 최근 3년 새 첨단 교육 인프라인 본관, 문숙의학관 완공에 433억 원의 돈을 퍼부었다. 정작 관심을 끄는 쪽은 연구 인프라 투자다. 첨단 연구시설인 실험동물연구센터, BSL-3, ABSL-3가 최근 잇따라 문 열었거나 머잖아 문 열 예정이다. 고대 의대가 연구역량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뭘까.<br/> 김효명 고대 의대 학장은 “<span class='quot0'>연구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계 명문으로 발돋움 할 수 없다</span>”고 밝혔다. 김 학장은 “고대가 최근 세계 대학 평가에서 선전하면서 150위권에 진입했다. 2020년까지 50~100위권에 들겠다”며 “대학 명성은 연구역량에 달렸다”고 했다. QS랭킹 등 세계 대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수들이 내는 논문의 수준과 피인용 횟수다.<br/> 이 학교 유임주 연구교류부학장은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위해서는 ‘연구중심 경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에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교수들의 연구 역량을 제대로 평가해 잘하는 이들에겐 격려를, 성과가 뒤지는 이들에겐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부학장은 “아시아 맹주를 자처하는 한국 축구는 월드컵에선 맥을 못 춘다. 월드컵 진출을 넘어 16강 이상 오르는 데는 뭔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라고 빗댔다. 미 국립보건원(NIH)의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시스템이 본보기다. NIH는 각 분야 연구자들에게 연구 전담 과학자(리서치 사이언티스트)를 딸려 주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 연구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br/> 고대 의대의 본관 1층. 2013년 이곳에 실험동물연구센터가 문 열었다. 형질전환동물 관리, 수정란 제공 등 각종 동물실험을 위한 연구 공간이다.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의 첨단 연구시설인 BSL-3도 마련됐다.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SARS 등 제3위험군에 속하는 병원체 취급과 이들 병원체의 유전자를 이용한 유전자 재조합 실험 등이 가능한 시설이다. 현재 이곳에선 각종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예방백신과 치료제, 진단제 개발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산학협동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대 의대는 제3위험군의 병원체에 대한 동물실험까지 수행할 수 있는 동물이용생물안전 3등급(ABSL-3ㆍAnimal Biosafety Level 3)의 연구시설도 머잖아 선보일 계획이다.<br/><br/><br/> 연구 분야에 대한 공격적 투자는 대형 국책과제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 BK21에 이은 BK21플러스 사업과 보건복지부ㆍ산업통상자원부의 대형 국책과제 수주가 대표적이다. 앞서 BK21 1,2단계 사업에는 총 216명의 교수가 참여해 4,500편의 논문을 발표, 국내 의과학 연구 환경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지는 3단계(BK21플러스) 사업에는 해마다 2,500억원의 거액이 투입된다. ▦창의적 융합중개 의과학 연구인재 양성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이 목표로, 석ㆍ박사급 전문가 1만8,500명을 지원하게 된다.<br/> 안암병원은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과제에 선정돼 9년간 약 185억원을 지원 받는다. 임상에서의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산업화로 연결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이 목표. 연구 성과로 창출된 수익은 연구에 재투자, 연구중심병원의 자립화를 모색하게 된다.<br/> 산업통상자원부과의 ‘병원-기업 상시 연계형 의료기기 플랫폼’ 사업에는 50여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의료기술 육성과 이의 산업화를 위해 병원과 업체들이 손을 맞잡는 것이다. 병원이 의료산업화의 첨병이 돼 미래 성장동력을 개발하는 중책을 떠맡게 되는 셈. 유 부학장은 “탐침으로 절개 없이 디스크를 고치는 비침습 척추 수술 기법, 암 치료를 위한 맞춤형 유전체 기술, 한국형 인공장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뇌와 신경을 연결해 의족ㆍ의수를 개발하거나 외부 사물을 움직이는 연구 등을 진행 중인 교수들이 연구비를 지원 받기 위해 뜨거운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br/> 신약개발을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다. 안암병원은 2012년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들과 함께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의 임상시험글로벌센터로 지정, 4년6개월 동안 모두 5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br/> 고대 의대에는 ‘임상의과학자 양성’이란 독특한 프로그램 있다. 전문의 자격 딴 뒤 기초의학교실에서 박사과정 밟는 전문 연구요원 양성 코스다. 등록금 전액 지원 등 학생당 1억 이상의 거금이 투입되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보통 의사의 길을 걷는 의대생들은 졸업 후 레지던트, 펠로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대학원 다니면서 박사를 딴다. 박사 학위에 걸맞는 제대된 된 지식과 실력을 갖추기에는 빡빡한 일정이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5년 동안 실험실에서 풀타임 과학자로 연구에만 전념하게 된다. 임상과 기초과학 연구에 두루 능통한 핵심 중개연구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br/> 연구 역량을 끌어 올리려는 대학 측의 의지는 교내 리서치 페스티벌 개최로도 이어졌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는 의대는 물론 보건과학대, 생명과학대, 공대, 이과대 등 범자연계 교수들이 두루 참여해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br/> <br/>송강섭기자 ericsong@hk.co.kr<br/> <br/> ▶연구의 뉴딜정책 절실...해외 한국인 인재들도 불러들여야<br/> <br/><br/> 유임주 고대 의대 연구교류부학장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에서 연구의 뉴딜정책이 절실하다</span>”고 했다. 연구역량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해외에서 실력을 다진 한국인 인재들을 불러 모을 혁신적 전략이 필요한데, 이들이 국내 대학에 들어오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유 부학장은 “생명과학 등 전공자로 박사후 과정(포스닥)에 있는 이들이 아주 많다”며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해 국내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br/>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각종 연구 투자를 통해 뽑아낸 결과물은 신통찮다. 정부에서도, 삼성그룹 등 민간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br/> 부실한 연구 성과는 국내 교수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한 원인이라는 게 유 부학장의 분석. 의과학 선진국인 미국은 그렇지 않단다. 예컨대 A대학에서 연구하다 성과가 안 나 잘리면 얼마든지 B대학, C대학으로 자리를 옮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br/> 연구 풍토도 사뭇 다르다. 이는 시장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분석. 유 부학장은 “연구 자리가 많은 미국에서는 대학 교수하다가 포스닥 하는 사람도 있다. 그거 쪽팔리다고 생각도 안 한다. 연구비도 못 받고 논문도 안 나오니까 일단 한 걸음 물러나 남 밑에서 일할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 유 부학장은 “우린 깨지면 끝이다. 패자부활전이 없다”고 했다. <br/> 임상 연구 쪽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다. 병원들이 속속 덩치를 키우면서 교수 수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 유 부학장은 “의사 교수는 종종 뽑는다. 그러나 순수과학자 뽑을 자리 몇 개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br/> 유 부학장은 “교수와 박사 사이의 중간 단계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 지원 박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연구에 투자하는 낭비 아니다. 복지다”라며 “연구비 아끼는 건 바보짓”이라 했다.<br/> <br/>송강섭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46.txt

제목: 금연 결심했나요...의지만 불태우지 마세요  
날짜: 2015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1310016740565  
본문: 흡연은 습관 아닌 니코틴 중독<br/>금단 현상 심해 대부부 실패<br/>전문치료 받으면 성공률 10배<br/><br/><br/> <br/> 연초만 되면 많은 사람이 금연을 결심한다. 올해는 유난히 금연을 새해 목표로 둔 사람이 많았다.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인상됐을 뿐 아니라, 일반 음식점을 포함한 공공장소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등 정부가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다. <br/> 그런데 청양(靑羊)의 해에서 금연을 결심했던 많은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한 달 여가 지난 지금 결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월 말부터 대형 마트 및 편의점의 담배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금연용품 판매도 줄고 있다.<br/> 금연에 실패한 흡연자도 25일부터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금연 상담과 금연 치료제 약값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병ㆍ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6회 내의 상담 및 금연 보조제 약값이 30~70%까지 지원된다. 특히, 전문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금연 치료제도 25일부터 약값이 50% 이상 지원돼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br/> <br/> 병ㆍ의원 금연치료, 금연 성공률 높이는 핵심 <br/> 병ㆍ의원 금연치료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전문가의 도움이 금연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흡연자의 70% 정도가 담배를 끊고 싶어하고, 평생 5~7번 금연에 시도한 끝에야 금연에 성공한다. 단순히 개인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3~5%에 불과하다. <br/>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 흡연이 단순한 습관이 아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담배 속에 함유돼 있는 니코틴은 뇌에 작용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호르몬으로 인해 흡연 시 흡연자는 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작용이 담배에 대한 의존과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금단증상을 일으켜 금연을 어렵게 한다.<br/> 그러나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금연 보조제나 치료제의 도움을 받으면 금연 성공률은 10배까지 높아진다.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니코틴 중독 정도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금연법을 찾아 지속적인 상담과 함께 적절한 보조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br/> <br/> 금연 보조제 vs 치료제, 내게 맞는 금연법 찾아야<br/> 금연을 도와주는 보조요법으로 니코틴 대체제와 금연 치료 전문의약품이 있다. 니코틴 패치, 껌, 사탕과 같은 니코틴 대체제는 인체 내에 담배 대신 니코틴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지급하고 있어 흡연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금연 성공률이 17% 정도로 전문의약품에 비해 낮다. 또한, 임신부나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용할 수 없어 당뇨병이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br/> 금연 치료 전문의약품에는 바레니클린(제품명 챔픽스)과 부프로피온(제품명 부프로피온, 니코피온)이 있다. 바레니클린은 금연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유일한 비(非)니코틴성 약제다. 12주 금연성공률이 44%로 모든 금연 치료옵션 대비 가장 높은 금연 성공률을 나타낸다. 특히 한국인과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는 금연성공률이 약 60%인 것으로 나타났다.<br/> 김대진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금연을 의지만으로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금연 의지만으로 시도해 실패했을 때는 패치를 이용하고, 그래도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span>”고 했다. 김 교수는 또한 “<span class='quot0'>니코틴이 들어와도 뇌에 작용을 못하게 막아주고, 금단 증상을 완화해주는 치료제를 쓰면 효과적</span>”이라고 덧붙였다.<br/> 그리고 일단 금연을 결심하고 전문가를 찾았다면, 니코틴 의존 검사를 통해 개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지병이나 평소 복용하는 약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본인에게 맞는 금연법을 찾아야 한다.(자가 진단할 수 있는 니코틴 의존도 검사인 ‘파거스트롬 테스트’ 참조)<br/> <br/> 금연 2~5년 뒤 뇌졸중 위험 일반인과 같아져<br/>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점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흡연은 4대 중증질환 대부분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 흡연은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암과 관련이 있다. <br/> 우리나라 암 발생 및 사망 원인 중 흡연은 간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요인으로, 전체 발생자의 11.9%, 사망자의 22.8%를 차지한다. 후두암 발생의 70.3%, 폐암 발생의 46.5%, 방광염 발생의 35.4%는 금연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br/> 금연을 결심했다면, 금연이 주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금연 직후부터 입 냄새가 나지 않고 치아 색깔이 하얗게 되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게 되는 등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금연을 1년 유지할 경우, 관상동맥질환(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하며, 2~5년이 지나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와 같아진다. 금연 10년 뒤부터는 폐암 사망률이 흡연자의 절반 수준이 되며, 심장혈관질환 위험성이 비흡연자와 같아진다. <br/>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47.txt

제목: 당신의 생각보다 심각한 흡연의 폐해  
날짜: 2015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12100000052  
본문: 담배는 당신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몸에 더 안 좋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암학회(ACS)를 비롯한 여러 대학 연구팀이 흡연에 대한 백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새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흡연은 그 폐해로 잘 알려진 폐암 외에, 12가지 종류의 암을 포함한 21가지 질병을 유발한다. <br/> 10년 동안 백만 명의 사람들의 건강 정보를 추적해본 결과, 흡연은 폐암, 동맥 질환, 심장발작, 만성 폐 질환, 뇌졸중 등 외에 이전에는 담배와 상관이 없다고 여겨진 병들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흡연자들에게선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2배, 감염에 의한 사망위험이 2.3배, 간경변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3.1배씩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도 2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류감소로 유발되는 장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은 무려 6배 높아진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인 중 4천 2백만 명이 담배를 피는데, 이들은 비흡연자들보다 사망률이 2, 3배나 높으며, 평균적으로 비흡연자들보다 수명이 10년이나 단축된다. 그리고 가난하면서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br/> 미국암학회(ACS)의 유행병 학자이자 이 연구 보고서의 제 1저자인 브라이언 D 카터는 “흡연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담배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신장 질환을 유도한다. 담배로 인한 폐 손상과 이런 감염 취약성이 합쳐지면 복합적인 호흡기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br/> 이 연구에서는 또 흡연이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도 높일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브라이언 카터는 이 두 질병은 다른 것들처럼 흡연과의 관계가 확실치는 않으며, 추가 조사가 있어야지만 흡연과 두 질병 사이에 생물학적 매커니즘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도 흡연과 유방암과의 관계는 ‘가능은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나와있으며, 흡연과 전립선암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br/> 그럼에도 흡연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여전히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브라이언 D 카터는 “<span class='quot0'>흡연 관련 질병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공중 보건을 위한 정책 기반을 위해 흡연이 사회를 얼마나 멍들게 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필요하다.</span>”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의 약학부의 그라함 콜디츠 박사에 의한 추가 연구에서는 미국의 공무원들이 흡연이 공중 보건에 끼치는 영향을 너무 낮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논문에서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에 의존하는 흡연자들은 담배를 끊기 위한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한다. <br/> 이 연구결과는 의학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최신호(2월12일자)에 발표됐다<br/> 함지현 인턴기자 (한양대 국어국문 4년)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48.txt

제목: 임성한의 '논란' 연대기… 끝없는 '데스노트'  
날짜: 20150210  
기자: 이소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10100000007  
본문: '데스노트'가 시작됐다. MBC '압구정 백야'의 주인공 조나단(김민수 분)이 극중 조폭에게 맞아 세상을 떠났다. 개연성 없는 전개로 말이 많았던 MBC '오로라 공주'를 답습한 꼴이다. 하지만 '욕 하면서 보는 드라마'답게 시청률은 고공행진 중이다. <br/> 광산의 끝자락을 일컫는 막장이란 단어는 TV와 융합하면서 ‘막장 드라마’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한마디로 갈 데까지 갔다는 뜻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설정으로 줄거리를 만들어 낸다. 막장드라마의 대표 작가가 바로 임성한 작가다.<br/> 임성한 작가표 막장 대본의 시초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고 또 보고'(1999)는 한국사회의 생경한 소재인 '겹사돈' 설정으로 힐난을 받았다. 그러나 최고시청률 57.3%를 기록하며 임 작가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는다. 이후 '인어아가씨(2003), '하늘이시여'(2005), '신기생뎐'(2011), '오로라 공주'(2013) 등을 거쳐 임 작가의 막장 코드는 점점 더 자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잦고도 이상한 죽음은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br/> <br/> 1. 임성한 ‘데스노트’의 시작…2005년 '하늘이시여'<br/> SBS '하늘이시여'에서 주인공의 비밀을 알고 있던 소피아(이숙 분)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웃다가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마비. 극 전개상 하차해야 하는 역할이라 해도 어색한 죽음이었다. 이후에도 이 작품에서만 3명이 무리한 죽음으로 퇴장했다. <br/> http://youtu.be/OMv\_8ipF4J4<br/> 방송 초기에는 분장사(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기껏 분장사랑 사귀어? 어디 여자가 없어서 분장사야?" "누가 분장사 되고 싶어서 됐어요? 나도 우아한 직업 가질 수 있었어"라는 대사가 문제가 됐다. 방송 이후 한국방송분장연합회와 한국메이크업교수협의회가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작진은 "상대적인 직업 차이를 강조하기 위한 극적 설정이었다"며 공개 사과했다. <br/> <br/> 2. 장군·할머니까지 소화…2011년 '신기생뎐' 귀신 빙의 장면<br/> 이후 임 작가는 무속신앙 요소가 가미된 설정으로 한층 더 차별화된 막장을 선보였다. '신기생뎐' 속 귀신 빙의 장면이 대표적이다. 49회에서 신내림을 받은 아수라(임혁 분)는 귀신에 빙의돼 이상 행동을 보였다. 관련 장면에서 장군·할머니·동자 귀신 등이 CG로 등장했다. 특히 귀신에 빙의된 아수라가 눈에서 푸른 레이저를 쏘는 장면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연상시킬 만큼 낯설게 다가왔다.<br/> <br/> 3. 등장인물에 강아지까지 하차…2013년 '오로라 공주' 대본 논란<br/> 임 작가의 대본 논란은 '오로라 공주'에서 정점을 찍었다. 118회 암에 걸린 설설희(서하준 분)는 박지영(정주연 분)에게 자신의 병을 고백했다. 이 장면에서 그는 "암세포도 생명이다.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암세포도 느낄 것 같다"며 "내가 잘못 생활해 생긴 암세포인데 나 살자고 암세포들 죽이는 짓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br/> '오로라 공주'는 무려 13명의 출연진을 하차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오금성(손창민 분)의 내연녀였던 박주리(신주아 분)을 시작으로 오대산(변희봉 분), 오왕성(박영규 분), 장연실(이상숙 분), 사임당(서우림 분) 등이 극중 숨을 거뒀다. 심지어 주인공이 아끼던 개 떡대도 임 작가의 살생부에 올랐다. 떡대가 죽은 후에는 암에 걸렸던 설설희가 완치돼 시청자의 실소를 자아냈다. 잦은 돌연사에 논란이 일자 제작진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등장인물의 죽음을 사전 공지하는 기행까지 보였다. <br/>http://videofarm.daum.net/controller/video/viewer/Video.html?vid=v9bb4looU5o5UjjoqjF6l6o&play\_loc=undefined&alert=true<br/> 마지막도 논란으로 마무리됐다. 높은 시청률에 힘입어 제작진은 당초 120회로 기획했던 '오로라 공주'를 30회 연장했다. 그런데 이후 임 작가가 50회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연장설이 다시 흘러나왔다. 임 작가의 원고료가 50억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터지자 그에 대한 반감이 증폭됐다. 네티즌은 '오로라 공주' 연장 반대 및 작가 퇴출 서명 운동을 벌였다. 제작진이 추가 연장 결정을 취소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br/> <br/> 4. 2015년 '압구정 백야', 데스노트 재현되나<br/> 평이하게 흐르는 듯했지만, 결국 '압구정 백야' 속 인물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78회 방송 분에서 조나단은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사고를 당했다. 맹장수술로 입원해있던 어머니의 병문안을 갔다가 조폭과 시비가 붙었다. 쓰러지며 벽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조나단은 이어지는 79회에서 숨을 거뒀다. <br/> 조나단의 어머니 서은하(이보희 분)는 오열하면서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이내 원하던 방귀를 배출했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모습으로는 공감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br/>http://videofarm.daum.net/controller/video/viewer/Video.html?vid=v3659KnnEnGKLePEPgPP0sG&play\_loc=undefined&alert=true<br/> '오로라 공주'에 이어 '압구정 백야'도 30회 연장을 논의 중이다. '오로라 공주' 때처럼 반대 서명 운동이 일지는 않지만, 시선이 곱지 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드라마가 연장된 사이 또 어떤 인물이 임 작가의 펜 끝에서 죽어나갈지 시청자는 매회 긴장 중이다. 일각에서는 ‘오로라 공주’ 때처럼 하차 예고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까지 들린다. <br/> <br/> 이소라기자 wtnsora21@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49.txt

제목: 치매의 사회경제적 비용 年 2조원… 4년 새 두 배 넘게 증가  
날짜: 20150209  
기자: 양진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09100000151  
본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보고서, 자살 비용도 20% 늘어 6조 돌파<br/> <br/> 자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6조4,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년층의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손실도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 등 최근 4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외에 자살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ㆍ관리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b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9일 발표한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이 120조6,532억원에 달했다. 97조1,792억원이었던 2008년보다 24.2% 증가한 수치로 국내총생산(GDP)의 8.8%에 해당하는 규모다.<br/> 두드러진 것은 자살과 치매로 인한 비용이었다. 2012년 자살로 인한 비용은 6조4,769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1조806억원(20%) 늘었다.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으로 인한 비용의 42.3%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질병의 사회적 비용은 의료비ㆍ교통비ㆍ간병비 등 질병에 따른 직접비용과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액ㆍ생산성 손실액과 같은 간접비용을 합해 산출한 것이다.<br/> 현경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자살은 미래 손실액과 생산력 손실액 등 간접비용을 증가시켜 이로 인한 손실이 20~30대에선 1위, 10대 이하와 40대에서는 2위일 정도</span>”라며 “<span class='quot0'>젊은 층의 자살 증가가 질병의 사회적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span>”고 설명했다.<br/> 치매로 인한 비용도 2008년 8,625억원에서 2012년 1조9,234억원으로 123%나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비(4,826억원→1조1,891억원), 교통비(10억원→23억원), 간병비(3,146억원→6,217억원)와 같은 직접비용이 모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환자 비율은 33.4%~39.8%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등 노인 환자 비율이 높은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치매가 속한 ‘정신 및 행동장애’질병군에 의한 비용은 2008년 전체 비용의 6.1%에서 2012년 6.9%로 늘었다. ‘신경계질환’은 2.7%에서 3.2%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은 7.5%에서 10.6%로 증가했다.<br/> 전체 질병 중에서는 자살, 외상사고, 약물 등에 의한 ‘손상 및 중독’군에 의한 비용이 19조5,401억원(16.2%)로 가장 많았고, 암으로 대표되는 ‘신생물’군(15조 3,382억원ㆍ12.7%), 순환기계질환(13조 9,406억원ㆍ11.6%) 등이 뒤를 이었다.<br/> 현 부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1'>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자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다른 질병군에 비해 우위에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간 건강보험은 물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서 전통적 질병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자살 및 노인성질환 등에도 보다 높은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span>”고 덧붙였다.<br/>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50.txt

제목: 최근 10년 간 갑상선암이 가장 많아  
날짜: 20150203  
기자: 김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03100000070  
본문: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삼성생명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한 27만2,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30.4%가 갑상선암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병 추이를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은 위암(21.2%), 대장암(14.2%), 갑상선암(13.1%) 순으로 발병이 많았고, 여성은 갑상선암(40%), 유방암(20.7%), 위암(7.4%) 순이었다. 2014년의 전반적인 암 진단 건수도 2005년 대비 약 1.7배가 늘었다. 그 중에서도 갑상선암과 췌장암이 각각 100% 이상, 폐암·유방암·대장암 등은 발병이 50% 이상씩 늘었다.<br/>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51.txt

제목: 유방 복원수술비 4월부터 건보 적용… 환자 부담 절반이상 줄어들어  
날짜: 20150203  
기자: 손현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203100000109  
본문: 뇌자기파 검사 등 5개 항목 선별급여 <br/> <br/>이르면 4월부터 암으로 절제한 유방을 복원하는 수술비의 절반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2017년부터는 정신과의 외래 환자 진료비 부담률(최대 60%)이 입원 치료와 같은 수준인 20%로 줄어든다.<br/>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유방재건술 등 5개 항목에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별급여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 기술이나 의약품이라도 정부가 선별적으로 골라 50~80%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것이다. 유방재건술의 본인부담률은 50%이며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를 위한 대동맥판삽입술과 외과 수술을 줄이는 초음파ㆍ전파절삭기, 뇌자기파 검사(2항목)는 80%를 환자가 부담한다.<br/> 유방재건술에 선별급여가 적용되면 유방암 환자들은 600만~1,400만원대인 수술비를 200만~400만원만 내게 된다. 급여 항목이 되면 그간 업계의 수술비보단 수가가 낮게 책정되고, 환자는 그 수가의 반만 부담하는 것이어서 실제 혜택은 본인부담률에 비해 더 크다. 전국적으로 1만여명의 유방암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방재건술은 그동안 미용성형이라는 인식 때문에 건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유방암 환자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건보 적용을 받게 됐다.<br/>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유방암 생존률이 높은 데다 여성의 심리적 문제 등으로 수요가 많아 성형외과 관련 수술행위에 급여 도입을 결정했다</span>”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5대 항목 선별급여화에 보험재정 연 4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br/> 아울러 복지부는 고비용으로 인한 정신과 외래이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 경감안 등을 담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5~2018년)을 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부담률이 30~60%인 외래 정신과 치료를 입원치료와 같은 20%로 낮춰 초기 치료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10~39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2012년 기준)이며 40~59세 자살률도 2위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br/> 복지부는 또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와 출산시 상급병실 사용,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난임부부의 치료시술비와 검사비ㆍ약제 등에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를 버는 부부에게 체외수정 비용 등 연 715억원(2013년 기준)을 지원했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치매 검사도 2017년 건보가 적용될 예정이며, 노인의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 적용은 올해 70세 이상에서 내년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br/> 손현성기자 hsh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52.txt

제목: 광학의 書 발간 1000년…빛은 이슬람 세계서 왔다  
날짜: 2015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28100000176  
본문: 올해 유엔 지정 세계 빛의 해<br/><br/><br/><br/>태양 빛이 지구를 비쳐줌으로써 낮과 밤을 가르는 우리의 일상 생활은 빛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 당연히 인간의 빛에 대한 연구의 역사도 매우 길다. 아랍 과학자인 이븐 알 하이삼은 1,000년 전 7권으로 구성된 ‘광학의 책’(원제 시각의 책)에서 “<span class='quot0'>시각적 인식은 물체에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와 이루어진다</span>”라고 말했다.<br/> 눈에서 빛이 나와 사물을 볼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은 반대로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인지된다는 이론의 등장에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다. 알 하이삼은 이후에도 눈의 구조와 대기 굴절, 렌즈, 무지개, 천체 관측 등 광과학 관련 이론을 잇따라 정립하면서 근대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br/> 유엔은 1,000년 전 광학의 토대를 만든 알 하이삼, 150년 전 빛이 전자기파임을 보여주는 이론을 정립한 맥스웰, 100년 전 일반 상대성이론을 완성한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기념해 올해를 ‘세계 빛의 해’로 선포했다. 그간 훌쩍 성장한 빛의 영역은 이제 레이저와 초고속 광통신, 발광다이오드(LED), 태양전지 등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 광산업 시장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br/> <br/> 빛 둘러싼 최대 논쟁은 입자 vs 파동<br/> 빛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서 빛을 다루는 광과학과 광기술이 발전했다. 광과학 분야에서 수 세기에 걸쳐 일어난 큰 논쟁 중의 하나는 빛이 입자인가, 아니면 파동인가 하는 것이다. 17세기 물체의 운동에 관한 법칙을 정립한 뉴턴은 빛의 모든 특성을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 당시 빛의 파동성을 주장하던 호이겐스나 후크 같은 과학자도 있었으나, 뉴턴이 워낙 천재적인 대가라서 그의 입자론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았다.<br/> 빛의 파동성은 1800년대에 들어와서 영국 과학자인 토머스 영에 의해 확고해졌다. 프레넬은 빛의 회절 이론을 정립하여 빛의 파동성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빛의 간섭이나 회절 특성은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입자론은 갈수록 설득력을 잃어갔다.<br/> 하지만 20세기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에 의해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된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금속에 빛을 쪼였을 때 발생하는 전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광전효과 논문을 발표했다. 광전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빛을 파장에 따라 에너지가 정해지는 입자로 생각해야만 했다. 상대성 이론은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이라 아인슈타인은 광전효과를 설명한 업적으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br/> 어떻게 빛의 간섭과 회절, 광전효과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을까를 해결한 것은 프랑스 과학자 드브로이였다. 드브로이는 모든 물체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함께 갖고 있다는 파동-입자 이중성 이론을 발표했다. 그는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쪽은 입자성을 보이고 다른 한 쪽은 파동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동양의 과학자였다면 이러한 이중성을 음양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가 생각해 보지만 서양에서 먼저 해결한 것이 아쉽기도 하다.<br/> <br/> <br/> <br/> 탐구의 대상에서 산업의 핵심으로<br/> 빛 연구의 역사에서 1960년은 기념할만한 해이다. 인간이 만든 새로운 종류의 빛이 탄생하면서 빛이 호기심의 대상에서 산업발전의 핵심으로 거듭나게 됐기 때문이다. 광과학과 광기술 분야의 발전에 비약적 전기를 마련한 이 발명품은 바로 ‘레이저’다. 레이저 발명에는 당시 내로라하는 연구소가 경쟁이 붙었다. 미국의 벨연구소, 컬럼비아 대학 등에서 쟁쟁한 과학자들이 나섰지만, 결국 승자는 당시 별로 알아주지 않던 휴즈연구소에서 루비 레이저를 발명한 과학자 마이먼이었다.<br/> 루비 레이저 탄생 이후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가 등장했고, 그 용도 또한 과학연구뿐만 아니라 산업, 의학, 국방 분야 등으로 넓어졌다. 자동차 공장에서는 로봇 팔에 연결된 광섬유를 통해 전달되는 레이저로 용접이나 절단을 하고, 반도체 공장에서는 반도체 기판의 절단에 레이저를 사용한다. 요즈음은 병원에서도 외과 수술용으로나 피부과, 안과 등에 여러 종류의 레이저를 쓰고 있다. 군용으로 사용되는 레이저도 거리 측정에 사용하는 비교적 낮은 출력의 것에서부터 미사일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고에너지 레이저까지 다양하다. 레이저는 또한 광통신, DVD나 바코드 스캐너 같은 일상생활에도 널리 이용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br/> 레이저 출력의 향상에 따라 레이저를 이용한 핵융합 연구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서 활발하다. 레이저 핵융합의 실현을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하는 초대형 레이저가 요구된다. 세계 최대 레이저 장치인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레이저 시설은 축구장 2개 크기의 실험실에 설치된 192개 레이저 빔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펄스 당 전체 출력 에너지가 2MJ(백만줄)에 이르며 단위시간 당 출력은 0.5PW(페타와트=1,000조 와트)에 달한다.<br/> <br/> 한국 레이저 연구 어디까지 왔나<br/> 한국에는 초대형 핵융합 레이저 시설은 없지만 순간 출력이 세계 최고인 레이저 시설이 있다. 순간 출력으로 초고출력 레이저 출력을 얻는 데는 레이저 펄스폭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요즈음은 레이저 펄스폭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수십 펨토초(fs=1,000조 분의 1초)의 레이저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1PW 출력의 레이저도 30펨토초 레이저를 쓰면, 에너지가 30J(줄)인 레이저로 구현할 수 있다.<br/> 광주과학기술원에서 2012년까지 수행한 극초단 광양자빔 구축사업을 위해 30fs 펄스폭을 갖는 1PW와 1.5PW 출력의 2개 레이저 빔라인을 건설했다. 이 레이저의 1.5PW 출력은 전세계 발전량의 500배에 해당한다. 이 레이저는 규모를 소형화시킨 장치이지만 축구장 4분의 1 정도의 청정실에 설치된 대형 레이저 시설이다. 최근 가동을 시작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1.3PW 레이저보다 높은 출력을 내는, 현재 가동중인 레이저 중 세계 최고 출력이다. 극한 물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의 연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 레이저 출력을 올해 안에 4PW로 향상 시키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레이저 출력 향상과 아울러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에서는 초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입자가속기 개발, 천체 플라즈마의 실험실 탐구, 레이저 핵물리 연구 등의 새로운 기초과학 연구 분야도 개척하고 있다. 레이저 양성자 가속장치는 암치료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br/> 하지는 이런 움직임은 비단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유럽에서는 국가간 균형 발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에서 10PW 출력의 초대형 레이저 시설을 2017년까지 구축하고 있어 이 분야의 세계 경쟁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br/> 남창희 기초과학연구원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53.txt

제목: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그때로 돌아가면 또 약물 복용”  
날짜: 20150127  
기자: 김지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27100000036  
본문: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43ㆍ미국)이 과거로 돌아가도 금지 약물을 또 복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당시 사이클계는 약물 사용이 만연했다는 의미다. 암스트롱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회 연속 ‘투르 드 프랑스’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고환 암을 극복하고 일궈낸 인간 승리 드라마로 전 세계에 감동을 전했다. 그러나 약물 사용이 밝혀지면서 모든 수상 기록을 박탈당하고 2012년 8월 미국반도핑기구(USADA)로부터 영구 제명 처분을 받는 등 추락했다.<br/> 암스트롱은 27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봤다. 그는 먼저 “올해 사이클 경주에 나간다면 도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핑이 만연했던 1995년으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나는 다시 약물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br/> 암스트롱은 “당시 나와 나의 팀, 모든 사이클 선두주자들은 좋지 않은 시기에 나쁜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일은 벌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고 설명했다.<br/> 암스트롱은 고환 암을 이겨낸 1996년 복귀한 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도로 사이클 경주인 투르 드 프랑스를 휩쓸면서부터 약물 의혹을 받아왔다. 각종 조사 결과에도 약물 사용을 극구 부인하던 암스트롱은 2013년 1월에야 미국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에서 결국 도핑을 시인했다. 그가 방송 인터뷰에 나선 것은 그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br/><br/> 암스트롱은 “<span class='quot0'>도핑 고백 이후 겪은 추락은 엄청나고 가혹하고 인내심을 요구했다</span>”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시속 100마일(160㎞)이던 나의 인생은 시속 10마일로 줄어들었다. 이제 시속 50마일이나 55마일로 되돌리고 싶다”고 기대했다. 자신이 다시 사이클과 암 자선단체 활동 등 공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이 자신을 받아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친 것이다.<br/> 암스트롱은 “<span class='quot0'>이기적으로 생각하자면 이제 (나의 도핑과 거짓말이 용서받을)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다고 말하고 싶다</span>”고 털어놨다. 그는 사회 복귀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사이클계와 암 관련 단체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br/> 한편 암스트롱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약물 없이 정당하게 경주를 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암스트롱은 투르 드 프랑스에서 각각 3위와 23위를 기록했다. 김지섭기자 oni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54.txt

제목: "자궁내막암 진단받아도 출산 꿈 버리지 마세요"  
날짜: 20150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2510016723473  
본문: 초기 땐 약물로 자궁 보존술 가능<br/>3~6개월 치료 후 암세포 사라지면<br/>자궁 적출ㆍ난소 제거 안해도 돼<br/>심장독성ㆍ탈모 등 부작용 줄인<br/>표적치료제 등 난소암 신약들<br/>효과 좋아 환자들에게 희소식<br/><br/> <br/> # 허모(34)씨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불임전문병원에서 임신을 시도하다 자궁내막암을 진단 받았다. 자궁적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대학병원 교수는 ‘임신의 희망을 버리지 말자’며 자궁 보존을 위한 보존적 치료를 권했다. 약물 치료 6개월 뒤 꿈이 현실이 됐다. 자궁내막 검사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석달 뒤 불임병원에서 시험관아기를 세 번째 시술 받은 뒤 건강한 쌍둥이 아들을 얻었다.<br/> <br/> # 이모(35)씨는 2012년 1월 자궁내막암이 재발, 9개월 간의 보존적 치료 끝에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013년 초 암은 또 재발했다. 이씨는 별거하던 남편과 재결합한 상황이라 자궁보존을 원했다. 2013년 초 보존적 치료를 다시 시작했고, 검사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불임전문병원에서 임신을 재시도, 2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 요즘 산부인과에서 산전검사를 받고 있는 이씨는 오는 5월 출산 예정이다. <br/> <br/> 자궁내막암의 치료 원칙은 ‘자궁적출 및 양측 난소제거’이다. 암을 물리치더라도 더 이상 임신은 못 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난소를 보존함으로써 2세 출산을 가능토록 하는 이른바 ‘가임녀 보존술’이 하나 둘씩 시도되고 있어 난임 부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br/> 자궁내막암 초기에 고용량 프로제스테론 제제를 이용하는 약물치료(호르몬치료)가 대표적이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양전자단층촬영(PET/CT) 등 검사상 자궁내막에만 국한된 초기 자궁내막암으로 세포 분화도가 좋은 경우에 시도한다.<br/> 강순범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여성부인종양센터장)는 이 치료법에 대해 “<span class='quot0'>보통 고용량 프로제스테론을 매일 복용하면서, 합성프로제스테론이 분비되는 자궁내삽입장치(IUD)를 함께 사용해 치료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span>”고 했다. 약물치료 기간은 3~6개월. 보통 6개월 정도 치료하면 암세포가 없어진다. 치료 중 자궁내막 조직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치료 효과를 추적해야 한다. 만일 충분한 기간 동안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도 암세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자궁적출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 교수는 말했다.<br/> 강 교수는 “<span class='quot1'>가임기 여성이 내막암에 걸려 오는 경우가 1년에 50~60건에 이르는데, 보존술을 통해 출산이나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적지않다</span>”며 “<span class='quot1'>암이라 해서 지레 치료를 포기하고 말고, 다양한 치료법을 찾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span>”고 했다. <br/><br/> 자궁내막암은 국내 여성생식기암의 약 16%를 차지하며, 식습관의 서구화에 따라 최근 국내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비만, 당뇨, 늦은 폐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출산 횟수가 적은 여성에서 발생이 더 잦다.<br/> 예전 한국여성에서 가장 빈발하던 자궁경부암은 검진이 도입된 이후 크게 줄면서 유방암보다도 발생률이 낮아졌다. 반면 자궁내막암과 더불어 난소암도 발생이 증가 추세다. 난소암은 임신과 출산을 많이 한 경우,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경우, 수유를 한 경우에 30~60% 발생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출산경험이 없거나 첫 출산 연령이 35세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는 발생 위험률이 올라간다.<br/> 최근 난소암 분야에서는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인 표적치료제와 항암 신약이 잇따라 나와 암환자들의 아픔을 덜어 주고 있다고 강 교수는 밝혔다.<br/> 표적치료제인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은 최근 진행성 난소암 1차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다. 혈관 생성을 유도하는 혈관내피 성장인자를 억제, 종양 괴사를 유도한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항암화학요법과 아바스틴을 병용한 치료를 비교한 결과, 암 재발기간이 아바스틴을 함께 투여한 경우(14.7개월)가 항암화학요법 단독 투여시(10.6개월)보다 현저하게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r/> 기존 항암제의 심장독성과 탈모 등 부작용을 줄인 신약도 나왔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성ㆍ재발성 난소암 치료제로 사용 허가된 리포조말 독소루비신(상품명 ‘케릭스’)이 그것. 기존 독소루비신 항암제를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이란 수용성 고분자 화합물로 코팅한 개량신약으로, 캡슐화된 상태로 종양세포에 전달됨과 동시에 독소루비신의 종양 내 체류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심장독성 등 부작용 발생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교수는 전했다.<br/> 자궁내막암ㆍ난소암과 더불어, 더러 자궁에서 생겨나는 양성종양도 가임기 여성에서 난임을 유발할 수 있다. 자궁근종과 자궁 내막폴립, 자궁 내막염증, 자궁내 유착 및 자궁 기형 등이 이런 경우다.<br/> 자궁근종은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치료할 필요는 없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1'>다만 급속히 크기가 자라거나, 그래서 주변 장기(방광, 직장)을 압박하거나, 월경시 출혈량이 많거나, 월경통이 심하거나, 근종이 불임이 원인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한다</span>”고 했다.<br/> 수술적 방법으로 자궁을 보존하고자 할 때에는 자궁근종 절제술을 시행한다. 절제술은 접근 방법에 따라 개복, 복강경, 자궁경 등으로 나뉜다. 자궁근종의 위치나 크기, 개수, 환자의 과거 수술 기왕력 등에 따라 절제 방법이 달라진다.<br/> 복강경 근종절제술은 근종이 자궁 바깥쪽으로 노출된 장막하 근종, 혹은 밖으로 튀어나온 근층내 근종인 경우가 대상이다. 배꼽에 1cm, 하복부에 0.5cm가량 2~3개의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넣은 뒤 자궁근종을 제거한다. 강 교수는 “<span class='quot1'>자궁근종이 아주 크거나 접근이 어려운 위치인 경우에는 치골 상방에 미니절개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융합수술기법을 이용한다</span>”고 했다.<br/> 송강섭기자 ericsong@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55.txt

제목: 환자 눈높이에 딱 맞춰 설계한 병동… 병원이 확 달라졌다  
날짜: 20150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2510016687384  
본문: 암치유 희망병동ㆍ외국인 병동 등<br/>환자 동선 고려 불편함 없애고<br/>가구배치ㆍ벽 색상ㆍ조명 등 배려<br/>세계 최고 암병원들 벤치마킹<br/>디자인위원회 1년여 활동 결실<br/> <br/> 고려대안암병원(병원장 김영훈)이 ‘환자최우선 디자인’으로 병원의 혁신을 이끌고 있어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모은다. 안암병원은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상황과 프로세스를 환자 눈높이로 설계한 ‘암치유 희망병동’과 ‘글로벌HUB 외국인병동’을 최근 문 열었다. 암환자와 호스피스환자, 외국인환자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다.<br/> <br/> <br/>환자 눈높이로 설계한 암치유 희망병동<br/> 암치유 희망병동과 글로벌HUB 외국인병동은 150병상 규모다. 이들 병동은 안암병원이 ‘환자최우선 디자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1년여 동안 수십 차례 회의와 시뮬레이션, 해외 유수 암병원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속한 노력의 결실이다. 병동은 집처럼 푸근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가구배치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동선을 배려했고, 벽과 바닥의 색상, 조명 등 곳곳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녹아 들어 있다. 병동 내부는 부드러운 곡선과 공간 배치로 시야를 넓히고 개방감을 키워 ‘병원은 답답한 곳’이란 통념을 깼다. 낮 시간 동안 내 집 거실처럼 휴식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휴게실(Day Room)도 병동마다 마련됐다. 이곳 상담실의 문은 24시간 열려 있다.<br/> 암치유 희망병동은 모두 3개의 병동으로 나뉘어 있다. 희망을 갖고 질병과 겨뤄 이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의 ‘희망겨룸 병동’, 희망으로 사랑을 나눈다는 뜻의 ‘희망나눔 병동’, 희망으로 건강을 이어간다는 취지의 ‘희망이음 병동’이 그것이다. 이곳의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은 모두 암환자 전문교육과 실무 과정을 거쳤다. 16병상의 호스피스병동도 마련됐다. 국내 대형병원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호스피스병동을 줄여 나가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br/> 외국인전용병동은 33병상 규모로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다. 각기 다른 종교에 맞춘 기도실과 식단을 갖추고 있으며, 아랍 환자 가족실이 딸려 있다.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통역 서비스와 비자 발급신청, 숙소 안내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암병원은 최근 2년 연속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선정됐다. <br/> 안암병원의 환자 중심 행보는 ‘환자경험의 날’ 지정으로도 이어졌다. 이 병원의 신규 직원은 본격적인 근무에 앞서 가상환자가 돼 실제 환자들과 똑같은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수집해 병원 시스템 개선으로 연결하고 있다.<br/> <br/> “변화의 시작,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과정“<br/> 안암병원의 환자 눈높이 디자인은 이 병원 김영훈 병원장이 취임 직후 내건 환자최우선(patient first) 가치와 맥을 같이한다. 김 병원장은 이번 병동 증설에 대해 “환자 입장에서 서서,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올해 착공되는 신관의 프로토타입(원형)이 될 것”이라고 했다.<br/> 김 병원장은 “그동안 병원들이 환자케어를 제대로 못해 온 것같다”고 했다. 그는 “암환자들은 항암 주사를 맞고 구역질이 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일반 환자와 섞여 있다 보니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대학병원들은 대규모 암병원 짓기에만 몰두한 채 암 환자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전용공간조차 마련해 주고 못했다”고 아쉬움을 밝혔다.<br/> 김 병원장은 안암병원의 환자최우선 디자인위원회를 세계 최고 수준의 암병원인 미국 메이요클리닉, 클리블랜드클리닉의 레노베이션센터(혁신센터)처럼 상설 기구화 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LA 시더스-사이나이병원의 환자 체험 프로그램 사례도 얘기했다. 이 병원의 전 직원은 안경에다 일부러 스크래치를 하고서, 환자 가운을 입은 채 폴리(소변 줄)가 달린 폴더를 끌고서 병원 곳곳을 다니며 환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체험한 뒤 이를 병원 시스템 개선으로 연결하고 있다.<br/> “지역을 품고, 민족을 넘어, 세계로 웅비하는 안암병원이 되자.” 김 병원장은 취임 이후 자신이 내건 이 모토를 실천해 오고 있다. 인근 약국의 약사들과의 간담회는 지역 끌어안기 노력의 하나이다. 그는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진단 받고, 인근 약국에서 약 복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은 뒤, 약 봉투를 들고 약국 문을 나설 때까지, 모두가 안암병원의 진료”라면서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생활습관을 바꿔야 한다’ 등 일관된 조언을 하면서 콜라보레이션(협력)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병원장은 “하버드대학병원이 자리한 보스턴의 시민들은 세계 최고의 의료 인프라 때문에 보스턴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며 지역 품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br/> ‘부정맥 명의’로 널리 알려진 김 병원장은 병원 운영 일로 바쁜 가운데서도 환자 치료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 부정맥에 질문이 나오자 그는 “내가 제일 가슴 뜨거워 하는 그거다”라면서 환자 치료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을 드러냈다. 그는 “심방세동, 특히 만성심방세동은 아직도 정답이 없다. 발병 5~10년 된 심방세동과 심장변형이 온 증상 등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술 기구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br/> <br/> 송강섭기자 ericsong@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56.txt

제목: 1770km 걷고 또 걸으니… 두 발 디딘 땅 위에 자유가 있었다  
날짜: 20150123  
기자: 고경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23100000087  
본문: 세상에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모든 세포는 두뇌 세포와 연결돼 있어서, 시청각 세포와 온 몸의 근육이 늘 움직이고 있어야 정신과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건강한 정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길을 걷고 또 걷는 것이다. <br/>22일 개봉한 영화 ‘와일드’의 주인공도 피폐해진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걷고 또 걷는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장 마크 발레 감독이 연출하고 ‘하이 피델리티’ ‘피버 피치’의 작가 닉 혼비가 시나리오를 쓴 이 영화의 주인공은 동명의 회고록을 쓴 원작자 셰릴 스트레이드다. 셰릴은 사랑했던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절망에 빠져 삶을 내팽개쳤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마약 중독과 방탕한 섹스로 자신을 파괴했고 결국 아버지가 누군지도 확실치 않은 아이를 임신하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홀로 미국 서부를 종단하기로 결심한다. 1995년, 그의 나이 스물여섯이었다. <br/>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PCT)은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4,286㎞에 이르는 도보 코스다. 셰릴은 이 중 로스앤젤레스 북부 모하비 사막 서쪽 경계선에서 오레곤주와 워싱턴주의 경계에 있는 신들의다리까지 1,770㎞를 걸었다. 94일간 자신의 몸집보다 큰 배낭을 등에 지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을 지나 해발 3,000m의 산을 넘었다. 육체적인 고통과 외로움, 자연과 인간의 위협, 낯선 이들과의 대화, 아름다운 세상과의 만남 등을 통해 셰릴은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상처를 떨쳐낸다. <br/>셰릴 역의 리즈 위더스푼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려 놓은 ‘와일드’는 연기 외에도 인상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악이다. 감독은 셰릴의 삶과 기억, 여정의 한 순간을 관객에게 전해야 할 때만 음악을 사용한다. 폴 매카트니, 샹그리라스, 레너드 코헨, 포티셰드, 스티비 레이 본, 홀리스, 팻 메시니 등의 음악이 곳곳에 스친다. 이 모든 곡을 압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영화의 시작과 끝 그리고 영화 곳곳에 쓰인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르 파사’다. <br/><br/>☞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르 파사’<br/>http://youtu.be/pey29CLID3I<br/><br/>현재와 과거가 뒤죽박죽 뒤엉키며 나아가는 이 영화는 도입부부터 ‘엘 콘도르 파사’를 수시로 사용하면서도 셰릴의 과거 방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아이드 래더 비 어~”로 시작하는 가창 부분을 들려주지 않는다. 남미 악기인 차랑고의 현을 트레몰로 기법으로 빠르게 튕기는 그 소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지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진 깨닫지 못했다. 셰릴의 영혼이 비바람 속에서 흔들리듯 불안하게 떨리는 10개의 현 사이로 흐르는 긴장감이 “아이드~”가 시작하기 직전 끊길 때의 그 느낌이란. <br/>한국에선 ‘철새는 날아가고’라는 엉뚱한 제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페루의 콘도르는 자유를 상징한다고 한다. 스페인의 지배로 오랫동안 핍박 받았던 페루인의 열망이 담긴 곡이라 할 수 있다. 폴 사이먼은 여기에 “달팽이보다는 참새” “못보다는 망치” 등 시적인 표현으로 자유 의지를 담았다. 페루의 작곡가 다니엘 알로미아 로블레스가 1913년 동명의 음악극을 위해 쓴 것이 원곡이다. 폴 사이먼은 1969년 남미 그룹 로스 잉카스의 연주로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페루 민요로 잘못 알았다고 한다. 로스 잉카스가 완성한 편곡에 폴 사이먼의 가사와 아트 가펑클의 청아한 목소리가 더해진 ‘엘 콘도르 파사’는 1970년 발표돼 세계적인 명곡이 됐다.<br/> <br/><br/> 영화에선 셰릴이 신들의다리에 도달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처음으로 곡 전체가 온전하게 울려 퍼진다. 콘도르로 변신한 음악이 자유를 되찾은 셰릴을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듯 관객 주위를 휘감는다. 이 노래는 영화가 끝난 뒤에도 관객을 좀처럼 놓아주지 않는다. 한동안 ‘엘 콘도르 파사’의 차랑고 소리와 마지막 가사가 귓가에 맴돈다. “<span class='quot0'>거리보단 숲이 되고 싶어 / 그럴 수 있으면 꼭 그렇게 할 거야 / 두 발 아래 땅을 느끼고 싶어 / 그럴 수 있으면 꼭 그렇게 할 거야</span>” <br/>고경석기자 kave@hk.co.kr<br/><br/>☞ 영화 ‘와일드’ 영상 보기<br/>http://youtu.be/tn2-GSqPyl0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57.txt

제목: 전이성 유방암 환자 생존기간 연장 ‘할라벤’  
날짜: 20150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2310016723169  
본문: 유방암은 다른 암보다 유병기간이 길고, 암세포 성장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재발이나 전이가 많이 돼 생존기간을 늘리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 1~2차 치료에서 탁산,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등 약물을 사용한 이후 생존기간을 늘리거나, 삶의 질을 유지하며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br/> 한국에자이의 유방암 치료제 ‘할라벤’(성분명 에리불린 메실산염ㆍ사진)은 생존기간을 연장을 입증한 유일한 단일제제다.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운 치료 대안 가능성을 증명했다. 해면 추출 성분의 구조를 변형한 비탁산 미세소관 억제제인 할라벤은 독특한 바인딩 프로파일로 다른 미세소관 억제제에 저항성을 지닌 환자에게도 유효성을 나타낸다.<br/> 19개국 전이성 유방암 환자 7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할라벤을 투여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군(508명)의 평균 생존기간은 13.2개월로 대조군(254명)의 10.5개월보다 평균 26% 늘어났다. 1년 경과 후 생존율도 할라벤 치료군은 54.5%, 대조군은 42.8%로, 할라벤 치료군 생존율이 더 높았다.<br/> 전반적 생존기간 연장과 함께 유방암 환자의 편의성도 최대화했다. 단일제제로 예비투약 및 예비배합이 필요하지 않아 이로 인한 과민 반응이 생길 위험을 줄였다. 기존에 흔히 사용되는 항암 화학치료제 병용요법은 부작용 빈도가 높아 유방암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으로 꼽혀왔다. 투약시간이 30분~1시간 걸리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정맥 투여 시간이 2~5분 정도로 아주 짧아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시간을 줄인 것도 할라벤이 가진 장점이다. <br/> 할라벤은 안트라사이클린계와 탁산계 약물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의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적 있는 국소 진행성 혹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위한 3차 치료법으로 적응증을 받아 2013년 1월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최근 HER2 음성 환자의 2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 승인 받아 더 많은 환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b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58.txt

제목: 마비돼 가는 몸 이끌고 '죽을 권리' 필생 투쟁  
날짜: 20150117  
기자: 최윤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17100000013  
본문: 31살에 불치병 진단… 조력자살 합법화 앞장, 용기 앞에 허물어지는 벽<br/><br/> 죽음은 모든 생명의 두렵고 슬픈 숙명이지만, 슬픔의 부피나 두려움의 양상까지 온전히 숙명은 아니다. 존엄사의 명분은 그 단순한 사실 위에 서 있다. 숙명에 닿기까지 겁에 질려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이들, 아무 희망 없이 몇 년 혹은 몇 십 년을 가혹한 고통 속에서 무기력하게 연명하다가 어느 날 숙명에 목 졸리기 싫다고 판단한 이름없는 무수한 이들이, 오래 전부터 저 장엄한 물길을 열어왔다. 그들은 종교와 윤리와 법과 관습에 맞서 그들이 믿는 바 개인의 가장 궁극적인 자유와 권리를 찾아 실천했다. 이제 마침내, 아직은 소수지만, 그들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국가들이 생겨났고, 그 주장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br/> 지금 그 허물어지는 벽 앞에 영국이 있다. 영국 상원은 지난 해 11월 패닉(Lord Pannick) 상원의원이 발의한 조력자살 법안(Assisted Suicide Bill)을 표결 끝에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팔코너(Falconer) 전 상원의장의 조력자살법안을 수정 보완한 이 법안은 두 명 이상의 의사가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고 진단한 시한부 환자가 ‘자발적으로 명백하게’ 조력자살 의사를 밝힌 경우 고등법원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r/> 한 달 뒤인 12월 28일 ‘텔레그래프’는 조지 케리 전 캔터베리 대주교와 소설가 이언 매큐언, 줄리언 반스, 영화배우 휴 그랜트, 철학자 크리스 우드헤드 등 저명 인사 80여 명이 서명한 조력자살 합법화 촉구 서한을 보도했다. 이들은 “시민 대다수가 조력자살 허용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우리는 시한부 환자가 스스로 죽을 방법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디언’도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며, 늦어도 2년 안에는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케일라쉬 챈트 영국의학협회 부회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br/> <br/> 저 변화의 중심에 데비 퍼디(Debbie Purdy)의 삶과 죽음이 있었다. 그는 여행과 모험과 사랑을 즐기던 31살의 어느 날 불치병 진단을 받은 뒤 신경과 근육이 마비돼가는 몸을 이끌고 조력자살 합법화 캠페인의 선두에 섰다. 2013년 12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호스피스 시설에 들어가며 “단식으로 내 운명을 스스로 맞이하겠다”고 선언했던 그가 지난해 12월 23일 숨졌다. 향년 51세.<br/> <br/> 데비 퍼디는 버밍험 대학 재학시절의 자신을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가끔 마거릿 대처 정부 반대 시위나 이런저런 공익 캠페인에 참여한 정도였다”고 소개했다. 다만 ‘아드레날린 중독자(adrenaline junkie)’라 할 만큼 활동적이어서 틈만 나면 스카이다이빙과 등산, 정글 트레킹, 스쿠버다이빙 여행을 다니곤 했다. 모험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동경으로 그는 스무 살 무렵 학교를 자퇴하고 여행에 나선다. 유럽 미국 아시아 등지를 떠돌며 현지에서 일해 돈을 모아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일상. <br/> 1994년 싱가포르에서 음악 칼럼니스트로 일하던 무렵 그는 몸의 이상을 처음 경험한다. 쉬이 피로해지고, 손발이 뜻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느낌. 처음에는 정서적 충격 탓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3년 전인 91년 한 해 사이에 부모와 아주 가까이 지내던 친척을 병으로 잃었다. 95년 정밀검진 결과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는다.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감각과 운동신경이 서서히 마비되고, 기억과 인지기능 장애까지 겹치기도 하는 병이다. 그의 증상은 원발성 진행형(primary Progressive)으로 느리지만 집요하게 악화하는 경우였다. <br/> 당시 그에게는 연인이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쿠바 출신의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오마르 푸엔테(53). 둘은 퍼디의 병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병을 계기로 서로에게 더 간절해졌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98년 결혼, 퍼디가 숨질 때까지 서로의 곁을 지켰다. <br/> 언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일상. 임신 등 미래를 설계하고 대비하는 모든 문제를 두고 둘은 여느 커플에게 요구되는 진솔함 이상의 진솔함으로 서로를 대했다고 한다. “아이를 낳은 뒤 내 증상이 악화했을 때 어떤 상황이 빚어질지 우리는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했다. 오마르는 아이와 나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음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는 모든 것, 우리의 감정과 삶의 실재를 두고 대화했다.” 조력자살 합법화를 위한 법정투쟁과 캠페인을 시작한 뒤 퍼디와 오마르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신문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드러냈다. 그들이 얼마나 아이를 원했고 또 노력했는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얼마나 오래 사랑하고 싶은지, 얼마나 삶을 사랑하는지. <br/> <br/> 데비가 자신의 숙명을 회피하지 않을 수 있었던 데는 오마르의 사랑이 힘이 됐을 것이다. 2001년 무렵부터 데비는 누가 휠체어를 밀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게 됐다. 그 무렵 다이앤 프리티(Diane Pretty)의 고등법원 탄원소송이 있었다. 역시 불치병인 운동뉴런증 환자였던 프리티는 스위스 조력자살 여행에 남편이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했고, 법원은 그 청을 거부했다. <br/> 영국은 1961년 제정된 자살방지법(Suicide Act)에 따라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에게 최고 14년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반면 안락사와 조력자살이 합법인 스위스에는 2014년 현재 모두 6개의 조력자살 클리닉이 있고, 이 가운데 ‘디그니타스(Dignitas)’를 비롯한 4개 클리닉은 외국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덜란드는 조력자살이 합법이지만, 최종 처방을 받기까지 최소 2년간 회원으로 등록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조건이 있다.<br/> 프리티는 2002년 5월 영국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span class='quot0'>프리티의 죽음은 내게 최악의 악몽이었다.</span>” 퍼디는 오마르와의 사랑으로만 채워도 부족할 자신의 남은 삶을 ‘죽을 권리’를 위한 싸움에 바치기로 결심한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질 때, 그래서 스위스까지 혼자 갈 수 없어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그를 자살방조혐의로 기소될 가능성 속에 남겨두고 떠나지 않겠다는 게 그의 결심이었다. <br/> 2008년 그는 프리티의 전철을 밟아 오마르의 동반 자살여행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역시 패소한다. 하지만 그는 61년 법의 자살 방조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한다. 그를 지원한 영국 존엄사 옹호단체 ‘Dignity in Dying’의 사라 우튼 사무총장은 “<span class='quot1'>데비는 수많은 영국인들이 조력자살을 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현실을 모른 척한 채 사랑하는 누군가를 투옥하겠다는 위협으로 죽을 권리를 가로막아온 법의 위선에 맞섰다</span>”고 표현했다. 2014년 8월 스위스 취리히대학 조사에 따르면 2008~2012년의 5년 동안 스위스에서 조력자살한 외국인은 31개국 611명이었고, 그 가운데 영국인은 126명으로 독일 다음으로 많았다. 2주마다 한 명꼴이다. <br/> 2009년 영국 상원은 마침내 정부가 조력자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의결했고, 케이어 스타머 당시 검찰총장은 이듬해 2월 16개항의 조력자살 기소 항목을 확정 발표한다. 스타머 총장은 “<span class='quot2'>조력자살의 정황을 따지되, 자살을 돕는 사람의 동기와 자살자의 표현능력, 그리고 명백한 의사표시를 중시하겠다</span>”고 밝혔다. 2010년 이후 검찰은 조력자살 방조 혐의로 약 90여 건을 조사했으나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마침내 퍼디는 오마르의 손을 잡고 스위스까지 갈 수 있게 됐다. <br/> <br/> 하지만 법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디그니타스에서 조력자살 서비스를 받으려면 클리닉 비용만 9,000~1만600스위스프랑(995만~1,160만원)이 든다.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 사이먼 젠킨스 의장은 가디언 칼럼에서 “(스위스 자살여행자보다) 10배쯤 많은 수의 가난한 이들이 현대의 영국 사회에서 은밀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썼다.(2014.12.30) 챈트 부회장도 “지금 우리에겐 두 갈래 시스템이 있다. 하나는 스위스 디그니타스를 이용할 만한 돈과 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시스템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가디언, 2014.11.8) <br/> <br/> 퍼디가 스위스로 떠나지 않고 영국에 남기로 한 것, 고통을 견디며 죽을 때까지 싸움을 지속하기로 한 것도 저 법과 싸우기 위해서였다. 그는 2013년 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면서 “<span class='quot2'>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다</span>”고, “<span class='quot2'>두렵지만 음식을 거부하기로 했다</span>”고 BBC 인터뷰에서 말했다. 지난해 7월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호스피스시설인) 마리 퀴리조차 내 통증을 덜어줄 준비가 안 돼있다”고 말했다. <br/> 친구의 여섯 달 된 아이가 걷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살고 싶어 했고, 남편의 첫 솔로 음반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또 듣고 싶어 했다. 누구나처럼, 아니 누구보다 더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없이 고통 속에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그는 자신의 삶을 세상 앞에 의도적으로 전시했다. 시한부 환자의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 죽음의 과정을 영국 시민들이 보고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기를 바랐고, 영국 의회를 비롯한 조력자살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과 종교인, 장애인들의 생각이 바뀌고, 법이 바뀌기를 바랐다. “지금이라도 누가 다발성경화증 치료법을 발견한다면 나는 환자 대열의 맨 앞에 서겠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문제는 내가 내 삶을 끝내고 싶어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br/> <br/> 조력 자살에 반대하는 이들은 생명의 신성을 이야기한다. 의사에게 환자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주게 되면 환자의 자율성이 거꾸로 침해될 수 있다고도 한다. 환자의 뜻에 반하는 죽음(사실상 살인)이 있을 수 있고, 장애인이나 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환자들이 그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도 한다. 캐머런 영국 총리가 조력자살 합법화에 반대해온 이유는 고령의 환자들이 부당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였다. 네덜란드 의사 캐럴 구닝(Karel Gunning)은 “<span class='quot3'>죽음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생각하게 될 수천 가지의 문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span>”고도 말했다. ‘죽을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모든 싸움의 주체들은 저 모든 종교적ㆍ윤리적 당위와 부작용의 우려에 맞서야 했다. 프리티 전에는 토니 닉린슨이 있었다. 락트인 신드롬으로 전신이 마비된 그는 2005년 소송을 시작해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직후 단식 끝에 폐렴으로 숨을 거뒀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전신마비로 고통 받던 폴 램도 있었고, 역시 락트인 신드롬을 앓던 마틴이 있었다. 암 투병하던 아내 도린 케어(1924년생)와 함께 2007년 동반자살한 프랑스의 지성 앙드레 고르(1923년생)가 있었고, 2013년 11월에는 86세 동갑내기 학자였던 조제트와 베르나르 카제 부부가 존엄사의 권리를 요구하는 유서를 남긴 채 함께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들은 당위와 우려가 아니라 실제 삶(과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맞섰다. <br/>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영국 시민의 60~70%가 조력자살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다. 조력자살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팔코너 의원은 “<span class='quot4'>데비 퍼디의 용기로 영국 시민들은 조력자살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 사이먼 젠킨스는 가디언 칼럼에서 “<span class='quot5'>의회는 조력자살 합법화로 데비 퍼디의 삶과 죽음을 추도해야 한다</span>”고 썼다. 젠킨스는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며 조력자살에 반대해 온 테레사 메이 내무부장관의 말을 ‘헛소리(drivel)’라며 격앙된 어조로 비판한 뒤 “퍼디의 남편은 의회에 의해 단식을 강요당한 채 고통 속에 숨져 간 아내를 도운 마리 퀴리 호스피스측에 감사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아내와 같은 운명에 처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준 의회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라고 글을 맺었다. <br/><br/> 최윤필기자 proos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59.txt

제목: "경제적 위기 대응할 사회안전망 절실"  
날짜: 2015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1510016680297  
본문: 실직 등 생계 어려울 때 범죄 많아, 양성 평등의식 정착도 서둘러야<br/> <br/> “<span class='quot0'>아내, 자녀는 가장이나 부모의 소유물 아니다</span>”<br/>과도한 가족책임주의 탈피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해야 <br/> <br/> <br/>삶의 근원인 가족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는 일을 막으려면 가족 구성원을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는 인식의 전환과 훈련이 필요하다. 또 주로 경제적 위기가 가족범죄를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절실하다. <br/>양성 평등의식의 정착은 건전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부부 관계가 평등해야 소통의 공감대가 형성돼 갈등 상황에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은 11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통장에도 3억원이 들어있는 등 객관적으로 생활고가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5일 “<span class='quot1'>서초동 세 모녀 살인 사건을 일으킨 40대 가장의 가정은 충분한 대화가 이뤄진 것 같지 않다</span>”고 지적했다. 그는 “<span class='quot1'>남편이 평등의식을 갖고 부인과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충분히 대화했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참극을 면할 수 있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자녀의 삶을 자기 인생의 연장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연대 의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보살핌을 넘어 자녀를 부모의 부속물로 간주하는 순간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가족들이 내가 책임지고 떠맡아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랑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가진 인격체라는 수평적 가족관계가 자리잡으면 참극은 줄어들 것</span>”이라고 조언했다. <br/>제도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도 가족범죄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암 등의 큰 병이나 이혼, 실직 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에게 위기가 왔을 때 가족이 일순간 곤경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김붕년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외국도 40대 가장이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하지만 내가 없어도 가족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믿음이 없다</span>”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족 범죄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나락에 떨어질 경우 우리 사회가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책임질 수 없다는 불신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r/>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극빈층이 아닌 중산층의 경우에도 실직 등 위기가 닥쳤을 때 친척에게 손을 벌리는 것 외에 마땅히 도움받을 곳이 없다</span>”며 “<span class='quot4'>일자리 연결 등 소득을 보장해 주는 한편 위기 가정을 심리적으로 보살펴주는 지원도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그러나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무조건 폄훼할 필요는 없다. 김붕년 교수는 “<span class='quot5'>자살 위험에 노출되는 노인들이 버티는 것 등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가족주의의 힘</span>”이라고 말했다.<br/>안아람기자 oneshot@hk.co.kr<br/>장재진기자 blanc@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60.txt

제목: '방사선에 20년 노출' 손가락 괴사  
날짜: 2015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1510016719361  
본문: 현직 의사 '방사선 피부염' 발병 절단후 조직 이식… 학계 첫 보고<br/>방사선 장비 사용 크게 늘면서 의료진 장기간 피폭 우려 커져<br/><br/> <br/> <br/> <br/> 의료용 방사선 투과 장비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의 손가락이 장기간 방사선 노출로 괴사돼 결국 절단한 사례가 학계에 첫 보고됐다.<br/> 15일 원광대 의대 산본병원 정형외과 김유미 교수팀은 방사선에 20년간 노출된 현직 의사(49)의 손가락에 괴사가 나타난 사례를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발표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의사가 수술이나 시술 중 방사선에 노출돼 직접 손상을 입은 문헌보고는 국내외에서 처음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br/> 논문에 따르면 정형외과 개원의인 이 의사는 2013년 피부괴사 진단을 받기 전까지 척추 주사요법을 월 평균 100건 이상 20년간 시행했다. 허리디스크를 앓는 환자의 척추에 주사를 놓기 위해선 방사선 투과기기를 써서 문제의 요추 위치를 정확히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사하는 손이 방사선에 노출된다. 이 의사는 2012년부터 양측 엄ㆍ검지에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생겼으며, 피부가 딱딱해지고 얇아지면서 손톱 부근에서 통증을 겪었다. 이에 피부과를 찾아 보습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더 악화돼 왼쪽 검지에 가로ㆍ세로 1㎝ 크기 괴사가 생겼다.<br/> 그는 그 뒤 ‘방사선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연고로 치료받았지만 괴사는 더 커지고 통증도 악화됐다. 의료진은 줄기세포 치료와 자가혈액 피부 재생술도 시도했지만 통증 완화 외에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의료진은 괴사된 손가락을 자르고, 다른 조직을 이식한 뒤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br/> 김 교수팀은 투과 촬영기 등 방사선 장비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정형외과 의사의 장시간 방사선 노출 위험 또한 커지며 암, 백내장, 불임, 등 피해가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는 정형외과 의사가 1년간 방사선 노출 허용량을 전신 20밀리시버트(mSv), 눈 150mSv, 갑상선 300mSv, 손발 500mSv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mSv는 방사선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로 1m㏜가 성인 기준 1년간 방사선 노출 허용치다.<br/> 그러나 진료현장의 의사들은 방사선 차단기구가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방사선 촬영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지적이다. 일반인도 건강검진용 컴퓨터단층촬영기(CT)로 1회 촬영했을 때 피폭량이 13∼25mSv로 연간 피폭허용치(1mSv)의 최소 13배 이상에 달한다.<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X선 튜브 안에 손을 두면 분당 40mSv의 방사선 노출이 발생해 12분 30초 노출시 연간 허용량에 도달한다는 발표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의사들은 피폭 위험성에 늘 노출돼 있어 전신 방사선 차폐기구와 차폐 장갑을 착용하고 방사선 촬영기와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span class='quot0'>이번 경우는 매일 직업적으로 수십 년간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사례로, 일반인들의 피폭 위험성과는 거리가 있다</span>”고 덧붙였다.<br/> 손현성기자 hsh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61.txt

제목: 시진핑 신년 반부패 구호 '양봉음위''자행기시'  
날짜: 20150112  
기자: 박일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12100000096  
본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만 따르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음모를 꾸민다는 뜻)라는 표현을 써 가며 일부 중국공산당 간부들을 비판한 사실이 새롭게 공개됐다. 양봉음위는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하는 과정에서 썼던 표현이다.<br/>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앙문헌연구실이 공동으로 출판한 ‘시진핑의 당풍염정(簾政) 건설 및 반부패 투쟁에 관한 발언 요약집’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에서 “<span class='quot0'>일부 간부들이 익명으로 무고하고 유언비어를 조장하며 자행기시(自行其是ㆍ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제멋대로 하는 것), 양봉음위, 당 중앙을 모함하는 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이는 시 주석이 자신을 무고하고 모함하는 당내 세력이 존재한다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br/> 시 주석은 또 지난해 1월 군중노선교육실천 관련 회의에서 “<span class='quot1'>일부 부패분자들의 탐욕은 액수가 크고 죄질도 나빠 사람들로 하여금 몸서리를 치게 만든다</span>”며 “<span class='quot1'>일부 지방은 간부 1명이 걸리면 탑이 무너지듯 내려앉을 정도로 조직적인 부패가 만연해 있다</span>”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이어 “<span class='quot1'>부패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不敢)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不能)하고, 더 나아가 생각조차 못하도록(不想)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시 주석은 2013년 1월 중앙기율위원회 2차회의에서도 “부패는 사회의 암”이라며 “<span class='quot1'>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반드시 당도 나라도 망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인민들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 부패와 특권 남용</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당과 인민 군중의 혈육관계를 끊는 가장 큰 살상력을 갖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br/> 시 주석은 특히 반부패의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앙순시조에 대해서는 ‘황제가 하사한 보검’이라며 강한 신뢰감을 드러냈다. 그는 “<span class='quot1'>반부패 투쟁에서 목표 상한선을 두지 않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이에 따라 시 주석의 반(反)부패 투쟁은 올해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12일 베이징(北京)에선 18기 중앙기율위 5차 전체회의가 개막됐다.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체회의에선 올해 반부패 투쟁의 중점 분야와 방향 등이 논의된다. <br/> 한편 시 주석의 반부패 투쟁에서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31개 성(省)급 지방 기율검사위 가운데 산시(山西) 장쑤(江蘇) 간쑤(甘肅) 하이난(海南) 신장(新疆) 등 5곳의 기율위 수장이 여성이라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12일 전했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렴도와 치밀성이 높은 여성들이 ‘호랑이’(부패 고위 관료)를 잡는 데 두각을 있다는 평가다. 특히 황샤오웨이(黃曉薇) 산시성 기율위 서기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인맥인 산시방(山西幇)을 초토화하는 데 앞장섰다.<br/> 해당 지역 공직자보다는 다른 지역이나 중앙기관에서 일하던 인사를 기용하는 ‘낙하산 인사’도 31명 가운데 22명을 차지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62.txt

제목: [심사직설] 새해의 결심, 금연에 대해  
날짜: 20150111  
기자: 기선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11100000134  
본문: 중독은 개인의 행동 지배<br/> 금연의 동기부여가 중요<br/> 정부ㆍ국민의 신뢰가 바탕 돼야<br/> <br/> <br/> 새해가 되면 흡연가들은 담배 끊기를 결심하곤 한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은 이제 누구나 인식하는 건강 상식이다. 올해는 정부가 담배 값을 인상해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 담배의 주성분은 니코틴이다. 니코틴은 뇌의 보상회로에 작용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쏟아져 나오게 한다. 보상회로는 단순하게 설명하면 쾌락을 담당하는 중추로 이 부위가 자극이 되면 인간은 기분이 좋아지고 고통을 잊게 된다. 문제는 어느 정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면 충족이 돼 더 이상의 욕구가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무제한의 욕구가 생기는 것이 문제다. <br/> 그래서 보상회로가 계속 자극이 되면 중독이 된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담배는 니코틴이 혈관을 축소하기 때문에 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담배를 피우는 동안 생기는 일산화탄소가 특히 뇌의 산소 공급을 줄이는 나쁜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도 담배를 피워서 생기는 연기 속에 많은 유독 물질과 발암 물질이 포함돼 있다. 니코틴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치매가 발생하기 이전의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할 수 있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위궤양, 심혈관질환 등 많은 신체질환과 연관이 있다. 깨어나서 담배 갑이 한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지척에 놔두고 잠을 청하는 분들은 수면 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지 못해 니코틴의 혈중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서 바로 담배를 피우고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분들은 긴 비행시간이 걸리는 해외여행도 가급적 피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중독은 의식적으로 또한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독의 정의가 조절능력 상실이기에 스스로 끊기가 너무 어렵다. 통계에 의하면 자신의 의지로 흡연을 중단하는 성공률은 3% 미만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조절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흡연을 중단하되 니코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니코틴 대체 요법이다. 담배를 끊고 니코틴 패치를 피부에 붙여 흡수되도록 한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용해하는 액체가 담배만큼이나 유해한 물질일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 니코틴에 대한 욕구를 줄이고 담배를 끊었을 때 생기는 불쾌한 금단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공인된 두 가지 약제가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항우울제로 우울증이 동반된 사람에게 더 효과적이다. 다른 하나는 니코틴 수용체에 직접 부분 효현제로 작용하는 약물이다. 약물치료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금연 성공률을 30~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br/> 그러나 무엇보다 중독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끊고자 하는 사람의 금연에 대한 동기부여 여부다. 그래서 금연에 대한 동기가 생기도록 도와주는 면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 방법이 개발돼 있다. 교육과 면담, 적절한 약물치료가 제공된다면 금연을 유지하기에 더 수월하다. 최근에는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지역의 보건소에서 이런 금연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br/> 가격 정책은 공중보건학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격을 올리려면 찔끔 올려서는 안 되고 부담이 느껴질 정도의 가격 상승이 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한동안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어떤 보건정책도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신뢰가 동반돼야 효과가 있다. 담배 값의 인상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결정됐다는 확신을 주어야 하며 그 재원은 국민들의 건강, 특히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중독의 예방과 치료,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질환의 연구와 치료에 보탬이 되도록 고안돼야 할 것이다. 중독치료의 시작은 치료자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한다. 금연을 위한 정부의 가격정책도 이와 같다. 정부와 국민들 간의 신뢰가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br/><br/> 기선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63.txt

제목: [태블릿+] 갑상선암 절제술 후 치료를 편안하게 하는 ‘타이로젠’ 주사제  
날짜: 20150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0910016678945  
본문: 암 발생률 1위 갑상선암은 뚜렷한 예방법과 증상이 없다. 그래서 정기 검사가 필요하며, 종양이 발견되면 크기와 종류, 위치를 고려해 갑상선을 전부 혹은 부분 절제하는 수술을 한다.<br/> 절제수술 후 환자는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갑상선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먹어야 한다. 남아있는 암 조직을 완전히 없애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방사성 요오드치료’를 받는다.<br/> 문제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기인 약 4주 동안 갑상선 호르몬제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겪게 된다. 한 연구 결과, 갑상선암 제거수술 환자의 92% 이상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나타난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생기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며, 피로, 식욕 부진, 운동 능력 부족, 변비, 의욕 저하 등의 증상도 생긴다. 증상은 10주 동안 지속되는데, 이 기간 환자는 육아 등 가정과 직장생활을 비롯한 정상 생활을 하기에 힘들어지게 된다. 환자는 이후 갑상선암 재발 가능성과 전이 여부 진단을 위한 추적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 때도 갑상선 호르몬제를 중단해야 하므로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통은 계속된다.<br/>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인간 재조합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타이로젠’(사진) 주사다. 타이로젠은 환자가 방사성 요오드 치료나 추적 검사를 할 때 갑상선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갑상선기능저하증 없이 편안히 치료를 받도록 한다.<br/> 타이로젠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줄인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방사성 요오드의 체외 배출을 촉진하고 치료 부위 외에 나머지 몸에 불필요하게 방사성 요오드가 노출되는 것을 줄여준다. 타이로젠은 현재 74개국에서 쓰이고 있으며 미국ㆍ유럽에서는 갑상선암 환자의 70%가량이 타이로젠 치료를 받고 있을 만큼 표준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br/> <br/>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64.txt

제목: 세계보건기구, 새로운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 제시  
날짜: 20150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0910016712415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새로운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새로운 자궁경부암 예방 수칙은 3가지로 ▦9~13세 여자 어린이에게 자궁경부암 백신 2회 접종하기 ▦30세 이상 여성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검진 받기 ▦더 많은 사람에게 자궁경부암 예방 메시지 확산을 통해 모든 연령의 여성이 자궁경부암 위험ㆍ예방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등이다.<br/> 이 권고안은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 여성이 세계적으로 매년 27만 명이 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궁경부암으로 인구 10만 명 당 11명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3명이 사망하고 있다.<br/> 국립암센터 권고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정기 검진, 안전한 성생활, 예방접종, 금연 등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예방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br/> 이에 따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함께 자궁경부암 예방 인식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개발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014년 한 해 동안 개발원이 수행해 온 자궁경부암 예방 인식 캠페인을 통해 자궁경부암 질환 인지도가 19.6%포인트 올랐다</span>”며 “<span class='quot0'>WHO에서 새로운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만큼, 국내에서도 자궁경부암 인식 사업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span>”고 했다.<br/> 자궁경부암은 암 가운데 유일하게 확실한 예방책이 있는 암이다. HPV라는 원인도 분명하고, 이에 대한 백신도 출시돼 있다. 자궁경부암 환자의 93%에서 HPV가 발견된다. HPV는 종류가 150개가 넘지만 이 가운데 16형, 18형 두 가지가 일으키는 자궁경부암이 전체의 70%나 된다. 16형, 18형 HPV 감염을 막는 백신의 예방 효과는 98%나 된다. <br/> 전 세계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 필수접종으로 채택한 나라가 58개국이다. 국가 필수접종으로 가장 먼저 채택한 호주는 도입 2년 만에 자궁경부암 전단계인 고등급 상피내종양 위험이 74%나 줄어들었다.<br/> <br/>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65.txt

제목: 비타민 D, 심혈관 질환에 예방 효과 있나?  
날짜: 20150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0910016678946  
본문: "면역력 높여 암세포 증식 방해, 치매ㆍ심혈관 질환 예방" 보고 나와<br/>"주사제ㆍ보충제 과다 투여하면 오히려 사망 위험 높여" 반론 여전<br/>야외활동ㆍ음식 섭취로 보충하고 약으로 복용할 땐 권장량 지켜야<br/> <br/> 비타민 D는 자외선에 의해 자극을 받은 피하지방 속 콜레스테롤의 일종인 프로비타민 D가 전환되면서 만들어진다. 혈액을 타고 간과 콩팥을 거치면서 활성비타민으로 바뀐다. 비타민 D의 정상치는 30IU/dL 이상이다. 10 미만이면 결핍, 30까지는 부족한 상태다. 국내 비타민 D 결핍증 환자가 2007년 1,800명에서 2011년 1만6,000명으로 5년 만에 1만4,200명이나 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타민 D가 결핍돼 발생되는 질환은 골다공증, 심장병, 정자운동 저하, 당뇨병, 암,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하다.<br/> 그런데 최근 비타민 D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건국대병원에서 ‘갱년기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갱년기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대표적이다.<br/> <br/> "과다복용땐 심혈관 사망위험 높여" 반박도<br/> 현재까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당뇨병과 고혈압 발병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가 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 2001~2004년 미국보건영양조사(NHANES)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백인 68%, 히스패닉계 88%, 흑인 97%에서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75nmol/L로 비타민 D 결핍 상태였다. 2012년 다르샤나 두럽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가 7,574명의 혈액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10nmol 이하로 낮은 그룹은 평균수치 그룹보다 사망률이 2.31배나 됐다.<br/> 최재경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비타민 D가 세균을 죽이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해 면역력을 높이고 유방을 포함한 폐와 피부, 대장, 뼈 등의 암세포 증식을 방해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비타민 D가 월경 증후군을 완화하고 치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학계 보고가 있다</span>”고 했다.<br/> 하지만 반박도 만만치 않다. 박은정 제일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비타민 D 효능만 믿고 주사제를 고용량으로 투여하거나 보충제를 과하게 먹기도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이는 구토,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 위험도 높인다는 연구보고도 있다</span>”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2'>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해도 콩팥 결석과 기능 손상 등 부작용과 함께 사망위험도가 높아지기도 한다</span>”고 했다.<br/> 존 포드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교수는 지난해 7월 ‘미국 임상영양학회지(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span class='quot3'>고령자가 비타민 D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심부전은 예방할 수 있지만,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span>”고 했다. 니타 포루히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도 지난해 10월 ‘랜싯 당뇨병 & 내분비학(The Lancet Diabetes & Endocrinology)’에 “<span class='quot4'>과거 비타민 D 수치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낮춘다는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대상자의 신체활동 수준 등의 혼란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span>”고 했다. <br/> 박 교수는 이에 대해 “<span class='quot2'>이런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D가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span>”고 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2'>비타민 D가 심혈관 질환, 고혈압, 암, 당뇨병 등의 관련인자로 보고되고 있지만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확정할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2'>추가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권고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span>”라고 강조했다.<br/> 한편,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관의 경직도가 심해져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박광열 중앙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span class='quot3'>뇌졸중으로 입원치료 중이거나 일시적 뇌졸중 증세로 병원을 찾은 759명을 대상으로 혈중 비타민 D 수치와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뇌졸중 위험이 커진다</span>”고 뇌졸중 분야 권위지 ‘뇌졸중(Stroke)’ 1월호에 게재했다.<br/> <br/> 비타민 D 어떻게 얻을까?<br/> 일반적으로 1주일에 2, 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20분 정도 적절한 야외 활동을 통해 일광욕을 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80~90% 정도 얻을 수 있다. 최재경 교수는 하지만 “<span class='quot5'>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 B의 양이 적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그 양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span>”며 “<span class='quot5'>특히 여성의 경우 자외선 차단제 등을 바르다 보니 남성에 비해 더욱 발병 빈도가 높다</span>”고 했다.<br/> 또한 비만인 경우 비타민 D 생체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 최희정 을지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6'>비타민 D는 지용성으로 지방조직에 결합할 수 있어 같은 양의 비타민 D를 투여해도 비만인의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 50%가량 낮다</span>”고 했다.<br/> 따라서 전문가들은 차선책으로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식품이나 비타민 D 영양 보충제 섭취를 권한다. 식품 중에는 정어리 멸치 연어 고등어 청어 등과 말린 표고버섯, 달걀 노른자 등에 비타민 D가 포함돼 있다. 비타민 보충제의 경우 과도 복용 시 칼슘 농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량을 잘 지키도록 한다. <br/> 전문가들은 비타민 D 부족 예방을 위해 1일 800~1,000IU의 비타민 D 섭취를 권한다. 그러나 비타민 D 결핍을 치료하는 경우 고용량의 비타민 D 투여가 필요해 매주 5만IU의 비타민 D2를 8주간 투여하거나, 50만IU를 1회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br/> 한국영양학회가 발표한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2010’에 따르면, 50세 미만의 비타민 D 권장량은 200IU, 50세 이상인 사람, 임신부와 수유부는 400IU다. 최희정 교수는 “<span class='quot7'>연령이 증가할수록 피부가 얇아지면서 각질세포나 섬유모세포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도 저하돼 70세가 되면 20세에 비해 비타민 D 합성능력이 75%나 떨어진다</span>”고 했다. <br/>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66.txt

제목: 재난ㆍ전쟁ㆍ질병의 현장에서 사진기자는 존엄을 고민한다  
날짜: 20150109  
기자: 최윤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09100000108  
본문: 경력 40년 넘은 베테랑<br/>늘 현장을 꿈꿔<br/>라이베리아 서 심장마비사<br/> <br/>지난해 12월 11일 라이베리아 에볼라 감염 지역을 취재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워싱턴포스트 사진기자 마이클 두 실(Michel du Cille)은 두 달 전 포스트에 쓴 자신의 칼럼 제목을 ‘에볼라 지역에서 존엄을 지키며 취재하기(Documenting with dignity in the Ebola zone)’라 달았다. 재난과 폭동 전쟁 질병 기아의 현장을 40년 넘게 누비며 3차례 퓰리처상 사진보도부문상을 탄 베테랑 기자인 그는 그 글에서 “피사체의 존엄을 지켜주고자 하는 나의 희망에 대해 카메라는 그 자체로써 하나의 배신인 듯 여겨졌다”고 썼다. 우주복 같은 위생복으로 온 몸을 감싸고도 불안한 나머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취재. 절망 속에 숨져가는 이들과, 그들을 바라보며 손조차 잡아주지 못하는 가족들의 표정을 찍으면서 그를 괴롭힌 갈등이 그러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에볼라의 끔찍하고 반인간적인 현장을 봐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심조심 신중하게,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으면서.”<br/> 두 실이 말한 ‘존엄’은 사진기자로서 그가 추구한 직업윤리의 뿌리이자 열매였다. 하지만 그가 사진으로 지키고자 했고 부여하고자 했던 존엄의 주체는 피사체뿐 아니라 그 자신이기도 했다. 가망 없는 현실, 하지만 회피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 앞에서 그는 자신의 저 신념과 용기, 그리고 생명의 한계가 그어놓은 최대한 먼 자리까지 나아감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지켰고, 그가 나아간 장서적 거리의 절박한 아슬아슬함으로 피사체의 존엄을 지켰다. 향년 58세. <br/> <br/> 두 실의 저 이야기가 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가 남긴 사진과 글을 보며, 어쩌면 두 실의 심중에 내려놓을 수 없는 짐처럼 남아 있었을, 비운의 사진기자 케빈 카터(Kevin Carter)가 떠오르는 건 그래서 자연스럽다. ‘위클리 메일’과 계약한 프리랜스 사진기자 카터는 휴가 중이던 1993년 2월 내전과 기아의 땅 수단을 찾아 간다. 식량 배급소가 있던 아요드라는 마을을 취재하던 중 그는 여린 신음소리를 듣고 배급소 곁 덤불에 다가갔고, 허기로 기진한 듯 엎드려버린 소녀를 보게 된다. 그 순간 소녀의 죽음을 감지한 독수리 한 마리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한다. ‘수단의 소녀’로 알려진 그의 충격적인 사진은 그 해 3월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실렸고, 아프리카 기아의 참경을 전세계에 충격적으로 알렸다. 그는 이듬해 6월 퓰리처상을 탔고 또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는 축하와 함께 거센 비난도 감당해야 했다. 아이를 도울 생각에 앞서 사진 앵글을 찾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데 열중한 그와, ‘먹잇감’이 절명하는 순간을 기다리던 사진 속 독수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였다. 아예 그 장면을 연출의 결과라고 비난한 이도 있었다고 한다. 카터는 ‘뱅뱅그룹’이란 그의 프리랜스 그룹-아프리카 내전지역을 주로 취재해 ‘뱅뱅그룹’이라 불렸다- 친구들이 요하네스버그 교외 총격전을 취재하다 한 명(켄 오스터브로크)이 숨지고 한 명(그레그 마리노비치, 91년 퓰리처상)은 심한 부상을 당하는 일도 겪는다. 그는 퓰리처상 시상식을 다녀온 한 달 뒤인 94년 7월 28일 자신의 픽업트럭에 앉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r/><br/>포토저널리스트 헬 부엘은 그의 책 에 “카터가 남긴 쪽지(유서)에는 (…) 총을 든 미치광이, 굶주린 아이, 시체, 고통의 기억에 사로잡힌 한 남자에 대해 적혀 있었다. 친구 켄의 곁으로 가고 싶다는 바람도. 그의 나이 서른세 살이었다”라고 적었다.<br/> <br/> 미켈란젤로 에버라드 두 실(Michelangelo Everard du Cille)은 1956년 1월 24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태어났다.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70년대 초 가족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로 이주, 지역 신문에서 기자로 일했다. 두 실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16살 무렵부터 조지아의 게인스빌 타임스와 루이스빌 쿠리어 저널, 마이애미 헤럴드 등에서 인턴 사진기자로 일했다. 81년 인디애나대학을 졸업한 뒤 마이애미 헤럴드의 정식 사진기자가 된 그는 85년 콜롬비아 화산폭발 참사 취재로 동갑내기 여성 사진기자 캐롤 구지(Carol Guzy)와 함께 86년 첫 퓰리처상을 탄다.(구지는 95, 2000, 2011년에도 퓰리처상을 수상, 유일한 퓰리처상 4회 수상자가 된다.)<br/> 2년 뒤인 88년 두 실은 마이애미 지역 마약 취재로 두 번째 퓰리처상을 탄다. 마약이 거리의 일부 흑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어떻게 파급되고 있는지 심층 취재한 그 기획은 두 실의 발제로 시작됐다. 당시 팀장이던 진 바인가르텐(Gene Weingarten, 현 워싱턴포스트 기자)은 “취재가 시작된 지 2주쯤 뒤 두 실에게 사진이 어떻게 됐는지 물었더니 단 한 장도 안 찍었다고 하더라. ‘카메라를 안 갖고 간다. 신뢰가 먼저고, 일은 그 다음이다’라는 게 그의 대답이었다”고 말했다. <br/> 두 실은 88년 구지와 함께 워싱턴포스트로 직장을 옮긴다. 하지만 현장 기자로서 활동을 이어간 구지와 달리 두 실은 사진 데스크를 맡아 주로 내근을 하게 된다. 2006년 워싱턴포스트의 야심찬 기자들이 미국 사회의 불평등한 흑인 현실을 다양한 분야의 장기 취재를 통해 고발한 기획시리즈 ‘(흑인으로 살기(Being a Black Man)’가 그가 기획하고 사진 취재한 작품 가운데 하나였다. 그 기획은 이듬해 이란 단행본으로 묶여 나왔다. 그는 2007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 군인들의 치료 및 간호 실태 탐사보도로 동료 기자들과 함께 세 번째 퓰리처상을 탄다. <br/> 2010년 아이티 지진 취재로 생애 네 번째 퓰리처상을 타게 되는 캐럴 구지를 비롯한 포스트지 기자들을 차출해 현장에 보낸 것도, 그들의 사진을 골라 신문에 게재한 것도 두 실이었다. <br/> <br/> 하지만 그는 현장이 자신의 자리라 믿었던 기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오랜 동료 기자인 레니 번스타인은 “두 실은 사무실에 앉아 누군가를 인터뷰할 동안 기다리는 걸 무척 싫어했다.(…) 몬로비아의 슬럼과 라이베리아의 전장, 아니면 환자와 사망자들이 모여있는 지옥 같은 현장엘 나가고 싶어 애달아 했다. 현장에서도 그가 원하는 장면이 늘 다음 골목, 다음 모퉁이에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걸 놓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못 견뎌 했다”고 말했다. (WP, 12.11) <br/> 그는 몇 년 전 다발성골수종이라는 암이 발병해 화학치료를 받았고, 두 차례 슬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지만 주위에 알려지는 걸 꺼렸다고 한다. 2013년 병에서 회복되자마자 현장취재를 강력히 자원, 유엔 평화유지군 철군을 앞둔 아프가니스탄 군대의 방어력 취재를 떠났고, 교전 현장에서 아프간 군 지휘관의 엄호사격 요청을 받을 정도로 다급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다. <br/> 지난해 10월 시라큐스대학 측이 두 실에게 미디어학부생들의 사진 포트폴리오 비평 강의를 청했다가, 강의 당일 초청을 철회한 일이 있었다. 그가 강의 3주 전에 라이베리아의 에볼라 현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학생이 대학 측에 전염 우려를 제기한 탓이었다. 그는 자신이 느낀 분노와 슬픔을 칼럼을 통해 여지없이 드러냈다. “나는 연방질병통제국(CDC)이 권고한 에볼라 잠복기간인 3주 전에 귀국했고, 그 사이 하루 두 차례 체온을 측정하라는 CDC의 지침보다 자주 거의 매 시간 내 체온을 쟀다.(…) “대학 당국이 히스테리아에 굴복해서 취재 현장의 실상과 체험담을 들을 기회를 학생들로부터 빼앗은 것은 비극이다.”<br/><br/><br/> 그 분노 안에, 저 글의 행간에도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사진기자로서의 존엄과 책임을 되새겼을 것이다. 그리고 1969년 흑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모네타 슬리트의 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 장례식장 사진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대다수 현장 기자들이 분노한 군중과 장례식장을 메운 고위 인사들의 모습을 찍는 동안 장례식장의 유일한 흑인 사진기자였던 슬리트는 아이를 안은 미망인 코레타 스코트 킹의 얼굴을 찍었다. <br/> 처연히 젖은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슬픔의 품위. 그 품위를 지탱하던 응시의 시선. 라이베리아의 에볼라 현장에서 두 실 자신이 견지하고자 했던 시선이 그러했을 것이다.<br/> 최윤필기자 proos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67.txt

제목: 채소,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  
날짜: 201501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08100000018  
본문: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지요. 하지만 윤기가 좔좔 흐르는 고기가 너무 좋았던 나머지 채소와 야채를 등한시하지는 않았나요? 채소와 과일을 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요!<br/><br/>시작하기에 앞서 준비할 것들 : 신선한 채소와 과일<br/><br/>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있을까요? ‘국민 건강영양조사(2008)’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채소류의 1일 권장수준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은 23.4%, 과일류의 경우에는 28%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채소류와 과일류 모두 1일 권장수준 이상으로 섭취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했습니다.<br/><br/>1. 채소, 과일 왜 먹어야 할까?<br/><br/>맛있고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먹거리가 넘쳐나는데, 왜 굳이 채소와 과일을챙겨 먹어야 할까요? 영양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냥 ‘칼로리만 낮춰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채소와 과일 섭취를 권장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칼로리가 적어서? 포만감이 있어서? 그렇다면 체중조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필요가 없을까요?<br/><br/>우선 음식을 동물성 식품(고기, 어패류)과 식물성 식품(채소, 과일)로 나눠보면 어떤 군이 우리 몸에 좋을까요? 식물성 식품(채소, 과일)이 우리 몸의 건강한 기능을 더 많이 돕습니다. 식물성 식품인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필수영양소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예방해주는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합니다.<br/><br/>● 생리활성물질은 무엇이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br/>‘생리활성물질’은 우리 몸속 기관들이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는 물질이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채소가 우리 몸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채소 속에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인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s)’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색으로 분류해 보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보라색(검은색 계열 포함)의 다섯 가지 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br/><br/>● 색깔별로 알아보는 주요 파이토케미컬과 효능<br/><br/><br/>과일, 채소, 곡류 등에 있지만 자연물질이고, 영양소는 아니지만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와 더불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수백여 종이 밝혀졌고, 미량영양소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컬러푸드, 블랙푸드, 레드푸드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이유가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지면서 조금 더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br/><br/>2. 채소, 과일 어떻게 먹어야 할까?<br/><br/><br/>● 보충제로 대신 섭취하면 안될까?<br/>아무리 좋은 ‘비타민’이나 ‘무기질건강 기능성식품’도 식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일부 연구보고에서는 식품 섭취 시 나타난 암 예방 효과가 ‘보충제 섭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선한 식품으로 과일(생과일) 및 채소(나물 반찬, 샐러드, 쌈, 야채 스틱) 형태로 섭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br/><br/>● 수백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br/>일일이 다 찾아 드시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통 식물에 있는 이런 좋은 성분들은 색을 가지고 있어서 색에 따라서 챙겨서 드시면 골고루 드실 수 있답니다. 점심 메뉴가 고기라면, 상추쌈에 양파와 마늘을 충분히 곁들이시고, 가지나물, 단호박 구이 등을 밑반찬으로, 후식으로 토마토를 드신다면 다섯 가지 색을 모두 드실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매우 건강한 식탁을 꾸미실 수 있습니다.<br/><br/>3. 채소, 과일 얼마나 먹어야 할까?<br/>● 채소 :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채소 섭취량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7접시(1접시 당 30-70g)입니다. 식사 시 2접시의 채소 반찬과 간식으로 샐러드를 1번 섭취하면 7접시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식이 섬유300-500g 섭취, 한 끼 식사에 2접시, 간식 1접시 이상)<br/><br/>● 과일 : 하루에 1-2가지 과일로 1-2회 섭취(1회 : 귤 1개, 사과 1/2개, 포도 1/3송이, 바나나 1개)<br/><br/><br/>많은 양의 채소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녹즙 또는 진액 형태의 식품만 장기 복용한다면 소화불량, 복부 팽창, 독성 물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일은 당분 함량이 많으니, 적정량 섭취해야 합니다. 통조림이나 주스로 만들어진 과일 식품은 당분 함량이 많으니, 특히나 주의하세요!<br/><br/>-참조-<br/>얼 L 민델. 2006. 뉴 비타민 바이블<br/>한국영양학회. 2013. 내 몸을 살리는식물영양소<br/>대한 암협회, 한국영양학회2009<br/><br/>쉐어하우스 제공 ▶ 원문보기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68.txt

제목: 전립선질환엔 구운토마토환  
날짜: 20150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07100000029  
본문: 구운 토마토가 남성 전립선과 성기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엔존B&F의 ‘구운토마토환’이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br/> 구운토마토환은 토마토의 유효성분인 라이코펜의 생성을 최대로 끌어 올리고, 체내에 가장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깐깐한 가열과 건조공정을 거쳐 개발된 제품이다. 환(丸) 형태로 제작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br/> 구운토마토환에 함유돼 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 기능 향상과 정력증진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포의 산화를 방지해 암과 각종 성인병 예방은 물론, 혈전생성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br/> 또한 토마토에 풍부한 비타민 A, B1, B2, C는 피로회복과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섬유질과 껍질의 미끈한 성분은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을 촉진해 주며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을 낮춘다는 연구논문들도 많다. <br/> 김영진 엔존B&F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구운토마토환은 남성들의 고통인 전립선질환 삼총사(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에는 효과적</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기존 토마토 음료나 수입산 농축액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토실토실 잘 자란 토마토 그대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span>”고 말했다.<br/> 한편, 엔존B&F는 현재 구운토마토환 구매시 생강청을 사은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 및 제품에 대한 문의는 전화(1588-6469)로 하면 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69.txt

제목: 바위산 꼭대기에 겨울이 그린 ‘명작’ 걸렸네  
날짜: 20150106  
기자: 김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06100000051  
본문: 새해 벽두, 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힘겹게 올랐더니 눈이 놀랄 풍경이 불쑥 나타났다. 웅장한 바위 봉우리의 연속! 끝없이 이어지더니 하늘과 땅의 경계가 됐다. 어찌나 장쾌한지 보고 있으니 가슴 뻥 뚫리고, 한 해 다시 떠나보낸 먹먹함도 비로소 사라졌다. 이러니 정말 ‘새해’ 같았다. 겨울 바위산의 맨몸뚱이들이 거뭇한 붓질처럼 보이니, 자연이 그린 수묵화가 이것일까 싶었다. 살얼음 낀 물길이 험준한 암봉 사이를 미끈하게 파고 드는데… 돈 주고도 사지 못할 ‘그림’이 충북 단양 제비봉(721m)에 떡하니 걸려 있다. 겨울 다 가기 전에 한번쯤은 봐야할 명작(名作)이다. <br/> <br/><br/>● 충주호 굽어보는 천혜의 전망대<br/> <br/> 충주호 장회나루(유람선 선착장) 찾아간다. 뒤로 우뚝하게 솟은 바위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제비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올려다보면 아찔한데, 이 험준한 바위능선 따라 놀랍게도 등산로가 있다. 정상까지 흙보다는 바위와 돌멩이 밟을 일이 더 많은데다 수직에 가까운 철계단도 수시로 나타나니 채비를 단단히 한다. 최근에 눈 내렸다면 아이젠은 필수, 눈 많이 왔다 싶으면 아예 다음을 기약한다. 정상까지 약 2시간 10분 거리. 왕복 4시간은 예상한다. 중급코스다.<br/> 시작부터 급경사의 나무계단.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경고 같기고 하고, 급한 마음 일찌감치 접으라는 충고 같기도 한 이 계단을 한걸음씩 천천히 오른다. 아예 한나절을 이 길에서 뒹굴자고 생각하니 마음 절로 편해진다. 도시로 다시 돌아가면 새해는 이렇게 시작하기로 한다. ‘느리게 가더라도, 마음 편하게…’<br/> 제비봉은 월악산 줄기다. 충주호 쪽에서 보면 바위 능선이 제비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 닮았다고 붙은 이름이다.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연비산(燕飛山)’이라고 소개하며 ‘높고 크고 몹시 험하다’고 적고 있다. ‘연비산’을 우리말로 풀어쓰니 ‘제비봉’이 됐다. 등산로는 제비 날개를 타고 가는 길이다. 봉우리의 동쪽, 남쪽, 북쪽 등 세 방향의 시야가 탁 트인다. <br/><br/>476봉(476m)까지는 전망이 좋으니 풍경 음미하고 바위에 앉아 숨 고르며 쉬엄쉬엄 간다. 처음에는 코앞의 호수만 보이다가 고도 높아지면 구담봉이 보이고 나중에는 제천 쪽 물길까지 아득하게 펼쳐진다. <br/> 사위 황량한 겨울이라 바위산의 골격이 오롯하다. 우람한 맨몸뚱이에 침엽수들 아로새겨진다. 멀리서 보니 거대한 수묵화가 따로 없다. 청명한 하늘에 그려진 이 멋진 그림은 색깔이 없는데도 볼수록 고상하고 우아하다. 볕 잘 들지 않은 곳에 몸 붙인 나뭇가지에는 눈꽃이 피었다. <br/> 추위에 호수는 유빙 천지. 유람선이 얼음 덩어리를 헤치며 나아가는데 이 풍경이 사는 모습과 참 닮았다는 생각 든다. 지난 한 해도 유람선처럼 꾸역꾸역 얼음을 밀어내며 살았다 싶으니 스스로 대견하다. 앞길에는 큰 얼음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래본다. <br/> <br/>제천 쪽으로 향하는 물길이 크게 휘어지는 곳(왼쪽)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그 유명한 구담봉이다. 물속에 비친 바위의 모습이 거북 등껍질 닮았다는 봉우리인데 그 웅장하고 당당한 모습은 예부터 숱한 시인묵객들의 풍류의 대상이 됐다. 높이가 330m나 되지만 산 위에서 보니 더욱 등등하다. 여전히 충주호 유람선 관광의 백미인 이유다. <br/> 등산로 주변, 작은 소나무들은 눈여겨본다. 바람결 따라 휘어진 자태가 멋지다. 한줌 척박한 바위에 붙어 강풍 피하려는 절박한 몸부림인데 보는 사람 마음이 설레고 또 설렌다. <br/> 476봉에서 정상까지는 조붓한 숲길이다. 내린 눈은 여전히 녹지 않았으니 하얀 눈 밟으며 겨울 숲 음미한다. 이파리 다 떨군 나목들이 눈밭에 모여 있으니 제법 볼만하다. 얼음 호수가 나무들 사이로 잠깐씩 모습 드러낸다.<br/> <br/>제비봉 등산로 대부분이 훌륭한 전망대다. 각도와 높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겨울산과 호수의 풍경이 눈을 즐겁게 만든다. 한 치라도 더 멀리 보고 싶은 욕심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다보면 어느새 정상이다. 최고의 그림은 단연 이 정상에 걸려있다. 나무데크로 만들어놓은 전망대에 서는 순간 입이 절로 쩍 벌어진다. 티 없이 맑은 풍경에 눈이 깨끗해지고 맑은 바람에 또 가슴 밑바닥 꼭꼭 숨겨진 콩알 같은 생채기까지 절로 아문다. <br/> <br/> ● 겨울에 더 우아한 도담삼봉과 사인암<br/> <br/> 단양에 가면 도담삼봉은 본다. 그 유명한 단양8경 가운데 당당히 제1경에 이름 올린 곳이다. 수면 위에 세 봉우리가 뾰족하게 솟은 모양새는 언제 봐도 기이하다. 게다가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봉우리들의 면면이 달리 보이니 이 또한 놀랍다. 시내에서도 멀지 않고 가는 길도 편안하다. <br/> <br/>잘 조성된 공원 들머리부터 눈이 호강한다. 얼어붙은 강물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다. 세 봉우리가 마치 흰 쟁반에 담긴 듯 고요하게 떠 있다. 날씨가 더 추워져 얼음이 훨씬 더 단단해지면 ‘얼음강’을 밟고 봉우리까지 다녀오기도 한단다. 가운데 봉우리에 있는 ‘삼도정’이라는 정자가 유독 더 고상하게 다가온다. 주변을 이리저리 거닐며 봉우리의 변화를 천천히 살펴본다. ‘남편이 아들을 얻기 위해 첩을 들이자 아내가 새침하게 돌아앉은 모습’이 보일지 모른다. 정자가 있는 봉우리가 남편봉, 그 왼쪽(북쪽)이 처봉, 오른쪽(남쪽)이 첩봉이다. 첩이 임신한 배를 불쑥 내밀고 남편이 이에 기뻐하며 처는 이를 질투해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br/>도담삼봉은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과 인연이 깊다. 외가가 단양인데 그는 외가에서 태어났다. 젊은 시절에는 자주 이곳을 찾아 머리를 식혔다. 그의 호인 ‘삼봉’은 도담삼봉에서 땄다고 알려졌다. 강원도 정선 땅에 삼봉산이라고 있는데 큰 물난리로 이 산의 세봉우리가 떠내려 와 도담삼봉이 됐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는 잘 알려졌다. 당시 단양은 이 봉우리들을 소유한 정선에 세금을 냈다. 어린 정도전이 어느날 세금을 받으러 온 정선 관리에게 삼봉이 물길을 막아 단양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담삼봉을 도로 가져가라 했다. 이후부터 단양은 세금을 내지 않았단다.<br/> 도담삼봉 공원 옆 팔각정이 있는 봉우리를 넘어서면 역시 단양팔경 가운데 하나인 석문이 있으니 함께 둘러본다. 구름다리 모양의 거대한 돌기둥이다. 석회 동굴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형태의 돌기둥으로는 동양 최대 규모다. 가운데 구멍을 남한강과 마을 풍경이 액자 속 그림처럼 펼쳐진다. <br/> 대강면에 있는 사인암도 메모해 둔다. 약 50m 높이의 절벽인데 색이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사계절 멋지지만, 눈 내리면 더 화려하다. 바위 꼭대기에는 노송이 여백을 메우고 앞으로 남조천이 굽이굽이 흐른다. 추사 김정희는 이 거대한 절벽 앞에 서서 ‘하늘에서 내려 온 한 폭의 그림 같다’며 애를 극찬했다. 사인암 아래쪽에는 숱한 시인묵객들이 스스로 새겨놓은 글귀와 이름들이 빼곡하다. 사인암 가는 길에 있는 청련암이라는 작은 암자도 예쁘다. 천변을 따라 걸으며 웅장한 절벽을 감상하고 옛사람들이 새겨놓은 글씨도 찾아본다. <br/> 요즘 단양에는 겨울이 그려놓은 멋진 그림들이 수두룩하다. 이 당당하고 강인한 그림들은 눈이 아닌 가슴에 품는다. 그러면 한 해 버틸 힘이 불끈 솟는다. <br/> <br/>● 여행메모<br/><br/> <br/> 제비봉 등산로는 2개 코스가 있다. 충주호 장회나루 뒤편 제비봉공원지킴터에서 정상에 이르는 장회코스(2.3kmㆍ<br/>편도 약 2시간 10분 소요)와 장회나루 반대편 얼음골에서 정상으로 이어지는 얼음골코스(1.8kmㆍ편도 약 1시간 40분 소요)다. 두 코스는 정상 부근에서 연결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회코스로 정상에 올라 다시 하산하는 회귀코스를 선호한다. 전망이 장쾌하기 때문이다. 종주에 나선 이들은 얼음골에서 장회나루로 넘어오는 것을 선호한다. 시내버스가 얼음골 입구와 장회나루를 운행한다. 겨울에는 산행에 나서기 전 제비봉공원지킴터에서 등산로와 기상상황 등에 대해 알아보고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겨울시즌(11월~이듬해 3월)에는 오후 2시 이후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043)654-3251<br/> 단양=글ㆍ사진 김성환기자 spam001@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70.txt

제목: 까다로운 암보험 입원비 지급기준 확인을  
날짜: 20150105  
기자: 김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05100000118  
본문: 보험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어떤 사유에서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암 수술 후 재발방지나 고주파 치료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면 입원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 중 지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발생단계별로 분석해 5일 이같이 밝혔다.<br/>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은 부실한 상품설명과 형식적인 자필서명에 대한 것들이다. 금감원은 지인(보험설계사)을 통한 보험판매가 많고 대부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및 용어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형식적인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모니터링 전화 답변이 여전히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했다.<br/> 다만, 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 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br/> 금감원은 또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이뤄진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지급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약관에서 입원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가질 때에만 인정되는데 직접 치료는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직접적인 암 치료를 제외한 재발방지 의료행위나 고주파 온열치료 등 상당수 요양병원의 치료는 암 치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br/>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71.txt

제목: 성인 암 발병 운이 나빠서?  
날짜: 20150102  
기자: 박민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02100000038  
본문: 3분의 2가 세포 돌연변이 탓 환경·유전자 결함보다 많아<br/><br/><br/>대부분의 암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방식이나 식단, 유전 때문이라기 보다는 운이 나빠 발생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 영국 일간 가디언은 “<span class='quot0'>성인 암의 3분의 2는 세포가 분화할 때 DNA에서 발생하는 임의적 돌연변이가 원인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자 결함과 관련 있다</span>”고 2일 보도했다.<br/> 보도에 따르면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료진은 31개 조직의 줄기세포 분화 횟수와 같은 조직에서 평생 동안 암이 발생하는 빈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특정 조직의 줄기세포 분화비율과 암 발생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포가 더 빈번히 분화할수록 유전자 암호가 뒤섞일 가능성이 커지고 암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1'>줄기세포 분화로 인한 무작위 돌연변이가 31개 암 중 22개(약 65%)를 설명했다</span>”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렸다.<br/> 존스홉킨스대 의과대학의 버트 보젤스테인 교수는 “<span class='quot2'>모든 암은 불운과 환경, 유전이 결합해 발생하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암 발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수량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span>”고 이번 연구를 평가하며 “<span class='quot2'>다양한 암이 생활방식이나 유전 요인에 상관 없이 대개는 암을 촉진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하는 ‘불운’ 때문에 일어난다</span>”고 말했다.<br/> 그러나 과학자들은 잘못된 생활습관이 암과 연관된 ‘나쁜 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나머지 9개 암은 불운으로 인한 것 보다 발생비율이 높았는데 아마도 환경이나 유전적 요인의 영향으로 보였다. 보젤스테인 교수는 “<span class='quot2'>불운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9개 암은 흡연과 직결된 폐암, 햇볕 노출과 관련된 피부암, 유전성증후군과 관련된 암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2'>담배처럼 암을 유발하는 인자에 노출됐음에도 장수하는 사람들은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기 보다는 운이 좋은 사람들</span>”이라고 말했다.<br/> 그는 “<span class='quot2'>대장조직은 소장보다 줄기세포 분화가 4배나 많다</span>”며 “<span class='quot2'>대장의 일부인 결장암은 소장 보다 훨씬 흔하다</span>”고 말했다.<br/> 공동저자인 생물수학자 크리스챤 토마세티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span class='quot3'>암의 3분의 2가 줄기세포 분화 시 발생하는 DNA 변이 때문이라면 생활방식이나 습관을 고치는 것이 몇몇 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을 예방하는 데 그리 큰 효과가 없다는 뜻</span>”이라고 말했다.<b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72.txt

제목: 겨울 한파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감기'  
날짜: 2015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0210016678421  
본문: 매일 칼 바람이 부는 요즘은 인체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시기다. 면역력이 약화되었을 때 잘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감기’이다. 어린 아이들은 감기를 달고 사는데, 나쁜 세균들과 싸울 만한 면역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상처가 쉽게 낫지 않으며 배탈이나 설사가 잦다. 특히 밖에서 뛰어 놀지 않고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아이들은 면역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br/> 인류가 가장 쉽게 걸리는 가벼운 질병인 감기와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 암을 비교해보자. 당연히 치료는 암이 어렵다. 그러나 예방은 오히려 감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하루에도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발생하지만 인체의 면역력이 잘 막아내면 대부분 암에 걸리지 않는다. 반면 감기는 건강한 운동선수들도 1년에 몇 차례씩 앓는 연례행사다. 따라서 감기를 막아낼 수 있는 고급 면역력이라면 암을 막아내는데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br/> 통계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3분의 1과 성인 여성의 5분의 1이 암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다. 대부분의 암은 노년기에 찾아온다. 나이를 먹을수록 면역력이 약해져 암세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암세포에 잠식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기뿐만 아니라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고급 면역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br/> 그 해답은 폐 기능 향상을 통한 편도선 강화에 있다. 우리 몸 속의 면역력의 주체는 백혈구와 임파구이다. 외부에서 우리의 몸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균들을 식균작용으로 퇴치하기 때문이다. 백혈구는 경찰이 도로를 순찰하듯이 혈관을 따라 전신을 돌며 식균작용을 하고, 임파구는 군인이 부대를 이뤄 휴전선을 지키듯이 집단으로 목을 지킨다. 편도선은 임파선으로 목을 지키는 군부대와도 같다. 대부분의 전염성 병원균들은 물이나 공기를 통해 식도와 기도로 잠입하는데, 이 때 편도선을 베이스캠프로 삼는 임파구들이 목을 지켜 더 이상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한다. 따라서 폐와 편도선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감기는 물론 편도선염, 암에 이르기까지 폐와 관련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br/><br/> 감기는 보통 열을 동반하는데, 열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열이 평소보다 약간 높으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계 작용이 더 활발해지는 것이다. 이때는 체온 상승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므로 비타민과 단백질, 미네랄 등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정제한 흰쌀과 백설탕은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므로 가능하면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먹는 식습관이 건강에 좋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은 자신의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습관을 돌아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특별히 더 노력해야 한다.<br/> 감기 예방에 가장 좋은 것은 운동이다. 감기 예방법으로써 항상 권하는 것이 있다. 바로 유산소운동이다. 그중 최고의 운동은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은 ‘등산’이다. 등산은 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땀을 흘리면서 걷기 때문에 유산소운동의 장점을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 폐 안에 깨끗한 공기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폐의 17%만 사용하는데, 숨을 헐떡이며 산에 오르면 폐 전체를 사용하게 된다. 게다가 산에 오르면서 땀을 흘리면 피부 밑의 노폐물과 독소도 함께 빠져나오므로 피부질환 역시 완화되면서 폐가 최적의 상태가 된다. 기초 면역력을 길러주는 걷기, 베타엔돌핀이 증가하는 달리기, 속도와 청량감이 강점인 자전거 타기 등도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br/> <br/>서효석 편강한의원 대표원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73.txt

제목: [태블릿+] 차세대 폐암 표적치료제, 지오트립  
날짜: 20150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5010210016707863  
본문: 최근 폐암 치료에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등 폐암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 변이에만 작용하는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가 주목 받고 있다. 국내 출시된 EGFR 억제 표적치료제로는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닙), 타세바(성분명 엘로티닙)가 있다. 1세대 표적치료제들이다. <br/> 지난해 10월 보험 급여를 받아 출시한 베링거인겔하임의 지오트립(성분명 아파티닙ㆍ사진)은 1세대 표적치료제보다 더 강력히 표적을 차단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암세포를 강력히 억제하는 차세대 표적폐암치료제다.<br/> 지오트립은 한 개 경로만 막는 1세대 치료제와 달리 암세포의 대사, 성장, 전이를 돕는 4개의 핵심 경로를 모두 차단한다. 실제 주요 임상시험 결과, 지오트립은 가장 흔히 나타나는 EGFR 변이(Del19/L858R) 양성 비소(非小)세포폐암 환자에서 화학요법 치료군보다 생존율을 3개월 늘려 27.3개월의 생존기간을 나타냈다. 1차 치료제로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한 것은 지오트립이 유일하다.<br/> 또한, 종양이 자라지 않고 환자의 생존기간도 1년 이상(13.6개월)으로 화학치료 요법(페메트레시드와 시스플라틴 치료군) 치료군이 6.9개월인데 비해 무(無)진행 생존기간도 의미 있게 개선됐다. 특히, 지난 11월 아시아태평양 폐암학회(APLCC)에서 발표된 지오트립 아시아인 대상 임상 결과, 지오트립이 가장 흔한 유형의 EGFR 변이(엑손 19 결실; del19) 양성 아시아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에게 1차 치료요법으로 사용할 때 화학요법보다 의미있는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보였다. <br/> 1차 치료로 지오트립을 투여 받은 아시아 환자군에서 전체 생존기간이 33.3개월이었다. 반면,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환자군은 22.9개월에 불과했다. 지오트립 치료군에서 의미있게 생존기간이 늘어났고, 사망 위험을 43%까지 줄였다.<br/> 비소세포폐암 치료에서 전체 생존기간 연장을 입증했다는 점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폐암이 다른 암보다 생존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양을 잘 조절해 생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환자에게 큰 희망이다.<br/>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74.txt

제목: [연예계 대박쪽박] ② 2014 '쪽박' 스타, 한눈에 보기  
날짜: 20141230  
기자: 이소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30100000029  
본문: 연예계의 2014년을 되돌아보는 '대박 쪽박'스타 한눈에 보기. 2편에서는 2014년 쪽박 스타를 살펴본다. 올해는 유독 마약 밀반입·음담패설·불륜 논란 등 자극적인 사건이 많았다. 평소 인기가 높던 이들이라 대중의 실망감도 컸다. 이들 중에는 재기의 가능성이 보이는 스타도 있지만, 복귀가 불투명한 스타도 있어 씁쓸함을 자아낸다.<br/> [연예계 대박쪽박] ① 2014 '대박' 스타, 한눈에 보기<br/> <br/> 1. '마약 밀수 논란'에 눈물콧물 '쏙'…2NE1의 박봄<br/> 걸그룹 2NE1 박봄은 마약 밀반입 논란으로 데뷔 이래 가장 큰 고비를 맞았다. 2010년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을 밀반입하려다 적발, '입건유예' 처리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사실은 4년 동안 세간에 알려지지 않다가 지난 6월 한 언론사의 보도로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다. 여자 연예인이라 이미지 실추가 상당했다. <br/>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은 직접 공식 해명글을 올리며 '박봄 감싸기'에 나섰다. 정신과 치료의 일환으로 미국에서부터 복용해오던 약이었고, 수입 금지임을 알고 나서는 다른 약으로 대체 복용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사자의 직접적인 해명이나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1일 진행된 SBS '가요대전'에 출연한 2NE1는 박봄 없이 3인 체제로 무대를 소화했다. <br/>1. 박봄 마약 밀수…양현석 해명에도 논란 커져<br/> <br/> 2. 이병헌, '음담패설' 이미지 벗어날까<br/> 할리우드 배우 이병헌도 올 한 해는 고역이었을 듯 싶다. 걸그룹 글램 다희(20·본명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이 이병헌의 음담패설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두 사람은 5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병헌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병헌이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br/> 이들은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에 반성문을 수 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였던 이병헌 역시 사생활에 대한 구설로 타격이 컸다. 그의 아내 이민정에 대한 동정 여론도 확산됐다. <br/> 하지만 인기 회복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이병헌은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5'의 주연급 악역을 연기,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br/>1. 이병헌 동영상 파문,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3<br/>2. '터미네이터5', 위기의 이병헌 구할까<br/> <br/>http://youtu.be/vgOpOhm4sKs<br/> 3. 에네스 카야, 불륜설·도피성 출국 논란<br/> 방송인 에네스 카야는 JTBC 토크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을 통해 데뷔 이래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는 가정적인 터키 남자 이미지로 '터키 유생'이란 별명을 얻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케밥 봉사활동에 나선 이력이 한국인의 호감을 샀다. <br/> 그런데 한 일반 여성이 충격적인 제보를 하면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여성은 에네스 카야가 기혼자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에네스 카야와 나눈 카톡 대화, 사진 등이 신빙성을 더했다. 소식이 전해진 후 비슷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례자가 속출했다. 사태가 커지자 에네스 카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아내, 아들과 함께 터키로 떠나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난을 받았다.<br/>1. 에네스 카야 사생활 후폭풍…親韓 콩깍지가 벗겨졌다<br/><br/> http://youtu.be/caeUJVtC-Ps<br/> 4. 검찰 출두가 '나들이'?…'유병언 비리 연루' 전양자<br/> 중견배우 전양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사건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월 검찰에 출두할 때 입은 의상과 태도가 논란을 불렀다. 전양자가 택한 패션은 화려한 금빛 의상과 선글라스. 여기에 은은한 미소로 당당한 태도를 드러내 공분을 샀다.<br/> 당시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5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양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r/>1. 구원파 전양자 첫 공판 "혐의 인정"<br/> 2. '73억 횡령' 유대균에 징역 3년<br/> <br/><br/> 5. 폭행으로 얼룩진 사랑… 여친에 고소당한 김현중<br/> 지난 8월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상대는 전 여자친구 A씨였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김현중과 사귀면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r/> 검찰조사에서 김현중은 가벼운 몸싸움을 인정하면서도 상습 폭행·전치 6주 폭력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사과문을 게재했다. A씨가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김현중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남게 됐다.<br/> 1. 김현중, '애인 폭행' 인정…"때린 건 맞다"<br/> 2. 김현중과 이병헌의 엇갈린 명암<br/><br/> 이소라기자 wtnsora21@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75.txt

제목: 삼성 기어 VR, 세상을 바꿀 혁신 제품에 선정  
날짜: 20141229  
기자: 조철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29100000014  
본문: WP, 지맵 등 9대 혁신사례 꼽아 <br/><br/><br/><br/> 한국 기업이 드디어 세계 시장에서 기존에 존재 하지 않던 ‘혁신 제품’을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단계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됐다.<br/>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 내놓은 ‘2014년 세계 9대 혁신 사례’에서 삼성전자가 개발해 올 하반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보급에 나선 ‘삼성 기어 VR(사진)’을 미 항공우주국(NASA)의 차세대 ‘오리온’ 우주선과 에볼라 치료제 ‘지맵’ 등과 함께 미래 사회의 혁신을 선도할 주요 기술로 선정했다. 삼성 기어 VR은 눈에 착용하는 것만으로 공상과학 영화에서 그려졌던 가상 현실을 실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기기다. <br/> 워싱턴포스트는 삼성이 새로 선보인 이 기기가 아직은 ‘실험적 혁신 단계’에 있지만, 미래 관련 분야의 주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또 이 기기의 출현으로 2015년에는 ‘가상 현실’ 분야에서 매우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br/> 삼성을 비롯해 한국 기업은 그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미국, 유럽, 일본 업체가 혁신 제품을 개발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전략을 답습해왔으나, ‘전인미답’(前人未踏)의 분야에서 혁신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창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이 제품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사용한 뒤,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를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br/>워싱턴포스트는 삼성전자의 ‘기어 VR’과 함께 ▦NASA가 화성탐사 목적으로 개발 중인 오리온 우주선 ▦애플이 내놓은 스마트시계 ‘애플 워치’ ▦에볼라 치료제 ‘지맵’ ▦록히트 마틴의 초소형 핵융합 원자로 ▦우버 등 ‘공유경제 모델’ 등을 2014년의 혁신 사례로 꼽았다. 또 ▦사상 최악의 신종 사이버 버그로 기록된 ‘허트브리드’ ▦반도체와 LED까지 찍어낼 정도의 성능을 지닌 휴렛팩커드(HP)의 3차원 프린터 ▦구글의 차세대 암진단 알약 등도 9개 혁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br/>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76.txt

제목: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암 예방  
날짜: 2014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2810016670623  
본문: 임전무퇴(臨戰無退), 전투에 임하여서는 무릇 물러나지 않는다는 말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다. 전투를 앞둔 기상과 용기를 강조하는 숭고한 이 말이 군인정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위정자 입장에서 이 보다 더 나은 상황은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조선 중기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이 받아들여져 일본의 침략에 미리 대비하고 저들이 한반도를 감히 침략하지 못하였다면, 이순신 장군의 ‘명량’은 아예 없었을 지도 모른다.<br/> ‘암(癌)전무퇴’는 물론 ‘임전무퇴’에서 따온 말이다. 암 진단을 받은 이후 약해질 수 밖에 없는 몸과 마음을 다잡고 힘든 수술과 두려운 항암치료 앞에서 포기하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단어 역시 ‘암 발병’이 없다면 아예 불필요한 말이 될 수밖에 없다. 암을 정복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다각도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암 정복은 암 예방이 아닐 수 없다. 몇 년 이내로 지금보다 획기적인 암 치료법이 발명된다 하더라도 암을 아예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그 치료법은 이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br/> 궁극적인 암 정복, 그러니까 암 예방을 위해서는 ‘암이 왜 생기는가’하는 암 발생 기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암 발생 과정을 밝히는 연구는 상당히 복잡하고 철저한 증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결국 인구집단 전체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암 발생 과정을 밝히는 연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br/> 이미 발생한 암환자의 조직과 혈액을 분석하여 특정 성분이 일반인과 다른 점을 찾아 내고 그 성분이 달라지게 한 발암물질을 찾아내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이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유력한 발암물질을 실험동물에게 주입하여 실제로 예상한 암이 발생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이 물질이 실제로 보통의 인구집단에서도 암을 일으키는지를 증명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즉 치료약 대한 임상 시험은 참여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쪽은 위약을 먹이고 다른 한쪽은 치료약을 먹여 효과를 판정하는 것인데, 예방 연구에서는 한쪽 집단에 일부러 발암물질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임상 시험 연구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br/> 그럼에도 어떤 발암 물질들은 임상 시험이 없이 그 발암 성능이 증명 되기도 한다. 관찰 연구라는 기법을 통해서인데, 관찰 연구는 참여자에게 일부러 발암 물질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알아서 먹는 것을 기록하고 훗날 그 사람에게 암이 생기는지를 추적하는 연구 방법이다. 일부러 담배를 피우게 하면서 암이 생기는지 관찰할 수는 없지만, 본인 판단 하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장기 추적해서 암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는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잘 알려진 발암 물질들에는 흡연, 까맣게 탄 고기, 과도한 음주,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있음을, 새해를 맞아 기억해 보자.<br/> <br/>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77.txt

제목: "유방암 수술 환자 삶의 질 위해 최대한 유방보존에 힘써"  
날짜: 2014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2810016670612  
본문: 작년 유방암센터 수술에서<br/>선진국 수준 80% 보존율 기록<br/>모유 수유 땐 유방암 20% 감소<br/>조기 발견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 <br/><br/><br/> <br/> 여성의 상징인 유방에 암세포가 생겨났을 때, 예전에는 유방 전체를 잘라내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른바 ‘유방 전절제술’의 시행이다. 암세포를 찾고 이를 제거해 내는 진단ㆍ치료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데다, 유방암의 특성상 암세포가 눈에 뵈지 않더라도 여기저기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일단 재발의 소지를 차단하고 보는 것이 잃는 것보다 얻을 게 더 많다고 봤다.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다. 암 진단과 치료 기술이 좋아져 유방암 환자의 5년생존율이 90%를 넘어선 데다, 삶의 질의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의사나 환자 모두 전절제 보다는 가급적 유방을 보존하자는 쪽이다.<br/>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센터장 양정현ㆍ의료원장)는 지난해 유방보존술에서 ‘기록’을 세웠다. 이 센터는 지난해 모두 402건의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유방보존 비율이 80%를 넘어선(80.3%ㆍ325건)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국내 평균치(약 75%)를 훨씬 웃도는 것이자 미국, 유럽과 대등한 것이다.<br/>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를 이끌고 있는 양정현(65) 의료원장을 최근 만났다. 양 원장은 보존술 비율이 높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요즘 환자들은 삶의 질을 많이 생각한다. 좀 더 보존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2012년 9월 유방암센터 개설 뒤 수술이 2배 넘게 증가했다”며 “우리 병원은 의료진과 환자 간 인간적 교류가 활성돼 있고, 다학제진료도 다른 병원보다 더 수월하다”고 했다.<br/> 2005년 8월 병원을 신축 개원한 건국대병원은 그동안 ‘2015년까지 국내 최고 병원으로 도약’을 목표로 의료진과 의료장비, 진료시설의 확충을 지속해왔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고 증가세가 빠른 유방암 부인암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은 전문암센터에서, 위암 등 나머지는 암클리닉에서 각각 진료하고 있다. 유방암센터는 국내 유방암 권위자인 양 원장이 중심축으로, 유방내분비외과 성형외과 종양혈액내과 재활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8개 진료과의 유방질환 전문의가 대거 포진해 있다. 신속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유방감마스캔, PET/CT 등 최신 장비를 갖췄다. 감마스캔은 유방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컴퓨터로 재구성, 3㎜ 크기의 미세종양까지 찾아낸다.<br/>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는 유방암 수술 시 성형외과 전문의와 협진을 통해 여성의 상징인 유방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유방 절제를 통해 비록 암 재발의 공포에서 벗어나더라도 여성성을 상실하게 되면 이후 환자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종양 개수가 많거나 암 크기가 클 경우 먼저 항암치료를 한 뒤 유방보존술을 위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방 전체를 절제(유방 전절제술)하는 경우라도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료가 이뤄진다. 80.3%라는 높은 유방보존 비율이 센터의 이 같은 치료 방침을 말하고 있다. 양 원장은 절제 수술 시 유방을 가급적 많이 잘라내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광범위 절제론’과 유방을 가급적 살림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보존론’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 “20년을 추적 관찰한 데이터가 이미 외국에서 나왔다. 1~2기에서는 보존이나 전절제나 (치료)성적이 같다. 그럴 바에는 삶의 질을 위해 보존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 이미 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재발률이 높다는 이유로 유두를 몽땅 제거하고 피부도 가급적 넓게 쨌는데, 요즘은 삶의 질을 많이 생각하니까 가급적 보존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흐름을 전했다.<br/><br/> 양 원장은 소위 ‘명의’를 손꼽을 때마다 가장 먼저 거명되는 인물이다. 유방암을 전공한 ‘1세대’로, 평생 유방암 치료에 매달려온 양 원장은 이 분야 ‘최초’ 기록을 여럿 갖고 있다. 그는 초기유방암에 대한 ‘침 정위 생검법’(1986년)과 겨드랑이 부위에 내시경을 넣어 수술하는 ‘겨드랑이 임파절 내시경 수술’(1994년)을 국내 처음으로 시행했다. ‘감시림프절 생검’ 도입(1996년)으로 환자들의 통증과 후유증을 크게 줄인 것도 양 원장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방암 수술 시 암세포 전이의 두려움 때문에 겨드랑이 림프절을 모두 잘라냈다. 감시림프절 생검(Sentinel Lymph Node Biopsy)이란 암세포 전이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이른바 감시림프절을 찾아 조직검사를 실시, 여기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으면 굳이 모든 림프절을 절제할 필요가 없다는 신개념 수술 방식이다. 이로써 림프절의 광범위 절제에 따른 림프부종, 어깨 움직임 둔화 등 극심한 후유증의 발생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감시림프절 생검은 지금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시행하는 보편적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양 원장은 감시림프절 생검 도입 당시에 대해, ‘정립된 수술도 아닌데 나중에 (암이) 재발하면 당신이 책임질거냐’는 비난과 비판이 거셌다고 했다.<br/>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선 1인가구가 늘고, 결혼을 꺼리거나 시기를 늦추려는 만혼 등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결혼 기피, 만혼과 이에 따른 고령 출산, 모유 수유의 기피, 여성호르몬 치료, 육식 즐기기 등 세태에 대해 양 원장은 “모두가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람 사는 일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야지, 뭔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하면 병이 생긴다”고 한탄했다. 모유 수유가 유방암 발생을 20%가량 줄인다는 연구 논문이 얼마전 캐나다에서 나왔다. 양 원장은 “결국 유방암은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조기발견하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며 “설사 암이 좀 진행됐더라도 요즘은 치료법이 다양해져 10년생존율이 80%를 넘어섰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br/> 올해 교수로서 정년을 맞은 양 원장은 “<span class='quot0'>의사로서는 일하는 데까지 하려한다</span>”고 열정을 비쳤다. 그는 “남은 기간 동안 유방암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임상에서 진전을 이뤄내고 싶다. 유방암의 원인 규명 등 기초연구를 하는 후배를 길러 내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했다. 양 원장은 인터뷰에서 병원 운영과 수술 실적 등과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 시종 과장 없는 솔직한 답변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건국대병원이 각종 의료기관 평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하자 “한편으론 두려움도 있다. 그동안 성장세가 너무 가팔라서 앞으로 이를 어떻게 유지해낼지 걱정이 앞선다”고 몸을 낮췄다. <br/> <br/>송강섭기자 ericsong@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78.txt

제목: 5년간 암투병 이겨내고… 극한의 철인으로  
날짜: 20141224  
기자: 장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24100000007  
본문: 위 3분의 2 잘라 내고 인간한계 도전… 달리기·철인 3종·카누 등 연중 경기<br/>"경기 준비하다 암 완치 희소식 들어, 다른 환자들도 나를 보고 용기 갖길"<br/> <br/> 동짓날 기나긴 밤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순백의 슬로프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신은 김상택(58)씨는 채 몇 미터도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고꾸라졌다. 평생 처음 타보는 스키였다. 수은주는 이미 영하 15도 밑으로 떨어졌고, 눈보라까지 몰아쳐 분명 스키를 타기 좋은 날은 아니었다.<br/> 엎치락뒤치락 김씨의 어설픈 질주는 100㎞나 계속됐다. 크로스컨트리 트랙을 계속 도는 동안 수없이 넘어져 온몸에 멍이 들고, 저체온증의 위기가 엄습할 무렵 김씨의 고글에 결승선이 비쳤다. <br/> 결승선 통과 시각은 23일 오전 6시 30분. 22일 오전 8시에 출발했으므로 정확히 22시간 30분에 걸친 사투였다. 인간의 극한을 시험하는 스포츠 챌린지 컵(Challenge’s Cup)을 완주한 그에게 ‘철인’의 칭호가 허락됐다. 그는 “<span class='quot0'>5년에 걸친 암과의 싸움에서 완승을 거둔 순간이기도 했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br/> 5년 전 김씨는 종합건강검진에서 위암2기 진단을 받았다. 평소 운동을 좋아해 건강만큼은 자신 있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는 서울삼성병원에서 위를 3분의 2 가량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 결과는 좋았지만 암이란 것이 그렇듯 재발 위험이 김씨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그러나 김씨는 움츠러들지 않고 운동으로 암을 이겨내자고 자신을 다잡았다. 그런 김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극한스포츠 기획자이자 환경운동가 박기섭(48)씨가 자신이 주최하는 챌린지 컵 참가를 제안했다. 사계절 내내 달리고 수영을 하다 보면 암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br/> 챌린지 컵은 국내에선 2005년 처음 열렸고, 이듬해부터는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춘분에 100㎞ 달리기, 하지에 철인 3종 경기(수영 3.9㎞, 사이클 180.2㎞, 마라톤 42.195㎞), 추분에 100㎞ 카누, 동지에는 100㎞ 크로스컨트리 스키 대회가 열린다. 모든 종목을 완주한 사람만 비로소 철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br/> 지금까지 여섯 차례 열린 대회에 내로라 하는 운동선수 17명이 참가했지만 김씨를 포함, 5명만 철인 칭호를 얻었다는 건 이 경기가 얼마나 극한스포츠인지 방증한다. 박씨는 “<span class='quot1'>철인 3종 경기만으로도 벅찬데 카누와 크로스컨트리 스키라는 흔치 않은 종목까지 더해져 젊은 사람도 완주하기 매우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1'>적잖은 나이에 암 투병까지 하던 김씨가 철인이 된 것은 감동 그 자체</span>”라고 말했다.<br/> 하늘도 김씨의 투지에 감동한 것일까. 김씨가 올해 6월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할 무렵 병원에서 “<span class='quot2'>암이 깨끗하게 완치돼 재발 가능성이 없다</span>”는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김씨는 “<span class='quot2'>내 도전을 지켜봐 준 아내와 두 딸에게 큰 선물이 됐다</span>”며 “<span class='quot2'>암과 싸우고 있는 다른 환자들도 나를 위안 삼아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br/> 경북 경주 출신인 김씨는 자동차 부품 공장 연구소 시험반장으로 근무해왔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35년 정든 직장을 떠나는 김씨는 내년부터 ‘운동 도우미’로 인생 2막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근 경주시가 사연을 접하고 그를 ‘경주 월성동 체육회장’으로 임명해준 덕이다. 김씨는 “<span class='quot2'>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께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며 체력관리를 돕고 싶다</span>”고 말했다.<br/> 주먹을 꽉 쥔 중년의 철인은 실천을 강조했다. “진부한 말이지만 매사에 ‘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탓하기보다 목표를 위해 한 발자국만 내디뎌 보세요. 깜짝 놀랄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br/>장재진기자 blanc@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79.txt

제목: 암 발생률 하락...5년 이상 생존율도 68%  
날짜: 20141223  
기자: 손현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23100000097  
본문: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하던 우리 국민의 암 발생률이 2012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생존하는 암환자의 비율은 68.1%로 조사됐다.<br/>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공개한 ‘2012년 암 발생률ㆍ생존율ㆍ유병률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암 발생률은 10만명 당 319.5명으로 2011년의 323.1명보다 3.6명 줄었다.<br/>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생존한 사람을 뜻하는 암 경험자는 123만4,879명으로 집계돼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했다.<br/> 전국 단위의 암 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 10만명 당 219.9명이었던 암 발생률은 2000년 214.1명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03년 238.4명, 2006년 264.9명, 2009년 304.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었다.<br/><br/>손현성기자 hsh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80.txt

제목: 울산대병원, 울산 첫 ‘상급종합병원’  
날짜: 20141223  
기자: 목상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23100000044  
본문: 중증질환 전문치료 3차 의료기관<br/> <br/> 울산대병원(병원장 조홍래)이 울산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br/> 울산대병원은 지난 1월 ‘상급종합병원 추진 TFT’를 구성, 지역 병ㆍ의원을 순회하는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7월 보건복지부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9월 현지조사 수검을 마쳤고, 최근 평가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자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br/> ‘상급종합병원’이란 국내 의료체계 중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환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데 통상적으로 고난이도 의료 서비스를 시행 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뜻한다.<br/>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1, 2, 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본격 확립됐다. 지역 1, 2차 병원은 경증 및 일반질환환자의 치료에 집중하고, 3차 의료기관은 암과 같은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br/> 이에 따라 시설, 장비의 중복투자와 과잉진료를 막아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에서 상급종합병원 치료가 가능해져 역외 유출되던 환자가 줄어 울산시민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br/> 울산대병원이 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 자리매김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요건 충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병원 소재지인 울산 동구지역 1, 2차 의료기관의 확충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br/> 내년 1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들은 이제 울산대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1, 2차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진료비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외래진료 시 진찰료와 급여항목, 원외처방(경증) 등 환자 본인 부담금도 달라지게 된다.<br/> 울산지역은 우리나라 경제수도로서 급격한 도시성장과 인구증가로 우리나라 7대 도시로 성장했지만 그간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의료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br/> 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그간 전국 어디에도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시설과 장비, 의료 인력을 갖췄음에도 불구,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평가된 부분이 있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앞으로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병ㆍ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질병연구와 우수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br/>목상균기자 sgmo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81.txt

제목: '글로벌 여성암병원' 기치 내걸고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  
날짜: 2014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2110016668887  
본문: 유방암·위암 분야 손꼽히는 권위자 매년 60개국 4000명이 병원 찾아<br/>"환자는 의사와 직접 소통을 원해" 중국어·일본어 등 7개 국어 구사<br/><br/><br/><br/><br/> 요즘은 서울 명동 거리에서 중국인, 일본인을 만나도 아무렇지 않듯, 서울시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만나도 더는 낯설지 않다. 모든 병원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중국 미국 몽골 러시아 등 국적을 망라한 적지 않은 수의 외국인들이 한국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실에서 긴 줄을 선다. 한국 의술의 개가이든, 한류 바람을 탄 것이든, 기분좋은 변화임엔 분명하다.<br/> 최근 들어 국내 대학병원들이 하나 둘씩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백남선(67) 이대여성암병원장의 글로벌 행보가 새삼 주목 받고 있다.<br/> 사실 백 병원장만큼 외국을 자주 드나드는 의료계 인사도 드물다. 그는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에 나간다. 자신이 이끄는 이대여성암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다. 중국 몽골 러시아 UAE 등 전 세계를 휘젓는다. 그의 여행자카드에 100만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다.<br/> ‘글로벌 여성암병원’ 백 병원장이 지난 2011년 5월, 원자력병원장, 건국대병원장을 거쳐 이대여성암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이대여성암병원 병원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글로벌 암병원의 기치를 든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지금은 그 어떤 병원도 건강보험 수가 만으론 생존할 수 없다. 해외시장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잦은 외유(外遊)는 암병원의 활로찾기라는 말이다. 그의 귀로(歸路)에는 외국인 70~80명이 뒤따른다. 그에게서 유방암 등 암 치료를 받으려는 각국의 여성 환자들이다.<br/> 현재 해마다 세계 60여 개국에서 4,000명의 암 환자들이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갑상선암 등을 치료 받기 위해 이대여성암병원을 찾고 있다. 이에 힘입어 이 암병원의 여성암 수술건수는 개원 이후 3.7배로 늘었고, 유방암ㆍ갑상선암의 증가율은 5배가 넘는다. 백 병원장은 이대여성암병원이 개원 5년 밖에 안됐지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 있게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유방암 5년생존율은 91%로 세계 톱이다. 우리 암병원은 유방 보존수술 비율이 75%에 이른다. 다른 데서라면 유방을 다 잘라야 하는데도 수술전 화학요법으로 유방 보존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br/> 백 병원장은 유방암ㆍ위암 분야 세계 100대 의사로 손꼽히는 권위자다. 위암수술 2,500례ㆍ유방암 수술 4,500례 기록을 가졌다. 1986년 유방보존 수술법을 국내 최초로 시행해 종양성형술(oncoplastic surgery)의 새 장(章)을 열었고, 역류성식도염 발생을 줄이도록 고안된 그의 위 전절제술에는 ‘Paik's procedure’(백남선 위암 수술법)란 이름이 붙었다. 그가 아내의 위암 수술을 직접 집도한 것은 의료계의 유명한 일화다. 강의와 수술 시연을 해달라는 외국 유수 병원들의 러브콜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 이유다. 그는 “<span class='quot0'>유방, 위는 물론 간 콩팥 췌장 직장 등 뱃속 수술이라면 지금도 뭐든 할 수 있다</span>”고 했다. 의술에서도 창조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그는 “선배 따라하기 하면 밥 세 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선배를 극복하려면 창조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br/>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데, 뛰어난 의술 뿐 아니라 소통과 외국어 구사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백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한국은 의술이 뛰어나고, 치료비도 값싸고, 여기에다 랭귀지 파워(language powerㆍ외국어 능력)까지 갖추면서 비로소 외국인 환자를 불러 모을 여건을 완비하게 됐다</span>”고 했다. <br/> 백 병원장은 7개 외국어에 능통하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현재 몽골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배우고 있다. 외국어 배우기는 재즈 부르기, 시 읽기, 골프와 더불어 그의 4대 취미. 그는 “환자와 믿음을 쌓는데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아무리 유능한 통역이 있더라도 환자들은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와 직접 소통하고 싶어한다. 엊그제도 입원 중인 UAE 환자에게 아랍어로 몇 마디 건넸더니 깜짝 놀라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중 중요한 대목에서는 유창한 영어로 답하며 명불허전임을 입증해 보였다. <br/> 백 병원장은 ‘노래하는 병원장’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그는 의료계나 병원 행사, 회식 자리 등에서 미국이 전설적 재즈싱어 토니 베넷(Tony Bennett)의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온 내 마음(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을 중후한 목소리로 멋들어지게 뽑아 좌중을 휘어잡곤 한다. 그의 유별난 재즈 사랑은 긍정의 힘에 대한 오랜 믿음과 맞닿아 있다. 늘 ‘현재’에 충실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낙천적 삶의 태도를 지닌 것. 그가 자주 하는 말 중엔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란 라틴어 어구가 있다. 옛 로마 서정시인 호라티우스의 시구를 인용한 것으로, ‘현재를 잡아라’ 또는 ‘현재를 즐겨라’(영어로 seize the day)라는 뜻이다. 백 병원장은 인생살이에서도 환자 치료에서도 긍정의 힘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예전엔 의사가 기술만 있으면 됐지만 더는 아니다</span>”라면서 “<span class='quot0'>환자들이 나(의사)를 따르게 하고, 환자들도 하여금 ‘나도 완치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과학(의술)만으론 환자와 친해지거나 희망을 줄 수 없다</span>”고 했다. 그는 회진 중 만나는 환자들에게 ‘어디 살아요?’ ‘종교가 뭐예요?’ ‘노래 한 번 해봐요’ 등 질문을 수시로 던지면서 환자와 거리 좁히기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 백 병원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 특화지역에서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에 한해 외국 의사의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정책과 관련, “<span class='quot0'>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미국과 FTA협상에서 미국 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해 우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어야 했다</span>”며 이 같이 밝혔다.<br/> <br/>송강섭기자 ericsong@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82.txt

제목: [건강소식] 유한양행, 국내 제약사 최초 매출 1조 달성 外  
날짜: 20141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1910016667556  
본문: 유한양행, 국내 제약사 최초 매출 1조 달성<br/> 유한양행이 우리나라 제약사 최초로 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유한양행은 최근 3년간 국내 의약품 판매 확대와 건강생활용품, 화장품 등으로의 사업 다각화, 해외수출 성장에 힘입어 창립 88주년 만에 제약사 최초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김윤섭 유한양행 사장은 “<span class='quot0'>매출 1조원 달성에 자만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 <br/> 종근당 고도비만치료제 호주서 후기임상 돌입 <br/> 종근당이 개발한 고도비만치료제 ‘CKD-732’가 호주에서 임상2b상(후기임상)에 들어간다. 종근당은 19일 “<span class='quot1'>CKD-732 연구개발을 공동 진행 중인 미국 자프겐 사가 고도비만과 2형 당뇨병을 동시에 앓는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에 돌입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서 임상 2a시험에서 지속적인 체중감량 효과와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확인했다</span>”고 밝혔다.<br/> <br/> SGLT-2 당뇨병약 아시아 환자도 효과 입증<br/> 베링거인겔하임ㆍ릴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SGLT-2억제제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이 아시아 환자를 대상으로도 효과를 입증했다.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7개 아시아 국가의 제2형 당뇨병 환자 1,3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3상 연구들에 대한 통합분석 결과, 위약 대비 유의한 혈당 감소, 체중과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 감소 등이 확인됐으며, 전체인구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br/> 얀센, 진행성 난소암 치료제 ‘케릭스’ 출시<br/><br/> 한국얀센은 진행성 난소암 치료제 ‘케릭스’(사진)를 시판한다. 케릭스는 파크리탁셀 또는 백금착체 항암제를 포함하는 화학요법제에 실패한 진행성 난소암 등에 적응증이 있으며, 4주 1회 간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진행성 난소암 2차 이상 단독요법과 함께 선행 화학요법제에 부분 관해 이상을 보이고 6개월 이후 재발한 경우 2차 이상 카보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도 보험이 적용된다. <br/> <br/> <br/> 삼성서울병원, 척추종양클리닉 개설<br/> 삼성서울병원 특수암센터(센터장 임호영)는 원발성 척추종양 환자를 위한 ‘척추종양 클리닉’을 개설했다. 원발성 척추종양은 척추 자체에서 생긴 종양으로 희귀암이지만 심한 통증과 신경마비를 초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클리닉은 환자의 첫 방문부터 정형외과, 신경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분야 척주종양 전문의가 환자를 대면진료해 최적의 치료방침을 한 번에 결정한다. <br/> <br/> 국립암센터, 통증 다학제클리닉 열어<br/> 국립암센터가 암 환자의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통증 다학제클리닉’을 열었다. 클리닉은 지원진료센터 소속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클리닉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하고 치료한다. 다양한 전문가가 모인 만큼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재활치료, 정신치료 등 치료방법 다각화로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진료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83.txt

제목: 로봇수술, 흉터는 줄이고 시야는 넓혀 담낭절제술까지 길 열어  
날짜: 20141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1910016668783  
본문: 배꼽 통한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회복 속도 빠르고 합병증 줄여<br/> <br/> 전통적인 수술인 개복(開腹)수술은 말 그대로 배에 큰 절개창을 만들어 진행한다. 수술하면 선명한 흉터와 많은 출혈로 회복 속도가 더디다. 그래서 기존 수술법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최소침습수술법(환자의 몸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수술법)이 개발됐다. 복강경수술과 로봇수술이 대표적이다.<br/> 특히 로봇수술은 외국은 물론 국내 의료진에게도 크게 주목 받고 있다. 3차원 고화질 영상 시스템과 인체 공학적인 서전 콘솔(surgeon consoleㆍ의사가 로봇을 조종하는 곳), 사람 손과 유사한 로봇 팔 등 최첨단 장비를 갖췄다. 이 때문에 기존 최소침습수술보다 더 세밀하고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로봇수술은 합병증과 흉터 감소, 빠른 일상생활 복귀 등의 장점이 있다. 술기(術技ㆍ의료기술)가 뛰어난 우리 외과의들은 로봇수술 집도 실력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단일 의료기관으로 세계 최초로 로봇수술 1만례를 달성했다.<br/> <br/> 전립선암 비롯 각종 암 수술에 적용<br/> 현재 로봇수술은 전립선암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 로봇수술이 개복과 복강경 수술보다 합병증이 덜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갑상선암도 국내에서 로봇수술로 활발하게 이용되는 분야다. 국내 의료진이 개발한 갑상선암 로봇수술법이 세계적으로 쓰이는 수술법이 될 정도로 우리 의사들이 수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br/> 또한 위암 직장암 폐암 콩팥암 같은 암과 심장질환, 부인과 수술에도 쓰이고 있다. 특히 자궁근종과 같은 부인과 질환의 경우 하나의 절개창으로 수술하는 싱글사이트(단일공) 로봇수술이 각광 받고 있다. 이 수술은 흉터를 최소화하고 자궁 난소 기능을 보존해 여성 환자의 만족도를 높인다. 집도의는 난이도가 높아 수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싱글사이트 복강경 수술보다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br/> 최근에는 국내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한 번의 로봇수술로 두 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수술하는 성과를 냈다. 삼성서울병원 배재문(소화기외과)ㆍ서성일(비뇨기과) 교수팀이 55세 여성 환자의 위암과 콩팥암을 수술로봇으로 한 번에 수술했다. 배 교수는 “<span class='quot0'>두 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수술하면 사망과 같은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시간과 비용 면에서도 효과적</span>”이라고 했다. <br/> <br/>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담낭절제술까지 <br/> 부인과 질환 외에 싱글사이트 로봇수술이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가 담낭절제술. 비교적 쉬운담낭절제술은 복강경 싱글사이트 수술이 미용적인 효과가 좋아 현재 많이 쓰인다. 하지만,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해야 하는 시각의 한계 외 집도의가 수술을 배워 익숙해 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연구결과, 담낭절제술을 시행할 때 97%의 CBD(총담관) 손상이 시(視)지각으로 인해 일어난다. 담관 절제 후 회복이 잘 되기도 하지만 총담관 손상 등으로 합병증이 생기면 담관협착, 담관염, 간부전, 폐혈증 등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br/> 이런 한계를 극복한 것이 바로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싱글사이트 로봇수술은 배꼽에 2㎝ 정도의 절개창을 하나 내 다빈치 로봇 시스템으로 수술을 시행한다. 상처를 최소화해 미용 효과를 높이고 1,080dpi 해상도의 3차원 스크린을 통해 의사에게 더 선명한 시야를 제공한다. 수술 기구는 안정적으로 고정돼 좌우대칭 없이 집도의의 움직임을 그대로 구현하여 안전하고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다. 수술한 뒤 1~2일 지나면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 속도도 빠르다.<br/> 이성열 강북삼성병원 소화기암센터 간담췌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담낭절제술을 할 때 배꼽을 통한 싱글사이트 로봇수술은 시야를 명확히 확보할 수 있어 수술 부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수술 의사가 모든 것을 직접 조정하므로 정확한 집도가 가능하다</span>”고 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2'>이런 장점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이 줄고 배꼽을 이용하기에 수술 흔적이 거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2'>통증도 적어 환자 만족도도 매우 높다</span>”고 했다. 그는 이어 “<span class='quot2'>비만 환자의 경우 싱글사이트 로봇수술이 복강경 담낭 절제술보다 수술이 훨씬 쉽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br/> 또한 로봇수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징 기술이 발달해 집도의는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됐다. 파이어 플라이(Fire Fly)라는 이미징 기술을 쓰면 집도의는 수술 중 실시간으로 환자 혈관과 조직의 혈류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요 부위를 관찰하기 쉽고 개선된 시야를 바탕으로 수술 동안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돕는다. 정확한 절제 위치를 짚어주는 ‘의사의 내비게이션’인 셈이다.<br/> <br/> 로봇수술 트레이닝센터도 만들어<br/> 싱글사이트 로봇수술은 최소침습, 상처 최소화 등으로 인해 일반 복강경수술보다 만족도가 높다. 특히 아주대병원에서 지난 한 해 이뤄진 2,000건의 싱글사이트 로봇수술을 분석한 결과, 1,000건 달성했을 때보다 담낭관련 수술이 1.5배 늘어 40.1%로 로봇수술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싱글사이트 로봇수술이 담낭질환을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수술의 한계점을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br/>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의료진의 로봇수술 트레이닝을 강화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아시아 공식 다빈치 로봇수술 트레이닝센터를 설립해 의료진의 로봇수술 교육에 힘쓰고 있다. <br/> 최근에는 세브란스병원 트레이닝센터에서 5년 만에 출시된 로봇수술기인 ‘다빈치 Xi’를 도입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다빈치 S, Si, Xi의 모든 로봇수술기를 갖추는 등 국내외 의료진을 위한 최적의 트레이닝 환경을 제공해 로봇수술을 통한 최소침습수술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br/><br/>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84.txt

제목: 수술 받지 않은 심장·뇌혈관 환자도 진료비 5%만 부담  
날짜: 20141219  
기자: 이윤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19100000036  
본문: 내년 2월부터 산정특례 적용<br/> <br/> 내년부터 수술 받지 않은 중증 심장ㆍ뇌혈관질환 환자도 진료비의 일부만 지불하는 산정특례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br/>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심장,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확대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산정특례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환자가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해 진료비의 5%(희귀난치 질환은 10%)만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심장ㆍ뇌혈관질환은 입원해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br/> 내년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특례 인정 수술 범위를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심장기형 환자는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br/> 이렇게 되면 심장ㆍ뇌혈관질환 특례 환자가 45만명에서 47만9,000명으로 늘고, 연간 약 240억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br/> 건정심은 또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보험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기로 의결했다.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및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는 등 최종적인 수가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고,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br/> 사회적 편견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증상에 따라 의료고도, 중도 등급에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에이즈환자의 경우 현재 요양병원 분류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요양등급 중 최하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을 기준으로 수가가 지원됐다. <br/> 한편 지난 7월 전면 시행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한 경우 초빙료(올해 병원급 기준 9만7,360원)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여러 수술을 한 환자는 주된 수술 비용 이외에 추가 수술비를 별도로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전환하기로 했다. <br/>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85.txt

제목: 여성 암 환자 우울증 극복 도와  
날짜: 2014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18100000007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창립이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MAKEUP YOUR LIFE)’ 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2007년 유엔글로벌컴팩트(UNGC)에 국내화장품업계 최초로 가입해 UNGC의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관련 10대 원칙을 기업 활동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다.<br/> 가장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인‘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암 치료 과정에서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를 겪은 여성 암 환자들에게 화장법 및 머리 손질법 등을 전수해 투병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도 국내 최초로 설립했고, 유방건강 의식향상을 위한 핑크리본캠페인도 전개해오고 있다.<br/>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희망가게’를 통해서는 저소득 한 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도와 자활과 자립을 통한 빈곤탈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사내용으로 운영되던 사회공헌포털을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사이트로 일원화하고, 임직원뿐 아니라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86.txt

제목: 말기 암환자 사망 전 한달간 연명 치료에 1400만원… 호스피스의 2.5배  
날짜: 20141218  
기자: 손현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18100000187  
본문: 임종을 앞두고 한달 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말기 암환자가 쓴 평균 진료비가 1,400여만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신체ㆍ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보다 2.5배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br/> 18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 30일간 입원해 골밀도 등 각종 검사와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받은 말기 암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4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530여만원보다 870여만원이나 더 많았다. 이는 2009~2013년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4곳을 이용한 중증 암 질환 사망자를 적극적 항암치료군과 완화의료군으로 나눠 입원기간에 따른 평균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다.<br/> 분석 결과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 1만7,646명 중 적극적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는 97.5%(1만7,207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완화의료군은 2.5%(439명)에 그쳤다.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1년 한 때 3%까지 올랐다가 2012년 2.6%, 지난해 2.5%로 줄어드는 추세다. 사실상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완화의료로 ‘웰다잉(Well-dying)’을 준비하는 말기 암환자는 여전히 극소수인 셈이다.<br/> 중증 암환자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임종을 맞이했는데, 그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말기암환자의 73.4%가 병원 치료 중 숨졌는데 그 비율은 2011년 70.9%로 조금 떨어졌다가 지난해 75.3%(7만1,690명 중 5만4,004명)로 다시 올라갔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사망자의 63.5%가 병원에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눈을 감는 경우는 24.7%로, 해가 갈수록 병원 내 사망률은 증가하고, 가정에서의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다.<br/> 보고서를 쓴 최영순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임종 직전까지 검사와 항암치료에만 매달리게 하는 것은 환자에게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지 못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건강보험에서 죽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span>”라고 말했다.<br/> 손현성기자 hsh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87.txt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날짜: 20141218  
기자: 손현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18100000162  
본문: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했는데도 부작용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송 없이 구제받을 길이 생겼다.<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을 복용하다 생긴 부작용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br/> 피해 발생시 질병, 장애, 사망 등 유형별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피해와 의약품간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부작용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br/> 피해 구제급여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내년에는 사망에 한해 일시보상금이 지급되지만 2016년부터 장애 일시보상금, 2017년에는 진료비와 장례비가 추가된다. 다만, 부작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항암제 등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암 치료 성분 85개와 장기나 골수 이식에서 거부반응 예방에 쓰는 성분 10개 등을 피해구제 의약품에서 뺐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자가치료용 의약품, 약국ㆍ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예방접종 부작용도 제외된다.<br/> 또 의료인, 약사, 소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부작용도 구제급여 대상이 아니다. 손현성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88.txt

제목: [사색의 향기] 삶의 중심에 존재하는 죽음  
날짜: 2014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18100000200  
본문: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두 편의 다큐를 연이어 봤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와 목숨이다. 한 편은 76년을 함께 산 노부부의 이야기이고, 다른 한 편은 평균 생존 기간 21일이라는 호스피스 병동에 머무는 이들의 삶을 다룬 영화다. 각기 다른 이야기지만 두 영화는 모두 이별에 관해 이야기한다. 죽음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법, 이 세상과 작별하는 법에 대해. <br/>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나오는 89세 강계열 할머니와 98세 조병만 할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따스한 노년의 일상을 보여준다. 7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하는 동안 그들의 삶에도 분명 맵고 쓴 시간이 지나갔을 것이다.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달달한 일상은 인고의 세월을 견뎌왔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하루하루를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매 순간 온전히 누린다. 서로에게 꽃을 꽂아주고, 낙엽을 쓸다 장난을 치고, 곱게 차려입고 손을 잡고 걷는다.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늘뿐인 것처럼 그렇게 애틋하게 서로를 바라본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할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을 이룸으로써 삶을 완성한다. <br/> 영화 목숨에는 시한부를 선고받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삶의 끝자락에 서있다는 것을 알지만 쉽게 희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마침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별을 준비해가는 과정을 영화는 담담히 보여준다. 위암 말기의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는 여러 면에서 내 마음을 흔들었다. 엄마를 암으로 잃었는데 이제는 남편마저 말기암에 걸린 상태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도 암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와 남편이 이렇게 힘들고 아팠던 거구나 이해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이의 육체적 고통까지 고스란히 함께 앓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랑의 원형은 그런 게 아닌가 싶었다. <br/> 두 영화는 죽음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삶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죽음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먼저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것임을 말한다. 죽음의 예측불가능성과 생명의 유한성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삶에 더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유한하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도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지 않는다. 이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야 겨우 삶과 관계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 여행을 좋아하는 이라면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난 이와 짧은 순간에 마음을 나눈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토록 찰나이면서도 깊은 교감이 가능해지는 건 아마도 우리가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과 나누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밀도 높은 만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br/> 영화를 보는 내내 지난 해 폐암 선고를 받은 후 3주 만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다. 너무 빠른 이별이어서 우리는 영화 속 가족들처럼 이별을 준비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고마운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보냈다. 사십 몇 킬로그램으로 남은 아버지의 육신을 화장하던 날. 소각로에서 일하는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span class='quot0'>한참 걸리니까 식사하고 오세요.</span>” 우리는 그 분의 단호한 제안에 떠밀리듯 근처의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아버지가 소각로 안에서 한 줌 재로 변해가는 동안 우리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시켜 더운 밥을 먹었다. 어느새 눈물을 그치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에 몰두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황망함을 숟가락에 담아 떠넘겼다. 배가 불러올 무렵에야 아버지의 부재가 처음으로 실감났다. 두 번 다시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것, 이 밥상에 둘러앉은 이들도 하나 둘 사라질 것이며, 그 일이 나이 순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그 순간, 며칠 전까지 반복되던 식탁의 평범한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상의 행위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일상은 그 남루한 옷을 벗어 던지고 빛나는 얼굴을 드러낸다.<br/><br/> 김남희 여행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89.txt

제목: 日, 미래 大예측 "10년 뒤 인공지능 어학강사 등장"  
날짜: 20141216  
기자: 김범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16100000041  
본문: “<span class='quot0'>10년 뒤면 파킨슨병이나 루게릭병 등의 재생치료가 가능해진다</span>” “<span class='quot0'>어학원에서 인공지능 교사가 어학을 가르칠 것이다</span>” “<span class='quot0'>15년 뒤에는 암 발병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증상을 억제는 예방약이 나온다</span>” “<span class='quot0'>20년 뒤에는 젊음을 되돌리는 약물이나 노화를 부르는 물질을 억제하는 연구로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다</span>”<br/>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ㆍ학술정책연구소가 최근 일본내 전문가 약 4,000명에게 물어서 정리한 향후 보급될 과학ㆍ의료기술의 일부다. 내년 3월 말 보고서 형태로 발표될 이 ‘과학기술 예측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932가지의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일본 국내에 보급될 것으로 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자에 보도한 내용을 정리했다.<br/> 전문가들은 치료기술 분야에서는 암 조직만을 둘러싸서 치료하는 재료가 2025년에 나올 것으로 봤다. 그 5년 뒤에는 암 발병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투약해 발병을 억제하는 예방약도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상시험이 시작된 유도만능줄기세포(iPS)를 생식세포로 성장시켜 불임치료에 응용하는 시기는 20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br/>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이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10년쯤 뒤에는 과반수의 어학원에서 인공지능이 학원강사를 대신해 어학을 가르칠 것으로 기대했다. 15년 후에는 사람과 자동차가 정보를 주고 받으며 도로 주행이 가능해져 신호등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br/> 김범수기자 bskim@hk.co.kr<br/> <br/> ● 향후 보급이 예상되는 신기술<br/> ------------------------------------------------------------------------------------<br/> 보급 시기 내용<br/> ------------------------------------------------------------------------------------<br/> 2020년 <br/>ㆍ모기 침 정도 굵기로 전혀 아프지 않은 주사침<br/> ------------------------------------------------------------------------------------<br/> 2025년 <br/>ㆍ일주일 냉장ㆍ냉동하지 않아도 신선식품이 상하지 않는 유통시스템<br/> ㆍ파킨슨병, 루게릭병 등의 재생치료<br/> ㆍGPS를 대체해 자세나 몸짓까지 알 수 있는 위치검출기술<br/> ------------------------------------------------------------------------------------<br/> 2026년<br/> ㆍ과반수의 어학원에서 인공지능이 교사 역할<br/> ------------------------------------------------------------------------------------<br/>2030년<br/> ㆍ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발병을 억제하는 예방약<br/> ㆍ쓰나미를 약화시키고 방향을 바꾸는 기술<br/> ㆍ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기술<br/> ㆍ평생 감염을 예방하는 인플루엔자 백신<br/> ㆍ인구 10만명 미만 소도시의 에너지 자급자족<br/> ------------------------------------------------------------------------------------<br/> 2032년<br/> ㆍ1년 이내 발생하는 대지진의 시기, 규모, 장소, 피해 규모 예측<br/> ----------------------------------------------------------------------------------<br/> 2033년<br/> ㆍ사막에서 수확할 수 있는 작물<br/> ----------------------------------------------------------------------------------<br/> 2035년<br/> ㆍ젊음을 되돌리는 약물이나 노화물질을 억제하는 연구로 건강수명 연장<br/> ㆍ면역을 조정해 부작용 없이 특정 알레르기 증상에만 효과 있는 약<br/> ----------------------------------------------------------------------------------<br/> 2038년<br/> ㆍ우주에서 태양광발전을 해 지구로 송전<br/> ----------------------------------------------------------------------------------<br/> 2040년<br/> ㆍ지상에서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br/> ㆍ자궁을 대체해 태아를 키우는 시스템<br/> ----------------------------------------------------------------------------------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90.txt

제목: 원전 갑상선암 피해 주민 집단소송  
날짜: 20141216  
기자: 전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16100000087  
본문: 피해자 301명과 가족 등 1336명… 여성 비율 83.8%<br/> <br/> 국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br/> 부산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를 비롯한 8개 단체는 16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an class='quot0'>한수원을 대상으로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span>”고 밝혔다.<br/> 이번 소송 참여자는 갑상선암 피해자 301명과 그 가족 등 1,336명이며, 모두 원전 반경 10㎞ 이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사람들이다. <br/> 지역별로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이 191명으로 가장 많고, 월성원전 46명, 영광원전 34명, 울진원전 30명 순이다. 또 여성 비율이 83.8%로 남성보다 월등했으며, 연령별로는 40, 50대가 65.3%로 다수를 차지했다.<br/>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원고 301명 중 179명(기장군 100명, 울주군 79명)의 암 발병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br/> 조사결과 고리원전과 인접한 일부 지역의 갑상선암 발병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부산 기장군 일광면 상리의 경우 마을 주민 106명 중 3명이 갑상선암에 걸려 인구 10만 명당 갑상선암 환자 발생률이 2,830명으로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특히 원전에 밀접해 있는 해안가 일부 저지대 마을의 경우 한집 걸러 한집 꼴로 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하거나, 부부가 나란히 암에 걸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전이 인근 주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법률대리를 맡은 변영철 변호사는 “<span class='quot1'>이번 소송은 원고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송</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항소심 사건에 원고인들의 갑상선암 발병 사실을 정리, 증거로 제출해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 한수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원전 방사선과 갑상선암의 발병은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한수원의 기본 입장</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향후 진행하는 재판에서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입증해나가겠다</span>”고 말했다.<br/> 한편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고리원전 인근 주민인 이진섭씨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갑상선암 발병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한수원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br/><br/>전혜원기자 iamjhw@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91.txt

제목: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에 함시현·임혜숙·유향숙씨  
날짜: 20141214  
기자: 강주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14100000120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여성과학기술자에게 수여하는 2014년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자로 숙명여대 함시현(45) 교수, 이화여대 임혜숙(52)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향숙(65) 명예연구원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br/> 이학 부문 수상자인 함 교수(화학과)는 치매, 암, 광우병 등의 원인인 단백질 응집현상 메커니즘 규명하고 이를 90% 정확도로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 분자수준에서 응집현상을 제어하는 방법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br/> 공학 부문 수상자 임 교수(전자공학과)는 차세대 인터넷 통신망 장비의 핵심부품인 패킷전달 엔진의 고속화를 위한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구조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통신망 장비의 고속화·소형화에 기여할 원천기술로 주목 받았다.<br/> 진흥 부문의 유 명예연구원은 아시아 태평양 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APNN) 의장 활동을 통해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와 상호협력체계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br/> 2001년부터 시행된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은 매년 이학·공학·진흥 부분에서 1명씩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미래부장관상과 포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br/><br/>강주형기자 cubi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92.txt

제목: [시대의 기억] 12·12 쿠데타의 주역들  
날짜: 2014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11100000157  
본문: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가 군 사조직인 하나회를 움직여 정권을 찬탈한 후 보안사 앞마당에서 쿠데타 성공을 자축하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학봉 보안사 수사과장(중령)은 사진에서 빠졌고 뒷줄 맨 우측 백운택은 따로 편집해 붙였다. 그 날 이후 35년이 흘렀다. 잊혀지는 게 기억이지만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도 기억이다. <br/> 앞줄 왼쪽부터 이상규(준장,2기갑여단장) 최세창(준장,3공수여단장) 박희도(준장,1공수여단장) 노태우(소장,9사단장) 전두환(소장,보안사령관) 차규헌(중장,수도군단장) 유학성(중장,군수차관보) 황영시(중장,1군단장) 김윤호(소장,보병학교장) 정호용(소장,50사단장) 김기택(준장,수경사참모장) 가운데 줄 왼쪽부터 박준병(소장,20사단장) 이필섭(대령,9사단연대장) 권정달(대령,보안사정보처장) 고명승(대령,경호실작전참모) 정도영(대령,보안사보안처장) 장기오(준장,5공수여단장) 우국일(준장,보안사참모장) 최예섭(준장,보안사기조실장) 조홍(대령,수경사헌병단장) 송응섭(대령,30사단연대장) 장세동(대령,30경비단장) 김택수(중령,30사단연대장) 뒷줄 왼쪽부터 남웅종(준장,보안사대공처장) 김호영(중령,16전차대대장) 신윤희(중령,수경사헌병부단장) 최석립(중령,33헌병대장) 심재국(대령,직책미상) 허삼수(대령,보안사인사처장) 김진영(대령,33경비단장) 허화평(대령,보안사비서실장) 이상연(대령,보안사감찰실장) 이차군(대령,보안사군수처장) 백운택(준장,71방위사단장)<br/> <br/>손용석 사진부장 stones@hk.co.kr<br/><br/>\*당시 국방부 군수차관보였던 유학성은 이후 중앙정보부장, 국가안전기획부장, 민정당,민자당 국회의원 및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후 1997년 12.12 및 5.18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십이지장 암으로 운명했다.<br/><br/>\*이학봉 수사과장은 쿠데타 이후 보안사 대공처장과 청와대 민정수석, 안기부 2차장 및 민자당 국회의원(13대)을 지냈고 2014년 5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93.txt

제목: 시한부 농구 선수 로렌 힐, 호스피스 생활 이어가  
날짜: 20141204  
기자: 이현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04100000087  
본문: 시한부 농구 선수 로렌 힐, 호스피스 생활 이어가<br/> <br/> 뇌종양을 앓고 있는 농구 선수 로렌 힐(19ㆍ미국)이 호스피스 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한국시간) 페이스북 계정인 ‘로렌의 회복을 위한 싸움’이 밝혔다.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계속 하는 대신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 로렌의 투병 생활도 거의 끝나가는 셈이다.<br/> 로렌은 미국 오하이오주 세인트 요셉 대학 여자농구팀에서 뛰었던 새내기 대학생이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뇌의 신경세포에 암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미 USA투데이는 이 병의 생존률이 0%라고 설명했다. 실제 로렌의 주치의는 그가 올 12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원래 로렌은 10월말이나 11월초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그의 대학 농구 데뷔전을 위해 치료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br/> 로렌은 지난달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여자농구 3부리그 하이럼대와의 경기에 선발로 데뷔해 4득점을 올리며 그를 응원하는 이들을 기쁘게 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달 ‘2014년 스포츠계에 일어난 감사할 일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로렌의 데뷔전 득점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현주기자 memory@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94.txt

제목: 기대수명 82세, 남녀 차이 6.5년으로 좁혀져 역대 최저  
날짜: 20141203  
기자: 고찬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203100000097  
본문: 40세 경우 앞으로 살 기대여명 男 39.7년 女 45.9년<br/><br/><br/><br/>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평균 82세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남성들이 건강 관리에 힘쓰면서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역대 최저로 좁혀졌다. <br/>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3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3년생의 기대수명은 전년보다 0.5년, 10년 전보다는 4.5년 늘어난 81.9년이었다. 남성은 78.5년, 여성은 85.1년으로 전년보다 각 0.6년, 0.4년 증가했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남성은 1.0년, 여성은 2.2년 높다. 남성은 아이슬란드(81.6년), 여성은 일본(86.4년)이 평균적으로 가장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됐다. <br/> 남녀 기대수명 차이(6.5년)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6.9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85년 8.4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윤연옥 인구동향과장은 “<span class='quot0'>남성들이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평균(5.3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br/> 앞으로 살 날을 뜻하는 기대여명은 40세의 경우 남성은 39.7년, 여성은 45.9년이다. 60세인 남녀는 평균적으로 각 22.0년, 27.0년을 더 살 수 있다. 기대여명은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보다 늘었다.<br/> 2013년생이 8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남자 55.2%, 여자 76.7%다. 2013년생들은 암(남자 28.1%, 여자 16.6%)에 걸려 숨질 확률이 가장 높았고, 뇌혈관질환(남 9.1%, 여 11.9%)이 뒤를 이었다. 다른 연령대도 암에 의한 사망 확률이 가장 높았다. 다만 80대 여자의 경우 심장질환(12.7%)이 사망 요인 1위였다.<br/> 만약 암이 제거된다면 2013년생 남녀의 기대수명은 각 4.7년, 2.8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현재 65세인 남성이 암에 걸리지 않으면 3.9년, 여성은 2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에 걸리지 않을 경우 1년 정도 기대수명이 더 길어지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br/>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95.txt

제목: 질투는 졸리도 담배를 피우게 한다?  
날짜: 20141130  
기자: 이상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30100000084  
본문: 누가 앤젤리나 졸리(39)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게 했을까?<br/> 최근 브래드 피트(50)와 결혼한 졸리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드러났다. 졸리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언브로큰(Unbroken) 홍보를 위해 호주를 방문했다가 11월 17일 시드니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남편 피트와 말다툼 끝에 담배를 피웠다. <br/><br/> 졸리는 지난해 암 예방을 위해 젖가슴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어머니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어머니를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잃었다고 밝혔었다. 졸리는 유방암 발병과 관련된 유전자(BRCA1)를 발견하자 유방암이란 가족력에서 자유로워지려고 유방 절제 수술을 선택했다. 그러나 유방암 전문가는 유방 절제 수술을 받더라도 유방암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다고 조언한다. 유방암 예방을 위해선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손꼽히는 흡연과 음주까지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br/> 그렇다면 왜 졸리는 담배를 피웠을까?<br/> 미국과 영국 언론은 조지 클루니(53)와 결혼한 인권변호사 아말 알라무딘(36)을 지목했다. 졸리 남편 피트와 알라무딘 남편 클루니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로 서로 절친하다. 그러나 졸리가 최근 영국 식당에서 알라무딘과 싸웠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클루니는 졸리와 알라무딘의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미국과 영국 언론은 “<span class='quot0'>화난 졸리가 남편 피트에게 클루니와 절교하라고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다</span>”고까지 보도했다. <br/> 소문이 사실이라면 졸리가 알라무딘을 질투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영화배우인 졸리와 변호사인 알라무딘은 국제연합(UN) 난민기구에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졸리는 UN 난민기구 특사로서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해왔고 알라무딘도 인권변호사로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제 정치계에서 졸리는 인권 문제에 앞장서는 여성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알라무딘이 클루니와 결혼하면서 경쟁자로 떠오른 셈이다.<br/><br/> 질투는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랑의 경쟁자로 등장한 제3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졸리는 그동안 인권 활동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었다. 활발한 인권 활동으로 대중에게서 사랑을 받아온 졸리에게 알라무딘은 클루니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대중의 관심을 뺏어가는 신데렐라 같은 존재일 뿐이다. 영화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졸리는 알라무딘의 존재를 달가워할 리가 없다.<br/><br/> 클루니는 9월 이탈리아에서 알라무딘과 결혼했다. 졸리는 클루니에게서 청첩장을 받았지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트는 영화 촬영으로 바빠서 결혼 축하 선물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혼식에도 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피트는 전 아내 제니퍼 애니스톤을 피하려고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고까지 말했으나 미국 연예 매체는 졸리가 알라무딘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피트까지 클루니 결혼식에 불참했다고 해석했다.<br/> 알라무딘은 레바논에서 태어나 전쟁을 피해 영국으로 피신했다. 옥스퍼드대 장학생이었던 알라무딘은 영어와 아랍어에 능통해 2004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했다. 중동에 분쟁이 많아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지는 사건이 많았고 알라무딘의 존재는 점점 부각됐다.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 줄리안 어샌지 변론을 맡아 유명해진 알라무딘은 세계적인 배우 클루니와 결혼하면서 인지도를 더욱 넓혔다. <br/> 클루니ㆍ알라무딘 부부는 전쟁 고아를 입양할 계획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인권 보호를 외쳐왔기에 예상됐던 결과다. 그러나 미국 연예계에서 클루니의 입양 계획 때문에 졸리와 알라무딘의 불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돈다. 졸리는 오래전부터 UN 친선대사로 활동하면서 캄보디아와 베트남, 에티오피아에서 입양했다. 할리우드 참새들은 졸리가 볼 때 자신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알라무딘의 행동이 더욱 미워 보일 거라고 지저귄다. <br/> 졸리와 알라무딘의 불화설은 이래저래 미국과 영국에서 큰 화제다. 질투가 졸리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게 했다는 소문은 사실일까?<br/> 이상준기자 jun@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96.txt

제목: 치료 못받고 조기사망 농어촌이 더 많다  
날짜: 20141128  
기자: 손현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28100000110  
본문: 의료기술·접근성 개선 불구 최근 3년 동안 불평등 더 심화<br/>"의료자원 공정한 배분 절실" <br/><br/> <br/> <br/> 국내 농어촌 지역 주민이 대도시에 비해 질병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이 높고, 그 격차가 최근 3년 사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KTX 등 교통수단이 증가하면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 이용 불평등은 여전해 의료자원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br/>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의 지역별 분포’보고서에 따르면 군(郡) 단위 지역의 대장암, 유방암 등 암 질환 사망자는 2011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23명으로 집계돼, 대도시의 16.88명, 시(市) 지역의 18.81명 보다 많았다.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은 시의적절한 치료가 이뤄졌을 경우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조기 사망을 뜻한다.<br/> 치료를 통해 줄일 수 있었던 암 사망자는 지역별로 강원이 10만명당 2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9.8명, 충북 19명, 전남 18.6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15.5명), 경기(14.4명), 대전(14.7명), 울산(12명) 등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br/> 결핵 등 감염병 사망자 수도 군 지역에선 2008년 14.85명에서 2011년 16.44명으로 1.59명 늘어났지만 대도시에선 같은 기간 7.83명에서 8.48명으로 0.65명 증가했고, 시 지역은 10.57명에서 9.59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도농간 격차가 3년 사이 더 벌어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12.5명) 경북(11.8명) 등의 순이었으며, 서울과 대전(각 6.6명) 경기(5.9명) 울산(4.5명)이 적었다.<br/> 고혈압 등 순환기계 질환 사망자 수도 군 지역이 64.96명으로 대도시(35.56명)와 시 지역(43.32명)보다 많았으며,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에서도 군(1.28명)이 대도시(0.85명)와 시(0.99명)를 웃돌았다.<br/> 각 질환별 1인당 의료비 지출도 군 지역이 대도시보다 적었다. 감염병 관련 지출액은 대도시가 12만5,613원, 군은 11만7,468원이었고, 암 관련 지출액은 대도시 4만7,027원, 군 4만1,514원이었다.<br/> 신정우 건강보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전문의들은 지방근무를 꺼리는 등 농어촌 지역에는 의료자원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서울의 대형병원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실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지방의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환자들이 집 옆에 있는 병원도 믿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 손현성기자 hsh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97.txt

제목: [새 책] '실크웜 1, 2' 外  
날짜: 20141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28100000047  
본문: 문학ㆍ예술<br/> <br/> ▦한복 입은 남자 <br/>이상훈 지음. 루벤스의 그림 ‘한복 입은 남자’의 모델이 조선시대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역사 미스터리 장편소설. 방송 PD 출신인 작가의 첫 소설이다. 박하ㆍ536쪽ㆍ1만5,000원 <br/>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 <br/>이해인 지음. 올해 수도원 입회 50주년을 맞은 이해인 수녀의 신작 산문 및 시집. 2008년 암 수술 이후 투병하며 생각한 것들을 100편의 산문과 100편의 시에 담았다. 마음산책ㆍ272쪽ㆍ1만2,500원<br/> ▦실크웜 1,2 <br/><br/>로버트 갤브레이스 지음. 김선형 옮김.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이 가명으로 발표한 두 번째 추리소설. 전작에 등장한 탐정 코모란 스트라이크가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린다. 문학수첩ㆍ1권 368쪽, 2권 352쪽ㆍ각 권 1만2,500원 <br/> ▦원 플러스 원 <br/>조조 모예스 지음. 오정아 옮김. ‘미 비포 유’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제스를 통해 우리 시대 가족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렸다. 살림ㆍ552쪽ㆍ1만2,000원<br/> ▦명화남녀 <br/>이혜정ㆍ한기일 지음. 미술 전문가와 영화 전문가가 들려주는 영화 속 미술 이야기. 샤갈, 렘브란트, 쇠라, 베이컨 등 어렵게 느껴지는 미술에 영화라는 다리를 놓아 준다. 생각정원ㆍ344쪽ㆍ1만8,000원<br/> ▦그때 그 디자인 <br/>박수호 지음. 포니, 호돌이, 뿌리깊은나무, OB맥주 등 한때 우리 곁을 지켰던 디자인에 대한 사적인 회고록. ‘월간디자인’ 편집장 출신의 저자가 20세기 한국 디자인 역사를 돌아봤다. 두성북스ㆍ240쪽ㆍ1만4,500원<br/><br/>교양ㆍ실용 <br/> <br/> ▦우리아이 괜찮아요 <br/><br/>서천석 지음. 육아에 지친 부모들에게 소아정신과 의사가 제시하는 명쾌한 해법. 1만여명의 부모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140개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내놨다. 위즈덤하우스ㆍ600쪽ㆍ1만9,800원 <br/> ▦중국, 당시의 나라 <br/>김준연 지음. 천년 전 지어졌으나 여전히 중국 문화 저변에 살아 숨쉬는 당시의 흔적을 좇는다. 당시에 매혹된 중문학자가 당나라 지도를 들고 10년 간 중국 전역을 누비며 당시들을 수집, 번역했다. 궁리ㆍ652쪽ㆍ2만8,000원 <br/>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br/>장하석 지음. 런던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저자가 20년간 강의한 ‘과학철학’을 책으로 묶었다.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과학의 세계에 끈질기게 철학적 의문을 제기한다. 지식채널ㆍ440쪽ㆍ2만5,000원<br/> ▦생명 밥상 <br/>서유구 지음. 조선시대의 소박하고 정갈한 채식 요리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 조선 후기 실학자 풍석 서유구의 저서 ‘임원경제지’의 식생활 편인 ‘정조지’에서 51가지 요리를 뽑아 현대식으로 재현했다. 씨앗을뿌리는사람ㆍ296쪽ㆍ1만8,000원<br/> ▦파토의 호모 사이언티피쿠스 <br/>원종우 지음. 영화 ‘인터스텔라’의 내용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과학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과학의 대중화에 힘쓰는 저자가 현대과학ㆍ인문학ㆍSF를 아우르며 쉬운 과학으로 한발 다가간다. 생각비행ㆍ242쪽ㆍ1만3,000원<br/> ▦24/7 잠의 종말 <br/>조너선 크레리 지음. 김성호 옮김. 불면 노동자에 이어 불면 소비자가 탄생하는 시대적 원인을 파헤친다. 잠을 추방하는 테크노자본주의 시대를 향한 날카로운 묵시록. 문학동네ㆍ216쪽ㆍ1만3,800원<br/><br/>어린이ㆍ청소년<br/> <br/> ▦똥만이 <br/><br/>박상규 장편동화. 술과 노름에 손찌검까지 하는 아빠와 집 나간 때밀이 엄마를 둔 똥만이의 슬프면서도 웃기는 이야기. 외롭고 초라하지만 따스한 여덟 살 인생. 웃는돌고래ㆍ263쪽ㆍ1만3,000원<br/> ▦정글북 사건의 재구성 <br/>정은숙 지음. 3년 전 죽은 아이의 편지가 도착하면서 시작하는 추리소설. 섬세한 심리 묘사와 치밀한 구성으로 묵직한 감동을 준다. 중학생 이상. 사계절ㆍ270쪽ㆍ1만원<br/> ▦밀레니얼 칠드런 <br/>장은선 지음.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소년 디스토피아 소설. 자본주의, 인간, 기술, 윤리 등에 관한 문제의식을 품고 있다. 중학생 이상. 비룡소ㆍ253쪽ㆍ1만원<br/> ▦여우와 두루미 엄혜숙 글ㆍ한병호 그림. 이솝 우화 그림책.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감각적인 색채의 재치 있는 그림 덕분에 보는 게 즐겁다. 유아. 파랑새ㆍ32쪽ㆍ1만2,000원 <br/>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br/>다비드 칼리 글ㆍ세르주 블로크 그림. ‘애들 싸움’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재치 있는 문장과 단순하고 감각적인 그림으로 커다란 판형에 담아낸 유쾌한 그림책. 문학동네ㆍ40쪽ㆍ1만2,000원<br/> ▦총명한 이씨 부인은 적고 또 적어 <br/>양연주 글ㆍ정주현 그림. 조선시대 가정주부를 위한 백과사전 규합총서를 쓴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씨 이야기. 초등 저학년. 머스트비ㆍ42쪽ㆍ1만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98.txt

제목: '업그레이드' 多價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법 눈길  
날짜: 20141126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26100000036  
본문: 인체에 바이러스 감염이나 종양과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겼을 때 이를 인식하고, T세포에 공격을 요청하는 나뭇가지 모양의 세포인 수지상세포가 이목을 모으고 있다.<br/> 아베 히로유키 아베종양내과 박사는 최근 ‘개별화 의료의 전략적 전개’를 주제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9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수지상세포를 한 단계 발전시킨 ‘다가(多價)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법’을 발표했다.<br/> 아베 박사의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간단히 요약하면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항원)을 찾아내고 추가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암 치료법과는 맞춤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br/> 아베 박사는 표준치료(수술, 항암제, 방사선치료)를 할 수 없는 전이, 재발암 환자에게 다가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적용했고, 치료는 2주에 1번씩 총 6회(1싸이클) 했으며 효과판정은 혈액검사와 영상진단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br/> 다가 신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암 치료 결과, 진행성 폐암환자 22중 15명(68.2%)에서 효과가 있었고, 진행성 대장암환자 32명중 19명(59.4%)에서 효과와 진행성 췌장암환자 42명중 18명(42.9%)에서 치료 효과를 얻었다.<br/> 치료는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 종양마커 종합검사 후 환자의 수지상세포에 평균 5개의 펩타이드를 추가 사용했다. 사용된 펩타이드는 써바이빈, MAGE-A3, NY-ESO-1, GV1001, WT1, MUC1, CEA, CA125 등이며 아베종양내과는 암세포 인지능력을 가진 다양한 항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br/> GV1001은 유럽에서는 이미 특정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펩타이드(항원)이며, 한국에서는 2014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식 허가한 췌장암 치료제다. 아베 박사는 췌장암 이외에서도 GV1001이 효과가 있어 일본의 임상시험계획(IND)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추가로 폐암과 위암, 췌장암, 유방암 등 암종별 환자 40명씩 총 16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주)선진바이오텍이 공동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다.<br/> 인체에서 암세포 살상을 담당하는 것은 킬러T세포다. 이 킬러T세포는 면역세포의 사령탑인 수지상세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수지상세포는 암세포의 표식인 항원을 기억해 킬러T세포에게 암세포의 정보를 전달, 암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이 암을 치료하게 된다. <br/> 이 같은 획득면역세포인 수지상세포와 그 역할을 발견한 랄프 슈타인만 박사는 201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 일본 아베종양내과의 아베 히로유키 박사는 슈타인만 박사가 주축이 된 연구회 소속으로 슈타인만 박사의 독자적인 지식을 전수 받아 기존의 단순한 수지상세포 치료법이 아닌 항암작용이 더욱 강력한 다가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법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br/> 그러나 인체에 존재하는 수지상세포는 1% 미만이고 정맥혈액에는 0.1% 미만이라, 소량 채혈해서는 수지상세포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임파구만 배양하여 치료하는 수준이어서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었다.<br/> 또 기존 치료는 성분채혈에 약 5,000㎖가 필요했고 2~3시간이 걸려 환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사용할 수 있는 펩타이드(항원)는 1~2 종류 정도였으며 단쇄(單鎖) 펩타이드라 치료효과도 부족했다. 또한 동결보관 후 해빙하여 치료에 사용하면 물리적 결합된 항원이 떨어지고 정맥주사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br/> 아베 박사는 정맥혈에 있는 8~11%의 단구를 분리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량인 약 25㎖ 채혈만으로 신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가 가능하다는데 착안했다. 아베 박사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와 항원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후 여러 종류의 개인 맞춤형 펩타이드가 추가로 사용되며, 사용된 펩타이드는 장쇄(長鎖)라 항암 작용기간이 길며 암세포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림프절에 피하주사로 한다.<br/> 아베종양내과는 2014년 7월 이 치료법으로 특허(특허 제5577472호)를 받기도 했다. 암세포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같은 사람의 같은 암세포라 해도 표면에 제시된 항원(암표시)가 틀리므로 그 다양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펩타이드와 일치되는 킬러T세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베 박사의 주장이다. <br/>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899.txt

제목: '신 병기' 표적항암제 개발, 국내 제약서도 성큼성큼  
날짜: 2014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2110016661085  
본문: 한미약품, 최대 연구개발비로 선도<br/>폐암 표적항암제 美학회서 주목<br/>포지오티닙 中에 200억 기술 수출<br/>흑색종 항암제도 내년 임상 시험 <br/><br/><br/> <br/> 공포의 대상인 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항암제다. 항암제는 하지만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까지 공격, 치료 도중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구토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약물에 내성이 생겨 치료를 포기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이 많다. 이는 전 세계 제약사들이 암세포와 정상세포 모두를 공격하는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와 달리 암 세포만을 골라 죽이는 표적항암제의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다. 인구 10만 명당 435.1명이 암에 걸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표적항암제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7만5,33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8.3%가 암으로 사망했다.<br/> 표적항암제 개발 국내서도‘탄력’<br/> 이처럼 암 치료의 신병기로 주목 받는 표적항암제 개발에 나서고 있는 국내 제약사는 어디일까. 제약업계는 표적항암제 개발에 돋보이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곳으로 한미약품을 지목한다. 이 회사가 국내 제약업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개발(R&D)비를 투자하고 있는만큼 표적항암제 신약개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한미약품은 올 3분기에만 연구개발비로 400억 원을 투자했다. 올 3분기 매출의 22%에 달하는 수치다.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 신약은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전 세계 경쟁 신약후보물질에 비해 종양크기 감소 효과와 부작용 발현율, 기존약물에 대한 내성 극복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br/><br/> ‘HM61713’ 세계서 인정, 포지오티닙 중국 기술수출<br/>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는 ‘HM61713’ ‘포지오티닙(Poziotinib)’ ‘HM95573’ 등 크게 3가지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항암제는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돌연변이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폐암 표적항암제인 HM61713이다. EGFR은 세포분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막 단백질로, 변이성 EGFR은 암을 유발하는데 ‘HER-1’로 알려져 있다. 이 표적항암제는 현재 서울대병원 등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미약품은 지난 6월 전 세계 임상의 및 연구자들이 한데 모인 미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표적항암제 최초로 임상 중간결과를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br/> 미 임상종양학회는 적응증 별로 유망한 임상개발 신약 후보물질을 선정, 구연발표 기회를 준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관련,“<span class='quot0'>HM61713은 ‘폐암치료 향후 10년’ 과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클로비스 등 글로벌 제약기업이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과 함께 구연발표 과제로 선정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발표에서 김동완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HM61713이 현재 EGFR 돌연변이 양성 폐암환자의 표준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1세대 EGFR 저해제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가능성을 보였다’고 말하자 호응이 컸다</span>”고 전했다.<br/> 또 다른 표적항암제인 포지오티닙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포지오티닙은 현재 보건복지부 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함께 국내에서 비소세포폐암을 비롯해 위암, 두경부암 등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데,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는 물론 HER-2, HER-3, HER-4 등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표적항암제로 개발되고 있다. HER-2, HER-3, HER-4 등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의 일종으로 세포분화 및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막 단백질이다. 한미약품은 “<span class='quot1'>포지오티닙은 최근 중국에서 항암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역량을 지닌 루예제약그룹에 200억원대 규모로 기술수출 됐다</span>”고 소개했다.<br/> <br/><br/><br/>흑색종 표적항암제도 글로벌 신약 가능성 높아<br/> 내년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흑색종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흑색종 표적항암제 ‘HM95573’도 글로벌 신약으로의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평가 받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번 임상을 통해 고형암 환자에서 HM95573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해 최대 내약용량 등을 결정하고 종양 반응률, 최대 종양크기 변화율, 질병 조절률 등을 관찰한다. HM95573은 세포증식 및 성장에 관여하는 변이성 B-RAF 뿐 아니라 변이성 RAS의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C-RAF를 선택적으로, 강하게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기존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큰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RAF 저해제 약물로 개발되고 있다. RAF는 세포의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세포질 단백질로 학계에서는 B-RAF 변이가 다양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RAF처럼 세포의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세포단백질인 RAS도 변이가 됐을 때 종양 형성과 유발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span class='quot1'>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에서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이 표적항암제가 개발되면 암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span>”이라고 했다.<br/> 서귀현 한미약품연구센터 부소장은 “<span class='quot2'>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는 글로벌 임상을 통해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세계적 신약으로 개발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 환자들의 수명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span>”이라고 했다.<br/>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00.txt

제목: 인생 전환점 40대, 재테크하듯 건강 설계하세요  
날짜: 20141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2110016661069  
본문: 가사ㆍ육아에 치인 전업주부들<br/>자신의 건강 돌보기엔 소홀<br/>3시간 투자해 1주일이면 결과 <br/><br/> <br/><br/>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1.2세라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7월 펴낸 ‘건강수명 산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70.7세로 10년 가까운 세월을 병마와 싸우느라 고통 속에서 보낸다고 전했다.<br/> 40세는 80평생의 절반이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어지는 변곡점이다. 하나 둘씩 건강이 고장 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때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남은 반평생을 건강하게 보내라고 만 40세부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권하고 있다.<br/> 지난 19일 아침.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에 이선경(45ㆍ여)씨가 들어섰다. 40대 중반 직장 여성이면서, 열 살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하다. 3년 전 우연찮은 기회로 건강검진을 해본 것을 빼면 직장과 남편, 아이에 밀려 자신의 건강 챙기기는 언제나 후순위였다.<br/> “어머니가 당뇨병을 앓았어요. 저도 몇 년 전에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내당능장애(당뇨병 전 단계)라나 뭐라나. 집에 찾아보면 검사결과가 어디 있을텐데….”<br/> 오전 10시. 건강검진에 앞서 등록절차와 함께 문진을 받던 이씨의 목소리가 자꾸만 기어들어갔다. 까맣게 잊고 살 때는 편안했지만 돌이켜보니 해도 너무했다 싶어 죄책감마저 든 모양이다. 몇 가지 질문이 오가고 본격적인 검진이 시작됐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몇 년 전 건강검진 때 봤던 차트가 없다. 어리둥절한 채 서 있자 지나던 간호사가 친절히 설명했다.<br/> “<span class='quot0'>지난해 RFID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건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스마트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검사 접수와 동선이 기록되고, 본인의 스마트폰으로도 안내가 된다</span>”고. 그러고 보니 마침 손에 쥔 스마트폰에서 다음 검사장소를 알리는 화면이 떴다. <br/> “일과 가사, 육아까지 모두 해내려면 말 그대로 슈퍼맘이 돼야 하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탓에 아침마다 피곤이 가시질 않네요.”<br/> 확실히 그랬다. 화장기 하나 없는 이씨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초췌해 보였다. 건강검진을 받는 순간에도 직장일, 집안일 등이 이씨를 억누르는 듯 했다. <br/> 이씨의 피곤 등 신체의 건강지표는 채혈한 피를 분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총콜레스테롤부터 간염, 간기능, 당뇨, 통풍, 콩팥, 전해질, 빈혈은 물론 갑상선과 대장암, 전립선암, 난소암까지 알아낸다.<br/> 여기에 앞서 진행했던 소변검사도 이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다. 소변의 산성도가 pH 4.6 이하라면, 고단백식이, 대사성 및 호흡성 산증, 기아상태 등을 의심할 수 있다. 또 요비중이 정상 범위를 넘어 높거나 포도당 수치가 높으면 이씨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당뇨병이 아닌지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br/> “해야지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게 운동이에요. ‘집안 일 자체가 운동’이라고 여기며 살다 보니 동네 주변을 산책하는 것조차 힘에 부칠 때가 많네요.”<br/> 이씨는 하루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낸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들여다 본다. 움직일 때는 손에 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퇴근 후 밀린 집안일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면 유일한 낙인 드라마를 보느라 불 꺼진 마루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br/> 숨이 가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다는 이씨는 폐 기능 검사에서 무척 힘든 표정이었다. 매일 혹사하다시피 한 탓인지 안과검사 때 큼지막하게 보이는 글자도 제대로 읽기 어렵다고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다.<br/><br/><br/> 결과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알 수 있는 이런 검사에서 이씨는 예상했던 대로 운동부족이 여실했다. 162㎝의 체구에도 몸무게를 2~3㎏을 줄여야 할 것이라는 의사의 권고였다. 갈수록 침침해지는 눈은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당장 스마트폰부터 손에서 내려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br/> “건강검진을 미뤄둔 진짜 이유는요? 아프다고 할까 봐요. 아이가 한창 때인데다 일도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병 자체보다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게 더 무서워요.”<br/> 유방촬영검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한국유방암학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 당 52.1명꼴로 일본ㆍ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중 최고다. 동아시아 평균인 27명의 2배 가까이다.<br/> 육류ㆍ지방 과잉 섭취가 원이라는 데 이씨 역시 그런 삶과 무관하지 않았다. 35세가 넘어서면 2년마다, 40세부터는 1년 간격으로 자가 검진과 유방촬영 같은 검사를 해야 한다는 데 지키지 못했다.<br/> 이어진 복부초음파검사와 여성검사도 이씨의 걱정을 부추겼다. 복부초음파는 간, 담낭, 담관, 비장, 췌장, 콩팥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다. 간낭종이 흔히 발견되는데, 이는 간 속에 있는 물 주머니로 질병은 아니다. 다음 번 검진에서 간낭종이 더 커지는 지만 보면 된다. 간이 하얗게 보이는 지방간은 비만이나 잦은 음주로 인해 간에 지방이 쌓인 것을 말한다. 금주와 운동, 식이조절이 필요한 상태다. 이 역시 마흔이 넘으면 매년 해야 하는데, 이씨는 챙기지 못했다.<br/> “수면 내시경 검사가 겁나고 떨려요.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무섭기도 하지만 그보단 마취가 덜 돼서 고통스럽지 않을까, 혹은 마취한 뒤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어른스럽지 못한 말인가요?”<br/> 물론 이씨의 이 같은 우려는 기우로 드러났다.<br/> 반면, 내시경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생각보다 더 크다.<br/> 내시경 검사는 위와 대장, 두 소화기관의 질병 유무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식도, 위, 십이지장을 직접 눈으로 관찰한다. 질병이 있을 때 조직검사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위염이 가장 흔한 비정상 소견이다.<br/> 하지만 위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치료할 필요는 없다. 대개 속쓰림, 통증 등 소화장애 증상이 없는 식생활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위ㆍ식도ㆍ십이지방 궤양은 염증이 심해 소화기의 표면 조직이 손실된 상태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위궤양이라면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로 추적 관찰해야 한다.<br/> 대장 내시경도 항문과 직장, 대장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질병이 있다면 조직검사를 하는 검사다. 폴립이라고 부르는 용종이 흔하다. 직장ㆍ대장 점막의 부풀어 올라온 것으로 나중에 암이 될 수 있으므로 내시경으로 잘라내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다. 이런 과정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1시간 정도면 끝난다.<br/> 수면내시경을 마친 이씨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을 투자해 40세 이후 마음 한 켠에 자리잡은 불안을 털어낸 것이다.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주일이면 모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br/> “미루고 미뤘던 이불 빨래를 한 기분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누리는 모든 행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닫게 됐어요.”<br/> 이씨처럼 건강챙기기에 소홀한 40대를 향해 김재준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장(소화기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중년에 접어든 40대에게 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span>”이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span class='quot1'>과거에는 의학적 관심이 질병의 치료에 있었지만 이제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삶의 질을 높이는데 건강검진이 커다란 역할을 할 것</span>”이라고 했다.<br/>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br/> <br/> <br/><br/>▶ 김재준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장이 말하는 건강검진 잘 받는 법<br/> <br/>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 대상자?<br/> “특정 연령층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됐을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대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검진 대상자는 30~60대가 대부분이다. 이는 이 연령층에서 질병이 가장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40세부터는 각종 질병이 발생하거나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br/> <br/> -얼마나 자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br/> “정확한 답은 없다. 질병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치로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예컨대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질병이 없고 건강하다고 판정 받은 사람이 암이 발견되기도 한다. 보편적인 답을 내놓으라면 30대는 3년에 한 번, 40대는 2년에 한 번, 50대 이후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br/> <br/> -건강검진을 효과적으로 받으려면?<br/>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검사를 받는 것은 피하라고 하고 싶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는 특정 부위를 보다 정확히 검사하는 건강검진 특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폐암이나 소화기 질환, 암 진단, 심혈관계 질환, 부인암, 유방암, 뇌졸중 등 검사항목을 고객에게 맞춘 고객 맞춤형 건강검진을 이용하라고 권하고 싶다.”<br/> <br/> -건강검진 시 주의할 점은?<br/> “주사바늘에 찔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건강검진 검사를 통증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내시경 검사는 소화기관 내로 관을 넣기 때문에 구역질이나 통증이 심할 수 있다. 검사 직전에 근육 이완제와 진정제를 투여한다. 위 투시는 조영제를 먹고 위를 X선 촬영하는 것인데, 검사할 때 방사선과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야 질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여성들은 가슴 X선, 유방 X선, 위 투시 등 방사선 검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임신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가임기 여성이라면 생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때가 가장 좋다. 생리 시작 직후에는 자궁 세포진 검사와 소변검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br/> <br/> -건강검진을 받으면 100% 건강하다고 할 수 있나?<br/>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우리 몸의 모든 병을 다 찾아낼 것이고 개개인이 가진 증상의 모든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검사는 수많은 의학적 검사의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검사한 부위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검사법 자체의 오류도 있을 수 있다.”<br/> <br/>권대익기자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01.txt

제목: 홈쇼핑 비슷한 T커머스 "장사 되니 옥죄네요"  
날짜: 20141121  
기자: 최연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21100000012  
본문: 화면 비슷해 시청자들 구분 잘 못해, 작년부터 매출 급증 대기업 진출 러시<br/>SK브로드밴드 내달 사업 개시, 신세계도 벼룩채널 인수 추진<br/>정부 "업무영역 불분명" 규제 강화, "TV홈쇼핑 보호 조치" 반발 <br/><br/><br/> 디지털TV 시대를 맞아 T-커머스가 부상하면서 대기업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T-커머스란 TV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로, 문자 이미지 등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의 보이지 않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br/> 2005년 국내 도입된 T-커머스는 프로그램 연동형과 독립형 두 가지였다. 프로그램 연동형은 드라마 속 배우가 입고 있는 의상이나 액세서리 등을 TV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소개하면 이를 보고 주문하는 방식이다. 독립형은 TV 홈쇼핑처럼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에 아예 별도 채널을 개설해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지금 국내에서는 독립형만 남아 있다.<br/>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 SK 신세계 태광 등 대기업들이 속속 T-커머스에 뛰어들거나 진출을 준비 중이다. 2005년 당시 정부가 T-커머스 사업을 승인한 업체는 총 10개로 KT 자회사인 KTH, SK브로드밴드, 태광 티브로드 계열의 아이디지털홈쇼핑, TV벼룩시장, 드림커머스 5개사와 CJ, GS, 현대, 롯데, NS 등 기존 TV홈쇼핑 5개사다.<br/> 이들은 당시만 해도 사업성이 보이지 않아 실제 사업을 한 곳은 KTH와 아이디지털홈쇼핑두 곳뿐이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KTH는 지난해 거래규모가 200억원을 넘었고 올해 600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아이디지털홈쇼핑도 거래규모가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1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T-커머스 시장 규모가 7조8,000억원대로 추산한다.<br/> T-커머스가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변신한 것은 기존 TV홈쇼핑과 쉽게 구분이 가지 않는 화면 덕분이다. T-커머스는 TV 화면 한 켠에 기존 TV홈쇼핑처럼 영상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고, 화면 일부는 자막 등으로 제품 설명, 구입 방법 등을 알려준다. 주문은 TV리모컨, 스마트폰 앱,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언뜻 보면 기존 TV홈쇼핑 채널과 구분이 가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TV 채널을 돌리다가 상품 판매 화면이 나오면 모두 TV홈쇼핑으로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br/> T-커머스가 성장하자 다른 기업들도 속속 뛰어들고 있다. 우선 SK브로드밴드는 다음달 중순에 T-커머스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상품 공급과 주문은 관계사인 SK플래닛의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와 제휴를 맺고 추진한다.<br/> 다만 기존 방송사업자의 경우 자체 방송에서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어서 IPTV업체인 SK브로드밴드는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인 태광 티브로드를 통해 T-커머스 방송을 내보낸다. 대신 SK브로드밴드는 KTH와 태광 아이디지털홈쇼핑의 T-커머스 방송을 내보낸다.<br/> 신세계도 T-커머스 사업권을 갖고 있는 TV벼룩채널을 인수해 T-커머스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당초 신세계는 드림커머스를 통해 T-커머스 사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드림커머스는 올해 말 사업 개시를 목표로 독자 준비 중이다.<br/> 하지만 T-커머스는 넘어야 할 벽이 있다. 바로 정부 규제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T-커머스의 실시간 방송 금지를 검토 중이다. TV홈쇼핑처럼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말고 상품 별로 주문형 비디오(VOD) 형태의 동영상을 화면에 띄워 놓고 시청자가 선택해 재생하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T-커머스가 기존 TV홈쇼핑과 구별이 되지 않아 업무 영역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때문이다.<br/> 게다가 화면 크기까지 규제하려 한다. 동영상이 전체 화면의 49% 이상 넘지 말라는 것. 이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임의 규제 형태로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존 승인제를 등록제로 바꿔 T-커머스 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br/> T-커머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T-커머스 업체들은 이를 TV홈쇼핑 업체들의 견제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T-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실시간 편성 금지, 화면 크기 제한 등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권익 침해이기도 하다</span>”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span class='quot2'>등록제로 바꾸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이 심해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결국 이 모든 규제들이 TV홈쇼핑 업체들만 보호하려는 조치</span>”라고 덧붙였다. <br/>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02.txt

제목: 파주 장단콩 축제, 임진각서 오늘 개막  
날짜: 20141120  
기자: 유명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20100000053  
본문: 콩을 주제로 한 ‘제18회 파주 장단콩 축제’가 21∼23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광장에서 열린다.<br/>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축제에서는 ‘웰빙명품! 파주장단콩 세상!’을 주제로 된장학교가 운영되며 유명가수 초청 공연이 펼쳐진다. <br/> 전통장 담그기와 꼬마메주 만들기, 콩떡 나누기, 어린이 맷돌 체험, 장단콩 힘자랑 대회, 전통 민속놀이 체험, 가마솥 순두부 체험 등 온 가족이 즐길 거리도 많다.<br/> 이 지역 특산인 장단콩(70kg) 9,000여 가마도 전년보다 20~30% 싸게 선보인다. 품종별 가격은 ▦백태 3만5,000원(이하 7kg) ▦쥐눈이콩 5만원 ▦밤콩ㆍ청태ㆍ선비콩ㆍ올서리태 5만5,000원 ▦늦서리태 7만5,000원 등이다.<br/> 또 된장, 청국장, 간장 등 장단콩으로 만든 식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br/> 장단콩은 19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품종인 ‘장단백목’으로 명성이 높았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장단지역에서 재배된 콩은 맛과 영양이 뛰어나고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과 단백질이 풍부하다. 파주시는 1997년부터 매년 수확시기에 맞춰 축제를 열고 있다. <br/> 유명식기자 gija@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03.txt

제목: 원전 인근 집단이주 요구 봇물  
날짜: 20141120  
기자: 이정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20100000019  
본문: 경북 동해안 원전 인근 주민들의 집단이주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br/>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리 40여 가구 주민 80여 명은 정부와 한울원전이 4년째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며 조만간 실력행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br/> 2010년부터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해 온 주민들은 “마을을 지나는 초고압송전철탑 15기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 암 발병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 및 한수원과 조정에 나선 국민대통합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원전건설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br/> 주민들은 “한울원전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거주하는 80여 명 중 갑상선암 7명 등 17명이 각종 암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br/>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도 8월 말부터 석 달째 한수원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계속하고 있다.<br/> 원전 인근 70여 가구 주민들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시도와 일본 원전사고 여파 등으로 원전 인접지역 땅값이 떨어지고 떠나려 해도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정부는 원전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하지만 원전 측은 “이주대책을 세워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br/> <br/>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04.txt

제목: 우주비행사, 남녀간 ‘우주병’도 다르다  
날짜: 20141120  
기자: 신지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20100000108  
본문: 최근 ‘그래비티’와 ‘인터스텔라’ 등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잇따라 흥행하고 로제타호 탐사로봇이 혜성에 안착하며 우주탐사에 대한 전세계의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베일에 싸인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br/>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와 관련, 우주비행사 각각에 맞는 ‘개인화’된 의약품과 장비를 만들어 이들이 우주에서 오래 비행할 수 있도록 건강을 증진하는 게 핵심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냈다고 ABC가 19일 보도했다. NASA는 개인화 분석의 첫 단계로 우선 ‘성별’을 선택해 우주의 무중력 상태가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했다. NASA는 국립우주생물의학연구소(NSBRI)와 함께 2013년 6월 현재 우주정거장 체류경험이 있는 우주비행사 534명(남성 477명, 여성 5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br/><br/><br/><br/> 그 결과 우선 남성은 여성보다 시력 장애를 겪는 경우가 더 많았다. 조사대상인 남성 우주비행사 17명 중 14명(82%)이 시력 이상을 호소했다. 여성은 8명 중 5명(62%)만 이러한 증상을 겪은데다, 그 강도도 남성보다 훨씬 약했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0'>두개골을 채우고 있는 뇌척수액의 압력이 높아져 시각에 영향을 미친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시력 장애는 우주비행 시 겪는 건강 악화 증세 중 가장 위험한 것</span>”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연령에 따른 청각 손실이 크고, 민첩성 시험 결과 정확성보다 속도에 대한 반응에 더 민감했다.<br/> 반대로 여성은 남성보다 현기증 탓에 오래 서있기 힘든 증상, 즉 기립성조절장애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주 내 도착지 표면에 설 때나 지구에 돌아와 땅에 설 때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이는 남녀의 심혈관 체계가 외부 환경이 주는 자극에 다르게 반응해, 혈액순환 차가 크게 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방사선은 우주탐사 시 가장 위험한 요소인데, 여성은 남성보다 방사선이 유발하는 암에 걸리기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또 요로감염 취약성이 높고, 민첩성 시험 결과 속도보다 정확성에 대한 반응에 더 민감했다.<br/>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멀미 등과 같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에도 차이는 있다. 여성은 지구에서 이륙할 때나 우주정거장에 진입할 때 멀미를 심하게 하지만, 남성은 지구로 돌아올 때 어지럼증을 크게 느낀다. <br/> NASA의 탐사 및 운행 위원회 비서실장인 베트 시글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1'>장기간 우주비행을 하려면 우주비행사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게 우선</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이를 위해선 우주에서의 성별 신체 반응 차이를 인지하고 그를 바탕으로 남녀 각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span>”라고 말했다.<br/> 신지후기자 hoo@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05.txt

제목: “폐암 검진에 저선량 CT 활용이 효과적”  
날짜: 2014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2010016661057  
본문: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권고안<br/>30년 흡연 55~74세 고위험군 대상 <br/><br/><br/> <br/> 폐암 검진을 할 때에는 과진단과 피폭량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선량 CT(Low-dose CT)’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반면, 흉부방사선 촬영과 혈청 종양표지자 검사, 객담 세포진 검사는 권고되지 않았다.<br/>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권고안 제정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암검진 권고안(초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은 “저선량 CT 효과를 위해서는 16채널 이상의 다중검출기를 보유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돼야 하며 판독 의사는 최소 3년 간 300건 이상의 CT를 판독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br/> 권고안은 “30년 이상 흡연한 55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매년 저선량 CT를 이용한 선별검사가 폐암사망률과 전체사망률을 줄인다는 수준 높은 근거가 있지만, 다른 방법은 사망률을 낮춘다는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br/> 특히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 검진을 할 때 양성으로 판정될 비석회화 결절 발견율이 20~53%로 높아 2차 진단에 대한 부담이 있고, 합병증 및 피폭에 의한 암 유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검진의 손해보다 이득이 높아 권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br/> 권고안은 이에 따라 “30년 이상의 흡연 경력을 가진 55~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다만 금연한 뒤 15년이 경과한 과거 흡연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반면, 흉부 X선, 객담 세포진 검사와 지금까지 개발된 혈청 종양 표지자를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는 권고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br/> 국립암센터는 관련 학회 추천을 받아 폐암검진 권고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문헌고찰에 기반한 폐암 검진 권고안 개발 연구를 진행해 왔다.<br/> 이번 폐암 검진 보고서(초안)는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닌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용 권고안으로 3주 간 관련 전문가들이 검토 후 수정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정보완에 대한 의견은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로 제시하면 된다. 국립암센터는 폐암 권고안 초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br/> 성숙환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각 분야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권고안 보고서를 수정 보완한 후 최종 보고서를 올해 안에 발표할 것</span>”이라고 했다.<br/>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06.txt

제목: "진도 청정 바다 명성 되찾으려면 세월호 선박 부산물 모두 건져야"  
날짜: 20141120  
기자: 박경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20100000161  
본문: 진도 범군민대책위, 인양 촉구… 특별법에 진도 보상 명시도 요구 <br/> <br/> “<span class='quot0'>진도 청정 바다에서 하루라도 빨리 암 덩어리(세월호 선체)를 건져내야 합니다.</span>” <br/> 세월호 선체인양을 놓고 공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진도군민 대부분은 선체 인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br/> 20일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에 따르면 24일 진도군청에서 진도군과 진도군의회,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세월호 인양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진도 보상을 명시할 것과 정부의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범군민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br/> 진도군 범군민대책위 임준모(71)상임대표는“<span class='quot1'>범정부대책본부 해체 이후에 인양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라 진도어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span>”면서“<span class='quot1'>논의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인양이 빨리 되지 않으면 군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span>”이라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또“<span class='quot1'>세월호 선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동차 등도 함께 인양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인양을 기회로 주변 바닥의 모든 여객선 분산물을 건져 내 다시 예전 청정바다의 명성을 되찾아야 어민들의 살 길이 열린다</span>”고 강조했다.<br/> 세월호가 침몰해있는 맹골수역은 진도어민의 소중한 수입원이다. 인근 서거차도, 동거차도 등의 400여명의 어민들이 미역, 톳 등으로 한 해 100억원의 수입을 거두던 곳이다. 또 해초가 풍부해 멸치잡이로 유명하고 우럭과 장어 등 어류 등도 많이 몰려드는 진도의 대표적인 어장이다. <br/> 동거차도 조이배(73) 이장은“<span class='quot2'>인양하는 과정에서 기름유출과 분산물 등이 우려되지만 미래를 위해 인양은 무조건 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군인과 해경까지 모두 철수해버리고 부의만 둥실 떠있는 걸 보니 마음이 불안하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2'>미역과 톳 주산지인 이곳에서 어민들이 사고 이후 단 하루도 작업을 못하고 바다만 쳐다보고 있어 생계가 막막하다</span>”고 하소연했다.<br/> 맹골도 인근에서 꽃게잡이를 하는 김영서(59) 선장은“인양 도중엔 어선 운항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면서 “꽃게와 다른 생선들도 진도산이라고 하면 꽤 알아줬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빨리 인양이 끝나 이 바다와 진도가 세월호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br/> 또 인양을 통해 진도에 세월호 선체를 전시하고, 그 인근에 안전교육장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또 장기간 진행되고 1,0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인양작업이 진도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진도읍에 사는 박민지(39ㆍ여)씨는“그 동안 피해만 봤던 주민들이 세월호 인양 등을 통해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인양과정이나 인양 이후 세월호 안전공원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도를 방문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줘 이제는 슬픔 보다는 활기가 넘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br/> 진도=박경우기자 gwpar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07.txt

제목: 한국인 유전형 예측 기준자료 개발  
날짜: 20141120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20100000042  
본문: 한국인의 유전형 예측하는 기준자료가 개발됐다.<br/> 배상철 한양대류마티스병원 교수팀은 최근 한국인의 조직적합성항원(HLAㆍhuman leucocyte antigen) 유전형과 아미노산 서열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한국인 HLA 기준자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br/>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최근 게재됐다.<br/> 이번 연구를 통해 단일염기다형성을 예측하는 기술을 응용해 HLA 기준자료를 통해 6종의 HLA 유전자(A, B, C, DRB1, DQB1, DPB1)에 존재하는 230개의 유전형과 아미노산을 예측할 수 있음을 규명했다.<br/> HLA는 유전형에 따라 골수ㆍ장기를 이식할 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 류마티스관절염이나 루푸스 등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에이즈 등과 같은 면역결핍질환, 전염병 발병과 예후에 가장 강력한 유전적 영향력을 가진다. 최근 암이나 정신질환 같은 비(非)면역질환에서도 관련돼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br/> 하지만 HLA 유전형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매우 복잡한 유전형 구조와 고비용의 분석 비용이 필요해 대단위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br/> 배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HLA 기준자료는 한국인의 HLA 유전체 연구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 질병 원인인 HLA 유전형 발굴을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HLA 유전형 기준자료는 고해상도 분석을 통해 아미노산 수준의 원인 유전형을 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재료로 사용될 것</span>”이라고 했다.<br/>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08.txt

제목: [건강 단신] 시지바이오, 항균ㆍ지혈되는 유착방지제 ‘메디클로’ 출시 外  
날짜: 20141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7100000030  
본문: 시지바이오, 항균ㆍ지혈되는 유착방지제 ‘메디클로’ 출시<br/><br/><br/><br/> 시지바이오(대표 정난영)는 항균, 지혈, 부착성이 뛰어나고 생체 온도감응형의 4세대 유착방지재 ‘메디클로’(사진)를 출시했다. 메디클로는 생체 온도감응형 졸-겔형으로 만들어졌다. 상온에서는 졸 타입으로 주입이 용이하고, 인체에 닿게 되면 점성을 가지게 되는 겔 타입으로 전이돼 흘러내리지 않아 유착방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항균과 지혈 성분을 가지고 있어 수술 후 염증 예방과 유착을 최소화하며, 생체적합성이 높은 수용성 고분자로 구성돼 유착기간이 지난 후에는 콩팥, 담즙을 통해 흡수되거나 대소변을 통해 100% 배출돼 안전하다. 기존 유착방지재는 필름과 같은 물리적 제재로 장기 표면에 잘 부착되지 않고, 조직 자체에서 이물반응으로 서로 뭉쳐지기 쉬워 장기 유착 방지 효과가 미흡했다. 김기택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효과 입증된 유착방지재로 유착이라는 합병증으로부터 임상의의 고민이 해소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했다. <br/> <br/> 김기택 교수,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피선<br/><br/><br/><br/> 김기택(사진)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열린 제58차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59차 정기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5년 11월부터 1년간. 김 교수는 현재 대한척추외과학회장도 맡고 있다.<br/> <br/> 녹십자, 종합영양제 ‘큐엔타민골드정’ 내놔<br/><br/><br/> 녹십자는 종합영양제 ‘큐엔타민골드연질캡슐’의 제형을 개선한 제품인 ‘큐엔타민골드정’(사진)을 출시했다. 기존 연질캡슐보다 크기가 작고 습기에도 강해 복약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큐엔타민골드정은 코엔자임 Q10과 함께 12종의 비타민과 9종의 미네랄, 우루소데옥시콜산(UDCA)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함유돼 있다. <br/> <br/> 삼성서울병원, GIST클리닉 개설<br/>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위장관기질종양, 기스트(GIST) 전문 클리닉을 개설했다. 기스트는 위암이나 대장암과 달리 위장관벽에 위치한 카할세포(Cajal)란 곳에 생기는 병으로, 육종에 해당된다. 인구 100만 명당 10~20명에게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다른 암종에 비해 흔하지는 않지만, 암이 자라는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 (02)3410-3871<br/> <br/> 이른둥이 가정 60%가 부채 경험<br/> 대한신생아학회(회장 남궁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신생아과 교수)는 이른둥이 가정 가운데 60.2% 정도가 자녀 의료비 부담으로 부채를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가정은 부족한 의료비를 충당하려고 가족ㆍ지인에게 빚을 지거나(37%), 적금 해지(34%), 금융대출(13%), 재산처분(10%) 등을 했다. 특히 1,500g미만 극소체중아 가정의 58.1%가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09.txt

제목: 그 웃음 어제도 본 듯한데...  
날짜: 20141116  
기자: 강은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6100000117  
본문: TV·스크린 넘나든 40년 미소천사...최근까지 예능·드라마서 맹활약<br/>대장암 합병증 병세 급속히 악화<br/><br/><br/> 변함없는 미소로 TV와 스크린을 오가며 ‘소녀’ 이미지로 사랑 받은 배우 김자옥이 대장암에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7시 40분 별세했다. 향년 63세.<br/> 고인은 50여 편의 TV드라마와 2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앨범까지 낸 가수이자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따뜻한 웃음을 선사하며 전천후로 활약한 대표적인 중견 배우였다. 특히 올해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와 SBS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악극 ‘봄날은 간다’로 맹활약을 보였기에 연예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br/><br/> 시인 김상화씨의 딸이기도 한 고인은 2남 5녀 중 3녀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예술적 재능을 보였다. CBS 기독교방송의 어린이 전속 성우로 활동하는가 하면, 배화여중 재학 중에는 TBC 드라마 ‘우리집 5남매’에 출연했다. <br/> 1970년 MBC 공채 2기 탤런트로 정식 데뷔해 연기와 성우 생활을 병행하던 그는 MBC라디오 ‘사랑의 계절’(1970)로 한국방송대상 성우상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수선화(1974)’로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이후 영화 ‘보통여자’, ‘영아의 고백’, ‘상처’ 등을 통해 여러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했고, TV드라마 ‘배반의 장미’, ‘모래 위의 욕망’, ‘유혹’ 등에서 활약했다.<br/> 고인은 인기 절정이던 1980년 가수 최백호와 결혼하면서 돌연 연예계를 떠났다. 2년 뒤 KBS드라마 ‘사랑의 조건’으로 복귀했지만 그 이듬해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한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룹 금과은의 가수 오승근과 재혼해 지금까지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꼽혔다. <br/><br/> 그러다 1996년 가수로 데뷔해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발매한 ‘공주는 외로워’ 앨범이 60만장이 팔렸고, 당시 화려한 공주풍 드레스를 입고 왕관까지 쓴 그의 패션은 ‘공주 열풍’을 몰고 오기도 했다. 이러한 이미지 변신은 MBC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 ‘지붕 뚫고 하이킥’ 등으로 이어져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었다.<br/> 2008년 건강 검진 도중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아 한 달 여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등 건강을 회복한 듯 보였다. 이후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지붕 뚫고 하이킥’, ‘오작교 형제들’, ‘맛있는 인생’, ‘세 번 결혼하는 여자’ 등에 연이어 출연했다. 드라마 외에도 ‘꽃보다 누나’와 악극 ‘봄날은 간다’ 등으로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끝내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지난해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출연해 “암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병이고 절망적일 필요는 없다”고 암 투병을 담담하게 말한 적이 있다.<br/> 최근 악극에서 남편으로 연기 호흡을 맞춘 배우 최주봉은 “<span class='quot0'>악극을 하는 한 달 내내 잘 웃고 연습도 열심히 해서 아픈 기색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선후배 배우들을 다독이며 연기하던 사람인데 너무도 안타깝다</span>”고 말했다. <br/><br/> KBS 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 ‘그들이 사는 세상’을 통해 인연을 맺은 정해룡 CP는 “<span class='quot1'>고인은 1970~80년대 멜로 드라마에서 청순한 매력으로 사랑 받은 톱스타</span>”라며 “<span class='quot1'>최근 드라마 속에서 보인 맘 좋은 어머니처럼 촬영장에서도 늘 웃으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던 배우</span>”라고 회상했다. <br/> 한편 고인의 소속사는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해왔으나 14일 병세가 급속히 나빠져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br/> 유족으로는 남편 오승근씨와 1남 1녀 자녀가 있으며 SBS 김태욱 아나운서가 막내동생이다. 빈소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14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9일, 장지는 분당 메모리얼 파크. <br/><br/>강은영기자 kis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10.txt

제목: '영원한 소녀' 배우 김자옥, 암으로 별세  
날짜: 2014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6100000001  
본문: ※편집자 주: 배우 김자옥 씨의 사인을 폐암에서 대장암으로 수정합니다. 애초 소속사에서 "폐암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밝혔으나 가톨릭대 성모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장암이 맞다고 합니다. 대장암이 재발해 폐에 전이하고 이에 따른 합병증이 직접 사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이 경우 사망 원인은 대장암이 맞습니다.<br/><br/> 대장암과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투병해 온 배우 김자옥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63세.<br/> 1996년 가수로 데뷔해 발표한 앨범 ‘공주는 외로워’ 덕에 이후 코믹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으나 어릴 때부터 아역 배우로 활약했고, 70년대 전성기에는 비련의 여인 역할을 주로 맡았던 ‘눈물의 여왕’이었다.<br/> 1951년 시인 김상화의 2남5녀 중 3녀로 출생했다. 서울교대 부속국민학교 재학 때부터 어린이 성우를 했고, 배화여중 재학 중 TBC 동양방송 드라마 ‘우리집 5남매’로 데뷔했다.<br/> 1970년 MBC 문화방송 2기 공채탤런트로 합격했고 71년 서울중앙방송(지금의 KBS) 드라마 ‘심청전’ 주인공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다.<br/> 70년대 후반 영화 ‘보통여자’ ‘O양의 아파트’ ‘영아의 고백’ ‘지붕 위의 남자’ ‘상처’ 등 출연하는 영화마다 흥행에 성공했다.<br/> 1980년 가수 최백호와 결혼했으나 성격 차이로 2년 만에 이혼했고, 1년 후 오승근과 재혼, 1남1녀를 뒀다.<br/> 1996년 MBC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면 좋은 날’에서 조혜련과 출연해 공주병에 걸린 여고생 역할로 열연하면서 코믹한 이미지로 변신했다. 같은 해 태진아의 권유로 가수에 전격 데뷔, ‘공주는 외로워’라는 앨범을 냈으며 60만장이 팔리는 히트를 기록했다.<br/> 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폐로 전이됐고 최근 암이 재발하여 투병생활을 해 왔다. 지난해 11월~올해 1월까지 방영된 tvN의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 출연해 방송활동을 재기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병이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br/> 빈소는 서울강남성모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9일이다.<br/> <br/> 디지털뉴스부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11.txt

제목: 배우 김자옥, 폐암합병증 사망 향년 63세 연예계 ‘애통’  
날짜: 20141116  
기자: 이현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6100000075  
본문: 배우 김자옥, 폐암합병증 사망 향년 63세 연예계 ‘애통’<br/> <br/> 배우 김자옥이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16일 오전 숨을 거뒀다. 향년 63세.<br/> 소속사 소울재커는 이날 오후 “김자옥이 16일 오전 7시 40분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김자옥은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나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14일 오후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서울 강남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 가족들의 참관 속에 결국 사망했다. <br/> 소속사 측은 “지난 40여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 김자옥의 갑작스런 별세에 연예계는 물론 대중문화계가 충격을 받았다. 김자옥이 올해 1월 tvN 꽃보다 누나와 5월 연극 봄날은 간다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준 터라 사망으로 인한 충격의 강도는 더욱 컸다.<br/> 김자옥은 1951년 태어나 1970년 MBC 공채탤런트 2기로 데뷔했다.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왕성한 연기 활동을 펼쳤고, 성우와 가수로도 활약했다. 특히 1996년 발표한 공주는 외로워 음반으로 코믹한 이미지까지 확보하며 두터운 팬층을 가졌다.<br/> 김자옥은 한 번의 결혼 실패 후 가수 오승근 재혼해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살아왔다. 슬하에 1남1녀가 있다. <br/> 김자옥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14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9일 오전 8시 30분, 화장 후 분당 메모리얼파크에 안치된다.<br/> 이현아기자 lalala@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12.txt

제목: "연기나 잘하라고요? 요즘엔 '멀티'가 통하는 시대"  
날짜: 20141116  
기자: 고경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6100000043  
본문: 인터넷 ‘얼짱’ 스타, 10년 경력의 연기자, 세 편째 장편영화를 연출한 감독, 가수 겸 작곡가, 소설가 겸 화가. 이 모든 건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잘 알려진 배우 구혜선(30)에 대한 설명이다. 그가 세 번째 연출작 ‘다우더’를 내놓았다. 비뚤어진 모성애로 인해 뒤틀린 모녀 관계를 묘사하는 영화로 10월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였다. 딸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엄마 역으로는 심혜진이, 엄마의 억압을 피해 도망친 딸 산 역은 구혜선이 직접 연기했다.<br/> 6일 개봉한 이 영화는 15일까지 3,200여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다. 하지만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인터뷰 내내 껄껄거리며 시원스럽게 웃었다. 첫 연출작 ‘요술’(2010)이 6,000명, 두 번째 영화 ‘복숭아나무’(2012)가 3만 4,000명에 그쳐서인지 “흥행에 대해선 마음을 놓았다”고 했다.<br/> “서른을 넘은 시점에 결혼을 해야 하나, 한다면 아이를 낳아야 하나 고민에 빠지면서 부모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학생 때 친구들에게서 들은 가정폭력 경험담이나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 얘기도 참고가 됐지만 그보다 ‘칠곡계모사건’ 같은 뉴스를 접하며 느낀 분노가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br/><br/> 제목은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딸(daughter)을 뜻한다. “<span class='quot0'>영화 속 엄마라면 이 단어를 그렇게 읽고 딸에게도 같은 식으로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을까</span>” 하는 생각으로 지었단다. 기성 세대에 대한 저항이 담겼다. 영화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았는지 물었지만 그는 “<span class='quot0'>지금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모녀관계엔 전혀 문제가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혹시 오해할까 봐 엄마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span>”며 웃었다. 어릴 때부터 남자 친구들을 “패고 다녔”을 정도로 선머슴 같은 말괄량이였던 터라 “엄마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br/> 영화에서 엄마와 연락을 끊고 지내던 산은 암 투병 중인 엄마와 다시 만나 심경의 변화를 겪는다. 이 영화는 물론, 훨씬 밝은 영화들이었던 전작에서도 이야기의 끝엔 늘 죽음이 있다. 구혜선은 “<span class='quot1'>살면서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죽음을 알아야 사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span>”고 했다.<br/><br/>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사는 방식도 바뀌었다.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옷과 장신구를 버렸고 신발도 세 켤레만 남겨뒀다.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면 사놓고 처음 보는 물건을 자주 발견하게 돼서 “<span class='quot2'>쓰지 않는 기간이 긴 것부터 버리기 시작했다</span>”고 한다. ‘내가 갑자기 죽으면 내 방과 짐을 누가 치울까’ 하는 생각에 버린 것도 있고, 함께 사는 개와 고양이 10마리 때문에 버린 것도 있다. 수많은 옷들을 관리할 만큼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다. 연예인으로서 필요한 옷은 대개 협찬을 받아 입은 뒤 돌려준단다. 3평 크기의 방에 있는 거라곤 책상 하나, 피아노 한 대뿐. 침대가 없어서 텐트를 치고 잔다. 3년 전 차를 판 뒤론 버스를 타고 집이 있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한다.<br/> “다른 배우들이 저더러 ‘또라이’라고 해요. 실천적인 또라이. 가장 큰 사치 중 하나가 검소의 사치라고 하잖아요. 검소해지겠다는 생각이 가장 사치스런 생각으로 변질돼서 집에 올 때마다 버릴 게 뭐가 있나 보곤 하죠.”<br/> 영화든 소설이든 음악이든 자신의 작품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싶은 욕심도 버린 걸까. 구혜선은 “<span class='quot1'>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걸 안다</span>”며 “<span class='quot1'>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대중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span>”고 했다. “자유롭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구속이 되기도 하고 자유를 표현하면 할수록 굴레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확 터질 수도 있고 거지 같이 살 수도 있겠죠. 오늘 그만두더라도 아쉬운 것 없이 비굴하지 않고 자유롭고 싶습니다.”<br/> 단편 ‘유쾌한 도우미’(2008)부터 영화 연출 경력만 벌써 6년, 자신감이 생겼는지 묻자 그는 다시 껄껄 웃었다. “자신감은 첫 영화에서 가장 충만했던 것 같아요. 선배 감독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첫 영화를 찍기 시작할 때 자신의 천재성을 느끼고 끝날 때쯤 ‘난 병신이구나’ 한다고요. 첫 영화에서 둘 다 느꼈는지 제게 물으셔서 그렇다고 말씀 드렸죠. 자신감은 그때가 끝인 것 같아요. ‘요술’ 때는 혹평에 충격을 받기도 했죠. 욕을 듣는 것에 적응하다 보니 점점 높은 수준의 욕을 기대하게 되더군요. 내가 나 자신을 까는 거죠. 그런 경지에 오르면 아무도 두렵지 않게 돼요. 이젠 제게 도움이 되는 혹평과 악의적인 얘기를 구분할 줄 알게 됐습니다.”<br/> 구혜선은 팔방미인이라는 칭찬도 듣지만 ‘연기나 잘해라’는 비아냥도 듣는다. 후자에 대해 그는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웃음을 싹 거뒀다. “전화만 하려면 스마트폰은 왜 쓰나요. 고등학교에선 왜 12개 과목을 가르치나요. 모두 다 ‘멀티’를 하는 시대에 왜 과거 세대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일은 뿌리가 같아요. 예술이라 한다면 영화도 예술이고 연기도 예술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누군가의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뭐라 할 순 없는 거죠.”<br/> 구혜선과의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진진했다. 청춘 스타로 시작해 한 번쯤은 톱스타의 화려한 삶을 꿈꿨을 텐데 왜 ‘또라이’의 삶을 선택했을까. “더 화려하게 살려면 그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삶을 살지는 제가 정하는 겁니다. 어릴 땐 유명해지고 톱스타가 되고픈 야망이 있었죠. 그러다 누굴 위해서 그래야 하는 걸까 생각하게 됐어요. 작품이 잘 되면 주위에서 축하해주고 대중이 환호해주죠.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겁니다. 결국 남는 건 외로움과 허무함뿐이에요. 저는 언제 그만둬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만두는 것도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br/><br/>☞ 영화 '다우더' 예고편<br/>http://youtu.be/dPazGBvBoeo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13.txt

제목: [단독] 국고보조율 깎고 또 깎고 복지부담 지자체에 덤터기  
날짜: 20141115  
기자: 손현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5100000007  
본문: 암 환자 지원·노인 일자리 창출 등 공동책임·중앙정부 사업 떠넘겨 <br/> <br/> 복지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살림이 갈수록 빠듯해지며 재정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전년보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 재정에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지난해 23.4%로 2008년(14.6%)보다 5년 사이 8.8%포인트나 급증했다. 복지는 확대된 반면 지자체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울 정도로 국고보조율이 낮기 때문이다.<br/> 올해 ‘암환자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공동책임사업으로 분류돼 지자체가 거부할 길이 없지만 국비 부담이 각각 46.9%, 44.2%로 지자체보다 적다. 상위 5대 지방비 지출에 포함된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국고보조율이 각각 65.7%, 64.2%에 그친다. 공동책임사업 평균 국비 비중은 72.5%인데 이보다 9~15%포인트가 낮은 것이다.<br/> 공동책임이 아닌 중앙정부의 사업도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겼다. ‘국가암관리’사업(올해 예산 186억원)은 복지부 장관이 사업주체인데도 국비 비중은 46.2%에 불과하다. 노인일자리 운영사업도 지자체가 절반 이상(53%) 부담했다. <br/> 또 국고보조율을 지난해보다 더 떨어뜨리기도 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70→50%) ▦노인보호전문기관(70-50%) ▦산모신생아도우미(80→70%) ▦노인건강관리(서울의 경우 50→30%) ▦권역별 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100→80%) 등이다.<br/>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차등보조율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가난한 지자체가 더 적게 받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재정자립도 80% 미만, 사회복지비 지수 25 이상’인 지자체는 10%포인트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게 돼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244곳 중 98.4%가 재정자립도 80%에 못 미쳐 취지가 무색하다. 경기 광명시는 재정자립도가 76%이고 사회복지비 지수는 27이어서 인상보조율을 받은 반면, 재정자립도가 56%에 그치는 동두천시는 사회복지비 지수가 24여서 혜택을 못 받았다. <br/> 내년 2조6,000억원의 지방비가 소요돼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기초연금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가 열악한 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실정이다. 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8.2%로 구(55.5%)보다 12.7%포인트나 높지만 시는 평균 74%, 구는 평균 71.2%의 국고를 받는다. 재정자립도는 모두 80%에 못 미치는데도 노인인구비율이 시(13%)가 구(11.3%)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br/> 국회예산정책처는 “<span class='quot0'>정부가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기준보조율 산정 원칙이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현황과 세부내역을 포함하게 하고, 국가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국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span>”고 밝혔다.<br/> 손현성기자 hsh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14.txt

제목: "잃어버린 향기를 찾아서" 도시 디자인에 새 지평 열다  
날짜: 20141115  
기자: 최윤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5100000013  
본문: 좋은 향기는 가공된 것 아닌 <br/>공간의 역사성ㆍ사회성 밴 것<br/>사라져 가는 향기 보존 필요 <br/><br/>역한 냄새에 남성은 잘 견디고 <br/>여성들은 격한 반응 보일 뿐 <br/>후각 감지엔 남녀 차이 없어 <br/><br/><br/> <br/> 영국에 본사를 둔 한 바디용품 업체 사장은 낯선 도시 기차역에 내려서도 향기만으로 자기네 매장을 찾아갈 수 있노라 자랑하곤 한다. 자사 제품 향기의 독특함과 CEO로서의 자질 혹은 열정을 과시하려는 허풍일진 몰라도 그게 전혀 터무니없는 말만은 아니다. 코감기가 걸렸을 땐 요리는 안 한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우리가 맛이라고 아는 감각의 80~90%가 실은 향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br/> 영국의 도시 디자이너 빅토리아 헨쇼(Victoria Henshaw)는 향기가 공간ㆍ건축 디자인의 주요 변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랜드마크(Landmark)’가 한 공간의 개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듯이 후각적 특성의 ‘스멜마크(Smellmark)’도 있다고 했다. 저 바디용품 사장이 좇았던 것, 아니면 젓갈시장이나 꽃상가의 전형적인 냄새가 그 예다. 우리가 냄새만으로 바닷가 마을과 서울 같은 대도시를 구분할 수 있다면 그 구분을 가능케 하는 특징적인 냄새도 스멜마크다. 도시 안에서도 도심과 변두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후각이 아주 예민하거나 특정 공간의 냄새에 익숙한 이라면 동대문시장 냄새와 남대문시장 냄새를, 또 남대문시장 신발상가와 의류상가의 냄새를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른다. <br/> 시각적 아름다움과 편의 못지않게 좋은 향기를 지닌 공간을 생각하자는 게 헨쇼의 주장이었다. 그에게 좋은 향기란 가공된 향기가 아니라 그 공간의 역사성과 사회성이 밴 시간과 사연의 향기다. <br/> <br/> 21세기의 도시들은 그 세월과 사연의 향기를 잃어버렸다. 아니 애써 버렸다고 해야 한다. “고전주의 시대 이후 후각은 시각(미술)이나 청각(음악) 같은 ‘고상한 감각(noble senses)’에 비해 천한 (화학적)감각으로 치부돼왔다. 냄새란 극히 최근까지도 분석될 수도 기록될 수도 없는 감각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Wired’ 인터뷰) 현대화ㆍ도시화가 확산되면서 냄새는 좋든 궂든 구질구질한 옛 흔적이었고, 몰아내고 차단해야 할 부정적인 무엇이었다. 그렇게 비워진 옛 냄새의 자리는 방향제나 커피 향기 같은 걸로 채워졌다. 복제된 도시들은 시각적인 개성과 함께 후각적 정체성도 잃어버렸다는 것이 헨쇼의 문제의식이었다.<br/> 그는 도시를 설계하고 건설할 때, 특히 기존 공간을 재생할 때 지금껏 모두가 무시해 온감각들, 특히 후각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공간 이미지를 수용할 때, 또 살아가면서 누리는 삶의 질을 보더라도 후각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span class='quot0'>(음악이든 새소리든) 어떤 소리가 들릴 때와 안 들릴 때 공간의 인상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한 음향 생태학자 배리 트루액스(Berry Truax)의 말처럼, 후각 역시 공간에 대한 인지적 이미지를 새롭게 열어주는 중요한 요소다.</span>”(‘edible Geography’인터뷰) <br/> <br/><br/><br/> 헨쇼는 시민과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가 등을 이끌고 ‘향기 산책(smell walk)’을 다니곤 했다. 도시의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누비며 향기를 맡고 그 향기를 주제로 대화하는 거였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오래된 돌담에 코를 박고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낯선 향기를 맡게도 하고, 음식점 거리를 지날 때면 눈을 감고 후각으로만 공간의 느낌을 감각하게도 하고, 골목길을 내려가면서 도심을 스쳐온 바람의 냄새를 감지해보게도 했다.<br/> 그로선 그 산책이 연구 및 자료조사의 과정이었지만, 참가자들에게는 도시의 후각적 감각 공간을 확장하는 체험이었다고 한다. 한 향수 관련 정보 사이트(Odette toilette.com)의 운영자는 그 감각 경험을 “시간의 소요ㆍ騷擾(riot of time)’라 표현했다. “행인들에게는 우리가 살짝 미친 사람들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우린 그런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다.” 헨쇼는 영국 런던과 맨체스터 돈캐스터, 미국 뉴욕 시애틀 등 세계의 주요 도시를 누비며 향기를 찾아 다녔다. <br/> 그런 뒤 ‘향기 지도’를 그렸다. 개별 공간의 특별한 향기, 즉 스멜마크를 지도화한 거였다. 색이나 형태, 소리와 달리 향기는 덧없이 사라지고 미각보다 훨씬 예민하고 사적인 감각이다. 그가 그린 향기의 지도는 ‘edible Giography’편집자의 말처럼 “순전히 개인적 순간적 경험의 기록”일지 모른다. 하지만 헨쇼는 다양한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근거로 “향기 지도의 (객관적)기록은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나의 인터뷰는 대개 낮에 이뤄진다. 하지만 인터뷰이 대부분은 낮 동안의 일시적인 냄새보다 밤의 안정적인 냄새, 즉 그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장기간 감각해온 고유의 냄새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대륙별 도시별 거리별 ‘세계의 향기지도(Global Smell Map)를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ㆍ시민 참여)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 2012년 3월 자신의 블로그(smellandthecity.wordpress.com)를 열었다. <br/> <br/> 헨쇼는 개인의 후각 취향에 대한 보편적 오해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정 냄새, 예를 들어 생선 비린내를 싫어한다는 이들도 산책 도중 어시장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싫지 않다고 말하곤 한다. 그건 그들이 생선 비린내를 시장이라는 공간 체험의 일부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어시장에서 생선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다는 걸 받아들인 것이다.” 후각 자극이 적절한 ‘체험의 맥락’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게 된다는 것, 즉 어지간히 비린내를 싫어하지 않는 한, 인공 라벤더 향기로 절여진 어시장보다는 비린내 밴 어시장을 좋아한다는 얘기다. <br/> 후각 자극에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민감하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역한 냄새를 맡았을 때 남성들은 대충 참는 반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격한 거부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돼온 것일 뿐, 실제 현장 조사에서 후각 자극을 감지하는 능력과 수용 반응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13,14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성별 후각 자극 민감도에 차이가 없었다. 그는 “여성이 더 민감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회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즉 늦은 밤 유흥가나 후미진 골목을 지나갈 때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다르듯이, 위험한 지역의 후각적 특성이 성별 후각 반응의 차이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냄새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연구 소재는 무궁무진하고, 그 연구의 결과가 도시 계획과 공간 배치 등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냄새나 향기가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일찌감치 시작됐다. 미국의 카지노 도시 라스베가스의 호텔들이 환기시스템을 통해 ‘운명의 정수(Essence of Destiny)’같은 향수를 뿜어대거나 슈퍼마켓에서 훈제 베이컨 냄새를 내보내 신선식품 매출을 신장시키는 것처럼 후각이 마케팅에 활용된 예도 흔하다. 헨쇼는 미국의 한 우유업체가 샌프란시스코 버스 정류장 우유 광고판에 쿠키 향기를 분사하는 장치를 설치했다가 주민들의 항의로 철거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감각, 특히 후각은 알게 모르게 조작되고 있다”고 말했다.(가디언, 2014.4.1)<br/> <br/> 헨쇼는 1971년 4월 28일 영국 요크셔 남부 로더햄에서 태어났다. 리즈(leeds) 메트로폴리탄대학에서 소비자관리학을 전공했고, 94년 졸업한 뒤 13년여 동안 몬캐스터 메트로폴리탄 자치위원회 도시관리ㆍ재생센터에서 일하며 매니저까지 지냈다. 그는 남부 요크셔 디자인ㆍ건설센터를 설립해 센터장을 맡았고, 돈캐스터 의회의 도시 디자인 자문역으로도 활약했다.<br/> 일을 하면서 그는 도시재생 과정 석사학위를 딴 뒤 2007년 샐포드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한다. 거기서 도시의 음향 및 소음분야 전문가인 트레버 콕스 교수를 지도교수로 만나, 도시 디자인에서 감각적 고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한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도 도시 디자인에서 냄새의 역할이 주제였다. 도시의 냄새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인지적 감정적 효과, 시민들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그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석사과정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며 사실상 자신이 개척한 후각적 도시 디자인 분야의 연구에 매진했다. <br/> 건축가 허브 엘레나는 보이지 않는 건축(Invisible Architecture)이란 책에서 냄새를 ‘건축의 어두운 면’이라고 표현했다. 건축 과정에서 냄새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 요소여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의미였다. 헨쇼는 냄새라는 ‘건축의 어두운 면’이 도시 공간 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물을 법으로 보존하듯이 도시의 어떤 향기들은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영국 주요도시에 있던 위스키 등 술 양조장과 발효시설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남으로써 도시들이 제 향기를 잃어버린 사례를 그는 안타까워했다. “거기에는 윤리적 의미도 담겨 있다. 나는 공공장소에 그 장소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합성향료를 뿌려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br/> 그는 도시가 법으로 소음을 통제하듯이 보존 가치가 있는 도시의 향기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절풍 등 바람의 흐름을 살펴 공공시설 등 건물을 배치하는 데서부터 냄새의 발생 거점을 보호하는 데까지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br/> 물론 도시 디자인에 후각을 반영하는 일이 편의나 비용 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가령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버스정류장이나 교통 신호등을 주택가에서 얼마나 멀리 두느냐 하는 문제가 그 예일 수 있다. 가로수를 많이 심으면 신호등이나 방범 CCTV를 설치ㆍ관리하는 데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br/> 사라져가는 향기를, 유물처럼 보존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예컨대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서 중세의 감옥을 체험할 때, 중세 감옥의 향기를 재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각적으로 훨씬 풍부하게 그 공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역한 오줌 냄새를 향수처럼 합성해 활용함으로써 고객 유인효과를 톡톡히 본 호러테마관의 예와 함께 그는 영국의 전통적인 간이주점 펍(pub)에 대해 말했다. “오래된 펍(Pub)에서 풍기던 고유의 냄새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 냄새는 체취와 술ㆍ안주 담배 냄새 등이 뒤섞여 나오던 냄새다. 금연정책이 시행되면서 그 냄새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br/> 그는 해무(海霧)와 바다 향기로 유명한 홋카이도의 쿠시로, 인형제조 장인들이 밀집해 아교 냄새가 풍성한 나라현의 야마토코리야마 거리 등 ‘좋은 향기를 지닌 100곳’을 선정, 보호해온 일본의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샤넬 향수 ‘No.5’의 주재료인 재스민을 공급하는 남프랑스 그라스도 멋진 ‘향기 풍경(smellscape)’을 가꾼 사례로 꼽았다. 도시 전체가 자스민의 향기나 향수 병 모형으로 꾸며져 있고, 실제로 샤넬 향기를 뿜어내는 분수도 있다고 한다.<br/> <br/> 빅토리아 헨쇼는 지난 10월 13일, 암으로 숨졌다. 향년 43세.<br/> 도시 디자인과 후각을 결합시킨 그의 분야는 사실상 그가 개척한 분야다. 도시의 국지기후 관련 세미나에서조차 열섬현상 같은 순수 기상환경적 주제들만 논의돼온 현실에서 그의 문제제기는 다양한 후각적 요소들, 예를 들어 기온과 냄새의 상관관계, 폭우와 하수구 냄새의 변화 등의 연구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헨쇼는 가장 쾌적한 실내 기온이 온도계 눈금에만 좌우되는 게 아니라 냄새 자극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굴착공사 등으로 야기되는 도시의 짜증스러운 진동과 오감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뒀다. <br/> 지난 6월 23일 헨쇼는 뉴욕타임즈에‘여름의 도시로부터 당신의 코를 돌리지 마시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 글에서 그는 냄새로 본 뉴욕의 구역별 문화적, 사회학적, 역사적 특징들을 소개한 뒤 “(쓰레기 더미에서 악취가 풍기더라도) 코를 잡지 마시라. 그 냄새를 세심히 맡고 분석해보면 도시 경험의 새로운 차원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썼다.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재임 중 심은 수십 만 그루의 가로수를 거론하며 이렇게 썼다. “도시의 심장부라고 하더라도 자연은 완전히 패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블룸버그가 심은 나무 중에는 약 200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고, 당신은 그 역한 은행 열매의 냄새를 잊지 못할 것이다.” <br/> <br/>최윤필기자 proos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15.txt

제목: 불을 끄고 밤을 보라  
날짜: 20141114  
기자: 오미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4100000114  
본문: 폴 보가드 지음, 노태복 옮김<br/> 뿌리와이파리ㆍ464쪽ㆍ2만원<br/><br/>가장 밝은 곳 라스베이거스에서<br/>가장 어두운 데스밸리까지의 여정<br/>서정적 문체로 감성 자극<br/> <br/><br/><br/>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은 이제 희귀자원이다. 도시의 환한 불빛이 별빛을 추방했다. 인공위성이 찍은 밤의 지구는 빛의 그물로 덮여 해가 갈수록 어둠을 밀어낸다. 칠흑같은 밤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해졌다. <br/> 밤의 어둠이 사라져가는 현상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별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관측자나 천문학자만이 아니다. 시인들도 그 대열에 있다. 러시아 문호 퓨슈킨은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br/> “그는 사랑했다, 울창한 숲과 고독과 정적과 / 밤과 별과 달을 / 우리는 한때 / 하늘의 등불인 달에게 / 초저녁 어둠 속을 거닐며 눈물과 함께 / 비밀스런 고통의 환희를 고백했었지…/ 그러나 지금은 저 달도 / 희미한 가로등의 대용품에 불과하다“ (석영중 옮김)<br/> 푸슈킨이 ‘예브게니 오네긴’을 완성한 것은 1830년, 유럽에 가로등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다. 처음엔 가스등이었다. 달빛은 그 희미한 가로등의 대용품 자리도 지키지 못했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1879년 이후 전등이 밤을 낮처럼 밝히면서 더 멀리 쫓겨났으니 말이다. 덕분에 삶은 편리해졌지만 인간은, 그리고 지구의 생물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이제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고 지낼 만큼 캄캄한 밤은 낯선 것이 되었다. <br/><br/><br/><br/> ‘잃어버린 밤을 찾아서’는 지구의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서 깊은 밤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지구에서 가장 밝은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출발해 태곳적 어둠을 간직한 데스밸리까지 가는 지은이의 여정은 사라져가는 밤에 바치는 송가다. 어둠이, 밤이 얼마나 근사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한다. 책의 처음과 끝에 인용한 웬들 베리의 시가 이 책의 메시지를 일러준다. “빛과 함께 어둠 속에 들어감은 빛을 알기 위함이다 / 어둠을 알려면 어둠에 거하라.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을 때 / 어둠 또한 꽃피고 노래함을 알리라 / 어두운 발과 어두운 날개로 지나감을 알리라” <br/> 시적인 문체가 감성을 자극하는 이 책은 밤과 어둠과 불빛이 미치는 영향을 사회, 자연, 의학, 종교, 예술 등의 면에서 입체적으로 고찰한다. 밤을 잃어버리면 생체리듬이 깨져 몸에 해로울 뿐 아니라 예술과 사유, 나아가 우리 자신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야간근무자들이 암과 당뇨,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의학적 보고는 이미 나와 있다. 자동차 불빛이 야생동물의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해 로드킬을 부른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br/> 책은 빛공해가 밤하늘을 더럽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보틀 등급’에 따라 9(가장 밝은 밤)에서 1(가장 어두운 밤)로 목차를 매겼다. 첫 장이 9장, 마지막 장이 1장이다. 라스베이거스 룩소르 카지노의 광선빔 이야기로 시작한다. 양초 400억개 이상의 빛을 하늘로 쏘아올리는 거대한 빛기둥에 이끌려 곤충과 나방들이 몰려든다. 덕분에 박쥐와 새들은 포식을 하지만 좋은 일이 아니다. 멀리 사막의 동굴과 둥지에서 날아와 만찬을 즐기고 돌아갈 때면 장거리 비행에 정작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별로 남지 않기 때문이다. 빛공해가 생태계를 교란하는 예다. <br/> 지은이의 여정은 북미와 유럽에 집중돼 있다. 빛의 도시 파리와 런던에서 19세기 가스등의 낭만과 오늘의 야경을 이야기하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을 쓴 매사추세츠의 콩코드 숲에서 밤의 고요와 매력을 느끼고, 고대인의 상형문자를 간직한 뉴멕시코의 차코국립역사문화공원에서 아득한 과거의 밤을 더듬는 식으로 가는 곳마다 오감을 활짝 열어 독자를 밤의 세계로 안내한다. 시골에서 자란 어린 시절 밤하늘의 추억과 배낭여행 중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맞은 밤의 경이 같은 개인적 체험과, 여러 문학 작품에서 가져온 밤에 대한 진술을 섞어가며 서정적인 책을 썼다. <br/> 많은 이들이 여기에 동행했다. 지은이는 어둠의 가치와 빛공해의 위협을 알리는 데 힘쓰는 과학자, 의사, 활동가와 작가들을 찾아갔다. 도시를 빛공해에서 구해 낭만적인 모습으로 돌려놓으려고 애쓰는 조명 설계자, 밤의 신성한 어둠을 사랑하는 성직자, 병원 응급실에서 야근하는 간호사와 밤새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 운전자, 감옥에 있는 동안 별빛이 가장 그리웠다는 사내, ‘불을 끄고 별을 켜자’며 어두운 밤하늘 지키기 운동을 하는 단체와 지역 공동체, 철따라 이동하는 야행성 조류를 여러 도시에서 구해낸 활동가 등 그가 만난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밤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전한다. <br/> 인공조명을 무조건 줄이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꼭 필요한 데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쓰자며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도시의 조명 정책을 연구하거나 집행하는 이들이 참고하면 좋겠다. <br/> 어둠은 위험하고 빛은 안전하다는 통념을 반박하는 내용도 있다. 범죄를 예방하려면 밤에도 환한 게 좋다는 생각과 달리, 가로등을 늘렸더니 범죄가 줄었다는 보고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브리스톨 등 영국의 도시에서 자정 이후 가로등을 껐더니 범죄가 20~50% 줄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 잘 보이던 게 잘 안보이게 된다. 어둠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잘 보인다. <br/> 책을 덮으면 밤의 어둠이, 냄새가, 소리가 문득 그리워진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들이다. 촛불을 켜고 읽고 싶은 책, 자다가 너무 환한 달빛에 놀라 깨어서는 다시 펼쳐보고 싶은 책, 밤을 느끼고 싶어서 한밤중에 산책하게 만드는 책이다. <br/><br/>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16.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한국형 폐선암 재발 유전자 발견”  
날짜: 20141113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3100000065  
본문: 서울아산병원, “한국형 폐선암 재발 유전자 발견”<br/> <br/> 한국형 폐선암 재발 유전자가 발견됐다. 이로써 폐선암 재발 예측과 표적 약물치료 등 폐선암의 맞춤형 치료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br/>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폐암센터 장세진(병리과)·김형렬(흉부외과) 교수팀은 한양대 의대(공구 교수), 서울대 자연과학대(백대현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폐절제술을 받은 폐선암 환자 247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RB 유전자 돌연변이가 수술 후 조기 폐암 재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암연구학회(AACR)의 ‘임상암연구(Clinical Cancer Research)’ 최신호에 게재됐다. <br/> 폐암은 국내 사망률 1위 암이다. 최근 폐의 선(腺)세포에 생기는 폐선암 발병률이 국내 폐암 환자 중 40%를 차지할 정도다.<br/> 조기 폐선암 치료의 최선책은 수술이지만 1기라 해도 10~20%는 재발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폐선암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특정 바이오마커는 규명되지 않았다. <br/> 이번 연구결과, RB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가 폐암이 재발되지 않을 확률은 20%로, RB 유전자에 변이 없는 환자의 60%보다 크게 낮았다. 또 조기 폐선암 환자군(1·2기)의 5년 재발률에서도 비슷한 경향이었다.<br/> 장세진 교수는 “<span class='quot0'>RB 유전자 돌연변이 발견으로 조기 폐암 수술 후 재발 고위험군의 분류 및 선별을 할 수 있어 적극적 치료와 재발 예방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span>”고 했다.<b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17.txt

제목: 단국대 치의학과 이수연씨 SCI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  
날짜: 20141112  
기자: 이준호junhol@hk.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2100000082  
본문: 단국대는 치의학과 2년 이수연(23ㆍ사진)씨의 암 관련 논문이 영국 왕립화학협회 SCI급 국제학술지 ‘RSC Advances(IF3.7)’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12일 밝혔다.<br/> 이씨는 논문에서 암세포 조직의 온도가 체온보다 높은 현상에 착안, 암세포 조직에 특이적으로 약물이 방출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도 감응형 나노전달체를 통해 약물 및 유전자를 투여하면 암세포만을 파괴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br/> 학부생이 제1저자로 연구와 실험을 주도한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실린 것은 이례적이다.<br/> 이씨는 “<span class='quot0'>학교 조직재생공학연구소 교수들의 지도로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더욱 노력하여 훌륭한 학자가 되겠다</span>”고 말했다.<br/> 이씨가 연구를 수행한 단국대 조직재생공학연구소는 2009년 교과부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손상된 신경과 뼈, 치아, 근육 등을 효과적으로 재생시키는 바이오소재, 줄기세포제어 및 동물신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r/> 국내외 40여 명의 연구인력이 매년 30∼50여편의 국제학술논문과 10∼20여건의 국내외 특허를 내고 있다.<br/> <br/> 이준호기자junhol@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18.txt

제목: 잘못 먹으면 독...건강기능식품 봇물  
날짜: 20141112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2100000111  
본문: 제약사ㆍ생명과학기업 경쟁적 판매<br/>시장 규모 꾸준히 성장 추세, 작년 1조8000억원 육박<br/><br/>오남용 땐 되레 건강 헤쳐<br/>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부터<br/><br/><br/> <br/> 지난달 경기 안양시의 한 커피전문점. 중년 여성이 “어디가 불편하냐”고 묻자 동석한 60대 가량의 남성이 “피곤이 안 풀린다”고 했다. 여성은 “그냥 두면 망막까지 손상된다”며 작은 병과 책자를 꺼냈다. 간세포를 재생시키고 황반변성까지 막아준다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다. 남성이 썩 내키지 않아 하자 여성은 “<span class='quot0'>식물 추출물을 알약 형태로 뭉쳐놓은 건데, 먹으면 간 기능이 복구된다</span>”고 설득했다. 남성이 마지못해 “1주일치만 줘보라”고 하자, 여성은 “<span class='quot0'>한 달 이상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span>”며 다량 구매를 권했다.<br/> 이 여성은 글로벌 헬스케어기업의 영양상담사다. 몇 주간 제품 교육을 받은 게 전부인데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병을 예측까지 한다. 전문가들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은다. 제약사나 생명과학기업들이 너도나도 건기식 판매 경쟁에 나서면서 국내 건기식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2009년 약 1조1,600억원에서 지난해 1조7,920억원 규모로 올라섰다. 그 결과 먹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 건기식에 매달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br/> 식물 추출물은 가장 흔한 건기식 성분 중 하나다. 육식 위주의 서양인은 식물성 성분을 별도로 섭취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간 같은 장기가 제 기능을 하려면 식물성 비타민이나 미네랄에 의존할 게 아니라 열량을 내는 영양성분을 다양하게 섭취해야 한다. 일부 식물성 성분이 망막질환 발병을 좌우한다는 것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br/> 식물 추출물 외에 오메가3 지방산, 루테인, 글루코사민, 비타민 등도 흔히 팔린다. EPA,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생선에 많은데, 이걸 건기식으로 먹으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을 앓았던 사람이 꾸준히 먹으면 재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는 학계에 보고됐다. 하지만 박진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비만이나 고지혈증 등 심장질환 위험요인이 있는데 생선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오메가3 지방산을 건기식 형태로 먹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1주일에 한두 번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에게 추가 섭취는 도움되지 않는다</span>”고 설명했다.<br/> 어른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글루코사민은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거나 연골 재생을 돕는다. 소염진통제에 비해 부작용이 없고 관절 구조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저렴한 염화글루코사민에선 나타나지 않았고, 비싼 황산글루코사민에서도 일부 입증됐다. 박진호 교수는 “<span class='quot2'>글루코사민 효과는 대부분 3개월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상 먹어도 변화가 없으면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 글루코사민이 무릎이 아닌 허리 통증이나 골다공증, 손가락 관절염 등에도 좋다는 광고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br/> 망막질환인 황반변성의 진행을 일부 늦춘다고 알려진 루테인은 요즘엔 망막질환이 없는 사람까지 흔히 먹는 추세다. 하지만 일반 사람의 눈 건강엔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흡연자가 루테인을 계속 먹을 경우 폐암 발생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다. <br/> 흔한 건기식으로 비타민 빼놓을 수 없다. 전문의들은 그러나 가급적 먹지 않는 걸 권장한다. 편식하지 않고 충분히 식사하는데도 복용하면 영양과잉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성분이 합쳐진 종합비타민제를 18년 동안 꾸준히 복용한 50, 60대 여성을 조사했더니 조기사망 위험이 높았다. 특정 성분의 비타민제 역시 마찬가지다. 하루 필요량의 수~수십배 용량이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비타민E(토코페롤)는 남용하면 심혈관질환과 전립선암을, 비타민A는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과 소화기계 암 발병 확률을 높인다고 알려졌다. 또 비타민C 복용으로 면역력 증가, 심뇌혈관질환이나 암 예방,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연구가 다수 나왔다.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항산화제 과다 복용도 건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br/> 건기식을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몸에 좋다니까 괜찮겠지’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해 허가 받은 제품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한다.<br/> <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19.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기스트클리닉 개설 外  
날짜: 20141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2100000071  
본문: ● 삼성서울병원 기스트클리닉 개설<br/> <br/> 삼성서울병원이 최근 위장관기질종양, 기스트(GIST) 전문 클리닉을 개설했다. 기스트는 위암이나 대장암과 달리 위장관벽에 위치한 카할세포에 생기는 병으로, 육종에 해당된다. 인구 100만 명당 10~20명에게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다른 암종에 비해 흔하지는 않지만, 암이 자라는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삼성서울병원 기스트 클리닉은 병변 부위 및 진행 상태에 따라 정확한 진단 및 수술, 항암치료 등 다각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다학제 진료는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암병원 1층에서 진행된다. 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02)3410-3871<br/> <br/> <br/>● 강남베드로병원 여성부인과센터, 웨딩 검진 이벤트 <br/> <br/> 강남베드로병원이 여성클리닉과 종합검진센터의 협진으로 12월 말까지 웨딩 검진 ‘For W3’ 이벤트를 실시한다. 예비신부에게 여성필수검진 57가지 항목의 검사를 기존가 60만원에서 행사가 19만8,000원으로 대폭 할인해 제공한다. 또 웨딩 검진을 하러 예비 신부가 방문 시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오게 되면 어머니에게도 자궁초음파검사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 웨딩 검진 프로그램에는 자궁경부액상세포검사, 냉검사, 균검사, 초음파검사, 빈혈검사 등을 포함한 중요염증검사를 비롯해 중성지방, 에스트로겐, 난포자극호르몬 등이 포함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20.txt

제목: 목숨도 인간의 것  
날짜: 20141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2100000155  
본문: 죽음 앞에 다가간 이의 심사를 헤아리긴 어렵다. 아무리 흐릿한 가능성에도 희망은 깃든다. 대가는 존엄 포기다. 조금만 더. 신에게 구걸한다. 느닷없는 끝에 남는 건 원망뿐이겠지만.<br/> <br/> “어렸을 적에 어른들은 옛 어른들의 죽음을 회고하곤 했는데, 그들은 죽음이 가까워 오면 가족들과 마지막 식사를 한 후 곡기를 끊고 조용히 죽음을 맞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 (…) 그러나 의술이 발달한 지금 이런 자연스러운 죽음의 사례는 희귀해졌다. 삶을 연장할 수 있다는데 온갖 기계들이 몸에 들러붙은들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는 일은 현대인에겐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다. 최근 뇌종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던 미국인 새댁이 스스로 정한 날 안락사한 것을 보며 다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 ‘웰 다잉’ 등의 여론은 때때로 일어난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품위 있는 죽음에 이르는 방법적 고민까지 발전하진 않는다. 우리나라 큰 병원엔 연명치료 병상은 있어도 죽음의 질을 관리하는 병상은 거의 없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 이용주 가톨릭대 의대 완화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기간은 평균 18일”이라고 했다. 미국·유럽 환자들은 50~60일인 데 비해 한국인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도 짧고, 죽음의 질도 극도로 나쁘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를 ‘강한 집착’에서 찾았다. 자식들은 치료에 집착하는 게 효(孝)라고 생각하고, 환자도 삶에 집착하는 게 가족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무의미한 치료를 지속시켜 지쳐서 생을 마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데 묘하게도 오히려 삶의 집착을 버린 순간 병의 진전이 늦춰지고 수명이 연장되는, 의학적으론 설명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 우리 문화적 관념 속의 효·도리·의리 같은 것들이 좋은 죽음을 방해하고, 병원들도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좋은 죽음의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니 삶과 죽음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 이젠 정말 우리 사회가 말로만 ‘웰 다잉’을 외칠 게 아니라 좋은 죽음을 맞는 사례를 축적하고, 교육하고, 좋은 죽음의 환경을 마련하는 사회적 투자를 해야 할 때가 됐다.”<br/> -비참하게 죽는 한국인(중앙일보 ‘양선희의 시시각각’ㆍ논설위원) ☞ 전문 보기 <br/> <br/>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50대 남자 환자가 폐렴이 악화돼 점점 심해지는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이 불가피한 상태가 됐다. (…) 환자가 임종한 후 유가족들을 만나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아내와 자녀 모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했던 긴 기간보다 고인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짧은 시간을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 ‘웰빙’과 달리 영어권 국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웰다잉’이라는 신조어를 한국에서만 유행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에는 선진국에 비해 임종기 환자에게 연명의료장치를 사용하는 빈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과도 관계가 있다. 어떤 모습으로 임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없겠으나, 본인의 임종이 어떠한 모습이기를 바라는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본다면 ‘웰다잉’의 본질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집을 떠나 외지에서 사망하는 ‘객사’(客死)를 불행으로 여기고,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을 큰 불효로 생각하는 우리 문화를 곰곰이 되새겨 보면 외롭게 세상을 하직하는 것은 좋은 임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 가족을 떠나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좋은 임종은 편안하게 죽은 모습을 보는 것이다. (…) 더이상 항암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말기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환자와 가족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잔여 생명의 기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임종을 준비해야 좋을지에 대해 의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종 장소,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의 약속, 마지막 남기고 싶은 것들의 정리 등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연명의료에 매달리다가 환자가 사망한 후 그러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가족들이 대부분이다. 연명의료장치를 제거하고도 장기간 생존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 죽을 것인지는 의료진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모습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미리 준비할 수 있다.”<br/> -어떻게 임종할 것인가(서울신문 ‘열린 세상’ㆍ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 전문 보기 <br/> <br/> \* ‘칼럼으로 한국 읽기’ 전편(全篇)은 한국일보닷컴 ‘이슈/기획’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21.txt

제목: 고난도 인공방광 수술하며 성기능까지 살려 내  
날짜: 20141110  
기자: 송강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0100000034  
본문: 암세포 제거 동시 인체 기능 보존<br/>섬세한 기술과 경험 요구돼<br/><br/>수술시간 짧아져 고령자도 가능<br/>이 분야 국내 최다 수술 기록 <br/><br/><br/><br/> 이동현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49)는 방광암 환자에게 인공방광을 만들어 주는 수술을 할 때 방광 절제를 흔한 방법인 앞쪽부터 하는 게 아니라 뒷쪽부터 메스를 들이댄다. ‘포스티어리어 어프로치(posterior approach)’라 불리는 이 술기(術技)는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신경의 손상을 줄임으로써 환자들이 수술 후에도 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 교수는 또 인공방광에 요관을 연결할 때 이음새 부위의 장을 뒤쪽으로 살짝 틀어줌으로써 체크밸브(check valve)의 원리에 따라 소변의 역류를 차단한다.<br/> 인공방광 수술은 방광암으로 기능을 잃은 방광을 떼낸 뒤 환자의 소장을 이용해 대체 방광을 만들어 주는 치료법이다. 암세포가 방광 조직의 가장 안쪽인 점막층을 지나 근육층이나 장막층까지 깊숙이 침범한 경우 택하는 고육책이다. 인공방광을 위한 방광전절제술은 방광 뿐 아니라 주변 조직을 대거 절제해내는 큰 수술이다. 방광 절제에 앞서 암세포가 번지는 경로인 임파절을 가장 먼저 긁어낸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ㆍ저정낭ㆍ정관(일부)을, 여성의 경우 자궁ㆍ난소(한쪽)ㆍ질(3분 2가량)을 잘라낸다. 이어 환자의 소장을 60cm가량 잘라 인공방광을 만든 뒤 요관을 연결하면 끝이다. 절제 범위가 넓은데다 전립선, 방광, 요관, 발기신경 등이 뒤얽힌 복잡한 비뇨기를 손대는 고난도 수술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출혈의 가능성 등 위험이 상존한다.<br/> 그래서 인공방광 수술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술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수술이 10시간이 걸렸다. 수술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망률 수치가 올라간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이 수술은 금기였다. 술기가 좋아져 요즘은 수술시간이 4시간 정도로 줄어 들었다. 워낙 고난도 수술이라 아직까지도 이 수술을 하는 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동현 교수는 “<span class='quot0'>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공방광을 하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시간이 짧아지면서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span>”고 했다.<br/><br/><br/> 이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연구강사이던 1997년 인공방광 수술을 처음으로 했다. 지금은 국내에서 이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의사 중 한 명이다. 이 교수의 인공방광 수술법은 이른바 '스튜더 방식'. 이 교수는 이 방식을 조금씩 다듬고 고쳐서 후유증을 줄여나가고 있다. 포스티어리어 어프로치와 체크밸브 원리 도입 등이 대표적 사례다. 그의 인공방광 수술 최단 기록은 2시간50분이다. 이 교수가 몸담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은 인공방광 수술을 2011년 21건, 2012년 33건, 지난해 40건 시행했고, 올 들어 10월 현재 51건으로 수술 건수에서 국내 최다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br/> 암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암세포의 완전한 제거이고 두 번째가 인체 기능의 보존이다. 암세포 제거를 위해 이 교수는 림프절을 가급적 많이 긁어낸다고 했다. 기능 보존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다. 신경 보존은 섬세한 술기를 요하는 험로의 연속이다. 예컨대 남성에서 전립선을 감싸고 지나가는 발기신경을 다치지 않고 잘 박리해내기란 쉽지 않다.<br/> 이 교수는 수술이 정확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수술이 정확하지 않으면 피가 나고, 피가 나면 시야가 흐려져 수술이 더 지체된다</span>”고 했다. 인공방광 만들기 자체가 섬세한 손놀림을 요하는 수작업이다. 잘라낸 소장을 이러저리 접고 한땀 한땀 꿰매 공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손놀림이 커다란 환자 피해와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인공방광 수술을 막 시작한 초보 외과의들은 소변 누출이라는 최대 수치(羞恥)를 맛보지 않기 위해 한순간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한다.<br/> 방광적출술을 받은 경우 인공방광 수술 이외에 소변주머니를 만들어 주는 또다른 방법도 있다. 방광 적출에 따라 체내 소변이 고이는 장소가 없어지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장을 20cm가량 잘라낸 뒤 한쪽에는 요관을 잇고 다른쪽 끝은 복부 쪽 피부에 연결해 비닐주머니를 만든다.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간단한 수술이다. 다만 소변주머니를 평생토록 차고 다녀야 하는데다 소변이 복부 옆으로 새는 경우도 있어 불편함이 따른다.<br/>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에서 발생한 방광암은 모두 21만8017건(남자 2,847, 여자 702건)이다. 방광암 발생은 남성에서 약 4배 더 잦다.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가 대표적 증상이다. 방광암 위험인자는 노화, 흡연, 화학물질ㆍ방사선 노출 등이다. 머리염색약, 구체적으로 머리 염색 시 착색을 돕는 아닐린계 염료가 방광암의 위험인자라는 보고도 있다. 머리 염색을 자주 하는 미용사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방광암에 걸릴 위험이 5배가량 높다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머리염색약이 방광암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은 성급한 결론이라는 지적이다.<br/> 방광암은 암세포가 방광 점막에 국한된 표재성, 점막을 지나 근육층까지 침범한 침윤성, 전신으로 퍼진 전이성으로 나뉜다. 암세포의 뿌리가 얕은 표재성은 방광 내시경으로 손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잦은 재발이 문제다. 전이암은 전신 항암요법을 고려한다.<br/> 인공방광의 수술 대상은 방광에 국한된 암이다. 방광의 층은 가장 안쪽부터 점막층, 근육층, 장막층의 순인데, 점막층을 뚫고 근육층 이상 침범한 경우 인공방광 수술 대상이다. 점막에 국한된 암이라도 상피내암이 심하게 퍼진 경우, 표재성이라도 암세포가 여기저기에 광범위하게 생겨난 경우, 암세포 형태가 ‘마이크로 파퓰러리’인 경우도 인공방광의 적응증이 된다. 마이크로 파퓰러리 암세포는 표재성이라도 금세 침윤성으로 돌변해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인 의학자로 비뇨기 암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미국 MD앤더스암센터의 노재윤 교수가 처음으로 밝혔다.<br/> <br/>송강섭기자 ericsong@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22.txt

제목: 조현병 앓는 아주머니는 지금 어디 있을까?  
날짜: 20141110  
기자: 김치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0100000039  
본문: “이 나쁜 놈아. 거기 서지 못해. 오늘 죽어봐라.” 8년 전 처가 근처로 이사하고 월요일 아침 출근하다 40대 여성에게 봉변을 당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서 있던 여성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폭력을 가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대처도 못하고 출근길에 두들겨 맞고 나니 화가 치밀었다.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묻자 여성은 “너도 남자잖아. 남자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너 지금 여자 만나러 가는 거지?”라며 다시 주먹을 쥔다.<br/> “아이고 죄송합니다. 애가 많이 아파서. 한번만 봐 주세요.” 40대 여성의 어머니로 보이는 80대 노파가 내 손을 잡고 사과한다. 아프다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가던 길을 재촉하는 내 등 뒤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계속 그러면 다시 병원에 가야 해. 정신 좀 차려라.”<br/> 퇴근 후 집사람에게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한다. “아, 그 아주머니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야. 나랑 나이가 같을 거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남편이 바람 피워 이혼한 후 정신이 이상해졌어. 불쌍한 사람이야.”<br/> 아주머니가 무서워 지하철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그 골목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통해 출근한지 반년이 됐을까. 무심코 아주머니가 사는 집 쪽으로 발길을 향했는데 그 집 앞에 2, 3명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고, 정신 나간 딸을 놔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어제 딸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던데. 아버지도 암 환자인데 저 집 참 딱하게 됐네.”<br/>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아주머니는 6개월 단위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과거 폐쇄병동으로 불렸던 정신병원 안심병동에서 6개월 이상 입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돼 퇴원해도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아주머니는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다. <br/> 과거에는 이런 환자들이 아침에 병원에 가서 치료와 상담, 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낮병원’이 있었지만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낮병원을 운영했던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span class='quot0'>현 수가체제에서는 도저히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았다</span>”고 했다.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경험하는 정신질환인데 다시 사회로 돌아와야 하는 이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사회와 격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br/> <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23.txt

제목: [건강 단신] 서울성모병원, '삶의 질 향상 클리닉' 열어 外  
날짜: 20141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0100000065  
본문: 서울성모병원, ‘삶의 질 향상 클리닉’ 열어<br/> 서울성모병원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삶의 질 향상 클리닉’을 열었다. 화요일 오후 3~5시, 금요일 오전 10~12시 진료한다. 다학제 진료로 암성 통증,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섬망, 림프부종, 보행장애, 팔 다리 근력저하, 위장장애 증상조절 등 외래 암환자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한다. <br/> <br/> 강북삼성병원, 계단 걷기 어플 내놔<br/><br/> 강북삼성병원은 계단 걷기 어플리케이션 ‘오르GO 나누GO’(사진)를 내놨다. 계단에 설치된 NFC 보드에 어플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이용 층수가 계산된다. 어플에서 실시간 랭킹 현황을 볼 수 있고 개인별 목표량을 설정할 수 있어 계단 이용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계단 이용에 비례해 일정량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사회공헌기금과 연동해 불우 환자를 돕는다.<br/> <br/> 모델 한금복씨, 핑크리본 홍보대사<br/><br/> 한국유방암학회가 모델 한금복(사진 왼쪽)씨를 '2014 핑크리본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한씨는 2013년 유방암 판정을 받았지만 적극적인 치료의지와 의료진 도움으로 수술과 항암치료로 암을 극복했다. 송병주(서울성모병원 유방센터장) 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유방암 발병 이후에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활동하는 한씨가 유방암 환우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했다.<br/> <br/> 최신 수술로봇 다빈치Xi 수입 허가<br/><br/> 인튜이티브서지컬 코리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신 수술로봇 다빈치 Xi(사진)의 수입 품목허가를 받았다. 미국 인튜이티브서지컬이 개발한 다빈치 Xi는 27~29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외과학회 심포지엄에서 공식 선보인다. 초고화질 3D 영상으로 더 선명히 수술 부위를 볼 수 있고, 길이가 길이지고 얇아진 4개 로봇 팔로 수술을 더 넓은 범위에서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br/> <br/> 제일병원, 남산도보행진 <br/> 제일병원은 지난 7일 남산 산책로 일대에서 ‘2014 비전실천 한마음 남산도보행진’을 했다. 이재곤 제일의료재단 이사장과 민응기 제일병원 원장 등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병원을 출발해 국립극장, 남산 산책로, 남산 한옥마을로 연결되는 행진 코스를 걸으며 화합과 비전 실천을 통한 도약을 기원했다. 행사 이후에는 임직원간 친목 모도와 단합을 위한 행운권 추첨과 파티가 이어졌다. 한편, 12월 9일 개원 51주년을 맞는 제일병원은 총 분만 22만건(2013년 누적), 연간 산부인과 진료 31만건, 3,000건의 복강경 수술, 2만 건의 유방검진 등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불임, 여성암, 미용성형, 갱년기 질환, 요실금 등 여성특화진료 노하우를 앞세워 연간 2만여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24.txt

제목: 대한핵의학회, ‘PET 급여 개정안은 보장성 후퇴”  
날짜: 20141110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0100000077  
본문: 대한핵의학회, “PET 급여 개정안은 보장성 후퇴”<br/> <br/> 다음달 1일 시행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양전자단층촬영(PET)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해 관련 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br/> 대한핵의학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어 “<span class='quot0'>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후퇴</span>”라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폐암학회 등 10개 관련 전문의학회와 공동의견서를 내고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PET은 대부분 암종에 대해 민감도가 높고 온 몸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검사다.<br/> 학회들은 이번 PET 급여기준 개정안에는 대부분의 적응증에 대해 다른 영상검사로 대체하거나 이후 시행토록 제한함으로써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조차 실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br/> 유영훈(강남세브란스병원 핵의학과 교수) 대한핵의학회 보험이사는 “병기결정, 치료 중 효과판정, 치료 후 완치여부 판정 적응증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간암의 경우 최소한 병기설정과 재발평가 목적에 대해 치료법에 관계없이 급여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br/> 지난 6년간 PET 촬영건수가 2.3배 늘었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ㆍ남용이 아닌 암 발생률 및 암 생존자수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같은 기간 일본에서는 PET 시행건수가 10배 이상 늘었고, 중국은 3년간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증가율은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고 반박했다.<br/> 또한 PET 검사에 이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인 FDG에 의한 방사선 노출량은 평균 6.9mSV로, 전체 10mSV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안전성 의혹도 일축했다. <br/> 검사기기 발전으로 내년에는 검사로 인한 선량노출이 일반적인 조영제 사용 검사와 비슷한 수준(5mSV)까지 낮춰질 것이고, 머지 않아 1mSV 이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검사과정에서 조영제가 투여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타 영상검사에 비해 오히려 안전하다고도 말했다.<br/> 문대혁(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과장) 학회 회장은 “벌써부터 검사를 원하는 환자 항의가 빗발쳐 현 고시가 발효되면 의사-환자관계가 깨지고 진료에 큰 혼선이 예상된다”고 했다.<br/>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25.txt

제목: 치약 사용 후 7~8번 꼭 물로 헹궈내세요  
날짜: 20141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10100000060  
본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치약에 들어가는 보조제인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등의 유해성이 도마에 올랐다. 김재원 의원은 “<span class='quot0'>트리클로산과 파라벤 성분이 들어간 치약은 이미 외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제품들임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치약의 주요 보조제를 쓰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전문가들은 유해 치약 보조제로부터 안전하려면 사용 후 입안을 7~8번 헹궈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치과의사인 필자도 양치 시 물로 3회 이상 헹궈본 기억이 없는 것을 봐도 7~8번 치약을 헹궈내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지를 알 수 있다. 전국민이 하루에 3회 이상 양치를 한다. 유ㆍ소아도 매일 치약을 쓴다. <br/> 그러나 국내에서 허가 받은 치약 2,050개 가운데 1,302개(63.5%)의 치약이 파라벤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국내 치약에는 모든 성분이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유해 여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치약의 유해 보조제를 파악해야 하며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br/> 치약의 주요 보조제의 유해성은 다음과 같다. (1) 불소. 충치균 활동을 억제하고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해준다. 충치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다. 하지만, 치약을 잘 뱉어내지 못하거나 헹궈내지 않으면, 몸에 해롭다. 유아나 청소년의 경우 적은 양의 불소를 먹어도 침 분비 증가, 구토, 위상 복부 통증, 설사 등을 일으킨다. 많이 먹으며 마비, 근위축증, 간대성 경련, 심부전 등이 생긴다.<br/> (2) 글리세린. 치약의 수분과 향료, 물질 증발을 억제해 치약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 준다. 또한 치약이 치아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데 깨끗이 헹구지 않으면 치아가 약해진다. <br/> (3) 파라벤.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의 일종이다.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호르몬 분비를 교란하기도 한다. <br/> (4) 계면활성제. 물과 기름 모두에서 잘 녹는 계면활성제는 치약 성분이 잘 화합되게 함은 물론이고 양치 시 치약 성분을 잘 녹게 해 치아를 잘 닦게 해주지만 잘 헹궈내지 않으면 아토피성 피부염, 백내장, 암을 유발할 수 있다. <br/> (5) 인공감미료. 소르비톨, 사카린 등이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며 섭취기준을 초과하면 발암성 문제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br/> (6) 인공 착색염료. 이 착색염료는 일반적으로 유명한 치약 브랜드들에서 종종 발견된다. 인공 착색염료는 알레르기 원인이 되고 천식, 두통, 메스꺼움, 무력감, 과민증, 집중력 결핍,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적색염료도 주로 어린이치약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서 빨강색을 내는 착색료로 많이 쓰인다. 잘 헹구지 않으면 암이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유발할 수 있다.<br/> 이 같은 유해 보조제로부터 안전을 지키려면 “여러 번 헹궈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만큼 인체에 이롭지 않다는 뜻이다. 치약을 선택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br/> 굳이 7~8번 물에 헹구지 않더라도 무해한 치약 대체품을 소개하려 한다. (1) 천일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치약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쉽고 치아 마모가 생기지 않는다. 양치를 하기 전 물에 먼저 녹여 사용한다.<br/> (2) 베이킹 소다. 천일염과 같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물에 베이킹 소다를 넣고 녹여서 사용하거나 베이킹 소다에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몇 방울과 스테비아(천연 감미료)와 같이 혼합하면 민트향의 신선함으로 개운함까지 느낄 수 있다. <br/> (3) 오일 풀링. 오일 풀링 방법은 ‘엑스트라 버진’ 이상의 순수한 오일을 1테이블스푼 정도를 입 안에 넣고 소리가 날 정도로 심하게 몇 분 동안 가글을 한다. 이때 절대로 삼키지 말아야 하며 가글 중 오일에 있는 여러 비타민 성분과 산화 성분들이 독소와 지저분한 것을 제거해 배출하는 데 그 뒤 칫솔질을 물과 같이 한다. <br/> (4) 과산화수소. 치아를 깨끗이 하고 하얗게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다. 칫솔을 과산화수소와 베이킹 소다, 천일염과 합쳐 반반씩 섞은 용액에 넣어 사용한다. 만약 치아에 아말감 치료를 했다면 과산화수소가 수은을 걸러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br/> (5) 허브파우더. 파우더 안의 허브 성분이 입안 전체의 염증, 통증, 감염을 줄여 치아를 청결하게 유지해 준다. <br/> (6) 칫솔만 이용하는 칫솔질.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칫솔로 양치질하는 방법으로 치아 청결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운함은 느끼기 어렵다. 물을 묻혀 양치질 하는 방법도 좋다.<br/> (7) 천연비누. 양치질할 때 비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별도 첨가물이 없는 천연비누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br/> (8) 코코넛오일. 항진균, 항균성 성분이 있어 입안을 깨끗하게 한다. 코코넛 오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베이킹 소다나 에센셜 오일과 같은 제품들과 섞어도 사용할 수 있다. <br/> (9) 워터픽. 수압을 이용해 치아나 치아 사이를 청소하는 기구로 99.8%의 플래그를 3초 내에 제거한다. 치실을 사용하는 것 보다 세 배 정도의 음식물 제거에 효과가 있다. 식염수와 같이 사용하면 구강세정력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br/> (10) 에센셜 오일. 물의 꽃, 잎, 열매, 줄기 등에서 추출한 순수한 오일로 인공 첨가물 없고 강력한 소독 기능과 방부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10가지 대체품을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선택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음식물 섭취 후 즉시 양치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26.txt

제목: 일부 병원 진료비 덤핑하며 환자 불법 유치  
날짜: 20141107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07100000035  
본문: “진료비 50% 할인해 드립니다.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br/> 일부 병원, 진료비 깎아준다며 환자 유치…건강검진ㆍ수술비 절반 가격에 덤핑 <br/> <br/> “최대 60% 할인. 110개 항목 건강검진 140만 원→60만 원. 이벤트 기간 2014년 00월~00월까지.” “한 달 동안 인공관절수술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합니다. 비용 때문에 고민하셨던 무릎 인공관절수술, 이제 반값으로 수술 받으세요.” “종합검진 100만 원→53만 원. 컴퓨터단층촬영(CT)는 뇌ㆍ폐ㆍ심장ㆍ척추 중 택일. 검진 프로모션은 2014년 00월까지만 우대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는 비용을 차감해 드립니다.” “선착순 100명에게 임플란트 치료 시 뼈 이식 비용 반값, 임플란트 3개 식립 시 한 개 무료.”<br/> <br/> ‘진료비 할인’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병원이 있다. 이런 병원은 수술비, 건강검진비를 50~60% 깎아준다고 홍보한다. 또 진료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을 현장 할인해 주며 환자를 현혹한다. 접수비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다. <br/> 병원의 진료비 할인은 서울ㆍ경기ㆍ인천ㆍ대구 등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할인 유형도 다양하다. 요즘 유행하는 소셜커머스(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할인 쿠폰을 발급하기도 한다. <br/> 일부 병원은 인근 지역의 기업, 아파트 단지 등과 협약을 맺고 건강검진비, 진료비를 수십% 할인해주고 VIP 카드를 발급해 우대 혜택을 주기도 한다. 건강검진에 CT나 MRI까지 무료로 포함하기도 해 진료비 덤핑이 심각한 병원도 있다. 이 같은 진료비 할인 내용은 포스터, 입소문, 온라인 등을 통해 알린다. <br/> 문제는 진료비 할인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br/> 보건복지부도 최근 진료비 할인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한 카드회사와 제휴한 안과?성형외과 등에서 진료비 중 일부를 현장 할인 하는 서비스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해석했다. <br/> 또 2011년 소셜커머스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의료인을 대신해 할인된 의료쿠폰이나 시술권을 공동판매 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br/> 병원들이 진료비를 할인하는 이유는 경쟁은 살아남기 위해서다. 새로운 병원이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늘면서 환자 모시기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수는 2013년 기준 6만4,047곳, 병상은 62만9,629개다.<br/> 지금도 신도시나 개발이 한창인 지역에는 중?대형 병원들이 계속 신축 중이어서 병원들의 살아남기 경쟁은 점차 치열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국내 총 병상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달리 환자가 입원해 병상을 채우는 병상 가동률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병원경영 전문가는 “<span class='quot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병상이 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그러나 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70%에 그친다</span>”고 했다.<br/> 진료비 할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데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병원의 진료비 할인 경쟁이 심화되면 적정 진료를 보장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를 보는 환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br/>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증상이 심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수술을 미뤘다. 그렇게 통증을 참고 지내다가 인근 B병원에서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말을 듣고 수술대에 올랐다. 그러나 A씨는 수술 1년이 지난 최근 인근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A씨를 재수술한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수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척추 수술 부위의 조직과 신경이 뒤엉켜 상태가 악화됐다</span>”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재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br/> 진료비 할인은 환자가 직면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은 원가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를 담보하기 힘들다. 결국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고, A씨 사례처럼 환자에게 이중고를 안겨줄 수 있다.<br/> 검사비를 대폭 할인해 주는 건강검진도 피해가 잠재돼 있다. 암 세포나 심?뇌혈관 문제를 발견하려면 정밀한 진단 장비로 검사한 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꼼꼼하게 판독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박리다매식의 저가 건강검진은 ‘오진’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br/> 다른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건강검진 비용을 대폭 낮춘 병원은 성능이 떨어지는 중고 CT나 MRI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촬영 후 판독이 힘들거나 판독 과정이 정밀하지 않을 수도 있다</span>”고 말했다.<br/>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암을 발견하지 못한 게 B씨 사례다. 2010년 당시 57세였던 B씨는 그해 3월과 2011년 3월 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이 포함된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두 차례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그러나 건강에 이상을 느껴 2011년 4월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말기였다. B씨는 항암치료를 받던 중 그 해 9월 사망했다. <b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이 B씨 측에 위자료 188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검진 당시부터 폐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흉부 방사선 사진의 화질 불량 또는 잘못된 판독으로 병원 측이 폐암을 진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br/> 의료계 전문가들은 병원의 진료비 할인 정책이 심화되면 적정 진료를 보장하지 못해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환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한다.<br/> 한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시장 논리에 따라 값싼 의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3'>결국 재수술을 받거나 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TV 등 특정 기업이 생산한 상품은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저렴하게 구매하면 소비자에게 이득이다. 하지만 전국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표준화하거나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진료비만 쫓아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br/> 한 의료계 전문가는 “<span class='quot0'>환자들에게 달콤한 유혹인 진료비 할인은 국민건강보험 재정까지 갉아 먹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보건 당국은 진료비 덤핑을 하는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span>”고 했다.<br/>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27.txt

제목: 식약처의 항생제 제조시설 관리에 구멍  
날짜: 20141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0710016641348  
본문: 교차오염 방지 위한 제조시설 분리<br/>약효 더 강한 페넴계엔 적용 안해<br/><br/><br/> <br/> 교차오염과 내성균 출현을 막기 위한 항생제 제조시설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9월 항생제 교차오염과 내성균 출현을 막기 위해 페니실린과 세파계 항생제는 제조시설 분리를 의무화했다. <br/> 하지만 이보다 더 약효가 강한 페넴계 항생제는 방치하고 있다. 페넴계 항생제는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하고 있어 더욱 관리가 시급하지만 분리생산은커녕 권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페넴계 항생제는 주로 암과 중증 질환 환자에게 투여되며, 국내에서 이를 제조하는 제약사는 유한양행, 종근당, JW중외제약, 제일약품, 하이텍팜 등 5개사다. <br/> 이동건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페넴계 항생제가 교차오염될 경우 고초열, 천식, 두드러기는 물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등 각종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유럽처럼 페넴계 항생제에 대한 제조시설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span>”고 했다. <br/>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최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span class='quot1'>페넴계 항생제의 제조분리를 빨리 의무화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span class='quot1'>유럽의 경우 약물 과민반응 유발물질인 페니실린은 물론 올해 8월 분리생산 규제대상을 모든 베타락탐계 항생제(페니실린, 세파, 페넴계를 포함)에 대한 시설분리를 권고하고 있어 우리도 이에 발맞춰 동등한 수준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span>”고 했다.<br/> 이에 대해 식약처는 “<span class='quot2'>페넴계 항생제 분리생산을 위한 전용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2015년에 진행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후반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논의해 페넴계 항생제 제조시설 분리 의무화를 결정할 방침이다. <br/>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식약처 조치가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연구용역에 1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1~2년이 걸려 유예기간 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4~5년 뒤에 시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식약처가 유럽에서 안전성 서한만 배포해도 해당 의약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했는데 이번 조치는 전형적인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br/> 유럽의 경우 페넴계 항생제 제조시설 분리의무화가 내년 3월 의무화되고, 미국과 일본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베타락탐계 항생제에 대한 시설분리를 권고하고 있다.<br/>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28.txt

제목: 정진성·백성희 교수 삼성행복대상  
날짜: 20141106  
기자: 이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06100000191  
본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6일 서울 삼성생명 콘퍼런스홀에서 2014년 삼성행복대상 시상식을 열고 서울대의 정진성(61ㆍ사진) 사회학과 교수와 백성희(44ㆍ사진) 생명과학부 교수 등에게 올해의 삼성행복대상을 수여했다.<br/> 삼성행복대상은 여성 권익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효행을 실천한 여성·단체·청소년에게 주는 상으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비추미여성대상(2001년 제정)과 삼성효행상(1975년 제정)을 계승해 작년부터 제정·운영하고 있다.<br/> 여성선도상을 받은 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와 결혼이주여성, 불가촉천민(인도 최하층 신분) 문제 등을 조사해 이들의 인식개선에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성창조상 수상자인 백 교수는 암 발생ㆍ전이 유전자와 이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규명해 암 조절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연구를 선도해왔다.<br/> <br/>이서희기자 shle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29.txt

제목: 폭탄·간판업체...탈세 요지경  
날짜: 20141106  
기자: 정광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06100000091  
본문: 대구지검 서부지청, 690억 포탈 고물상등 47명 적발<br/>신불자·극빈자 명의사장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br/>수수료 눈먼아들, 친아버지 수렁에 빠뜨렸다 동반구속...자수 바지사장 청부폭력도<br/> <br/>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6,900억원의 폐구리 유통사업을 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680여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폐구리사업자와 중고휴대폰수출업자, 자료상 등 47명을 적발해 2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br/>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ㆍ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폐구리 수집업자와 중고휴대폰 수출업자들로, 실제 영업활동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의 10%인 부가세를 탈루했다.<br/> 폐구리 등을 수집해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는 고물상들은 이를 매입하는 제련공장 측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위해 ‘폭탄업체’와 ‘간판업체’를 내세웠다.<br/> 폭탄업체는 작업장 한 켠에 컨테이너 사무실 등 형식적인 설비만 갖춘 뒤 매입자료는 전혀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6개월 정도 뒤에 거액을 체납하고 고의로 폐업시키는 업체다. 신용불량자나 극빈자 등에게 액면가의 3~4%를 수수료로 제공하며 바지사장(명의사장)으로 앉혔다. 간판업체는 제련회사 측이 폭탄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면 적발될 것을 우려해 계산서를 세탁하는 업체. 폐구리 등 실물은 수집상과 제련회사가 직거래하고, 계산서는 폭탄업체-간판업체-제련회사 순으로 발급됐다.<br/> 폭탄업체 바지사장은 대부분 신불자나 극빈자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말기암 선고를 받은 시한부 환자 2명도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수사 착수 전 숨졌다.<br/> 이모씨 부자는 2012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690억원의 허위계산서를 발급, 매달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서 폭탄업체 바지사장이 자수하려 하자 폭력배를 동원해 폭행하고 관련자료를 뺏기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다.<br/> 또 김모씨는 6개월간 1억5,000만원을 주겠다는 폐구리 수집상의 말에 현혹돼 건강이 좋지 않은 칠순의 친아버지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가 부자가 모두 구속기소, 패가망신을 당했다.<br/> 검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수사를 통해 부가세 6억원을 부정환급받으려는 시도를 막았고, 포탈 세금 687억원 환수의 계기를 마련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관내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범행정보와 수사 노하우를 제공해 지속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겠다</span>”고 말했다.<br/> <br/>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30.txt

제목: 6년 보험금 내고 두 달 연체돼 위암 보험금 못 받은 50대  
날짜: 20141103  
기자: 정재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03100000118  
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이영진)는 6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다 2개월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암보험 가입자 박모(57)씨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br/> 박씨는 2006년 계약일에서 90일이 지난 뒤부터 암 진단 및 수술을 받으면 3,500만원을 수령하는 A사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박씨는 2012년 1,2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 3월 계약이 해지됐다. 박씨는 5월 25일 연체 보험료를 내 계약을 다시 살렸고, 90일이 안 된 8월 16일에 위암 진단 및 수술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span class='quot0'>보험금 3,500만원을 지급하라</span>”고 주장했지만, A사가 “<span class='quot0'>3월에 계약이 만료됐다가 새로 시작돼 지급 의무가 없다</span>”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br/> 1심 재판부는 “<span class='quot1'>A사의 계약해지 예고부 최고서(통지서)를 박씨가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span>”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br/>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span class='quot1'>우편으로 발송된 예고부 최고서가 반송되지 않았고, 그 뒤 해지 통지서도 정상 수신했으므로 계약은 깨졌다고 봄이 타당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위암 진단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어서 박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span>”고 밝혔다.<b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31.txt

제목: 원전 암 발병 100여명 소송 예고  
날짜: 20141103  
기자: 전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03100000091  
본문: 1주일 새 80여명 참여…“피해액 인정 불만” 항소도<br/> <br/> 최근 고리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해 운영사인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유사 피해 주민들이 집단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본격 나섰다.<br/>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an class='quot0'>한수원의 보다 과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키로 했으며, 전국 핵발전소 지역에서 갑상선암 피해 사례를 접수 받아 이달 말까지 최종 100여명의 원고단을 구성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집단소송 원고 모집을 실시한 결과 1주일 만에 80명이 넘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했다. 대책위는 5일 열리는 피해자 공동소송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원고단을 구성할 예정이다.<br/>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이진섭(48)씨는 “<span class='quot1'>원전 주변에 수십년간 사는 주민들이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법원은 한수원의 책임을 피해액의 10분의 1만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했다</span>”고 말했다. <br/>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은경 변호사는 “<span class='quot2'>항소심에서는 고리원전에서 방출하는 방사선과 피해자의 갑상선암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져볼 것이며, 의학적인 결과 등을 통해 적극 인과관계를 밝혀내겠다</span>”고 말했다. <br/> 대책위는 “한수원 측이 법령에서 정한 연간 유효방사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발전소를 운영해 왔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다퉈 이에 대한 책임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br/> 한편 지난달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해 한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한수원 측은 “<span class='quot3'>갑상선암 발병률이 원전 주변지역 거주기간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역학조사 결과</span>”라며 즉각 항소했다. <br/> <br/>전혜원기자 iamjhw@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32.txt

제목: [지평선] 아름다움 그 이상의 손길  
날짜: 20141102  
기자: 정진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102100000064  
본문: 이태 전 서울 시내 한 냉면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다 노령의 부인 손을 꼭 잡고 부축해 승용차에서 내리는 한 여성에 눈길이 멈췄다. 인터넷에서 흔히 하는 말로 ‘우월적 유전자’, 외모 뒤로 비치는 후광(?)이 뚜렷했다. 드라마 대장금의 주인공, 한류스타 이영애(43)였다. 아마도 친모(親母)나, 시모(媤母)를 모시고 냉면집을 찾았던 게 아닌가 싶었다.<br/> ▦ 이영애가 남모르는 선행으로 언론을 탔다. 한국 관광 도중에 곤경에 처한 대만 산모를 도와 대만의 사회재단이 수여하는 세계생명사랑상을 받는다고 한다. 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난 대만 소년을 기념하기 위해 부모가 세운 재단으로 17년간 48개국 280명이 이 상을 받았다. 이영애는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병원비 곤란을 겪던 대만 산모에게 수술비와 입원비 전액을 지난 6월 몰래 지원했고, 이를 알게 된 대만 정부가 주한 대만대표부를 통해 최근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표부는 감사패 전달식 때 언론에 알리려 했지만 이영애가 말렸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눈치채지 못했다.<br/> ▦ ‘만인의 연인’인 오드리 헵번이 기아로 피골이 상접한 아프리카 어린이를 안은 사진은 인상 깊다. 그냥 만져도 툭 부러질 것 같은 어린이 손을 조심스레 만져보는 그의 가냘픈 손은 처연했다. 아름다움과 안타까움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그 사진들은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의 세계 어린이 구호활동에 일조했다. 1988년 마카오에서 열린 한 자선 콘서트에 초청된 헵번은 자신의 명성이 모금에 도움이 된 사실을 알고, 유니세프에 제안했다고 한다. 60세에 그 후 5년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서 세계 20여 개국을 누비게 된 계기다.<br/> ▦ 92년 9월 소말리아 방문 중 심상찮은 건강 이상을 알게 된 헵번이 석 달 뒤 그의 마지막 크리스마스이브에 자식에게 들려줬다는 미국 시인 샘 레벤슨의 ‘시간이 검증한 아름다움의 비결들’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나이가 들면 하나는 자신을 위해,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두 손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달 말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헵번 아동기금 주최로 열리는 그의 일대기 전시회 주제는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 그 이상을 보여주는 손길이 자주 언론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br/> <br/>정진황 논설위원 jhchung@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33.txt

제목: [건강소식] 유근영 교수, 대한예방의학회장에 올라 外  
날짜: 2014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3110016622060  
본문: 유근영 교수, 대한예방의학회장에 올라<br/><br/><br/> 유근영(사진)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예방의학회 정기총회에서 1년 임기의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유 교수는 아시아ㆍ태평양암예방기구(APOCP) 사무총장으로 국가단위의 암 관리와 예방에 힘쓰고 있다. 대한예방의학회는 1947년 조선보건학회로 창설된 이후 1953년 위생학회를 거쳐, 1958년 현 명칭으로 바꾸었다. <br/> <br/> 방문석 교수,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피선<br/><br/><br/> 방문석(사진) 서울대 의대 재활의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2014 대한재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2대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에 선출됐다. 방 이사장은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장과 주임교수를 거친 뒤 아시아태평양재활의학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br/> <br/> 종근당고촌재단 ‘제9회 고촌상’ 시상 <br/> 제9회 고촌상 수상자로 에티오피아 NGO단체인 리치 에티오피아가 선정됐다. 리치 에티오피아는 취약계층 결핵환자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연구와 예방교육을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45차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 연맹 세계총회에서 열렸다. <br/> <br/> 용인세브란스병원, 통증클리닉 열어<br/>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통증클리닉'을 열어 각종 급ㆍ만성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 치료에 나선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속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주 2회 진료와 시술을 시행하며 근육ㆍ관절 통증, 척추통증, 두통, 내장통증, 신경병증 통증, 암 통증 등 모든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한다. (031)331-8888 <br/> <br/> 삼성서울병원 식도질환클리닉 개설<br/> 삼성서울병원 소화기센터는 식도질환을 전문 치료할 수 있는 ‘식도질환 클리닉’을 열었다. 식도질환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는 식도질환 클리닉 전담 의료팀에게 진료를 받고 협진이 필요한 경우 다른 날 방문할 필요 없이 당일 해당과의 진료를 볼 수 있다. (02)3410-3000<br/> <br/> 한국애브비,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 선정돼<br/> 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홍기)는 국내ㆍ외 제약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4 즐거운 직장, 행복한 기업’으로 선정돼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한국애브비는 매월 두 번째 금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해 오후 4시 30분 퇴근을 독려하고, 직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배려해 왔다. 또한 육아나 자기 계발 등을 돕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도를 운영 중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34.txt

제목: 나락 반 잡초 반, 콤바인 옆에서 낫질..."친환경은 왜 헌다냐"  
날짜: 20141031  
기자: 한국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31100000116  
본문: 단풍철 주말 즐기러온 외지인 보며 인터넷 뒤지며 지름신과 싸우고<br/>새벽출정 즐기던 내 옛모습 떠올라<br/>나락 베기 끝난 논 바라보며...한여름 잡초와 혈투 벌이던 전쟁터가 정리되는 느낌, 시원 허무하달까<br/>자네처럼 친환경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하는 말에 으쓱도 잠시<br/>잡초로 콤바인 작업 안된다는 말에 부리나케 달려가 낫질이라니<br/>"약 쓰고 비료 뿌리고 남들처럼 혀" 작년 3분의2 소출에 안쓰런 시선들<br/>"다른 농사 잘됐잖아" 아내까지 위로...초보 농군에 대한 地神의 경고일까<br/><br/><br/><br/><br/> <br/> 안개가 며칠째 아침 구례를 채우고 있다. 거둬들여 말리고 때려서 추려야 할게 잔뜩인데 아침마다 들판은 여자들이 부러워 할 만큼 촉촉하다. 오토바이도 그랬다. 미처 닦아내지 못하고 앉은 오토바이 의자에서 온몸으로 소름이 번졌다. 반사적으로 엉덩이를 들썩해 봤지만 늦었다. 헬멧에도 뿌옇게 물기가 내려앉아 안면 마스크를 내리지도 못하고 실눈을 뜬 채 서둘러 나섰다. 온갖 잡새들이 농장에 베어 놓은 들깨더미 위에 앉아 조찬을 즐기고 있으리란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 <br/> 길을 나서니 못 보던 차들이 늘었다. 맞다. 단풍철에 주말이구나. 집을 통째로 끌고 다니는 차도 보이고, 지붕에 몸채만한 짐칸을 따로 얹은 차들도 보였다. 애쓴다 싶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 역시 저러고 다니고 싶어서 인터넷을 뒤지며 지름신과 싸웠다. 꽃철이나 단풍철이면 밤새 배낭 꾸리면서 기꺼이 새벽 출정을 즐겼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나는 그 때만 해도 눈에 없던 현지인이 됐고, 이제 그들은 내게 성가신 외지인이었다. 내 마음이 급했지, 급할 게 없는 그들은 거북이 놀이를 하면서 차선을 막기 일쑤였다. 치미는 욕을 누르며 단전에 힘을 모았다. ‘참자. 오늘은 중요한 날, 경건한 마음가짐을 유지하자. 창고에 나락 쌓는 좋은 날이니...’<br/> 농장에 도착하니 간전댁할머니가 와 계셨다. 예전엔 “농장 안 델꼬 가면 걸어서라도 갈라요” 하시더니, 이젠 협박 절차도 없이 그냥 오시기로 한 건가. “할머니! 말씀도 없이 언제 오셨대요!” 멀리서 걸어가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할머니는 특유의 미소만 지으신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뻔히 안 들릴 줄 알면서 ‘나 핑계 대는 중이야’ 하시는 듯 하다. <br/> 가까이 다가가 다시 여쭈니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잠이 와야 말이지. 선재네 오늘 나락도 담아야 하는데 들깨 두드릴 새가 어디 있으까 싶어 밝아진 담에 슬슬 걸어왔어요.” 예상했던 이유를 둘러대며 반나절거리 일을 마무리 하고 계셨다. “나락은 오후에 담을 건데 뭘 걱정하셨대요. 얼른 모셔다 드릴게 장갑 벗고 내려가시게요.” 깻단 묶으시던 끈을 당겨 뺏으며 팔순 노인네와 힘겨루기를 했다. 펼쳐놨던 천막을 접으며 “나락이 션찮은데 작년만큼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했더니 할머니가 정색을 하신다. “작물들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랍디다. 나(작물)한테 언제 밥 줬냐고 그런대요.” 혼내시는 듯 했다. ‘나락은 저쪽에 널어놔서 안 들릴 텐데...’ 했지만 결과에 욕심내지 말라는 말씀일거다. 하늘이 하는 일 일뿐.<br/> 엊그제 나락 베던 날, 오후에 하자던 콤바인(벼를 베서 낟알을 터는 일까지 한 번에 해주는 기계) 작업을 조금 일찍 시작하겠다고 S형님이 전화했다. 작업 예정 시간까지 두어 시간 남아서 여유부리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니 당황스러웠다. “형님, 안 돼요. 아직 덕석(멍석)도 안 깔아 놨는데요.” 나락을 말릴 곳에 그물처럼 생긴 긴 천막을 깔아놓아야 하는데 아직 차에 실려 있었다. 몇 차례 저항해 봤지만 형님은 그냥 하자고 밀어 부쳤다. “큰 논 먼저 작업헐테니께 덕석 깔고 있어. 애기 엄마가 나락 싣고 자네 있는 데로 가면 같이 부어버리면 되야. 지금 못허면 사흘은 밀려야 허니께.” 약간 꼬이는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나쁜 생각 않기로 했지 않은가. 순순히 말을 들었다.<br/> 부리나케 덕석을 깔았다. 작년 겨울, 쥐가 뚫어버린 덕석 빼고 세 개 밖에 없어서 장씨 아저씨한테 두 개를 더 빌려 아스팔트 농로가에 자리를 마련했다. 아내를 부를 새도 없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깔개의 선을 맞추고 각을 잡으니 장화 바닥이 뜨뜻해진다. 맥주랑 마른안주 몇 가지 사서 큰 논으로 달려갔다. 가운데 큰 코딱지만큼 빼고 논은 거의 다 바닥을 드러냈다. 한 여름 잡초와 혈투를 벌이던 전쟁터가 말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다. <br/> 트럭 그늘 바닥에 앉아 캔맥주를 한 모금 들이킨 S형님은 재작년부터 시작된 질문을 또 했다. “암것두 안 했는가?” 농약을 안 쳤냐는 뜻이다. “예. 영양제랑 해충기피제 같은 건 만들어서 쳤죠.” 대답했더니 옆에서 땅콩만 드시던 형수님이 대화에 들어섰다. “<span class='quot0'>약값(농약) 안 들고 좋겄네요.</span>” 형님은 정색을 하며 말을 가로챘다. “약값 안 든다고 좋기만 하겄는가. 풀 땜시 고생허는 생각은 안 허고? 아직도 풀이 솔찬히 많이 있구마. 저거 내년에도 또 날 거인디 그러지 말고 약 혀. 쩌그 윗마을 김씨도 여름에 풀약(제초제) 치는거 봤는디 이 참에 친환경 검사했어도 통과했드구마.” 형수님도 하실 말씀이 있었다. “약값 덜 들고 쌀 비싸게 팔면 괜찮은 거 아닌감? 그리고 김씨네는 약 친 나락 검사한 게 아니라 그 옆 다랑지에서 검사했다는데 뭘.” 주제가 옮겨 가고 목소리는 높아졌다. “그 옆 다랑지에도 약 치는 거 봤다니께! 알지도 못하면서 딴 소리여.” “옆 논은 약 안 쳤대요! 약을 친 논에서 검사하면 워쩌케 친환경 검사를 통과헌데요.” 형수님이 눈을 흘겼지만 형님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치는 거 봤다니께! 본 사람이 알지 안 본 사람이 알겠는가!” “그 양반이 안 쳤다니께 허는 말 아니래요! 검사해도 약 안 나오면 그 비싼 검사를 왜 하고 돌아 댕긴대요! 우리 논도 확 쳐부러야 되겄네.” “이 사람 쓸데없는 소리 허네. 얼릉 나락이나 부리고 와!”<br/> 여기 저기 ‘친환경’ 글씨를 새긴 깃발과 간판은 많지만 실제도 환경이랑 친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랑 지자체가 몰아가고 이런 저런 보조금도 준다고 하니 너도 나도 신청해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키는 대로 하면 생산량은 줄어들고, 정부가 조금 비싸게 수매한다고 해도 차액이 보전되지 않았다. 친환경농사 짓는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손해 보면서 농사지을 만큼 여유가 있겠는가. 잔류 농약 검사 인력도 모자라서 돌아가며 하다 보면 20년에 한 번 검사하게 된다는 말도 있으니, ‘그냥 농약 칠만큼 치다가 걸리면 그만’이라는 얘기가 도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어쨌든 “자넨 힘들어도 함 친환경으로 계속 해보소. 제대로 허는 사람도 있어야 헝께.” 형님 말씀에 어깨가 으쓱거리고 턱이 앞으로 쭉 나왔다.<br/> 덕설 깔아 놓은 데로 와서 나락을 쏟아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작은 논 마저 베러 간 S형님이었다. “나락을 벨 수가 없잖여! 풀은 많고 키가 작으니께 제대로 안 잘린다 말이시! 자네가 낫으로 베던지 알아서 혀” 잽싸게 튀어갔다. 작은 논에는 '방동사니'라는 풀이 그물처럼 번졌었다. 뽑고 자르고 한다고 해봤지만 벼를 휘감고 도는 놈들을 다 해결하지 못했던 터였다. 콤바인으로 잘라지지 않은 벼를 낫으로 베어 모았다. 콤바인 옆에서 낫질,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이란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다. <br/> 이틀간 당그레질하며 말린 나락을 담기 시작했다. 농사일이 다 힘들지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말린 나락 포대에 담아 창고에 넣는 일이다. 건조기에 말려 담으면 좋겠지만 돈도 돈이고, 쌀 맛이 없다고 했다. 양보다 질에 목숨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몸 고달픈 건 당연하다. 신식 기계보다는 어르신들의 몸 쓰는 방법이 더 좋기도 하다.<br/> 세 포대쯤 담는데 느낌이 안 좋다.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작년만큼은 안 될 성 싶었다. ‘미리 계산하지 말자’ 생각하며 이장님댁 막내랑 담고 있는데 뒷목이 따끔하더니 꿀벌 한 마리가 눈앞으로 지나갔다. “아 이 확! 재수없이...” 뒤통수 때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니었다. 그 때 J형님이 내려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나락 담을 때 전화 허랑께! 내 이럴 줄 알고 걍 와 봤네.” 공사 현장에서 석축 작업하다가 팔꿈치를 다쳐서 한의원에 침 맞으러 다니면서도 도와주겠다고 팔을 걷는다. 잠시 후 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 사장까지 수를 늘리며 거든다. “형님, 나 이런 일 하는 거 좋아해요. 나도 촌놈인디요.” 하루 쉬는 날인데 돕고 싶다고 나왔다. 고마워서 벌에 쏘인 것도 까먹었다. <br/> 기운도 나고 기분도 업되니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 헌데 빨라도 너무 빨랐다. 제대로 된 나락이 거의 없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심했다. “나락 어디다 숨겨놨냐?” 포대 옮겨주겠다고 나타난 이장 친구가 트럭에서 내리면서 의아해 했다. 애써 웃는 척 했지만 허탈했다. “<span class='quot0'>유헌아, 올해 나락 다 잘 됐다고 허는디 넌 왜 그냐?</span>” J형님이 안타까운지 말을 이었다. “긍게 친환경 허지마. 약도 치고 비료도 뿌리고, 넘들처럼 허믄 되는디 멋 헌다고 애써 풀 잡고 근다냐. 올해 나락 안 된 놈은 농사 그만 지어야 헌다고 그러더라.” <br/> 창고에 넣고 보니 나락 포대가 소박하다. 작년 소출의 3분의 2였다. 박사장이 전화를 했는지 제수씨까지 집으로 와 이리 저리 뛰어다니느라 기운 빠진 아내를 도와가며 맛 집 솜씨로 식탁을 차렸다. “<span class='quot0'>모자란대로 회원들 먼저 보내고 우린 사 먹지 뭐.</span>” 어색하게 웃는 나를 안쓰러워하며 술잔을 같이 비워줬다. 오랜만에 생선회 맛도 보고, 매운탕 국물도 잘 넘어갔다. “<span class='quot0'>다른 농사 잘 됐으니 안 되는 것두 있겠지 뭐.</span>” 아내도 속이 쓰린지 혼잣말처럼 나를 위로했다. 어디선가 읽었던 글귀가 생각났다. ‘애써 기운내지 않아도 괜찮아. 힘들 땐 힘들어 하면 되는 거야.’ 위로가 되는 말이다. 서운한 마음도 가라앉는다. 아마도 농사 좀 알게 됐다고 떠드는 건방을 막아주려 지신(地神)께서 경고하신 듯 하다.<br/> 다시 기분을 추스리고 한 잔 하는데 목에 까실까실한 게 걸린다. 조금 전 매운탕 건더기를 홧김에 삼킨 게 걸렸나 보다. “칵, 카악” 아무리 해도 튀어나오질 않는다. “핀셋 가져와 볼까? 아니면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해봐.” 아내 말에 일어서다 의자 다리에 복숭아 뼈를 냅다 부딪쳤다. <br/> “아 참. 오늘은 머 이리 되는 게 없냐. 카~아악!”<br/> <br/>前 한국일보기자 cameragaga@naver.com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35.txt

제목: 말기암 美 여성이 택한 존엄사…당신의 생각은  
날짜: 20141031  
기자: 신지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31100000086  
본문: "가족·친구 곁에서 애창곡 들으며 행복하게 세상과 작별하고 싶어"<br/>6개월 선고받고 예고 동영상, 유튜브서 880만 조회 수 화제<br/>외신들 "존엄사 확대 계기됐다" 일각선 "스스로 생명 포기 안 돼"<br/><br/><br/><br/><br/>http://youtu.be/yPfe3rCcUeQ<br/><br/> 미국의 말기암 환자 브리트니 메이나드(29)는 최근 유튜브에 띄운 동영상으로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여명 6개월 선고를 받은 그는 11월 1일 남편 곁에서 약물을 먹고 스스로 죽는 ‘존엄사’를 실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br/> 메이나드는 예고한 죽음을 사흘 앞두고 CNN과 인터뷰를 했다. “나는 현재 충분히 기분이 좋은데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고 있다. 지금은 (존엄사를 시행할)적기가 아니지만 매일 더해지는 고통의 크기를 봤을 때 그날을 곧 맞이할 것 같다.” 예고했던 날짜는 연기했지만 여전히 그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br/> 뇌종양 말기인 메이나드가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 대신 담담히 죽는 쪽을 택한 건 지난 달 초. 메이나드의 죽음은 남편과 부모 그리고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자택 침대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노래를 틀어놓은 상태로 행복하게 세상과 작별하는 게 바람이라고 했다.<br/> 메이나드는 지난달 14일 존엄사 인정 확대를 주장하는 ‘연민과 선택’이라는 단체의 도움으로 자신의 심경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영상에서 메이나드는 “한 달 여간의 조사 끝에 나와 우리 가족은 가슴 찢어지는 결정을 내렸다”며 “나를 살릴 치료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게 남아있는 시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지도 않다”라고 존엄사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br/> 2012년 결혼한 메이나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았다. 외신에 따르면 메이나드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봐 온 남편과 가족들은 한 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결국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메이나드의 남편은 그녀의 편안한 죽음을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존엄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오리건주로 이사하는 데 동의했다. 메이나드의 어머니 데비 지글러도 “내가 그녀에게 어떻게 살지를 얘기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그녀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 말 할 권리가 없다”라며 그녀의 선택을 지지했다.<br/> 메이나드의 결정은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존엄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전세계에 환기 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존엄사는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의 동의 아래 약물을 주입해 생을 마감케 하는 안락사와는 다르다. 6개월 미만의 시한부 환자가 의료진의 진료를 거친 후 처방된 약물을 스스로 먹거나 주입해 죽는 방식이다.<br/> 메이나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으로 그는 존엄사 확대 운동의 대변인이 됐다고 외신들은 평가한다. ‘연민과 선택’은 최근 880만 조회수를 얻은 메이나드 영상에 대해 “<span class='quot1'>캘리포니아와 미국의 다른 주에서 존엄사를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span>”라고 설명했다.<br/> 하지만 일각에서는 “존엄사는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며 확대 금지를 주장한다. 미국의 유명 교회 중 하나인 갈보리채플의 데이브 왓슨은 “<span class='quot2'>나는 그녀의 결정이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을 안다</span>”라면서도 “<span class='quot2'>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죽을 권리를 논할 수는 없다</span>”고 CNN에 말했다.<br/> 미국에서는 1994년 오리건주를 포함해 버몬트, 몬타나, 워싱턴, 뉴멕시코주 등 다섯 곳이 존엄사법을 제정했다. 오리건주에서는 지금까지 1,170명이 존엄사를 신청해 승인 받았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실행에 옮겼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유럽에서도 존엄사 관련 법이 제정돼 있거나 이를 묵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br/> 메이나드는 현재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존엄사를 결정한 후 두 번의 발작을 겪었고 남편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때도 있었다. 지난달 25일 죽기 전 해 보고 싶다고 작성한 목록의 마지막에 있던 그랜드캐니언 여행을 마친 뒤에도 발작과 두통 등으로 한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메이나드는 CNN 인터뷰에서 “내 목표는 존엄사 관련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서 “모든 미국인들이 이와 같은 건강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 되고 싶다”라고 거듭 ‘죽음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br/> 신지후기자 hoo@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36.txt

제목: "세계적 경쟁력 3~4개 분야 육성해 의료한류 선도"  
날짜: 201410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3110016622092  
본문: 조혈모세포이식 건수 세계 5위 / 국내 각막이식 수술 50% 담당<br/>아부다비 건강검진센터 이어 두바이에도 2호점 개설 계획<br/><br/><br/> <br/> “최근 어려운 국가 경제와 함께 저(低)수가와 의료보장이 강화되면서 여러 대학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으로 글로벌 리딩 병원으로 도약하겠습니다.”<br/> 지난달 1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아 2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승기배(59) 서울성모병원 원장의 각오다. 승 원장은 이를 위해 조혈모세포 이식센터(BMT센터), 안과, 심뇌혈관, 암, 장기이식센터 등을 발전시키도록 인력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br/> 서울성모병원이 자랑하는 BMT센터는 국내 최초로 조혈모세포이식 5,000건을 돌파했다. 세계 5위에 오를 정도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독보적인 성과다. 안센터는 각막이식수술을 국내 처음으로 성공하고, 국내 연간 50% 이상의 이식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다. 심뇌혈관 수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적정성 평가를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으며, 이식센터도 콩팥이식 2,400건, 간이식 850건 이상을 돌파했다. 세계 최고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분야를 최소한 3~4개 이상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게 승 원장의 복안이다. <br/> 승 원장이 던진 승부수는 해외 의료진출과 해외 환자 유치다. 치열한 경쟁에다 보험수가 인하 등의 영향으로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한 이른바 ‘빅 5’ 병원의 수익성은 날로 떨어져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는 곳이 적지 않다.<br/> 승 원장은 위기가 새로운 기회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새로운 기회의 하나가 바로 중동 진출이다. 승 원장은 “<span class='quot0'>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 건강검진센터와 암센터에 이어 두바이에도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해 ‘의료 한류(韓流)’를 주도하겠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12월에 아부다비 건강검진센터 본 계약과 암센터를 짓기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것</span>”이라고 귀띔했다. 아부다비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할 직원의 1차 파견 준비도 끝냈다. 24명 모집에 무려 125명이 지원해 건강검진센터의 인기를 실감했다. 파견 직원에게 두 배 이상의 월급과 숙소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br/> 승 원장은 “<span class='quot0'>요즘 병원들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비롯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삭감 등으로 경영에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0'>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 창출로 이를 돌파하겠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아부다비 건강검진센터는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를 계기로 두바이에 2호점도 내 중동 건강검진 시장 진출에 선두주자가 되겠다</span>”고 덧붙였다.<br/> 승 원장은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제진료센터를 만들어 예약ㆍ진료ㆍ수납등 모든 진료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한 결과, 2012~2013년에 해외 환자가 30% 이상 증가한 데다 올해에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br/> 특히 서울성모병원은 아랍권 환자 유치에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병원 외국인 환자 수익 중 UAE 입원 환자 수익이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들 환자의 80%는 중증질환자로 환자 1인당 평균 6,000만원에서 최고 3억원의 진료비를 낼 정도다. 서울성모병원이 가톨릭 재단 소속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아랍권 환자들로 넘치는 이유는 특화된 조혈모세포이식 기술과 세심한 서비스 덕분이다. 백혈병이나 아랍인에게 유독 많은 지중해성 빈혈 치료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br/> 하루 평균 40여명의 아랍권 환자가 진료를 받을 정도여서 서울성모병원 1층 로비가 두바이 국제공항 같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게다가 가톨릭 병원 특성상 병실마다 걸려있던 십자가를 아랍 환자를 배려하기 위해 떼냈다. 아랍 여성환자가 입원한 병실에는 ‘남성들은 출입하지 말아달라’는 안내판도 붙였다. 수시로 ‘할랄’(이슬람교 기준을 통과한 음식) 품평회를 열어 환자와 보호자의 입맛에 맞는 아랍 식단을 내놓고 있다. 승 원장은 “<span class='quot0'>무슬림을 위한 이 같은 배려가 알려지면서 지난 2월 한국을 찾은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니흐얀 아부다비 왕세제가 병원을 다녀가기도 했다</span>”고 자랑했다.<br/>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새겨진 배지를 오른쪽 가슴에 단 승 원장은 인터뷰 내내 ‘가톨릭 이념’을 강조했다.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살핀다’는. 이를 바탕으로 육체적 치료는 물론 마음의 치료까지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 고객감동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승 원장은 “<span class='quot0'>다른 대형 병원에서 환자 행복을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성모병원의 설립 취지가 바로 환자의 행복</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환자 행복은 우리가 원래부터 내세우는 모토</span>”라며 웃었다. 이런 가톨릭 이념에 따라 서울성모병원은 환자 만족도와 진료서비스의 일류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종합병원을 포함한 29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서비스품질지수에서 서비스 업종의 집약체인 호텔이나 항공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br/> 승 원장은 1981년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한 뒤 순환기내과교실 학과장, 심혈관센터장, 대한심장학회 중재시술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지난 20년간 1만건 이상의 심장질환 관상동맥성형술(스텐트 삽입술)을 시술한 심혈관 질환 치료의 권위자다.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200여건의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급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제1저자로 참여한 ‘관상동맥 좌주간지 병변에 대한 경피적 스텐트 시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수술의 비교’ 논문은 세계적 권위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게재되기도 했다.<br/>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37.txt

제목: 국내 연구진, 자궁경부전암 치료백신 세계 첫 개발  
날짜: 20141030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30100000139  
본문: 임상환자 78% 완치 확인, 수술 하지 않고도 치료 길 열려<br/>임상 거쳐 2017년 상용화<br/> <br/><br/><br/> 백신을 맞아도 소용 없고 부작용이 많은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던 자궁경부전암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개발했다.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환자의 78%에서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br/> 포스텍 생명공학과 성영철, 제일병원 산부인과 김태진 교수 공동연구진은 30일 “<span class='quot0'>자체적으로 디자인한 합성 유전자(DNA)를 국내 자궁경부전암 후기 환자 9명에게 투여한 결과 7명에서 암의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가 완전히 제거되고 병변이 치료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추가 임상을 거쳐 2017년이면 상용화가 가능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자궁경부전암은 HPV가 다른 조직으로 퍼지지 않고 자궁경부에만 머물고 있는 상태다. 자궁경부암의 초기라고 보면 된다. HPV에 감염된 환자의 약 14.1%가 자궁경부전암으로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 2006년 개발된 뒤 세계적으로 접종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궁경부암은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백신이 이미 HPV에 감염된 사람에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는다. 국내 전체 여성(약 2,500만명) 중 17.6%(약 440만명)가 HPV에 감염돼 있다.<br/> 자궁경부전암 환자는 자궁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원추절제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원추절제술 후엔 자궁 조직이 들러붙거나 조산, 유산 위험이 커지는 등 여러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자궁경부암 역시 항암치료와 수술을 병행해야 한다. 이번 기술이 상용화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자궁경부전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리게 된다.<br/> 연구진이 개발한 합성 DNA는 환자의 체내에 들어가 ‘다기능 킬러 T세포’를 증가시키고 활발히 활동하도록 만든다. 면역세포의 일종인 킬러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신의 세포나 암세포를 골라내 파괴한다. 화학 작용으로 정상 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 간접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합성 DNA를 연구진은 ‘치료백신’으로 정의한다.<br/> DNA 같은 생체물질로 면역체계를 조절해 병을 치료하는 기술은 최근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추세다. 성 교수는 “<span class='quot1'>상용화한 치료백신은 아직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선 기술을 보유한 만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자궁경부전암 치료백신이 출시되면 비싼 접종 비용에 비해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지 않는 기존 자궁경부암 백신의 경제성도 재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br/>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38.txt

제목: "술 마시고 이 안닦고 자면 위험"  
날짜: 20141030  
기자: 손현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30100000188  
본문: 술을 마셨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양치질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겠다. 입 안에 발암물질이 남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과도한 음주 피해를 막기 위한 ‘건강을 지키는 음주 노하우’를 소개하며 “<span class='quot0'>술을 마신 뒤 이를 닦지 않고 잠들면 구강과 식도에 암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양치질을 하고 자는 게 좋다</span>”고 권고했다.<br/> 김희선 주류안전관리기획단 연구관은 “입안의 침 속에는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로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 그냥 잠들면 발암물질이 입안에 남아 구강 점막과 식도 등에 암이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 또한 식약처는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에게는 술을 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1'>알코올 해독과정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을 분해하는 기능이 약한 체질의 사람은 얼굴이 빨갛게 변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런 이들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술을 권하면 안된다</span>”고 강조했다. 술은 세간의 통념처럼 자꾸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 음주량이 늘지만 알코올 분해가 잘 안되는 사람은 유해한 독성물질의 섭취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br/> 또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태아는 더 짙은 농도로 더 오래 알코올에 노출돼 신경관 결손이나 성장지체 등의 기형이 나타날 수 있다며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br/> 숙취 해소를 돕는 음식으론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콩나물국, 유해산소를 없애는 메티오닌이 풍부한 북엇국,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타우린이 풍부한 조갯국 등이 소개됐다. 알코올 분해과정을 돕거나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를 촉진하는 꿀물, 유자차, 녹차 등도 좋다.<br/> 손현성기자 hsh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39.txt

제목: 부산 홍게ㆍ낙지 중금속 기준 초과  
날짜: 20141030  
기자: 전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30100000100  
본문: ‘환경과 자치연구소’ 샘플 조사…“카드뮴, 최고 2배까지”<br/> <br/> 부산에서 유통되는 홍게와 낙지 등 일부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br/>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 ‘환경과 자치연구소’는 부산의 대형할인점 3곳, 재래시장 3곳, 수산물 전문점 1곳에서 파는 대게·홍게·꽃게·낙지, 4개 수산물 32점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br/> 특히 홍게 내장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고 1.4배에서 2배까지 검출됐다. 연구소는 시민 식습관을 고려해 살과 내장을 분리해 카드뮴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살코기는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 이내였지만 내장은 6개 샘플 중 2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지 내장에서도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2.3배 높았다.<br/> 카드뮴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 신장과 뼈에 손상을 주고 암을 일으키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이다. 하지만 홍게, 대게, 킹크랩 등 일부 갑각류는 내장에 함유된 카드뮴의 식품안전 기준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br/> 연구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꽃게에 대해서만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즐겨 먹는 대게, 홍게, 킹크랩 등이 제외된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향후 모든 수산물에 대해 중금속 기준치를 마련해야 한다</span>”고 지적했다. <br/><br/>전혜원기자 iamjhw@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40.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알면 유익한 암병원 가이드’ 교육 개설 外  
날짜: 201410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9100000044  
본문: ●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알면 유익한 암병원 가이드’ 교육 개설<br/>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암교육센터가 최근 처음 암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알면 유익한 암병원 가이드’ 교육을 개설했다. 교육을 통해 암에 대한 이해, 검사 방법, 치료 방법, 암과 관련한 병원 시설과 프로그램,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 방법 등 처음 암을 진단 받은 환자와 가족들이 암 치료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암 진단 환자가 아니어도 무료 수강 가능하다. 교육은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11시~12시까지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지하1층 암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02)3410-6603)<br/> <br/> ● 중앙대병원, 11월 5일 ‘전립선비대증’ 건강강좌 개최<br/> 중앙대학교병원은 11월 5일 오후 1시부터 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전립선비대증’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전립선비대증의 올바른 관리와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블루애플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건강강좌에는 비뇨기과 김진욱 교수가 강사로 나서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증상과 치료는 물론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과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02)6299-2219<br/> <br/> ● 한국유방암학회ㆍKLPGA, ‘핑크리본 캠페인’ 전개<br/> 한국유방암학회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 남촌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B금융 스타챔피언십’을 통해 유방암 인식 향상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회는 대회에 참여한 선수를 위해 직접 제작한 핑크리본을 배포했고 선수들은 이를 패용하고 경기에 참여해 유방암 극복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대회를 관람하는 갤러리들의 유방암 인식 향상을 위해 핑크리본 캠페인 부스를 개설해 유방암 관련 퀴즈, 자가검진법 강습 등을 진행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41.txt

제목: [채널선택] 건강 적신호, 햇빛쬐기로 해결  
날짜: 2014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8100000089  
본문: 생로병사의 비밀-햇빛 충전 99%(KBS1 밤 10.00)<br/><br/><br/> 자외선이 피부암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야외활동을 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시간 실내생활을 하며 햇빛을 과도하게 피하면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고 우려한다. 햇빛을 쬐어야 생성되는 비타민D가 부족해지면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혈압과 면역력 등도 영향을 받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는 것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D는 뼈와 근육 외에 호르몬의 합성과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 조절, 암 예방 또는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진이 평소 햇빛을 쬐지 않는 40~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햇빛 쬐기 실험을 진행해 몸의 변화를 분석한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42.txt

제목: 암이 앗아간 가슴, 외과+성형외과 협진으로 되돌린다  
날짜: 20141027  
기자: 송강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7100000067  
본문: 이화의료원 등 몇몇 병원서 암 절제와 유방 재건 동시 시행<br/>두 번의 전신마취 수술 피하고 여성성 상실 기간도 줄여<br/>"병원 입장에서도 힘은 들지만 환자 위한 도전 성취감 커"<br/><br/><br/> <br/> “<span class='quot0'>뱃살 조직이 부족해서 자가조직재건은 안 되겠는데요.</span>”(임우성 교수)<br/> “등살 조직도 부족해요. 코젤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서현석 교수)<br/> 서울 양천구 목동 이화여대의료원의 한 작은 회의실. 이 병원 유방암센터 임우성 교수와 성형외과 서현석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머리를 맞댄 채 주고받는 말이다. 한 유방암 환자에게 유방 전절제와 재건을 동시에 시행하는 ‘유방 동시재건술’을 하려는데 유방 재건에 필요한 자가조직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어떤 차선책을 택할지 논의하는 것이다.<br/> 유방암에 걸렸다는 진단이 떨어지기 무섭게 유방을 전부 잘라내던 시절이 있었다. 암 재발의 공포 때문이었다. 요즘은 달라졌다. 미용 목적 뿐 아니라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유방을 최대한 보존하자는 흐름이다. 한국유방암학회 조사에 따르면 2000년 27.9%에 머물던 유방부분절제수술 비율이 2012년 67.2%로 치솟았다. 유방암 진단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유방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유방암환자의 재건수술이나 종양성형수술도 점차 보편화하고 있다. 같은 학회의 조사 결과 2000년 총 99건이던 유방재건수술이 2012년 910건으로 늘었다.<br/> 그럼에도 유방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임우성 교수는 “<span class='quot1'>유방이나 흉벽에 고용량 방사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임신 중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유방보존술 후에도 암 세포가 남아 있을 것으로 의심되면 유방을 모두 절제하는 유방전절제술을 받아야 한다</span>”고 했다. <br/><br/><br/><br/> 유방전절제 시 유방의 피부와 유두를 모두 제거한다. 여성성 상실에 따른 환자들의 정신적ㆍ신체적 상실감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유방암 판정을 받은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성의 상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br/> 유방재건술은 전절제술을 통해 잃은 유방을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유방을 만드는 재질에 따라 자가조직과 인공보형물로 나뉜다.<br/>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은 유방확대 수술에서 사용되는 실리콘 보형물을 암세포가 제거된 빈 공간에 채워서 반대쪽과 모양을 맞추는 것이다. 보형물 재질로는 실리콘젤 중에서도 점성을 높인 코젤(코헤시브젤)이 요즘 많이 쓰인다. 유방전절제술 후 피부가 남아 있다면 피부 밑으로 보형물을 넣으면 되지만, 피부까지 절제된 상태라면 보형물이 들어갈 만큼의 조직을 확장한 뒤 가슴을 인공적으로 만든다. 자가조직 이식보다 수술 시간이 짧고 상처가 작은 것이 이점이지만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고 방사선 치료 시 보형물의 변형이 올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br/> 자신의 신체 일부 조직을 이용한 자가조직재건술은 주로 배와 등에 있는 조직을 이용하는데, 뱃살이 가장 흔하다. 자신의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느낌이 적고 보다 자연스러운 모양의 가슴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점이다. 수술의 난이도가 높은 데다 4~5시간이 넘는 오랜 수술 시간으로 인해 모든 병원에서 두루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br/>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동시재건술은 5cm 크기의 최소 절개로 피부와 유두를 보존하면서 유방 암 세포를 제거하고, 복부근육과 지방조직을 이용해 유방조직을 동시에 재건하는 수술이다. 기존의 복부의 혈관줄기를 끌어 오는 이른바 ‘유경피판술’이 아닌, 현미경을 이용해 피판조직의 혈관을 직접 내유동맥에 연결하는 고난도 술기를 요한다. 피판술이란 암세포 제거 등으로 인해 결손된 부위에 체내 다른 정상 조직을 혈액이나 신경을 포함해 통째로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암제거 수술 후 발생된 부위에 다른 정상부위의 혈관을 포함한 조직을 이식하는 수술입니다암제거 수술 후 발생된 부위에 다른 정상부위의 혈관을 포함한 조직을 이식하는 수술입니다암제거 수술 후 발생된 부위에 다른 정상부위의 혈관을 포함한 조직을 이식하는 수술입니다서현석 교수는 자가조직 동시재건술에 대해“<span class='quot2'>지방조직의 괴사가 거의 없어 미용적 효과가 뛰어나다</span>”고 했다.<br/> 유방재건술은 절제 시점에 따라 즉시재건과 지연재건으로 나뉜다. 지연재건은 암 덩어리를 제거한 뒤 암세포의 잔존 여부를 확인한 뒤 시행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방법이다. 반면 유방 절제 시 자신의 남은 유방 피부 조직을 쓸 수 없다 보니 재건 뒤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게 흠이다. 이에 따라 유방암 환자들은 종종 공포의 암세포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감을 누릴 것인가, 보다 예쁜 가슴을 가질 것인가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방재건에 대한 만족도는 즉시재연 쪽이 되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술 전의 기대감이 그만큼 높았던 때문으로 분석됐다.<br/> 이화의료원 등 몇몇 병원에서는 유방암 절제와 동시에 유방 재건을 하는 유방동시재건을 하고 있다. 외과 전문의가 유방암 암세포를 잘라내는 동시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유방을 재건함으로써 유방의 암세포 제거와 재건을 한 번에 끝내는 방식이다.<br/> 유방절제술 뒤 시차를 두고 재건술을 받게 되면 환자들은 가슴이 없는 기간 동안 여성을 잃었다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데다 두 번의 전신마취수술을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유방동시재건술은 환자들의 이런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주자는 취지다. 서 교수는 “<span class='quot2'>자가동시재건술은 유방에 남는 흉터의 길이가 짧고 유방의 모양이 자연스럽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2'>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시행해야 한다</span>”고 했다.<br/> 유방동시재건술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진료과 의사 간의 협진 시스템이다. 이는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진료 과를 앞세우는 전통이 뿌리깊다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수술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과의 의료진이 일정과 손발을 맞춰 치료계획을 세우고 수술을 해내야 하는 어려움의 연속인 때문이다. 한 환자의 유방동시재건을 위해서는 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팀을 이뤄 5시간 이상 땀을 쏟아야 한다. 임 교수는 “<span class='quot1'>바쁠 때는 내가 위쪽에서 절제를 하고 서 교수가 밑에서 성형을 동시에 한다</span>”고 했다. 서 교수는 “<span class='quot2'>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고 1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는 일이라 병원 입장에서도 돈 되는 일이 아니다</span>”라면서 “힘든만큼 도전감도 크다”고 했다. <br/> <br/>송강섭기자 ericsong@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43.txt

제목: '암발병 책임' 법원 판결에 한수원, 정반대 해석 논란  
날짜: 20141027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7100000147  
본문: 국책과제 핑계 보고서 공개도 소극적<br/> <br/>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 측의 책임을 인정한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의 근거는 서울대 의학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였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이 보고서를 놓고 부산지법과 정반대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br/>한수원은 지난 23일 “<span class='quot0'>서울대 연구에서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생이 여성에게만 많았고, 거주기간과 비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사선 영향과 무관하다고 봐야 한다</span>”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span class='quot1'>원전 주변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과 먼 지역보다 많다는 보고서에 근거해 피고(고리 원전 인근 주민)가 방사선의 영향으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span>”고 판결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br/>해당 보고서는 안윤옥 서울대 명예교수가 옛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을 받아 원전 4곳(고리 영광 울진 월성)에서 ▦5㎞ 이내 ▦5~30㎞ ▦10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살면서 암이 없던 주민 약 3만5,000명을 20년간 추적관찰해 방사선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진 갑상선암과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 7가지 암의 발병 추이를 확인한 연구결과다. 100㎞ 이상 떨어진 지역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을 1이라고 하면 5~30㎞ 거주 여성은 1.8, 5㎞ 이내는 2.5로 높아졌다. 안 교수는 “<span class='quot2'>암 발생의 지역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span>”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은 “피고가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 뚜렷한 발병 요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암 발병과 원전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br/>안 교수는 한편 “<span class='quot2'>통계적 유의성이 항상 인과관계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니다</span>”라고 단서조항을 남겼다. “<span class='quot3'>원전 인근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방사선 때문이라고 확실히 결론 내리려면 ▦남성 발병률 ▦거주기간에 따른 발병률 ▦다른 암 발병률 등을 면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span>”는 것이다. 한수원은 바로 이 부분을 들어 항소에 나선 것이다.<br/>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로 인해 원전이 암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한다. 원전과 암발생이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당위성이 확보됐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 원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보고서의 의미를 정확히 알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후속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br/>그러나 한수원은 ‘국책보안과제’라는 이유로 보고서 원문 공개에 소극적이다. “<span class='quot3'>국가 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이라 직접 공개는 곤란한데, 국회도서관을 통해선 확인할 수 있다</span>”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span class='quot2'>2012년 ‘대한의학회지’에 논문으로 발표해 이미 국제학계에도 알려진 내용</span>”이라며 “공개를 꺼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br/>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44.txt

제목: ‘마왕’쓰러지다…넥스트 리더 신해철 사망  
날짜: 20141027  
기자: 인현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7100000001  
본문: 가수 신해철이 심장 이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5일 만인 27일 오후 8시 19분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졌다. 사인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 향년 46세.<br/> 신해철은 지난 17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복부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해 22일 재입원했으나 갑작스런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다. 의료진은 심정지 원인을 찾기 위해 최근 수술을 받은 부위를 개복해 해당 부위에 응급 수술을 하기도 했으나 동공반사가 없는 의식불명 상태가 이어졌다. <br/> 당시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심정지의 원인은 부어 오른 장으로 인한 심장 압박이고 심장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지만 장 상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span>”고 말했다.<br/><br/> 신해철은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록 밴드 ‘무한궤도’의 멤버로 데뷔했다. 대회 참가곡인 ‘그대에게’가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은 그는 무한궤도 해체 후 솔로로 나서 ‘안녕’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재즈 카페’ 등의 히트곡을 냈다. 두 장의 솔로 앨범을 낸 뒤엔 1992년 록밴드 넥스트를 결성해 실험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는 한편 ‘인형의 기사’ ‘도시인’ ‘날아라 병아리’ 등의 히트 행진을 이어갔다. 프로그레시브 록과 헤비메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한 넥스트는 사회비판적인 가사로도 관심을 끌었다. 1997년 일시 해체했으나 2003년 재결성한 후 현재까지 활동 중이었다.<br/> 신해철은 넥스트로서 낸 6장의 정규앨범 외에도 6장의 솔로앨범과 2장의 프로젝트 앨범을 냈다. 음악 외적으로는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스테이션’에서 과감한 진행으로 인기를 끌며 ‘마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br/> 고인은 2002년 결혼 전까지 암 투병 중이던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윤원희씨와 백년가약을 맺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2년엔 담낭염으로 간의 절반을 떼내고 쓸개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은 뒤 한동안 활동을 하지 않다가 올 6월 아카펠라로 만든 싱글 ‘아따’로 6년여 만에 복귀해 지난달 콘서트도 열고 방송 출연도 활발히 했다.<br/> 신해철은 2002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사회 참여적 발언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는 7월 본보와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사회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다 음악이라고 생각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정치와 사회와 음악이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음악이 이상해진다</span>”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유씨와 딸 지유, 아들 동원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과 장지는 미정이다. (02)3010-2000 <br/>인현우기자 inhyw@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45.txt

제목: "환자 행복은 병원의 존재 이유...의료계 혁신 새 역사 써 나갈 것"  
날짜: 20141027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7100000151  
본문: 응급실ㆍ중환자실 환자 중심 개선, 암ㆍ심장뇌혈관 특성화 진료 도입<br/><br/>2020년까지 진료ㆍ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ㆍ최초 20가지 육성 목표<br/> <br/><br/> 대형 병원 응급실에는 하루 평균 200~300명의 환자가 몰리는 탓에 장터를 방불케 한다. 고성이 오가고 혼잡한 응급실에서 기다리지 않고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기는 우물에서 숭늉 찾기나 다름없다. 심지어 자리가 없어 응급실 바깥에 야전침대에 누워 대기해도 감지덕지할 정도다. <br/> 그런데 응급실이 호텔처럼 쾌적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그 시작은 삼성서울병원에서다. 지난해 100억 원을 들여 응급실 인프라와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가용 면적도 2배나 넓혔다. 동시에 환자 별로 증세에 따라 진료구역을 세분화했다. 지금까지 국내 병원에선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응급실 모델이 탄생한 것이다. <br/> 개원 20주년(11월 9일)을 눈 앞에 둔 삼성서울병원의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령탑 송재훈(56) 삼성서울병원 원장을 만났다. 한 눈에 봐도 호남형인 송 원장은 다부진 목소리로 삼성서울병원을 이렇게 표현했다.<br/> “삼성서울병원은 그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고도의 압축성장을 일궈낸,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대전제 하에 의료 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창조하고 있지요.”<br/> 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11월 9일 개원하면서 다른 일반 서비스 분야처럼 환자에게 ‘고객’대하듯 친절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편의를 먼저 제공하면서 환자를 병원의 중심에 옮겨 놓았다. 영원한 갑(甲)이었던 병원이 ‘환자가 병원의 주인’이라며 스스로 을(乙)을 자처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백악관이 지정한 환태평양 지역 공식 후송병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NCSI) 결과, 1998~2012년 총 15회 가운데 1위를 13회 차지할 정도로 환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br/> 그리고 지금 다시 ‘환자 행복’이라는 화두를 꺼내 들었다. 20년 전 내걸었던 모토인 ‘환자중심병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송 원장은 2012년 3월 취임한 직후 ‘환자행복을 위한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삼고 20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br/> “병원의 전 임직원이 똘똘 뭉쳐 환자를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을 취임한 뒤 지난 3여년 동안 이를 위해 기초체력을 다져왔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혁신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합니다.”<br/> <br/> 삼성서울병원의 비전은 ‘해피노베이션(Happinovation)’이란 단어로 함축할 수 있다. 해피노베이션은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고 진료과정의 불편함을 없애 치료과정과 결과가 모두 만족스럽고, 최종적으로 환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진료, 연구, 사회공헌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삼성서울병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다.<br/> 송 원장은 “<span class='quot0'>환자중심의 진료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특성화 진료체계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span>”라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3년 암센터를 암병원으로 승격한 데 이어 올해에는 심장뇌혈관병원을 출범했다. 또 장기이식센터, 뇌신경센터 등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성화센터 중심 체계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외과는 외과까리, 내과는 내과끼리 진료과를 중심으로 마치 ‘조직’처럼 뭉치는 것이 국내 의료계의 풍토인데 진료과 구분없이 진료시스템을 센터화한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런 센터 체제로 움직인다. 의료계에서는 ‘쿠데타’적인 일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br/> 이런 변화를 설명하는 또 다른 예가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혁신이다. 국내 최초로 중환자의학과를 세우고 중환자의학 전문의가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다.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두 곳에 삼성서울병원은 환자를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span class='quot1'>대한민국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중증질환 중심의 병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 의료체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span>”이라는 송 원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br/> 미래를 향한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송 원장은 “<span class='quot0'>2020년까지 진료와 연구 두 분야에서 세계 최고 또는 세계 최초 분야 20가지를 육성하겠다</span>”고 했다. 벌써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자랑하는 ‘아바타 시스템’은 유전체 의학의 꽃을 피울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아바타 시스템은 내게 걸맞은 치료가 무엇인지 미리 쌓아둔 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 정밀타격방식으로 치료법을 찾는 기술이다. 송 원장은 “<span class='quot0'>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관심을 나타내며 국내 의학 사상 처음으로 연구모델을 포함한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span>”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br/> 태풍 같은 변화가 일고 있지만 병원 분위기는 태풍의 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평온하다. 송 원장이 현장 소통을 중시하면서 열린 경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철이 바뀌거나 병원에 굵직굵직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직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며 이해를 구한다. 분기마다 전 직원 앞에서 직접 설명회도 연다. 직원들과 뮤지컬을 관람하거나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소통을 길을 넓히고 있다. 덕분에 7,500여 임직원들은 해피노베이션의 비전에 공감하고 있다.<br/> 송 원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려 할 때 지면에 꼭 반영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병원은 환자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은 또 한번 의료의 새 역사를 쓸 것을 확신합니다.”<br/>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46.txt

제목: [기고] 원전과 갑상선암의 관계  
날짜: 201410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6100000120  
본문: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갑상선암이다. 국립암센터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성들이 암에 걸릴 확률은 33.8%이며, 여성 암의 30.1%는 갑상선암이다. 우리나라 여성 9명 중 1명이 갑상선암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의 갑상선암 연간 증가율은 놀랍게도 23.5%에 달하고 있다.<br/> 최근 고리원전 인근주민의 갑상선암과 원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 대해 사업자측이 즉시 항소를 제기, 법정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1심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적 환경 기준치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으로 정한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연관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원전 주변 방사선량은 법적 환경기준치인 1m㏜(밀리시버트)의 1%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기준치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아직 일부만 도입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가장 엄격한 기준(ICRP-60)을 적용하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 지역에서도 성인들의 갑상선암의 위험 증가eh 확실히 관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과 원전과의 연계를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br/>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서울대 의학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 결과를 보자. 보고서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반경 5~30㎞ 이내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1.8배가 높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다고 했다. 예컨대 갑상선암과 원전의 방사선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실시한 원전 종사자 역학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반경 0.5㎞ 이내 근무하고 방사선 노출이 100배 이상 많은 원전종사자의 위험도는 방사선 노출이 없는 사무직 종사자와 비교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br/> 역학 조사 연구책임자였던 안윤옥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해당 연구결과는 통계적인 유의미성 만을 밝힌 것일 뿐 원전에서 나온 방사선과 특정 개인의 갑상선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span>”라고 선을 그었다. <br/> 해외 역학조사에서도 원전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주민이 갑상선암으로 소송을 내지도 않았고 원전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바도 없다. <br/> 그렇다면 왜 서울대 역학조사에서는 여성 갑상선암만 유일하게 높게 나타났을까? 이 문제는 갑상선암은 압도적으로 여성에게 많으며, 검진기관이 많은 시ㆍ군에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월등히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1년부터 실시된 서울대 역학조사를 비롯해 원전 주변지역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포함해 수많은 건강검진이 실시됐다. 특히 부산시 기장군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설립된 뒤 원전과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역개발사업비로 부산시 기장군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그 결과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다른 원거리 지역에 비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의료검진 혜택을 많이 받아 갑상선암 발견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역학적 용어로는 집단검진 또는 집중검진 효과라고 한다. <br/> 문제는 이런 결과로 기장지역 주민의 암 진단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아지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 근거로 인정됐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마치 경찰력을 엄청나게 동원해 도둑을 많이 잡았더니, 그 지역이 바로 대표적인 우범지역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과 흡사하다. <br/> 최근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 자체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열심히 해서 국내 갑상선암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될 정도로까지 늘었다. 물론 원전 주변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과학적ㆍ의학적인 검토 없이 국가나 공기업이 원전 인근지역의 갑상선암 환자를 보상해 준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환자들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공정치 못하다.<br/><br/>김종순 가톨릭대 의대 방사선과 초빙교수ㆍ국군수도병원 내분비내과 과장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47.txt

제목: 인간을 속박하는 맹신에 맞선 교단의 이단자  
날짜: 20141025  
기자: 최윤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5100000008  
본문: 기독교 몽매주의와 싸우다<br/>'성서 기록=절대 진리' 신봉, 보수적 교단과 목회자들을 목사이자 종교학자로서 비판<br/><br/>존엄사 합법화 선봉에 서다<br/>종교학 대신 노인학 교수 변신, 80년 '헴록 소사이어티' 설립<br/><br/><br/> <br/> 기독교의 퇴행적 보수성과 몽매주의에 맞서 교회 혁신과 종교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헌신했던 ‘이단자(Heretic) 라루’가 9월 17일 작고했다.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이자 종교학자인 그는 성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교회와, 자신도 안 믿으면서 성서의 기록을 역사의 진실처럼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비판했다. 또 노인학자로서 삶의 위엄 못지않게 죽음의 존엄을 중시했고,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생애를 바쳤다. 기성 교단과 다수의 보수 기독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도발적이고도 전투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외적인 것들의 허구를 폭로했다. 향년 98세. <br/> <br/> 1993년 2월 미국 CBS는 터키 아라라트 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 조지 자말이라는 남자가 방주의 잔해라며 가져온 나뭇조각을 근거로 ‘선 인터내셔널 픽처스’라는 한 독립 제작사가 만든 이 다큐멘터리에는, 당연하게도 교회와 창조론자들의 들뜬 찬사와 확신에 찬 해설까지 곁들여졌다. 그리고 얼마 뒤 캘리포니아대 라루 교수는 ‘타임’인터뷰에서 그 거대한 사기극을 조롱을 섞어 폭로한다. 방송사는 뒤늦게 전문 기관에 의뢰해 탄소 동위원소법으로 나뭇조각의 연대를 측정, 그게 실은 블루베리즙과 바비큐소스 등에 착색된 침목 조각인 사실을 확인한다. <br/> 이 대형 방송 스캔들은 물론 자말의 사기에서 비롯됐지만, 라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자말의 사기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미 시작됐다. 라루 역시 자말을 만나 황당무계한 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방송의 무책임한 태도가 어떻게 이어지나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방관했다고 한다. 거짓이 폭로된 직후 창조과학회 관계자는 자신들이 그렇게 오래 그의 어설픈 사기에 놀아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라루에게 그들은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방조자 혹은 암묵적 공범이었을지 모른다. 그가 겨냥한 것은 한 사기꾼이나 무책임한 방송 관행이 아니라 믿고픈 것을 쉽게 믿는 인간의 허약한 이성, 그리고 성서의 기록이라면 무조건 절대진리라 여기는 극단적인 종교인들이었을 것이다. <br/> 종교 고고학자로서 예루살렘 등지의 발굴 현장을 누볐던 그는 예리코 성벽의 붕괴가 신(神)의 힘이 아니라 지진의 결과라는 가설,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나사로의 기적은 혼절(Coma) 상태에서 깨어난 것일 뿐이라는 등 성서의 이야기들을 ‘재해석’하곤 했다. 성모마리아의 기적으로 은으로 만든 묵주가 금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했다며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한 여인에게 대중이 보는 앞에서 묵주를 변색 제거제에 담가 보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그의 ‘불경스런’ 제안은 물론 거절당했다.(LA Times, 2014.9.21) 그는 미신적 몽매주의(magical thinking)를 특히 못 견뎌 했다. <br/> <br/> 제럴드 라루(Gerald Larue)는 1916년 6월 20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태어났다. 43년 신학과 예술 전공으로 엘버타대학을 졸업, 45년 캐나다 통합교회로부터 목회자 자격을 얻었다. 이후 약 8년간 목사로 재직했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53년 박사학위를 땄다. 그 해 그는 목사직을 내놓았고, 남캘리포니아대학(USC) 종교학과 교수가 되는 58년까지 미국기독교교회의회의 성서 연구회 회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는 회의론자였다. 훗날 인터뷰에서 목사를 사임할 당시 이미 ‘신의 존재는 알 수 없다(an open question)’는 게 자신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br/> ‘자유연구(Free Inquiry)’라는 잡지에 기고한 ‘성직자가 침묵의 죄를 범할 때’라는 글에서 라루는 성직자가 세미나 등을 통해 알게 된 기독교의 역사나 성서의 진실을 신도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을 ‘침묵의 죄’라고 비판했다. 성 평등이나 생태, 공립학교의 진화론 교육 등에 대해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교회 설교단에 서면 도그마에 갇히는 성직자들이 허다하다고도 했다. 93년 방주 스캔들 직후 라루는 여러 목사 친구들로부터 격려와 동조의 전화를 받았지만 그가 “<span class='quot0'>당신은 왜 CBS에 항의편지를 쓰지 않느냐</span>” “<span class='quot0'>노아의 이야기가 허구라는 사실을 왜 당신은 설교할 때 말하지 않느냐</span>”고 물으면 그들은 겸연쩍게 웃으며 한결같이 “No Way”라고 대답했다고도 했다. <br/> 라루는 실제로 그런 설교를 했다가 신도집단의 배척을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캐나다 교회 목사 빌 피프스(Bill Phipps)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97년 12월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가 종교잡지 등 매스컴의 집중포화를 당했다. 피프스 목사는 “신은 예수보다 더 크고 신비로운 존재여서 우리의 인식과 이해 너머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예수는 인격화한 신도, 신의 대리일 수도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처형된 뒤 살아나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나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부활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서는 삶의 힘, 그 믿음의 힘을 의미한다”고 설교했다. 피프스 목사는 지옥과 천국의 관념을 부정했지만, 사후에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는 인간의 영혼은 긍정했다. “<span class='quot1'>숨을 거둔,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신과 함께 평온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span>”그는 신도들의 험한 수모와 교단의 분노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br/> 라루는 피프스와 같은 성직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창세기나 출애굽기가 그 어떤 역사적 근거도 없는 허구임을 신도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10계명을 포함한 토라의 계율들 중에 인본적 윤리와 배치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인을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마음으로 간음을 범하는 죄라고 규정한 마태복음 5장 27절을 예로 들며 그는 성서의 어떤 내용들이 이 시대의 윤리의식에 비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말하곤 했다. 그의 아들 데이비드 라루는 “아버지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오류 투성이인 불멸의 규율에 인간이 속박당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NYT) 제럴드 라루는 인간의 선한 삶을 북돋우는 한에서 종교를 긍정했지만, 숭배나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위험하고 공공연한 내부고발자였다. <br/> <br/> 신학대 재학시절부터 그는 교수들로부터 ‘이단자 라루’라고 불렸다고 한다. 훗날 목사가 되고 종교기관의 성서 연구자로 활동한 것을 보면 당시의 저 별명은 그리 진지한 게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존엄사 합법화 운동의 선봉에 서면서 그는, 적어도 보수 교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진짜 ‘이단자’였다. <br/> 죽음에 대한 그의 관심은 70년대부터 이어져온 듯하다. 76년 그는 한 심리학자가 임종을 앞둔 이들을 대상으로 죽음과 죽음을 맞이하는 바람직한 태도 등을 설명하는 강연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그리고 4년 뒤 영국의 저널리스트 출신 데렉 험프리와 함께 미국의 선구적인 존엄사 옹호단체 ‘헴록 소사이어티(Hemlock Society)’를 설립, 8년 동안 의장을 맡는다. 험프리는 불치병 아내의 자살 결심과 실행 과정을 기록한 진의 길(Jean’s Way, 1978)과 마지막 출구(Final Exit),1991 등의 저자이자 존엄사 합법화 운동의 선구적인 활동가였다. <br/> 목사 자격을 지닌 종교학자가 존엄사를 지지하는 상설조직을 만들어 리더가 되는 일이,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는 USC 종교학과 교수직을 사퇴하고, 노인학과 겸임교수가 된다. 험프리는 “라루는 누구도 두려워 엄두를 내지 못하던 단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생의 막바지에 이른 이들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에서 막 시작되던 때였고, 당연히 뜨겁고도 예민한 주제였다. 그는 그 민감하고 논쟁적인 시기에 엄청난 조정력을 발휘하며 헴록 소사이어티를 이끌었다”고 회고했다. <br/> 헴록 소사이어티는 의학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불치 환자의 상담과 존엄사 합법화 운동 등을 주도했고, 94년 오리건주가 미국 최초로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헴록 소시이어티는 2007년 관련 단체 등과 연합, 오늘의 저 유명한 안락사 옹호단체 ‘공감과 선택(compassion & Choices)’을 만들었다. <br/>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0월 16일자 ‘죽을 권리- 힘을 얻다(The right to die- Seizing some control)’라는 기사에서 뇌암에 걸린 뒤 오리건주로 이주해 의사의 존엄사 처방을 받은 캘리포니아의 29살 여성 브리트니 메이너드가 오는 11월 1일 자신의 삶을 끝내기로 했고, 남은 시간을 존엄사 옹호 운동에 바치고 있다는 사연과 함께 미국 사회의 죽음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상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오리건 이후 버몬트 몬태나 워싱턴 뉴멕시코주가 존엄사를 합법화했고, 7개 주에 존엄사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생사를 신의 선택으로 믿어온 강고한 기독교의 전통과 ‘목숨만은 신의 것’이라고 했던 사유재산권의 아버지 존 로크의 정신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며, 교회에 규칙적으로 다니는 미국의 신도 가운데 최소 20%가 존엄사를 옹호한다는 ‘공감과 선택’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br/> 저 거대한 변화의 물꼬를 튼 이가 라루였다. ‘공감과 선택’이 오리건주의 싸움과 존엄사를 선택한 이들의 사연, 임종 과정 등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 ‘오리건에서는 어떻게 죽는가’는 2011년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탔다. <br/> <br/> 라루는 USC 노인학과 겸임교수로 25년을 재직했다. 그의 강의는 죽음의 과정과 의미, 그리고 종교적 맥락에서 본 존엄사의 근거 등이 주제였다. 그의 85년 저서 존엄사와 종교는 죽을 권리를 종교적으로 해석한 최초의 책으로 알려져 있다. <br/> 존엄사의 공론화가 유럽에서는 조금 앞섰다. 1980년 8월 영국에서는 조지 메어(George Mair)라는 스코틀랜드 외과의사가 어떻게 존엄하게 죽을 것인가라는 36쪽짜리 팸플릿을 발간한다. 책에는 다양한 자살 방법과 가정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들이 소개됐다. 조지 메어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 채 마지막 순간을 생물학적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자는 존엄사의 취지에 공감하는 ‘Exit’라는 모임의 회원들에게 배부됐고, 말기암 환자 등 희망자에게는 신청 후 90일 이후에 배부함으로써 ‘결심’에 앞서 충분히 재고해볼 여지를 부여했다. 80년 9월 27일자 런던판 뉴욕타임스는 옥스퍼드대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 소식을 전하며 영국의 저명한 성직자인 소퍼 경(Lord Soper)의 말을 인용했다. “그토록 열렬히 천국에 가려는 희망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중하고 사려 깊게 이 세상에 머물고 싶어 애쓰는 모습은 사실 좀 우습다. 가정을 떠나 천국에 가려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권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단 말이냐.” 라루의 헴록은 조지 메어의 책을 이듬해 출간할 방침임을 밝혔으나, 실제로 책을 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br/> 영화 ‘스타트렉’의 제작자 티모시 리어리 등의 화장한 유골이 타우루스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된 게 1998년이다. 이 우주장(宇宙葬)을 계기로 그 해 2월 뉴욕타임스는 흥미로운 유골 처리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거기에는 재를 잉크에 섞어 책 인쇄에 쓰게 한 마블코믹북 편집자 마크 그루엔발트와 “내 집이 이웃에게 늘 열려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뼈를 녹여 대문 버팀쇠로 만들게 한 패트 슈레더 전 콜로라도 민주당 하원의원의 이야기가 포함됐다. 그리고 라루의 교재 이야기도 있다. 라루는 매 학기 첫 강의 때면 학생들에게 실제 사람의 뼛가루를 보여주곤 했다. 친구였던 USC 심리학과 허먼 하비 교수가 라루에게 강의 교재로 쓰라며 유언으로 남긴 자신의 뼛가루였다. 라루는 “하비는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span class='quot1'>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삶을 통해 추구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span>”<br/> 그는 성과 성서(Sex and the Bible)(1983) 안락사와 종교(85) 신의 역할: 당신의 죽을 권리에 대한 50개 종교의 관점들(96) 등 다수의 논쟁적인 책을 썼다. <br/> <br/> 라루는 두 차례 결혼했고 이혼했다. 전 아내 에밀리 퍼킨스는 “<span class='quot2'>라루에게 인간은 하루하루 혹은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였다</span>”고 말했다. 죽음과 순간으로 닿아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더 열정적일 수 있었다는 말이었다. 퍼킨스의 말처럼 라루는 자신이 믿고 가르친 바대로 살았다. 유족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의 산소호흡기 연명치료를 거부, 그의 뜻을 존중했다. <br/> <br/>최윤필기자 proos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48.txt

제목: [건강소식] 한국메나리니, 암성 통증 치료제 출시 外  
날짜: 2014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4100000037  
본문: 한국메나리니, 암성 통증 치료제 출시<br/><br/><br/><br/> 한국메나리니의 돌발성 암성 통증 치료제 앱스트랄(성분명 펜타닐시트르산염) 설하정(사진)이 최근 건강보험급여 적용과 함께 본격 출시했다. 앱스트랄은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 제제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내약성을 가진 18세 이상의 성인 암 환자가 쓸 수 있다. 앱스트랄 설하정은 펜타닐 제제로 혀 밑에 넣어 녹여 먹는다. 1분 내 녹고, 10분 내 효과가 나타난다.<br/> <br/> 삼성서울병원, 과민성방관 임상시험<br/>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는 과민성방광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제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한다. 참가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로 하루에 평균 8회 이상 배뇨와 한번 이상 절박뇨, 1주일에 3회 이상 요실금 등 과민성방광증상을 경험해야 한다. (02)3410-3558~9<br/> <br/> 한국릴리, 골다공증 애플 ‘닥터 본’ 내놔<br/> 한국릴리는 골다공증 관리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닥터 본’을 내놨다. 주요 기능은 영상보기, 자주 묻는 질문, 투약 일정, 병원 찾기 등이다. ‘영상보기’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딸의 시점에서 진행된다. 실제 환자의 상황을 사용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영상 곳곳에 골다공증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골다공증 바로 알기’코너도 마련돼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49.txt

제목: 통증 치료 4%만 받아…적절한 통증 관리 필요해  
날짜: 20141023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3100000065  
본문: 통증 치료 4%만 받아…적절한 통증 관리 필요해<br/> <br/> 아시아에서 암이 아닌 질환으로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가운데 4%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절대 다수가 통증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br/> 다국적 제약사 먼디파마는 한국과 중국·홍콩·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아시아 10개국 의사 1,158명과 환자 2,495명에게 통증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15차 세계통증학술대회에서도 발표됐다.<br/> 또한 암으로 인한 통증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463명의 아시아권 의사 중 84%는 암 통증 치료를 위해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30%는 의대 교육과정에서 암 관련 통증치료와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교육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br/> 설문조사 결과, 암으로 인한 통증과 암으로 인한 통증이 아닌 만성 통증(CNCP) 환자 모두 통증 치료를 위해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br/> CNCP 환자 1,305명 중 4%만이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환자가 대부분 중등도·중증 통증을 평균 2년 정도 겪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낮은 처방률이다. 응답자 중 65%만이 통증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주관적인 측정을 통해 진단받았다고 답해 객관적인 통증척도가 필요성이 대두됐다.<br/> 암 관련 통증을 경험한 환자 1,190명 중 70%는 통증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으며, 42%는 통증으로 직장을 사직했다고 답했다. 통증으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웠지만 84%는 통증클리닉으로 진료의뢰를 받은 적이 없었다. <br/>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 50억명 정도가 통증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먼디파마는 조사결과를 인용해 “통증평가 및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임상지식을 개선해 만성통증 환자 관리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CNCP는 노인 인구의 40~50%가 앓을 정도로 유병률이 높지만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br/> 이종호 먼디파마 한국 및 동남아시아 총괄사장은 "조사 결과, 아시아의 통증 치료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한국이 참여한 이번 대규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증치료를 위한 최적화된 교육과 치료제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50.txt

제목: 원전 탓 암 발병 판결 ‘집단소송’  
날짜: 20141023  
기자: 전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3100000080  
본문: 반핵단체 등 원고모집 착수… 1심 당사자들 전원 항소<br/> <br/>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자력발전소 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본보 18일자 9면 보도)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질 조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반핵단체들은 집단소송에 본격 착수했다.<br/> 부산환경운동연합,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 8개 시민단체와 연구소는 23일 성명을 내고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의 공동소송을 위해 원고 모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br/>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2011년 서울대 역학조사에서 원전 5㎞ 내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대조지역에 비해 2.5배나 높게 나왔는데, 데이터를 보완하면 암 발생 상관관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다음달 30일까지 1차 원고 모집기간을 갖는 이번 집단소송 대상자는 전국 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8~10㎞) 내 3년 이상 거주 경험자 중 갑상선암 등이 발병한 경우에 한정된다. 참가비용은 인지대 등 기본 행정비용이며, 승소 시 수임료는 변호사와 협의키로 하는 등 소송 참가를 쉽게 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거주자의 경우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담당키로 하는 등 각 원전 소재지별로 지역 반핵단체들이 모집 절차를 진행한다. <br/>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노태민 활동가는 “<span class='quot0'>원전의 영향으로 병을 얻었다고 추측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밝혀오지 않았던 많은 주민들이 이번 판결 영향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길 희망한다</span>”고 말했다.<br/> 앞서 지난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 최호식)는 부산 기장군의 박모(48ㆍ여)씨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pan class='quot1'>피고는 박씨에게 1,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span>”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2'>박씨가 총 6기의 원전이 있는 고리원전으로부터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span>”고 밝혔다. <br/> 반면 한수원은 갑상선암 발병에 일부 책임을 지운 판결에 불복해 지난 22일 항소했다. 한수원은 이번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서울대 역학조사와 관련 “<span class='quot3'>당시 조사 결과에서도 갑상선암 발병과 원전 방사선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3'>원전 주변지역과 원거리의 방사선량에 차이가 없고,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전 주변지역 거주기간과 비례하지 않다는 게 조사 결과</span>”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br/> 아내 박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이진섭(50)씨도 자신의 직장암, 아들 균도(22)씨의 선천성 자폐증(발달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이씨는 “<span class='quot4'>반핵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항소심을 준비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br/>전혜원기자 iamjhw@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51.txt

제목: 바람 핀 남편 VS 남편 간 이식 막은 아내, 법원 “남편이 더 나빠”  
날짜: 20141023  
기자: 조원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3100000131  
본문: 바람 핀 남편 VS 남편 간 이식 막은 아내, 법원 “남편이 더 나빠”<br/> <br/> 외도를 한 남편과 암 투병 중인 남편의 간 이식을 막은 아내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법원은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br/>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 이승영)는 주부 A씨가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span class='quot0'>A씨에게 B씨와 C씨는 위자료 2,000만원을, B씨는 재산분할로 4억3,900만원을 지급하라</span>”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br/> 1987년 결혼 후 주부인 A씨와 중소기업 대표였던 B씨 사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한 것은 2009년 B씨가 간암 3기 진단을 받으면서부터였다. B씨는 간병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요양을 위해 강원도로 내려갈 것을 제안했지만 A씨는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서운함이 커져 가는 사이 B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C씨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2010년 3월 B씨는 C씨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집을 둘러보고 사들였으며 C씨도 B씨의 집과 가까운 곳에 집을 매수했다. 이후 B씨는 강원도에서 머물며 식재료 구입 등을 위해 한달에 한 두차례 서울 집을 오가는 생활을 했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다시 A씨가 있는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 <br/> 2011년 추석 무렵, 예민해진 B씨를 상대하며 힘겹게 간병 생활을 이어 가던 A씨는 B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가 누나 집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다.<br/> 점차 건강이 악화돼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남편은 군대에 간 아들에게 간 이식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을 찾아가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린 후 간 공여를 말렸고 아들은 마음을 돌렸다. B씨는 결국 조카의 간을 이식 받기로 하면서 수술 직전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자선단체에 기부해 버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br/> 재판부는 “<span class='quot1'>A씨가 지방으로 내려갈 것을 거절하고, 간 공여를 말림으로써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잘못이 있기는 하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1'>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는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C씨와 부정행위를 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B씨의 잘못이 더 크다</span>”고 판단했다. 이어 “B씨와 C씨의 부정한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며 “C씨 또한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b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52.txt

제목: [2030 세상보기] 사랑을 배울 기회  
날짜: 201410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2100000189  
본문: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라지만, 대부분의 선택들은 그것이 선택이었는지도 모른 채 이뤄진다. 자각을 했던 선택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히지 않는 몇 가지 순간은 있기 마련. 내게 있어 그 중 하나는 친부와 친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순간이다. 친모와 친부는 내 기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별거를 해왔고, 나는 친모와 친부 둘에게 일정기간 교대로 맡겨졌다. 둘 모두에게 친밀감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둘 모두에게 거리감을 느꼈다. 그러다 결국 둘은 법적으로 갈라서게 됐고, 내게 선택의 순간이 온 것이다. 친모가 변호사와 통화하며 한 말을 들은 것이 선택을 도왔다. “<span class='quot0'>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사는 편이 양육비다 뭐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span>” 나를 흥정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다.<br/>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느라 집에 없을 때가 많았고, 나는 스스로를 챙기고 돌봐야 했다. 그만큼 스스로를 연민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가족들은 깨가 쏟아지던데, 주변 친구들을 보면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던데, 나는 왜 이리 외롭고 서툴게 혼자 다 알아서 해야 하나. 나이를 먹어가며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환상은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실재하는 가족들은 서로를 지긋지긋하게 여기며 악다구니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걸 간접체험 했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 ‘방임’이라 느꼈던 것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였고, 부모의 요구에 짓눌리지 않을 자유와 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연민은 치유됐다. <br/> 10여 년 전, 아버지는 재혼했다. 새어머니가 생겼다. 과하게 살갑게 굴며 서로의 노력을 과시하는 일은 새어머니도 나도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말했고, 그래야만 할 순간에 얼굴을 마주했다. 재혼 뒤 2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았다. 새어머니는 헌신적으로 아버지 곁을 지켰다. 꼬박꼬박 건강을 위한 식단을 준비하고, 아버지와 함께 자주 산을 오르며 회복을 도왔다. 몸이 아프면 예민해진다. 가끔 예민하게 짜증내는 아버지를 목격했다. 새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span class='quot0'>아버지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실 것 같아요.</span>” 새어머니는 아니라고 말했다. 자기가 선택한 일이고, 이미 한 선택을 후회하기보다는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 하고 싶다고. <br/> 아버지는 완쾌됐고, 나는 아직도 부모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낸다. 부모님은 자기객관화가 잘 되는 편이고, 내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않으며, 가끔 내게 무언가 바라는 게 있으면 대화를 통해 설득하려 한다.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이서 도울 관계라는 것을 안다. 즐거움만 함께 나누고, 아프고 힘들 때 곁에 없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새어머니로부터 그런 책임감을 배웠다. 거리감과 책임감을 기반에 두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작동하는. 너무 뜨겁지 않은, 딱 체온 정도로 미지근한 온도의 사랑을 실감했다.<br/> 운이 좋았다. 이 도시에서는 운이 좋아야 사랑을 배울 수 있다. 나는 공교육 과정 동안 스승의 사랑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은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과열된 경쟁 시스템은 이해와 존중, 격려와 응원보다 시기와 질투에 익숙해지게 만든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해지거나, 남을 깎아 내리며 실낱 같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이가 많다. 외로워서 사랑 없는 유희로 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 그 순간이 지나면 더 외로워진다. 악순환이다. 누군가에게 얻어맞기라도 하고 싶어 패륜적인 농담과 욕지거리를 뱉는 것도 악순환을 만들기는 마찬가지다.<br/> 사랑을 가르쳐주는 어른이 별로 없다. 사랑하며 살기 어려운 물적 토대와 시스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기왕이면 이런 선택과 다짐이면 좋겠다. 스스로를 가여워하지 않겠다는, (그게 설령 정신승리라도) 긍정의 지점을 찾아내 스스로를 칭찬하겠다는, 그렇게 나를 존중하는 만큼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겠다는, 결국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br/><br/>최서윤 (격)월간잉여 발행ㆍ편집인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53.txt

제목: 김순옥 작가의 '3대 막장 드라마' 속 악녀열전  
날짜: 20141022  
기자: 이소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2100000146  
본문: 김순옥 작가표 막장 드라마가 또 한번 '대박'을 터트렸다.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가 다소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도 불구, 시청률 35%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것. 이번에도 권선징악의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하는 스킬이 어김없이 통했다. <br/> 김 작가표 드라마가 최고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악역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의 드라마에는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악녀들이 있었다. 극단적인 악행 때문에 악녀 역을 맡은 연기자들은 주인공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br/> 여기에 세월이 흐르면서 김 작가의 작품 속 악녀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다. 김 작가의 3대 막장드라마 속 악녀들은 어떻게 다를까.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악녀들의 연기와 특징을 살펴봤다. <br/> <br/> http://youtu.be/-aM0KJKdptw<br/> 1. '아내의 유혹' 분노 못 참는 신애리<br/> 2008년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 속 신애리(김서형 분)는 친구 구은재(장서희 분)의 남편을 빼앗고도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그는 복수하러 돌아온 구은재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운다. 하지만 방송 말미 위암에 걸리면서 자신의 모든 악행을 후회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br/> 해당 작품에서 김서형은 충격적인 악행과 분노 표출로 희대의 악녀에 등극했다.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패악을 부리는 모습은 평소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현대인의 속을 후련하게 했다. 김서형은 매회 맛깔나는 분노 연기로 '버럭애리'라는 애칭까지 얻었다.<br/> 여기에 극중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싶어하는 신애리의 모성애가 묘한 인간미를 발산하며 시청자의 호응을 샀다. 신애리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때는 "불쌍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신애리에 애정을 가지는 시청자들이 많았다. <br/> <br/> http://youtu.be/m6m38kx9kYA<br/> 2. '천사의 유혹' 팜므파탈 주아린<br/> 2009년 '천사의 유혹'에서는 악녀 주아린(이소연 분)의 활약이 돋보였다. 주아린은 억울하게 죽은 부모의 복수를 위해 원수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간다. 주아린 역시 남편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도청, 방화를 저지르는 등 극한 악행을 펼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전신성형으로 하고 또 다른 복수를 감행하면서 그 역시 자살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br/> 이소연은 이 작품에서 팜므파탈의 매력을 발산했다. 굵은 컬의 펌 헤어와 화려한 악세서리 스타일링으로 세련된 악녀 캐릭터를 표현했다. 여기에 복수를 이어가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해하는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 차별화된 악녀 연기를 선보였다.<br/> <br/> http://youtu.be/ogmbrc5m5sk<br/> 3. '왔다 장보리'의 국민 악녀 연민정<br/> 최근 종영된 '왔다 장보리'의 연민정(이유리 분)은 한층 더 입체적인 악녀 캐릭터를 선보였다. 연민정은 살아있는 어머니를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애인과 아이를 버리고, 주인공 장보리(오연서 분)의 정체를 숨긴다. 재물손괴죄, 주민등록법 위반, 살인미수죄 등 일으킨 범죄가 역대급이다. 이유리는 극에 달한 악행 연기로 '암 유발자'라는 별명을 얻었다.<br/> 연민정 캐릭터에는 개그 코드가 녹아있다. 극중 연민정은 "넌 나한테 아무 짓도 할 수 없어. 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내 손에 있거든. 비술채 엄마 후~ 비단이 후~"라며 장보리를 약올린다. 얼굴에 손받침을 하고 입바람을 날리는 모습은 명장면으로 남았다. 이유리는 마지막회 얼굴에 점을 찍고 등장, '아내의 유혹'을 패러디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개그 코드는 악녀에게 귀여운 매력을 가미시켜 독특한 캐릭터를 구축했다. <br/> 이소라 기자 wtnsora21@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54.txt

제목: 서구화된 식습관 원인…지방 줄여야  
날짜: 20141022  
기자: 김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2100000052  
본문: 한국유방암학회가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최근 발간한 ‘2014 유방암백서’에 따르면 한국인 유방암 발생률이 일본을 앞서며 동아시아 국가 중 최고 자리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br/> 우리나라에서 2008년 10만명당 38.9명꼴로 발생하던 유방암은 2012년에는 10만명당 52.1명꼴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서구화 추세에 접어들며, 장기간 동아시아 유방암 발병률 1위를 기록한 일본은 2012년 10만명당 51.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유방암 발생률을 보인 것은 국제 암 등록 통계 집계 이후 최초다. 나이별로 유방암 환자를 분류했을 때 만 15세에서 54세까지 유방암 발생률이 일본에 앞섰으며, 15세에서 44세까지의 환자 발생률은 미국마저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유방암 환자 발생 역시 1996년 3,801명에서 2011년에 1만6,967명으로 늘어나 15년 사이에 약 4.5배나 증가했다. <br/> 유방암의 양상도 변했다. 서양에서 많이 발생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ER+)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세포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꾸준히 반응, 성장이 촉진되는 것이 특징으로 발병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재발 위험이 있어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유형의 유방암이다. 2002년에는 전체 환자의 58.2%였던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 비율이 2012년에는 73%까지 상승했다. <br/>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발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포화 지방 섭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발표한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포화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정도 높았다. <br/> 우리나라의 식습관도 서구화되며 지방 섭취가 많이 늘어났다. 국민건강통계를 살펴보면,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의 1일 섭취량도 1998년 53.7g에서 2012년 85.1g으로 15년 동안 약 60% 상승했다. 지방을 기준 이상 섭취하는 사람도 5명 중 1명(22.1%)이나 됐다. <br/> 이에 따라 유방암 예방을 위해 식습관과 생활습관 등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을 평소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조언한다.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인자로는 비만, 음주, 흡연, 빠른 초경, 늦은 폐경, 늦은 첫 출산 등이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인자로 알려졌다. <br/> 유방암 발병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의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유방암 사망률은 OECD 국가 최저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방암 사망률은 일본(9.8명)이나 미국(14.9명)보다 현저히 낮은 10만 명당 6.1명에 불과했다. 의료 선진국으로 꼽는 북미나 유럽 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치다. <br/> 송명주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 (서울성모병원 유방센터장)은 “<span class='quot0'>한국은 이제 서구 선진국과 함께 고위험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유방암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pan>”며 “<span class='quot0'>발병 양상이 급격히 서구화되고 있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유방암 극복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다</span>”고 설명했다. 또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아주 좋으므로 개인이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을 평소에 관리하고, 나이에 맞는 검진을 받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 김성환기자 spam001@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55.txt

제목: 체 게바라 포토그래퍼 르네 뷔리 떠나다  
날짜: 20141021  
기자: 신지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1100000062  
본문: 시가를 문 체 게바라와 파블로 피카소 등의 흑백사진을 찍어 유명해진 스위스의 사진 거장 르네 뷔리가 20일 향년 81세로 사망했다. <br/> 세계적 보도사진 작가 그룹인 매그넘은 암으로 투병하던 뷔리가 이날 취리히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마틴 파 매그넘 회장은 “<span class='quot0'>뷔리는 전후의 위대한 사진가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만나 영광이라고 느꼈을 만큼 너그러운 사람이었다</span>”라면서 “<span class='quot0'>매그넘에 대한 헌신과 이야기를 전달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비길 데 없는 능력이 그의 유산이다</span>”이라고 애도했다.<br/> 뷔리는 13살이던 1946년에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스위스를 방문해 카퍼레이드를 하자 아버지의 카메라로 처칠의 모습을 찍으며 사진에 발을 들였다. <br/> 1956년 매그넘에 합류한 뷔리는 1963년 쿠바 혁명기에 시가를 피우며 상념에 잠긴 듯한 체 게바라의 모습을 찍어 이름을 널리 알렸다. 뷔리는 이후 체 게바라에 대해 “<span class='quot1'>오만한 사람이지만 매력이 있었다</span>”며 “우리에 갇힌 호랑이 같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 <br/> 뷔리는 이 밖에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지낸 피델 카스트로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화가 파블로 피카소 등의 사진을 연달아 촬영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유명인사의 사진을 찍는 법에 대해 “<span class='quot1'>불도저처럼 덤벼들면 안 된다</span>”면서 섬세한 접근을 강조했다.<br/> 뷔리는 중동과 아시아 남미 등 세계 각지를 누비며 취재활동을 해 라이프지, 뉴욕타임스, 파리마치 등에 사진을 싣기도 했다. 그가 남긴 3만여장의 사진은 스위스 로잔의 엘리제 사진박물관에 보관돼 있다.<br/> 신지후기자 hoo@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56.txt

제목: 김종철 유고시집 ‘절두산 부활의 집’ 발간  
날짜: 201410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2010016613105  
본문: 7월 작고한 ‘못의 사제’ 김종철 시인의 유고시집 ‘절두산 부활의 집’(문학세계사)이 발간됐다. 시집에는 시인이 세상을 뜨기 2주 전인 6월 22일 세브란스병원 암병동에서 쓴 ‘절두산 부활의 집’을 포함해 80편의 시가 실렸다. 시인이 직접 5부로 분류한 시집의 1부에는 암 선고를 받은 후 임종 직전까지 투병 중의 심정을 담은 시편이, 2부에는 일본군 위안부들을 소재로 한 시편이 실렸다. 3부에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짚어낸 시인의 부드럽지만 강직한 시선이, 4부에는 가톨릭 신자로서 성지순례 중 포착한 마음의 풍경이, 5부에는 그간의 삶 속에서 떠올린 그리움의 편린과 회한이 섬세한 시어를 통해 표현됐다. 문학평론가 김재홍은 이 시집을 “못 시학의 정점이자 완결판”이라고 평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57.txt

제목: 癌도 이겼는데… 금슬 좋던 40대 부부, 삼남매 두고 떠나  
날짜: 20141019  
기자: 장재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19100000080  
본문: 판교 회사-서울 대학원 오간 만학도, 자녀들 中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도<br/>사회 초년생 故 홍모씨 어제 발인, 어머니 "내 아들…" 영정 앞 오열<br/> <br/>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었다. 불과 이틀 전 아침, 출근한다며 집을 나선 아들은 차디찬 시신이 돼 돌아왔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해 돈 쓸 데도 많았을 텐데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어머니에게 건네던 그런 아들이었다. 회사 일로 피곤해도 택시 한 번 타지 않고 지하철만 타면서도 불평 한 마디 없었다.<br/> 아들 영정이 나오자 어머니는 온 힘을 짜내 다가가려다 이내 주저앉고 말았다. 너무 울어 말라버린 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span class='quot0'>엄마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니 내 아들, OO아, OO아!</span>” 아들의 나이 고작 스물아홉이었다.<br/> 17일 판교테크노밸리 공연장 인근 환풍구 추락사고로 숨진 홍모씨의 발인식이 19일 오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 사고로 숨진 16명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발인이었다. 홍씨의 친인척과 회사 동료 등 40여명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지켜봤다.<br/> 회사 동료 등에 따르면 홍씨는 올해 5월 판교테크노밸리의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입사했다. 근무시간이 유연한 IT회사라 사고 당일 업무를 보다 잠시 머리를 식히러 동료 네 명과 행사장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30대 여성은 홍씨 옆에서 공연을 관람하다 함께 추락했고 나머지 동료들은 환풍구에서 공연을 보지 않아 화를 면했다.<br/> 또 암 투병 중 산책을 나왔다가 변을 당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아내 권복녀(45)씨는 최근 암 수술을 받고 차도가 있자 남편 정연태(47)씨와 산책을 나섰다가 공연을 보게 됐다. 정씨는 아내의 병수발에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고, 슬하의 삼남매에게도 자상한 아버지였다. 정씨 부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금슬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의 여동생은 “아이들이 너무 놀라 울지도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있다”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고 눈물지었다.<br/> 분당의 한 엔지니어링 회사에 다니던 희생자 A씨는 중국으로 아내와 고교생, 중학생 자녀 두 명을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였다. A씨의 매제는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내년 2월 아이들이 돌아오면 함께 살려고 두 달 전 새 전셋집도 마련했는데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며 가슴을 쳤다.<br/><br/> 희생자 중에는 판교에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던 만학도도 있었다. 이모(39)씨는 2011년부터 부동산 관련 업계에 종사하며 경력을 쌓았다. 학업에 열의를 보이던 이씨는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에 진학해 부동산학을 공부하며 전문가의 꿈을 키웠다. 성남 중앙병원에 차려진 이씨의 빈소를 찾은 전 직장 동료 정모(36)씨는 “허허벌판에서 시작해 이제 겨우 자리를 잡나 싶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줄 몰랐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은 분이었는데 안타깝다”며 고개를 떨궜다.<br/> 한편 사고 당일 환풍구에 대해 경고 방송을 했다는 주최측 주장을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숨진 홍씨와 사고 현장에 동행했던 동료들은 “<span class='quot1'>뉴스에 나온 것처럼 사회자가 ‘위험하니 내려오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준 적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사회자가 공연 전 환풍구 앞 난간에 앉은 초등학생들에게 ‘내려오라’고 한 번 말한 게 전부</span>”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년 넘도록 회사를 다니면서 사고가 난 환풍구가 그렇게 깊은지 몰랐다. 주최측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 장재진기자 blanc@hk.co.kr<br/>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br/> 김민정기자 fact@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58.txt

제목: 유방암 캠페인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날짜: 20141019  
기자: 전혼잎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19100000105  
본문: 아모레퍼시픽이 주관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주최하는 ‘2014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서울대회’가 배우 고소영씨 등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19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렸다. <br/>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방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아모레퍼시픽은 2000년 국내 최초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했다. 대회에서는 유방자가검진 교육, 무료 유방암 상담ㆍ검진 등 유용한 정보가 제공됐다. 또 화장품 공병을 활용한 대형 핑크리본 조형물, 김승민 덕성여대 교수의 핑크리본 작품 전시, 핑크리본 마술쇼 등 볼거리도 함께 했다. <br/> 한편,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은 지난 해까지 24만여 명이 참가, 참가비 등 26억원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했다. <br/><br/>전혼잎기자 hoihoi@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59.txt

제목: '원전 탓 암 발병' 법원서 첫 인정… "손해 배상하라"  
날짜: 20141018  
기자: 손현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18100000009  
본문: 방사선 노출-갑상선암 인과관계 통계적 유의미성 밝힌 논문 근거로<br/>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씨 일부 승소… 남편 직장암·아들 발달장애는 불인정<br/> <br/> <br/>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암 발병에 대해 원전 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갑상선암 외의 다른 암에 대해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인지 주목된다. <br/>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17일 고리원전이 인접한 부산 기장군의 박모(48ㆍ여)씨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1,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pan class='quot1'>박씨가 6기의 원전이 있는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10㎞ 안팎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바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span>”고 밝혔다. <br/> 박씨는 2012년 2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남편 이진섭(50)씨도 직장암에 걸렸다. 이들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 균도(22)씨와 함께 기장군 장안읍과 일광면 등 고리원전 반경 10㎞ 안에서 약 20년을 살았다. 박씨 등은 자신들의 질병이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2년 7월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부자는 2011년 3월부터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균도와 세상걷기’라는 이름으로 전국 도보투어를 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br/> 법원은 박씨에 대해서만 원전의 발병 책임을 인정했을 뿐 남편과 아들의 질병인 대장암과 자폐증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기각했다. 갑상선암의 경우 여성에 한해 원전 주변의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가 2011년 4월 정부에 제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전에서 5㎞ 이내에 거주하는 여성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전에서 30㎞ 밖에서 거주하는 여성보다 2.5배 높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재판부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최근 3년 6개월간 암 종합검진을 받은 부산 기장군민의 3.1%가 암 진단을 받아 수도권(1.04~1.06%)을 압도했고 이 가운데 갑상선암 환자가 가장 많았다는 점도 고려했다.<br/> 그러나 이번 판결이 다른 암 환자들의 유사 소송으로 확산될 계기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의학연구원의 논문은 1991년 암이 없던 주민 3만여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20년간 관찰한 원전 지역 암 발병 관련 역학조사였는데, 이 연구에서 직장암과 대장암 등 ‘방사선 관련 암 7종’ 중 갑상선암을 제외하고는 원전 지역 거주기간과 원전과의 거리에 따른 추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동이 걸린 백혈병과 성인 갑상선암의 통계적 일관성 외에 직장암 등이 원전과 관련된 것으로 입증된 사례는 없다는 게 학계의 설명이다. <br/> 하미나 단국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은 체내에서 모든 세포에 고루 분포돼 모든 암을 유발할 순 있지만, 사고나 시설고장이 없는 한 원전에서 수증기나 냉각수를 통해 과량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span>”고 덧붙였다. 체르노빌같은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갑상선암 외에 다른 암들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br/> 또한 이번 판결도 2심에서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통계적 의미를 가진 역학연구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연구논문의 연구책임자였던 안윤옥 서울대 명예교수는 “<span class='quot3'>해당 연구 결과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밝힌 것일 뿐, 원전에서 나온 방사선과 특정 개인의 갑상선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span>”라고 밝혔다. <br/> 손현성기자 hshs@hk.co.kr<br/> 부산=전혜원기자 iamjhw@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60.txt

제목: 아는 게 병이 될 수 있는 재발암 조기 치료  
날짜: 201410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17100000069  
본문: 암 진단과 치료에 있어 조기 발견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암을 일찍 발견하면 할수록 암이 퍼진 범위가 작아 수술이나 치료가 쉽고 결과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적(생존율)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은 종양학적 진리이다. 그러나 처음 발견되는 원발암(原發癌)이 아니고 1차 치료로 싹 없어졌던 암이 다시 생겨나는 재발암(再發癌)의 경우에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능사가 아닐 수 있다.<br/> 이른바 ‘아는 게 병’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재발암의 경우 즉시 치료에 돌입한다고 해도 원발암에 비해 완치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첨단 검사법을 이용하여 재발이나 재발 징후를 일찍 발견하는 것이 암환자 본인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br/>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재발성 암인 난소암에 대한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한다. 유럽연합(EU)에서 다국적으로 시행된 ‘재발성 난소암의 조기 치료와 지연 치료의 비교 임상 시험’이라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난소암으로 치료 받고 추적 관찰 중인 529명의 환자를 조기 치료군 265명과 지연 치료군 264명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조기 치료군은 난소암의 재발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피검사 수치(CA-125) 상승 시 증상이 없어도 즉시 항암치료에 돌입하기로 하였고, 지연 치료군은 피검사 수치가 상승하더라도 일단 기다렸다가 재발에 의한 특정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CT 사진 등에서 암이 보이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에 돌입하기로 하였다.<br/> 피검사 수치는 올라가지만 아무런 이상 증상 없이 잘 지내는 환자들에 대해 어느 시점에 치료를 시작할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대규모 임상시험이었는데, 평균 5년 이상 추적한 결과 조기 치료군과 지연 치료군의 평균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삶의 질을 평가한 분석에서는 조기 치료군의 삶의 질이 지연 치료군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검사 수치만으로 재발을 조기에 진단하고 즉시 치료에 돌입하는 것이 생존율 면에서 이득은 없으면서 환자들의 근심, 걱정, 항암치료 합병증 등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결과를 보인 것이다.<br/> 평소에 병원에 가기를 꺼리는 우리들의 심리 저편에는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를 알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이 될 것이라는 스스로의 기준이 자리잡고 있는데, 적어도 난소암의 재발을 진단하는 데에는 이런 심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이다.<br/> <br/>주웅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61.txt

제목: WHO 암 예방 12대 지침 "담배 피지 마라"  
날짜: 20141015  
기자: 배성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15100000026  
본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암 전문가들이 14일 유럽의 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금연과 활동적인 생활 등 12개 항목의 지침을 발표했다. 아래는 IARC가 밝힌 12가지 항암 지침.<br/> 1. 담배를 피우지 마라. 어떤 형태의 담배도 피워서는 안 된다.<br/> 2. 집안을 금연 구역으로 만들라. 직장의 금연 조치를 응원하라.<br/> 3. 건강한 체중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라.<br/> 4. 활동적인 생활을 하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라.<br/> 5.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라. 이를 위해 통곡물과 콩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라. 당분과 지방 함유량이 많은 고칼로리 식품을 제한하고 설탕이 든 음료를 피하라. 가공처리된 육류를 먹지 마라. 붉은 고기와 염도가 높은 음식 섭취를 제한하라.<br/> 6. 술은 어떤 종류든 줄이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br/> 7. 과도한 햇빛 노출을 피하라. 어린이는 더 조심하다.<br/> 8. 직장에서 건강과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암 유발 물질에서 자신을 보호하라.<br/> 9. 가정에서 높은 라돈 수치로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확인하라. 라돈 수치를 낮춰라.<br/> 10. 모유 수유는 산모의 암 위험을 줄인다. 호르몬 대체요법(HRT)은 특정 암의 위험을 높이므로 HRT 사용을 자제하라. <br/> 11. 신생아는 B형 간염 백신, 여아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 주사를 반드시 맞혀라.<br/> 12. 검진으로 확인이 상대적으로 쉬운 위장ㆍ대장 등 장 관련 암(남녀 모두 해당)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라.<br/>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62.txt

제목: “나를 죽여달라” 지인 부탁 받고 살인한 40대 징역 2년 6월  
날짜: 20141014  
기자: 조원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14100000156  
본문: “나를 죽여달라” 지인 부탁 받고 살인한 40대 징역 2년 6월<br/> <br/> 지병에 시달리던 30년 지기 동네 이웃으로부터 “나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행에 옮긴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br/> 이씨는 30년 간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자신이 정신질환으로 투병 중일 때 도움을 줬던 A(53)씨로부터 지난 7월 충격적인 부탁을 받았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함께 병명을 알 수 없는 소화불량과 수면 장애, 폐렴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A씨가 이씨에게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나를 죽여 달라”고 청한 것이다. <br/> 결국 지난 8월 두 사람은 서울의 모 호텔에 방을 잡았고 A씨는 계획대로 수면제 8알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하지만 이씨는 살인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깨어난 A씨로부터 “너는 왜 나를 보내지 않았니. 왜 약속대로 하지 않았냐”며 원망을 들어야 했다. 다시 시도하기로 한 두 사람은 이틀 후 같은 호텔에 다시 방을 잡았고 이씨는 술과 함께 20알의 수면제를 먹고 잠든 A씨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했다. <br/> 재판부는 “<span class='quot0'>A씨가 생전에 고통이 너무 커서 죽음을 간절히 원했고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씨가 부탁을 거부함으로써 범행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pan>”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가 진실로 고인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지병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갑상선 암으로 치료약을 복용 중인 이씨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이씨의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b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63.txt

제목: "짜게 먹으면 위암 위험 2.7배 유방암 발병률은 2배 높아져"  
날짜: 20141010  
기자: 이윤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10100000085  
본문: 짜게 먹으면 위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소금 섭취가 위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에서 다시 확인된 것이다. <br/> 10일 박정환 건국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와 김성권 서울대 명예교수팀은 2009~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가자 1만9,083명을 분석한 결과, 하루 소금섭취량이 14.1ｇ 이상 매우 짜게 먹는 사람들의 위암 발생률이 1.6%로 싱겁게 먹거나 보통으로 먹는 사람(하루 14g 이하)의 0.6%보다 2.7배 높았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이다.<br/>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소변 속 나트륨 검사 기록을 근거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환산해 조사 대상자들의 암 발병과 비교했다. 그 결과 하루 소금 섭취량이 5.6g 이하인 경우 위암 발병률은 0.3%에 불과했지만, 5.7~9.8g 그룹은 0.5%, 9.9~14g 그룹은 0.7%, 14.1g 이상 그룹은 1.6%로 소금 섭취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았다. <br/> 또 짜게 먹는 습관과 유방암 발병의 상관관계도 이번 연구에서 처음 밝혀졌다. 하루 14.1g이상 소금을 먹는 사람들의 유방암 발생률은 1.9%로 14g 이하 섭취자들의 발생률(0.8%)보다 2배 높았다. 대장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 등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br/> 박정환 교수는 “<span class='quot0'>소금 과다 섭취로 위 속 나트륨 농도가 증가하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해 발암물질에 대한 방어가 약해져 위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말했다. 소금 과다 섭취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증식 등에 관여한다는 추정도 있다.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헬리코박터균은 나트륨이 과도할 때 생존과 성장, 세포 변화 등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김성권 서울대 명예교수(싱겁게먹기실천연구회 이사)는 “<span class='quot1'>하루 소금 섭취량을 현재 한국인 평균량의 3분의 1 이하(3g 이내)로 줄여야 위암 걱정을 덜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위암 유방암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콩팥병 뇌졸중 등의 예방을 위해서도 싱겁게 먹도록 노력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64.txt

제목: 병원 이끄는 신부님 "재미있는 병원 만들겠다"  
날짜: 20141010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10100000032  
본문: “병원은 아픈 사람만 찾는 곳이라는 일반인의 생각을 바꾸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즐길 거리는 물론 유익한 건강 정보도 제공하겠습니다.”<br/> 올 2월 인천 서구 심곡동에 개원한 국제성모병원 의료부원장이자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관리이사인 박문서(프란치스코ㆍ48·사진) 신부는 7일 병원 운영과 관련,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박 신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메디컬 테마파크’의 개원(9일)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새없이 바쁜 가운데 인터뷰에 응했다. 박 신부가 내세우는 병원 운영의 새로운 모델은 한 마디로 ‘메디테인먼트(Meditainment)’의 실현이다. 의료(medical)와 재미(entertainment)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다.<br/> 인천가톨릭학원은 지난 달 1일 새로 개교한 가톨릭관동대와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부평구의 인천가톨릭병원을 총괄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박 신부는 보기 드문 병원 전문경영인이다. 신부라는 신분으로 중앙대 대학원에 입학해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의 철학을 담은 국제성모병원을 설립한 데 이어 관동대까지 인수해 보건의료 분양의 인재 양성에 뛰어들었다.<br/> 박 신부는 자신이 추구하는 ‘메디테인먼트’ 실현을 위해 ‘메디컬 테마파크(MTP)’도 열었다. 이 테마파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새로운 의료문화의 첫 시도다. <br/> “<span class='quot0'>메디컬 테마파크를 통해 병원을 지역사회에 더 친숙한 기관으로 개방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이점을 살려 요우커(遊客ㆍ중국 관광객) 등 외국 관광객을 이곳에 찾게 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앞장서겠습니다.</span>” 박 신부는 “<span class='quot0'>당장 올해 안에 10만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생각</span>”이라고 했다.<br/> 병원 구내 1만4,000㎡의 공간에 조성된 메디컬 테마파크는 힐링(Healing),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뷰티(Beauty)를 핵심 가치로 한다. 신 개념 어린이 건강놀이터로 꾸며진 ‘밸런스 파크(Balance Park)’에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놀이기구에서 신나게 노는 동안 근력과 유연성, 순발력, 심폐지구력 등을 자동 측정해 신체발달 정도를 알아내고 적절한 처방을 한다.<br/> ‘락(樂) 프리즘’은 한류 문화공간이다. 이곳 갤러리에는 아이돌 스타를 비롯한 한류 스타들을 3차원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다양한 예술작품도 전시돼 있다. 뷰티 살롱에서는 최고급 메디컬 스파와 피부미용, 머리손질 등을 받을 수 있다. 피부 관리나 미용성형에 대한 상담도 해준다. <br/> ‘그린 스퀘어(Green Square)’는 식물공장에서 기른 신선한 건강식 재료를 체험하는 곳. 이곳에서는 수경 재배한 다양한 채소와 버섯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런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도 함께 맛볼 수 있다.<br/> 신부임에도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까닭을 묻자, 박 신부는 “<span class='quot1'>10여 전인 2005년 부평성모병원의 경영책임을 맡으면서 병원 내 여러 전문가 집단과 어울리려면 의학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주경야독했다</span>”며 웃었다. <br/> 박 신부에게 괄목상대하는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강릉 관동대를 전격 인수해 지난 달 1일자로 ‘가톨릭관동대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대학교육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br/><br/><br/> “국제성모병원을 기획하고 건축에 착수하면서부터 의대 설립을 추진했죠. 국제성모병원의 최종 목표는 ‘세계 최고의 병원’입니다. 그러려면 의대가 필수적이죠. 연구ㆍ교육의 활성화 없이는 세계 최고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br/> 박 신부는 “<span class='quot1'>국제성모병원은 처음부터 단순히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동서중개의학 연구,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의 개발, 신약 개발 등을 통해 의료산업화를 선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름에 걸맞은 위상을 반드시 정립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 그래서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관동대를 인수했고, 국제성모병원은 가톨릭관동대 의대 부속병원이 됐다. 학생실습을 할 부속병원이 없어 사회문제로 비화했던 관동대 의대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학생들은 지난 달 1일부터 국제성모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있다.<br/> 박 신부가 내세우는 국제성모병원의 진면목은 ‘수술 잘하는 병원’. 이는 연간 30억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이재발암센터’와 ‘장수의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br/> “암이 말기에 이르거나 여러 곳에 전이된 경우, 병원과 의료진은 흔히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환자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지요. 우리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과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면서 면역증강요법, 보완대체요법 등 전인적인 치료를 제공해 그들에게 정신육체적으로 도움을 주려 했고 결과도 만족스럽습니다.”<br/> 장수의학센터에 대해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화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와 진료를 담당하면서 대사증후군 예방, 내분비 기능 강화, 퇴행성 질환의 관리, 뇌기능의 개선, 그리고 각종 항노화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건강한 고령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br/> 두 가지 진료센터 외에도 35개 임상과와 12개 전문센터 모두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최신예 진단장비를 갖췄다. “<span class='quot0'>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절대 아끼지 않는다</span>”는 박 신부의 방침에 따라 국제성모병원은 후발병원답지 않게 급성장하고 있다.<br/> 어렵게 인수한 가톨릭관동대에 대한 애착도 남다르다. 박 신부는 인수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적폐들을 과감히 정비해 새로운 학풍을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믿지 않겠지만 가톨릭관동대는 5년 내에 전국 70위권에, 의대는 10위권에 진입시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의료계에서는 ‘앞서가는 신부’로 통하는 박 신부의 꿈이 어디까지 펼쳐질 지 의료계는 주목하고 있다. <br/> <br/>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65.txt

제목: 대경대 국내대학 유례없이 전공살린 시민축제 연다  
날짜: 20141009  
기자: 전준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09100000016  
본문: 캠퍼스 아닌 대구 코오롱야외음악당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br/><br/><br/><br/>자동차딜러과, 해외자동차설명회<br/>동물조련학부, 미니동물원 운영<br/>패션쇼핑몰과, 무료 프로필 촬영<br/>패션쇼, 뮤지컬, 보디페인팅까지<br/><br/> 대경대가 10일 국내 대학 중 유례없이 시민과 함께하는 ‘대경 시도민 드림축제’를 연다. 몇 시간 반짝하는 축제가 아니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꼬박, 축제 장소도 대학 캠퍼스가 아니라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으로 대구ㆍ경북 시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대학축제로 진행한다.<br/> ‘꿈과 끼를 살리는 창조경제행복 교육실현’이라는 슬로건이 내걸린 이날 축제는 우선 오후 5시까지 ‘전공체험 대구 경북 시민과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진로체험과 시연행사, 시민과 함께하는 경연대회를 선보인다. 대학 36개 학과 모두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여는 것이다.<br/> 자동차딜러과는 해외자동차 설명회를 열어 차량매니아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로 했다. 동물조련이벤트과는 미니동물원을 운영, 동심을 빼앗고 패션쇼핑몰과는 무료 프로필 촬영을 할 계획이다. 뷰티디자인학부는 손톱과 손 마사지, 향수만들기, 헤어스타일링 체험서비스를 하고 와인바리스타과는 더치커피 판매와 칵테일, 막걸리를 무료로 내놓는다.<br/> 호텔조리학부와 베이커리학과는 야외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건강 식단을 짜주는 한편 동ㆍ서양 특식을 선보이기로 했다. 간호계열은 혈당 체크와 10대 암조직 전시, 몸의 세포관찰 등 특별한 경험을 안겨주고 생활체육과는 원포인트 골프레슨을 한다. 성오현 대경대 교학처장은 “<span class='quot0'>1부 체험행사는 시민들이 직업교육의 다양한 특성과 특징을 살펴보는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span>”고 말했다.<br/> 오후 6시30분 시작되는 ‘이것이 문화다-대경 시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에는 중국 산둥공예예술대학 초청 패션쇼가 첫 무대를 장식한다. 김우빈을 배출한 모델과는 특별한 패션쇼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뮤지컬과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공연을 선보인다. 메이크업과는 보디페인팅쇼와 칼라풀도시 대구를 표현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펼친다.<br/> 이어 동물조련이벤트과는 40여 종의 동물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준비했고, 실용음악과는 출신 그룹들의 무대를 선보인다. 이날 축제는 가수 다이나믹 듀오와 라니아, 에이젝스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 대학 김태훈(21ㆍ임상병리과1)씨는 “지금까지 대학축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기획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축제는 전공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어 의미있는 대학생활의 추억거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br/> 이채영 대경대총장은 “<span class='quot1'>특성화된 대학의 전공학과들이 시민들과 함께 배움에 대한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span>”이라고 말했다.<br/> 전준호기자 jhju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66.txt

제목: [기고] ‘자살공화국’ 오명 벗으려면  
날짜: 20141009  
기자: 김성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09100000163  
본문: 해마다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정신건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날이다. 기념일을 맞는 마음은 무겁다.<br/>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벌써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살률 수치는 감소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는 전체 사망 원인의 15번째 원인이지만 한국에서는 4번째에 올라 있다. WHO는 자살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로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음주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저조하다. <br/> 질병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장애와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질병부담이 가장 큰 10대 질병에는 심장병ㆍ암ㆍ치매 등과 함께 우울증ㆍ알코올 중독ㆍ조현병 등의 정신의학적 질환이 다수 포함된다. 이러한 주요 정신장애의 75%는 25세 이전에 발병하고 절반가량은 15세 이전에 발생하고 있다. 20대 전후 청년들의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청년 시기의 전체 질병부담 중 약 70%가 정신건강의 문제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대의 젊은이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받는 비율은 아주 낮다. <br/>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 학업에 대한 부담에다 왕따나 학교 폭력 등 교우 관계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작지 않다. 20대 청년이 되면 취업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군대라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상담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사춘기의 일시적 방황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시키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질병을 키우는 경우도 흔하다. 예방보다 효과가 더 큰 치료법은 없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해 치료 시작 시기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늦다. 우리나라 10~30대의 가장 빈번한 사망원인이 자살인 것을 고려하면 보다 나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br/> 호주정부는 최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나섰다. 2011년 22억달러(약 2조3,000억원)를 투자하는 이른바 ‘국가정신보건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이 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20대 전후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의 관리 및 치료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기 정신증 예방 및 중재센터’와 ‘헤드스페이스(headspace)’가 바로 그것이다.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인 호주가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예산을 2조원 넘게 집행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복지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질병을 만성화되기 전에 예방하고 조기 치료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결국 의료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일 것이다.<br/> 우리나라에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기초자치단체마다 설치돼 있지만 인력이 대부분 5명 안팎에 머물러 집중적인 조기중재 사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 10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신보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보건 예산은 소모적 예산이 아닌 사회ㆍ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이 보다 밝은 사회와 미래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정부도 더욱 적극적인 정신보건정책을 펼쳐갈 수 있을 것이다.<br/><br/> 김성완 전남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67.txt

제목: 신품종 '항암 쌈채' 첫선  
날짜: 20141008  
기자: 한덕동ddhan@hk.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08100000090  
본문: 증평군 박동복 종자명장 개발, 배추-순무 교잡… 암 예방 효과 <br/> <br/> 충북 증평의 제일종묘농산(대표 박동복)은 8일 괴산군 청안면 육종연구육묘장에서 항암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항암쌈채 발표회를 가졌다. <br/> 박 대표가 15년 동안의 연구끝에 개발한 이 쌈채의 품종 이름은 ‘암탁쌈채’이다. 암 예방에 탁월하다는 의미를 담았다.<br/> 실제로 이 쌈채에는 갖가지 항암 성분이 일반 쌈채소에 비해 수십배 이상 함유돼있다. 신라대의 실험 결과 각종 암세포의 성장을 저지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br/> 박 대표는 배추와 순무를 종간교잡한 뒤 첨단육종기법인 소포자배양을 통해 항암쌈채 육종에 성공했다. 박 대표는 “<span class='quot0'>1997년 육종 연구차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유럽인들이 암 예방에 좋다며 순무를 즐겨먹는 것을 보고 한국의 쌈문화에 접목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span>”고 말했다. <br/> 이 쌈채는 상추를 대신할 기능성 채소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br/>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청주삼겹살타운 상인들은 “<span class='quot1'>쌈채의 잎이 둥근데다 향이 좋고 아삭한 식감도 좋아 고기를 싸먹기에 제격인 것 같다</span>”고 입을 모았다.<br/> 박 대표는 항암성분이 다량 함유된 배추(암탁배추), 혈당을 낮추는 기능성 고추(당조고추)등 다양한 신품종 종자를 개발해 2009년 대한민국 종자명장으로 선정됐다. <br/> 그의 암탁배추는 해외 종자시장에서도 인정해 수출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지 농장의 재배를 거쳐 대형 마트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는 수출을 전제로 현지 농장에서 시험 재배가 진행 중이다. <br/> <br/> 글ㆍ사진 한덕동기자ddha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68.txt

제목: 표적 항암제 15년의 명암  
날짜: 20141007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07100000024  
본문: 글리벡 등장 이후 수십종 난립… 옥석 가려야<br/>짧은 기간 생명 연장 "효과 있다" "없다" 전문가 논란<br/>약값 한 달에 수백만원… 건보 적용 여부 명확한 기준 없어<br/> <br/> 최초의 표적항암제 글리벡이 등장한 지 올해로 15년이 됐다. 1999년 개발된 글리벡은 지금까지도 가장 성공적인 표적항암제로 꼽힌다. 글리벡 이후 표적항암제가 암 치료의 혁신 모델로 떠오르면서 유명 제약사들이 앞다퉈 내놓으며 현재 표적항암제를 표방하는 약은 수십종에 이른다. 국내엔 10여종이 출시돼 있다. ‘표적항암제=꿈의 암 치료제’라는 등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는 옥석을 가릴 때다.<br/> 표적항암제는 암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표적(유전자, 단백질 등)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암세포만을 골라 공격하는 약이다. 정상세포에까지 독성을 미쳐 머리가 빠지고 백혈구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낳는 일반 항암제에 비하면 굉장한 혁신이다. 의료계에서는 글리벡(만성골수성백혈병)과 허셉틴(유방암), 맙테라(림프종) 등은 성공적인 표적항암제로 꼽는다.<br/> 그러나 표적항암제가 점점 늘면서 표적과 암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가령 암세포가 증식을 위해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걸 억제하는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가 뒤늦게 취소됐다. 추적 연구로 항암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은 크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br/> 전문의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표적항암제도 있다. 넥사바는 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2, 3개월, 타세바는 췌장암 생존기간을 2주 가량 연장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환자를 단 며칠이라도 더 살리는데 의미가 있다는 견해와 이 정도를 표적항암제의 효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맞선다. 넥사바와 타세바 한 달 약값은 수백만 원이지만, 우리나라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이 큰 부담 없이 약을 쓴다. 그러나 영국과 스웨덴에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캐나다 독일 프랑스에서도 보험 혜택이 없다. <br/>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span class='quot0'>의료 선진국들은 표적항암제의 보험 적용 여부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한 과정을 거쳐 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span>”고 지적했다.<br/> 잴코리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폐암 환자에게 쓰면 증상이 잘 조절되면서 생존기간이 8개월 가량 길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환자는 한 달에 1,000만원 가까운 약값을 낸다. 적용환자가 드문 영국에선 잴코리에 보험혜택을 안 주지만, 우리나라엔 잴코리를 쓸 수 있는 환자가 많다. 수년째 비보험 표적항암제로 남아 있는 잴코리와 달리 지오트립(폐암)은 8개월 만에 보험 대상이 됐다. 또 다른 보험 적용 표적항암제 이레사(폐암) 역시 최근 생명연장 효과가 있다는 연구와 없다는 연구가 나와 혼란이 일었다. <br/> 표적항암제는 연구개발비가 많이 드는 만큼 비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제약사 입장에선 수익이 보장되는 셈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span class='quot1'>제약사가 보험 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는 제한된 조건에서 자사에 유리하게 분석된 부분이 적지 않다</span>”고 귀띔했다.<br/> 건강보험은 한정된 공적 자산이니만큼 경제성을 얼마나 고려할 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생명을 1년 연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환자가 속한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보다 적으면 경제성이 있고, 3배를 넘으면 없다고 본다. 그 사이는 약의 혁신성과 보험 재정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1년 약값이 대략 3,000만~9,000만원 사이인 표적항암제가 이에 해당한다.<br/>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69.txt

제목: 뜸, 암 통증 억제 효과 있다  
날짜: 20141006  
기자: 손현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06100000144  
본문: 뜸, 암 통증 억제 효과 있다<br/> <br/> <br/> <br/> 한방 뜸치료가 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실렸다.<br/>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윤성우 교수팀은 암성 통증을 호소하는 대장암, 유방암 등 전이암 환자 14명을 뜸 치료를 받은 환자 7명과 그렇지 않은 7명(대조군)으로 나눠 관찰한 결과, 뜸 치료군에서 통증 감소효과가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br/> 이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통합 종양학 분야 유명 SCIE(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확장판)급 국제학술지 ‘통합 종양 치료법’(Integrative Cancer Therapies)에 첫 발표됐다. 전세계 의학저널을 소개하는 미국 의학사이트 ‘MD링스’에선 우수논문으로 소개됐다.<br/> 의료진은 뜸 치료를 받은 환자의 중완혈(배꼽과 명치 사이), 관원혈(배꼽 3㎝ 아래), 아시혈(통증 부위 중 누를 때 더 민감하게 여겨지는 지점)에 하루 3차례 7일간 뜸을 놨다. 중완혈과 관원혈에 대한 한방치료는 면역력을 높이며, 아시혈에 놓는 뜸은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대조군에는 가짜 뜸을 놓았다. 진짜 뜸은 다 타서 0.5㎝ 이하로 남게 해 열 자극이 피부 속으로 전달되게 한 반면 가짜 뜸은 1㎝정도를 남겨 열이 피부 속으로 전달되지 않게 했다.<br/> 그 결과 가짜 뜸 치료군에서는 통증지수(BPI)가 4.84에서 5.19로 0.35점 상승한 반면 진짜 뜸 치료군은 5.49에서 4.52로 0.97점 감소했다. 치료기간 진통제 사용량은 일정했다.<br/> 윤 교수는 “<span class='quot0'>뜸의 효과를 보려는 동물이나 세포실험은 있었지만 임상시험을 통해 암성 통증 억제효과를 증명한 건 이번이 처음</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뜸 치료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기존 진통제의 사용량을 줄이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 손현성기자 hsh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70.txt

제목: 경제3/전자기파로 줄기세포 제조 성공  
날짜: 20141006  
기자: 임소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06100000084  
본문: 전자기파로 줄기세포 제조 성공 <br/> 안전성과 효율 향상, 상용화 가능성 높여…한계는 여전 <br/> <br/> 줄기세포 치료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발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br/> 동국대 김종필(사진) 교수 연구진은 “<span class='quot0'>유도만능줄기세포(iPS) 제조에 흔히 쓰이는 유전자들 대신 특정 주파수와 강도를 갖는 전자기파(극저주파)를 사용해 iPS를 만드는데 처음으로 성공했다</span>”고 6일 밝혔다. <br/> iPS는 체세포의 발달 과정을 거꾸로 되돌려(역분화) 발생 초기 상태로 만들어놓은 세포로, 배아(수정란)에서 뽑아낸 줄기세포처럼 인체의 모든 세포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난치병 치료용으로 각광받는다. 체세포를 역분화를 시키기 위해선 대개 특정 유전자 4가지를 넣어주는데, 인위적인 유전자 주입이 발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돼왔다. <br/> 연구진은 실험용 쥐의 꼬리에서 뽑아낸 체세포에 4가지 중 1가지 유전자만 처리하고 2주 이상 극저주파에 노출시켰다. 그 결과 극저주파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iPS가 37배나 더 많이 만들어졌다. 발암 가능성은 줄고 생산 효율은 높아진 것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세포의 유전 특성에 영향을 미쳐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양한 전자기파 자극으로 여러 치료용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내다봤다. <br/> 그러나 이번 기술만으로 생체에 줄기세포를 넣었을 때 암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진 못한다. 유전자 주입뿐 아니라 특정 조직 세포로 분화하려고 하는 줄기세포 본래의 성질이 발암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br/>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71.txt

제목: 간호사 부족 사태 불구경하듯 하면 안돼  
날짜: 2014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06100000014  
본문: “아픈 환자를 돌보다 보면 하루가 부족하죠. 몸이 열 개라도 쉴 틈이 없어요. 3교대 밤샘 근무 명절에도 일해요. 아픈 사람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아픈 사람 없으면 간호사는 실업자. 실업자가 돼도 좋아요, 아프지 마요.” 지난 추석 연휴 때 KBS2TV ‘개그콘서트-렛잇비’에 출연한 한 병원 간호사가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애환을 이같이 노래했다.<br/> 최근 대구시가 출자한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이 며칠 간 폐쇄됐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최초로 독립적인 호스피스 병동에서 삶의 끈을 이어가는 말기암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간호 인력 부족이 원인이었다. 현재 4개 병실 14개 병상의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7명의 간호사가 필요한데 간호사 2명이 그만두면서 최소 근무 인력을 맞추지 못해서다. 대구의료원은 “<span class='quot0'>모자라는 간호 인력 지원자가 거의 없는 데다 호스피스 병동에 간호사를 충원하는 것은 어렵다</span>”고 폐쇄 이유를 댔다. <br/> 간호사가 부족한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1999년 간호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 확보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간호관리료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이 더 부족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br/>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최근 1,2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병원 135곳 가운데 65.4%(87곳)는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 이후 오히려 간호사 구인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고, 23.3%는 ‘구할 수 없다’고 했다. 간호관리료차등제로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처우가 좋은 대형 병원으로 간호사들이 쏠리기 때문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셈이다.<br/> 한 의료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병원급 의료기관 30% 정도만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신청했고, 70%는 간호사를 새로 채용하지 않고 삭감을 택하고 있다.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수가 삭감을 당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하루 입원료 2만6,700원(2012년 기준)의 2%를 삭감하면 1일 1병상 당 534원이다. 예컨대, 100병상인 중소병원이 등급에 미달하면 한 달에 160만2,000원을 삭감 받게 된다. 이를 간호사의 봉급으로 환산하면 간호사 평균 연봉인 2,400만원(대한간호협회 주장)에 미치지 못하는 1,922만원이다.<br/>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간호사 부족 사태가 대구의료원만의 일이 아니기에 당국은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br/><br/>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72.txt

제목: 1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이대로 놔둘 건가  
날짜: 20141006  
기자: 김치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06100000015  
본문: 작년 1만4427명 목숨 끊어 OECD 평균 자살률 2배 넘어<br/>'마지막 카드' 잘못된 인식에서 10대 소녀ㆍ노인 자살 특히 높아 <br/>자살에 너그러운 풍토 개선하고 연예인 등의 자살 보도 신중해야<br/><br/> <br/><br/><br/> <br/> 1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 하루 평균 자살자 40명.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는 1만4,427명.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8.5명이었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 당 평균자살률은 12.1명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자살률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br/> <br/> 여성자살 미화 풍토 문제…10대 소녀 자살도 심각<br/> 홍현주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여성의 자살을 미화하는 잘못된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span class='quot0'>조선시대 재가를 하지 않고 ‘수절’하는 것도 모자라 죽은 남편을 따라 스스로 ‘자결’하는 여성이 칭송된 사회?문화적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어 여성의 자살을 미화시키는 경우가 있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투신한 효녀심청 이야기가 전래동화로 권장되고 있는데 사실 가족과 사회에서 자살을 강요한 것과 다름없다</span>”고 꼬집었다.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하는데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미망인’이란 단어가 고매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통념이 여성들의 자살을 부지불식간에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br/> 홍 교수는 또 다른 연령에 비해 유독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10대 여학생들의 자살과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span class='quot0'>성인으로 가면 남자의 자살확률이 높은데 유독 10대에서는 여학생들의 자살률이 남학생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들 다수가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 가족 구성원의 관찰과 보살핌이 절실하다</span>”고 했다. <br/> 실제로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펴낸 ‘자살예방백서 2014’통계에 따르면 10대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빈도가 높았다. 지난해 전국 중고생 400개교, 1,200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된 ‘청소년 건강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여학생의 20%는 자살을 생각했다. 남학생은 13%가 자살을 생각했다. 또 여학생의 5.5%는 자살을 시도해 2,8%에 불과한 남학생을 추월했다. <br/> 홍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여성의 자살률은 20대에 정점에 올랐다가 줄어들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10대부터 자살생각과 자살을 시도하는 여성이 많다는 것 자체가 사회,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span>”이라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홍 교수는 “<span class='quot0'>자살예방 정책이 노인에 맞춰져 있어 청소년 자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보건복지부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청소년 자살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아직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span>”고 지적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span class='quot1'>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과 관련 보건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자살예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도 없이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span>”이라고 비판했다.<br/> 이에 대해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2'>한정된 예산으로 자살예방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노인에게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청소년자살 예방사업은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할 것</span>”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했다.<br/> <br/> 노인 암환자 자살에 “차라리 잘 죽었다”?<br/> 노인자살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3'>노인의 경우 반드시 혼자 산다고 자살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살로 연결되는 것이 문제</span>”라고 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3'>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어차피 죽을 텐데 차라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이 많다</span>”고 문제를 제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대의 10만 명 당 자살률은 91.7명이고, 80대 이상은 138.1명으로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br/> 박 교수는 또 “<span class='quot3'>우리사회는 노인이 장수하다 노환으로 사망하면 ‘호상’이라고 하면서 암에 걸려 자살을 하면 어차피 살만큼 살았는데 치료를 받으며 고생하는 것보다 자살을 선택한 것이 났다는 식으로 자살을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사회, 경제적으로 노인을 쓸모 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노인자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span>”고 지적했다. <br/> 자살이 삶의 마지막 카드로 활용되는 것을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3'>자살을 시도한 이들과 상담하면 사회적 경쟁에서 낙오가 됐을 때 다음 기회가 영영 없을 것이라는 현실 때문에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span>”며 “<span class='quot3'>단순히 복지예산을 늘린다고 자살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불치병에 걸리거나 일반인이 경쟁에서 이탈했을 때 자살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br/> <br/> 자살방법 알려주는 친절한 보도삼가야<br/> 연예인 등 유명인사 자살과 관련 과도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미디어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유명인사의 자살과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자살법, 자살장소, 시간까지 자세히 알려줘 일반인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4'>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고위험군에 속한 이들은 반드시 영향을 받고 이를 학습해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자살관련 보도를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span>”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4'>모 방송국 드라마에서 주인공 남학생이 스크린도어가 없는 지하철 역사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이 방영된 후 인터넷에서 그 역사가 어딘지 검색해 그곳에서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span>”며 “<span class='quot4'>청소년들은 자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드라마, 영화 등에서 자살을 유도하거나 의미하는 선정적인 장면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 박종익 교수는 “<span class='quot5'>2008년 10월 배우 최진실씨가 자살한 이후 3개월간 자살자가 전월 대비 60~80%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자살한 비율도 늘어났다</span>”며 “<span class='quot5'>과도한 언론보도가 고위험군이 자살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데 영향을 주는 만큼 이에 대한 환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span>”이라고 했다. 실제로 최진실 씨가 자살수단으로 사용했던 ‘목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살자의 50%가 사용했다. 가스음독도 2009년 안재환 씨 자살 이후 자살방법이 미디어를 통해 상세히 보도된 후 4배 이상 급증했다.<br/> 가족살인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윤진 중앙자살예방센터 미디어정보팀장은 “<span class='quot6'>우리나라는 가족살인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6'>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없는 자녀들을 죽이고 자살하는 이들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미화하는 세태도 변해야 한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6'>자살을 선택한 망자를 애도하되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정당화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우리사회의 모순이 반드시 개선돼야 자살이 감소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 <br/>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73.txt

제목: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날짜: 20141003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03100000079  
본문: 환자가 이 과 저 과 찾는 대신 의사들이 모여 최적 치료법 찾아<br/>삼성서울병원 암병원서 시도, 패스트 트랙 제도도 호응 높아<br/><br/><br/> <br/>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1층 다학제협진실에 5명의 베테랑 교수가 심각하게 논의를 벌였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은 50대 A씨의 암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수술을 맡을 김영호 소화기내과 교수와 김희철ㆍ권우일 소화기외과 교수, 항암과 방사선 치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지연 혈액종양내과 교수와 박희철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등은 한참을 논의하다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로 정했다. 이들 교수는 A씨에게 “암세포가 전이는 됐지만 예후가 좋을 것이다. 복강경으로도 수술할 수 있어 흉터도 크지 않고 일상복귀도 빠를 것”이라고 소상히 설명했다. 게다가 의료진은 “<span class='quot0'>치료가 잘 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라</span>”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건넸다. 간까지 암세포가 퍼져 우울감에 젖었던 A씨는 모처럼 활짝 웃었다.<br/> 대형병원에는 환자가 많아 치료일정을 잡는 것은 물론 의사 얼굴 보기조차 쉽지 않다는 편견이 깨지고 있다. 불안한 환자의 마음을 달래면서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도록 환자중심으로 병원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중심이 아니라 환자가 중심이라는 기본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천동설과 지동설에 빗대 ‘환동설(患動說)에서 ‘의동설(醫動說)’로 바뀌었다고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br/> 삼성서울병원은 2012년 ‘환자행복을 위한 의료혁신’을 주창했다.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이 과, 저 과를 찾아 다니는 불편을 없애겠다고 선언이었다. 병 치료만으로도 힘든 환자에게 번거로움을 줄여주겠다는 뜻에서다. 대표주자가 암병원과 심장뇌혈관병원. 지난해와 올해 1년 간격으로 병원 내 병원 형태로 출범한 두 병원은 이제 환자행복을 위한 병원 혁신을 이끌고 있다.<br/> <br/> 1주일 이내 암 치료 받아<br/>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다학제 협진을 원칙으로 진료 프로세스를 바꿨다. 여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다학제 진료를 진행해 환자 부담은 줄이고 치료결과는 높이기 위한 시도다. 결과는 대성공. 의료진과 환자 모두 크게 만족했다. 특히 진행성 암이거나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병일수록 그렇다. 해당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치료계획을 세우려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br/> 임도훈 암병원 운영지원실 기획팀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span class='quot1'>다학제 협진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한 지름길</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게다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높여줄 수 있어 치료 순응도나 만족도도 높여줄 수 있다</span>”고 했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들이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 한 자리에 모여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이유다. <br/> 특히 1+1+1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는 환자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패스트 트랙 제도는 ‘1’번만 병원을 방문하면 당일 검사를 진행, ‘1’주일 이내 제‘1’ 좋은 치료법을 적용해 주겠다는 뜻이다. 대형병원에서는 큰 병원이거나 유명한 교수를 만나 진료를 보려면 몇 주씩 기다리고, 실제 수술과 각종 치료를 받으려면 몇개월씩 밀려 ‘줄이 없으면’ 발을 동동거리는 일들도 허다했던 데 비하면 과히 혁명적이다.<br/>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도입을 확대해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누구에게서나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토양을 만들고 있다. 게다가 올해 첫 도입한 개인맞춤형 치료는 유전자 분석에 끝나지 않고 실제 환자 치료에까지 적용하도록 글로벌 제약사들과 연구를 공동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암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 삶 치유에도 목표를 삼아 암치유센터를 열고 환자들의 삶을 보듬고 있다. <br/> 암환자와 가족이 심리·사회적으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암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암치유센터에 전문 클리닉에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심영목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2'>환자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앞으로도 환자가 중심되는 치료를 위해 고민하겠다</span>”고 했다. <br/> <br/><br/><br/> 한국형 심장·뇌졸중·혈관질환 극복 모델 선보여<br/> 삼성서울병원은 암병원 성공에 힘입어 올 3월 또 한 번 국내 의료계를 뒤흔드는 혁신 모델을 내놨다. 심장질환과 뇌졸중, 혈관질환을 묶어 통합치료(integrated care)가 가능한 ‘심장뇌혈관병원’의 출범이다. 특히 심장분야 세계적 대가인 오재건 미국 메이요클리닉 교수를 병원장으로 임명하고, 한국형 심장·뇌졸중·혈관질환 극복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사망 원인 2·3위를 차지하면서 발병 원인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br/> 이를 위해 4개 통합진료 프로그램을 포함한 47개 특성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심근경색환자의 뇌졸중과 같이 두 군데 이상의 혈관에서 질환이 발생하는 다혈관질환 클리닉, ▦목에서 뇌로 피를 공급하는 동맥인 경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동맥협착 클리닉, ▦불규칙하게 맥박이 뛰는 심방세동환자-뇌졸중 클리닉, ▦심정지 클리닉이 대표적이다. <br/> 예컨대 부정맥의 하나인 심방세동을 앓는 환자는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병원문화는 환자가 뇌졸중 대비를 별도로 해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심방세동과 뇌졸중을 묶어 하나의 클리닉에서 치료가 가능토록 했다. <br/> 가장 흔히 발생하는 복합질환은 첫 진료부터 다학제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도 바꿨다. 치료에서부터 재활과 예방활동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하는 통합 진료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일반 환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대동맥박리에 대응하려고 ‘24시간 대동맥 전담팀’도 편성했다. 대동맥 전담팀은 심장외과, 혈관외과, 순환기내과를 비롯, 중환자의학과, 응급의학과 교수진과 전담 코디네이터 등 전담팀을 구성,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신속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진상 심장뇌혈관병원 운영지원실장(신경과 교수)은 “<span class='quot3'>심방세동-뇌졸중클리닉처럼 환자에게 원스톱 통합 치료와 예방이란 신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환자 편익을 극대화했다</span>”고 했다. <br/> 병원의 혁신은 그치지 않고 있다. 환자 스스로 느끼지 못했더라도 심장,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의심되면 즉시 환자중심 시스템이 가동돼 원스톱 진료한다. 1주일 이내 발생한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허혈 환자는 신속 뇌졸중 클리닉을 통해 그 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br/> 또 뇌졸중이나 경동맥 협착과 같이 복합질환이 의심되면 당일 검사와 치료와 같은 다학제 진료가 이뤄진다. 필요하면 단기 입원해 검사와 치료를 진행한다. 내ㆍ외과적 치료가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치료법’도 강화하고 있다. 병 회복과 퇴원을 줄여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오재건 심장뇌혈관병원장은 “<span class='quot4'>앞으로 우리나라 심장, 뇌졸중, 혈관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한발 짝 더 앞서나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74.txt

제목: 정진성·백성희 서울대 교수 삼성행복대상 수상  
날짜: 20141001  
기자: 이서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1001100000153  
본문: 여성권익 전도·과학 연구 업적 인정<br/> <br/> 여성 권익신장과 사회공익에 기여하고 효행을 실천한 여성ㆍ단체ㆍ청소년에게 주는 삼성행복대상의 수상자로 정진성(사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백성희(사진)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등이 선정됐다.<br/> 삼성은 1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2014년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br/> 여성선도상을 수상한 정진성 교수는 여성 권익 전도사로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혼이주여성 문제 등에 대한 연구와 인식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br/> 여성창조상 수상자인 백성희 교수는 암 발생ㆍ전이 유전자와 이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규명해 암 조절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연구를 주도했다. 백 교수의 연구결과는 국제 과학전문지에 소개돼 암 치료제 개발의 기초자료로 인용되고 있다.<br/> 이밖에 가족화목상은 홀로 사는 노인과 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해 온 ‘e세대 가정봉사단’이, 청소년상은 폐암 투병 중인 부친을 간호하면서도 교내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김솔비(18)양을 비롯해 박세은(18)군, 송은혜(18)양, 이준영(17)군, 정다영(18)양이 받았다. <br/> 이서희기자 shle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75.txt

제목: 혈중 칼슘 농도로 초기 암 진단  
날짜: 2014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92610016610862  
본문: 혈중 칼슘 농도로 초기 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조사가 나왔다. 사이언스 데일리는 25일영국 의학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은 상태인 ‘고칼슘혈증’이 초기 암을 진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25일 보도했다.<br/> 고칼슘혈증은 간단한 피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대사성 질환이다. 암 환자 중 10~20%가 이 질환을 앓고 있어 이 질환과 암의 관련성은 이미 입증되었지만 암의 초기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처음이다. 브리스톨대학과 엑스터대학 연구진이 고칼슘혈증 환자 54,000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해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연구는 정상 혈중 칼슘 수치인 2.1~2.5mmol/L와 별 차이가 없는 가벼운 고칼슘혈증 (2.6-2.8mmol/L) 증상을 가진 남성조차도 11.5%의 확률로 1년 안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도 보여줬다. <br/> 칼슘 농도가 2.8mmol/L가 넘는 경우 암 발생 가능성은 28%로 증가했다. 여자는 각각 4.1%(2.6-2.8mmol/L) 와 8.7%(2.8mmol/L 이상)로 남성에 비해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 또한 남성의 경우 고칼슘혈증과 관련된 암의 81%는 폐암과 전립선 암, 대장암, 혈액암(백혈병, 골수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br/> 연구를 주도한 브리스톨대학의 퍼거스 해밀턴 박사는 “<span class='quot0'>고칼슘혈증과 암의 관계에 대한 모든 이전의 연구들은 이미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고칼슘혈증은 암의 합병증으로 여겨지곤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높은 혈액 칼슘 농도가 암의 초기 지표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이것이 암의 진단에 이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대해 “우리는 성별 차에 놀랐다. 우리는 여성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고칼슘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br/> 김지수 인턴기자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3년)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76.txt

제목: 그리스 여성 두번 죽다?  
날짜: 2014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92610016610891  
본문: 북부 그리스 경찰이 여성이 산 채로 묻혔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미국 ABC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25일 묘지관리인과 묘지를 방문 중이던 두 명이 불과 한 시간 전에 장례를 치른 49세 여성의 무덤에서 두들기는 소리와 희미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들었고 묘지를 파냈을 때는 다시 생명을 다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숨진 여성은 암환자였으며 사건 당일에 테살로니키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진단을 받고 바로 장례식을 치렀다.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검시관이 그의 시체를 검사할 예정이다.<br/> 이상언 인턴기자(동국대 국제통상학부 3학년)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77.txt

제목: 소아암 환자 민머리 덮어주는 따뜻한 가위손  
날짜: 20140922  
기자: 김새미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922100000172  
본문: 홍대 앞서 미용실 운영 정민씨...3년째 암협회에 가발용 머리 기부<br/>자연산만 가능해 매년 20명분 전달... "기뻐하며 기부하는 손님들에 감동"<br/><br/>서울 서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정민(35) 원장은 3년째 손님들이 자른 머리카락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하는 ‘모발 기부대행’을 하고 있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다. 어린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화학처리 된 인조가발이 아닌 인모로 제작된 가발을 써야 한다. 문제는 인모가발이 비싸다는 점. 그래서 모발을 기증받은 단체가 가발을 제작해 환자들에게 기증하는데, 정 원장은 손님들에게 받은 모발을 이런 단체에 전달하는 일을 한다. <br/>정 원장이 이 일을 시작한 것은 3년 전 여대생 손님의 특별한 부탁(?) 때문이었다. 그 손님은 자른 머리카락을 묶어 달라고 했다.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모발 기부’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br/>“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학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 계속 머리카락을 버렸을텐데… 알고 나니까 그 동안 버렸던 것들이 아깝기도 했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 원장은 그 때 손님의 이름을 묻지 않았던 게 후회된다며 지금이라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br/>하루에도 수 많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정 원장이지만 이를 모두 기부하지는 못 한다.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모발 길이는 최소 25㎝ 이상이어야 하고 퍼머나 염색 등 약품 처리되지 않은 자연산이어야 한다. <br/>손님들 중 그의 기부 제안을 거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다 좋아하시면서 흔쾌히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매번 기뻐하시는 모습에 제가 더 감동을 받습니다.” <br/>정 원장이 기부 받는 모발은 한 해 대략 20명분 정도. 가발 한 개가 완성되려면 5명 분의 모발이 필요하다. 주변에 홍보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법도 한데 그는 굳이 권하지 않는다. <br/>“너무 강요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위 동료들이 기부받은 모발을 갖다 주더라고요.” <br/>블로그도 모발 기부를 위한 그의 주요 창구다.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날은 할머니 한 분께서 찾아오셨는데 길이가 짧아서 아쉬워하시며 되돌아가셨죠. 그런데 1년 후에 기준에 맞게 길러 오셨더라고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머리도 기부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라고 물어오는 사람들도 많다. <br/>정 원장은 인터뷰 내내 “부끄럽다”고 했다. “대신 보내드리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돈도 얼마 안 들고. 기부하는 손님들이 대단하신 거죠.”<br/>정 원장에게 기부란 무엇인지 물었다.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일을 하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으니 제겐 기부도 즐거움이죠. 일상 속에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br/> <br/>김새미나 인턴기자 saemina@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78.txt

제목: "아이 많이 낳고 모유 수유를 하면 여성 건강에도 좋아요"  
날짜: 201409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920100000018  
본문: 출산 고령화 갈수록 심각해져, 한국 여성 난임 패턴도 서구화<br/>민간병원 최초 시험관 아기 명성, 마지막 심정 병원 찾는 환자 많아<br/>지난해 해외환자 유치 2만명, 세계적 난임치료센터가 목표<br/><br/> <br/><br/> 지난해 서울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32.5세로 1993년(28.0세)보다 4.5세나 높아졌다. 초산 평균 출산 연령도 같은 기간 26.8세에서 31.5세로 높아졌다. 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심각한 상태다.<br/> 21일 서울 중구 서애로 1길 가톨릭관동대 제일병원에서 만난 민응기(60) 제일병원 원장은 이 같은 세태를 안타까워했다. 불임 치료 분야의 권위자인 민 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여성 질환 치료의 메카’인 제일병원을 이끌고 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은 그는 제일병원 산부인과 과장, 함춘여성클리닉 대표원장, 삼성서울병원 외래교수, 동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지냈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 대한보조생식학회ㆍ대한생식의학회ㆍ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ㆍ대한폐경학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 민 원장은 “<span class='quot0'>늦은 나이에 출산하는 것이 자궁내막증, 자궁근종과 함께 난임(그는 불임(不妊) 대신 난임(難妊) 표현을 쓴다)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span>”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 원장은 “<span class='quot0'>20대에 40% 이상인 임신율이 35세를 넘기면 30% 이하로 뚝 떨어진다</span>”며 “<span class='quot0'>여성이 35세가 넘으면 임신 출산에 있어서는 ‘응급(emergency)’상태라고 볼 수 있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여성들의 결혼 기피와 함께 출산을 저어하는 분위기는 결코 여성 건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span>”며 “<span class='quot0'>출산을 많이 하고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는 길</span>”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span class='quot0'>고교만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는 대학 입학 특전을 주고 싶다</span>”고 농담을 했다.<br/> 민 원장은 난임 여성들이 임신에 성공하려고 병원을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이른바 ‘임신쇼핑’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span class='quot0'>‘임신쇼핑’은 오히려 임신율을 올리기 보다는 떨어뜨리고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span>”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여성의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과거 의대 재학시절 책에서나 배웠던 자궁내막증(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이외의 조직에 붙어 증식하는 질환)으로 인한 불임도 크게 늘면서 질병패턴이 서양화하고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 민 원장은 우리나라 난임 치료 역사를 쓰고 있는 제일병원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지난 1986년 1월 민간 병원 최초로 시험관 아기 임신 성공을 시작으로 한국 최초 수정란 동결 임신 성공, 미세조작술을 이용한 인위적 수정 및 임신 성공, 고환에서 정자 채취 후 임신 성공, 비폐쇄성 무정자증 임신 성공, 착상 전 유전검사를 이용한 임신 성공 등 우리나라 난임 극복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민 원장 자신도 1990년부터 3년 동안 제일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바 있어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br/> 민 원장은 “<span class='quot0'>지난 2009년부터 해외 환자를 본격 유치하기 시작한 제일병원은 난임, 자궁암, 유방암, 갑상선암을 비롯한 여성암, 요실금, 갱년기질환 등 여성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전략으로 지난 한 해 2만262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했다</span>”고 했다. 그는 특히 “난임ㆍ생식내분비과의 경우 지난 한 해만 7,875명의 환자가 제일병원을 찾아 시험관 아기, 습관성 유산, 착상 전 유전진단(PGD)을 비롯한 난임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매년 40~50%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r/> 그 배경에는 “지난 50년 동안 축적돼 온 철저한 전문성과 언어의 벽을 넘은 감성의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게 민 원장의 설명이다. “난임 검사의 가장 기본인 초음파 검사는 물론,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부인질환이 원인인 경우 난임 전문의가 향후 임신 가능성을 고려해 수술도 직접 집도합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시 진행되는 난자채취와 배아이식도 공휴일에도 주치의가 직접 하지요.” <br/> 민 원장은 난임 치료에 있어 의학적인 치료 외에도 난임 여성의 심리적 안정 상태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학계에서도 스트레스와 난임이 일정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병원을 찾는 내국인 난임 환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 입니다. 내원한 환자의 60% 이상은 다른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에 실패하고 찾은 환자이지요. 그만큼 제일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난임 부부는 이곳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원하는 분이지요.” <br/><br/><br/> 이런 환자들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알기에 제일병원에서는 난임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고민을 나누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정서지지 케어 프로그램인 ‘아이소망 힐링캠프’를 무료 운영 중이다. “그림캠프에서 독서캠프, 개인상담 등을 통해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긴장과 심리적 고통, 불편함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있지요. 또한 스트레스 수치가 가장 높은 배아이식 때도 입원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이완요법, 그림명상, 아로마 및 이압요법, 영양상담, 개인상담 등을 진행하며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고 있지요.” <br/>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주로 암 치료에 적용해 왔던 ‘다학제 진료’ 시스템도 함께 운영 중이다. 매주 두 번 12명의 난임 전문의는 물론, 생식의학연구실 연구원, 난임 전문 간호사가 모두 모여 주요 환자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해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다. <br/> 민 원장은 “<span class='quot0'>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유전병의 대물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치료 기술인 착상 전 유전 진단을 비롯해 습관성 유산, 남성 난임, 시험관 아기 시술, 난자 동결 등 제일병원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난임 기술을 더 발전시켜 세계적인 난임치료센터로 거듭나겠다</span>”고 했다. <br/> “많은 외국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 고마웠다’는 인사입니다. 환자와 가슴으로 소통하는 병원, 바로 제일병원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br/> <br/>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79.txt

제목: 사회 암적 존재와의 전쟁, 몸속 암과의 싸움과 닮아  
날짜: 2014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919100000019  
본문: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란 ‘적폐(積弊)’라는 단어가 언론 매체에서 자주 눈에 띈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에서 적폐에 해당하는 것을 손꼽는다면 몸에 조금씩 불어나는 지방이나 셀룰라이트,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죽종(粥腫ㆍatheroma) 같은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쌓이고 쌓여 결국 인체의 정상 기능을 가로막는, 없어져야 할 문제들이니 ‘적폐’라는 용어의 본뜻과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br/> 이는 사회적 용어를 건강에 가져다 붙여 본 것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인체의 질병을 사회 병리에 가져다 붙인 사례가 바로 ‘암적(癌的) 존재’라는 관용어이다. 적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연한 사회적 해악으로 누구나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섬멸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회의 ‘암적 존재’라는 말은 짧은 기간에 숙주의 건강을 파멸시키고 잘 뿌리 뽑히지 않는 암(癌ㆍCancer)과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대표적인 암적 존재로 치부되는 조직폭력배, 이른바 조폭의 행동 양식을 보면 암세포의 자연사(自然史)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br/> 우선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돌연변이로 생긴다. 날 때부터 범죄자 아니듯 선량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조폭이나 범죄자가 되는데, 이들의 특징은 통상적인 사회규범이나 법적인 제어장치로 행동이 잘 규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포 주기가 자율 통제를 벗어나 불멸화 되는 과정과 일치한다. 암 세포는 주변에 침윤하고 전이하는 특징이 있다. 다른 사람의 권익을 탈취하고 세력이 커질수록 영역을 넓혀나가는 조폭과 같은 모습이다.<br/>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수술ㆍ항암요법 등이 있는데, 칼을 써서 암 조직을 통째로 제거하는 모습은 기동타격대가 일시에 조직을 습격하여 전조직원을 일망타진하는 모습과 유사하고, 일시에 습격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검문하고 단속하여 활동을 점차 위축시키며 서서히 섬멸해 가는 과정은 항암제를 이용한 약물치료와 비슷하다. 근치(根治)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암이 재발하듯이 조직을 완전히 뿌리뽑지 않으면 조폭은 재건된다. 특히 세포들 중에서 중심이 되어 다른 암 세포들을 생산해 내는 줄기세포와 같은 보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조직 소탕작전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br/> 수술 기술과 치료약이 좋아지면 거기에 맞춰 암 세포도 진화한다. 항암제를 이겨내는 항암제 내성 세포주가 생기게 되는데 조폭이 지능ㆍ기업화 되어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모습과 일치한다. 새로 개발된 항암제는 진화된 암 세포의 약점을 찾듯 수사기법도 탈세나 금융범죄 쪽으로 확장된다. 특히 조폭의 돈줄을 죄어 압박하는 방법은 암 세포에 영양공급이 되는 혈관 생성을 억제한다는 표적 치료제의 작용 메커니즘과 다를 바 없다.<br/> 행동양식과 자연사가 빼 닮은 암과 암적 존재, 이들과의 전쟁은 길어지기도 쉽고 그 과정에서 지치기도 쉽다. 이것이 바로 투병하는 암 환자들에게 주변의 관심과 꾸준한 격려가 필요한 이유이다.<br/> <br/>주웅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80.txt

제목: [태블릿+] 독성 줄이고 치료효과 높인 항암제 ‘애드세트리스’  
날짜: 20140919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919100000017  
본문: 머리카락 한 올 없는 여자 주인공. 드라마에 자주 등장했던 여성 암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암환자의 탈모는 화학 항암제의 독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10여 년 전 암세포만 죽이는 표적항암제가 상용화되면서 머리가 빠지는 일은 크게 줄었다. 최근 이보다 더 진일보한 표적 항암제가 나왔다. ‘항체-약물 결합체’가 바로 그것. 기존 표적항암제에 직접 강력한 화학항암약물을 부착하고, 암세포에만 약물이 분리 작용하도록 설계됐다. 그래서 암세포에만 화학항암약물이 직접 작용한다. 이 시스템은 한마디로 화학항암치료와 표적치료제 장점만을 취한 것이다. 화학항암치료의 독성을 줄이고 치료효과를 높였다. <br/> 국내 허가를 받은 항체-약물 결합체로는 한국다케다제약의 애드세트리스(성분명 브렌툭시맙 베도틴ㆍ사진)가 있다. 기존 치료에 실패하거나 재발한 호지킨림프종 환자와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환자 치료에 대해 치료효과를 인정받아 2013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br/>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불응한 호지킨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애드세트리스의 임상시험 결과, 환자의 75%에서 전반적인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고, 34% 환자에서 완전 관해(혈액에서 암세포가 완전 소멸된 상태)를 보였다. <br/> 적어도 1개 이상의 치료 이후 재발하거나 불응한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대상자의 86%에서 전반적인 객관적 반응률을, 57%에서 완전 관해를 보였다. 2013년 12월 미국혈액학회에서 발표된 장기간 임상시험 결과, 두 질환 모두 긍정적인 치료결과가 나왔다.<br/> 애드세트리스는 이런 임상 효능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미국식품의약국(FDA) 산하 항암제 자문위원회의 만장 일치로 신속 승인을 받았다. 애드세트리스는 호지킨림프종 치료제로 1977년 이후 유일하게 승인 받았고, 전신역형성림프종에서도 단일 적응증으로 유일하게 허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제약계 노벨상으로 알려진 프리갈리엥상을 수상했다. 주사제로 3주마다 30분에 걸쳐 정맥 내 주입으로 투여하며, 최소 8주기 최대 16주기(약 1년)을 투여한다. <br/> <br/>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81.txt

제목: [건강소식] 제12회 화이자의학상에 남석우ㆍ고원중 교수 外  
날짜: 2014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919100000018  
본문: 제12회 화이자의학상에 남석우ㆍ고원중 교수<br/><br/> ‘제12회 화이자의학상’ 기초의학상에 남석우(사진 왼쪽) 가톨릭의대 병리학교실 교수, 임상의학상에 고원중(오른쪽) 성균관의대 내과학교실 교수가 선정됐다. 남 교수는 암 발생 기전에서 후성유전영향인자와 마이크로 RNA의 조절 메커니즘을 확립했다. 고 교수는 치료 성공률이 50~60%에 불과한 다제내성결핵의 진단ㆍ치료에 새 지평을 열었다. 시상식은 11월 7일 오후 6시 조선호텔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각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br/> <br/> 로타릭스 모델로 ‘따잔이’ 선정<br/><br/> GSK는 영ㆍ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릭스의 모델로 ‘따잔이’ 알렉스 오 설리번(사진)을 선정해 ‘2nough(이너프)’ 캠페인을 진행한다. 알렉스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기 모델이다. 최근 유명 보험사 광고에서 능청스러운 표정 연기와 함께 따뜻한 잔소리를 하는 캐릭터 ‘따잔이’로 등장했다. <br/> <br/> 분당서울대병원 24ㆍ25일 자선바자회<br/> 분당서울대병원은 24, 25일 이틀간 병원 1층 야외 정원과 로비에서 극빈 환자 치료비 마련을 위한 제 11회 자선바자회를 연다. 이번 국내 유수의 업체들의 후원으로 이뤄지는 이번 바자회에서는 의류, 생활용품, 농산물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자원봉사회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다양한 먹을거리 장터도 마련되며, 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극빈 환자 치료비로 사용한다.<br/> <br/> 대웅제약ㆍ한국산도스, 골다공증 치료제 판매<br/><br/>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한국산도스(대표 박수준)와 함께 골다공증 치료제 ‘산도스졸레드론산주사액’(사진)를 판매한다. 양사는 1년에 1회 투여하는 이 주사액의 전략적 제휴 계약을 맺고 9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 주사액은 대표적 골다공증 치료 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치료 주사제다.<br/> <br/> 서울아산병원, 소아수면장애클리닉 열어 <br/> 서울아산병원은 불면증ㆍ몽유병ㆍ잠꼬대ㆍ주간졸음증 등 다양한 수면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전문 상담하고 맞춤형으로 치료하는 소아수면장애클리닉을 열었다. 소아수면장애는 최근 5년 간 환자가 20%나 늘어났다. 수면장애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성장에 영향을 주고 학습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82.txt

제목: “담배 유해성 검증” vs “건보공단 소송 자격없다”  
날짜: 201409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91210016609829  
본문: "중독성 높이려 첨가제 넣고 은폐" 공단 측, 담배회사 책임 회피 주장<br/>"법인인 공단은 직접 손해 안 봐" 담배회사 측은 절차 문제삼아<br/><br/> <br/> <b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첫 공판부터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b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 심리로 12일 열린 574억 규모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건보공단은 “<span class='quot1'>과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담배회사들이 외면하고 그 책임을 회피한다</span>”며 포문을 열었다. 건보공단 측 정미화 변호인은 2006년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한 미 연방대법원의 조직범죄처벌법(RICO) 판결을 언급하며 “<span class='quot2'>기호품이 아닌 ‘허락되지 않는 위협’인 담배의 진실과 담배회사의 실체가 밝혀지길 바란다</span>”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높이려 한 제조물 책임, 경고문구가 추상적인 표시상 결함, 첨가제를 넣어 니코틴과 타르 함량을 높이고 은폐한 불법행위 등을 주장했다.<br/> 피고인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측은 “<span class='quot3'>건보공단은 소송 자격이 없다</span>”는 절차부터 문제삼았다. “<span class='quot0'>자연인이 소비할 수 있는 담배로 인해 법인인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span>”는 것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개인이 낸 담배소송이 모두 패소했던 것과 달리 개인과 질병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담긴 방대한 진료기록(빅 데이터)을 내세워 승소를 자신했지만, 담배회사 측은 “데이터를 실제로 보여달라”며 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br/> 재판부는 다음 변론일인 11월 7일 건보공단의 직접 손해 여부부터 심리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험난한 공판이 될 것을 예고했다. 또한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이미 쟁점이 됐던 ▦흡연과 폐암 등과의 인과관계 ▦제조물 책임 ▦불법행위 책임 ▦손해액 범위도 다시 다툴 예정이다.<br/> 지금까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국내 4건의 소송은 원고가 승소한 적이 한번도 없다. 소송에서 일부 암이 담배 때문에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됐지만 ‘담배의 위험성을 숨긴 담배회사의 과실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탓이다. 노상필 건보공단 홍보기획부장은 “<span class='quot4'>개인이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위법성 등을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공단의 담배소송은 다를 것</span>”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이 소송에 나서면 담배회사의 과실이나 불법성에 대한 제보가 잇따를 것”이라고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담배회사를 궁지로 내몰 만한 증거 입수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다만 건보공단이 패소하더라도 ‘이긴 싸움’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금연운동협의회 회장)는 “<span class='quot5'>소송 과정에서 담배회사에 수십 년에 걸친 불법행위를 알리게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5'>승소 가능성을 떠나 담배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소송</span>”이라고 말했다. <br/> 공단은 소송 진행과 함께 앞으로 담배사업자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고, 흡연에 따른 손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br/> 손현성기자 hshs@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83.txt

제목: 위암 사망률 높은 30~40대 여성… 가족력 있으면 주기적인 검진을  
날짜: 20140910  
기자: 김성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910100000047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암으로 진료받은 환자수가 2009년 약 12만5,000명에서 2013년 약 14만6,000명으로 약 16% 늘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성별과 상관없이 50대 이상 환자들이 눈에 띄게 많은데 70대는 2009년 3만445명에서 4만43명으로 5년 동안 31.5%(약 1만명)가 늘었다.<br/> 이처럼 위암은 50대 이상 고연령층에 환자가 집중되어 있지만 위암 사망률은 30~40대 여성이 가장 높아 눈길을 끈다. 실제로 2011년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에 따르면 50~60대 여성 위암 사망률이 18.25%인데 비해 30~40대 여성 위암 사망률은 24.5%며 이는 30~40대 남성 사망률 19.15% 보다도 높은 수치다.<br/> 보통 연령대가 높을수록 면역력 저하 등의 이유로 사망률이 높지만 여성의 경우 젊은층 여성에 나타나는 암세포의 유형이 악성인 경우가 많아 젊은층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br/> 위암은 초기 통증이 없어 발견이 쉽지 않다. 증상을 느끼게 되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젊은층 환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도 가볍게 여기기 쉬워 조기 진단이 어렵다. 그러나 속쓰림과 더불어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위출혈로 대변색이 흑색으로 변한 경우 질병을 의심해볼 수 있다.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 건강검진과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br/> 염분이 많고 절인 음식은 위장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자제하고 탄 음식이나 지나치게 방부제가 많은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다. 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흡연자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보균자의 경우에는 각별히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br/> 송옥평 민병원 원장은 “<span class='quot0'>국내 성인의 약 50%가 헬리코박터균 보균자일 정도로 감염률이 높은데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위암 발암인자로 위 점막 염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위궤양과 위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주로 대변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화장실 변기나 손잡이 등을 주의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span>”고 조언했다.<br/> 김성환기자 spam001@hksp.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84.txt

제목: 영산대 교수 3명, 세계 인명사전 등재  
날짜: 20140903  
기자: 강성명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903100000066  
본문: 영산대 교수 3명, 세계 인명사전 등재<br/> 천송희, 이윤섭, 정순정 ‘2015 마르퀴즈 후즈후’에<br/> <br/> 영산대 교수 3명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동시에 이름을 올려 화제다.<br/> 영산대 보건의료대학은 물리치료학과 천송희, 이윤섭 교수와 치위생학과 정순정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2015 마르퀴즈 후즈후’에 등재됐다고 3일 밝혔다.<br/> 대학 측에 따르면 천 교수는 신경과 근육 조직을 분자생물학적으로 분석하는 등 환자에게 도움이 될 치료법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왔다. 최근에는 맥동전자장(주로 골절치료에 이용)을 이용한 근육ㆍ신경회복에 관한 연구로 물리치료 방식의 다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 교수는 지난해에도 ‘2014 마르퀴즈 후즈후’을 비롯해 영국 국제인명센터(IBC)가 선정하는 ‘2014 100대 교육자’에 선정된 바 있다.<br/> 이 교수는 인체의 동작과 움직임을 분석, 근골격계질환의 발병과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발의 상태에 따른 근육 움직임 변화 연구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향후 특정 근골격계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해 물리치료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br/> 정 교수의 경우 포유류의 침샘과 침샘 분비물의 미세구조와 특징, 치아발생과정 중 분비되는 다이나민 단백질의 역할과 발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상처 회복, 치아재생, 치주 질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SLPI(분비백혈구단백분해효소저해제)의 생물학적 역할을 조선대 정문진 교수(치대 구강조직발생학교실)와 공동 연구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암 연구소 재직 당시, 구강건조증과 구강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 경험이 있는 그는 향후 구강과 치아 손실에 대한 임상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br/> 한편 1899년부터 발간된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후’는 매년 21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남긴 리더를 선정해 업적과 이력을 소개한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85.txt

제목: 자궁경부암 고위험군, 음주 자제하세요  
날짜: 20140826  
기자: 송옥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826100000157  
본문: 지속감염 위험 최대 8배 높아 <br/> <br/> 술을 마시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지속적으로 감염될 위험이 최대 8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 국립암센터 임상역학연구과 김미경 박사팀은 2002~2011년 국립암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여성 1만1,140명 중 고위험군 HPV 감염으로 진단된 922명을 2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26일 밝혔다.<br/>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량ㆍ기간과 관계없이 본인이 음주자라고 응답한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 HPV 양이 많은 여성은 HPV 양이 적은 여성보다 지속감염 위험성이 1년 관찰에서 3배, 2년 관찰에서 8.1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감염이란 전암병변(암 이전 단계)이 나타나기 전 단계로, 지속감염자의 10% 정도가 전암병변으로 발전된다. 하지만 비음주자라고 응답한 여성들에게서는 이런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br/> 김미경 박사는 “<span class='quot0'>만약 건강검진 등에서 고위험 HPV로 진단됐다면 자궁경부암 예방 차원에서라도 알코올 섭취를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span>”고 말했다.<br/> 송옥진기자 clic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86.txt

제목: 울산 의료기관 KTX 영향 ‘미미’  
날짜: 201408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82410016608238  
본문: 市, 건보공단 통계 분석…“되레 타 지역 환자유입 급증”<br/> <br/> KTX 개통에 따라 울산의 의료 역외유출이 많아져 지역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되레 타 지역 환자들의 유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br/> 울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이용실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년 들어 첨단의료장비 도입, 진료환경 개선, 서비스 향상 등으로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엔 급증했다고 24일 밝혔다.<br/> 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울산시민의 타 지역 진료 유출은 2010년 85만3,000명에서 2011년 78만1,000명으로 8.4% 감소했고, 2012년엔 72만7,000명으로 6.9% 감소했다가 지난해엔 56만2,000명으로 22.7%로 급감하는 등 진료 유출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br/> 반면 타 지역 환자의 유입은 2010년 49만 6,000명에서 2011년 48만4,000명으로 2.4% 감소했다가 2012년엔 49만1,000명으로 1.4%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엔 24.6%나 급증했다.<br/> 진료비 유출입 흐름을 보면 유출은 2010년 3,046억원에서 2011년 3,156억원으로 3.6% 증가했으나, 2012년엔 2,836억원으로 10.1% 감소했고, 지난해엔 1,897억원으로 33.1% 급감하는 등 2010년과 비교하면 지난해의 유출 감소액은 무려 1,149억원에 이른다.<br/> 반면 유입은 2010년 1,177억원에서 2011년엔 1,213억원으로 3% 증가했고, 2012년엔 1,245억원으로 2.6%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엔 1,437억원으로 15.4%나 급증했다. <br/> 또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은 2010년 86.1%에서 2011년엔 91.0%로 4.9% 정도 늘어난 데 이어 2012년엔 91.7%, 2013년엔 91.85%로 전국 평균(91.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 특히 암, 뇌, 심장, 중증 외상환자 진료유출이 2010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5~16%)를 보이다 지난해엔 평균 30.8%(뇌 47.4%, 심장 45.9%, 중증외상 24.7%, 암 10.7%)나 급감했다.<br/> 또한 수도권의 진료 유출은 2012년에 비해 7.2% 감소했고, 부산으로의 진료유출은 2009년부터 매년 2, 3% 증가하다 지난해엔 전년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r/> 이 같은 추세는 근년 들어 울산대병원이 최첨단 암 치료 장비 트루빔 도입, 신생아 집중치료실 및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 등으로 진료여건을 크게 개선한데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시설들이 진료과목을 특화(정형외과-굿모닝병원, 산부인과-보람병원, 프라우메디병원)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br/> 손유익 시 보건위생과장은 “<span class='quot0'>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누그러진데다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병원 이용 환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올 연말 권역외상센터(울산대병원)가 완공되면 환자의 역외 유출은 더욱 줄어들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목상균기자 sgmok@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87.txt

제목: 이른 성생활과 파트너 많으면 자궁경부암 위험  
날짜: 20140822  
기자: 김치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822100000023  
본문: 자궁경부암 전 단계 '상피내암', 20~30대 여성 사이 늘어나 <br/>현행 15~17세 백신접종 연령, 현실에 맞춰 좀 더 낮출 필요 <br/> <br/><br/><br/> 전 세계에서 2분마다 1명, 국내에서는 하루 3명 사망하는 여성암이 바로 자궁경부암이다. 자궁경부암은 자궁 경부(입구)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암으로, 자궁경부상피내이형성증(정상조직과 암조직의 중간)을 거쳐, 상피 내에만 암세포가 존재하는 자궁경부상피내암(자궁경부암 0기, 이하 상피내암)으로 악화, 이 단계에서 발견해 치료하지 못하면 침윤성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된다.<br/> 최근 자궁경부암이 의료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궁경부암 전 단계인 상피내암에 걸린 20, 30대 여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발표된 ‘종양간호연구’자료에 따르면 2006년 1만8,834명이었던 상피내암 진료인원 수가 2010년 2만8,05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35%가 20, 30대 여성이었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0'>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시작하는 등 성문화 개방이 주 원인</span>”이라고 지적한다.<br/> 주웅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1'>생식기 발달이 끝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시작하면 인(人)유두종 바이러스(HPV)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1'>한 명이 아닌 성 파트너가 많을수록 상피내암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span>”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span class='quot2'>미국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연령을 9세로 권고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우리나라는 15~17세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접종 연령을 낮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span>”고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 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12.8세로, 남학생은 12.7세, 여학생은 13.0세다.<br/> 백신접종 비용도 문제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지난 4년간 전 세계적으로 1억7,000만 도즈가 배급돼 40여 국가에서 백신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국가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지 않아 비용이 만만치 않다.<br/> 검사결과와 치료와 관련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재원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3'>최근 20대 여성들이 선별검사와 함께 바이러스검사를 많이 하는데 바이러스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올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20대에 검사를 하면 30~40%가 양성판정을 받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고 치료하면 된다</span>”고 밝혔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4'>상피내암 단계에서는 100% 치료가 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4'>매년 1회 정기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 30일까지 자궁경부암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퍼플리본 캠페인’을 개최한 김장흡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5'>조기 검진 증가로 자궁경부암 생존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두 번째로 많이 발병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3명의 여성이 사망할 정도로 여성을 위협하는 암</span>”이라며 “<span class='quot5'>최근 20, 30대 젊은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전 단계인 상피내암과 검진으로 쉽게 발견되지 않는 선암이 증가하고 있어 학회에서는 백신접종과 정기검진을 통한 자궁경부암 조기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독려하는 퍼플리본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br/> <br/>김치중기자 cjkim@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88.txt

제목: "고객 아닌 환자 위한 '인술'이 살아 있는 병원 만들 터"  
날짜: 20140822  
기자: 김치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822100000026  
본문: 1971년 설립 한강성심병원 모태, 당시 화상 근로자 치료 유일 병원<br/><br/>강남ㆍ강동ㆍ춘천ㆍ동탄 병원도 유방암 등 특화된 경쟁력 지녀<br/><br/>국내 최초 뇌졸중 환자 앱 이어 심장마비ㆍ외상환자 앱도 개발 중<br/> <br/><br/><br/> “한강성심병원이 한림대의료원 산하 병원이었어요? 그 병원 참 좋은 병원인데…”<br/> 이혜란 한림대의료원 의료원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점심식사 도중 김 전 지사가 던진 이 말에 감동했다. 김 전 지사는 서울대 재학 시절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소개로 구로공단의 드레스 미싱 공장에 위장 취업해 노동운동을 했다. 그 때 김 전 지사는 작업 도중 손가락이 잘리는 등 산업재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들 치료를 위해 한강성심병원을 들락거렸다. <br/> “<span class='quot0'>돈이 없다고 해도 치료해줘 너무나 고마운 병원이 한강성심병원</span>”이란 김 전 지사의 말에 이 의료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3년만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가야지 생각했다 30년 넘게 한림대의료원에서 일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br/> 이 의료원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숨을 쉬는 병원’을 만드는 게 꿈이다. 그가 이런 목표를 세운 것은 한림대의료원을 설립한 일송(一松) 윤덕선 박사의 영향 때문이다. 이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지금도 윤덕선 설립자께서 강조한 ‘의료시혜에 균점(均霑)을 기하고…’라는 말씀을 잊지 못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설립자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해 한림대의료원을 인술로 환자를 치유하는 의료원으로 만들 것</span>”이라고 포부를 밝혔다.<br/> <br/> 뇌졸중 30분 만에 치료하는 ‘브레인서버’ 개발<br/> 최근 한림대의료원은 큰일을 해냈다. 국내 최초로 급성기 뇌졸중환자 치료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브레인서버(Brain server)’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미국뇌졸중학회에 따르면 뇌졸중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실 도착 1시간 내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야 뇌기능을 보호해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도 인적 사항, 환자 상태 파악은 물론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실 확보와 전문 의료진 호출까지 시간이 필요해 제때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br/> 하지만 브레인서버를 활용하면 119구조대가 현장에서 환자 성별, 나이, 환자 상태, 발병 후 경과시간, 병원도착 예정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 송출하면 병원 서버를 통해 응급실, 신경과, 영상의학과 등 뇌졸중 관련 의료진에게 전송돼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치료와 관련된 모든 준비가 이뤄진다. 이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브레인서버를 활용하면 30분 내 처치가 이뤄진다</span>”며 “<span class='quot1'>2004년 시작된 뇌졸중환자 등록사업을 한림대의료원 뇌졸중센터가 주관하고 있고, 2007년 휴대폰 문자를 이용해 ‘초급성기 허혈뇌졸중 활성화 시스템’을 가동해 치료시간을 단축한 적이 있어 브레인서버 개발이 가능했다</span>”고 설명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심장마비 환자를 위한 ‘하트세이버’가 올 하반기에 선보일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외상환자를 위한 ‘트라우마 앱’도 개발 중</span>”이라고 밝혔다. <br/> 화상치료서 뇌졸중?두경부암?자궁근무력증으로 치료영역 확대<br/> 한림대의료원 하면 떠오르는 것이 화상치료다. 1971년 OB맥주공장과 서편에 무수히 많은 공장 굴뚝만 보이는 모래벌판에 세워진 한강성심병원은 공장에서 작업 중 화상을 입은 이들을 치료하는 유일한 병원이었다. <br/> “가톨릭대 의대 성모병원 외과의 시절, 7명의 레지던트와 스태프를 데리고 무의촌에 가 혼자서 대수술 17건을 할 때, 레지던트들은 과로로 쓰러지고 외과를 포기할 정도였다. 그때의 나의 충만한 젊은 정력을 지금은 그리워할 뿐이다.”(윤덕선 선생 추모 글모음 ‘숨은 거인의 길’ 중에서)<br/> ‘고객’이 아닌 ‘환자’를 생각한 윤 설립자의 정신이 숨 쉬는 한강성심병원은 이제 한국은 물론 해외 화상환자까지 찾는 국제적인 화상 전문병원으로 명성을 누리고 있다. 화상치료뿐 아니다. 한림대의료원 본부격인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시)은 뇌졸중, 심혈관, 유방암 치료에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남성심병원(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자궁근무력증클리닉은 국내 최고를 자랑하고 있고, 강동성심병원은 두경부암센터와 소아청소년 성장클리닉, 웰빙센터를 특화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춘천성심병원은 뇌혈관센터와 심혈관센터 협진으로 화급을 다투는 뇌졸중과 협심증 환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있다. 한림대의료재단 산하병원 중 막내인 동탄성심병원은 심혈관센터, 소아청소년과, 척추센터, 스포츠외상센터, 인공신장센터 등을 통해 한림대의료원의 미래동력을 자임하고 있다. <br/> “의료 본질에 충실해야 성장”<br/>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의료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이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산하병원 발전과 함께 의료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04년부터 ‘마이티(Mighty) 한림’을 추진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급변하는 국내 의료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료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2002년 미국 컬럼비아대를 필두로 미국 코넬대, 뉴욕 장로교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스웨덴 웁살라대, 중국 지린대, 일본 나고야시립대 등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br/> “<span class='quot0'>최근 대학병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암병원’을 개원했는데 한림대의료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span>”라고 우문을 던지자 “<span class='quot0'>암 환자가 증가해 암을 많이 진료하는 병원이 훌륭한 병원으로 인식되고 수가도 높게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많은 대형병원이 암병원을 열어 한림대의료원은 별도의 암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span>”는 현답이 돌아왔다. <br/> “<span class='quot0'>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의료인이 돼 행복하다</span>”는 이 의료원장. 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기자가 될까, 작가가 될까 고민했던 소녀시절을 회상한 그는 “<span class='quot2'>과거 의사선생님으로 불렸던 시절로 돌아갈 순 없지만 의사와 환자가 소통하는 따뜻한 인술이 살아 숨 쉬는 한림대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span>”이라며 미소를 지었다.<br/><br/>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89.txt

제목: 여배우 김진아 암 투병중 사망  
날짜: 2014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821100000123  
본문: 암과 싸우던 배우 김진아(50)가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김진아 동생 김진근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21일 “오늘 아침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고 발표했다. 김진근은 두 달 전에 하와이로 떠나 암 말기 환자였던 누나 김진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김진아는 영화배우 김진규와 김보애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출연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90.txt

제목: 배우 김진아 암으로 별세  
날짜: 20140821  
기자: 고경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821100000164  
본문: 배우 김진규, 김보애의 딸이자 1980년대 활발하게 활동했던 김진아(사진)가 20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자택에서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1세. <br/> 김씨의 동생인 배우 김진근의 소속사 태원아트미디어는 21일 “김진근씨가 누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두 달 전 하와이로 떠났고 오늘 아침 부고 소식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 봄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r/> 김씨는 톱스타 가족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진규(1998년 별세)와 어머니 김보애 모두 유명 배우였고 배우 이덕화가 이모부다. 김진근의 아내 정애연도 배우이고 코미디언 최병서는 사촌동생의 남편이다. <br/> 김씨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1983년 영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출연하며 연기를 시작했다. 서구적인 외모에 섹시한 이미지로 인기를 모으며 198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잡았다. 1988년 임권택 감독의 ‘연산일기’에 출연한 이후 돌연 은퇴를 선언한 그는 7년 뒤 KBS 드라마 ‘개성시대’로 연기를 재개했으나 과거의 인기를 재현하지는 못했다. 2000년 미국인 사업가와 결혼해 아들을 뒀고, 하와이에서 거주해 왔다. <br/><br/>고경석기자 kav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91.txt

제목: “매운 음식 과식하면 위암 걸려”  
날짜: 201408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81510016607563  
본문: “<span class='quot0'>매운 음식 과식하면 위암 걸려</span>”<br/> <br/> 매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위암에 걸린다는 말이 근거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의 아군인 자연살해(NK)세포 기능을 떨어뜨려 결국 위암을 비롯한 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 김헌식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팀은 캡사이신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과다 섭취하면 NK세포의 세포질 과립방출 기능장애를 일으켜 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NK세포는 혈액 속에서 떠다니다 암세포를 만나면 암 세포막에 구멍을 낸 후 세포질과립을 분비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면역세포다.<br/> 이번 연구는 영국 국제 과학기술 논문인용색인(SCI) 학술지 '칼시노제네시스' 최신 호에 실렸다. <br/> 연구진은 여러 암세포를 대상으로 캡사이신의 양을 10μM, 20μM, 50μM, 100μM(마이크로몰·100만분의 1몰) 등으로 각각 다르게 투여 후 NK세포 활성도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위암세포 AGS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NK세포 활성도(세포질 과립 방출 정도)가 캡사이신 투여 전 15%에서 고용량 50μM을 투여 후 10%로 33% 감소했다.<br/> NK세포 기능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혈액암세포 221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NK세포 활성도가 캡사이신 투여 전 32%에서 50μM 투여 후 16%, 100μM 투여 후 4%로 크게 떨어졌다.<br/> 저용량 캡사이신 10μM, 20μM을 투여했을 때에는 NK세포 활성도가 28%, 27%로 투여 전 32%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br/> 캡사이신 자체가 암을 일으키진 않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으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항암면역세포 기능을 떨어뜨려 암 발생을 간접적으로 돕게 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br/> 캡사이신에 의한 NK세포 활성 억제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김 교수는 "NK세포 활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용량 캡사이신에 의한 활성억제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며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캡사이신을 고용량으로 섭취할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br/> 캡사이신은 체내 수용체인 TRPV1 단백질과 결합해 항암 활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고용량 캡사이신은 TRPV1과 결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NK세포 기능 장애를 유도했다.<br/> 상대적으로 TRPV1이 부족하거나 민감성이 떨어지는 30, 40대 이후 성인이 캡사이신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암 발생이 촉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드러난 것이다.<br/> 캡사이신은 암 억제나 진통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지만 자연살해세포 기능장애를 일으킨다는 연구는 없었다. 이번 연구는 암세포에만 국한됐던 캡사이신 연구를 항암면역세포로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 김 교수는 "캡사이신에는 항암과 통증완화 등 유용한 생리 활성성분이 많은 만큼 적당하게 먹으면 좋지만 지나치게 매운 고추는 피하고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b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92.txt

제목: [편집국에서] 진화론, 디스토피아의 전망  
날짜: 201408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81210016607309  
본문: 긍정적 자기기만이란 게 있다. ‘나’를 충분히 통제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 같은 게 그 예라고 한다. 긍정적 자기기만은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저 말을 찾아낸 학자들의 견해인 듯하다. 자기계발서 같은 데서 반갑게 인용할 만한 이야기다.<br/> ‘정의는 승리한다’는 믿음도 그런 걸 테다. 저 말은 내가 정의의 편이라는 걸 전제한다. 그 역시 그런 걸지 모른다. 공적 영역에서 어이없는 일들이 자고 나면 불거지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나아졌고, 더디게나마 나아져갈 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나도 한 적이 있다. 근거를 대라면 논리가 아닌 사례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 말도, 실은 희망이나 당위에 기댄 긍정적 자기기만이다. 상반된 사례도 얼마든지 있을 테고, 사례들을 다 모아 분류한 뒤 무게를 비교할 수도 없는 노릇일 터이기 때문이다. <br/> ‘루터’라는 영국 수사드라마를 보다가 버틀란트 러셀이 했다는 말을 들었다. 옳게 들었는지 모르겠고 맥락도 알지 못하지만, 요지는 대충 “선한 자가 고통 받고 악당이 잘되는 것처럼, 세상 한 켠에는 거대한 불의가 존재한다.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을 아는 게 더 괴로워 우리는 눈을 돌린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살인자가 지문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믹서기에 제 손을 넣는, 그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끔찍해서 눈을 감아도 달라지는 건 없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손목에 붕대가 친친 감긴, 조금은 견딜만한 장면을 바라봐야 한다. 나는 우리가 눈감은 불의가 러셀이 말한 것처럼 세상 한 켠에 있다기보다 마음 한 켠에, 각자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br/> 소신(所信)이란 그런 불의에 맞서기 위한 미시적 전선일 것이다. 소신은 그럴싸할수록 스스로를 곤혹스럽게 한다. 지키자니 어렵고 꺾자니 죄의식과 자기혐오가 따른다. 소신이 없다면, 또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라는 이른바 ‘먹고사니즘’이 소신이라면 어떨까. 중뿔나게 안 나서도 되고, 무리 속에서 판단도 선택도 책임도 안 질 수 있고, 승산 있는 편에 서서 뭔가를 얻거나 적어도 부당한 손해는 면할 것이다. <br/> 이성은 명분으로 이해를 감추는 일에 능하다. 명분 안에서 자신에게 정의의 망토를 걸치게도 한다. 순도 100%의 선악은 없다는 식의 자기합리화도 가능하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자기 혐오를 잊거나 누그러뜨린다. 긍정적 자기기만이란 게 미덕이라면 그렇듯 아슬아슬한, 기만적인 미덕일 것이다. 사실 자기혐오에 둔감해지면 많은 걸 기대할 수 있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암도 잘 안 걸릴 것 같다. 진화론적으로 경쟁력 있고 유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도 높다. 나는 진화론만한 디스토피아적 전망은 없다고 생각한다. <br/> 윤모 일병의 내무반에서 일어난 일들, 그의 영혼과 육체를 학대한 선임병들과 그 학대를 방관하고 은폐했던 지휘관들의 내면에서 나는 그런 양상을 엿본다. 인간보다 군인을 앞세우고 인권보다 군인정신을 우선시하는 군 최고수뇌부의 그것은 분칠한 제노사이드의 신념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가자사태는 어떤가. 늘어가는 억울한 희생들, 책임 있는 국제정치 주체들의 오연한 방관, 긴 세월 홀로코스트의 죄악을 앞세워 세계의 양심에 휴머니즘을 호소하던 저 수많은 반나치 유대 지식인들의 비겁한 침묵에서도, 진화론적으로 확장하는 저 불의의 경향을 본다. 양상이 너무 일방적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마스는 제쳐두고 이스라엘만 성토하는 것도 께름칙하다. 100명이 숨졌다고 1명의 살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br/> 군이든 이스라엘이든 공인된 불의를 사후적으로, 그 인식을 공유한 무리 안에서, 성토하기란 쉽다. 불의와 선을 긋고 정의의 이름으로 무리 짓는 일. 그 유구한 패턴 위에서 이 사회가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거기 편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긍정적으로’ 나를 기만한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눈을 감으면 나는 기만으로 아늑해진다. <br/> <br/>최윤필기자 proos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93.txt

제목: 도심 싱크홀 미스터리… "대형공사 탓" "수도관 노후 탓" 분분  
날짜: 20140809  
기자: 고찬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809100000009  
본문: 송파구서만 한 달 새 5건이나… 긴급 보수한 구역 또 꺼지기도<br/>"지하수 물길 영향과 관련" 중론 속 정확한 원인 규명 시일 걸릴 듯<br/> <br/> 멀쩡하던 땅이 잇따라 움푹 꺼지고 있다. 싱크홀(Sink Hole)이라 불리는 지반침하 현상이 서울 도심, 그것도 송파구에서만 최근 한달 남짓 만에 5건이나 발생했다. 심지어 흙과 모래를 부어 메운 구멍은 이틀 만에 다시 파였다. <br/>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 잇따르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미궁 상태. 일부 전문가는 송파구에 앞으로 비슷한 구멍이 20~30개는 더 생길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br/>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5일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종점 부근에 갑자기 파인 깊이 5m짜리 구멍(지름 2.5ⅹ8m)에 시가 160톤의 흙 등을 쏟아 부어 응급복구를 했지만 7일 밤 다시 2m 가량 내려앉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임시 조치를 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1주일 이내에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span>”고 말했다.<br/> 싱크홀은 이번 건을 비롯해 올 들어 유독 송파구에서만 오금로(6월 30일), 가락로 방산초등학교 입구(7월 5일), 오금로 먹자골목(7월 9일), 잠실경기장 동문 앞(7월 17일) 등 5번이나 발생했다. 강원 영월군 등 국내에 극히 드문 석회암 지대에서나 발생한다는 싱크홀이 화강암 지대인 도심에서, 더구나 특정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다. <br/>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원인은 물과 관련이 있다. 보통 지층은 지표면(도로), 연약지반(모래 자갈 진흙), 풍화토, 기반 암(화강암) 등으로 나뉜다. 지하수가 흐르는 연약지반에서 일부러 물을 뽑거나, 땅 파기 공사 등으로 아래쪽에 생긴 틈으로 물과 흙이 새면서 만들어진 빈 공간이 지표면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 연약지반이 두꺼울수록 구멍이 더 깊게 패일 가능성이 높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span class='quot1'>석촌지하차도 부근은 원래 하천이었고, 연약지반 두께도 16~19m로 다른 싱크홀 발생지역보다 더 두텁다</span>”며 “<span class='quot1'>주변 지하철 공사, 건설현장 터 파기 현장 등으로 지하수가 급속히 유입되면서 큰 공간이 생긴 것 같다</span>”고 설명했다. <br/> 자연히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공사장 등 부근 대규모 건설 현장이 이번 사건들의 1차 원인제공자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 천병식 한양대 교수는 “<span class='quot2'>롯데가 아무리 뛰어난 차수(遮水)벽을 세우더라도 땅을 깊게 파면 지하수를 100% 막는 게 불가능하다</span>”고 했고,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는 “<span class='quot2'>정확한 원인은 따져봐야겠지만 공사를 이유로 엄청난 물을 뽑아내는 롯데와 물이 흘러드는 지하철 공사장이 주변 지역을 침하시키는 건 맞다</span>”고 했다.<br/> 상하수도관의 노후화를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도 있다. 문영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span class='quot3'>지하철공사 등이 일부 영향을 줬겠지만 보통 도심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상하수도관 불량 탓이 크다</span>”라며 “롯데와의 연관성은 적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역시 싱크홀 5건 중 4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2롯데월드 공사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입장이다.<br/> 전문가들은 우선 지하수의 물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창근 교수는 “<span class='quot4'>평소 흐름이 없는 지하수가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싱크홀이 생기는 것</span>”이라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4'>현장 조사를 나가보니 방이동 먹자골목 등에서 도로가 조금씩 가라앉는 게 보여 싱크홀이 20~30군데 더 생길 수도 있겠다</span>”고 주장했다. <br/>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건설안전과 등 관련 부서와 지질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굴착작업 시 지하수 유출 대응방법이나 안전설비 규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요청하면 전문가도 파견할 예정이다. <br/>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b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br/> 유명식기자 gija@hk.co.kr<b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94.txt

제목: 암 조기 검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날짜: 20140808  
기자: 이대여성암병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808100000020  
본문: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제때 잘 받으면 좋다.’ <br/> 최근 들어 이 같은 ‘암 조기 검진론’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세포 자체는 암 세포이지만 우리가 느낄 만한 증상은 일으키지 않는 작은 암까지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과잉 진단ㆍ치료가 아니냐 하는 것이다. 검진 받는 국민은 물론이고 검진하는 의사까지도 정답을 알기 힘든 문제다. 암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최근 이슈화하기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검진 프로그램의 특징과 의학의 불확실성 때문이다.<br/> 암 검진 프로그램을 ‘선별 검사(Screening Test)’라고 하는데, 선별 검사는 본래 증상이 없는, 연령이 해당되는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선별 검사를 통해 ‘증상이 없는’ 암을 찾아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선별 검사에서 발견된 암 중 일부는 향후 몇 십 년 간 자라지도 않고 전이되지도 않는 ‘순한 암’일 수 있다. 이런 ‘순한 암’의 존재는 사후 부검 사례가 비교적 많은 미국에서부터 알려지게 되었다. 심장 질환이나 사고 등 암이 사인이 아닌 경우에도 부검 과정을 통해 체내에 암 조직이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해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인데, 일부 전립선암이 대표적인 ‘순한 암’이다.<br/> 이와 같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여 부검할 때까지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순한 암을 ‘가성 암’(假性癌ㆍPseudo Tumo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성 암은 당연히 치료를 안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만, 문제는 선별검사에서 발견 된 암이 가성 암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 진성 암(眞性癌)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의학의 특징, 즉 불확실성에 있다. 가성 암이면 그냥 두고 진성 암이면 즉시 치료하면 될 텐데, 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발견된 모든 암을 치료하게 되는 알고리즘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br/> 일단 발견된 암을 치료하지 않고 두고 보는 것은 환자나 의사 모두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세한 초기 암을 찾아내는 첨단 검진 방법이 과잉 진단의 주원인이므로 어느 정도 ‘묵힌 암’을 찾는 검진법을 이용해야 한다든지, 선별 검사 프로그램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과잉 진단ㆍ치료의 대책으로 삼기에도 어째 명쾌하지 않다. 선별 검사 확대로 인한 암 발생률과 암 사망률의 감소는 의학적ㆍ보건학적 성과임이 분명하므로 선별 검사의 정책적 변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와 다양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br/> 이상적인 대안은 암 발견 시점에서 향후 예후를 예측하는 진단법을 개발하여 가성 암과 진성 암을 판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임상의학자들과 기초과학자들이 진단할 때에 채취한 암 조직의 유전체나 단백질체를 이용하여 이후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진단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연구 성과가 나와 이 난제(難題)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br/><br/>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95.txt

제목: 언론 외길 40년 老기자가 삶에서 건진 촌철살인 유머들  
날짜: 20140808  
기자: 장병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808100000118  
본문: 임철순 지음<br/>열린책들ㆍ352쪽ㆍ1만2,800원<br/> <br/><br/>격렬한 시기를 헤쳐 나온 자들에겐 일상의 신산들이 다소 헛헛해 보일 수도 있다. 40년을 현장 기자로, 이후로도 언론인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언론문화포럼 임철순(61ㆍ사진) 회장(전 한국일보 주필)에게 그러나 그것들은 여전히 진지한 관심사다. 우스개로 삶의 본질을 통찰하던 그가 ‘생활 밀착형 유머 에세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들고 나왔다. 헛바람을 빼기도, 넌지시 정곡을 찌르기도 하며 그가 동시대인들에게 참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세파를 건너 낼 힘이다.<br/>예를 들어 술자리의 빠트릴 수 없는 문화, 건배사에 대한 생각은 동시대와 그가 맺고 있는 미묘한 긴장을 대변한다. 우수마발처럼 된 건배사 ‘위하여’는 ‘위기를 기회로, 하면 된다, 여러분 힘내세요’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덤으로 ‘오바마’ 해프닝도 곁들인다. 어떤 조직의 간부가 기자들과 술 마시다 “<span class='quot0'>오빠, 바라만 보지 말고 멋대로 해</span>”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는데, 주흥이 도도해져 뱉은 그 말로 옷까지 벗어야 했다는 것. <br/>한창때의 성격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주는 ‘오바마’도 있다. “오늘도 바쁘게 마시자.” 눈썹 휘날리며 신문 제작 현장을 오가던 모습이 금방 잡힐 듯 하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주당들에게 충고하는 ‘오바마’는 이렇다. “<span class='quot1'>오직 바라보는 건 마누라뿐.</span>” 중진 언론인이 무심코 던져주는 골계에는 저렇듯 혼자 낄낄거리고 넘기기에는 아까운 생활의 ‘전략’들이 촘촘히 박혀있다.<br/>그는 인간적인 정과 슬픔이 담겨있는 유머를 실천해 오고 있다. 다음과 같은 지적은 그래서 더욱 쓰다. “<span class='quot1'>세월호 사고에 대처하는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서 ‘평소엔 유머 감각이 없고, 큰일이 닥치니 인정머리가 없구나’하고 생각했다.(6쪽)</span>”편집국 기자들과 어깨를 겯던 시절에는 본명을 음차(音借)한 애칭, ‘짤순’으로 더 잘 통했던 그다. 그만큼 치밀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의 흐름에 순응한다. <br/> 제법 나이가 들고 보니 걸핏하면 틀리고, 틀리고도 인식하지 못 하는 게 다반사가 되고 말았다는 정도가 아니다. 압권은 마감에 쫓겨 넘긴 ‘암철순’. “나도 갔구나, 갔어”라는 자괴, “<span class='quot1'>누구에든, 무엇에든 암적 존재는 되지 않아야겠다</span>”는 반성과 다짐이 그를 에워쌌다(134쪽) 한다. 저 같은 상념을 두고 인간미(人間味)라 한다면 저자의 박람강기함에 대한 폄훼일까.<br/><br/>장병욱 선임기자 aje@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96.txt

제목: "제2의 윤 일병 더 없게… 책임자 엄벌"  
날짜: 20140808  
기자: 정지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808100000106  
본문: 선임병들의 무차별적인 구타로 목숨을 잃은 육군 28사단 윤모(20) 일병에 대한 추모제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모씨는 추모제에서 “네 죽음을 통해 제2, 제3의 윤 일병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윤 일병과 또 다른 모든 윤 일병들을 위한 추모제’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에서 군인권센터와 군 자살자ㆍ의문사 유족들은 전면적인 군 개혁을 촉구했다.<br/>안씨는 추모제에서 “<span class='quot0'>엄마랑 통화할 때 귀띔해 줬으면, 네가 면회 오지 말라고 했을 때 미친 척 부대를 찾아갔더라면, 그러나 면화 안 된다는데 찾아가면 불이익이 갈까 봐 엄마는 주저앉고 말았다</span>”며 가슴을 쳤다. 그는 “<span class='quot0'>너의 안타깝고 슬픈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추모제에는 지난해 10월 상관의 계속된 성추행과 집요한 성관계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모 대위의 유족, 2011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육군 훈련소에서 급성 뇌수막염으로 숨진 노우빈 훈련병의 유족, 지난해 6월 암인데도 두통약만 처방 받다 사망한 신성민 상병의 유족 등이 함께 했다.<br/>이들은 억울한 죽음을 막지 못한 안타까움과 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1971년 의문사한 박병국씨의 형수 박금옥(62)씨는 “군에서는 애인이 변심해 자살했다고 했지만 휴가 때 ‘구타를 당하고 있다. 차라리 탈영해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고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수십년이 지나도 이런 죽음이 반복되는 게 안타까워 추모제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우빈 훈련병의 어머니 공순복(51)씨는 “우빈이가 죽은 이후 모든 병사들이 뇌수막염 예방 주사를 받게 됐다. 언제까지 사후 조치만 할 건지 모르겠다”고 오열했다.<br/>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오 대위의 큰아버지 규태씨는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이 철두철미하게 파헤치겠다고 약속하고 국정감사까지 했는데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군이 수사하고 재판하면 사건이 축소ㆍ은폐될 수밖에 없다. 군을 개방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br/>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span class='quot1'>윤 일병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 한 사람들을 찾아내 엄벌하는 것은 물론, 지금이라도 국방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고 군인권법과 의문사법을 제정하는 등 군인권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추모제에 참여한 수백명의 시민들은 보라색 종이비행기를 접어 국방부 담장 안으로 날려보냈다. 윤 일병의 몸 곳곳에서 발견된 멍자국과 같은 색깔의 종이비행기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취지다. <br/>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br/>한형직기자 hjhan@hk.co.kr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97.txt

제목: [임귀열 영어] Listening to Color?(색깔 얘기)  
날짜: 201407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30100000105  
본문: Word Play (재미있는 말)<br/> Listening to Color?(색깔 얘기)<br/> <br/> Green food라고 하면 싱싱한 채소를 암시하고 건강을 상징한다.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고루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진위와 상관없이 먹는 음식에 color를 대입하면서 소비자는 color food를 주저 없이 사먹고 공급자는 돈을 더 많이 번다. 최근에는 음식 외에 green energy가 등장했다. ‘Let’s go green’은 환경보호의 뜻으로 통한다. 탐욕(greed)을 상징한다는 green이 갑자기 별의별 좋은 의미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보면 모두가 color symbolism이고 color rhetoric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br/> 색깔이 인간의 보편 사고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문화 따라 사람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red를 놓고 중국인은 부자, 힘, 열정을 상상하나 일본인은 red가 happiness의 색이라고 본다. 여타 문화에서 yellow가 행복의 색으로 여겨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색채학에서는 평화를 선호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민족이 대개 beige나 ivory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한국인에게 적용되지는 않는 듯하다. 부처(Buddha)를 무슨 색으로 표현하느냐를 놓고도 티베트처럼 ‘푸른 하늘의 무한함’의 색 blue로 표현하는 곳도 있다. 승려 복장이 orange 색인 것을 두고 훗날 온갖 의미를 부여하지만 알고 보면 당시 이 색의 염색이 가장 저렴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소박함과 물욕의 탈피’라는 의미를 덧붙인다. <br/> 이슬람 문화에도 green이 자주 등장한다. Quran에도 나오고 의류나 쿠션 그리고 천당의 카페 색도 green이 많다. 힌두교에서 사프란(saffron)은 인간의 더러움을 태우는 불의 색이자 거룩한 색이다. 노란색은 지식과 배움의 색이고 green은 생명과 행복을, blue는 대양과 하늘의 영원을 각각 상징한다. 기독교에서는 red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며 희생을 의미한다. 흰색은 예수의 몸을 뜻하고 black은 죄의 색, gray는 재 가루와 회개의 색이다. purple은 포도주의 성찬식(liturgical) color로 강림(Advent)과 참회(Lent)의 계절을 뜻한다. <br/> 기분이 다운돼 있을 때 “I feel blue”, 화가 났을 때 “He saw red”라고 말하는 것도 나름 이치가 있어 보이지만 매우 작위적이고 자의적이다. 정치학에서는 Blue가 보수이고 Red가 권력과 진취성을 말한다는데 한국의 최근 정당 깃발에서는 그 반대로 표현되고 있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98.txt

제목: 암 진단 핵심기술 랩온어칩 국내 최초 상용화  
날짜: 201407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29100000020  
본문: 한국형 융합기술의 개척자로 불리는 (주)나노엔텍(대표 박진형)은 초소형정밀 기계기술(MEMS)과 바이오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한 나노단위의 Bio-MEMS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를 기반으로 실험, 연구, 의료용, 진단, 분석기기 및 관련 솔루션 개발을 사업영역으로 확보하고 있다. <br/> 특히 (주)나노엔텍의 핵심 플랫폼 중 하나인 랩온어칩(Lab-On-a-Chip)은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할 차세대 기술로 꼽히고 있다. 랩온어칩은 손톱만한 크기의 칩 하나로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반도체 제작기술, 미세광학 측정기술, 바이오센서기술, 통신, 제어기술 등 전문적인 기술력이 집적된 난해한 집적 플랫폼 중 하나이다. 플라스틱 소재나 유리에 머리카락의 수백분의 일 크기로 미세 채널을 제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극미량의 샘플이나 시료만으로 기존 실험 방법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암의 진단이나 임상 검사를 가장 빠른 속도로 스크리닝 할 수 있으며 향후 의료 부문 뿐 아니라 농업, 축산분야로까지 파급효과가 이어지는 차세대 NT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br/> 이 랩온어칩을 활용해 제품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은 국내에서는 (주)나노엔텍이 최초이다. (주)나노엔텍은 2020년까지 면역진단, 혈액세포진단, 동반진단, 임상화학진단 등 다양한 진단 분야로의 진출을 통해 소형진단의료기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언론사: 한국일보-1-999.txt

제목: 과잉진료 논란 속 갑상선암 진단 어떻게?  
날짜: 20140724  
기자: 권대익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1101.20140724100000009  
본문: “<span class='quot0'>증상 없으면 초음파검사 필요 없다</span>”는 초안 마련에 ‘3대 혼란’ 바로잡기<br/> <br/> “<span class='quot0'>갑상선암 증상이 없으면 이를 선별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span>”고 국립암센터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공동 주최한 '갑상선암 검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하지만 “수검자가 갑상선암 검진을 원하면 검진 득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뒤 검진을 실시하라”고 함께 권고했다. 검진을 받지 말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리송해 일반인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번 논란으로 불거진 혼란을 짚어보고 올바른 정보를 들어보자.<br/> <br/> 갑상선암, 착한 암? 아니다? <br/> 갑상선암은 진행 속도가 느리고 예후가 좋아 착한 암이 맞다. 단, 갑상선암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는 종양이 빨리 자라거나 예후가 좋지 않아 목숨을 잃기도 한다. 암세포의 성숙정도를 분화도라고 한다. 그래서 분화암과 미분화암으로 구분한다. <br/> 성숙이 비교적 잘 된 분화암은 정상세포를 많이 닮았고, 미분화암은 정상 세포와 거의 닮지 않고 미성숙한 형태다. 미분화암은 분화암보다 분열속도나 퍼지는 속도가 더 빠르고, 진단 시 이미 수술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진단 후 1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검진으로 확인하고 치료가 필수적이다.<br/> 위치가 좋지 않은 갑상선암도 착하다고 할 수 없다. 갑상선 암이 기도와 식도, 혈관, 림프절, 성대 신경 주위에 있다면 전이할 가능성이 높다. 폐로 퍼졌다면 호흡곤란, 각혈이 나타나며, 뼈로 퍼졌다면 쉽게 골절되거나 심하게 아프다. 척추신경을 압박하여 하반신 마비가 생길 수 있다. <br/> <br/> 갑상선암 검진,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br/> 증상이 없으면 검진하지 말라는 국립암센터 권고는 일반인 대상이다. 고위험군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갑상선암도 암이다. 한 해 300명이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만큼 갑상선암 발병 위험이 높은 이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갑상선암은 과거 방사선 치료를 한 적이 있다면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또한 소아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에 두경부 조사의 경험이 있다면 갑상선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과거 두경부 방사선 조사(照射)를 한 적이 있거나 소아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에 전신 방사선 조사를 했다면 갑상선암 고위험군이다. <br/> 가족력도 갑상선암의 주요 위험인자다. 부모가 갑상선 유두암이나 여포암을 진단받았다면 자녀에게서 갑상선암이 발생할 위험도는 아들에서 7, 8배, 딸에서 2.8배 증가한다. 특히 가족성 갑상선암은 일반 갑상선암보다 예후가 좋지 않다. 가족성 갑상선 수질암은 RET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해 나타난다. 따라서 환자가 가족성 갑상선 수질암으로 판명되면 모두 유전자 검사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고위험군은 꼭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br/> <br/> 갑상선암 수술, 해야 한다? 미뤄야 한다? <br/> 정부에서 발표한 검진 권고안은 무증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 갑상선 종양이 진단된 환자가 자신의 검진에 회의적인 마음을 갖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span class='quot1'>이미 갑상선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학계가 정립해 높은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한다</span>”고 했다. <br/> 그러면 치료 관련 지침은 어떨까? 0.6~1㎝ 갑상선암은 측면 림프절 전이와 원격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추적 관찰보다 수술이 권유된다. 1㎝ 이상은 수술을 시행한다. 0.5㎝ 이하라면 주위 림프절로 진행된 흔적이 발견되거나 초음파 상 악성을 시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미세침 세포검사 자체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br/> 하지만 0.5㎝ 미만이라도 결절이 기도, 식도, 혈관, 림프절, 성대 신경 주위에 있다면 수술해야 한다. 크기가 1㎝ 미만의 작은 갑상선암도 이후 예후가 좋지 않거나 암이 전이돼 공격적인 양상을 보일 것인지를 예측할 방도가 없다. 따라서 단순히 크기만으로 수술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br/> 박해린 강남차병원 외과 교수(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총무이사)는 “<span class='quot2'>암은 다른 질병보다 의외성이 많고, 크기가 작아도 전이가 생길 수 있고, 같은 크기의 종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상황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span>”고 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span class='quot3'>획일된 기준을 가지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수술 등의 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의와 충분한 논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했다.<br/> 권대익기자 dkwon@hk.co.kr